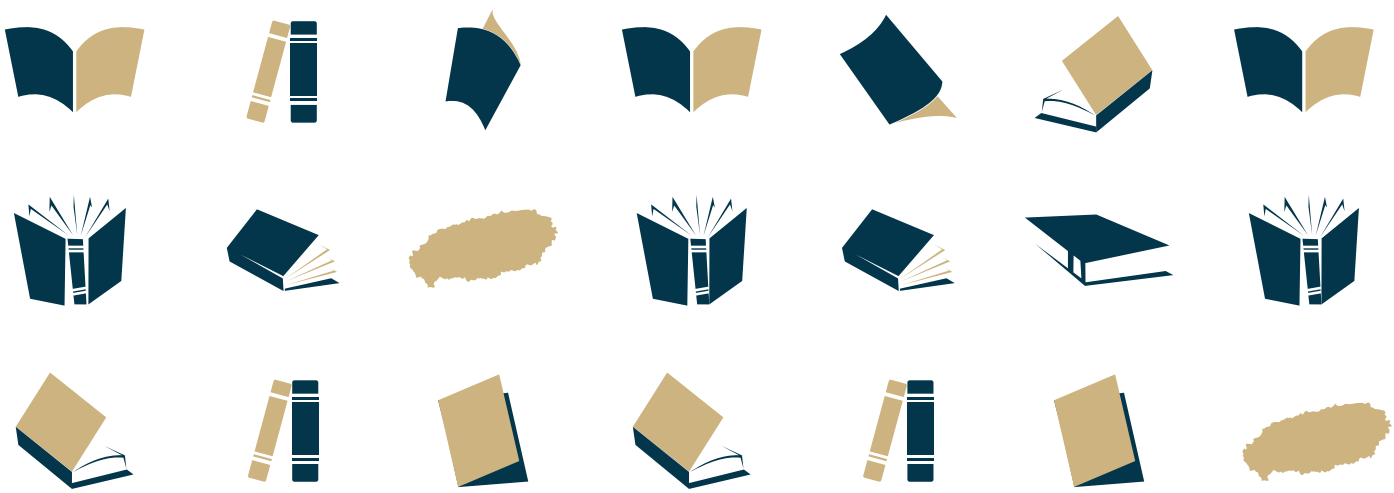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79-6500000-000659-01

제주어 구술 주석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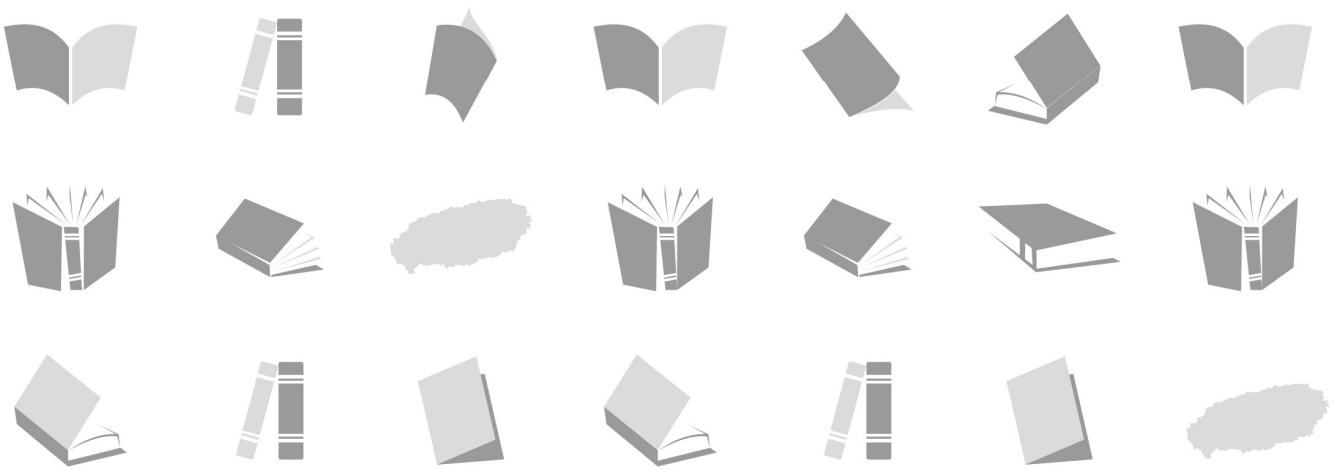
제주학연구센터 편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제주어 구술 주석 자료집

제주학연구센터 편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36 애월읍 봉성리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35 한림읍 대림리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34 대정읍 구억리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33 대정읍 안성리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32 안덕면 덕수리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31 서귀포시 토평동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30 제주시 노형동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9 제주시 외도동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8 애월읍 구엄리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7 한림읍 옹포리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6 한경면 신창리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5 남원읍 태흥리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4 표선면 세화리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3 성산읍 온평리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2 제주시 우도면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1 조천읍 신촌리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0 애월읍 고내리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9 한경면 청수리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8 대정읍 신도리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7 안덕면 대평리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6 서귀포시 하원리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5 남원읍 수망리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4 표선면 성읍2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3 성산읍 삼달2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2 구좌읍 한동리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1 조천읍 함덕리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0 한림읍 월령리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9 한경면 고산리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7 서귀포시 보목동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8 안덕면 동광리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6 남원읍 남원리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5 표선면 표선리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4 성산읍 고성리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3 구좌읍 송당리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 조천읍 선흘1리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 제주시 도련1동

발간사

반짝반짝 빛나는 제주어 찾아 정리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조사 사업의 대장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2020년을 끝으로 제주의 36개 마을에 대한 제주어 조사, 전사, 표준어 대역 작업을 마무리하여 《제주어 구술 자료집》 36권을 완성하였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에 그간의 주석 자료를 정리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주석 자료집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36개 마을에 대한 현장 조사와 제주어 전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36개 마을의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제주어 구술 자료집》 36권을 발간했습니다. 이 작업에 참여한 여러 선생님들이 작성한 각주 자료를 모아 순서대로 정리하여 만든 것이 바로 《제주어 구술 주석 자료집》입니다.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거나,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할 때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제주어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나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어휘에 설명을 덧붙여 작성한 것입니다.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는 자료도 있지만, 이 주석 자료집에는 새로운 어휘들도 많이 실려 있어 《제주어사전》 발간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주석 자료집은 제주어로 구술해 주신 113명의 어르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제주어를 찾아 정리해 주신 13명의 연구진의 노고가 배어 있습니다. 1차 조사 작업을 책임지고 진행했던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과 더불어 이 자료들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수정하는 데 힘써 준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연구팀 식구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제주어 보존과 발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제주어 화자의 발화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돌아옵니다. 이런 이유로 제주어 조사를 위해 현장에 나가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모쪼록 제주어 구술 조사 작업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라며 이 자료집을 통해 제주어의 참맛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 12. 30.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일러두기

1. 이 각주 자료집은 제주학연구센터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한 ≪제주어 구술 자료집≫(1~36권)에서 연구진이 작성한 각주를 모아 용례를 추가하고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2. ≪제주어 구술 자료집≫의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에 작성하였다.

3. 각주의 내용은 13명의 연구진이 작성한 뜻풀이를 가급적 따랐으며 의미상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을 가했다.

4. 각주 자료집의 표제어는 가능한한 제주어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1) /ㅐ/와 /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표제어는 어원을 밝힐 수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 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주어사전≫을 기준으로 하나로 통일하였다. 사전에 둘 다 수록돼 있으면 2음절 이하는 'ㅔ'로 통일하였다.
      예) 잠대/잠데→잠데, 대베기/대배기→대베기, 당캐/당케→당케
   2) 표제어에서 'ᄒᆞ다, 허다'의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는 ≪제주어 구술 자료집≫의 구술 내용에 따라 표기하였다.
   3) '부사, 부사+-허다' 형태는 쓰임이 다르므로 각주로 나온 것을 모두 제시하였다.
   4) ≪제주어사전≫에 있는 단어이거나 표준어형과 동일한 경우라도 연구진이 각주로 작성한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시하였다.
      예) 달루다: 가루나 흙 따위에 물을 부어 반죽하다라는 의미의 '이기다'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그걸 문작이 달롸.(그걸 반드럽게 이겨.) 16 [하원] **→제주어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
      예) 다습: 소의 나이 다섯 살을 말한다. 달리 '다숩'이라고도 한다. // 다습, ᄋᆞ습. 두 ᄉᆞᆯ까진 다간. 그다음 사릅. 세 ᄉᆞᆯ이면 사릅.(다습, 여습. 두 살까진 다간. 그다음 사릅. 세 살이면 사릅.) 36 [봉성] **→표준어와 동일한 어형**

5. 용례는 ≪제주어 구술 자료집≫의 각주로 표시된 것을 가져왔으나, 하나의 단어로 간략히 제시되거나 조사자의 발화인 경우는 다른 용례를 찾아 추가하였다. 동일 지역의 용례는 2개로 제한하였다.

6. 각주 용례 앞에는 '//' 표시를 하여 구분하였다. 출처는 '01, 02'와 같이 제시하였다.
   예) 《제주어 구술 자료집 1, 2017》 도련1동 → 01 [도련]

7. 조사 지역 표시는 마지막에 대괄호([ ])로 묶어 가나다순으로 제시하였다. 연구진이 각주로 작성한 모든 내용을 실을 수 없어 용례는 4개까지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지역명]에만 제시하였다. 단, 본문에는 있으나 각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지역명이 빠져 있을 수도 있다.
   예) **고지기: 모자반의 일종으로 주로 거름으로 사용한다.** // 걸름헐 … 01 // 바당에 …07 //고지기도 … 13 //~~고지기도 … 15~~//고지기 ᄌᆞ물아다근에 … 23 // 저기 ᄆᆞᆯ망, ᄆᆞᆯ망, 고지기. … 31 // ~~고지기 … 34~~[구억, 도련, 보목, 삼달, 수망, 온평, 토평]

8. 각주에 나와 있는 일본어 등의 외래어는 원어를 밝혀 제시하였다. 외국어의 발음에 따른 차이는 가급적 대표 발음으로 제시하고, 설명에서 변이형을 제시하였다.

9. 연구진이 각주로 작성한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은 제외하였다.
   1) 현재 판매되는 상품의 이름은 삭제하였다.
      예) **미원: 맛을 내기 위한 조미료의 상품명이다.** // 미원이라도 ᄒᆞ꼼 놓고 아무 다시다라도 쪼끔 놓곡 허민.(미원이라도 조금 넣고 아무 다시다라도 조금 넣고 하면.) 11 [함덕]
   2) 지명 중 현재의 시, 읍면동,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을 각주로 작성한 것은 삭제하였다.

〈제주어 구술 자료집 일람〉

번호	조사 지점	구술 제보자	연구진	연도
1	제주시 도련1동	양상수, 이술생, 이영숙, 김옥순, 이성칠	김순자	2017
2	조천읍 선흘1리	조수용	김미진	2017
3	구좌읍 송당리	김수생, 김민순	김선희	2017
4	성산읍 고성리	김두하, 정계춘	김승연	2017
5	표선면 표선리	고옥년, 송봉휴	허영선·김순자	2017
6	남원읍 남원리	고영주, 정갑선	김보향	2017
7	서귀포시 보목동	강진우, 김금전, 양정상, 이정선, 현원후, 한승옥	최연미	2017
8	안덕면 동광리	홍춘호, 신원홍, 고희정	김성용	2017
9	한경면 고산리	김인세, 이영형, 이술색	신우봉	2017
10	한림읍 월령리	강춘랑, 고상춘, 양창부, 문국자	안민희	2017
11	조천읍 함덕리	한아섭, 이용진	김미진	2018
12	구좌읍 한동리	오문봉, 오태봉	김보향	2018
13	성산읍 삼달리	김해생	김미진	2018
14	표선면 성읍리	송순원, 이미생, 현신생	김순자·허영선	2018
15	남원읍 수망리	김상옥, 김두천, 현금옥, 김승남, 고신화	최연미	2018
16	서귀포시 하원동	김기연, 오연옥	김승연	2018
17	안덕면 대평리	강인숙, 양성지	김성용	2018
18	대정읍 신도리	변동휘, 이부자, 유순옥, 박창임, 김희옥, 진옥열	신우봉	2018
19	한경면 청수리	문창립, 강성현, 강대흥, 이오생, 오옥희, 김춘선, 강영래, 고성이, 박성요, 오행순	안민희	2018
20	애월읍 고내리	고두규, 장윤삼, 고원방	김보향	2018
21	조천읍 신촌리	김옥녀, 이명언	안민희	2019
22	제주시 우도면	한두영, 고옥녀, 홍한옥	김승연	2019
23	성산읍 온평리	송옥금, 강문홍, 강백년	김순자·허영선	2019
24	표선면 세화리	강필문, 고옥화, 송인생, 장술생, 강기수, 김정자, 현봉화, 김양선	최연미	2019
25	남원읍 태흥리	오윤생	김미진·권미소	2019
26	한경면 신창리	진인중, 이순녀	김보향	2019
27	한림읍 옹포리	장경욱, 양순자, 장정자, 김화원	신우봉	2019
28	애월읍 구엄리	김여환, 홍창자	김성용	2019
29	제주시 외도동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이옥희, 강옥자, 고창휘	김순자·허영선	2020
30	제주시 노형동	문춘자, 현춘화	안민희·김보향	2020
31	서귀포시 토평동	조풍자, 김수절, 양성아	김보향	2020
32	안덕면 덕수리	양기옥, 김동권	김순자·최연미	2020
33	대정읍 인성리	정인춘	김미진·권미소	2020
34	대정읍 구억리	강영지, 임춘자	김성룡	2020
35	한림읍 대림리	김한보, 홍국진	문덕찬	2020
36	애월읍 봉성리	강규방, 김화자	고창근	2020

차례

발간사 ····· 3
일러두기 ····· 4
제주어 구술 자료집 일람 ····· 6

ㄱ ····· 9
ㄴ ····· 115
ㄷ ····· 144
ㄹ ····· 224
ㅁ ····· 225
ㅂ ····· 300
ㅅ ····· 373
ㅇ ····· 474
ㅈ ····· 559
ㅊ ····· 638
ㅋ ····· 658
ㅌ ····· 670
ㅍ ····· 685
ㅎ ····· 705

ㄱ

가가리: 일본어 'がかり'에서 온 말이다. 담당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이녁 가가리가 다 잇어이.(자기 담당이 다 있어.) 11 [함덕]

가꼬: 일본어 'かっこう'에서 온 말로 '모양'의 의미이다. // 가꼬를 지게문 닮지 아녕 문 가꼬를 크게 헨에 ᄃᆞᆯ아근에 크게 밀장두께비엔 헌 집이 잇어낫어. 밀장두께비.(모양을 지게문 같지 않아서 문 모양을 크게 해서 달아서 크게 '밀장두께비'라고 한 집이 있었었어. '밀장두께비'.) 14 [성읍]

가남: 표준어 '과만(過滿)'의 뜻으로 말하는 대상을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비판하고 있다. // 게난 그 사름은 이제 가남 봉사 뒈수다.(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가남' 봉사 됐습니다.) 22 [우도]

가다: 일본어 'かた'에서 온 말이다.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인 '모양'을 말한다. // 손으로도 지름떡 가다, 가다 헤 가지고 그걸로 지름떡 가다 헤 가지고 영 허영 수제비 멩글 때에 영 그 칼국수 멘들 때 영 밀잖아.(손으로도 기름떡 모양, 모양 해 가지고 그걸로 기름떡 모양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제비 만들 때에 이렇게 그 칼국수 만들 때 이렇게 밀잖아.) 01 // 지름떡은 그냥 무 가다로 헹 바위 안헤. 납작허게만 헹 요만이 헹 지름에 튀경.(기름떡은 그냥 무 모양으로 해서 가장자리 안 해. 납작하게만 해서 요만큼 해서 기름에 튀겨서.) 20 // 똑 그 가다로. 그추룩 헹 비 온 날은 물 이만인 허민 그거 영 영 신어근에 소 메믄 소 촐 주레도 가고.(똑 그 모양으로. 그처럼 해서 비 온 날은 물 이만큼 하면 그거 이렇게 이렇게 신어서 소 매면 소 꼴 주러도 가고.) 20 // 요렇게 가다가 뒌 거니까.(요렇게 모양이 된 거니까.) 23 [고내, 도련, 온평, 표선]

가다: 일본어 'かた'에서 온 말이다. 옷 따위를 만들 때에 쓰기 위하여 본보기로 만든 실물 크기의 물건인 '본'을 말한다. // 기냥이 이젯 옷은이 막 가다 놩 영 뜨는디.(그냥 이제 옷은 막 본 놔서 이렇게 뜨는데.) 11 // 우의 거는 ᄃᆞ시 광목 짤라당은에 저 우의 거를 저 어디 간 가다 떠다근에 가다 놩은에 ᄆᆞᆯ라근엥에 그걸로 저 저 물 들여근엥에. 물 들여근에 우의 건 입곡.(위의 거는 다시 광목 잘라다가 저 위의 거를 저 어디 간 본 떠다가 본 놓아서 마르고 그걸로 저 저 물 들여서. 물 들여서 위의 건 입고.) 32 [덕수, 함덕]

가다마이: 일본어 'かたまえ'에서 온 말이다. 우리말로 양복 상의를 말한다. // 것도 막 비싼에 두 불 헤여 오난에 저 큰아덜 ᄒᆞᆫ 빌 족은아덜 ᄒᆞᆫ, 저 하나 허연에 두 개 허여 오난에 저 큰아덜은 입언 뎅겸시난 가다마이 ᄒᆞᆫ 빌에 바꾸겐 헤여렌마씸게.(것도 막 비싸서 두 벌 해 오니까 저 큰아들 한 벌 작은아들 한, 저 하나 해서 두 개 해 오니까 저 큰아들은 입고 다니고 있으니까 양복 한 벌에 바꾸자고

했대요.) 32 [덕수]

가달: 가달은 원래 '다리, 가랑이'의 뜻이나 여기서는 아이들이 서로 잡으려고 쫓고, 이리저리 피해 달아나며 뛰노는 장난인 '가댁질'을 말한다. // 모멀 홀 때 질르멍덜 버덕 덜싹덜싹 가달 ᄒᆞ멍덜, 그 모멀들 문딱 ᄒᆞ여근에 때려 놓민 모멀 그때 옛날도 모멀 하영 헷수다.(메밀 할 때 지르면서들 '버덕' '덜싹덜싹' 가댁질 하면서들 그 메밀들 모두 해서 때려 놓으면 메밀 그때 옛날도 메밀 많이 했습니다.) 08 [동광]

가도: 일본어 'かど'로 모퉁이를 말한다. // 영 돌아가는 가도에 거기 잇엇고.(이렇게 돌아가는 모퉁이에 거기 있었고.) 12 [한동]

가동가세: 동쪽도 가하고 서쪽도 가하다는 '가이동가이서(可以東可以西)'의 준말이다. '이렇게 할 만하고, 저렇게 할 만하다'는 뜻이다. // 쏠도 둬 뒈 아저 가고, 가동가세에 맞게 것도.(쌀도 두어 되 가져가고, 가동가세에 맞게 그것도.) 02 [선흘]

가라: '가라말'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가라말'은 털 색깔이 온통 검은 말을 말한다. // 일 가라엔 헌 거는 가라ᄆᆞᆯ이 젤 센다는 거주.(일 '가라'라고 한 거는 가라말이 젤 세다는 거지.) 14 [성읍]

가라ᄆᆞᆯ: 표준어 '가라말'을 가리키는 제주어이다. '가라말'은 털 색깔이 온통 검은 말을 말한다. // 가라ᄆᆞᆯ은이 건 거무룽, ᄉᆞᄆᆞᆺ 검도 안허고 희도 안 헌 거.(가라말은 건 거무스름, 사뭇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안 한 거.) 02 [선흘]

가라스: 영어 'glass'의 일본어식 발음 'ガラス'로 유리를 말한다. // 그건 가라스 쪼그만허게 헤근에가 옛날에 창문에 영 부찌긴 부쪄낫저, 그거.(그건 유리 조그마하게 해서 옛날에 창문에 이렇게 붙이긴 붙였었어, 그거.) 12 [한동]

가레기: 물레로 실을 자을 때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인 '가락'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가라기'라고도 한다. // 가레기, 가레기허고 저 뭔가 물레 놔 가지고 가레기에 놔 가지고 그것에 씰 헤 가지고 씰 만들엉 가레기 톡 헤 가지고 이걸 둘렁 이걸 잡아댕겨 가면 이렇게 빵으면.(가락, 가락하고 저 뭔가 물레 놔 가지고 가락에 놔 가지고 그것에 실 헤서 실 만들어서 가락 톡 해 가지고 이걸 둘러서 이걸 잡아당겨 가면 이렇게 빵으면.) 09 // 가레기로 요 물레로 헹은에 요고 쒜로 헹은에, 아 줄로, 노끈으로 헹은에 영 잇주게.(가락으로 요 물레로 해서 요거 쇠로 해서, 아 줄로, 노끈으로 해서 이렇게 있지.) 24 [고산, 세화]

가레기쉐: 벼를 훑는 기구인 '그네'를 말하는데 '가레기클' 또는 '나록클'이라고도 한다. // 호미로 비어 가지고 그거는 무꺼당 집이 오라근에 거 가레기쉐 영 헌 거 게 헤서 홀트주게. 홀탕 도깨로 두드려야 뒈어. 것도.(낫으로 베어 가지고 그거는 묶어다가 집에 와서 거 '가레기쉐' 이렇게 한 거 해서 훑지. 훑어서 도리깨로 두드려야 돼. 것도.) 19 [청수]

가루에기: 실의 두 끝을 맞매어서 양쪽 손가락에 얽어 두 사람이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꼴을 만드는 놀이인 실뜨기 놀이를 말한다. // 손가락 영 찔렁게 영 찔렁 영 허민 가루에기.(손가락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하면 '가루에기'.) 13 [삼달]

가르르허다: 가루나 밥 따위가 찰기가 없어 뭉쳐지지 않고 흩어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경허난 거 넘치민 순두부국이 안 닮아, 가르르헤 불어.(그러니까 그거 넘치면 순두부국이 안 같아, '가르르헤' 버려.) 11 // 골ᄀᆞ룰 놓면은 가르르헤여, 것이, 막 물 뒈여와, 얼른.(엿기름가루를 놓으면 '가르르헤여', 그것이, 막 물 되어, 얼른.) 11 // 식어사 벙뎅이지주, 식지 안헌 때 벙뎅이 안 지고 저 가르르헤근에. 게민 애기들 그거 먹으민 그대로 나와. 소화가이.(식어야 덩어리지지, 식지 않을 때 덩어리 안 지고 저 '가르르해서'. 그럼 아기들 그거 먹으면 그대로 나와. 소화가.) 31 [토평, 함덕]

가르륵허다: 죽이나 반죽 따위가 보통 정도에 비하여 물기가 많다는 뜻이다. // 이 죽어가는 환자는 가르륵허게 뭐 못 ᄂᆞ려우난에 그걸 거려놔도 그냥 보통 사름 먹는 건 좀 ᄑᆞᆯᄑᆞᆯ. 폴폴헌 거 알아집니까?(이 죽어가는 환자는 '가르륵허게' 뭐 못 내리니까 그걸 떠놔도 그냥 보통 사람 먹는 건 좀 폴폴. 폴폴한 거 압니까?) 14 // 물 바싹 데불게 헤영, 재류 밥이나 아무나 영 놓아근엥에 그 물 드듯ᄒᆞᆯ 때예 누룩 놩 나두민 부각ᄒᆞ게게 궤민 나두민, 기자 가르륵허게시리 그 뒌 것에서 막 문대비어.(물 바싹 뜨겁게 해서, 재료 밥이나 아무거나 이렇게 놓아서 그 물 따뜻할 때에 누룩 넣어서 놔두면 보각하게 끓으면 놔두면, 그저 '가르륵허게시리' 그 된 것에서 막 문대어.) 15 // 모물죽은 무신 모물 ᄒᆞᆯ, 저 ᄉᆞᆯ 놔두건이 싹 궤민 뒈는 거난 불 괄앙헤도, 물 하베여도 얄루민 가르륵헤벼도, 시민 불어졍.(메밀죽은 무슨 메밀 조금, 저 쌀 넣어두면 싹 끓으면 되는 거니까 불 센 듯해도, 물 많은 듯해도 묽으면 '가르륵'한 듯해도 있으면 불어서.) 15 // 그 잘못 끓이면은 올라오는 것도 없곡 가르륵헤영 기자 물 뒈어 불주. 기자 국 뒈 병.(그 잘못 끓이면 올라오는 것도 없고 '가르륵해서' 그자 물 되어 버리지. 그저 국 되어 버려서.) 23 [성읍, 수망, 온평]

가르삭삭: 표준어 '산산이'에 대응하는 부사어로 이리저리 흩어지는 모양을 말한다. '가로삭산'이라고도 한다. // 서툰 사름 빈 거는 놓민 가르삭삭 헤 불고.(서툰 사람 벤 거는 놓으면 산산이 해 버리고.) 32 [덕수]

가름: 실을 빼서 뭉텅이가 되게 감아놓은 것을 말한다. '가림'이라고도 한다. // 물레에 감앙인에 이젠 이디서 물레 영영 들르멍 실을 ᄒᆞ는 어른은 이걸로 짜륵짜륵허믄 이디서 물레 감곡 그추룩 허영 가름 짓주게. 가름 짓어.(물레에 감아서 이젠 여기서 물레 이렇게 이렇게 둘르면서 실을 하는 어른은 이걸로 '짜륵짜륵'하면 여기서 물레 감고 그처럼 해서 '가름' 짓지. '가름' 짓어.) 33 // 가름 짓은 거? 실가림이엔 허주.('가름' 지은 거? '실가림'이라고 하지.) 33 [인성]

가름밧: 마을 안에 있는 밭으로 '거리왓', '가름팟'이라고도 한다. // 가름밧, 가름밧 허멍

이 걸름 하영 아져 뎅기고, 이 ᄆᆞ쉬 지르는 사름덜 쉐걸름, ᄆᆞᆯ컬름 하영 아져 뎅경 우잣듸 쉐도 메고 ᄆᆞᆯ도 메 놓민 쉐 오줌, ᄆᆞᆯ 오줌이 건 거라이.('가름밧', '가름밧' 하면서 이 거름 많이 가져 다니고, 이 마소 기르는 사람들 소두엄, 말거름 많이 가져 다녀서 텃밭에 소도 매고 말도 매 놓으면 소 오줌, 말 오줌이 건 거야.) 25 [태흥]

가름지: 동네 근처에 있는 밭을 말한다. // 가름지에 좋은 밧이문 그때ᄁᆞ지 갈고 경 아년 건 칠월 ᄒᆞᆫ 초승에.('가름지'에 좋은 밭이면 그때까지 갈고 그렇지 않은 건 칠월 한 초순에.) 22 [우도]

가름팟: 마을 안의 밭으로 기름지고 관리가 잘된 밭을 말한다. '가름'과 '밧'의 합성어로 '거리왓'이라고도 한다. // 조코고리도 요만씩벳긔 안 허고 밧 좋은 디는 고고리가 이만씩. 이만씩 하는디. 가름팟쯤은 이만씩.(조 이삭도 요만씩밖에 안 하고 밭 좋은 데는 이삭이 이만씩. 이만씩 하는데. '가름팟'쯤은 이만씩.) 05 // 겉보리는 또 이제 우리 가름팟보단 못헌 밧디 겉보리를 갈앗주게.(겉보리는 또 우리 '가름팟'보단 못한 밭에 겉보리를 갈았지.) 12 // 웃드르 밧듸 모인조 ᄇᆞᆯ리민 케삭케삭허고, 이제 가름팟듸 밧 신 사름은 그 좋은 조헹 ᄇᆞᆯ리민 츠근츠근허고.(중산간 밭에 메조 재배하면 '케삭케삭'하고, 이제 '가름팟'에 밭 있는 사람은 그 좋은 조해서 재배하면 '츠근츠근'하고.) 13 // 검질도 마찬가지라. 두 번. 목장은 두 번 메고 가름팟은 세 번 메여.(김도 마찬가지야. 두 번. 목장은 두 번 매고 '가름팟'은 세 번 매.) 14 [삼달, 성읍, 송당, 태흥, 표선, 한동]

가리석: 밭을 갈 적에 쇠머리에 씌워진 긴 고삐를 말한다. // 그 바로 가게 ᄒᆞ는 것ᄀᆞ라 가리석이라고 헤서.(그 바로 가게 하는 것보고 고삐라고 했어.) 04 [고성]

가리웨기: 모종의 순이 하나로 올라오지 않고 두 개로 갈라진 것을 말한다. // 겡 나믄 이것도 소깡은에, 나중에는 가리웨기 다 메 불고, 겡 이제 하나썩만 존 걸로 냉겻당 허믄, 이것이 약만 잘 허껑, 얼른 커마씨.(그렇게 나면 이것도 솎아서, 나중에는 '가리웨기' 다 매 버리고, 그렇게 이제 하나씩만 좋은 것으로 남겼다 하면, 이것이 약만 잘 섞어서, 얼른 커요.) 28 [구엄]

가린석: ① 소를 몰거나 부리려고 소의 좌우 뿔에 잡아맨 두 가닥의 기다란 줄을 말한다. ② 소의 머리 왼편으로 씌워진 긴 고삐를 이른다. 지역에 따라 왼쪽 고삐를 '가린석', 오른쪽 고삐를 '부림패'라고도 한다. // 거 ᄒᆞ연근에 장기에 줄마 메여근에 가린석 ᄒᆞ영 양펜의 장기, 두 줄 ᄒᆞ여근에 이젠 멍에레 얽어다근에 줄마 멥주게.(그거 해서 쟁기에 잘라매어서 '가린석' 해서 양편에 쟁기, 두 줄 해서 이젠 멍에로 얽어다가 잘라매지요.) 17 // 겐디 것이 세 설, 아부지 밧 갈당 장기 영헹 놔두민이 그 쉐 영헤영 쉬왕, 밧 갈당 쉬왕. 두 번을 경 아기가 양지머리 영 잡앙이 그 가린석으로 착 허민 쉐 가잖아?(그런데 것이 세 살, 아버지 밭 갈다가 쟁기 이렇게 놔두면 그 소 이렇게 쉬게 해서, 밭 갈다가 쉬게 해서. 두 번을 그렇게 아기가 양지머리 이렇게 잡아서 그 '가린석'으로 착 하면 소 가잖아?) 30

// 일로 ᄃᆞᆼ기믄 일로 돌아오곡 일로 ᄃᆞᆼ기믄 일로 돌아오곡, 가린석.(이리로 당기면 이리로 돌아오고 이리로 당기면 이리로 돌아오고, '가린석'.) 32 // 그, 코 꿰면은, 그, 부림패, 가린석을 코로 허영 멀 대가리로 허영 코로 연결헹, 저 뒤ᄁᆞ지 가낫지. (그, 코 꿰면은, 그, '부림패', '가린석'을 코로 해서 뭘 머리로 해서 코로 연결해서, 저 뒤까지 갔었지.) 36 [구엄, 노형, 덕수, 대림, 대평, 봉성, 선흘, 외도]

가림: 실 뭉텅이에서 몇 올을 한 가닥으로 하여 갈라낸 것을 말한다. // 게믄 그레 씰 감아 근에 나뒷당 쓰곡, 씰 가림 영 ᄒᆞ민 씰 ᄆᆞᆫ 써지민 ᄯᅳ시 욜로 영 ᄒᆞ영 발에 감아 두서 씰 감아.(그러면 그리 실 감아서 놔뒀다가 쓰고, 실 '가림' 이렇게 하면 실 모두 쓰면 다시 여기로 이렇게 해서 발에 감아둬서 실 감아.) 17 // 이만씩 가림으로 영 나오면은 이젠 그걸 어떵 ᄒᆞ느냐 ᄒᆞ면은 나뒷당 모동이로 감아, 다, 그 멩지씰을양.(이만큼씩 '가림'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놔뒀다가 몽당이로 감아, 다, 그 명주실을요.) 17 [대평]

가릿가릿: 잎 따위가 여러 갈래로 갈라진 모양이다. // 가릿가릿헌 거 보리낭에 올라오는 거.('가릿가릿'한 거 보릿대에 올라오는 거.) 07 // 검은 흐린조는 건 우리 그냥 펭균 조나 ᄀᆞ트는디 노랑헌 흐린조는 요 끗겡이가 가릿가릿헤여, 가려. 끗겡이가 좁쏠이.(검은 차조는 그건 우리 그냥 평균 조나 같은데 노란 차조는 요 끄트머리가 '가릿가릿'해, 갈려. 끄트머리가 좁쌀이.) 25 [보목, 태흥]

가마구보말: '가마귀보말'로 껍데기가 까마귀와 같이 유난히 검은 다슬기 종류 중 하나이다. // 가마구보말이니 머니 머 갯것디 것덜은 전부 다.(가마귀보말이니 뭐니 뭐 갯가에 것들은 전부 다.) 22 [우도]

가마귀폭남: 나무의 한 종류이다. 곧게 뻗어 있어서 초가집의 '거왕'을 할 때 사용한다. // 가마귀폭남 거튼 거 저 ᄀᆞᆺ디 가면 그 뭐인가 가시낭 거튼 거 그런 거 헤 가지고 헌다. 이 잡나무 같은 건 잘 곧게 난 게 잘 엇주게.('가마귀폭남' 같은 거 저 가에 가면 그 뭐인가 가시나무 같은 거 그런 거 해 가지고 한다. 이 잡나무 같은 건 잘 곧게 난 게 잘 없지.) 12 [한동]

가마리: 표선면 세화리를 말한다. // 겡인 저 가마리 저 바닷가에벳긔 겡이가 엇어.(게는 저 '가마리' 저 바닷가에 밖에 게가 없어.) 24 // 표선이 가기 전에 가마리옌 헌 디 잇지 안 허우꽈?(표선에 가기 전에 가마리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34 [구억, 세화]

가마물: 조천읍 신촌리의 용천수 중 하나이다. // 가마물이 맛좋지. ᄃᆞᆫ물은 깨끗헤도 찝찌룽허여.('가마물'이 맛좋지. 단물은 깨끗해도 짭조름해.) 21 [신촌]

가막창신: '검정가죽신'을 말한다. 주로 여자들이 시집갈 때 신는 신으로, 밑창에 징을 박고 운두는 얕고 코는 뾰족하게 만든다. '가막+창신'의 구성으로 '가막'은 '가맣다', '창신'은 가죽신을 말한다. // 게난 우리 어머니가 그 가막창신을 신엉 왕 놧단에

씨집갈 때 나를 신져 주더라고.(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가막창신'을 신고 와서 놨다가 시집갈 때 나를 신겨 주더라고.) 14 // 경은 허여도 지금 가막창신이엔 헌 건 이디가 가망허여 유단으로 허곡. 바닥은 가죽.(그렇게 해도 지금 '가막창신'이라고 한 건 여기가 가매서 유단으로 하고. 바닥은 가죽.) 20 // 가막창신이엔 헌 건 옛날 그 저 새스방덜 주로 큰신 신엉 허는 거, 것ᄀᆞ라 가막창신이엔 허주.('가막창신'이라고 한 건 옛날 그 저 새신랑들 주로 큰신 신어서 하는 거, 것보고 '가막창신'이라고 하지.) 23 // 씨집갈 때는 가막창신이 웬 말이더냐. 가막창신 신엉, 신엉은에 씨집을 가졈구나. 경헌데 그거 신엉 생전 신는 게 아니고 결혼헐 때만 신어.(시집갈 때는 '가막창신'이 웬 말이더냐. '가막창신' 신어서, 신어서 시집을 가는구나. 그런데 그거 신어서 생전 신는 게 아니고 결혼할 때만 신어.) 29 [고내, 선흘, 성읍, 온평, 외도, 태흥]

가맛접: 가마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계를 말한다. // 동네마다 접이, 가맛접이엔 헌 게 잇어. 접꾼. 동네에서 멧 사름씩 동아리헤서.(동네마다 계가, '가맛접'이라고 한 게 있어. 계원. 동네에서 몇 사람씩 동아리해서.) 14 [성읍]

가메창: 오름의 분화구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이 영 오름이주만은 그 가운디 한라산ᄀᆞ치 옴막ᄒᆞᆫ 데 잇어. 그듸를 가메창이라고 허여.(이 이렇게 오름이지만 그 가운데 한라산같이 '옴막한' 데 있어. 거기를 '가메창'이라고 해.) 18 [신도]

가문반: 혼례를 치르는 전날에 가까운 친척끼리 잔칫집에 모여 치르는 간단한 잔치 때 친척들에게 대접하는 고기 반기를 말한다. 주로 작은창자 따위의 허드레 고기를 내놓는다. // 가문반이렌 헤영 세 갠가 네 갠가 요만씩 헌 거 놓민 그거 먹으러 저녁 때 오널 저녁에 가문에서만 먹는 반.('가문반'이라고 해서 세 갠가 네 갠가 요만씩 한 거 놓으면 그거 먹으러 저녁 때 오늘 저녁에 가문에서만 먹는 반기.) 05 // 요멘썩 수웨 ᄒᆞᆫ 점 놓곡 도새기 귀 헤근에 ᄒᆞᆫ 점 놓곡, 헤근에 오만 거 베설 ᄒᆞᆫ 점 놓곡 허민 가문반이엔 허멍 고젱이 끼멍 방상에 다 놔낫어.(요만큼씩 순대 한 점 놓고, 돼지 귀 해서 한 점 놓고, 해서 오만 거 창자 한 점 놓고 하면 '가문반'이라고 하면서 꼬치에 끼면서 일가붙이에 다 놨었어.) 13 // 가문잔칫날에는 그거 허영 국 끌영 먹곡 가문반이라고 또 고기 ᄉᆞᆲ아나민 무신거 끄트머리덜 무신거 조끔씩 허영 반도 허곡 경 헤영 살앗수다게.('가문잔칫날'에는 그거 해서 국 끓여서 먹고 '가문반'이라고 또 고기 삶으면 무엇 끄트머리들 무엇 조끔씩 해서 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14 [삼달, 성읍, 표선]

가문잔치: 혼례를 치르는 전날이나 다음날 가까운 친척들끼리 잔칫집에 모여 치르는 간편한 잔치를 의미한다. // 그 제라헌 그 잔치 전에 가문잔치 헤서 일가덜이영. 막 다 동네 사람덜 요즘도 경 허지 아녀게.(그 본래 잔치 전에 '가문잔치' 해서 일가들 하고 아주 다 동네 사람들 요즘도 그렇게 하지 않니.) 04 // 그디 온 사름덜은 그디서 돗 국물 ᄉᆞᆲ고 밥 헤근에 그거 허곡 헤여근에 반 놩 그거 먹는 거 가문잔치.(거기 온 사람들은 거기서 돼지고기 국물 삶고 밥 해서 그거 하고 해서 반 놔

서 그거 먹는 거 '가문잔치'.) 13 // 가문잔치로 시작혜영 잡는 날 ᄒᆞᆫ 잔치 본 결혼식 날 ᄒᆞᆫ 이틀 앞서부터, 잡기 시작ᄒᆞ면은 또 잔치 끗나도 ᄒᆞᆫ 이틀ᄁᆞ지는 또 가, 지금.('가문잔치'로 시작해서 잡는 날 한 잔치 본 결혼식 날 한 이틀 앞서부터, 잡기 시작하면은 또 잔치 끝나도 한 이틀까지는 또 가, 지금.) 22 // 잔치 뒷날이 거 가문잔치는 그 신부 쪽에 잇는 사람들인가 동네 사람들이라던가 잔치에 수고ᄒᆞᆫ 사람들 불러다가 먹는 게 가문잔치.(잔치 뒷날에 거 '가문잔치'는 그 신부 쪽에 있는 사람들인가 동네 사람들이라든가 잔치에 수고한 사람들 불러다가 먹는 게 '가문잔치'.) 27 [고성, 남원, 노형, 봉성, 삼달, 성읍, 수망, 신도, 신창, 옹포, 우도, 월령, 청수, 토평, 한동]

가문잔칫날: 가문잔치가 열리는 날이라는 뜻으로 '가문잔치' 뒤에 '날'이 붙어 만들어진 말이다. // ᄌᆞᆫ베설은 베설대로 ᄉᆞᆲ아근에 그 순대 이제 순대 이제 반에 안 놓젠 하면은 가문잔칫날 먹고 반에 놓젠 허민 안 먹주게.(작은창자는 창자대로 삶아서 그 순대 이제 순대 이제 반에 안 놓으려고 하면 '가문잔칫날' 먹고 반에 놓으려고 하면 안 먹지.) 05 [표선]

가문질: 한림읍 월령리의 옛 지명이다. // 열매 타 먹고 제일 처음에 월령서 태어나서 엿날 할망덜 말이 가문질 무사산디 무신 따문인진 몰라도 월령 어디던지.(열매 따서 먹고 제일 처음에 월령에서 태어나서 옛날 할머니들 말이 '가문질' 왜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월령 어디든지.) 10 // 가문질, 엿날 할망덜 말이 가문질이엔도 허곡, 가문질이엔 허여. 무사산디.('가문질', 옛날 할머니들 말이 '가문질'이라고도 하고, '가문질'이라고 해. 왜인지.) 10 [월령]

가ᄆᆞᆺ잔치: '가문잔치'를 달리 발음한 것이다. '가ᄆᆞᆺ잔치'는 혼례를 치르는 전날에 가까운 친척들끼리 잔칫집에 모여 치르는 간편한 잔치를 말한다. // 가ᄆᆞᆺ잔치, 가ᄆᆞᆺ잔치멍 잔치멍 이틀 ᄒᆞ는 건 이틀 ᄒᆞ는 건디.('가ᄆᆞᆺ잔치', '가ᄆᆞᆺ잔치'며 잔치며 이틀 하는 건 이틀 하는 건데.) 24 [세화]

가부시끼: 일본어 'かぶしき'로, 여기서는 '계'의 의미로 쓰였다. // 웨냐 오십 명, 오십 명을 가부시끼에서 뒈지 ᄒᆞᆫ 마리를 상 잡앙 치전이라고.(왜냐 오십 명, 오십 명을 계에서 돼지 한 마리를 사서 잡아서 치전이라고.) 06 [남원]

가불름: 좁씨를 파종하고 나서 두벌 밟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씨 뿌려근에 또 다시 가불름으로 두불 ᄇᆞᆯ리주게.(씨 뿌려서 또 다시 '가불름'으로 두벌 밟지.) 12 [한동]

가빠: 비바람이나 눈보라를 막기 위하여 만든 두꺼운 천으로 포르투갈어 'capa'를 'カッパ'처럼 일본어 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 이제ᄀᆞ찌 더끌 거 가빠덜이라도 좋민 허주만은 막 헤다 놩 기냥 쎅이멍 걸 경 못 젼디게.(이제처럼 덮을 거 '가빠'들이라도 좋으면 하지만은 막 해다 놓아서 그냥 썩이면서 그걸 그렇게 못 견디게.) 11 // 가빠레 ᄆᆞᆫ 널어근엥에 가빠사 셔신지 멍석이여 무시거여 다 설러당 ᄆᆞᆫ 널엉은에 그거 저 한질레레 쭉 허게 놔근에.('가빠'에 모두 널어서 '가빠'야 있었는지 멍석이야 뭐야 다 가져다가 모두 널어서 그거 저 한길에 쭉 하게 놓아서.) 32

[덕수, 함덕]

가사: 일본어 'かさ'로 우산이라는 뜻이다. // 이딧 삿갓은 비온 날도 거 썽 뎅기고. 가사ᄀᆞ 추룩 가사도 하지 안헌 때니까.(여기 삿갓은 비온 날도 그거 쓰고 다니고. 우산처럼 우산도 많지 않은 때니까.) 11 [함덕]

가세오름: 표선면 세화리와 토산리 사이에 위치한 표고 202m, 넓이 30m² 정도의 오름이다. 오름 모양이 중이 갓 쓴 정국, 산봉우리가 두 갈래로 갈라진 것이 가위처럼 생겼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서귀포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길 따라 이레 다니다 보니까 요 세화리 저 오름 가세오름과 가세오름 저 우에 가시리 잇잖습니까양?(서귀포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길 따라 이리로 다니다 보니까 요 '세화리' 저 오름 '가세오름'과 '가세오름' 저 위에 가시리 있잖습니까?) 24 // 저 가세오름이 잇는디 세화리는 가세오름이 대문이나 마찬가지다 헤 가지고.(저 '가세오름'이 있는데 세화리는 '가세오름'이 대문이나 마찬가지다 해 가지고.) 24 [세화]

가스름: 표선면 가시리의 옛 이름이다. // 엿날에도 우리 저 가스름 살 때도 헤낫수다게, 그거.(옛날에도 우리 저 '가스름' 살 때도 했었습니다, 그거.) 24 // 가스름 살 때도 그거 헙디다게. ᄉᆞ섬ᄉᆞ건 전이.('가스름' 살 때도 그거 합디다. 사삼사건 전에.) 24 [세화]

가시남ᄆᆞ루: 조천읍 함덕리 2구의 지명이다. // 펄뭇 동네, 거룻굴 동네, 가시남ᄆᆞ루 이런 것들은 다 있어.('펄뭇' 동네, '거룻굴' 동네, '가시남ᄆᆞ루' 이런 것들은 다 있어.) 11 [함덕]

가시남봉오지: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지명이다. 가시남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 가시남봉오지에 옛날엔 가시남동을 중간에 가시남봉오지렌 헤낫주.('가시남봉오지'에 옛날에는 '가시남동'을 중간에 '가시남봉오지'라고 했었지.) 03 [송당]

가시리: 풀가사리의 제주어이다. 풀가사리 말린 것을 잘 씻어서 나물국에 넣고 끓여 국을 한다. 풀가사리를 끓이면 풀기가 생겨 풀로도 사용한다. // 저레 ᄂᆞᆯ아근에 경 헤근에 ᄯᅳ시 저 엿날 가시리 헤 뎅이메 풀.(저리로 날아서 그렇게 해서 다시 저 옛날 풀가사리 해 다녀 풀.) 16 [하원]

가시리풀: 풀 종류의 하나이다. // 검질 막 여라 가지여. 제완지여 진쿨이여 뭐 원 원. 저 무신 가시리풀이여 뭐 검질 일름이 원 ᄀᆞᆫ고 말 나위 엇주.(김 아주 여러 가지야. 바랭이다 별꽃이다 뭐 원 원. 저 무슨 '가시리풀'이다 뭐 김 이름이 원 말하고 말 나위 없지.) 31 [토평]

가시새: 바다풀인 풀가사리의 하나이다. // 가시새옌 헌 건이 그 이제 가시리 닮으면서 ᄒᆞ꼼 같은 색깔인디 영 포기지듯한, 그 색깔은 그 같은 색깔인디 포기지 듯헤근에 ᄒᆞ끔 더박더박허고.('가시새'라고 한 건이 그 이제 풀가사리 닮으면서 조금 같은 색깔인데 이렇게 포기지듯해서, 그 색깔은 그 같은 색깔인데 포기지듯해서 조금 다박다박하고.) 05 [표선]

가시오름: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 가시오름 강당장 집이 세콜방에 새 걸려 온다.('가시오름' '강당장' 집에 '세콜방에' 새 걸려 온다.) 06 [남원]

가시왓: 한림읍 대림리에 있는 지경이다. 예전에는 '개석이왓'이라고도 했다. // 베 형국이니까 베가 와서 물 대일 때, 물 대난 위치다 허여 가지고 그 지금 ᄀᆞ뜨면 가시왓, 가시왓 헙니다만.(배 형국이니까 배가 와서 물 대일 때, 물 대었던 위치다 하여 가지고 그 지금 같으면 '가시왓', '가시왓' 합니다만.) 35 [대림]

가시천: 표선면 가시리를 거쳐 세화1리로 연결된 개천을 말한다. // 가시리에서 내려오는 내, 가시천이엔 헙니다.('가시리'에서 내려오는 내, '가시천'이라고 합니다.) 24 [세화]

가식이왓: 한림읍 대림리에 있는 지경이다. // 신씨는 저 가식이왓 헤 가지고 거기가 아주 벌족이 그 저 신○○이네, 아주 촌에는 뜬 딘 모양인데, 그 십팔 대 조인가 이분덜이 그 선묘가 요 대림 저 거기 구백 멧 번지에 그 선묘가 거기 잇수다.(신씨는 저 '가식이왓' 해 가지고 거기가 아주 벌족이 그 저 신○○네, 아주 촌에는 다른 데인 모양인데, 그 십팔 대 조인가 이분들이 그 선묘가 요 대림 저 거기 구백 몇 번지에 그 선묘가 거기 있습니다.) 35 // 대림은 그 막이 일로 얼로 오당 보난 거 저 로타리 잇지예? 거기 잇고, 가식이왓 잇고, 수원으로 가는 그디 잇고, 요디 잇어.(대림리는 그 막이 여기로 어디로 오다가 보니까 거 저 로터리 있지요? 거기 있고, '가식이왓' 있고, 수원으로 가는 거기 있고, 요기 있어.) 35 [대림]

가와: 일본어 'かわ'에서 온 말로 '가죽'을 뜻한다. 여기서는 경운기의 벨트를 가리킨다. // 저 경운기에, 경운기 가와에 감아졍 나 죽을 번 첨, 멧 번 죽을 번헨 살앗주게.(저 경운기에, 경운기 벨트에 감겨서 나 죽을 번 참, 몇 번 죽을 번해서 살았지.) 31 [토평]

가와리: 일본어 'かわり'에서 온 말로 '대신, 교체'를 뜻한다. '가오리'라고도 한다. // 조찝 ᄒᆞᆫ 번 줘 나면은 또 이젠 그, 출 비어당 ᄆᆞᆯ린 거 그거도 주고. 가와리허멍 줘.(조짚 한 번 줘 나면 또 이젠 그, 꼴 베어다가 말린 거 그거도 주고. 교체하면서 줘.) 20 // 이 년에 ᄒᆞᆫ 번 가오리헹, 가오리헹. 금년에 일면은 내년 아니 일엉 또 다음에사 일곡 경허영.(이 년에 한 번 교체해서, 교체해서. 금년에 이면 내년 안 이고 또 다음에야 이고 그래서.) 20 // 이불은게 가오리헐 거. 이불 둘, 요 둘. 경 허곡 궤 허연 우리 어머님이.(이불은 교체할 거. 이불 둘, 요 둘. 그렇게 하고 궤 해서 우리 어머님이.) 29 [고내, 외도]

가울목: 구좌읍 한동리 지명의 하나이다. // 가울목에서 누게 영장이 나면은 우리 집 거튼 디 ᄀᆞ튼 권당이민 영장 올라갈 때 원미 쒕 케우리헌다.('가울목'에서 누가 초상이 나면 우리 집 같은 데 같은 권당이면 송장 올라갈 때 원미 쒀서 고수레한다.) 12 // 가울목이면은 우리 웃동네 가울목 섯동네꺼지 헤 가지고서 거 이제 딱 규정이 뒈엇저.('가울목'이면 우리 윗동네 '가울목' '섯동네'까지 해 가지고서 거 이제 딱 규정이 되었어.) 12 [한동]

가웃들이: 쌀 두 되가 들어가는 크기의 시루를 말한다. // ᄒᆞᆫ 말들이, 두 말들이, 가웃들이, 닷 뒈떼기도 잇고. ᄒᆞᆫ 뒈들이도 잇고. 다 잇어.('한 말들이', '두 말들이', '가웃들이', '닷 뒈떼기'도 있고. '한 되들이'도 있고. 다 있어.) 01 [도련]

가은통: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연못의 이름이다. // 이디가 펄뭇, 가은통.(아, 여기가 '펄뭇', '가은통'.) 11 [함덕]

가이: 표준어 '그 아이'의 줄임말이다. '글미', '금미'라고도 한다. // 지금 가이 자식들은 전부 결혼헷주.(지금 그 아이 자식들은 전부 결혼했지.) 15 [수망]

가이셍: 일본어 'がいせん'으로 '전투, 싸움'의 의미이다. 남자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남자아이덜 가이셍이엔 허여근에 또 모ᄌᆞ 영허영 꺼꾸로 씨엉 허고 거 일본말, 일본말.(남자아이들 '가이셍'이라고 해서 또 모자 이렇게 해서 거꾸로 써서 하고 거 일본말, 일본말.) 02 // 공기허곡 가이셍허고, 가이셍허곡 고무줄허곡.(공기하고 '가이셍'하고, '가이셍'하고 고무줄하고.) 23 [선흘, 온평]

가좌동: 수원리 용운동의 옛 지명이다. // 수원리 가좌동에 그 베가 고깃베 ᄒᆞ나에 ᄒᆞᆫ 사름만 허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끼리 돈을 내어 가지고 걸 삽주게.(수원리 가좌동에 그 배가 고깃배 하나에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끼리 돈을 내어 가지고 그걸 사지요.) 35 // 그 가좌동 쪽도 사름덜 하영 살아가고 우리 대림은 어물덜이 없어가니까, 그때부턴 ᄃᆞ톼 가지고 우리 대림허고 소송을 헷수다.(그 '가좌동' 쪽도 사람들 많이 살아가고 우리 대림은 어물들이 없어가니까, 그때부턴 다퉈 가지고 우리 대림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35 [대림]

가죽감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방한모의 하나이다. // 사냥꾼헤도 가죽으로 무시거 헌 거, 저 노리 가죽 헤근에 영 벳경 마주 접은 거, 영 마주 접으민 이디 귀ᄀᆞ치 영 벌겨지고 요디만 영 마주쳥. 가죽감태, 가죽감태 허멍.(사냥꾼해도 가죽을 무엇 한 거, 저 노루 가죽 해서 이렇게 벗겨서 마주 접은 거, 이렇게 마주 접으면 여기 귀처럼 이렇게 벌려지고 요기만 이렇게 마주쳐서. 가죽감태, 가죽감태 하면서.) 25 [태흥]

가죽보선: '가죽+보선' 구성으로, 여기에서 '보선'은 버선으로 모양으로 만든 가죽신이다. 표준어 '목화(木靴)'와 비슷한 신발을 말한다. // 가죽보선이엔 헤여, 가죽보선.('가죽보선'이라고 해, '가죽보선'.) 14 [성읍]

가지: 가문의 한 종파로 나누어진 갈래이다. // 사둔집이는 ᄒᆞᆫ 말, ᄒᆞ끔 ᄇᆞ든 가진 두 뒈, 일가방상에 고적은 ᄒᆞᆫ 말도 ᄒᆞ고 두 뒈, 우리 양칩인 두 뒈 ᄒᆞ당 ᄒᆞᆫ 말 헷수다.(사돈집에는 한 말, 조금 가까운 '가지'는 두 되, 일가방상에 '고적'은 한 말도 하고 두 되, 우리 양씨 집에는 두 되 하다가 한 말 했습니다.) 17 [대평]

가테: 산소에 떼를 입힌 것이 잘 안 되었을 때 추가로 덧입히는 떼를 말한다. // 가테엔 헌 건 따시 테 헤당 입지는 거 가테.('가테'라고 한 건 다시 떼 해다가 입히는 거

‘가테’.) 13 // 테 안 입으민 따시 그 테 헤당 우이 문딱 누리와뒁 따시 입지는 거 가테.(떼 안 입으면 다시 그 떼 해다가 위에 모두 내려서 다시 입히는 거 ‘가테’.) 13 [삼달]

각: 짐승을 잡아 그 고기를 나눌 때, 전체를 몇 등분한 것 가운데 한 부분을 말한다. // 게난 각으로 뭐 꿩도 이제 그 각으로 다 찢엉.(그러니까 각으로 뭐 꿩도 이제 그 각으로 다 찢어서.) 04 [고성]

각곳: ‘온갖 것, 여러 가지 것, 각종’의 의미이다. // 각곳 실과도 다 올리고.(각종 실과도 다 올리고.) 02 [선흘]

각단: 초가지붕을 얽어매는 집줄을 드리는 데 쓰는 짧은 띠를 말한다. ‘각다니’라고도 한다. // 게난 긴 것은 새고 좀 쫇은 건 각단, 각단이엔 헌 건 거 새 빌 때는 가을에 동지 전에.(그러니까 긴 것은 띠고 좀 짧은 건 ‘각단’, ‘각단’이라고 하는 건 그거 띠 벨 때는 가을에 동지 전에.) 15 // 지붕 이는 거 그거 저 새로 일고 각단으로 줄 놔근에 그 저 동여매는 것ᄀᆞ라 거 지붕 이는 거엔 허는 거.(지붕 이는 거 그거 저 띠로 이고 ‘각단’으로 줄 놔서 그 저 동여매는 것보고 거 지붕 이는 거라고 하는 거.) 19 // 새 비어당 집 문 일곡. 각단 헤당 줄 놓곡.(띠 베어다가 집 전부 일고. ‘각단’ 해다가 줄 놓고.) 27 // 각단이엔 헌 건 ᄀᆞ뜬 샌 샌디 그 짧을 단자 써 가지고 새라도 다리 졸른 거, 다리 각자 썬양. 게 가지고 다리 졸른 새를 각단이라고 헙주게.(‘각단’이라고 한 건 같은 띠는 띠인데 그 짧을 단자 써 가지고 띠라도 다리 짧은 거, 다리 각자 써서요. 그래 가지고 다리 짧은 띠를 ‘각단’이라고 하지요.) 35 [고내, 고산, 남원, 노형, 대림, 대평, 도련, 보목, 봉성, 선흘, 세화, 신도, 신창, 수망, 옹포, 청수, 토평, 표선, 한동, 함덕]

각량: 서까래를 받치기 위하여 기둥 위에 건너지르는 나무인 도리의 하나이다. // 이짝 각량 저쪽 각량 허민 네 거리가 맞아.(이쪽 ‘각량’ 저쪽 ‘각량’ 하면 네 거리가 맞아.) 14 [성읍]

각마기: 조 이삭이나 콩꼬투리에서 열매를 털어 버리고 남은 줄기나 깍지 따위를 일컫는다. ‘각메기’, ‘곡메기’, ‘콕메기’라고도 한다. // 도, 도, 도리께로 두드리면은 게 조가 이제 북삭허면은 각마기라고 잇어. 각마기, 조 칵마기.(도, 도, 도리깨로 두드리면은, 그럼 조가 이제 ‘북삭’하면은 ‘각마기’라고 있어. ‘각마기’, 조 ‘칵마기’.) 36 [봉성]

각메기: 조 이삭이나 콩꼬투리에서 열매를 털어 버리고 남은 줄기나 깍지 따위를 일컫는다. ‘각마기’, ‘곡메기’, ‘콕메기’라고도 한다. // 대체로 걸 치민 대체 아래 건 멩텡이에 담아 놓고 또 안 두드려진 건 각메기라고 헤서 또 두드리멍 겡 문딱 헤영 대체 아래 거 나면은 그놈은 쎈 ᄇᆞ름에 못 불려.(대체로 그걸 치면 대체 아래 건 망태기에 담아 놓고 또 안 두드려진 건 ‘각메기’라고 해서 또 두드리면서 그렇게 모두 해서 대체 아래 거 나면 그놈은 센 바람에 못 불려.) 06 // ᄆᆞᆯ방에에서 저 가근에 둥그려졍 문 ᄒᆞ민, 또 새로 놔근에 ᄯᅳ시 그거 ᄒᆞ영, ᄒᆞ영 오라근에 각메

기, 조 ᄏᆞ메기는 조쏠, 조 ᄃᆞᆯ아져난 고구리. 그거는 쉐 양석.(연자매에서 저 가서 굴려져서 모두 하면, 또 새로 놔서 다시 그거 해서, 해서 와서 '각메기', 조 'ᄏᆞ메기'는 좁쌀, 조 달아졌던 이삭. 그거는 소 양식.) 08 // 두드려 놩 각메긴 밀려놔덩 앞이 건 대체로 ᄆᆞ딱 쳐놩 두루 두드려지민 두불 놩 두드려사.(두드려 놓고 '각메기'는 밀어두고 앞의 건 대체로 모두 쳐 놓고 덜 두드려지면 두벌 놔서 두드려야.) 13 // 도께로도 두들곡 또 ᄆᆞᆯᄀᆞ령 가근에 고고리 어졍 강 ᄆᆞᆯᄀᆞ령서 둥그리멍 영영 허영 각메기 허멍 허곡.(도리깨로 두드리고 또 연자매 가서 이삭 가져가서 연자매서 굴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각메기' 하면서 하고.) 33 [남원, 동광, 삼달, 외도, 인성, 한동, 함덕]

각시든밧: 안덕면 동광리의 한 지명이다. // ᄯᅡ시 비오라 나면은 그 저 요 우리 사둠서 영정 밧더레 쪼옥 ᄒᆞ게시리 오면은 각시든밧이, 그디 가민 ᄎᆞᆫ흑이 잇어마씨.(다시 비오고 나면은 그 저 요 우리 서 있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밭으로 쭉 하게끔 오면은 '각시든밧'이, 거기 가면 찰흙이 있습니다.) 08 [동광]

각시물통: 우도면 천진리의 한 지명이다. // 또 물 질어다 먹는 건 우리 각시물통에.(또 물 길어다 먹는 건 우리 '각시물통'에.) 22 [우도]

각장장판: 폭이 넓고 두꺼운 각장으로 바른 장판으로 잘사는 집의 장판을 말한다. // 각장이 또 말짜에라가난 각장이 나왓어이, 절룬 거, 종이가. 경헹 이제 각장 사당 이디 ᄇᆞᆯ르민 각장장판.(각장이 또 나중에 되어가니까 각장이 나왔어, 결은 거, 종이가. 그렇게 이제 각장 사다가 여기 바르면 각장장판.) 02 [선흘]

간고노: 고무줄놀이를 하며 불렀던 노래의 한 소절이다. // 고무줄놀인 고무줄 저디 신가, 이디 신가? 막 제국시댄 간고노, 무시거 허멍 헌디 이젠 다 잊어불언.(고무줄놀이는 고무줄 저기 있나, 여기 있나? 아주 제국시대는 '간고노'. 무엇 하면서 했는데 이젠 다 잊어버렸어.) 26 [신창]

간데기: 제주시 용담 1동 용연 근처의 자연 마을의 이름이다. // 간데기 그때 저 서문ᄃᆞ리에 강 칙뿔리 헤당 망데기 헤근에 불살르멍 허당, 헤도 게난 무신 ᄒᆞ교는 주간 다녀져게.('간데기' 그때 저 서문다리에 가서 칡뿌리 해다가 옹기 해서 불사르면서 하다가, 해도 그러니까 무슨 학교는 주간 다닐 수 있습니까.) 34 [구억]

간두니: 성산읍 고성리의 한 지명이다. // 신양리 이 앞. 그 요 간두니 지경이나.(신양리 이 앞. 그 여기 '간두니' 지경이나.) 04 // 땅이 이 고성더레가 젤 궨찬허주. 게난 이짝 그 간두니 지경.(땅이 이 '고성'으로가 젤 괜찮지. 그러니까 이쪽 그 '간두니' 지경.) 04 [고성]

간세끼: 일본어 'かんさいき(艦載機)'로 항공모함이나 기타 함선에 싣고 다니는 항공기인 '함재기'를 말한다. '간시끼'라고도 했다. // 비형기에서 그 '간세끼', '간시끼'옌 헌 비형기.(비행기에서 그 '간세끼', '간시끼'라고 한 비행기.) 24 [세화]

간썸: 돼지 내장 중 횡경막의 한 부위이다. '간숨'이라고도 한다. // 족은배설은 솖아 먹고

메역귀 간썸 ᄆᆞᆺ아놩 순대에 담아.(작은창자는 삶아서 먹고 '메역귀', '간썸'은 무수어 놔서 순대에 담아.) 11 [함덕]

간쏨: 돼지의 내장 중 횡경막의 한 부위이다. '간썸'이라고도 한다. // 게난 그레 다시 무슨 메역귀도 썰어 놓곡, 간쏨도 썰어 놓곡 허여근에 수웨 담고.(그러니까 그리로 다시 무슨 미역귀도 썰어 넣고, '간쏨'도 썰어 놓고 해서 순대 담고.) 19 [청수]

간전이: 이마와 뱜에 흰 무늬가 있는 말이다. 표준어 '간자말'에 해당한다. // 간전인 ᄉᆞᆺ 월라도 아니고 이 얼굴만 힌 거ᄀᆞ라 간전이엔 헴실 거라.(간자말은 사뭇 월라도 아니고 이 얼굴만 흰 거보고 간전이라고 하고 있을 거야.) 02 // 멘박에 길게 희영한 거 내려온 거. 또 그리고 점 ᄒᆞ나 있는 거, 거 틀려, 다. 테상박인 점 하나 이신 거고. 이렇게 ᄂᆞ려온 건 간전이고.(이마에 길게 하얀 거 내려온 거. 또 그리고 점 하나 있는 거. 그거 달라, 다. 대성마는 점 하나 있는 거고. 이렇게 내려온 건 '간전이'고.) 03 // 간전이라는 거는 일로 헤 가지고 코까지 거.('간전이'라는 거는 이리로 해 가지고 코까지 거.) 29 [선흘, 송당, 외도]

간절미: 꾸지뽕나무 열매를 말하는 것으로 '간절귀', '쿳낭 열매'라고도 한다. // 그것은 약에 씬덴 말 아이 들어난디 요새는 걸 큰 약으로 허더라. 건 우린 큇가시 열매옌 허영 간절미라고 헤 가지고 이제 팔뤄 나민 익어, 그게. 경허민 막 타 먹어낫주게.(그것은 약에 쓴다고 말 안 들었었는데 요새는 그걸 큰 약으로 하더라. 그건 우린 꾸지뽕 열매라고 해서 '간절미'라고 해 가지고 이제 팔월 되면 익어, 그게. 그러면 막 따 먹었었지.) 02 [선흘]

간조: 일본어 'かんじょう(勘定)'로 일을 한 대가로 받는 삯을 말한다. // 겐 우리 집에 오키엔 헨에 경 헨 그것도 간조, 간조옌 헷주 간조. 돈 나오기 이전에 그거 십 프로 공제헤근에 돈으로 바꾸는 곳이 전표를 바꾸는 곳이 잇어.(그래서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도 '간조', '간조'라고 했지 '간조'. 돈 나오기 이전에 그거 십 프로 공제해서 돈으로 바꾸는 곳이 전표를 바꾸는 곳이 있어.) 22 [우도]

간징: 간자말의 이마에 있는 흰 무늬를 말한다. // 이디 ᄒᆞ쏠 머리에 흰 점이 시나 어떵허민 에효 ᄆᆞᆯ 간징 저런 거 ᄆᆞᆯ 페라워, 페라워 경 허여. 새끼 나민 이런 디 흰 것이 시나 어떵 헌다게.(여기 조금 머리에 흰 점이 있나 어떻게 하면 에휴 말 '간징' 저런 거 말 까다로워, 까다로워 그렇게 해. 새끼 낳으면 이런 데 흰 것이 있거나 어떻게 한다.) 33 [인성]

간쯔메: 일본어 'かんづめ(缶詰)'로 통조림을 말한다. // 여기 지금 저 간쯔메 깡통.(여기 지금 저 통조림 깡통.) 06 [남원]

갈: 감물을 들인 '갈옷'을 말한다. // 영 입단 너저분헌 옛날 갈 몸베 같은 거 그런 건 막 두린 그런 때 필요허여. ᄀᆞᆯ아입곡.(이렇게 입다가 너저분한 옛날 감물 들인 일바지 같은 거 그런 건 아주 어린 그런 때 필요해. 갈아입고.) 06 [남원]

갈독지: 감을 으깬 물을 들여 만든 적삼을 말한다. '갈적삼, 갈둑지'라고도 한다. // 감 멕 여근에 여자덜은 갈독지, 갈중의. 갈적삼ᄀᆞ라 갈독지.(감 먹여서 여자들은 '갈독지', '갈중의'. '갈적삼'보고 '갈독지'.) 01 [도련]

갈둑지: 감을 으깬 물을 들여 만든 적삼을 말한다. '갈적삼, 갈독지'라고도 한다. // 갈중의는 밋에 거. 우이 거 입는 거는 갈둑지.('갈중의'는 밑의 것. 위의 것 입는 거는 '갈둑지'.) 11 [함덕]

갈몸뻬: 감물을 들인 일 바지를 말한다. 감물을 들인 '갈옷'의 '갈'과 일 바지를 가리키는 일본어 'もんぺ'의 합성어이다. '감몸뻬'라고도 한다. // 젤 궂인 미녕으로 ᄒᆞ는 건 그자 갈옷, 갈몸뻬도 ᄒᆞ고, 적삼, 남자 바지, 저 중의적삼도 ᄒᆞ고, 여자도 저 적삼이영 몸뻬ᄒᆞ고, 그자 나쁜 걸로는 그자 갈옷.(젤 궂은 무명으로 하는 건 그저 갈옷, '갈몸뻬'도 하고, 적삼, 남자 바지, 저 중의적삼도 하고, 여자도 저 적삼이랑 일 바지하고, 그저 나쁜 걸로는 그저 갈옷.) 08 // 검은 몸뻬 그자. 주로 입는 건 갈몸뻬, 갈중의 그거. 그거 입엇주, 경.(검은 일바지 그저. 주로 입는 건 '갈몸뻬', '갈중의' 그거. 그거 입었지, 그렇게.) 25 [동광, 태흥]

갈물: 표준어 '감물'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덜 익은 감에서 나는 떫은 즙으로 염료나 방부제로 쓰인다. // 갈물 들인 건 저 미녕에나 광목에나.('갈물' 들인 건 저 무명에나 광목에나.) 16 [하원]

갈산듸: 찰기가 없고, 색깔이 조금 거무스레한 밭벼 중 하나이다. '목산이'라고도 한다. // 곤ᄉᆞᆯ이엔 헌 것도 잘 어렵주게. 옛날 이제 갈산듸옌 허여.(흰쌀이라고 한 것도 잘 어렵지. 옛날 이제 '갈산듸'라고 해.) 01 // 강나룩 갈산듸라고 해서 그것이 뭐할 때 뭐, 최고라낫주. 최고.('강나룩' '갈산듸'라고 해서 그것이 뭐할 때. 뭐, 최고였었지, 최고.) 03 // 갈산듼, 갈산듼 막 궂인 밧듸 가는 거. 피 가는 디 가는 거.('갈산듸'는, '갈산듸'는 막 궂은 밭에 가는 거. 피 가는 데 가는 거.) 14 // 목산이옌 헨 갈산듸옌 헤 가지고 산듸가 거무룽허니 갈산듸가 이서.('목산이'라고 해서 '갈산듸'라고 해 가지고 밭벼가 거무스름하니 '갈산듸'가 있어.) 15 [도련, 성읍, 송당, 수망]

갈옷: 감물을 들인 옷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감옷'이라고도 한다. // 갈옷도 만들고. 또 이 치마.('갈옷'도 만들고. 또 이 치마.) 24 // 갈옷보다 더 좋은 게 엇어.('갈옷'보다 더 좋은 게 없어.) 24 [세화]

갈적삼: 감물을 들인 적삼을 말한다. // 미녕으로 엿날 갈적삼 만들고.(무명으로 옛날 '갈적삼' 만들고.) 03 // 토목 ᄀᆞ튼 건 갈중의, 갈적삼, 갈중의 옛날도 갈중의도 남ᄌᆞ 갈중의 잇곡, 여ᄌᆞ 갈중의 싯곡, 경 ᄒᆞ여근에 ᄒᆞ민 바지저고리로 갈중읠 멘들앗주게.(토목 같은 건 '갈중의', '갈적삼', '갈중의' 옛날도 '갈중의'도 남자 '갈중의' 있고, 여자 '갈중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면 바지저고리로 '갈중의'를 만들었지.) 08 // 갈적삼 잇고, 모시 중의, 적삼, 베 중의, 적삼, 창옷 그거주게, 다른 거 엇어.('갈적삼' 있고, 모시 중의, 적삼, 베 중의, 적삼, 창옷 그거지, 다른 거 없어.)

17 // 중의적삼, 속옷, 이 저 갈적삼도 입곡, 무신 미녕으로 헹 저 우이 거 무신 거 만들아근에, 만들앙 입곡.(고의적삼, 속옷, 이 저 '갈적삼'도 입고, 무슨 무명으로 해서 저 위의 거 무엇 만들어서, 만들어서 입고.) 28 [구엄, 대평, 동광, 성읍, 송당]

갈주럭: 감물 들인 천이나 옷이 오래되어 헌 상태의 것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 무신 엿날엔 우산이 서 무시거 서. 무시거 우의 갈주럭 ᄒᆞ나 둘러쓰민 강 오고 헷주.(무슨 옛날엔 우산이 있어 뭐 있어. 뭐 위에 '갈주럭' 하나 둘러쓰면 갔다 오고 했지.) 15 [수망]

갈중의: 감물을 들여서 만든 중의를 말한다. '감중의'라고도 한다. // 여자 갈중의는 이만큼은 풍차게 헤여근에 그냥 영영영영 허영 이디 독다님 쳥 허민 이디가 방탕허영 경 살앗주.(여자 갈중의는 이만큼 크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중대님 매서 하면 여기가 펑퍼짐해서 그렇게 살았지.) 11 // 칠월 나민 그 감 타단에 미녕 바꽈단에 ᄆᆞᆫ 갈중의 적삼덜 우알 멘들아근에.(칠월 되면 그 감 따다가 무명 바꿔다가 모두 '갈중의' 적삼들 위아래 만들어서.) 12 // 갈중읜 감 들영 허는 것가 갈중의고, 속중의.('갈중의'는 감물 들여서 허는 것이 '갈중의'고, '속중의'.) 14 // 경 허영 허민 우리 할머니는 여ᄌᆞ 갈중의 허민 이만이 널른 거 허영 허민 영 영 허여근에 이ᄁᆡ지 영 허여근에 다림 쳥.(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 할머니는 여자 '갈중의' 하면 이만큼 넓은 거 해서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까지 이렇게 해서 대님 쳐서.) 29 [고내, 구억, 구엄, 대평, 덕수, 동광, 봉성, 성읍, 송당, 신도, 옹포, 외도, 청수, 한동, 함덕]

갈치낙시: 갈치를 낚을 때 쓰는 낚시를 말한다. // 갈치낙시. 기냥 무신 낙시옌도 아녀고 기자 갈치낙시 경.(갈치 낚시. 그냥 무슨 낚시라고도 않고 그저 갈치 낚시 그렇게.) 29 [외도]

갈칫국: 호박과 갈치를 넣고 끓인 국을 말한다. // 호박에 갈칫국 끌여야 젤 맛잇곡.(호박에 '갈칫국' 끓여야 젤 맛있고.) 04 // 갈칫국도 잇당 가끔 허주게.('갈칫국'도 이따가 가끔 하지.) 16 [고성, 하원]

갈탁갈탁: 물을 많이 있어서 질퍽한 모양을 표현하는 말이다. // 물 드난 비 온 때 초신 신엉 허민 남신 안 허민 갈탁갈탁 허난 비 온 때광 눈 온 때만 그런 거 신어.(물 드니까 비 올 때 짚신 신고 하면 나막신 안 하면 '갈탁갈탁' 하니까 비 올 때랑 눈 올 때만 그런 거 신어.) 13 [삼달]

감: 감나무의 열매를 말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감물', '갈옷'의 의미로도 쓰인다. // 옛날에 감 들여놧당 옷덜 만들앗주.(옛날에 감 들여놨다가 옷들 만들었지.) 14 // 옛날이사 일헐 때 광목 저 감벳기 안 입엇수게.(옛날이야 일할 때 광목 저 감밖에 안 입었습니다.) 23 [성읍, 온평]

감께: 감을 빻아서 물을 들일 때 빻은 감 찌꺼기를 말한다. // 그 옷을 뒤집어근에, 뒤집엉

거 감께 부텅 막 헐 거난.(그 옷을 뒤집어서, 뒤집어서 거 '감께' 붙어서 마구 할 거니까.) 20 [고내]

감낭굴: 구좌읍 한동리의 한 지명이다. // 감낭굴이엔 헌 디 강 그디 끗엉 간이 막 일로 끄차 불고 일로 끄차 불고 겡헤 가지고 그 사름만 그냥 찔러 죽엿저.('감낭굴'이라고 하는 데 가서 거기 끌어가서 마구 일로 끊어 버리고 일로 끊어 버리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만 그냥 찔러 죽였어.) 12 [한동]

감낭굴: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허금동산. 그 느영 말 ᄀᆞᆫ는 어른은 감낭굴.('허금동산'. 그 너랑 말하는 어른은 '감낭굴'.) 31 [토평]

감동당: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당 이름이다. // 이 저 감동당 허곡 또 알드르, 알드르 당. 알당, 알당.(이 저 '감동당' 하고 또 '알드르', '알드르' 당. '알당', '알당'.) 31 // 감동당이엔도 ᄀᆞᆫ고 본향이엔도 ᄀᆞᆫ고.('감동당'이라고도 말하고 본향이라고도 말하고.) 31 [토평]

감빵: 일본어 'コウハン(甲板)'으로 배의 상부에 나무 혹은 철판을 깔아 놓은 마루인 갑판을 말한다. // 판떼기에 앚질 아녀고 저 그 후다덜, 감빵덜이 잇어수다. 후다덜.(판때기에 앉지를 않고 저 그 '후다'들, '감빵'들이 있었습니다. '후다'들.) 22 [우도]

감상기: 심방이 신을 맞아들일 때 들고 춤추는 기를 말한다. // 알암신게. 감상기라고 그 감상기 앗당은에 꼽아근에 그 떡을 쪄낫수다. 나가 큰굿을 세 번 헤나수다게.(알고 있네. '감상기'라고 그 '감상기' 가져다가 꽂아서 그 떡을 쪘었습니다. 내가 큰굿을 세 번 했었습니다.) 14 [성읍]

감씰: 감물을 들인 실을 말한다. // 멘들아 놩 들여사 씰밥도 안 나고 아무 씰이나 멘들여 놩 허젠 허민 감씰도 사살 거.(만들어 놔서 들여야 실밥도 안 나고 아무 실이나 들여놔서 하려고 하면 '감씰'도 사얄 거.) 14 [성읍]

감옷: 감물을 들인 옷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갈옷'이라고도 한다. // 이제 그 광목으로는 아니 허고 미녕으로만 이 감옷 헤난 거.(이제 그 광목으로는 아니 하고 무명으로만 이 '감옷' 했던 거.) 05 // 널엉 내불민 이슬도 맞곡 경 아년 땐 자꾸 적경 널어사 감옷은 곱주.(널어서 내버리면 이슬도 맞고 그렇지 않은 땐 자꾸 적셔서 널어야 '감옷'은 곱지.) 14 // 감옷, 노동복 허젠 허민 다른 물이 엇이난에.('감옷', 노동복 하려 하면 다른 물감이 없으니까.) 24 // 막 경 허영 헌디 그것에서 감 뽓앙. 감 뽓아근엥에 허영 그 감 들영 감옷도 허곡.(막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에서 감 빻아서. 감 빻아서 해서 그 감 들여서 '감옷'도 하고.) 29 [성읍, 세화, 온평, 외도, 표선]

감은물: 조천읍 신촌리의 용천수 중 하나이다. '감언물'이라고도 한다. // 동카름엔 감은물, ᄃᆞᆫ물, 통물.(동카름엔 '감은 물', '단물', '통물'.) 21 [신촌]

감은쉐뿔: 소뿔 모양에 따라 붙은 명칭으로 오그라진 모양이다. // 영 오그라진 건 감은쉐뿔이라고 헤서.(이렇게 오그라진 건 '감은쉐뿔'이라고 해서.) 03 [송당]

감저 모종: 고구마 모종을 말한다. // 이월ᄃᆞᆯ에 모종 걸름 헤근에 우연네 감저 모종 싹 놩.(이월에 모종 거름 해서 터앝에 고구마 모종 싹 놔서.) 23 [온평]

감저눌: 겨울 동안 고구마를 보관하기 위해 땅을 파서 짚을 깔고 고구마를 쌓아 놓은 더미를 말한다. // 감저눌은 그거 밧에들 강 구뎅이 파근엥 감저눌로 헷주만은.('감저눌'은 그거 밭에 가서 구덩이 파서 '감저눌'로 했지만.) 18 // 감저눌이엔 ᄒᆞ주게. 감저눌에 말이지 고구마 담앗다가 말이여 그거 뭐 먹고 싶으면 말이지 ᄒᆞᆫ 열 개씩 스무 개씩 가져다근엥 쪄도 먹고.('감저눌'이라고 하지. '감저눌'에 말이지 고구마 담았다가 말이야 그거 뭐 먹고 싶으면 말이지 한 열 개씩 스무 개씩 가져다가 쪄도 먹고.) 27 [신도, 옹포]

감저뎅구리: 고구마 줄기를 자른 후 그 밑동 부분을 말한다. '뎅가리'라고도 한다. // 감제줄은 말고 감아서 나온 거 감저뎅구리렌 허는디, 무싱거렌 허느니? 감제줄은 질경 못 먹고 이파리 말고.(고구마줄기는 아니고 감아서 나온 거 '감저뎅구리'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니? 고구마줄기는 질겨서 못 먹고 이파리 말고.) 10 // 우린 감저뎅구리, 감제뎅구리옌 ᄒᆞ민 다 알아.(우린 '감저뎅구리', '감제뎅구리'라고 하면 다 알아.) 10 [월령]

감저떡: 고구마 고지를 가루 내어 만든 떡어다. // 감저떡은 감젓ᄀᆞ루 ᄀᆞᆯ아다근에 돌레, 돌레로 만들앙 영 돌레떡 헤근에 그거 헹 먹엇주게.('감저떡'은 고구마가루 갈아다가. 도래, 도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도래떡 해서 그거 해서 먹었지.) 16 [하원]

감저밥: 고구마와 쌀을 섞어서 지은 밥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감제밥'이라고도 한다. // 감저허고 보리쏠허고 넣으면 감, 감저밥.(고구마하고 보리쌀하고 넣으면 감, '감저밥'.) 09 // 먹을 거 엇이난 경 헹 감저밥 감저 놩 헷주. 그 감저밥 ᄃᆞᆯ지도 안헤게.(먹을 거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감저밥' 고구마 놔서 했지. 그 '감저밥' 달지 않아.) 18 // 감저 막 데기민 젓으민 감저가 풀어지민 밥이 ᄒᆞ쏠 영 벙뎅이 져근엥에게 그축 헤근에 감저밥.(고구마 막 문대면 저으면 고구마가 풀어지면 밥이 조금 이렇게 덩이져서 그처럼 해서 '감저밥'.) 23 // 보리밥 ᄀᆞ튼 거 조, 감저삣데기 ᄀᆞ튼 것도 놔서 먹고 감자도 썰엉 생감자로 밥ᄒᆞᆯ 때 놔서 먹고. 감저밥도 헹 먹고.(보리밥 같은 거 조, 절간고구마 같은 것도 놔서 먹고 감자도 썰어서 생감자로 밥할 때 놔서 먹고. '감저밥'도 해서 먹고.) 27 [고산, 성읍, 신도, 온평, 옹포]

감저쏠: 절간고구마를 가루로 빻았을 때 곱게 갈리지 않은 쌀과 같은 덩어리를 말한다. // 막걸리, 막걸린 오메기술로 허고 저 고소리술 허는 건 그냥 저 밥, 보리 초불만 진 거 허영 찌어. 찌엉 누룩 허껑 담앙 놔뒀당도 허고 감저쏠도 놩 허곡 허영 찌엉 이제 이 장테 이레 놓는 거라.(막걸리, 막걸리는 '오메기술'로 하고 저 '고소리술' 하는 건 그냥 저 밥, 보리 초벌만 찧은 거 해서 쪄. 쪄서 누룩 섞어서 담아 놔뒀다가도 하고 '감저쏠'도 놔서 하고 해서 쪄서 이제 이 '장테' 이리 넣는 거야.) 26 [신창]

감저아취: 고구마가 달렸던 줄기를 말한다. // 게민 감저아취엔 허영은에 모앗당 도새기 것 주는 거주.(그러면 '감저아취'라고 해서 모았다가 돼지 먹이 주는 거지.) 29 [외도]

감저죽: 고구마와 좁쌀을 섞어서 만든 죽을 말한다. '감제죽'이라고도 한다. // 그 전분죽이라고 감저죽이라고 감저죽을 가져다가 집에서 말이여, 끓여 가지고 죽으로 헤서 먹고 톳 ᄀᆞ튼 거 바다에 공짜니까 좀 헤근엥 그거 ᄀᆞ치 넣어서 서끄어 가지고 연명ᄒᆞ고 살앗주.(그 전분죽이라고 '감저죽'이라고 '감저죽'을 가져다가 집에서 말이야, 끓여 가지고 죽으로 해서 먹고 톳 같은 거 바다에 공짜니까 좀 해서 그거 같이 넣어서 섞어 가지고 연명하고 살았지.) 27 [웅포]

감저피죽: 고구마의 껍질을 말한다. // 서부락 사름들이 그 말 들엇덴 화닥탁화닥탁 그디 간 메여당 탁탁 놔 줘라게. 경 허난 감저피죽은 옆이 건이 ᄯᅳ로 허곡 너풀너풀허게 썩어도 썩은 거 몰라. 헉 부떠부난이.(서부락 사람들이 그 말 들었다고 '화닥탁화닥탁' 거기 가서 매어다가 '탁탁' 놔 주더라. 그러니까 '감저피죽'은 옆의 건 따로 하고 너풀너풀하게 썩어도 썩은 거 몰라. 흙 붙어버리니까.) 33 [인성]

감젓구감: 씨앗으로 땅 속에 심었던 해묵은 고구마를 말한다. // 감젓구감 ᄒᆞᆨ 올리멍 다, 영 영 듬북 ᄀᆞᆯ아놩 감젓구감 달롸, 또 밧듸 가근엥에 또 감저 다 놩.(해묵은고구마 흙 올리면서 다, 이렇게 이렇게 뜸부기 깔아놓고 해묵은 고구마 다뤄, 또 밭에 가서 또 고구마 다 놔서.) 24 [세화]

감젓구뎅이: 씨 고구마를 보관하기 위해서 파 놓은 구덩이를 말한다. // 이제 감젓구뎅이에 강 묻는 방법도 잇고.(이제 '감젓구뎅이'에 가서 묻는 방법도 있고.) 01 [도련]

감젓기계: 고구마를 썰 때 사용하는 기계이다. 절간고구마를 만들 때 사용한다. // 이런 디 강 잔디밧 그 헤근에 허민은 그디 강 시꺼다 놩 감젓기계로 디리치멍 썰어.(이런데 가서 잔디밭 그 해서 하면 거기 가서 실어다 놔서 '감젓기계'로 집어넣으면서 썰어.) 14 // 버덕이 하난에 이녁 밧듸서 파면은 그 버덕 ᄎᆞ지헤근에 막 감저 쪼끔씩 갓다 놧당 ᄎᆞ지헤 놔근에 거기서, 기계가 잇엇주, 감젓기계.(벌판이 많으니까 이녁 밭에서 파면은 그 벌판 차지해서 막 고구마 조끔씩 갔다 놨다가 차지해 놔서 거기서, 기계가 있었지, '감젓기계'.) 23 [성읍, 온평]

감젓눌: 고구마를 썰어 말린 것을 푸대 따위에 담아 쌓아 비, 바람을 막을 수 있게 쌓아 놓은 큰 더미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감저눌, 감젯눌'이라고도 한다. // 감젓눌이라는 게 밧이 강 이만큼 파.('감젓눌'이라는 게 밭에 가서 이만큼 파.) 09 [고산]

감젓메: 고구마 줄기를 얻기 위해서 땅에 묻는 씨 고구마를 말한다. 또 씨 고구마에서 생겨난 줄기를 이를 때도 '감젓메'라고 한다. // 감젓메 놔사주. 구강엔 ᄀᆞᆫ는 사름도 잇고 감젓메옌도.('감젓메' 놔야지. '구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감젓메'라고도.) 01 [도련]

감제떡: 제주도 향토 음식의 하나로 고구마를 말려서 빻은 가루에 얇게 썬 날고구마를 버무

려 찐 떡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또 감제떡도 잇어. 감저 그 저기 고구마 말려 가지고.(또 '감제떡'도 있어. 고구마 그 저기 고구마 말려 가지고.) 27 [옹포]

감제범벅: 고구마를 넣어 만든 범벅을 말한다. '감저범벅'이라고도 한다. // 밥은 뭐, 보리밥. 조팝. 곤밥. 또 그런 뭐 감제범벅.(밥은 뭐, 보리밥. 조밥. 쌀밥. 또 그런 뭐 '감제범벅'.) 27 [옹포]

감주펭: 감주를 담는 병이다. '펭'은 표준어 '병'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 감주 헤영 감주펭에 딱 허게시리 이제 그 지금 이제금 도자기라고 잇잖아.(감주 해서 '감줏병'에 딱 하게끔 이제 그 지금 이제금 도자기라고 있잖아.) 01 [도련]

감중의: 감물을 들여 만든 중의이다. '갈중의'라고도 한다. // 아니, 그건 감중의. 감 들영 경.(아니, 그건 '감중의'. 감 들여서 그렇게.) 29 [외도]

감쥣주시: 감주의 찌꺼기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겅 헷는디 엿날에 술 공장에 술 닦을 때 감쥣주시.(그렇게 했는데 옛날에 술 공장에 술 닦을 때 '감쥣주시'.) 27 [옹포]

감티: 짐승의 가죽이나 천 따위로 만든 방한모의 총칭을 가리키는 제주어이다. 예전에 산간 마을 사람들이 주로 썼다고 한다. // 그냥 그건 뭐 시지부지헌 모자덜. 계실로도 짱 씨주게. 그런 감티.(그냥 그건 뭐 흐지부지한 모자들. 털실로도 짜서 쓰지. 그런 '감티'.) 02 // 감티라고. 지달피 감티여 뭐 뮈신, 털 벙것이여 헹은에 거 아무나 아이 씁니다.('감티'라고. 오소리 가죽 '감티'며 뭐 무슨, 털 벙거지며 해서 거 아무나 안 씁니다.) 03 // 오로 감티? 오로 가죽으로. 오로가 저 땅 소급에 사는 거 저 지다리.(오소리 '감티'? 오소리 가죽으로. 오소리가 저 땅 속에 사는 것 저 오소리.) 15 // 감티도 잇고 머 ᄋᆞ라 가지 실 게라.('감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야.) 16 [선흘, 송당, 수망, 하원]

감평: 귤 품종의 하나이다. // 경허단 이제 또이 한라봉 말앙 감평이니.(그러다가 이제 또 한라봉 말고 감평이며.) 31 [토평]

갑: 귤 따위의 껍질을 벗긴 열매가 속껍질로 따로따로 싸인 낱개를 말한다. // 이것이 갑이 대여섯 갑이 벌리민게. 영 헷단 것이 영허영 벌령. 게민 이 새에 다 멘네.(이것이 '갑'이 대여섯 '갑'이 벌어지면. 이렇게 했던 것이 이렇게 벌어져. 그럼 이 사이에 다 면화.) 26 [신창]

갑마장: 조선시대 김만일 일가가 말을 기르던, 조선 최고의 말 육성 목장을 말한다. 표선면 가시리 일대 지경에 있다. 조선 세종 때 제주 사람 고득종이 임금께 건의하여 10개 국마장을 만들었다. 제주도에서 가장 큰 목장은 녹산장이었다. // 갑마장이엔 헌 거는 안 허고 이 성읍리는 이 저 동목장 서목장만 헤낫주.('갑마장'이라고 한 거는 안 하고 이 성읍리는 이 저 동목장 서목장만 했었지.) 14 [성읍]

갑장접: 나이가 같은 갑장끼리 서로 일을 돌아보기 위해 결성한 계를 말한다. '갑장훼'라고도 한다. // 갑장접 공동체를 운영헌 거.('갑장접' 공동체를 운영한 거.) 23 [온평]

갑장훼: 나이가 같은 갑장끼리 서로 일을 돌아보기 위해 결성한 계를 말한다. '갑장접'이라고도 한다. // 무신 일 나면 갑장훼는 그 집에 무슨 대소사에 부주도 헤야 뒈고, 갑장훼는 뭐 틀림없이 거 저장헷당 돈을 다 서로 풀고 서로 게난 서로 이익이라.(무슨 일 나면 '갑장회'는 그 집에 무슨 대소사에 부조도 해야 되고, '갑장회'는 뭐 틀림없이 거 저장했다가 돈을 다 서로 풀고 서로 그러니까 서로 이익이야.) 23 [온평]

강ᄀᆞᆯ레: 연의 한 종류로 가오리연을 말한다. '강ᄀᆞᆯ레비', '강ᄀᆞ레비'라고도 한다. // 창호지 허면은 저 요 영 허영 꼴리 돋히는 건 강ᄀᆞᆯ레렌 허곡양.(창호지 하면 저 요 이렇게 해서 꼬리 달린 건 '강ᄀᆞᆯ레'라고 하고요.) 20 [고내]

강나록: 밭벼의 한 종류이다. // 그게 ᄀᆞ튼 건데, 강나록이렌 ᄒᆞᆫ 건 나중에 좀 어디 재배헹 나온 거 같아.(그게 같은 것인데, '강나록'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좀 어디 재배해서 나온 거 같아.) 03 [송당]

강나록ᄊᆞᆯ: 밭벼쌀의 한 종류이다. // 이딘 강나록ᄊᆞᆯ벳긔 없어. 논이 엇으니까.(여긴 '강나록ᄊᆞᆯ'밖에 없어. 논이 없으니까.) 01 [도련]

강단이: 표선면 표선리의 지경 이름이다. // 이디 이 버들못에서 이제 밥주리 이제 수ᄏᆞ를 잡앙 씰에 영 꿰여근에 그거 막 하멍 이제 암ᄏᆞ 봐지민 온다 온다 허멍 그 밥주리만 보멍 나룩질로부터 강단이ᄁᆞ장 강 포부뜨젠.(여기 이 '버들못'에서 이제 잠자리 이제 수컷을 잡아서 실에 이렇게 꿰어서 그거 막 하면서 이제 암컷 보이면 온다 온다 하면서 그 잠자리만 보면서 '나룩질'로부터 '강단이'까지 가서 맞붙으려고.) 05 [표선]

강당장: 표선면 가시리 마을의 부자로 '당장'이라는 벼슬을 지낸 강 씨를 가리킨다. // 가시오름 강당장 집이 세콜방에 새 걸려 온다.('가시오름' '강당장' 집에 '세콜방에' 새 걸려 온다.) 06 [남원]

강돌와리: 쌀알이 노랗고 메진 조의 한 가지이다. // 강돌와리 ᄊᆞᆯ이여, 무신 ᄊᆞᆯ이여 다 ᄀᆞᆯ아.('강돌와리' 쌀이다, 무슨 쌀이다 다 말해.) 11 // 이름은 강돌와리여 무신, 무신. 무시거여, 무시거여 멧 곡지 이실 거여만은 우리 주로 헤난 거는 히린조, 모인조.(이름은 '강돌와리'며 무슨, 무슨. 무엇이며, 무엇이며 몇 꼭지 있을 거지만 우리 주로 했던 거는 차조, 메조.) 20 // 좋은 밧디 헌 것은 개발시리옌 헌 것이 아주 고고리가 컷수다게, 이만씩 허곡 또 강돌와리옌 헌 건 ᄯᅳ로 ᄌᆞᆯ곡.(좋은 밭에 한 것은 '개발시리'라고 한 것이 아주 이삭이 컸습니다, 이만큼씩 하고 또 '강돌와리'라고 한 건 또 잘고.) 35 // ᄂᆞᆨ인 밧은 강돌와리라고 헤 가지고, 낭 이만이 나 가지고, 모인조 헤 가지고.(나쁜 밭은 '강돌와리'라고 해 가지고, 나무 이만이 나 가지고, 메조 해 가지고.) 36 [고내, 대림, 봉성, 삼달, 외도, 함덕]

강뭇: 들에 자연적으로 물이 고이는 연못 같은 것을 말한다. 주변에 꾸찌뽕 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 물 ᄀᆞᆯ르는 통이 이서. 이 드르에 가면, 이 자연으로 그냥 이 저 논밧 모냥으로 그런 강뭇이라 헤 가지고 비 와난 땐 물이 그뜩허고 오래 물 앚는

디 그 큇낭이 읏라 개 나.(물 고이는 통이 있어. 이 들에 가면, 이 자연으로 그냥 이 저 논밭 모양으로 그런 '강뭇'이라 해 가지고 비 왔던 땐 물이 가득하고 오래 물 고이는 데 그 꾸지뽕나무가 여러 개 나.) 02 [선흘]

강상이물: 하류에서 상류로 흐르는 물을 의미한다. '강상수'라고도 한다. // 강상이물이 바로 여기 저 이 옹포다리 그 제일 우에인디.('강상이물'이 바로 여기 저 이 옹포다리 그 제일 위에인데.) 27 [옹포]

강술: 차좁쌀을 주재료로 하여 청주나 탁배기 술 빚는 과정과 비슷하나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죽과 같이 도수가 높은 술로 즉석에서 물을 타서 마신다. // 오합주 만드는 그걸 헤영 물을 일체 안 들이는 거라. 것만 딱 버무령 흔 일 년 놔두는 거라. 놔두민 그냥 누룩ᄀᆞ치 뒈는 거주. 강술.('오합주' 만드는 그걸 해서 물을 일절 안 들이는 거야. 것만 딱 버무려서 한 일 년 놔두는 거야. 놔두면 그냥 누룩같이 되는 거지. '강술'.) 01 // 건 강술. 누룩가치 뒈면은 이제 그 누룩을 ᄌᆞ베기만이 헤영은에 허민 대접에 놓는 거라. 경 헤연 물 떠 놩 그레 놓민 그게 술이라.(건 '강술'. 누룩같이 되면 이제 그 누룩을 수제비만큼 해서 하면 대접에 놓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물 떠 놓아서 그리로 놓으면 그게 술이야.) 01 [도련]

강알: 보통 사타구니를 뜻하나 두 물건 사이의 한가운데를 이를 때도 쓴다. 여기서는 '솟강알'로 아궁이를 의미한다. // 그디 강알 놩 솟덜 앚지고.(거기 아궁이 놔서 솥들 앉히고.) 31 [토평]

강알: 보통 사타구니를 뜻하나 두 물건 사이의 한가운데를 이를 때도 쓴다. 여기서는 다른 곡식이나 나무 사이 틈새를 말한다. // 옛날엔 장콩, 조 강알에 ᄒᆞ나씩 ᄒᆞ나씩 씨 삐영.(옛날엔 장콩, 조 사이에 하나씩 하나씩 씨 뿌려서.) 24 [세화]

강알씰밥: 바지 밑의 실밥을 말한다. // 요건 상폭 경 허영. ᄌᆞ른셋복, 이딘 진셋복. 이딘 허리. 이딘 강알씰밥.(요건 마루폭 그렇게. 작은사폭, 여긴 큰사폭. 여긴 허리. 여긴 '강알씰밥'.) 01 [도련]

강알튼바지: 밑이 트이게 만든 바지로 표준어의 '개구멍바지'를 이른다. // 강알튼바지. 그것ᄀᆞ란 밑바지. 밑바지옌 허주.('강알튼바지'. 그것보고는 '밑바지'. '밑바지'라고 하지.) 01 [도련]

강왓듸: 표선면 세화리에 있는 작은 동네 이름이다. // 강왓듸엔 헌 듸가 그때 하르버지들이 막 영 목 지켱 보추를 사수다.('강왓듸'라고 한 데가 그때 할아버지들이 막 이렇게 목 지켜서 보초를 섰습니다.) 24 [세화]

강이ᄆᆞ루: 구좌읍 한동리 바다 이름의 하나이다. // 이 바로, 바로 이 앞이가 강이ᄆᆞ루엔 헌 디.(이 바로, 바로 이 앞이 '강이ᄆᆞ루'라고 한 데.) 12 [한동]

강정칩: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이사 와서 살고 있는 집을 가리킨다. // 우린 촐이나 새나. 경허난 원 첨. 사름이 엇엉 살 건 아니주, 벨거 다 헹 살앗저. 각단 거, 강정칩이ᄀᆞ라 각단 ᄒᆞ쏠 도렌 허난, 아이고, 우린 비단 남으카 원 남으카 헨게.(우린 꼴

이나 띠나. 그러니까 원 참. 사람이 없어서 살 건 아니지, 별거 다 해서 살았어. '각단' 거, '강정칩'보고 '각단' 조금 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우린 베다가 남을까 원 남을까 하더라.) 31 [토평]

강찻코지: 애월읍 고내리 지명의 하나이다. // 또 저쪽이로 여기서 한 일 키로쯤 가게 뒈면은 부락 서 끄트머리에 여기서 강찻코지옌 헙니다.(또 저쪽으로 여기서 한 일 킬로미터쯤 가게 되면 부락 서 끄트머리에 여기서 '강찻코지'라고 합니다.) 20 [고내]

강태공서목시: 강태공수목수(姜太公首木手)로, 성주풀이에서 청해 들이는 목수(木手)의 신을 말한다. '강태공서목공', '강태공서목수', '강태공수목수'라고도 한다. // 강태공서목시 헤여근엥 강태공서목시가 엿날에 집 짓은 할아방이주게.('강태공서목시' 해서 '강태공서목시'가 옛날에 집 지은 할아버지이지.) 09 // 강태공서목시. 목시옌 헌 게 강태공은 성 성이고 목시옌 헌 거는 그 할아방이 강태공서목시라는 이름이주게.('강태공서목시'. 목사라고 한 게 강태공은 성 성이고 목사라고 한 거는 그 할아버지가 '강태공서목시'라는 이름이지.) 09 [고산]

개: 아기를 세는 단위는 '명'인데, 제주도에서는 '개'를 쓰기도 한다. // 나고 자란 것은 우리사 우리 어멍 아기 열두 갠가 멧 개 낫덴 헷고.(나고 자란 것은 우리야 우리 어머니 아기 열두 '갠'가 몇 '개' 낳았다고 했고.) 34 [구억]

개광: 무덤을 쓸 때 방향을 바로 잡아 관을 넣을 자리를 파는 일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표준어로는 '광중'이다. // 가면 이제 가서 개광.(가면 이제 가서 '개광'.) 09 // 개광, 개광 파 가지고 관을 놓주게.('개광', '개광' 파 가지고 관을 놓지.) 09 [고산]

개광문: 무덤을 쓸 때 방향을 바로 잡아 관을 넣을 자리인 광중을 파는데 그 자리를 말한다. // 경ᄒᆞ민은 둣날은 목시가 그 개광문을 달롸. 그 지금 그 구뎅이를 파주게. 목시가 강 파근에 그 하관 헤여근에 ᄒᆞ면은 목시는 걸로 끗이라.(그러면 뒷날은 목수가 그 '개광문'을 다루지. 그 지금 그 구덩이를 파지. 목수가 가서 파서 그 하관해서 하면 목수는 걸로 끝이야.) 24 [세화]

개굴레비: 가오리연을 가리키는 제주어이다. '객골레비'라고도 한다. 제보자는 '개굴레비'가 '개구리'라고 했다. // 개굴레비 헤신디. 꼭 개구리 닮아.('개굴레비' 했는데. 꼭 개구리 닮아.) 03 [송당]

개금: 바다를 몇 구역으로 나눌 때의 경계를 말한다. 즉 '개금'은 '개+금'으로, '개'는 바다, '금'은 다른 것과 경계 짓기 위해 그은 선이라는 의미이다. // 옛날 바다를 우리가 퉤비헐랴면은 그 엿날에는 이 어촌계가 아니라 개금이라고 헤 가지고.(옛날 바다를 우리가 퇴비하려면 그 옛날에는 이 어촌계가 아니라 '개금'이라고 해 가지고.) 23 // 경 헤영 바당을 헷는데, 그 개금이 사름이 사십오 명 부떠낫어양.(그렇게 해서 바다를 했는데, 그 '개금'이 사람이 사십오 명 붙었었어요.) 23 [온

평]

개금이: 바다의 일정 구역을 나눠서 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 개금이 허면은 우리 여맞은개 ᄀᆞ뜬 딘양, 팔십 칭ᄁᆞ장 나낫수다게.('개금이' 하면 우리 '여맞은개' 같은 곳은요, 팔십 층까지 났었습니다.) 23 [온평]

개맛: 바닷물이 드나드는 어귀로 배를 매어두는 포구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 '개창'이라고도 한다. // 개맛은 배 들이미는 거 개맛.('개맛'은 배 들이미는 거 '개맛'.) 13 // 개맛이라고 허잖아. 바닷가에, 바닷가에 이 저 요즘 조그만헌 이 성창. 배 매는 고깃배 ᄀᆞ튼 거 매는.('개맛'이라고 하잖아. 바닷가에, 바닷가에 이 저 요즘 조그마한 이 성창. 배 매는 고깃배 같은 거 매는.) 19 [삼달, 청수]

개맛듸: 바닷물이 드나드는 어귀로 배를 매어두는 포구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 '개ᄭᅩᆺ, 개ᄭᅩᆺ듸'라고 한다. // 배 들어오는 디. 그딘디 영 허영 ᄒᆞ끔만 내려가민 걸 잡을 건디 자단 보난 뭐 다섯 시, 아척 다섯 시 뒈어 불언. 개맛듸.(배 들어오는 데. 거긴데 이렇게 해서 조금만 내려가면 걸 잡을 건데 자다가 보니까 뭐 다섯 시. 아침 다섯 시 되어 버렸어. '개맛듸'.) 01 [도련]

개미: 장을 담글 때 소금물에 있던 메주덩이를 말한다. // 놔뒀당 먹을 저를도 없엇어. 그냥 항에 ᄃᆞᆯ아졍 이런 개미에서 뜯어다가 먹엇지.(놔뒀다가 먹을 겨를도 없었어. 그냥 항아리에 매달려서 이런 '개미'에서 뜯어다가 먹었지.) 01 // 개미가 뒌장이 카져 불민 장물 빼기가 궂이난, 거찌지 안헷다근에 그때 삭 허게 메주 톡톡톡톡 손으로 건져 불민 장물만 싹 빼져.('개미'가 된장이 부서져 버리면 간장 빼기가 궂으니까, 건드리지 않았다가 그때 삭 하게 메주 톡톡톡톡 손으로 건져 버리면 간장만 싹 빠져.) 25 [도련, 태흥]

개바눙: 식물명으로 '도깨비바늘'을 말한다. // 옷에두 막 부트국 개바눙 닮은 거.(옷에도 막 붙고 도깨비바늘 같은 거.) 24 // 개바눙 맞아. 여름엔 그게 하.(도깨비바늘 맞아. 여름엔 그게 많아.) 24 [세화]

개발시리: 이삭의 끝이 개의 발 같이 세 가닥으로 되고 쌀알이 거무스름한 차진 조의 한 가지이다. // 개발시리라고 조코고리가 피면 영 끗겡이 까릿까릿 요렇게 헤서. 개발ᄀᆞ치 이렇게 허주게.('개발시리'라고 조 이삭이 피면 이렇게 끄트머리 '까릿까릿' 요렇게 해서. 개발같이 이렇게 하지.) 01 // 끄트머리가 두 개로 영 거려 개발시리는 낭이 막 붉어.(끄트머리가 두 개로 이렇게 거려 '개발시리'는 나무가 아주 붉어.) 08 // 개발시리는 낭이 붉어. 낭이 붉고, 그 끄트머리가 딱 ᄒᆞ게시리 두 가달이라. 두 가달도 벌리곡, 세 가달도 벌리곡, 개발시리가.('개발시리'는 나무가 붉어. 나무가 붉고, 그 끄트머리가 딱 하게끔 두 가닥야. 두 가닥도 벌리고, 세 가닥도 벌리고, 그 '개발시리'가.) 08 // 이 동네는 건즘 비옥허니까 거의 다 그 개발시리를 많이 헷수다.(이 동네는 거의 비옥하니까 거의 다 그 '개발시리'를 많이 했습니다.) 35 [대림, 도련, 동광, 봉성, 외도]

개벽ᄒᆞ다: 외에 흙질하는 것을 말한다. '개벡', '안벡'이라고도 한다. // 서리렌 헤근에 서리 걸쳐근에, 그 우에 또 나무로 헤근에 ᄆᆞᆫ 여끄는 거라. 흑 ᄒᆞ민은 개벽ᄒᆞ민은 떨어지지 안허게시리.(서까래라고 해서 서까래 걸쳐서, 그 위에 또 나무로 해서 모두 엮는 거야. 흙 하면 개벽하면 떨어지지 않게끔.) 07 [보목]

개부께: 식물 꽈리의 일종이다. // 개부께, 개부께는 젠젠하면서 영 ᄒᆞ꼼 영 저 볼레ᄀᆞ치록 쫄랑쫄랑하게시리 셍긴 거고. 그 개부께는 색깔도 다양하게 검은 색깔도 잇곡 빨간 색깔도 잇곡 경.('개부께', '개부께'는 자잘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저 보리수처럼 쫄랑쫄랑하게 생긴 거고. 그 '개부께'는 색깔도 다양하게 검은 색깔도 있고 빨간 색깔도 있고 그렇게.) 05 [표선]

개석이왓: 한림읍 대림리에 있는 지경이다. // 본 동네도 여긴 저 입전동이라 헤근에 잇고, 리사무소 잇는 딘 중동, 저 아래는 동화동, 광희동 또 개석이왓 헤 가지고.(본 동네도 여긴 저 '입전동'이라 해서 있고, 이사무소 있는 데는 '중동', 저 아래는 '동화동', '광희동' 또 '개석이왓' 해 가지고.) 35 [대림]

개씹: 아랫눈시울에 난 다래끼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개좃'이라고도 한다. // 거 무시거도 허여신디. 보리, 산디. 그것ᄀᆞ라 개좃이렌 허주게. 아래 나는 건 개씹이고.(거 무엇도 했는데. 보리, 밭벼. 그것보고 '개좃'이라고 하지. 아래 나는 건 '개씹'이고.) 18 // 눈에 뭐 영 개씹, 개씹.(눈에 뭐 이렇게 '개씹', '개씹'.) 24 [세화, 신도]

개엿물: 한림읍 한림고등학교 서쪽에 위치해 있는 못을 의미한다. '개여못'이라고도 한다. // 개엿물이라고 이제는 그 사람이 하나가 드나들 수 잇는 그런 이제 물이엇는데.('개엿물'이라고 이제는 그 사람이 하나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물이었는데.) 27 [옹포]

개역: 미숫가루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여기에서는 핍쌀을 찧는 과정에서 나온 쌀가루를 말한다. // ᄉᆞ레기 치곡 개역 치곡 ᄆᆞᆫ딱 허당 보민 젤 우의 것가 무거리피ᄉᆞᆯ.(싸라기 치고 '개역' 치고 모두 하다가 보면 젤 위의 것이 '무거리피ᄉᆞᆯ'.) 14 [성읍]

개역ᄉᆞ레기: 미숫가루를 만들기 위해 맷돌에 갈다가 생긴 볶은 보리 싸라기를 말한다. // 밥에도 비병 먹곡 개역ᄉᆞ레기도 먹곡 벨짓을 다 허멍 사난에게.(밥에도 비벼서 먹고 '개역ᄉᆞ레기'도 먹고 별짓을 다 하면서 사니까.) 14 [성읍]

개영덕: 한경면 신창리의 지명이다. // ᄒᆞᆫ번은 간 보난 아무것도 엇어게. 양, 이디 항덜 다 어디 갓수과? 허난 저 거세기 개영덕더레 강 다 데껴 벳저. 아, 무사 개영덕더레 강 데낍니까? 경허난에 몰르켜게. 허멍.(한번은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예, 여기 항들 다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저 거시기 '개영덕'으로 가서 다 던져 버렸어. 아, 왜 '개영덕'으로 가서 던집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 하면서.) 26 [신창]

개올레: 제주시 외도동의 지명이다. '개'는 포구로 이어진 오래여서 붙은 지명이다. // 촘 살아신디 어떵 어떵 그 전분공장에 차 타멍도 뭐허연 허단. 베에 또 좋아허영 바

당 뎅기는 이 개올레 베.(참 살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그 전분공장에 차 타면서도 뭐해서 하다가. 배에 또 좋아해서 바다 다니는 이 '개올레' 배.) 29 [외도]

개위: 툇마루의 안쪽 기둥과 바깥쪽 기둥과의 사이에 가로 건너지르는 나무로 표준어로는 '툇보'이다. '개우', '가위'라고도 한다. // 저짝 포허고 저짝 개위하고 이짝 가위까지 길게 나오는 게 포.(저쪽 보하고 저쪽 '개위'하고 이쪽 '가위'까지 길게 나오는 게 보.) 14 // 그 다음 뭐 그 다 부위별로 이름이 잇는데 뭐, 뭐 개윗돌이여 뭐 무슨 개위도 뒷 개위, 앞 개위, 허젠 하민 것도 주춧돌이 네 개 들어가는 거.(그 다음 뭐 그 다 부위별로 이름이 있는데 뭐 뭐 '개윗돌'이여 뭐 무슨 '개위'도 뒷 개위, 앞 개위, 하려고 하면 그것도 주춧돌이 네 개 들어가는 것.) 15 // 개위옌 헌 것은 시 번체 돌이 바꼇디 것ᄀᆞ라 개위옌 헷수다.('개위'라고 한 것은 세 번째 돌이 바깥의 것더러 '개위'라고 했습니다.) 35 [대림, 성읍, 수망]

개윗도리: 보와 보 사이에 있는 도리이다. // 개윗도리는 아까 곧은 나무로 질 우에 걸치는 것ᄀᆞ라 개윗도리옌 헙니다.('개윗도리'는 아까 곧은 나무로 젤 위에 걸치는 것더러 '개윗도리'라고 합니다.) 35 [대림]

개윗돌: 툇마루의 안쪽 기둥과 바깥쪽 기둥이 지탱할 수 있게 기초로 받쳐놓는 돌을 말한다. // 그 다음 뭐 그 다 부위별로 이름이 잇는데 뭐, 뭐 개윗돌이여 뭐 무슨 개위도 뒷 개위, 앞 개위, 허젠 하민 것도 주춧돌이 네 개 들어가는 거.(그 다음 뭐 그 다 부위별로 이름이 있는데 뭐 뭐 '개윗돌'이여 뭐 무슨 '개위'도 뒷 개위, 앞 개위, 하려고 하면 그것도 주춧돌이 네 개 들어가는 것.) 15 [수망]

개자리: 여름에 나는 김 종류의 하나이다. // 소웽이도 잇주만은 건 하영 안 나고이, 진풀이영 개자리 그것들 낭은에 매낫저.(엉겅퀴도 있지만 그건 많이 안 나고, 별꽃이랑 '개자리' 그것들 나서 맸었지.) 10 [월령]

개지: 밥그릇의 뚜껑을 말한다. '가지', '가짓겡이', '게짓겡이'라고도 한다. // 높은 사람은, ᄒᆞ쏠 어른은이 그 개지에 ᄒᆞᆫ 숟가락 톡 놩 개지로 주곡.(높은 사람은, 조금 어른은 그 '개지'에 한 숟가락 톡 놔서 '개지'로 주고.) 31 [토평]

개창: 바닷가에 배를 맬 수 있도록 한 곳을 말한다. // 또 바로 우리 이 바론디 개창, 이 배 메는 디난 개창.(또 바로 우리 이 바로인데 '개창', 이 배 매는 데니까 '개창'.) 10 [월령]

개청: 대청 원님 수설 횡경 밧디: '한다리인다리' 놀이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이다. // 이런 다리덜 코찡히 놓민 ᄒᆞᆫ다리인다리. 개청 대청 원님 수설 횡경 밧디 지둥에 쳐.(이런 다리들 가지런하게 놓으면 '한다리인다리'. '개청 대청 원님 수설 횡경 밧디' 기둥에 쳐.) 06 [남원]

개춘: 바닷가 마을을 말한다. // 경도 허고 첨 이 토평은이 볼목리레 이 개춘더레보단 이상케 산춘이난산디 더 토벌대가 사름을 경 이 산에 올라근에 심엉덜 줄 잇엉이, 줄 잇엉 그 무시걸로 ᄆᆞᆫ 기자 연결 연결 무끄멍 이껑 오는 것이 기자 ᄒᆞᆫ 사름이 아

이구, 수정 몰르게 이껑 ᄂᆞ려와라, 토벌대들이.(그렇게도 하고 참 이 토평은 보목동에 이 '개춘'에보다는 이상하게 산촌이어서인지 더 토벌대가 사람을 그렇게 이 산에 올라와서 잡아서들 줄 이어서, 줄 이어서 그 무엇으로 모두 그저 연결 연결 묶으면서 이끌어서 오는 것이 그저 한 사람이 아이고, 수 모르게 이끌어서 내려오더라, 토벌대들이.) 31 [토평]

개탁가름: 제주시 외도동의 자연 마을의 하나이다. // 그게 그 형국으로 봉 던더리동산이엔 허곡 여기는 개탁가름이라고 이 동남쪽에는.(그게 그 형국으로 봐서 '던더리동산'이라고 하고 여기는 '개탁가름'이라고 이 동남쪽에는.) 29 [외도]

개판: 표준어로 '횡대'를 말하며 관 위에 덧덮는 널빤지를 말한다. // 개광덜 놩 그 우이 따시 또 개판 톡톡 더꺼근에 멘짝허게 더퍼놔근에 그레 ᄒᆞᆨ 헹 메우멍 봉분 싸는 거주.(묘광들 놔서 그 위에 다시 또 횡대 톡톡 덮어서 매끈하게 덮어놔서 그리 흙 해서 메우면서 봉분 쌓는 거지.) 13 [삼달]

개피쟁이: 개를 도축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 겐디 그 개피쟁이는 잘도 무서와, 사름덜도. 잘도 무서와.(그런데 그 '개피쟁이'는 매우 무서워, 사람들도. 매우 무서워.) 30 [노형]

갯구들: 바다에서 자라는 해초를 말한다. 끈적한 점액질이 있어서 말렸다가 방바닥을 바르거나 창을 바를 때 끓여서 풀 대용으로 쓴다. // 갯ᄀᆞ이 강 갯구들이 메당 발레영 솟듸 놩 쑤어.(갯가에 가서 '갯구들' 메다가 바래서 솥에 놔서 쑤어.) 13 [삼달]

갯ᄀᆞ이: 표준어 '갯가'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갯가에서 해산물을 잡는 일'의 의미로 쓰였다. // 헛물에 강 갯ᄀᆞ이 소질 잇는 사름은 고기, 고기 많이 쏘는 사름은 고기만 만이 쏘고.('헛물'에 가서 갯가 소질 있는 사람은 고기, 고기 많이 쏘는 사람은 고기만 많이 쏘고.) 12 [한동]

갯놉: 표선면 표선리 바닷가의 지경 이름이다. // 아이고, 갯놉에 멜 들언, 막 선전허면은 막 가는 거야.(아이고, '갯놉'에 멸치 들었어. 막 선전하면 막 가는 거야.) 05 // 갯놉이란 그 통에 멜이 잘 들어.('갯놉'이란 그 통에 멸치가 잘 들어.) 05 [표선]

갯ᄂᆞᄆᆞᆯ짐치: 갓김치를 일컫는다. // 갯ᄂᆞᄆᆞᆯ짐치도 갯ᄂᆞᄆᆞᆯ짐친 ᄒᆞ민 그 갯ᄂᆞᄆᆞᆯ도 ᄂᆞᄆᆞᆯ이나 마찬가지로, 저 갯ᄂᆞᄆᆞᆯ은 아무디나 데껑 내불민 기냥 나는 거난에, 게민 좋으민 기자 칼로 강 딱딱 해단에 ᄎᆞᆷ 싯어근에 죽엿다근에 기자 것도 양념 기자 대강만 ᄒᆞ여근에 딱 지들황 놔 두민양, 오래 이시민 맛 좋읍니다.(갓김치도 갓김치는 하면 그 갓도 나물이나 마찬가지로, 저 갓은 아무데나 던져서 내버리면 그냥 나는 거니까, 그러면 좋으면 그저 칼로 가서 딱딱 해다가 참 씻어서 절였다가 그저 것도 양념 대강만 해서 딱 지질러서 놓아 두면요, 오래 있으면 맛 좋습니다.) 08 [동광]

갯담: 해변 조간대에 만을 이루는 듯한 곳에 돌담을 축조해 놓고 밀물을 따라 몰려든 고기

뗴를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 놓아 쉽게 잡을 수 있게 장치해 둔 곳이다. '원담'이라고도 한다. // 갯담이엔 헌 건 저것이 바당이민 이건 ᄀᆞᆺ이면은 영 ᄀᆞᆺ 부쪙 담을 다와이.('갯담'이라고 한 건 저것이 바다면 이건 가면 이렇게 가 붙여서 담을 쌓아.) 11 // 저것이 바당이민 이건 ᄀᆞᆺ이민 요디도 끈어졍 저레 못 가면은 그걸로 성창 멘들앙 글로 바라가는 것이 갯담이라.(저것이 바다면 이건 가면 요기도 끊어져서 저리 못 가면 그걸로 부두 만들어서 그리로 따라가는 것이 '갯담'이야.) 11 // 갯담이라고 헨 다와졋는데 멜이 많이 들어와근에가 그 뭐인가 물이 쌍 ᄆᆞᆯ라근에가 못 나가면은 갯담에 거 실 거 아니가?('갯담'이라고 해서 쌓았는데 멸치가 많이 들어와서 그 뭐인가 물이 써서 말라서 못 나가면 '갯담'에 거 있을 거 아니냐?) 12 // 갯담이나 원담이나 마찬가지 바당에 허는 거.('갯담'이나 '원담'이나 마찬가지 바다에 하는 거.) 18 [신도, 한동, 함덕]

갯맛: 바닷물이 드나드는 개[浦]의 뭍 쪽이 되는 곳을 말한다. // 경 허고 또 외도 다리 아래. 그디가 갯맛이.(그렇게 하고 또 외도 다리 아래. 거기가 '갯맛'이.) 29 [외도]

갱거리: 제사에 올리는 국을 끓일 재료를 뜻한다. // 없으면은 또 제ᄉᆞ 때에도 무 썰어 놔근에 고기에 무 놩 갱거리라고 경 헹 헙니다.(없으면 또 제사 때에도 무 썰어 넣어서 고기에 무 넣어서 '갱거리'라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14 [성읍]

갱연: 방패 모양으로 만든 연인 방패연을 말한다. '정연', '돌연'이라고도 한다. // 영 니게 반듯허영 가운데 고냥 똘른 거. 갱연.(이렇게 네모 반듯해서 가운데 구멍이 뚫은 거. '갱연'.) 03 [송당]

거느리다: '말하다, 들먹이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제주어이다. // 정제 솟 우이 무시거 놔낫주. 그런 거 ᄒᆞᆯ 땐 그 조왕을 거느려.(부엌 솥 위에 뭐 놓았었지. 그런 거 할 땐 그 '조왕'을 들먹여.) 15 [수망]

거대기: '거들락'의 다른 표현인 듯하다. '거들락'은 표준어 '우뚝'에 대응하는 말이다. // 나만 다 힘들언. 정심헤영 짊어져 가는 건, 벌초ᄒᆞ는 디 먼 디. 엿날인 무신 차가 이시카. 하르방네 거대기 강 애기들도 강 ᄒᆞ곡 ᄒᆞ민, 이제는 난 벌초는 안 헤봣주.(나만 다 힘들었어. 점심해서 짊어져 가는 건, 벌초하는 데 먼 데. 옛날엔 무슨 차가 있을까. '할아버지'네 '거대기' 가서 아기들도 가서 하고 하면, 이제는 난 벌초는 안 해봤지.) 15 [수망]

거두: 자루를 한쪽에만 박아 잡아당겨 켜는 톱을 '거도'를 말한다. // 거두여, 베루여.('거도'다, 벼루다.) 07 [보목]

거들거들: 풀 따위가 삐죽삐죽 올라온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느 고랑 나 고랑 엇이 막 더꺼져 분 후제는 기자 우이 나온 것만 뽑는디 그것 영 거들거들 날 때, 검질이 고랑에 난다게. 막 짓어. 경허민 메여사.(너 고랑 나 고랑 없이 마구 덮여 버린 후에는 그저 위에 나온 것만 뽑는데 그것 이렇게 '거들거들' 났을 때, 김이 고랑에 난다. 아주 무성해. 그럼 매어야.) 31 [토평]

거랑거랑: 목화 열매 껍질 밖으로 솜이 많이 나온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그랑그랑'이라고도 한다. // 피민 것이 나왕 솜이 거랑거랑. ᄇᆞ름이나 불민 그랑그랑 베꼇디도 허고, 나오고.(피면 것이 나와서 솜이 '거랑거랑'. 바람이나 불면 '그랑그랑' 밖에도 하고, 나오고.) 26 [신창]

거령청이: 아무 근거도 표준도 없이 그저 허튼짓이나 말을 하는 모양을 말한다. // 먹어나민 이만이헌 다라로 그릇이 하나곡 미깡은 못 타고 헤 놓민양, 아이고, 밧듸 가민 ᄉᆞ못 원 정신이 엇어근엥에 어떵 원 거령청이 살아진 거 닮읍니다게.(먹고 나면 이만한 대야로 그릇이 가득하고 귤은 못 따고 해 놓으면요, 아이고, 밭에 가면 사뭇 원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원 '거령청이' 살아진 거 같습디다.) 32 [덕수]

거로: 제주시 화북동의 자연 마을 이름이다. // 여기가 사통오달 뒌 곳이라나서. 전부 이웃 마을이고 게난 놀 때도 옛날 우리 여기서 거로 저 용강 봉개 명도암 이 회천 신촌까지덜.(여기가 사통오달 된 곳이어서. 전부 이웃 마을이고 그러니까 놀 때도 옛날 우리 여기서 '거로' 저 '용강' '봉개' '명도암' 이 '회천' '신촌'까지들.) 01 [도련]

거릇굴: 조천읍 함덕리 2구의 지명이다. '거릇굴'은 현재 함덕2구 노인당 자리에 있었던 연못을 이르는 지명이다. // 이디는 거릇굴 동네.(여기는 '거릇굴' 동네.) 11 [함덕]

거류민단: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을 말한다. 1946년 '재일본조선거류민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9월 28일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1994년 4월 20일에 '재일본대한민국민단'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일본인에 의한 법적 경제적 차별 철폐, 일본지방참정권 부여, 한일교류 촉진 등의 주요 활동을 하고 있다. // 우리 아주망이 고생혯주. 게난 우리 오빠는, 우리 오빠도 거류민단이라이, 일본서.(우리 아주머니가 고생했지. 그러니까 우리 오빠는, 우리 오빠도 '거류민단'이야, 일본에서.) 30 [노형]

거름체: 건더기가 있는 액체를 거르는 데 쓰는 조금 눈이 굵은 체를 말한다. '대거름체'와 '총체' 사이에 있는 체이다. 체의 종류에는 크기에 따라 '대체, 대거름체, 거름체, ᄀᆞ는체' 등이 있다. // 경 헤영 그 대체는 아래, 거름체는 우이. 꼭 그런 중간에 걸로 허지. 아니 거펴진 건 거름체 우이 거, 신 건 또 거펴야 뒈고.(그렇게 해서 그 대체는 아래, '거름체'는 위. 꼭 그런 중간에 걸로 하지. 아니 거피해진 건 '거름체' 위의 거, 있는 건 또 거피해야 되고.) 06 // 거름체로 친 건 는젱이ᄀᆞ루, ᄯᅮ시 그 무신 ᄀᆞ루는 ᄊᆞᆯ에 불려 분 거 ᄒᆞᆫ 건 늬께미ᄀᆞ루, ᄯᅮ시 ᄊᆞᆯ로 나온 건 는젱이ᄀᆞ루, 경 뒈는 거.('거름체'로 친 건 나깨가루, 다시 그 무슨 가루는 쌀에 불려 버린 거 한 건 뉘가루, 다시 쌀로 나온 건 나깨가루. 그렇게 되는 거.) 08 // 대거름체, 거름체, 총체 걸로 치민, 총체는 ᄀᆞ루 나오곡, 대거름체는 홁은 대거름체, ᄌᆞᆷ진 대거름체 ᄒᆞᆸ니다.('대거름체', '거름체', '총체' 걸로 치면, '총체'는 가루 나오고, '대거름체'는 굵은 '대거름체', 가는 '대거름체' 합니다.) 17 // 겨난 저, 거름체로, 거름체, 대거름체, 대체 체도 ᄋᆞ라 가지주. 게난 대거름체로

치영 ᄌᆞ베기 허영 먹주.(그러니까 저, '거름체'로, '거름체', '대거름체', '대체' 체도 여러 가지지. 그러니까 '대거름체'로 쳐서 수제비 해서 먹지.) 26 [고내, 남원, 노형, 대평, 도련, 동광, 삼달, 세화, 송당, 신창, 신촌, 우도, 한동]

거리다: '가지 벌리다' 혹은 '보리 따위나 나무줄기에서 새로이 곁가지가 돋아 벋어 나가 갈라져 나가다'는 의미이다. // 검질을 메어 놔두민양, 산디가 요만이 ᄒᆞᆫ 거 하나가 거리멍 ᄒᆞᆫ ᄑᆞᆯ기썩 거려근에양, ᄒᆞᆫ ᄑᆞᆯ기썩 거려. ᄒᆞ나 영 ᄒᆞᆫ 것이 검질만 잘 메민 땅을 복삭ᄒᆞ게 검질만 잘 메민 ᄒᆞᆫ두 개, 두 ᄑᆞᆯ기만 줴민 ᄒᆞᆫ 줌씩 거립니다.(김을 매어 놔두면요, 밭벼가 요만큼 한 거 하나가 '거리면서' 한 포기씩 '거려서', 한 포기씩 '거려'. 하나 이렇게 한 것이 김만 잘 매면 땅을 '복삭하게' 김만 잘 매면 한두 개, 두 포기만 쥐면 한 줌씩 '거립니다'.) 08 // 초불 메영 그거. 초불 메여근에 이젠 또 쪼금 시믄 그것이 거리멍 커 갈 거 아니?(초벌 매서 그거. 초벌 매서 이젠 또 조금 있으면 그것이 '거리멍' 커 갈 거 아니?) 20 // 그거 영 들러젼 잘 허난 그걸 제깍허게 정월 나민 ᄇᆞᆯ라 줘. 경허민 그것이 거령 좋나, 거.(그거 이렇게 들려서 잘 하니까 그걸 '제깍하게' 정월 되면 밟아 줘. 그러면 그것이 줄기가 '거령' 좋아, 거.) 26 // 겐 갈아근에 그 순이 나오면은, 이 둥심둥심 놔야 뒈, 이 종자를. 경헤야 그 가지 거리면서 탁 퍼지면서 목화를 많이 달리게.(그래서 갈아서 그 순이 나오면, 이 듬성듬성 놔야 돼, 이 종자를. 그래야 그 가지 '거리면서' 탁 퍼지면서 목화를 많이 달리게.) 30 [고내, 노형, 동광, 신창, 외도]

거리다: 자질구레한 물고기 따위를 그물로 잡아 올리는 것을 말한다. // 옛날은 게근에 ᄉᆞ ᄆᆞᆺ 어떵 ᄒᆞ여근에 자리 하영 나끌 때는 아다르 뒈민 하영 거릴 때나, 아다르 뒈민 자리를 사당 모실포서 이ᄁᆞ지 졍 오랑.(옛날은 그래서 사뭇 어떻게 해서 자리 많이 낚을 때는 잘 걸리게 되면 많이 '거릴' 때나, 잘 걸리게 되면 자리를 사다가 '모슬포'서 이까지 져 와서.) 08 // 요만헌 족바지 헹 거리는 사람은 거리고. 이제 돌 트멍에 영 막 메와져. 나도 강 돌 트멍에 거 줴영 구덕에 줴영 와신디.(요만한 작은 바가지 해서 '거리는' 사람은 '거리고'. 이제 돌 틈에 이렇게 막 모여. 나도 가서 돌 틈에 거 쥐어 바구니에 쥐어 왔는데.) 18 // 또 자리도 거리레 ᄌᆞᆷ 뎅겨 봐도 휏거리나 ᄌᆞᆷ 헷지 본격적으로 웨냐ᄒᆞ면 ᄌᆞᆷ ᄀᆞ치 뎅기는 사름은 서툴고 서툰 사람이고 이렇게 헤서 이제 자리가 아주 기술적인 사름이 아니민 자리를 많이 못 거립니다게.(또 자리돔도 '거리'러 좀 다녀 봐도 횟거리나 좀 했지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좀 같이 다니는 사람은 서툴고 서툰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리가 아주 기술적인 사람이 아니면 자리돔을 많이 못 '거립니다'.) 22 // 자리젓도 그땐, 우리 그땐 잘 엇엉, 막 우리 ᄒᆞ꼼 ᄋᆞᆨ아사 그 자리젓도, 기자 자리 ᄂᆞᆯ차 그땐 막 거려다근에. 그땐 자리도 바당에 하난 셍이라.(자리돔젓도 그땐, 우리 그땐 잘 없어서, 막 우리 조금 'ᄋᆞᆨ아'야 그 자리돔젓도, 그저 자리돔 날짜 그땐 막 '거려다가'. 그땐 자리돔도 바다에 많았던 모양이야.) 24 [보목, 동광, 세

화, 신도, 우도]

거린오름: 남원읍 한남리에 있는 '큰거린오름'을 말한다. // 호열자 아시날 죽언 돌아가니깐 거 그디 묻엇단에 저 뭐레 거린오름으로ᄁᆞ지 아, 못 간 우리 하르방이 거린오름 간 또 모셧단, 이디 모셔오지 아녜서.(호열자 전날 죽어서 돌아가니까 거 거기 묻었다가 저 뭐하러 '거린오름'으로까지 아, 못 간 우리 할아버지가 '거린오름' 가서 또 모셨다가, 여기 모셔오지 않아서.) 15 [수망]

거린오름: 안덕면 동광리에 있는 오름이다. // 오름은 이 부락 남쪽으로 가면, 우리 동네 남쪽으로 가면. 이 저 북오름이 잇곡. 그것 따라 거린오름이 잇곡.(오름은 이 부락 남쪽으로 가면, 우리 동네 남쪽으로 가면. 이 저 '북오름'이 있고, 그것 따라 '거린오름'이 있고.) 08 [동광]

거림팍: '거림패기'의 다른 표현이다. // 게 요런 거림팍 용 돋은 거 헤당 대나무로 왕대로 헹 얽어.(게 요런 '거림팍' 요렇게 돋은 거 해다가 대나무로 왕대로 해서 얽어.) 24 [세화]

거릿: 제주시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이다. '거릿 삼춘'은 '거릿' 마을에 살고 있는 '삼춘'을 말한다. // 거릿 삼춘네 예편 삼춘은 손이 ᄒᆞ꼼 ᄇᆞ뜬 거라도 빙떡만 주로 제사 때고 멩질 때고 헤난 셍이라.('거릿' '삼춘'네 여편 '삼춘'은 손이 조금 'ᄇᆞ뜬' 거여도 '빙떡'만 주로 제사 때고 명질 때고 했던 모양이야.) 30 // 견디 또 빙떡도 허는 집안이 ᄯᅳ로 잇어. 우리 저 친정에 저 거릿 삼춘네.(그런데 또 '빙떡'도 하는 집안이 따로 있어. 우리 저 친정에 저 '거릿' '삼춘'네.) 30 [노형]

거머들: 한경면 신창리 지명이다. // 요디 거머들 알이엔 허멍 할망당 잇어난.(요기 '거머들' 아래라고 하면서 '할망당' 있었어.) 26 [신창]

거멀: 오름의 정상이 움푹 패여 생긴 분화구를 일컫는다. // 그 중간에 거멀이 웃순당 사름이 알 거우다.(또 중간에 있는 '거멀' '웃송당' 사람은 알 겁니다.) 03 [송당]

거스러지다: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이 흐트러지는 것을 말한다. // 경 안 허면 진진헌 거 올리면 새가 다, 건들면 거스러져 불지 안허냐.(그렇게 안 하면 길디긴 거 올리면 띠가 다, 건들면 흐트러져 버리지 않냐.) 12 [한동]

거스름떡: 사돈집에 처음으로 해 가는 떡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거시림떡'이라고도 한다. // 거스름떡이엔 헌 거, 무신 떡게. 그 저 시릿떡 친떡에, 그 무시거 영 ᄒᆞᆫ디 부쳉 헐 거. 엿날 말로 저 무시거 빙떡.('거스름떡'이라고 한 거, 무슨 떡. 그 저 시루떡 시루떡에, 그 뭐 이렇게 함께 붙여서 할 거. 옛날 말로 저 뭐 '빙떡'.) 15 [수망]

거스름조: '거스름팟'에 파종한 조를 말한다. // 거스름조는 박전 농사는 뭐 크지 아녀고. 막 ᄀᆞ만이 앚앙 허고.('거스름조'는 박전 농사는 뭐 크지 않고. 막 가만히 앉아서 하고.) 32 [덕수]

거스름팟: 파종하기 전에 미리 애벌갈이를 한 밭을 말한다. '거시림팟'이라고도 한다. //

밧, 거스름팟을 다 조 허민은 그게 그렇게 오월 중광 한 십오일 이상 이십일 차이가 나도 자라는 게 일주일이믄 이만큼 커 불어.(밭, '거스름팟'을 다 조 하면 그게 그렇게 오월 중순과 한 십오일 이상 이십일 차이가 나도 자라는 게 일주일이면 이만큼 커 버려.) 32 [덕수]

거시리다: 나뭇가지를 솎거나 쳐내어 다듬는 것을 말한다. // 일부에 잇는 집덜은 겨울에 그런 거 아녕 장작 거시려당은에 허여도 뒈곡. 없는 사름은 목장에 강 거 헤여 와야 뒈곡.(일부에 있는 집들은 겨울에 그런 거 않고 장작 '거실려다가' 해도 되고. 없는 사람은 목장에 가서 거 해 와야 되고.) 29 // 소나무 가지 거시려당 허곡. 저디 그, 저, 주로 허젠 허민 콩꼬질.(소나무 가지 '거시려당' 하고. 저기 그, 저, 주로 하려고 하면 콩깍지.) 36 [봉성, 외도]

거시리다: 바람의 방향이나 물의 흐름을 반대로 하여 나간다는 의미이다. 여기서는 보리 가리를 만들 때 보리를 거꾸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 거시리멍, 거시리멍 잘 눌어 가지고서 이제 낸중에는 거 다 이제 다 헤 오민 지붕식으로 지붕식으로 그렇게 눌어 가지고이, 눌어 가지고 물매 나게 잘 헤 가지고 이제 그 그 뭐인가 돌을 ᄃᆞᆯ아메야 뒈.('거시리면서', '거시리면서' 잘 가려 가지고서 이제 나중에는 거 다 이제 다 해 오면 지붕식으로 지붕식으로 그렇게 가려 가지고 가려 가지고 '물매' 나게 잘 해 가지고 이제 그 그 뭐인가 돌을 달아매야 돼.) 12 // 비 맞지 못허게 그 우에는 보리로 이렇게 거시리주. 보리가 거꾸로 영 허민 비가 영.(비 맞지 못하게 그 위에는 보리로 이렇게 '거시리지'. 보리가 거꾸로 이렇게 하면 비가 이렇게.) 12 [한동]

거시리다: 칼 등으로 생선 비늘을 긁어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 자리물훼는 ᄒᆞᆰ 흙은 자리 사다근에 비늘 거시령, 비늘 거시려 뒁 옆 꽝, 옆 꽝만 떼어.(자리돔물회는 조금 굵은 자리돔 사다가 비늘 '거시려서', 비늘 '거시려' 둬서 옆 뼈, 옆 뼈만 떼어.) 08 // 아, 자린 막 싱싱헌 때이, 비닐 다 거시려 동, 막 ᄌᆞᆷ질이 썰어.(아, 자리돔은 막 싱싱할 때, 비닐 다 '거시려' 두고, 막 자잘하게 썰어.) 25 [동광, 태흥]

거시림조팟: 파종하기 전에 미리 애벌갈이를 한 조밭을 말한다. // 그 궂인 밧듸는 그렇게 안 ᄇᆞᆯ려도 뒈는디 거시림조팟. 거시림, 다른 디 어지렁허게 저 밧 궂인 디는.(그 궂은 밭에는 그렇게 안 밟아도 되는데 '거시림조팟'. '거시림', 다른 데 어지러이 저 밭 궂은 데는.) 32 [덕수]

거왕: 처마 끝 서까래 아래에 이엉을 누르는 줄을 묶기 위한 장대를 말한다. // 집 영 어염 돌아가멍이 그 줄 매는 디 또 거왕 헹 돌아가멍 매어 놩.(집 이렇게 옆에 돌아가면서 그 줄 매는 데 또 '거왕' 해서 돌아가면서 매어 놔서.) 02 // 체암은 영영 헤영 가사더레, 그 거왕더레 꼭꼭 찔렁 내 불지 안 헤영.(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사'에, 그 '거왕'에 꼭꼭 찔러서 내 버리지 않아서.) 13 // 서리 밑에다. 이렇게 여깃말로 거왕이라고 헤 가지고.(그, 서까래 밑에다. 이렇게 여기말로 '거

왕'이라고 해 가지고.) 15 // 서리, 서리에 거왕을 메주. 서리에.(서까래, 서까래에 '거왕'을 매지. 서까래에.) 36 [고산, 삼달, 선흘, 수망, 봉성]

거왕대: 처마끝 서까래 아래에 이엉을 누르는 줄을 묶기 위한 장대를 말한다. // 거왕이렌 ᄒᆞ주. 대로 ᄒᆞ면은 거왕대고.('거왕대'라고 하지. 대로 하면 '거왕대'고.) 24 [세화]

거욱대: 돌이나 나무 따위를 사람 형상으로 깎아 세운 것이라는 의미이다. '거욱대'는 주로 '방사탑' 꼭대기에 설치한다. 여기에서는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서 돌을 쌓아 둥그렇게 만든 탑인 '방사탑'의 다른 이름으로 쓰였다. // 그 저 아니 답은 엇고. 둥글렁허게 영 그 저 돌 다완에 그 가운데 이제 그 큰 낭을 이제 세왓던 곳이고. 거욱대가 거기하고 저 삼수샛내 거기하고 이제 두 군데 거욱대가 잇엇고.(그 저 아니 탑은 없고. 둥그렇게 이렇게 그 저 돌 쌓아서 그 가운데 이제 그 큰 나무를 이제 세웠던 곳이고. '거욱대'가 거기하고 저 '삼수샛내' 거기하고 이제 두 군데 '거욱대'가 있었고.) 01 [도련]

거욱대동산: 표선면 성읍1리에 방사탑이 서 있는 동산을 말한다. 제주에서는 '방사탑'을 가리키는 '거욱대'를 세우면 나쁜 기운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 준다는 속설이 있다. // 성읍리는 요디 또 표선리레 가는디 옛날 그 동산이 거욱대동산이렌 헌 동산인데.(성읍리는 요기 또 표선리로 가는데 옛날 그 동산이 '거욱대동산'이라고 한 동산인데.) 14 [성읍]

거욱대밧: 제주시 도련동 지명의 하나이다. '거욱대', '밧'의 합성어로 거욱대가 있던 밭 이름이다. // 이제 그런 또 옆에 거욱대밧이 잇는데 그것은 이제 거욱, 거욱이란 것은 뭐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허듯이 그런 그 나무를 이렇게 세와 가지고 거악대라고 헤서 이 궂인 거 오는 걸 이제 막던 곳.(이제 그런 또 옆에 '거욱대밧'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거욱', '거욱'이란 것은 뭐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하듯이 그런 그 나무를 이렇게 세워 가지고 '거악대'라고 해서 이 궂은 거 오는 걸 이제 막던 곳.) 01 [도련]

거욱대왓: '거욱대'가 있던 밭 이름이다. // 우리 밧은 그때 거욱대왓이엔 헤낫어.(우리 밧은 그때 '거욱대왓'이라고 했었어.) 29 [외도]

거울: 오이의 씨가 있는 속 부분을 말한다. '어울'이라고도 한다. // 물웨엔 헌 거 허영 이만씩헌 거 허영 그 익은 건 씨 허영근에게 그 거울차 헤영 그걸 쎅여근엥에 헤여사.(물외라고 한 거 해서 이만큼씩한 거 해서 그 익은 건 씨 해서 그 '거울'째 해서 그걸 썩혀서 해야.) 29 [외도]

거을ᄆᆞᆯ: 눈과 입 주위, 하복부, 네 다리 상부 내측이 담백색인 말이다. // 거을ᄆᆞᆯ은 이 주둥이가 희뜩희뜩허영 영 돌라져야, 입이 셍긴 ᄆᆞᆯ이 잇어.('거을ᄆᆞᆯ'은 이 주둥이가 희뜩희뜩해서 이렇게 둘러져야, 입이 생긴 말이 있어.) 01 [도련]

거음: 이가 날 자리에 잇몸이 부어오르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쓰였다. // 풀 안 먹어 가

믄 저거 ᄐᆞᆯ 거음 낫저. 영 거음 낫져 ᄒᆞ여. 니빨에.(풀 안 먹어 가면 저거 말 '거음' 났다. 이렇게 '거음' 났다 해. 이빨에.) 28 [구엄]

거펑치: 땅이 움푹하게 파인 구렁을 이르는 제주어이다. // 촐 날르다근에 점심 때 뒈난 야, 왕 점심덜 먹어 불라. 점심 촐리난. ᄀᆞ만 십서. 영 거펑치 신 디가 잇어이. ᄀᆞ만 십서, 요 굴렁지 거 멧 단 헹 무껑 강 먹게 허난.(꼴 나르다가 점심 때 되니까 야, 와서 점심들 먹어 버려라. 점심 차리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거펑치' 있는 데가 있어. 가만 계세요, 요 구렁 거 몇 단 해서 묶어서 가서 먹게 하니까.) 25 // 거펑치가 영 굴렝이.('거펑치'가 이렇게 구렁.) 25 [태흥]

거피다: 녹두나 메밀 따위를 애벌 가는 것을 말한다. // 건 ᄊᆞᆯ 거필 때 걱적 부서진 거.(그 건 쌀 '거필' 때 거죽 부서진 거.) 03 [송당]

건거: 크고 작은 것이 섞여 있는 것에서 자잘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그거 다 일일이 ᄌᆞᆷ진 거 메젠 허민 이 작산 밧 어떵허연 메느니 헹 우리 할망네도 야, 건거 메영 가달만 넴기라, 가달만 넴기라 허여낫주게.(그거 다 일일이 잔 거 매려고 하면 이 넓은 밭 어떻게 매니 해서 우리 할머니네도 야, '건거' 매고 다리만 넘겨라, 다리만 넘겨라 했었어.) 26 [신창]

건내: 냄새를 '킁킁' 맡아 보는 것을 말한다. // 개는 코 들렁 냄새를 맡아. 건내헌덴 허는 거라.(개는 코 들고 냄새를 맡아. '건내'한다고 하는 거야.) 03 [송당]

건대: 상복에 쓰는 삼베로 만든 두건과 띠를 말한다. 여기서 제보자는 결혼 예복에 머리에 쓰는 모자를 '건대'라고 하였다. // 옛날 장옷 입고 그 건대 쓰곡.(옛날 장옷 입고 그 '건대' 쓰고.) 31 [토평]

건드럽다: '바람이 잘 통해서 시원하다'의 의미이다. // 이건, 이건 베에 들여근엥. 일헐 때 건드럽게 소랑허게 입젠.(이건, 이건 베에 들여서. 일할 때 '건드럽게' 길쭉하게 입으려고.) 18 [신도]

건드렁ᄒᆞ다: 그다지 중요하지 아니하고 허름하여 함부로 쓰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저 멋인고, 난 무신 건드렁ᄒᆞᆫ 것이 던져 부난 걸쳐져신가? 헷주.(저 뭣인고, 난 무슨 '건드렁ᄒᆞᆫ' 것이 던져 버리니까 걸쳐졌나? 했지.) 17 [대평]

건드렁ᄒᆞ다: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다의 의미이다. // 뭐 좀 제주도 말로 건드렁ᄒᆞ게 말이지. 좀낭 아래에 강 앚아 가지고 쉬면서 말이야 여름을 보낸 옷 중에 하나가, 그거는 아주 고급이고, 옷 중에도.(뭐 좀 제주도 말로 '건드렁ᄒᆞ게' 말이지. 좀나무 아래에 가서 앉아 가지고 쉬면서 말이야 여름을 보낸 옷 중에 하나가, 그거는 아주 고급이고, 옷 중에도.) 27 [옹포]

건드리다: '통정'의 의미이다. // 옛날 장갯각시하고 중간에 건드려 부난 큰뚤 하나 나고.(옛날에 결혼한 각시하고 중간에 통정해 버려서 큰딸 하나 낳고.) 03 [송당]

건들마: 장마철에 햇볕은 내리지 않고 어두침침한 가운데 습기 많은 바람이 불어대는 날씨를 말한다. // ᄇᆞ름, 마ᄇᆞ름 거칠거칠허멍 구름 팍팍 ᄂᆞ는 것이, 그것이 건들마

아니냐.(바람, 마파람 '거칠거칠'하면서 구름 팍팍 나는 것이, 그것이 '건들마' 아니냐.) 25 [태흥]

건물: 대강의 물이라는 의미이다. // 주넹이보리로 헤근에 그거를 이제 영 싯져근에 시경 물 그거 이제 빠주와근에 건물만 빠주와근에 영 허영 통에 담앙 놔두민 싹이 뜨는 거라이.(맥주보리로 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씻어서 씻어서 물 그거 이제 빼서 '건물'만 빼서 이렇게 해서 통에 담아서 놔두면 싹이 트는 거야.) 05 [표선]

건장: 낚시의 한 종류이다. 고등어 따위를 낚을 때 사용하는데, 제보자는 '건장낙시'라고도 하였다. // 나끄기도 허고 건장으로도 허고.(낚기도 하고 '건장'으로도 하고.) 29 [외도]

건장낙시: 낚시의 한 종류이다. 고등어 따위를 낚을 때 사용하는데, 줄여서 '건장'이라고도 한다. // 저 뭐냐? 건장낙시라고. 고등어 걸리는 것이 잇엇주게.(저 뭐냐? '건장낙시'라고. 고등어 걸리는 것이 있었지.) 29 [외도]

건지: 여자가 주로 결혼할 때 꾸미기 위해 얹는 가발 머리를 말한다. // 게난 그 머리 빌어 다근에 건지라. 건지 이디 웬짝더러 똑 건지 곱이 들어간 게 이만이, 이만이 헤근에 건지 허고 치마, 저고리 입곡 그 장옷 입곡 장옷 쓰곡.(그러니까 그 머리 빌려다가 '건지'야. '건지' 여기 왼쪽으로 똑 '건지' 겹이 들어간 것이 이만큼, 이만큼 해서 '건지' 하고 치마, 저고리 입고 그 장옷 입고 장옷 쓰고.) 06 [남원]

건지뿔: 뒤쪽으로 길게 뻗은 소의 뿔이다. // 건지뿔은, 건지뿔은 우로 올라간 거.('건지뿔'은, '건지뿔'은 위로 올라간 거.) 01 // 건지뿔 하늘소 모냥으로 영허는 게 건지뿔인데.('건지뿔' 하늘소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게 '건지뿔'인데.) 03 [도련, 송당]

건해: 터를 볼 때 지관들이 쓰는 방위에 관한 말이며 서북방을 말한다. // 그 탑을 왜 세왓느냐 허면은 건 그 건해, 우리 대림선 거기. 건해, 예, 건해가 비니까, 것을.(그 탑을 왜 세웠느냐 하면은 건 그 '건해', 우리 대림에선 거기. '건해', 예, '건해'가 비니까, 것을.) 35 [대림]

걸궁: 동네에 경비를 쓸 일이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패를 짜서 각처로 다니면서 풍물을 치고 재주를 부리며 돈이나 곡식을 구하는 일을 말한다. '걸립(乞粒)'의 제주어이다. // 걸궁이라고 ᄆᆞ을에서 젊은 사름들 헹 걸궁을 꾸미주게. 걸궁을 꾸며근에 막 들렁 뎅기멍 그 우이 사름 하나 태와. 막 노래 부르멍 소리허멍이. 사름들이 메여근에 뎅겨.(걸립이라고 마을에서 젊은 사람들 해서 걸립을 꾸미지. 걸립을 꾸며서 마구 들고 다니면서 그 위에 사람 하나 태워. 마구 노래 부르면서 소리하면서. 사람들이 메고서 다녀.) 03 // 춤 이런 행사를 많이 허곡. 소위 걸궁.(참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소위 걸립.) 04 [고성, 송당]

걸랑걸랑걸랑: 대충 아무렇게나 만들어 헐거운 상태를 표현한 말로 쓰였다. // 상 낭 허는 건 대강 그자. 대강 그자 걸랑걸랑걸랑 ᄒᆞ꼼 그자 만드는 추룩만 헤영.(상 나서 하는 건 대강 그저. 대강 그저 '걸랑걸랑걸랑' 조금 그저 만드는 척만 해서.) 32

[덕수]

걸름착: 거름을 담아 나르는 데 쓰는 멱둥구미를 말한다. '거름착'이라고도 한다. // 밧듸 실러갈 때는 옛날에는 멩텡이 이만씩ᄒᆞᆫ 걸름착이엔 ᄒᆞᆸ니다, 멩텡이ᄀᆞ라. 저 걸름 담는 건 걸름착.(밭에 실어갈 때는 옛날에는 망태기 이만큼씩한 '걸름착'이라고 합니다, 망태기더러. 저 거름 담는 건 '걸름착'.) 08 // 뒈쌍 ᄇᆞᆯ뢍 다시 걸름착에 담으민 지고 시끄곡 헹 밧디 강 놩 그거 영, 영 뿌령 갑네다.(뒤집어서 밟아서 다시 '거름착'에 담으면 지고 신고 해서 밭에 가서 놔서 그거 이렇게, 이렇게 뿌려서 갑니다.) 19 // 걸름착 아니고 영, 무시거 쉐질메, 쉐질메옌 허믄 양 펜이 영 허믄, 걸름착 두 개가 영 시꺼져.('걸름착' 아니고 이렇게, 무엇 소길마, 소길마라고 하면 양 편에 이렇게 하면, '걸름착' 두 개가 이렇게 실어져.) 28 // 이만씩 헌 걸름착에 담아근엥에 이 소가 이거민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부쪄 가지고 그 소 두 개민 두 개민 네 짝 헤야 시끌 거 아니우꽈?(이만씩 한 '걸름착'에 담아서 이 소가 이거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붙여 가지고 그 소 두 마리면 두 마리면 네 짝 해야 실을 거 아닙니까?) 32 [구엄, 덕수, 동광, 봉성, 청수, 토평, 하원]

걸름콩: 거름용 콩으로 보리를 파종하기 전에 땅의 기운을 북돋기 위해 휴경전(休耕田)에 콩을 갈아 거름으로 쓰는 콩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 그 콩 간 거는 걸름콩 아까 예기 헷주만은 걸름콩 헐 때 콩 갈고, 이 조팟디 ᄀᆞ뜬 때 무신 산뒤밧들 ᄀᆞ뜬 데 트멍에.(그 콩 간 거는 '걸름콩' 아까 얘기 했지만 '걸름콩' 할 때 콩 갈고, 이 조밭 같은 때 무슨 밭벼밭들 같은 데 틈에.) 16 [하원]

걸망: 해녀들이 바다에서 듬북 따위를 채취할 때 사용하는 테왁에 매단 그물주머니이다. 미역이나 소라 따위를 채취할 때 사용하는 망사리보다 그물코가 크다. // 경ᄒᆞ곡 또 우리대로 ᄒᆞ민은 이제 걸망, 망아리 닮은 거. 걸망 헤근에, 우리냥으로 ᄌᆞ물멍 그 망사리에 담아근에 이젠 밀려왕 ᄀᆞᆺ이 왕 퍼근에 저네영 우리대로 ᄆᆞᆯ리와.(그리고 또 우리대로 하면 이제 '걸망', 망사리 같은 거. 망사리 해서, 우리대로 채취하면서 그 망사리에 담아서 이젠 밀려와서 가에 와서 퍼서 져내서 우리대로 말려.) 07 // 걸망엔 헤근에 망사린디, 막 고망 막 훍게 만들앙양.('걸망'이라고 해서 망사린데, 아주 구멍 아주 굵게 만들어서요.) 23 [보목, 온평]

걸멍체: 눈이 조금 굵은 체로 거름체를 이르는 듯하다. // 대체 아랫 건이 먹을 보리쏠이 뒈고이 또 대체 아래 걸멍체에 거는 무신거 ᄌᆞᆷ쏠이 나와.('대체' 아래 건 먹을 보리쌀이 되고 또 '대체' 아래 '걸멍체'의 것은 무엇 'ᄌᆞᆷ쏠'이 나와.) 11 [함덕]

걸멩이: 멱둥구미의 일종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걸멩이는 큰 거는 쳐 내고 작은 거는 아래 내리는 것이 걸멩이 체.('걸멩이'는 큰 거는 쳐 내고 작은 거는 아래 내리는 것이 '걸멩이' 체.) 27 [옹포]

걸명: 제사를 지낸 뒤 제상 위의 각 제물을 조금씩 떠서 문간채의 지붕 위로 올리거나 집으로 드나드는 골목길 가에 두어 잡귀신을 대접하는 일을 말한다. '고수레'에 해

당하는 제주어이다. // 겐디 제지네긴에 걸명이라고 잇어, 걸명.(그런데 제지내서 고수레라고 있어, 고수레.) 16 // 노제 거 한 길가에서 이렇게 병풍 치고 마지막 가는 길에 영혼을 위로ᄒᆞ는 뜻에서 죽 쒀서 술 한 잔 헤서 올려 가지고 그거 '걸명' 허고 헤서 노제 지내근엥 보내.(노제 거 한 길가에서 이렇게 병풍 치고 마지막 가는 길에 영혼을 위로하는 뜻에서 죽 쒀서 술 한 잔 해서 올려 가지고 그거 고수레 하고 해서 노제 지내서 보내.) 27 [옹포, 하원]

검멀레: 우도면에 있는 곳이다. // 건 운반용으로 건 어디 운반헷냐면 일반 저 에, 검멀레 모레 운반할랴고.(그건 운반용으로 그건 어디 운반했냐면 일반 저 에, '검멀레' 모래 운반하려고.) 22 [우도]

검복낭칙물: 한경면 청수리에 있는 지명을 말한다. // 검복낭이라는 나무가 ᄆᆞᆫ딱 잇어난 모냥이여. 그래서 검복낭칙물이라고.('검복낭'이라는 나무가 모두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검복낭칙물'이라고.) 19 [청수]

검부낭칙: 한경면 청수리의 옛 지명을 말한다. // 청수리 물은 흑수물, 검부낭칙, 고분뎃밧물, 돗죽은물, 청수물 다서, 여섯 군데 잇엇는데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다 엇어졋수다. 흑수물만 그대로 방치뒈언 잇어.(청수리 물은 '흑수물', '검부낭칙', '고분뎃밧물', '돗죽은물', '청수물' 다섯, 여섯 군데 있었는데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다 없어졌습니다. '흑수물'만 그대로 방치되어서 있어.) 19 [청수]

검악: 한림읍 금악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 검악이고 어디고 그때 다 불부뗫수다.('검악'이고 어디고 그때 다 불붙었습니다.) 08 // 우리 대림 목장이 상대리, 아, 검악 이 번지로, 일, 이, 삼서 칠 번지ᄁᆞ지 허고 산 이십이 번지로 이십구 번지ᄁᆞ지가 대림 목장이라낫수다.(우리 대림 목장이 상대리, 아, 금악 이 번지로, 일, 이, 삼에서 칠 번지까지 하고 산 이십이 번지로 이십구 번지까지가 대림 목장이었었습니다.) 35 [대림, 동광]

검은ᄃᆞᆨ모리: 한림읍 월령리에 있는 검은 바위 이름이다. // 그냥 영 요레 검은 ᄃᆞᆨᄆᆞ리, 검은 ᄃᆞᆨᄆᆞ리엔 허여.(그냥 이렇게 요기 '검은 ᄃᆞᆨᄆᆞ리', '검은 ᄃᆞᆨᄆᆞ리'라고 해.) 10 [월령]

검은개발시리죽: '검은개발시리'로 쑨 죽을 말한다. 여기에서 '검은'은 '개발시리'의 색깔이 검어서 붙은 이름이다. 보통 차진 좁쌀의 한 종류이다. // 개발시리쏠 놔근엥에 죽 쑤라 허민 검은개발시리죽.('개발시리쌀' 넣어서 죽 쑤어라 하면 '검은개발시리죽'.) 01 [도련]

검은굴: 옛날 구억리에서 진회색 질그릇을 굽던 굴이다. // 불 쵀는 화로. 경 아니허믄 벌러지거든. 거 검은굴로는 벌러지질 안 허여.(불 쬐는 화로. 그렇게 아니하면 깨지거든. 거 '검은굴'로는 깨지질 않아.) 34 [구억]

검은덕이오름: 애월읍 구엄리 검은덕이마을에 있는 오름이다. // 게믄 이제 ᄒᆞᆫ 멧 사름, 우리도 저 검은덕이오름이옌 ᄒᆞᆫ 듸 강 그 서의 강 합쳥은에, 우리 ᄀᆞ찌 살멍 ᄒᆞ자.

아주 목장에 강 그듸 밥헹 먹으멍.(그러면 이제 한 몇 사람, 우리도 저 '검은덕이오름'이라고 한 데 가서 그 셋이 가서 합쳐서, 우리 같이 살면서 하자. 아주 목장에 가서 거기서 밥해서 먹으면서.) 28 [구엄]

검은데기: 애월읍 유수암리의 한 자연 마을이다. // 저기 목장에 강, 검은데기 목장에 가믄 경, 검은데기 하르방 쉐 늙은 쉐들 셔. 늙은 쉐들 셔. 그 하르방도 아이고, 쉐들 내불어 뒁 죽어 불언.(저기 목장에 가서, '검은데기' 목장에 가면 그렇게, '검은데기' 할아버지 소 늙은 소들 있어. 그 할아버지도 아이고, 소들 내버려 둬서 죽어 버렸어.) 28 [구엄]

검은산듸: 색깔이 검은 밭벼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갈산듸'를 색깔에 비유해서 달리 표현한 말로 쓰였다. // 경허민 거기 강 허는 게 갈산뒬 갈아, 검은산듸.(그렇게 하면 거기 가서 하는 게 '갈산듸'를 갈아, '검은산듸'.) 14 [성읍]

검은어럭: 털빛이 흑백으로 얼럭얼럭한 소를 말한다. // 뭐 어럭쉐도 검은어럭, 노랑어럭. 검은어럭은 검은, 검은 털에 하얀색 들어간 거고.(뭐 얼룩소도 '검은어럭', '노랑어럭'. '검은어럭'은 검은, 검은 털에 하얀색 들어간 거고.) 01 [도련]

검은여: 서귀포시 보목동과 토평동 경계에 있는 검고 긴 바위를 말한다. 긴 다리를 뜻하는 의미로 'ᄃᆞ릿줄'이라고도 한다. // 요 보통 소정방이렌 헤서 거문여라고 이서, 물 나는 데.(요 보통 '소정방'이라고 해서 '거문여'라고 있어, 물 나는 데.) 07 // 경허난 여기 바당, 검은여 바당이여 무신 바당이여 이디 첨 바당은 ᄇᆞ딤은 헌다. 경헤도 토평이. 바당은 ᄇᆞ뎌.(그러니까 여기 바다, '검은여' 바다다 무슨 바다다 여기 첨 바다는 밭기는 한다. 그래도 토평이. 바다는 밭아.) 31 [보목, 토평]

검은여: 한림읍 월령리에 있는 여 중 하나이다. 검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 ᄒᆞ꼼 가민 납닥헌 여 시난 납닥이, 또 ᄒᆞ꼼 더 가민 진여, 저펜더레 검은여.(조금 가면 납작한 여 있으니까 '납닥이'. 또 조금 더 가면 '진여', 저편으로 '검은여'.) 10 [월령]

검은오름: 애월읍 소길리에 있는 '검은데기오름'을 말한다. // 거난 작두 가졍 강 탁탁 찍으멍 낭을 헌 거라예? 으. 이제 저 노꼬메, 검은오름, 큰바르메, 족은바르메, 뭐 하꼬네 그런, 그런 디 다 뎅겻주게. 여름에.(그러니까 '작두' 가져서 가서 탁탁 찍으면서 나무를 하는 거지요? 으. 이제 저 '노꼬메', '검은오름', '큰바르메', '족은바르메', 뭐 '하꼬네' 그런, 그런 데 다 다녔지. 여름에.) 20 [고내]

검은오름: 조천읍 교래리와 표선면 가시리, 남원읍 수망리 경계에 걸쳐진 오름을 말한다. // 영아리오름, 저 뭐 검은오름, 민오름, 저 넉시오름, 세기오름 다. 그 오름 꼭대기에 올라사근엥에 보니까 횃불을 쏴근엥 영 흔드는 거라.('영아리오름', 저 뭐 '검은오름', '민오름', 저 '넉시오름', '세기오름' 모두. 그 오름 꼭대기에 올라서서 보니깐 횃불을 붙여서 이렇게 흔드는 거야.) 15 [수망]

검은오메기: 누룩의 의미로 쓰였다. // 검은오메기. 보리쌀 그 거피여근에 보리 검피여근에

그거 헤영 누룩 만들엉.(‘검은오메기’. 보리쌀 그 거피해서 보리 거피해서 그거 해서 누룩 만들어서.) 05 [표선]

검은조: 쌀알이 굵고 차진 조의 한 가지이다. // 흐린조엔 헷주. 검은조엔 안 헨, 흐린조.(차조라고 했지. ‘검은조’라고 안 해서, 차조.) 04 [고성]

검은흐린조: 조의 색깔이 거무스레한 차조를 말한다. 색깔이 검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흐린조 검은흐린조헤영 오메기 헤근에.(차조 ‘검은흐린조’해서 ‘오메기’ 해서.) 23 // 아주 개발시리는 흐린조로서 검은흐린존디 이제 젤 냉중에 그거 씨가 전헤 왓주.(아주 ‘개발시리’는 차조로서 ‘검은흐린조’인데 이제 젤 나중에 그거 씨가 전해 왔지.) 29 [온평, 외도]

검질: 밭에서 나는 ‘김’이나 ‘짚’ 따위의 잡풀의 뜻으로 쓰인다. // 헤벤이 사름덜은 검질 빌 듸가 가까운 듸 읏거든. 경헹 낭밧듸 강 솔입 전부 걷어당은에 허는디, 여기는 솔입 걷는 사람 별로 없주.(해변의 사람들은 풀 벨 데가 가까운 데 없거든. 그렇게 해서 숲에 가서 솔잎 전부 걷어다가 하는데, 여기는 솔잎 걷는 사람 별로 없지.) 15 [수망]

검피다: 곡식 따위를 맷돌에서 갈아 껍질을 벗긴다는 뜻이다. ‘거피다’라고도 한다. // 또 멍석에 널멍, 멍석에 널어근에 ᄒᆞᆫ ᄀᆞ레에 검피젠 ᄒᆞ민 사흘 ᄆᆞᆯ려야 ᄒᆞᆸ니다.(또 멍석에 널면서, 멍석에 널어서 한 맷돌에 ‘검피려고’ 하면 사흘 말려야 합니다.) 08 // 엿날엔 그걸로 헹 ᄀᆞ레에 검펴근에 영 두 개썩 벌러지게 거핀덴 허여.(옛날엔 그걸로 해서 맷돌에 ‘검펴서’ 이렇게 두 개씩 쪼개서 ‘거핀다’고 해.) 25 [동광, 태흥]

겁: 실 따위의 가닥을 말한다. // 담배도 우리 아버지 막 이녁 먹을 거 헤난. 겁 궤연.(담배도 우리 아버지 막 이녁 먹을 것 했었어. ‘겁’ 꿰어서.) 24 [세화]

겁시: ‘겁쉬’와 더불어 표준어 겁쟁이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 경 ᄒᆞᆷ이 빨리ᄒᆞ영 ᄂᆞ려오젠 허민 ᄉᆞ뭇 겁시로 헹 ᄂᆞ려오곡 경 헷주게.(그렇게 함에 빨리해서 내려오려고 하면 사뭇 ‘겁시’로 해서 내려오고 그렇게 했지.) 16 [하원]

것중의: 겉에 입는 중의를 말한다. ‘속중의’의 반의어이다. // 또 속중의 입어나민 밑에 소곱에 빤스 입어나민 속중의 입어나민 우의는 그자 것옷. 것중의 입을 거 아니라.(또 ‘속중의’ 입으면 밑에 속에 팬티 입으면 ‘속중의’ 입으면 위에는 그저 겉옷. ‘것중의’ 입을 거 아닌가.) 14 [성읍]

것항: 가축의 먹이를 담는 항아리이다. // 것허고 또 그 ᄌᆞᄭᆞ디 그 것항, 것항은 ᄒᆞ끔 저 안네서 물 ᄀᆞᄐᆞᆫ 거라든지 세영 터진 것도 시믄 그걸 놓곡.(그것하고 또 그 곁에 그 ‘것항’, ‘것항’은 조금 저 안에서 물 같은 거라든지 새어서 터진 것도 있으면 그걸 놓고.) 35 [대림]

게남절: 제주시 도두동의 절 이름이다. // 도평 우에 게남절이엔, 헌 디가 잇주게.(도평 위에 ‘게남절’이라고, 하는 데가 있지.) 30 [노형]

게다: 일본어 'げた'에서 온 말로,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 끈을 끼워서 신는 일본식 나막신을 말한다. // 게다는 나무, 남이고, 남으로 헌 게 게다고.('게다'는 나무, 나무이고, 나무로 한 게 '게다'이고.) 30 // 엿날엔 저 제국시절엔이 신 어루난이 낭덜 게다 팡 이레 발가락 끼왕인에 게다 신언 뎅겨시녜.(옛날엔 저 제국시절엔 신 어려우니까 나무들 '게다' 파서 이리 발가락 끼워서 '게다' 신어서 다녔잖아.) 33 [노형, 인성]

게렝이: 구좌읍 한동리 바다 이름의 하나이다. // 한동 바당이 게렝이 바당이 잇고이.(한동 바다가 '게렝이' 바다가 있고.) 12 [한동]

게범불레: 식물 김의 일종이다. // 복쿨 하영 나고, 복쿨ᄒᆞ고 제일 요새 제일 하영 나는 거. 복쿨ᄒᆞ고 저 이 게범불레라게.(깨풀 많이 나고, 깨풀하고 제일 요새 제일 많이 나는 거. 깨풀하고 저 이 '게범불레'지.) 08 [동광]

게삭지다: 풀기가 없어 메지다는 의미이다. // 그거 옛날엔 개발시리 그거 허영근엥에 옛날에 서껑 게삭지긴 헤도 그런 것도 엇어서 못 먹엇어.(그거 옛날엔 '개발시리' 그거 해서 옛날에 섞어서 '게삭지긴' 해도 그런 것도 없어서 못 먹었어.) 01 [도련]

게산골: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 노리오름 저 게산골 골짜기 잇고.('노리오름' 저 '게산골' 골짜기 있고.) 16 [하원]

게살게살허다: 가루 성분으로 된 것이나 밥이 차진 기는 조금도 없고 아주 메진 모양을 말한다. // 물 팔팔 끌영 물, 선 물로 반죽을 허민 그것이 게살게살헤 붑니다게. 게믄 물 팔팔 끌린 물 허여근에 그 ᄀᆞ루에 놔근에 반죽을 잘 헤영 영 고망을 내왕, 고망 나게 그걸 만들앙.(물 팔팔 끓여서 물, 차가운 물로 반죽을 하면 그것이 '게살게살해' 버립니다. 그러면 물 팔팔 끓인 물 해서 그 가루에 넣어서 반죽을 잘 해서 이렇게 구멍을 내서, 구멍 나게 그걸 만들어서.) 34 // 모인 것이 게살게살협주. 아주 기름기 잇고 빈직빈직허고 찰지고.(메진 것이 '게살게살하지'. 아주 기름기 있고 '빈직빈직'하고 차지고.) 35 // 나룩쏠이 더 기름기가 잇고, 좀 부드럽고, ᄎᆞ지고, 또 산디쏠은 모이고, 밥이 좀 게살게살협니다.(볍쌀이 더 기름기가 있고, 좀 부드럽고, 차지고, 또 밭벼쌀은 메지고, 밥이 좀 '게살게살합니다'.) 35 [구억, 대림]

게숨부리: 나물을 먹는 벌레이다. // 게숨부리옌 ᄒᆞᆫ 벌레가 잇어. 그게 또 잇으면 그놈의 건, 또 굽으로 강 똑 ᄌᆞᆯ라 버린단 말이여.('게숨부리'라고 하는 벌레가 있어. 그게 또 있으면 그놈의 건, 또 밑으로 가서 똑 잘라 버린단 말이지.) 08 [동광]

게스미: 일본어 'げすみ'로, 표준어 '뜬숯'에 해당하는 말이다. // 물 줭 껏다가 허여. 게스미라고 허여. 그거 불망울 끼운 걸.(물 줘서 껐다가 해. 뜬숯이라고 해. 그거 불 잉걸 끈 걸.) 01 // 불, 불 거기서 살랑 놩 어떵 게스미 불부쪙 그레 담아당 놩 방에서는 그거 피웁고.(불, 불 거기서 살라 놔서 어떻게 뜬숯 불붙여서 그리 담아다가 놔서 방에서는 그거 피우고.) 31 [도련, 토평]

게시리: 메조의 한 종류이다. // 모인조도 밥도 다 헹 먹어십주. 저 이 무신, 거 모인조ᄀᆞ라 게시리엔 허던가?(메조도 밥도 다 해서 먹었었지. 저 이 무슨, 거 메조더러 '게시리'이라고 하던가?) 28 [구엄]

게실게실허다: 끈기가 없어서 잘 뭉쳐지지 않고 흐트러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맨 보리밥만 허민 괄괄하잖아. 게실게실헌 게.(맨 보리밥만 하면 '괄괄'하잖아. '게실게실한' 게.) 25 // 수웬이 대사니도 헤 놓곡 쪽파도 썰어 놓곡 파도 썰어 놓곡 하간 거 막 헤여 놔근에 ᄆᆞ물ᄀᆞ루 헤근에 그레 밀ᄀᆞ루 ᄒᆞᆯ 서꺼, 경 안허민 게실게실허난.(순대는 마늘도 해 넣고 쪽파도 썰어 넣고 파도 썰어 넣고 온갖 거 막 해 넣어서 메밀가루 해서 그리 밀가루 조금 섞어. 그렇지 않으면 '게실게실하니까'.) 31 [태흥, 토평]

게싹게싹허다: 물기가 없거나 메져서 잘 엉기지 않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아니, 히린 좁쌀만이 못 헤. 것도. 모인 거난 게싹게싹헨.(아니, 차좁쌀만큼 못 해. 것도 메진 거니까 '게싹게싹해서'.) 21 // 아이고, 그 친떡 밀엉 치젱 허민 잘도 경 두루 밀민이 떡이 안 뒈어. 게싹게싹허여.(아이고, 그 시루떡 밀어서 찌려고 하면 잘도 그렇게 덜 밀면 떡이 안 돼. '게싹게싹해'.) 25 [신촌, 태흥]

게싹허다: 풀기가 없이 물기가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다. // 흐린 거는 그 꺼먼좁썰 그 거 흐린 거, 모인조는 그거 노랑, 색깔이 노랑하면서 막 게싹허주게, 그거는 살락헤연.(차진 것은 그 까만 좁쌀 그거 차진 거, 메조는 그거 노랑, 색깔이 노랑하면서 막 '게싹하지', 그거는 까끌까끌해서.) 05 // 조팝 게싹헌 조팝 ᄒᆞᆫ 직 담아진 것도 잇고 고구마 멧 개 저 담아진 것도 잇고.(조밥 '게삭한' 조밥 한 숟가락 담긴 것도 있고 고구마 몇 개 저 담긴 것도 있고.) 25 [태흥, 표선]

게영국: 제사 때 생선으로 푹 끓인 국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셍선 ᄆᆞ른 거 사당 구웡 놓고. 이제 또 국 끓이는 것도 셍선 헤당근엥 국 끓영 게영국이렌 허여.(생선 마른 거 사다가 구워서 놓고. 이제 또 국 끓이는 것도 생선 해다가 국 끓여서 '게영국'이라고 해.) 18 [신도]

게오리개: 구좌읍 하도리에 있는 포구 지명이다. // ᄑᆞ레엔 ᄒᆞᆫ 거 여기에 없으니까 저 큰 섬에 강 배 풍선 잇는 사름은 풍선 타 갖고 저 하도 그 게오리개엔 ᄒᆞᆫ 디 가근에 저 ᄑᆞ레를 헤단에 밥을 보리ᄊᆞᆯ 서꺼근에 먹어난 적이 잇수다, 지금 여기.(파레라고 한 거 여기에 없으니까 저 '큰섬'에 가서 배 풍선 있는 사람은 풍선 타 가지고 저 '하도' 그 '게오리개'라고 한 데 가서 저 파레를 해다가 밥을 보리쌀 섞어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22 [우도]

게우살: 여성의 월경 때 출혈에 의한 혈흔을 말한다. // 그거 조금 ᄂᆞ리민 속곳더레 게우살 헹 베꼇더레꺼장 게우살허고.(그거 조금 내리면 '속곳'에 '게우살' 해서 밖으로까지 '게우살'하고.) 06 [남원]

게우젓: 전복의 내장으로 담근 젓을 말한다. '게웃젓'이라고도 한다. // 해녀덜이나 거기 허는 사름덜이나 지냥으로 헨 게우젓 담갓주.(해녀들이나 거기 하는 사람들이나 자

기대로 해서 ‘게우젓’ 담갔지.) 34 [구억]

게웃: 전복의 내장을 뜻한다. ‘게우’라고도 한다. // 게웃 통조림 공장에서 저 전북 숙북헤근에 그 전복을 ᄆᆞᆫ딱 터근에 이제 물 꿰우는 물에 그거 끓이는 디 헹 ᄃᆞᆼ가근에 건져근에 말리왕.(‘게웃’ 통조림 공장에서 저 전복 수북해서 그 전복을 몽땅 떠서 이제 물 끓이는 물에 그거 끓이는 데 해서 담가서 건져서 말려서.) 05 // 생복도 영 게웃이민 똥만 잇지 안헹 먹은 것가 ᄐᆞ로 이서.(전복도 이렇게 ‘게웃’이면 똥만 있지 않고 먹은 것이 따로 있어.) 13 //쏠을 씻어, 첫차 쏠을 씻어 솟디 딱 놔. 전복허고 쏠허고 게민 게웃은 냉중에 궤여가사.(쌀을 씻어, 첫째 쌀을 씻어서 솥에 딱 넣어. 전복하고 쌀하고 그러면 ‘게웃’은 나중에 끓여가야.) 21 // 개웃은게 파란 것이 암커고.(‘개웃’은 파란 것이 암컷이고.) 23 [삼달, 신촌, 온평, 표선]

게웃젓: 전복 내장으로 담근 젓을 말한다. ‘게우젓’이라고도 한다. // 거난 그 무시거니 젓은 잇주. 전복 게웃젓.(그러니까 그 무엇이니 젓은 있지. 전복 ‘게웃젓.’) 04 // 우리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니네는 그 게웃젓 먹은 거 셍각남서. 무시거 접시에 새카망 뭐 한 거 영 허영 아져당 보민 우린 그 거멍하덴 허멍 안 먹엇주게.(우리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니네는 그 ‘게웃젓’ 먹은 거 생각나고 있어. 무엇 접시에 새까만 뭐 한 거 이렇게 해서 가져다가 보면 우린 그 검다고 하면서 안 먹었지.) 05 [고성, 표선]

게작ᄒᆞ다: 끈적끈적한 데에 먼지 따위가 많이 붙어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경헤도 머리도 부떠근에 헤영헌 것이 게작헤도 메틀 헴시민 어떵어떵 벗어져.(그래도 머리도 붙어서 하얀 것이 ‘게작’해도 며칠 하고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벗겨져.) 06 [남원]

겐노: 일본어 ‘けんのう’로 쇠메를 말한다. // 겐노옌 헌 게 잇주. 겐노옌 헌 건 저 일본말인데.(‘겐노’라고 한 게 있지. ‘겐노’라고 한 건 저 일본말인데.) 14 // 그 뭐 요즘 석수들은 이렇게 그 방멩이추룩 사 만든 거, 뭐 겐노라고 뭐 걸로 헌디, 옛날에는 돌차귀렌 헤영,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돌차귀렌 헤근엥에, 도끼 식으로 뒈근에 그걸 헤근엥예 돌 다듬아근엥예 주춧돌 멘들아 놔근엥에.(그 뭐 요즘 석수들은 이렇게 그 방망이처럼 사 만든 거, 뭐 ‘겐노’라고 뭐 그걸로 했는데, 옛날에는 ‘돌차귀’라고 해서,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돌차귀’라고 해서 도끼 식으로 돼서 그걸 해서 돌 다듬어서 주춧돌 만들어 놔서.) 15 [성읍, 수망]

겐노쇼코: 일본어 ‘げんのじょうこ’로 이질풀을 말한다. // 겐노쇼코라는 건 우리말로 거 무신, 길가에 나는 풀인디 빨강빨강허게 헌디 그것도 헤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바쪄낫저.(‘겐노쇼코’라는 건 우리말로 거 무슨, 길가에 나는 풀인데 ‘빨강빨강허게’ 하는데 그것도 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바쳤었어.) 12 // 설사 약이엔 ᄒᆞᆫ 것이 저 뭐, 이질풀이라고 잇주, 일본말로 겐노쇼코라는 건디.(설사 약이라고 한 것이 저 뭐, 이질풀이라고 있지, 일본말로 ‘겐노쇼코’라는 건데.) 24 [세화, 한동]

겝기다: 힘이나 기운 따위를 몸에서 없어지게 하는 것으로 힘을 '빼다'의 의미이다. // 게난 쟁기 메우민 천 냥 만 냥 부수와 불어. 게난 낭 헤서 뛸 대로 뛰라 힘 겝기는 겁주게.(그러니까 쟁기 메우면 천 냥 만 냥 부숴 버려. 그러니까 나무 해서 뛸 때로 뛰어라 힘 '겝기'는 거지요.) 20 [고내]

겡이죽: 흰쌀을 물에 불려 반쯤 으깬 후에 게를 빻아 국물을 내고, 그 국물을 넣어 끓인 죽을 말한다. // 경 헨 그거 경 헹 먹어낫주만은 요즘사 경 이거 먹엄서? 요즘은 겡이죽 허젠 허난에 ᄌᆞᆷ수 그 저 해녀의 집이서 하영 잡아감서.(그렇게 해서 그거 그렇게 해서 먹었었지만 요즘에야 그렇게 이거 먹고 있니? 요즘은 게죽 하려고 하니까 해녀 그 저 해녀의 집에서 많이 잡아가고 있어.) 04 // 다른 죽 무신 죽, 겡이죽도 쒀 봣주.(다른 죽 무슨 죽, '겡이죽'도 쒀 봤지.) 14 // ᄑᆞᆺ겡이죽도 잇고 ᄎᆞᆷ겡이죽도 잇고.('ᄑᆞᆺ겡이죽'도 있고 참게죽도 있고.) 16 // 겡이죽은이 이 방에에 놩 막 뻣앙 우리도 헹 먹어봣저.('겡이죽'은 이 방아에 넣어서 마구 빻아서 우리도 해서 먹어봤어.) 31 [고성, 성읍, 토평, 하원]

겡지솟: 쌀 두 말 정도를 거뜬하게 넣을 수 있는 크기의 큰 솥을 말한다. // 식구가 많은 디는 그 겡지솟으로 두 개 삶는 집도 잇고 또 하나 삶는 디도 잇고.(식구가 많은 데는 그 '겡지솟'으로 두 개 삶는 집도 있고 또 하나 삶는 데도 있고.) 12 // 겡지솟은 큰 거주게, 거 두말떼기라 헤 가지고서.('겡지솟'은 큰 거지, 거 '두말떼기'라 해 가지고서.) 12 [한동]

계멩이: 제주시 외도동의 자연 마을의 하나이다. '제멩이', '계명동'이라고도 하였다. // 하르방덜이 제멩이 제멩이 헌디 것이 계멩이, 계명동.(할아버지들이 '제멩이' '제멩이' 하는데 것이 '계멩이', '계명동'.) 29 [외도]

고고김치: '단무지'와 비슷한 음식이다. 조겨에 소금을 뿌린 무를 넣어서 익혀서 먹는 음식이다. // 무수 통채로 고고김치. 조체 놔서 말이지 묻엇다 말여. 여기서 고고김치 모르지예? 여기서 말허는 다꽝.(무 통째로 '고고김치'. 조겨 넣어서 말이지 묻었다가 말이야. 여기서 '고고김치' 모르지요? 여기서 말하는 단무지.) 05 [표선]

고고량: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지명이다. // 고고량 쪽에 또 거기 가기 전의 여기 저 동광요양원이 잇곡.('고고량' 쪽에 또 거기 가기 전에 여기 저 동광요양원이 있고.) 08 [동광]

고고롯: 굽은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다. // 영 ᄒᆞ쏠 고고롯 영 오그라져, ᄒᆞ꼼.(이렇게 조금 '고고롯' 이렇게 오그라져, 조금.) 14 [성읍]

고고신민노지까이: 일본어 'ここ臣民のちかい'로 '여기 신민에 가까운'이라는 의미이다. // 그때 당시에는 막 웨정시절이라고 아주 일분놈의 게난, 그때렌 학생들은 고고신민노지까이고.(그때 당시에는 막 일제강점기라고 아주 일본놈의 그러니까, 그때엔 학생들은 '고고신민노지까이'고.) 24 [세화]

고고조: 고조할아버지의 아버지를 가리킨다. // 저 막 케케묵은 때엔 고고조꺼장 헤나신디

보통 나도 고조꺼장은 헤낫주게, 고조.(저 아주 케케묵은 때엔 '고고조'까지 했었는데 보통 나도 고조까지는 했었어, 고조.) 06 [남원]

고남: 이것저것 살펴보거나 맞추고 따져 보는 것을 말한다. // 부모가 신부 난 날 난 시를 적어 주면은, 이제 그 남자 남자 그 뭐인가 ᄉᆞ주 거 난 날 난 시 둘이 거 놔 가지고 정시안테 강 거 고남을 헌다.(부모가 신부 난 날 난 시를 적어 주면, 이제 그 남자 남자 그 뭐인가 사주 거 난 날 난 시 둘이 놔 가지고 지관에게 가서 거 맞추고 따져 본다.) 12 [한동]

고내봉: 애월읍 고내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 거왕대는 저 고내봉에 가믄 아카시나무 구짝헌 거 시믄 그런 거.('거왕대'는 저 고내봉에 가면 아카시나무 곧은 거 있으면 그런 거.) 20 // 경 허연 저 애월면 그 고내, 고내봉에 우리 할머님이 모사나서게.(그렇게 해서 저 애월면 그 고내리, 고내봉에 우리 할머님이 모셨었어.) 29 [고내, 외도]

고냉이성창: 조천읍 함덕리 바닷가의 지명이다. // 바닷가 요디 물에 가민 세기마레여 고냉이성창이여.(바닷가 요기 물에 가면 '세기마레'다 '고냉이성창'이다.) 11 [함덕]

고냥치기: 구멍을 파 놓은 곳에 사금파리를 넣은 후에 그걸 돌로 꺼내며 노는 아이들의 놀이를 말한다. // 영 고냥치기엔 헌 거는 동전 엇이난에 옛날은 사그망치주제기 허영 동글락허게 ᄆᆞᆺ앙 고냥 똘라 놩 고냥치기 허곡.(이렇게 '고냥치기'라고 한 거는 동전 없으니까 옛날은 사금파리 해서 동그랗게 마아서 구멍 뚫어 놓아서 '고냥치기' 하고.) 14 [성읍]

고넹이포: 실이나 바늘, 천 쪼가리 따위를 넣기 위해 천으로 네모나게 만든 주머니를 말한다. 한쪽에 긴 끈을 달아 내용물이 나오지 않도록 둘둘 말아 고정시킨다. // 고넹이포 어떵 헤영 고넹이폰고 허민 이것가이 영 네 귀 나민 이것가 영 영 영 헹 꼬부리민 이거허고 이거 요디 영허고 영허민 이것가 고넹이 귀ᄀᆞ치, 고넹이 귀가 나주게.('고넹이포' 어떻게 해서 '고넹이포'인가 하면 이것이 이렇게 네 귀퉁이 나면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부리면 이거하고 이거 요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고양이 귀처럼, 고양이 귀가 나지.) 13 // 겨울 모자는 기자 천 두꺼운 거라도 잇이민 고넹이포 만들아.(겨울 모자는 그저 천 두꺼운 거라도 있으면 '고넹이포' 만들어.) 23 // 그 겨울 모자는 고넹이포엔 헤근에 영 네귀반득허게 놩.(그 겨울 모자는 '고넹이포'라고 해서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놔서.) 23 // 그 바농 질르는 거, 저 고넹이포, 고넹이포 허멍 영 귀나게 포 ᄌᆞᆸ아근에 그 안에 뭐 실도레기도 놓고 바농도 놓고 다 헹 놔근에 영 감춰 놔 두는 거 잇어.(그 바늘 찌르는 거, 저 '고넹이포', '고넹이포' 하면서 이렇게 '귀나게' 포 접어서 그 안에 뭐 실타래도 넣고 바늘도 넣고 다 해서 넣어서 이렇게 감춰 놔 두는 거 있어.) 25 [삼달, 온평, 태흥]

고넹이흑: 색깔이 고양이처럼 희끄무레한 찰흙을 말한다. // 이딘 그런 고넹이흑덜 엇고. 무조건 ᄎᆞᆫ흑허고. ᄎᆞᆫ흑으로 불미 만들고.(여긴 그런 고양이흙들 없고. 무조건 찰

흙하고. 찰흙으로 풀무 만들고.) 32 [덕수]

고노리고: 안덕면 대평리의 지명으로, 군산 동쪽에서 섯내가 시작하는 지점으로 샘이 솟는 곳이다. // 고노리고옌 ᄒᆞᆫ 디가 잇수다게. 거기서 물 나는 디, 거기서 다 나옵니다.('고노리고'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 나는 데, 거기서 다 나옵니다.) 17 [대평]

고달: '볏'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여기에서는 시루떡을 만들 때 메좁쌀가루 위에 차좁쌀가루를 얹거나, 좁쌀가루 위에 멥쌀가루를 얹은 것을 '볏'에 비유해서 쓴 표현이다. // 경 ᄒᆞ영 ᄑᆞᆺ 서꺼근에 그걸 곤떡 대신 씁디다. 고달 입지민, 고달 입민, 이걸 곤떡으로 씁니다.(그렇게 해서 팥 섞어서 그걸 흰떡 대신 씁디다. '고달' 입히면, 고달 입히면, 이걸 흰떡으로 씁니다.) 08 // 고달 ᄎᆞᆷ. 어떵 잘 셍각헴시니. 아 고달 맞다.('고달' 참. 어떻게 잘 생각하고 있니. 아 '고달' 맞다.) 14 // 흐린좁쏠 떡 ᄒᆞ젠 ᄒᆞ문 흐린조 ᄲᅥ사당 흐린좁쏠만 놓곡, 쉬, ᄑᆞᆺ 노멍 고달 입지곡, 고달이옌 ᄒᆞᆫ 건 ᄑᆞᆺ 놩, ᄑᆞᆺ ᄲᅥ사당 우트레 쏙쏙 부뜨지 안 ᄒᆞ게.(차좁쌀 떡 하려고 하면 차조 빻아다가 차좁쌀만 넣고, 소, 팥 넣으면서 '고달' 짓고, '고달'이라고 한 건 팥 넣어서 팥 빻아다가 위로 쏙쏙 붙지 안 하게.) 17 // 고달시리떡은 곤쏠을, 헌 걸 영 놩 우이 저 좁쏠 놔근에 우이 ᄑᆞᆺ 놩 허민 고달 뒈여근에 좁쏠광 곤쏠광 ᄒᆞᆫ디 조합뒌 거.('고달시리떡'은 흰쌀을, 한 걸 이렇게 넣어서 위에 저 좁쌀 넣어서 위에 팥 넣어서 하면 '고달' 되어서 좁쌀과 흰쌀과 같이 조합된 거.) 31 [대평, 동광, 성읍, 토평]

고달 입지다: 좁쌀가루에 팥소 따위로 켜를 짓되 그 사이에 쌀가루를 넣어 켜를 안치는 것을 말한다. // 고달 입진다, 고달 입진다 ᄒᆞ는 게 이 칭기칭기 헤 가지고 이 힌 그 곤쏠ᄀᆞ루만 우선 놔낭, 그 다음 이 저 좁쏠ᄀᆞ루로 뒌 거 ᄒᆞ영, 그 다음 ᄑᆞᆺ 놩 이게 그 칭기칭기 놓는 거지.('고달 입진다', '고달 입진다' 하는 게 이 층기층기 해 가지고 이 흰 그 흰쌀가루만 우선 넣어서, 그 다음 이 저 좁쌀가루만 된 거 해서, 그 다음 팥 넣어서 이게 그 층기층기 놓는 거지.) 08 // 저 시릿고망에 무 훍은 거 썰어근에 톡톡 놔근엥에 그레 저 무시거 영 놔난 어른은 알아근에 그걸 저 뒈약세기로 허영 놔근에 또 고달 입지는 건 또시 요만이, 요만이 그 우터레 놩.(저 시루구멍에 무 굵은 거 썰어서 톡톡 놓아서 거기에 저 무엇 이렇게 놓았던 어른은 알아서 그걸 저 식되로 해서 놓고 또 '고달 입지는' 건 다시 요만큼, 요만큼 그 위로 놓고.) 32 [덕수, 동광]

고달떡: 좁쌀가루에 팥소 따위로 켜를 짓되 그 사이에 쌀가루를 넣어 켜를 안친 시루떡이다. // 식게 떡 솔벤, 절벤 ᄒᆞ곡, 침떡 ᄒᆞ곡, 고달떡, 조떡 ᄒᆞ곡 막 헤낫주게. 그건 나록쏠 주장헷주게.(제사 떡, '솔벤', 절편 하고, 시루떡 하고, '고달떡', 조떡 하고 마구 했었지. 그건 볍쌀 주장했지.) 17 // 곤떡도 보민 여러 가지라, 똥골락헌 거영 부치는 거. 고달떡이 싯고, 곤떡도.(흰떡도 보면 여러 가지야, 동그란 거랑 붙이는 거. '고달떡'이 있고, 흰떡도.) 28 [구엄, 대평]

고달부찐떡: 좁쌀가루에 팥소 따위로 켜를 짓되 그 사이에 쌀가루를 넣어 켜를 안친 시루떡이다. // 종륜 조떡, 따시 저 곤떡, 따시 흐린조떡, 모읜조떡, 따시 저 고달부찐떡은 곤쏠떡 반, 조떡 반 허민 고달부찐떡, 흐린조떡, 모읜조떡, 그거주게.(종류는 조떡, 다시 저 흰떡, 다시 차조떡, 메조떡, 다시 저 '고달부찐떡'은 흰떡 반, 조떡 반 하면 '고달부찐떡', 차조떡, 메조떡, 그거지요.) 17 [대평]

고달시리떡: 좁쌀가루에 팥소 따위로 켜를 짓되 그 사이에 쌀가루를 넣어 켜를 안친 시루떡이다. // 고달시리떡은 곤썰을, 헌 걸 영 놩 우이 저 좁썰 놔근에 우이 픗 놩 허민 고달 뒈여근에 좁썰광 곤썰광 ᄒᆞ디 조합뒌 거.('고달시리떡'은 흰쌀을, 한 걸 이렇게 넣어서 위에 저 좁쌀 넣어서 위에 팥 넣어서 하면 '고달' 되어서 좁쌀과 흰쌀과 같이 조합된 거.) 31 [토평]

고달입진떡: 좁쌀가루에 팥소 따위로 켜를 짓되 그 사이에 쌀가루를 넣어 켜를 안친 시루떡이다. // 시루떡인디, 고달입진떡이엔 ᄒᆞ여근에 반, 삼분에 이는, 이는 좁쏠 삼분에 일도 못ᄒᆞ게 우인 곤쏠ᄀᆞ루로 ᄒᆞ여근에 영 허꺼근에 곤쏠ᄀᆞ루 우터레 ᄯᅳ시 픗 더꺼근에 ᄒᆞ영 ᄒᆞ면은 요영 ᄒᆞ쏠 헤뚜록ᄒᆞ게 그 곤쏠 잇어마씨, 고달입진떡이라고.(시루떡인데, '고달입진떡'이라고 해서 반, 삼분에 이는, 이는 좁쌀 삼분에 일도 못하게 위엔 흰쌀가루로 해서 이렇게 섞어서 흰쌀가루 위쪽으로 다시 팥 덮어서 해서 하면은 요렇게 조금 해읍스름하게 그 흰쌀 있어요, '고달입진떡'이라고.) 08 // 고달입진떡은 ᄒᆞ쏠 저 특수ᄒᆞᆫ 디 ᄒᆞ쏠 고달입진 곤쏠ᄀᆞ루 들어간 시루떡.('고달입진떡'은 조금 저 특수한 데 조금 '고달입진' 흰쌀가루 들어간 시루떡.) 08 // 고달입진떡이엔 허여근에 곤쏠만 ᄒᆞ꼼 놩 좁썰로 놔근에.('고달입진떡'이라고 해서 흰쌀만 조금 놓고 좁쌀로 놓아서.) 32 // 고달입진떡 허여근에 곤떡으로 썻수다.('고달입진떡' 해서 흰떡으로 썼습니다.) 32 [덕수, 동광]

고데: 일본어 'こて'로, 다림질·머리 손질·땜질 따위에 쓰는 인두의 총칭으로 미용실에서 웨이브를 연출할 때 사용하는 등근 형태로 된 기계이다. // 이발소에 주로 ᄒᆞ믄 불 ᄒᆞ믄 고데라고 ᄒᆞ영 숫에 궈, 이제 영 고데질 ᄒᆞ곡, 경 ᄒᆞ멍 ᄒᆞ는 이발소선 삽주게, 숫을.(이발소에 주로 하면 불하면 '고데'라고 해서 숯에 궈, 이제 이렇게 '고데질'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이발소에서는 사지요, 숯을.) 28 [구엄]

고데: 지붕 서까래 위에 흙을 받쳐 기와를 이기 위하여 가는 나무오리나 싸리나무 따위로 엮고 그 위에 바르는 흙을 말한다. 표준어 '새우'에 해당하며, '고디, 고뎃흑'이라고도 한다. // 지붕허는 거 이제 흑 올려근에 고데라고 헤 가지고 고데 올려 가지고 새로 꼴앙.(지붕하는 거 이제 흙 올려서 새우라고 해 가지고 산자 올려 가지고 띠로 깔아서.) 02 // 고데, 고데라고 헹은, 흑을 버무린 걸 또 아래서 밑으로 또 기냥 덩어리차 올립니다.(새우, 새우라고 해서는, 흙을 버무린 걸 또 아래서 밑으로 또 그냥 덩어리째 올립니다.) 15 // 또 벡도 영 흑으로 ᄇᆞᆯ르곡. 또 지붕우에 고데도 올리곡.(또 벽도 이렇게 흙으로 바르고. 또 지붕위에 새우도 올리고.) 16 // 서리 논 디이 섬비로 다 여끄난 지붕 우트레 던지믄 마트멍 이디 ᄒᆞᆫ

멧 개썩 놓으멍 영 허곡 멧 개썩 놓으멍 영 허곡 허영 다 허여지민 그 고데 올리는 거엥 허여, 고데 올리는 거엔. 지붕 우에 고데 올리는 거엔.(서까래 놓은 데 '섬비'로 다 엮으니까 지붕 위에 던지면 받으면서 여기 한 몇 개씩 놓으면서 이렇게 하고 몇 개씩 놓으면서 이렇게 하고 해서 다 하면 그 새우 올리는 거라고 해, 새우 올리는 거라고. 지붕 위에 새우 올리는 거라고.) 33 [덕수, 대림, 삼달, 선흘, 수망, 인성, 하원]

고데판: '고데+판' 구성으로, '고데(こて)'는 '흙손'의 일본어이다. // 흑판. 뭐 고데판이엔 허주. 고데판이엔 헌 건 우리말이 아니잖여.(흙받기. 뭐 '고데판'이라고 하지. '고데판'이라고 한 건 우리말이 아니잖아.) 01 // 고데가 저 쒜손이주게.('고데'가 저 쇠손이지.) 01 [도련]

고도리왓: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한 자연 마을이다. // 자리왓 ᄒᆞᆫ 오륙십 호가 살고 잇어. 열리왓, 또 마전동이라고 ᄆᆞᆯ팟. 상시ᄆᆞ름, 고도리왓, 에, 머뎅이왓, 겐 ᄋᆞ섯 개 ᄆᆞ을이 어도 이구로 뒈낫어, 어도 이구.('자리왓' 한 오륙십 호가 살고 있어. '열리왓', 또 마전동이라고 'ᄆᆞᆯ팟'. '상시ᄆᆞ름', '고도리왓', 에, '머뎅이왓', 그래서 여섯 개 마을이 어도 이구로 됐었어, 어도 이구.) 36 [봉성]

고도리젓: 고도리로 담가 만든 젓갈이다. '고도리'는 고등어의 어린 새끼를 말한다. // 고도리젓도. 고도리젓도 셔.('고도리젓'도. '고도리젓'도 있어.) 03 [송당]

고동: 소라를 달리 부르는 말이다. // 이제도 젊은 사름은 고동엔 허는 사름 잇주. ᄀᆞᆯ아나난.(이제도 젊은 사람은 '고동'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말했었으니까.) 23 // 그 땐 고동, 셍복이 하난에 잡앙먹어도, 막 줓아가난 물질도 못ᄒᆞ게 헤서.(그땐 소라, 전복이 많으니까 잡아먹어도, 막 잦아가니까 물질도 못하게 했어.) 24 [세화, 온평]

고동인조: 양단보다 헐겁게 직조된 비단을 말한다. // 인조, 고동인조가 젤 좋은 거.(인조, '고동인조'가 젤 좋은 거.) 32 [덕수]

고둣물: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물 이름이다. '고도물'이라고도 한다. // 산뒤찝 뱅허게 쪼꼼씩 ᄒᆞᆫ 곱씩 영 놓아근에 숢앙, 문짝 숢앙 그런 때는 어디 고둣물이나 그런 디 강 ᄇᆞᆯ믄이 ᄇᆞᆯ앙 이젠 막 메칠.(밭볏짚 빙하게 조금씩 한 겹씩 이렇게 놔서 삶아서, 푹 삶아서 그런 때는 어디 '고둣물'이나 그런 데 가서 ᄇᆞᆯ면 빨아서 이젠 막 며칠.) 11 // 우린 질어오곡 그냥 빨래덜은 저 고둣물에나 소레물에나 이제 고둣물, 소레물 헤도 몰람주만은 저 해수욕장 옆이.(우린 길어오고 그냥 빨래들은 저 '고둣물'에나 '소레물'에나 이제 '고둣물', '소레물' 해도 모르지만 저 해수욕장 옆에.) 11 [함덕]

고들개: 껑거리끈에 매어 소의 궁등이에 가로 대는 막대이다. // 이거 고들개. 쉐 질멧가지에 이거 고들개.(이거 껑거리막대. 소 길맛가지에 이거 껑거리막대.) 02 // 요건 앞이 가는 거고 요건 또꼬망에 가는 거고 꼴랑지 들렁 요레 톡 끼왕 고들개.(요

건 앞에 가는 거고 요건 엉덩이에 가는 거고 꼬리 들어서 요리 톡 끼워서 껑거리막대.) 13 [삼달, 선흘]

고디: 산자 위에 바르는 흙을 말한다. 표준어 '새우'에 해당하는 말이다. // 일차는 서슬 헤서 대나무로 여끄고. 흑 올리고 고디 올려.(일차는 발비 해서 대나무로 엮고. 흙 올리고 새우 올려.) 01 [도련]

고라: 털 색깔이 노르스름한 말이다. // 거 고라는 그 것이 ᄒᆞ꼼 노란 거 뭐 들어간 것이 고랄 거라.(거 '고라'는 그 것이 조금 노란 거 뭐 들어간 것이 고랄 거라.) 29 [외도]

고라개: '고라말'이라고 일컬을 때처럼 등에 누런 털이 난 말을 '고라말'이라고 하듯이 색깔이 누런색과 검은 색이 뒤섞인 개를 '고라개'라고 부른다. // 고라개. 왜정 말로 고라개고 색도 고라갠디.('고라개'. 일본 말로 '고라개'고 색도 '고라개'인데.) 03 [송당]

고라ᄆᆞᆯ: 등에 검은 털이 난 누런 말을 가리킨다. // 고라ᄆᆞᆯ, 보라ᄆᆞᆯ, 그놈의 색이 다 가졍은에 크레용 가졍은에 긋으면 하면은 이건 무슨 ᄆᆞᆯ이다, 무슨 ᄆᆞᆯ이다 아는데 시방 고라ᄆᆞᆯ이렌 헤도 분간을 못하거든.('고라말', '보라ᄆᆞᆯ', 그 놈의 색이 다 가지고서 크레용 가져서 그으면 하면 이건 무슨 말이다, 무슨 말이다 아는데 시방 고라말이라고 해도 분간을 못하거든.) 03 [송당]

고랑조: 조의 한 종류를 말한다. // 피영 조영 거 궂인 거, 궂인 것도 서끄고 고랑조도 ᄒᆞᆫ 건 궂인 밧 ᄒᆞ는 사름덜. ᄒᆞ여놓민 싹 ᄆᆞᆯ려왕 헤영 눌엉 놔둬, 건 어느 때 장만ᄒᆞ는공 ᄒᆞ민 봄 나가야.(피랑 조랑 그거 궂은 거, 궂은 것도 섞고 '고랑조'도 한 건 궂은 밭 하는 사람들. 해놓으면 싹 말려서 해서 가려 놔둬, 그건 어느 때 장만하는가 하면 봄 들어가야.) 15 [수망]

고랑캐구들: 부엌 입구 옆에 위치한 아주 작은 방을 일컫는다. // 고랑캐, 조그만 ᄒᆞᆫ 건 고랑캐구들이옌 ᄒᆞ곡, 큰구들, 족은구들, 그다음은 마루방, 머 웃정지 머 독정지옌도 ᄒᆞ곡.('고랑캐', 자그만 한 건 '고랑캐구들'이라고 하고, 큰방, 작은방, 그다음 마루방, 뭐 윗부엌 뭐 독부엌이라고도 하고.) 17 [대평]

고랑케: 제주도 초가에서, 부엌에서 바깥으로 통하는 문 옆에 있는 작은 공간이다. // 호령창이 아니고 저 무시거 정제레 가는 디, 정제레 가는 디 검질 데미는 아이고 잊어부렛져. 고랑케.('호령창'이 아니고 저 무엇 부엌으로 가는 데, 부엌으로 가는 데 검불 쌓는 아이고 잊어버렸다. '고랑케'.) 33 [인성]

고랑콩: 조 파종과 동시에 밭갈이 후에 이랑을 따라서 파종한 콩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 옛날에는 고랑콩이엔 헤여 고랑콩 장 ᄃᆞᆷ꼭.(옛날에는 '고랑콩'이라고 했어 '고랑콩' 장 담그고.) 16 [하원]

고래시: 태풍과 같은 큰 바람이 오고 나서 바닷가에 파란 바다풀들이 올라온 상태를 말하는 듯하다. 고래가 똥을 싼 것 같다고 제보자는 설명했다. // 이제는 그런 고래시가

아니 올라와. 엿날에는이 고래시 ᄀᆞ디 올라오민이 이 돌이 퍼렁허여. 고래시가. (이제는 그런 '고래시'가 안 올라와. 옛날에는 '고래시' 갯가에 올라오면 이 돌이 퍼래. '고래시'가.) 11 [함덕]

고량: 대로 엮어 만든 그릇 채롱이나 그것으로 하나 만큼의 분량을 말한다. // ᄒᆞᆫ 고량 ᄒᆞ젠 ᄒᆞ민 어디 제물헹 가젠 허민.(한 '고량' 하려고 하면 어디 제물해서 가려고 하면.) 16 [하원]

고령: 대로 엮어 만든 그릇 채롱이나 그것으로 하나 만큼의 분량을 말한다. // 제물떡 것ᄀᆞ라 ᄒᆞᆫ 고령이엔 ᄒᆞ주, 제물떡 ᄒᆞᆫ 고령 헹 간다, 헹 ᄒᆞ는 거고, 남자는 또 고기, 고기 헤근에 끌럭지 영 싸근에.('제물떡' 것보고 한 '고령'이라고 하지, '제물떡' 한 '고령' 해서 간다, 해서 하는 거고, 남자는 또 고기, 고기 해서 '끌럭지' 이렇게 싸서.) 24 // 저 요새는 빵이엔 허주만은 엿날은 상웨나 ᄒᆞᆫ 고령헤영 가사허주, 허멍. 그자 그거여.(저 요새는 빵이라고 하지만 옛날은 '상웨'나 한 '고령'해서 가야지, 하면서. 그저 그거야.) 25 // ᄯᆞᆯ덜이나 어디 영 방상이나 ᄒᆞᆫ 디 쪼끔 생각허는 사름은 만두 ᄌᆞᆸ앙 꼭꼭 만두 ᄌᆞᆸ앙 ᄒᆞᆫ 고령이엔 헌 거 차롱 쪼그만헌 차롱 잇어.(딸들이나 어디 이렇게 일가붙이나 한 데 조금 생각하는 사람은 '만두' 만들어서 꼭꼭 '만두' 만들어서 한 '고령'이라고 한 거 채롱 조그만 채롱 있어.) 25 [세화, 태흥]

고령차반지: 채롱보다 통이 얕고 작게 만든 뚜껑 있는 그릇을 말한다. 주로 대오리로 엮어서 만든다. // 물에 판찍, 이거 싯어근엥에 이레 다 ᄎᆞᆷ지름 ᄇᆞᆯ랑 영 영 놔사 부트지 아니여 이레 그때 고령차반지.(물에 깨끗이, 이거 씻어서 여기에 다 참기름 발라서 이렇게 이렇게 발라야 붙지 않아 여기에 그때 '고령차반지'.) 24 [세화]

고령착: 채롱보다 통이 얕고 작게 만든 뚜껑 있는 그릇의 한쪽을 말한다. 뚜껑을 포함하여 두 개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착'은 두껑 없이 한 쪽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 음식 장만은 집이서 다 헹 가는 거주게. 집집마다. 그 고령착에 헤근에.(음식 장만은 집에서 다 해서 가는 거지. 집집마다. 그 '고령착'에 해서.) 04 // 일부러 만들지 아녀도. 이만은 한 차롱. ᄒᆞ꼼 통 지픈. 정기 하영 지졍 놓는 그런 차롱 잇어. 고령착.(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이만큼 한 채롱. 조금 통 깊은. '정기' 많이 지져서 놓는 그런 채롱 있어. '고령착'.) 05 [고성, 표선]

고롬풀: 김의 한 가지이다. 풀에서 하얀 액이 나와서 '고롬풀'이라고 한 것이다. // 고롬풀이예 메여서 저 돌담 우의도 놔둬도 ᄒᆞᆫ ᄃᆞᆯ이 뒈도 죽지 아녀.('고롬풀'이요 매어서 저 돌담 위에도 놔둬도 한 달이 되도 죽지 않아.) 05 [표선]

고름물: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물 이름이다. // 그 이유인지 일로 가운딜로 이, 저 고름물이라고 물이 흘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가운데는 물이 잇어 가지고 집을 못 짓어서.(그 이유인지 일로 가운데로 이, 저 '고름물'이라고 물이 흐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가운데는 물이 있어 가지고 집을 못 지어서.) 29 [외도]

고리: 대오리로 네모나게 엮어서 만든 그릇이다. 예전에 피 따위를 말릴 때 불을 사른 '부

섭' 위에 젖은 피를 담은 고리를 매달아 놓으면 피가 말랐다. // 고리 놩 정지 가운디 네 개 반듯하게 봉덕이라고 불살르는 봉덕.('고리' 놓고 부엌 가운데 네 개 반듯하게 '봉덕'이라고 불사르는 '봉덕'.) 03 // 옛날은 상방에 불 영 술라놩 조코고리 벳 안 나민 고리엔 헌 거 영 둘아매엉 조 그르에 놔근에 영 둘아맨 것덜에 조 비와놔근에 알로 불 와랑와랑 때가민 조가 물르주게.(옛날은 마루에 불 이렇게 살라서 조이삭 볕 안 나면 '고리'라고 한 거 이렇게 달아매서 조 그루터기에 놔서 이렇게 달아맨 것들에 조 부어 놔서 아래로 불 '와랑와랑' 때 가면 조가 마르지.) 13 // 피 아니 장마에 보리도 고리에 헨 물롸낫주.(피 아니 장마에 보리도 '고리'에 해서 말렸었지.) 14 // 보리쏠 확 고리에 거평, 항아리로 하나씩 허멍 보리 홀트멍 먹엇수다, 옛날에.(보리쌀 확 '고리'에 거피해서, 항아리로 하나씩 하면서 보리 훑으면서 먹었습니다, 옛날에.) 34 [구억, 삼달, 성읍, 송당]

고립낭: 죽어서 고린 나무를 가리킨다. // 그게 가시낭 거튼 거 헌 것ᄀᆞ라 고립낭이엔. 고리어근에 허여오난 고립낭이렌 헤라, 그때.(그게 가시나무 같은 거 헌 것보고 '고립낭'이라고. 고려서 해오니까 '고립낭'이라고 하더라, 그때.) 26 [신창]

고망물: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물 이름이다. 물이 구멍에서 나온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 허벅으로 져. 물대바지 대바지엔 헌 것도 져나고, 허벅으로. 우리 외도 나 온 지 후제도 이디 고망물엔 헌 디 셔, 외도.(물동이로 길어. '물대바지' '대바지'라고 한 것도 길었었고, 물동이로. 우리 외도 나 온 후에도 여기 '고망물'이라고 한 데 있어, 외도.) 29 [외도]

고망새: 바위틈의 구멍에서 마련한 띠이다. // 십일월달이 넘어가면은 그 고망새라 헤 가지고 자기 땅이 아니고 놈이 땅이라든지 내분 것덜 이런 걸 비어다가도 일곡, 이렇게 두 가지로 헤십주.(십일월이 넘어가면 그 '고망새'라 해 가지고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이라든지 내버린 것들 이런 걸 베어다가도 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했습지요.) 35 [대림]

고망우럭: 우럭의 일종이다. 바위틈에 주로 살기 때문에 붙은 명칭이다. // 물 이렇게 싸면은 이 그 구멍에다 이렇게 놔서 뭐허는 거 고망우럭이라고.(물 이렇게 써면 이 그 구멍에다 이렇게 놔서 뭐하는 거 '고망우럭'이라고.) 05 [표선]

고명: 시루떡을 제외한 기름떡, 절편, 솔편 따위의 떡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 고명은 저 무신 산에 강 쓸 때에 고명 올리지. 기냥 제사 때는 안 써.('고명'은 저 무슨 산에 가서 쓸 때에 '고명' 올리지. 그냥 제사 때는 안 써.) 01 [도련]

고무 구루마: 바퀴가 고무로 되어 있는 달구지를 말한다. // 철 구루마 허단에 것도 아주 옛날이난. 경헨 고무 구루마 나낫저게. 겡헨 쉐도 막 여러 가지 헷저게. 밧도 불리고 걸름도 불리고 구루마질도 허고 짐도 시껑 뎅기곡.(철 구루마 하다가 것도 아주 옛날이니까. 그렇게 해서 고무 달구지가 났었어. 그리고 소도 아주 여러 가지 했었어. 밭도 밟고 거름도 밟고 달구지질도 하고 짐도 싣고 다니고.) 31 [토평]

고무옷: 해녀들이 바닷속에서 해산물 등을 캘 때 입는 고무로 만든 잠수복을 말한다. // 고무옷이여 무시거여 나난 ᄒᆞ루 ᄌᆞ물앙 살암주만은 그땐 ᄒᆞᆫ 시간도 못 살앙 나와.(고무옷이며 무엇이며 나니까 하루 종일 살지만 그땐 한 시간도 못 살고 나와.) 12 // 아니. 요즘에는 그 국가에서 뭐 오리발 나오고 고무옷 내어주고 해녀들 진짜 원헐 것이 엇어.(아니. 요즘에는 그 국가에서 뭐 오리발 나오고 '고무옷' 내어주고 해녀들 진짜 원할 것이 없어.) 18 // 옛날에는 물에 들젠 허민, 지금이야 다 고무옷이주만은. 고무옷. 옛날엔 속곳. (옛날에는 물에 들려고 하면, 지금이야 다 고무옷이지만. 고무옷. 옛날엔 '속곳'.) 20 // 우리 헐 때 고무옷 나시민 우리 아프지도 안허고 막 하영 헷주.(우리 할 때 '고무옷' 나왔으면 우리 아프지도 않고 아주 많이 했지.) 31 [고내, 신도, 신창, 토평, 한동]

고미: 옷의 단이 접혀지는 부분을 말한다. // 요영 ᄒᆞ민 바눙감침이엔 ᄒᆞᆫ 건 요영 ᄒᆞᆫ 것 골려당 요영 ᄒᆞ곡, 고미엔 영 헤당 바눙 숨방숨방 저레 영 주어가는 거.(요렇게 하면 바늘감침질이라고 한 건 요렇게 한 것 골라다가 요렇게 하고, '고미'라고 이렇게 해놓고 바늘 숭덩숭덩 저리로 이렇게 기워가는 것.) 15 [수망]

고베: 일본 고베시를 말한다. // 고베엔 헌 디 나도 가 왓저, 일본. 우리 삼춘네가 거기 사난.(고베라고 하는 데 나도 갔다 왓어, 일본. 우리 삼촌네가 거기 사니까.) 31 [토평]

고부렝이: 꼬부라진 동물을 이르는 말로 여기서는 곰배말을 이르는 것이다. // 아, 등 굽은 거, ᄆᆞᆯ ᄒᆞᄉᆞᆯ 고부렝이엔 헤나실 거라. ᄆᆞᆯ도 ᄒᆞ꼼 등어리 튀어나고 고부룻헌 말이 잇어.(아, 등 굽은 거, 말 조금 '고부렝이'라고 했었을 거야. 말도 조금 등이 튀어나고 굽은 말이 있어.) 02 [선흘]

고분뎃밧물: 한경면 청수리 지명으로 산돼지가 숨은 곳이라 해서 나온 이름을 말한다. // 그래서 사농동산은 그래서 사농동산이고, 고분뎃밧물이나 이제 돗쏜빌레나 돗 죽은 물은 돗쏜빌레엔 헌 저 올라간 고지가 잇수다예.(그래서 '사농동산'은 그래서 '사농동산'이고, '고분뎃밧물'이나 이제 '돗쏜빌레'나 돼지 죽은 물은 '돗쏜빌레'라고 한 저 올라간 숲이 있습니다.) 19 [청수]

고분자귀: 자귀의 일종이다. 나무의 흠을 깎을 때 사용한다. // 엿날 목수덜은 가졍뎅기는 게 톱허고. 귀자귀허고. 손자귀허곡. 고분자귀허고 먹통허고. 돌끌허고 저 낭끌허곡. 것벳긔 안 가졍뎅겻어.(옛날 목수들은 가져다니는 게 톱하고. '귀자귀'하고. 손자귀하고. '곱자귀'하고 먹통하고. '돌끌'하고 저 나무끌하고. 것밖에 안 가져다녔어.) 14 [성읍]

고븐이물: 구좌읍 송당리의 물 이름이다. // 고븐이물이렌 헌 것은 그 내가 에스형으로 뒈엇수다.('고븐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에스자형으로 되었습니다.) 03 [송당]

고비: 천 따위에 진 주름이나 고부탕이를 말한다. // 이거 고비가 영 나는 거난, 천 고비가 나는 거난 멧 자 허민 딱 오그령 영 싹 씰민 고비 나민 그 고비로 그치멍 헷주.

(이거 '고비'가 이렇게 나는 거니까, 천 '고비'가 나는 거니까 몇 자하면 딱 오그려서 이렇게 싹 쓸면 '고비' 나면 그 '고비'로 자르면서 했지.) 25 [태흥]

고비끼리: 일본어로, '거도'를 가리킨다. // 거 일본말로 고비끼리엔 헤 가지고서 그건 혼자 막 톱이 막 이렇게이 혼자 허는 건데 톱이 막 넙나.(거 일본말로 '고비끼리'라고 해 가지고서 그건 혼자 아주 톱이 마구 이렇게 혼자 하는 건데 톱이 아주 넓어.) 12 // 일본말로 고비끼리엔 헌 건 옆으로 ᄌᆞᆯ르는 걸 고비끼리엔 헌다.(일본말로 '고비끼리'라고 한 건 옆으로 자르는 걸 '고비끼리'라고 한다.) 12 [한동]

고사리: 고구마모종인 고구마 기는줄기를 말한다. // 그거 헤근에, 고름도 막 나는 감저라 그때. 그거 허민은 걸름이 엇어. 그자 헷지. 고사리 비어근엥에.(그거 해서, 고름도 막 나는 고구마야 그때. 그거 하면 거름이 없어. 그저 했지. '고사리' 베어서.) 24 [세화]

고사리반지기: 꼴에 고사리가 섞였다는 말이다. // 밧듸 오늘 비민 벳이 막 하늬ᄇᆞ름 불민 오늘 비엉 고사리반지기 허민 낼 무끄고 다시 또.(밭에 오늘 베면 볕이 막 하늬바람 불면 오늘 베어서 '고사리반지기' 하면 내일 묶고 다시 또.) 13 [삼달]

고사릿국: 돼지고기 육수에 고사리를 넣어서 푹 끓인 음식을 말한다. 오늘날의 육개장과 비슷한 음식이다. // 고사리 보깡도 먹곡 저 고사릿국은이.(고사리 볶아서도 먹고 저 고사릿국은.) 29 [외도]

고살: 떡 따위를 찌기 위하여 솥 안에 나뭇가지 등을 깔아 겅그레처럼 만들어 놓은 도구를 말한다. // 낭 ᄎᆞ근ᄎᆞ근허게 놓는 게 고살이고.(나무 차근차근하게 놓는 게 '고살'이고.) 05 [표선]

고새미: 한경면 고산리의 지명 가운데 하나이다. // 마을에 초담 여기 살 때 여기가 아니주게. 저 밑에 고새미엔 ᄒᆞᆫ 디주게.(마을에 처음 여기 살 때는 여기가 아니지. 저 밑에 '고새미'라고 하는 곳이지.) 09 [고산]

고생들 반다: '곤욕을 치르다'의 의미로 쓰였다. // ᄲᆞᆯ리들 잘 죽엇주. 셔시믄 나한테 대게 고생들 받주.(빨리들 잘 죽었지. 있었으면 나한테 아주 고생을 받겠지.) 03 [송당]

고성장: 성산읍 고성리에서 오일마다 서는 오일장을 말한다. // 모시 정벵일 입엉, 고성장 말앙 성산장에 가젱 ᄒᆞ민. 그건 영 앞인 남ᄌᆞ어룬덜 영 꼬부령 영.(모시잠방이를 입어서, '고성장' 말고 '성산장'에 가려 하면. 그건 이렇게 앞에는 남자어른들 이렇게 꼬부려서 이렇게.) 04 [고성]

고소리: 솥에 오메기술을 넣고 그 위에 소줏고리를 얹어서 증류해서 뽑아내는 제주의 전통 소주를 말한다. // 고소린 거 소주 다끄는 거고, 이건 막걸리 담앙 먹는 거 고소리술.('고소린' 거 소주 닦는 거고, 이건 막걸리 담아서 먹는 거 고소리술.) 10 [월령]

고소리술: 솥에 오메기술을 넣고 그 위에 소줏고리를 얹어서 증류해서 뽑아낸 제주 전통 소

주이다. // 그러니까 옛날도 말이지 거 고소리술 헤 가지고 조로 만들어 가지고 술 멘들어서 말이여 그거 먹으면.(그러니까 옛날도 말이지 거 '고소리술' 해 가지고 조로 만들어 가지고 술 만들어서 말이야 그거 먹으면.) 27 // 옛날, 옛날 어른덜은 더 막 헤신가? 우리 헐 땐 그추록 경 헷는디, 경 허연 탁배기 허연 그자 보리로 탁배기허고, 술 허곡, 누룩 허곡, 이제 기추룩 헹은에 식게헐 땐 그거 탁배기허곡, 보리 고소리술도 허멍.(옛날, 옛날 어른들은 더 막 했는가? 우리 할 땐 그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탁주 해서 그저 보리로 탁주하고, 술하고, 누룩하고, 이제 그처럼 해서 제사할 때는 그거 탁주하고. 보리 '고소리술'도 하면서.) 28 [구엄, 옹포]

고수동: 남원읍 신흥2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 신흥 이리 고수동이엔 헌디서 태어난 사람인디.(신흥 이리 고수동이라고 한데서 태어난 사람인데.) 15 [수망]

고수천: 하천정비 사업으로 하천 바닥을 매끄럽게 깔아서 물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 하천을 말한다. // 이 동네는 내는, 그 연 지금은 다 이제 그 고수천 헤가지고 알로 파가지고 헤부니까. 내엔 없는데 옛날은 남제긴내 허면은.(이 동네는 내는, 그 연 지금은 다 이제 그 '고수천' 해가지고 아래로 파가지고 해버리니까. 내라고는 없는데 옛날에는 '남제긴내' 하면.) 04 [고성]

고량부: 제주의 삼성신화에 등장하는 고씨, 양씨, 부씨를 통틀어서 일컫는 용어이다. // 고량부 삼성혈에서도 ᄒᆞᆫ번 관리헤봣다가 또 안 뒈민 서귀포시에서도 관리헷다 부락에서도이.(고량부 삼성혈에서도 한번 관리해봤다가 또 안 되면 서귀포시에서도 관리했다 부락에서도.) 23 [온평]

고유비: 일본어 'こゆび'로 '새끼손가락'이라는 뜻이다. // 이건 고유비. 게메 겨난 경 ᄀᆞᆫ는 거.(이건 '고유비'.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02 [선흘]

고작: 나뭇가지나 대 등으로 가늘고 끝이 뾰족하게 만들어서 방 안의 벽 같은 데에 박아서 옷이나 물건을 거는 데 쓰는 걸이의 의미로 쓰인 것 같다. // 고작, 고작이렌 허주, 고작. 그 저 고망 파근에 꼭 끼와근에 영 세와 놩 그 우에 또 낭 박젠 허믄.('고작', '고작'이라고 하지, '고작'. 그 저 구멍 파서 꼭 끼워서 이렇게 세워 놔서 그 위에 또 나무 박으려고 하면.) 34 [구억]

고잡: 성산읍 수산2리를 가리키는 옛 이름이다. // 그래서 옛날엔 저 수산 고잡 사람덜, 여기 보리 비레 와나서 그때 옛날에 그 듬북 나오기 이전에는 육십년 대ᄁᆞ지는 이제 거기는 단지 돗걸름으로만 보리 갈아 먹엇거든.(그래서 옛날엔 저 수산 '고잡' 사람들, 여기 보리 베러 왔었어 그때 옛날에 그 듬북 나오기 이전에는 육십년 대까지는 이제 거기는 단지 돼지거름으로만 보리 갈아 먹었거든.) 22 [우도]

고장떡: 떡 모양이 꽃처럼 생긴 떡을 말한다. 떡가루에 색을 입혀서 떡을 만들기도 한다. // 희게. 기냥 고장떡, 뽄으로만 고장ᄀᆞ찌 영 손부리로 영 영 영 영 영 허영 좁앙은에.(희게. 그냥 '고장떡', 본으로만 꽃처럼 이렇게 손부리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어서.) 29 [외도]

고장ᄆᆞ를: 지경 이름이다. // 생각남저. 우리 샛어머니 고장ᄆᆞ를이, 안돌이 잣벽 아니가게. 이제 ○○네 허는디.(생각난다. 우리 둘째어머니 '고장ᄆᆞ를'이, '안돌'이 '잣벽' 아니니. 이제 ○○네 하는데.) 30 [노형]

고적: 일가에 경조사가 생겼을 때 친척끼리 만들어 가거나 부조로 갖고 가는 떡이나 쌀을 말한다. // 지물도 헹 가곡, 세미떡을 ᄒᆞ꼼 ᄒᆞ여근에 권당 집이 고적 잇지 안ᄒᆞ꽈? 고적으로도 ᄒᆞ여 갓수다.(제물도 해서 가고, '세미떡' 조금 해서 권당 집에 '고적' 있지 안 합니까? '고적'으로도 해 갔습니다.) 08 // 사둔집의는 ᄒᆞᆫ 말, ᄒᆞ끔 ᄇᆞ든 가진 두 뒈, 일가방상에 고적은 ᄒᆞᆫ 말도 ᄒᆞ고 두 뒈, 우리 양칩읜 두 뒈 ᄒᆞ당 ᄒᆞᆫ 말 햇수다.(사돈집에는 한 말, 조금 가까운 '가지'는 두 되, 일가방상에 '고적'은 한 말도 하고 두 되, 우리 양씨 집에는 두 되 하다가 한 말 했습니다.) 17 // 떡들은 옛날은 저 고적이라고 지금은 부주로 다 권당덜토 허곡 다 헤나신디 옛날은 고적이라고 그 장 나민이.(떡들은 옛날은 저 '고적'이라고 지금은 부조로 다 권당들도 하고 다 했었는데 옛날은 '고적'이라고 그 장 나면.) 29 // 옛날엔 이 저 초상 낭 장지에도 밥을 안 허주게. 밥을 안 헤근에 방상에서 친척덜이 고적을 헤 가면은 그거 멧 개씩 놔근에게 이 일꾼덜 멕여낫주게, 점심으로. 경헤근에게 허영.(옛날엔 이 저 초상나서 장지에도 밥을 안 하지. 밥을 안 해서 종친에서 친척들이 '고적'을 해 가면 그거 몇 개씩 넣어서 이 일꾼들 먹여났어, 점심으로. 그렇게 해서.) 30 [노형, 대평, 동광, 삼달, 신도, 신창, 외도, 월령, 청수, 함덕]

고제: 실없거나 믿을 수 없는 말 따위를 말한다. // 마누라 어떠헤게. 몸 조심헤영인에 동넷사름ᄀᆞ라도 집이 나그네 들엇젠 헹은에 오지도 못허게 허고 정성 들영 집이서 아기 ᄇᆞ름도 쒜우지 말곡 곱게 살당인에 곱게 뒈는 사름 싯고 또 잘못헹 누게 오랑 고제 ᄑᆞᆯ아불민이.(천연두 어떻게 해. 몸 조심해서 동네 사람보고도 집에 '나그네' 들었다고 해서 오지도 못하게 하고 정성 들여서 집에서 아기 바람도 쏘이지 말고 곱게 살다가 곱게 되는 사람 있고 또 잘못해서 누구 와서 '고제' 팔아버리면.) 33 [인성]

고주기: 바닷물 속에서 자라는 바다풀로 주로 거름용으로 쓴다. // 경허여낫주. 칠월덜 나민. 음력 칠월덜 나민 고주기 ᄌᆞ물아당 통지에 막 놓고 허여낫주.(그랬었지. 칠월되면. 음력 칠월 되면 '고주기' 캐다가 돼지우리에 마구 놓고 했었어.) 26 [신창]

고지: '이랑'의 제주어로, 한 두둑과 그에 따른 고랑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지역에 따라 '밧파니, 파니'라고도 한다. // 한 고지에 놩. 그냥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꼭꼭 찔러 나가주게.(한 이랑에 놔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꼭꼭 찔러 나가지.) 09 // 한 고지에 멧 개 심는지 그거 알아져? 요만씩 잘라서 심엉 한 오십메다 이상 나가니깐.(한 이랑에 몇 개 심는지 그거 알아져? 요만씩 잘라서 심어서 한 오십 미터 이상 나가니깐.) 09 // 고질 영 만들면은 싹 영 줄 홈 파근에 영 감젓줄, 감젓줄 영 놔근에.(이랑을 이렇게 만들면 싹 이렇게 줄 홈 파서 이렇게 고

구마기는줄기 고구마기는줄기 이렇게 놓아서.) 16 [고산, 하원]

고지: 가늘고 길면서 끝이 뾰족한 쇠나 나무 따위의 물건인 꼬챙이를 말하는데 지관이 산소로 쓸 곳을 표시하기 위해 꽂는 꼬챙이를 말한다. // 고지엔 헌 건 대막댕이 앗앙 강 꼽아줘. 욜로 요 사이에 영장 묻을 디를 고지 꼽앙.('고지'이라고 한 건 대막대기 가져 가서 꽂아줘. 요기로 요 사이에 시체 묻을 데를 '고지' 꼽아서.) 11 // 토신젠 안 헤근에 그때 가근에 토신제만 지내엉 그디 고지 찔르주게.(토신제는 안 해서 그때 가서 토신제만 지내서 거기 '고지' 찌르지.) 13 [삼달, 함덕]

고지: 여러 의미가 있으나 여기서는 '군데', 즉 '장소'를 말한다. // 안 가민 일요일 날은 약을 세 고지로 허여마씸게.(안 가면 일요일 날은 약을 세 군데로 합니다.) 32 [덕수]

고지기: 모자반의 일종으로 주로 거름으로 사용한다. // 듬북도 고지기도 ᄌᆞ물아놩 보리찝 놓곡 고지기 놓곡 헹 쎅영 보리 갈곡.(듬북도 고지기도 채취해서 보릿짚 놓고 고지기 놓고 해서 썩혀서 보리 갈고.) 13 // 고지기 ᄌᆞ물아다근에 거 통시에 놔근에 그 보리찍 ᄒᆞᆫ 도리 놓곡 그 고지기 ᄒᆞᆫ 도리 놓곡 허멍 통시에 싹 싸놩.('고지기' 캐다가 거 돼지우리에 놔서 그 보리짚 한 도리 놓고 그 '고지기' 한 도리 놓고 하면서 돼지우리에 싹 쌓아놔서.) 23 // 저기 ᄆᆞᆯ망, ᄆᆞᆯ망, 고지기, 감태, 구제기, 생복, 오분작 그거 잇주게. 물에 들엉 잡는 거 오분작.(저기 모자반, 모자반, '고지기', 감태, 소라, 생복, 오분자기 그거 있지. 물에 들어서 잡는 거 오분자기.) 31 [삼달, 온평, 토평]

고지셍: 일본어로, 일본 돈 오 원 정도인 것 같다. // 그 어릴 때 들은 말, 고지셍, 고지셍 ᄒᆞ믄 아 일본 군인덜이 왕 돈 내엉 사 가고, 우리 영 대여섯 살 때 양 앚앙 영 ᄑᆞ는 거 보고, 여기 중엄장이 셔 낫수다게.(그 어릴 때 들은 말, '고지셍', '고지셍' 하면 아 일본 군인들이 와서 돈 내어서 사 가고, 우리 이렇게 대여섯 살 때 요, 앉아서 이렇게 파는 거 보고, 여기 '중엄장'이 있었습니다.) 28 [구엄]

고징: 밀을 싹이 트게 틔운 것을 말한다. // 아이, 장물엔 그자 소금 ᄒᆞ쏠 그냥 장물더레 쌍을 놓나 그냥 놓나 헤도 뒈고 메주는 요새 시에 사난 시에 장에 가민 고징 ᄑᆞ는 거 잇지?(아니. 간장엔 그저 소금 조금 그냥 간장에 싸서 놓거나 그냥 놓거나 해도 되고 메주는 요새 시에 사니까 시에 장에 가면 '고징' 파는 거 있지?) 13 // 그건 옛날은 소금에 저 무시거 장게, 그 무시거 놘 헤신디 이젯사름덜은 그 메주 틔운 거나 고징이나 놈주, 것도.(그건 옛날은 소금에 저 무엇 장, 그 뭐 놔서 했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 메주 띄운 거나 '고징'이나 놓고 있지, 그것도.) 13 [삼달]

고쭈센세이: 일본어 'こうちょう(校長)せんせい(先生)'로 '교장 선생'이라는 의미이다. // 고쭈센세이 교장 선생은 일분 사름이고.('고쭈센세이' 교장 선생은 일본 사람이고 .) 24 [세화]

고칩: 고씨 일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 고칩이라는 곳은 저쪽 신산 쪽으로 가는 쪽에 가면 이제 뭐헷고.('고칩'이라는 곳은 저쪽 '신산' 쪽으로 가는 쪽에 가면 이제 뭐했고.) 23 [온평]

고팡: 고방(庫房)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 이 구들 두에 고팡이 잇거든 이추록 게민 고팡에 들어가는 고팡문.(이 구들 뒤에 고방이 있거든. 이처럼 그러면 고방에 들어가는 고방문.) 16 [하원]

고팡신: 곡식을 보관하는 '고방'을 관장하는 신을 말한다. // 아니, 건 고팡신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고팡, 그 조왕 하르방이나 마찬가지로 고팡 할망이엔 허주.(아니, 건 고방신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고방, 그 조왕 할아버지나 마찬가지고 고방 할머니라고 하지.) 12 [한동]

고팡제: '고방'을 관장하는 신에게 지내는 제를 말한다. // 게난 그 고팡제가 옛날은 뭐 신 모셤젠 허멍 우리 이모네도 헤낫주게. 우린 안 헤난.(그러니까 그 고방제가 옛날은 뭐 신 모신다고 하면서 우리 이모네도 했었지. 우린 안 했었어.) 26 // 칠성이 고팡제 아니냐.('칠성'이 '고팡제' 아니니.) 31 [신창, 토평]

고팡지기: '고팡' 즉, 고방을 지키는 신의 의미이다. // 옛날엔 고팡지기라 고팡을 잘 위해야만 헨에 고팡에 간에 제서 땐 물 다 거려 놔낫저.(옛날엔 고방지기라 고방을 잘 위해야만 해서 고방에 가서 제사 땐 물 다 떠서 놨었어.) 12 [한동]

곡곡: 꿩이 우는 소리를 나타낸 말이다. // 불쌍허드라. 곡곡 허멍 그 옆이서 살아. 옆이서만 딴 디 안 가고.(불쌍하더라. '곡곡' 하면서 그 옆에서 살아. 옆에서만 딴 데 안 가고.) 30 [노형]

곡누들다: 힘이나 무게를 가하여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다는 뜻이다. // 곡누들지 못허크녠 허멍 허난 좀좀 아덜은 대답도 안허고. 그거 제왕 곡누들지 못헹 경 밤새낭 ᄑᆞ들랑ᄑᆞ들랑 싸왐젠. 경 허단 오꼿 나 ᄃᆞᆯ아나 불어시녜. 그디 안 살안.('곡누들지' 못하겠냐고 하면서 하니까 잠잠 아들은 대답도 않고. 그거 겨워서 '곡누들지' 못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ᄑᆞ들랑ᄑᆞ들랑' 싸운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만 나 달아나 버렸어. 거기 안 살아서.) 33 [인성]

곡띠집: 곡식의 짚을 따로 부르는 말이다. // 촐이엔 헌 게 곡식에 그 저 짚을 헌 것을 곡초옌 허는 건데 곡띠집이렌 허주.(꼴이라고 하는 게 곡식에 그 저 짚을 한 것을 곡초라고 하는 건데 '곡띠집'이라고 하지.) 03 [송당]

곡메기: 조 이삭이나 콩꼬투리에서 열매를 털어 버리고 남은 줄기나 깍지 따위를 말한다. '각메기, 강메기, 깍메기'라고도 한다. // 이, 다 털어 앗아 나민 이만씩 훌터 나민 곡메기.(이, 다 털고 가지고 나면 이만큼씩 훑고 나면 '곡메기'.) 11 // 보리테작이나 무시거 뭐 조 테작이나 뭐 얼멩이로 그 곡메길 쳐내는 것이고 곡메기.(보리타작이나 무엇 뭐 조 타작이나 뭐 어레미로 그 깍질 쳐내는 것이고 깎지.) 12 [한동, 함덕]

곡식대: ‘곡식+대’ 구성으로, ‘곡식의 대’를 말한다. // 이제 여기서는 이 저 좀호미로 빈 것은 마흔 뭇이 ᄒᆞᆫ 바리고. 저 낫으로나 이 곡식대. 그건 서른 뭇이 ᄒᆞᆫ 바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 저 ‘좀호미’로 벤 것은 마흔 뭇이 한 바리고. 저 낫으로나 이 ‘곡식대’? 그건 서른 뭇이 한 바리고.) 01 [도련]

곡제기: 듬북의 일종으로 주로 밭에 거름으로 사용하며 고제기 듬북이라고도 한다. ‘고제기’ ‘ᄀᆞ족ᄆᆞᆷ’이라고도 불린다. // 곡제기, 곡제기란 헌 듬북이 터박터박헌디 보리왓디 들이민은 그것이 걸름 뒈어.(‘곡제기’, ‘곡제기’라고 한 듬북이 터박터박한데 보리밭에 들이면 그것이 거름 돼.) 21 // 곡제기 ᄀᆞ튼 거 그런 거 보리 헐 때 들영 놔두민 고구마 헐 때는 잘 들어.(‘곡제기’ 같은 거 그런 거 보리 할 때 들여서 놔두면 고구마 할 때는 잘 들어.) 21 [신촌]

곤ᄀᆞ르: 아주 부드럽게 간 가루를 말한다. // 막 정ᄀᆞ레든 맞ᄀᆞ레이든 ᄀᆞᆯ앙. 그걸 쪄근에 ᄀᆞ르 쳐근에 곤ᄀᆞ르 빠 앗아, 두 번차 홁은체로 헌 거는 순다리 걸러놩 헌 것에 중상웨. 세 번차 체 우의 거는 줴기떡.(막 맷돌이든 ‘맞ᄀᆞ레’이든 갈아서. 그걸 찧어서 가루 쳐서 고운 가루 빼 가지고, 두 번째 굵은체로 한 거는 ‘순다리’ 걸러놔서 한 것에 ‘중상웨’. 세 번째 체 위에 거는 ‘줴기떡’.) 14 [성읍]

곤니찌와: 일본어 ‘こんにちは’로 ‘안녕하세요’라는 의미의 낮 인사말이다. // 낮이는 곤니찌와, 저낙에는 곰방와 허는디.(낮에는 ‘곤니찌와’, 저녁에는 ‘곰방와’ 하는데.) 24 [세화]

곤떡: 보통 ‘곤떡’은 흰쌀로 만든 떡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고운 가루로 만든 상화떡를 말한다. // 또 곤떡에는 뭣을 허냐 허민 그 얇은 그 물로 헤근에 곤떡 만들곡 중상웨엔 헌 건 또 홁은ᄀᆞ르 헤근에 거 허곡. 경허는 것가 줴기떡 중상웨 곤상웨.(또 ‘곤떡’에는 뭣을 하느냐 하면 그 얇은 그 물로 해서 ‘곤떡’ 만들고 ‘중상웨’라고 한 건 또 굵은가루 해서 거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줴기떡’ ‘중상웨’ ‘곤상웨’.) 14 [성읍]

곤떡: 보통 ‘곤떡’은 흰쌀로 만든 떡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송편을 ‘곤떡’이라고 말했다. // 곤떡이렌 헷주게. 송편도 이제사 난 말이곡.(‘곤떡’이라고 했지. 송편도 이제야 생겨난 말이고.) 03 [송당]

곤떡: 흰쌀로 만든 떡을 말한다. // 마누라헐 때 가민 아기가 영영헹 제사에 영영 헴덴 허민 곤떡도 먹켄 헌 거 다 주고 콩ᄂᆞ물 도렌 헌 것도 다 주곡.(마마할 때 가면 아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사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흰떡도 먹겠다고 한 거 다 주고 콩나물 달라고 한 것도 다 주고.) 11 // 잘사는 집인 곤떡으로 중게 약궤여 웃적이여 다 만드는디, 못사는 사름은 ᄆᆞ멀로만 헷수다.(잘사는 집엔 흰떡으로 ‘중게’, ‘약궤’와 웃기떡이다 다 만드는데, 못사는 사름은 메밀로만 했습니다.) 19 // 엇인 집인 보리떡. ᄆᆞ멀떡은 거 ᄒᆞ꼼 이신 집이 곤떡이엔 허영 세미떡 허고 인절미 허고. 건 ᄒᆞ꼼 고급스럽게 것도.(없는 집은 보리떡. 메밀떡은 거 조금 있는 집은 흰떡이라고 해서 ‘세미떡’ 하고 인절미 하고. 건 조금 고급스럽게

것도.) 26 // 크게 출리는 집들은 시리에 쳐근에 곤떡은 시리에 비왕 빗떡으로 비곡 식게 하영 안 출리는 집은 그자 새미 좁앙도 먹곡 기추룩 헤여.(크게 차리는 집들은 시루에 쪄서 '곤떡'은 시루에 비워서 '빗떡'으로 베고 제사 많이 안 차리는 집은 그저 '새미' 접어서도 먹고 그처럼 해.) 33 [성읍, 신창, 인성, 청수, 함덕]

곤메: 흰쌀로 지어 신위 앞에 올리는 밥이다. // 조메 두 개, 곤메 두 개, 경 홉디다. 메도 두 개, 조메도 두 개고, 경 행 나 이번 토신제 홀 때.('조메' 두 개, '곤메' 두 개, 그렇게 합디다. 메도 두 개, '조메'도 두 개고, 그렇게 해서 나 이번 '토신제' 할 때.) 08 [동광]

곤ᄆᆞᆯᄀᆞ르: 깨끗한 메밀가루라는 뜻이다. 메밀나깨에 대비하여 깨끗한 가루라는 의미로, '곤ᄆᆞᆯᄀᆞ르'라고 하였다. '곤-+ᄆᆞᆯ+ᄀᆞ르'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 느젱이에도 감저 놩 범벅헤도 좋고 또 그 기냥 그 곤ᄆᆞᆯᄀᆞ르에 그 감저 놩 허면 더 맛잇고 무수 놩 헤도 맛이 싯고 그거는. 곤ᄆᆞᆯᄀᆞ르에.(나깨도 고구마 넣어서 범벅해도 좋고 또 그 그냥 그 '곤ᄆᆞᆯᄀᆞ르'에 그 고구마 넣어서 하면 더 맛있고 무 넣어서 해도 맛이 있고 그거는. '곤ᄆᆞᆯᄀᆞ르'에.) 14 [성읍]

곤밥: 흰쌀로 지은 밥이다. 흰쌀밥을 말한다. // 그게 그 옛날 곤밥이렌 허영 제사에 ᄒᆞ곡. ᄒᆞ는 거. 갈산듸.(그것이 그 옛날에 '곤밥'이라고 해서 제사에 하고. 하는 것. 검은 밭벼.) 03 // 이제는 느나엇이 곤밥이주마는이, 엿날엔게 가당오당게 식게 때에 멩질이나 헹 먹엇주 곤밥이 어디 서.(이제는 너나없이 흰밥이지만, 옛날에는 가다오다 제사 때에 명절이나 해서 먹었지, 흰밥이 어디 있어.) 07 // 곤밥은 멩질 때, 제사 때 또 무슨 뭐 경조사 일에만 곤밥 사용헤.(쌀밥은 명절 때, 제사 때 또 무슨 뭐 경조사 일에만 쌀밥 사용해.) 27 [보목, 송당, 옹포]

곤빌레: 고운 빌레라는 뜻으로 신촌 동네에 있는 빌레 이름이다. // 여기서 말하면 이쁜 빌레라고 허는 거지. 곤빌레, 옛날 할망덜.(여기서 말하면 예쁜 '빌레'라고 하는 거지. '곤빌레', 옛날 할머니들.) 21 [신촌]

곤상웨: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든 상화를 말한다. 제보자는 '곤상웨'를 '곤떡'이라고도 하였다. // 또 곤떡에는 뭣을 허냐 허민 그 얇은 그 물로 헤근에 곤떡 만들곡 중상웨엔 헌 건 또 흙은ᄀᆞ르 헤근에 거 허곡. 경허는 것가 쭤기떡 중상웨 곤상웨.(또 '곤떡'에는 뭣을 하느냐 하면 그 얇은 그 물로 해서 '곤떡' 만들고 '중상웨'라고 한 건 또 굵은가루 해서 거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쭤기떡' '중상웨' '곤상웨'.) 14 [성읍]

곤색: 일본말 '곤(kon)색'으로 '감색(紺色)'을 말한다. 짙은 청색에 적색 빛깔이 풍기는 색이다. // 허곡게. 또 그 옥양목이엔 헤네 국방섹 나고 저 검은 거 나곡. 곤색 나곡 헨에 국방색광목이엔 헹 나 낫수다.(하고. 또 그 옥양목이라고 해서 국방색 나고 저 검은 거 나고. 곤색 나왔고 해서 국방색광목이라고 해서 나왔었습니다.) 04 [고성]

곤시리떡: 흰쌀로 만든 시루떡을 말한다. // 곤시리떡이렌 헌다게. 곤 건 곤시리떡.('곤시리떡'이라고 한다. 흰 건 '곤시리떡'.) 31 [토평]

곤옷: '깨끗이 입는 옷', 즉 노동복 이외의 옷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다. // 광목은 이불안도 허곡게. 아까 나 ᄀᆞᆫ듯이. ᄒᆞ꼼 ᄌᆞᆷ진 게 곤옷으로도 중의적삼덜토 헹 입곡.(광목은 이불안도 하고. 아까 나 말하듯이. 조금 가는 게 '곤옷'으로도 중의적삼들도 해서 입고.) 14 [성읍]

곤인절미: 흰쌀로 만든 인절미를 말한다. // 곤인절미 잇고 춥썰인절미 잇고 속인절미 잇고. 인절미도 막 ᄋᆞ라 가지여.('곤인절미' 있고 찹쌀인절미 있고 쑥인절미 있고. 인절미도 아주 여러 가지야.) 31 [토평]

곤죽: 기름을 넣고 끓인 흰죽을 말한다. // 아니라. 곤죽이엔 헌 건 지름 놩은에 곤죽을 쑤어 먹주.(아니야. '곤죽'이라고 하는 건 기름에 놔서 흰죽을 쑤어 먹지.) 03 // 곤죽도 곤밥 안 헹, 곤죽도 막 아픔이나 ᄒᆞ여사 곤죽이나, 밥 아이 먹어가민 곤죽 쒕 주주.(흰죽도 흰밥 안 해서, 흰죽도 아주 아픔이나 해야 흰죽이나, 밥 아니 먹어가면 흰죽 쒀서 주지.) 08 [동광, 송당]

곤친떡: 흰쌀로 만든 시루떡을 말한다. // 곤썰로 헌 건 곤친떡이엔 허고, 좁썰로 허민 조친떡이고이.(흰쌀로 한 건 백설기라고 하고, 좁쌀로 하면 조시루떡이고.) 12 // 여유 이신 디는 곤친떡 ᄯᅳ로 허는 디도 잇고.(여유 있는 데는 '곤친떡' 따로 하는 데도 있고.) 12 [한동]

곤침떡: 흰쌀로 만든 시루떡을 말한다. // 기떡은 그거 설기떡은 곤침떡ᄀᆞ라 설기떡이옌, 곤침떡에 설기떡은양, 곤떡인디예, 곤침떡인디양, 아무것도 놓지 아니 헹 ᄒᆞᆫ 거, 그것ᄀᆞ라 설기떡이렌 ᄒᆞᆫ 거 닮은 디.(백설기는 그거 백설기는 흰시루떡더러 백설기라고, 흰시루떡에 백설기는요, 흰떡인데요, 흰시루떡인데요, 아무 것도 넣지 아니 해서 한 거, 그것더러 백설기라고 한 거 닮은 데.) 08 [동광]

골: 동네에 장사가 났을 때 남정들이 의무적으로 장지에 나가서 뫼 쓰는 역사를 번갈아 가며 돕는, 동네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집단을 말한다. // 제에서 허는 것도 잇고 골에서 허는 거. 우리 저 동부락은 동골에서만.('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골'에서 하는 거. 우리 저 동부락은 '동골'에서만.) 32 // 동별로 거, 상두가 다 달라져. 그것ᄀᆞ라 ᄒᆞᆫ 골, 두 골이엥 허여. 골.(동별로 거, 상두가 다 달라져. 그것을 한 골, 두 골이라고 하여. 골.) 36 [덕수, 봉성]

골: 엿기름의 제주어이다. // 이젠 놔서 이제 골허고 섞어가지고 이제 딸려.(이젠 놔서 이제 엿기름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달여.) 09 // 물에 컷당 흠벡이 ᄌᆞ늘거들랑 싹 건져근에 놔두면 골이 보리이, 보리가 거 과제기 나 가이.(물에 담갔다가 흠뻑 촉촉해지면 싹 건져서 놔두면 엿기름이 보리, 보리가 그거 과짝 나와 가.) 25 [고산, 태흥]

골감주: 엿기름을 우린 물에 조밥을 섞어 삭힌 다음 살짝 끓여서 먹는 감주이다. 주로 제사

나 명절에 제주로 사용했다. // 골감주라고 골 놩 그저 뿔 낭은에 뿔 나민 골이라고이 ᄃᆞᆫ다.('골감주'라고 엿기름 놔서 그저 뿌리 나서 뿌리 나면 엿기름이라고 달다.) 10 // 보릿골 놔근엥에 흐린좁쏠 놩 밥 헤여근에 삭삭 서껑 놔두민 스르륵 헤여이. 스르륵 허민 그거 영 걸러근에, 발랑발랑 솖으민 설탕 안 놔도 ᄃᆞᆯ헤여, 그것이 골감주, 골감주 헤여.(보리 엿기름 놓아서 차좁쌀 놔서 밥해서 싹싹 섞어서 놔두면 스르르 해. 스르르 하면 그거 이렇게 걸러서, 바글바글 삶으면 설탕 안 놔도 달콤해, 그것이 '골감주', '골감주' 해.) 25 // 게난 우리 집이 이 저, 여저, 저, 처는 이 부근에서 골감주허고 술, 최고 소문난. 술 잘 만들아.(그러니까 우리 집이 이 저, 여자, 저, 처는 이 부근에서 골감주하고 술, 최고 소문났어. 술 잘 만들어.) 36 [봉성, 월령, 태흥]

골감쥐: '골+감쥐' 구성으로, '골'은 엿기름, '감쥐'는 '감주'를 말한다. 즉, 엿기름을 우린 물에 조밥을 섞어 삭힌 다음 살짝 끓여서 먹는 감주다. 주로 제사나 명절에 제주로 사용했다. // 난 거 어머니 돌아가벼도 그 엿은 잘 만들어져나고 나, 그거 엿은. 그 저 골감쥐는 골감쥐.(난 거 어머니 돌아가버려도 그 엿은 잘 만들어졌었고 내가, 그거 엿은. 그 저 감주는 감주.) 24 // 감주, 골감쥐 헤 가지고. 골감쥐.(감주, '골감쥐' 해 가지고. '골감쥐'.) 29 [세화, 외도]

골감지: 엿기름을 우린 물에 조밥을 섞어 삭힌 다음 살짝 끓여서 먹는 음료로 제사나 명절에 제주로 사용했다. // 거 골감지난 마찬가지주. 골감지.(그거 '골감지'니까 마찬가지지. '골감지'.) 03 [송당]

골꾼: 한 마을에서 몇 집씩 묶여서 마을의 큰일을 치룰 때 노력 봉사하는 일꾼을 말한다. // 동네에서 골꾼덜이 강 헷주. 동네 사름게, 그 골에.(동네에서 '골꾼'들이 가서 했지. 동네 사람. 그 골에.) 26 [신창]

골머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오름인 '골머리오름'을 말한다. // 우리 ᄒᆞᆫ번은이 고사리 꺾끄레 서이 갓어. 서이 간디 바로 그 골머리에 오름 잇어이. 그 오름 엠에 군인덜이 주둔헹 살아.(우리 한번은 고사리 꺾으러 셋이 갔어. 셋이 갔는데 바로 그 '골머리'에 오름 있어. 그 오름 옆에 군인들이 주둔해서 살아.) 30 // 골머리 가당 보민 절도 ᄒᆞ나 잇어. 천왕사 말고 웃절 ᄒᆞ나 있어, 또.('골머리' 가다가 보면 절도 하나 있어. 천왕사 말고 '웃절' 하나 있어, 또.) 30 [노형]

골메: 바느질할 때 손가락에 끼는 '골무'의 제주어이다. // 골메 그거, 그거 우린 골메 쪈 해본 디 엇수다만은 바농질아치덜은 그 옛날은 골메를 쪘수다게.(골무 그거, 그거 우린 골무 끼어서 해본 적 없습니다만 바느질아치들은 그 옛날은 골무를 끼었습니다.) 08 [동광]

골목잔치: 제주시 도련1동에서 '한 골목에 사는 사람끼리 음식 따위를 나눠 먹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 집 일젠 허민 골목잔치주. 수눌어가면서 허는 데도 많고.(집 이려고 하면 '골목잔치'지. 품앗이해가면서 하는 데도 많고.) 01 [도련]

골미: 표준어의 '골무떡'에 대응한다. 이를 제보자는 '골미떡', '권미떡'이라고도 했다. // 솔벤, 절벤, 인절미, 세미떡 또 저, 아니 저 무시거 지름떡 말앙 무시거엔 ᄀᆞᆯ으니? 골미.(솔편, 절편, 인절미, '세미떡' 또 저, 아니 저 뭐 기름떡 말고 뭐라고 말하니? 골무떡.) 30 [노형]

골미녕: 흰 목화실과 노란 목화실을 사이사이 섞어서 짠 무명천을 말한다. // ᄒᆞ나는 골미녕이엔 헤영은에 노란 면화가 잇어서.(하나는 '골미녕'이라고 해서 노란 면화가 있었어.) 24 [세화]

골방바지: 바지의 한 종류로 고무줄을 넣어서 주름이 잡힌 바지이다. // 바지민 골방바지는 그거 저 무시거게. 두루막에 입는 아래 바지, 게난 이 고무 노믄 골방바지렌 허여. 고무가 이 주름이난 거 골방바지엔 헤나고.(바지면 '골방바지'는 그거 저 무엇이다. 두루마기에 입는 아래 바지, 그러니까 이 고무 넣으면 '골방바지'라고 해. 고무가 이 주름이니까 그거 '골방바지'라고 했었고.) 28 [구엄]

골벳: 논밭을 가는 쟁기의 끼우는 도구로 골을 내는 데 쓰이는 볏이다. // 거 양쪽으로 갈라지는 보섭ᄀᆞ라 골벳, 그냥 벳은 그냥 벳.(거 양쪽으로 갈라지는 보습더러 '골벳', 그냥 볏은 그냥 볏.) 35 // 골벳은 골로 가는 거니까 양쪽으로 갈라집주게.('골벳'은 골로 가는 거니까 양쪽으로 갈라지지요.) 35 [대림]

골보리: 보리 파종법 중 밭에 고랑을 내어 줄이 지게 씨를 뿌리는 줄뿌림의 제주어이다. // 게난 골보리가 잇곡, 그냥 산파로 ᄒᆞ는 고랑 ᄒᆞ는 보리가 잇는디, 옛날에도 골보리는 갈 때 보면은 고랑을 넙죽ᄒᆞ게시리 고랑을 넙게 ᄒᆞ여근에 그렌 만이 뿌려.(그러니까 '골보리'가 있고, 그냥 산파로 하는 고랑 하는 보리가 있는데, 옛날에도 '골보리'는 갈 때 보면은 고랑을 넓죽하게끔 고랑을 넓게 해서 그리론 많이 뿌려.) 08 // 줄로 영 올라간 게 겉보리고, 또 골보리렌 ᄒᆞᆫ 거는 두 줄만 올라간 거.(줄로 이렇게 올라간 게 겉보리고, 또 골보리라고 한 거는 두 줄만 올라간 거.) 09 // 전읜 저 보리를. 골보리로. 갈라고 장려도 헤낫지.(전에는 저 보리를. '골보리'로. 갈라고 장려도 했었지.) 29 // 골보리라고 허여 가지고, 저 그 씨 뿌려 가지고 고랑에 씨 뿌령 쭉 갈아 놧다가 이월달쯤 뒈면은 그걸 골 갈라 가지고 그걸 그레 흑 더꺼버리고예. 이러면 보리가 더 잘 뒈어나십주.('골보리'라고 하여 가지고, 저 그 씨 뿌려 가지고 고랑에 씨 뿌려서 쭉 갈아 놨다가 이월쯤 되면은 그걸 골 갈라 가지고 그걸 그곳으로 흙 덮어버리고요. 이러면 보리가 잘 되었습지요.) 35 [고산, 동광, 대림, 외도]

골세왓: 한경면 용당리의 지명이다. // 용당도 골세왓이엔 헌 디 할망당 잇고. 겐디 이젠 안 허여.(용당도 '골세왓'이라고 하는 데 '할망당' 있고. 그런데 이젠 안 해.) 26 [신창]

골왓: 표선면 표선리의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이제 그 감저를 헤근에 버덕디레 다 이제는 다 측량하멍 그 우리 골왓 그디도 버덕이가 엔간하게 다 널러난디 다 다볏업디다.(이제 그 고구마를 해서 '버덕'에 이제는 다 측량하면서 그 우리 '골왓' 거기

도 '버덕'이 엔간하게 다 널렀었는데 다 쌓아버렸습디다.) 05 [표선]

골 타는 벳: 고랑을 갈 때 사용하는 볏을 말한다. // 벳만 뚠 벳 부쩡, 골 타는 벳, 골 타는 벳 그 양쪽데레 잦혀지는 게 있어.(볏만 다른 볏 붙여서, '골 타는 볏', '골 타는 볏' 그 양쪽으로 젖혀지는 게 있어.) 01 [도련]

골탕: 아스팔트(asphalt)를 말한다. // 흙은 자갈 그 다음 준자갈 겐 그거 놔근에 그거 다저놔근에 이젠 돌ᄀᆞ루 ᄀᆞ루 놔근에 골탕 뿌리면은 이제 그거가 도로가 뒈는 거라.(굵은 자갈 그 다음 잔자갈 그거 놔서 그거 다져놔서 이젠 돌가루 가루 놔서 '골탕' 뿌리면 이제 그거가 도로가 되는 거야.) 22 [우도]

곰돌: 소에게 밭갈이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쟁기 대신에 묶어서 사용하는 돌덩이이다. // 밧을 가는데 어떻게 헤서 ᄀᆞ르치냐 허면은 쉐 멍에에다가 저 곰돌이라고 허는 돌을 끗어 가지고 질레 빙빙 돌아 뎅이멍 이껑 뎅이멍 쉐 훈련을 시깁니다.(밭을 가는데 어떻게 해서 가르치느냐 하면은 소 멍에에다가 저 '곰돌'이라고 하는 돌을 끌어 가지고 길에 빙빙 돌아다니면서 이끌어 다니면서 소 훈련을 시킵니다.) 35 // 곰돌 헤 가지고 동네도 돌곡 메칠 연습헤야 그거 익숙 뒈는 소가 싯고 헙니다.('곰돌' 해 가지고 동네도 돌고 며칠 연습해야 그거 익숙하게 되는 소가 있고 합니다.) 35 [대림]

곰방와: 일본어 'こんばんは'로 '안녕하세요'라는 의미의 밤 인사말이다. // 둘리 이신 듸는 미나상 곰방와엔 ᄒᆞᆫ 건 둘리 이신 여, ᄒᆞ나는 기자 곰방와. 저낙 인서는 곰방와.(둘이 있는 데는 '미나상 곰방와'라고 한 건 둘이 있는 여, 하나는 그저 '곰방와'. 저녁 인사는 '곰방와'.) 24 [세화]

곰베: 흙을 잘게 부수는 데 쓰는, 나무로 만든 연장이다. // 조 ᄇᆞᆯ려나민 궂인 밧듼 콩은 갈민, 콩씨 삐어놔근에 그냥 갈민 콩씨 헤영 곰베로 헹 벙어리로 독독 두드리고 검질도 ᄒᆞᆫ 번만 메고 콩은 쉬운 거.(조 재배하고 나면 궂은 밭은 콩 갈면, 콩씨 뿌려놔서 그냥 갈면 콩씨 해서 곰방메로 해서 덩어리를 '독독' 두드리고 김도 한 번만 매고 콩은 쉬운 거.) 13 [삼달]

곰베솔: 제주시 노형동의 지경 이름이다. // 곰베솔. 경헨 이제 경 헨 바깟디 나와근이 이제 ᄯᅳ시 풀어 놩은에 나대로 남을 깨여.('곰베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밖에 나와서 이제 또 풀어 놔서 '나데'로 나무를 깨.) 30 [노형]

곱: 줄 따위를 접은 겹을 말한다. // 미녕옷광 베옷은 손으로 삭삭 곱이 나고.(무명옷과 베옷은 손으로 삭삭 겹이 나고.) 06 [남원]

곱다: 숨다의 의미를 지닌 제주어이다. // 곱아서, 숨어서 어떻게 죽이냐면, 뭐 빵빵 하면 그냥 자빠지는 거야.(숨어서, 숨어서 어떻게 죽이냐면, 뭐 빵빵 하면 그냥 자빠지는 거야.) 09 [고산]

곱닥: 고운 모습을 나타내는 '곱닥허다'의 어근이다. // 세앙빈 완전히 노랑 완전 곱닥.('세앙비'는 완전히 노랑 완전 '곱닥'.) 14 [성읍]

곱닥ᄒᆞ다: 아주 매끈하고 곱다는 뜻이며, '곱들락ᄒᆞ다'라고 하기도 한다. // 경 고면은 영 어르신들 앚앙 영 보병 싹 허게 허민, 꼭 고양 놀 꼬아지는 거. 곱닥ᄒᆞ게.(그렇게 고우면 이렇게 어르신들 앉아서 이렇게 부비서 싹 하게 하면, 꼭 고이 노를 꼬을 수 있는 거. '곱닥하게'.) 15 [수망]

곱새끼: 소가 해마다 하나씩 새끼를 낳는 것을 말한다. // 암소도 역시 그 곱새끼 난다고 헤 가지고 일 년에 하나썩 나는 쉐가 잇고, 또 건 ᄯᅳ로 이 년에 하나 나는 것도 잇수다.(암소도 역시 그 '곱새끼' 난다고 해 가지고 일 년에 하나씩 낳는 소가 있고, 또 건 또 이 년에 하나 낳는 것도 있습니다.) 35 [대림]

곱새ᄆᆞᆯ: 등이 굽은 말을 말한다. // 등떼이 오그라진 것이 셔서 저 무신 거 모냥으로. 엣날 기탄가 무신 거추룩. 경허난 그건 곱새ᄆᆞᆯ이렌 허고.(등 오그라진 것이 있어서 저 무슨 거 모양으로. 옛날 기타인가 무슨 거처럼. 그러니까 그건 '곱새ᄆᆞᆯ'이라고 하고.) 26 [신창]

곱세ᄆᆞᆯ: 등뼈가 굽어 큰 혹같이 불거진 등을 가진 말이다. // 또 곱세도 잇어, 곱세ᄆᆞᆯ. 똑 튀어난 거. 등뗑이 튀어난 거(또 '곱세'도 있어. '곱세ᄆᆞᆯ'. 똑 튀어난 거. 등때기 튀어난 거.) 29 [외도]

곱은자귀: 자귀의 일종이다. // 요 중간에 곱은자귀라고 헤서 요렇게 헌 것이 또 큰 것이 나오고. 손자귀는 작은 거고 요만인 헤서.(요 중간에 '곱은자귀'라고 해서 요렇게 한 것이 또 큰 것이 나오고. 손자귀는 작은 거고 요만큼 해서.) 01 [도련]

곱은쟁기: 표선면 표선리의 한 지역 이름이다. // 나룩질 저끗듸 오면은 그 곱은쟁기 그디도 굴이 잇어낫어. 우리 웨정 때에 비행기 절로 메오름으로 이렇게 와가믄 그 굴에.('나룩질' 곁에 오면 그 '곱은쟁기' 거기도 굴이 있었었어. 우리 왜정 때에 비행기 저리로 '메오름'으로 이렇게 와가면 그 굴에.) 05 [표선]

곱자귀: 자귀의 한 종류이다. // 경허난 요즘 목수덜은 그걸 안 허는데, 옛날엔 자귀. 곱자귀라고 자귀.(그러니까 요즘 목수들은 그걸 안 하는데, 옛날엔 자귀. '곱자귀'라고 자귀.) 06 [남원]

곱잡다: 옷감을 두 겹으로 잡는 것을 말한다. // 뒷바농질 허는 건 그건 웨로 그냥 주멍 허질 안허곡 곱잡젠 헹 뒷바농질 허는 거주게.(뒷바농질 하는 건 그건 외로 그냥 주우면서 하질 않고 '곱잡젠' 해서 '뒷바농질' 하는 거지.) 33 [인성]

곱젓: 기름기가 많은 젓으로 아기가 잘 크는 젓이다. // 여물이 하근에 것ᄀᆞ라 무신 곱젓이엔 헨가. 막 애기덜 막 크는 젓이엔 곱젓.(여물이 많아서 것보고 무슨 '곱젓'이라고 하던가. 막 아기들 막 크는 젖이라고 '곱젓'.) 23 [온평]

곶다: 물기가 있는 물체가 찬 기운에 굳어지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땅이 얼어 굳은 것을 말한다. // 막 경 ᄒᆞ난 땅이 부꺼부는 따문에 들러져불어 들러져부는 따문 땅이 ᄆᆞᆫ 곳아근에 벌러져부는 따문에 땅을 ᄇᆞᆯ르는디.(막 그렇게 하니까 땅이 부풀어버리는 때문에 들러져버려 들러져버리는 때문 땅이 모두 '곳아근에' 벌어져버리는 때

문에 땅을 밟는데.) 08 // 흑 땅에서 보릴 두드리젠 허민 땅 곳아불민 안 된뎅 듬뿍 검질을 꼴아. 꼴앙 눈이 와도 땅이 곳질 안헤여, 그걸로이 뜻앙.(흙 땅에서 보릴 두드리려고 하면 땅 '곳아' 버리면 안 된다고 듬뿍 검불을 깔아. 깔아서 눈이 와도 땅이 '곳질' 않아, 그걸로 따뜻해서.) 25 // 든든허영 땅 든든허영인에 보리 여물렌 허는 거주게. 막 겨울에 눈 오랑 곳아 부난에 보리 여물지 안 헌덴 헤 불르곡. 그때 일본 시대에 불르렌 헷어.(단단해서 땅 단단해서 보리 여물라고 하는 거지. 막 겨울에 눈 와서 '곳아' 버리니까 보리 여물지 않는다고 해서 밟고. 그때 일본 시대에 밟으라고 했어.) 33 [동광, 인성, 태흥]

곳다: 손발 따위가 동상에 걸리다는 뜻이다. // 어디 강 곳앙 죽어불민 찾아보지 말렌.(어디 가서 '곳앙' 죽어버리면 찾아보지 말라고.) 13 [삼달]

공고리: 콘크리트를 일본어식으로 'コンクリ'로 발음한 말이다. // 공고리 절루듯 절라부린 거.(콘크리트 겯듯 결어버리는 거.) 14 [성읍]

공문동산: 표선면 성읍1리의 지명 이름이다. // 공문동산 아래. 그 폭낭 아래.('공문동산' 아래. 그 팽나무 아래.) 14 [성읍]

공섯간: 본채에서 분리하여 따로 마련된 부엌을 이르는 말로 '공싯간'이라고도 한다. // 큰 창고에 대정 지경에 사름은 큰 창고에 보리쌀 박듯이 앚안 직헌디 우리 애기 아방은 아프난에 우리 애기 아방 부축허영은에 오줌 싸게도 뎅기게꾸리 허여 도렌 동네 사름 빌언이 이젠 뚠 방에 밥허는 공섯간에 자리 출련 눅젠.(큰 창고에 대정 지경에 사람은 큰 창고에 보리쌀 박듯이 앉아서 지키는데 우리 아기 아버지는 아프니까 우리 아기 아버지 부축해서 오줌 싸게도 다니게끔 해 달라고 동네 사람 빌려서 이젠 다른 방에 밥하는 부엌에 자리 차려서 눕혔어.) 33 [인성]

공싯간: 본채에서 분리하여 따로 마련된 부엌을 말한다. // 이추룩 구들도 두 개 허는 디 싯곡 이 공싯간 ᄐᆞ로 헤불민 이디 구들도 싯곡 이디 앙팡은 서불민 경 안헌디 이디 구들이 네 개 뒈고.(이렇게 방도 두 개 하는 데 있고 이 부엌채 따로 해버리면 여기 방도 있고 여기 고방이 있어버리면 그렇게 안하는데 여기 방이 네 개 되고.) 13 // 공싯간이엔 헌 건 옛날엔 정지 영 안팟거리 헌 거 공싯간.('공싯간'이라고 한 건 옛날엔 부엌 이렇게 안팎채 한 거 '공싯간'.) 13 [삼달]

공장: 나뭇가지나 대 등으로 가늘고 끝이 뾰족하게 만들어서 벽에 박아 옷이나 물건을 거는 용도로 쓰인다. // 경헹 이제 한줄 사령 놀 땐 영 이제 두 곱 잡아근에 펭허게 멍에허고 좁작게허곡 허영 무껑, 무꺼근에 공장에 잘 걸엇당 밧을 갈아야 뒈여.(그렇게 해서 이제 봇줄 사려 놓을 땐 이렇게 이제 두 겹 잡아서 팽하게 멍에하고 목대하고 해서 묶어서, 묶어서 '공장'에 잘 걸었다가 밭을 갈아야 돼.) 02 // 두 개에 줄라 메영. 겅헹 저 공장에 돌아메영.(두 개에 잘라매서. 그렇게 해서 저 '공장'에 달아매어서.) 03 // 마리, 상방에 북덕방에 큰 화리헤 놔근에 허민 이디 영 공장 걸엉 큰 구덕 이만이 헌 고리헤 놔근에.(마루, 마루에 '북덕방'에 큰 화로 해서 놔서 하면 여기 이렇게 '공장'에 걸어서 큰 구덕 이만큼 한 '고리'해 놓

아서.) 13 // 경허영 멘들앙 톡 공장에 걸엇당 바농질 헐 때는 내려놩 윤디 허고.(그래서 만들어서 톡 '공장'에 걸었다가 바느질할 때 내려놔서 인두하고.) 26 [삼달, 선흘, 송당, 신창]

공정: 장사를 지낼 때 그 일에 특별히 수고한 사람에게 그 대가로 보내는 떡이나 음식을 말한다. // 그 떡을 불르는 이름은 엇수과, 무슨 떡이렌 불럿수과?(그 떡을 부르는 이름은 없습니까, 무슨 떡이라고 불렀습니까?) 공정.('공정'.) 06 // 어, ᄒᆞ곤 헷는데 결국은 그 장사 때 수고헌 먼 도감이라던지 이런 그 정시라던지 헌 사름덜은 이 공정이라고 헤서.(어, 하곤 했는데 결국은 그 장사 때 수고한 먼 도감이라든지 이런 그 지관이라든지 한 사람들은 이 '공정'이라고 해서.) 07 // 도감신디도 공정, 따시 죽엇젠 연락해 주는 사름신디도 공정.(도감에게도 '공정', 다시 죽었다고 연락해주는 사람에게도 '공정'.) 17 // 또 옛날은 그 소상 허젠 허믄 공정이엔 헌 게 잇어. 그 공정 이제 고기 썬 사름, 이런 상제 옷 만든 사름 그 공정 주젠 허믄 반제펜은 들어가야 뒈.(또 옛날은 그 소상 하려고 하면 '공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 '공정' 이제 고기 썬 사람, 이런 상제 옷 만든 사람 그 '공정' 주려고 하면 '반제펜'는 들어가야 돼.) 26 [남원, 대평, 보목, 성읍, 신창, 한동]

공젱이: 거름용 해조류를 채취할 때 사용하는 갈퀴 모양의 도구이다. // 듬북 단체로 헤가지고 한 열흘간씩 헤서 터우로 헤가지고 바다에 가서 막 듬북을 그 무슨 기계 만들어가지고 듬북을 끈으민 그놈을 공젱이로 올려서 시꺼다가 퍼가지고 말려서 퉤비할라고. (듬북 단체로 해가지고 한 열흘간씩 해서 떼로 해가지고 바다에 가서 막 듬북을 그 무슨 기계 만들어가지고 듬북을 끊으면 그놈을 갈고리로 올려서 실어다가 퍼가지고 말려서 퇴비하려고.) 21 [신촌]

공젱이: 긴 나무자루 끝에 갈고랑쇠를 박은 갈고랑이로 높은 나뭇가지에 있는 것을 떨어뜨릴 때 사용하는 기구이다. // 솔섭 앗아올 때민이 요추룩헌 공젱이라고이 대막, 진진헌 대막뎅이ᄀᆞ추룩 공젱이가.(솔가리 가져올 때면 요처럼한 '공젱이'라고 대막, 긴긴 대막대기처럼 '공젱이'가.) 11 // 그런 가지 그냥 요추룩 헌 공젱이 멘들앙 강, 진 거, 저 문입젱이만인 가져가민 영 걸령 꼴렝이로 강 영 허민 뚝뚝 꺼꺼져.(그런 가지 그냥 요렇게 한 '공젱이' 만들어 가서, 긴 거, 저 문설주만큼 가져가면 이렇게 걸려서 꼬리로 가서 이렇게 하면 뚝뚝 꺾어져.) 11 [함덕]

공젱이: 끝을 구부려서 무언가를 걸게 만든 물건 또는 부분을 일컫는 말이다. 표준어 '걸이'에 대응하는 말이다. // 이거 쫙 줴여놔. 이 저 통대 헤영 그디 꼽은 거니까. 공젱이.(이거 쫙 죄어놔. 이 저 통대 해서 거기 꽂은 거니까. '공젱이'.) 01 // 착부찌는 거, 그건 그, 그건 그 공젱이 걸어근에 헌덴 허는 거주.('착부찌'는 거, 그건 그, 그건 그 '공젱이' 걸어서 한다고 하는 거지.) 12 // 이젠 시 거림으로 갈랑 그레 이젠 놩 우로 이젠 ᄀᆞᆯ라메영 영 헤영 공젱이에 ᄃᆞᆯ아, 저 헛간, 창고 그런 디 ᄃᆞᆯ아메여.(이젠 세 갈래로 갈라서 그리 이젠 놔서 위로 이젠 잘라매어서

이렇게 해서 '공젱이'에 달아, 저 헛간, 창고 그런 데 달아매.) 20 [고내, 도련, 한동]

공중이: '귀뚜라미'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메뚜기'의 의미로도 쓰인다. // 게난 공중이가 다리 빠진덴 말이주.(그러니까 '공중이'가 다리 빠진다는 말이지.) 14 [성읍]

공처허다: 오염이 되지 않고 깨끗하다는 뜻이다. // 깨끗허게게, 공처허게. 공처헌 말 몰라? 무시거라도 영 공처허게 놔둬.(깨끗하게, '공처'하게. '공처'한 말 몰라? 무엇이라도 이렇게 '공처'하게 놔둬.) 02 [선흘]

공천포: 남원읍 신례2리를 말한다. // 아버지는 본 고향이 공천폰디.(아버지는 본 고향이 '공천포'인데.) 07 // 경헤연 우리 그디 ᄑᆞᆯ레 뎅겨나신디 글후제는 그자 생효도 잇저, 어디도 잇저, 공천포도 잇저. 감저 공장이 드러 하영 생겻저게.(그래서 우리 거기 팔러 다녔었는데 그 후에는 그저 상효도 있어, 어디도 있어, '공천포'도 있어. 고구마 공장이 들이 많이 생겼어.) 31 [보목, 토평]

공초왓: 애월읍 봉성리 지경에 있는 화전 마을이다. // 제일 처음 ᄒᆞᆫ 약 백여 명 정도벳기 아이 뒈어낫는데 그만 해방이 뒈고 사삼사건이 끗날 때 그 우이 웃드리 상대라든지 저 공초왓 이런 디 사름덜이 소게를 와서마씸.(제일 처음 한 약 백여 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만 해방이 되고 사삼사건이 끝날 때 그 위에 웃드리 상대리라든지 저 '공초왓' 이런 데 사람들이 소개를 왔어요.) 35 [대림]

곶: 산 밑의 숲이 우거진 곳을 말한다. '고지'라고도 한다. // 이 곶이렌 허는 거 잡풀나는 가시덤불광. 그거 나는 거.(이 '곶'이라는 게 잡풀 나고 가시덤불 같은. 그거 나는 거지.) 03 // 이 곶이로는 지게저근엥 계속 ᄒᆞᆫ 메칠씩 다니주게. 경ᄒᆞ곡, 우린 하도 어려우나난에 우린 구루마가 이서서이.(이 '곶'이로는 지게져서 계속 한 며칠씩 다니지. 그렇게 하고, 우린 하도 어려우니까 우린 수레가 있었어.) 07 // 그때는 거 삭다리옌도 허주만은, 요 ᄒᆞ꼼 우터레 가민 곶이라고이 그디 강 헤당덜 짇어낫저.(그때는 그거 삭정이라고도 하지만, 요 조금 위로 가면 곶이라고 거기 가서 해다가들 때었지.) 10 // 저 산에서게 물 크게 끗어부난 저듸 저 곶디 그 밧 ᄆᆞᆫ딱 끗어부난에 그 복구 작업을 허젠 허난 매날 그디 ᄒᆞᆫ ᄃᆞᆯ 동안을 뎅기난.(저 산에서 물 크게 끌어 버려서 저기 저 '곶디' 그 밭 모두 떠내려가 버리니까 그 복구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매일 거기 한 달 동안을 다니니까.) 32 [덕수, 보목, 송당, 월령]

곶밧: 자연생 나무가 우거진 밭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가꾸지 않아서 잡초가 우거진 밭을 말한다. // 숫, 숫은 그 과정이, 저 지금 이 곶밧듸 낭 신 거 ᄶᆞᆯ라.(숯, 숯은 그 과정이, 저 지금 이 '곶밧'에 나무 심어서 잘라.) 08 // 숫은예, 감산이선 곶밧듸 강, 영 막 데명 그레 불 부쩡, 숫 해난 거 해도, 난 숫 해나지 안 ᄒᆞ난 몰라.(숯은요, '감산리'에서는 '곶밧'에 가서, 이렇게 막 쌓아서 그리로 불 붙여서, 숯 해난 거 해도, 난 숯 해나지 안 하니까 몰라.) 17 // 이제는 곶밧 뒈불엇수다. 큰아덜이 서월 살멍 오란에게.(이제는 '곶밭' 돼버렸습니다. 큰아들이 서울 살면서

와서는.) 32 [대평, 덕수, 동광]

곶불: 숲에서 난 불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숯을 구울 때 붙이는 불을 말한다. '곶(숲)'과 '불'의 합쳐진 말인 것 같다. // ᄃᆞᆫ딱 와랑와랑 부떵 ᄃᆞᆫ 헤근에 곶불이 삭아지민 영 어귀 내놩 경헹 허민 그 곳불 삭아지민 그 주둥이 꽉 막으민 안네서 술아졍 꺼져.(모두 '와라와랑' 붙어서 모두 해서 '곶불'이 삭아지면 이렇게 어귀 내어 놔서 그렇게 해서 하면 그 '곳불' 삭으면 그 주둥이 꽉 막으면 안에서 삶아져서 꺼져.) 13 [삼달]

곶산: '곶+산' 구성으로, '곶'은 '숲'의 제주어이다. '곶산'은 '숲으로 이루어진 산'의 의미로, 제보자는 숲의 의미로 '곶산'을 썼다. // 나무로 많은 곶산. 게난 이거 나무 전부 베여 데껴둰 그때에 지금 저 폭나무영 느티나무영 잇는 게 그때는 제일 작은 걸로 넹긴다는 게 젤 작으니까 내부린 게.(나무로 많은 '곶산'. 그러니까 이거 나무 전부 베어 던져두고 그때에 지금 저 팽나무랑 느티나무랑 있는 게 그때는 제일 작은 걸로 남긴다는 게 젤 작으니까 내버린 게.) 14 [성읍]

곶쉐: 깊은 산속에서 방목하는 소를 말한다. // 아이고, 막 저 곶쉐 뒈언에.(아이고, 아주 저 '곶쉐' 되어서.) 28 [구엄]

곶자왈: '곶+자왈'의 구성으로, '곶'은 표준어 '숲'에, '자왈'은 표준어 '덤불'에 대응한다. 제주 산간 지역 나무, 덩굴 식물 등이 뒤섞여 숲을 이룬 곳을 말한다. // 월령이 곶자왈이난 조끔만 올라가믄 나무덜 쌓영 이서낫저.(월령이 곶자왈이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나무들 쌓여 있었었어.) 10 // 팔월엔 촐 빔이 일이라, 촐 빔이. 옛날은, 이젠 다 곶 뒌디 옛날은 그게 다 촐밧이랏주기게. 이젠 곶자왈 뒈 불언.(팔월에는 꼴 베기가 일이야, 꼴 베기가. 옛날은, 이젠 다 곶 됐는데 옛날은 그게 다 꼴밭이었지. 이젠 곶자왈 돼 버렸어.) 26 // 도내산을 보니 엄청난 곶자왈이거든. 게서 그 꼭 그 관상쟁이 말 듣고 저 상가에 전 재산을 동생에게 물려줘 두고, 자기가 이 처가, 처가가 여기니까.(도내산을 보니 엄청난 곶자왈이거든. 그래서 그 꼭 그 관상쟁이 말 듣고 저 상가에 전 재산을 동생에게 물려줘 두고, 자기가 이 처가, 처가가 여기니까.) 36 [구억, 봉성, 신창, 신촌, 월령]

과글과글과글: 속이 좋지 않아 배속에서 나는 소리를 나타낸 표현이다. // 게난 그것에 그 벵이 뒈니까 나무 대고 섭이고 뿔리고 다 썰어 놔서 그 청 비완 딸련 먹으니까 그자 배 소곱이 기자 우글우글우글, 과글과글과글 허멍 기자 삭 설사가 훌터분디 원 그것이 약이라.(그러니까 그것에 그 병에 걸리니까 나무 줄기고 잎이고 뿌리고 다 썰어 넣고 그 청 비워서 달여 먹으니까 그저 배 속이 우글우글우글, '과글과글과글' 하면서 그저 삭 설사가 훑어버렸는데 원 그것이 약이야.) 06 [남원]

과납: 애월읍 납읍리의 옛 이름이다. // 지금은 납읍엔 허느냐 옛날, 옛날은 과납이엔 헤낫주.(지금은 납읍이라고 하느냐 옛날, 옛날은 '과납'이라고 했었지.) 29 [외도]

과리: 벌금을 의미하는 과료를 이렇게 발음했다. // 산감수안티 걸려근에 경 허민 과리 네 곡 머 ᄉᆞ뭇.('삼감수'한테 걸려서 그렇게 하면 '과리' 내고 뭐 사뭇.) 16 [하원]

과봉: 애월읍 납읍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 애월읍 경에서는 애월 우이는 과봉 건 납읍에 있고.(애월읍 경에서는 애월 위에는 '과봉' 건 납읍에 있고.) 20 [고내]

과사상: 누에들이 뽕잎을 갉아먹는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 낭썹 잘 주민, 하영 왕창 주어도 먹고, 비 오는 거 닮아 먹는 소리가 과사상헤여.(나뭇잎 잘 주면, 많이 왕창 주어도 먹고, 비 오는 것 같아 먹는 소리가 '과사상'해.) 15 [수망]

과상허(ᄒᆞ)다: 습기가 없이 푸석푸석하거나 물건이 바짝 마른 상태를 나타낸 말이다. // 게민 그거는 과상ᄒᆞ난 지름이 잘 안 날 건디, 보미엔 헌 거 지름이 하, 보미는.(그러면 그거는 '과상ᄒᆞ난' 기름이 잘 안 날 건데, 쌀겨라고한 건 기름이 많아, 쌀겨는.) 15 // 그게 과상헤 가지고 막 그 차근차근 뒈지 않어 가지고 말이여 막 이제 부푼 상태가 뒈니까 무끄어 가민 보리때도 꺾어지고 말이지 뭐 고고리도 떨어지고 헤 가지고 말이여 상당히게 보리는 아까워가니까 그 떨어진 거는 주워도 오고.(그게 '과상헤' 가지고 막 그 차근차근 되지 않아 가지고 말이야 막 이제 부푼 상태가 되니까 묶어 가면 보리때도 꺾어지고 말이지 뭐 이삭도 떨어지고 해 가지고 말이야 상당히 보리는 아까워 가니까 그 떨어진 거는 주워 오고.) 27 // 과상허게 ᄆᆞᆯ류와사 소왕소왕 허게 잘 먹주. 경 안허민 안 나가, 안 나가.('과상허게' 말려야 '소왕소왕' 하게 잘 먹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가, 안 나가.) 31 [수망, 옹포. 토평]

과세: 새해 인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옛날은 다 과세 다니고 헷주.(옛날은 다 '과세' 다니고 했지.) 26 [신창]

과작허다: 풀이나 농작물 따위가 간격이 좁게 많이 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패밥도 허고 또시 패 메여다근에 뭇, 거 검질 데껴 부는 거 요만썩 헌 거 밧듸 과작허게.(패밥도 하고 또 패 매다가 무릇, 거 김 던져 버리는 거 요만큼씩 한 거 밭에 '과작'하게.) 12 [한동]

과제기: 고둥이 많이 모여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과제기 나민 엿날엔 강 그것 강 씰어다근에 엿날엔 그런 ᄀᆞ메기 잡앙 ᄑᆞ는 사름도 엇고 사는 사름도 엇어낫어.('과제기' 나면 옛날엔 가서 그걸 가서 쓸어다가 옛날엔 그런 고둥 잡아서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었었어.) 25 [태흥]

과질: 밀가루로 네모지게 얇게 만든 떡을 기름에 튀긴 후 엿물을 발라 그 위에 튀밥 등의 고물을 붙여 만든 음식이다. // 경헌디 그 애월 소실에서가 이 과질, 시방 과질 있지 안헙니까양?(그런데 그 애월 근처에서 이 과줄, 시방 과줄 있지 않습니까?) 03 // 침떡 못허민 상웨떡 과질 안 헤서.(시루떡 못하면 상화떡 과줄 안 했어.) 16 [송당, 하원]

과질잘상: 아주 잘 차려놓은 상을 말한다. 옛날 과줄을 만들어 올리면 아주 잘 차리는 것이라고 여겼던 듯하다. // 잘 출린 거. 과질잘상이라고 경 ᄀᆞᆯ아난.(잘 차린 거. '과질잘상'이라고 그렇게 말했었어.) 02 [선흘]

과짝: 굽거나 비뚤어지지 않고 똑바른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게난 그 대나무가 쎄잖아, 쎄난 과짝 쎈 거난 왕대나무가 맞아.(그러니까 그 대나무가 세잖아, 세니까 '과짝' 센 거니까 왕대나무가 맞아.) 30 [노형]

곽곽: 아기 우는 소리를 나타낸 말이다. // 우리 그때 이젠 더 ᄃᆞ릴 데 엇이난에 이젠 어디 담 구석에 간에, 겁재에 ᄃᆞᆯ아나는 것이 영헌 이불 ᄒᆞ나 가정 나간에,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지금 저 여동생 ᄒᆞ나 돌 뒌 애기난 ᄀᆞᆸᄀᆞᆸ허난 곽곽 울언 우리영 이불 소곱에 박아지지 못허고.(우리 그때 이젠 더 데려갈 데 없으니까 이젠 어디 담 구석에 가서, 겁에 달아나는 것이 이러한 이불 하나 가지고 나가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지금 저 여동생 하나, 돌 된 아기니까 갑갑하니까 '곽곽' 울어서 우리와 이불 속에 숨지 못하고.) 06 [남원]

관동산: 제주시 도련동 지명의 하나이다. // 웃수영은 옛 어른덜이 경기장. 경기장을 허면서 그 경기장을 수영을 받침해주는 것이 관동산 [관똥산].('웃수영'은 옛 어른들이 경기장. 경기장을 하면서 그 경기장을 수영을 받침해주는 것이 관동산.) 01 [도련]

관전밧: 관청 소유의 밭이다. 여기서는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한 자연 마을로 중화동을 가리킨다. // 요 그런 식으로덜 헤연. 요 관전밧. 요 오름 앞에는 또 그 관전밧이라고 헌 것도, 것도 영 보면은 거 그런 전설이 잇어. 벼슬 관 자에 밧 전자라이.(요 그런 식으로들 했어. 요 관전밭. 요 오름 앞에는 또 그 관전밭이라고 한 것도, 것도 이렇게 보면은 거 그런 전설이 있어. 벼슬 관 자에 밭 전자라이.) 36 [봉성]

관중: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모여 사는 곳을 말한다. // 우리 오라방이 막 군에 뎅경, 과장으로 뎅기난에 ᄆᆞᆫ 관중엔 이불 두 개씩 ᄒᆞᆫ덴 ᄒᆞ멍 나 막ᄯᆞᆯ이고 잘사난에, 우리 부모덜 가근에 이불 두 개, 난 분심ᄆᆞᆯ란에.(우리 오라버니 막 군에 다녀서, 과장으로 다니니까 모두 '관중'엔 이불 두 개씩 한다고 하면서 나 막내딸이고 잘 사니까, 우리 부모들 가서 이불 두 개, 난 분수없어서.) 07 [보목]

관청할망: 표선면 성읍리 주민들이 자주 자니는 '안할망당'의 주신인 '안할망'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 당에 갈 땐 사발에 밥 거리곡 떡은 만들앙 가곡 관청할망 성읍리 본향이 관청할망이라.(당에 갈 땐 사발에 밥 뜨고 떡은 만들어서 가고 '관청할망' 성읍리 본향이 '관청할망'이야.) 14 [성읍]

괄괄: 보리밥이 풀기가 없어서 한 방울씩 돌아다니는 모양이다. // 대접하젠 하민 맨 보리밥만 허민 괄괄하잖아. 게실게실헌 게.(대접하려고 하면 맨 보리밥만 하면 '괄괄'하잖아. '게실게실'한 게.) 25 [태흥]

괄다: 불기운 등이 세다는 제주어이다. // 불을 지드라 하면은 쉐똥하고 ᄆᆞᆯ똥 막 관 거 허당. 너미 괄아도 요건 ᄲᆞᆯ리 타불여.(불을 지피라 하면 쇠똥하고 말똥 막 관 거 하다가. 너무 '괄아도' 이건 빨리 타버려.) 03 [송당]

괄다: 불기운 따위가 세다는 의미이나 여기에서 꼴 따위가 말라서 앙상하다는 뜻이다. // 낫으로 빈 촐은 삼 일이믄 무끄지 않으민 괄아.(낫으로 벤 꼴은 삼 일이면 묶지 않으면 '괄아'.) 23 // 아침 이슬짐에 안 무끄면은 촐이 괄앙 낮 뒈어 가민 고사리허고 서꺼지니까 이거 께 내는 기술이 힘들어.(아침 이슬짐에 안 묶으면 꼴이 '괄앙' 낮 되어 가면 고사리하고 섞어지니까 이거 매끼 내는 기술이 힘들어.) 23 [온평]

괄리다: 재를 뜨겁게 하다는 의미이다. // 아이고, 저 잿물ᄉᆞ답 허젠 거 재 ᄒᆞ꼼 괄리멘 경.(아이고, 저 잿물빨래 하려고 거 재 조금 '괄리'고 있어 그렇게.) 29 [외도]

광 김: '광산 김'을 뜻하는데 줄여서 '광 김'이라고 한다. // 여기는 에, 광 김 다음 고 씨.(여기는 에, 광산 김 씨 다음으로 고 씨.) 03 [송당]

광난이풀: 할미꽃을 말한다. // 광난이풀이라고 그게 할미꽃이라 할미꽃.('광난이풀'이라고 그게 할미꽃이야 할미꽃.) 24 // 광난이풀 무시거 헤근에 베또롱 ᄃᆞᆯ라낫수다. 손구레기 영 헤근에 멧 번 영영 돌리곡.('광난이풀' 무엇 해서 배꼽에 돌렸었습니다. 손가락 이렇게 해서 몇 번 이렇게이렇게 돌리고.) 24 [세화]

광령저수지: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저수지이다. // 일로 이 내리는 것이 광령 알로 헤근에 광령저수지 옆으로 헤영 이레 오는 물인디.(이리로 이 내리는 것이 '광령' 아래로 해서 '광령저수지' 옆으로 해서 이리로 오는 물인데.) 29 [외도]

광평: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이다. // 양제 오난 막 하간 거 만헌 집이난, 엇은 집이 아덜 시 성제 신 집이 셋아덜이 양제 왓어. 저 광평서 이 정존이 양제 온 거라.(양자 오니까 아주 온갖 거 많은 집이니까, 없는 집의 아들 세 형제 있는 집의 둘째 아들이 양자 왔어. 저 '광평'에서 이 '정존'에 양자 온 거야.) 30 // 그때도 우리 아버지도 심방을 막 싫어허는디 하도 우리 셋어머니영 큰어머니영 막 그냥 빌어 주라, 빌어 주라 하도 허난에, 광평 도남 할망이엔 허는 심방 할망 셔낫어.(그때도 우리 아버지도 무당을 아주 싫어하는데 하도 우리 둘째어머니랑 큰어머니랑 마구 그냥 빌어 줘라, 빌어 줘라 하도 하니까, '광평' '도남 할머니'라고 하는 무당 할머니가 있었어.) 30 [노형]

괴수풀: 한림읍의 명월리 고림동을 의미한다. // 지금도 괴수풀이엔 ᄒᆞ면 그 고림동에 말이여 고림동을 괴수풀이라고 허거든.(지금도 '괴수풀'이라고 하면 그 '고림동'에 말이야 '고림동'을 '괴수풀'이라고 하거든.) 27 [옹포]

구감: 땅 속에 씨앗으로 사용한 해묵은 고구마를 말한다. // 감저씨앗은 그 입춘 저, 봄 나민 구감 놩.(고구마씨앗은 그 입춘 저, 봄 오면 해묵은고구마 놓아.) 24 // 그거 옛날엔 구감 놩 쭐 기차나면 문 ᄉᆞᆲ아 먹어낫주.(그거 옛날엔 '구감'놓아서 줄기 잘라나면 모두 삶아 먹었었지.) 24 // 구감도 파근에 벳경 ᄉᆞᆲ앙 먹곡 막 헷수다.('구감'도 파서 벗겨서 삶아서 먹고 마구 했습니다.) 34 [구억, 세화]

구갑: 탕건을 만들 때 가장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 백스무 갠디 다 허여놓면은 구갑을 허

여이.(백스무 갠데 다 해놓으면 '구갑'을 해.) 11 [함덕]

구강: 고구마 줄기를 생산할 씨 고구마를 말한다. '구감'이라고도 한다. // 멕에라도 무시거 조 두들엉 곡메기 허영이 새에 놓멍이 거 구강 놓젠.(멱서리에라도 무엇 조 두드려서 '곡메기' 해서 사이에 놓으면서 그거 '구강' 놓으려고.) 11 [함덕]

구광: 고구마 줄기를 생산할 씨 고구마를 말한다. '구감'이라고도 한다. // 감저는 구광을 놔야뒘. 그 씨, 처음 씨 묻는 걸 구광이라고 헤여이.(고구마는 '구광'을 놔야해. 그 씨, 처음 씨 묻는 걸 '구광'이라고 해.) 01 // 구광을 넣어서 그 줄을 잘 키우면. 그거. 적당한, 적당한 길이가 뒘면은 그걸 가지고 밧듸 가서.('구광'을 넣어서 그 줄을 잘 키우면. 그거. 적당한, 적당한 길이가 되면 그걸 가지고 밭에 가서.) 01 [도련]

구기: 일본어 'くいき'에서 온 말로 '구역'이라는 뜻이다. // 누게 말적 옛날 어른 동네 구기나, 우리 천지라.(누가 말하듯이 옛날 어른 동네 '구기'나, 우리 천지라.) 11 [함덕]

구녁치기: 아이들이 동전이나 동그란 사금파리를 구멍에 던져 넣어 내기를 하는 놀이다. // 구녁치기. 이 손으로 영헹 도록허게 둥그리민 그 고망더레 들어가야 뒈여. 거 구녁치기.(구녁치기. 이 손으로 이렇게 해서 도르륵하고 굴리면 그 구멍으로 들어가야 돼. 거 '구녁치기'.) 02 // 그리고 한 열 댓 설 넘으면은 열 댓 설 넘어근에 ᄒᆞᆫ 장개가기 전이덜은 구녁치기엔 헤 가지고 돈 내기.(그리고 한 열 댓 살 넘으면 열 댓 살 넘어서 한 장가가기 전에는 '구녁치기'라고 해 가지고 돈 내기.) 06 [남원, 선흘]

구눈: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지명이다. // 저 구눈에 헌 딘 요 저 보성디레 가는 디 허곡.(저 '구눈'이라고 한 데는 요 저 '보성'으로 가는 데 하고.) 32 // 구눈이엔 헌 디 요 보성디레 가는 디 눈은 이만이 묻으난 그거 장남들이 엿날은 장남덜도 경하곡 허난 그거 ᄆᆞᆫ딱 그 저 무시걸로 삽가래로 다 그 눈 다 치와근에양, 치왕 도로미깡 ᄒᆞᆫ 집이 두 개썩 시 개썩 그거 다 빌어다 놩.('구눈'이라고 한 데 요 보성에 가는 데 눈은 이만큼 묻으니까 그거 장정들이 옛날은 장정들도 그렇게 많고 하니까 그거 몽땅 그 저 무엇으로 삽가래로 다 그 눈 다 치워서요, 치워서 드럼통 한 집이 두 개씩 세 개씩 그거 다 빌어다 놓고.) 32 [덕수]

구는데: '근데'라고도 하는데 '고무래'의 제주어로 곡식을 그러모으고 펴거나, 밭의 흙을 고르거나 아궁이의 재를 긁어모으는 데에 쓰는 기구이다. 이 제보자는 곡식을 그러모으는 것은 '설레', 재를 긁어모으는 것은 '구는데'라고 했다. // 무사 엇어? 굴묵에 이제 불치 내엉 근곡 허는 거. 구는데.(왜 없어? '굴묵'에 이제 재 내어서 긁어내고 하는 거. '구는데'.) 02 [선흘]

구더미작살: 바닷물 위에서 고기가 보이면 쏘아 잡는 작살을 말한다. 긴 대나무 끝에 쇠로 된 촉을 매달아 사용했다. '구더미'는 '구더밋개' 즉 보목동 포구 가까이에 있는 '불턱'을 구더밋개라고 했는데 갯가에서 물고기가 보이면 쏘았다고 해서 구더미

작살이라고 한다. // 그 구더밋작살도 이서. 아이덜 아정 뎅겨난 거.(그 '구더미 작살'도 있어. 아이들 가져 다녀난 거.) 07 [보목]

구두리: 풀가사리의 한 종류이다. 풀가사리보다 잎이 넓고 두껍다. // 구두리는 방 도비헐 때 풀허는 거.('구두리'는 방 도배할 때 풀하는 거.) 07 // 그 웨로 웨로 이제 그 우리 얼레기 머리추룩 고냥 모냥 그 실 뽑은 거 다 꿰여. 경허영 이젠 가시리나 구두리로 풀 쒀.(그 외로 외로 이제 그 우리 얼레빗 머리처럼 구멍 모양 그 실 뽑은 거 다 꿰어. 그렇게 해서 이젠 풀가사리나 '구두리'로 풀을 쒀.) 26 [보목. 신창]

구드리: 풀을 쑤는 데 쓰는 해초류이다. // 바닷물이 싹 나가불면은 거기 가 가지고 구젱기도 잡곡 보멀도 잡곡 심지어 구드리, 해초 엇언 구드리 ᄀᆞ뜬 것도 허고, 또 메역 ᄀᆞ뜬 것도 거기서 케곡.(바닷물이 싹 나가버리면 거기 가 가지고 소라도 잡고 고둥도 잡고 심지어 '구드리' 해초 없어서 '구드리' 같은 것도 하고, 또 미역 같은 것도 거기서 캐고.) 35 // 구드리엔 헌 건 뭐냐, 저 여기서 봄이라든지 허면 풀을 쑵니다게.('구드리'라고 한 건 뭐냐, 저 여기서 봄이라든지 하면 풀을 쑵니다.) 35 [대림]

구루마: 일본어 'くるま'로 자동차, 수레를 뜻한다. 여기서는 수레보다 달구지를 말한다. // 그 구르마 허는 디는 ᄆᆞᆯ이 이제 끗는 게. 쉐 끗는 것보다도 동작도 ᄲᆞᆯ르곡.(그 마차 하는 데는 말이 이제 끄는 것이. 소 끄는 것보다도 동작도 빠르고.) 04 // 마차엔도 허고 바레기엔도 허곡 구루마엔도 허곡 허여.(마차라고도 하고 '바레기'라고도 하고 '구루마'라고도 하고 해.) 05 // 헛간은 구루마ᄁᆞ뜬 거 영 임시 쯔끌락허게 헹 허는 거.(헛간은 수레 같은 거 이렇게 임시 조그맣게 해서 하는 거.) 16 // 구루마로 촐 시꺼 왓수다게. 구루마 신 때.(달구지로 꼴 실어 왔습니다. 달구지 있을 때.) 32 [고성, 덕수, 표선, 하원]

구름들: 한림읍 수원리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 깅이 잡으레는 대게 이 아레서도 구름들이라고 헤 가지고 저 용운동 서쪽에 거기 가서 많이 잡고.(게 잡으러는 대개 이 아래서도 '구름들'이라고 해 가지고 저 '용운동' 서쪽에 거기 가서 많이 잡고.) 35 [대림]

구릉물: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샘물 이름이다. // 그냥 그 몸베만 입엉 다니난 치멜 입으민 저 사름 놀레 감덴 허카 부덴 몸베 바랑에이 치마영 저고리영 싼 물구덕 빈 허벅 놩은에. 저디 강 물 질엉 먹엇어. 구릉물.(그냥 그 몸베만 입고 다니니까 치마를 입으면 저 사람 놀러 간다고 할까 봐 몸베 바람에 치마랑 저고리랑 싸서 '물구덕' 빈 '허벅' 놔서. 저기 가서 물 길어서 먹었어. '구릉물'.) 30 [노형]

구리다: 속이 들떠서 비어 있다는 뜻이다. // 펭이는 펭이도 동박낭이 제일 좋아. 속이 안 구리니까.(팽이는 팽이도 동백나무가 제일 좋아. 속이 안 비어 있으니까.) 06 // 가마오름에 그 굴이 가마오름이 저거 완전히 쑥 구린 딥니다. 저거. 굴로 헤가지고 굴을 어떻게 헤서 파들어 갓는지 모르주만은 우리가 그 굴을 여러 번 들어가

십주.(가마오름에 그 굴이 가마오름이 저거 완전히 속 구린 뎁니다. 저거. 굴로 해가지고 굴을 어떻게 헤서 파들어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굴을 여러 번 들어갔었죠.) 19 [남원, 청수]

구릿: 감성돔을 이르는 말이다. // 우럭 나끄레 가면은 그 선셍은 장인어른ᄒᆞ고 그물 노레, 저 구릿 그물 노레.(우럭 낚으러 가면은 그 선생은 장인어른하고 그물 놓으러, 저 감성돔 그물 놓으러.) 22 [우도]

구멀동: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자연 마을 이름이다. // 김씨예. 처가살이로. 강칩이 처가살이로 이디 완 살고, 헤서 지금도 그분들이 살고 잇어. 저 구멀동에는 홍씨, 현씨가 살고 잇고.(김씨요. 처가살이로. 강씨 댁에 처가살이로 여기 와서 살고, 해서 지금도 그분들이 살고 있어. 저 구멀동에는 홍씨, 현씨가 살고 있고.) 36 // 어도 일구 그렇주. 그 저, 그 중간에 에 저 서성동이 잇고, 동대동이 잇고, 중화동이 잇고, 구멀동이 잇고.(어도 일구 그렇지. 그 저, 그 중간에 에 저 서성동이 있고, 동대동이 있고, 중화동이 있고, 구멀동이 있고.) 36 [봉성]

구명: 장마 진 때에 평지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곳을 말한다. 물이 솟는 것을 보고 '구명 나다'라고 한다. // 생수가 나 가지고 것이 구명이지, 구명 낫젠 허여. 구명.(생수가 나 가지고 것이 '구명'이지, '구명' 났다고 해. '구명'.) 29 [외도]

구명물: 대정읍 인성리 근처의 샘물 이름이다. // 구명물이엔 헌 딘 덕수로 오는 디. 덕수로 오는 디 이 안성 지경 거자 오민 높은 동산 소낭 서. 그디가 구명물.('구명물'이라고 한 데는 덕수로 오는 데. 덕수로 오는 데 이 안성 지경 거의 오면 높은 동산 소나무 있어. 거기가 '구명물'.) 33 [인성]

구문젱이: 바다물고기의 한 종류이다. // 옛날 우리 어릴 덕이는 뭐 돔, 돔이다 북바리다 응 뭐 저 웽이다 아니면은 굼 구문젱이이다 아니면 다금바리다 헷는데예. 지금 구경을 못헤마씨. 완전 씨가 ᄆᆞᆯ라버려 가지고.(옛날 우리 어릴 적에는 뭐 돔, 돔이다 붉바리다 응 뭐 저 '웽이'다 아니면은 굼 '구문젱이'다 아니면 다금바리다 했는데요. 지금 구경을 못해요. 완전 씨가 말라버려 가지고.) 22 [우도]

구물다: 그 달의 날짜가 마지막 날에 가까워지다 혹은 그 해가 거의 세밑에 가까워지다의 의미를 지니는 제주어이다. // 콩 헐 때가 뒈난 그걸 장만헤영 십일월 구물어 가믄 그걸 메줄 ᄉᆞᆲ아 경 허영 이걸 키와근엥 이제 겨울 지나근엥 이제 음력으로 일월 나기 전이 십이월 달에 담아.(콩 할 때가 되니까 그걸 장만해서 십일월 '구물어' 가면 그거를 메주를 삶아서 그렇게 해서 이걸 키워서 이제 겨울 지나서 이제 음력으로 일월 되기 전에 십이월 달에 담가.) 18 [신도]

구미: 일본어 'くみ'로 어떤 일을 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조(組)를 말한다. // 큰구물, 싸움판, 새선진 뭐 구미이 ᄒᆞᆫ 서너니 개가 뒌디 난리가 데싸지지.('큰그물', '싸움판', '새선진' 뭐 조가 한 서너 개가 되는데 난리가 나.) 11 // 하도는 하도 구미가 ᄯᅳ로 잇고 한동은 한동 구미가 잇주.(그래, 하도는 하도 조가 따로 있고 한동은 한동 조가 있지.) 12 [한동, 함덕]

구부리: 마른 우뭇가사리 등의 무게를 재는 단위를 말한다. 30킬로그램 한 마대를 한 구부리라고 한다. // 동촌엔 우미가 멧 구부리썩 헌덴 헤도 이 서쪽으로는, 시로 이꺼지 왕은 신창만이 우뭇가사리 하영 나는 디 엇일 거라.(동촌엔 우미가 몇 '구부리'씩 한다고 해도 이 서쪽으로는, 시에서 이까지 와서는 신창만큼 우뭇가사리 많이 나는 데 없을 거야.) 26 // 질로지썩 허난 나도 천초 떨어지지 안허영 헤 낫주게. 열 구부리 안터레 헤 보진 안허연.(제각각 하니까 나도 우뭇가사리 떨어지지 않고 했었지. 열 '구부리' 안으로 해 보진 않았어.) 26 [신창]

구불: 엉덩이 위쪽 부분으로 허리 쪽을 말한다. // 가민 빗창은 그 셍복이나 하나썩 떼젠 허민 물에 들레 갈 땐 요 구불에 창 가.(가면 '빗창'은 그 전복이나 하나씩 떼려고 하면 물에 들러 갈 땐 요 '구불'에 차서 가.) 25 [태흥]

구불텡이: 짐을 질 때 등이나 엉덩이를 누르지 않게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받침을 말한다. '물허벅'을 질 때 사용했던 것을 '물구불텡이'라고 했다. // 물구불텡이. 하이구, 야 야 구불텡이도 아이 ᄃᆞᆫ 디 물 지엉 그 구불은 ᄌᆞᆫ뎌?('물구불텡이'. 아이구, 야 야 '구불텡이'도 안 단 데 물 지어서 그 '구불'은 견뎌?) 20 [고내]

구산봉: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지명이다. // 망동산이엔 허곡 구산봉이엔 헙니다.('망동산'이라고 하고 '구산봉'이라고 합니다.) 16 [하원]

구삼승: 저승에서 죽은 아기의 영혼을 관장하는 여신이다. // 마제 칠 때. 구삼승 나시라고 아흐레.(마제 칠 때. '구삼승' 몫이라고 아흐레.) 03 // 초삼일, 사흘에 지곡허는 할망. 초이레에 지곡허는 할망. 구삼승이라고 아흐레 지곡허는 할망.(초삼일, 사흘에 지극하신 할머니. 초이레에 지극하신 할머니. '구삼승'이라고 아흐레 지극하신 할머니.) 03 [송당]

구상물: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샘물 이름이다. // 돈내코도 가고 저 옛날에 수도 엇인 때 저 구상물이엔 헌 디 생효도 가고.(돈내코도 가고 저 옛날에 수도 없을 때 저 '구상물'이라고 하는 데 상효도 가고.) 31 [토평]

구석밧: 대정읍 구억리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 우리 동네 거 아홉 구석 밧이 잇어. 구석이 큰 밧인디 구석이 아홉 개라. 게난 살아난 ᄆᆞ을로 구석밧.(우리 동네 거 아홉 구석 밭이 있어. 구석이 큰 밭인데 구석이 아홉 개야. 그러니까 살았던 마을로 '구석밧'.) 34 [구억]

구수: 말의 나이 아홉 살을 일컫는 말이다. // 금승, 이수, 두 설짜린 이수주게. 이수, 삼수, 오수. 오수 육수 칠수 팔수 구수 십수엔 헷네.(하릅 이듭 두 살짜린 '이수'지. 이듭 사릅, 다습. 다습, 여습 '칠수' '팔수' '구수' '십수'라고 했네.) 01 [도련]

구슈: 일본어 'くうしゅう(空襲)'로 '공습'의 의미이다. // 겨난 그 나까오리가게, 허고 옛날은 그 저 구슈허연 복기쯔기.(그러니까 중절모자가, 하고 옛날은 그 저 공습해서 '복기쯔기'.) 26 [신창]

구스리유비: 일본어 'くすりゆび'로 '약지'를 뜻한다. // 이것ᄀᆞ란 일본말로 약 ᄇᆞᆯ르는 거엔

구스리유비엔 헤난.(이것보고 일본말로 약 바르는 거라고 '구스리유비'라고 했었어.) 02 [선흘]

구시물: 안덕면 대평리 지경에 있는 물 이름이다. // 구시물. 일름이 구시물이엔 흡니다. ('구시물'. 이름이 '구시물'이라고 합니다.) 17 [대평]

구신물: 한경면 청수리의 지경 이름이다. // 아이고, 우린 구신물ᄁᆞ장 강 헤오랏저.(아이고, 우린 '구신물'까지 가서 해왔지.) 19 [청수]

구우면: 조선시대부터 사용되던 제주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옛 한림읍, 한경면 지역을 말한다. // 구우면, 신우면. 신우면이 애월. 구우면이 한림, 한경. 그렇게 역사가 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면에 속헷다 말이여.('구우면', '신우면'. '신우면'이 애월. '구우면'이 한림, 한경. 그렇게 역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면에 속했다 말이야.) 36 [봉성]

구작구작: 베어 놓은 보리에서 난 싹이 땅에 달라붙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땅에 영 뒈쌍, 그 보리를 모돵 뒈쓰젠 허민 땅에 구작구작 부뜨멍, 문 땅에 부뜨민 우리 그거 하나썩 줍곡. 사름이 어떵헨 젼디느니.(땅에 이렇게 뒤집어서, 그 보리를 모아서 뒤집으려고 하면 땅에 '구작구작' 붙으면서, 모두 땅에 붙으면 우리 그거 하나씩 줍고. 사람이 어떡해서 견디니.) 31 [토평]

구젱이쌀: 소라껍데기에 돋은 돌기를 말한다. // 구젱이쌀, 뿔이 아니고 쌀이엔 ᄀᆞᆫ지.('구젱이쌀', 뿔이 아니고 '쌀'이라고 말하지.) 11 [함덕]

구지: 어떤 일을 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다. 제보자는 '조'라는 뜻으로 사용했다. 일본어 '구미(くみ)'와 동의어이다. // 그릇 싯는 구지, 밥허는 구지. 다 헤영 다 모다들엉 돌아가멍 다 헤줘.(그릇 씻는 조, 밥하는 조. 다 해서 다 모여들어서 돌아가면서 다 해줘.) 11 [함덕]

구지베기: 일본어 'くじびき'이다. 우리말 제비뽑기를 말한다. '구찌비끼'라고도 한다. // 우리도 궂고 저 아기덜토 궂곡 허난에 그디 강은에 저 이층에 이층을 이제 구지베기허게 뒌 거라마씸게.(우리도 나쁘고 저 아기들도 나쁘고 하니까 거기 가서 저 이층에 이층을 이제 제비뽑기하게 된 거예요.) 32 // 다음 돌아가멍, 것도 저 그 일본말로 구찌비끼 헤 가지고, 재수보기 뽑아가지고 ᄎᆞ례헨예.(다음 돌아가면서, 것도 저 일본말로 '구찌비끼' 해 가지고, 재수보기 뽑아가지고 차례했어요.) 35 [덕수, 대림]

구침ᄒᆞ다: 뜨거운 것으로 살을 뜨고 침을 주어서 병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 // 쪈. 멘도롱ᄒᆞ게 처근에, 이디 영 부쳉 구침ᄒᆞᆷ이라고 겡헨.(쪘어. '멘도롱'하게 쪄서, 여기 이렇게 붙여 '구침함'이라고 그랬어.) 15 [수망]

구토롱: 흙을 모아 쌓아서 임시로 간략히 만든 무덤을 토롱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토롱이 구투롱이라. 토롱은게 ᄂᆞ람지 더꺼근에 그 드르에 아졍 담 엠이나 어디나 존 디 놔근에 ᄂᆞ람지 빙빙 ᄂᆞ람지 둘렁.(토롱이 '구토롱'

이야. 토롱은 이엉 덮어서 그 들에 가져서 담 옆이나 어디나 좋은 데 놔서 이엉 빙빙 이엉 둘러서.) 13 [삼달]

구항풀이: 사람이 죽어 장사를 치르고 난 뒤에 치르는 굿이다. '귀양풀이'라고도 한다. // 구항풀인 안 허영 이젠 심방덜이 엇어 가고 허난 아녕 사십구재로 허는 디덜이 하영 허곡, 또 웬만헌 사름은 사십구재도 아이 허곡, 구항풀이도 아니 허곡, 그날 강 묻으민 그자 그날 식게, 식게 문딱 거기서 고허영 와 불엉.('구항풀이'는 안 해서 이젠 무당들이 없어 가고 하니까 안 해서 사십구재로 하는 데들이 많이 하고, 또 웬만한 사람은 사십구재도 안 하고, '구항풀이'도 안 하고, 그날 가서 묻으면 그저 그날 제사, 제사 모두 거기서 고해서 와 버려.) 34 [구억]

국멩질: '정월명절날 새벽에 차례상을 차리기 전에 메밀칼국수를 올리는 것'으로 제주도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행해진다. 최근에는 메밀칼국수 대신에 떡국을 올리기도 한다. '국시멩질', '국제'라고도 한다. // 엿날은 우린 저 아칙이 붉기 전이 모물국시 허영 이젠 ᄂᆞ리왕 모물국시 허영 올려. 이제도 허는 딘 허여. 국멩질이엔 허영.(옛날은 우린 저 아침에 밝기 전에 메밀국수 해서 이젠 내려서 메밀국수 해서 올려. 이제도 하는 데는 해. '국멩질'이라고 해서.) 02 [선흘]

국죽: 나물을 썰어 놓고 쑨 갱죽을 말한다. 들에서 나는 마늘, 즉 달래를 썰어놓고 쑤면 맛있다고 한다. // 콩죽도 잇곡양, 풋죽도 잇곡, 녹두죽도 잇곡, 흰죽도 잇곡, 국죽도 잇곡양, 죽은 멧 가지우다게. ᄒᆞ면 다 죽이라마씀.(콩죽도 있고요, 팥죽도 있고, 녹두죽도 있고, 흰죽도 있고, '국죽'도 있고요, 죽은 몇 가지입니다. 하면 다 죽이지요.) 08 // 옛날은 좁쏠 놔근에 죽 쑤다근에 드르에 가근에 마농 케다근에 그거 썰어놔근에 국죽을 쑤민 잘도 맛좋아, 흰죽보다. 경헹 ᄒᆞᆫ 사발썩 먹어. (옛날은 좁쌀 놔서 죽 쑤다가 들에 가서 마늘 캐다가 그거 썰어놔서 갱죽을 쑤면 잘도 맛있어, 흰죽보다. 그렇게 해서 한 사발씩 먹어.) 13 // 그 ᄂᆞ물에 그 죽에 먹어놓민 답지질 안허지. 경허난, 죽 쑬 땐 배추 헤다놩 박박 무지려 놩 죽 쒀. 그땐 국죽이라, 국죽.(그 나물에 그 죽에 먹으면 '답지질' 않지. 그러니까, 죽 쑬 땐 배추 해다놔서 박박 무질러 놔서 죽 쒀. 그땐 갱죽이야, 갱죽.) 25 // 국죽이엔 헌 건 이 밥 먹당 식으민 밥도 많이 잇곡이 그냥 밥 먹고프지 아니허민 그 밥을 놩은에 쑤당 ᄉᆞᆼ키 놓민 국죽.('국죽'이라고 한 건 이 밥 먹다가 식으면 밥도 많이 있고 그냥 밥 먹고 싶지 않으면 그 밥을 넣어서 쑤다가 푸성귀 넣으면 '국죽'.) 33 [동광, 삼달, 인성, 태흥]

군께: 곡식 섬이나 곡식 단 따위를 묶을 때 쓰는 매끼를 말한다. '덧붙은'의 의미를 갖는 접사 '군-'에 '매끼'를 의미하는 '께'가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 가당 오당 군께 헨 무끄는 사름도 잇긴 잇는디 보통 보리로 헹 꼬부려서 무끄주게.(가다가 오다가 '군께' 해서 묶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보통 보리로 해서 구부려서 묶지.) 12 [한동]

군넹이: 애월읍 하귀리의 동쪽 지역인 '동귀'의 옛 이름이다. 지금은 하귀1리에 해당한다.

// 양태 안 헌 디가 고내주게. 양태는 일로 동쪽으로 가믄 군넹이. (양태 안 한 데가 고내지. 양태는 일로 동쪽으로 가면 '군넹이'.) 20 // 군넹이가이 하귀 못 간에. 하귀 서쪽.('군넹이'가 하귀 못 가서. 하귀 서쪽.) 30 [고내, 노형]

군대환: '君が代丸'을 말하는 것으로 제주도와 일본 오사카를 연결하는 직행노선의 객선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제주 사람들은 이 배를 이용하여 일본을 오갔다. // 어린 때. 경허고 허다가 혼, 아홉 설, 열 설 때 밧디서 일허는디 일본 다니는 그 손님덜 시껑 다니는 군대환 배가 잇엇어.(어릴 때. 그렇게 하고 하다가 한, 아홉 살, 열 살 때 밭에서 일하는데 일본 다니는 그 손님들 싣고 다니는 군대환 배가 있었어.) 20 // 옛날에는 글로 헤 가지고 일본에 군대환도 뎅겨낫덴 허는디.(옛날에는 글로 해 가지고 일본에 군대환도 다녔었다고 하는데.) 29 [고내, 외도]

군데: 아궁이의 재를 긁어내는 T자형의 연장이다. // 군데 걸로 드믈뢍 지푸라기 헹은에 불 노왕 불 ᄒᆞ쏠 붙영 내불어 놔두민 그게 열두 시간은 충분 가.(고무래 그걸로 드밀고 지푸라기 해서 불 놓고서 불 조금 붙여서 내버려 놔두면 그게 열두시간은 충분히 가.) 03 [송당]

군데오름: 성산읍 수산리에 있는 오름이다. // 게민 우리가 새 허레 쩌 에 군데오름, 수산에 군데오름 이엔 ᄒᆞᆫ디 올라가곡 또 올라 가면은 저 토벌대가.(그러면 우리가 띠 하러 저 에 '군데오름', 수산에 '군데오름' 이라고 한데 올라가고 또 올라 가면은 저 토벌대가.) 22 [우도]

군듯물: 서귀포시 보목동과 토평동 경계에 인접한 서쪽 해상으로 '거문여' 위쪽이며 토평동 435번지 부근을 말한다. '군도물', '군도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 거기는 행정적으로는 영천동인디 거기다가 소정방가기 전에 천제를 지넬라면은 군듯물이라고 헤서 깨끗한 물 가서, 저 군인덜이 지네다가 이제 그곳이 이십주게, 지금도.(거기는 행정적으로는 영천동인데 거기다가 '소정방'가기 전에 천제를 지내려면 '군듯물'이라고 해서 깨끗한 물에 가서, 저 군인들이 지내다가 이제 그곳이 있습지요, 지금도.) 07 [보목]

군물: 안덕면 덕수리 동쪽 지역인 662번지 '군물왓'에 있던 우물을 말한다. // 물 안 날 때, 물 안 날 때 수돗물도 엇은 때난 저 군물허고 저 구눈.(물 안 날 때, 물 안 날 때 수돗물도 없을 때니까 저 '군물'하고 저 '구눈'.) 32 [덕수]

군산: 안덕면 창천리와 서귀포시 예래동의 경계인 일주도로 남쪽에 있는 오름이다. 유사시대(有史時代)에 분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가외로 덧생긴 산이라 하여 '군메', '군산'이라고 한다. // 대펭은 군산에 강 낭토막 해당 똥 줏어오지 못ᄒᆞ민 낭토막으로 불 ᄉᆞᆷ앗주게, 굴묵 짇엇주게.('대펭'은 '군산'에 가서 나무토막 해다가 똥 주워오지 못하면 나무토막으로 불 때었지요, '굴묵' 때었지요.) 17 // 어디 창천이 강씨 집인가 어느 집안에서 거기서 거시기 ᄒᆞ연에 엿날 어른덜 알안에 거기 왓단에 이자 사름 살음직 혼 디 거자 이 군산 앞의 가면은 사름 살음직 혼 디 잇젠 그디 강 보렌.(어디 '창천리' 강씨 집인가 어느 집안에서 거기서 거시기

하여서 옛날 어른들 알아서 거기 왔다가 이자 사람 살 것 같은 데 거자 이 '군산' 앞에 가면은 사람 살 것 같은 데 있다고 거기 가서 보라고.) 17 [대평]

군융: '궁흉'을 말한다. 성질이 몹시 음침하고 흉악함을 이른다. // 그게 언제나 그 쉐는 군융이 십니다. 사름들 이중성격 갖는 모냥으로.(그게 언제나 그 소는 궁흉이 있습니다. 사람들 이중성격 갖는 모양으로.) 03 [송당]

군인: 군대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 도벌목 헤단에 땅 우리 아부지가 ᄒᆞᆫ 백오십 평짜리 땅을 ᄒᆞ나 사주길래 나대로 집 지언, 집을 완전히 수리 못허연 군인을 가불엇어.('도벌목' 해다가 땅 우리 아버지가 한 백오십 평짜리 땅을 하나 사주기에 나대로 집 지어서, 집을 완전히 수리 못해서 군대를 가버렸어.) 14 // 군인 가부난에 딱 일 년 섣ᄃᆞᆯ 초이틀날 음력으로 씨집가신디, 정월 스무나을날 제대헹 옵디다게.(군대 가버리니까 딱 일 년 선달 초이튿날 음력으로 시집갔는데, 정월 스무나흗날 제대해서 옵디다.) 23 // 경 허연 허난 이제 군인 간 운전을 베왓던 모냥이라.(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제 군대 가서 운전을 배웠던 모양이야.) 29 [성읍, 온평, 외도]

굴가름: 애월읍 광령리의 마을 이름의 하나이다. 옹기를 굽는 굴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굴밧', '굴왓', '굴동네'라고도 한다. // 굴가름이엔 허민 그디 가민 굴 굽는 디라.('굴가름'이라고 하면 거기 가면 굴 굽는 데야.) 30 [노형]

굴그락허다: 힘들게 좁은 곳을 지나 한꺼번에 밖으로 나오는 모양을 말한다. // 힘만 내렌 허멍 오목가슴더레 요레 콱 찔런 ᄇᆞᆯ끈 잡아뎅이난 굴그락허게 털어져라게.(힘만 내라고 하면서 오목가슴에 요리 꽉 찔러서 불끈 잡아당기니까 '굴그락'하게 떨어지더라.) 33 [인성]

굴동네: 애월읍 광령리의 마을 이름을 하나이다. // 광령에 굴동네엔 헌 디가 잇어. 학교로, 학교 아래 쭉 내려가민. 광령초등학교 헌 디 쭉 내려가민.(광령에 '굴동네'라고 하는 데가 있어. 학교로, 학교 아래 쭉 내려가면. 광령초등학교 하는 데 쭉 내려가면.) 30 [노형]

굴동산: 제주시 도련동 지명의 하나이다. // ᄉᆞ방데레 베리던 경헌 이제 터. 다시 그 옆에 가면은 굴동산이라고 잇는데 그건 지금 우리가 찾아볼 길이 없고.(사방으로 보던 그런 이제 터. 다시 그 옆에 가면은 '굴동산'이라고 있는데 그건 지금 우리가 찾아볼 길이 없고.) 01 [도련]

굴락허다: 오목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수커는 납작허고 암커는 굴락허고.(수컷은 납작하고 암컷은 '굴락하고'.) 31 [토평]

굴랑굴랑허다: 물체가 착 달라붙지 않고 부풀어서 들썩이는 모양이다. // ᄆᆞᆯ랑ᄆᆞᆯ랑허게, 굴랑굴랑헐 정도로 담아사주, 뻥뻥허게 담앙은 ᄀᆞ뜩허게 허영은 ᄉᆞᆲ아감은 팡팡 터져불어마씨.(말랑말랑하게, '굴랑굴랑할' 정도로 담아야지. 뽕뽕하게 담아서는 가득하게 해서는 삶아가면은 팡팡 터져버려요.) 34 [구억]

굴레: 입을 말한다. 여기에서 '흔 굴레'는 '한 입'으로 아주 적은 분량의 의미로 쓰였다. // ᄑᆞᆺ숨메는 중간이 ᄑᆞᆺ 어려울 때 헹 바싹 먹구젱 헹, 흔 굴레를 먹엇당 부지땡이 아져당 서너 번을 맞이난.(팥소는 중간에 팥 어려울 때 해서 몹시 먹고 싶어해서, 한 입을 먹었다가 부지깽이 가져다가 서너 번을 맞으니까.) 03 [송당]

굴루이: '꼭 필요한 것 이외에 더해서', '쓸데없이', '원래의 것이 아니라 별도로'의 의미이다. // 건지라고 헤서 이렇게 저 이 이디 머리덜 질루민 이디 머리에 굴루히 그 저 머리를 엿날덜 할망덜은 ᄆᆞᆫ 질룅은에 걸로 ᄆᆞᆫ 마주 놩은엥에 무껏당.(딴머리라고 해서 이렇게 저 이 여기 머리들 기르면 여기 머리에 '굴루히' 그 저 머리를 옛날들 할머니들은 몽땅 길러서 걸로 몽땅 마주 놔서 묶었다가.) 14 // 요만은 흔 거 굴루이 이만은 중의 입곡 경ᄒᆞ멍 그 소중인 놎은 사람이 입넨 안 입고 경 헤낫어.(요만큼 한 거 '굴루이' 이만은 중의 입고 그렇게 하면서 그 속옷은 낮은 사람이 입는다며 안 입고 그렇게 했었어.) 15 // 요디 요거 뒷복 ᄒᆞ나가 요거 불림복이라고 요 두 개가 굴루이 잇어이.(요기 요거 뒤폭 하나가 요거 '불림복'이라고 요 두 개가 '굴루이' 있어.) 25 // 보리, 감제 거튼 거 안 허고 이젠 콜레비, 뭐 허여 나민 지장덜 갈앙 돈 벌고. 건 굴루이덜.(보리, 고구마 같은 거 안 하고 이젠 콜라비, 뭐 하고 나고 기장들 갈아서 돈 벌고. 건 별도로들.) 26 [성읍, 수망, 신창, 태흥, 함덕]

굴루히: 원래의 것이 아니라 '별도로'라는 뜻이다. 제보자에 따라 '굴루이'라고 발음하기도 한다. // 경 허영 허믄 몸뻬 입곡 허여도 치말 경 굴루히 입어근엥에 영 허영 허영 훽 둘러근에 영 허영 뎅기곡 경 헤여난.(그렇게 해서 하면 몸뻬 입고 해도 치말 그렇게 '굴루히' 입어서 이렇게 해서 해서 휙 둘러서 이렇게 해서 다니고 그렇게 했었어.) 29 [외도]

굴멩이: 군솟과의 연체동물인 '군소'를 말한다. // 굴멩이엔 옛날 헤낫는디 요새 말로는 군수라고 허는디 온평리 말론 굴멩이.('굴멩이'라고 옛날 했었는데 요새 말로는 군소라고 하는데 온평리 말론 '굴멩이'.) 23 [온평]

굴목: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굴묵'이라고도 한다. // 굴목 짓는 거 돌만 영 놔근에. 아, 게난 그 우에 서실이영 뭐영 우에 ᄆᆞᆫ딱 다 헤난 다음에.('굴목' 때는 거 돌만 이렇게 놔서. 아, 그러니까 그 위에 '서실'하고 뭐하고 위에 모두 다 하고난 다음에.) 07 // ᄆᆞᆯ똥 헤다근에 그거 완전 ᄆᆞᆯ류왕, ᄆᆞᆯ리왕 굴목 때는 거.(말똥 해다가 그거 완전 말려서, 말려서 '굴목' 때는 거.) 15 // 말똥도 아, 소똥. 소똥 ᄀᆞ튼 것도 뭐 파싹 말른 거 주워근엥 땔감으로도 사용허고 굴목도 짇고 말이지.(말똥도 아, 소똥. 소똥 같은 것도 뭐 바싹 마른 거 주워서 땔감으로도 사용하고 '굴목'도 짓고 말이지.) 27 [보목, 수망, 옹포]

굴묵: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바깥 공간을 말한다. // 상웨떡이 요멘씩 ᄆᆞᆯ앙 멘들앙 저 ᄃᆞᆺ인 디 굴묵 짇는 안자리 강 놔두민이, 경헹 우이 톡 더껑 놔두

민, 광목으로라도 우이 톡 더껑 놔두민 이만이 불어나.(상화떡 요만큼씩 반죽해서 만들어서 저 따뜻한 데 '굴묵' 때는 안자리 가서 놔두면, 그렇게 해서 위에 톡 덮어서 놔두면, 광목으로라도 위에 톡 덮어서 놔두면 이만큼 불어나.) 11 // ᄀᆞ시락막이라고 헤서 이제 담 다아가지고 우에 영 새로 비 안 들어가게 담앗다가 그거 인제는 굴묵에 ᄉᆞᆷ빡 놔도 남거든.(까끄라기막이라고 해서 이제 담 쌓아가지고 위에 이렇게 새로 비 안 들어가게 담았다가 그거 이제는 '굴묵'에 가득 놔도 남거든.) 19 // ᄀᆞ시락 막 잇주게. 쉐막 잇고, 쉐 질루난. 쉐막, ᄀᆞ시락 막. ᄀᆞ시락 막은 ᄀᆞ시락 놩, 보리 장만헤난 ᄀᆞ시락. 그걸로 굴묵 짇어살 거 아니?(까끄라기 많이 있지. 외양간 있고, 소 기르니까. 외양간, 까끄라기 막. 까끄라기 막은 까끄라기 놔서, 보리 장만했던 까끄라기. 그걸로 '굴묵' 때야 할 거 아니?) 26 // 넙은 돌로만 논 구들은 전체가 ᄃᆞᆺ앙 좋곡, ᄯᅳ로 그 굴묵 아궁이 어귀돌이라고 헤 가지고 그디만 허영 가운디만 들어가게끔 헌 디는 그자 영 가운디만 ᄃᆞᆺ이고, 경 헤십주기.(넓은 돌로만 놓은 방은 전체가 따뜻해서 좋고, 또 그 굴묵 아궁이 '어귀돌'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만 해서 가운데만 들어가게끔 한 데는 그저 이렇게 가운데만 따뜻하고, 그렇게 했습지요.) 35 [고내, 고산, 구억, 구엄, 남원, 노형, 대림, 대평, 덕수, 도련, 동광, 보목, 봉성, 선흘, 세화, 신도, 신창, 성읍, 온평, 외도, 월령, 청수, 표선, 토평, 하원, 한동, 함덕]

굴묵근데: 구들방에 불을 땔 때 땔감을 집어넣거나 재를 꺼낼 때 쓰는 도구를 말한다. '근데'는 표준어 '고무래'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 굴묵 허는 것도 근데엔 허여, 그거. 족게시리 허영. 날레에 허는 거 영 넓게 헌 거고. 굴묵에 허는 거는 작게. 굴묵근데.('굴묵' 하는 것도 고무래라고 해, 그거. 적게끔 해서. '날레'에 하는 거 이렇게 넓게 한 것이고. '굴묵'에 하는 거는 작게. '굴묵근데'.) 05 [표선]

굴밧: 애월읍 광령리의 마을 이름의 하나이다. 옹기를 굽는 굴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굴왓'이라고도 한다. // 항아리 만들앙 구워 냉 ᄑᆞ는 디가 잇주게. 굴밧이라고.(항아리 만들어서 구워 내서 파는 데가 있지. '굴밧'이라고.) 30 [노형]

굴왓: 애월읍 광령리의 마을 이름의 하나이다. 옹기를 굽는 굴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굴밧'이라고도 한다. // 굴밧이엔 헌 디가. 굴왓, 굴왓. 무수천 더 저레 강.('굴밧'이라고 하는 데가. '굴왓', '굴왓'. '무수천' 더 저리 가서.) 30 [노형]

굴중의: 허리 편에 주름이 잡히고 보통 중의보다 폭이 넓은 부녀들이 입는 중의를 말한다. 옛날은 할망들 갈중이 이만이 퍼진 거 입엉은에 이디 다림 치고. 그건 굴중의라고. 또 ᄐᆞ로 이서.(옛날은 할머니들 '갈중이' 이만큼 퍼진 것을 입고 여기 대님 매고. 그건 '굴중의'라고. 또 따로 있어.) 03 // 굴중의는 입을 때는 치마 안 입곡. 굴중기는이 이디가 이만이 넓어. 인치룩 인치룩 접어근에 다님 치, 다님 딱 ᄌᆞᆯ라메근에 경 헤근에 저 여자덜은 경 허곡.('굴중의'는 입을 때는 치마 안 입고. '굴중의'는 여기가 이만큼 넓어. 이처럼 이처럼 접어서 대님 치, 대님 딱 잘라매서 그렇게 해서 저 여자들은 그렇게 하고.) 05 // 여자는 치메만 안 입엉 굴중

읠 입어사 치멜 입엇주. 아래 펄락허게 허여근엥에 저 우읜 그냥 주름 앚졍 무끄곡.(여자는 치마만 안 입어서 '굴중의'를 입어야 치말 입었지. 아래 펄락하게 해서 저 위에는 그냥 주름 앉혀서 묶고.) 14 // ᄒᆞᆯ 부젯집인 아기덜 소중의 멘들앙 입져 주고, 가난헌 집인 소중기 만들 것도 엇언 못 만들어서 그냥 굴중이만 입졋주.(조금 부잣집엔 아기들 속옷 만들어서 입혀 주고, 가난한 집엔 속옷 만들 것도 없어서 못 만들어서 그냥 '굴중의'만 입혔지.) 19 [고내, 노형, 대평, 삼달, 성읍, 세화, 송당, 수망, 온평, 외도, 청수, 표선]

굼부리: 움푹 파인 분화구를 말한다. // 그걸 안돌오름은 굼부리인데 거기도 물이 납니다. 그디가.(그것을 '안돌오름'은 '굼부리'인데 거기도 물이 납니다. 거기가.) 03 [송당]

굽들이: 심어진 나무나 세워진 기둥 따위의 밑동 뿌리까지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고구마 줄기를 심어 넣을 수 있는데까지'를 말하고 있다. // 그 ᄒᆞᆫ 굽들이에 그거. ᄒᆞᆫ 굽에서벳기 감저가 안 들어.(그 한 '굽들이'에 그것, 한 '굽'에서밖에 고구마가 안 들어.) 04 [고성]

굿: 호박이나 오이 씨 따위를 묻고 그 주위 흙을 두두룩하게 모아 올린 것을 말한다. 표준어로는 '북'이라고 한다. // 거 굿 올리젠 허민 낭, 메종이 낭 이제 그것더레 검질, 감젓메 검질메영 영 올려줘.(거 '굿' 올리려고 하면 나서, 모종이 나서 이제 그것으로 김, 고구마 모종 김매서 이렇게 올려줘.) 26 // 경헤영 묻엉 이젠 나민 거 굿 올리고 허엿당 이제 보리 비여 나민 마 와 가민 이젠 그걸 요만썩 끈으멍 다 심어.(그래서 묻어서 이젠 나면 거 '굿' 올리고 했다가 이제 보리 베고 나면 장마 와 가면 이젠 그걸 요만큼씩 끊으면서 다 심어.) 26 [신창]

굿떡: 굿을 할 때 신위 앞에 올리는 떡이다. // 당에 갈 땐 게. 동그랑헌 거 얄룹게게, 굿떡이라고게.(당에 갈 땐. 동그란 거 얇게, '굿떡'이라고.) 06 // 굿떡은게 영 동글랑허게 허는 거.('굿떡'은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거.) 26 // 굿떡은 기냥게, 기냥 돈으로 메껸.('굿떡'은 그냥, 그냥 돈으로 맡겨서.) 29 // 굿떡은 그추룩 허영 하영 헷수다.('굿떡'은 그처럼 해서 많이 했습니다.) 34 [구억, 남원, 신창, 외도]

궁둥저베기: 메밀가루 따위를 묽게 반죽한 후에 한꺼번에 끓는 물에 넣어서 수저로 닥닥 두들기면서 짤라서 만든 수제비를 말한다. // 저베기. 궁둥저베기. 궁둥저베기는 ᄆᆞ멀ᄀᆞ르 카가지고 뜨박뜨박 숟까락으로 거려놔근에 허는 거가 궁둥저베기고.('저베기'. '궁둥저베기'. '궁둥저베기'는 메밀가루 타가지고 '뜨박뜨박' 숟가락으로 떠 넣어서 하는 것이 '궁둥저베기'고.) 14 [성읍]

궁둥ᄌᆞ베기: 메밀가루 따위를 묽게 반죽한 후에 한꺼번에 끓는 물에 넣어서 수저로 닥닥 두들기면서 짤라서 만든 수제비를 말한다. // 그거는 물 싹싹 끓으민 ᄆᆞᆯᄀᆞ르에 그 끓이는 물 놔근에 수까락으로 영 영 반죽하면은 그거 반죽헹 다 뒈민 끓으는 물러레 ᄆᆞᆫ딱 다 그레 비와놔근에 국자로 닥닥닥 ᄍᆞᆺ는 거라. ᄍᆞᆺ으민 그것이 저 저베기만씩 다 끊어지주게. 궁둥ᄌᆞ베기.(그거는 물싹싹 끓으면 메밀가루에 그

끓는 물 넣어서 수저로 이렇게 이렇게 반죽하면 그거 반죽해서 다 되면 끓는 물에 몽땅 다 그리로 부어놓아서 국자로 닥닥닥 쪼는 거야. 쪼면 그것이 저 수제비 만큼씩 다 끊어지지. '궁둥ᄌᆞ베기'.) 05 [표선]

궁천: 귤 묘목 종류의 하나이다. // 지금은 뭐 이젠 그거 저거 다 지냥으로 버니까, 우린 밀감벳기 안 헴서. 궁천이라. 궁천.(지금은 뭐 이젠 그거 저거 다 자기대로 버니까, 우린 귤밖에 안 하고 있어. '궁천'이야. '궁천'.) 34 [구억]

궂다: 표준어에서 '날씨가 나쁘다, 언짢고 나쁘다'의 의미로 쓰이나 여기서는 힘들다는 뜻으로 쓰였다. // 복풀은이 잘도 궂어.(깨풀은 잘도 힘들어.) 11 [함덕]

궂인물: 고름이 빠진 종기 등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나 해산할 때 '양수' 따위를 가리킨다. // 첨 배도 크게 안 아프고 기자 궂인물만 콸콸허게 난에게.(첨 배도 크게 안 아프고 그저 '궂인물'만 콸콸하게 나서.) 06 [남원]

궂인물: 우도면에 소재한 지경이다. // 궂인물인디 그 빨레터주, 빨레터.('궂인물'인데 그 빨래터지, 빨래터.) 22 [우도]

궂인물항: 설거지를 했던 물 등 구정물은 넣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독을 말한다. 보통 돼지우리 바깥에 놓아서 구정물을 모아두는 역할을 한다. // 베꼇듼 궂인물항 놓곡.(바깥에는 '구정물독' 놓고.) 01 [도련]

권남다리: 권남이란 사람이 현재 웅포교가 세워지기 전 돌다리를 만들어 웅포천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는 유래가 있는 다리를 의미한다. // 권남다리 권 권씨 권남이라는 사람이 돌다리를 놩 건넛다고 헹 권남다리 이 보통사람들은 권남다리 권남다리 하거든 권이 아니고 그자 건너가는 다리 이렇게만 알주마는 그 통상적인 명칭은 권남이라.('권남다리' 권 권씨 권남이라는 사람이 돌다리를 놔서 건넜다고 해서 '권남다리' 이 보통사람들은 '권남다리' '권남다리' 하거든 권이 아니고 그저 건너가는 다리 이렇게만 알지만 그 통상적인 명칭은 '권남'이야.) 27 // 돌다리를 놔서 건넛다고 헤그넹 권남다리라는 명칭이 지금도 그 사용허고 잇어.(돌다리를 놔서 건넜다고 해서 '권남다리'라는 명칭이 지금도 그 사용하고 있어.) 27 [웅포]

권미떡: 표준어의 '골무떡'에 대응한다. // 그 권미떡 허는 집이가 종손 칩벳긴 안 허여. 종손 집만.(그 골무떡 하는 집이 종손 집밖에 안 해. 종손 집만.) 30 [노형]

권복: 아들 딸 상제 외에 조금 촌수가 먼 상제를 의미한다. // 당헌 상제 것만 그날 만들아도 권복덜은이 권복이엔 헌 건 촌이 ᄒᆞ꼼 나간 디이.(당한 상제 것만 그날 만들어도 친척들은 친척들이라고 한 건 촌이 조금 나간 데.) 11 [함덕]

궤: 위로 큰 바위가 절벽 따위로 가려지고 땅속으로 깊숙하게 패어 들어간 '굴'을 말한다. // 큰 궤는 보난 이서 가지고 간 보니깐 뭐 저 박쥐들도 만히 잇고, 살고, 거기 머이가 그 안네 이름 모를 돌에 이끼도 만히 껴고.(큰 굴은 보니까 있어서 가서 보니까 뭐 저 박쥐들도 많이 있고, 살고, 거기 뭐가 그 안에 이름 모를 돌에 이

끼도 많이 꼈고.) 15 // 아까 나 ᄀᆞᆯ은 사람덜 그 사람덜은 가민 궤 이름도 알곡, 목장에 일보레 갓단에 궤에 ᄌᆞᆷ자곡.(아까 내가 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면 '궤' 이름도 알고, 목장에 일보러 갔다가 '궤'에 잠자고.) 16 // 냇가에 그 궤, 궤 닮은 디들 대개 보니까 거기다가 뭐 멩지 ᄀᆞ튼 거이, 하간 그 저 집안에.(냇가에 그 '궤', '궤' 같은 데들 대개 보니까 거기다가 뭐 명주 같은 거, 온갖 그 저 집안에.) 29 // 궤는, 궤는 그 아래 자굴왓궤라고 큰 궤가 잇어.(궤는, 궤는 그 아래 '자굴왓궤'라고 큰 궤가 있어.) 36 [수망, 외도, 봉성, 하원]

궤깃반: 잔칫집이나 상갓집에서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돼지고기와 순대 등을 쟁반 따위에 담아 놓은 음식이다. '궤기'는 고기, '반'은 반기의 의미이다. 한 사람한테 보통 돼지고기 석 점과 순대 하나를 넣어 반기를 만들었다. 지역에 따라서 '두부'나 '묵적'을 더하기도 한다. // 동네잔치 허는 거 보믄. 막 이젠 궤긴 막 강. 그때는 도감 헨 궤기 썰엇는디, 허곡 궤깃반도 똑 궤깃반 허는 사름이 잇어, 똑.(동네잔치 하는 거 보면. 마구 이젠 고기는 막 가서. 그때는 도감 해서 고기 썰었는데, 하고 '궤깃반'도 똑 '궤깃반' 하는 사람이 있어, 똑.) 14 [성읍]

궤다: 표준어 '끓다'로, 여기서는 술 따위가 어느 정도 발효되어 끓는 것을 말한다. // 막 콱 허게 궤면은 그 쉰다리를 물 짜서, 누룩허고 밥 건지는 짜 불고 물만 헤 가지고 그 밀ᄀᆞ루로 ᄆᆞᆯ앙 허민 밀ᄀᆞ루 ᄀᆞ레에 ᄀᆞᆯ멍.(아주 콱 하게 끓으면 그 쉰다리를 물 짜서, 누룩하고 밥 건더기는 짜 버리고 물만 해 가지고 그 밀가루로 말아서 하면 밀가루 맷돌에 갈면서.) 06 [남원]

궤다: 표준어 '뒤끓다'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물 뀌이민 놓아근에 ᄃᆞ시 궤어가민 다 익어 가민 장 놔근에게 경 메역 놓고.(물 끓이면 넣어서 다시 끓여가면 다 익어 가면 장 넣어서 그렇게 미역 놓고.) 16 [하원]

궤물: 애월읍 하귀2리 지명으로 답동이라고도 한다. // 사삼사건은양, 우리 어린 때도 저 산목이옌 허영 이렇게 그건 사삼이 뭔지 모르는디, 그 저 ᄒᆞᆫ 일고여덟 살 쉐 멕이레 강 영 보믄, 아 저 수산봉 질로 궤물 저 어디 답동 그디 사름들이영 왕 그디 들엉양 수산봉 질로 와샤 와샤 와샤 허믄 야, 저 폭도 왐져.(사삼사건은요, 우리 어릴 때도 저 '산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건 사삼이 뭔지 모르는데, 그 저 한 일고여덟 살 소 먹이러 가서 이렇게 보면, 아 저 '수산봉' 길로 '궤물' 저 어디 '답동' 거기 사람들이랑 와서 거기 들어서, '수산봉' 길로 '와샤 와샤 와샤'하면 야, 저 폭도 오고 있어.) 28 [구엄]

궤물동산: 애월읍 봉성리 산간에 있는 오름이다. // ᄒᆞ꼼 가당 뭣에 탁 푸더지곡 허멍도 첨, 허단 보난 거의 날이 기미웅 붉아가난 저 저 큰 오름 뒤에 어디 저 궤물동산이옌 허연 그ᄁᆡ지 내려오멍 헨. 집이 뒷날 오멍 헷는디양, 이런 추억이 많고.(조금 가다가 뭐에 탁 넘어지고 하면서도 참, 하다가 보니까 거의 날이 '기미웅' 밝아가니까 저 저 큰 오름 뒤에 어디 저 '궤물동산'이라고 해서 그까지 내려오면서 했어. 집에 뒷날 오면서 했는데요, 이런 추억이 많고.) 28 [구엄]

궤미: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지명이다. // 당케옌 ᄒᆞᆫ 건 엿날 당케에, 그 도옌 ᄒᆞᆸ주예. 궤미옌 당케.('당케'라고 하는 건 옛날 '당케'에, 그 '도'라고 합지요. '궤미'라고 '당케'.) 17 [대평]

궤밀오름: 애월읍 봉성리 산간에 있는 오름이다. '궤물오름', '궤미오름'이라고도 한다. // 생수가 나서 소잇텃물. 생수가 나서. 에, 저쪽에 혹골물도 생수가 나고. 그보다 쪽게 나. 소이터물이 보면은 족게 나는디. 이, 그 소이터가 그 궤밀오름 앞에 있는데, 이 정짓내 바로.(생수가 나서 '소이텃물'. 생수가 나서. 에, 저쪽에 '혹골물'도 생수가 나고. 그보다 적게 나. '소이터물'이 보면은 적게 나는데. 이, 그 '소이터'가 그 '궤밀오름' 앞에 있는데, 이 '정짓내' 바로.) 36 [봉성]

궤ᄆᆞ루: 표선면 세화1리 1185번지 화산초등학교 동북쪽의 지명이다. 이 언덕배기에 동굴이 있어 붙여진 이름인데 마을 안길 확장으로 원형을 찾아볼 수 없다. // 요기가 궤ᄆᆞ루, 궤ᄆᆞ루 ᄒᆞᆸ주게.(요기가 '궤ᄆᆞ루', '궤ᄆᆞ루' 합지요.) 24 [세화]

궤발시리: 조의 일종이다. // 궤발시리라 한 조는 조끄트레 세 개가 달려.('궤발시리'라 하는 조는 끝에 세 개가 달려.) 03 [송당]

궤앞: 표선면 세화리 1563번지 남쪽 바닷가를 말한다. // 그 궤앞이엔 헌 듸벳긔 ᄆᆞᆯ망도 안 나. 이 바닷가에 이디도 ᄆᆞᆯ망 안 나곡, 저 궤앞이벳긔 ᄆᆞᆯ망도 안 나.(그 '궤앞'이라고 한 데밖에 모자반도 안 나. 이 바닷가에 여기도 모자반 안 나, 저 '궤앞'에밖에 모자반도 안 나.) 24 [세화]

궤야: 큰 바위나 절벽아래에 있는 깊숙하게 패어 들어간 굴을 말하는 '궤'의 다른 표현이다. // 자그마한 것 ᄀᆞᆯ앙은 굴, 좀 큰 건 보민 궤, 또 궤영도 ᄀᆞᆫ고 궤야 영도 ᄒᆞ곡, 게 그런 것이 수망리 내창에 하우다.(자그마한 것 보고는 굴, 좀 큰 건 보면 '궤', 또 '궤'라고도 말하고 '궤야' 이렇게도 말하고, 그래 그런 것이 '수망리' 내에 많아요.) 15 [수망]

궤에기: 바구니에 물기 있는 물건을 넣어 질 때에, 그 바구니 밑에 까는 깔개를 말한다. '궤야기', '궤약'이라고도 한다. // 엿날엔게 구덕 지고. 궤에기엔 헌 것이 셔, 궤에기엔 저 이 쉐가죽으로 만든 거.(옛날에는 바구니 지고. '궤에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 '궤에기'라고 저 이 소가죽으로 만든 거.) 20 // 요만씩 헌 거. 다 부터. 경헤근에 이젠 앗아뒁 이젠 그 물에서 시쳥, 건졍, 이젠 궤에기 헤근에 이제 물, 옷 젖지 못허게 헤영 지영 구덕에 담앙 경헹 지영 왕 이젠 항에.(요만큼씩 한 거. 다 붙어. 그래서 이젠 가져다가 이젠 그 물에서 씻어, 건져서, 이젠 '궤에기' 해서 이제 물, 옷 젖지 못하게 해서 져서 구덕에 담아서 그렇게 지어서 와서 이젠 항에.) 20 [고내]

궤약: 바구니에 물기 있는 물건을 넣어 질 때에, 그 바구니 밑에 까는 깔개를 말한다. '궤야기'라고도 한다. // 게믄 시 불 물 허연, 두 불 물 허연, 영 허영 빌레에 어느 정도 영 ᄒᆞ끔 하영 헤지믄 그땐 허벅으로 허영 대베기옌 허영 집더레 지어당 궤약이옌 허영 영 밧치는 것 이서서.(그러면 세 번 물 해서, 두 번 물 해서, 이렇게

해서 '빌레'에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해서 해지면 그땐 허벅으로 해서 '대베기'라고 해서 집에 져다가 '궤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받치는 것 있었어.) 28 [구엄]

궤열: 위로 큰 바위나 절벽 따위로 가리워지고, 땅 속으로 깊숙하게 패어 들어간 굴을 말한다. // 굴 못 판 사름은 산에 올라근에 어디 강 산에, 느 알아지크냐? 저 만장굴 닮은 궤열.(굴 못 판 사람은 산에 올라서 어디 가서 산에, 너 알겠니? 저 만장굴 같은 '궤열'.) 06 [남원]

궤염질: 한경면 신창리의 지명이다. // 저 궤염질러레 놔두민 질레에 것도 튿어 먹고 경허당.(저 '궤염질'로 놔두면 길에 것도 뜯어 먹고 그러다가.) 26 [신창]

궤우다: 액체가 뜨거워져서 끓기 시작하다, 끓이다는 의미로 쓰였다. // 재 놘 영 궤우면은 그게 몰싹ᄒᆞ게 죽어졍 그 뺄앙 그 저 풀 헤영 막 다듬은 거라.(재 넣어 이렇게 '궤우면'은 그게 몰씬하게 죽어져서 그 빨아서 그 저 풀 해서 막 다듬은 거야.) 15 [수망]

궨물: 성산읍 온평리에서 바닷가 등지에서 솟는 물이 모여서 고여 있는 물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다. // 궨물에 가 가지고 물때 맞촤 가지고 멕여.('궨물'에 가 가지고 물때 맞춰 가지고 먹여.) 23 [온평]

궵시: 제사상에 제물을 격식에 따라 그릇에 잘 올리다는 것으로 '궵시ᄒᆞ다, 궵시 올리다'처럼 쓰인다. // 떡국 설러뒁 따신 밥헤근에 떡이영 ᄆᆞᆫ딱 궵시헤영 올리고 밥 멩질 헤영 따시 또 허곡 헌디, 이젠 경은 안 허곡 그자 떡국헤근에 상에만 올려.(국 그만두고 다시는 밥해서 떡이랑 모두 '궵시'해서 올리고 밥 명절해서 다시 또 하고 하는데, 이젠 그렇게는 안 하고 그저 떡국해서 상에만 올려.) 13 // 문제엔 헌 건 상 싱거낭 궵씨 ᄆᆞᆫ딱 허민 따시 또 그디 궤기영 묵이영 다 ᄒᆞᆫ듸 놓곡 떡도 ᄒᆞᆫ 궵씨에 놓곡 헤근에 문전에 지내는 건 문전제주.(문제라고 한 건 상 차려 놓고 '궵씨' 모두 하면 다시 또 거기 고기랑 묵이랑 다 함께 놓고 떡도 한 '궵씨'에 놓고 해서 문전에 지내는 건 '문전제'지.) 13 // 우터레. 경허영 궵시 헹 영 올리주.(위로. 그래서 '궵시' 해서 이렇게 올리지.) 26 // 또 올리는, 상에 궵시 헐 때 시리떡 영 놔 낭.(또 올리는, 상에 '궵시' 할 때 시루떡 이렇게 놓고 나서.) 31 [삼달, 신창, 토평]

궹다리못: 표선면 표선리의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우리 궹다리못엔 헌디 밧 ᄒᆞᆫ 팔벡 평짜리 이제 멘네를 갈아나신디.(우리 '궹다리못'이라고 한 밭 한 팔백 평짜리 이제 면화를 갈아났는데.) 05 [표선]

궹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을 말한다. // 기냥 헤근에 기자 지민 등뗑이 누르떠 불엉 옷 벗어 대여 봐도 누르떠 불고 카지고 ᄆᆞᆫ 헌다게. 경허민 궹이 엇게시리, 등뗑이레 오는 거 궹이 엇게 헤근에 지영 오곡 헤낫저게. 저 솔오름ᄁᆞ지 강. 아이고, 나 낭 장시도 헤낫수다.(그냥 해서 그저 지면 등때기 눌러 버려서 옷 벗어 대어 봐도 눌러 버리고 타지고 모두 한다. 그러면 '궹이' 없게끔, 등때기에 오는 거 '궹이' 없게 해서 지어 오고 했었어. 저 '솔오름'까지 가서. 아이고, 나 나무 장사도

했었습니다.) 31 [토평]

귀국: '귀'를 넣어 끓인 국으로, '귀'는 '성게'를 말한다. '퀴'라고도 한다. // 성게국은 저, 요새 성게국 말도 그거 들어. 귀국 이라 귀국.(성게국은 저, 요새 성게국 말도 그거 들어. '귀국'이야 '귀국'. 06 // 건 여기선 귀국이엔 허여 귀.(건 여기선 성게국이라고 해 성게.) 16 [남원, 하원]

귀곶다: 모든 것이 빠짐없이 고루 갖추어 있다는 뜻이다. // 우리덜은 초상덜이 귀곶아부난 그런 걱정, 저런 걱정을 안 헨 헤신디도.(우리들은 조상들이 갖춰져 있어서 그런 걱정, 저런 걱정 안 해서 했는데도.) 11 // 이디 절허는 인 서일 놓고, 엇이민 하나도 허주만은 이녁 ᄌᆞ손덜이 귀곶이고 아들덜이 귀곶이민 아덜이 세성제민 성으로 셋아시로 족은아시로 저ᄁᆞ지 앚이민 안네 집사헐 이만 허민.(여기 절하는 이는 세 명을 놓고, 없으면 하나도 하지만 자기 자손들이 갖춰지고 아들들이 갖춰지면 아들이 삼형제면 형으로 둘째동생으로 막내동생으로 저기까지 앉으면 안에 집사할 사람만 하면.) 11 [함덕]

귀남동산: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감낭굴. 허금동산. 귀남동산. 앞동산. 경헨 ᄆᆞ을이 멧, 멧 동으론 잇인디 그때는 ᄒᆞᆫ 동에 멧 집 엇엇저.('감낭굴'. '허금동산'. '귀남동산'. '앞동산'. 그렇게 마을이 몇, 몇 동으로 있는데 그때는 한 동에 몇 집 없었어.) 31 [토평]

귀리: 애월읍 하귀리의 옛 이름이다. // 하귀, 옛날은 하귀ᄀᆞ라 귀리렌 헤낫주기, 귀리.('하귀', 옛날은 '하귀'보고 '귀리'라고 했었지, '귀리'.) 29 // 하귀. 옛날은 지금은 하귀고 옛날은 귀리엔 ᄀᆞᆯ아낫어.(하귀. 옛날은 지금은 하귀고 옛날은 '귀리'라고 말했었어.) 29 [외도]

귀릿장: 예전에 애월읍 하귀리에 섰던 오일장 이름이다. '귀리'는 애월읍 하귀리의 옛 이름이다. // 귀릿장에 가자. 귀릿장에 가자 경 허여나신디 우리 웨할머니네 질ᄀᆞ 집인디. 집 앞이 장을 사나신디. 영 허영 보믄 경 그 어려운 시절이난 바당에 ᄆᆞᆷ도 막 헤영 올랑 허민 그거 허영 헤여당 그 장터에 막 ᄆᆞᆯ리왕이.('귀릿장'에 가자. '귀릿장'에 가자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외할머니네 길가 집인데. 집 앞에 장을 섰었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 그렇게 그 어려운 시절이니까 바다에 모자반도 막 해서 올라서 하면 그거 해서 해다가 그 장터에 막 말려서.) 29 // 이, 귀릿장. 하, 하귀 귀릿장에 그 장 사낫어게.(이, '귀릿장'. 하, 하귀 '귀릿장'에 그 장 섰었어.) 29 [외도]

귀마리: 표준어 '발목'의 의미이다. 여기에서는 쟁깃술의 끝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게 멍에에 끼와근에게 줄로 ᄌᆞᆯ라메여근에게, 접게 줄 ᄒᆞ영 ᄌᆞᆯ라메여근에, 경 ᄒᆞ영 두에서 또로 귀마리, 저 장기 귀마리, 그 저 앞 코지에 ᄒᆞ여근에 저 ᄌᆞᆯ라메는 노 잇주게.(그거 멍에에 끼워서 줄로 잘라매어서, 목대 줄 해서 잘라매어서, 그렇게 해서 뒤에서 따로 '귀마리', 저 쟁기 '귀마리', 그 저 앞 코에 해서 잘라매는 참바 있지.) 17 [대평]

귀양풀이: 사람이 죽어 장사를 치르고 난 뒤에 치르는 굿이다. // 귀양풀이도 안 홉디다, 어떤 집의덜은, 심방 빌어당 귀양풀이도 안 ᄒᆞ고.('귀양풀이'도 안 합디다, 어떤 집들은. 무당 빌어다가 '귀양풀이'도 안 하고.) 17 [대평]

귀자귀: 날이 있는 쪽이 넓적한 자귀를 말한다. // 젤 필요한 게 귀자귀라고 한 것이 잇어. 귀자귀. 이런 통나무 가져오민 영 바로 세워주는 거 까까주는 거.(젤 필요한 게 귀자귀라고 한 것이 있어. 귀자귀. 이런 통나무 가져오면 이렇게 바로 세워주는 거 깎아주는 거.) 05 // 또 까끄는 건 귀자귀, 귀자귀. 큰 나무 가지고 영 가까 내는 건. 귀자귀, 자귀, 톱, 끌.(또 깎는 건 귀자귀, 귀자귀. 큰 나무 가지고 이렇게 깎아 내는 건. 귀자귀, 자귀, 톱, 끌) 06 // 엿날 목수덜은 가졍뎅기는 게 톱허고. 귀자귀허고. 손자귀허곡. 고분자귀허고 먹통허고. 돌끌허고 저 낭끌허곡. 것벳긔 안 가졍뎅겻어.(옛날 목수들은 가져다니는 게 톱하고. '귀자귀'하고. 손자귀하고. '곱자귀'하고 먹통하고. '돌끌'하고 저 나무끌하고. 것밖에 안 가져다녔어.) 14 // 또 이 저 뭐 낭 까끄는 귀자귀.(또 이 저 뭐 나무 깎는 '귀자귀'.) 24 [남원, 성읍. 세화, 표선]

귀클돌: 마루를 놓기 위하여 굵은 나무로 가로세로 귀클을 짜는데 나무 대신에 돌을 놓은 것을 말한다. // 귀클돌, 귀클돌 허멍 저추룩 돌 헤다근에 노프게 이만큼 노프게 놩. 이 우트레 마리 놓주.('귀클돌', '귀클돌' 하면서 저렇게 돌 해다가 높게 이만큼 높게 놔서. 이 위에 마루 놓지.) 25 [태흥]

규슈: 일본의 지명으로 일본을 이루고 있는 섬 중 하나이다. 4개의 큰 섬 중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3번째로 큰 섬이다. // 규슈 지방으로 이 제주도가 그 어떻게 뒈냐, 어떻게 뒈냐 물으니까 규슈 지방허고 제주도가 기후가 같습니다.(규슈 지방으로 이 제주도가 그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물으니까 규슈 지방하고 제주도가 기후가 같습니다.) 12 [한동]

그끄렁내: 짐승의 털 따위가 타는 냄새를 말한다. // 궤기에 놩근에 그걸 구면은 그끄렁내 나거든.(고기에 놔서 그걸 구우면 '그끄렁내' 나거든.) 29 [외도]

그라스: 유리컵인 '글라스(glass)'를 일본어식(グラス)으로 발음한 것이다. // 저 뭣고 저 그라스, 그라스로 딱 찍으난. 옛날엔 주로 손으로 만들아 곤떡을.(저 뭐지 저 글라스, 글라스로 딱 찍으니까. 옛날엔 주로 손으로 만들어 흰떡을.) 26 [신창]

그랑그랑: 흙 조각 따위가 여럿 매달린 모양이다. // 잇당 누구 주고, 이딘 앙토도 안 ᄒᆞᆫ 그랑그랑 ᄒᆞᆫ 디라.(있다가 누구 주고, 여기는 앙토도 안 한 '그랑그랑' 한 데야.) 17 [대평]

그르: 농사를 지었던 자리를 말한다. // 봄에, 놀렷다가 밧을 놀렷다가 그 그르에 산듸 불려.(봄에, 놀렸다가 밭을 놀렸다가 그 '그르'에 밭벼 밟아.) 21 // 콩 그르나 뭐 보리 그르나 건 뭐 뒈는 대로.(콩 '그르'나 뭐 보리 갈았던 데나 건 뭐 되는 대로.) 21 // 감저 써는 기계가 잇어. 걸로 썰어 가지고 저, 감저 파난 그 그르에.

(고구마 써는 기계가 있어. 걸로 썰어 가지고 저, 고구마 캤던 그 그루에.) 36 [봉성, 신촌]

그르후제: '뒷날의 어느 때'를 말한다. 이를 달리 '그지후제', '글지후제'라고도 한다. // 뻿데기는 그르후제 헷주.(절간고구마는 '그르후제' 했지.) 24 [세화]

그물씰: 그물을 짜는 실이다. // 그물은 영 건 웨정시대 나온 거세긴디 그물씰 그 타당이.(그물은 이렇게 건 일제강점기 나온 거시긴데 '그물씰' 그 타다가.) 29 [외도]

그슨새: 지붕을 덮었던 묵은 띠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그신새', '기신새'라고 한다. // 경 허영 헤영 헐 때 그 ᄆᆞᆯ덜이 오라근에 그 비 온 때영 그 방엣간에 메영 허믄 오죽 베고파사 경 허여. 새로 그 방에 짛는 그 집을 짓을 거 아니. 짓언 경 허연 허여신디. 그슨샐 막 빠먹언게.(그렇게 해서 해서 할 때 그 말들이 와서 그 비 올 때랑 그 방앗간에 매서 하면 오죽 배고파야 그렇게 해. 새로 그 방아 찧는 그 집을 지을 거 아니. 지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슨새'를 막 빼먹었어.) 29 // 마당에 헉 ᄀᆞᆯ앙인에 이젠 저 다른 데 ᄒᆞᆨ 족으민 ᄋᆞ져당 시껑 마당에 놩 이젠 그 슨새나 뭐 찝 ᄀᆞ튼 거 보리낭이나 놩인에 쉐로 막 ᄇᆞᆯ려, ᄒᆞᆨ을.(마당에 흙 깔아서 이젠 저 다른 데 흙 적으면 가져다가 실어서 마당에 놔서 이젠 '그슨새'나 뭐 짚 같은 거 보릿대나 놔서 소도 막 밟아, 흙을.) 33 // 그슨새도 짇을커 다 헤 불고. 새로, 이거 저, 목수 빌언 계약헹 지은 디. 이거.('그슨새'도 땔감 다 해 버리고. 새로, 이거 저, 목수 빌려서 계약해서 지은 데. 이거.) 36 [봉성, 외도, 인성]

그신새: 지붕을 덮었던 묵은 띠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기신새'라고도 한다. // 그신새는 흑이 잘 달라붙지 않거든. 육지서는 나록찝을 놓는다고 허는데, 여기선 그런 거는 엇이니까.('그신새'는 흙이 잘 달라붙지 않거든. 육지서는 볏짚을 놓는다고 하는데, 여기선 그런 거는 없으니까.) 01 // 초집 그거 그신새 서끈 것ᄀᆞ라 그신새엔. 새 서꺼분 거ᄀᆞ라.(초가집 그거 '그신새' 섞은 것보고 '그신새'라고. 띠 섞어 버린 것보고.) 02 // 횃불은양 이 옛날엔 삼헐 땐 삼대도 허고 시방 새 ᄀᆞ뜬 거 그신새 집 일어난 새 ᄂᆞ린 거, 그런 거 헤근에 요만썩 헤근에 ᄒᆞᆫ 뭄썩 졸라메어.(횃불은요 이 옛날에는 삼할 때는 삼대도 하고 요즘 새 같은 거 '그신새' 집 일었던 새 내린 거, 그런 거 해서 요만큼씩 해서 한 뼘씩 졸라매.) 13 // 낙지는 옛날은 저 뭣고, 장작. 장작이엔 헌 건 소낭 ᄀᆞ는ᄀᆞ는 이만 씩 깨영도 허고 그신새. 초가집 그 튿은 거 허영 무껑. 겐 그걸로 무껑 갓주게.(낙지는 옛날은 저 뭐지, 장작. 장작이라고 하는 건 소나무 가늘디가는 이만큼씩 깨서도 하고 '그신새'. 초가집 그 뜯은 거 해서 묶어서. 그래서 그걸로 묶어서 갔지.) 26 [도련, 삼달, 선흘, 신창, 하원]

그찌우찌: 그럭저럭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아침엔 가단게 그 동쪽으로 군인들이 탁 거 재수 없게 닥치니까, 하르버진 하르버지대로 뛰고 나는 나대로 뛰고, 거 그놈들이 뒤에서 총을 ᄒᆞᆫ 멧 번 쏴도, 거 뭐 위협적으로 쐈는지, 우릴 향헤서 쏴신지, 그찌우찌 우린 살앗으니까.(아침엔 가다가 그 동쪽으로 군인들이 탁 거 재수

없게 닥치니까, 할아버진 할아버지대로 뛰고 나는 나대로 뛰고, 거 그놈들이 뒤에서 총을 한 몇 번 쏴도, 거 뭐 위협적으로 쐈는지, 우릴 향해서 쐈는지, '그찌 우찌' 우린 살았으니까.) 15 [수망]

그치다: 표준어 '끊다, 자르다'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사름덜 궨당덜이여 그자 ᄋᆞ 낭 베레, 낭 그치레 집 낭 그치레 갈 땐 가근에 수눌음으로 강 ᄀᆞ찌 헤줘.(사람들 권당들이다 그저 오 나무 베러, 나무 자르러 집 나무 자르러 갈 땐 가서 품앗이로 가서 같이 해줘.) 16 [하원]

근다: 발톱과 같이 뾰족한 물건으로 땅을 긁거나 널어놓은 물건을 긁어당긴다는 의미이다. // 흑을 막 지프게 갈아놩 물 질멍 다 흑 영영 올려놩 요레 물 비와놩 또 쉐스렁이로 요추룩 근어.(흙을 아주 깊게 갈아놔서 물 길면서 다 흙 이렇게 이렇게 올려놔서 요리 물 부어놔서 또 쇠스랑으로 요렇게 '근어'.) 25 [태흥]

근당허다: 정해진 목표나 목적지에 가까이 이르는 것을 말한다. // 막, 막펜진 저 마지막 사둔칩이 가 오는 거. 잔치 딱 근당헤영.(막, '막펜지'는 저 마지막 사돈집에 가 오는 거. 잔치 딱 '근당헤서'.) 06 [남원]

근은대: 나무로 된 앞 부분을 톱니 모양으로 만들어서 곡식을 젓거나 그러모을 때 사용하는 도구인 고무래의 제주어이다. // 굴묵 짇는 것도 근은대에 ᄀᆞᆯ앗주게. 굴묵근은대 날레 젓는 근은대.('굴묵' 때는 것도 '근은대'라고 말했지. '굴묵근은대' '날레 젓는 근은대'.) 14 [성읍]

금덕: 애월읍 '유수암리'의 옛 이름이다. // 저 우리 할머니네 애월면 금덕, 그 유수암엔 헌디 살아신디. 그때 이 외도만 솜 테우는 기계가 셔난게.(저 우리 할머니네 애월면 금덕, 그 유수암이라고 한 데 살았었는데. 그때 이 외도만 솜 타는 기계가 있었어.) 29 // 거 정동이라. 산에 강 걷어 오는 거, 거 금덕 쪽에 많이 헹 ᄑᆞᆯ더라.(거 댕댕이덩굴이야. 산에 가서 걷어 오는 거, 거 금덕 쪽에 많이 해서 팔더라.) 30 [노형, 외도]

금동막: 사삼사건 때 대림리 일대에서 보초 섰던 곳이다. // 거 ᄉᆞ삼 때난 그거 잇고 일제시대 때는 방범용 금동막이란 게 잇엇수다.(거 사삼 때니까 그거 있고 일제시대 때는 방범용 '금동막'이란 게 있었습니다.) 35 // 금동막이라 헤 가지고 거 젊은 사름덜이라든지 남ᄌᆞ덜 겨울철이 뒈면 그 저 막 짓어 앚엉 불 살롸 놩 직허당, 밤이 도둑이나 들카부덴 돌아보곡 헤십주기. 그것이 금동막이렌 게 잇어십주게.('금동막'이라 해 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남자들 겨울철이 되면 그 저 막 지어서 앉아서 불 때어 놔서 지키다가, 밤에 도둑이나 들까 싶어서 돌아보고 했습지요. 그것이 '금동막'이란 게 있었습지요.) 35 [대림]

금승: '하릅'으로, 마소의 한 살이다. // 어린 쉐에는 뭐 금승하면 금승에도 이제, 그 검게 나민 검은 송아지 낳저.(어린 소는 뭐 하릅하면 하릅에도 이제, 그 검게 낳으면 검은 송아지 낳았다.) 01 // 금승 다간 사릅 나릅 영 영 헤영 그 다음부터는.('금승' 두습 사릅 나릅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16 // ᄒᆞᆫ ᄉᆞᆯ은 처

음 난 거, 금승이엔 ᄒᆞ고, 또 일 년 넘은 건 다간 송아기옌, 사릅 송아기, 나릅 송아기 경.(한 살은 처음 난 거, '금승'이라고 하고, 또 일 년 넘은 건 '다간' 송아지라고, '사릅' 송아지, '나릅' 송아지 그렇게.) 17 [고성, 대평, 도련, 신도, 하원]

금승ᄆᆞ셍이: 한 살 된 망아지를 말한다. '금승'은 표준어 '하릅'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 곧 난 거 금승ᄆᆞ셍이엔 허고.(곧 난 거 '금승ᄆᆞ셍이'라고 하고.) 29 [외도]

금승ᄆᆞ아지: 한 살 된 망아지를 말한다. '금승'은 표준어 '하릅'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 나이는 곧 나민 금승ᄆᆞ아지.(나이는 곧 낳으면 하릅망아지.) 01 [도련]

금승송아기: 한 살 된 송아지를 말한다. '금승'은 표준어 '하릅'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 금승송아기옌 곧 난 거. 일 년 뒌 거.(하릅송아지라고 곧 난 거. 일 년 된 거.) 18 [신도]

금전초: '비단풀'의 다른 이름이다. 제주어로는 '빈네쿨'이라고 한다. // 요즘 그 저 비단풀엔 허는 거 뭣고, 저 금전초. 거 이름, 검질 이름 모르겟는디.(요즘 그 저 비단풀이라고 하는 거 뭐지, 저 '금전초'. 거 이름, 김 이름 모르겠는데.) 01 [도련]

급피: 가장 이르게 익은 곡식을 일컫는 말이다. // 그 급피라고 헤 가지고 곡식을 새 곡식 옛날 조.(그 '급피'라고 해 가지고 곡식을 새 곡식 옛날 조.) 23 [온평]

기계: 여기에서는 방앗간의 떡을 만드는 기계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떡을 손으로 만들 때와 '기계'를 이용하여 떡을 만드는 것을 대비해서 하는 말이다. // ᄆᆞᆫ딱 저 기계에 강 맞추와 오는 따문에 무신 송편덜토 허민 기계로 나온 거 기자 똥글락헌 거만 나오곡.(몽땅 저 기계에 가서 맞춰 오는 때문에 무슨 송편들도 하면 기계로 나온 거 그저 동그란 거만 나오고.) 23 [온평]

기계물질: 여기에서 바다에서 헬멧식 잠수기를 이용하여 전복 따위를 따는 일을 말한다. // 각시가 어 재산이 엇이난 물질을 그 무신, 기계물질을 헷어.(각시가 어 재산이 없으니까 물질을 그 무슨, '기계물질'을 했어.) 23 [온평]

기계집: 솜 타는 집의 의미로 쓰였다. // 이젠 기계집이 다 시난 ᄇᆞᆯ르는 거 태와당 요거보다 ᄆᆞᆯ앙 옷 멘들젠 ᄒᆞ민 태우는 것도 그거 ᄇᆞᆯ린 거 짖어지게 북삭하게 가레기 찔르고 허영 우리도 헤낫저.(이젠 '기계집'이 다 있으니까 바르는 거 타다가 요거보다 말라 옷 만들려고 하면 타는 것도 그거 바른 거 찢어지게 북삭하게 가락찌르고 해서 우리도 했었지.) 10 [월령]

기곗방: 정미소를 가리킨다. // 몰라 요즘 기곗방에 강 맞춰 허는 건 헐 말 엇고 게난.(몰라 요즘 '기곗방'에 가서 맞춰서 하는 건 할 말 없고 그러니까.) 06 [남원]

기고데: 일본어 '기(き)'+'고데(こて)' 구성으로, '기'는 나무, '고데'는 쇠손을 말한다. 즉 나무손을 가리키는 일본어이다. // 다니단에 그 말 들어봐실 거라. 낭, 낭손을 기고데엔 헨 들어봐실 걸.(다니다가 그 말 들어봤을 거야. 나무, 나무손을 '기고데'라고 해서 들어봤을 걸.) 01 [도련]

기릅다: 어떤 것을 먹거나 마시고 싶다는 뜻이다. // 게민양 물 ᄀᆞ뜬 거 기루우민양, 그디 양 물이 토록토록토록 떨어지는, 계속 떨어지는 디가 십디다.(그러면 물 같은 거 '기르우면'요, 거기요 물이 '토록토록토록' 떨어지는, 계속 떨어지는 데가 있었습니다.) 08 [동광]

기리가에: 일본어 'きりかえ'로 '바꿈, 전환'의 뜻이다. 여기서는 비자를 연장했음을 의미한다. // 처음에 간 때는 그 가면은 한 번, 두 번 삼 개월씩 기리가에헤서 저 한 육 개월 간양.(처음에 간 때는 그 가면 한 번, 두 번 삼 개월씩 연장해서 저 한 육 개월 갔어요.) 20 [고내]

기리보시: 일본어 'きりぼし'인데 무나 고구마 등 가늘게 썰어 말린 것을 말한다. // 일제 때에 기리보시라고 그때도 이서낫주.(일제강점기 때에 '기리보시'라고 그때도 있었었지.) 24 [세화]

기멩: '기명' 즉 살림살이에 쓰는 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발화자는 밭농사에 쓰이는 연장 등을 통틀어 말하고 있다. // 예를 들어근에 밧디 강 농사허젠 헤도 기멩 살 돈도 엇곡 경허난.(예를 들어서 밭에 가서 농사지으려고 해도 '기멩' 살 돈도 없고 그러니까.) 07 [보목]

기벡이밧: 기백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지명이다. // 또 어떠난산디 기벡이밧이엔 또 헌 거세기가 셔낫어.(또 어때서인지 '기벡이밧'이라고 또 한 거시기가 있었어.) 29 [외도]

기스나다: 일본어와 국어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어휘이다. 일본어 'きず'로 '흠·자국'의 뜻이기 때문에 '흠이 나다, 자국 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 끊어질 수가 잇으믄 끊어져 분 거는 반값도 안 가주게. 기스낫덴 헤근에.(끊어질 수가 있으면 끊어져 버린 거는 반값도 안 가지. 상처 났다고 해서.) 05 // 이제 지금은 못 돌게 헐 거우다. 이 저 아스팔트 ᄆᆞᆫ 저 무시거 기스난덴 허영.(이제 지금은 못 돌게 할 겁니다. 이 저 아스팔트 모두 저 무엇 자국 난다고 해서.) 32 [덕수, 표선]

기신새: 초가지붕을 덮었던 '묵은 띠'를 말한다. '그슨새', '그신새'라고도 한다. // 기신새, 새 지붕에 그 새 말고 그 집 일 때 영 영 저 ᄒᆞ꼼 높은 거 영 내리운 거 그거 가져근에 막 무껑. 이만은허게 무껑 이만은 ᄉᆞᆯ지게 이만하게 무꺼근에 져아져 강은에 그것에 불 부쪄근에 그거 영 영 영 비추멍 그 ᄀᆞ메기 잡아낫어.('기신새', 띠 지붕에 그 띠 말고 그 집 일 때 이렇게 이렇게 저 조금 높은 거 이렇게 내린 거 그거 가져서 막 묶어서. 이만하게 묶어서 이만큼 살찌게 이만하게 묶어서 져 가져 가서 그것에 불 붙여서 그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비추면서 그 개울타리고 둥 잡았었어.) 05 // 그다음엔 저 묵은 집 튿어나민은 기신새렌 ᄒᆞᆫ 것이 이서, 기신새.(그다음엔 저 묵은 집 뜯어나면 묵은 띠라고 한 것이 있어, 묵은 띠.) 07 // 건 밤이 낙지 잡는 건, 밤이 가멍 구젱기도 잡아오곡, 보말도 막 ᄉᆞ뭇 낭은에 훳불에 훳불 쌍 영 허여근에 새영 기신새영 무꺼근에 영 헤영 들르믄 메꾸럭이엔 ᄒᆞᆫ다, 것ᄀᆞ라. 이젠 낙지옌 허주만은 메꾸럭.(건 밤에 낙지 잡는 건, 밤이 가면서

소라도 잡아오고, 보말도 막 사뭇 나무 해서는 횃불에 횃불 싸서 이렇게 해서 새랑 '기신새'랑 묶어서 이렇게 해서 들면 '메꾸럭'이라고 한다, 그것보고. 이젠 낙지라고 하지만 낙지.) 10 [보목, 월령, 표선]

기어나다: 좋지 않은 일로 집을 나가다는 말이나, 여기서는 '뛰쳐나가다'의 의미로 쓰였다. // 담 야트게 싸면은 도새기가 기어나근엥에 배고프민양 배고프민 기어나근엥에 집 두에 기냥 막 뎅이멍 그자 그 주둥이로 막 땅을 갈아 놉니다.(담 얕게 쌓으면 돼지가 '기어나서' 배고프면요 배고프면 '기어나서' 집 뒤에 그냥 막 다니며 그저 그 주둥이로 막 땅을 갈아 놉니다.) 15 [수망]

기운: 안덕면 대평리 바닷가에 원담이 있었던 지명이다. // 저 기운이옌 ᄒᆞᆫ 듸, 원담이옌 ᄒᆞᆫ 거 잇어낫는디, 다 이거 바당의 멧 번 쎈 날은 자꾸 멜라져근에 끗어가곡, 끗어가곡 ᄒᆞ연 엇어져.(저 '기운'이라고 한 데, '원담'이라고 한 거 있었었는데, 다 이거 바다가 몇 번 센 날은 자꾸 무너져서 떠내려가고, 떠내려가고 해서 없어져.) 17 [대평]

기움창: 안덕면 대평리의 한 지명이다. // 이 기움창 안네서도 가오리, 아 고기 쏘으레 가단 ᄇᆞ레보난에, 아 모살 여옌 ᄒᆞᆫ 여 우에 거무룽ᄒᆞᆫ 것이 덕석 모냥으로 협섹이 업더진 것이 잇어.(이 '기움창' 안에서도 가오리, 아 고기 쏘러 가다가 봐보니까, 아 모래 '여'라고 한 '여' 위에 거무스름한 것이 멍석 모양으로 '협섹이' 엎어진 것이 있어.) 17 [대평]

기웅환: '기응환'으로 어린아이가 밤에 울고 보채거나 감기 등에 먹였던 약을 말한다. // 옛날에사. 침이나 놓곡 그자 할망상 놓고 기웅환. 이 아기 약 멕이는 약은 그자 기웅환. 경헤라, 우리도 허여 보민.(옛날에야. 침이나 놓고 그저 '할망상' 놓고 '기웅환'. 이 아기 약 먹이는 약은 그저 '기웅환'. 그러더라, 우리도 해 보면.) 26 [신창]

기주: 증편 같은 것을 만들 때 넣어서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술이다. // 기주엔 헌 건 밥이, 밥헹 누룩 놓곡 헤영이 시큼허게 멘들앙이 그거 시끔헤가민 걸 걸러.(기주라고 한 건 밥이, 밥해서 누룩 놓고 해서 시큼하게 만들어서 그거 시큼해가면 그걸 걸러.) 11 // 그 기주 헹으네 ᄀᆞ찌 영 허믄 이제 거 이제 ᄀᆞ뜬 막걸리 시난, 옛날은 집이서 기주협주게.(그 '기주' 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이제 거 이제 같은 막걸리 있으니까, 옛날은 집에서 '기주' 하지요.) 28 [구엄, 함덕]

기주떡: 밀가루 따위의 가루에 기주를 넣어서 부풀게 한 후에 찐 떡을 말한다. 증편에 해당하는 말이다. // 막 부벼 놩 다시 그레 기주 놩 이젠 막 찌는 거라. 찌엉 북세기 헤영 놔두면 그게 부겍이 궤민 이젠 그거 앗아네영, 이젠 저 무시거옌 허느니? 암반에 놩은에 이제 영, 영 헤영, 기주떡.(막 비벼 놔서 다시 그리로 기주 넣어서 이젠 막 찧는 거야. 찧어서 부각이 해서 놔두면 그게 부각이 괴면 이제 그거 가져내서, 이제 저 뭐라고 하느냐? 암반에 놔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주떡'.) 19 // 옛날엔 그 기주떡 헤근에 안 피민 낭웨렌 허영.(옛날엔 그 '기주떡'

해서 안 부풀면 ‘낭웨’라고 해서.) 23 [온평, 청수]

기지: 일본어 ‘きじ(生地)’로 ‘옷감, 천’이라는 의미이다. // 어떤 기지든지. 물에 담그민 어떤 옷감이든지 다 줄어들어.(어떤 천이든지. 물에 담그면 어떤 옷감이든지 다 줄어들어.) 01 // 까망헌 유단으로이 요런, 요런 천은 요 색깔거추룩 헌 걸로 요렇게 똑 이런 모양으로 요렇게이 ᄆᆞᆯ라서 기지를 그렇게 헤영 보선거추룩 만들앙.(까만 유단으로 요런, 요런 천은 요 색깔처럼 한 걸로 요렇게 꼭 이런 모양으로 요렇게 말아서 천을 그렇게 해서 버선처럼 만들어서.) 20 // 윤디판이 셧주게. 널짝판 요만헌 거 허영 솜 다 싸. 경허영 기지 허영. 경허여근에 허엿주.(인두판이 있지. 널빤지 요만한 거 해서 솜 다 싸. 그래서 천 해서. 그래서 했지.) 26 // ᄇᆞ름, ᄇᆞ름 그 저 기지로 허영은에 구둘에 갯것풀 헤근에 ᄇᆞᆯ라. 다른 풀은 안 뒈.(‘ᄇᆞ름’, ‘ᄇᆞ름’ 그 저 천으로 해서 방에 바다풀 해서 발라. 다른 풀은 안 돼.) 30 [고내, 노형, 도련, 덕수, 신창, 함덕]

기지: 일본어 ‘きじ(生地)’로 본바탕, 천의 의미이다. 여기에서는 ‘조개솔편’의 재료를 의미하는 말로 쓰였다. // 무슨 기지가 잇어야 만들주게, 조개솔편은.(무슨 재료가 있어야 만들지, ‘조개솔편’은.) 23 [온평]

ᄆᆞ꾸다: 소나 말을 들에 놓아 살피면서 먹이는 것을 말한다. // 밧디는 끗어가도. 쉐 ᄆᆞ꾸레. 쉐 ᄆᆞ꽈야지.(밭에는 끌어가도. 소 먹이러. 소 먹여야지.) 06 [남원]

ᄆᆞ는구덕: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짠 장방형 바구니를 말한다. ‘ᄆᆞ는대구덕’, ‘ᄀᆞᆫ대구덕’이라고도 한다. // ᄆᆞ는구덕이란 것은 대로, 대로 거 만든 건데 대, 그 대구덕이 좀 헐면은 헐어 가면은 헐어 가면 옷 같은 거, 흔 옷 거튼 거 그거 쪼가리 헤 가지고 부쪄근에가 경허민 그거 막 오래 쓰주게.(‘ᄆᆞ는구덕’이란 것은 대로, 대로 거 만든 건데 대, 그 대바구니 좀 헐면 헐어 가면 헐어 가면 옷 같은 거, 헌 옷 같은 거 그거 쪼가리 해 가지고 붙여서 그러면 그거 아주 오래 쓰지.) 12 [한동]

ᄆᆞ는ᄆᆞ는: ‘ᄆᆞ늘다’에서 나온 말로 가는 것을 강조하여 가리키는 말이다. // 굴에 ᄆᆞ는ᄆᆞ는 막대기를 들어가는 구멍에.(굴에 ‘ᄆᆞ는ᄆᆞ는’ 막대기를 들어가는 구멍에.) 03 [송당]

ᄆᆞ는대구덕: 아주 가늘고 긴 대오리로 엮어 만든 바구니이다. 적은 양의 물건을 넣어 여자들이 허리에 끼고 운반해 다닌다. // 그게 어디 뎅길 때 웨출 뎅길 때 사용헤난 ᄆᆞ는대구덕.(그게 어디 다닐 때 외출 다닐 때 사용했던 ‘가는대구덕’.) 12 // ᄆᆞ는대구덕에 사돈칩읜 ᄒᆞᆫ 말, 동네 사름은 보리ᄊᆞᆯ 두 뒈.(‘ᄆᆞ는대구덕’에 사돈집에는 한 말, 동네 사람은 보리쌀 두 되.) 17 // 경ᄒᆞ고 사둔집의 갈 ᄆᆞ는대구덕 부주행 갈 구덕 상 놔둡니께.(그리고 사돈집에 갈 ‘ᄆᆞ는대구덕’ 부조해서 갈 바구니 사서 놔둡니다.) 17 [대평, 한동]

ᄆᆞ는대바구리: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짠 장방형 바구니를 말한다. ‘ᄆᆞ는대구덕’, ‘ᄀᆞᆫ대구덕’이라고도 한다. // 빵떡 이제 보름떡 헹 궁글궁글 놩 ᄆᆞ는대바구리에 재영 뎅

길 때라. 떡 ᄒᆞᆫ 열 몇 개쯤 들엉 오곡 허난.(빵떡 이제 보름떡 해서 둥글둥글 놔서 'ᄆᆞ는대바구리'에 쟁여서 다닐 때야. 떡 한 열 몇 개쯤 들어서 오고 하니까.) 26 [신창]

ᄆᆞ는체: 체의 한 종류로 올이 가늘고 구멍이 잔 체를 말한다. // ᄆᆞ는체는 건 총으로 만든 거주, ᄆᆞᆯ총으로 다 멘든 거.(가는체는 건 총으로 만든 거지, 말총으로 다 만든 거.) 12 [한동]

ᄆᆞ라지: 'ᄀᆞ라지'의 제주어로 볏과의 한해살이풀이다. 'ᄆᆞ라지, ᄆᆞ랏, ᄆᆞ라조'라고도 한다. // ᄆᆞ라지엔 허는 것도 잇고.(가라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09 [고산]

ᄆᆞ랏: 'ᄀᆞ라지'의 제주어로 볏과의 한해살이풀이다. 'ᄆᆞ라지, ᄆᆞ랏, ᄆᆞ라조'라고도 한다. // ᄆᆞ랑조라는 게 ᄆᆞ랏 닮은 건데.('ᄆᆞ랑조'라는 게 'ᄆᆞ랏' 닮은 것인데.) 03 [송당]

ᄆᆞ랏쉐: 표준어 가라지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줄기와 잎은 조와 비슷하고 이삭은 강아지풀과 비슷한 볏과의 한해살이풀이다. // ᄆᆞ랏 ᄆᆞ랏쉐엔 ᄒᆞᆫ 게 잇어 조 코고리 좃 닮은 거.(가라지 'ᄆᆞ랏쉐'라고 한 게 있어, 조 이삭 조 닮은 거.) 16 [하원]

ᄆᆞ랑조: 좁쌀의 한 종류로, 보통 조보다 털이 많은 좁쌀이라고 한다. // 게난 송당에서 제일 ᄆᆞᆫ여 농사를 짓기 시작헌 것이 ᄆᆞ랑조하고 피.(그러니까 송당에서 제일 먼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 'ᄆᆞ랑조'하고 피.) 03 // 이렇게 이시난에. 뭐 ᄆᆞ랑조엔 헌 것도 잇고.(이렇게 있으니까. 뭐 'ᄆᆞ랑조'라고 한 것도 있고.) 04 // 발강 헤놓니까 밥, 첨 뽄세가 엇어도 원 원 시대가 그런 시대난 그거 그렇게 헤연. 조 철 나민 경, ᄆᆞ랑조라는 건.(발가니까 밥, 첨 본새가 없어도 원 원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거 그렇게 했어. 조 철 되면 그렇게, 'ᄆᆞ랑조'라는 건.) 06 // ᄆᆞ물 갈고 피 갈고 그거 ᄆᆞ랑좁썰이옌, ᄆᆞ랑조엔 헌 게 잇어.(메밀 갈고 피 갈고 그거 'ᄆᆞ랑좁썰'이라고, 'ᄆᆞ랑조'라고 한 게 있어.) 14 [고성, 남원, 성읍, 송당]

ᄆᆞ랑조팝: 'ᄆᆞ랑조'로 지은 밥이다. // 경헌디 아주 퀘퀘묵은 옛날은 육지는 모른디 제주돈 못사니까 피밥, ᄆᆞ랑조팝, 그대로 조팝.(그런데 아주 케케묵은 옛날은 육지는 모르는데 제주돈 못사니까 피밥, 'ᄆᆞ랑조'밥, 그대로 조밥.) 06 [남원]

ᄆᆞ랑좁썰: 조의 일종인 'ᄆᆞ랑조'에서 수확한 쌀이다. 좁쌀알이 자잘하다. // ᄆᆞ물 갈고 피 갈고 그거 ᄆᆞ랑좁썰이옌, ᄆᆞ랑조엔 헌 게 잇어.(메밀 갈고 피 갈고 그거 'ᄆᆞ랑좁썰'이라고, 'ᄆᆞ랑조'라고 한 게 있어.) 14 // ᄆᆞ랑좁썰이렌 헌 거 잇고.('ᄆᆞ랑좁썰'이라고 한 거 있고.) 14 [성읍]

ᄆᆞ랑좁ᄊᆞᆯ: 조의 일종인 'ᄆᆞ랑조'에서 수확한 쌀이다. 좁쌀알이 자잘하다. // ᄆᆞ랑좁ᄊᆞᆯ은 또 피ᄊᆞᆯ 닮은 거라. 헤영허고. 조론 조라도.('ᄆᆞ랑좁ᄊᆞᆯ'은 또 핍쌀 같은 거야. 하얗고. 조론 조라도.) 14 // ᄆᆞ랑좁ᄊᆞᆯ이란 조가 잇주게. 거난 그게 니 엇이 ᄒᆞ민 경 어려웟던ᄆᆞ라. ᄆᆞ랑좁ᄊᆞᆯ 니 엇이 먹엉 다슴어멍 말 엇이 살라.('ᄆᆞ랑좁쌀'이란 조가 있지. 그러니 그게 뉘 없이 하면 그렇게 어려웠던 모양이야. 'ᄆᆞ랑좁쌀' 뉘 없이 먹어서 의붓어미 말 없게 살아라.) 15 [성읍, 수망]

ᄆᆞ레: 연자매의 윗돌을 말하며 때로는 연자매 자체를 이르기도 한다. // 보리 헤다근에 그거 ᄆᆞᆯ리왕 ᄆᆞ레 신 디 가근에 큰 통 놔근에 그레 물 지어다 놓고 보리 놩 ᄌᆞ물앙.(보리 해다가 그거 말려서 연자매 있는 데 가서 큰 통 놔서 거기에 물을 져다 놓고 보리 놔서 담가서.) 13 [삼달]

ᄆᆞ레덕석: 맷방석의 제주어로 맷돌을 사용할 때 밑에 까는 짚으로 만든 방석이다. // 덕석, ᄆᆞ레덕석 ᄀᆞ튼 거 보관.(덕석, '맷돌덕석' 같은 거 보관.) 05 [표선]

ᄆᆞ레판: 연자매의 아랫돌을 말하는 것으로 가장자리를 높게 만들어 곡식이 바깥으로 흘러 나가지 않게 되어 있다. // 보리 건졍 물 빠진 거는 이제 ᄆᆞ레판더레 놓는 거라.(보리 건져서 물 빠진 것은 이제 'ᄆᆞ레판'으로 놓는 거야.) 11 [함덕]

ᄆᆞ렛도고리: 'ᄆᆞ레' 즉 '맷돌'을 안쳐서 곡식 따위를 갈 때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그릇이다. // ᄆᆞ렛도고리엔 허고. 엿날은 지금ᄆᆞ찌 무신거 그 ᄎᆞᆷ 지금은 이제 기냥 솟차 들러놩 메도 거리곡 허지 아녀.('ᄆᆞ렛도고리'라고 하고. 옛날은 지금같이 무엇 그 참 지금은 이제 그냥 솥째 들어놔서 메도 뜨고 하지 않아.) 29 // 콩 물에 컷다근에 기계방에 ᄆᆞ레, 영 둘르는 ᄆᆞ레 ᄀᆞᆯ앙, ᄆᆞ렛도고리 놩 ᄀᆞᆯ앙.(콩 물에 잠갔다가 공장에 맷돌, 이렇게 돌리는 맷돌 갈아서, 'ᄆᆞ렛도고리' 놔서 갈아서.) 35 [대림, 삼달, 외도]

ᄆᆞ렛방에: 사람의 손으로 돌려서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기구, 또는 마소로 끌어 돌리게 하여 곡식을 찧는 큰 매이다. // 그게 그 대림 순두내 근처에서 나무를 비어다가 남방에라든지 ᄆᆞ레, ᄆᆞ렛방에, ᄆᆞ렛도고리, 도고리를 다 팟다는 것을 옛 어른덜이 우리 대림 사름만 아니라, 한림 이 근처 사름들은 다 이야기를 허는 걸 볼 때, 아, 대림은 그만큼 그 밀림지대엿구나.(그게 그 대림 '순두내' 근처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남방에'라든지 맷돌, 'ᄆᆞ렛방에', 'ᄆᆞ렛도고리', 함지박을 다 팠다는 것을 옛 어른들이 우리 대림 사람만 아니라, 한림 이 근처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하는 걸 볼 때, 아, 대림은 그만큼 그 밀림지대였구나.) 35 [대림]

ᄆᆞ렛비: 연자매에서 곡식을 장만할 때 사용하는 비를 말한다. //ᄆᆞᆯᄆᆞ레에서 쓰는 ᄆᆞ렛비라고 헌 거 쪼금 ᄃᆞᆫᄃᆞᆫ헌 거라야 뒈.(연자매에서 쓰는 'ᄆᆞ렛비'라고 하는 거 조금 단단한 거여야 돼.) 12 // 그 대축이 그 뭐인가 딱딱허주게. 그걸로 주로 만이 헷주. ᄆᆞ렛비는.(그 수수가 그 뭐인가 딱딱하지. 그걸로 주로 많이 했지. 'ᄆᆞ렛비'는.) 12 [한동]

ᄆᆞ렛착: 맷돌의 한 짝을 말하는 것이나 여기서는 맷방석으로 쓰였다. // 멍석 데민 그디가 보통 하영 ᄎᆞ치헤연. 그거 덕석도 잇지. ᄆᆞ레착도 ᄆᆞ레ᄆᆞ치록 동골락헌 거. ᄆᆞ레ᄀᆞᆯ 때만 하는 동글락헌 ᄆᆞ레착도 잇고.(멍석 쌓은 거기가 보통 많이 차지했어. 그거 덕석도 있지. 맷방석도 맷돌처럼 동그란 거. 맷돌 갈 때만 하는 동그란 맷방석 있고.) 05 [표선]

ᄆᆞ루묵: 메밀을 갈아서 가루로 쑨 묵이다. // 우린 ᄆᆞ루묵을 안 헤봔.(우린 가루묵을 안 해봤어.) 11 [함덕]

ᄀᆞ르묵: 메밀을 갈아서 가루로 쑨 묵이다. // 옛날은 ᄀᆞ르묵 헤근에 쒀근에 또. 고젱이 꿰영 숫불에 굽곡.(옛날은 '가루묵' 해서 쒀서 또. 꼬치 꿰어서 숯불에 굽고.) 14 [성읍]

ᄀᆞ른세: '말의 새끼가 태어날 때 입으로 가로로 물고 나오는 물건'을 말한다. // 새끼는 ᄌᆞ연분만 뒈니까 허는데, 그 새끼 나면은 옛 어른들 말이 ᄀᆞ른세라고.(새끼는 자연분만 되니까 하는데, 그 새끼 낳으면 옛 어른들 말이 'ᄀᆞ른세'라고.) // ᄀᆞ른세라고 그 세를 물어 가지고 난다 허여.('ᄀᆞ른세'라고 그 혀를 물어 가지고 난다 해.) 01 [도련]

ᄀᆞ막곶: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지명의 하나로 요철을 깔아놓은 듯한 암반지대이다. 1648년경 보목마을의 설촌 세대인 조씨와 백씨가 오막살이를 지어 살던 곳이라 하여 'ᄀᆞ막곶'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저쪽 동북쪽으로 저 ᄀᆞ막곶이라 헤. 여기 이 지형이.(저쪽 동북쪽으로 저 'ᄀᆞ막곶'이라 해. 여기 이 지형이.) 07 [보목]

ᄀᆞ메기: 고둥의 통칭이다. // 춤ᄀᆞ메기엔 헌 게 있고. 수두리허고 세 가지를 합쳐 가지고는 여기선 ᄀᆞ메기엔.('춤ᄀᆞ메기'라고 한 게 있고. 팽이고둥하고 세 가지를 합쳐 가지고는 여기선 'ᄀᆞ메기'라고.) 06 [남원]

ᄀᆞ무끄다: 회목 관절이 무엇과 마주쳐 제 정도에 지나게 접해서 삔 지경에 이른다는 의미이다. // 남신 그땐 ᄒᆞ쏠만 잘못 ᄒᆞ영 ᄃᆞᆯ그락기 자빠지민 발도 ᄀᆞ무끄곡.(나막신 그땐 조금만 잘못해서 달그락기 자빠지면 발도 'ᄀᆞ무끄고'.) 08 [동광]

ᄀᆞ스락불: 까끄라기로 피운 불을 말한다. // 그 불 피와나근에 ᄀᆞ스락불 피와근에 그레.(그 불 피워서 까끄라기 불 피워서 그리로.) 16 [하원]

ᄀᆞ슬: 표준어 '가을' 또는 '곡식'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수확'하는 것을 의미한다. // 망종은 보리 ᄀᆞ슬, 망종 넘은.(망종은 보리 수확, 망종 넘은.) 15 [수망]

ᄀᆞ슬자리: 가을철에 많이 잡히는 자리돔을 말한다. // 줄어당 가을 들민 자리가 그렇게 ᄉᆞᆯ지민 그때 그거 상 ᄀᆞ슬자리라고 그거 반찬 허고.(줄었다가 가을 들면 자리가 그렇게 살찌면 그때 그거 사서 가을자리돔이라고 그거 반찬 하고.) 06 [남원]

ᄀᆞ시락막: 'ᄀᆞ시락(까끄라기)+막'의 구성으로 '까끄라기' 등을 모아 둔 헛간을 말한다. // ᄀᆞ시락막이라고 헤서 불때는 거 놓는 딘 ᄀᆞ시락막.(또 참 '까끄라기막'이라고 해서 불 때는 거 놓는 덴 '까끄라기막'.) 01 // 이 선흘은 게도 낭 허영 곶 ᄇᆞ디난 헌디 헤변은 ᄀᆞ시락막이 주로 헤둠서 허주.(이 선흘은 그래도 나무 해서 숲 가까우니까 한데 해변은 'ᄀᆞ시락막'을 주로 해두고 하지.) 02 // 게난 어떤 사람은 그 ᄀᆞ시락을 그냥 ᄒᆞᆫ 밧디 놩 불 케왕 불채로 ᄆᆞᆫ 만들고, 도 저 가을 들면은 쉐똥, ᄆᆞᆯ똥 이걸 주워다가, 그 ᄀᆞ시락막에 ᄀᆞᆯ채에 담아당, 굴묵에 놩은에 방 때는 거.(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까끄라기를 그냥 한 곳에 놔서 불 태워서 재로 모두 만들고, 도 저 가을 들면 소똥, 말똥 이걸 주워서, 그 'ᄀᆞ시락막'에 삼태기에 담아다가, '굴묵'에 놔서 방 때는 거.) 19 // ᄀᆞ시락막 허고 또 헛간에 히여뜩헌

거 ᄂᆞ람쥐 거튼 거 데명 그 헛간게.(‘ᄀᆞ시락막’ 하고 또 헛간에 잡다한 거 이엉 같은 거 쌓아서 그 헛간.) 26 [도련, 선흘, 신창, 청수]

ᄀᆞ시락통: 까끄라기를 보관하는 작은 통이다. // 쉐막 가운디 영 반 벌렁 요건 ᄀᆞ시락통. (외양간 가운데 이렇게 반 쪼개서 요건 ‘ᄀᆞ시락통’.) 11 [함덕]

ᄀᆞᆯ리다: 표준어 ‘갈마들다’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옷을 만들어지는 양 여러 개를 경 ᄀᆞᆯ령 입고, 여름에는 그냥.(옷을 만들어지는 대로 여러 개를 그렇게 갈마들어서 입고, 여름에는 그냥.) 16 [하원]

ᄀᆞ찌: ‘같이’라는 말이나 여기에서는 ‘~처럼’의 뜻이다. // 경 헤근엥이 그자 여자ᄀᆞ찌 저 어른들ᄀᆞ찌 걸게 못허민 그자 정벵이ᄀᆞ추륵 헹. 치메 쏘곱에 입곡 여자덜은.(그렇게 해서 그저 여자처럼 저 어른들처럼 길게 못하면 잠방이처럼 해서. 치마 속에 입고 여자들은.) 04 [고성]

ᄀᆞᆨ메기: 조의 이삭이나 콩꼬투리에서 알을 떨어 버리고 남은 줄기나 깍지 따위를 말한다. // 그 저 조 ᄀᆞᆨ메기 ᄯᅳ로 조 ᄯᅳ로 나오지. 알로 조 나오고 우이 ᄀᆞᆨ메기.(그 저 조 ‘ᄀᆞᆨ메기’ 따로 조 따로 나오지. 아래로 조 나오고 위에 ‘ᄀᆞᆨ메기’.) 30 [노형]

ᄀᆞᆫ대구덕: 아주 가늘고 긴 대오리로 엮어 만든 큰 바구니를 말한다. // 제물떡으로 차반지에 헤아저근에, ᄀᆞᆫ대구덕에.(‘제물떡’으로 차반지에 해가지고, ‘ᄀᆞᆫ대구덕’에.) 24 [세화]

ᄀᆞᆫ보리밥: 보리쌀을 쪼개서 지은 밥이다. // ᄀᆞᆫ보리밥은 방에에 강 져다근에 ᄯᅳ시 ᄀᆞ레에서 ᄀᆞᆫ 밥.(‘ᄀᆞᆫ보리밥’은 방아에 가서 져다가 다시 맷돌에서 간 밥.) 08 [동광]

ᄀᆞᆫ쏠계: 흰쌀을 모으기 위한 계를 말하는 제주어이다. // 무신 보리쏠계여. 무신 ᄀᆞᆫ쏠계여.(무슨 ‘보리쌀계’다. 무슨 ‘흰쌀계’다.) 16 [하원]

ᄀᆞᆯ다: 표준어 ‘갈다’에 대응하는 제주어인데, 여기서는 ‘찧다’의 의미로 쓰였다. // 쏠로 나오난 기자, 기자, 기자 하릉방에 강 ᄀᆞᆯ앙 오민 그대로 먹는 거.(쌀로 나오니까 그저, 그저, 그저 ‘하릉방’에 가서 갈아 오면 그대로 먹는 거.) 23 [온평]

ᄀᆞᆯ라앚지다: 표준어 ‘가라앉다’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수돗물로 헤기네 소곰 놔기네 영영 젓으멍 저 소곰 녹영으네 ᄒᆞ룻 동안 영 뒀다근에 ᄀᆞᆯ라앚이민 그레 통게에 저 메주 놔긴에 그 웃터레 물 놓주게.(수돗물로 해서 소금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저으면서 저 소금 녹여서 하루 동안 이렇게 놔두었다가 가라앉으면 그리로 독에 메주 넣어서 그 위로 물 넣지.) 16 [하원]

ᄀᆞᆯ루기: ‘쌍둥이’를 말한다. 제보자는 여자, 남자 쌍둥이를 ‘ᄀᆞᆯ루기’라고 한다고 했다. // 여ᄌᆞ 남ᄌᆞ가 ᄀᆞᆯ루기주게. 나 ᄀᆞᆯ루기 나셰게.(여자 남자가 ‘ᄀᆞᆯ루기’지. 나 ‘ᄀᆞᆯ루기’ 낳았어.) 02 [선흘]

ᄀᆞᆯ르다: 표준어 ‘고이다’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흥근히 헹 놧다근에 물 ᄒᆞ끔 영 ᄀᆞᆯ라 놧다근에 그 흑질 허는 날은.(흥건히 해서 놓았다가 물 조금 이렇게 고여 놓았다가 그 흙질 하는 날은.) 16 [하원]

ᄀᆞᆯ른오름: 안덕면 상창리 북쪽, 동광 육거리 동쪽에 두 봉우리가 쌍둥이처럼 나란한 두 오름을 말한다. '여진머리 오름'이라고도 한다. // ᄀᆞᆯ른오름게. ᄀᆞᆯ른오름. 옛날엔게. 고사리 꺾꼬레도 가고, 솔똥 줏이레도 가고, 막 뎅겻수다.('ᄀᆞᆯ른오름'게 'ᄀᆞᆯ른오름'. 옛날엔. 고사리 꺾으러도 가고, 솔방울도 주우러도 가고, 막 다녔습니다.) 19 [청수]

ᄀᆞᆯ리: 가루가 되게 빻아 놓은 물건이나 사기나 유리 따위를 빻아 놓은 가루를 말한다. // ᄀᆞᆯ리 ᄆᆞᆺ앙인에 실에 밥을, 보리밥 헤영 실에 멕영. 그 유릴 또시 ᄀᆞ룰 내영 서껑 연 올리민 어느 연이 그창 나가느닌 겐 연타불 허여난 유리 ᄲᆞᆺ아난 그 혹이엔. ('ᄀᆞᆯ리' 마서서 실에 밥을, 보리밥 해서 실에 먹여서. 그 유리 또 가루 내어서 섞어서 연 올리면 어느 연이 잘라서 나가느냐고 그래서 연싸움 했던 유리 빻았던 그 확이라고.) 33 [인성]

ᄀᆞᆯ리다: 표준어 '고르다'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엿날에 남방에 영 서이가 놩 영 영 ᄀᆞᆯ리멍 짓젠 ᄒᆞ민 거 아무나ᄒᆞ지도 못헤여.(옛날에 '남방에' 이렇게 셋이서 놓아서 이렇게 이렇게 'ᄀᆞᆯ리멍' 찧으려고 하면 거 아무나하지도 못해.) 16 [하원]

ᄀᆞᆯ메: 둘 사이에 이어진 부분이나 경계를 말한다. 'ᄀᆞᆶ, ᄀᆞᆯ미'라고도 한다. //우리 요 신흥리광 태흥리 ᄀᆞᆯ메 하시가 잇어. 게난 그것이 일본 시대에 논 하시난 남ᄃᆞ릴 논 거라이.(우리 요 신흥리와 태흥리 'ᄀᆞᆯ메' 다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일본 시대에 놓은 다리니까 나무다릴 놓은 거야.) 25 // 똥겡이엔 헌 건 막 우에 ᄆᆞ른밧 ᄀᆞᆯ메 잇어, 물ᄀᆞᆯ메.('똥겡이'라고 한 건 아주 위에 마른 밭 'ᄀᆞᆯ메' 있어, '물ᄀᆞᆯ메'.) 25 // 견디 우린 두모, 이건, 이건 ᄀᆞᆯ메. 우리는 이디 두모 살고. 바로 이디 ᄀᆞᆯ메 부쩐. 이디는 또 신창. 경허연 우리 집으로 갈라낫주게.(그런데 우린 두모, 이건, 이건 'ᄀᆞᆯ메'. 우리는 여기 두모 살고. 바로 여기 'ᄀᆞᆯ메' 붙어서. 여기는 또 신창. 그래서 우리 집으로 갈랐었지.) 26 [신창, 태흥]

ᄀᆞᆷ: 두 개를 가르는 경계를 말한다. // 경 헹 하르방 때부터 듬북 ᄀᆞᆷ이 잇어.(그렇게 해서 할아버지 때부터 듬북 'ᄀᆞᆷ'이 있어.) 22 // 딱 ᄀᆞᆷ을 놔근에 메역 허치나 허젠 허민 상ᄌᆞᆷ수, 상ᄌᆞᆷ수엔 헌 건 젤 물질 잘허는 사름 특허게 물질허는 사름, 저 펜이서 둘, 이 펜 바당에서 둘헤영 딱 가근에 ᄒᆞ사 지내어.(딱 'ᄀᆞᆷ'을 놔서 미역 '허체'나 하려고 하면 '상ᄌᆞᆷ수', '상ᄌᆞᆷ수'라고 해서 제일 물질 잘하는 사람 특별히 물질하는 사람, 저 편에서 둘, 이 편 바다에서 둘 해서 딱 가서 고사 지내.) 25 [우도, 태흥]

ᄀᆞᆷ셍이: 남방울타리고둥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ᄀᆞ메기', 'ᄀᆞᆷ세기', 'ᄀᆞ메기보멀', '여자보말', '지름보말', '코ᄐᆞ데기'이라고도 한다. // 먹보말, 수두리보말, 이제 ᄀᆞᆷ셍이, 으, 신데기, 경.(밤고둥, 팽이고둥. 이제 남방울타리고둥. 으, '신데기' 그렇게.) 26 // ᄀᆞᆷ셍이는 그저 코ᄐᆞ데기 그저 영 헌 거.(남방울타리고둥은 그저 '코ᄐᆞ데기' 그저 이렇게 한 거.) 27 [신창, 옹포]

ᄀᆞᆸ갈르다: 사리를 분별하여 한계를 짓는 것을 말한다. // 그거 ᄀᆞᆸ갈르지 안 헹 아무라도

헌다, 우선 메누리가 임제지.(그거 구별하지 안 해서 아무라도 한다, 우선 며느리가 임자지.) 10 // 말복 뒈민 갈켄 허민 갈앙 허민 처서 뒈민 ᄀᆞᆸ간덴 허멍.(말복 되면 갈겠다고 하면 갈아서 하면 처서 되어가면 'ᄀᆞᆸ간다'고 하면서.) 13 [삼달, 월령]

ᄀᆞᆺ: 보통 '가(邊)'라는 의미이다. 바다의 반대로 육지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 틀립주게 깅이는 ᄀᆞᆺ디서만 ᄍᆞ끔.(다르지 게는 바닷가에서만 조끔.) 22 // 새에 완 온평리 ᄌᆞᆷ녀 어른덜 ᄀᆞᆺ듸 나간 헨에 들어오지 못헌덴 막 이치룩 헤연.(새에 와서 온평리 잠녀 어른들 가에 나가서 해서 들어오지 못한다고 막 이처럼 해서.) 23 [온평, 우도]

ᄀᆞᆺ: 우도면에서 제주본섬을 가리키는 제주어이다. // ᄀᆞᆺ에 ᄀᆞ뜬디도 보난 문어도 잡고 거기서 ᄯᅳ ᄯᅳ시 저 다른 망치 ᄀᆞ뜬 것도 거기서 잡고 영허기도 협디다양.(제주 같은 데도 보니까 문어도 잡고 거기서 또 다시 저 다른 망상어 같은 것도 거기서 잡고 이렇기도 합니다.) 22 // 미엔 ᄒᆞᆫ 거 저 어디 이 우도에는 엇고 저 어디 ᄀᆞᆺ에서 들어왓어신가.(새품이라고 한 거 저 어디 이 우도에는 없고 저 어디 제주에서 들어왔었는가.) 22 [우도]

ᄀᆞᆺ바당: '물 가까이에 있는 바다'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개인별로 개인별로. 이녁 허는 이 ᄀᆞᆺ바당 강.(개인별로 개인별로. 이녁 하는 이 'ᄀᆞᆺ바당' 가서.) 27 [옹포]

ᄀᆞᆺ밧: 해안에서 가까운 바다밭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 그건 저 그 전복이라는 건 이제도 ᄀᆞᆺ밧디도 잇입니께.(그건 저 그 전복이라는 건 이제도 바닷가 밭에도 있습니다.) 22 [우도]

ᄀᆞᆺ사: 표준어 '아까'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시루떡은 ᄀᆞᆺ사 ᄀᆞ루 ᄲᆞᆺ아다근에.(시루떡은 아까 가루 빻아다가.) 16 [하원]

ᄀᆞᆺ할망: 해녀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갯가에서 해산물을 캐는 할머니들을 말한다. // ᄀᆞᆺ할망덜 강 매어다근에 갯ᄀᆞᆺ이도 널고 집이 완 ᄆᆞᆯ리왕 멧키로 헹 ᄑᆞᆯ암주.('ᄀᆞᆺ할망'들 가서 매어다가 갯가에도 널고 집에 와서 말려서 몇 킬로 해서 팔지.) 13 [삼달]

ᄀᆞᆾ인상: 다 갖춰진 상이라는 뜻이다. 결혼식 때와 죽었을 때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잘 출린 것ᄀᆞ라 ᄀᆞᆾ인상이엔.(잘 차린 것보고 'ᄀᆞᆾ인상'이라고.) 02 // 새서방 따시 처갓칩이 가민 경 새각시집이 ᄀᆞ치 ᄀᆞᆾ인상 출려주고.(새신랑 다시 처갓집에 가면 그렇게 새색시 집에 같이 'ᄀᆞᆾ인상' 차려주고.) 13 [삼달, 선흘]

ᄀᆞᆾ인제숙: 온전한 생선으로 구운 제육을 말한다. // 제숙도 ᄆᆞᆯ른, 저 ᄀᆞᆾ인제숙 구곡, 술도 ᄀᆞᆾ은펭으로 아지곡 헹 강 ᄆᆞᆫ저 케우령 테우리 헤뒁은에 허는 것덜.(제육도 마른, 저 'ᄀᆞᆾ인제숙' 굽고, 술도 'ᄀᆞᆾ은펭'으로 가지고 해서 가서 고수레해두고 '테우리' 해둬서 하는 것들.) 23 [온평]

ᄀᆞᆾ인펭: '술 따위가 가득 담긴 병'을 말한다. // 제숙도 ᄆᆞᆯ른, 저 ᄀᆞᆾ인제숙 구국, 술도 ᄀᆞᆾ

은펭으로 아지곡 헹 강 문저 케우령 테우리 헤뒁은에 허는 것덜.(제육도 마른, 저 '곶인제숙' 굽고, 술도 '곶은펭'으로 가지고 해서 가서 고수레해두고 '테우리' 해둬서 하는 것들.) 23 [온평]

까꾸리: 해녀들이 물질을 하면서 소라, 성게 등을 따는 데 쓰는 도구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호미와 비슷하다. // 그거 하나만 가져갈 때도 잇고. 물 속에 들어가 봐가지고 그걸 하나로 안 될 거면 올라와서 그 호미나 까꾸리나.(그거 하나만 가져갈 때도 있고. 물 속에 들어가 봐가지고 그걸 하나로 안 될 거면 올라와서 그 낫이나 '까꾸리'나.) 09 // 옛날엔 속곳 입엇주마는 지금은 고무옷 입으난게. 지금은 게 망아리허고, 까꾸리, 테왁, 테왁.(옛날엔 '속곳' 입었지만 지금은 고무옷 입으니까. 지금은 '망사리', '까꾸리', '테왁', '테왁'.) 29 [고산, 외도]

까닥까닥: 딱딱해서 거칠다는 의미이다. // 물 영 헹, 그 주시사 까닥까닥 헹 먹어져게?(물 이렇게 해서. 그 찌꺼기 '까닥까닥' 해서 먹어지나?)24 [세화]

까릿까릿허다: 싹이 뾰족뾰족 난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 음력 정월이 나민 보리가 요만씩 나주게. 요만씩 낭 까릿까릿허민, 정월 나민 밧이 막 부끄잖아.(음력 정월이 되면 보리가 요만큼씩 나지. 요만큼씩 나서 '까릿까릿하면', 정월 되면 밭이 마구 솟아오르잖아.) 31 [토평]

까막여: 제주시 외도동 바다에 있는 여 이름이다. 여 모습이 까맣게 보여서 붙은 이름이다. 여가 길다고 해서 '진여'라고도 한다. // 이디 저 물싼 때 쯤은 까막여라고 질게 싯주기게.(여기 저 물썰 때 쯤은 '까막여'라고 길게 있지.) 29 [외도]

까만물: 옷감 따위에 검은 물을 들일 때 사용하는 검정 물감을 가리킨다. // 그건 흰 걸로도 허곡 물들영, 그때 들인 건 물이엔 헌 거는 까만물 혼 가지만 나와낫주.(그건 흰 걸로도 하고 물들여서, 그때 들인 건 물감이라고 한 거는 '까만물' 한 가지만 나왔었지.) 23 [온평]

까메기깅이: 게의 일종이다. // 깅이도 으라 종류지. 참게가 잇고 또 이제 얼룩얼룩헌 그. 저 뭐냐. 지름깅이엔 헌 거 잇고. 풋깅이엔 헌 것가 잇고, 돌킹이가 잇고, 까메기깅이가 잇고, 으라 질이라.(게도 여러 종류지. 참게가 있고 또 이제 얼룩얼룩한 그. 저 뭐냐. '지름깅이'라고 한 거 있고. '풋깅이'라고 한 것이 있고, '돌킹이'가 있고, '까메기깅이'가 있고, 여러 질이야.) 29 [외도]

까메기보말: 고둥의 일종이다. 색이 검고 가마귀 모양을 하고 있다. // 수두리가 잇고. 먹보말. 기냥 먹보말이가 잇고. 코뚜데기가 잇고 문다드기가 잇곡. 문다드린 두껑 더꺼진 거. 까메기보말 잇고.(팽이고둥이 있고, 밤고둥. 그냥 밤고둥이 있고. 남방울타리고둥이 있고 소라고둥이 있고. 소라고둥은 뚜껑 덮어진 거. '까메기보말' 있고.) 29 [외도]

까물까물까물: 색이 선명하지 않아 얼룩이 진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 쩜쩜쩜 짠 것도 쩜쩜쩜쩜 까물까물까물 뒈어.('쩜쩜쩜' 짠 것도 '쩜쩜쩜쩜' '까물까물까물' 되어.) 24

[세화]

까부리: 잠녀가 작업할 때 쓰는 모자의 한 가지로, 머리와 뒷목덜미와 양 뺨을 덮을 수 있게 꾸며진 모양새를 하고 있다. 양쪽 귀 높이에 구멍이 뚫어져 무자맥질했을 때 여기로 물이 빠져 나오게 되어 있다. 1960년대 이후 일부 지방에서 잠녀들 스스로 만들어 썼지만, 고무모자가 나오면서 사라졌다. 달리 '끼부리', '까불이', '풍뎅이'라고도 한다. 일본어 'かぶりもの'(카부리모노, 쓰개의 총칭)에서 온 말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서 'かぶり(카부리)'는 머리, 'もの(모노)'는 물건을 의미하는 일본어이다. // 그땐 헤양케 물적삼 헤영은에 물적삼 허영 입엉 아레도 헤양케 옷 솟곳 헤영 둘마구 허영 메고 뚜로 까부리 머리 광목으로 바령 이디 영 얼굴도 못카게 까부리 경헤영 써낫저.(그땐 하얗게 물적삼 해서 '물적삼' 해서 입어서 아래도 하얗게 옷, 속옷해서 매듭단추 해서 매고 따로 '까부리' 머리 광목으로 찢어서 여기 이렇게 얼굴도 못 타게 '까부리' 그렇게 해서 썼었지.) 10 // 까부리 만들 안덜 중간에사 헷주.('까부리' 만들어서들 중간에야 했지.) 23 // 중간엔 까부리 써나고. 수건 썻단 욜로 이젠 얼굴 캄덴 저 까부리 멘들안에 귀낑지 더꺼지게.(중간엔 '까부리' 썼었고. 수건 썼다가 요리로 이젠 얼굴 탄다고 저 '까부리' 만들어서 귀까지 덮어지게.) 24 [세화, 온평, 월령]

까짝: '과짝'을 달리 표현한 듯싶다. '과짝, 혹은 구짝'은 '곧장', 즉 옆으로 빠지지 않고 곧바로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부드럽지 못해 뻣뻣한 상태를 의미한다. // 저 잇세, 잇세미녕 닷세미녕은 닷세는 완전 까짝 궂인 거.(저 엿새, 엿새무명 닷새무명은 닷새는 완전 '까짝' 궂은 것.) 15 [수망]

깍: '끝'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막내를 말한다. // 고등학교 저 삼학년에 따시 중학교 이학년에 가부난에게 ᄉᆞ나이 하나 마지막 깍은 뚜시 시에 아이 간에 따시 모실포 친구가 엇덴 허멍 모실포 이제 사학년이우다게.(고등학교 저 삼학년에 다시 중학교 이학년에 가버리니까 사나이 하나 마지막 막내는 다시 시에 안 가서 다시 모슬포 친구가 없다고 하면서 모슬포 이제 사학년입니다.) 32 [덕수]

깍: 보리쌀 따위의 쌀을 만들기 위해 벗겨 놓은 겉껍질을 말한다. // 쉐것 허영게. 보리도 저 뭐 허민게, 보리도 ᄀᆞᆯ앙은에. 죽 쒕은에 멕이고. 깍으로.(소여물 해서. 보리도 저 뭐 하면, 보리도 갈아서. 죽 쒀서 먹이고. '깍'으로.) 29 [외도]

깍: 총을 말한다. 짚신이나 미투리를 삼을 때 발의 앞쪽을 가리도록 두 편으로 둘러 박은 낱낱의 울을 말한다. // 깍 내멍 허는 건 비빔깍신, 그냥 내멍 허는 건 부깍신.('깍' 내면서 하는 건 '비빔깍신'. 그냥 내면서 하는 것은 '부깍신'.) 03 // 걸 깍이라고 허는데 요렇게 올라오는 걸 깍이라고 허는디 거 치레허는 사람들은 삼으로 깍을 만들어.(걸 '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걸 '깍'이라고 하는데 거 치레하는 사람들은 삼으로 '깍'을 만들어.) 06 [남원, 송당]

깍: 치마 등의 끝이나 모서리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 깍치마난 이 깍 둘르는 거.(풀치마니까 이 '깍' 두르는 거.) 01 [도련]

깍마기: 조 이삭이나 콩꼬투리에서 열매를 털어 버리고 남은 줄기나 깍지 따위이다. '각마기', '각메기', '곡메기', 'ᄀᆨ메기'라고도 한다. // 겨울에. 그 콩 깍마기는 제라허게 쉐가 ᄉᆞᆯ져.(겨울에. 그 콩 '깍마기'는 온전히 소가 살쪄.) 36 [봉성]

깍신: '깍신'은 일일이 총을 내어서 만든 신을 가리킨다. // ᄒᆞᆷ치 ᄌᆞᆯ아가멍 신은 삼아가멍 이 깍을 만들엉근에 그레 꾸불려가멍 그냥 ᄌᆞ는, 저 삼는 게 잇고. ᄯᅳ로 멘들앙 근엥에 깍신 저 붙깍신.(한꺼번에 결어가면서 신은 삼아가면서 이 총을 만들어서 그리로 꾸부려가면서 그냥 겯는, 저 삼는 게 있고. 따로 만들어서 딴총박이 저 제총박이.) 01 // 새각시 주는 것도 깍신인디 그자 신도 영 궤양혜영 신는 사름은 영 깍 ᄆᆞᆫ 내영 이만썩 무껑 허주게.(새색시 주는 것도 딴총박인데 그저 신도 이렇게 '궤양'해서 신는 사람은 이렇게 총 모두 내어서 이만큼씩 묶어서 하지.) 13 // 거 초신도 곤 거 잇고 깍신이엔 헌 건 바당에서 신고, 이 초신도이 곤 거 잇고 나쁜 거 잇어.(거 짚신도 고운 거 있고 '깍신'이라고 한 건 바다에서 신고, 이 짚신도 고운 거 있고 나쁜 거 있어.) 21 // 아니, 아니. 종류 엇어, 건. 깍신, 깍 헤근에 깍 영 영 헤근에 그걸 만들곡 헤근에 종류 엇어, 그건. 이제도 그거 ᄑᆞ는 거 잇주게. ᄑᆞ는 거 그거주게.(아니, 아니. 종류 없어, 건. '깍신', 총 해서 총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걸 만들고 해서 종류 없어, 그건. 이제도 그거 파는 거 있지. 파는 거 그거지.) 31 [도련, 삼달, 신촌, 토평]

깡도르: 깡통 속에 돌멩이를 담아서 소리 나게 하여 숨바꼭질하던 놀이로 볼 수 있다. // 우리 고무줄도 허곡, ᄉᆞᄆᆞᆺ 우리 어린 땐예 깡도르도 허고.(우리 고무줄도 하고, 사뭇 우리 어릴 때엔 '깡도르'도 하고.) 34 [구억]

깨고도리: 바다풀의 한 가지이다. 풀의 재료로 쓴다. // 그걸로 헤근에 헤영 창오지에 ᄇᆞᆯ라 근에 문더레 부쪙. 문에 그것에 깨꼬도리가 은직은직한 것이 깨끗하게 안 보이주게.(그걸로 해서 해서 창호지에 발라서 문으로 붙여서. 문에 그것에 '깨고도리'가 '은직은직한' 것이 깨끗하게 안 보이지.) 05 [표선]

꺼꼬막: '물메기'보다 더 작은 새끼 전복을 말한다. '꺼꼬메기'라고도 한다. // 그 말 안 헤 저신디 매족은 거 ᄀᆞᆺ디 부뜬 거 꺼꼬막.(그 말 안 했는데 제일 작은 거 갯가에 붙은 거 '꺼꼬막'.) 13 // ᄀᆞᆺ디 바당에 안 이성 ᄀᆞᆺ디 물싸민 부튼 거 꺼고막.(갯가에 바다에 안 있고 갯가에 물써면 붙은 거 '꺼꼬막'.) 13 [삼달]

꺼끄막: 어린 전복을 말한다. 달리 '꺼끄먹'이라 한다. // 보기에 납작하게 생긴 것은 마드레. 그거 그 저 꺼끄먹엔 헌 거는 그 ᄒᆞ꼼 영 옴팡하면서 요 정도 낭 큰 거. 크지 아녀근에 헌 거.(보기에 납작하게 생긴 것은 '마드레'. 그거 그 저 '꺼끄먹' 이라고 한 거는 그 조금 이렇게 움푹하면서 요 정도 나서 큰 거. 크지 않아서 한 거.) 05 // 껍데기 꺼끄먹 껍데기 헹은에 그걸로 박박박 긁어내 헤연.(껍데기 '꺼끄먹' 껍데기 해서 그걸로 박박박 긁어내서.) 05 // 꺼끄막이엔 허여, 꺼끄막 족은 거.('꺼끄막'이라고 해, '꺼끄막' 작은 거.) 23 // 저 거시기 꺼끄막이엔 허곡.(저 거시기 '꺼끄막'이라고 하고.) 24 [세화, 온평, 표선]

꺼문우럭: 양볼락과에 속한 바닷물고기이다. 색깔이 검어서 붙은 이름이다. // 게민 그 벵이 풀어졍양, 게난 그 솔치 구허지 못헐 땐 꺼문우럭.(그러면 그 병이 풀어져서요, 그러니까 그 쑤기미 구하지 못할 땐 '꺼문우럭'.) 23 [온평]

꺽음세기: '꺾기'를 말하는 것으로 제보자는 철봉을 빙빙 도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 공기 놀이에서 손등에 공깃돌을 올려서 손바닥으로 잡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 철봉 도는 거 철봉. 학교에 초담으로 이제 제국 때 헤단 세왓저, 초등학교 마당에. 게난 그거 아무도 못허는 거 꺽음세기 헤낫저게, 펭펭 도는 거.(철봉 도는 거 철봉. 학교에 처음으로 이제 제국시절 하다가 세웠지, 초등학교 마당에. 그러니까 그거 아무도 못하는 거 '꺽음세기' 했었어, 팽팽 도는 거.) 02 [선흘]

께: 표준어 '매끼'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저 나록 헤난 그 나록찍으로 께 터렁.(저 벼 하고난 그 볏짚으로 매끼 틀어서.) 16 [하원]

껭껭: 아주 단단하게 굳은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표준어의 '꽝꽝'에 해당한다. // 처음은 그 보이도 못 허는 줄로 동그라미 만들앙 벵벵 돌멍 만든 것이 껭껭헤근에 ᄆᆞᆯ랑지지 안 허도록 그것이 만들아져.(처음은 그 보이지도 못 하는 줄로 동그라미 만들어서 뱅뱅 돌면서 만든 것이 꽝꽝해서 말랑하지 안 하도록 그것이 만들어져.) 06 [남원]

꼬끄랑내: 털을 태울 때 냄새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무엇을 태울 때 나는 냄새를 말하기도 한다. // 착 ᄯᅮ리민 쉐가 꼬끄랑내가 날 정도로 쉐가 아파.(착 때리면 소가 '꼬끄랑내'가 날 정도로 소가 아파.) 03 [송당]

꼬렝이: 표준어의 '꽁무니'에 대응하는 말이다. 여기서는 '감저 꼬렝이'의 형태로 '감저(고구마)'와 같이 쓰여, 고구마 따위의 하찮은 것 또는 '고구마 꽁무니'라는 의미로 쓰였다. // 계속 그추룩 줘근에 멧 년 경헤도 그축 얻어먹어도, 난 물에 가민 또 배고프주게, 일헤 나민. 경헤도 감저 꼬렝이 ᄒᆞ나 주는 사름 ᄒᆞ나 엇어서 경 줘도.(계속 그처럼 줘서 몇 년 그래도 그처럼 얻어먹어도, 난 물에 가면 또 배고프지, 일하고 나면. 그래도 고구마 '꼬렝이' 하나 주는 사람 하나 없어서 그렇게 줘도.) 31 [토평]

꼬부랑ᄆᆞᆯ: 등이 굽은 말이다. // 꼬부랑ᄆᆞᆯ 잇주. 꼬부랑ᄆᆞᆯ도 영 이 등이 영.('꼬부랑ᄆᆞᆯ' 있지. '꼬부랑ᄆᆞᆯ'도 이렇게 이 등이 이렇게.) 01 [도련]

꼬장중의: '고장중의'의 된소리이다. 표준어의 '고쟁이'를 말한다. // 치메저구리허곡 저 여저들은 겨울 틀에는 저, 것ᄀᆞ라 꼬장중의렌 허주게, 꼬장중의.(치마저고리하고 저 여자들은 겨울 들면 저, 그것보고 고쟁이라고 하지, 고쟁이.) 24 // 겨난 이 안내, 안내 가려진 안내 꼬장중의가 그것이 안내 가려진 속옷이나 다름없는 거.(그러니 이 속에, 속에 가려진 속에 고쟁이가 그것이 속에 가려진 속옷이나 다름없는 거.) 24 [세화]

꼬즈락ᄒᆞ다: '꼬부랑하다'는 제주어이다. // 흑으로 넘어가는 거 제일 앞에 영 꼬즈락ᄒᆞᆫ 건

보섭.(흙으로 넘어가는 거 제일 앞에 이렇게 '꼬즈락흔' 건 보섭.) 16 [하원]

꼬졸꼬졸: 새싹이 막 솟아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쉐터럭이엔 헌 거, 젠젠헌 거 꼬졸꼬졸허게 막 나.(김의털이라고 한 거, 자잘한 거 '꼬졸꼬졸'하게 마구 나.) 24 [세화]

꼭디색: 꼭두색이라고도 하는데 꼭두서니의 뿌리로 염색을 하면 붉은 계열의 색이 나오는데서 붙여진 색깔 이름이다. // 시집갈 땐 물 들여당이 초록색, 꼭디색 물 들여 근엥에 시집가는 새각시 이불 껍데기도 만들아 주고.(시집갈 때 물 들여다가 초록색, 빨간색 물 들여서 시집가는 새색시 이불 껍데기도 만들어 주고.) 11 [함덕]

꼴박세기: 머리빡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 그거 꼴박세기 그 거세기에 그 지름이 이시니까 그런 거 허영 머리빡은 막 ᄌᆞ아놔.(그거 '꼴박세기' 그 거시기에 그 기름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해서 머리빡은 막 마아 놔.) 29 [외도]

꼿놀래: 사람이 죽었을 때 장사를 치르는 날 행상하면서 부르는 염불소리를 뜻한다. // 꼿놀래 할 땐 이것도 불르고 잡탕 막 잡탕노래도 불르고.('꼿놀래' 할 땐 이것도 부르고 잡탕 막 잡탕노래도 부르고.) 21 [신촌]

꽁꽁달락: 숨긴 물건을 찾는 놀이이다. // 꽁꽁달락은 이 저 무신거 뭣 심줘가지고 영 앉앙은에 영 푹푹 가멍 눕는거라게. 영 숨키는 거라('꽁꽁달락'은 이 저 무엇 뭣 힘줘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푹푹 가면서 눕는 거야. 이렇게 숨기는 거야.) 34 [구억]

꽈짜글락허다: 물체가 굳고 뻣뻣하여 부드럽지 않다는 말이다. // 옛날엔 적삼, 남ᄌᆞ덜 중의 바지 그런 거, 꽈짜글락허게 베ᄀᆞ추룩.(옛날엔 적삼, 남자들은 중의 바지 그런 거, '꽈짜글락'하게 베처럼.) 11 [함덕]

꽝묻은동산: 표선면 세화리 901번지 '관묻은동산'이 변형된 표현이다. // 바윗동산은 꽝묻은동산이엔 헌 듸가 이수다.(바위동산은 '꽝묻은동산'이라고 한 데가 있습니다.) 24 [세화]

꽝보리: '딱딱한 보리'라는 의미로, 겉보리의 일종으로 보인다. // 우리 가름팟보단 못 헌 밧디 겉보리를 갈앗주게. 걸 꽝보리라고 그랫어. 겉보리ᄀᆞ라 꽝보리.(우리 '가름팟'보단 못 한 밭에 겉보리를 갈았지. 걸 '꽝보리'라고 그랬어. 겉보리보고 '꽝보리'.) 12 // 꽝보리엔 헌 건 껍적 막 입은 거게, ᄉᆞᆯ오리엔 헌 건 시방도 ᄉᆞᆯ오리 싯잖아.('꽝보리'라고 한 건 껍질 막 입은 거, 쌀보리라고 한 건 시방도 쌀보리 있잖아.) 13 // 꽝보리엔 헌 건 가죽 입엉 껍적 입엉 질 우이 ᄉᆞᆯ이엔 헌 건 옛날은 기계방 엇으난 ᄆᆞᆯᄀᆞ레에 강 ᄀᆞᆯ앙 허민 껍데기가 이성 똥 싸민 보리채가 한 한허여.('꽝보리'라고 한 건 가죽 입어서 껍질 입어서 질 우이 쌀이라고 한 건 옛날은 공장 없으니까 연자매에 가서 갈아서 하면 껍데기가 있어서 똥 싸면 보릿겨가 많아.) 13 // 줄보리도 밥헤먹는 거. ᄉᆞᆯ보리보단 줄보리밥이 맛싯덴 헤나신디 그 것보리엔 헌 건 완전 꽝보리.(맥주보리도 밥해먹는 거. 쌀보리보단 맥주보리밥

이 맛있다고 했었는데 그 겉보리라고 한 건 완전 '꽝보리'.) 14 [삼달, 성읍, 한동]

꾸적이다: 무른 것을 이겨 뒤섞는다는 의미이다. // 그 돌담 다와근에 흑 블랑 헌 것이 막 발로 꾸젝이믄 동네칩이 어른덜이 아이구, 요 집이 집 짓엄젠게 물이나 져다근에 가근에 부주로 헤주게.(그 돌담 쌓아서 흙 발라서 한 것이 마구 발로 뒤섞으면 동넷집의 어른들이 아이고, 요 집에 집 짓고 있다고 물이나 져다가 가서 부조로 하지.) 20 [고내]

꾸질꾸질: 속 줄기가 위로 뻗어나오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그거 동 사민은 동이 꾸질꾸질 사. 게민 잘도 맛잇어. 헤당.(그거 '동' 서면 줄기가 '꾸질꾸질' 서. 그러면 잘도 맛있어. 해다가.) 14 [성읍]

꾸짝꾸짝: 나무나 줄기 따위가 굽거나 비뚤어지지 아니하고 똑바른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우트레 꾸짝꾸짝 올르는 건 쉐뿔무수라. 쉐뿔ᄀᆞ치 영 질잖아게.(위로 곧게곧게 오르는 건 '쉐뿔무수'야. 소뿔처럼 이렇게 길잖아.) 25 [태흥]

꾿작: '곧게, 바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제주어지만 여기서는 '줄느런히, 나란히'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굳작'이라고도 한다. // 꾿작 앚아근에 헷주. 다 ᄒᆞᆫ 고지썩.('꾿작' 앉아서 했지. 다 한 이랑씩.) 33 [인성]

꿀: 식물의 기는줄기를 말한다. // 꿀, 꼴이 아니고 꿀.(기는줄기, '꼴'이 아니고 기는줄기.) 04 [고성]

꿀칩: 꿀을 얻기 위하여 벌을 기르는 집을 말한다. 표준어 '벌집'에 대응하는 말이다. // 우리 집의 잇는 거 관광 저저 꿀칩의서 왕 ᄃᆞ렌 허난 줘볏주. 옛날은 필요 엇이난. 아 알아지겟는디 튿내질 못허겟네.(우리 집에 있는 거 관광 저저 '꿀집'에서 와서 달라고 하니까 줘버렸지. 옛날은 필요 없으니까. 아 알겠는데 생각하질 못하겠네.) 14 [성읍]

꿩멜: 크기가 작은 멸치를 말한다. // 자리젓보다 하영 안 놔. 하영 안 놔. 궤기가 족은 거난이 징어리멜은 ᄒᆞ끔 하영 놓고, 꿩멜은 무신거 헤쓱허게 놔.(자리돔젓보다 많이 안 넣어. 많이 안 넣어. 고기가 작은 거니까 '징어리멜'은 조금 많이 넣고, '꿩멜'은 무엇 조금 넣어.) 33 [인성]

꿩엿: 꿩고기를 고아 엿기름에 섞어서 졸여 낸 엿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 겨울에 겨울에 이렇게 헌 디 코 놔근에 잡으면은 것이 그렇게 잡기가 힘들고 헤낫주마는. 꿩엿 덜은 헹 먹는 거 봣어.(겨울에 겨울에 이렇게 한 데 올가민 놓아서 잡으면 것이 그렇게 잡기가 힘들고 했었지만. '꿩엿'들은 해서먹는 거 봤어.) 05 // 꿩엿 허곡 ᄃᆞᆨ엿은 보신탕으로 보신용으로 먹는 거난게.('꿩엿' 하고 보신탕으로 보신용으로 먹는 거니까.) 16 // 시집완 엿 헤본 건 ᄃᆞᆨ엿 헤보고양, 꿩엿 헤보고, 뒈지엿 헤보고, 저 무슨거 지다리엿 헤보고 것벳기 안 헤봣수다.(시집와서 엿 해본 건 '닭엿' 해보고요, '꿩엿' 해보고, '돼지엿' 해보고, 저 무엇 오소리엿 해보고 그것밖

에 안 해봤습니다.) 34 [구억, 표선, 하원]

꿩코: '꿩을 잡기 위한 올가미'로 새끼나 노 따위로 옭아서 고를 내어 짐승을 잡는 장를 말한다. // 우리 두린 때 꿩코도 놓고 생이코도 놔낫는디 여기 그때는 꿩이 그렇게. 힘들어 여기는. 생이.(우리 어린 때 꿩올가미도 놓고 새올가미도 놨었는데 여기 그 때는 꿩이 그렇게. 힘들어 여기는. 새.) 06 // 꿩 사농, 다른 사냥은 헤난 거 엇고, 꿩코 놩은 만이 잡아낫저.(꿩 사냥. 다른 사냥은 했던 거 없고, '꿩코' 놔서는 많이 잡었었어.) 12 // 꿩코도 아녀고. 이 동네 꿩코 허영 꿩 잡는 사름 덜 읏라 사름 잇어. 재수가 없젠 허난 우리가 논 코에는 꿩이 안 걸린덴 허니까.('꿩코'도 않고. 이 동네 '꿩코' 해서 꿩 잡는 사람들 여러 사람 있어. 재수가 없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놓은 올가미에는 꿩이 안 걸린다고 하니까.) 14 // 꿩코 놩, 꿩코 놩 허는 것도 난 못 보고. 우리 촐 그 오께기 갈앙 쉐 멕이젠 오께기 갈민 꿩ᄃᆞᆨ새기 나고 허민 그 ᄃᆞᆨ새기 아까원에 심어난 건 알아져.('꿩코' 놔서, '꿩코' 놔서 하는 것도 난 못 보고. 우리 꼴 그 '오께기' 갈아서 소 먹이려고 '오께기' 갈면 꿩알 낳고 하면 그 알 아까워서 잡았던 건 알아.) 26 [고내, 남원, 노형, 대평, 봉성, 성읍, 수망, 신창, 옹포, 외도, 한동]

꿰: 참깨를 말하는 제주어이다. // 그 꿰가 잇고 들꿰가 잇는 거난.(그 참깨가 있고 들깨가 있는 거니까.) 16 [하원]

꿰그르: '그르'는 나무의 수를 세는 그루, 혹은 농사를 지었던 자리를 뜻하나, 여기서는 '참깻대'를 말한다. // 저 꿰그르 끈어 끈젠 헴젠 허멍 나신디레. 경허난 이젠 지네 허켄.(저 참깻대를 잘라 자르려고 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하니까 이젠 자기네가 하겠다고.) 32 [덕수]

끄땡이: 물건의 맨 끝부분이다. // 데싸놩 그 소곱더레 괴기를 놓는 거라. 겅해놩 끄땡이를 영헤영 무꺼.(뒤집어 놔서 그 속에다 고기를 놓는 거야. 그렇게 해 놓고 '끄땡이'를 이렇게 해서 묶어.) 03 [송당]

끄설개: '끌개'를 말한다. 나무로 되어 밭에서 끌어당기는 기구이다. // 그 중간에는 소나 ᄆᆞᆯ헹 끄섯주만은 그 전엔 사름이. 끄설개 아십니까?(그 중간에는 소나 말을 해서 끌었지만 그 전에는 사람이. '끄설개' 아십니까?) 03 [송당]

끄설퀴: 뿌린 씨를 묻고 밭이랑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인 끙게를 말한다. 길쭉길쭉한 잎나무를 수없이 함께 엮어 부채 모양으로 만든다. 지역에 따라서 '섬비, 섬피, 푸지게' 등으로 불린다. // 거 모물 갈멘은 끄설퀴로 끗엇주게.(거 메밀 갈면 끙개로 끄었지.) 24 [세화]

끄슬퀴: 뿌린 씨를 묻고 밭이랑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인 끙게를 말한다. 길쭉길쭉한 잎나무를 수없이 함께 엮어 부채 모양으로 만든다. 지역에 따라서 '섬비, 섬피, 푸지게' 등으로 불린다. // 이제 끄슬퀴엔 헤영근엥에. 걸 이름이 끄슬퀴허니깐 저 섬피엔도 ᄀᆞᆫ고. 이제 그 푸지게, 푸지게엔도 허곡. 그 ᄒᆞ나 가지고 이름이 뭐 세 가지.(이제 끙게라고 해서. 걸 이름이 '끄슬퀴'하니깐 저 '섬피'라고도 말하고. 이

제 그 '푸지게', '푸지게'라고도하고. 그 하나 가지고 이름이 뭐 세 가지.) 01 // 골 헤여 가지고 영 고랑에만 거름 허꺼 가지고 보리씨 삐어 가지고. 끄슬퀴가 이서. 또 끗어, 끗어, 그걸 문짝.(골 해 가지고 이렇게 고랑에만 거름 섞어 가지고 보리씨 뿌려 가지고. '끄슬퀴'가 있어. 또 끌어, 끌어. 그걸 푹.) 02 // 끄슬피로 헹 끄서나고. 끄성도 내불어 나고. 우리도 초판 끄설피질 헨 내불어낫어.('끄슬피'로 해서 끌었었고. 끌어서도 내버렸었고. 우리도 처음 '끄설피'질 해서 내버려뒀어.) 13 // 끗는 거는 끄슬퀴 끄슬퀴허멍 나무이파리 넙짝허게 만들어근에 영 뚜러멩 이레도 끗곡 이레도 끗곡 허민 끗어가민 막아져.(끄는 거는 '끄슬퀴', '끄슬퀴'하면서 나무이파리 넓적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둘러메서 이리도 끌고 이리도 끌고 하면 끌어가면 막혀.) 25 [도련, 삼달, 선흘, 태흥]

끄시까시: 살에 닿아서 깔끄러워 따끔거리고 까칠까칠한 느낌을 표현한 말이다. // 겨난에 방에 자는디도 저 조칙은 저 까다로와. 파삭파삭 끄시까시ᄒᆞ고.(그러니 방에 자는데도 저 조짚은 저 까다로워. 파삭파삭 '끄시까시'하고.) 07 [보목]

끌럭지: 띠, 짚 등을 한 줌 정도 해서 그 양쪽 끝을 묶고 그 속에 고기 따위를 싸 넣는 꾸러미를 말한다. '끌레기', '끌르기'라고도 한다. // 끌럭지에 궤기 싼 거는 거 바짝바짝 ᄒᆞᆫ 요멘ᄒᆞᆫ 거 ᄒᆞ나, 먹을 거의 딱딱ᄒᆞᆫ 거 요멘이 ᄒᆞᆫ 거 나눠 먹곡 말곡 ᄒᆞᆯ 게 어디 서.('끌럭지'에 고기 싼 거는 거 바짝바짝 한 요만한 거 하나, 먹을 거 딱딱한 거 요만한 거 나눠 먹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 24 [세화]

끌레기: 띠, 짚 등을 한줌 정도 해서 그 양쪽 끝을 묶고 그 속에 고기 따위를 싸 놓는 꾸러미이다. // 지금은 비니루포나 있져. 그 옛날은 그런 비니루포도 어서노난 산듸짚 무껑 끌레기 쌍. 하하하.(지금은 비닐봉투나 있지. 그 옛날은 그런 비닐봉투도 없으니까 밭볏짚 묶어서 '끌레기'에 싸서. 하하하.) 03 [송당]

끌오름: 서귀포시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끅오름, 칡오름'이라고도 한다. // 물오름. 저 끌오름. 어, 토평으로. 그 이 사막모루엔 헌 이 인정오름.('물오름'. 저 '끌오름'. 어, 어 토평으로. 그 이 '사막모루'라고 하는 이 '인정오름'.) 31 [토평]

꼰꼰허다: 차곡차곡 쌓은 담배 잎을 꼭꼭 눌러 담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 멩텡이 헤근엥에 영 꼰꼰허게 담앙 돌 탁, 지둘롸 놔둰게.(망태기 해서 이렇게 '꼰꼰허게' 담아서 돌 탁, 지지러 놔두던데.) 24 [세화]

꼴다: '깔다'의 뜻으로 여기서는, 새벽질할 흙에 '수세'라는 것을 넣어서 소로 밟는 것을 의미한다. // 흑질 허젠허면 그 흑을 헤서 물주멍 수세 놓멍 헤근에 꼰다고 헤.(흙질 하려하면 그 흙을 해서 물주면서 '수세' 놓으면서 해서 '꼰다'고 해.) 24 [세화]

꼴레이불: '누비이불'의 제주어이다. // 것도 출리는 사름은 뭐 꼴레이불이니 뭐니 막 출령 가지.(그것도 차리는 사람은 뭐 누비이불이니 뭐니 막 차려서 가지.) 02 [선흘]

ㄴ

나그네: 무당과 같은 이를 조심스레 이르는 말이다. // 무당에 ᄒᆞ쏠 허고 뭐 허는 사름은 어디 객지러레 애기덜 나가젠 허민 그 나그네 빌어다근에 문전으로 빌어.(무당에 조금 하고 뭐 하는 사람은 어디 객지로 아기들 나가려고 하면 그 '나그네' 빌려서 문전으로 빌어.) 06 // 쳇 애기에는 막 숭 봔에 허난, 막 저 나그넨디 심방헤단 막 빌멍 헹 공들연에 살아난.(첫 애기에는 막 흉봐서 하니까, 막 저 '나그네'인지 무당 해다가 막 빌면서 해서 공들여서 살아난.) 15 [남원, 수망]

나까사끼: 감자의 종류로 일본어에서 온 말이다. // 일본 거세기로 요즘 말ᄒᆞ연은 저 나까사끼옌 ᄒᆞ는 게 잇어. 그 지슬 종류로 게난 그 세 가지, 게난 히마바라도 저거 일본 거고 저.(일본 거시기로 요즘 말해서 저 '나까사끼'라고 하는 게 있어. 그 감자 종류로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그러니까 '히마바라'도 저거 일본 거고 저.) 08 [동광]

나까시리: 굿의 '나까시리 놀림' 제차에서 높이 던져 올리며 놀리는 흰 시루떡을 말한다. // 그 굿 심방덜 빌어근에 나까시리 허잖아.(그 굿 '심방'들 빌어서 '나까시리' 하잖아.) 21 // 무사 나까시리옌 어른덜은 ᄀᆞᆯ앗주.(왜 '나까시리'라고 어른들은 말했지.) 23 [신촌, 온평]

나까오리: 일본어 'なかおれ'에서 온 말로 중절모를 말한다. // 모전디 이거 일본 때에 나긴 나서. 나까오리 씨언 막 이거 신사가 써낫어, 옛날에.(모잔데 이거 일본 때에 나오기 나왔어. '나까오리' 써서 막 이거 신사가 썼었어, 옛날에.) 02 // 겨울 모자는 무시거게, 저런 나까오리도 쓰곡 저런 모자도 쓰곡 무신.(겨울 모자는 무엇, 저런 중절모도 쓰고 저런 모자도 쓰고 무슨.) 14 // 나까오리 저 일본서 잇다근에 어떵 뎅기당 주문헤 온 사람덜 나까오리엔 헌 그거 ᄒᆞ나썩 썽 뎅겻주, 모저.('나까오리' 저 일본서 있다가 어떻게 다니다가 주문해 온 사람들 '나까오리'라고 한 그거 하나씩 써서 다녔지, 모자.) 25 // 우리 아바지네 어드레 가젠 허민 그 나까오리산디 그거 씨영 가고.(우리 아버지네 어디 가려고 하면 그 중절모자인지 그거 쓰고 가고.) 26 [덕수, 삼달, 선흘, 성읍, 신창, 태흥]

나대: 찍어서 나무 따위를 자르는 데 쓰는 연장을 말한다. '메호미, 미호미'라고도 한다. 일본어 'なた'에서 온 말이다. // 나대로 찍어가지고 그 가셍이 묶어서 땔감으로 가져오는 수도 잇고.('나대'로 찍어가지고 그 가장자리 묶어서 땔감으로 가져오는 수도 있고.) 09 // 그걸 가지나, 또 나대, 나대는 조금 나중. 그때는 엿날에는 그걸 보고 메호미옌 헷수다. 메호미.(그걸 가지나, 또 '나대', '나대'는 조금 나중. 그때는 옛날에는 그걸 보고 '메호미'라고 했습니다. '메호미'.) 15 // 고립낭도 헤당 ᄉᆞᆷ고 가시낭 거튼 거 비여. 호미, 나대로 다 후령. 그런 거 허영 크게 두 뭇썩도 헹 져 와.('고립낭'도 해다가 때고 가시나무 같은 거 베. 낫, '나대'로 다

후려서. 그런 거 해서 크게 두 뭇씩 해서 져 와.) 26 //저 나대 차곡 ᄌᆞᆫ둥이에 확 베 감아근엥에 들어가근엥에 낭을 헤도 경 빠르게 허곡 경 어린 땝주게.(저 '나대' 차고 잔등이에 확 참바 감아서 들어가서 나무를 해도 그렇게 빠르게 하고 그렇게 어린 때였지요.) 32 [고산, 노형, 대평, 덕수, 보목, 수망, 신창, 외도, 토평]

나들나들허다: 보리가 흔들리는 모양을 표현한 것이다. // 보리가 이렇게 커야 못 뷔리는디 보리가 영허민 나들나들허잖아.(보리가 이렇게 커야 못 보는데 보리가 이렇게 하면 '나들나들'하잖아.) 25 [태흥]

나라비허다: 일본어 'ならび'에서 온 말로 줄을 지어 늘어서다는 말이다. // 그 사름이 물 져다근에 뭣에 놓으민 그 뭐 통에나 하영 놓으민 허주마는 경 안허민 여름엔 민두룽허민 우린 이제 항에 놔두난이 싱싱허민 하나 아이 빙삭 웃으멍 날 보멍 물 먹으레 오민 막 나라비헹게.(그 사람이 물 져다가 뭐에 놓으면 그 뭐 통에나 많이 놓으면 하지마는 그렇게 안 하면 여름에 미지근하면 우린 이제 항아리에 놔두니까 싱싱하면 하나 아이 빙그레 웃으면서 나 보면서 물 먹으러 오면 막 줄 서서.) 33 [인성]

나라짓다: 누르거나 밟거나 쳐서 단단하게 하다는 의미인 표준어 '다지다'의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일본어 'ならし'에서 온 말인 것 같다. // ᄁᆞᆯ으민 거 저 펜펜ᄒᆞ게 우에서 알레서 갈레죽 올리라 갈레죽 올리라 요즘 삽양, 그걸 올리민, 그 삽 등얼로 이렇게 착착 나라지십니다.(깔면 거 저 평평하게 위에서 아래서 가래 올려라, 가래 올려라, 요즘 삽이요, 그걸 올리면, 그 삽 등으로 이렇게 착착 다집니다.) 15 [수망]

나록계: 볍쌀을 모으는 계를 말한다. // 나록계, 그 나록이 바로 ᄉᆞᆯ계주 무신.('나록계', 그 벼가 바로 'ᄉᆞᆯ계'지 무슨.) 16 [하원]

나록클: 벼를 훑는 기구이다. 표준어 '그네'에 대응하는 말이다. // 나록클은 내중에 이렇게 도르기 돌란에 이만씩 무껀 헤나고.('나록클'은 나중에 이렇게 바퀴 달아서 이만큼씩 묶어서 했었고.) 17 [대평]

나룩돌: 몸을 단련하거나 힘자랑을 하기 위해 들었다 놓았다 하는 돌 중 하나를 가리킨다. 크기별로 'ᄆᆞ물돌', '나룩돌', '콩돌'이라고 한다. // 요건 나룩돌, 요거는 콩돌, 요거는 ᄆᆞ멀돌, 돌이 세 개라.(요건 '나룩돌', 요거는 '콩돌', 요거는 'ᄆᆞ멀돌', 돌이 세 개야.) 30 [노형]

나룩질: 표선면 표선리의 지경 이름이다. // 이디 이 버들못에서 이제 밥주리 이제 수컷을 잡앙 씰에 영 꿰여근에 그거 막 하멍 이제 암커 봐지민 온다 온다 허멍 그 밥주리만 보멍 나룩질로부터 강단이ᄁᆞ장 강 포부뜨젠.(여기 이 '버들못'에서 이제 잠자리 이제 수컷을 잡아서 실에 이렇게 꿰어서 그거 막 하면서 이제 암컷 보이면 온다 온다 하면서 그 잠자리만 보면서 '나룩질'로부터 '강단이'까지 가서 맞붙으려고.) 05 [표선]

나룩질통: 표선면 표선리의 지명의 하나이다. // 그 나룩 갈아난 것이 아니고 그디 못이 잇어나신디 못 이름이 나룩질, 나룩질 그 옛날엔 거기를 경허연 그 저끗듸 그 통이 이시니까 나룩질통.(그 벼 갈았던 것이 아니고 거기 못이 있었었는데 못 이름이 '나룩질', '나룩질'. 그 옛날엔 거기를 그렇게 해서 그 곁에 그 통이 있으니까 '나룩질통'.) 05 [표선]

나릅: 소의 나이 네 살을 말한다. 달리 '나롭'이라고도 한다. // ᄒᆞᆫ ᄉᆞᆯ은 처음 난 거, 금승이옌 ᄒᆞ고, 또 일 년 넘은 건 다간 송아기옌, 사릅 송아기, 나릅 송아기 경.(한 살은 처음 난 거, '금승'이라고 하고, 또 일 년 넘은 건 '다간' 송아지라고, '사릅 송아지', '나릅' 송아지 그렇게.) 17 // 금승게. ᄒᆞᆫ 설에. 두 ᄉᆞᆯ은 다간. 사릅. 나릅. 그다음은 다습, ᄋᆞ습.(하릅. 한 살에. 두 살은 '다간'. 사릅. 나릅. 그다음은 다습, 여습.) 36 [대평, 봉성]

나무때기: 조금 길고 가느다란 나뭇조각을 말한다. 여기서는 콩이나 조 등의 '줄기'를 가리킨다. // 아메도 이 곡석 나무때기난 곡식 냄새나는 것 같애. 게난 이 짐승덜이 잘 먹는 것 같애.(아무래도 이 곡식 줄기니까 곡식 냄새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잘 먹는 것 같아.) 30 [노형]

나무리다: 업신여겨 낮추어 보거나 얕잡아 말하다는 뜻으로 '내무리다'로도 쓰인다. // 경헤난 디 우잣듸만 그런 디만 그 흐린조는 ᄇᆞᆯ려. 잘, 밧 나무령 잘 안뒈는 따문에.(그렇게 했던 데 텃밭에만 그런 데만 그 차조는 밟아. 잘, 밭 나무라서 잘 안 되는 때문에.) 25 [태흥]

나뭇계: 집을 짓기 위한 나무를 해다 주는 계를 말한다. // 나뭇계, 나뭇 나뭇헤근에 저 집 짓젠 허면은 이제 동네서 계헤근에 올라가근에 나무를 헤다가 다 집덜 지어주고.('나뭇계', 나무 나무해서 저 집 지으려고 하면 이제 동네서 계해서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다 집들 지어주고.) 16 [하원]

나박: 야채 따위가 납작하게 얇고 네모난 모양을 말한다. // 우린 무 헤여근에이 나박으로 썰어근에 솖앙 차롱에 놔둠서 거 ᄒᆞ꼼썩 사발에 놓멍 그 국물 놓더라.(우린 무 해서 '나박'으로 썰어서 삶아서 채롱에 놔두면서 거 조금씩 사발에 넣으면서 그 국물 넣더라.) 30 [노형]

나보기김치: '나박김치'를 말한다. '나베기짐치'라고도 한다. // 그 무는게 홁게 썰엉 홁은 나보기김치도 헨 먹고.(그 무는 굵게 썰어서 굵은 나박김치도 해서 먹고.) 15 [수망]

나비적: 메밀묵을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꼬치에 꿴 적을 말한다. // 납작납작헌 건 나비적.(납작납작한 건 '나비적'.) 13 [삼달]

나쓰미깡: 일본어 'なつみかん'으로 '하귤'을 말한다. // 또 귤은 아주 옛날에는 이런 나쓰미깡. 것도 귤이난 그런 것도.(또 귤은 아주 옛날에는 이런 하귤. 것도 귤이니까 그런 것도.) 06 [남원]

나아돌어미: '아이고, 젠장'처럼 쓰이는 욕이다. // 이거 죽도 밥도 안 뒈는 거라. ᄋᆞ 나아

돌어미 거.(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지. 아이고 젠장.) 03 [송당]

나풀나풀: 얇은 물체가 바람에 날리어 가볍게 자꾸 움직이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무를 얇게 써는 모습을 말한다. // 물김친게 그 무수 썰엉. 거 나풀나풀 썰엉게. 엿날에 소곰 ᄒᆞ당. 저 당원인가.(물김친 그 무 썰어서. 거 나풀나풀 썰어서. 옛날에 소금 하다가. 저 감미료인가.) 04 [고성]

낙허다: 놀이에서 정해진 선이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 이디서 허민 영 저만이, 요만이 구멍을 팡 그 구멍에 돈을 들어가민 먹고 또 돈이 이디 낙, 낙헤도 이제 지고. 거 먹어 불고.(여기서 하면 이렇게 저만큼, 요만큼 구멍을 파서 그 구멍에 돈을 들어가면 먹고 또 돈이 여기 낙, '낙헤도' 이제 지고. 거 먹어 버리고.) 26 [신창]

난닝구: 러닝셔츠(running shirt)의 일본어 'ランニング'식 발음이다. // 여름은 나민 저 거시기 요센 말로 난닝구 닮게시리.(여름은 되면 저 거시기 요샌 말로 러닝셔츠 같게끔.) 04 // 갈 아이 난닝구나 와이셔츠나 하나 곱게 한 일주일간 바레여근에 헤다근에 문전제 지내근에 아침에 곧 붉기 전에 헤근에 가이 보고 절허렌 헤근에 걸 헤근에 그 문전 앞이서 살아 주는 거라.(갈 아니 러닝셔츠나 와이셔츠 하나 곱게 한 일주일간 바래서 해다가 '문전제' 지내서 아침에 곧 밝기 전에 해서 그 아이 보고 절하라고 해서 걸 해서 그 문전 앞에서 살라 주는 거야.) 20 [고내, 고성]

난드르: 안덕면 대평리를 일컫는 옛 이름이다. // 난드르 아이신디 ᄒᆞ연에 중매로 장개가신디, 메누리 착ᄒᆞ고 잘 살암수다.('난드르' 아이에게 해서 중매로 장가갔는데, 며느리 착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08 // 난드르 형성 과정이 거 어른덜 곧는 거 들어보민 거 저 애월서 넘어왓젠 ᄒᆞᆸ주게, 사름이.('난드르' 형성 과정이 거 어른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거 저 '애월'서 넘어왔다고 하지요, 사람이.) 17 // 이 난드른 고스락, 웃드른 순 ᄆᆞᆯ똥, 쉐똥 걸로만 짇엇주게.(이 '난드르'는 까끄라기, '웃드르'는 순 말똥, 소똥 걸로만 때었지요.) 17 // 논이 하우께, 그 말 맞수다. 저 난드르허고.(논이 많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저 '난드르'하고.) 34 [구억, 대평, 동광]

난바르: 잠녀나 어부들이 동아리를 지어 여러 날 동안 먼 바다에 나가 배 위에서 먹고 자면서 해산물을 캐거나 고기를 잡는 일을 말한다. // 남자들이 옛날은 난바르라고 헤 가지고 풍선을 끌고 삼일 오일 그 가 가지고 바다에서 자고 고기를 낚고 와 가지고 여기서 그런 생활덜을 헷고.(남자들이 옛날은 '난바르'라고 해 가지고 풍선을 끌고 삼일 오일 그 가 가지고 바다에서 자고 고기를 낚고 와 가지고 여기서 그런 생활들을 했고.) 23 // 난바르라는 거는 베를 타고 나가서 가족덜 버리고 삼일 먹을 거 싸고 그디 가 가지고 자기대로 밥헤 먹으면서 갈치나 이 저 솔레기를 나까 가지고 왓어.('난바르'라는 거는 배를 타고 나가서 가족들 버리고 삼일 먹을 거 싸고 거기 가 가지고 자기대로 밥해 먹으면서 갈치나 이 저 옥돔을

낚아 가지고 왔어.) 23 [온평]

난벵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넓은 들을 말한다. // 밧 바깟디 막 널른 디 가근에가, 뭐이냐 난벵디.(밭 밖에 아주 넓은 데 가서, 뭐니, '난벵디'.) 12 [한동]

난쟁이: '냉이'의 제주어이다. '나시, 난상이, 난시, 난지'라고도 한다. // 난쟁이 같은 것들도 잇고 뭐 풀은 여러 가지주.(냉이 같은 것들도 있고 뭐 풀은 여러 가지지.) 09 [고산]

난전: 마을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들녘에 있는 밭을 말한다. '난전밧'이라고도 한다. // 뒈도록이믄 들녘이 ᄒᆞᆫ 곡식들인데 난전 곡식이라고 합니다.(되도록이면 들녘에 한 곡식들인데 '난전' 곡식이라고 합니다.) 03 // 소서를 기준으로 헤서 가름밧 가름밧은 소서 넘어근에 ᄒᆞᆫ 삼일ᄁᆞ지 뒈야허곡 또 이제 난전밧 난전밧은 가름에서 벗어난 밧.(소서를 기준으로 해서 '가름밧' '가름밧'은 소서 넘어서 한 삼일까지 되어야하고 또 이제 '난전밭' '난전밭'은 동네에서 벗어난 밭.) 22 [송당, 우도]

난전밧: 마을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들녘에 있는 밭을 말한다. '난전'이라고도 한다. // 얼굴 곱고 속 좋은 것은 난전밧디 간절귀더라.(얼굴 곱고 속 좋은 것은 '난전밭'의 개똥참외야.) 29 [외도]

날레: 볕을 쐬기 위하여 멍석에 널어놓은 곡식을 말한다. // 날레 널엉 하간 곡식 널엉 멍석에 널어근에 젓는 건 설레.('날레' 널어서 여러 곡식 널어서 멍석에 널어서 젓는 건 '설레'.) 02 // 날레 널어근에 이제 어리니까 이젠 날레 들여놓지 못허니까 영 영 허영 더껑 놔두라.('날레' 널어서 이제 어리니까 이젠 '날레' 들여놓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덮어서 놔두어라.) 05 // 정지에도 꼴곡, 마당에도 놩예 날레 널젠 ᄒᆞ면은 보리낭, 게난 보리낭을 막 애껴 썻수다.(부엌에도 깔고, 마당에도 놔서 '날레' 널려고 하면은 보리짚, 그러니까 보리짚을 아주 아껴 썼습니다.) 08 // 날레도 헤영 조도 헤영 널젠 허민 멍석 ᄒᆞᆫ 댓 개썩 놔근에 그거 다 널고.('날레'도 해서 조도 해서 널려고 하면 멍석 한 댓 개씩 놔서 그거 다 널고.) 13 [고내, 대평, 도련, 동광, 보목, 삼달, 선흘, 성읍, 선흘, 신창, 신촌, 월령, 인성, 태흥, 표선, 한동]

날ᄇᆞᆯ림: 날을 받아야 할 일이라는 의미이다. // 장 담는 건 날ᄇᆞᆯ림 없이 섣ᄃᆞᆯ구뭄날.(장 담그는 건 '날ᄇᆞᆯ림' 없이 섣달그믐날.) 14 [성읍]

날역부리다: 제대로 일은 안 되면서 하루의 일할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는 의미이다. '날역ᄇᆞ리다', '날역버리다', '역ᄇᆞ리다'라고도 한다. // 그자 날역부령 강 수정 한 집은 서넉 짐썩 바당에 가근에 건져다근에 그거 ᄆᆞᆯ류와근에 동산에 오라근에 막 널엉 헤옇게 발려근에 이추룩 종잇장거치 발레여근에 그거 밥헤근에 조팝이영 보리팝이영 그거 서껑.(그저 '날역부령' 가서 수 많은 집은 서너 짐씩 바다에 가서 건져서 그거 말려서 동산에 와서 마구 널어서 하얗게 바래서 이처럼 종잇장같이 바래서 그거 밥해서 조밥이랑 보리밥이랑 그거 섞어서.) 12 // 이거 이거 메는 날이 질 날역부려. 실 감는 건 시간 나는 양 원 건 허는디 ᄇᆞᆯ름도 밤이도 허고

줌 아니 자는 땐 허는디 메는 날은 해원. 멧이, ᄒᆞᆫ 두 사름만도 아이 뒈여.(이거 이거 매는 날이 제일 '날역부려'. 실 감는 건 시간 나는 대로 원 건 하는데 바르기도 밤에도 하고 잠 안 잘 땐 하는데 매는 날은 종일. 몇이, 한 두 사람만도 안 돼) 26 [신창, 한동]

날웨: 대정읍 일과리의 옛 이름이다. '날뤠, 날레'라고도 한다. // 멘네 ᄇᆞ르레 가는 거는 저 날웨, 모실포 날웨 공장 씨 까는 딘 그디벳기 엇입디다.(면화 바르러 가는 거는 저 '날웨', '모슬포' '날웨' 공장 씨 까는 데는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17 // 여름에 보민 유월ᄃᆞᆯ에 엿날에 날웨, 멜 들주게. 멜 들민.(여름에 보면 유월에 옛날에 일과리, 멸치 들지. 멸치 들면.) 33 // 날웨 저 멜을 해 원 안에 들어왕 거려근에 이레 막 ᄑᆞᆯ레 와십주게.('날웨' 저 멸치를 '해' '원' 안에 들어와서 떠서 이리 마구 팔러 왔습지요.) 34 [구억, 대평, 인성]

날푼허다: 얇은 천 따위가 잘 펴지다는 뜻이다. // 이제 ᄀᆞ뜨민 다라에 물 푹 적졍 그냥 물영 들렁 빼뒁 그냥 이런 디 강 날푼허게 곱게 널어.(이제 같으면 대야에 물 푹 적셔서 그냥 물 이렇게 들어서 빼두고 그냥 이런 데 가서 '날푼'하게 곱게 널어.) 11 [함덕]

남: 나무를 뜻하는 말로 '남뎅이' 즉 식물의 '대'를 말하는 것 같다. // 이제는 비료를 ᄒᆞ기 따문에 남이 나고, 그때는 비료 엇일 시절이라부난 ᄆᆞᆫ저 갈아야는 거고.(이제는 비료를 하기 때문에 나무가 나고, 그때는 비료 없을 시절이라서 먼저 갈아야하는 거고.) 15 [수망]

남군: '남제주군'을 말한다. 남제주군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행정 구역 명칭으로 2006년에 서귀포시로 통합되었다. // 남군은 잇어. 이 호령창. 옛날은 이 뭣고 첩에 난 애긴 호령창으로만 헹 대문으론 뎅기지 못허게 헷저, 헤난 거 알아져.(남군은 있어. 이 '호령창'. 옛날은 이 뭐지 첩이 낳은 아긴 '호령창'으로만 해서 대문으로 다니지 못하게 했어, 했던 거 알아.) 26 // 그 제주도말 허길래 제주도 어디서 옵디가? 허난 어디 저 남군 쪽에서 오ᄀᆞ렌 허멍 허는디, 말허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 현실허고 아주 그냥 대조적인 얘길 허여.(그 제주도말 하기에 제주도 어디서 왔습니까? 하니까 어디 저 남군 쪽에서 왔다고 하면서 하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 현실하고 아주 그냥 대조적인 얘길 해.) 29 // 우린 우장이엔, 이디선 우장이엔 허는디 어디 남군더레 가면은.(우린 우장이라고, 여기선 우장이라고 하는데 어디 남군으로 가면.) 30 // 모읜조 ᄀᆞ뜬 것은 여기 흐린 조가 남군이나 저 산간에 강 갈면 또 모여집니다.(메조 같은 것은 여기 차조가 남군이나 저 산간에 가서 갈면 또 메집니다.) 35 [노형, 대림, 신창, 외도]

남당: 제주시 이호1동에 있는 당 이름이다. // 그 할망이 옷도 헤 주곡 먹을 것도 헤 주고 시집갈 때 광목도 헤당 빌로 막, 빌로 헤영 ᄉᆞᆲ아근에 이호일동 그 남당이엔 헌 디가 잇어.(그 할머니가 옷도 해 주고 먹을 것도 해 주고 시집갈 때 광목도 해다가 필로 마구, 필로 해서 삶아서 이호일동 그 '남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30

[노형]

남뎅이: '눈알고둥'을 이르는 말이다. '돌포말', '남보말'을 말한다. // 그것ᄁᆞ장양. 그것ᄁᆞ장 벳기. 먹보말, 수드리, 남뎅이.(그것까지요. 그것까지밖에. 밤고둥, 두드럭고둥, '남뎅이.') 04 [고성]

남드르: 애월읍 고내리 지명의 하나이다. // 그런 땐 저디 남드르엔 헌 디 가근에 저 무신 거둬다근에 ᄆᆞᆯ류왕 밧디덜 걸름으로 헤낫주.(그런 땐 저기 '남드르'라고 하는 데 가서 저 무슨 거둬다가 말려서 밭에들 거름으로 했었지.) 20 [고내]

남드리: 애월읍 고내리 지명의 하나이다. // 일로 헤서 저 남드리로 저 이런 기정이랏어마씨.(일로 해서 저 '남드리'로 저 이런 벼랑이었어요.) 20 [고내]

남드리알: 애월읍 구엄리에 위치한 바다 지경을 일컫는다. // 소살 ᄒᆞ믄 보통 저 이 저 남드리알이엔 해 가지고 글로 들엉 요 저 온여ᄁᆞ지 오젠 ᄒᆞ믄 거의 ᄒᆞᆫ 멧백 메다 뒈우다게.(작살 하면 보통 저 이 저 '남드리알'이라고 해서 거기로 들어서 요 저 '온여'까지 오려고 하면 거의 한 몇백 미터 됩니다.) 28 [구엄]

남문: 제주목을 둘러싸던 제주읍성의 남쪽 문을 말한다. // 남문에 딱 들어오니까 그 청년덜 보초 삿잖아. 보초 사난 어디서 왐시니, 심엉 딱 ᄀᆞᆫ더라게.(남문에 딱 들어오니까 그 청년들 보초 섰잖아. 보초 서니까 어디에서 오고 있니, 잡아서 딱 말하더라.) 30 [노형]

남문동네: 성산읍 고성리의 한 자연 마을 이름이다. // 소위 벵딧까름동네, 성안동네, 남문동네, 웃도릉 웃동네 ᄒᆞ문, 장만이동산, 아 요런 이 저 동네별로 허문은 거이 접이나 계가.(소위 '벵딧가름'동네, '성안'동네, '남문'동네, '웃도릉' 윗동네 하면, '장만이동산', 아 요런 이 저 동네별로 하면 거의 계나 계가.) 04 [고성]

남박: 나무를 파서 만든 바가지이다. // 동글락ᄒᆞᆫ 그 무신 남박 닮은, 수랑ᄒᆞᆫ 남박시민, 그거 거세기 ᄀᆞᆯ아근에 그레 톡톡 ᄒᆞ게 물을 거려놓으민 그걸 ᄯᅳ시 물 빠지게 고망 난 것덜에 그걸 거려 놉디다게.(둥근 그 무슨 '남박' 닮은, 조금 기름한 '남박' 있으면, 그거 거시기 깔아서 그리로 톡톡 하게 물을 떠 넣으면 그걸 다시 물 빠지게 구멍 난 것들에 그걸 떠 넣습디다.) 08 [동광]

남박세기: 나무를 파서 만든 바가지이다. '남박'이라고도 한다. // 그, 식기가 전부 남박세기. 낭으로.(그, 식기가 전부 '남박세기'. 나무로.) 36 [봉성]

남밧: '나무 밭'의 의미이다. 여기에서는 귤나무를 심은 밭, 즉 귤나무 밭을 의미한다. // 헤바레기풀이 젤 잘 나주, 남밧디도 질 많이 나고.('헤바레기풀'이 젤 잘 나지, 나무 밭에도 젤 많이 나고.) 23 // 남밧듸 약 치레 가오민 우선은 양웨 케여다근엥에 그걸로 뒌장에 찍으멍이라도 밥 먹읍네께.(나무밭에 약 치러 가오면 우선은 양하 캐어다가 그걸로 된장에 찍으면서라도 밥 먹습니다.) 23 [온평]

남방에: 큰 통나무를 파서 만든 둥글넙적한 도정 기구이다. 네모지고 나지막한 받침 위에 함지박 모양의 나무통을 붙이고 여기에 돌절구를 끼워 넣은 뒤 나무공이로 곡식을 찧는다. // 체는 뱅이왕에, 쉐막 에염에 뱅이왕이 잇주게. 저 남방에 짛는 뱅

이왕, 그레 강 체 ᄀᆞ튼 거 톡톡 걸곡, 경 ᄒᆞ여.(체는 '뱅이왕'에, 외양간 옆에 '뱅이왕'이 있지요. 저 '남방에' 찧는 '뱅이왕', 그리로 가서 체 같은 거 톡톡 걸고, 그렇게 해.) 17 // 남방에 젼 먹엇주기. 보리도 남방에 졍 먹언.('남방아' 찧어서 먹었지. 보리도 '남방아' 찧어서 먹었어.) 19 // 방엣간에 그 아니믄 과거엔 남방에 ᄀᆞ뜬 디라든지, ᄯᅩ로 경 안 허믄 우마로 돌리는 디라든지, 연자방아 ᄀᆞ뜬 디서.(방앗간에 그 아니면 과거에는 남방아 같은 데라든지, 또 그렇게 안 하면 우마로 돌리는 데라든지, 연자방아 같은 데서.) 35 // ᄌᆞ은 건 허젠 허민, ᄌᆞ은 것에서만 허젠 허민, 그걸로 헙디다게. 남방에서만.(작은 건 하려고 하면, 작은 것에서만 하려고 하면, 그걸로 합디다. '남방에'서만.) 36 [대림, 대평, 봉성, 송당, 청수]

남산망: 표선면 성읍1리 소재의 오름 이름이다. // 건방은 성읍리는 이 저 영주산허고 이 남산망 사이를 ᄀᆞᆫ방이라고 헤여.(건방은 성읍리는 이 저 영주산하고 이 남산망 사이를 간방이라고 해.) 14 [성읍]

남산봉: 표선면 성읍1리에 있는 오름 가운데 하나이다. // 여기는 남산봉 잇는디 남산봉은 저거 오름이 크질 안 허여. 족아.(여기는 '남산봉' 있는데 '남산봉'은 저거 오름이 크질 안 해. 작아.) 14 [성읍]

남선비: 문전본풀이에 등장하는 정살신을 의미한다. 문전신의 아버지로 죽어서 정살신이 된다. // 엿날에 저. 그 남저가 막 순허난 남선이라고. 남선이라고 허는 사람이 각시를 얻엇어.(옛날에 저. 그 남자가 막 순하니까 '남선비'라고. '남선비'라고 하는 사람이 각시를 얻었어.) 18 // 이 문제, 제주도만 잇는 거에 대해서. 헌디 옛날에 남선비라는 사람이 살앗던 모양이라. 수천년 전에.(이 문제, 제주도만 있는 거에 대해서. 한데 옛날에 '남선비'라는 사람이 살았던 모양이야. 수천 년 전에.) 36 [봉성, 신도]

남성이오름: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오름이다. // 남성이오름 싯곡.('남성이오름' 있고.) 08 // 건 더 돌아가민 남성이오름 잇곡.(건 더 돌아가면 '남성이오름' 있고.) 08 [동광]

남셍이오름: 안덕면 서광리에 있는 '남송이오름'을 말한다. 중턱에 깔때기 형 분화구가 있고 표고는 339m이다. '남소로기', '남송악'이라고도 한다. // 이녁 촐로 모지레난 남셍이오름 저 저 서광 우의 그디양 촐왓을 산마씸.(이녁 꼴로 모자라니까 '남셍이오름' 저 서광 위에 거기요 꼴밭을 샀어요.) 32 // 똥은 저 저 남셍이오름 가민 똥도 하고 또 여기도 하낫수다.(똥은 저 저 '남셍이오름' 가면 똥도 많고 또 여기도 많았습니다.) 32 [덕수]

남소록허다: 모양이 가늘고 길다는 의미이다. // 게난 다림은 요만이헌 끈이 잇주기게. 남소록허게 옛날은 멘들앙.(그러니까 대님은 요만한 끈이 있지. '남소록하게' 옛날은 만들어서.) 20 [고내]

남손: 흙일을 할 때에, 이긴 흙이나 시멘트 따위를 떠서 바르고 그 겉 표면을 반반하게 하

는 나무로 만든 연장을 말한다. // 남손은 웨 쓰는고 허니 ᄲᆞᆯ리 허기 위해서이 그 울퉁불퉁헌 디 잇지 안허냐이.('남손'은 왜 쓰는가 하니 빨리 하기 위해서 그 울퉁불퉁한 데 있지 않니.) 12 [한동]

남송이오름: 안덕면 서광리 산31번지에 있는 오름이다. // 이녁 허지 않으민 촐왓이 허지 않으민 저 남송이오름에 가근엥 촐왓 사근엥 그듸 강 그 촐 비엉 오라근엥 막 ᄆᆞᆯ도 주곡 쉐도 주곡 경 헨.(이녁 하지 않으면 꼴밭이 하지 않으면 저 '남송이오름'에 가서 꼴밭 사서 거기 가서 그 꼴 베어서 와서 막 말도 주고 소도 주고 그렇게 했어.) 18 [신도]

남승이: 안덕면 서광리에 있는 '남송이오름'을 말한다. // 막 우리 저디 멩이눈 남승이꺼장 걸엉 ᄒᆞᆫ 세 시, 네 시에 나강 그꺼장 걸어강 헹 와. 멩이눈 우이 남승이엔 헌 디 강.(마구 우리 저기 '멩이눈' '남승이'까지 걸어서 한 세 시, 네 시에 나가서 거기까지 걸어가서 해서 와. '멩이눈' 위에 '남승이'라고 하는 데 가서.) 26 [신창]

남승이오름: 안덕면 서광리에 있는 '남송이오름'을 말한다. // 저지오름엔 ᄍᆞᆯ르고 그 남승이오름엔 가민 질어.('저지오름'에는 짧고 그 '남승이오름'에는 가면 길어.) 26 [신창]

남은앞동네: 대정읍 인성리의 자연 마을 이름이다. // 남은앞동넨 이 물 신 동네 낭서리 싯곡 헌 동네엔 옛날 이칩이덜 잘사난에 그 하르방덜 이제 살앗주마는 동카름더렌 인성 지경이라도 아기덜 출세시긴 사름 엇어.('남은앞동넨' 이 물 있는 동네 '낭서리' 있고 한 동네엔 옛날 이씨 집들 잘사니까 그 할아버지들 이제 살았지마는 '동카름'으로는 인성 지경이라도 아기들 출세시킨 사람 없어.) 33 [인성]

남은앞물: 대정읍 인성리 농협 앞쪽에 있었던 연못을 이르는 말이다. // 남은앞물이엔 허여. 남은앞물.('남은앞물'이라고 해. '남은앞물'.) 33 [인성]

남제긴내: 성산읍 고성에 소재한 하천이다. // 견디 이제는 남제긴내가 엇어져시난에. 이제 헤, 헤 전부 다 알르로 그. 고수천 사업을 헤연에 그듸 그.(그런데 이제는 '남제긴내'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헤, 헤 전부 다 아래로 그. '고수천' 사업을 해서 거기 그.) 04 [고성]

남젱이: '줄기'를 말한다. // 산디찝으로 산디 남젱이.(밭볏짚으로 밭벼 '남젱이.') 22 [우도]

남죽: 죽젓개를 이르는 제주어이다. 밥주걱으로도 쓰였다. // 밥이 눈 거 닮으민 불 껏당 ᄒᆞ꼼 뜸 들이면은 남죽으로 것이 남죽이라 영 젓어부는 것이.(밥이 눌은 거 같으면 불 껐다가 조금 뜸 들이면 '남죽'으로 그것이 '남죽'이야 이렇게 젓는 것이.) 11 [함덕]

남추굿: 표선면 표선민속촌 인근의 우물 이름이다. // 소가 무껑, 무껑 놧당 클렁 내놓면은 완전 들락퀴멍 그 우리 이제 말로 물이 남추굿. 아 이제 아래 저것이 남추굿. 민속촌 하는 그디가 남추굿이주.(소가 묶어서, 묶어서 놓았다가 끌러서 내놓으면 완전 날뛰면서 그 우리 이제 말로 물이 '남추굿'. 아 이제 아래 저것이 '남추굿'. 민속촌 하는 그곳이 '남추굿'이지.) 05 [표선]

남테: 둥근 나무토막에 굵은 나뭇가지를 돌아가며 수 없이 박아 붙여서 만들고는 굴려서 밭을 눌려 다지는 농기구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낭테', '목마'라고 한다. // 조 ᄇᆞᆯ릴 때 남테로 허는 사름도 잇고. 남텐, 어느 정도이 적당한 규격 헤놩 거기에 뿔덜 막 박아놩.(조 밟을 때 '남테'로 하는 사람도 있고. '남텐', 어느 정도이 적당한 규격 해놓아서 거기에 뿔들 막 박아 놓아서.) 01 // 밧일엔 헌 건 쉐헤근엥에 밧 갈앙 씨 뿌리고 헤근에 남테로 헤서 남테는 사름이 막 끕니다게.(밭일이라고 한 건 소해서 밭 갈아서 씨 뿌리고 해서 '남테'로 해서 '남테'는 사람이 막 끕니다.) 05 // 영 사람이 영 지여근에 남테를 그 ᄆᆞᆯ 대신 남테를 그렇게 헷주.(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지어서 '남테'를 그 말 대신 '남테'를 그렇게 했지.) 12 // 하영 ᄇᆞᆯ리는 사람은 이제 갈아근에 좁씰 내껴. 남테로도 ᄇᆞᆯ르곡, 또 이신 사름은 저 웃드리 가근에 ᄆᆞᆯ테우리 말, 말, 그거 빌어당 ᄇᆞᆯ르곡.(많이 밟는 사람은 이제 갈아서 좁씰 내껴. '남테'로도 밟고, 또 있는 사람은 저 '웃드리' 가서 말 목동 말, 말, 그거 빌어다가 밟고.) 21 [고성, 구억, 노형, 대림, 덕수, 도련, 성읍, 신촌, 외도, 우도, 월령, 표선, 한동]

남텡이: 둥근 나무토막에 굵은 나뭇가지를 돌아가며 수없이 박아 붙여서 만들고는 굴려서 밭을 눌러 다지는 농기구이다. 지역에 따라서 '낭테, 남테'라고도 한다. // 거시 렷당 거 두불 우이로 살살살 쟁기 들렁 갈멍 씨 뿌령은에 사름덜 모다들엉 ᄇᆞᆯ립주. 쉐, 게고 그전에 그건 처음 써나고, 남텡이옌 허영 영 구루마ᄀᆞ찌 영 헌 것에, 동글락헌 것에 막 ᄆᆞᆯ발ᄀᆞ치 헤 놩, 그것도 헤낫수다.(애벌갈이 했다가 거 두벌 위로 살살살 쟁기 들어서 갈면서 씨 뿌려서 사람들 모여들어서 밟지요. 소, 그리고 그전에 그건 처음 섰었고, '남텡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차 같이 이렇게 한 것에, 동그란 것에 막 말발같이 해 놔서, 그것도 했었습니다.) 28 [구엄]

남평날: '납평날'이다. 동지 뒤의 셋째 술일로 이날 주로 엿을 곤다고 한다. // 남평날이라고. 그 저 무시거 특이한 뭐 저, 약초나 헤영 약을 달이나 귀중한 거를 뭐 허는 날이우다.(납평날이라고. 그 저 무엇 특이한 뭐 저, 약초나 해서 약을 달이거나 귀중한 거를 뭐 하는 날입니다.) 03 // 남평날 ᄎᆞᆷ 일 년 열두 ᄃᆞᆯ에 ᄒᆞᆫ 번게 남평날엔 헤근에.(납평날 참 일 년 열두 달에 한 번 납평이라고 해서.) 29 [송당, 외도]

납닥이: 한림읍 월령리에 있는 바위 이름이다. // 이제 물싸도 납딱허게 나오난 납딱이.(이제 물써도 납짝하게 나오니까 '납딱이'.) 10 // 또 ᄒᆞ꼼 가민 납닥헌 여 시난 납닥이.(또 조금 가면 납작한 여 있으니까 '납닥이'.) 10 [월령]

납작보리: 납작하게 누른 보리쌀을 말한다. // 거 우리나라에서가 아니고 해방 이후에 그 서영에서 여기 저 구호미로 나와 가지고 헌 것들이 월남미, 납작보리, 납작보리 헷는디 보리 같은 거라도 기계에 압축시겨 가지고.(거 우리나라에서가 아니고 해방 이후에 그 서양에서 여기 저 구호미로 나와 가지고 한 것들이 월남미, '납작보리', '납작보리' 했는데 보리 같은 거라도 기계에 압축시켜 가지고.) 35 [대림]

납작보리밥: 납작하게 누른 보리쌀로 만든 밥이다. // 보리밥보다도 납작보리밥이 어린 아이덜라든지 위가 나쁜 사람덜은 것도 좋지만은, 빨리 배고파.(보리밥보다도 '납작보리밥'이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위가 나쁜 사람들은 그것도 좋지만, 빨리 배고파.) 35 [대림]

납작보리쌀: 납작하게 누른 보리쌀이다. // 납작보리쌀은 여기서 생산은 아니허고 또 그 저 안락미라든지 월남미라든지 이렇게 헤 가지고 명칭은 납작보리라 헤도 월남밉주게.('납작보리'쌀은 여기서 생산은 안 하고 또 그 저 안남미라든지 월남미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명칭은 '납작보리'라 해도 월남미입니다.) 35 [대림]

납작톨: 톳의 한 종류로, 모양이 납작해서 붙은 이름이다. // 납작톨엔 허여근에 종류가 톨 이름은 ᄀᆞ튼디 종류가 납작톨 나는 딘 납작허게, 톨이 이파리가 납작허게 나난 납작톨엔 허곡.('납작톨'이라고 해서 종류가 톳 이름은 같은데 종류가 '납작톨' 나는 덴 납작하게, 톳이 이파리가 납작하게 나니까 '납작톨'이라고 하고.) 23 [온평]

납질납질: 매끈하게 납작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영. 영, 영 동글락허게 납질납질 허게 허는 거. 영 ᄒᆞ꼼 허게 헨 영 헤라.(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납질납질' 하게 하는 거. 이렇게 조금 하게 해서 이렇게 하더라.) 26 [신창]

납평날: 동지 뒤의 셋째 술일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납펭날', '남펭날'이라고도 한다. // 납평날. 엿 허는 날, 그거. 엿 허는 날.(납일. 엿 하는 날, 그거. 엿 하는 날.) 18 [신도]

낫: 날과 자루의 길이가 긴 연장으로 서서 베는 도구를 말한다. '장낫'이라고도 한다. // ᄆᆞᆯ 올려불민은 이 ᄆᆞᆯ 그 봄에 놀면서 먹어난 자리는 풀이 컹 자라민 촐 이 낫으로 비주게.(말 올려버리면 이 말 그 봄에 놀면서 먹었던 자리는 풀이 커서 자라면 꼴 이 낫으로 베지.) 14 // 엿날은 낫으로 촐은 낫으로양 긴 거. ᄌᆞ록 길게 돋은 거 잇지 아녀꽝게.(옛날은 '낫'으로 촐은 '낫'으로요 긴 거. 자루 길게 돋은 거 있지 않습니까.) 15 // 숫돌 헤 가지고 이것도 낫을 잘 ᄀᆞᆯ아야 촐 ᄒᆞᆫ ᄒᆞᆫ 번 나가면은 ᄒᆞᆫ 바리든 두 바리든 빌 수가 잇어야지.(숫돌 해 가지고 이것도 '낫'을 잘 갈아야 꼴 한 한 번 나가면 한 바리든 두 바리든 벨 수가 있어야지.) 23 // 그 근방 저 그 오름덜 신 근방 그레 강 막 촐을 허민, 낫, 호미로 안 비영 그 낫으로 영영 후리는 거.(그 근방 저 오름들 있는 근방 그리 가서 막 꼴을 하면, 벌낫, 낫으로 안 베어서 그 벌낫으로 이렇게 이렇게 후리는 거.) 25 [고성, 남원, 성읍, 수망, 온평, 외도, 태흥, 표선, 하원]

낭: '나무'의 제주어이다. 여기서는 '귤나무'를 뜻한다. // 일본서 오는 낭을 그 심어근에 싱그젠 허난. 부두엘 매날 가는 거라마씸게. 매날 간. ᄒᆞᆫ 열흘 부두에 가왓수다게.(일본서 오는 귤나무를 그 심어서 심으려고 하니까. 부두엘 맨날 가는 거예요. 맨날 가고. 한 열흘 부두에 가왔습니다.) 32 [덕수]

낭: '나무'의 제주어이다. 콩이나 조의 줄기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 이제 콩은 낭으로 딱

그늘쳐 불민 검질이 잘 안 나고. 감제 검질도 흔불만 메민 다 엉글어졍 허민 벨로 감제 검질도 벨로 짓지 안허는디 조컴질이 으라 번 메주게. (이제 콩은 줄기로 딱 그늘져 버리면 김이 잘 안 나고. 고구마 김도 초벌만 매면 다 엉클어져서 하면 별로 고구마 김도 별로 깃지 않는데 '조컴질'이 여러 번 매지.) 26 // 낭 난 보리 잇고 낭 쫄른 보리 잇고.(줄기 난 보리 있고 줄기 짧은 보리 있고.) 31 // 낭 그 저 영 보리 보리 홀튼 거 나오면은 낭 나오면은 고고리.('낭' 그 저 이렇게 보리 보리 훑은 거 나오면 보릿대 나오면 이삭.) 32 // 산뒤 영 세와 놓으민 그걸로 누슬아 산뒤 그 낭.(밭벼 이렇게 세워 놓으면 그걸로 날카로워 밭벼 그 줄기.) 33 [고내, 덕수, 신창, 인성, 토평]

낭: '나무'의 제주어이다. 여기서는 짚을 말한다. // 영 망만 잇으면은 이디 아래에 도마 꼴아. 그 산디 낭 하나썩 있어.(이렇게 쳇바퀴만 있으면 여기 아래에 도마 깔아. 그 밭벼 짚 하나씩 있어.) 30 [노형]

낭끌: 나무를 쪼개거나 구멍을 팔 때 사용하는 끌을 말한다. // 낭끌은 이 나무 이렇게 벡선 세울랴고 허민 구녁을 파사 세우니까 이거 팔랴고 끌 아졍 뎅기는 거.('낭끌'은 이 나무 이렇게 벽선 세우려고 하면 구멍을 파야 세우니까 이거 팔려고 끌 가져다니는 거.) 14 [성읍]

낭밧: '나무가 심어진 밭'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귤밭'의 의미로 쓰였다. // 탈탈이도 처음으로 덕수 허여 놓고. 저 낭밧도 저 다섯 사름이 처음 헷수다.(경운기도 처음으로 덕수에 해 놓고. 저 귤밭도 저 다섯 사람이 처음 했습니다.) 32 [덕수]

낭불: 나무로 때는 불을 말한다. // 저 낭불에 서껑 불로도 허고, 저 우린 똥 줏으렌 아이 뎅겨 봔.(저 '낭불'에 섞어서 불로도 하고, 저 우린 똥 주우러 안 다녀 봤어.) 26 // 그것에 전복겁죽에. 그거 이제 거트민 남비라. 전복겁죽에 자리 허영 그것에 이 솟강알에. 낭불에 영헨 거 구웡 그거 완전 고급.(그것에 전복껍데기에. 그거 이제 같으면 냄비야. 전복껍데기에 자리 해서 그것에 이 아궁이에. 나무 불에 이런 거 구워서 그거 완전 고급.) 26 // 저기 낭불 살를 거 졍 가사 불살랑 초고.(저기 '낭불' 사를 거 지고 가야 불살라서 쬐고.) 31 // 그건 우리 낭불 솜아근에 게스미 물 줭 허는 것보다는 멧 곱, 첨 이제 이제 저 숫 풀지 안허느냐게?(그건 우리 '낭불' 때서 숯 물 줘서 하는 것보다는 몇 곱, 참 이제 이제 저 숯 팔지 않니?) 31 [신창, 토평]

낭손: 나무로 만든 흙손으로 이긴 흙을 떠서 바르고 겉 표면을 반반하게 하는 연장이다. // 낭손이사 낭손이고 쒜손은 쒜손이고.('낭손'이야 '낭손'이고 쇠손은 쇠손이고.) 26 // 이젠 쒜손으로 허주만은 그땐 낭, 낭손.(이젠 쇠손으로 하지만 그땐 나무, '낭손'.) 31 // 이 손으로 영 싹 허민 꼭 그 낭손, 쒜손추록 민뜩 허게 만들아져. 건.(이 손으로 이렇게 싹 하면 꼭 그 낭손, 흙손처럼 미끈하게 만들어져. 그건.) 36 [봉성, 신창, 토평]

낭웨: 밀가루나 보릿가루를 기주 따위로 부풀려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떠낸 떡이

다. '빗상웨'라고도 한다. // 똑똑 썰어근엥에 니귀반득허게 치엉 먹주게. 그것ᄀᆞ란 낭웨라고 허여, 낭웨.(똑똑 썰어서 네모나게 쪄서 먹지. 그것보고는 '낭웨'라고 해, '낭웨'.) 02 // 게문 것ᄀᆞ라 낭웨엔 헤근에 상웨떡이 부각허게 부꺼야 뒈는디 납작헤 불어.(그러면 것보고 '낭웨'라고 해서 상화떡이 부각하게 부풀어야 되는데 납작해 버려.) 23 // 요즘 낭웨는 기계로 강 헤오는 낭웨는 따로 잇입니께.(요즘 '낭웨'는 기계로 가서 해오는 '낭웨'는 따로 있습니다.) 23 [선흘, 온평]

낭저: 표준어의 '낭자'로 여자의 예장(禮裝)에 쓰는 딴머리의 하나이다. 쪽 찐 머리 위에 덧대어 얹고 긴 비녀를 꽂는다. // 머린 낭저, 옛날은 낭저, 우리 시절엔 낭저 헤난.(머리는 낭자, 옛날은 낭자, 우리 시절에는 낭자 했었어.) 02 [선흘]

낭테: 둥근 나무토막에 굵은 나뭇가지를 돌아가면 수없이 박아 붙여서 만들고는 굴려서 밭을 눌러 다지는 농기구를 말한다. // 구멍 뚤룬 거 밟아가서 밧ᄇᆞᆯ리는 것, 것을 낭테라고 허고 일반적으로 다 사용헤시니까 농사덜.(구멍 뚫은 거 밟아가서 밭 밟는 거, 그것을 '낭테'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다 사용했으니까 농사들.) 11 [함덕]

내려가다: 지대가 높은 중산간 마을에서 해안가 마을로의 이동을 '내려간다, 올라간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 김녕을 내려간 거라. 내려간 핸데, 우리 어머니가 가시남동에.(김녕에 내려간 거야. 내려가던 해인데, 우리 어머니가 '가시남동'에.) 03 [송당]

내용드르: 한림읍 옹포리에 있는 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형이 용 같아서 '내용'이라고도 한다. // 옹포는 주로 여기 저 그 그 겅 멀지 않아 옹포 내용드르 좀 지나면은 나무들이 옛날엔 나무들이 굉장히 많앗거든.(옹포는 주로 여기 저 그 그 그렇게 멀지 않아 옹포 '내용드르' 좀 지나면 나무들이 옛날에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27 [옹포]

내우다: '나오게 하다' 혹은 '밖으로 나오게 하다'는 뜻이다. '태어나는 아이를 거두다'는 의미의 표준어 '받다'에 대응한다. // 뭐 저추룩 덜렁거려도이 그런 건 아주 좀삼 헤영 놈의 집이 애기 내우레도 가 오고.(뭐 저렇게 덜렁거려도 그런 건 아주 자상해서 남의 집에 아기 '내우'러 갔다 오고.) 06 // 아기 내우는 할망 ᄃᆞᆯ아당 앚지고 망텡이에 보릿낭 담앗당 아깃방석 아기 낭 털어져 나민 그거 베똥줄 ᄌᆞᆯ라멩 끈엉 그 망텡이에 담앙.(아기 받는 할머니 데려다가 앉히고 망태기에 보릿짚 담았다가 태 아기 낳고 떨어지고 나면 그거 탯줄 잘라매서 끊어서 그 망태기에 담아서.) 26 [남원, 신창]

내우다: 표준어 '나오게 하다'에 대응하나 여기서는 '낳게 하다'의 의미이다. // 밧 갈곡 새끼 내우곡. 그거 주로 그겁주게.(밭 갈고 새끼 낳게 하고. 그거 주로 그거지요.) 32 [덕수]

내창: 시내보다는 크지만 강보다는 작은 물줄기인 내를 말한다. // 내창 ᄀᆞ튼 디 혹시 물먹으러 갓는가, 그런데다가 잘 셍각헤서 ᄎᆞ이레가는 거, 젤로 어려운거여.(내 같은

데 혹시 물먹으러 갔는가, 그런데다가 잘 생각해서 찾으러가는 거, 제일 어려운 거야.) 07 [보목]

내치다: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던지거나 나가게 하다는 의미이다. // 도새기가 막 불룅은에 똥을 싸. 게민 것이 이제 일 년이 되어, 일 년이 뒈민 가을 들민 걸 내쳐. 내치민 이제 물 빠져.(돼지가 마구 밟아서 똥을 싸. 그럼 것이 이제 일 년이 되어, 일 년이 되면 가을 되면 그걸 '내쳐'. '내치면' 이제 물 빠져.) 30 [노형]

내킹이: '냇물에 사는 게'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냇깅이, 냇겡이'라고도 한다. // 춤깅이 ᄀᆞ튼 거는 예쁘고 말이여 먹기도 좋고 말이지 뭐 또 저기 내킹이라고 헤서 내에서 자라는 깅이 ᄀᆞ튼 것도 이 뭐고 엄지발가락에다가 털 막 달리고 그런 내킹이도 잇고 말이여 깅이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참게 같은 거는 예쁘고 말이야 먹기도 좋고 말이지 뭐 또 저기 '내킹이'라고 해서 내에서 자라는 게 같은 것도 이 뭐고 엄지발가락에다가 털 막 달리고 그런 '내킹이'도 있고 말이야 게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 27 [웅포]

냇고랑창이: 내에 우묵하게 패인 고랑창의 제주어이다. '냇고랑챙이, 냇골챙이, 냇고랑치'라고도 한다. // 논도 쪼만한 냇고랑창이에 그냥 그 물 들어가는 디만.(논도 조그만한 '냇고랑창이'에 그냥 그 물 들어가는 데만.) 09 [고산]

냇굴: 성산읍 삼달1리에는 샘물의 이름이다. // 다 그디 시방덜은 막 질 아스팔트 허멍 막 변경뒈엄주게, 냇굴덜이 ᄆᆞᆫ 파멍.(다 거기 시방들은 막 길 아스팔트 하면서 막 변경되었지, '냇굴'들이 모두 파면서.) 13 [삼달]

냇도굴: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굴 이름이다. // 집을 떠난에 동광 우펜이 굴덜 일본 사름덜 판 굴이 잇어, 냇도굴, 냇도굴에 곱아서 그때.(집을 떠나서, '동광' 위편에 굴들, 일본 사람들 판 굴이 있어, '냇도굴', '냇도굴'에 숨어서 그때.) 08 [동광]

냉가: 일본어 'れんが'를 말하며 우리말로 '벽돌'을 뜻한다. // 그때는 뭐 냉가도 없고 브루코도 엇고.(그때는 뭐 벽돌도 없고 블록도 없고.) 32 [덕수]

너덩: 으름덩굴 따위의 덩굴을 이르는 말이다. // 한줄은 유름줄로 대개 허는디. 끅, 너덩, 너덩엔 허주.(봇줄은 으름덩굴로 대개 하는데. 칡, '너덩', '너덩'이라고 하지.) 01 [도련]

너른짓바당: 우도면에 있는 바다 이름이다. // 이제 저 무슨 바당이엔 ᄒᆞᆫ 디 가근엥에 ᄆᆞ음데로, 너른지 너른짓바당에 강 ᄆᆞ음데로 잡아왓다고.(이제 저 무슨 바다라고 한데 가서 마음대로, '너른지' '너른짓바당'에 가서 마음대로 잡아왔다고.) 22 [우도]

너물: 음력 열이틀과 스무 이렛날의 조수(潮水)로 '늬물'이라고도 한다. // 바짝 뭐 서물, 너물 날은 안 내려가는디 ᄋᆞ섯 일곱물 날 뒈가면은.(바짝 뭐 '서물', '너물' 날은 안 내려가는데 여섯 일곱물 날 되어가면.) 09 [고산]

너복빌레: 한림읍 옹포리의 한 지명이다. 둘레가 넓고 평평한 바위 위에서 회의도 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곳에서 훈계도 하고 잘못을 엎드려서 빌었던 곳이다. '너빅

빌레', '내복빌레'라고도 한다. // 너복빌레 ᄀᆞ튼 것이 지금이 저 그게 마 여기저 아까 이야기헷지만 마대기 마대기 빌레가 여기 너복빌레주게.('너복빌레' 같은 것이 지금이 저 그게 마 여기저 아까 이야기했지만 '마대기', '마대기빌레'가 여기 '너복빌레'지.) 27 [옹포]

너분못궤: 표선면 성읍1리 지경에 있는 자연동굴의 하나이다. // 굴은 너분못궤 잇고, 소젱잇궤 잇고, 또 원남갯궤 잇고 그게 그게. 생이궤엔 헌 디가 잇는디 생이궤는 우로 들어가곡 우로 나옴벳기는 못허는 궤가 잇어.(굴은 '너분못궤' 있고, '소젱잇궤' 있고, 또 '원남갯궤' 있고 그게 그게. '생이궤'라고 한 데가 있는데 '생이궤'는 위로 들어가고 위로 나옴밖에는 못하는 굴이 있어.) 14 [성읍]

너븐드르: 제주시 노형동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아이 어무니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이 영 영 바레멍 오단 보난에 어떤 아이가 허벅 졍 물 질레 감더라. 겐 영 보난 ○○이라게. 너븐드르 ○○ 각시.(아니 어머니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오다가 보니까 어떤 아이가 '허벅' 지고 물 길러 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야. '너븐드르' ○○ 각시.) 30 [노형]

너븐마을: 구좌읍 송당리의 마을 이름이다. // 너븐마을이렌 ᄒᆞᆫ 디가 또 이수다.('너븐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03 [송당]

너븐밧: 구좌읍 송당리의 지명이다. // 셋순당하고 알순당 사름들이 거기 물을 먹어. 너븐밧 사름은 봉천수.('셋순당'하고 '알순당' 사람들이 거기 물을 먹어. '너븐밧' 사람은 '봉천수'.) 03 [송당]

너븐케: 어승생오름 근방에 있는 지명이다. // 거의 강 큰 오름 넘엉 이제 거 어승생오름 그ᄁᆡ지 가믄 이제 너븐케라고 잇수다.(거의 강 큰 오름 넘어서 이제 거 '어승생오름' 그까지 가면 이제 '너븐케'라고 있어요.) 28 [구엄]

너팻국: 넓패를 국으로 끓인 것의 제주어이다. 넓패는 패과의 해조(海藻)이다. // 너패는 조그만이 놓고 물 조그만이 놩인에 오래 ᄉᆞᆲ앙 문작허게 익어사 너팻국은.(넓패는 조금만 넣고 물 조금만 넣어서 오래 삶아서 반드럽게 익어야 넓패국은.) 16 [하원]

넉동베기: 넉 동이 다 나야 이기는 윷놀이를 말한다. '넉동네기', '넉둑베기'라고도 한다. // 우리 큰아덜은 펀찍 ᄒᆞᆯ 줄도 모르는디, 신 때. 족은아덜은 넉동베기 잘 ᄒᆞ여.(우리 큰아들은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데, 있는 때. 작은아들은 넉동내기 잘해.) 17 [대평, 보목]

넉들이다: 제주 무속 또는 민간에서 어린 아이가 몹시 놀랐거나 무서운 일을 당하면 혼이 빠져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빠져나간 넋을 다시 불러들이면 병이 치료된다고 믿는 이러한 것을 '넋들이다'라고 한다. // 경허영 허고 종이 멧 장 엇고. 이제 입어난 옷 ᄋᆞ정 강 이제 넉나민 넉들이고. 종이 멧 장 산 간 건 몰라.(그래서 하고 종이 몇 장 얹고. 이제 입었던 옷 가지고 가서 이제 '넉나민' '넉들이고'. 종이 몇 장 사서 간 건 몰라.) 26 [신창]

넉시: '모양, 것, 격'의 뜻이다. // 넉시로 하영 입엉 오민 오랑 따시 ᄃᆞᆺ으게 입엉 오민 영등 하르방 ᄃᆞᆺ으게.('넉시'로 많이 입어서 오면 와서 다시 따듯하게 입어서 오면 '영등 하르방' 따뜻하게.) 13 // 따시 더우민 옷도 더워불민 벗젠 허민 아졍 뎅기젠 허민 골치 아니라? 경허는 넉시라.(다시 더우면 옷도 더워버리면 벗으려고 하면 가지고 다니려고 하면 골치 아니냐? 그러는 '넉시'야.) 13 // ᄆᆞ쉬 헤다근에 흑 다리는 거, 똑 그 넉시라, 그 흑 ᄇᆞᆯ르는 거 봣지, ᄆᆞ쉬덜 헤당 그 넉시라, 걸름 ᄇᆞᆯ르는 것도이.(마소 해다가 흙 다지는 거, 꼭 그 모양이야, 그 흙 밟는 거 봤지. 마소들 해다가 그 모양이야, 거름 밟는 것도.) 25 [삼달, 태흥]

넉시오름: 남원읍 의귀리 의귀초등학교 남쪽, 내 건너편에 있는 오름을 말한다. // 남원읍에 포함된 오름은 저 넉시오름도 잇고.(남원읍에 포함된 오름은 저 '넉시오름'도 있고.) 06 // 저 넉시오름, 세기오름 다. 그 오름 꼭대기에 올라사근엥에 보니깐 휏불을 쏴근엥 영 흔드는 거라.(저 '넉시오름', '세기오름' 모두. 그 오름 꼭대기에 올라서서 보니깐 횃불을 붙여서 이렇게 흔드는 거라.) 15 [남원, 수망]

넋나다: 제주 무속 또는 민간에서 어린 아이의 육체 속에 넋이 고정되지 않아 잘 놀라고,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육체에서 넋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넋나다'라고 한다. // 애기 아플 땐 그자 아프면은 애기 넋나시카부덴 할망이나 빌어당 빌어나 주고.(아기 아플 땐 그저 아프면 아기 '넋났을까봐' 할머니나 빌려다가 빌어나 주고.) 11 [함덕]

널당: 남원읍 남원리에 있었던 당 이름이다. // 심방이 그 당 가졌던, 임제 노릇 헷던 심방덜도 다 죽어 불고. 으, 널당이렌 헷주, 널당.(무당이 그 당 가졌던, 임자 노릇 했던 무당들도 다 죽어 버리고. 으, '널당'이라고 했지, '널당'.) 06 [남원]

널문: 나무를 도끼로 짜개서 이를 자귀로 다듬은 후 이 판을 그대로 사용한 문이다. // 정지문은 널문 두 개 아이꽈게?(부엌문은 '널문' 두 개 아닙니까?) 17 [대평]

널판동산: 한경면 청수리 지명으로 북쪽의 위치를 말한다. // 서쪽이 답대동산. 남쪽에 널판동산.(서쪽이 '답대동산'. 남쪽에 '널판동산'.) 19 [청수]

넓은궤: 표선면 성읍1리 지경에 있는 자연 동굴의 하나이다. // 다른 궨 이디 넓은궤 잇고, 수젱잇궤 잇고 원낭갯궤 잇고.(다른 굴은 이디 '넓은궤' 있고, '수젱잇궤' 있고 '원낭갯궤' 있고.) 14 [성읍]

넘은: '이외, 위의'의 의미로 쓰였다. // 요즘은 소금이여 무신 무시거여 허주마는 조미료도 잘 안 쓰주마는 다시다여 헤도 그때는 그자 장, 장 넘은 건 아무 것도 엇어.(요즘은 소금이다 무엇 무엇이다 하지만 조미료도 잘 안 쓰지만 '다시다'다 해도 그때는 그저 장, 장 이외의 건 아무것도 없어.) 14 [성읍]

넙개오름: 안덕면 동광리와 서광리 사이에 있는 오름이다. 표고 246.5m로, '광청이오름', '광해악'이라고도 한다. // 저 어디 저 넙개오름에 가근엥에 무시거 허여당양.(저 어디 저 '넙게오름'에 가서 무엇 해다가.) 32 [덕수]

넙메역: 우도가 주산지인 길이가 2~3미터에 이르는 크고 넓은 미역이다. // 그리고 이제

해산물로는, 이건 농산물인데 해산물로는 제일 한 게, 그 유명ᄒᆞᆫ 게 넙메역이엔 ᄒᆞᆫ.(그리고 이제 해산물로는, 이건 농산물인데 해산물로는 제일 많은 것이, 그 유명한 것이 넓미역이라고 한.) 22 [우도]

넙은팡: 안덕면 감산리에 있는 지역명이다. // 우리 아버지는 도청에도 자전거 ᄒᆞ연 넙은팡으로 자전거 탄 뎅겻젠 ᄒᆞᆸ디다, 근무 뎅길 때에.(우리 아버지는 도청에도 자전거 해서 '넙은팡'으로 자전거 타서 다녔다고 합디다, 근무 다닐 때에.) 17 [대평]

넙작지: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넙작지는 솔오름 바로 뒤에가 넙작지엔 헌다. 우리 고사리 꺾끄레 가난 디.('넙작지'는 '솔오름' 바로 뒤가 '넙작지'라고 한다. 우리 고사리 꺾으러 갔던 데.) 31 // 경허민 우리 박탈낭 허러 가젠 허민 저 넙작지 솔오름 뒤에 강 아이고 그 낭 지영 내로 넘어 오젠 허민 ᄉᆞ못 애가 썽.(그러면 우리 박달나무 하러 가려고 하면 저 '넙작지' '솔오름' 뒤에 가서 아이고 그 나무 지고 내로 넘어 오려고 하면 사뭇 애가 써.) 31 [토평]

넙패: 갈조류 패과의 해조이다. 가지 끝부분은 기낭처럼 부풀어 있고 황갈색인데 건조하면 검은색으로 된다.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 넙패 놩 막 솖아 가민 이게 ᄃᆞᆯ아.(넓패 놓고 마구 삶아 가면 이게 달아.) 03 [송당]

네벳띠기: 좌우 두 이랑씩 네 개의 이랑으로 한 두둑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밭갈이법이다. // 게면은 네벳띠기 밧 파니가 뒈는 거라.(그러면 '네벳띠기' 밭뙈기가 되는 거야.) 03 [송당]

네지: 일본어 'ねじ'로, '나사'를 말한다. // 저 원 이 무럽 이거 네지로 ᄒᆞ쏠 헤도 무럽 문 관절 다엿젠 헤도 네지로만 헤연 오란에 이거 그냥 젼뎜신디 나 경허난 장애자 카드 헤 줘라.(저 원 이 무릎 이거 나사로 조금 해도 무릎 모두 관절 다였다고 해도 나사로만 하고 와서 이거 그냥 견디는데 나 그러니까 장애자 카드 해 주더라.) 31 [토평]

네콜방에: 네 사람이 찧는 방아를 말한다. // 너이도 짓고 서이도, 시콜방에. 시콜방에, 네콜방엔 잘 짓는 사람. 시콜방엔 기자 보통.(넷도 찧고 셋도, '시콜방에', '네콜방에'는 잘 짓는 사람. '시콜방에'는 그저 보통.) 26 [신창]

노: 짚신을 만들 때 짚신바닥에 근간을 이루도록 길게 놓는 굵은 줄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참억새의 꽃이 나오기 전에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인 미를 사용한다. // 초신 삼젠 ᄒᆞ민 거 속에 노 헤근엥에 거 찔긴 거 헤야주게.(짚신 삼으려고 하면 그거 속에 '노' 해서 그거 질긴 거 해야지.) 15 // 이거 영 ᄒᆞᆫ ᄒᆞᆫ 발쯤 헤긴에 노를 영 네 개 헤긴에 영 ᄉᆞ이.(이거 이렇게 한 한발쯤 해서 '노'를 이렇게 네 개 해서 이렇게 사이.) 16 [수망, 하원]

노겡이굴: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쉐촐. 쉐촐 나는 디가 진술. 노겡이굴, 밧 일름사 오죽 하.(쇠꼴. 쇠꼴 나는 데가 '진술'. '노겡이굴', 밭 이름이야 오죽 많아.) 31 [토평]

노꼬메: 애월읍 유수암리에 위치한 오름이다. '큰노꼬메오름'과 '족은노꼬메오름'이 있다. //

이제 저 노꼬메, 검은오름, 큰바르메, 족은바르메, 뭐 하꼬네 그런, 그런 디 다 뎅겻주게. 여름에.(이제 저 '노꼬메', '검은오름', '큰바르메', '족은바르메', 뭐 '하꼬네' 그런, 그런 데 다 다녔지. 여름에.) 20 [고내]

노꼿: 실, 삼, 종이 따위를 가늘게 비비거나 꼬아서 만든 끈으로 표준어 '노끈'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노끗', '노꼰'이라고도 한다. // 찝신은 거 노꼿 꼬아근에.(짚신은 거 노끈 꼬아서.) 16 // 서슬ᄒᆞ젠 ᄒᆞ면은 ᄉᆞ끼 꼬와근에 노꼿으로 그.(발비하려고 하면 새끼 꼬아서 노끈으로 그.) 16 [하원]

노누에기: 노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일을 부리거나 생산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린 소를 말한다. // 그냥 노누에기덜은 그냥 키우멍 풀곡게.(그냥 '노누에기'들은 그냥 키우면서 팔고.) 02 [선흘]

노랑굴: 옛날 구억리에서 갈색 질그릇을 굽던 굴이다. // 노랑굴은 불을 이빠이 때서 천도 이상 때 가지고 탁탁 눕게끔 헤 가지고 그릇이 경 허고, 검은굴은 반만 익히는 거라.('노랑굴'은 불을 가득 때서 천도 이상 때 가지고 탁탁 눕게끔 해 가지고 그릇이 그렇게 하고, '검은굴'은 반만 익히는 거야.) 34 [구억]

노랑꿰: '검은깨'에 빗대서 색깔이 노르스름해서 붙은 참깨 이름이다. '꿰'는 표준어 '참깨'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 꿰죽은 꿰 보까서 기냥 싹 ᄀᆞᆯ아근에 기냥 쑤면은 그렇게 맛 좋고. 검은꿰로도 쑤고 노랑꿰로도 쑤고.(깨죽은 깨 볶아서 그냥 싹 갈아서 그냥 쑤면 그렇게 맛 좋고. 검은깨로도 쑤고 '노란깨'로도 쑤고.) 01 [도련]

노랑ᄆᆞᆷ: 모자반 종류의 하나이다. // 듬북은 이디 엇어. 감태나 싯주, 감태, 노랑ᄆᆞᆷ, 무신.(듬북은 여기 없어. 감태나 있지, 감태, '노랑ᄆᆞᆷ', 무슨.) 20 // 노랑ᄆᆞᆷ이엔 헌 ᄆᆞᆷ이 잇어. 그거 헤당 영 밧고지 고랑에 ᄀᆞᆯ아근에 이제 쉐로 갈아 놓면은 것이 퉤비 뒈영 거름 뒈영 잘 헤난디.('노랑ᄆᆞᆷ'이라고 하는 모자반이 있어. 그거 해다가 이렇게 밭이랑 고랑에 깔아서 이제 소로 갈아 놓으면 것이 퇴비 되어서 거름 되어서 잘 했었는데.) 20 [고내]

노랑쉐: 색깔이 노르스름한 빛을 띠는 소를 말한다. // 노랑쉐 껌은쉐 저 식쉐 세 가지로 보통은 불르니까.('노랑소' 검정소 저 칡소 세 가지로 보통은 부르니까. 23 [온평]

노랑어럭: 털빛이 노랗고 흰색으로 얼럭얼럭한 소를 말한다. // 어럭쉐도 검은어럭, 노랑어럭. 노랑어럭은 노란색에 하얀 털이 들어간 거.(얼룩소도 '검은얼룩' '노랑얼룩'. '노랑얼룩'은 노란색에 하얀 털이 들어간 거.) 01 [도련]

노랑쟁이: 괭생이 모자반으로 거름용 해초의 일종이다. // 노랑쟁이도 싯고, 진대듬북도 싯고, 쥐듬북이엔 헌 건 춤듬북이라 제라ᄒᆞ게 헌 거.('노랑쟁이'도 있고, '진대듬북'도 있고, '쥐듬북'이라고 한 건 '참듬북'이라 '제라ᄒᆞ게' 한 거.) 13 // 노랑쟁이 헤당 ᄆᆞᆯ리왕 감저밧듸 ᄀᆞᆯ고.('노랑쟁이' 해다가 말려서 고구마밭에 갈고.) 13 // 옛날에는 감태, 뭐 감태, 곡제기, 실겡이, 막 나와. 노랑쟁이.(옛날에는 감태, 뭐 감태, '곡제기', '실겡이', 막 나와. '노랑쟁이'.) 21 [삼달, 신촌]

노랑좁쌀: 색깔이 노란 좁쌀로 메진 좁쌀을 가리킨다. // 뭐 히린 걸로도 쒀 먹고, 모힌 걸로도 쒕 먹고 노랑좁쌀, 모인좁쌀로도 헤영 먹고 히린개발시리쌀로도 헤영 먹곡.(뭐 차진 걸로도 쒀 먹고, 메진 걸로도 쒀서 먹고 '노랑좁쌀', 메진좁쌀로도 해서 먹고 '차진개발시리쌀'로도 해서 먹고.) 01 [도련]

노랑히린좁썰: 쌀 색깔이 노르스름한 차진 좁쌀인 '노란차좁쌀'을 가리키는 말이다. // 그 노란히린좁썰이 잇엇어, 노랑헌 히린좁썰이 잇는데, 그것에다가 감저를 그렇게 헹 놔근에 버무령 낭 떡을 치면 그렇게 맛 좋을 수가 없었어. 이제, 이제도 맛 좋을 거라.(그 '노란차좁쌀'이 있었어. 노란 차좁쌀이 있는데, 그것에다가 고구마를 그렇게 해서 놔서 버무려서 놔서 떡을 찌면 그렇게 맛 좋을 수가 없었어. 이제, 이제도 맛 좋을 거야.) 01 [도련]

노레미: 대정읍 구억리에 있는 공원 이름이다. // 이제 거 노레미엔 헌 디주게, 포젯동산이엔 헌 디.(이제 거 '노레미'라고 한 데지요, 포젯동산이라고 한 데.) 34 // 그 재산도 엇어져 불엇주마는 노레미 공원에 가 불언.(그 재산도 없어져 버렸지만 '노레미' 공원에 가 버렸어.) 34 [구억]

노리오름: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 알쪽이는 노리오름 잇고.(아래쪽에는 '노리오름' 있고.) 16 [하원]

노린쉐: 노란 빛의 털을 가진 소를 말한다. // 노린쉐. 기자 노린쉐. 일률적으로.('노린쉐'. 그저 '노린쉐'. 일률적으로.) 03 [송당]

노봉옷: 어린아이들이 입는 방한복으로 누비어 만든 두루마기를 말한다. // 옛날 애기는 애기 옷 허민 지금 거트민 우에 우아래 큰 옷 입어 그 옷으로 노봉옷이렌 애기들헨 입져나신디.(옛날 아기는 아기 옷 하면 지금 같으면 위에, 위아래 큰 옷 입어. 그 옷으로 '노봉옷'이라고 아기들 해서 입혔었는데.) 06 [남원]

노술: 낚싯줄의 의미로 쓰였다. // 노술로. 그냥 저 면으로 뒌 줄인디.('노술'로. 그냥 저 면으로 된 줄인데.) 29 [외도]

노이다: 재를 넣고 삶아서 명주를 부드럽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 건 이제 저 재 헤영 이 노영 보그락허게 노인멩지엔 허고 생멩지는 그냥 빨앙 생 걸로 바들락 헌 것ᄀᆞ라 생멩지렌 허곡.('노인' 건 이제 저 재 해서 '노여서' 부드럽게 숙명주라고 하고 생명주는 그냥 빨아서 생 걸로 '바들락' 한 것보고 생명주라고 하고.) 33 [인성]

노일저대: 문전본풀이에 등장하는 악인형 계모이다. 후에 측간신이 된다. // 남선비가 큰각시 죽어 부니까. 아들 일곱 성제 놔뒁 죽어 부난, 족은각시 노일저대옌 헌 할망을 얻어 와서.(남선비가 큰각시 죽어 버리니까. 아들 일곱 형제 놔 두고 죽어 버리니까, 작은각시 '노일저대'라는 할머니를 얻어 왔어.) 36 // 그 노일저대옌 헌 할망이 아주 다른 태를 헤서. 아주 못뒌 ᄆᆞ음을 먹어 가지고, 그 하르방을 막 꼬시면 하르방은 할망 말만 듣는 거라.(그 노일저대라고 하는 할머니가 아주 다른 태를 했어. 아주 못된 마음을 먹어 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막 꾀면 할아버지는

할머니 말만 듣는 거라. 노일저대 말만.) 36 [봉성]

녹남봉: 대정읍 신도리에 위치한 측화산이다. 예로부터 이곳에 녹나무가 많아서 '녹낭오름'이라 했다. '녹남오름'이라고도 한다. // 그런 건 엇고. 여기 뭐 오름은 여기 뭐 녹남봉 하나가 잇고.(그런 건 없고. 여기 뭐 오름은 여기 뭐 '녹남봉' 하나가 있고.) 18 // 이 녹남오름 이듸도 올라강 살앗을 거라.(이 '녹남오름' 여기도 올라가서 살았을 거야.) 18 [신도]

녹대: 말이나 소 따위를 부리기 위하여 머리와 목에서 고삐에 걸쳐 얽어매는 줄인 '굴레'를 말한다. // 녹대허고 이끄지 아녀도이. 몽뎅이만 들엉은엥에 영 끗엉은에 영 헤가민 ᄆᆞᆯ이 몽둥이 보멍 ᄯᆞ라가는 거라.(굴레하고 이끌지 않아도. 몽둥이만 들어서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해가면 말이 몽둥이 보면서 따라가는 거야.) 01 [도련]

녹산듸: 밭벼의 일종이다. // 그 다음, 녹산듸라고 노랑한 산듸우다. 껍질이 노란 거우다.(그 다음, '녹산듸'라고 노란 밭벼입니다. 껍질이 노란 거예요.) 03 // 녹산듸가 노리주. 녹산듸가 노려.('녹산듸'가 노랗지. '녹산듸'가 노래.) 14 [성읍, 송당]

녹산장: 조선시대 생긴 10개의 국마장 가운데 가장 큰 목장 이름이다. 표선면 가시리 대록산과 성읍리 따라비 오름 일대의 평원에서 조선 후기에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대규모 말 목장이다. // 녹산장도 제동목장이라난 거 무신 뭐 그건 조천읍 관할일 거라.(녹산장도 제동목장이었던 거 무슨 뭐 그건 조천읍 관할일 거야.) 02 // 그 전에는 그 녹산장이라고 헤서 그 사름 임제가 그때 서울 살앗일 거여. 그때 땅 임자가.(그 전에는 그 '녹산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 임자가 그때 서울 살았을 거야. 그때 땅 임자가.) 14 [선흘, 성읍]

논어염: 논의 가장자리라는 의미이다. // 이 논어염에 헤영 미나리 캐여당 거세기.(이 논가에 해서 미나리 캐다가 거시기.) 29 [외도]

놀 불다: '너울이 일다'는 의미이다. // 이녁 혼자만 테위 헹 뎅기당 놀 불믄 막 끗어가 불고 허난 저 끗어가 불고 아파 가난에 나 못허고 헨 설러 벳주게.(자기 혼자만 떼해서 다니면서 너울이 일면 마구 끌어가 버리고 하니까 저 끌어가 버리고 아파 가니까 나 못하고 해서 그만둬 버렸지.) 31 [토평]

놈에: 한 사람 분을 말하는 '놈의역'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한 듯하다. 제보자는 도래떡 두 개를 한 '놈에'라고 했다. // 돌레떡은 따시도 돌레떡 훍은 훍은허게 헹 크게 헹 둥글둥글헌 돌레떡 헹 ᄒᆞᆫ 놈에옌 헌 거 저 두 개가 ᄒᆞᆫ 놈에주.(도래떡은 다시 또 도래떡 굵게 굵게 해서 크게 해서 둥글둥글한 도래떡 해서 한 '놈에'라고 한 거 저 두 개가 한 '놈에'지.) 13 [삼달]

놈역: '한 사람의 분량'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였다. 지역에 따라 '놈에치'라고도 한다. // 멧 사름치ᄀᆞ라 ᄒᆞᆫ 사람치ᄀᆞ라 ᄒᆞᆫ 놈역 두 ᄂᆞᆷ역 헤가거든. 경허민 이제 그거를 영헤여근에 강 두 개든 하난 안 허지.(몇 사람어치보고 한 사람어치보고 'ᄒᆞᆫ 놈역' '두 ᄂᆞᆷ역' 해가거든.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해서 가서 두 개든 하난 안 하지.) 01 // 두 개든 세 개든 ᄒᆞᆫ 놈역썩 테와 주곡. 경 허영 강 물떡은.

(두 개든 세 개든 한 '놈역'씩 나눠 주고. 그렇게 해서 가서 '물떡'은.) 01 [도련]

놋곶ᄆᆞ루: 표선면 표선리에 있던 옛 '소릿질'이었던 관정로 13번지 일대를 말한다. 사삼사건 때 학살 터이다. // 놋곶ᄆᆞ루왕 다 죽여 불엇어. 표선이 영 올라오민 그 소방서 ᄒᆞ썰 우트레 올라왕.('놋곶ᄆᆞ루'와서 다 죽여 버렸어. 표선 이렇게 올라오면 그 소방서 조금 위로 올라와서.) 24 [세화]

농욕: 벼 종자 중 하나이다. // 나중에 처음엔 옛날 나룩덜 헷는디, 나중에는 농욕이라고 허는 종자가 나와서 논에, 지금은 뭣사 헴신디 몰라도, 그때 농욕이엔 헌 거는 요거 메 ᄌᆞᆯ추헌게, 이제 허믄 커 가는 거 보멍 비료를 ᄒᆞ끔썩 줘사.(나중에 처음에는 옛날 벼들 했는데, 나중에는 '농욕'이라고 하는 종자가 나와서 논에, 지금은 무엇이야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때 '농욕'이라고 한 거는 이거 모 자잘한 게, 이제 하면 커 가는 거 보면서 비료를 조금씩 줘야.) 28 // 농욕은 아주 종자가 ᄀᆞ늘고 약헤도양, 열매는 요거 좋고, 우린 이제 주로 농욕을 많이 헤낫수다게, 농욕 헷당.('농욕'은 아주 종자가 가늘고 약해도요, 열매는 요거 좋고, 우리는 이제 주로 '농욕'을 많이 했었습니다, '농욕' 했다가.) 28 [구엄]

농팔: 벼 종자 중 하나이다. // 농팔이엔 헌 거는 이파리 넙작넙작헌 게, 아 요놈으 건 농팔인 ᄒᆞ끔만 허믄 이제 비료가 쪼금 더 가도 이게 옴지 아니허고 잘, 농팔이옌.('농팔'이라고 한 거는 잎이 넓적넓적한 게, 아 이놈의 건 '농팔'인 조금만 하면 이제 비료가 조금 더 가도 이게 여물지 아니하고 잘, '농팔'이라고.) 28 [구엄]

농포제: 마을을 지키는 신에게 농사가 잘 되게 해 달라는 제사를 말한다. 여기서 '포제'는 마을을 지키는 신을 위하여 지내는 제사이다. // 여름엔 농포제라고 헤서. 농사 잘 뒈게 헤줍센 헤서 제 지내고 봄엔.(여름엔 '농포제'라고 해서. 농사 잘 되게 해주십사고 해서 제 지내고 봄엔.) 32 [덕수]

높은오름: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오름이다. // 비자림과 요 높은오름 사이에. 곶을 말허는 거우다.(비자림과 요 '높은오름' 사이에. 숲을 말하는 거예요.) 03 [송당]

놓다: '줄 놓다'의 줄임말로, 지붕을 이는 '줄'을 꼬아 만드는데, 띠를 알맞게 차례로 잘 조정해 주어 알맞은 굵기로 줄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아니 줄은 미리 놧당, 줄은 아무나 웬만허민 노는디 집 이는 건 아무나 못 놔. ᄒᆞᆫ 동네 ᄒᆞᆫ 두서너 사람. 게난 그때 돈으로 ᄒᆞ꼼씩 얼마 줘실 거라.(아니 줄은 미리 놨다가, 줄은 아무나 웬만하면 놓는데 지붕 이는 건 아무나 못 놔. 한 동네 한 두서너 사람. 그러니까 그때 돈으로 조금씩 얼마 줬을 거야.) 26 [신창]

뇌선: 진통제 한 종류로 수압 때문에 만성 두통에 시달리는 해녀들이 많이 복용했던 약 이름이다. // 뇌선 약을 이디 영 ᄇᆞᆯ름도 허곡이 먹으면 조금 누기고 헤낫저.(뇌선 약을 여기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먹으면 조금 누그러지고 했었어.) 12 [한동]

누까: 일본어 'ぬか'에서 온 말로, 보리를 찧었을 때 나오는 겨를 가리키는 일본어이다. 표준어 보릿겨에 대응한다. // 보리 껍질보고 누까엔 헷어.(보리 껍질보고 보릿겨라고 했어.) 29 // 누까 허영 버무령 주고.('누까' 해서 버무려서 주고.) 29 [외도]

누룩총: 털 색깔이 누르스름하며 점박이가 있는 말이다. // 노린 건 적다ᄆᆞᆯ이고, 또로 이제 흰 건 백매, 또로 저 희도 아녀곡 검도 아년 건 누룩총이엔 허영.(노란 건 적다마이고, 또 이제 흰 건 백마, 또 저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은 건 '누룩총'이라고 해.) 02 [선흘]

누이다: 베틀에 짠 명주를 삶아내는 것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 셍멩주는 안 누인 거 ᄊᆞᆲ은 건 누인 거.(생명주는 안 '누인' 거 삶은 건 '누인' 거.) 16 [하원]

눈: 물안경을 말한다. // 속으로는 머냐 허면 눈 시끄젠 눈.(속으로는 뭐냐 하면 물안경 씻으려고 물안경.) 22 [우도]

눈썹: 초가지붕에 띠를 덮었을 때 처마 쪽으로 어떤 것은 길고 어떤 것은 짧게 나와 있는 것을 말한다. // ᄀᆞ새 끗으로라도 이디 눈썹이엔 헹 이 탕근골에 고망 ᄠᅳᆯ라졋어.(가위 끝으로라도 여기 '눈썹'이라고 해서 이 '탕건골'에 구멍 뚫어졌어.) 11 // 새가 또 지붕에서 틈 자면은 제라허게 줄 매멍 앞이 줄도 다 끈어불고 인 날은 그 앞이 눈썹이엔 헹 호미 ᄂᆞ슬게 헹 이디 거 아이덜 단발머리ᄀᆞ찌 앞이 곱닥허게 비어주고.(띠가 또 지붕에서 뜸 들이면 제대로 줄 매면서 앞에 줄도 다 잘라버리고 인 날은 그 앞에 눈썹이라고 해서 호미 날카롭게 해서 여기 그거 아이들 단발머리같이 앞에 곱게 잘라주고.) 11 // 눈썹을 집 다 일엉 끝내 줄 멘 후에 눈썹을 ᄀᆞ찡허게 그차야.('눈썹'을 집 다 이어서 끝에 줄 맨 후에 '눈썹'을 가지런하게 잘라야.) 36 [봉성, 함덕]

눈오름: 애월읍 서쪽에 낮게 가로누운 오름을 말한다. '누운오름'이라고도 한다. // 저 한림 그 저 매일시장 잇는 글로 헤 가지고 이게 우리 대림을 거쳐 가지고 귀덕삼리, 삼리 넘어서 ᄯᅳ로 쩌어 눈오름 밑에꺼지 갓수다.(저 한림리 그 저 매일시장 있는 거기로 해 가지고 이제 우리 대림리를 걸쳐 가지고 귀덕삼리, 삼리 넘어서 따로 저 '눈오름' 밑에까지 갔습니다.) 35 // 눈오름이 제일 가까운 디 있고, 지금 ᄒᆞᆫ 이 키로.('눈오름'이 제일 가까운 데 있고, 지금 한 이 킬로.) 36 [대림, 봉성]

눈친: 작살에 달려있는 고무줄을 말한다. // 고기를 이제 그 이런 대나무 헤근에 쒜에 영 드리몰앙 놋끗으로 감앙, 잔뜩 감으면은 그 고무 옛날에 고무줄, 눈친 빨간 눈친.(고기를 이제 그 이런 대나무 해서 쇠에 이렇게 집어넣어 노끈으로 감아서, 잔뜩 감으면 그 고무 옛날에 고무줄, '눈친' 빨간 '눈친'.) 07 [보목]

눋다: 누런빛이 나도록 조금 타다는 의미이다. // 눌카부덴. 남죽으로 젓으멍게. 쑤멍 먹엇주.(눌까봐 죽젓개로 저으면서. 쑤면서 먹었지.) 03 [송당]

눌: 표준어의 '가리'에 대응하는 말이다. 여기서는 고구마를 보관하기 위해 땅을 파서 짚을 깔고 고구마를 쌓아 놓은 더미를 말한다. // 고구마 많이 허민 두 눌도 눌어.(고구마 많이 하면 두 가리도 가려.) 30 [노형]

눌굽: 짚이나 꼴 따위를 가리를 가릴 수 있게 바닥에 둥그렇게 돌 따위로 깔아놓은 바닥을 말한다. // 여기 저기 보민 눌굽이라는 게 잇어, 보리도 눌고 아무거나라도 눌르는 찍이 있어.(여기 저기 보면 '눌굽'이라는 게 있어, 보리도 가리고 아무것이라

도 가리는 짚이 있어.) 09 // 거 대도 다 보리 홀테로 무꺼 나민 또꼬냥에서 다 무꺼, 경헹 이젠 눌굽에 눌어.(그거 대도 다 보리 훑이로 묶고 나면 꽁무니에서 다 묶어, 그렇게 해서 이젠 '눌굽'에 가려.) 11 // 우리도 이제 요디 보리, 콩 싱근 디 눌굽이랏수다만은, 거기 허믄 썩으믄 아이 뒐 거니까 그 솔썹 ᄀᆞ뜬 거 놔 놩 거 보리낭 꼴앙, 보리낭 ᄀᆞ뜬 거 꼴아 놩 그 우터레 눕니다.(우리도 이제 요기 보리, 콩 심은 데 '눌굽'이었습니다만, 거기 하면 썩으면 아니 될 거니까 그 솔잎 같은 거 놔 놔서 거 보릿짚 깔아서, 보릿짚 같은 거 깔아서 놔서 그 위로 쌓습니다.) 35 // 통시를 그디서 흑 파 가지고 그걸로 허고, 또 눌굽 ᄀᆞ뜬 디는 ᄯᅳ로 그디서 역시 흑을 파네근에 그 흑 이엉 허고, 경 헷수다.(돼지우리를 거기서 흙 파 가지고 그걸로 하고, 또 '눌굽' 같은 데는 또 거기서 역시 흙을 파내서 그 흙 이어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35 [고산, 도련, 대림, 봉성, 청수, 표선, 함덕]

눌다: 짚이나 꼴 따위를 차곡차곡 쌓아서 둥그런 더미를 지어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어 '가리다'에 대응한다. // 짚은 밀령당 소한티 주곡. 불도 때곡. 무꺼당 눌엇당 쉐 주곡.(짚은 말렸다가 소한테 주고. 불도 때고. 묶어서 가렸다가 소 주고.) 03 [송당]

눌왓: 가리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다. '눌'은 가리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그 눌왓 그 이젠 집터가 한 사백 평 뒈난 그 눌 눌젠 허민 그 눌 누는 그 터는 이제 검질 영 허영 눌엉 놔두면은 땅에 하면 검질이 썩으카분덴 돌 헤근에 눌굽을 다 만들어 놓주게.(그 '눌왓' 그 이젠 집터가 한 사백 평 되니까 그 가리 가리려고 하면 그 가리 가리는 그 터는 이제 검불 이렇게 해서 가려서 놔두면 땅에 하면 검불이 썩을까봐서 돌 해서 '눌굽'을 다 만들어 놓지.) 05 // 쉐 멕이젠 허믄 또 조찍은 조찍으로 눌고 새꼴은 새꼴만 눌고. 감저줄은 감저줄만 눌고. 눌이 멧 개씩 눌어. 게난 눌왓이 잘 헤사.(소 먹이려고 하면 또 조짚은 조짚으로 가리고 쇠꼴은 쇠꼴만 가리고. 고구마덩굴은 고구마덩굴만 가리고. 가리가 몇 개씩 가려. 그러니까 '눌왓'이 잘 해야.) 26 [신창, 표선]

눌우리: '늘보리'로 이삭의 모양이 네모진 보리를 말한다. // 보리는 에, 그 종류가 그것도, 눌우리, ᄉᆞᆯ누리.(보리는 에, 그 종류가 그것도, 늘보리, 쌀보리.) 04 [고성]

눗: 곡식을 베어 조금씩 모아놓은 것을 말한다. // 왜 눗을 일르는고 허니 땅에 딱 부떠, 부뜬 걸 갓다가 그걸이 이렇게 저 뒤집어근에가 서너니 군데 걸 ᄒᆞᆫ 아름씩, ᄒᆞᆫ 아름씩 안게끔 모다 놔.(왜 '눗'을 일으키는가 하니 땅에 딱 붙어, 붙은 걸 갔다가 그걸 이렇게 저 뒤집어서 서너네 군데 걸 한 아름씩, 한 아름씩 안게끔 모아 놔.) 12 // 그 하나하날 ᄒᆞᆫ 눗, 두 눗 헌다 그걸 비여 놩, 비여 놩 모다 논 걸 '눗'이주게. 그걸 눗이엔 헌다.(그 하나하날 한 '눗', 두 '눗' 한다 그걸 베어 놔서, 베어 놔서 모아 놓은 걸 '눗'이지. 그걸 '눗'이라고 한다.) 12 [한동]

눼다: 뻣뻣한 생명주에 재를 넣고 삶아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표준어 '누이다'에

대응한다. // 요새 저 멩지는 그 저 양잿물 놔근에 솖아 불민 모랑허게 쎈 거 것ᄀᆞ라 눼 멩지.(요새 저 명주는 그 저 양잿물 넣어서 삶아 버리면 말랑하게 센 거 그것보고 누인 명주.) 24 // 눼 멩지 양잿물에서 눼 거 솖은 거.(누인 명주 양잿물에 누인 거 삶은 거.) 24 // 막 골고루 헹 영 물 적지멍 솖아놓민 멩지가 이제 버짝헷던 멩지가 놀싹ᄒᆞ는 거라이. 멩지 눼는 거.(막 골고루 해서 이렇게 물 적시면서 삶아놓으면 명주가 이제 '버짝'했던 명주가 '놀싹'하는 거야. 명주 누이는 거.) 25 // 멩지 저 눼는 거 거시기. 모물체 ᄉᆞᆫ 거 그걸로 헤근에 그거 카 놔근에 솟듸 놩 옷에 놩 솖아.(명주 저 누이는 거 거시기. 메밀겨 사른 거 그걸로 해서 그거 타 놔서 솥에 놔서 옷에 놔서 삶아.) 25 [세화, 태흥]

뉏입: 표준어의 놋좆에 해당하는 말로 배 뒷전에 자그맣게 나와 있는 나무못을 가리킨다. // 게 뉏 단지엔 헤서 뉏 단지, 든든헌 나무로 달아지지 않게시리 든든헌 나무로 예. 눼좃 아, 뉏입 뉏입, 물에 들어가는 건 뉏입.(그럼 노 단지라고 해서 노 단지, 든든한 나무로 닳아지지 않게끔 든든한 나무로요. '눼좃' 아, 놋좆, 놋좆, 물에 들어가는 건 놋좆.) 22 [우도]

느랏느랏: 힘이 빠져서 늘어진 모양을 나타낸다. // 그때 죽은 사름도, 우리 집 뒤에서도 사름이 기자 느랏느랏 다 죽고.(그때 죽은 사람도, 우리 집 뒤에서도 사람이 그저 '느랏느랏' 다 죽고.) 06 [남원]

느렁대축: 이삭이 길게 아래로 휘늘어지는 수수의 한 가지이다. // 대축낭 그 느렁대축. 종지대축이라고 잇주.(수수깡 그 '느렁대축'. '종지대축'이라고 있지.) 12 // 이 느렁대축은 안 먹는 거. 거 먹지 못 허는 거. 비차락용으로.(이 '느렁대축'은 안 먹는 거. 거 먹지 못 하는 거. 빗자루용으로.) 12 [한동]

느렁쉬: 느릿느릿 거동하는 동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 말 그 소는 그렇게 말 ᄀᆞ치 막 자주 말이여 그 다니지 못ᄒᆞ지. 느렁쉬라서 말이여.(말 그 소는 그렇게 말 같이 막 자주 말이야 그 다니지 못하지. '느렁쉬'라서 말이야.) 27 [옹포]

느치름: 어린아이나 소가 입에서 질질 흘리는 침을 말한다. 여기서는 장이 곯다는 의미로 쓰였다. // 그냥. 모날 ᄀᆞ튼 날 들이치는디 이 쉐날에 들이치민 느치름. 장이 느치름 뒌덴 헤여.(그냥. '모날' 같은 날 들이뜨리는데 이 소날에 들이뜨리면 '느치름'. 장이 '느치름' 된다고 해.) 33 [인성]

는쟁이범벅: 나깨로 만든 범벅이다. // 그 어려우면은 식량을 불리우젠. 식구나 하곡 허면은 ᄊᆞᆯ은 ᄌᆞ으면은 고구마도 썰엉 놩 허면은 허곡. 이 저, 뭐 또 잇나. ᄆᆞ몰펌벅이라고. 는쟁이범벅에.(그 어려우면은 식량을 불리려고. 식구나 많고 하면은 쌀은 적으면은 고구마도 썰어 넣어서 하면은 하고. 이 저, 뭐 또 있나. 메밀범벅이라고. '는쟁이범벅'에.) 36 [봉성]

는지레기: 으깨다가 남은 부스러기를 일컫는 말이다. // 그런 건 ᄒᆞᆯ 크곡, ᄯᅳ시 ᄒᆞ꼬만ᄒᆞᆫ 도새기, ᄒᆞ꼬만 ᄒᆞᆫ 새낀 물벳기 아니 뒈난 는지레기나 잘 ᄆᆞᆺ앙 그런 거나 ᄒᆞ주.(그런 건 조금 크고, 다시 조금만 한 돼지, 조금만 한 새끼는 물밖에 아니 되

니까 '는지레기'나 잘 마아서 그런 거나 하지.) 08 [동광]

는착는착: 땅이 질고 반드러워 밟으면 자꾸 밀려 나가는 모양을 말한다. // 도당을 시껑 오는디 비에이, 이젠 아스빨트주. 그 땐이 한질도 그런 거 엇언. 흑이라. 는착는착 허는디 이빠이 시껀 그냥 후닥후닥 오난 삼양 할망이 ᄆᆞᆯ장시라이.(도당을 실어 오는데 비에, 이젠 아스팔트지. 그 땐 한길도 그런 거 없었어. 흙이라. '는착는착' 하는데 가득 실어서 그냥 '후닥후닥' 오니까 삼양할머니가 말장수라.) 21 [신촌]

늘싹: 옷감이 뻣뻣하지 않아 축 늘어진 모양을 말한다. // 베옷은 이 미녕옷ᄀᆞ치 늘싹허지 안헌 거난. 상그랑허여, 베옷은.(베옷은 이 무명옷같이 '늘싹'하지 않은 거니까. '상그랑'해, 베옷은.) 25 [태흥]

늘어지다: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놓이거나 흔하다는 의미이다. 표준어 '널리다'에 대응한다. // 밥은게 요새 늘어진 기자 ᄊᆞᆯ밥이고.(밥은 요새 '늘어진' 그저 쌀밥이고.) 15 [수망]

늠삭허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어서 입안에 기름지게 느껴지는 것을 말한다. // 우리가 뒈야지 고기 먹으민 늠삭허잖아. 밧도 그걸 멕여줘야 늠삭헹 곡석이 잘나는 거라.(우리가 돼지고기 먹으면 '늠삭허잖아'. 밭도 그걸 먹여줘야 '늠삭해서' 곡식이 잘나는 거라.) 21 // ᄒᆞ끔 지름기가 시난 ᄒᆞ꼼 늠삭허지.(조금 기름기가 있으니까 조금 '늠삭허지'.) 29 [신촌, 외도]

늣개통: '늣개통'은 바다 이끼가 생기는 바닷가 물통이라는 뜻이다. '늣'은 이끼, '개통'은 바닷가에 생긴 물통을 말한다. // 물질은게 열 설 열ᄒᆞᆫ 설 뒈난에 바당에 바당 ᄌᆞ껏듸난 ᄂᆞ려간 늣개통에 강 히는 거 벱곡양.(물질은 열 살 열한 살 되니까 바다에 바다 곁이니까 내려가서 '늣개통'에 가서 헤는 거 배우고요.) 23 // 늣개라 헌 말은 우리 셍각에는 그 ᄑᆞ레도 나고 늣도 돋곡 막 경 헌 통이난에 막 늣개통이엔 허는 거.('늣개'라 한 말은 우리 생각에는 그 파레도 나고 이끼도 돋고 막 그렇게 한 통이니까 막 '늣개통'이라고 하는 거.) 23 [온평]

늣멩ᄒᆞ다: 실핏줄이 터지다는 뜻이다. // 늣멩ᄒᆞ민 엿날엔 약이 어디 서? 애기 어멍신디 그 젓 빌엉 쪼꼼 놓민 삭아져분다, 엿날엔 경현.('늣멩ᄒᆞ민' 옛날엔 약이 어디 있어? 아기 어머니에게 그 젓 빌어서 쪼금 넣으면 삭아버린다, 옛날엔 그랬어.) 15 [수망]

능와: 마름모무늬 능화문이 그려진 벽지 '능화'를 말한다. 좋은 벽지의 의미이다. // 능와, 이제 ᄀᆞ트민 벡지가 능와라고 허여.(능화, 이제 같으면 벽지가 능화라고 해.) 02 [선흘]

능와도비: '능화도벽(菱花塗壁)'에서 온 말이다. 능화가 그려진 벽지를 발랐다는 뜻으로 잘사는 집의 벽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 팔자 ᄉᆞ주가 어떤 날에 난 사름은 능와도비에 각장장판에 경허영 사는고? 이렇게 노래가 이서.(팔자 사주가 어떤 날에 난 사람은 능화도벽에 각장장판에 그렇게 사는가? 이렇게 노래가 있어.) 02 [선흘]

늬: 쓿은 쌀 속에 등겨가 벗겨지지 않은 채로 섞인 벼 알갱이를 말하는 것이다. 표준어

‘뉘’에 대응한다. // 경헨 살멍게 그 모커리 헨 살멍 요딘 방이고 요딘 정지시난 그디 솟 두 개 앚경 ᄀᆞ레 ᄀᆞᆯ앙 ᄉᆞ레기 반, 늬, 두루 ᄀᆞᆯ아진 건 늬 신 거엔 허주게.(그렇게 해서 살면서 그 곁채 해서 살면서 요기는 방이고 요긴 부엌 있으니까 거기 솥 두 개 안쳐서 맷돌 갈아서 싸라기 반, 뉘, 덜 갈아진 건 뉘 있는 거라고 하지.) 13 [삼달]

늬치름: 어린 아이나 소가 입에서 질질 흘리는 침이다. // 쉐날 ᄀᆞ튼 날도 안 솖곡, 장 무사 그날 안 솖암수겐 허난 늬치름 잘, 메주 잘 안 튼덴 그추룩 허연 그때 당시에 그날을 보는 겁주.(소날 같은 날도 안 삶고, 장 왜 그날 안 삶고 있냐고 하니까 ‘늬치름’ 잘, 메주 잘 안 뜬다고 그처럼 해서 그때 당시에 그날을 보는 거지요.) 34 // 소날 ᄀᆞ튼 때에는 장 담그믄 장이 늬치름 ᄀᆞ찌 흘린다고 허여 가지고 소날도 아니 허고.(소날 같은 때에는 장 담그면 장이 ‘늬치름’ 같이 흘린다고 해 가지고 소날도 안 하고.) 35 [구억, 대림]

니끼비: 일본어 ‘にびき’로 여드름을 말한다. // 니끼비, 건 자연적으로 뒈는 거.(여드름, 건 자연적으로 되는 거.) 12 [한동]

니벳떼기: 좌우 두 이랑씩 네 개의 이랑으로 한 두둑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밭갈이법이다. // 초불로 그자 니벳떼기로 영 갈아 가지고서 그 벙뎅이를 탁탁 엎어지주.(초벌로 그저 ‘니벳떼기’로 이렇게 갈아 가지고 그 덩어리를 탁탁 엎어지지.) 12 // 기자 영 가는 건 일로 영, 일로 허민 일로 영 조근 조근 조근 갈아 가는 건데 니벳떼기는 일로 이거 두 번 일로 어프고 따시 이 일로 오랑 이레 두 번 어프고 양쪽으로 영 가는 거.(그저 이렇게 가는 건 일로 이렇게, 일로 하면 일로 이렇게 차근 차근 차근 갈아 가는 건데 ‘니벳떼기’는 일로 이거 두 번 일로 엎고 다시 이 일로 와서 이리 두 번 엎고 양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12 [한동]

니스미시: ‘무좀’의 일본어인 ‘미즈무시(みずむし, 水虫)’를 말한다. // 습진이나 거나 비슷헌 거주게. 습진도 ᄀᆞ룹고 저 무좀이나 비슷허여. 일본말론 니스미시라고 허여이.(습진이나 거나 비슷한 거지. 습진도 가렵고 저 무좀이나 비슷해. 일본말론 ‘미즈무시’라고 해.) 02 [선흘]

니시하라(西原): 일본의 지명이다. // 유센지 간 ᄒᆞᆫ 멧 년 살고 그 다음엔 미카와시마 간 또 멧 년 살고 또 그 다음에 저 니시하라엔 헌 디 강 멧 년, 이 년쯤 사니까 대동아전쟁이 일어나 불어서.(‘유센지’ 가서 한 몇 년 살고 그 다음엔 ‘미카와시마’ 가서 또 몇 년 살고 또 그 다음에 저 ‘니시하라’라고 하는 데 가서 몇 년, 이 년쯤 사니까 대동아전쟁이 일어나 버렸어.) 20 [고내]

니치름: 어린 아이나 소 등 입에서 질질 흘리는 침을 말한다. // 소날은 웨냐, 소가 니치름을 허주게.(소날은 왜냐, 소가 ‘니치름’을 허주게.) 23 // 영 영 ᄀᆞᆯ멍 니치름 잘 잘허는 따문에.(이렇게 이렇게 갈면서 ‘니치름’ 잘잘하는 때문에.) 23 // 식구 다도 그 장 먹는 사름 식구 엇인 때도 기주만은 쉐날은 니치름 흘친덴 안 담고.(식구 다 그 장 먹는 식구 없을 때도 그렇지만 소날은 침 흘린다고 안 담그고.) 26

// 술 먹고 조반 먹언에 화장실에 간 오단 문입젱이 전이 영헤영 니치름 질질 헤영 죽어가멘게.(술 먹고 조반 먹어서 화장실에 갔다 오다가 문설주 전에 이렇게 해서 '니치름' 질질 해서 죽어가고 있어.) 26 [신창, 온평]

ᄂᆞ든깍: 풀치마의 오른쪽 선단을 말한다. // ᄂᆞ든깍은 일로 영 허영 허민 이 웬깍은 안터레 가게 ᄂᆞ든깍은 밧꼇디레 가게 영 둘르민 거 ᄂᆞ든깍.('ᄂᆞ든깍'은 이리로 이렇게 해서 하면 이 '웬깍'은 안으로 가게 'ᄂᆞ든깍'은 바깥으로 가게 이렇게 두르면 거 'ᄂᆞ든깍'.) 29 [외도]

ᄂᆞ람지: 이엉과 비슷한 것으로 낟가리 위에 덮는 물건이다. 'ᄂᆞ레미', 'ᄂᆞ라미', 'ᄂᆞ람쥐', 'ᄂᆞ레', '놀래'라고 한다. // 돌로, 들어가는 도엔 돌로 바투곡, 내중엔 낭도 걸치곡 ᄒᆞ영 ᄂᆞ람지 모냥으로 찍으로 더껏주게.(돌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돌로 받치고, 나중에는 나무도 걸치고 해서 이엉 모양으로 짚으로 덮었지요.) 17 // 보리 져 나믄 ᄀᆞ시락 담아당은에 ᄀᆞ시락집 맨들앙 막 맨들앙 담 다왕 이제 그레 놩. 이 저 ᄂᆞ람지 더껑 헹 놧당 거 파당 굴묵 짇고.(보리 찌고 나면 까끄라기 담아다가 까끄라기집 만들어서 막 만들어서 담 쌓아서 이제 거기 놔서. 이 저 'ᄂᆞ람지' 덮어서 해서 놨다가 거 파다가 '굴묵' 때고.) 19 // 새 ᄂᆞ람지로 헹 영 비올 때 주젱이 여끄듯이 그추룩 헹 머리에 써나고. 쓰곡 큰 비 우장.(띠 'ᄂᆞ람지'로 해서 이렇게 비올 때 주저리 엮듯이 그처럼 해서 머리에 썼었고. 쓰고 큰 비에 도롱이.) 28 // 그거 영 ᄂᆞ람지 예피곡, 주젱이 예피곡 허영 ᄉᆞᄆᆞᆺ 막 크게 눌엉 겨울 내내 먹게꾸리 마당에 눌엄수게.(그거 이렇게 'ᄂᆞ람지' 엮고, 주저리 엮고 해서 사뭇 아주 크게 쌓아서 겨울 내내 먹게끔 마당에 쌓고 있습니다.) 34 [고산, 구억, 구엄, 대림, 대평, 동광, 봉성, 신도, 옹포, 우도, 청수, 하원]

ᄂᆞ레미: 이엉과 비슷한 것으로 낟가리 위에 덮는 물건이다. 'ᄂᆞ람지', 'ᄂᆞ람쥐', 'ᄂᆞ라미'라고도 한다. // 신랑은 ᄆᆞᆯ 타근에 그 신부네 집이 가면은 그 집 마당에 그 뭐인가 ᄂᆞ레밀 ᄁᆞᆫ다.(신랑은 말 타서 그 신부네 집에 가면 그 집 마당에 그 뭐인가 'ᄂᆞ레미'를 깐다.) 12 [한동]

ᄂᆞ롯: 주로 가을이나 겨울에 맑고 바람 없는 밤이나 새벽 때에 몹시 쌀쌀하게 느껴지는 기운을 말한다. // 아주 아침에 살살 헌 그 ᄂᆞ롯에. 그 ᄇᆞ롬은 부는 중 몰르고 살살허게 나오는 ᄇᆞ롬에 그놈을 불려 가지고.(아주 아침에 살살 하는 그 'ᄂᆞ롯'에. 그 바람은 부는 줄 모르고 살살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놈을 불려 가지고.) 06 [남원]

ᄂᆞ릇: 주로 가을이나 겨울에 맑고 바람 없는 밤이나 새벽 때에 몹시 쌀쌀하게 느껴지는 기운을 말한다. // 아침이 바싹 ᄂᆞ릇 쎈 때 밧듸 보민 이레 과제기 뭐 사잖아, 헤영헌 거 그거ᄀᆞ라 정에 산다, 정에 산다 허는 거라, 이디서는.(아침에 바싹 'ᄂᆞ릇' 센 때 밭에 보면 이리 곧추 뭐 서잖아, 하얀 거 그것보고 성에 선다, 성에 선다 하는 거야, 여기서는.) 25 [태흥]

ᄂᆞ릇허다: 성질이 거세지 않고 유순하다는 뜻이다. // 성질 바쁜 건 바쁜 대로 알앙 키웁고

ᄂᆞᄅᆞᆺ헌 건 ᄂᆞᄅᆞᆺ헌 성질에 따랑 키와사 합네다.(성질 바쁜 건 바쁜 대로 알아서 키우고 'ᄂᆞᄅᆞᆺ헌' 건 'ᄂᆞᄅᆞᆺ헌' 성질에 따라서 키워야 합니다.) 21 [신촌]

ᄂᆞ릿질: 조천읍 함덕리 바닷가의 지명이다. // 드름이여, 올렛여여, ᄂᆞ릿질이여 경헹 막 세 여 가지.('드름'이다, '올렛여'다, 'ᄂᆞ릿질'이다 그렇게 막 세어 가지.) 11 [함덕]

ᄂᆞ물: 표준어 '나물'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주로 배추의 의미로 쓰인다. // 막 ᄂᆞ믈 담아 놓곡 무신 놈삐도 썰어 놓공 헹은에.(마구 나물 담아 놓고 무슨 무도 썰어 놓고 해서.) 03 // 솟듸 불 ᄉᆞᆷ앙 물 끌여가가멍 이거 확확 헤가곡 허여가곡 거려놔가멍 허여놩은에 ᄂᆞ물이라도 그디 확 무지려 놓곡 간장 놓곡 간 맞춰근에 기자 확 먹는 거.(솥에 불 때서 물 끓여가면서 이거 확확 해가고 해가고 떠놓아가면서 해 놓아서 나물이라도 거기 확 무질러서 넣고 간장 넣고 간 맞춰서 그저 확 먹는 거.) 14 [성읍, 송당]

ᄂᆞ이다: 놓인 것, 즉 떨어진 것을 줍다는 의미로 쓰였다. // 낭 ᄂᆞ이멍 덜 그 덜 홀타지니까 낭 ᄂᆞ이멍 경헤수다게.(보릿대 주우며 덜 그 덜 훑어지니까 보릿대 주우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32 [덕수]

놀: 짚신을 만들 때 짚신 바닥에 근간을 이루도록 길게 놓는 줄이다. // 저 어욱 빠당 어욱 무사 헤얗게 피지 안허느냐? 그거 저 피기 전에 그거 강 빠당 놧당 그거허믄 놀 꼬주기.(저 억새 뽑아다가 억새 왜 하얗게 피지 않니? 그거 저 피기 전에 그거 가서 뽑아다가 놨다가 그거하면 날 꼬지.) 10 // 옛날은 노가 어려우니까 어욱에 미를 따다가 그거를 이렇게 꼬아 가지고 놀을 하고, 신 허리에 이렇게 차 가지고 발에 영 끼어서 짚신을 만들앗는데 거 깍 내곡.(옛날은 노가 어려우니까 억새에 미를 따다가 그거를 이렇게 꼬아 가지고 날을 하고, 신 허리에 이렇게 차 가지고 발에 영 끼어서 짚신을 만들었는데 거 총 내고.) 21 // 새끼를 꼬아 갖고 놀을 만들앗어, 산디찝보단 그게 질기니까 지금 이제.(새끼를 꼬아 가지고 '놀'을 만들었어, 밭볏짚보다는 그게 질기니까 지금 이제.) 22 // 놀 그 저 ᄒᆞ쏠 질기게 홈으로.(날 그 저 조금 질기게 함으로.) 22 [신촌, 월령, 우도]

놀감주: 끓여서 달이는 단계를 거치지 않은 감주를 이른다. '셍감주'라고도 한다. // ○○ 아방 니에 버렝이 먹은 것도 엇고 니가 홁은 것도 엇고 코뜽허난 알아집니다 허멍 놀감주 송장 해골 싯젠 허민 놀감주 허영 간덴. 놀감주 헤영 간 거 이런 걸로 적지멍 니를 영영 다끄멍.(○○ 아버지 이에 벌레 먹은 것도 없고 이가 굵은 것도 없고 가지런하니까 알 수 있습니다 하면서 '놀감주' 송장 해골 씻으려고 하면 '놀감주' 해서 간다고. '놀감주' 해서 간 거 이런 걸로 적시면서 이를 이렇게 이렇게 닦으면서.) 33 [인성]

놀강아지: '놀다(날다)'에 '강아지'를 결합한 말로 '재빠르게 움직이는 강아지'를 나타낸 말로 쓰였다. // 알기 쉽게 말허민 아주 놀 강아지 거치 놀아 뎅겨.(알기 쉽게 말하면 아주 날 강아지 같이 날아 다녀.) 06 [남원]

놀채: 삶아 익히지 않은 날것 그대로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숢안 숢안. 게, 숢앙 ᄀᆞᆯ앙

ᄂᆞᆯ채 잇어. ᄂᆞᆯ채 ᄀᆞᆯ앙.(삶았어 삶았어. 그러니까 삶아서 갈아서 ‘ᄂᆞᆯ채’ 있어. ‘놀채’ 갈아서.) 18 [신도]

ᄂᆞᆯ크레기: 동작이 날쌘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다. 즉 날쌘돌이라는 말이다. // 이 이 집의 뭣도 몰르고 온 거마씨. 완에 ᄂᆞᆯ크레긴 진짜 ᄂᆞᆯ크레기우다게.(이 이 집에 뭣도 모르고 온 겁니다. 와서 날쌘돌이 진짜 날쌘돌이입니다.) 32 // ᄂᆞᆯ크레기라 놓난 양 못 가는 디 엇어마씨게. 어디 아무디라도. 산방산도 문 올르고.(날쌘돌이라 놓으니까 못 가는 데 없어요. 어디 아무데라도. 산방산도 모두 오르고.) 32 [덕수]

ᄂᆞᆷ: ‘ᄂᆞᆷ역’과 같은 말로 성인 한 사람 분의 양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스무 개씩 허민 멧 ᄂᆞᆷ이엔 허민 스무 ᄂᆞᆷ이 헤 왓저, 마흔 ᄂᆞᆷ이 헤왓저 헹.(스무 개씩 하면 몇 ‘ᄂᆞᆷ’이라고 하면 스무 ‘ᄂᆞᆷ’ 해 왔다, 마흔 ‘ᄂᆞᆷ’ 해왔다 해서.) 11 [함덕]

ᄂᆞᆷ삐: 표준어 ‘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ᄂᆞᆷ삐도게 경 우영에 갈앙 ᄂᆞᆷ삐 밧 경 뒐 거난게.(무도 그렇게 텃밭에 갈아서 무밭 그렇게 될 거니까.) 16 [하원]

ㄷ

다간: 소의 나이 두 살로 표준어 '두습'에 대응한다. // 곧 나민 금승, 다간. 두 솔이민 다간.(곧 나면 '금승', '다간'. 두 살이면 '다간'.) 04 // 혼 솔은 처음 난 거, 금승이엔 ᄒᆞ고, 또 일 년 넘은 건 다간 송아기엔, 사릅 송아기, 나릅 송아기 경.(한 살은 처음 난 거, '금승'이라고 하고, 또 일 년 넘은 건 '다간' 송아지라고, 사릅 송아지, 나릅 송아지 그렇게.) 17 // 이빨 벌려서 뭐 다간, 다간이면 두 살이고 사릅이면 세 살이고 나릅 다섯 이렇게 허는데.(이빨 벌려서 뭐 '다간', '다간'이면 두 살이고 사릅이면 세 살이고 나릅 다섯 이렇게 하는데.) 18 [고성, 대평, 봉성, 신도]

다겡이: 물동이에 물을 긷고 다닐 때 물이 넘치지 않도록 짚 따위로 물동이 주둥이를 막게 만든 것을 말한다. // 다겡이, 다겡이도 찍으로 헹 벵벵 허게 막으민 찰랑찰랑 안 허주게.('다겡이', '다겡이'도 짚으로 해서 뱅뱅 하게 막으면 찰랑찰랑 안 하지.) 26 [신창]

다글다글: 씨앗 싹이 잘 나는 모양을 표현한 말이다. 나무나 풀, 꽃, 채소 따위가 한데 뭉쳐나서 소담스러운 모양으로 '모록모록'이라고도 한다. // 섬비질을 ᄒᆞ민 멘네씨 묻어질 거 아니우꽈? 경 ᄒᆞ영 내불민 집의 오민 모멀모냥 다글다글 나갑니다.('섬비질'을 하면 면화씨 묻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내버리면 집에 오면 메밀처럼 '다글다글' 나갑니다.) 17 [대평]

다깡무수: 일본어 'たくあん'으로, 단무지(무로 담근 일본식 짠지)이다. // 매 무수 그 저, 옛날엔 요센 무수 아녀고 다깡무수 하영 ᄒᆞ곡, 그저 거시기 무수 단지무수허난. 다깡무수 갈앗다근넹에 네영 싯엉 ᄒᆞ쏠 벳디 놔두민 그게 ᄒᆞ쏠.(매 무 그 저, 옛날에는 요새 무 안하고 '다깡무수' 많이 하고, 그저 거시기 무 '단지무수'하니까. '다깡무수' 갈았다가 내어서 씻어서 조금 볕에 놔두면 그게 조금.) 04 [고성]

다꽝무수: 단무지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무를 말한다. 여기에서 '다꽝(たくあん)'은 단무지의 일본어이고, '무수'는 표준어 '무'에 대응하는 말이다. // 옛날은 종류가 벨로. 저 다꽝무수허곡. 그 셍기리무수벳긔는.(옛날은 종류가 별로. 저 '다꽝무수'하고. 그 '셍기리무수'밖에는.) 14 [성읍]

다끄네: 제주시 용담동의 자연 마을 이름이다. // 영 영 보난 아주머니. 아이고, 어떵헨? 나 다끄네마씨. 경허난 깜짝헤져라.(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아주머니. 아이고, 어떡해서? 나 '다끄네'요. 그러니까 깜짝했어.) 30 [노형]

다데: 당에 갈 때 제물로 바치거나 장례 때 장지에서 상여꾼에게 제공하는 동글납작한 떡이다. '다데떡', '당다데'라고도 한다. // 굿 ᄒᆞᆯ 때 쓰는 떡은양, 저 시리떡이나 ᄒᆞ영 올리곡양, 다데. 빵떡 ᄒᆞ나토 안 ᄒᆞ영 다데만 ᄒᆞᆸ니다.(굿 할 때 쓰는 떡은요, 저 시루떡이나 해서 올리고요, '다데'. 빵 하나도 안 해서 '다데'만 합니다.) 08

// 곤떡으로도 등절비 ᄒᆞ곡, 그 상뒤 테우는 거 세 개민, 경ᄒᆞ민 모멀은 이만씩 벵돌락ᄒᆞᆫ 다데, 그건 상뒤 테우는 거, 경 ᄒᆞ여낫수게, 모멀은.(흰떡으로도 '등절비' 하고, 그 향도 태우는 거 세 개면, 그러면 메밀은 이만큼씩 둥그런 '다데', 그건 향도 태우는 거, 그렇게 했었습니다, 메밀은.) 17 // 다데도 그 곤떡 만들듯 크게게. 크게 동글랑허게 영 ᄒᆞᆫ 사발만인 허여. 동글랑허게. 겐 그거 다데. 다데 멧 개썩 허영, ᄒᆞᆫ 밧디 ᄒᆞᆫ 댓 개씩 올려.('다데'도 그 흰떡 만들듯 크게. 크게 동그랗게 이렇게 한 사발만큼 해. 동그랗게. 그래서 그거 '다데'. '다데' 몇 개씩 해서, 한 군데 한 댓 개씩 올려.) 26 // 아무거라도 당에 갈 때 집이서 허기 쉬운 거. 기냥 모멀ᄀᆞ루 시민 빙떡. 빙이라도 어졍 가고 경 안허민 곤ᄉᆞᆯ ᄀᆞ루로 다데 멘들앙 동글락 동글락헌 떡 멧 개 멘들앙 가졍 간다.(아무거라도 당에 갈 때 집에서 하기 쉬운 거. 그냥 메밀가루 있으면 빙떡. 빙이라도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흰쌀 가루로 '다데' 만들어서 동그랗게 동그란 떡. 몇 개 만들어서 가져간다.) 33 [구억, 대평, 동광, 신창, 인성]

다데떡: 당에 가거나 굿을 할 때 올리는 동글납작한 떡이다. '다데'라고도 한다. // 그 떡은 동글락ᄒᆞ여근에 영영 손으로 영영 ᄌᆞᆸ앙 멘들앙 영영 동글락ᄒᆞᆫ 거, 건 다데떡.(그 떡은 둥글어서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집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둥근 거, 건 '다데떡'.) 08 // 그 감저 뻬떼기 ᄲᆞᆺ아근에 그걸로 ᄌᆞ베기도 ᄒᆞ영 먹곡 ᄃᆞ시 영 ᄒᆞ여근에 다데떡.(그 고구마 고지 빻아서 그걸로 수제비도 해서 먹고, 다시 이렇게 해서 '다데떡'.) 08 // 동그락ᄒᆞᆫ 다데떡, 손으로 모멀이고, 곤ᄉᆞᆯ이고 멘들앙 다데떡 ᄒᆞ영 가는 디, 이디 사름덜은 오랑 보난 떡 ᄒᆞ영 가는 사름이 엇언게, 메만.(둥그런 '다데떡', 손으로 메밀이고, 흰쌀이고 만들어서 '다데떡' 해서 가는 데, 여기 사람들은 와서 보니까 떡 해서 가는 사람이 없던데, 메만.) 17 // 동글락헌 거 고장떡 거치 만드는 다데떡. 그냥 고장만 아니 멘들앙 동글락허게 헤영.(동그란 거 '고장떡' 같이 만드는 '다데떡'. 그냥 '고장'만 안 만들고 동그랗게 해서.) 20 [고내, 노형, 대평, 동광]

다도테기: 두 되가 들어가는 크기의 솥이다. // 경ᄒᆞ민 큰 거는 다도테기, 솟 맞인 거 엇이민 빌어당이라도 시리에 맞춰사 뒈는 거.(그러면 큰 거는 '다도테기', 솥 맞는 거 없으면 빌려서라도 시루에 맞춰야 되는 거.) 17 // 다도테기에 밥ᄒᆞ는 사름, 식귀에 ᄃᆞ랑 밥ᄒᆞ는 거. 다도테기 밥 ᄒᆞ나 뿔웡 먹는 집 잇곡, 우리는 식귀가 하도 세 번째 솟으로 ᄒᆞᆸ디다.('다도테기'에 밥하는 사람, 식구에 따라서 밥하는 거. '다도테기' 밥 하나 잦혀서 먹는 집 있고, 우리는 식구가 많아도 세 번째 솥으로 합디다.) 17 // 밥허는 건 큰말치, 소말치, 다음에 밥허는 거, 다도테기.(밥하는 건 '큰말치', '소말치', 다음에 밥하는 거, '다도테기'.) 34 // 국 끌리는 건 게난 다도테기 다음에 국 끌리는 솟.(국 끓이는 건 그러니까 '다도테기' 다음에 국 끓이는 솥.) 34 [구억, 대평, 신창]

다두테기: 용적이 식되로 쌀 두 되 드는 크기의 솥을 말한다. // 그 다음 옹지리. 그 다음 서두, 저 다두테기.(그 다음 옹달솥. 그 다음 서두, 저 '다두테기'.) 32 [덕수]

다듬이: 일본어 'たたみ'를 말하며 돗자리에 해당하는 말이다. // 경헌디 그 알은 세멘바닥 절르우고, 이 우의 끄는 건 다듬이라고 대 꿰언에 대로 전 거라라.(그랬는데 그 밑은 시멘트바닥 굳히고, 이 위에 까는 건 '다듬이'라고 대 꿰어서 대로 결은 거더라.) 24 [세화]

다라: 일본어 'たらい'에서 온 말로 대야를 말한다. // 우린 그 누에고추 타는 날은 번데기가 큰 다라로 ᄒᆞ나도 넘엉 두 다라도 세 다라 나와.(우린 그 누에고치 따는 날은 번데기가 큰 '다라'로 하나도 넘어서 두 '다라'도 세 '다라' 나와.) 06 // 담는 거 사 엿날은 멩텡이에도 허곡 이젠 이 다라에도 영 헤근엥.(담는 거야 옛날은 망태기에도 하고 이제는 이 '다라'에도 이렇게 해서.) 18 // 자리 가근엥 바구니로 하나 사당 비우민 큰 다라로 ᄒᆞ나 허민. 소곰 넣엉 뒛박으로 겅 허영 그거 젓엉 이젠 그건 이젠 걸이멍 사발로 걸이멍 이레 놩 돌 딱 지들와근엥 ᄒᆞᆫ두 달은 놔 둬사 허여.(자리 가서 바구니로 하나 사다가 부우면 큰 '다라'로 하나 하면. 소금 넣어서 됫박으로 그렇게 해서 그거 저어서 이제는 그건 이제는 덜어서 사발로 덜어서 이리 놔서 돌 딱 지질러서 한두 달은 놔둬야 해.) 18 [남원, 신도]

다라무시: 일본어로 '계(契)'를 말하는 것으로 '다노모시(たのもし)'를 '다라무시'로 발음했다. // 다라무시도 우린 헤도 안 헤난. 다라무시덜도 헤영 다라무시 ᄂᆞ류와 먹엉 못 받앙 허는 사름 서도 그런 것도 안 헤나고.('다라무시'도 우린 해도 안 했었어. '다라무시'들도 해서 '다라무시' 내려서 먹어서 못 받아서 하는 사람 있어도 그런 것도 안 했었고.) 13 // 다라무신 ᄃᆞᆯᄃᆞᆯ마다 돈 내놔근에 허다근에 돈 타먹어근에 다시 또 타먹어뒁 그 돈 안 내는 사름도 잇고, 경헹 쌉는 사름도 잇고.('다라무시'는 다달이 돈 내놓아서 하다가 돈 받아먹어서 다시 또 받아먹어두고 그 돈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13 [삼달]

다라이: 일본어 'たらい'에서 온 말로 큰 대야를 가리키는 말이다. // 알레 저 다라이 헹 메주 건져뒁 또 장물 놩 또 장물데로 헤근에 벨 질엇던가 딴디 질엇던가 헤근에 장물을 또 뒌장을 막 쩌사주게 거 막 벙 머 허난에.(아래 저 '다라이' 해서 메주 건져두어서 또 장물 넣어서 또 장물대로 해서 먼저 길었던지 다른데 길었던지 해서 장물을 또 된장을 마구 찧어야지 거 마구 벙 뭐 하니까.) 16 [하원]

다락다락: 베틀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낸 말이다. // 꼬리 영 왓다리 갓다리 영. 영 디물앙 영 디물앙 영. 그거야. 빨리허는 사람은 다락다락 막 빨리헤.(실톳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거야. 빨리하는 사람은 '다락다락' 아주 빨리해.) 30 [노형]

다락다락: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굵은 빗방울이 마구 떨어지는 모양을 흉내낸 말이다. // 홁은 비 다락다락 오는 거, 그거 쥉이쉬.(굵은 비 '다락다락' 오는 거, 그거 '쥉이쉬'.) 25 [태흥]

다랑굿: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이다. // 사기펭 요만헌 거 두 벵들이 납작한 펭, 사기펭 걸로 청주이, 청주 그거 ᄒᆞ나 헤당 상에 딱 올령, 다랑굿이난 다랑굿

도 가깝주게. 월랑서, 월랑서 요 우이.(사기병 요만한 거 두 병들이 납작한 병, 사기병 걸로 청주, 청주 그거 하나 해다가 상에 딱 올려서, '다랑굿'이니까 '다랑굿'도 가깝지. '월랑'에서, '월랑'에서 요 위에.) 30 [노형]

다랑쉬: 구좌읍 세화리 산 6번지에 소재한 오름을 말한다. // 외곽을 가게 뒈면은 다랑쉬는 서화리고, 대천도 들겡이목.(외곽을 가게 되면 '다랑쉬'는 '서화리'이고, '대천'도 '들겡이목'.) 03 // 게민 이 규묘를 크게 헤가지고 ᄒᆞ면은 하여튼 그 저짝 다랑쉬로 저 거시기로 어딜로 안 뎅기는 디가 없어.(그러면 이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하면은 하여튼 그 저쪽 '다랑쉬'로 저 거시기로 어디로 안 다니는 데가 없어.) 04 [고성, 송당]

다루끼: 일본어 'たるき'를 말하는데 표준어 서까래를 말한다. // 저거 틀엉은엥에 저거 저 방 하나 우의 영 저 무시 거 다루끼 박곡, 틀엉 봐야 압주마는 저거 다 허여사 뭠직 허여.(저거 뜯어서 저거 저 방 하나 위에 이렇게 저 무시 거 '다루끼' 박고, 뜯어서 봐야 알지만 저거 다 해야 될 듯해요.) 32 [덕수]

다리다: 표준어 다지다에 대응한다. 다지다는 누르거나 밟거나 쳐서 단단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 이제 또 날 봐근에 이제 펭지 집터 다려근에 펭지허곡 펭기.(이제 또 날 봐서 이제 평지 집터 '다려근에' 평지하고 평지.) 16 [하원]

다마: 일본어 'たま(玉)'에서 온 말로, 구슬을 말한다. // 그때는 다마가 없어 가지고이 저 바다에 가면 진흑이 잇저.(그때는 '다마'가 없어 가지고 저 바다에 가면 진흙이 있어.) 12 // 거니까 다마 멘들아 갖고. 다마치기 헤서 다마치기.(거니까 '다마' 만들어 가지고. '다마치기' 했어 '다마치기'.) 22 [우도, 한동]

다마네기: 일본어 'たまねぎ'로 양파이다. // 다마네긴 엿날 벨로 엇엇주게.('다마네기'는 옛날 별로 없었지.) 20 // 저 이제 이거 뒛구나 헤영 이제 걸령게. 체를 바투든가 소쿠리를 바투든가 다마네기 조락으로 걸르든가 짝 짱, 이제 딸령. 옛날은 뒈지고기 놩 주로 엿 헷주게.(저 이제 이거 되었구나 해서 이제 걸러서. 체를 받치든가 소쿠리를 받치든가 '다마네기' 자루로 거르든가 짝 짜서, 이제 달여서. 옛날은 돼지고기 넣어서 주로 엿 했지.) 26 // 다시마 놓고 무 썰어 놓고 다마네기 ᄒᆞ나 헤 놓고이 경헨에 막 끌연에 그 물, 그 물 걸런에 그디 배 ᄀᆞᆯ아 놓고 다마네기 ᄀᆞᆯ아 놓고 게난 막 김치 맛 좋아라.(다시마 넣고 무 썰어 넣고 '다마네기' 하나 해 넣고 그래서 마구 끓여서 그 물, 그 물 걸러서 거기 배 갈아 넣고 '다마네기' 갈아 넣고 그러니까 아주 김치 맛 좋더라.) 31 // 무시것에 담앙은엥에 다마네기 찰리에서 짱. 짜근에 감물 들염수게.(무엇에 담아서 '다마네기' 자루에서 짜서. 짜서 감물 들입니다.) 32 [고내, 덕수, 삼달, 수망, 신창, 토평]

다마치기: 구슬치기를 말한다. 여기에서 '다마(たま)'는 구슬의 일본어이다. // 다마치기. 돌생기[돌쌩기] 허영 ᄆᆞᆺ앙은에 다마치기허곡.('다마치기'. 돌멩이 해서 마서 '다마치기허곡'.) 14 [성읍]

다망고: 일본어 'けいらん'를 말하며 달걀이다. // 다망고 ᄆᆞᆫ딱 공출허렌 허영은에 그거 저

다망고 문딱 모여근에 집집마다 옛날은 그 저 토종닥털 다 질루지 아녓수가. 집에.('다망고' 몽땅 공출하라고 해서 그거 저 '다망고' 몽땅 모아서 집집마다 옛날은 그 저 토종닭들 다 기르지 않았습니까. 집에.) 32 [덕수]

다믈: 여름에 보이는 별자리로 별이 모여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으로 시간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 벨이 막 모두아져. 다믈이라고이.(별이 마구 모아져. '다믈'이라고.) 03 [송당]

다박다박: 나무나 풀, 꽃, 채소 따위가 한데 뭉쳐나서 소담스러운 모양이다. // 많이 허는 사름은 목화도 좋은 밧디 싱경 다박다박 나민 흙으면 드레가 잘 열엉 목화도 하고.(많이 하는 사람은 목화도 좋은 밭에 심어서 주렁주렁 나면 굵으면 다래가 잘 열어서 목화도 많고.) 06 [남원]

다박다박허다: 나무나 풀, 꽃, 채소 따위가 한데 뭉쳐나서 소담스러운 모양이다. // 엿날 배추 씨 삐엉 갈앙, 소꽝 다박다박헌 거 뒈엄직헌 것더레만 비료 톡톡헹 놔두민 씨만 존 거 헤당 허민 퍼기 안아.(옛날 배추 씨 뿌려서 갈아서, 솎아서 '다박다박헌' 거 될 것 같은 것으로만 비료 톡톡해서 놔두면 씨만 좋은 거 해다가 하면 포기 앉아.) 25 [태흥]

다박다박허다: 작은 무더기들이 종종 모여 있는 모양이다. 여기서는 콩가루 물을 끓였을 때 응고하면서 굳어지는 느낌이 있다는 의미이다. // 누물 놩 끌이당 두께 더끌 때 소금 우터레 흐꼼 간 뒈게. 경헨 두께 톡 더껑 놔두민 저 거시기 저 뭐 두부추룩 다박다박허주게.(나물 넣어서 끓이다가 뚜껑 덮을 때 소금 위로 조금 간 되게. 그래서 뚜껑 톡 덮어서 놔두면 저 거시기 저 뭐 두부처럼 '다박다박허주게'.) 31 [토평]

다스께: 일본어로 'たすけ'로 살려 달라는 말이다. // 다스껜 살려 도렌 말이고 단스껜 손을 잡으라 허는 말.('다스께'는 살려달라는 말이고 '단스께'는 손을 잡아라 하는 말.) 11 [함덕]

다스께오니: 놀이의 종류를 일컫는 일본어로, 밤에 하는 숨바꼭질의 일종이다. // 다스께오니옌 허는 건, 것도 밤에 허여. 그 저 곱앗다가 저 영, 너 누게? 누게? 영 일름 골으믄 건 죽는 겁주기.('다스께오니'라고 하는 건, 그것도 밤에 해. 그 저 숨었다가 저 이렇게, 너 누구? 누구? 이렇게 이름 말하면 건 죽는 거지요.) 35 // 공기놀이 허는 것은 저 막 어린 때에 초등학교 혼 이삼학년 때 놀이 좀 허곡, 거 다스께오닌 건 흐끔 더 커사 허고예.(공기놀이 하는 것은 저 아주 어릴 때에 초등학교 한 이삼 학년 때 놀이 좀 하고, 거 '다스께오니'는 건 조금 더 커야 하고요.) 35 [대림]

다슴시어멍: '다슴'은 '대를 잇는' 또는 '데리고 들어온' 이라는 뜻이므로 '다슴시어멍'은 의붓시어머니를 이르는 말이다. // 게서 시아방한티, 다슴시어멍한티 가니까 그때 혼 열 평짜리 이간막살이 집을 빌어줍디다.(그래서 시아버지한테, '다슴시어멍'한테 가니까 그때 한 열 평짜리 두 칸짜리 집을 빌려 주셨어요.) 03 [송당]

다슴애기: 개가하여 온 집의 전처의 자식이나 또는 후실이 데리고 온 전남편의 자식을 이르는 말이다. '의붓자식'을 이르는 말이다. '다심애기'라고도 한다. // 다슴애기 ᄆᆞ른 개역 준덴 헙니다.('다슴애기' 마른 미숫가루 준다고 합니다.) 14 [성읍]

다습: 소의 나이 다섯 살을 말한다. 달리 '다숩'이라고도 한다. // 다습, 요습. 두 ᄉᆞᆯ까진 다간. 그다음 사릅. 세 ᄉᆞᆯ이면 사릅.(다습, '요습'. 두 살까진 '다간'. 그다음 사릅. 세 살이면 사릅.) 36 [봉성]

다시: 일본어 'だし'로 멸치, 다시마, 조개 따위를 우려내어 맛을 낸 국물, 또는 재료를 뜻한다. // 사는 집의는 그 국물에다가 다시 낼라고 이제 ᄎᆞᆷ 막 사는 집의는 이제 소님이나 가면 밀, 저 모멀이나 뭐 헐 때는 소고기.(사는 집에는 그 국물에다가 '다시' 내려고 이제 참 매우 사는 집에는 이제 손님이나 가면 밀, 저 메밀이나 뭐 할 때는 소고기.) 01 // 이거 톨 무신 맛으로 이거 우동에 이거 다시로 놧수가?(이거 톳 무슨 맛으로 이거 국수에 이거 다시로 놨습니까?) 23 [도련, 온평]

다심애기: 개가하여 온 집의 전처의 자식이나 또는 후실이 데리고 온 전남편의 자식을 이르는 말이다. '의붓자식'을 이르는 말이다. '다슴애기'라고도 한다. // 다심애기는 콩 멕이고, 이녁애긴 ᄑᆞᆺ 멕이난, ᄑᆞᆺ이 맛좋지. ᄑᆞᆺ딱지만 떼작떼작허고 다심애긴 문딱헤연.('다심애기'는 콩 먹이고, 이녁 아긴 팥 먹이니까, 팥이 맛 좋지. 팥 딱지만 누덕누덕하고 '다심애기'는 '문딱헤연'.) 21 [신촌]

다우다: 광택이 있는 얇은 견직물인 '태피터(taffeta)'의 일본식 발음인 '다프다, 다후다'에서 온 것이다. // 요새난 다우다니 인주니 저런 거 나왐주. 우리 두린 땐 그런 거 하나 엇언.(요새니까 '다우다'니, 인조니 저런 거 나오고 있지. 우리 어릴 땐 그런 거 하나 없었어.) 25 // 치만 이런 검은 다우다 치메더라. 다우다 치메. 옛날은 다우다엔 헤연, 나이롱 다우다 치메 막.(치만 이런 검은 '다우다' 치마더라. '다우다' 치마. 옛날은 '다우다'라고 했어, 나일론 '다우다' 치마 마구.) 30 [노형, 태흥]

다이야: '타이어'를 일본어(タイヤ) 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 밧 갈젠 허면은 이 저 뭘, 글로 후제는 다이야가 나오난 다이야 허는 사름도 이신디 나무, 설피 헤 가지고는 무꺼 겡 쉐멍에 메와근에 처음엔 게벼운 걸로 허단 내중엔 돌을 놓나 사람 올랑 끗주게 멍에ᄐᆞᆨ 내운덴 헤근에.(밭 갈려고 하면은 이 저 뭘, 그 뒤에는 '다이야'가 나오니까 '다이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무, 끙게 해 가지고는 묶어서 그래서 소 멍에 메워서 처음엔 가벼운 걸로 하다가 나중엔 돌을 놓거나 사람 올라서 끌지 '멍에ᄐᆞᆨ' 낸다고 해서.) 06 // 처음 처음에는 이제 그저, 쟁기를 ᄌᆞᆺ에 ᄀᆞ뜨면 저 다이야 ᄀᆞ뜬 걸 이렇게 등어리에 헤서 이제 그 오리목에 만들아근에.(처음 처음에는 이제 그저, 쟁기를 제주에 같으면 저 '다이야' 같은 걸 이렇게 등에 해서 이제 그 '오리목'에 만들어서.) 22 // 다이야는 조그마헤도 그거 수월허고 편헌 거니까 다이야마차 이렇게.('다이야'는 조그마해도 그거 수월하고 편한 거니까 '다이야마차' 이렇게.) 23 [남원, 온평, 우도]

다찌개: 구좌읍 한동리 바다 이름의 하나이다. // 것ᄀᆞ라 다찌개엔 헌다, 다찌개.(거보고 '다찌개'라고 한다. '다찌개'.) 12 [한동]

다포: 상여에 천을 길게 늘어뜨려 치장한 것을 말한다. // 못 사는 사름은 안 허는디 잘사는 사름은 다포도 헷주게.(못 사는 사람은 안 하는데 잘사는 사람은 '다포'도 했지.) 06 [남원]

닥ᄆᆞ루: 조천읍 신촌리의 지명으로 바닷가에 닭이 날개를 펼친 모양을 하고 있다. // 내창은 이 저 종인내라고 해가지고 저 우로 내려오는 내가 지금 저 닥ᄆᆞ루ᄁᆞ지 내려가죠.(내는 이 저 '종인내'라고 해가지고 저 위로 내려오는 내가 지금 저 '닥ᄆᆞ루'까지 내려가죠.) 21 // 진드르는 밧디 좋으니까 진드르라고 헤엿고 닥ᄆᆞ루는 닭 형치ᄀᆞ치 생겨서 닥ᄆᆞ루 가민 경치가 썩 좋죠. 또 닥ᄆᆞ루, 닥 머리ᄀᆞ치 생긴 디도 잇고 그 궤석이 많습니다.('진드르'는 밭이 좋으니까 '진드르'라고 했고 '닥ᄆᆞ루'는 닭 형체 같이 생겨서 '닥ᄆᆞ루' 가면 경치가 썩 좋죠. 또 '닥ᄆᆞ루', 닭 머리같이 생긴 데도 있고 그 괴석이 많습니다.) 21 [신촌]

닥ᄆᆞ루: 한경면 저지리의 옛 이름이다. '당ᄆᆞ를'이라고도 한다. // 왜 닥ᄆᆞ루라고 헷느냐허면은 닥 형치에 닥대가리 형치라고 헤서 닥ᄆᆞ루에 우리 청수ᄆᆞ을이 같이, 같은 ᄆᆞ을로 뒈엇다가 에, 다음에 그 방에왓이라는 데가 잇엇수다.(왜 '닥ᄆᆞ루'라고 했느냐 하면 닭 형체에 닭대가리 형체라고 해서 '닥ᄆᆞ루'에 우리 청수마을이 같이 같은 마을로 되었다가 에, 다음에 그 '방에왓'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19 [청수]

닥지: 고둥의 살에 붙어 있는 뚜껑으로 딱딱한 석회질 혹은 키틴질로 되어 있다. // 닥지 떼여둬근에 그건 춤 막 무락무락 무르줴민 똥이 헤싸질 거 아니게.('닥지' 떼어두고 그건 참 막 '무락무락' 부르쥐면 똥이 헤벌어질 거 아니.) 29 [외도]

단가: 대나무 등을 엮어 만든 선반을 말한다. // 허민 좀, 좀박이엔 헌 거 영헨 네모난 거 잇주게. 좀박 영헹 네모난 거 시민 이디 ᄆᆞᆫ딱 단가 메여.(하면 좀, '좀박'이라고 하는 거 이런 네모난 거 있지. '좀박' 이런 네모난 거 있으면 여기 모두 '단가' 매.) 31 [토평]

단도리허다: 표준어 단속하다에 대응한다. 여기서 단도리는 일본어 'だんどり'에서 온 말로 '단속'이라는 의미이다. // 게난 봄 나민 농촌에선 봄 나민 이 ᄇᆞ른구덕 ᄯᅳ시 수리혜영 ᄇᆞᆯ르노렌 ᄒᆞ루 풀 쒀근에 부지런히 헤근에 거 ᄇᆞᆯ르멍 ᄆᆞᆫ딱 햇빗이 널엉 ᄆᆞᆯ리멍 경헹 단도리헹 놔둬.(그러니까 봄 되면 농촌에선 봄 되면 이 'ᄇᆞ른구덕' 또 수리해서 바른다고 하루 풀 쒀서 부지런히 해서 거 바르면서 모두 햇볕에 널어서 말리면서 그렇게 단속해서 놔둬.) 30 [노형]

단산: 안덕면 사계리 북서쪽, 대정읍 인성리와의 경계에 걸쳐진 오름이다. '바굼지오름'이라고도 한다. 단산 앞에 대정향교가 있다. // 단산에 낭 못허게 헷어. 엿날에 엿날엔 단산에 저렇게 낭 없엇어. 우리 클 때. 그자 테역만 잇고 새만 낫는디 이제 살아가난 자기대로 낭밧이 뒈어불엇지.('단산'에 나무 못하게 했어. 옛날에 옛날

엔 ‘단산’에 저렇게 나무 없었어. 우리 클 때. 그저 잔디만 있고 띠만 있는데 이제 살아가니까 자기대로 나무밭이 되어버렸지.) 33 // 단산 앞이. 그디 강인에 각처에이 남군에 사람은 그 상궤에덜 ᄆᆞᆯ관 쓰곡덜 큰옷 도복덜 입곡 영 허민. ᄒᆞᆫ 일주일 그디서 ᄆᆞᆫ 여자덜신디 조역 안 허게시리 방에 눅져.(‘단산’ 앞에. 거기 가서 각처에 ‘남군’에 사람은 그 향교에들 말관 쓰고들 큰옷 도복들 입고 이렇게 하면. 한 일주일 거기서 모두 여자들에게 조역 안하게끔 방에 누워.) 33 [구억, 인성]

단속하다: ‘장만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겨난 거자 끓여져 갈 때 고기만 다 단속헷다근에 들이쳐 불민 그 엿.(그러니까 거의 끓어 갈 때 고기만 다 장만했다가 들이뜨려 버리면 그 엿.) 06 [남원]

단스: 일본어 ‘たんす’에서 온 말로 장롱이나 옷장을 뜻한다. // 단스 헤주켄 허길래 나가 단스 허지 말고예, 도새기 ᄒᆞᆫ 머리 더 잡아줍서.(‘단스’ 해주겠다고 하기에 내가 ‘단스’ 하지 말고요, 돼지 한 마리 더 잡아주십시오.) 23 // 요샌 단스니 뭐니 헷주마는 엿날엔 궤 짠에, 짠 궤 놩 영 앞으로 문 영 ᄃᆞᆼ기곡 더껑 허는 거, 그런 궤 놓는 디, 이게.(요새는 ‘단스’니 뭐니 했지마는 옛날엔 궤 짜서, 짠 궤 놔서 이렇게 앞으로 문 이렇게 당기고 덮어서 하는 거, 그런 궤 놓는 데, 이게.) 25 // 우리가 못 젼디긴 허지만. 그 궤 질 때가 제일 힘들어. 궤짝. 그땐 단슨 엇주, 옛날에난.(우리가 못 견디긴 하지만, 그 궤 질 때가 제일 힘들어. 궤짝. 그때는 ‘단스’는 없지, 옛날이니까.) 30 [노형, 온평, 태흥]

단스께: 일본어 ‘다스께’에서 만들어진 말로 어린아이들의 놀이의 하나인 것 같다. // 곱을레기도 허레 ᄃᆞᆯ아뎅기고, 막 무시거 것ᄀᆞ라 무신거엔, 단스께도 허고 무시것도 허고.(숨바꼭질도 하러 돌아다니고, 막 무엇 그것보고 무엇이라고, ‘단스께’도 하고 무엇도 하고.) 11 [함덕]

단지나물: 둥글고 단단한 재래의 무인 ‘단지ᄂᆞᆷ삐’의 무청을 말한다. // 무썹 놔도 좋고, 무우, 무 짤라놔도 좋고 무썹 놔도 좋고 그건 아무 거 놔도 다. 무썹도 이 단지나물.(무청 넣어도 좋고, 무, 무 잘라 넣어도 좋고 무청 넣어도 좋고 그건 아무 거 넣어도 다. 무청도 이 ‘단지나물’.) 14 [성읍]

단지ᄂᆞ물: 둥글고 단단한 재래의 무인 ‘단지ᄂᆞᆷ삐’의 무청을 말한다. 무 모양이 단지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이다. // 단지ᄂᆞ물 썹 ᄂᆞᆷ삐썹 그거하곡 서꺼근에 그 돗국물허민 진짜로 그 국이야말로 잔치 때벳긔 이거는.(‘단지ᄂᆞ물’ 잎 무청 그거하고 섞어서 그 ‘돗국물’하면 진짜로 그 국이야말로 잔치 때밖에 이거는.) 05 // 음식 기자 ᄆᆞᆯ망 헤다근에 이젠 먹엇저만은 그때 시대엔 ᄆᆞᆯ망도 엇엇어. ᄂᆞ물. ᄎᆞᆷᄂᆞ물. 단지ᄂᆞ물, 단지ᄂᆞ물.(음식 그저 모자반 해다가 이젠 먹었지만 그때 시대에는 모자반도 없었어. 나물. ‘ᄎᆞᆷᄂᆞ물’. ‘단지ᄂᆞ물’, ‘단지ᄂᆞ물’.) 31 [토평, 표선]

단지ᄂᆞᆷ삐: 둥글고 단단한 재래의 무를 이르는 말로 무 모양이 단지 모양으로 자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 이제 젤 생각나는 게 그 잔치. 그 잔칫집이 그 저 단지ᄂᆞᆷ삐 그

썹 시커멍헌 썹 이만씩 ᄉᆞᆯ진 그런 거 헤여당.(이제 젤 생각나는 게그 잔치. 그 잔칫집에 그 저 '단지ᄂᆞᆷ삐' 그 잎 시커먼 잎 이만씩 살찐 그런거 해다가.) 05 // 단지ᄂᆞᆷ삐 그 단지ᄂᆞᆷ삐 그 썹 헤근에 돗국물 끓이민 얼마나 그 잔치 때 맛잇이카부덴.('단지ᄂᆞᆷ삐' 그 '단지ᄂᆞᆷ삐' 그 잎 해서 '돗국물' 끓이면 얼마나 그 잔치 때 맛있을까봐.) 05 // ᄂᆞ물 갈앙 시레기 ᄆᆞᆯ령 무시거 헴주만은 옛날은 ᄂᆞ물도 ᄂᆞᆷ삐도 갈민 엇곡 허난 빼작빼작헌 단지ᄂᆞᆷ삐엔 헨 갈앙 허민 저슬 들엉, ᄀᆞ슬 들엉 ᄒᆞᆫ 팔월 나민 갈앙 놔두민 모ᄆᆞᆯ팟듸 그 ᄂᆞᆷ삐 갈앙 놔두민 ᄂᆞᆷ삐가 이만썩 베끼 안 들주게.(나물 갈아서 시래기 말려서 무엇 하고 있지만 옛날은 나물도 무도 갈면 없고 하니까 '빼작빼작헌' '단지ᄂᆞᆷ삐'라고 해서 갈아서 하면 겨울 들어서, 가을 들어서 한 팔월 나면 갈아서 놔두면 메밀밭에 그 무 갈아서 놔두면 무가 이만큼씩 밖에 안 들지.) 13 // 단지ᄂᆞᆷ삐 무썹을 헤야 더 맛잇어.('단지ᄂᆞᆷ삐' 무청을 해야 더 맛있어.) 14 [동광, 삼달, 성읍, 표선]

단지무수: 단지 모양을 닮은 무를 말한다. // 엿날에 무신 단지무수엔 헌 거 몽클랑몽클랑헌 것ᄀᆞ라 단지무수, 단지무수헤여이.(옛날에 무슨 '단지무수'라고 한 거, 몽클몽클한 것보고 '단지무수', '단지무수'해.) 25 [태흥]

달구소리: 집을 지을 때 땅을 다질 때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 땅을 이렇게 홈을 지와서 이디 자갈을 놓아서 다져. 이때 달구소리 허면서 땅을 다지주.(땅을 이렇게 홈을 지워서 여기 자갈을 놓아서 다져. 이때 '달구소리' 하면서 땅을 다지지.) 14 [성읍]

달귀달귀: 노동요 '달귀 짛는 소리'의 한 구절이다. '달귀 짛는 소리'는 집터를 단단히 다지면서 부르는 민요를 말한다. '달구 소리', '달구 짛는 소리', '달귀 소리', '달귀 짛는 소리'라고도 한다. // 노래 부르멍, 땅 이제 그 팍팍 달귀달귀 허는 것이.(노래 부르면서, 땅 이제 그 팍팍 '달귀달귀' 하는 것이.) 07 [보목]

달루다: 가루나 흙 따위에 물을 부어 반죽하다라는 의미의 '이기다'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떡 밀젠 안반에서 헷주. 주루 떡 달루젠 허민.(떡 밀려고 안반에서 했지. 주로 떡 '달루젠' 하면.) 01 // 그걸 문작이 달롸.(그걸 반드럽게 '달롸'.) 16 [도련, 하원]

달룹다: 반죽 등이 아주 잘 주물러져서 부드럽다라는 뜻이다. // 그 좁ᄊᆞᆯ에 보리ᄊᆞᆯ에 서껑인에 쪙인에 막 달룹게 찌주게. 쪙인에 이젠 손으로 껑껑 누르떠근에 썰엉인에 장국 깨우는 디 들이쳥 지름도 놓고 허영은에 ᄒᆞᆫ 사발 권허민, 사발에 두 개 권허민이 하나만 먹카부덴? 두 사발 다 먹어.(그 좁쌀에 보리쌀에 섞어서 반죽해서 막 '달룹게' 반죽하지. 반죽해서 이젠 손으로 '껑껑' 눌러서 썰어서 장국 끓이는데 들이뜨려서 기름도 넣고 해서 한 사발 권하면, 사발에 두 개 권하면 하나만 먹을까 봐? 두 사발 다 먹어.) 33 [인성]

담밧: 마소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려고 담을 쌓은 밭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ᄆᆞᆯ 헐라면 여기는 담밧이 아니니까.(말 하려면 여기는 '담밧'이 아니니까.) 09

[고산]

담베쿨: 김의 일종이다. 예전에 보리밭에 많이 났던 김의 한 종류이다. // 담베쿨 이젠 엇어. 헤도 옛날 담베쿨 많이 나낫어.('담베쿨' 이젠 없어. 해도 옛날 '담베쿨' 많이 났었어.) 29 [외도]

담어염: 밭 등의 울타리를 쌓아놓은 담이 있는 가장자리라는 의미이다. // 꿩마농 캐곡 그 미나리 캐레이 어디 담어염에 어디 논어염에이 경헌디 ᄉᆞᆼ키 그 어려운 때난 경게, 그거 주 삼아 경 허여난.(달래 캐고 그 미나리 캐러 어디 '담어염'에 어디 '논어염'에 그런데 푸성귀 그 어려운 때니까 그렇게, 그거 주 삼아 그렇게 했었어.) 29 [외도]

담질: 담을 뛰어넘는 짓을 말한다. // 지달은 이 담질 잘허는 놈.('지달'은 이 '담질' 잘하는 놈.) 14 [성읍]

답: 큰 돌들을 좀 너르고 둥그렇게 탑처럼 높이 쌓아올린 담을 말한다. // 헤벤이는 ᄒᆞᆫ 두어 참썩 올라왕 그거 글겡이로 걷엉 답을 짓엉 지게 지엉 가야돼.(해변에는 한 두어 참씩 올라와서 그거 호미로 걷어서 '답'을 지어서 지게 지어서 가야돼.) 03 [송당]

답대동산: 한경면 청수리 지명으로 서쪽의 위치를 말한다. // 동쪽으로 사농동산이 잇고, 서쪽으로 답대동산이 잇고, 북쪽으로 널판동산이 있고.(동쪽으로 '사농동산'이 있고, 서쪽으로 '답대동산'이 있고, 북쪽으로 '널판동산'이 있고.) 19 [청수]

답밧: '답'이 세워 있는 밭 이름이다. 여기에서 '답'은 돌로 탑처럼 높이 쌓아 올린 물건이다. 사악한 기운이 있는 쪽에 세워 나쁜 기운을 막는다고 한다. 가운데에 솟대를 세우기도 하였다. 달리 '거욱대'라고 하였다. // 답밧이라고 헤 가지고 또 그 베메다는 딘 돌 모아 가지고.('답밧'이라고 해 가지고 또 그 배 매다는 덴 돌 모아 가지고.) 29 [외도]

답지다: 먹은 것이 잘 삭지 않아 가슴속이 깐깐하게 괴로워 못 견디다는 의미이다. // ᄂᆞ물 안 뜯어놩 그냥 죽 쒀근에 먹으면은 답져.(나물 안 뜯어놔서 그냥 죽 쒀서 먹으면 '답져'.) 25 // ᄑᆞᆺ죽도 맛 좋주만은 ᄑᆞᆺ죽은 ᄒᆞ쏠 답지고.(팥죽도 맛 좋지만 팥죽은 조금 '답지고'.) 31 // 좁쏠엿은 먹으민 답지곡, 또 저 찹쏠엿은 허민 답지질 안 헤마씨.(좁쌀엿은 먹으면 '답지고', 또 저 찹쌀엿은 하면 '답지질' 안 해요.) 34 // ᄒᆞᆫ 사발을 먹어도 답지질 안 허영, 좁쏠엿은 먹으민양 막 답집니다.(한 사발을 먹어도 '답지지'를 안해서, 좁쌀엿은 먹으면요 마구 '답집니다'.) 34 [구억, 태흥, 토평]

답패: 상여에 매는 줄을 뜻하는데, 상여의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매는 줄이다. 지역에 따라 '박다우줄'이라고 한다. // 그 대 답패옌 ᄒᆞᆫ 거 메영 가난 저 광목으로 천으로 메고.(그 대 '답패'라고 한 거 매어서 가니까 저 광목으로 천으로 매고.) 15 [수망]

닷뒈들이: 떡을 할 때 두 말들이의 쌀이 들어가는 크기의 시루를 말한다. // 조그만헌 식게

때는 닷뒈들이에 쳥 허영 먹을 수도 잇고.(조그마한 제사 때는 '닷뒈들이'에 쪄서 해서 먹을 수도 있고.) 01 [도련]

닷뒈떼기: 떡을 할 때 두 되들이의 쌀이 들어가는 크기의 시루를 말한다. // ᄒᆞᆫ말들이, 두 말들이, 가웃들이, 닷뒈떼기도 잇고. ᄒᆞᆫ뒈들이도 잇고. 다 잇어.('ᄒᆞᆫ말들이', '두말들이', '가웃들이', '닷뒈떼기'도 있고. 'ᄒᆞᆫ뒈들이'도 있고. 다 있어.) 01 [도련]

닷뒈테기: 두 되 들어가는 크기의 솥이다. // 그것도 닷뒈테기 하나 경 ᄒᆞ연 두 개 션 주난에 그것에만 밥헹 먹으멍 ᄒᆞ여근에 오레비영 살젠 ᄒᆞ난에 아명 좋은 신랑도 좋덴 ᄒᆞᆯ 리가 엇주.(그것도 '닷뒈테기' 하나 그렇게 해서 두 개 있어 주니까 그것에만 밥해서 먹으면서 해서 오라버니랑 살려고 하니까, 아무리 좋은 신랑도 좋다고 할 리가 없지.) 08 [동광]

닷배: 테왁을 고정하기 위해서 닻의 역할을 하는 돌을 묶기 위해 사용하는 바를 말한다. // 먼 바당에 가민 숨비엉 나왕 보민 테왁이 끗어 가부는 거라. 게민 그걸 닷배라고 이 배 메어근에 돌에 강 딱 물아래 강 무꺼뒁 물질헤여.(먼 바다에 가면 '숨비엉' 나와 보면 '테왁'이 끌어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걸 '닷배'라고 배 매어서 돌에 가서 딱 물아래 가서 묶어두고 물질해.) 25 [태흥]

닷새미녕: 새는 피륙의 날을 세는 단위로, '닷새미녕'은 올이 가장 굵은 무명을 말한다. // 저 그거 닷새미녕은 막 얼덜덜 이만이 막 홁고 ᄋᆞᆺ새는 보통.(저 그거 '닷새미녕'은 아주 '얼덜덜' 이만큼 아주 굵고 엿새는 보통.) 06 // 닷새미녕, 엿새미녕이엔 헌 거는 너비를 말허는 거. 너비 엿새미녕도 잇고 닷새미녕도 잇고.('닷새미녕', '엿새미녕'이라고 하는 거는 너비를 말하는 거. 너비 '엿새미녕'도 있고 '닷새미녕'도 있고.) 20 // 엿새미녕 닷새미녕 헌 건, 일곱새미녕, 거 막 ᄌᆞᆷ진 건 일곱새, ᄋᆞᆺ새. 닷샌 막 홁은 거.('엿새미녕' '닷새미녕' 하는 건, '일곱새미녕', 거 아주 자잘한 건 '일곱새', 엿새. '닷새'는 아주 굵은 거.) 31 [고내, 남원, 토평]

당: 신이 거처하는 장소 또는 당신에게 제차를 드리는 장소를 말한다. 제주도에서 당은 본향당(本鄕堂)과 '일뤳당', 'ᄋᆞ드렛당', '개당'이 있다. // 나도 ᄒᆞᆫ 번 당에 가와신디 ᄒᆞᆫ 밧듸 세 개썩 아옵 개 올리고, 메도 그자.(나도 한 번 '당'에 갔다왔는데 한 군데 세 개씩 아홉 개 올리고, 메도 그저.) 08 // 당에 게메 그건 ᄆᆞ믈이나 곤ᄉᆞᆯ이나 헤영은에.('당'에 글쎄 그건 메밀이나 흰쌀이나 해서.) 16 // 사람이 불 지던 그 당을 테와 버리두고 이제 갓는디 집에 가자마자 거 줴야 받앗는지 어땟는지 막.(사람이 불 지펴서 그 '당'을 태워 버려두고 이제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그거 죄야 받았는지 어땠는지 막.) 24 [동광, 보목, 세화, 하원]

당고ᄉᆞ: 신당에서 드리는 제의를 말한다. // 현재 그 당고ᄉᆞ나. 옛날에는 그 무속인들이 그냥 그거 ᄎᆞᆷ 굿허고 헤여낫지만 것도 아니고 그다음은 고ᄉᆞ허다가 치와 부리고.(현재 그 '당고ᄉᆞ'나. 옛날에는 그 무속인들이 그냥 그거 참 굿하고 했었지만 것도 아니고 그다음은 고사하다가 치워 버리고.) 29 [외도]

당그네: 곡식을 그러모으거나 펴는 도구인 고무래이다. 손잡이가 길고 끝에 톱니가 있다.

‘날레’라고도 한다. // 당그네, 불그네, 날레엔 ᄒᆞᆫ 건 보리나 조나 아무거라도 곡석 헤드리는 건 멍석에 너는 것 ᄀᆞ라 날레.(‘당그네’, ‘불그네’, ‘날레’라고 한 건 보리나 조나 아무것이라도 곡식 해드리는 건 멍석에 너는 것보고 ‘날레’.) 07 [보목]

당다데: 당에 갈 때 제물로 바치는 동글납작한 떡이다. 달리 ‘다데’, ‘다데떡’이라고 한다. // 당에 가는 건 당다데엔 헌 건, 영 허는 딘, 그거는 동골락 떡 기자 멘들앙, 영, 영 동골락허게 멘들앙 그자, 그 뭐, 당도 다 ᄆᆞ을마다 틀립데다.(‘당’에 가는 건 ‘당다데’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덴, 그거는 동그란 떡 그저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저, 그 뭐, ‘당’도 다 마을마다 다릅디다.) 36 [봉성]

당동산: 애월읍 구엄리에 위치한 지명이다. // 게난 산에 강 그 꼿 헤다 놔, 물들이젠 허믄 물 ᄉᆞᆲ아, ᄉᆞᆲ앙 이제 허는 사름 저 당동산이 할망 빌어다 놔, 허는 건 우리 봐낫수다게.(그러니까 산에 가서 그 꽃 해다 놔서, 물들이려고 하면 물 삶아, 삶아서 이제 하는 사람 저 ‘당동산’에 할머니 빌어다 놔서, 하는 건 우리 봤었습니다.) 28 [구엄]

당드르: 대정읍 구억리에 있는 지경이다. // 거기 쬐끔 올라가민 당드르옌 ᄒᆞᆫ 디 잇어. 당드르.(거기 조금 올라가면 ‘당드르’라고 하는 데 있어. ‘당드르’.) 34 [구억]

당떡: 당에 갈 때 만들어 가서 제물로 올리는 떡을 말한다. // 돌레떡인데 당에 가니까 당떡이엔 허는 거주, 돌레떡.(도래떡인데 ‘당’에 가니까 ‘당떡’이라고 하는 거지, 도래떡.) 12 // 당에 갈 거니까 당떡이엔 허주, 동글랑헌 그 두껍게 헤 가지고서.(‘당’에 갈 거니까 ‘당떡’이라고 하지, 동그란 그 두껍게 해 가지고서.) 12 [한동]

당머세: 당에 가는 길에 돌과 잡목이 우거진 곳을 말한다. // 당머센 그 주위에 그, 그 주위에 지경 이름을 당머세렌 허주. 당이 잇는 디 당머세.(‘당머세’는 그 주위에 그, 그 주위에 지경 이름을 ‘당머세’라고 하지. 당이 있는 데 ‘당머세’.) 12 [한동]

당물: 한경면 신창리의 지명이다. // 목장이 어디 시니? 담 동글랑동글락헌 밧덜 벌어 먹을 거베낀 엇인디. 저 당물러레 강 올린다. 그렌 곶자왈러레.(목장이 어디 있니? 담 동글동글한 밭들 먹을 거밖에 없는데. 저 ‘당물’로 가서 올린다. 그런 ‘곶자왈’로.) 26 [신창]

당ᄆᆞ르: 한경면 저지리의 옛지명이다. ‘당ᄆᆞ를, 닥ᄆᆞ르, 닥ᄆᆞ를, 닥ᄆᆞᆯ’라고도 한다. // 이 청수, 당ᄆᆞ르레 그때 다 이제 상명 그쪽더레 다 불부떳수다.(이 ‘청수’, ‘당ᄆᆞ르’로 그때 다 이제 ‘상명’ 그쪽으로 다 불붙었습니다.) 08 [동광]

당ᄆᆞᆯ: 한경면 저지리의 옛지명이다. ‘당ᄆᆞ를’, ‘닥ᄆᆞ르’, ‘닥ᄆᆞ를’, ‘닥ᄆᆞᆯ’, ‘당ᄆᆞ르’라고도 한다. // 그 당ᄆᆞᆯ, 당ᄆᆞᆯ이엔 헌디, 저지.(그 ‘당ᄆᆞᆯ’, ‘당ᄆᆞᆯ’이라고 한데, ‘저지’.) 10 // 저 청수, 당ᄆᆞᆯ은 숫 구웡 살앗어.(저 ‘청수’, ‘당ᄆᆞᆯ’은 숯 구워서 살았어.) 18 [신도, 월령]

당ᄆᆞᆯ오름: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오름이다. // 저 당ᄆᆞᆯ, 당ᄆᆞᆯ오름이 크주게, 당산이 커.(저

‘당ᄆᆞᆯ’, ‘당ᄆᆞᆯ오름’이 크지, ‘당산’이 커.) 10 [월령]

당베추: 재래종에 대하여 개량한 결구배추를 이르는 말이다. 속은 앉지 않아도 하얗고 부드러워서 김치를 담가 먹었다. // 옛날은 이제는 중간에야 하꼬산이여 뭐 당베추여 뭐 나왓지마는 옛날은 들머귀벳긔 없엇어.(옛날은 이제는 중간에야 ‘하꼬산’이다 뭐 ‘당베추’다 뭐 나왔지만 옛날은 ‘들머귀’밖에 없었어.) 01 // 베춧입, 옛날 어른덜은 그런 말 헤서, 당베추라고 베춧입보고.(배춧잎,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 했어, ‘당베추’라고 배춧잎보고.) 24 // 저 당베추엔 헌 거이 속은 영 요 색 베추ᄀᆞ추룩 웅크려지진 안헤여. 웅크려지진 안헤도 요영 헤지멍 부드러와.(저 ‘당베추’라고 한 거 속은 이렇게 요 색 배추처럼 웅크려지지는 않아. 웅크려지지는 않아도 요렇게 해지면서 부드러워.) 25 // 짐치ᄂᆞᄆᆞᆯ을 허영 당베추 갈앗당 이제 거기서 이 베추를 자기, 자기대로.(‘짐치ᄂᆞᄆᆞᆯ’을 해서 ‘당베추’ 갈았다가 이제 거기서 이 배추를 자기, 자기대로.) 29 [도련, 세화, 외도, 태흥]

당베치: 배추의 일종이다. 토종 배추에서 조금 개량된 배추다. 속은 앉지 않아도 하얗고 부드러워서 김치를 담가 먹었다. // 게난 옛날 ᄂᆞᄆᆞᆯ 중에 제일 좋은 ᄂᆞᄆᆞᆯ이 당베치주게, 당베치.(그러니까 옛날 나물 중에 제일 좋은 나물이 ‘당베치’지, ‘당베치’.) 08 // 당베치, 당베치 씨는 그거 집잇어 받아. ᄂᆞᄆᆞᆯ ᄒᆞ면은 멧 개는 씨 ᄒᆞ젠 먹지 아니영 그건 살령 놔둬.(‘당베치’, ‘당베치’ 씨는 그 집에서 받아. 나물 하면은 몇 개는 씨 하려고 먹지 아니해서 몇 포기 살려서 놔둬.) 08 [동광]

당산봉: 한경면 고산리에 북서쪽 바닷가와 용수리와 경계에 걸쳐진 148미터의 오름으로 ‘당오름’, ‘차귀악’이라고도 불린다. // 그렇게 뒛고 그 당시 우리 마을 경계는 고산 현재 당산봉.(그렇게 됐고 그 당시 우리 마을 경계는 ‘고산’ 현재 ‘당산봉’.) 18 // 고산 당산봉 아래 가민 맞아. 차귀 가민 잇주만은 이젠 보난 그디 뭐 무싱 거 헤부난 ᄀᆞ딱 들어가지도 못허커라고 물 맞이레 뎅겨난디, 우리 옛날 물 맞이레 뎅겨난디. 고산도 참.(‘고산’ ‘당산봉’ 아래 가면 맞아. ‘차귀’ 가면 있지만, 이젠 보니까 거기 뭐 무슨 거 해 버리니까 까딱 들어가지도 못하겠다고 물 맞으러 다녔었는데, 우리 옛날 물 맞으러 다녔어. ‘고산’ 도 참.) 19 [고산, 신도, 청수]

당여: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여’의 이름이다. // 경ᄒᆞ니까 이렇게 봥 아 무슨 여, 무슨 여 ᄒᆞ믄 그 온여 뭐 당여.(그러니까 이렇게 봐서 아 무슨 ‘여’, 무슨 ‘여’ 하면 그 ‘온여’ 뭐 ‘당여’.) 28 [구엄]

당오름: 당산봉이라고도 불리는 오름으로 한경면 고산리에 위치한다. // 저거는 고산선 당오름이라 ᄒᆞ주게.(저거는 ‘고산’에서는 ‘당오름’이라 하지.) 09 // 당오름에 대해서는 뭐 별다르게 헤 놓은 거 엇어.(‘당오름’에 대해서는 뭐 별다르게 해 놓은 거 없어.) 09 [고산]

당오름: 안덕면 동광리 68-1에 위치한 오름을 말한다. // 저디 가면 당오름 잇곡.(저기 가면 ‘당오름’ 있고.) 08 // 당오름 가젠 허민 언마나 힘듭니까게. 거, 그 장 영장

메여근에 그 저 어느ᄁᆡ장 가민 ᄋᆞ라 번 ᄀᆞᆯ아마씸.(‘당오름’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거, 그 장 영장 매어서 그 저 어디까지 가면 여러 번 갈아요.) 32 [덕수, 동광]

당올레: 당으로 들어가는 좁은 골목길을 말한다. // 머세는 당머세, 당올레 그렇게 헤낫지. 당머세, 가는 디는 당올레 그 길을.(‘머세’는 ‘당머세’, ‘당올레’ 그렇게 했었지. ‘당머세’, 가는 데는 ‘당올레’ 그 길을.) 12 [한동]

당원: 단맛을 내는 데 쓰는 재료를 통틀어 이르는 감미료를 이르는 말이다. // 물김친게 그 무수 싸랑. 거 나풀나풀 싸랑 게. 엿날에 소곰 ᄒᆞ당. 저 당원인가.(물김친 그 무 썰어서. 거 나풀나풀 썰어서. 옛날에 소금 하다가. 저 ‘당원’인가.) 04 // 설탕 그땐 설탕 엇이난 당원 ᄀᆞ뜬 거 ᄉᆞᆯ 놔근에 것도 간식으로 점심으로 먹어낫주. 일허는 디도.(설탕 그땐 설탕 없으니까 ‘당원’ 같은 거 살짝 놔서 그것도 간식으로 점심으로 먹었었지. 일하는 데도.) 13 // 저 거시기, 뭐여만은 당원 아니고 거 뭐엔 ᄀᆞᆫ나만은 저 설탕 아니고 ᄃᆞᆫ 거 잇나게.(저 거시기, 뭐지만 ‘당원’ 아니고 거 뭐라고 말하지만 저 설탕 아니고 단 게 있어.) 31 // 사까린 그다음 당원, 경허연 그거 놩 ᄃᆞᆯ민 그걸 ᄉᆞ뭇 별미로 알앙 ᄉᆞ못 먹엇수다.(사카린 그다음 ‘당원’, 그렇게 해서 그거 넣어서 달면 그걸 사뭇 별미로 알아서 사뭇 먹었습니다.) 34 [고성, 구억, 삼달, 토평, 하원]

당일바리: 바다에서 그날 잡은 생선을 말한다. // 그거 그 당일바리엔 헌 거 그날 강 잡아온 거게. 파닥파닥헌 거.(그거 그 ‘당일바리’라고 하는 거 그날 가서 잡아온 거. 파닥파닥한 거.) 06 [남원]

당조: 조부모를 말한다. // 당조, 징조, 고조ᄁᆡ진 헤얄 건디 나이가 들언 못허니까 이젠 지젤 헤분 거라.(‘당조’, 증조, 고조까진 해야 할 건데 나이가 들어서 못하니까 이젠 ‘지제’를 해버린 거야.) 11 [함덕]

당케: 안덕면 대평리 포구 일대를 일컫는다. // 걸로 가근에 네 젓으멍 가곡, 네 젓으멍 오곡, 경 ᄒᆞ영 풍선, 초석 두 개, 세 개 ᄃᆞᆯ려근에 네 젓으멍 바당에 가곡, 먼 디 갈 때는 초석으로 가곡, 경 ᄒᆞ영 궤기 나깡 올 때도 기추룩 ᄒᆞ영 오곡, 당케레 들어오랑, 경 햇주게, 보재기덜은.(걸로 가서 노 저으면서 가고, 노 저으면서 오고, 그렇게 해서 돛단배, 돛 두 개, 세 개 달려서 노 저으면서 바다에 가고, 먼 데 갈 때는 돛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고기 낚아서 올 때도 그처럼 해서 오고, ‘당케’로 들어와서, 그렇게 했지, 어부들은.) 17 // 우리 동네는 그 산물 톡톡 나오는 디가 잇언 물질엉 먹엇주. 저 당케, 부두레 가는 디 당케 물이 잇어수다.(우리 동네는 그 용천수 톡톡 나오는 데가 있어서 물길어서 먹었지. 저 ‘당케’ 부두로 가는 데 ‘당케’ 물이 있었습니다.) 17 [대평]

당케: 표선면 표선리의 포구의 하나이다. // 소곰이 비싸니까 쪼꼼 절여근에 놔뒀당 그걸 이제 지여근에 이 당케 그디 물 좋난에 그디 강 다 싯엉.(소금이 비싸니까 조금 절여서 놔뒀다가 그걸 이제 져서 이 ‘당케’에 거기 물 좋으니까 거기 가서 다 씻

어서.) 05 // 팔월에 비는디, 팔월에 비면은 새가 파랑, 새파랑허주. 그거 당케에 실렁 가는 것도 조합에 가입 아년 사름은 운반을 못허여. 또 겨울틀미는 황모로 뭘 짜냐 허민 뜸.(팔월에 베는데, 팔월에 베면은 띠가 파랑, 새파랗지. 그거 '당케'에 실어서 가는 것도 조합에 가입 않은 사람은 운반을 못해. 또 겨울 들면 '황모'로 뭘 짜냐 하면 뜸.) 14 // 짐새. 그 김 헐 때 발 짜는 새. 그거를 표선이 당케를 실러 가는디.('짐새'. 그 김 할 때 발 짜는 띠. 그거를 표선리 '당케'를 실어서 가는데.) 14 [성읍, 표선]

당쿨: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지명이다. // 입도 선묘는 이제 당쿨이옌 ᄒᆞᆫ 디 잇수다게, 당쿨.(입도 선묘는 이제 '당쿨'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당쿨'.) 17 [대평]

당투둑: 표선면 표선리 지명의 하나이다. 표선민속촌이 있는 그 지명 이름이다. // 민속촌 짓은 디가 이름이 당투둑이라. 그 당투둑은이 마을 땅인지 면 땅인지 뭐 군 땅인진 몰라도.(민속촌 지은 데가 이름이 '당투둑'이야. 그 '당투둑'은 마을 땅인지 면 땅인지 뭐 군 땅인지는 몰라도.) 05 [표선]

당하르방: 당의 신으로, 남자 신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 뒈지 돗, 뒈지 돗당이라 허는데. 이 그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그 당하르방허고 당할망이 부부가 이제 신 살앗는데, ᄒᆞᆫ 번은 하르방이 어디 갓다완 보니까 할망이, 할망으로 뒈지고기 냄새가 많이 낫던 모냥이라.(돼지 '돗', 돼지 '돗당'이라 하는데. 이 그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 '당하르방'하고 '당할망'이 부부가 이제 신 살았는데, 한 번은 '하르방'이 어디 다녀와서 보니까 '할망'이, '할망'으로 돼지고기 냄새가 많이 났던 모양이야.) 29 [외도]

당할망: 당의 신으로, 여자 신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 뒈지 돗, 뒈지 돗당이라 허는데. 이 그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그 당하르방허고 당할망이 부부가 이제 신 살앗는데, ᄒᆞᆫ 번은 하르방이 어디 갓다완 보니까 할망이, 할망으로 뒈지고기 냄새가 많이 낫던 모냥이라.(돼지 '돗', 돼지 '돗당'이라 하는데. 이 그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 '당하르방'하고 '당할망'이 부부가 이제 신 살았는데, 한 번은 '하르방'이 어디 다녀와서 보니까 '할망'이, '할망'으로 돼지고기 냄새가 많이 났던 모양이야.) 29 [외도]

당할망비: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본향당비이다. // 모감물 잇고 원물이 이신디, 저 원물ᄒᆞ고 모감물 중심으로 옛날덜은 사름 사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이 물 아니우꽈? 그 물따라 ᄎᆞᄎᆞ 살아 온 것이 요 베릿골이렌 ᄒᆞᆫ 동네가 잇고 거기 또 당할망비가 잇수다.('모감물' 있고 '원물'이 있는데, 저 '원물'하고 '모감물' 중심으로 옛날들은 사람 사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그 물따라 차차 살아 온 것이 요 '베릿골'이라고 한 동네가 있고 거기 또 '당할망비'가 있습니다.) 28 [구엄]

대거름체: 쳇불의 구멍 크기가 대체보다는 작고 '거름체'보다는 큰 체를 말한다. 보통 체의 구멍 크기에 따라 '대체-대거름체-거름체-총체' 등으로 부른다. // 대거름첸 아주 흙은 거. 보리쌀을 영 벌르면 이제 대체로 쳐놩 그 다음 대거름체 치곡.('대거

름첸' 아주 굵은 거. 보리쌀을 이렇게 쪼개면 이제 '대체'로 쳐놔서 그 다음 '대거름체' 치고.) 21 // 대체로 걸르곡 대거름체로 허곡 ᄀᆞ는체로 치곡.('대체'로 거르고 '대거름체'로 하고 가는체로 치고.) 23 // 저, 거름체로, 거름체, 대거름체, 대체 체도 ᄋᆞ라 가지주. 게난 대거름체로 치영 ᄌᆞ베기 허영 먹주.(저, '거름체'로, '거름체', '대거름체', '대체' 체도 여러 가지지. 그러니까 '대거름체'로 쳐서 수제비 해서 먹지.) 26 // 이거는 대거름첸디 이 아래 거름체가 망가졍 데껴불언. 빠져 불언.(이거는 '대거름체'인데 이 아래 '거름체'가 망가져서 던져 버렸어. 빠져 버렸어.) 30 [노형, 대평, 도련, 신창, 신촌, 온평]

대구덕: 대로 만든 바구니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대로 만든 아기 요람을 말한다. // 대구덕 이서낫주. 수랑한 거.('대구덕' 있었지. 길이가 조금 긴 거.) 03 // 그 애기 질롸난이 옛날은 대구덕이지.(그 아기 길렀던 옛날은 '대구덕'이지.) 11 [송당, 함덕]

대구젱이: 밭벼 이삭을 훑으려면 밭볏짚의 꼭지 부분을 손으로 집어 그네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대'는 줄기를 말하고 '구젱이'는 제주어 '고지' 또는 '고젱이'인 '꼬챙이'를 말한다. // 보리클로 홀탕, 대구젱이도 ᄌᆞᆸ앙 영 홀타동, 보리클로 영 홀타근에.(그네로 훑어, '대구젱이'도 집어서 이렇게 훑고는, 그네로 이렇게 훑어서.) 15 [수망]

대국조: 조의 일종이다. '대국'은 제주에서 '중국(中國)'을 일컬을 때 사용한다. 중국에서 들어온 조의 일종이 아닌가 한다. // 옛날 대국조엔 허연 흐린조.(옛날 '대국조'라고 해서 차조.) 14 [성읍]

대기다: 으깨어서 물크러지게 하거나 풀과 같이 묽은 물건을 무엇에 칠한다는 뜻이다. // 육지 사ᄅᆞᆷ들은 저추룩 가마솟듸 엿날 보리밥허민 식식식식허멍 막 밥 남죽으로 젓어. 보리밥이라도. 막 영 헤영 대겨.(육지 사람들은 저렇게 가마솥에 옛날 보리밥하면 '식식식식'하면서 막 밥 죽젓개로 저어. 보리밥이라도. 막 이렇게 해서 '대겨'.) 25 // 아무것도 안 놔근에 그냥 솖아근에 그자 그대로 그자 그 저 사꼬로 그레 데겨근엥에. 그디 ᄊᆞᆯ 놔근엥에.(아무것도 안 넣어서 그냥 삶아서 그저 그대로 그저 그 저 국자로 거기에 '데겨서'. 거기 쌀 넣어서.) 32 [덕수, 태흥]

대띠: 사람이 태어난 해를 열두 지지를 상징하는 동물들을 가지고 사주를 보는 것이다. // 대띠는 둘리 ᄉᆞ주가 맞느냐, 안 맞느냐, 팔자 ᄉᆞ주, 둘리가.('대띠'는 둘이 사주가 맞느냐, 안 맞느냐, 팔자 사주, 둘이가.) 17 [대평]

대록봉: 표선면 성읍리와 가시리 경계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 대록봉 동쪽으로 잣담 둘러 잇는 게 그 성읍리허고 가시리허고 경계선이라.('대록봉' 동쪽으로 '잣담' 둘러 있는 게 그 '성읍리'하고 '가시리'하고 경계선이야.) 14 [성읍]

대롱제완지: 식물 바랭이의 일종이다. // 대롱제완지는 이파리가 ᄒᆞ꼼 ᄌᆞᆯ, 저 작으면서 이파리가 쪼꼼 넓주.('대롱제완지'는 이파리가 조금 잘, 저 작으면서 이파리가 조금 넓지.) 14 [성읍]

대목: 가장 중요한 시기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로'의 의미로 쓰였다. // 겐 이디

오란 그때는 뭐 이불 하나, 요 하나. 여기서도 대목 헹 가낫주만은 난 이불 포따리가 두 개 쌍 가서.(그래서 여기 와서 그때는 뭐 이불 하나, 요 하나. 여기서도 '대목' 해서 갔었지만 난 이불 보따리가 두 개 싸서 갔어.) 20 // 보콜 제환지. 이런 무신 저 뭐 무신. 그디도 ᄋᆞ라 가지 나긴 허는 디 대목 나는 거는 보콜, 제환지.(깨풀 바랭이. 이런 무슨 저 뭐 무슨. 거기도 여러 가지 나긴 하는데 '대목' 나는 거는 깨풀, 바랭이.) 20 // 빙떡은 제사 때, 대목 헷주. 제사 때.(빙떡은 제사 때, '대목' 했지. 제사 때.) 30 [고내, 노형]

대목: 애월읍 수산리, 옛날 수산봉 옆의 도로명이다. // 우리 ᄆᆞᄉᆞ왕, 게믄 이딘 안 들어오곡 헹, 똑 길로 대목, 이제 대목 ᄀᆞ튼 질로 기 들렁양, 와샤 와샤.(우리 무서워서, 그러면 여기는 안 들어오고 해서, 똑 길로 '대목', 이제 '대목' 같은 길로 거기 들러서요, '와샤' '와샤'.) 28 [구엄]

대문: 대청 정면에 단 문을 말한다. 표준어 '마루문'에 해당하는 문이다. // 문전은 거 저 뭐인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대문, 대문 집 안ᄀᆞ라 문전이엔 허는데이.(문전은 거 저 뭐인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대문', '대문' 집 안보고 문전이라고 하는데.) 12 // 거 시방 옛날 대문 강 봐. 반득헌 디가 없어.(거 시방 옛날 '대문' 가서 봐. 반듯한 데가 없어.) 14 // 그 돈을 가젼 완예, 무뚱에 완 대문 ᄋᆞᆯ안에 이 마리더레 착 데끼멍 웨 이제 이 거 나한테 허는 말이지.(그 돈을 가져서 와서요, '무뚱'에 와서 '대문' 열어서 이 마루로 착 던지면서 왜 이제 이 거 나한테 하는 말이지.) 23 // 대문은 낭으로 헤영 영 더끄는 거.('대문'은 나무로 해서 이렇게 덮는 거.) 26 [남원, 성읍, 신창, 온평, 인성, 한동]

대문골: 대문, 즉 마루문을 달 수 있게 만든 문틀이다. // 문, 건 대문골[대문꼴]이엔 허여. 대문골.(문, 건 '대문골'이라고 해. '대문골'.) 14 [성읍]

대물동네: 구좌읍 송당리의 마을 이름이다. // ᄋᆞᆯ로 또 가면은 대물동네라고 또 별도로 또 이서.(이리로 또 가면 '대물동네'라는 또 별도로 또 있어.) 03 [송당]

대바드렝이: 대오리로 가로 세로 엮어서 만든 물건을 말한다. 자리젓을 누르는 용도로 쓴다. // 항아리레 영 이렇게 똑똑 허여서 이젠 또 이젠 영 똑똑 놔가지고 이젠 그레 푹허게시리 저 뭐인가, 저 누리떠. 누리뜨는 거엔 헌 건 대바드렝이.(항아리에 이렇게 이렇게 똑똑 해서 이젠 또 이젠 이렇게 똑똑 놔가지고 이젠 그리로 푹하게끔 저 뭐인가, 저 눌러. 누르는 거라고 한 건 '대바드렝이'.) 01 // 대바드렝이 영 헤연 만들어가지고 딱 눌렁 우의 돌 지둘롸. 경 허영 허곡. 경 허영 이젠 벌레 궤지 말게, 이제 벌레, 옛날 파리도 만헤낫서이.('대바드렝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딱 눌러서 위에 돌 지질러. 그렇게 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젠 벌레 괴지 말게, 이제 벌레, 옛날 파리도 많았었어.) 01 [도련]

대바지: 모양이 둥그스름하여서 가운데 배는 불룩하고 위아래는 줄어들고,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게 된, 물을 길어 나르는 작은 동이다. 또는 간장이나 술 따위를 담아둘 때 사용하기도 한다. 달리 '대배기', '대베기'라고 한다. // 영 헌 어디 고팡 닮은

디 앚져근엥에 나무 다끄는 거라. 고소리거찌 나와. 그 나오는 디 저 대바지.(이렇게 한 어디 고방 같은 데 앉혀서 나무 고는 거야. 소줏고리같이 나와. 그 나오는 데 저 '대바지'.) 01 // 우리도 그 당시는 나도 어릴 때주마는 촘 요 손지만도 족을 때 대바지 요만이 흔 거, 병보다 쪼곰 큰 거, 경헤근에 영 헹 저근에, 어멍아방네 밧디 가불민 물 저오라 ᄒᆞ민 그거 가근에 물 져다근에 나두곡 ᄒᆞ여 나서.(우리도 그 당시는 나도 어릴 때지만 참 요 손지만큼 작을 때 '대바지' 요만큼 한 거, 병보다 쪼끔 큰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져서, 어머니 아버지네 밭에 가버리면 물 져 와라 하면 그거 가서는 물 져다가 놔두고 했었어.) 07 // 허벅으로 져. 물대바지 대바지엔 헌 것도 져나고, 허벅으로. 우리 외도 나 온지 후제도 이디 고망물엔 헌 디 셔, 외도.('허벅'으로 길어. '물대바지' '대바지'라고 한 것도 길었었고, '허벅'으로. 우리 '외도' 나 온 후에도 여기 '고망물'이라고 한데 있어, '외도'.) 29 // 족은 건, 족은 건 대바지고 큰 거는 허벅이고.(작은 건, 작은 건 '대바지'고 큰 거는 '허벅'이고.) 36 [남원, 노형, 대평, 도련, 보목, 봉성, 외도, 인성, 토평, 표선, 함덕]

대베기: 모양이 둥그스름하여서 가운데 배는 불룩하고 위아래는 졸아지되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게 된, 물을 길어 나르는 작은 동이이다. '대바지'라고도 한다. // 일 ᄒᆞ당 보민, 물 질엉 가당 물구덕 부려뒁 ᄒᆞ곡, 대베기 졍 가당 물구덕 질레에 부려뒁 내불어뒁 펭이치기 ᄒᆞ곡, 방칠락 ᄒᆞ곡 해수게.(일 하다가 보면, 물 길어서 가다가 '물구덕' 부려둬서 하고, '대베기' 져서 가다가 '물구덕' 길에 부려둬서 내버려둬서 팽이치기 하고, 사방치기 하고 했습니다.) 17 // 흔 일곱 설 ᄋᆞ덥 설은 다 대베기로 물 날랏주게.(한 일곱 살 여덟 살은 다 '대베기'로 물 날랐지.) 26 // 저 산 소곱이서 나오는 물 괄괄괄 허민 샘물 벵디레 ᄎᆞ록 물이 흔번에 막 하영 왕, 사름 막 몸 곰곡 그디 가믄 지성귀덜 뺄곡 대베기 물 질어놩 지성귄 둑지에 놓곡, 경 헹은에 헤낫수다마는.(저 산속에서 나오는 물 괄괄괄 하면 샘물 '벵디'로 거리 물이 한꺼번에 아주 많이 왔어. 사람 마구 목욕하고 거기 가면 기저귀들 빨고 '대베기' 물 길어놔서 기저귀는 죽지에 놓고,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만.) 28 // 어린아이덜 졍 뎅길 거 대베기엔 헹은에 구덕도 뚜로 십니다.(어린아이들 져서 다닐 거 '대베기'라고 해서 바구니도 따로 있습니다.) 35 [고내, 구엄, 대림, 대평, 신창, 인성]

대비: '일본식 버선'인 일본어 'たび'에서 온 말로 '양말'을 말한다. // 경허고 미녕으로, 미녕실로 헤근에 저 대비엔 헤근에이 대비 영 짜근에 신고.(그리고 무명으로, 무명실로 해서 저 '대비'라고 해서 '대비' 이렇게 짜서 신고.) 31 [토평]

대섬: 조천읍 신촌리와 조천리 경계 있는 섬을 말한다. // 대섬이 거기 가민 노는 사람덜허곡, 고기 바당에서 ᄀᆞᆺ들로 강 나끄는 사람덜허고.('대섬'이 거기 가면 노는 사람들하고, 고기 바다에서 갯가로 가서 낚는 사람들하고.) 21 [신촌]

대섬땅: 한림읍 한수리에 포함된 한림항 북쪽 방파제와 이어진 큰 여를 말한다. '튼대섬'이라고도 한다. // 일부에서는 한림 그 저 그 대섬땅 거기 가서 입어를 헷수다.(일

부에서는 ‘한림’ 그 저 그 ‘대섬땅’ 거기 가서 입어를 했습니다.) 35 [대림]

대섬밧: 한림읍 한수리 부근의 지명이다. // 수원초등학교 그 저 보면은 거기서 그 저 교지라든지 뚠 거 헐 때 수원리 출생을 보면은 대림 그 저 어디고 이 저 한수리 즈 꼿디 저 대섬밧, 대섬밧이렌 헤낫수다.(수원초등학교 그 저 보면 거기서 그 저 교지라든지 다른 거 할 때 수원리 출생을 보면 대림 그 저 어디고 이 저 한수리 곁에 저 ‘대섬밧’, ‘대섬밧’이라고 했었습니다.) 35 [대림]

대섭이굴: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작은 굴 이름이다. // 게메 도틀굴은 막아젼 못 뎅기고. 그 질 에염에 것ᄀᆞ라 대섭이굴이옌 헴신가? 이제 것도 도 막앗어.(그러게 ‘도틀굴’은 막혀서 못 다니고. 그 길 옆에 그것보고 ‘대섭이굴’이라고 하는가? 이제 그것도 입구 막혔어.) 02 [선흘]

대수동: 조천읍 신촌리의 한 부락 이름이다. // 섯동, 동동도 잇고 상동도 잇고, 여기 중동에도 잇고 대수동에도 잇고.(‘섯동’, ‘동동’도 있고 ‘상동’도 있고, 여기 ‘중동’에도 있고 ‘대수동’에도 있고.) 21 [신촌]

대수림: 장의사가 시체를 손질하는 절차 중 하나로 ‘대수렴’이라고도 한다. // 죽엉 ᄆᆞᆫ딱 헤근에 그 무꺼근에 ᄆᆞᆫ딱 대수림이엔 헌 거.(죽어서 모두 해서 그 묶어서 모두 ‘대수림’이라고 한 거.) 13 [삼달]

대수산봉: 성산읍 고성에 소재한 오름이다. // 이제 그, 집집에서도 허고. 여기저기 게난 그, 그 당시에는 이거 대수산봉도.(이제 그, 집집에서도 하고. 여기저기 그러니까 그, 그 당시에는 이거 ‘대수산봉’도.) 04 [고성]

대승: 큰되라는 뜻으로 곡식을 계량하는 관되를 말한다. // 마농도 깡인에이 장 ᄌᆞᆸ앙은에 마농 깡인에 우리 메누리 시집오란 이거 멧 년 뒌디 ᄒᆞᆫ 삼십 년이 넘게 산디 이 녁냥으로 마농 까 본 적 엇다. 나가 곧장 대승 ᄒᆞᆫ 뒈, 두 뒈 깡은에 아덜 오민 가져가렌, 우리 아덜은 마농 내 난덴 차에 시끄도 못허게 헤여.(마늘도 까서 장 집어서 마늘 까서 우리 며느리 시집와서 이거 몇 년 됐는데 한 삼십 년이 넘게 살았는데 자기대로 마늘 까본 적이 없다. 내가 곧장 ‘대승’ 한 되, 두 되 까서 아들 오면 가져가라고, 우리 아들은 마늘 냄새 난다고 차에 싣지도 못하게 해.) 33 [인성]

대신: 저승에서 죽은 사람을 재판하는 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시왕’의 다른 말이다. // 그건 영 놀리는 거 이 대신 허민 그거 대신왕에 치는 떡시리엔 기자 경 ᄀᆞᆫ주.(그건 이렇게 놀리는 거 이 ‘대신’ 하면. 그거 ‘대신왕’에 찌는 떡시루라고 그저 그렇게 말하지.) 23 [온평]

대신왕: 저승에서 죽은 사람을 재판하는 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달리 ‘대신’, ‘시왕’이라고도 한다. 저승의 열 시왕을 뜻하며 시왕맞이를 뜻하기도 한다. // 대신왕 이제 ᄀᆞ트민 저싱은 대신왕. 이제 ᄀᆞ트민 대통량.(‘대신왕’ 이제 같으면 저승은 ‘대신왕’. 이제 같으면 대통령.) 21 // 그거 대신왕에 치는 떡시리엔 기자 경 ᄀᆞᆫ주.(그거 ‘대신왕’에 찌는 떡시루라고 그저 그렇게 말하지.) 23 [신촌, 온평]

대얼멩이: 대로 만든 어레미를 말한다. // 그 얼멩이 헤영, 대얼멩이 헷당 그 얼멩이로 치멍 두드려 가멍 ᄆᆞᆫ ᄇᆞ름에 불려 가멍.(그 어레미 해서, '대얼멩이' 했다가 그 어레미로 치면서 두드려 가면서 모두 바람에 불려 가면서.) 31 [토평]

대왕청: 큰굿을 할 때 큰 대를 세워서 굿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큰굿은 대신 막 노프게 세우곡 대왕청이라고 막 허지 안 헙니까게.(큰굿은 대신 막 높게 세우고 '대왕청'이라고 막 하지 안 합니까.) 14 [성읍]

대우리: 보리밭에 나는 귀리를 말한다. '대오리'로도 실현된다. // 대우리가 보리에 서터지믄 몰라. 피질 안헌 때엔.('대우리'가 보리에 섞이면 몰라. 피지 않을 때에는.) 03 // 검질은 보리밧에 보통 대우리라는 게 잇어.(김은 보리밭에 보통 '대우리'라는 게 있어.) 09 // 대우리 메는 건 뭐 ᄒᆞᆫ 이틀이면 메주만은 검질은 여러 날 메지 주게.('대우리' 매는 거는 뭐 한 이틀이면 매지만 김은 여러 날 매지.) 18 [고산, 송당, 신도]

대웅가시리: 풀가사리의 일종이다. // 대웅가시리는게 주로 우리 메여당 먹는 거고. 영 빨강헌 게 동글동글 이파리가.('대웅가시리'는 주로 우리 매다가 먹는 거고. 이렇게 빨간 게 동글동글 이파리가.) 23 [온평]

대잣: 큰 봉분을 말한다. // 지금 대잣 봉분 허거든.(지금 '대잣' 봉분 하거든.) 15 [수망]

대장테: 커다란 옹기로 된 대야를 말한다. // 굵은 대장테 허영 요만헌 설거지허는 대장테, 그릇 싯엉 그레 어펏수다.(굵은 '대장테' 해서 요만한 설거지하는 '대장테', 그릇 씻어서 그리로 엎었습니다.) 34 [구억]

대정골: 대정 고을의 준말로 대정현이 있었던 대정읍 인성리, 안성리, 보성리 일대를 이르는 말이다. // 아부지네 하르방네 세젠디 ᄯᆞᆯ덜 난 대정골 오란 삼 시작허연 또시 우리 어무닌 대정골 보성 사름이난 아부진 보성 이칩이 장게들언 살고 경헷어.(아버지네 할아버지네 사계인데 딸들 낳아서 '대정골' 와서 살기 시작해서 다시 우리 어머닌 '대정골' '보성' 사람이니까 아버지는 '보성' 이씨 집에 장가들어서 살고 그랬어.) 33 // 우린 옛날에 대정골 살멍 ᄂᆞ물 갈앙 동네 사름도 주고 ᄂᆞ물 하영 갈아지민 동네 사름도 뽑앙인에 넘어감시면 ᄋᆞ경강 먹으렌 헹 막 주고 우잣 너른 디 헤영.(우린 옛날에 '대정골' 살면서 나물 갈아서 동네 사람도 주고 나물 많이 갈면 동네 사람도 뽑아서 지나가고 있으면 가져가서 먹으라고 해서 막 주고 텃밭 넓은 데 해서.) 33 // 대정골도 일반전기옌 허영 열ᄒᆞᆫ 시ᄁᆞ지벳기 안 와. 모실포도 그 당시는 일반전기라.('대정골'도 일반전기라고 해서 열한 시까지밖에 안 와. '모실포'도 그 당시는 일반전기야.) 34 // 이 또 뭣이 대정골, 보성, 신평 다 이 간이학교 뎅겨낫주게. 경 허단 거 불태와부난에, 거 풍금 ᄀᆞ뜬 거영 전부 다.(이 또 뭣이 '대정골', '보성', '신평' 다 이 간이학교 다녔었지요. 그렇게 하다가 불태워버리니까, 거 풍금 같은 거랑 전부 다.) 34 [구억, 인성]

대정항: 대정 지역에서 만든 항아리를 칭하는 말이다. 육지에서 들어온 항아리는 달리 '육짓항'이라고 한다. '대정'은 조선시대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삼읍 체제로 나눌

때 대정현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 대정항이나 무시거니 옛날 이딧 항은?('대정항'이나 무엇이니 옛날 여기 항아리는?) 14 // 대정항 장 담을 항은 똑 대정항으로 담아낫수다.('대정항' 장 담글 항아리는 똑 '대정항'으로 담갔었습니다.) 23 [성읍, 온평]

대지왓: 제주시 도련동의 지명의 하나이다. // 대지왓이라고 그러면은 그 뭐인가 그날 그 기록을 작성해서 이제 상부에 이제 보내던 그 밧으로 이제 셍각이 뒈는데.('대지왓'이라고 그러면은 그 뭐인가 그날 그 기록을 작성해서 이제 상부에 이제 보내던 그 밭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01 [도련]

대차반이: 대나무 오리로 결은 채롱을 말한다. // 대차반이 잇지 안 허우꽈? 대차반이 요만큼 헌 거 잇어.('대차반이' 있지 아니 합니까? '대차반이' 요만큼 한 거 있어.) 14 [성읍]

대체: 구멍이 가장 큰 편에 속하는 체로 조나 보리 따위를 타작하고 난 후에 어레미 다음으로 뉘를 쳐내 버릴 때 쓰는 체다. // 두서너네 번을 자꾸 치면서 대체, 거름체, ᄀᆞ는체 영 허멍 치어 놩.(두서너 번을 자꾸 치면서 '대체', '거름체', 가는체 이렇게 하면서 쳐서 놓아.) 03 // ᄀᆞ레에서 ᄀᆞᆯ아근에 대체로 훍은 체로 치곡, 두 번째 체로 치곡 ᄒᆞ여근에 ᄒᆞ민 이제 훍은 체로 친 거 시민 그냥 보리밥이옌 ᄒᆞ곡, 그건 그냥 보리밥.(맷돌에서 갈아다가 '대체'로 굵은 체로 치고, 두 번째 체로 치고 해서 하면 이제 굵은 체로 친 거 있으면 그냥 보리밥이라고 하고, 그건 그냥 보리밥.) 08 // ᄀᆞ레로 이젠 ᄇᆞᆯᄇᆞᆯᄇᆞᆯᄇᆞᆯ ᄇᆞᆯ르멍 이젠 또 체가 이서이, 그 체가 대체, 대체 아랫 거는 보리쏠이 뒈고 또 대체 우이 거는 또 ᄒᆞᆫ 불 ᄇᆞᆯᄇᆞᆯ ᄇᆞᆯ라근엥에 또 허영 그 아래 또 그 아래 체는 또 ᄌᆞᆷ쏠 쳐 앗아놩 또 보리ᄀᆞ르 쳥 데껴 불어뒁 그거 먹어 강.(맷돌로 이젠 'ᄇᆞᆯᄇᆞᆯᄇᆞᆯᄇᆞᆯ' 밟으면서 이젠 또 체가 있어, 그 체가 '대체', '대체' 아래 거는 보리쌀이 되고 또 '대체' 위의 거는 또 한 벌 'ᄇᆞᆯᄇᆞᆯ' 밟아서 또 해서 그 아래 또 그 아래 체는 또 'ᄌᆞᆷ쏠' 쳐 가져다 놓고 또 보리가루 쳐서 던져두고 그거 먹어 가서.) 11 // 이 보리 영 영 허영 쓰는 대체로 강 거려 봣다가.(이 보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쓰는 '대체'로 가서 잡아 올렸다가.) 18 [동광, 송당, 신도, 신촌, 온평, 함덕]

대축미: '대축+미' 구성으로, '대축'은 수수, '미'는 해삼을 가리키는 말이다. 수수처럼 붉은 색을 띠는 해삼의 별칭이다. '대축'은 지역에 따라서 '대죽'이라고 한다. // 홍삼은 기자 그냥 보통 나는 거고 그 빨강헌 거 대축미.(홍삼은 그저 그냥 보통 나는 거고 그 빨간 거 '대축미'.) 23 [온평]

대페렝이: 대오리로 엮은 챙이 널따란 모자를 말한다. // 대페렝인 ᄋᆞ름에. 그냥 보통 요즘 그 나오는 건 페렝이엔 그냥 허여.('대페렝이'는 여름에. 그냥 보통 요즘 그 나오는 건 패랭이라고 그냥 해.) 01 [도련]

대펫목: 상여 양편 아래에 매어진 앞뒤로 길게 나온 채를 말한다. // 막 튿어졋수다마는 이제도 그 하꼬는 남아잇어. 그 대펫목도 영 길게 헹상 메는 그 대펫목.(막 뜯어졌

습니다마는 이제도 그 상자는 남아있어. 그 '대펫목'도 이렇게 길게 행상 매는 그 '대펫목'.) 29 [외도]

댕우지: 귤 비슷하되 거죽이 우툴두툴한 아주 큰 유자의 한 종류이다. '댕유자', '당유지', '댕유지'라고 한다. // 댕우지 장사는 스물 전이 가진 거 닮다.('댕우지' 장사는 스물 전에 간 거 같다.) 31 [토평]

댕우지낭: 귤 비슷하되 거죽이 우툴두툴한 아주 큰 유자의 한 종류인 '당유자' 나무를 가리킨다. // 집이도 댕우지낭 우리 어머니네 집이 ᄒᆞ쏠 친정 어멍네도 댕우지낭이 잇엇저게. 옛날은 댕우지 경 알아줘라게. 이젠 안 알아줘도.(집에도 '댕우지낭' 우리 어머니네 집에 조금 친정 어머니네도 '댕우지낭'이 있었어. 옛날은 '댕우지' 그렇게 알아주더라. 이젠 안 알아줘도.) 31 [토평]

댕유자: 귤 비슷하되 거죽이 우툴두툴한 아주 큰 유자의 한 종류이다. 제주어로 '당유지', '댕유지'라고 한다. // 기침 나올 때 옛날은이 댕유자 잇지 안허냐이?(기침 나올 때 옛날은 '댕유자' 있지 않니?) 12 [한동]

댕유자낭: 귤 비슷하되 거죽이 우툴두툴한 아주 큰 유자의 한 종류인 '당유자' 나무를 가리킨다. // 댕유자낭허고 양웨 헤 가지고서 그 방세를 헷지.('댕유자낭'하고 양하 해 가지고서 그 '방세'를 했지.) 12 [한동]

댕유지: 귤 비슷하되 거죽이 우툴두툴한 아주 큰 유자의 한 종류이다. '댕유자', '당유지', '댕우지'라고 한다. // 어른들은 저 댕유지고 딸령 먹곡 그자.(어른들은 저 '댕유지'고 다려서 먹고 그저.) 24 // 댕유지에 저 무시거 놩 딸령 먹고 저 생강 이서 생강.('댕유지'에 저 무엇 넣어 다려서 먹고 저 생강 있어 생강.) 24 [세화]

더거레기: 흙덩이를 두 손으로 덥석 쥐는 모양을 표현한 말이다. // 경헤근에 이만씩 헤근에 더거레기 앗당 부리데기멍, 사름덜 이 동네 집을 지은덴 허민은 이 동넷 어른들이 와근에 막 ᄀᆞ찌 그 도와주주게.(그렇게 해서 이만씩 해서 '더거레기' 가져다가 '부리데기멍', 사람들 이 동네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 동네 어른들이 와서 막 같이 그 도와주거든.) 07 [보목]

더글더글더글허다: 풀이 무성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쉐시락쿨은 젤 아래 나는디 복사쿨이 지일 ᄆᆞᆫ저 나근에 더글더글더글헤.('쉐시락쿨'은 제일 아래 나는데 '복사쿨'이 제일 먼저 나서 '더글더글더글헤'.) 30 [노형]

더데기병: 감자에 생기는 병 이름이다. 농촌에서는 이를 '더뎅이병'이라고 한다. // 옛날에 ᄒᆞ나썩 가다보민 잇언게양 이젠양 ᄆᆞᆫ딱 더데기병이라.(옛날에 하나씩 가다보면 있더니만요 이젠요 몽땅 '더데기병'이야.) 14 [성읍]

더들더들더들: 생선의 비늘이 매끄럽지 않게 돋아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겁덕이 더들더들더들 잇엉 막 허난 그걸 벳겨 두고.(껍데기가 '더들더들더들' 있어서 마구 하니까 그걸 벗겨 두고.) 06 [남원]

더럭: 애월읍 상가리와 하가리를 통틀어 이르던 옛 이름이다. // 그때 이 메 곶자왈, 이 저 이 오름에 이 한아름썩 헌 나무들이 많이 이빠이 있어 가지고, 그 곶 농사도 안

짓고. 혼자만 살고. 거 기록인데, 그다음에 이 사름안티 장가든 사람이, 결혼헌 똘한티 결혼헌 사름이 상가, 더럭이라.(그때 이 산 '곶자왈', 이, 저 '오름'에 한 아름씩 한 나무들이 많이 많이 있어서, 그 '곶' 농사도 안 짓고. 혼자만 살고. 거 기록인데, 그다음에 이 사람한테 장가든 사람이, 결혼한 딸한테 결혼한 사람이 '상가', '더럭'이지.) 36 [봉성]

더박더박: 큼직하게 덩어리진 모양을 표현한 것으로 물건이 크고 굵은 것을 나타낸 말이다. // 우뭇가사리가 한동 거는 이만씩 더박더박 먹을 만허고. 여기 거는 삐작삐작.(우뭇가사리가 한동 거는 이만큼씩 '더박더박' 먹을 만하고. 여기 거는 '삐작삐작'.) 06 [남원]

더박더박허다: 큼직하게 덩어리지다는 말이다. // 이제ᄀᆞ찌 경 더박더박헹 사라 족진 안허여.(이제같이 그렇게 '더박더박헹' 접시 작진 않아.) 13 [삼달]

더흘허다: 심신에 큰 고통을 받아서 회복이 안 되어 시달리다라는 뜻이다. 달리 '더을허다'라고도 한다. // 열이 막 내푸껑 막 더흘헤.(열이 막 내뿜어서 아주 '더흘헤'.) 23 [온평]

덕: 바닷가나 바다 속의 큰 바위를 말한다. // 남저덜 촘대헹 둬 발썩 헌 거 헤근에 낚시 돌아매고 봉돌 메근에 덕에 사근에.(남자들 낚싯대해서 두어 발씩 한 거 해서 낚시 달아매고 낚싯봉 매어서 '덕'에 서서.) 13 [삼달]

덕: 여기에서 솥을 앉힐 자리인 봇돌을 의미한다. // 막아근에 이제 그레 멜젓 놓곡. 물 ᄒᆞ쏠 놓곡 헤영 덕 앚쩡 무신 무시거나 잇어게.(막아서 이제 거기에 멸치젓 넣고. 물 조금 넣고 해서 '덕' 앉혀서 무슨 무엇이나 있어.) 04 [고성]

덕둑개: 남원읍 태흥3리의 한 지명이다. // 엿날 이름 이디 옛날 우리 두린 때 ᄀᆞᆫ는 말은 이디ᄀᆞ라 덕둑개.(옛날 이름 여기 옛날 우리 어릴 때 하는 말은 여기보고 '덕둑개'.) 25 [태흥]

덕지동: 제주시 이호동 자연 마을 중 하나이다. // 덕지동 그 논 이시난 그디 강, 우리 큰어머니 그디 논밧이 두 개 잇언, 두 필. 겐 우리 큰어머니넨 그 산디를 막 두드령 던져 불지. 경 건 안 써. 나룩찝 이시난.('덕지동' 그 논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 큰어머니 거기 논밭이 두 개 있었어, 두 필. 그래서 우리 큰어머니네는 그 밭벼를 마구 두드려서 던져 버리지. 그렇게 그건 안 써. 볏짚 있으니까.) 30 [노형]

덕판풍선: 앞머리를 넓고 평평하게 만든 배의 한 종류이다. // 종류 뭐 덕판배엔도 헷주만은, 딴 이름으론 우리 풍선, 풍선, 덕판풍선이옌 늘 헤왓지.(종류 뭐 '덕판배'라고도 했지만, 딴 이름으론 우리 풍선, 풍선, '덕판풍선'이라고 늘 해왔지.) 10 [월령]

던더리동산: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동산 이름이다. // 던더리동산이라고 잇어요. 던더리동산이라고 헤 가지고.('던더리동산'이라고 있어요. '던더리동산'이라고 해 가지고.) 29 [외도]

던드렁: 딴딴하고 미끈하며 둥글넓적한, 짚 따위를 두드리는 돌판을 말하며 '덩드렁', '벌덩'이라고도 한다. // 엣날엔 노 꼬아낫주게. 그거 믄 그거 패 맞아근엥에 그 저 던드렁이엔 헌 게 돌이주게, 돌에 두엉게 두드리는 거주게.(옛날엔 노 꼬았었지. 그거 모두 그거 패 마서 그 저 '던드렁'이라고 한 게 돌이지, 돌에 두어서 두드리는 거지.) 15 [수망]

던드렁마께: '던드렁'이라는 둥그런 돌 위에서 짚이나 대나무 따위를 두들길 때 사용하는 방망이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덩드렁마께'라고도 한다. // 미뿌젱이 그거 빠당은에 물리왕 그거 영 영 그 던드렁마께에서 막 두드령 북삭허게 헤영 다 깨여근에 그거 허영 끄는끄는하게 노 꼬아근에 거 가져근에 망사리.(새품 그거 뽑아다가 말려서 그거 이렇게 이렇게 그 '던드렁마께'로 막 두들겨서 부각하게 해서 다 깨서 그거 해서 가늘디가늘게 노 꼬아서 거 가져서 망사리.) 05 // 비나 벳이나 안 나민 영 던드렁마께로 재기 먹젠 허민 던드렁마께로 멍석에 놩 두드려.(비나 볕이나 안 나면 이렇게 '던드렁마께'로 빨리 먹으려고 하면 '던드렁마께'로 멍석에 놔서 두드려.) 13 // 던드렁마께엔 헌 건 완전 나무로 뒌 마께주게.('던드렁마께'라고 한 건 완전 나무로 된 방망이지.) 15 // 게난 들어가멍 마께를 심엉 던드렁마께를 심엉 바락ᄒᆞ게 넷기난양 사름도 안 맞고 그 마께가 방안에 떨어져도양 가운디 강 떨어집디게.(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방망이를 잡아서 '던드렁마께'를 잡아서 '바락ᄒᆞ게' 던지니까요 사람도 안 맞고 그 방망이가 방안에 떨어져도요 가운데 가서 떨어집디다.) 22 [보목, 삼달, 세화, 수망, 우도, 표선]

덤방허다: 풀 따위가 무성하다는 뜻이다. // 또 풀이 나가지고 풀이 덤방헤가면 또 갈앙 놔두어.(또 풀이 나가지고 풀이 '덤방헤'가면 또 갈아서 놔둬.) 19 // 수염이 이렇게 덤방허면은 그 이 바농상지에 가위헤다 두둑한 가위로 튀어난 거 요렇게 거울봉, 경 안한 사람은 걸쳐져.(수염이 이렇게 '덤방허면은' 그 바느질고리에 가위해다가 두둑한 가위로 튀어난 거 요렇게 거울 봐서, 그렇게 안한 사람은 묻어.) 19 [청수]

덤부지: 손가락 정도 크기의 베도라치 새끼를 말한다. // 성담 ᄀᆞ뜬 디 강 남자들은 덤부지 ᄀᆞ튼 거 겁죽 벳경 영 철사 허영 놩 그거 그 고망더레 영 들이쳥 허믄 거기 깅이덜이 막 돌려드는 거 알아져마씨.(성 같은 데 가서 남자들은 '덤부지' 같은 거 껍데기 벗겨서 이렇게 철사 해서 놔서 그거 그 구멍으로 이렇게 들이쳐서 하면 거기 게들이 마구 달려드는 거 알지요.) 35 // 멜 ᄀᆞ튼 거라든지 ᄯᅳ로 게 아니믄 코셍이도 뒈고, 덤부지라고 이건 잘 먹젱 아니 헙니다.(멸치 같은 거라든지 또 게 아니면 용치놀래기도 되고, '덤부지'라고 이건 잘 먹으려고 아니 합니다.) 35 [대림]

덥덜: 친척의 뜻으로 '방상'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 다른 부주덜은, 집안 덥덜 부주들은이 하나 족으나 돈으로, 무신 돈인지 몰르크라.(다른 부조들은, 집안 '덥덜' 부조들은 많으나 적으나 돈으로, 무슨 돈인지 모르겠어.) 11 [함덕]

덩가리: 나무나 줄기 식물의 밑동 부분을 가리킨다. // 쭉 때더라고 우리 큰어무니가. 게난 일로 짇으면은게 그것이 막 걸러근에 허는디 이 덩가리로 짇으민 속속속 들어가.(쭉 때더라고 우리 큰어머니가. 그러니까 이리로 때면 그것이 마구 걸려서 하는데 이 '덩가리'로 때면 속속속 들어가.) 30 [노형]

덩글덩글: 메밀이 덩어리져 가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 그 ᄆᆞ물 방울에 부뜬 것이 실밥 거치 덩글덩글 헤노난 ᄆᆞ물도 비어다근에, ᄆᆞ물은 밧디서 주로 허는 사름도 싯고 그렇지 않으민 아져당 영 도리깨질헐 도리만 내베덩, 이것이 마당이라면 이렇게 꼬짝 세와.(그 메밀 방울에 붙은 것이 실밥 같이 '덩글덩글' 하니까 메밀도 베어다가, 메밀은 밭에서 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져다가 이렇게 도리깨질할 부분만 내버려두고, 이것이 마당이라면 이렇게 곧게 세워서.) 06 [남원]

덩더렁마께: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드리는 방망이이다. // 고고리가 덩더렁마께만이 ᄒᆞᆫ다게, 흥알흥알 훌근다.(이삭이 '덩더렁마께'만큼 한다, '흥알흥알' 굵다.) 10 [월령]

덩드렁: 딴딴하고 둥글넓적한 돌로,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드릴 때 주로 사용했던 돌판이다. // 찍을 탁탁ᄒᆞ게시리 이 저 쳐근에 탁 잡아근에 탁탁탁ᄒᆞ게 부근데 빼뒁, 부근데 빼뒁인에 요만이ᄒᆞ게 딱 무꺼근에 물 ᄎᆞ곤ᄒᆞ게 적져근에 덩드렁에 놔근에 그걸 배 꼬기 쉽게 잘 두두려.(짚을 탁탁하게끔 이 저 쳐서 탁 잡아서 탁탁탁하게 부검지 빼둬서, 부검지 빼둬서 요만큼하게 딱 묶어서 물 촉촉하게 적셔서 '덩드렁'에 놔서 그걸 참바 꼬기 쉽게 잘 두드려.) 08 // 찍 두드려근에, 덩드렁에서 망치로 닥닥 두드려근에, 그다음은 놀 이제 꼽주게.(짚 두드려서, '덩드렁'에서 망치로 닥닥 두드려서, 그다음은 노를 이제 꼽지요.) 17 // 어쨌든 이런 저 ᄊᆞᆯ 종류 헌 것ᄀᆞ란 찝이엔 허주, 찝. 게민 그거를 좋아난 걸 가져당 덩드렁이엔 헌 건 동글락 돌 미끈헌 거 영 놔둠서 그것에서 나무로 뒌 이런 마께로 그냥 막 두드리민 보각헤지지.(어쨌든 이런 저 쌀 종류 한 것보고 짚이라고 하지, 짚. 그럼 그거를 좋았던 걸 가져다가 '덩드렁'이라고 한 건 동그란 돌 미끈한 거 이렇게 놔두면서 그것에서 나무로 된 이런 방망이로 그냥 마구 두드리면 '보각헤지지'.) 20 // 덩드렁마께로 거 헹, 아래 덩드렁이옌 허영, 거 놩 쎄믄, 쎄게 두드리믄 것이 부서져불고 끈어지니까, 독독독독 울리멍 이레 주믄 ᄒᆞᆫ쪽에선 이제 그거 무신 장갑을 요즘은 쪗주, 그냥 손으로 박박 트드멍.('덩드렁마께'로 거 해서, 아래 '덩드렁'이라고 해서, 거 놔서 세면, 세게 두들기면 것이 부서져 버리고 끊어지니까, '독독독독' 울리면서 이리 주면 한쪽에서는 이제 그거 무슨 장갑을 요즘은 꼈지, 그냥 손으로 박박 뜯으면서.) 28 [고내, 구엄, 대평, 도련, 동광]

뎡드렁마께: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드리는 방망이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던드런마께'라고도 한다. // 뎡드렁마께로 막 장만ᄒᆞ곡, 뎡드렁마께로도 두두리곡, 도께로도 두두리곡, ᄒᆞᄊᆞᆯ 하영 ᄒᆞ는 집은 쉐로도 ᄇᆞᆯ려근에.('뎡드렁마께'로 막 '장만ᄒᆞ곡', '뎡드렁마께'로도 두드리고, 도리깨로도 두드리고, 조금 많이 하는 집은 소로도 밟아서.) 08 // 뎡드렁마께로 할망덜 일엇이 앚앙이 무신 ᄀᆞ레 ᄀᆞᆯ아단 동골랑헌 거

이시민 독독독독 ᄆᆞᆺ으멍 털어지와.(‘덩드렁마께’로 할머니들 일없이 앉아서 무슨 맷돌 갈아다가 동그란 것 있으면 ‘독독독독’ 마면서 떨어뜨려.) 11 // 순허게 하여튼 손보기 좋게 만들기 위헤서 덩드렁마께로 맷돌로 이리 놔가지고 그걸 찍을 부셔가지고. 완전히 연하게 만들어가지고 짚신도 삼고 그랫주.(순하게 하여튼 손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덩드렁마께’로 맷돌로 이리 놔가지고 그걸 짚을 부셔가지고. 완전히 연하게 만들어가지고 짚신도 삼고 그랬지.) 18 // 나룩찝 뭐, 영허는디 나룩찝을 헤도 이제 좋은 찝으로 헹은에, 잘 이 물 ᄒᆞ끔 뿌리멍 잘 두드려사. 덩드렁마께에서 독독독 두드려놩 물 뿜엉 ᄒᆞ끔 틈 잣당, 또.(볏짚 뭐, 이렇게 하는데 볏짚을 해도 이제 좋은 짚으로 해서, 잘 이 물 조금 뿌리면서 잘 두드려야. ‘덩드렁마께’에서 독독독 두드려놔서 물 뿜어서 조금 뜸 들였다가, 또.) 28 [고내, 고성, 구억, 구엄, 노형, 덕수, 도련, 동광, 봉성, 신도, 옹포, 한동, 함덕]

덩체기: 표준어의 ‘둥치’에 대응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떡의 중심부를 말한다. // 등절미엔 헌 거 아까 송펜 거치 허여도 동글락허게 헤근에 이디 납작허고 이딘 ᄒᆞ꼼 봉오릇허게. 덩체기는 봉오롯허고.(‘등절미’라고 한 거 아까 송편 같이 해도 동그랗게 해서 여기 납작하고 여긴 조금 봉긋하게. ‘덩체기’는 봉긋하고.) 20 [고내]

데가라왓통: 표선면 표선리의 지명의 하나이다. // 뭐 뎅가락, 데가라왓통. 으, 저 알동넨 나룩질통.(뭐 ‘뎅가락’, ‘데가라왓통’. 으, 저 ‘알동네’는 ‘나룩질통’) 05 [표선]

데깍: ‘짜인 물체나 물건이 단단하여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는 모양’으로 ‘촘촘하다’의 뜻이다. ‘디깍’, ‘제깍’, ‘지깍’이라고도 한다. // 대우리 멜 적에는 그 검질을 봄 낭. 검질 날 떼는 이놈으 보리로 데깍 헤불민 밑에서 검질이 안 나와.(‘대우리’ 맬 적에는 그 김을 봄 나서. 김 날 때는 이놈의 보리로 ‘데깍’ 해버리면 밑에서 김이 안 나와.) 04 // 그 너덩이라고 헌 것은 벗벗허게 이렇게 손ᄁᆡ락 모냥으로 꺼죽도 두꺼운디 이거 께와근에 거죽 베껴 둰 뭘 허면은 이거는 비가 맞아도 불어나지 안허고, ᄆᆞᆯ라도 데깍, 젖어도 데깍, 허는 거니까 그 너덩이 아주 그 좋주게.(그 으름덩굴이라고 한 것은 뻣뻣하게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거죽도 두꺼운데 이거 깨서 껍질 벗겨두고 뭘 하면 이거는 비가 맞아도 불어나지 않고, 말라도 ‘데깍’, 젖어도 ‘데깍’, 하는 거니까 그 으름덩굴이 아주 그 좋지.) 19 [고성, 동광, 청수]

데깍허다: 짜인 물체나 물건이 단단하여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다는 것으로 ‘촘촘하다’의 뜻이다. // ᄆᆞᆯ 숫자 하민 멧 십 ᄆᆞ리 집어놩 ᄒᆞ민 데깍헤불주.(말 숫자 하면 몇 십 마리 집어놔서 하면 ‘데깍헤’ 버리지.) 08 // 딱딱 막 ᄇᆞ르민 데깍허민 궤양 비왕은에 이젠 어디레 뭐 더껑은에 이젠 틔우는 거라.(딱딱 막 밟으면 ‘데깍허민’ 고이 부어서 이젠 어디로 뭐 덮어서 이젠 띄우는 거야.) 19 [동광, 청수]

데드롱: 일본어로, 합성 섬유의 한 종류이다. // 베 여유 엇엉 능력 엇는 사름은, 우리는 못 사니까 데드롱 사다 헷어, 데드롱.(배 여유 없어서 능력 없는 사람은, 우리는 못 사니까 ‘데드롱’ 사다 했어, ‘데드롱’.) 06 // 화장시키는 체 ᄒᆞ여근에 씨집올

때 데도롱 그때 힌 데드롱 치마 힌 거 ᄒᆞ연에 입언에 ᄒᆞ곡.(화장시키는 체 해서 시집올 때 '데드롱' 그때 흰 '데드롱' 치마 흰 거 해서 입어서 하고.) 08 [남원, 동광]

데미다: '쌓다'의 제주어이다. // 거름에 이제 뭔가 발려서 딱 ᄆᆞᆫ딱 발려지면은 붙을 거 아녀? 게면 이제 그걸 데며.(거름에 이제 뭔가 발려서 딱 전부 발려지면 붙을 거 아냐? 그러면 이제 그걸 '데며'.) 09 // 나록 비면은 이제 무꺼근엥 한 군데에 데며놔.(벼 베면 이제 묶어서 한 군데에 '데며놔'.) 09 [고산]

데부꾸로: 일본어 'てぶくろ'로 장갑을 말한다. // 일본 강 온 사름 장갑 ᄒᆞᆫ 빗 앗앙 왕 데부꾸로엔 허주게. 아이고 데부꾸로 아졍 완 ᄒᆞ나썩 줘어 영 허고 일본서가 거 아졍와, 간 온 사름.(일본 가서 온 사람 장갑 한 묶음 가져 와서 '데부꾸로'라고 하지. 아이고 '데부꾸로' 가져 와서 하나씩 줬어 이렇게 하고 일본서 거 가져와, 갔다 온 사람.) 02 // 장갑이주. 우린 데부꾸로, 데부꾸로 헤낫저게.(장갑이지. 우린 '데부꾸로', '데부꾸로' 했었어.) 31 [선흘, 토평]

데스까보: 일본어로 철모를 일컫는다. // 일본 군인덜은 데스까보옌 허여. 데스까보, 이 저 철모. 데스까보옌 헹은에 저 ᄆᆞᆫ 물 데왕 뭣 허믄 우리도 거기서 항고, 이제 여기서 주믄 그 데스까보에 ᄉᆞᆲ읍디다.(일본 군인들은 '데스까보'라고 해. '데스까보', 이 저 철모. '데스까보'라고 해서 저 모두 물 데워서 뭣 하면 우리도 거기서 반합, 이제 여기서 주면 그 '데스까보'에 삶습디다.) 28 [구엄]

데실데실ᄒᆞ다: 겉이 잘게 잇따라 벌어지거나 째어진 모양이다. // 그 이름을 옛날 토종 지슬양, 홁지도 아녀고 홁지도 아녀여, 요만씩벳기 저 저 미깡, 저 미깡, 저 저 미깡만벳기 그보다 ᄌᆞᆫ 것도 ᄒᆞ곡, 미깡 홁어사 저 미깡 ᄒᆞ는디, 껍데기가 데실데실ᄒᆞ여.(그 이름을 옛날 토종 감자요, 굵지도 아니하고 굵지도 아니해, 요만큼씩밖에 저 저 밀감, 저 밀감, 저 저 밀감만큼밖에 그보다 잔 것도 하고, 밀감 굵어야 저 밀감 하는데, 껍데기가 '데실데실ᄒᆞ여'.) 08 // 저 홁지도 아녀고 껍데기가 데실데실ᄒᆞ게 ᄉᆞᆯ므면은 헤영 헤불어.(저 굵지도 아니하고 껍데기가 '데실데실ᄒᆞ게' 삶으면 하얗게 해버려.) 08 [동광]

데욱: 물렛가락의 윗몸에 끼워 고정시킨 두 개의 구슬 같은 물건을 말한다. '도욕'이라고도 한다. // 데욱 말앙 실 감는 거 말이주게.('데욱' 말고 실 감는 거 말이지.) 06 [남원]

데욱고지: 삶은 돼지고기를 가늘고 길게 썰어 꽂은 꼬치를 말한다. // 경 밥 ᄎᆞᆯ려 오민 아측이 그 고기 언만, 옛날에 그렇게 어려운 고기, 그거 아칙밥에 데욱고지라고 길쭉헌 고지 궤기 멧 점 꿰영 그거 아칙밥 먹는디 첨 상주덜이 그렇게 많이 오라 놓난.(그렇게 밥 차려 오면 아침에 그 고기 얼마, 옛날에 그렇게 어려운 고기, 그거 아침밥에 '데욱고지'라고 길쭉한 꼬치 고기 몇 점 꿰어서 그거 아침밥 먹는데 첨 상주들이 그렇게 많이 오니까.) 06 [남원]

데취: 마소가 먹다가 남은 꼴의 찌꺼기 따위를 말하는데, '데치'라고도 한다. // 촐 줘근에

쉐 먹당 나머지 데취.(꼴 줘서 소 먹다가 나머지 '데취'.) 08 // 쉐 먹당 막 훍은 거, 쉐가 씹어 먹지 못ᄒᆞ영 남은 건 쉐 두터레 똥꼬망더레 쉐 데취로 끌고.(소 먹다가 아주 굵은 거, 소가 씹어 먹지 못해서 남은 건 소 뒤쪽에 똥구멍으로 소 '데취'로 깔고.) 08 // 쉐 먹단 남은 건 데취엔 ᄒᆞᆸ니다, 데취. 쉐데취.(소 먹다가 남은 건 '데취'라고 합니다, '데취'. '쉐데취'.) 36 [동광, 봉성]

덴노: 일본어로 '천황(てんのう)'이라는 뜻이다. // 이 일본에, 천황 폐하 이마카미 덴노, 다 배운 거.(이 일본에, 천황 폐하 '이마카미' '덴노', 다 배운 거.) 11 [함덕]

뎀뿌라: 일본어 'てんぷら'로 '튀김'을 말한다. // 지지민 벨로 안 헤도 허는 게 이서. 지지미도 지졍 허주게, 뎀뿌라 지져근에.(부침개는 별로 안 해도 하는 게 있어. 부침개도 지져서 하지, 튀김 지져서.) 02 // 기자 기자 뎀뿌라 그땐 뗀뿌라 셍각 어느 하가의, 아년 먹어봔.(그저 그저 지짐이 그땐 지짐이 생각 어느 겨를에, 안 해 먹어봤어.) 24 // 경헤도 안 먹어봔. 긍이 헤당 뎀뿌라 튀김 헌 건 먹어져라.(그래도 안 먹어봤어. 게 해다가 '뎀뿌라' '뎀뿌라' 한 건 먹었어.) 26 [선흘, 세화, 신창]

뎃따이: 일본어 'てつだい'에서 온 말로, '도움'이라는 의미이다. // ᄒᆞᆫ디 강 그거 ᄒᆞᆫ디 강. 뎃따이도 안허고 아무것도 안 허민 못 허주게. 지픈 디, 동글락헌 디 가근에 그 물싸 가민 막 들이밀어근에 거리민 허는 따문에. 보통으론 못 허여.(같이 가서 그거 같이 가서. '뎃따이'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못 하지. 깊은 데, 동그란 데 가서 물써 가면 마구 들이밀어서 뜨면 하는 때문에. 보통으로는 못 해.) 31 [토평]

뎅가라물: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물통 이름이다. // 겡 그 남죽에 그 묵 젓엇던 걸 먹젠 우리 뎅가라물 질어난디 이름이 뎅가라통에 물 다섯 번 그 젓어난 남죽 주민 숟가락으로 긁엉 먹엉.(그래서 그 죽젓개에 그 묵 저었던 걸 먹으려고 우리 '뎅가라물' 길었었는데 이름이 '뎅가라통'에 물 다섯 번 그 저었던 죽젓개 주면 숟가락으로 긁어서 먹어서.) 05 [표선]

뎅가리: 채소의 뿌리에서 줄기를 자른 후 그 밑동 부분을 의미하는 제주어로 'ᄃᆞᆼ가리'라고도 한다. // 물짐치는 ᄒᆞᆯ썩 먹고 거 ᄂᆞᆷ삐 무시거 뎅가리 썰어 놓곡.(물김치는 조금씩 먹고 거 무 무엇 '뎅가리' 썰어 놓고.) 16 [하원]

뎅씰: 바느질에서 온박음질을 뜻하는 '뎅침'에 '씰'을 붙여 말하고 있다. 한 땀씩 잇대어 하는 것으로 바늘을 앞 땀의 제자리에 꽂아 박는 것을 말한다. // 감추기도 ᄒᆞ고게 영 뎅씰 박은 뎅씰.(감추기도 하고 이렇게 '뎅씰' 박은 '뎅씰'.) 16 [하원]

뎅이: 건조한 담배 백 잎을 세는 단위이다. // ᄒᆞᆫ 접 ᄒᆞᆫ 거 열 갠가, 쓰무 갠가 ᄒᆞ영 ᄒᆞᆫ 뎅이라.(한 접 한 거 열 갠가, 스무 갠가 해서 한 '뎅이'지.) 08 [동광]

뎅이: 무쇠를 녹인 쇳물을 부어 솥·볏·보습 등을 만드는 주형을 말한다. // 뎅이 만드는데 아주 좋아가지고 게서 우리 마을에서 불미를 허고.('뎅이' 만드는데 아주 좋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풀무를 하고.) 32 [덕수]

도: '다시, 도로'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소가 되새김질하기 위해 도로 뱉는다는 뜻이다. // 쉐는 삭삭 할르멍. 그자 들여몰려는 떡분에 경 헷당. 도 바트멍 거 세기는 거라 부난. 경 ᄒᆞ난 쉐는 셍차 줭은 목 걸리는 떡분에 감저 셍찰 안 주주.(소는 삭삭 핥으면서. 그저 들이밀려는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도' 뱉으면서 거 되새기는 거라 버리니까. 그렇게 하니까 소는 생 채 주면은 목 걸리는 때문에 고구마 생 채로 안 주지.) 04 [고성]

도: 어떤 장소의 입구를 뜻한다. // 당케옌 ᄒᆞᆫ 건 엿날 당케에, 그 도옌 ᄒᆞᆸ주예.('당케'라고 하는 건 옛날 '당케'에, 그 '도'라고 하지요.) 17 // 그기 옆으로 ᄂᆞ람지 둘러놓아 도 우이 ᄂᆞ람지 더꺼 더꺼근에 겨울 네낭 그자 그 구멍으로 손 디물량.(거기 옆으로 'ᄂᆞ람지' 둘러놓아 '도' 위에 'ᄂᆞ람지' 덮어 덮어서 겨울 내내 그저 그 구멍으로 손 들이밀어서.) 22 [대평, 우도]

도가칩: 마을에 공의사(公議事)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모일 장소로 하는 집으로 '도가(都家)'에 대응한다. // 그, 도가칩이라고 마을회관 같은 거지.(그, '도가칩'이라고 마을회관 같은 거지.) 36 [봉성]

도감: 보통 잔칫집에서 돼지고기를 써는 사람도 도감이라고 하는데 멸치잡이 조의 책임자를 일컫는다. // 우리 장인어른이 싸움판 그물 도감, 도감.(우리 장인어른이 '싸움판' 그물 '도감', '도감'.) 11 [함덕]

도고리: 나무나 돌로 둥글넓적하게 만든 그릇이다. // 도고리다가 놩 널판데기 놩 그레 놩 이젠 ᄀᆞ레착.('도고리'에다가 넣어서 널빤지 놓아서 그리로 놓아서 이젠 맷돌짝.) 01 [도련]

도고리알: 대정읍 신도2리 3125번지 서쪽에 있는 것으로 이 마을 동남쪽에 자리잡은 갯바위 하나가 마치 나무 함지박을 닮았다는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도고리'는 함지박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유명헌 거 잇어. 도고리알 큰도고리알, 셋도고리알, 족은도고리알.(유명한 거 있어. '큰도고리알', '셋도고리알', '족은도고리알'.) 18 [신도]

도곰: 소의 안장 밑에 까는 짚방석 같은 물건으로 길마가 소의 등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 준다. 표준어 뗌치에 대응한다. 지역에 따라서 '도굼', '도금', '안장도금'이라고도 한다. // 이 도곰은 이제 산뒤찝으로나 예껴사 뒈여, 이 도곰. 도곰도 아무나 못 예껴. 하르방덜 옛날 예껴근에 도곰착이라고.(이 '도곰'은 이제 밭볏짚으로나 엮어야 돼, 이 '도곰'. '도곰'도 아무나 못 엮어. 할아버지들 옛날 엮어서 '도곰착'이라고.) 02 // 보리낭으로 만들어 가지고, 것도 두 개라야 등더레 영 놓는 그 소용, 질메 도곰을 만듭주게.(보릿짚으로 만들어 가지고, 것도 두 개라야 등으로 이렇게 놓는 그 쐐기, 길마 '도곰'을 만들지요.) 35 [대림, 선흘]

도구리: 넓고 낮은 불완전 원형으로 만든 생활 용구로서, 제주 지역에서 흔하게 쓰이던 나무 그릇이다. 지역에 따라 '도고리'라고도 부른다. // 메주를 건졍 옛날은 무신 도구리에 건져 놩게 막 뀌어근에 담주.(메주를 건져서 옛날은 무슨 '도구리'에 건

져 놓고 마구 반죽해서 담지.) 03 // 감 타다근에 덩드렁 저 도구리에 놩 덩드렁 마께로 삐졍 천을 헤영 앗다놔근에 도구리더레 놩 영헹 감 살살 허꺼놩 영헹 ᄆᆞᆯ고 따시 영 허꺼놩 ᄆᆞᆯ곡 헹 자락자락 영 놀려.(감 따서 '덩드렁' 저 '도구리'에 놔서 '덩드렁마께'로 빻아서 천을 해서 가져다 놔서 '도구리'에 놔서 이렇게 해서 감 살살 섞어놔서 이렇게 해서 말고 다시 이렇게 섞어놔서 말고 해서 자락자락 이렇게 '놀려'.) 13 [삼달, 송당]

도굼: 말이나 소의 등이 상하지 않게 길마나 안장 따위의 안에 뎃대는 물건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도곰', '도금', '안장도금'이라고도 한다. // 저 안네 등바대는. 건 도굼. 양쪽에 이렇게 부떠가지고 이제 살, 살에 이제 보호뒈게 헌 거.(저 안에 '등바대'는. 건 '도굼'. 양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제 살, 살에 이제 보호되게 한 거.) 01 [도련]

도그내: 제주시 외도동의 하천 이름이다. 한자로 '도근천'이라고 한다. // 귀리옌 허고. 이 외도도 지금 외돈데 엿날은 도그내.('귀리'라고 하고. 이 외도도 지금 외도인데 옛날은 '도그내'.) 29 [외도]

도금: 소나 말에 멍에를 메울 때 몸체에 바로 나뭇가지가 닿아 힘을 가하여 아프기 때문에 나뭇가지에 짚을 감는 것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도곰', '도굼', '안장도금'이라고도 한다. // 도금이라 헤서 보리찍으로 만들든 산디찍으로 만들던.('도금'이라 해서 보릿짚으로 만들든 밭볏짚으로 만들든.) 06 [남원]

도껫줄레: 도리깨 막대기를 길게 펴서 한 바퀴 빙 돈 만큼의 크기를 말한다. // 도껫줄레 ᄒᆞᆫ 섬 난덴 허주게.('도껫줄레' 한 섬 난다고 하지.) 32 // 도껫줄레는 그 이 타작허는 도께. 도께를 쫙 펴가지고 사름이 사서 이렇게 ᄒᆞᆫ번 빵 돌민 그 수확이 ᄒᆞᆫ 섬 난덴 허곡.('도껫줄레'는 그 이 타작하는 도리깨. 도리깨를 쫙 펴가지고 사람이 서서 이렇게 한번 빵 돌면 그 수확이 한 섬 난다고 하고.) 32 [덕수]

도꼬내: 제주시 외도동의 자연 마을 중 하나로 '도근내'를 말한다. 제보자들은 '도고내'라고도 부르고 있다. // 경허난이 그 외도, 이제 도꼬내 외도 거기 그 주재소에서 지서에서, 지서에서 순경덜이 밤이 오랑 무시거 산.(그러니까 그 '외도', 이제 '도꼬내' '외도' 거기 그 주재소에서 지서에서, 지서에서 순경들이 밤에 와서 무엇 섰어.) 20 // 체시질에 걸어져신게게. 닐랑 빌어 줘. 저 도꼬내 빠마젱이 ᄃᆞᆯ아당 빌어 줘, 영허더라고. 도근내 빠마젱이 ᄃᆞᆯ아당 빌어 주렌.('체시질'에 걸렸네. 내일을 빌어 줘. 저 '도꼬내' 파마쟁이 데려다가 빌어 줘, 이러더라고. '도근내' 파마쟁이 데려다가 빌어 주라고.) 30 [고내, 노형]

도꼬마리: 무명을 짤 때, 베틀의 뒤쪽에 놓여서 '버영대'와 실을 감아 두는 크고 넓적한 도구를 말한다. 표준어의 '도투마리'에 대응한다. // 도꼬마리라고 풀칠헤 가지고 메영 감아야 베틀에 가지.('도꼬마리'라고 풀칠해 가지고 매어서 감아야 베틀에 가지.) 06 // 멜 때는 그 베틀에 도꼬마리라고 그 일름이 도꼬마리. 일본말인가 원. 도꼬마리라고 이만이 헌 걸 헤서.(맬 때는 그 베틀에 '도꼬마리'라고 그 이름

이 ‘도꼬마리’. 일본말인가 원. ‘도꼬마리’라고 이만큼 한 거 해서.) 06 [남원]

도꼬방에: 절구를 말한다. ‘도꾸방에’이라고도 한다. // 그 도꼬방에만 져 노니까. 거 요새 현미쌀 모냥으로.(그 ‘도꼬방에’만 짛으니까. 거 요새 현미쌀 모양으로.) 06 // 솔벤, 절벤허고 그 요즘은 옴떡이 나왓는데 옛날엔 그렇게 옴떡을 헐 줄 몰르고 어떻게 헤서 집이서 ᄀᆞ루를 뿟으니까 도꼬방에 놩.(‘솔벤’, 절편하고 그 요즘은 ‘옴떡’이 나왔는데 옛날엔 그렇게 ‘옴떡’을 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해서 집에서 가루를 빻으니까 ‘도꼬방에’ 놓고.) 06 [남원]

도꼰허다: 술을 마셨을 때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나타낸 것 같다. // 이레 촐촐촐촐 나와. 경헨 술 나왕 술 영 먹으민 ᄒᆞ쏠 기자 도꼰허고 헌다게.(이리 촐촐촐촐 나와. 그래서 술 나와서 술 이렇게 먹으면 조금 그저 ‘도꼰허고’ 한다.) 31 [토평]

도나다: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끝에 씨가 떨어져 저절로 나다는 의미이다. // 춤웨 ᄒᆞ쏠 ᄒᆞᆫ 거 심건에 먹어낫는디 그거 털어지민 도나곡 도나곡 헤연.(참외 조금 한 그거 심어서 먹었었는데 그거 떨어지면 ‘도나곡’ ‘도나곡’ 했어.) 15 // 이젠 마농 메연에 이젠 그 마농 ᄐᆞ으멍 보난 녹디가 솟암서이. 그디 내부난 도난. 도난 쒀 앚앙 그 밧 전시 나시민 저푸게 날 건디. 도나난 잘도 아까완이.(이젠 마늘 매어서 이젠 그 마늘 뜯으면서 보니까 녹두가 솟고 있어. 거기 내버리니까 ‘도난’. ‘도난’ 쑤어 앉아서 그 밭 전부 났으면 엄청나게 날 건데. ‘도나난’ 아주 아까워서.) 33 [수망, 인성]

도나렛: 일본어 ‘도나리(となり)’로 근처, 서로 인접해 있는 집 또는 주위를 하는 말로 이웃집이나 이웃사이를 말하고 있다. // 도나렛 사람만. 그 ᄒᆞᆫ 자리에 모영은엥이. 그 제 지네곡.(‘도나렛’ 사람만. 그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제 지내고.) 04 [고성]

도나리: 일본어 ‘도나리(となり)’로 근처, 서로 인접해 있는 집 또는 주위를 하는 말로 이웃집이나 이웃사이를 말하고 있다. // 게도 ᄒᆞᆫ, ᄒᆞᆫ 동네 영 도나리에 ᄒᆞᆫ 두 사름썩은 싯주기게.(그래도 한, 한 동네 이렇게 ‘도나리’에 한 두 사람씩은 있지.) 26 [신창]

도내산: 애월읍 봉성리 북서쪽에 있는 오름이다. ‘어도오름’, ‘도노미’, ‘어도악’이라고도 불린다. // 도내산을 보니 엄청난 곶자왈이거든. 게서 그 꼭 그 관상쟁이 말 듣고 저 상가에 전 재산을 동생에게 물려줘 두고, 자기가 이 처가, 처가가 여기니까.(‘도내산’을 보니 엄청난 ‘곶자왈’이거든. 그래서 그 꼭 그 관상쟁이 말 듣고 저 상가에 전 재산을 동생에게 물려줘 두고, 자기가 이 처가, 처가가 여기니까.) 36 [봉성]

도너리오름: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오름이다. // 도너리오름 잇곡, 오름은 그거.(‘도너리오름’이 있고, ‘오름’은 그거.) 08 [동광]

도네기통: 남원읍 태흥리의 하천 이름이다. // 욜로 신흥리광 이 삼리 사이에 잇어. 그디가 도네기통, 도네기통 허멍 그디 물통이 잇어낫어, 아래.(요리로 ‘신흥리’와 이 ‘삼리’ 사이에 있어. 거기가 ‘도네기통’, ‘도네기통’ 하면 거기 ‘물통’이 있었었어, 아

래.) 25 [태흥]

도노미: 애월읍 봉성리의 지명이다. 도노미라고 불리우는 지역 명칭이 최초는 어음비도내산리로 불렀던 것으로 생각되며 한자표기 기록은 고려 희종 7년(1211) 당시에 도내산리로 표기되었고 그 후 고려 공민왕 원년(1352)까지 140여 년간 봉수대 위치를 도내리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도노미를 한자로는 도내산리로 사용하여 왔음을 알 수가 있다. // 봉성이 옛날 이름으로 도노미라. 도노미.(봉성이 옛날 이름으로 '도노미'야. '도노미'.) 27 // 한림초등학교에 귀덕이라든지 뚜로 저 도노미 아이도 한림초등학교, 중학교 때 걸엉 뎅겨십주게.(한림초등학교에 '귀덕'이라든지 따로 저 '도노미' 아이도 한림초등학교, 중학교 때 걸어서 다녔습지요.) 35 // 도내산이 뭐냐 허면은 도내메라. 옛날부떠 이 '도노미', '도노미' 헙니다.('도내산'이 뭐냐 하면 '도내메'이다. 옛날부터 이, '도노미', '도노미' 합니다.) 36 [대림, 봉성, 옹포]

도당: 일본어 'トタン'에서 온 말로 함석을 말한다. 지붕이 함석으로 된 집을 '도당집'이라고 한다. // 기와집은 하나토 엇어나고 저 도당.(기와집은 하나도 없었고 저 '도당'.) 20 // 경 아녀민 도당 갖다 부찌민 도당집이고.(그렇지 않으면 '도당' 갖다 붙이면 '도당집'이고.) 24 [고내, 세화]

도당집: 일본어 'トタン'에서 온 말로 지붕이 함석으로 된 집을 '함석집'을 말한다. // 남원리 엇어나서. 도당집 잇어낫주. 남원리는.('남원리' 없었어. '도당집'이 있었지.) 06 [남원]

도들: 나무를 엮어서 채롱 등을 얹을 수 있게 만든 선반을 말한다. // 혼 네 칸. 이젯말로 앵글인디 그때 말로 도들이라, 도들.(한 네 칸. 이젯말로 앵글인데 그때 말로 '도들'이야, '도들'.) 06 [남원]

도레기: 둥근 열매 따위나, 바퀴처럼 둥글어 돌아가게 된 것들을 일컫는 말이다. // 거 줄을 모아근에 벵벵 도레기로 사령 논다.(거 줄을 모아서 뱅뱅 '도레기'로 사려서 놓는다.) 12 // 그걸 이제 도레기처럼 벵벵 하나씩 ᄆᆞᆯ아 가지고 데몃다근에 그걸 마당에 내쳥 놧당 집 다 일면은 줄을 우터레 올려근에 그걸 풀면서.(그럴 이제 '도레기'처럼 뱅뱅 하나씩 말아 가지고 쌓았다가 그걸 마당에 내쳐서 놨다가 집 다 이면 줄을 위로 올려서 그걸 풀면서.) 12 [한동]

도레기: 피가 많이 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 경허난에 눈은 딱 ᄀᆞᆷ고 핀 도레기 나고 돌은 앗아 불고 우이론 판찍헤도 이디가 복삭허난 ᄑᆞᆯ이 엇인 거라.(그러니까 눈을 딱 감고 피는 '도레기' 나고 돌은 가져 버리고 위로는 '판찍헤도' 여기가 '복삭허난' 팔이 없는 거야.) 26 [신창]

도레미쏠: 메밀쌀의 굵기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그 중 가장 굵은 것을 가리킨다. // 자기 ᄆᆞ물 그 ᄆᆞ물쏠 멘글젠 허민 잘도 힘들어. 경헨 그 쏠 허민 쏠 세 가지로 헤여. 도레미쏠이라고 헤영 훍은 거. 그 다음은 보통 죽 끌령 먹곡.(자기 메밀 그 메밀쌀 만들려고 하면 아주 힘들어. 그래서 그 쌀 하면 쌀 세 가지로 해. '도

레미쏠'이라고 해서 굵은 거. 그 다음은 보통 죽 끓여서 먹고.) 06 // ᄆᆞ물묵인디 묵은 여러 가지로 치레 영 잘허는 사름은 아까 ᄀᆞ튼 ᄉᆞ레기나 그 저 도레미쏠 훍은 거는 안 뒈고이.(메밀묵인데 묵은 여러 가지로 치레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까 같은 싸라기나 그 저 '도레미쏠' 굵은 거는 안 되고.) 06 [남원]

도련드르: 제주시 도련1동의 옛 이름이다. // 지금 현재로서는 그 멧 명이 산다는 건, 건 확실하지 못허고, 아파트를 제외하고 이 도련드르에만 사는 그 분들은 한 백삼십여 호.(지금 현재로서는 그 몇 명이 산다는 건, 건 확실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제외하고 이 '도련드르'에만 사는 그 분들은 한 백삼십여 호.) 01 [도련]

도로기: 오이나 물외가 막물 되어갈 무렵 자잘하게 여는 오이나 물외를 일컫는 말이다. // 물웨지도 그 마지막에 ᄌᆞᆫᄌᆞᆫᄒᆞ게 막 영 도로기 열지 않읍니까?('물웨지'도 그 마지막에 자잘하게 막 이렇게 '도로기' 열지 않습니까?) 08 [동광]

도로보: 일본어 'どろぼう'에서 온 말로 '도둑질', '도둑'이라는 뜻이다. // 일본말이라 도로보. 도둑질헌덴 말이주, 도로보가.(일본말이야 '도로보'. 도둑질한다는 말이지, '도로보'가.) 02 [선흘]

도로소: 한림읍 월령리에 있는 물 이름이다. // 도로소, 도로소옌 헌 건 바당물인디 동그랑허게이, 영 동그랑허게 바우로 뒈 가지고 영 강 보믄 참 멋져.('도로소', '도로소'라고 한 건 바닷물인데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바위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가서 보면 참 멋져.) 10 [월령]

도록도록: 방울 따위가 연이어 떨어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말똥은 도록도록 털어지니까 요만씩 허니까 재기 ᄆᆞ르믄 그런 걸로만.(말똥은 '도록도록' 떨어지니까 요만큼씩 하니까 빨리 마르면 그런 걸로만.) 11 // 그릇 받앙. 경허영 가져와근에. 이젠 그추룩 헤영 또 미녕을 짜젠 허면은 그런 실을 빠젠 허면은 이상헌 거라게. 이렇게 허면 요 트멍에 이렇게 접지면은 멘네는 절로 나가고 씨만 도록도록 털어정.(그릇 받아서. 그래서 가져와서. 이젠 그처럼 해서 또 무명을 짜려고 하면 그런 실을 뽑으려고 하면 이상한 거야. 이렇게 하면 요 틈에 이렇게 '접지면은' 면화는 절로 나가고 씨만 '도록도록' 떨어져서.) 20 [고내, 함덕]

도롬: 길마에 짐을 멜 때 한쪽에 멜 수 있는 한 묶음의 단위를 말한다. // ᄒᆞᆫ 도롬, 두 도롬, 세 도롬 헤 가지고서 그 앞, 그 ᄒᆞᆫ 밧데 앞에 조가 또 쉐 헌 게 네 못썩, 다섯 못썩 헨 시끄주게.(한 '도롬', 두 '도롬', 세 '도롬' 해 가지고서 그 앞, 그 한 군데 앞에 조가 또 소 하는 게 네 뭇씩, 다섯 뭇씩 해서 싣지.) 12 [한동]

도롯물: 제주시 외도동의 물 이름이다. 도로가 파여서 생긴 물이라고 한다. // 글로 헤근에 이레 이리 물 그냥 내려오니까 여기가 그냥 이거 물 저 비가. 크믄 막 그냥 이제 사름 끗을 정도로. 도롯물질. 그것을 도롯물이라고.(거기로 해서 이리로 이리 물 그냥 내려오니까 여기가 그냥 이거 물 저 비가. 크면 막 그냥 이제 사람 끌 정도로. '도롯물질'. 그것을 '도롯물'이라고.) 29 [외도]

도롯물질: 제주시 외도동의 길 이름이다. '도롯물'이 흘렀던 길이라는 의미이다. // 글로 헤

근에 이레 이리 물 그냥 내려오니까 여기가 그냥 이거 물 저 비가.크믄 막 그냥 이제 사름 끗을 정도로. 도롯물질. 그것을 도롯물이라고.(거기로 해서 이리로 이리 물 그냥 내려오니까 여기가 그냥 이거 물 저 비가. 크면 막 그냥 이제 사람 끌 정도로. '도롯물질'. 그것을 '도롯물'이라고.) 29 [외도]

도루묵: 대정읍의 한 지명이다. // 팔게 뒈난 저 서부락 상사 저 끝에 시껑 가렌 허민 쉐구루마도 엇곡 허난에 이젠 놈의 구루마 빌언에 시껑가젠 허난 시껑가난에 서부락 상사 신 디 강 보난 질르레 밋밋 사름들 막 ᄉᆞ뭇 하영 헌 사름들이난 우린 저 도루묵더레 새동네ᄁᆞ지 가사 그걸 놈의 구루마에 빌언 시껑강 푸게 뒈연.(팔게 되니까 저 '서부락' 향사 저 끝에 실어서 가라고 하면 소달구지도 없고 하니까 이젠 남의 달구지 빌려서 실어가려고 하니까 실어가니까 '서부락' 향사 있는 데가 보니까 길에 '밋밋' 사람들 막 사뭇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우린 저 '도루묵'으로 '새동네'까지 가야 그걸 남의 달구지에 빌려서 실어가서 푸게 되었어.) 33 [인성]

도릇밧: 성산읍 삼달리 한 지명이다. // 도릇밧 강씨 하르방 체암 온 하르방덜은 경허곡 그 하르방 아덜덜은 가지가지 허민, 가지가지 허민 따시 ᄌᆞ손 헤 가민, 친제허는 거, 모제허는 디 이디도 허곡 저디도 허곡 허민 다 가고.('도릇밧' 강씨 할아버지 처음 온 할아버지들은 그렇고 그 할아버지 아들들은 가지가지 하면, 가지가지 하면 다시 자손 해 가면, '친제허는' 거, 묘제하는 데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면 다 가고.) 13 [삼달]

도리: 겹을 쌓는 둘레의 단위로 차곡차곡 둥그렇게 빙 돌아 한 바퀴를 쌓은 것,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 명사이다. '두레'의 제주어이다. // 대나무썹을 좀 훍은 걸로 깨끗이 양끗 다 그차 두고 떡 ᄒᆞᆫ 도리 놔 가지고 대나무썹 ᄒᆞᆫ 도리 수빡 더끄곡 또 ᄀᆞ루 ᄒᆞᆫ 도리 놩 대나무썹 더끄곡 헤영 쳐 내민 떡 영 헹 비여더근에 대나무썹 떼 내고.(댓잎을 좀 굵은 걸로 깨끗이 양끝 다 잘라 두고 떡 한 '도리' 놔 가지고 댓잎 한 '도리' 가득 덮고 또 가루 한 '도리' 넣고 댓잎 덮고 해서 쪄 내면 떡 이렇게 해서 베어서 댓잎 떼어 내고.) 06 // 숨메를 징징이 이런 ᄒᆞᆫ 도리 놓면은 또 놔 강 또 숨메 놩 놓곡 놓곡 허민 떡을 비어가면은 톡톡 테져.('숨메'를 층층이 이런 한 '도리' 놓으면 또 놔서 가서 또 '숨메' 놔서 놓고 놓고 하면 떡을 베어가면은 톡톡 떼져.) 11 // 깔아근에 솔입 ᄒᆞᆫ착, ᄒᆞᆫ 도리 놩 우터레 또 솔입 놔 근에 경헤근에 찌는 거. 경허민 ᄆᆞᆫ 기려지고 솔벤에 ᄆᆞᆫ 기려지고.(깔아서 솔잎 한쪽, 한 '도리' 놔서 위로 또 솔잎 놔서 그래서 찌는 거. 그러면 모두 그려지고 솔편에 모두 그려지고.) 31 [남원, 토평, 함덕]

도리: 기둥과 기둥 위에 건너 얹는 나무를 말한다. // 도리도 그 뭐시기엔 ᄀᆞᆫ나엇이 ᄀᆞᆯ아라. 아방 무시거 헐 때 도리가 어쩌구 어쩌구 허멍.(도리도 그 뭐라고 말 할 나위 없이 말해. 아버지 뭐 할 때 도리가 어쩌구 어쩌구 하면서.) 07 [보목]

도리: 조천읍 교래리의 옛 명칭이다. // 게난 나가 엿날 ᄎᆞᆷ 교래리를. ᄎᆞᆷ 엿날 그 제주시

황세왓 글루 헤연. 그 도리를 촛안 올라간.(그러니까 내가 옛날 참 '교래리'를. 참 옛날 제주시 '황세왓' 거기로 해서. 그 '도리'를 찾아서 올라갔어.) 04 [고성]

도리눌: 동그랗게 가리는 가리를 말한다. // 동글랑허게 누는 건 도리눌.(동그랗게 가리는 건 '도리눌'.) 13 [삼달]

도리못: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지명으로 지금의 덕수리 상동을 말한다. // 그자 뭔 나무에 올라도양, 어디 뭐 저 도리못 큰 폭낭 엿날 폭낭 그른, 저 그른 폭낭엔 헌 거 이신디양.(그저 뭔 나무에 올라도요, 어디 뭐 저 '도리못' 큰 팽나무 옛날 팽나무 그런, 저 그런 팽나무라고 한 거 있는데요.) 32 [덕수]

도리버즘: 버짐의 한 종류로, 타원형의 반점이 생기는 버짐을 말한다. // 버즘 낫을 땐, 버즘도 무신 버즘 잇어 저 도리버즘 잇고 무신 버즘 잇주게.(버짐 났을 땐, 버짐도 무슨 버짐 있어 저 '도리버즘'도 있고 무슨 버짐 있지.) 06 // 이디 벵 돌르게 헤영 양지에 거 만이 나주. 벵 돌르는 거, 거 도리버즘이엔 헌다.(여기 뱅 두르게 해서 얼굴에 거 많이 나지. 뱅 두르는 거. 거 '도리버즘'이라고 한다.) 12 [남원, 한동]

도리우찌: 일본어 'とりうちぼう'에서 온 말로 챙이 짧고 덮개가 둥글넓적한 모양의 모자로 사냥모자, 납작모자라고 한다. // 이디 영 좁앙 쓰는 것고란 도리우찌, 거 다 일본말입주게.(여기 이렇게 접어서 쓰는 것더러는 '도리우찌', 그거 다 일본말입니다.) 35 [대림]

도마리: 일본어 'とまり'에서 온 말로 '끝'의 의미로 쓴 것이다. // 밥허젠 허민 미릇 보리쏠 씻어근에 솖앙 조 엇은 사름은 보리밥으로 물 맞춰 그냥 그대로 도마리 뒈는디 밧 신 사름은 조 허민 보리쏠 놩 솖당인에 물이 ᄒᆞ쏠 거저 보리쏠이 익은 거 닮으민 좁쏠 우터레 서껑.(밥하려고 하면 미리 보리쌀 씻어서 삶아서 조 없는 사람은 보리밥으로 물 맞춰서 그냥 그대로 '도마리' 되는데 밭 있는 사람은 조 하면 보리쌀 놔서 삶다가 물이 조금 거의 보리쌀이 익은 거 같으면 좁쌀 위로 섞어서.) 33 [인성]

도메: 일본어 'とめ'로, 여기서는 머리핀의 의미로 쓰였다. // 도메 강 바꽈당 빈주룽허게 도메 하영 찔른 것도 가다엔 허멍.('도메' 가서 바꿔다 느런히 '도메' 많이 찌른 것도 모양이라고 하면서.) 05 // 그건 그자 저 도메 ᄀᆞ뜬 거 바농 ᄀᆞ뜬 거 올앙 먹어마씨.(그건 그저 저 '도메' 같은 거 바늘 같은 거 열어서 먹어요.) 32 [덕수, 표선]

도메: 일본어 'とめ'에서 온 말로, '멈추게 함 또는 멈추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도절귀 허주게. 문, 문 저 도메 시키는 건, 옛날엔 밀장이 아니라 열고 닫아 허는 거니까.(돌쩌귀 하지. 문, 문 저 '도메' 시키는 건. 옛날엔 미닫이가 아니라 열고 닫고 하는 거니까.) 06 [남원]

도메허다: 일본어 'とめる'에 '허다'가 결합된 형태로 정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경헨 아시날 그거 먹고 뒷날은 저 신랑, 신부 다 도메헤영 보내고 부지, 친족 간덜 그

친족덜은 가문잔치날 쏠 아져와 오멍.(그래서 전날 그거 먹고 뒷날은 저 신랑, 신부 다 '도메헤영' 보내고 부조, 친족 간들 그 친족들은 '가문잔치날' 쌀 가져와 오면서.) 06 [남원]

도박: 해조류의 한 종류이다. // 도박게. 우밋가사리보단 ᄒᆞ썰 넙직넙직허영. 그 도박에 우미가사리 허고 전복 허고 미역 허고 경헷주게.('도박'. 우뭇가사리보단 조금 넓적넓적해서. 그 '도박'에 우뭇가사리 하고 전복 하고 미역 하고 그랬었지.) 26 [신창]

도벌목: 허가 없이 산의 나무를 몰래 베어내는 일을 말한다. // 이젠 세상이 쫌 이 한라산에 폭도도 어느 정도 좀 진압이 뒈고 뭘 헨 허니까 한라산에 도벌목을 허레 다님 시작헷주.(이젠 세상이 좀 이 한라산에 폭도도 어느 정도 좀 진압이 되고 뭘 해서 하니까 한라산에 '도벌목'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지.) 14 // 한라산에 강 산감덜 몰르게 강 낭 도둑질 헤오는 게 도벌목이주.(한라산에 가서 산감들 모르게 가서 나무 도둑질 해오는 게 '도벌목'이지.) 14 [성읍]

도복: 표준어 도포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게메 도복도 만들곡 바지저고리도 만들고.(글쎄 '도복'도 만들고 바지저고리도 만들고.) 16 [하원]

도분: 지적도 혹은 지도를 뜻하는 것으로 위도와 경도를 읽는 도분초 방식에서 온 말인 듯하다. // 도분게, 이 저 지적도, 지적도. 지적도에 어느 지경은 이제 선흘 지경에 물통이 잇다. 그 반못이 ᄃᆞᆯ아졋어.('도분', 이 저 지적도, 지적도. 지적도에 어느 지경은 이제 '선흘' 지경에 '물통'이 있다. 그 '반못'이 'ᄃᆞᆯ아졋어'.) 02 [선흘]

도새기새끼훼: 돼지의 태를 잘게 다진 후에 물과 마늘, 식초, 참기름 등 갖은 양념을 넣어 만든 음식이다. // 그 도새기새끼훼. 그것도 훼 허영 먹고. 아이그, 경 헤난.(그 '도새기새끼훼'. 그것도 회 해서 먹고. 아이고, 그렇게 했었어.) 29 [외도]

도새기집: 돼지우리 안에 집처럼 꾸며진 공간이다. 동그랗고 자그마하게 삼면(三面)으로 담을 쌓아 올려서 위에 검불을 덮고 한쪽 면을 터서 돼지가 드나들게 한 막이다. // 김○○이옌 ᄒᆞ는 사름인디 새집 지선에, 오란 ᄒᆞᆫ 삼 년벳기 안 산 사름인디 그땐 저 도새기집을 크, 도새기집, 도새기 살 디를 막 크게 크게 ᄒᆞ엿어.(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새 집 지어서, 와서 한 삼 년밖에 안 산 사람인데 그땐 저 '도새기집'을 크게, '도새기집', 돼지 살 데를 아주 크게, 크게 하였어.) 08 // 돗집이 아니라 옛날 도새기집이엔 헷주.('돗집'이 아니고 옛날 '도새기집'이라고 했지.) 14 // 도새기집만 더프는 건 주로 봣어. 막 오래 가더라고.('도새기집'만 덮는 건 주로 봤어. 아주 오래 가더라고.) 30 [노형, 동광, 성읍]

도속: 각자 개인적으로 분배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아서 판다는 의미이다. // 이제 다 ᄀᆞᆺ드레 지어 올령 ᄆᆞᆯ령 도속으로 ᄑᆞᆯ아낫어.(이제 다 갯가로 져 올려서 말려서 '도속'으로 팔았었어.) 11 [함덕]

도슬기착: 대오리로 엮은 도시락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동고령', '밥당석'이라고도 한다. // 마농지 쌍 가믄 마농 내. 도슬기착에 싸는 놈, ᄀᆞᆯ락박세기에 싸는 놈, 박세기

에 싸는 놈, 여라 가지라.(마늘장아찌 싸서 가면 마늘 내. '도슬기착'에 싸는 놈, '콜락박세기'에 싸는 놈, 바가지에 싸는 놈, 여러 가지이다.) 17 [대평]

도에늣개통: 성산읍 온평리 바닷가 '도에'라는 곳에 있는 '늣개통'을 말한다. 늣개통은 바다 이끼가 생기는 바닷가 물통이라는 뜻이다. // 신동산늣개통, 여맞은개늣개통, 도에늣개통, 몰레알늦개통 다 잇주게.('신동산늣개통', '여맞은개늣개통', '도에늣개통',' 몰레알늦개통' 다 있지.) 23 [온평]

도에바당: 성산읍 온평리의 바다 이름의 하나이다. // 요게 도에바당 이름이.(요게 '도에바당' 이름이.) 23 [온평]

도욕: 물레의 '고동'을 말한다. 물렛가락의 윗몸에 끼워 고정시킨 두 개의 구슬 같은 물건이다. // 하이튼 뭐 허당도 식게칩이 가믄, 쏠 떨어졋덴 허영, 요거 요만헌 도욕만이 헌 적갈 하나.(하여튼 뭐 하다가도 제삿집에 가면, 쌀 떨어졌다고 해서, 요거 요만한 '도욕'만큼 한 '적갈' 하나.) 28 [구엄]

도원: 서귀포시 도순동을 의미한다. // 옛날 제주도 전체적으로 토지 비옥도를 봐서 일 강정 이 도원 헷주게.(옛날 제주도 전체적으로 토지 비옥도를 봐서 일 '강정' 이 '도원' 했지.) 18 [신도]

도제: 어디로 들어가는 입구인 '도'에서 지내는 '제'를 말한다. // 새해 낭, 게난 그 멩질을 산에서 헹 먹엇어. 멩질도 허는 사름덜은 막 헤. 겐 우리 어무니도 허더라. 그 도제로 막.(새해 돼서, 그러니까 그 명질을 산에서 해서 먹었어. 명질도 하는 사람들은 마구 해.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하더라. 그 '도제'로 마구.) 30 [노형]

도틀굴: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작은 굴 이름이다. // 여라 갠 미시거. 목시물굴 ᄒᆞ나. 도틀굴이여, 대섭이굴이여 잇주마는 굴덜 헤끔썩 헌 것덜이여.(여러 개는 무슨. '목시물굴' 하나. '도틀굴'이다, '대섭이굴'이다 있지마는 굴들 조그마한 것들이야.) 02 [선흘]

도항선: 성산읍 성산항에서 우도면 사이를 다니며 운항하는 연락선을 통틀어 말한다. // 도항선은 그 구십이년, 구십년도ᄁᆞ지만 헤드라도 범선, 저 옛날 아주 옛날에는 범선이 뎅기기 시작헤수다.('도항선'은 그 구십이년, 구십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범선, 저 옛날 아주 옛날에는 범선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2 [우도]

도ᄒᆞ루눈: 대정읍의 지명이다. // 구억리 그 도ᄒᆞ루눈이엔 헌 대정 지경에 오랑덜 다 움막 메우멍 살앗어, 서광 사름덜.('구억리' 그 '도ᄒᆞ루눈'이라고 한 '대정' 지경에 와서들 다 움막 메우면서 살았어, '서광' 사람들.) 33 [인성]

독가시: 독가시치를 말한다. // 다찌라고 저것이 독가시엔 헌 건디, 표준말로 독가시.('다찌'라고 저것이 '독가시'라고 하는 건데, 표준말로 독가시치.) 12 [한동]

독고대: 한림읍 대림리에 위치한 지경 이름이다. // 독고대에 살아난 ○○엔 헌 사름이 살아나신디 우리 밧디 거 싱거신디 나머지 것도 허영 돈 나건 갈르자 허연 겐 벵작 줘불엇수다.('독고대'에 살았던 ○○라고 한 사람이 살았었는데 우리 밭에 거 심었는데 나머지 것도 해서 돈 나건 가르자 해서 그래서 병작 줘버렸습니다.) 35

[대림]

독고동: 한림읍 지역의 자연 마을의 하나이다. // 저 서쪽에. 한림 넘어강. ○○이 뚤 시집간 디가 어디? 저 어디. 독고동 밑에.(저 서쪽에. '한림' 지나가서. ○○이 딸 시집간 데가 어디? 저 어디. '독고동' 밑에.) 01 [도련]

독고동산: 대정읍 인성리의 한 지명이다. // 게난 독고동산 아인디 아기뻬 맞촷젠 허멍 하필 친정어멍이 요디 동네 사난 들아간에 허난. 그때 여름에란게 간 보난에 막 아기 어멍은 쳇 애기난, 그 집이 나 아기 네 개 내왓주게.(그러니까 '독고동산' 아인데 '아기뻬' 맞췄다고 하면서 하필 친정어머니가 요기 동네 사니까 달려가서 하니까. 그때 여름에던데 가서 보니까 막 아기 어머니는 첫 아기니까, 그 집에 나 아기 네 명 낳게 했지.) 33 // 연 지치렌 아부진 영 잡아뎅겨. 경헹 영 영 헹인에 잘 뒈민 그땐 저디 독고동산에 살 때난이 이런 낭서리도 잘 엇곡 허난 오랑은에 지둥에 무꺼.(연 날리라고 아버지 이렇게 잡아당겨.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되면 그땐 저기 '독고동산'에 살 때니까 이런 나무도 잘 없고 하니까 와서 기둥에 묶어.) 33 [인성]

독그슬: 구좌읍 한동리 바다 이름의 하나로, '독그슬개'라고도 한다. // 저 독그슬에 물 막 차가운 바닷물 거기도 가고.(저 '독그슬'에 물 아주 차가운 바닷물 거기도 가고.) 12 [한동]

독물오름: 애월읍 봉성리 산간에 있는 오름이다. // 그 우트레 올라가민 저디 궤밀오름, 독물오름.(그 위로 올라가면 저기 '궤밀오름', '독물오름'.) 36 [봉성]

독심터: 옛날 한림읍 대림리에서 책 읽고, 글공부하는 쉼터이다. // 대림리사무소 잇어나기 전에 그 저 독심터라고 헤 가지고, 이젠 부인회장네 집덜 짓엇수다만, 거기 집 읏을 때는 대림, 상대, 귀덕 사름덜이 와 가지고 그 여기 와서 글공부를 헤나십주.('대림리' 사무소 있기 전에 그 저 '독심터'라 해 가지고, 이젠 부인회장네 집들 지었습니다만, 거기 집 없을 때는 '대림', '상대', '귀덕'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 여기 와서 글공부를 했었지요.) 35 [대림]

독짓굴: 제주시 외도동의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독, 그에 대해서 독짓굴이라고 허는가. 마 그런 것도 연유 가트고. 저쪽으로 가면 저실이라고 뒈지 저실이니까 뒈지 저 자에 그 열매 실 자를 허니까 그게 어떤 말인지 나는 모르겟어요. 그디를 저실이라고 헙니다.(독, 그에 대해서 '독짓굴'이라고 하는가. 마 그런 것도 연유 같고. 저쪽으로 가면 '저실이'라고 돼지 '저실'이니까 돼지 저 자에 그 열매 실 자를 하니까 그게 어떤 말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거기를 '저실이'라고 합니다.) 29 [외도]

독쿨: 풀 종류의 하나이다. // 물ᄆᆞ작쿨이여 독쿨이여. 경허민 거 저 요새 베체기쿨 그런 거는 꼿 피주게.(쇠무릎이다 '독쿨'이다. 그러면 거 저 요새 질경이 그런 거는 꽃 피지.) 31 [토평]

돈내코: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계곡이다. // 모욕, 물 어디 시니? 돈내코 강 나 물 ᄒᆞᆫ 허

벅 졍 오민 우리 헤영 먹음이 어려워나시녜게.(목욕, 물 어디 있니? '돈내코' 가서 내가 물 한 '허벅' 지고 오면 우리 해서 먹기가 어려웠었어.) 31 // 우리 돈내코 물 주로 먹엇저.(우리 '돈내코' 물 주로 먹었어.) 31 [토평]

돈두악: 대정읍 영락리에 있는 봉우리를 의미한다. // 게서 돈두악허고 이게 내 일과리허고 이게 금악 사이에는 우리 마을이 그 당산봉에서 일과리 저게 영락이 밑에 돈두악하고 헤서 하표를 헤 가지고 요건 뒌개라는 이름으로 그저 마을을 쭉. 운영헤 오다가.(그래서 '돈두악'하고 이게 내 '일과리'하고 이게 '금악' 사이에는 우리 마을이 그 '당산봉'에서 '일과리' 저게 '영락'이 밑에 '돈두악'하고 해서 하표를 해 가지고 요건 '뒌개'라는 이름으로 그저 마을을 쭉. 운영해 오다가.) 18 [신도]

돈오름: 표선면 세화리의 옛 지명이며, 달리 '돈내오름'이라고도 한다. // 노리는 내려오지 않고. 노리는 이 저 서화리에. 돈오름.(노루는 내려오지 않고. 노루는 이 저 '서화리'에. '돈오름'.) 05 // 어머니 고향은 서서와리, 돈오름. 돈오름 강칩이 뚤이라.(어머니 고향은 '서서와리', '돈오름'. '돈오름' 강씨 집안 딸이야.) 13 // 뻥뻥 둘라진 듸난에 돈오름이엔 헴사 헴신디 몰루쿠다.(뺑뺑 둘러진 데라서 '돈오름'이라고 말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4 [삼달, 세화, 표선]

돈포: 대정읍 지명의 하나로 현재 고산과 신도2리 사이를 말한다. // 이 셋째 번째 에 그 분이 그 도사 개설 한 분이 제주도로 귀양 오면서 그 당시 돈포 그 당시 돈포 현재는 고산이주만은. 그 당시 돈포에 적거 생활을 허면서 훈락을 헷단 기록으로 보면은.(이 셋째 번째 에 그 분이 그 도사 개설 한 분이 제주도로 귀양오면서 그 당시 '돈포' 그 당시 '돈포' 현재는 '고산'이지만. 그 당시 '돈포'에 적거 생활을 하면서 '훈락'을 했단 기록으로 보면.) 18 [신도]

돌개판: 횡대로 쓸 나부죽한 돌을 말한다. 즉 '돌횡대'인 셈이다. // 돌개판, 돌개판 헤난에, 거 저 그디 이묘허는 사름들이, 야, 엿날에 잘살아낫수다 허멍 헨.('돌개판', '돌개판' 하니까, 거 저 거기 이묘하는 사람들이, 야, 옛날에 잘살았습니다 하면서 했어.) 15 [수망]

돌겡이밧: 아주 작은 밭을 말한다. // 막 배 아파 가고 허난 놈이 창고 시난 창고에 영 간사난 배가 아니 아프는 거라. 안 아판에 이젠 또 막 돌아오단 영 냇골 엠에 돌겡이밧 잇저, 영 집더레 오는 디. 붓딘 디여, 밧은게. 겡헨 오단에 막 똥 무려우난 게 에염더레 앚으난 애기 대가리가 나오지 안허느냐.(마구 배 아파 가고 하니까 남의 창고 있으니까 창고에 이렇게 가서 서니까 배가 안 아픈 거야. 안 아파서 이젠 또 마구 돌아오다가 이렇게 내 옆에 '돌겡이밧' 있어, 이렇게 집으로 오는데. 밭은 데야, 밭은. 그래서 오다가 아주 똥 마려우니까 옆에 앉으니까 아기 대가리가 나오지 않니.) 31 [토평]

돌귀클: 벽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나무로 된 귀틀을 말한다. 이불 등 무거운 짐을 오래 쌓아두면 벽장 바닥의 형태가 아래로 쳐질 걸 염려해서 벽장바닥 위로 휘어지게 귀틀을 만든 듯하다. // 그 그 나물 이렇게 만들아 가지고 그 그걸 보고 시렁,

시렁귀클이엔 허는데, 그 일름이 시렁귀클 헤 가지고 그 돌귀클이엔 헤가지고 그 맞인 그 돌귀클이엔 헌 건 거 공간이기 때문에 나무 약간 곱으트릉헌 걸 헤야뒘 양.(그 그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그걸 보고 벽장, '시렁귀클'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시렁귀클' 해 가지고 그 '돌귀클'이라고 해 가지고 그 맞은 그 '돌귀클'이라고 한 건 그거 공간이기 때문에 나무 약간 휘어지듯 한 걸 해야 돼요.) 15 [수망]

돌ᄀᆞ레접: '돌ᄀᆞ레' 즉, 연자매를 공동으로 꾸리기 위해 만든 계이다. // 돌ᄀᆞ레접은 그거는 ᄀᆞ레 ᄀᆞᆯ 때마다 여름 봄 봄허곡 겨울허고 그거 자꾸 사용허니까.('돌ᄀᆞ레접'은 그거는 맷돌 갈 때마다 여름 봄 봄하고 겨울하고 그거 자꾸 사용하니까.) 23 [온평]

돌끌: 돌을 깰 때 사용하는 끌이다. // 돌끌은 건 석공이 허는 거고.('돌끌'은 건 석공이 하는 거고.) 14 [성읍]

돌담벡: 돌담을 쌓아 만든 벽을 말한다. // 돌담벡이면 이 돌담벡 안으로 시렁을 만들엇잖아이.('돌담벡'이면 이 '돌담벡' 안으로 벽장을 만들었잖아.) 14 [성읍]

돌도고리: 돌로 둥글넓적하게 만든 그릇이다. 주로 돼지 먹이를 주는 그릇으로 활용된다. // 경 어느 정도 헤나민 그 돌도고리도 고망을 ᄠᅩᆯ롸, 게 고망 처음에 헐 떡에는 고망을 막앗당, 내중엔 그걸 다 써나민 영 ᄯᅳ시 그걸 빼버려.(그렇게 어느 정도 하면 그 '돌도고리'도 구멍을 뚫어, 그럼 구멍 처음에 할 적에는 구멍을 막았다가, 나중에는 그걸 다 쓰면 이렇게 다시 그걸 빼버려.) 22 [우도]

돌ᄃᆞ리: 돌다리라는 뜻으로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다리이다. // 근디 한 아침새벽 ᄒᆞᆫ 세 시경에 구루마에 걸름을 시껀 저 무등이왓이엔 ᄒᆞ는 디 사름 죽어난 동네에 우리 살아나니깐, 그디 밧이난 그걸 끗엉 가는디 요 돌ᄃᆞ리엔 ᄒᆞᆫ 딘 가니까 쉐가 갑자기 가지를 안 ᄒᆞ여.(그런데 한 아침 새벽 한 세 시경에 마차에 거름을 실어서 저 '무등이왓'이라고 하는 데 사람 죽었던 동네에 우리 살았으니깐, 거기 밭이니까 그걸 끌어서 가는데 요 '돌ᄃᆞ리'라고 한 데 가니까 소가 갑자기 가지를 안 해.) 08 [동광]

돌떠리내: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내(川)이다. // 저 또 돌떠리내엔 ᄒᆞᆫ 거 잇곡, 여기.(저 또 '돌떠리내'라고 한 거 있고, 여기.) 08 [동광]

돌레: 둥근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서는 '돌레떡'을 가리킨다. // 굿 돌레, 예, 돌레떡 예. 그거 헹 가져 갓던 거.(굿 '돌레', 예, '돌레떡'요. 그거 해서 가지고 갔던 거.) 06 [남원]

돌레: 둥근 켜로 된 덩어리를 세는 단위인 '두레'의 의미로 쓰였다. // 누룩 ᄑᆞ니까 비싸도 안허주게. ᄒᆞᆫ 삼백 원, 사백 원 ᄒᆞᆫ 돌레에.(누룩 파니까 비싸지도 않지. 한 삼백 원, 사백 원 한 '돌레'에.) 06 [남원]

돌레: 멩석·멱 따위의 가로 건너 짜는 실을 말한다. 표준어로 '씨실', '씨', '위'라고도 한다. // 그것도 깍허고 표시뒈는, 깍허고 돌레허고 뒤치기허고 세 가지 나눕니다.(그것

도 총하고 표시되는, 총하고 '돌레'하고 뒤축하고 세 가지 나눕니다.) 35 // 돌레는 이디 깍허고 뒤치기 것을 영 헤놩 무꺼지는 겁주기. 신 아이 벗어지게.('돌레'는 여기 총하고 뒤축 것을 이렇게 해놔서 묶어지는 거지요. 신이 안 벗어지게.) 35 [대림]

돌레떡: 메밀이나 좁쌀가루 따위로 쟁반만큼 크고 둥그렇게 만든 떡이다. 표준어 '도래떡'과 비슷하다. 주로 당에 갈 때나 부조떡으로 많이 만든다. // 그 다 모믈. 그 저, 다 심방안티 가는 돌레떡도 다 ᄆᆞ믈.(그 다 메밀. 그 저. 다 무당한테 가는 '돌레떡'도 다 메밀.) 04 // 굿ᄒᆞᆯ 때는 돌레떡이여 손내성이여 발내성이여 그런 거 잇는디 나 그런 거 몰라.(굿할 때는 '돌레떡'이야 '손내성'이야 '발내성'이야 그런 것 있는데 나는 그런 거 몰라.) 15 // 손으로 만들어야 돌레떡인디, 그자 동글랑허게만 기자 돌레떡이엔 헨, 동글랑허게만 사발로 딱딱 떤 놔선게. 나 ᄒᆞᆫ번 굿밧듸 강 ᄀᆞ만히 보난에.(손으로 만들어야 '돌레떡'인데, 그저 동그랗게만 그저 '돌레떡'이라고 해서, 동그랗게만 사발로 딱딱 떠서 놨더라. 나 한번 굿마당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25 // 돌레떡, 거 손으로 영 영 영 허멍 만들앙, 동글락허게 만들아근에. 게 그것도 저 곤ᄉᆞᆯ 물 ᄃᆞᆼ강 ᄀᆞᆯ아당. 건 손으로만 만들아근에 물에 놩, 팔팔 끌으는 물에 들이쳥 ᄉᆞᆲ읍니다.('돌레떡', 거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래 그것도 저 흰쌀 물 담가서 갈아다가. 건 손으로만 만들어서 물에 놔서, 팔팔 끓는 물에 들이쳐서 삶습니다.) 34 [고산, 고성, 구억, 구엄, 남원, 대림, 대평, 덕수, 동광, 보목, 세화, 송당, 수망, 월령, 태흥, 하원]

돌렝이: 자그마한 바구니를 말한다. // 낚시대 놓곡덜 그 갈치 나끄는 줄이영 행장이영 놩. 엿날은 그 돌렝이베끼 더 셔사게. 그 질구덕 새끼 친 ᄃᆞᆯ앙 보제기 메영 뎅기고.(낚시대 놓고들 그 갈치 낚는 줄이랑 행장이랑 놓고. 옛날은 그 '돌렝이'밖에 더 있어. 그 '질구덕' 새끼 끈 달아서 어부 메서 다니고.) 26 [신창]

돌록: 안덕면 감산리에 있는 지형 이름이다. // 감산 가튼 디는 돌록이여 머여 막 만ᄒᆞ는디, 요 군산 아픠 요거 펭풍 친 거 ᄀᆞ찌 이거뿐인디, 군산 아픠도 열리 지경이 하영 들어불엇어.('감산' 같은 데는 '돌록'이야 뭐야 아주 많은데, 요 '군산' 앞에 요거 병풍 친 거 같이 이것뿐인데, '군산' 앞에도 하예리 지경이 많이 들어버렸어.) 17 [대평]

돌방에: 돌절구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연자매의 의미로 쓰였다. // ᄉᆞᆯ보리는 힘이 들고 ᄉᆞᆯ보리는 이제 껍데기가 얄루니까 이제 정미헹 돌방에서 둥글이는데 아주.(쌀보리는 힘이 들고 쌀보리는 이제 껍데기가 얇으니까 이제 정미해서 '돌방에'서 굴리는데 아주.) 19 [청수]

돌빌레: 돌무더기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을 말한다. // 엿날은 밧 어젱이 돌빌레도 다, ᄒᆞᆫ 밧이라도 다 돌르멍. 이제 그것도 이전 못 헤서.(옛날은 밭 가장자리 '돌빌레'도 다, 한 밭이라도 다 도르면서. 이제 그것도 이전 못 했어.) 26 [신창]

돌산갓: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마을의 갓나물을 '돌산갓'이라고 말한다. // 이제 이젠 그 돌산갓이엔 헷주만은, 엿날엔 퍼렁헌 갓. 그저 퍼렁ᄒᆞ진 아녀고 저.(이제 이젠 그 '돌산갓'이라고 했지만, 옛날에는 퍼런 갓. 그저 퍼렇진 안하고 저.) 04 // 작년 꺼장은 돌산갓 허영 막 허여난. 돌산갓 김치.(작년까지는 '돌산갓' 해서 많이 했었어. '돌산갓' 김치.) 26 [고성, 신창]

돌새기: 표선면 표선리하고 가시리의 중간 지점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 돌새기 멀지 안 허우과게. 그디서 이제 여기 오젠 허면은 이제 네 팀. 네 팀이 ᄒᆞᆫ 팀이 두 개주기.('돌새기' 멀지 안 합니까. 거기서 이제 여기 오려고 하면 이제 네 팀. 네 팀이 한 팀이 두 개지.) 05 [표선]

돌오름: 안덕면 상천리 영아리오름 북동쪽에 위치한다. 애월읍과의 경계에 걸쳐진 오름이다. // 저 돌오름이라고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정짓내, 산내.(저 '돌오름'이라고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정짓내', '산내'.) 36 [봉성]

돌오름팟: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지명이다. // ᄆᆞᆯ구루마 ᄒᆞ여근에 저 돌오름팟디, 돌오름팟디 낭 ᄒᆞ레 뎅겻수다.(마차 해서 저 '돌오름팟'에, '돌오름팟'에 나무 하러 다녔습니다.) 08 [동광]

돌옴: 소나 말을 여럿이 돌아가며 돌보는 일을 말한다. '돌음'이라고도 한다. // 내려오민 이제 쉐 신 사름덜 서로가 돌옴 짓는 거엔 허는 건 우리가 만일에 애기 어멍이 쉐 잇고 나가 쉐 잇곡 또 옆집이 쉐 잇곡 허민 쉐 다섯 개민 다섯 갤 합쳐 놓민 ᄒᆞᆫ 사름썩 돌아가멍.(내려오면 이제 소 있는 사람들 서로가 '돌옴' 짓는 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일에 아기 엄마가 소 있고 내가 소 있고 또 옆집에 소 있고 하면 소 다섯 개면 다섯 갤 합쳐 놓으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25 [태흥]

돌차귀: 돌을 깎을 때 쓰는 자귀이다. '쇠메'를 제보자는 '돌차귀'라고 하였다. // 돌차귀만 가경 가민 담 다는 건 돌 앚당 놓민 그걸로.('돌차귀'만 가져서 가면 담 쌓는 건 돌 갖다가 놓으면 그걸로.) 14 // 그 뭐 요즘 석수들은 이렇게 그 방멩이추룩 사 만든 거, 뭐 겐노라고 뭐 걸로 헌디, 엿날에는 돌차귀렌 헤영,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돌차귀렌 헤근엥에, 도끼 식으로 뒈근에 그걸 헤근엥예 돌 다듬아근엥예 주춧돌 멘들아놔근엥에.(그 뭐 요즘 석수들은 이렇게 그 방망이처럼 사 만든 거, 뭐 '겐노'라고 뭐 그걸로 했는데, 옛날에는 '돌차귀'라고 해서,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돌차귀'라고 해서, 도끼 식으로 돼서 그걸 해서 돌 다듬어서 주춧돌 만들어 놔서.) 15 [성읍, 수망]

돌켕이: 등과 배의 딱지가 매우 딴딴한 게를 말한다. '돌겡이', '돌킹이'라고도 한다. // 겡이 종류들 돌켕이, 엽겡이, ᄎᆞᆷ게, 그거주게. 겡이 ᄀᆞ튼 건 물에 들어강 ᄉᆞᆷ ᄀᆞ튼 디 가근에 강 잡는 거는, 이추룩 훌근 거주마는 우리추룩 가에 거 돌 일렁 잡는 거는 돌켕이하고 토켕이.(게 종류들 '돌켕이', '엽겡이', 참게, 그거지. 게 같은 건 물에 들어가서 샘 같은데 가서 가서 잡는 거는, 이처럼 굵은 거지만 우리처럼 가에 거 돌 일으켜서 잡는 거는 '돌켕이'하고 '토켕이'.) 07 // 돌켕이는 딱딱헤근

에 빨리 도망도 못가곡.(‘돌켕이’는 딱딱해서 빨리 도망도 못가고.) 23 // 또 저 무시거니, 무신 겡이 잇주게. 것도 튼내지 못헤. 저 저 돌켕이.(또 저 뭐, 무슨 게가 있지. 것도 생각해 내지 못해. 저 저 ‘돌켕이’.) 31 [보목, 온평, 토평]

돌코: 소를 길들일 때 사용하는 구멍이 뚫린 돌이다. // 질들일 때엔 이제 그 돌코옌 헤영 근에 끗엉 당기는 돌이, 돌이 잇는데, 이런 둥글렁헌 돌 그냥 무거운 돌.(길들일 때엔 이제 그 ‘돌코’라고 해서 끌어서 당기는 돌이, 돌이 있는데, 이런 둥그런 돌 그냥 무거운 돌.) 01 // 게난양 그것이 ᄀᆞ레착 같은 거나 돌코라고 쉐 ᄀᆞ르치는 것이 이수다.(그러니까 ‘ᄀᆞ레착’ 같은 것이나 ‘돌코’라고 소를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03 [도련, 송당]

돌코지: 제주 신촌마을 바다의 지명 이름이다. // 다 태와불언. 여기가 멧 갠곤 허민 돌코지 하나, 또 일뤠낭에 하나, ᄃᆞᆫ물에 하나, 세 개.(다 태워버렸어. 여기가 몇 갠가 하면 ‘돌코지’ 하나, 또 ‘일뤠낭’에 하나, ‘ᄃᆞᆫ물’에 하나, 세 개.) 21 [신촌]

돌킹이: 등과 배의 딱지가 매우 딴딴한 게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돌겡이’, ‘돌켕이’라고도 한다. // 춤깅이도 잇고 똥깅이도 잇곡 심방깅이도 잇곡. 저 돌킹이도 잇고. (참게도 있고 ‘똥깅이’도 있고 ‘심방깅이’도 있고. 저 ‘돌킹이’도 있고.) 01 // 돌킹이는 오몽도 못허영이. 경 허영 끔짝끔짝허고이 이 껍다리가 기냥 더드럭더드럭헌 게 막 쎄여. 깅이 발이 기냥 그 아강발이 기냥 딱딱허여.(‘돌킹이’는 움직임도 못해. 그렇게 해서 ‘끔짝끔짝허고이’ 이 껍데기가 그냥 두들두들한 게 매우 세. 게 발이 그냥 그 집게발이 그냥 딱딱해.) 01 // 호끔 커. 게 돌킹이는 딱딱허여. 거 거무룽허영 딱딱허여. 몸뚱이가 딱딱허여.(조금 커. 게 ‘돌킹이’는 딱딱해. 거 거무스름해서 딱딱해. 몸뚱이가 딱딱해.) 27 // 돌킹이엔 헌 것은 막 쎄어마씀. 이빨 엇인 사름은 먹기 잘도 궂입니다.(‘돌킹이’라고 한 것은 아주 세요. 이빨 없는 사람은 먹기 매우 궂습니다.) 35 [대림, 도련, 옹포, 외도]

돌테: 땅을 다질 때 쓰는, 돌을 깎아 원통형으로 만든 농기구를 말한다. // 저 돌테라고 헤 가지고 이렇게 놔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ᄆᆞᆯ리면서 뽑아불면 그것에 감아가멍.(저 ‘돌테’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놔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말리면서 뽑아버리면 그것에 감아가면서.) 09 // 돌테, 남테 남군밧게 엇어.(‘돌테’, ‘남테’ ‘남군’밖에 없어.) 29 [고산, 외도]

돌토구리: 돼지에게 먹이를 넣어 주기 위해서 돌을 둥글넓적하게 파서 만든 돌그릇인데, 달리 ‘돗도고리’라고 한다. // 돗통? 뒈지ᄒᆞ고 돌토구리벳긴 더 이서서?(돼지우리? 돼지하고 ‘돌토구리’밖에는 더 있어?) 24 [세화]

돌팟긍이: 게 종류의 하나이다. // 긍이에도 종류가 춤긍이, 지름킁이, 또 똥긍이. 돌팟긍이.(게에도 종류가 참게, ‘지름킁이’, 또 ‘똥긍이’. ‘돌팟긍이’.) 26 [신창]

돌팡: 말을 타고 내리거나 짐을 지고 부리거나 할 적에 대(臺)가 되게끔 놓인 넓적한 큰 돌 따위이다. // 경 오젠 ᄒᆞ믄양, 쉔 재게 가곡, 사름은 지믄 돌팡에 멧 번 쉬영 정 오곡, 경 안 ᄒᆞ믄 져 오질 못 ᄒᆞ여.(그렇게 오려고 하면요, 소는 빨리 가고, 사람

은 지면 '돌팡'에 몇 번 쉬어서 져서 오고, 그렇게 안 하면 져 오질 못 해.) 28 [구엄]

돌팡에: '돌ㅎ+방에(방아)' 구성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돌로 만들어진 방아로, 연자매를 가리킨다. // 옛날은 그 저 돌팡에에서 이제 물 적졍 그 자꾸 굴령, 영 돌려 가면 그게 이 견, 첸 벗어지면 속에 쏠만 뽑앗는데. 연자방아ᄀᆞ라 이제 돌팡에.(옛날은 그 저 '돌팡에'에서 이제 물 적셔서 그 자꾸 굴려서, 이렇게 돌려 가면 그게 이 겨는, 겨는 벗겨지면 속에 쌀만 뽑았는데. 연자방아보고 이제 '돌팡에'.) 01 [도련]

돌호겡이: 주변이 돌로 둘러싸인 웅덩이를 말한다. // 아니믄 멜베가 다녀가믄 겁이 나서 지네가 도망친다고 헌 게 물든 때 그 돌에 고인 물에 오는 거라. 으, 돌호겡이.(아니면 '멜베'가 다녀가면 겁이 나서 지네가 도망친다고 한 게 물밀 때 그 돌에 고인 물에 오는 거야. 으, '돌호겡이'.) 29 [외도]

돌혹: 돌확이다. 큰 통나무를 파서 만든 절구 가운데에 박아 놓은 돌로 된 확이다. // 그 돌혹 쏘곱에 허여 놔근에.(그 '돌혹' 속에 해서 놓아서.) 36 [봉성]

돔보낙시: 오징어를 낚을 때 사용하는 낚시다. 제보자는 줄여서 '돔보'라고도 하였다. // 돔보낙시게. 영 허영 ᄌᆞᆫᄌᆞᆫ헌 낙시 영 허연 그 영 뒈연게.('돔보낙시'. 이렇게 해서 자잘한 낚시 이렇게 해서 그 이렇게 되었어.) 29 [외도]

돔부지다: 일본어 'とんぼがえり(돈보가에리)'에서 온 말인 듯하다. '재주넘기, 공중제비'를 뜻하는 영어 'tumbling'의 일본어 표현이다. 줄여서 'とんぼ(돈보)'라고 하는데, 여기서 '돔부지다'는 소가 달구지와 함께 옆으로 넘어지며 엎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 그냥 돔부지믄 사름덜이 다 모다들엉 거 ᄒᆞᆫ듸 간 사름들이 모다들엉은에 그거 일리지도 못허여마씨. 게난. 게믄 ᄆᆞᆫ딱 클러야.(그냥 '돔부지믄'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거 함께 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거 일으키지도 못해요. 그러니. 그러면 모두 풀어야.) 32 [덕수]

돗가레착: 돼지거름을 담는 멱서리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돗걸름착'이라고한다. 여기에서 '돗가레', '돗걸름'은 '돼지거름'을 뜻하는 제주어이다. // 그 돗가레착에 그거 다 헤근에 걸름을 담아놔근에 다 밟아.(그 '돗가레착'에 그거 다 해서 거름을 담아놓아서 다 밟아.) 05 // 멩텡이는. 멩텡이는 영 헤근에 곡식만 놓는 거 멩텡이. 돗가레착엔 헌 거는 보리 갈젠 하면은 거름.(망태기는. 망태기는 이렇게 해서 곡식만 넣는 거 망태기. '돗가레착'이라고 한 거는 보리 갈려고 하면 거름.) 05 // 질메 지왕은에 돗가레착엔 헌 게 잇어, 멩텡이.(길마 지워서 '돗가레착'이라고 한 게 있어, 망태기.) 14 [성읍, 표선]

돗갈름착: 돼지거름을 담아 나르는 멱서리를 말한다. '돗걸름착'이라고도 한다. // 돗갈름착은이 돗갈름착 족아야 뒈고. 건 물 나는 거기 때문에. 이 쉐걸름 시끄는 건 막 커야 뒈고.('돗갈름착'은 '돗갈름착' 작아야 되고. 건 물 나는 거기 때문에. 이 쇠두엄 싣는 건 아주 커야 되고.) 12 [한동]

돗걸름: 표준어 돼지거름으로 돼지우리에서 파낸 거름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이제 보리 갈 때만 돗걸름 헨에 헷주.(이제 보리 갈 때만 '돗걸름' 해서 했지.) 16 [하원]

돗걸름착: 돼지거름을 넣어서 다니는 멱서리이다. // 그 놈을 또 실러 가는 멩텡이가 돗걸름착, 그건 요만이 허여, 그 요만이 헌 걸로 큰 쉐는 하영 담고 작은 쉐는 족영 담아.(그 놈을 또 싣고 가는 망태기가 '돗걸름착'. 그건 요만큼 해, 그 요만큼 한 걸로 큰 소는 많이 담고 작은 소는 조금 담아.) 06 // 부제칩인 쉐 댓 개썩 시꺼가고 쉐 못 빌민 훤헌 ᄃᆞᆯ에 돗걸름착 헹 놓고 서너너이 청년덜 실 땐 빌엉 밤이 훤헌 ᄃᆞᆯ에 걸름을 지게로 다 져당 뿌리는 디도 싯곡.(부잣집엔 소 댓 개씩 실어가고 소 못 빌리면 훤한 달에 '돗걸름착' 해서 놓고 서너 명 청년들 있을 땐 빌려서 밤에 훤한 달에 거름을 지게로 다져다가 뿌리는 데도 있고.) 13 // 끈작끈작허민 그땐 이제 그걸 다 모다놔, ᄒᆞᆫ밧듸로 수랑허게 모다놧당 그 멩탱이 그 엿날 돗걸름착, 돗걸름착허멍 멩탱이가 졸망졸망허게 ᄀᆞᆯ아이.(끈적끈적하면 그땐 이제 그걸 다 모아놔, 한 군데로 길쭉하게 모아놨다가 그 멱서리 그 옛날 '돗걸름착', '돗걸름착'하면서 멱서리가 졸망졸망하게 짜.) 25 // 게난 돗걸름착 요만이 헌 거 허여근에 그디 저 걸름 담앙은에 우틔레 착착허게 헤여근에.(그러니 '돗걸름착' 요만큼 한 거 해서 거기 저 거름 담아서 위로 착착하게 해서.) 32 [남원, 덕수, 삼달, 수망, 태흥]

돗국물: 돼지고기를 삶았던 육수를 말한다. '돗국물'은 돼지고기 삶았던 육수에 모자반 따위를 넣고 끓인 'ᄆᆞᆷ국'의 의미로도 쓰인다. // 우리 여기는 ᄆᆞᆯ망이 거치니까 ᄒᆞ끔하민 돗국물에 그런 거. 잔칫집이 그때는 애기덜 쳐 낭 무사 잔치집의서덜 다 헤놓난. 일주일씩 잔치집의 강 먹엇젠 허난.(우리 여기는 모자반이 거치니까 조금하면 '돗국물'에 그런 거. 잔칫집에 그때는 아기들 처 낳아서 왜 잔칫집에서들 다 해놓으니까. 일주일씩 잔칫집에 가서 먹었다고 하니까.) 05 // 게난 잔치나 허젠 허민 막 돗국물 헐 거 헤근에.(그러니까 잔치나 하려고 하면 막 '돗국물' 할 거 해서.) 23 // 저 친척 어른덜이 무신 바빠근에 돗국물 먹는 날 못 오민 막, 아니, 어제 오커랍디게게.(저 친척 어른들이 무슨 바빠서 '돗국물' 먹는 날 못 오면 막, 아니, 어제 오시지요.) 23 // 단지ᄂᆞ물 헤당 막 훌터당 놩 그 돗 잡앙 돗국물에, 그 가문잔치날 그자 그거 국 헹, 보리밥 헹 주곡 기자 경헨 먹주게.('단지ᄂᆞ물' 해다가 마구 훑어다가 넣어서 그 돼지 잡아서 '돗국물'에, 그 '가문잔치날' 그저 그거 국 해서, 보리밥 해서 주고 그저 그렇게 먹었지.) 31 [온평, 토평, 표선]

돗ᄆᆞ레: 돼지거름을 말한다. // 거름허젠 허민 쉐걸름, 경헹 그디 쉐걸름도 담앙 쎅영 돗ᄆᆞ레도 멘들곡.(거름하려고 하면 소두엄, 그렇게 해서 거기 소두엄도 담아서 썩혀서 '돗ᄆᆞ레'도 만들고.) 13 // 돗ᄆᆞ레, 게영 쉐로 ᄇᆞᆯ려근에 싹 ᄇᆞᆯ려지민 그걸 다 모디왕 ᄃᆞ리ᄆᆞ치룩 쭉허게 헤놈두서로 멩텡이.('돗ᄆᆞ레', 그래서 소로 밟아서 싹 밟아지면 그걸 다 모여서 다리처럼 쭉하게 해두고서 망태기.) 23 [삼달, 온평]

돗당: 신당 유형의 하나이다. '돗'은 표준어 돼지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돼지고기를 제물로

올리는 당이다. // 할망당에 대헤 가지고, 약간의 유래가 잇는데. 이런 여기 이 우렝이당은 돗당이라고 헙니다.('할망당'에 대해 가지고, 약간의 유래가 있는데. 이런 여기 이 '우렝이당'은 '돗당'이라고 합니다.) 29 [외도]

돗도고리: 돼지에게 먹이를 넣어 주기 위해서 돌을 둥글넓적하게 파서 만든 돌그릇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서쪽 모퉁이에다 돗통을 헤낫수다. 돗통을 허면은 그 돗도고리엔 헌 거 돌로 만든 거양.(서쪽 모퉁이에다 '돗통'을 했었습니다. '돗통'을 하면은 그 '돗도고리'라고 한 거 돌로 만든 거요.) 15 // 도새기 심어당 자릿도새기 놓민 돗도고리 요추룩 ᄒᆞᆫ 거 놩, 자릿도새기 심어오랑 족은 도새긴 ᄀᆞ루 문작ᄒᆞᆫ 걸로 주곡, ᄒᆞ꼼 커 가민 방에 져난 보리체, 그걸로 주곡, 돗도고리 영 놩.(돼지 잡아다가 '자릿도새기' 넣으면 '돗도고리' 요처럼 한 거 놓아서, '자릿도새기' 잡아와서 작은 돼지는 가루 반드러운 걸로 주고, 조금 커 가면 방아 찧었던 '보리체', 그것으로 주고, '돗도고리' 이렇게 놓아서.) 17 // 돗도고리는 크게 파가지고 큰 도새기 새끼 내운 사람은 큰 도고리에 사용헤여서 그레 물을 하영 놔둬 밧디 가민 헤원 먹으렌 그레 놩은에 저 체 캉 놩 네불민 먹고, 경 안 헌 건 ᄌᆞᆫ도새긴 ᄌᆞᆺ도새기덜은 ᄌᆞᆨ은 도고리 헤영은 물 놓곡 체 ᄒᆞᆯᄊᆞᆯ 놓곡 헹.('돗도고리'는 크게 파가지고 큰 돼지 새끼 내운 사람은 큰 '도고리'에 사용해서 그리로 물을 많이 놔두고 밭에 가면 종일 먹으라고 그리 넣어서 저 겨 타서 놔서 내버리면 먹고, 그렇게 안 한 건 작은 돼진 'ᄌᆞᆺ도새기'들은 작은 '도고리' 해서 물 넣고 겨 조금 놓고 해서.) 19 // 똥돼지가 그거 먹당 이제 그 보리 씻거난 물 뭐 무슨 구정물 이런 사료 씻거난 물 ᄀᆞ튼 거 이런 거를 ᄀᆞ치 음식찌꺼기엔 헤 가지고 통지에 가근엥 돗도고리에다가 비워 주면.(똥돼지가 그거 먹다가 이제 그 보리 씻은 물 뭐 무슨 구정물 이런 사료 씻은 물 같은 거 이런 거를 같이 음식찌꺼기라고 해 가지고 변소에 가서 '돗도고리'에다가 비워 주면.) 27 [고내, 구엄, 대림, 대평, 도련, 봉성, 수망, 옹포, 청수, 토평]

돗도구리: 돼지에게 먹이를 넣어주기 위해서 돌을 둥글넓적하게 파서 만든 돌그릇을 말한다. '돗도고리'라고도 한다. // 돗도구리, 도새기, 도새기 누웡 자는 집.('돗도구리', 돼지, 돼지 누워서 자는 집.) 07 [보목]

돗수염: 식물명으로 '돗수웨'를 말한 듯하다. '돗수웨'는 표준어로 왕고들빼기를 말한다. // 이제 뭐 돗수염이여 뭐연 ᄀᆞᆯ으민. 돗수웨여 무시게여 거.(이제 뭐 '돗수염'이야 뭐라고 말하면. '돗수웨'야 무엇이야 거.) 15 [수망]

돗스리: 홈친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돗+일본어 스리(suri)'로 소매치기라는 말이다. // ᄒᆞ끔 큰 아이가 너 삼춘 담배 ᄒᆞ끔 돗스리 헤와.(조금 큰 아이가 너 삼촌 담배 조금 '돗스리' 해와.) 16 [하원]

돗쏜빌레: 한경면 청수리 지명으로 산돼지를 쏜 곳이라 해서 나온 이름이다. // 돗쏜빌레라고 허는 거는 무슨 말이냐 허면은 뒈지를 쏘앗다는 거라.('돗쏜빌레'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돼지를 쏘았다는 거야.) 19 [청수]

돗여: 애월읍 구엄리 바다에 있는 '여'의 이름이다. // 돗여, 이런 여덜이 십주게, 바당에도.('돗여', 이런 '여'들이 있지요, 바다에도.) 28 [구엄]

돗오름: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 웃트레 올라가민 요 돗, 돗오름이여 무신.(위로 올라가면 요 '돗', '돗오름'이다 무슨.) 16 [하원]

돗제: 돼지고기를 받아먹는 본향신을 청하여 돼지고기를 바쳐 기원하는 의례를 말한다. // 김녕허고 조금이라도 인연이 잇는 사름이 돗제를 헤 가지고, 일년에 ᄒᆞᆫ 번 똑 돗제를 헷저.('김녕'하고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는 사람이 '돗제'를 해 가지고, 일 년에 한 번 꼭 '돗제'를 했어.) 12 // 만이는 안 헷지만은 그 큰일이 아니니까 돗제 때는 동네 사름베끼 안 오니까 게니까 풍족허게 먹주.(많이는 안 했지만 그 큰일이 아니니까 '돗제' 때는 동네 사람밖에 안 오니까 게니까 풍족하게 먹지.) 12 [한동]

돗죽은물: 한경면 청수리 지명으로 산돼지가 죽은 물이라 해서 나온 이름이다. // 겐 돗쏜 빌레에서 돗을 쏘니까 고분뎃밧물에 와서 고분뎃밧물에서 도새기가 이젠 돗죽은물까지 가니까 막 따라 간 쏸 죽여가지고 돗쏜빌레, 고분뎃밧물, 돗죽은물, 이렇게 세군데 잇수다예.(그래서 '돗쏜빌레'에서 돼지를 쏘니까 '고분뎃밧물'에 와서 '고분뎃밧물'에서 돼지가 이젠 '돗죽은물'까지 가니까 막 따라 가서 쏴서 죽여가지고 '돗쏜빌레', '고분뎃밧물', '돗죽은물',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19 [청수]

돗집: 동그랗고 자그마하게 삼면(三面)으로 담을 쌓아 올려서 위에 검불을 덮고 한쪽 면을 터서 돼지가 드나들게 한 막이다. // 돗집은 저 ᄒᆞ꼼 호랑겡이 낭께기 영 영 영 저 놓아근에 그 우터레 집, 집 만들듯 그 우의 새 헤근에 더꺼근에 만들어.('돗집'은 저 조금 '호랑겡이' 나뭇가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 놓아서 그 위로 집, 집 만들듯 그 위에 띠 해서 덮어서 만들어.) 05 // 겐디 어멍은 확 ᄃᆞᆫ단에 그 할망 죽어난 돗집더레 활딱 들어간에 어멍은 그 돗집 소곱의서 살고, 아ᄃᆞᆯ은 둥굴언 그 대왓듸서 살고.(그런데 어머니는 확 달리다가 그 할머니 죽었던 '돗집'으로 활딱 들어가서 어머니는 그 '돗집' 속에서 살고, 아들은 둥글어서 그 '대왓'에서 살고.) 08 // 돌로, 들어가는 도엔 돌로 바투곡, 내중엔 낭도 걸치곡 ᄒᆞ영 ᄂᆞ람지 모냥으로 찍으로 더껏주게. 경 헤영 그건 도새기 들어갓다 나왓다 ᄒᆞ는 돗집, 돗집.(돌로, 들어가는 '도'에는 돌로 받치고, 나중에는 나무도 걸치고 해서 이엉 모양으로 짚으로 덮었지요. 그렇게 해서 그건 돼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돗집', '돗집'.) 17 // 돗집, 자그맣게 뒈지울 안에 ᄯᅳ로 ᄋᆞ소록허게 허영 집을 지읍니다.('돗집', 자그맣게 돼지우리 안에 따로 아늑하게 해서 집을 짓습니다.) 35 [대림, 대평, 동광, 표선]

돗추렴: 각기 돈을 얼마씩 내어 돼지를 잡아먹는 일을 말한다. // 거 순대렌 헌 거 여기 그때는 돗추렴을 이제 멧 사름 저 모여 가지고.(거 순대라고 한 거 여기 그때는 '돗추렴'을 이제 몇 사람 저 모여 가지고.) 15 // 아이고, 허고말고. 건 의무적이라. 돗추렴은.(아이고, 하고말고. 건 의무적이야. '돗추렴'은.) 36 [봉성, 수망]

돗토고리: 돼지 먹이를 주기 위하여 돌을 파서 만든 그릇이다. // 돗토고리도 다 엎어분덴 허난 이녁 것 먹는 돗토고리도 어퍼.('돗토고리'도 다 엎어버린다고 하니까. 이녁 것 먹는 '돗토고리'도 엎어.) 05 [표선]

돗통: 돼지우리를 말한다. 여기서는 돼지우리와 대소변을 보는 변소를 포함한다. '통지', '통시'라고도 한다. // 도새기 저, 돗통 방향이 막 가려근에 짓으렌 허주게. 아무디나 짓는 게 아니라.(돼지 저, '돗통' 방향이 마구 가려서 지으라고 하지. 아무데나 짓는 게 아니라.) 07 [보목]

돗통밧: 한림읍 대림리 근처에 있는 밭 이름이다. // 그때 그 아, 삿대 돗 자, 삿대 돗 자 써 가지고 그, 글로 베가 들어오며는 영 삿대질허면서 그레 올라가낫다 헤 가지고 거 저 돗통밧, 돗통밧 이름이 잇고.(그때 그 아, 삿대 돛 자. 삿대 돛 자 써 가지고 그, 글로 배가 들어오면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그리 올라갔었다 해 가지고 거 저 '돗통밧', '돗통밧' 이름이 있고.) 35 // 거 베중이왓이라고 헌 것이, 배 형국이 증거로 ᄯᅳ로 돗통밧이라고 잇수다.(거 '베중이왓'이라고 한 것이, 배 형국이 증거로 또 '돗통밧'이라고 있습니다.) 35 [대림]

돗항: 돼지에게 줄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로 대개는 물이 새지 않는 헌 항아리를 쓴다. 그릇 씻거나 쌀 씻었던 물을 돼지 먹이려고 모아 놓은 항아리이다. // 이거 통시민 이거 담 벳긋듼 물 놓는 돗항.(이거 돼지우리면 이거 담 밖에는 물 놓는 '돗항'.) 11 // 그 술 다까난 주시는이 도새기 주젠이 돗항 이서.(그 술 고아서 지게미는 돼지 주려고 '돗항' 있어.) 11 [함덕]

동: 달래 따위의 속 줄기를 말한다. // 동 산 걸로 지시 허민 경 맛이 좋아.('동' 선 걸로 장아찌 하면 그렇게 맛이 좋아.) 14 [성읍]

동가름: 한 마을에서 동쪽에 형성된 마을이다. 제보자는 '동카름'이라고도 하였다. // 우렝이가 동서가름허민 동가름, 동카름도 잇고 서카름도 잇거든. 게믄 서카름덜은 서카름 사름끼리만 번치는 사름 잇고.('우렝이'가 '동서가름'하면 '동가름', '동카름'도 있고 '서카름'도 있거든. 그러면 '서카름'들은 '서카름' 사람끼리만 '번치는' 사람 있고.) 29 [외도]

동고량: 대오리로 네모나게 엮어서 만든 도시락이고, 지역에 따라 '동고령', '밥당석', '밥장석', '밥차반이'라고도 한다. // 갈 땐 정심을 이 저 무시거 간단허게 무신 ᄆᆞ멀 펌벅이나 무시거 ᄒᆞ민 헹 가근에 동고량에 헤근에 낭에 영 ᄃᆞᆯ아메근에 허면은 가마귀 오랑 오꼿 먹어불어.(갈 땐 점심을 이 저 무엇 간단하게 무슨 메밀범벅이나 무엇 하면 해서 가서 '동고량'에 해서 나무에 이렇게 달아매어서 하면 까마귀 와서 그냥 먹어버려.) 16 // 밥들 헹 동고량 헹 밥 싸주게.(밥들 해서 '동고량' 해서 밥 싸지.) 27 // 강 그 날 재수가 좋믄 그 쉐를 강 보고, 첨 재수 엇으믄 쉐를 못 보는디, 아침이 게난 밥 동고량에 지곡 헤 앗앙은에, 그 하르방이영 서너이 고들고들 밤이 걸엉 가멍.(가서 그날 재수가 좋으면 그 소를 가서 보고, 참 재수 없으면 소를 못 보는데, 아침에 그러니까 밥 '동고량'에 지고 해 가져서, 그

할아버지랑 서너 사람 고들고들 밤에 걸어서 가면서.) 28 [구엄, 옹포, 하원]

동고량차롱: '동고량+차롱'의 구성으로, 여기서 '차롱'은 '채롱'을 말한다. '동고량'은 대오리로 네모나게 엮어 만든 도시락으로, '동고량차롱'도 '동고량'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 옛날은 동고량차롱에 밥 쌍 갓주기게. 차롱에. 밥 쌍 가. 밥 쌍 가고 어떵헌 딘 이제 술도 허고 사과도 서너 개 상 가.(옛날은 '동고량차롱'에 밥 싸서 갔지. 채롱에. 밥 싸서 가. 밥 싸서 가고 어떠한 덴 이제 술도 하고 사과도 서너 개 사서 가.) 26 [신창]

동고량착: 대오리로 네모나게 엮은 도시락의 한 짝이다. // 맥주보리 그냥, 그냥 살살살살 ᄀᆞ루 반, ᄊᆞᆯ 반 나게시리 기냥 ᄀᆞᆯ아근에, 그걸 누룩 해근에 쪄근에 영영영영 찌나, 경 헹 무신 헌 동고량착이라도 꽉 담앙 놔두민, 그것이 터근에 바싹 ᄆᆞᆯ라근에 저 막 색깔 나게, 곱닥ᄒᆞ게 잘 티민 누룩이 잘 뒈영 곤 거.(맥주보리 그냥, 그냥 살살살살 가루 반, 쌀 반 나게끔 그냥 갈아서, 그걸 누룩 해서 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찌나, 그렇게 해서 무슨 헌 '동고량착'이라도 꽉 담아서 놔두면, 그것이 떠서 바싹 말라서 저 아주 색깔 나게, 곱게 잘 뜨면 누룩이 잘 되어서 고운 거.) 08 [동광]

동골락: 구슬이 구멍에 들어가는 모양을 표현한 말이다. // 그건 요 중간에사 나와실 거라. 그냥 고냥 ᄠᅳᆯ랑 동골락 들어가게.(그건 요 중간에야 나왔을 거야. 그냥 구멍 뚫어서 '동골락' 들어가게.) 17 [대평]

동굴씰밥: 바느질 방법의 하나로 감침질하는 것을 말한다. // 동굴씰밥이렌 ᄒᆞᆫ 건 영 동구란에 영 영 똥굴랑ᄒᆞ게 영 감아내는 것ᄀᆞ라 동굴씰빱.('동굴씰밥'이라고 한 건 이렇게 동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감아내는 것보고 '동굴씰밥'.) 15 [수망]

동글ᄃᆞᆷ뿍: 동그라면서도 통통하게 썬 모양이다. // ᄂᆞᆷ삐 영 동글ᄃᆞᆷ뿍 썰어근에 그걸로 고망 톡톡 놔근에.(무 이렇게 '동글ᄃᆞᆷ뿍' 썰어서 그걸로 구멍 톡톡 놔서.) 23 [온평]

동글락떡: 도래떡을 가리키는 말이다. // 이 동글락떡도 허고. ᄌᆞ매떡이라고 영 동글동글허게 꼭 누르떠근에 ᄌᆞ매떡도 허고 보시떡도 허고.(이 '동글락떡'도 하고. 'ᄌᆞ매떡'이라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꼭 눌러서 'ᄌᆞ매떡'도 하고 '보시떡'도 하고.) 14 [성읍]

동글랑통: 성산읍 난산리 지경의 바닷물이 고이는 통이다. 이 통을 이용하여 성산읍 난산리 사람들은 겨울에 김장을 할 때 배추를 절였었다. // ᄂᆞᄆᆞᆯ ᄒᆞᆫ 짐 잔뜩 졍 가근에 그 동글랑통이라 잇주기.(배추 한 짐 잔뜩 져 가서 그 '동글랑통'이라 있지.) 14 [성읍]

동김치: 배추 따위에서 돋아난 연한 장다리로 담근 김치이며, 지역에 따라 '동지짐치'라고도 한다. // 여기선 동짐치지, 동지에 ᄒᆞ는 건 동지짐치엔 헌 건 동김치지 동김치.(여기선 '동짐치'지, 동지에 하는 건 '동지짐치'라고 한 건 '동김치'지 '동김치'.) 15 // 동지가 아니고 동김치.('동지'가 아니고 '동김치'.) 23 [수망, 온평]

동끄랑이: 짐을 꾸리거나 차림을 짜임새 있게 잘하는 모양을 표현한 말이다. // 하르방 산 때 하르방, 학교 뎅기멍 우리 밧듸 뎅겨불민 동끄랑이 밥헹 드리고 다 헤난.(할아버지 살 때 할아버지, 학교 다니면서 우리 밭에 다녀버리면 '동끄랑이' 밥해서 드리고 다 했었어.) 11 [함덕]

동난드르: 안덕면 대평리 중, 동쪽에 있는 대평리이다. // 경 ᄒᆞ연에 그다음은 동난드르가 고씨가 들어오고.(그렇게 하여서 그다음은 '동난드르'가 고씨가 들어오고.) 17 [대평]

동남: 성산읍 행정마을 중 고성 마을의 옛 이름이다. // 남제긴내 허민, 고성 그 바로 중간으로 이 저 동남더레 막 흘러가는 낸데. 저게 오게 뒈민, 궹장이 크주게.('남제긴내' 하면, '고성' 그 바로 중간으로 이 저 '동남'으로 막 흘러가는 내인데. 저게 오게 되면, 굉장히 크지.) 04 // 옛날 그 정의고을들이 동남에 이서나십주게.(옛날 그 '정의고을'들이 '동남'에 있었습지요.) 24 [고성, 세화]

동남장: 성산읍 고성리에 섰던 오일장 이름이다. // 이 장이 어디냐 허면은 동남장허고 성산장이 잇엇는데, 여기서 그때는 포장도 안 뒐 때 걷고 가서 이 옥수수.(이 장이 어디냐 하면 '동남장'하고 '성산장'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때는 포장도 안 될 때 걷고 가서 이 옥수수.) 23 [온평]

동냇굴: 성산읍 삼달리 마을 동쪽에 있는 샘물 이름이다. // 저 서르렌 섯냇굴, 이 동드렌 동냇굴.(저 서쪽으로는 '섯내굴', 이 동쪽으로는 '동냇굴'.) 13 [삼달]

동네커리: 서귀포시 토평동의 마을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동쪽에 있는 네거리라는 의미이다. '동네커리'라고도 한다. // 이 동네커리라고 ᄉᆞ못 그레 ᄆᆞᆫ 몰아강 ᄉᆞ못 그디 가민 ᄆᆞᆫ ᄆᆞᆫ딱 나오민 그날 당번이 잇주게.(이 '동네커리'라고 사뭇 그리 모두 몰아가서 사뭇 거기 가면 모두 모두 나오면 그날 당번이 있지.) 31 // 우리가이 저 동네커리 살단 이딜 오라신디.(우리가 저 '동네커리' 살다가 여기를 왔는데.) 31 [토평]

동대동: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한 자연 마을이다. // 농협 부튼 저쪽 그디가 완전 부자고 장남덜 ᄃᆞᆯ앙 일허고 허는 그 동네. 우리 종손도 그 동네주게. 지금 부자 많은데 강○○ 그 동네라. 거긴 부자만 사는 동네. 이쪽 동대동은 가난한 사름만 사는 동네. 거난 그 동네 사름안티 ᄀᆞ딱도 못 허여.(농협 붙은 저쪽 거기가 완전 부자고 장정들 데려서 일하고 하는 그 동네. 우리 종손도 그 동네지. 지금 부자 많은데 강○○ 그 동네야. 거긴 부자만 사는 동네. 이쪽 '동대동'은 가난한 사람만 사는 동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한테 까딱도 못 해.) 36 [봉성]

동마ᄇᆞ름: 동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말한다. // 동쪽으로 오는 건 동마ᄇᆞ름이고.(동쪽으로 오는 건 '동마ᄇᆞ름'이고.) 01 [도련]

동메기: 꽃이 떨어지고 난 뒤 자그마한 열매이며, '동모레기', '동코레기' 라고도 한다. // 그자게 다른 거 갈 듯 갈민은 게, 크민은 게, 동메기 모자근에, 그자 미깡 동메기ᄀᆞ찌 모장.(그저 다른 거 갈 듯 갈면 그래, 크면 그래, '동메기' 무질러서, 그저

밀감 '동메기'같이 무질러.) 07 [보목]

동메다: 꽃이 떨어지고 난 뒤 자그마한 열매가 맺다. // 올아가난 동메여 가는 양 타 먹곡, 타불민 또 동메곡, 동메곡 ᄒᆞ멍 줄 벋어가는 양 줄만 죽지 안이영 살곡, 막 오래 먹어집니다.(열어가니까 '동메여가는' 대로 따 먹고, 따버리면 또 '동메고', '동메고' 하면서 줄 벋어가는 대로 줄만 죽지 안 해서 살고, 막 오래 먹어집니다.) 08 [동광]

동모커리: 동쪽으로 난 곁채이다. // 대개 서모커리를 부억을 해요. 동모커리, 서모커리는 소막을 아녀거든. 이게 안거리고 동모커리는 창고고.(대개 '서모커리'를 부엌을 해요. '동모커리', '서모커리'는 외양간을 안 하거든. 이게 안채고 '동모커리'는 창고고.) 14 // 동모커리 섯모커리 건 부잣칩이주게('동모커리', '섯모커리' 그건 부잣집이지.) 16 [성읍, 하원]

동목장: 마을 동쪽에 있는 목장이다. // 동쪽 목장, 서쪽 목장 영 동목장, 서목장 허주.(동쪽 목장, 서쪽 목장 이렇게 '동목장', '서목장' 하지.) 14 [성읍]

동문통: 제주시 동문로터리 주변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 나간 뭐 저 처갓칩이 오레 잇기도 미안허고 동문통 홀어멍 잇는디 하숙집이, 그디서 그 할망이 좋은 할망이데.(나가서 뭐 저 처갓집에 오래 있기도 미안하고 '동문통' 홀어머니 있는데 하숙집에, 거기서 그 할머니가 좋은 할머니인데.) 22 [우도]

동보리: 방울이 굵고 껍질을 깍지 않은 맥주보리를 말한다. // 동보리, 아 그저, 바로 그 방울이 굵은 거.('동보리', 아 그저, 바로 그 방울이 굵은 거.) 04 // 이건이 까끄지 말아근에 동보리. 껍덕 잇는 거, 겁덕 잇는 거.(이건 깎지 않아서 '동보리'. 껍질 있는 거, 껍질 있는 거.) 25 [고성, 태흥]

동부락: 안덕면 덕수리의 동쪽 마을을 일컫는다. // 동부락은 김칩이가 하고.('동부락'은 김씨 집안이 많고.) 32 // 질 처음에 허난에 이 지금 저 우리허고 저 동부락 저 우리 집의 아저씨영 갑장 이제.(젤 처음에 하니까 이 지금 저 우리하고 저 '동부락' 저 우리 집의 아저씨랑 갑장 이제.) 32 [덕수]

동부리조합: 성산읍에 있는 조합 이름이다. // 처음 성산읍 조합, 농협 생긴, 생긴 것이 동부리조합이엔 헨에 농협 셍겻수다.(처음 '성산읍' 조합, 농협 생긴, 생긴 것이 '동부리조합'이라고 해서 농협 생겼습니다.) 23 [온평]

동부지다: 일본어 'とんぼがえり(돈보가에리)'에서 온 말인 듯하다. '재주넘기, 공중제비'를 뜻하는 영어 'tumbling'의 일본어 표현이다. 줄여서 'とんぼ(돈보)'라고 하는데, 여기서 '동부지다, 돔부지다'는 소가 달구지와 함께 옆으로 넘어지며 엎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 그 소머리가 이렇게 막 뗑겨사마씸. 두에서 발 버청은에 버청 뗑기지 아녀민 자륵허게 내리민 탁허게 저 동부져 불어마씨.(그 소머리가 이렇게 막 당겨야 해요. 뒤에서 발 뻗쳐서 뻗쳐 당기지 않으면 주르르하게 내리면 탁하게 저 '동부져' 버려요.) 32 [덕수]

동사다: 어떤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거나 곁에 지켜 서다는 의미로 쓰였다. // 옛날은 다 집

의서 허니까 ᄒᆞ루 도야지 잡아야지, 가문잔치헤야지, 잔칫날 헤야지 허젱 허민 삼일을 계속 그 친목, 친목헌 사름덜은 왕 계속 삼일동안 동상 가.(옛날은 다 집에서 하니까 하루 돼지 잡아야지, '가문잔치'해야지, 잔칫날 해야지 하려고 하면 삼일을 계속 그 친목, 친목한 사람들은 와서 계속 삼일동안 '동상' 가.) 14 [성읍]

동서: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뱃일을 함께하면 '뱃동서'라고 한다. // 쪼꼬만 베를 산, 산에 동서를 어른 둘리 부쩐.(조그만 배를 사서, 사서 '동서'를 어른 둘 붙여서.) 23 [온평]

동서가름: 한 마을에서 동쪽과 서쪽에 형성된 지역을 한꺼번에 일컫는 말이다. '동서카름'이라고도 한다. // 우렝이가 동서가름허민 동가름, 동카름도 잇고 서카름도 잇거든. 게믄 서카름덜은 서카름 사름끼리만 번치는 사름 잇고.('우렝이'가 '동서가름'하면 '동가름', '동카름'도 있고 '서카름'도 있거든. 그러면 '서카름'들은 '서카름' 사람끼리만 '번치는' 사람 있고.) 29 [외도]

동시장: 제주시 동쪽에 위치한 제주동문시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 옷이라도 허영 성의껏 허영 ᄒᆞᆫ 불 허영 잘, 고운 걸로 헤다근에 ᄉᆞᆯ아내곡 허렌 우리 ᄉᆞ춘 아시ᄀᆞ라 경ᄀᆞᆯ으난에 우리 씨누이가 동시장에서.(옷이라도 해서 성의껏 해서 한 벌 해서 잘, 고운 걸로 해다가 살라내고 하라고 우리 사촌 아우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시누이가 '동시장'에서.) 29 [외도]

동알동네: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경허민 우리 동알동네 ᄆᆞᆫ딱 헨 둘썩 헹 ᄃᆞᆯ음 헌다게. 경헤영 ᄀᆞ슬 들어 가민 기자 이녁만썩 이젠 그 베꼇디 풀이 엇어 갈 거 아니냐게.(그러면 우리 '동알동네' 모두 해서 둘씩 해서 'ᄃᆞᆯ음' 한다. 그래서 가을 들어 가면 그저 자기만큼씩 이젠 그 밖에 풀이 없어 갈 거 아니니.) 31 [토평]

동의: 제주특별자치도 동쪽 지역을 말한다. // 경 ᄒᆞ고 멘네밧듸양, 저 동의 사름덜은 흐린조떡 ᄒᆞ영 멘네밧딜로 멘네 바꾸레 막 뎅기고, 떡 ᄒᆞ영 ᄑᆞᆯ레, 멘네 타는 밧듸.(그렇게 하고 면화밭에요, 저 '동의' 사람들은 차조떡 해서 면화밭으로 면화 바꾸러 막 다니고, 떡 해서 팔러, 면화 따는 밭에.) 17 [대평]

동이구덕: 떡을 넣고 다닐 때 쓰는 바구니를 말한다. // 보리상웨도 잇주게. 경헌디 밀상웨가 그렇게 맛잇어 놓니까 부주라도 ᄒᆞᆫ 동이구덕 헤 가젠 허민 막 ᄀᆞ레에다가 ᄀᆞᆯ아 가지고.(보리상화떡도 있지. 그런데 밀상화떡이 그렇게 맛있어 놓으니까 부조라도 한 '동이구덕' 해 가려고 하면 막 맷돌에다가 갈아 가지고.) 01 // 저 동이구덕ᄀᆞ라도 ᄃᆞᆯ렝이엔 허드라고. 한림도 틀려 우린, 웨가도 강 보민.(저 '동이구덕'보고도 'ᄃᆞᆯ렝이'라고 하더라고. '한림'도 달라 우린, 외가도 가서 보면.) 30 // 나도 서답구덕도 싯고 동이구덕도 싯저.(나도 빨래바구니도 있고 '동이구덕'도 있어.) 30 [노형, 도련]

동이본향: 표선면 토산리에 있는 본향당이다. // 동이본향이여, 동이본향.('동이본향'이다,

‘동이본향’.) 16 [하원]

동자: 들보 위에 세우는 짧은 기둥인 동자기둥을 줄여서 말하는 것이다. // 중동자, 상동자, 하동자 영 허영 당동자, 중ᄆᆞ르, 상ᄆᆞ르 허민 상동자고 동자가 영 헤근에.(‘중동자’, ‘상동자’, ‘하동자’ 이렇게 해서 ‘당동자’ 중도리, 용마루 하면 ‘상동자’고 ‘동자’가 이렇게 해서.) 16 [하원]

동중면: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정의현 중에서 지금의 표선면 일대를 이르는 면이다. // 동중면부터 ᄒᆞ민은 젤 먼저 사람 살기 시작ᄒᆞᆫ 듸가 성읍리도 아니고 안자리라마씀.(‘동중면’부터 하면 젤 먼저 사람 살기 시작한 데가 ‘성읍리’도 아니고 ‘안좌리’입니다.) 24 [세화]

동지: 배추 따위에서 돋아난 아주 연한 장다리이다. // ᄒᆞ쏠 좋은 ᄂᆞᄆᆞᆯ ᄒᆞᆫ 멧 풀기는 씨허젠 멧 페기 살령 놔뒀다근에 ᄀᆞᆺ듸 걸로만 ᄐᆞᆯ아 먹으멍 ᄒᆞ여근에 내불면은 봄 나가민 막 펴져근에 그것이 동지 사근에 저.(조금 좋은 나물 한 몇 포기는 씨하려고 몇 포기 살려서 놔뒀다가 가에 걸로만 뜯어 먹으면서 해서 내버리면 봄 나가면 막 퍼져서 그것이 ‘동지’ 서서 저.) 08 // 베추 허영 동지 살 거 아니라게. 경 허믄게 그거 꺼껑게.(배추 해서 ‘동지’ 설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 그거 꺾어서.) 29 // 동지 그자 요 이파리로 헤야 과짝 올르는 겁디다게.(‘동지’ 그저 요 잎사귀로 해야 곧게 오르는 겁디다.) 34 // 밧디 싱근체 그냥 허믄예, ᄒᆞᆫ 이월 사월까지는예 동지도 안 사마씨. 너무 인칙만 안 싱그믄, 너무 인칙 싱거분 건.(밭에 심은 채 그냥 하면, 한 이월 사월까지는 장다리도 안 서요. 너무 일찍 안 심으면, 너무 일찍 심어버린 건.) 35 [고산, 구억, 대림, 동광, 신창, 외도, 토평]

동지김치: 배추 따위에서 돋아난 연한 장다리로 담근 김치이다. // 그자 거 ᄂᆞ물동 꺼꺼당 ᄉᆞᆲ아 먹는 거 그거 좋아헷주. ᄉᆞᆲ앙 그자 뒌장에 그자. 견디 이젠 이 ᄂᆞ물동도 꺼꺼당 동지김치허면 경 맛잇어.(그저 그거 ‘ᄂᆞ물동’ 꺾어다가 삶아 먹는 거 그거 좋아했지. 삶아서 그저 된장에 그저. 그런데 이젠 이 ‘ᄂᆞ물동’도 꺾어다가 ‘동지김치’하면 그렇게 맛있어.) 25 [태흥]

동지ᄂᆞᄆᆞᆯ짐치: 배추 따위에서 돋아난 연한 장다리로 담근 김치를 말한다. // 저 옛날엔 안 허영 중간엔 좀 잇주. 동지ᄂᆞᄆᆞᆯ짐친 더 맛 좋고.(저 옛날엔 안 해서 중간엔 좀 있지. ‘동지ᄂᆞᄆᆞᆯ짐치’는 더 맛 좋고.) 14 [성읍]

동지짐치: 배추 따위에서 돋아난 아주 연한 장다리로 담근 김치이다. // 배추 영, 거 속으로 영 올라오잖아, 꽃 필라고. 그거 뽑아근엥 동지짐치 담가.(배추 이렇게, 거 속으로 이렇게 올라오잖아, 꽃 피려고. 그거 뽑아서 ‘동지짐치’ 담가.) 09 // 그거 꺼꺼 가지고 소금에 절엿다가 멘드는 게 동지짐치주게.(그거 꺾어가지고 소금에 절였다가 만드는 게 ‘동지짐치’지.) 09 // 그거 그냥 캐여 동지 영 쭉 동 올라올 때, 거 동지짐치.(그거 그냥 캐서 ‘동지’ 이렇게 쭉 동 올라올 때, 거 ‘동지짐치’.) 26 // 동지짐치도게 우리 그냥 동지 죽여근에 고추가루 놓곡 허영 패마농 ᄎᆞᆷ 저 콥대사니 삐져 놓곡 허영 고치가루 액젓에 무쳐근에 것도 맛 좁니다.(‘동지짐치’

도요 우리 그냥 '동지' 죽여서 고춧가루 넣고 해서 쪽파 참 저 마늘 삐져 넣고 해서 고춧가루 액젓에 무쳐서 것도 맛 좋습니다.) 34 [고산, 구억, 동광, 외도, 신창]

동착녁: 동쪽의 제주어 '동착'에 의존명사 '녁'이 결합된 것으로 동쪽의 의미이다. // 서머리 산에 가근에 소를 아이 키왓는데 저 동착녁 사름덜.('서머리' 산에 가서 소를 아니 키웠는데 저 '동착녁' 사람들.) 22 [우도]

동천 몰르다: 시기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나타난다는 뜻이다. // 동천 몰르게 나도 팔월 낭 멩질헤 먹을 거, 봄이 먹을 거 문딱 홈치 사당 경헹 둘리왕 놔두주게.('동천 몰르게' 나도 팔월 나서 명절해서 먹을 거, 봄에 먹을 거 모두 한꺼번에 사다가 그렇게 해서 말려서 놔두지.) 13 // 동천 몰르게 나는 건, 시방 솔래긴 시방도 여름에도 나곡 저을에도 나곡 흔이 엇지 안허여?('동천 몰르게' 나는 건, 시방 옥돔은 시방도 여름에도 나고 겨울에도 나고 한이 없지 않아?) 13 // 계절 없이 엇인 사름은 동천 몰르게.(계절 없이 없는 사람은 '동천 몰르게'.) 14 [삼달, 성읍]

동촌: 동쪽 지역의 위치한 마을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성산읍, 구좌읍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 조선조 태종(太宗)16년(1416)부터 약 5세기 동안 삼분(三分)하여 통치하기 위해 제주를 제주목(濟州牧), 한라산 남쪽은 지금의 서귀포시(西歸浦市)를 둘로 나눠서(西)는 대정현(大靜縣), 동(東)은 정의현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었을 때의 동쪽을 말한다. // 이 저 동촌 가민 낫이엔 헌 것이 많은데 이딘 낫은 막 내중에야 들어왔는데 긴 거 헤 가지고 허는 거.(이 저 '동촌' 가면 '낫'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데 여긴 '낫'은 아주 나중에야 들어왔는데 긴 거 해 가지고 하는 거.) 06 // 가시린 우린 아니 먹어. 저 어디 동촌더렌 먹어렌 헨게.(풀가사린 우린 안 먹어. 저 어디 '동촌'으론 먹더라고 하더라.) 20 // 물 샤쓸 입는디 이디 사름덜은 이 동촌 사름덜은 안 입어마씨.(물 셔츠를 입는데 여기 사람들은 이 '동촌' 사람들은 안 입어요.) 22 // 송펜은 이 동촌더레 시러레 그자 허연게 이젠 다 송펜덜 헌다게.(송편은 이 '동촌'으로 시로 그저 하던데 이젠 다 송편들 한다.) 26 [고내, 남원, 대평, 신창, 외도, 우도]

동카름: 마을의 동쪽에 자리하여 이루어진 동네를 이른다. '가름'은 한 마을 안에서 작은 단위로 구분한 동네를 이르는 말로, 서쪽에 있는 동네는 '서카름'이라고 한다. // 난드르 사름덜은 억세여 가지고 화순 바당에도 강 싸움박질 ᄒᆞ멍 가담ᄒᆞ영 메역 떼여오곡, ᄯᅳ시 동카름 바당에도 강 부떠근에 완력으로 강 ᄒᆞ여오곡 ᄒᆞ단 이젠 법이 바뀌젼 법적으로 딱딱 지형을 갈라부난 줌수질 홀 디가 엇어, 이젠.('난드르' 사람들은 억세어가지고 '화순' 바다에도 가서 싸움박질 하면서 가담해서 미역 떼어오고, 다시 '동카름' 바다에도 가서 붙어서 완력으로 가서 해오고 하다가 이젠 법이 바뀌어서 법적으로 딱딱 지형을 갈라버리니까 해녀질 할 데가 없어, 이젠.) 17 // 자연부락은 웃동네 싯고, 알동네, 또 저 동카름, 배릿골, 지금은 또 중간에 이제 저 대흥동이라고 한질 웃동네 거기 생겨나고, 겡 허연 각 자연부락은 그렇게 헹 이제 생겨나십주게.(자연부락은 윗동네 있고, 아랫동네, 또 저 '동

카름', '배릿골', 지금은 또 중간에 이제 저 '대흥동'이라고 한길 윗동네 거기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각 자연부락은 그렇게 해서 이제 생겼었지요.) 28 // 평산 김씨보다는 이 김해 김씨가 먼처 와 가지고 여기에를 이 우령이를 동카름 서카름헤 가지고.(평산 김씨보다는 이 김해 김씨가 먼저 와 가지고 여기에를 이 '우령이'를 '동카름' '서카름'해 가지고.) 29 // 동카름이엔 헌 딘 또시 안성 지경이영 부쪄근에 그디 다 동카름이엔 허여.('동카름'이라고 한 덴 또 '안성' 지경이랑 붙여서 거기 다 '동카름'이라고 해.) 33 [구엄, 대평, 도련, 외도, 인성]

동카름번: 한 마을에서 동쪽 지역 사람끼리 서로 교대로 마소를 돌보기 위해 조직된 모임이다. // 동카름번 서카름번 뭐 웃가름번도 뒈곡. 으라 개 될 수도 잇고.('동카름번' '서카름번' 뭐 '웃가름번'도 되고. 여러 개 될 수도 있고.) 29 [외도]

두글락허다: 큼지막하고 둥근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그 창호지 허연게 막 ᄌᆞ앙 이디 돈 담앙. 돈이나 뭐 떼깍헌 걸 담아야 이디 두글락헐 거 아니. 겐 실로 벵벵 뎅여. 무껑 멘들앗주.(그 창호지 해서 마구 잘라서 여기 돈 담아서. 돈이나 뭐 딱딱한 걸 담아야 여기 '두글락헐' 거 아니. 그래서 실로 뱅뱅 돌려. 묶어서 만들었지.) 26 [신창]

두께비: 밀장이 안으로 감춰지도록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 제보자는 달리 '두께비집'이라고도 하였다. '두께비'는 '뚜껑'의 의미로 쓰인 것 같다. // 일로 두께비 허영 이렇게 막아버리면 쥐가 방드레 못 들어오게 헤서.(일로 '두께비' 해서 이렇게 막아버리면 쥐가 방으로 못 들어오게 해서.) 14 [성읍]

두께비집: 밀장이 안으로 감춰지도록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 // 벳깃문은 밀장이고 안네는 요것이 두께비집이라 이거여.(바깥문은 밀장이고 안에는 요것이 '두께비집'이다 이거야.) 14 [성읍]

두더니: '두뎡'의 제주어로 남녀의 생식기 언저리에 있는 불룩한 부분을 일컫는 말이다. // 상기라는 게 두더니 아프고 여자들이나 소나이나. 홀 경우엔 반치 굽에 강 오좀을 싸 불면은.('상기'라는 게 '두더니' 아프고 여자들이나 남자나. 할 경우에는 파초 뿌리에 가서 오줌을 싸 버리면.) 03 [송당]

두레지다: 바보스러운 짓을 잘하는 사람을 낮추어 '두레'라고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하다의 의미이다. // 무신 놀이게 헐 겟가, 그때는 두레지고 지금ᄀᆞ찌 발달이 안 뒌 때난에.(무슨 놀이야 할 것이 있나, 그때는 '두레지고' 지금처럼 발달이 안 된 때니까.) 24 [세화]

두루웨기: 하눌타리의 일종이다. // 혼번은 해둰 두루웨기 ᄒᆞ레 가부난 혼 짐이 나 것이 엇어 불엇어.(한번은 해둬서 '두루웨기' 하러 가 버리니까 한 짐이 내 것이 없어져 버렸어.) 28 [구엄]

두룽박: 박의 씨 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물건이며, '테왁'이라고도 한다. // 두룽박 하나하고이. 또 요렇게 나무로 오그라진 그것에 저 구물.('두룽박' 하나하고. 또 요렇게 나무로 오그라진 그것에 저 그

물.) 09 [고산]

두말떼기: 두 말어치의 쌀이 드는 솥을 말한다. 솥 중에서 두 말이 드는 것으로 보통 큰일이 있을 때 사용한다. // 감저가 주로 양식으로 그때 먹을 때는 우리는 경 안 헷주마는 딴 집덜 보면 감저를 두말떼기로 두말떼기로 하나.(고구마가 주로 양식으로 그때 먹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안 했지만 딴 집들 보면 고구마를 '두말떼기'로 '두말떼기'로 하나.) 05 // 메주를 숢젠 허민 콩을 다 깨끗이 시쳐근에가이, 그 겡지솟 큰 두말떼기 뭐 그런 것이 잇저.(메주를 삶으려고 하면 콩을 다 깨끗이 씻어서, 그 '겡지솟' 큰 '두말떼기' 뭐 그런 것이 있어.) 12 // 허베기 허민 그 픗, 픗 두 관뒈 놓곡 쏠 두 관뒈 ᄒᆞᆫ 솟 두말떼기로 하나 쑤민은 딱 한 허벅 허여.('허베기' 하면 그 팥, 팥 두 관되 넣고 쌀 두 관되 한 솥 '두말떼기'로 하나 쑤면은 딱 한 '허벅' 해.) 14 // 큰 솟이사게 그자 ᄒᆞᆫ 말들이도 뒈고 두 말들이도 뒈고. 두말떼기엔 헌다, 두말떼기.(큰 솥이야 그저 한 말들이도 되고 두 말들이도 되고. '두말떼기'라고 한다, '두말떼기'.) 31 [고내, 동광, 삼달, 성읍, 토평, 표선, 한동]

두말치: 용적이 두 말 드는 크기의 솥이다. // 쒜솟듸 밥을 허믄 밥이 쿠싱헌 게, 톳밥허곡. 말치에, 두말치에.(쇠솥에 밥을 하면 밥이 구수한 게, 톳밥하고. '말치'에 '두말치'에.) 28 [구엄]

두미: 한경면 두모리의 옛 이름이다. // 부수와베도 새로 영 허영게 셔도 아니 다녀. 경허난 엿날은 이 당이 쎄여놓난 이 두미 신창 영장이나 그런 거 올르지도 안헌덴 허주게. 깨끗헤연.(부숴버려도 새로 이렇게 해서 있어도 안 다녀. 그러니까 옛날은 이 '당'이 세니까 이 '두미' '신창' 신체나 그런 거 오르지도 않는다고 하지. 깨끗해서.) 26 [신창]

두박두박: 콩국을 끓일 때 콩가루 반죽이 소금을 넣은 다음 엉긴 상태를 표현한 말이다. // 불 뀌왕 톡허게 뚜껑 더껑 놔두민 두박두박을 허여.(불 꺼서 톡하게 뚜껑 덮어서 놓아두면 '두박두박'을 해.) 16 [하원]

두박두박: 큼직하게 썬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지금은 절영, 아니 엿날도 절여근에 건져근에 그레 고추 두박두박 그레 썰어 놔근에 그레 대사니 ᄒᆞ꼼 삐져 놓곡. 그축헤근에 기자 헹 먹엇주.(지금은 절여서, 아니 옛날도 절여서 건져서 그리 고추 '두박두박' 그리 썰어 넣어서 그리 마늘 조금 삐져 넣고. 그처럼 해서 그저 해서 먹었지.) 31 [토평]

두발두발허다: 두부를 만들 때 순두부처럼 되어 가는 모양을 말한다. // 콩물 숢은 걸, 두발두발헌 걸 다 놩 그거 헤난 끗덴 요렇게 코찡케 놩, 영 허여근에 딱 지둘룅 놔둬 물 빠지민 두부가 뒈는 겁주게, 썰만 허믄.(콩물 삶은 걸, '두발두발헌' 걸 다 놔서 그거 했던 끝에는 요렇게 가지런하게 놔서, 이렇게 해서 딱 지질러서 놔둬서 물 빠지면 두부가 되는 거지요, 썰기만 하면.) 34 [구억]

두불두불허다: 가루에 물을 넣어 가루가 어느 정도 엉긴 모양이 되다는 뜻이다. // 물 ᄒᆞ

쏠 놓민 ᄀᆞ루 빙빙 젓엉 풀테기ᄀᆞ루 젓어놓민 두불두불허민 그레 따시 물, 뀐 물 그레 거려놓민 닥닥허게 수까락으로 ᄌᆞᆺ으민 거 ᄀᆞ루 카는 거 아니꽈?(물 조금 놓으면 가루 빙빙 저어서 풀가루 저어 놓으면 '두불두불허민' 그리 다시 물, 끓은 물 그리 떠 놓으면 닥닥하게 숟가락으로 쪼면 그거 가루 타는 거 아닙니까?) 13 [삼달]

두불콩: 한 해에 두 번 심어 거두는 콩의 한 종류이다. // 콩 ᄀᆞ튼 거 전혀 아이 가졍 다니곡. 시방은 약콩이여 푸린 콩이여 두불콩이여 놉니께.(콩 같은 거 전혀 안 가져다니고. 시방은 '약콩'이다 청대콩이다 '두불콩'이다 놓습니다.) 03 // 밧듸 돔비 놓는 디 심는 게, 이 저 흙은 알멩이에 담아진 것이 두불콩이라.(밭에 동부 놓는 데 심는 게, 이 저 굵은 알맹이에 담아진 것이 '두불콩'이야.) 08 // 빨강 알멩이 요만ᄒᆞᆫ 거 납작납작ᄒᆞᆫ 거 두불콩 잇수다.(빨강 알맹이 요만한 거 납작납작한 거 '두불콩' 있습니다.) 08 [동광, 송당]

두불ᄑᆞᆺ: 팥의 한 종류이다. // 밧 에염에 강 영 헹 허민 밧 에염으로 담 에염으로, 담 에염으로 ᄑᆞᆺ 싱경 이레 담더레 올려. 그거 타다근에 ᄆᆞᆫ 장만허고. 경헨 헤낫주게. 두불ᄑᆞᆺ.(밭 옆에 가서 이렇게 해서 하면 밭 옆으로 담 옆으로, 담 옆으로 팥 심어서 이리 담으로 올려. 그거 따다가 모두 장만하고. 그렇게 했었지. '두불ᄑᆞᆺ'.) 31 [토평]

두세: 바람 방향이 바뀌질 무렵, 간간히 양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어부들이 배를 부리어 바다에서 일하기는 어려운 바람으로 '두세ᄇᆞ름', '두셋ᄇᆞ름', '양두새', '양도새'라고도 한다. // 촐밧 그거 잇는 사람도 잇고 엇인 사람도 잇고. 거기서 팔월 바람 두세가 터지면은 음력 팔월 두세 터지면은.(꼴밭 그거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팔월 바람 '두세'가 터지면 음력 팔월 '두세' 터지면.) 09 // 두세영 ᄒᆞᆫ 게 하늬바람. 하늬바람 터지면은 넷, 다섯 많은 사람은 한 일곱, 여덟씩 빌려서 허지.('두세'라고 한 게 하늬바람. 하늬바람 불면은 넷, 다섯 많은 사람은 한 일곱, 여덟씩 빌려서 하지.) 09 [고산]

두수개: 한림읍 대림리 이사무소 앞에 있는 지명이다. '개밧'이라고도 한다. // 대림 그거 바당 관계를 이야기허쿠다. 그 저 그렇게 뒈어서 돗통밧이 잇고 ᄯᅳ로 저 그 향사 앞에는 두수개라는 것이 잇습니다.('대림' 그거 바다 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저 그렇게 되어서 '돗통밧'이 있고 따로 저 그 향사 앞에는 '두수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35 [대림]

두에기: 애월읍 구엄리에 위치한 지명이다. // 쉐들 수눌엉 허믄 쉐 시 개로 헹은에 몰앙은에 저 두에기 저 웃드르 밧디 시꺼 강, 게난 그건 ᄒᆞ를에 헤도 다 못 허여.(소들 품앗이해서 하면 소 세 개로 해서 몰아서 저 '두에기' 저 '웃드르' 밭에 실어 가서, 그러니까 그건 하루에 해도 다 못 해.) 28 [구엄]

두줄보리: 이삭에 낟알이 두 줄로 붙은 보리이다. // 두줄보리엔 헌 게 저 뭐 맥주맥을 말ᄒᆞ는 거 아니?(두줄보리라고 한 것이 저 뭐 맥주보리를 말 하는 거 아니?) 04

[고성]

둑둑: 군고구마의 탄 부분을 툭툭 뜯어내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솟강알에 불 솜을 때 짇어근엥에 경 내여근엥에 둑둑 먹어나시녜.('솟강알'에 불 땔 때 '짇어서' 그렇게 꺼내서 '둑둑' 먹었었네.) 24 [세화]

둔말원: 한경면 신창리의 '원담' 이름이다. // 저 둔말원, 새원, 이제 멍게원, 진원 경 셔낫주.(저 '둔말원', '새원', 이제 '멍게원', '진원' 그렇게 있었지.) 26 [신창]

둔지봉: 구좌읍 한동리에 있는 오름으로 '둔지오름'이라고도 한다. // 게나제나 붉으민 나가근에 조반헤여근에 저 해 틈 전이 막 저 둔지봉 알아질탸, 둔지오름?(그러나저러나 밝으면 나가서 조반해서 저 해 뜨기 전에 마구 저 '둔지봉' 알겠니, '둔지오름'?) 12 // 둔지봉 같은 디 그런 디 강 멕이젠 허면은 거 흔 사름이 다, 주인이 다 가젠 허면은 농촌이 바쁘니까 안 뒈거든.('둔지봉'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먹이려고 하면 거 한 사람이 다, 주인이 다 가려고 하면 농촌이 바쁘니까 안 되거든.) 12 [한동]

둘룬벵: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으나 제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설사병인 듯하다. // 둘룬벵이엔 헌 배 아팡 피똥 싸는 거.('둘룬벵'이라고 한 배 아파서 피똥 싸는 거.) 13 [삼달]

둠: 고구마 기는줄기에서 잎줄기와 잎줄기 사이이다. // 감저 허젠 ᄒᆞ민 꿀 짤른 건 두 둠, 걸어야 석 둠. 경헨 이디 싹 다 찔럿는디, 우린 영 헨 질렁 영ᄒᆞᆫ 디 꾹꾹꾹꾹 질르는디.(고구마 하려고 하면 기는줄기 자른 건 두 '둠', 걸어야 석 '둠'. 그렇게 해서 여기 싹 다 찔렀는데, 우린 이렇게 해서 찔러서 이렇게 한 데 꾹꾹꾹꾹 찌르는데.) 15 [수망]

둠박둠박: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를 크고 굵게 썬 모양이다. // 감저, 깍두기보단 좀 훍게 썰어 가지고 씻어서 막 헤영게 벳경 둠박둠박 수제비보다 ᄒᆞᆯ 좀 크게 헤영 그 감저를 놔서 팍 와싹 궤면은 좁쌀을 놩 젓엉 밥을 허면 밥 다 허민 감저가 익엉 먹기 좋아.(고구마, 깍두기보단 좀 굵게 썰어 가지고 씻어서 아주 하얗게 벗겨서 '둠박둠박' 수제비보다 조금 좀 크게 해서 그 고구마를 넣고 팍 와싹 끓으면 좁쌀을 넣고 저어서 밥을 하면 밥 다 하면 고구마가 익어서 먹기 좋아.) 06 [남원]

둠빗주멩이: 두부를 만들 재료를 넣고 물을 짤 때 쓰는 주머니이다. // 이제 잔치나 뭐 둠비 콩을 막 물 우떠. 물 우떳다가 맷돌 잇잖아. 그거를 둘이 앚앙 그걸 ᄀᆞ는 거야. 갈아가지고 그거 둠빗주멩이로 막 짜.(이제 잔치나 뭐 두부 콩을 막 물 담가. 물 담갔다가 맷돌 있잖아. 그거를 둘이 앉아서 그걸 가는 거야. 갈아가지고 그거 '둠빗주멩이'로 막 짜.) 01 [도련]

둣할망눌: 제주 무속신화에 나오는 '밧칠성'을 모시는 집 뒤쪽 밭에 두는 작은 낟가리다. '뒷할망눌', '칠성눌'이라고도 한다. // 둣할망눌이엔 헤영이 일 넹길 때도 그디 강 심방 빌엉 강 허여.('둣할망눌'이라고 해서 일 넘길 때도 거기 가서 무당 빌어서 가서 해.) 11 [함덕]

둥갈둥갈: 물체가 위에 둥둥 떠 있는 모양이다. // 마농같이 영 기자는 둥갈둥갈 마농엿은 또 허민 문짝허게 익어. 익어도 둥갈둥갈헌 냥 잇어.(마늘같이 이렇게 그저는 '둥갈둥갈' 마늘엿은 또 하면 푹하게 익어. 익어도 '둥갈둥갈헌' 대로 있어.) 01 [도련]

둥수리: 키 버들의 가지나 대오리 따위로 엮어서 상자같이 만든 물건을 고리라고 하는데 위의 주둥이가 약간 좁은 것을 말한다. // 둥수리옌 허는 것은 우이 ᄒᆞ쏠 좁은 것이 둥수리고. 이건 고리.('둥수리'라고 하는 것은 위가 조금 좁은 것이 '둥수리'이고. 이건 고리.) 03 [송당]

둥탁둥탁: 고구마 따위를 굵게 썬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옛날이사 콩ᄀᆞ루에 그냥 허껏주. 경허영 감저 둥탁둥탁 썰어 놩. 감저도 겁죽 안 벳겨, 옛날은.(옛날에야 콩가루에 그냥 섞었지. 그래서 고구마 '둥탁둥탁' 썰어 넣어서. 고구마도 껍질 안 벗겨, 옛날은.) 26 [신창]

뒈께: '독교'로 말이나 소를 이용한 가마이다. 주로 결혼식 때 신부는 독교를 탄다. // 경헹 그 판관이 왓다 갓다헐 때민 이제 가메ᄀᆞ라 뒈께엔 허여. 벌륜 뒈께.(그렇게 해서 그 판관이 왔다 갔다 할 때면 이제 가마보고 '뒈께'라고 해. '벌륜 뒈께'.) 02 [선흘]

뒈성: 되승. '되'와 '승'이 혼합된 낱말이다. '되'는 부피 1.8ℓ가 들어가는 곡식, 가루, 액체 따위를 담아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그릇이다. 주로 사각형 모양의 나무로 되어 있다. '승'은 의존명사로 무엇을 재는 단위이다. // 엿날에 ᄒᆞᆯ 때 자리 ᄒᆞᆫ 말에 잊어비언에. 자리 ᄒᆞᆫ 말에 소곰 뒈성이여 ᄒᆞᆫ 거, 관뒈엔 ᄒᆞᆫ 거 잇주.(옛날에 할 때 자리돔 한 말에 잊어버려서. 자리돔 한 말에 소금 '뒈성'이야 한 거, '관뒈'라고 한 거 있지.) 15 [수망]

뒈싱: 되. 곡식, 가루, 액체 따위를 담아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그릇이다. // ᄒᆞᆫ 말 담는디 옛날 할망덜은 뒈싱 ᄒᆞᆫ 뒈 놓는덴 헤서.(한 말 담그는데 옛날 할머니들은 '뒈싱' 한 되 넣는다고 했어.) 26 [신창]

뒈싸놓다: 뒤집어 놓다. // 물 적전 영 뒈싸놈도 ᄒᆞ곡 골르로 벳 난 때 헹은에.(물 적셔서 이렇게 '뒈싸놈도' 하고 골고루 볕 난 때 해서.) 16 [하원]

뒈쓰다: '뒤집는다'의 의미이다. 여기에서 '뒤집는' 것은 곡식을 갈았다가 잘 나지 않으니까 갈아엎는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 딴 데는 뒈쓴덴 허주. 마갇이 안 뒈난 좀 뒈쓴다고.(딴 데는 '뒈쓴덴' 하지. '마갇이' 안 되니까 좀 '뒈쓴다고'.) 29 [외도]

뒈약세기: 쌀을 뜰 때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그릇이다. 주로 쌀독에 넣어서 사용한다. // 거 딴 걸로 겁떡으로 허나 겁떵 엇이면은 뒈약세기.(거 딴 걸로 '겁떡'으로 하나 '겁떵' 없으면 '뒈약세기'.) 23 // 나가 벤또 거릴 때 허민이 나도 쏠 ᄒᆞᆫ 뒈를, 뒈약세기로 ᄒᆞᆫ 뒌 안 뒈지, 뒈약세기로 ᄒᆞ날 헤근에 밥 부꺼근에 ᄒᆞ꼼 허민 이디 놓민 이디만 뒈여.(내가 도시락 뜰 때 하면 나도 쌀 한 되를, '뒈약세기'로 한 된 안 되지, '뒈약세기'로 하나를 해서 밥 부풀어서 조금 하면 여기 넣으면 여기

만 돼.) 30 [노형, 온평]

뒈왁세기: 나무를 둥그스름하고 납죽하게 파서 만든 아주 작은 그릇이다. // 초불 갈앙 푸고, 두불 갈앙 푸고 헹 황에 놔둠서로 밥, 수정 한 딘 뒈왁세기로 ᄒᆞᆫ 댓 개도 놩 ᄒᆞᆫ 솟도 허고 수정 족은 집인 둬 개도 놩 밥허민 물 꿰민 그레 좁쌀 놔근에 이젠 불 ᄉᆞᆷ다근에 밥 뒈가민 젓으민 밥 뒈주게.(초벌 갈아서 까부르고, 두벌 갈아서 까부르고 해서 항아리에 놔두고서 밥, 숫자 많은 덴 '뒈왁세기'로 한 댓 개도 놔서 한 솥도 하고 숫자 적은 집은 둬 개도 놔서 밥하면 물 끓으면 그리 좁쌀 놔서 이젠 불 때다가 밥 되어 가면 저으면 밥 되지.) 13 // 미녕 찰 때 이렇게 뭣 디므는 거. 저 뒈왁세기 닮은 거 무시거 디믈멍 허여.(무명 짤 때 이렇게 뭣 집어넣는 거. 저 '뒈왁세기' 같은 거, 뭐 집어넣어서 해.) 28 [구엄, 삼달]

뒈지마: 감자의 한 종류이다. // 지슬도예, 지슬이 히마바라여 저 옛날은 히마바라여, 뒈지마여 ᄯᅳ시 그 옛날 토종은 무신거옌 ᄒᆞ느니, 경 ᄒᆞ고양.(감자도요, 감자가 '히마바라'며, 저 옛날은 '히마바라'며, '뒈지마'며 다시 그 옛날 토종은 무엇이라고 하느니, 그렇게 하고요.) 08 [동광]

뒈지엿: 돼지고기를 넣어서 곤 엿을 말한다. // 하르방은 큰각시 살 때 그 뒈지엿만 먹언 살앗수다.(할아버지는 '큰각시' 살 때 그 '뒈지엿'만 먹어서 살았습니다.) 23 // 시집완 엿 헤본 건 ᄃᆞᆨ엿 헤보고양, 꿩엿 헤보고, 뒈지엿 헤보고, 저 무슨거 지다리엿 헤보고 것벳기 안 헤봣수다.(시집와서 엿 해본 건 'ᄃᆞᆨ엿' 해보고요, '꿩엿' 해보고, '뒈지엿' 해보고, 저 무엇 '지다리엿' 해보고 그것밖에 안 해봤습니다.) 34 [구억, 온평]

뒈지집: '도새기(돼지)'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으로, 돼지우리 한쪽에 지붕을 간소하게 해서 만든다. // 주젱이 차근에 집 짓어 주주, 뒈지집 헤근에.(주저리 짜서 집 지어 주지, '뒈지집' 해서.) 31 [토평]

뒈진벵이: 내 힘에 딱 들어맞는 것을 이른다. // 뒈진벵이엥 콱 지둘영 쥑일 수 있는 큰 돌, 뒈진벵이.('뒈진벵이'라고 콱 지지르고 죽일 수 있는 큰 돌, '뒈진벵이'.) 03 [송당]

뒈치: 마소가 먹다 남은 꼴의 찌꺼기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데치', '뒤치'라고도 한다. // 쉐 뒈치엔 헨 그건 주로 소 똥 눕는데 거 ᄀᆞᆯ아줘주, 쉐 뒈치.(소 '뒈치'라고 해서 그건 주로 소 똥 누는데 거 깔아줬지, 소 '뒈치'.) 12 [한동]

뒌개: 대정읍 신도리의 옛 이름이다. 한자어 돈포(敦浦, 頓浦)는 '뒌개'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뒌개'의 뜻은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의 신도2리에 있는 신도리 포구를 이른다. // 일과리하고 금악 사이에는 우리 그게 그 저 신도가 옛날 그 뒌개라는 이름으로 설동뒀주게.('일과리'하고 '금악 '사이에는 우리 그게 그 저 '신도'가 옛날 그 '뒌개'라는 이름으로 설동됐지.) 18 // 게서 돈두악허고 이게 내 일과리허고 이게 금악 사이에는 우리 마을이 그 당산봉에서 일과리 저게 영락이 밑에 돈두악하고 헤서 하표를 헤 가지고 요건 뒌개라는 이름으로 그저 마을을 쭉. 운영헤 오

다가.(그래서 '돈두악'하고 이게 내 '일과리'하고 이게 '금악' 사이에는 우리 마을이 그 '당산봉'에서 '일과리' 저게 '영락'이 밑에 '돈두악'하고 해서 하표를 해 가지고 요건 '뒌개'라는 이름으로 그저 마을을 쭉. 운영해 오다가.) 18 [신도]

뒌땅: 차진 기운이 있는 땅이다. // 감저는 저 뜬땅엔 그냥 질렁만 내불어도 뒈는데 이 뒌땅엔 잘 다져줘야.(고구마는 저 '뜬땅'에는 그냥 찔러서만 내버려도 되는데 이 '뒌땅'엔 잘 다져줘야.) 01 [도련]

뒌밧: 대정읍 구억리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 저 거의 다 여긴 뭐 뒌밧, 구석밧, 선남밧, 무신 뭐 산밧구석 이런 전을 헤 가지고 이 집을 지은 거라, 명칭이.(저 거의 다 여긴 뭐 '뒌밧', '구석밧', '선남밧', 무슨 뭐 '산밧구석' 이런 전을 해 가지고 이 집을 지은 거야, 명칭이.) 34 [구억]

뒌술: 차조를 발효해서 만든 청주에서 맑은 술인 청주를 뜨고 난 후, 남은 술지게미에 어느 정도 술이 섞이게 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 청주로 제 지내는 거. 우이로 거려 뒁, 거려 뒤근에 아래 건 먹고. 아래 건 건 뒌술.(청주로 제 지내는 거. 위로 떠 두고. 떠 두고 아래 건 먹고. 아래 건 건 '뒌술'.) 32 // 뒌술 그거 확확허게 젓어근엥에 저 놀레 온 하르방덜토 안네곡 저 먹엇수다게.('뒌술' 그거 확확하게 저어서 저 놀러 온 할아버지들도 드리고 저 먹었습니다.) 32 // 뒌술이엔 헌 건이 그냥 이디 청주엔 헌 건이 좁쏠. 좁쏠 강인에 ᄀᆞᆯ아당 다데 멘들앙 솟듸서 숢아.('뒌술'이라고 한 건 그냥 여기 청주라고 한 건 좁쌀. 좁쌀 가서 갈아다가 '다데' 만들어서 솥에서 삶아.) 33 [덕수, 인성]

뒐성 시프다: 무슨 일이 이루어질 가망성이 있어 보인다. // 청묵이고 청묵 못 허는 사름은 그대로 영 ᄀᆞ룰 ᄆᆞ물ᄀᆞ룰 헤 가지고 뒐성 시프다 허게 물에 카서.('청묵'이고 '청묵' 못 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렇게 가루를 메밀가루를 해 가지고 '뒐성 시프다' 하게 물을 타서.) 06 [남원]

뒤: 오줌이나 똥 따위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말이다. 보통 몸져누워서 똥오줌을 직접 해결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똥오줌을 치워주는 일을 '뒤받다'처럼 표현한다. // 뒤 받안에 허연 허난 나 씨어머님 돌아가실 때도 못 봔게.('뒤' 받아서 해서 하니까 나 시어머님 돌아가실 때도 못 봤어.) 29 [외도]

뒤끔아리: 발뒤꿈치를 이르는 말이다. // 멘 뒤칙이주, 뒤도 뒤, 뒤끔아리.(맨 뒤축이지, 뒤도 뒤, '뒤끔아리'.) 16 [하원]

뒤채: 집줄 따위를 틀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 호렝이, 여기서는 호렝이, 앚아서 허는 건 뒤채.('호렝이'. 여기서는 '호렝이'. 앉아서 하는 건 '뒤채'.) 06 [남원]

뒤치: 마소가 먹다 남은 꼴의 찌꺼기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데치'라고도 한다. // 쉐나 ᄆᆞᆯ이나 먹다가 남은 걸 뒤치엔 헤여, 뒤치.(소나 말이나 먹다가 남은 걸 '뒤치'라고 해, '뒤치'.) 06 [남원]

뒤치개: '집줄' 따위를 틀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 그 베 멘들 때 무꺼 두는 건이 거 뭐 뒤치개란 게 잇저, 뒤치개.(그 바 만들 때 묶어 두는 건 거 뭐 '뒤치개'란 게 있

어, ‘뒤치개’.) 12 // 뒤치갠 뒤에서 앚아 가지고서 뭐인가 뒤치개를 막 돌려 줘야 뒈.(‘뒤치개’는 뒤에서 앉아 가지고서 뭐인가 ‘뒤치개’를 마구 돌려 줘야 돼.) 12 [한동]

뒤치기: 두 가닥의 ‘집줄’을 하나로 만들 때, 뒤에서 돌리는 기구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표준어 돌물레에 대응한다. 달리 ‘뒤차대’, ‘뒤체’, ‘호롱이판’, ‘뒤판’이라고도 한다. // 저 거 두 사람이 영 줄 두 개 헹 왕 뒤치기로 이제 영 감아지게시리 멘들주게.(저 거 두 사람이 이렇게 줄 두 개 해 와서 ‘뒤치기’로 이제 이렇게 감아지게끔 만들지.) 10 // 뒤치기는 거 뒤에 앉아서 게난, 그 줄을 헤여근엥에 그렇게 허젠 허민 거 줄을 뽑을 때는 줄 놀 때는 두 사람이민 뭽니다게. 줄 비는 사름 혼 사름 줄 비는 사름.(‘뒤치기’는 거 뒤에 앉아서 그러니까, 그 줄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줄을 뽑을 때는, 줄 놀 때는, 두 사람이면 됩니다. 줄 베는 사람 한 사람 줄 베는 사람.) 15 // 뒤치기 그 저 뒤에서 둘러 가면 그 호렝이 헤영 줄 어울릴 때.(‘뒤치기’ 그 저 뒤에서 둘러 가면 그 ‘호렝이’ 해서 줄 어울릴 때.) 19 // 줄 어울리는 저, 뒤치기엔 허지 안허여.(줄 어울리는 저, ‘뒤치기’라고 하지 않아.) 20 [고내, 고산, 도련, 보목, 성읍, 수망, 신촌, 월령, 청수]

뒤치기호렝이: 줄이나 참바 따위를 틀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 또 거 무신 뒤, 뒤치기 호렝이게.(또 거 무슨 뒤. ‘뒤치기호렝이’.) 26 [신창]

뒤치다: 두 가닥의 줄을 꼬아서 하나로 만들 때 뒤에서 돌린다는 뜻의 제주어이다. // 앞이도 호렝이질허는 사름 둘이 비곡 영헹 영 멕이는 사름은 뒤치곡 헹 네이 들어사야여.(앞에도 ‘호렝이’질하는 사람 둘이 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이는 사람은 ‘뒤치곡’ 해서 넷이 들어서야 해.) 13 // 앚앙 내중엔 줄 어울릴 때는 이거 뒤치기라고 헤서이 뒤 돌리는 사름. 뒤치는 거.(앉아서 나중엔 줄 어울릴 때는 이거 ‘뒤치기’라고 해서 뒤 돌리는 사람. ‘뒤치는’ 거.) 14 // 이디서 하르방이 영영 그 사름 영 헹 가민 이디서 영영 들러줘사 저디서도 오곡 허멍 노 꼬아지는 거주게. 그거 잊어불엇저. 뒤치는 거엔만 허믄 뒈여.(여기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그 사람 이렇게 해서 가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줘야 저기서도 오고 하면서 노 꼬아지는 거지. 그거 잊어버렸어. ‘뒤치는’ 거라고만 하면 돼.) 33 // 뒤치는 거라 헤 가지고 허면은. 세 사름이 걸 헤 가지고 다 올립주게.(‘뒤치는’ 거라 해 가지고 하면은. 세 사람이 걸 해 가지고 다 올리지요.) 35 [대림, 삼달, 성읍, 인성]

뒷개: 제주특별자치도 조천읍 북촌리의 옛 지명이다. // 북춘도 보민 이젠 북춘이엔 헤도 옛날엔 뒷개엔 허고이.(북촌도 보면 이젠 북촌이라고 해도 옛날엔 ‘뒷개’라고 하고.) 11 [함덕]

뒷난간: 마루 뒤쪽으로 이어 만든 난간이다. // 요기는 뒷난간이라고 헤가지고 작게 나가는 디도 잇고 크게 나가는 디도 잇고. 방 때는 것은 욜로 때는 디가 만허여.(요기는 ‘뒷난간’이라고 해 가지고 작게 나가는 데도 있고 크게 나가는 데도 있고. 방 때

는 것은 욜로 때는 데가 많아.) 01 [도련]

뒷동산당: 서귀포시 하원동의 일뤳당 이름이다. '일뤳당'은 제일이 '초이레', '열이레', '스무이레' 날이며 기자(新子)의 효험이 있다고 하는 당이다. // 뒷동산당 무신 당은 본향, 본향이주.('뒷동산당' 무슨 당은 본향, 본향이지.) 16 [하원]

뒷멍에: 뒤쪽에 있는 밭머리이다. // 홍에기도 허허 불르고 으, 앞멍에랑 들어오라 뒷멍에랑 나가라 허멍.('홍에기'도 허허 부르고 으, '앞멍에'랑 들어오라 '뒷멍에'랑 나가라 하면서.) 16 // 문딱 혼꺼번에 또 불르고 냉중사람은 문딱 혼꺼번에 불르고, 처음에는 혼 사람 불르민 다음 사람. 앞멍에랑 뒷멍에랑 무너나라 허멍 그자 노래부르는 거 그자.(모두 한꺼번에 또 부르고 나중사람은 모두 한꺼번에 부르고, 처음에는 한 사람 부르면 다음 사람. '앞멍에'는 '뒷멍에'는 무너지라 하면서 그저 노래 부르는 거 그저.) 19 [청수, 하원]

뒷멩이: 애월읍 구엄리 바닷가에 있는 지명이다. // 애월러렌 사람이 크고 물이 크고 허난 면도 뺏기고 게난 이제도 엄쟁이 엄쟁이 혼 것이 엿날 지금 바당에 강 보믄 뒤후루 뒷멩이라고 잇수다게.('애월'에는 사람이 크고 물이 크고 하니까 면도 뺏기고 그러니까 이제도 '엄쟁이' '엄쟁이' 한 것이 옛날 지금 바다에 가서 보면 뒤로 '뒷멩이'라고 있습니다.) 28 [구엄]

뒷무뚱: 뒤쪽에 있는 문이나 출입구 등의 의미이다. // 돌화리 이것이 마리 평지면은 돌화리는 요 정도 올라오게시리 헤근에이, 저 마리 가운데 ᄒᆞ꼼 뒷무뚱 부쪄근에 그거를 만들어근에 헤여근에 거기에서 뭐 불 저 낭께기 헤근에 불 솜곡 그때는 그실곡 무신거 그런 거 엇곡 기자 불 솜앙 뜻뜻하게시리 허영 거기서 허영 허고. 거기에 이제 제사 때는 적쉐.(돌화로 이것이 마루 평지면 돌화로는 요 정도 올라오게끔 해서, 저 마루 가운데 조금 '뒷무뚱' 붙여서 그거를 만들어서 해서 거기에서 뭐 불 저 나뭇가지 해서 불 때고 그때는 그을리고 무엇 그런 거 없고 그저 불 때서 따뜻하게끔 해서 거기서 해서 하고. 거기에 이제 제사 때는 석쇠.) 05 [표선]

뒷바농질: 바느질의 한 방법이다. 바느질 한 곳을 다시 돌아가서 바느질하는 것으로 바늘땀을 뒤로 놓는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실을 꿴 바늘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바느질이다. 달리 '앞바농질'이라고 한다. // 박음질은 뒷바농질 허는 거. 이제 우리가 호와 갈 땐 앞으로만 호와 가거든. 그런디 이제 뒷바농질 박젱 허민 또로 호와 놩 혼 번 또로 허여가민.(박음질은 '뒷바농질' 하는 거. 이제 우리가 호아 갈 땐 앞으로만 호아 가거든. 그런데 이제 '뒷바농질' 박으려고 하면 또 호아 놓고 한 번 또 해가면.) 02 // 뒷바농질은 욜로 영 가면은 또 요만이 바농와 가민 또 뒤에 나와난 고망으로 강 영 찔르고 영 찔르민 또 욜로 또 나와난 고망으로 영.('뒷바농질'은 욜로 이렇게 가면은 또 요만큼 바늘 와 가면 또 뒤에 나왔던 구멍으로 가서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찌르면 또 욜로 또 나왔던 구멍으로 이렇게.) 11 // 뒷바농질 헌덴 건 건 뒤우로 영 가는 건 뒷바농질.('뒷바농질' 한

다고 건 건 뒤로 이렇게 가는 건 '뒷바농질'.) 20 //그 씰밥을 족게 나오게 허젠 양 바농으로 요추룩 꿰나민 그다음은 쪼금 그 바농 뒤로. 나와난 뒤로 찔러근에 영 헹 허곡 헹 그 뒷바농질이엔 헤근에.(그 실밥을 적게 나오게 하려고요 바늘로 요처럼 꿰어나면 그다음은 쪼금 그 바늘 뒤로. 나왔던 뒤로 찔러서 이렇게 해서 하고 해서 그 '뒷바농질'이라고 해서.) 23 [고내, 동광, 선흘, 성읍, 온평, 우도, 인성, 함덕]

뒷칫할망: 민간에서 가족의 안녕과 가내 평안을 위해 집 뒤에 모시는 신이다. 지역에 따라서 '칠성신'이라고도 한다. // 뒷칫할망. 그 옛날덜은 그런 집덜 것도 많이 헤낫어. 견디 지금은 별로.('뒷칫할망', 그 옛날들은 그런 집들 것도 많이 했었어. 그런데 지금은 별로.) 01 [도련]

드각드각허다: 돼지고기 삶아 난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 상태를 나타낸 말이다. // 요새 사름덜 그거 기름 드각드각헌 거 먹어집니까?(요새 사람들 그거 기름 '드각드각헌' 거 먹을 수 있습니까?) 34 [구억]

드끈: 술을 담그기 위해서 넣은 떡이나 누룩 따위가 밑으로 쑥 가라앉은 모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 막걸리거치록 그게 드끈 ᄀᆞᆯ라앉으민 청주엔도 허곡.(막걸리처럼 그게 '드끈' 가라앉으면 청주라고도 하고.) 29 [외도]

드랑드랑: 굵직한 나무 열매 같은 것이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이다. 'ᄃᆞ랑ᄃᆞ랑'이라고도 한다. // 이젠 엇인디 우리 ᄒᆞᆫ 어렷을 땐 도깨비가 저 소낭 위에도 드랑드랑 ᄃᆞᆯ아지고 질에도 뎅기당 보면 봐지는디 이제는 하나도 엇어.(이제는 없는데 우리 한 어렸을 때는 도깨비가 저 소나무 위에도 '드랑드랑' 달리고 길에도 다니다 보면 봐지는데 이제는 하나도 없어.) 18 // 참나문디 그냥 도토리 잘못허민 종낭, 도토리열매가 드랑드랑 여는 거, 종낭이라고 허는 건 약허여.(참나문데 그냥 도토리 잘못하면 때죽나무, 도토리 열매가 '드랑드랑' 여는 거, 때죽나무라고 하는 건 약해.) 19 // 초파일날 등 싸. 아기 적시덜, 아덜 적시, 손지 적시 다 드랑드랑 싸. 경헌디 우리 아덜에 손지 지집아이가, ᄉᆞ나이가 손지가, ᄉᆞ나이가 울고 지집아이가 어린이집이 가난 보통 독헌 것이 아니라이.(초파일 등 켜. 아기 몫들, 아들 몫, 손자 몫 다 '드랑드랑' 켜. 그런데 우리 아들의 손주 계집아이가, 사내아이가 손주가, 사내아이가 울고 계집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니까 보통 독한 것이 아니야.) 33 [신도, 인성, 청수]

드랑드랑ᄒᆞ다: 굵직한 나무 열매 같은 것이 많이 매달려 있다. // 저 멜쳇 ᄒᆞᆫ 말이민 소곰 뒈승 ᄒᆞᆫ 뒈, 뒈승 ᄒᆞᆫ 뒈 놔근에 저 싯지도 안ᄒᆞ곡 막 버무려근에 기자 사발로 거리멍 망데기에 담아근에 딱 ᄒᆞ게 돌 지들룅 놔두민 저 무살이 드랑드랑ᄒᆞᆸ니다.(저 멸치젓 한 말이면 소금 '뒈승' 한 되, '뒈승' 한 되 넣어서 저 씻지도 않고 막 버무려서 그저 사발로 뜨면서 '망데기'에 담아서 딱 하게 돌 지질러서 놓아두면 저 무살이 '드랑드랑ᄒᆞᆸ니다'.) 08 // 올이 누게 나 멜 ᄒᆞᆫ 사발 줘게, 징어리 멜 다듬아근에양, 커피통으로 ᄒᆞ나 잔뜩 담앙 헤놓난 경도 맛 좁니까, 경 무살이

드랑드랑ᄒᆞᆫ 게, 경 맞촹 잘 ᄒᆞ여져서 막 맛 좋안게.(올해 누구 나에게 멸치 한 사발 줬는데, 정어리 다듬어서요, 커피통으로 하나 잔뜩 담아서 해놓으니까 그렇게도 맛 좋습니까, 그렇게 무살이 '드랑드랑ᄒᆞᆫ' 게, 그렇게 맞춰서 잘 해서 막 맛 좋던데.) 08 // 제짓낭이라든지 이런 낭에 구들더레 튼튼 놔두면 그것더레 올라가지고 ᄎᆞᆷ 드랑드랑허게 ᄃᆞᆯ령, 저 누에가 죽으멍 그 고치를 만들어 뒁 죽는 겁주기, 누에는.('제짓낭'이라든지 이런 나무에 방으로 튼튼 놔두면 그것으로 올라 가지고 참 '드랑드랑허게' 달려서, 저 누에가 죽으면서 그 고치를 만들어 둬서 죽는 거지요, 누에는.) 35 [대림, 동광]

드러물동네: 대정읍 인성리 자연 마을 이름으로 '드러물'은 그 동네의 용천수 이름이다. // 다른 말 엇어. 이 동넨 인성리서도 드러물동네엔 허여.(다른 말 없어. 이 동넨 '인성리'서도 '드러물동네'라고 해.) 33 [인성]

드레이: 구좌읍 송당리 지명이다. // 대천동, 들겡이목, 드레이는 ᄀᆞ튼 거, 장터만 다른 거.('대천동', '들겡이목', '드레이'는 같은 곳, 장터만 다른 곳.) 03 [송당]

드름: 조천읍 함덕리 바닷가의 지명이다. // 드름이여, 올렛여여, ᄂᆞ릿질이여 경헹 막 세여 가지.('드름'이다, '올렛여'다, 'ᄂᆞ릿질'이다 그렇게 해서 막 세어 가지.) 11 [함덕]

드릇ᄂᆞᄆᆞᆯ: 들나물의 제주어로 들에서 저절로 난 나물이다. // 드릇ᄂᆞᄆᆞᆯ은 매해 갈지 아니헤근에 매해 아니 가는 밧듸 막 묵은 밧더레 싯주게.('드릇ᄂᆞᄆᆞᆯ'은 매해 갈지 아니하여 매해 아니 가는 밭에 막 묵은 밭에 있지.) 08 // 드릇ᄂᆞᄆᆞᆯ이엔 ᄒᆞᆫ 것도 옛날은 먹을 거 엇어놓난 들어 캐당 먹어부니까 그것도 흔ᄒᆞ진 안헤서. 제일 한 거 드릇ᄂᆞᄆᆞᆯ 속 물릇 그것이, 보리밧듸 제일 한 거 대우리.('드릇ᄂᆞᄆᆞᆯ'이라고 한 것도 옛날은 먹을 거 없으니까 계속 캐다가 먹어버리니까 그것도 흔하진 안 했어. 제일 많은 거 '드릇ᄂᆞᄆᆞᆯ' 속 무릇 그것이, 보리밭에 제일 많은 거 '대우리'.) 08 [동광]

드릇구릉: 제주시 노형동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소를 드릇구릉 앗다근에 ᄆᆞᆯᄀᆞ레에 메영 놔둬시메 강 ᄀᆞᆯ앙근에 소 앗당 잡앙 먹으라 허여게. 검은 부룽이 질롸신디.(소를 '드릇구릉' 가져다가 연자매에 매서 놔뒀으니 가서 말해서 소 가져다가 잡아서 먹으라고 해. 검은 부룩소 길렀는데.) 30 [노형]

드릇마농: 달래. '들마농', '꿩마농'이라고도 한다. // 드릇마농도 난 안 헹 먹어도 그자 그것도 거 헤다 놔근에 양념 무치민 그자 거 뒈는 거주.('드릇마농'도 난 안 해서 먹어도 그냥 그것도 거 해다 놔뒀다가 양념 무치면 그냥 거 되는 거지.) 06 // 옛날은 봄 나민 드릇마농 강 케당 그거 데왕 먹고 그거 헤근에 메역국에 마농을 썰어놓민 옛날엔 잘도 맛좋아낫주.(옛날은 봄 나면 '드릇마농' 가서 캐다가 그거 데쳐서 먹고 그거 해서 미역국에 마늘을 썰어놓으면 옛날엔 아주 맛있었지.) 13 // 드릇마농 헤다근에, 짠물에 확 절엿다근에 ᄒᆞᆫ 며틀 놔두민 그냥 시그름헤여 이놈이 드릇마농이, 이, 시그름허면 양념 엇어, 그건.('드릇마농' 해다가, 짠물에 확 절였다가 한 며칠 놔두면 그냥 시큼해. 이놈이 '드릇마농'이, 이, 시큼하면 양

념 없어, 그건.) 25 [남원, 삼달, 태흥]

드릇밧: '드르+밧' 구성으로, '드르'는 들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들판의 의미로 쓰였다. // 줄 벋엉 가곡 그거는 저 츰제완지는. 드릇밧디 나는 거.(줄 벋어서 가고 그거는 저 '츰제완지'는. '드릇밧'에 나는 거.) 14 // 촐은 드릇밧듸 내불민 또 나곡, 또 나곡 ᄒᆞ는 거.(꼴은 '드릇밧'에 내버리면 또 나고, 또 나고 하는 거.) 17 // 촐밧 신 사름은 강 비곡, ᄂᆞᆷ의 밧 버실엉, 드릇밧듸 강 봉가오는 사름도 잇곡, 이녁 밧 엇인 사름은 경 ᄒᆞ는 거주.(꼴밭 있는 사람은 가서 베고, 남의 밭 벌어서, '드릇밧'에 가서 주워오는 사람도 있고, 이녁 밭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지.) 17 [대평, 성읍]

드릇쉐: 들에 방목하여 키우는 소를 말한다. // 야우엔 드릇쉐거든 드르에서 키우는 소 헤영 한라산에 보내곡 저 겨울에는 이제 이 목장에 가근에 허영 촐 좀 헤당 눈푸끄면은 촐도 주곡.(야우에는 '드릇쉐'거든. 들에서 키우는 소 해서 한라산에 보내고 저 겨울에는 이제 이 목장에 가서 해서 꼴 좀 해다가 '눈푸끄면은' 꼴도 주고.) 32 [덕수]

드박드박: 콩국을 끓일 때 넣은 콩가루가 두부처럼 엉켜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경 허영 ᄃᆞᆯ무레기 허믄 콩국이 드박드박 경 허영.(그렇게 해서 'ᄃᆞᆯ무레기' 하면 콩국이 '드박드박' 그렇게 해서.) 29 // 그것도 콩ᄀᆞ르도 하영 놔사 드박드박 맛싯지 아녑니까?(그것도 콩가루도 많이 넣어야 '드박드박' 맛있지 않습니까?) 32 [덕수, 외도]

드박드박허다: 두부 따위를 만들 때 무르게 굳은 모양을 말한다. // 경허민 그 ᄂᆞᄆᆞᆯ이 나쁘민 콩국 드박드박허게 끓여근에.(그러면 그 나물이 나쁘면 콩국 '드박드박허게' 끓여서.) 32 [덕수]

득수알: 임대료처럼 품을 받는 것을 뜻한다. // 그 무신 득수알인가 시방이면 임대료주. 임대료. 득수알. 품 받는 것이.(그 무슨 '득수알'인가 시방이면 임대료지, 임대료. '득수알'. 품 받는 것이.) 03 [송당]

들겡이목: 구좌읍 송당리 지명이다. // 대천동, 들겡이목, 드레이는 ᄀᆞ튼 거, 장터만 다른 거.('대천동', '들겡이목', '드레이'는 같은 곳, 장터만 다른 곳.) 03 [송당]

들락허다: 붙어 있는 것이 조금 떠들려 있다. // 보선 신으민 뽄이 엇이카부덴 이 턱을 멘들앙 이디가 영 들락헤 불카부덴.(버선 신으면 볼품이 없을까봐 이 턱을 만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들락헤' 버릴까봐.) 11 [함덕]

들랑들랑들랑: 목화 태우는 기계를 밟을 때 나는 소리이다. // 그 테우는 기계가 있어. 발로 들랑들랑들랑 ᄇᆞᆯ라 가민 그 솜이 지글지글 지글지글 퍼져 가지고 옴상허게 퍼지면은.(그 태우는 기계가 있어. 발로 '들랑들랑들랑' 밟아 가면 그 솜이 지글지글 지글지글 퍼져 가지고 '옴상'하게 퍼지면.) 06 [남원]

들렁귀: 안덕면 대평리의 한 지명이다. // ᄯᅳ로 들렁귀옌 ᄒᆞᆫ 듸 가근에 가오리도 쏘아보고, 이 기움창 안네서도 가오리.(따로 '들렁귀'라고 한 데 가서 가오리도 쏘아보고,

이 ‘기움창’ 안에서도 가오리.) 17 [대평]

들레기목: 구좌읍 송당리 지명이다. // 들레기목광 드레이가 별도로 이서십주.(‘들레기목’과 ‘드레이’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03 [송당]

들릇: 속눈썹에 생긴 부스럼인 다래끼를 말하는데, 달리 ‘들윗’, ‘들륏’이라고도 한다. // 우의 난 게 들릇일 거라. 아래 난 게 개씹 아인가?(위에 난 게 ‘들릇’일 거야. 아래 난 게 ‘개씹’ 아닌가?) 24 [세화]

들머귀: 잎이 작고 검푸르며 털 같은 것이 돋은, 품질이 좋지 못한 나물이다. ‘들머귀ᄂᆞᆯ’이라고도 한다. // 옛날은 이제는 중간에야 하꼬산이여 뭐 당배추여 뭐 나왓지마는 옛날은 들머귀벳긔 없엇어.(옛날은 이제는 중간에야 ‘하꼬산’이다 뭐 ‘당배추’다 뭐 나왔지만 옛날은 ‘들머귀’밖에 없었어.) 01 // 배치ᄂᆞᆯ. 것도 속 안 앚는 거. 들머귀여 뭐여 상당이. 오히려 옛 어른덜 말허는 거 보민 들머귀가 더 맛 좋앗젠 헤여.(‘배치ᄂᆞᆯ’. 것도 속 안 앉는 거. ‘들머귀’다 뭐다 상당히. 오히려 옛 어른들 말하는 거 보면 ‘들머귀’가 더 맛 좋았다고 해.) 01 // 배추도 아니고, ᄂᆞᆷ삐도 아니고, 드릇ᄂᆞᆯ도 아닌 ᄒᆞᆫ 썹이 넙적넙적한 ᄂᆞᆯ이 들머귀라 ᄒᆞ는 ᄂᆞᆯ이 잇수다.(배추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드릇ᄂᆞᆯ’도 아닌 한 잎이 넓적넓적한 나물이 ‘들머귀’라 하는 나물이 있습니다.) 08 [도련, 동광]

들머귀드릇ᄂᆞᆯ: 잎이 작고 검푸르며 털 같은 것이 돋은, 품질이 좋지 못한 나물이다. ‘들머귀’라고도 한다. // 기냥 원래 드릇ᄂᆞᆯ도 ᄀᆞ새드릇ᄂᆞᆯ도 싯곡, 기냥 그 저 저 그냥 들머귀드릇ᄂᆞᆯ도 싯곡, 드릇ᄂᆞᆯ도 싯곡.(그냥 원래 ‘드릇ᄂᆞᆯ’도 씀바귀도 있고, 그냥 저 저 그냥 ‘들머귀드릇ᄂᆞᆯ’도 있고, ‘드릇ᄂᆞᆯ’도 있고.) 08 [동광]

들머귀짐치: 잎이 작고 검푸르며 털 같은 것이 돋은, 품질이 좋지 못한 나물로 만든 김치이다. // ᄂᆞᆯ도 ᄯᅳ시 썹이 너풀너풀 배추추룩, 싹 ᄂᆞᆯ추룩 ᄒᆞᆫ 건 들머귀짐치.(나물도 다시 잎이 넓적넓적 배추처럼, 싹 나물처럼 한 건 ‘들머귀짐치’.) 08 [동광]

들싹들싹: 덮개 따위가 가볍게 위, 아래로 되풀이해서 흔들리며 움직이는 모양이다. // 생선국은 저 물 언 때 놔 불민 카진덴 물, 국 끓일 만이 양을 놔근에 물 팔팔 끓이민 생선 논 다음에 들싹들싹 허지 말앙 불 ᄂᆞ리와근에 생선이 거자 익지 않을 때라도 ᄀᆞᆫ을 허는 거라.(생선국은 저 물 차가울 때 넣어 버리면 으스러진다고 물, 국 끓일 만큼 양을 넣고 물 팔팔 끓으면 생선 넣은 다음에 ‘들싹들싹’ 하지 말고 불 내려서 생선이 거의 익지 않을 때라도 간을 하는 거야.) 06 [남원]

들짝들짝: 느린 동작으로 만지작만지작하거나, 무엇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뒤지는 꼴을 나타낸 말이다. // 이런 것에 감으멍 솟디서 솖으면 하시로 떨어질까 봐 들짝들짝 허멍 이걸로 감아.(이런 것에 감으면서 솥에서 삶으면 젓가락으로 떨어질까 봐 ‘들짝들짝’ 하면서 이걸로 감아.) 06 [남원]

듬박듬박: 국 따위에 건더기가 큼직큼직하게 들어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ᄆᆞ물범벅도 그 감제, 감제 썰엉 듬박듬박 허영 보글보글 막 끌어 갈 때 ᄀᆞ루 놩 허민 막

맛셔. ᄆᆞ물범벅. 그냥 ᄆᆞ물만 헌 게 아니고.(메밀범벅도 그 고구마, 고구마 썰어서 '듬박듬박' 해서 보글보글 마구 끓어 갈 때 가루 넣어서 하면 아주 맛있어. 메밀범벅. 그냥 메밀만 한 게 아니고.) 26 // 고춧ᄀᆞ루 헐 중도 몰랑 고추 썰어 놩, 듬박듬박 썰어 놩 그것에 버물영 먹엇주게.(고춧가루 할 줄도 몰라서 고추 썰어 넣어서, '듬박듬박' 썰어 넣어서 그것에 버무려서 먹었지.) 31 [신창, 토평]

듬박듬박: 죽 따위가 점성이 있는 모양을 흉내낸 말이다. // 아니 영 ᄯᆞᆯ라근에 죽 끌리민 막 듬박듬박 맛좋아. 깅이죽 막 고급. 막 맛셔 이제도.(아니 이렇게 따라서 죽 끓이면 아주 '듬박듬박' 맛있어. 게죽 아주 고급. 아주 맛있어 이제도.) 26 [신창]

듬발듬발: 점성이 있는 액체나 가루 따위가 한 덩어리가 되면서 굳어지는 모양이다. // 막 짜면 그 차두 아래 ᄂᆞ리운 그 깨끗헌 물은 저디 솖아난 솟 단장헤영 그레 놔근에, 그레 놩 그 주시는 우이 주시는 옆에 놔두고 이제 아랫물 짱 막 솖으멍 거자 솖아져 가민 소금 쳐, 소금 치민 그 물이 콩국거치 듬발듬발 언쳐가주.(막 짜면 그 자루 아래 내린 그 깨끗한 물은 저기 삶았던 솥 단장해서 그리 넣어서, 그리 넣고 그 찌꺼기는 위에 찌꺼기는 옆에 놔두고 이제 아랫물 짜서 막 삶으면서 그저 삶아져 가면 소금 쳐, 소금 치면 그 물이 콩국처럼 '듬발듬발' 엉겨 가지.) 06 // 소금을 허면 듬발듬발 그놈의 것이.(소금을 하면 '듬발듬발' 그놈의 것이.) 06 [남원]

듬북: 모자반과에 속하는 해조류로, 먹지 않는 거름용 해조류이다. // 걸름 걸어. 걸어 나민 그런 듬북 꼴아나면은 조도 좋고, 보리 헤나민.(거름 걸어. 걸고 나면 그런 '듬북' 깔고나면 조도 좋고, 보리 하고 나면. 11 // 이 헤벤 사름덜은 듬북 헤다근에 밧고랑에 꼴아근에 그디 감저 갈앙 놔근에 허민 감저 놓곡 허엿주.(이 해변 사람들은 '듬북' 해다가 밭고랑에 깔아서 거기 고구마 갈아서 놔서 하면 고구마 놓고 했지.) 13 // 듬북 ᄀᆞ튼 것도 전부 다 해조류인데 그런 것도 다 저기 저 거름용으로 사용ᄒᆞ지.('듬북' 같은 것도 전부 다 해조류인데 그런 것도 다 저기 저 거름용으로 사용하지.) 27 [삼달, 옹포, 함덕]

듬북걸름: 듬북을 말려서 만든 거름을 말한다. // 저 듬북걸름 거 물 들게끔. 그 듬북이 거니까 경 허곡. 우리 경우엔 미역.(저 '듬북걸름' 거 물 들게끔. 그 '듬북'이 거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경우엔 미역.) 05 [표선]

듬북재: 듬북을 태워서 나온 재를 말한다. // 젤 처음은 그디 듬북재를 들엿다가 그거 나쁘다고 허니까 그걸 다 제초헤 둰 보릿대를 다 소 안 길루고 허니까 다 과수원에 갖당 이만큼 깔아 놓니까.(젤 처음은 거기 '듬북재'를 들였다가 그거 나쁘다고 하니까 그걸 다 제초해 두고 보릿대를 다 소 안 기르고 하니까 다 과수원에 갖다가 이만큼 깔아 놓으니까.) 23 [온평]

듬북제: 거름으로 사용할 듬북의 채취 등을 공동으로 작업하기 위한 계이다. // 옛날은 비료가 엇기 때문에 그 듬북을 헤다가 ᄆᆞᆯ롸서 거세기 헷거든, 그 듬북제가 제가, 제가 잇어.(옛날은 비료가 없기 때문에 그 '듬북'을 해다가 말려서 거시기 했거

든, 그 '듬북제'가 계가, 계가 있어.) 12 // 듬북제로 헤 가지고서 그걸, 듬북 올라오민 그걸 ᄆᆞᆯ류왕 ᄆᆞᆯ류우민 다 각자가 갈라 가지고서 그건 시꺼다가 눌엉 놧당 건 보리 갈 때에 걸름 대신 그걸 고랑에 ᄀᆞᆯ앙 이렇게 허고.('듬북제'로 해 가지고서 그걸, '듬북' 올라오면 그걸 말려서 마르면 다 각자가 갈라 가지고서 그건 실어다가 가려 놨다가 건 보리 갈 때 거름 대신 그걸 고랑에 깔아서 이렇게 하고.) 12 [한동]

듬탕허다: 두붓물이 엉겨 굳어지는 모양이다. // 거 절어가면서 물은 이레 ᄯᅳ로 빠지고 그 듬탕허게 그 뭐인가 두부 모가 얼린 것거치 땅땅허주게.(거 엉겨가면서 물은 이리 따로 빠지고 그 '듬탕허게' 그 뭐인가 두부 모가 얼린 것같이 딴딴하지.) 12 [한동]

등갈등갈허다: 기름기가 둥둥 떠 있는 모양이다. // 소곰 버무려근에 ᄒᆞᆫ 멧 시간, ᄒᆞᆫ 서너 늬 시간 기냥 놧당, 물이 그레, 우터레 등갈등갈허민, 소곰 녹으민 ᄂᆞᆷ삐에 물이 영 나오민 물이 흥건헙니다게.(소금 버무려서 한 몇 시간, 서너네 시간 그냥 놓았다가, 물이 그리로, 위로 '등갈등갈허민', 소금 녹으면 무에 물이랑 나오면 물이 흥건합니다.) 08 // 술을 담으면은 ᄒᆞ꼼 오래뒈며는 막 독헤영 우에 뜬 거는 청주라고 헤서 아주 지름 등갈등갈헌 거 그건 ᄯᅳ로 걸령 놔두고 잔치 때도 그렇게 헷어.(술을 담으면 조금 오래되면 막 독해서 위에 뜬 거는 청주라고 해서 아주 기름 '등갈등갈헌' 거 그건 따로 걸려서 놔두고 잔치 때도 그렇게 했어.) 19 // 그게 막걸리 헤 노민 그게 막걸리 중엔 최고, 지름이 등갈등갈헤여.(그게 막걸리 해 놓으면 그게 막걸리 중엔 최고, 지름이 '등갈등갈헤여'.) 19 [동광, 청수]

등개ᄀᆞ루: 보리를 찧거나 쓿을 때 나오는 가루다. 정미소에서 보리를 도정할 때 나오는 겁질을 말한다. // 감젓주시 헤당 담더레 널엉, 숭년지곡 막 ᄒᆞ난 담더레 널엉 파삭 ᄆᆞᆯ를 거 아이꽈? 게민 부수왕 ᄀᆞ레에 ᄀᆞᆯ앙 등개ᄀᆞ루.('감젓주시' 해다가 담으로 널어서, 흉년지고 막 하니까 담으로 널어서 파삭 마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숴서 맷돌에 갈아서 '등개ᄀᆞ루'.) 17 // 보리, 보릿ᄀᆞ르 막 엉긴 거 등개ᄀᆞ르 놔근에.(보리, 보릿가루 아주 엉긴 거 '등개ᄀᆞ르' 놔서.) 23 // 등개ᄀᆞ루엔 헌 건 보리 거펴난 거. 보릿ᄀᆞ루 그건 진짜 맛엇인 거. 그건이 ᄃᆞᆫ 거 아이 놓민 먹지도 못허여.('등개ᄀᆞ루'라고 한 건 보리 거피했던 거. 보릿가루 그건 진짜 맛없는 거. 그건 단 거 안 놓으면 먹지도 못해.) 25 // 콩깍지 ᄀᆞ튼 거나 이런 소가 좋아허는 특별헌 음식을 주인들이 잘 알거든. 이제 그걸 등개ᄀᆞ루엔 헤근엥 보리 말이여 지어낫어. 제일 나중에 나오는 체가 잇어 체.(콩깍지 같은 거나 이런 소가 좋아하는 특별한 음식을 주인들이 잘 알거든. 이제 그걸 '등개' 가루라고 해서 보리 말이야 지었었어. 제일 나중에 나오는 겨가 있어 겨.) 27 [대평, 온평, 웅포, 태흥]

등개ᄀᆞ를: 보리를 찧거나 쓿을 때 나오는 가루이다. 정미소에서 보리를 도정할 때 나오는 겁질을 말한다. // 그걸로는 쉐도 멕이고 쉐 이 썰어가지고 작두로 썰어가지고 이제 이 보리찍, 등개ᄀᆞ루 그런 거 있으면은 서껴가지고.(그거로는 소도 먹이고

소 이 썰어가지고 작두로 썰어가지고 이제 이 보릿짚, 등개 가루 그런 거 있으면 섞여가지고.) 09 // 옛날엔 숭년 지난 등개ᄀᆞ를로도 밥헨 먹엇수다.(옛날에는 흉년 지나서 '등개' 가루로도 밥해서 먹었습니다.) 17 [대평]

등개떡: 보릿가루로 반죽해서 삶아내어 보리 미숫가루를 고물로 무친 떡이다. // 등개떡이엔 허멍 그거 작작 밀어근에 인절미 ᄀᆞ튼 거 삭삭 베엉 솟디서 확 솖앙 보리 개역에 싹 무쳐, 보리 개역 무쳐.('등개떡'이라고 하면서 그거 작작 밀어서 인절미 같은 거 삭삭 베어서 솥에서 확 삶아서 보리 미숫가루에 싹 묻혀, 보리 미숫가루 묻혀.) 25 // 등개떡이엔 헌 건이 보리 거펴나면 그 ᄀᆞ루 헤여근에 등개떡을 만드는 거고.('등개떡'이라고 한 건 보리 거피하고 나면 그 가루 해서 '등개떡'을 만드는 거고.) 25 [태흥]

등겁다: 음식이 아주 구수하거나 기름기가 있어 눅눅하다는 말이다. // 궤왕 놧당 바글바글 궤왕놧당은에 아직에랑 메역이영 양념 놩은에 메역 놓고 허영 장이영 놩은에 국 끌여사 더 등거웁니덴 허난, 우리 경헹 먹어 보지 안헷어이.(끓여서 놨다가 바글바글 끓여놨다가 아침에는 미역이랑 양념 넣어서 미역 넣고 해서 장이랑 넣어서 국 끓여야 더 '등거웁니덴' 하니까, 우리 그렇게 해서 먹어보지 않았어.) 33 [인성]

등기다: 무엇이 밑으로 축 늘어져 매달리다는 의미이다. // 어무니 나 뎅기단 보난 어걸 등긴 말이 무시것과? 강알로 어걸 등겨나고렌 헙디다 허연. 어걸 이 손 주먹만인 헌다게.(어머니 내가 다니다가 보니까 '어걸' '등긴' 말이 무엇입니까? 샅으로 '어걸' '등겨나고렌'고 합디다 해서. '어걸' 이 손 주먹만은 한다.) 31 [토평]

등덜펭: 진흙으로 만든 두 되들이로 소줏고리에서 술을 받는 병으로 '드들펭', '등들펭'이라고도 한다. // 등덜펭이엔이 불에 가도 아니 벌러지곡 아니 카는 거.('등덜펭'이라고 불에 가도 안 깨지고 안 타는 거.) 02 // 그냥 씨를 헤 가지고 좁씨 거튼 것은 그 뭐인가 그 조그만 등덜펭 거튼 거 그런 것이 잇어낫어, 옛날은.(그냥 씨를 해 가지고 조씨 같은 것은 그 뭐인가 그 조그만 '등덜펭' 같은 거 그런 것이 있었지, 옛날은.) 12 // 옛날에 그거 막게 펭 옛날엔 등덜펭 그거.(옛날 그거 마개 병 옛날에 '등덜펭' 그거.) 13 [삼달, 선흘, 한동]

등얼허다: 심신상에 큰 고통을 받아서 회복이 안 되고 시달린다. // 몸 비린 사름 다니면은 산모가 막 거 등얼허주게.(몸 '비린' 사람 다니면 산모가 아주 거 '등얼허주'.) 12 [한동]

등이다: 무엇이 밑으로 축 늘어져 매달리다는 의미이다. // 나 우리 큰놈 난 때에 보리씨 닷말지기 불껑을 할망 접아놓고, 그거 더끄젠 허난 놉 빌어지건 허젠 헌디, 놉 못 비난 나 진정 말이주 그것 강 더꺼낫당 어걸 등연 나 구루마레 옛날 철 구루마레 걸어오지 못헨 안아 와낫저.(나 우리 큰놈 낳을 때에 보리씨 다섯 마지기 재를 할머니 집어넣고, 그거 덮으려고 하니까 놉 빌릴 수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놉 못 빌리니까 나 진정 말이지 그것 가서 덮었다가 '어걸' '등연' 나 달구지에

옛날 철 달구지에 걸어오지 못해서 안아 왔었어.) 31 [토평]

등절미: 메밀가루나 쌀가루를 반죽해서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 삶아낸 후 팥고물을 묻힌 떡이다. 달리 '등절비'라고 한다. // 등절미 나도 들어보긴 들어봣다. 그 이름.('등절미' 나도 들어보긴 들어봤어. 그 이름.) 01 // 등절미엔 헌 것도 셔낫주만은. 대목 그거 대목 허연.('등절미'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대목' 그거 '대목' 했어.) 20 // 등절미도 거 동글락헌 거우다게.('등절미'도 거 동그란 겁니다.) 32 [고내, 덕수, 도련]

등절비: 쌀이나 메밀가루를 반죽해서 안에 팥소를 넣고 삶아낸 후 팥고물을 묻힌 떡으로 송편보다 조금 크고 두껍다. // 우리 거트민 ᄒᆞ나 주멍 ᄆᆞ물ᄀᆞ루로 이만썩 멘들젠 허민 경 헹 그걸로 허고 또 잘허는 사름은 ᄊᆞᆯᄀᆞ루 헤 가지고 등절비라고 막 두둑허게 이만이 헹.(우리 같으면 하나 주면서 메밀가루로 이만큼씩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그걸로 하고 또 잘하는 사람은 쌀가루 해 가지고 '등절비'라고 아주 두둑하게 이만큼 해서.) 06 // 옛날엔 영장밧듸 등절비. 곤떡으로도 등절비 ᄒᆞ곡, 그 상뒤 테우는 거 세 개민, 경ᄒᆞ민 모멀은 이만씩 벵돌락ᄒᆞᆫ 다데, 그건 상뒤 테우는 거, 경 ᄒᆞ여낫수게, 모멀은.(옛날에는 장지에 '등절비'. 흰떡으로도 '등절비' 하고, 그 향도 태우는 거 세 개면, 그러면 메밀은 이만큼씩 둥그런 '다데', 그건 향도 태우는 거, 그렇게 했었습니다, 메밀은.) 17 // 이 등절비엔 헌 거는 곤 ᄀᆞ루로 만들아근에, 쉬 미쳥 아이들 그자, 그건 제ᄉᆞ에 안 쓰는 ᄀᆞ루로 그자 아무 보릿ᄀᆞ루라도 헤여근에 쉬 미치멍 아이들 배불게 주어 부는 거.(이 '등절비'라고 한 거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고물 묻혀서 아이들 그저, 그건 제사에 안 쓰는 가루로 그저 아무 보릿가루라도 해서 고물 묻히면서 아이들 배부르게 줘 버리는 거.) 25 // 동글랑허게 허여 놩. 그 세미칠룩 헤도 이칠룩 헤영 귄 엇어도 영 영 좁안 손으로 영 영 누르뜨는 것ᄀᆞ라 등절비.(동그랗게 해 놔서. 그 '세미'처럼 해도 이처럼 해서 귀는 없어도 이렇게 이렇게 집어서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누르는 것보고 '등절비'.) 26 [남원, 대평, 신창, 태흥]

등체기: 나무 밑동이나 식물의 끝부분을 이르는 말이나 여기서는 줄기의 의미로 쓰였다. '등케기'라고도 한다. // 끄트머리로만 나는 거난. 이 등체기론 안 나는 거주게.(끄트머리로만 나는 거니까. 이 '등체기'론 안 나는 거지.) 08 // 안으로 들어가게 눌엇다가 등체긴 베끗디레 영 나오게시리.(안으로 들어가게 가리었다가 '등체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10 // 여물도 얼마 안 나, 그건. 이 등체기만 핫주, 고고리도 요만씩헤부난 등체기가. 여물이 엇어.(여물도 얼마 안 나, 그건. 이 '등체기'만 많지, 이삭도 요만큼씩해 버리니까 '등체기'가. 여물이 없어.) 25 [동광, 월령, 태흥]

등퀘: 제주특별자치도 한경면 청수리의 지경 이름이다. // 진 건 낭허레 가고, 솔입은 이 등퀘에서 솔입 긁고.(긴 건 나무하러 가고, 솔가리는 이 '등퀘'에서 솔가리 긁고.) 19 [청수]

등타다: 농사지을 때 씨를 뿌리기 전에 거름을 깔기 위해 고랑을 내어 밭을 갈다. // 걸름을 끌아야 그 밧을 영 갈앙 고랑에 걸름을 끌앙. 우선 밧을 갈아야 뒈지. 거 조크르 등탄다고 그랫어 등탄다고.(거름을 깔아야 그 밭을 이렇게 갈아서 고랑에 거름을 깔아서. 우선 밭을 갈아야 되지. 거 '조크르' '등탄다고' 그랬어, '등탄다고'.) 12 // 처음에 등타야 뒈고 쉐 그 밧 갈을 때 등타야 뒈고 그다음은 그 걸름을 그 고랑에 다 끌아야 뒈주게.(처음에 '등타야' 되고 소 그 밭 갈 때 '등타야' 되고 그다음은 그 거름을 그 고랑에 다 깔아야 되지.) 12 [한동]

디꺽: '지깍' 혹은 '디깍'을 달리 발음한 것이다. 그 의미로는 '일정한 공간에 물건이 가득 박혀 빽빽한 모양'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물기가 없이 끈적끈적한 엿기름 상태를 말한다. // 두루 딸리민 감지가 뒈고, 그거 뽀짝ᄒᆞ게 막 풀풀 ᄒᆞ게 디꺽 딸령 놔두민 엿이 뒈곡.(덜 달이면 감주가 되고, 그거 바싹하게 매우 풀풀하게 '디꺽' 달여서 놔두면 엿이 되고.) 15 [수망]

디디하다: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그저 유식한 고명한 사름들이 헙니다. 허염직한 사름덜. 소소한 사름덜, 아무나 디디한 사름덜 아니 헙니다.(그저 유식한 고명한 사람들이 합니다. 할 만한 사람들. 소소한 사람들, 아무나 '디디한' 사람들 안 합니다.) 03 [송당]

디딜낭: 부춧돌. 돼지우리에서 볼일을 볼 때 발을 딛는 돌이다. '디딜팡' 또는 '드들팡'이라고도 한다. // 그래서 디딜낭이라고 헤가지고 변보는 데를 만들고. 게서 그 변을 뒈지가 먹고.(그래서 '디딜낭'이라고 해가지고 변보는 데를 만들고. 게서 그 변을 돼지가 먹고.) 19 [청수]

ᄃᆞ레: 조천읍 교래리이다. // 세벡이 저 웃드르 쯤 가젠 허민 시방 가름에 사름덜 저 성읍리ᄁᆡ장 가젠 허민 세벡이나 ᄃᆞ레나 가젠 허민 ᄒᆞᆫ 서너 시 뒈민 가, 올라가.(새벽에 저 '웃드르' 쯤에 가려고 하면 시방 '가름'에 사람들 저 '성읍리'까지 가려고 하면 새벽이나 'ᄃᆞ레'나 가려고 하면 한 서너 시 되면 가, 올라가.) 13 [삼달]

ᄃᆞ르겡이: 아주 작은 밭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돌렝이'라고도 한다. // 건 어느 허믄 돌렝이 하나 헷당, 뚠 딘 다 솔오리 갈곡, 그 저 검은 쏠, 나는 거 저 촐보리, 촐보리옝 허여, 촐보린 ᄒᆞᆫ두 개, ᄒᆞᆫ ᄃᆞ르겡이 헷당, 지엉 놔둠서러 ᄒᆞ끔석 석으멍 밥에 촐지게 허여.(그거는 어느 하면 '돌렝이' 하나 했다가, 다른 데는 다 쌀보리 갈고, 그 저 검은 쌀, 나는 그거 저 찰보리, 찰보리라 해, 찰보리는 한두 개, 한 'ᄃᆞ르겡이' 했다가, 찧어서 놔두고 있으면서 조금씩 섞으면서 밥에 찰지게 해.) 28 [구엄, 노형]

ᄃᆞ리: 안덕면 감산리에 위치한 지경 이름이다. // 난 감산이 ᄃᆞ리에ᄁᆡ지 솔입 긁으레 뎅겨 낫어, 이디 난드르서.(난 '감산리' 'ᄃᆞ리'에까지 솔가리 긁으러 다녔었어, 여기 '난드르'서.) 17 [대평]

ᄃᆞ리: 조천읍 교래리의 옛 이름이다. // 이레이 이 해각더레는, 저 아까 말헌 그런 송당더레이. 요 한 십여 년 전까지만 헤도 목초용으로 피 재배를 헷어. ᄃᆞ리, ᄃᆞ리송당,

ᄃᆞ리송당.(이리 이 해안 지역으로는, 저 아까 말한 그런 '송당'으로. 요 한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목초용으로 피 재배를 했어. 'ᄃᆞ리', 'ᄃᆞ리송당', 'ᄃᆞ리송당'.) 06 // 아주 우이 올라가야, ᄃᆞ리 잇잖아. ᄃᆞ리로 쑥 허게 올라가서 나무 헤여. (아주 위에 올라가야, 'ᄃᆞ리' 잇잖아. 'ᄃᆞ리'로 쑥 하게 올라가서 나무 해.) 21 [남원, 신촌]

ᄃᆞ리손당: 조천읍 교래리와 송당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ᄃᆞ리송당'이라고도 한다. // 저 ᄃᆞ리손당더레 가야, 저 서촌더레가 많이 헤실 거라. 서촌인가, 저 동더레도 어디 바른 디가.(저 'ᄃᆞ리손당'으로 가야, 저 '서촌'으로가 많이 했을 거야. '서촌'인가, 저 동쪽에도 어디 바른 데가.) 11 [함덕]

ᄃᆞ리송당: 조천읍 교래리와 송당리로, 'ᄃᆞ리손당'이라고도 한다. // 난 새소리낭 접동새낭 저 웃드르 송당이렌 허는 첩첩산골이우다. 영 ᄀᆞᆯ으민 몰라마씀. 몰리민 저 ᄃᆞ리송당 그땐 알곡.(나는 '새소리낭' '접동새낭' 저 '웃드르' '송당'이라고 하는 첩첩산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몰라요. 모르면 저 'ᄃᆞ리송당' 그때는 알고.) 03 // ᄃᆞ리송당 큰애기 피방에 찧는 소리.('ᄃᆞ리송당', '큰애기' 피방아 찧는 소리.) 19 // ᄃᆞ리송당은 주로 피 가난 피밥 헹 먹어실 거고.('ᄃᆞ리송당'은 주로 피 가니까 피밥 해서 먹었을 거고.) 30 [노형, 송당, 청수]

ᄃᆞᄅᆞ겡이: 아주 자그마한 밭이다. // 옛날은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ᄃᆞᄅᆞ겡이로 셍각헹은 춤 아무것도 아닙주. ᄃᆞᄅᆞ겡이 ᄒᆞ나 사민.(옛날은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ᄃᆞᄅᆞ겡이'로 생각해서는 참, 아무것도 아니지요. 'ᄃᆞᄅᆞ겡이' 하나 사면.) 19 [청수]

ᄃᆞ사리: 남의 집에 살면서 일을 해주는 사람을 말하며, '도사리'라고도 한다. // 또 손자 장수헹 오래 산 집도, 또 손자 살고, 또 그 엿날에는 그 머슴, 그 엿날에는 ᄃᆞ사리엔 헨에 여기선.(또 손자 장수해서 오래 산 집도, 또 손자살고, 또 그 옛날에는 그 머슴, 그 옛날에는 'ᄃᆞ사리'라고 해서 여기선.) 15 [수망]

ᄃᆞᆨ석: 멍석을 뜻하는데 네모진 것과 원 모양의 것을 구분하는 의미로 말한 듯하다. // 동글락헌 건 ᄃᆞᆨ석이고. 건 ᄃᆞᆨ석이고. 수랑, 수랑허주게. 소랑헙니다. 소랑허여. 늬개 방장 아녕 수룽허여.(동그란 건 'ᄃᆞᆨ석'이고. 건 'ᄃᆞᆨ석'이고. 기름, 기름하지. 기름합니다. 기름해. 네모반듯하지 않고 기름해.) 32 [덕수]

ᄃᆞᆨ세기: 여기에서 남자의 고환인 즉, '불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 총각이 막 올레더레 따라오멍 ᄃᆞᆨ새기 상 갑서, 상 갑서, 아, 경 헹 보건 장난으로양 ᄃᆞᆨ세기 이녁 ᄉᆞ나이난에 ᄃᆞᆨ세기.(총각이 막 오래로 따라오면서 달걀 사서 가십시오, 사서 가십시오, 아, 그렇게 해서 보건 장난으로요 'ᄃᆞᆨ세기' 이녁 사나이니까 'ᄃᆞᆨ세기'.) 23 [온평]

ᄃᆞᆨ세기콩: 색이 노랗고 둥근 모양의 알이 굵은 콩이다. 콩 모양이 달걀 같아서 붙은 이름이다. 보통 된장을 담글 때 사용하는 콩인 걸 보면 '장콩'의 다른 이름이 아닌가 한다. // 옛날엔 ᄌᆞᆫ자리콩이 어딧수과? ᄃᆞᆨ세기콩ᄒᆞ고, 붉은 콩벳긔 더 이섯수과?

장콩.(옛날에는 '쥰자리콩'이 어디 있습니까? 'ᄃᆞᆨ세기콩'하고, 붉은 콩밖에 더 있습니까? 장콩.) 17 // ᄃᆞᆨ세기콩은 똥끌똥끌똥끌헤여근에 ᄯᆞ로 잇수다.('ᄃᆞᆨ세기콩'은 동글동글동글해서 따로 있습니다.) 23 // ᄃᆞᆨ세기콩은 이렇게 노랑허곡 솔지고, 청대콩이옌 헌 건 퍼렁허곡 ᄌᆞᆷ진 게.('ᄃᆞᆨ세기콩'은 이렇게 노랗고 살찌고, 청대콩이라고 한 건 퍼렇고 잔 게.) 28 // 노란 콩보고 장콩 지금 허는 거. ᄃᆞᆨ세기콩, ᄃᆞᆨ세기콩 허는 게.(노란 콩보고 장콩 지금 하는 거. 'ᄃᆞᆨ세기콩', 'ᄃᆞᆨ세기콩' 하는 게.) 29 [구엄, 대평, 동광, 성읍, 온평, 외도]

ᄃᆞᆨ엿: 엿기름에 삶아낸 닭고기를 발라 넣고 고아낸 엿이다. // 꿩엿 허곡 ᄃᆞᆨ엿은 보신탕으로 보신용으로 먹는 거난게.('꿩엿' 하고 'ᄃᆞᆨ엿'은 보신탕으로 보신용으로 먹는 거니까.) 16 // ᄃᆞᆨ엿도 그거 엿기름 사당 그거 다 재료가 이시난에 사다근에 ᄃᆞᆨ 딸려근에 꽝이영 뭐영 다 털어둰.('ᄃᆞᆨ엿'도 그거 엿기름 사다가 그거 다 재료가 있으니까 사다가 닭 달여서 뼈랑 뭐랑 다 떨어두고.) 23 // 시집완 엿 헤본 건 ᄃᆞᆨ엿 헤보고양, 꿩엿 헤보고, 뒈지엿 헤보고, 저 무슨거 지다리엿 헤보고 것벳기 안 헤봣수다.(시집와서 엿 해본 건 'ᄃᆞᆨ엿' 해보고요, '꿩엿' 해보고, '뒈지엿' 해보고, 저 무엇 '지다리엿' 해보고 그것밖에 안 해봤습니다.) 34 [구억, 온평, 하원]

ᄃᆞᆨ텅에: 닭이 들어 앉아 있으면서 알을 낳는 곳이다. // 대로 멘들앙 여까근에, 굴묵 그 불치 우의 ᄃᆞᆨ똥 막 싸놓곡, ᄃᆞᆨ텅에. 옛날에 ᄃᆞᆨ텅에옌 헷어.(대로 만들어서 엮어서, '굴묵' 그 재 위에 닭똥 마구 싸놓고, 'ᄃᆞᆨ텅에'. 옛날에 'ᄃᆞᆨ텅에'라고 했어.) 17 [대평]

ᄃᆞᆨ풀: 풀 종류의 하나이다. // ᄃᆞᆨ풀이여 진풀 뭐 그런 거.('ᄃᆞᆨ풀'이며 박조가리나물 뭐 그런 거.) 12 [한동]

ᄃᆞᆫ물: 신촌 동쪽 동네에 있는 용천수로, 현재는 없다. // ᄃᆞᆫ물은 엇어져 불엇어. 통물도 ᄆᆞᆯ라버리고.('ᄃᆞᆫ물'은 없어져 버렸어. '통물'도 말라버리고,) 21 // 가마물, 통물, ᄃᆞᆫ물, 다 메와 불엇어. 이제 가마물 ᄒᆞ나 남안 이제, 엉창물, 엉창물은 남자만 목욕허는 물, 여자 안 뎅겨.('가마물', '통물', 'ᄃᆞᆫ물', 다 메워버렸어. 이제 '가마물' 하나 남았어. 이제 '엉창물', '엉창물'은 남자만 목욕하는 물, 여자 안 다녀.) 21 [신촌]

ᄃᆞᆯ각부리: 달각달각 흔들리는 뿔이다. // ᄃᆞᆯ각부리가 잇는데. ᄃᆞᆯ각뿔이. 암소에 잇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지는 거.('ᄃᆞᆯ각부리'가 있는데. 'ᄃᆞᆯ각뿔이'. 암소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 01 [도련]

ᄃᆞᆯ각뿔: 금방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는 소뿔 모양이다. // ᄃᆞᆯ각뿔은양 아무리 쉐뿔이 커도양 쉐뿔이 흔듭니다. ᄃᆞᆯ각ᄃᆞᆯ각.('ᄃᆞᆯ각뿔'은요 아무리 소뿔이 커도요 소뿔이 흔들립니다. 달각달각.) 03 [송당]

ᄃᆞᆯ개: 성산읍 온평리의 바닷가 지경 이름이다. // 저 어디 ᄃᆞᆯ개라는 그런 바다 옆에 잇는 거기 그 강칫 하르방이 ᄒᆞᆫ 사름 왓고.(저 어디 'ᄃᆞᆯ개'라는 그런 바다 옆에 있는 거기 그 '강칫' 할아버지가 한 사람 왔고.) 23 [온평]

ᄃᆞᆯ래: 표준어 다리로 여자들의 머리숱이 많아 보이라고 덧 넣었던 딴 머리이다. // 머리게, 이디 영 갈랑인에 영 헤영 맺엉 이디 상퉁이 채왕 이녁 머리 족으민 또 ᄃᆞᆯ래가 이서.(머리, 여기서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해서 맺어서 여기 상투 채워서 자기 머리 작으면 또 '달래'가 있어.) 33 [인성]

ᄃᆞᆯ렝이: 아주 작은 밭이다. // ᄃᆞᆯ렝이옌 허는 것은 조그마한 밧이우다. ᄒᆞᆫ ᄉᆞ오백 평.('ᄃᆞᆯ렝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밭입니다. 한 사오백 평.) 03 [송당]

ᄃᆞᆯ렝이: 작은 바구니를 가리키는 말이다. // 족은 그릇이난이 ᄃᆞᆯ렝이엔 헌 거 같애.(작은 그릇이니까 'ᄃᆞᆯ렝이'라고 한 거 같아.) 30 [노형]

ᄃᆞᆯ리: 쪽을 짓는 머리카락 속에 넣는 다른 머리털을 말한다. // ᄃᆞᆯ리, 머리 옛날 머리덜은 막 질게 키왓당이 끈엉 이디 요 부레긴 안 헤도 요 부레긴 깨늘고 요 부레기보다 ᄉᆞᆯ치게 헹 이디 예쁘게 막 실로 ᄲᅥ져.('ᄃᆞᆯ리', 머리 옛날 머리들은 막 길게 길렀다가 잘라서 여기 요 '부레기'는 안 해도 요 '부레기'는 가늘고 요 '부레기'보다 살찌게 해서 여기 예쁘게 막 실로 'ᄲᅥ져'.) 11 [함덕]

ᄃᆞᆯ메기: 매듭단추를 말한다. '돌마기', 'ᄆᆞ작단추', '벌ᄆᆞ작'이라고도 한다. // 그 속곳 만들앙 입젠 허민이 질게 천 헹 막 질게 허영 ᄀᆞ는ᄀᆞ는허게 허영 그거 막 감쳥. 그거 ᄆᆞᆫ 모작을 ᄆᆞᆺ쳐. ᄃᆞᆯ메기, ᄃᆞᆯ메기 허멍.(그 '속곳' 만들어서 입으려고 하면 길게 천 해서 아주 길게 해서 가늘디가늘게 해서 그거 막 감쳐서. 그거 모두 매듭을 맺어. 'ᄃᆞᆯ메기', 'ᄃᆞᆯ메기' 하면서.) 25 // ᄃᆞᆯ메기도 다 짱. 물적삼도 다 멘들아근에 손으로 멘들앙. 다 ᄃᆞᆯ메기 허영 ᄃᆞᆯ앙 입주게.('ᄃᆞᆯ메기'도 다 짜서. '물적삼'도 다 만들어서 손으로 만들어서. 다 'ᄃᆞᆯ메기' 해서 달아서 입지.) 26 // 손으로 다 뎅침허멍 곱게 멘들주. ᄃᆞᆯ메기.(손으로 다 박음질하면서 곱게 만들지. 'ᄃᆞᆯ메기'.) 26 [고내, 남원, 신창, 태흥]

ᄃᆞᆯ무락허다: 콩국을 끓일 때 넣은 가루가 위로 부풀어 올라와 달처럼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 보각허게 올라온덴 영. 엿날은 경 ᄃᆞᆯ무락허게 올라왐쩌, 경.('보각허게' 올라온다는 이렇게. 옛날은 그렇게 'ᄃᆞᆯ무락허게' 올라온다, 그렇게.) 29 [외도]

ᄃᆞᆯ무레기: 콩국을 끓일 때 보각하게 위로 올라온 콩가루가 달처럼 둥근 모양을 한 모습을 표현한 것 같다. // ᄃᆞᆯ무레기 허는 말은 보각이 지금.('ᄃᆞᆯ무레기' 하는 말은 보각이 지금.) 29 [외도]

ᄃᆞᆯ반착: 쌀가루 따위로 반달 모양으로 만든 떡이다. 이를 지역에 따라서는 '솔벤', '솔펜'이라고 한다. // ᄃᆞᆯ반착이 우에 갓다 영 안 헷는데. 우리 집안은 통일헤서. 땅하고 달하고 헤하고 별 그 차례로 놓메.('ᄃᆞᆯ반착'이 위에 갔다 이렇게 안 했는데. 우리 집안은 통일해서. 땅하고 달하고 해하고 별 그 차례로 놓아.) 23 // 또 저 지금은 쉽게 뭐 헌 사름은 ᄃᆞᆯ반착이여 뭣여 허영 허는디 엿날은 그 흰떡으로이.(또 저 지금은 쉽게 뭐 한 사람은 'ᄃᆞᆯ반착'이다 무엇이다 해서 하는데 옛날은 그 흰떡으로.) 29 [온평, 외도]

ᄃᆞᆯ반착떡: 떡 모양이 반달 모양이어서 붙인 이름이다. '솔벤(솔편)'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 그땐 솔벤 절벤이옌 헤나신디. 그 중간에 ᄒᆞ꼼 새 사름덜은 ᄃᆞᆯ반착떡엔 헤낫어. (그땐 '솔벤' 절편이라고 했었는데. 그 중간에 조금 새 사람들은 'ᄃᆞᆯ반착떡'이라고 했었어.) 29 [외도]

ᄃᆞᆯ벵이뿔: 봇줄을 매기 위하여 쟁기의 성에 끝에 박은 비녀 모양의 나뭇조각을 말한다. 표준어 '물추리막대'에 대응하는 말이다. 쟁기의 까막머리를 이르는 말로 달팽이뿔 모양과 닮았다고 이렇게 부른다. // 요딘 ᄃᆞᆯ벵이뿔. 연결, 그 저 멍에에 연결뒈는 거이.(요딘 'ᄃᆞᆯ벵이뿔'. 연결, 그 저 멍에에 연결되는 거.) 01 // ᄃᆞᆯ벵이뿔 영 찔르는 거. 성에에 잇곡. 이건 설칫, 이.('ᄃᆞᆯ벵이뿔' 이렇게 찌르는 거. 성에에 있고. 이건 한마루. 이.) 03 // 설칫에도 ᄃᆞᆯ벵이뿔. 게난 ᄋᆞ것도 우터레 올력 ᄂᆞ단 올력 ᄒᆞ여.(한마루에도 'ᄃᆞᆯ벵이뿔'. 그러니까 이것도 위로 올리고 오른쪽으로 올리고 해.) 03 // 또 앞에 요롷게 십자로 구멍 뚤러서 그 저, 에. 오리목을 끼우는 걸 어, ᄃᆞᆯ벵이뿔.(또 앞에 요렇게 십자로 구멍 뚫어서 그 저, 에. '오리목'을 끼우는 걸 어, 'ᄃᆞᆯ벵이뿔'.) 24 [도련, 봉성, 세화, 송당, 청수, 한동]

ᄃᆞᆯ음: 'ᄃᆞᆯ다((아기를)보살피다, 돌보다)'에서 온 말로, 여기서는 소를 '돌보는 것'을 말한다. // 봄 나 가민 ᄃᆞᆯ음을 허주게. 밧 이녁 밧 갈 때는 갈당 밧 ᄆᆞᆫ 지어지민 그 쉘 집집마다 ᄃᆞᆯ음이라고 우리 돌아가멍 ᄆᆞᆫ 산에 강 멕이주게.(봄 돼 가면 'ᄃᆞᆯ음'을 하지. 밭 자기 밭 갈 때는 갈다가 밭 모두 지면 그 소를 집집마다 'ᄃᆞᆯ음'이라고 우리 돌아가면서 모두 산에 가서 먹이지.) 31 [토평]

ᄃᆞᆯ음쉐: 돌보는 소를 말한다. // 쉐 질뤄난 거 무시거 쭉 ᄀᆞᆫ느니. 기자 쉐 지르다근에 ᄃᆞᆯ음쉐 허민 우리 돌아가멍 ᄃᆞᆯ음을 허주게.(소 길렀던 거 뭐 쭉 말하니. 그저 소 기르다가 'ᄃᆞᆯ음쉐' 하면 우리 돌아가면서 'ᄃᆞᆯ음'을 하지.) 31 [토평]

따귀치기: 아이들의 놀이 중 하나인 '딱지치기'이다. 제보자는 '딱지'를 '따구', '따귀'라는 말로, 딱지치기를 '따구치기', '따귀치기'로 혼용하여 사용했다. // 따귀도 여러 가집주. 동글랑허게 치는 따귀가 잇곡. 종이로 네 귀 ᄌᆞᆸ앙은에 따귀치기 허고.('따귀'도 여러 가지죠. 동그랗게 치는 '따귀'가 있고. 종이로 네 모서리를 접어서 '따귀치기' 하고.) 03 [송당]

따래비: 표선면 가시리에 소재한 오름이다. 이는 '따라비'라고도 한다. // 따래비. 따래비는 게난 가시리고 따래비 동쪽 잣담은 우로 위짝은 성읍리.('따래비'. '따래비'는 그러니까 '가시리'고 '따래비' 동쪽 '잣담'은 위로 위짝은 '성읍리'.) 14 [성읍]

딱살보말: 아주 자잘한 고둥을 말하한다. // 보말, 수두리, 먹보말, 거 젠젠헌 것 보곤 뭐옌 딱살보말, 거 영.(고둥, 팽이고둥, 밤고둥, 거 자잘한 것 보고는 뭐라고 '딱살보말', 거 이렇게.) 34 [구억]

딱지: 고둥의 살에 붙어 있는 뚜껑 역할을 하는, 비닐이나 딱딱한 석회질의 물건을 말한다. // 문다께엔 헌 거는 딱지가.(눈알고둥이라고 한 거는 '딱지'가.) 23 // 보말도 마찬가지주기. 보말도이 보말국은 끌리젠 허믄 그 메역에, 메역에 보말은 그 영

허영 내민 그 딱지 ᄆᆞᆫ 떼여뒁이.(고둥도 마찬가지지. 고둥도 '보말국'은 끓이려고 하면 그 미역에, 미역에 고둥은 그 이렇게 해서 내면 그 '딱지' 몽땅 떼어두고.) 29 [온평, 외도]

딸리다: '달이다'에 대응하는 말이나, '끓이다'의 의미로도 쓰인다. // 그럴 때 겡헹 딸령 멕이는 수도 이서.(그럴 때 그렇게 해서 '딸령' 먹이는 수도 있어.) 24 [세화]

땀뿌차: 덤프차. '땀뿌차'의 '땀뿌'는 영어 '덤프'를 일본어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 땀뿌찬가 무신 돗ᄀᆞ레 시껑 뎅기는 그 차 빌언에 멘사포 쓰고 헤연에 경 헨에 신식으로 헷주.('땀뿌차'인가 무슨 돼지거름 실어서 다니는 그 차 빌려서 면사포 쓰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신식으로 했지.) 23 [온평]

땅동산: 애월읍 고내리 지명의 하나이다. // 우리는 놉 빌엉 강, 아침 ᄒᆞᆫ ᄋᆞ섯 시 뒈민 걸엉 저 땅동산이엔 헌 디 저 웃드리레 가는 디 저 땅동산이엔 헌 디 한두 시간 정도 걸엉강.(우리는 놉 빌려서 가서, 아침 한 여섯 시 되면 걸어서 저 '땅동산'이라고 하는 데 저 '웃드리'로 가는 데 저 '땅동산'이라고 하는 데 한두 시간 정도 걸어가서.) 20 [고내]

땟밥: 돌아가신 분께 상식으로 때를 맞춰서 상에 올리는 밥을 말한다. // 삭망, 보름 삭망, ᄎᆞᄒᆞ루 삭망허곡 땟밥 거려놓고 경헷어.(삭망, 보름 삭망, 초하루 삭망하고 '땟밥' 떠놓고 그렇게 했었어.) 25 [태흥]

떡국제: 설날 새벽에 메밀가루를 이겨 썬 메밀칼국수를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 건 저 저기 떡국제라고 헤서 미리. 으 새벽이 것도 ᄒᆞ는디 잇고 안 허는디 잇어.(그건 저 저기 '떡국제'라고 해서 미리. 으 새벽에 것도 하는데 있고 안 하는데 있어.) 04 [고성]

떡빗: 제상에 올리기 좋게 알맞은 크기로 자른 시루떡이다. 시루덕의 한 켜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썬다. // 그 우리 ᄒᆞᆫ 말짜리 시리, 시리는 떡빗을 쪼끔 크게 허면은.(그 우리 한 말짜리 시루, 시루는 '떡빗'을 쪼끔 크게 하면.) 23 // 벨떡 영 헤영은엥에 떡빗이 ᄌᆞᆯ르면은 벨떡은 세 개만 올라갑니다.('벨떡' 이렇게 해서 '떡빗'이 짧으면 '벨떡'은 세 개만 올라갑니다.) 23 [온평]

떡쉬: 떡에 겉에 묻혀 모양과 맛을 내는 '떡고물'이나 떡 속에 넣는 '떡소'를 말한다. // 떡쉬도 팥보단 더 맛잇어. 녹두 떡쉬 팥보다 더 맛 좋아.('떡쉬'도 팥보다는 더 맛있어. 녹두 '떡쉬' 팥보다 더 맛 좋아.) 30 [노형]

떡징: 솥에 찔 때, 찌는 것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받침으로 놓는 겅그레를 말한다. // 징, 징, 떡징. 여기는 떡징 안 하고 따른 말이 잇엇는데 내가 튿내지 못허네.(겅그레, 겅그레, '떡징'. 여기는 '떡징' 안 하고 다른 말이 있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하네.) 05 [표선]

떼: '테'와 '케'를 일컫고 '지경(地境)'을 뜻하고 있다. // 쉐 ᄀᆞ꾸레 가면 ᄒᆞᆫ 집이 ᄒᆞᆫ 사름 가거든. ᄒᆞᆫ ᄒᆞᆫ 열뎃 집, ᄒᆞᆫ 스무집 이렇게 그 떼가 그 구성이 뒈면은.(소 가꾸러 가면 한 집에 한 사람 가거든. 한 한 열댓 집, 한 스무 집 이렇게 그 '떼'가 그

구성이 되면.) 04 [고성]

뗌마: 일본어 'てんません(伝馬船)'에서 온 말로 돛을 달지 않고 가까운 바다를 다니는 가장 작은 배인 거룻배이다. // 그 족은, 큰 베에 그 뗌마 뗌마 헤여근에.(그 작은, 큰 배에 그 '뗌마' '뗌마' 해서.) 04 [고성]

떰메: 일본어 'てんません(伝馬船)'에서 온 말로 돛을 달지 않고 가까운 바다를 다니는 가장 작은 배인 거룻배이다. // 풍선 헤근에 허민게 큰 배, 족은 배, 족은 건 떰메.(풍선 해서 하면 큰 배, 작은 배, 작은 건 '떰메'.) 13 // 족은 건 떰메 경헹 뎅겨낫지.(작은 건 '떰메' 그렇게 해서 다녔었지.) 13 [삼달]

또꼬망: 표준어의 '똥구멍'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꽁무니'라는 의미로 쓰였다. // 게난 난 휘진 잘못허는디 나 또꼬망에 ᄒᆞᆫ 서른 사름썩 마흔 사름썩 나 또꼬망에 ᄃᆞᆯ아졍.(그러니까 난 헤엄치지 잘못하는데 내 '또꼬망'에 한 서른 사람씩 마흔 사람씩 내 '또꼬망'에 달려.) 31 [토평]

똑똑: 햇볕에 잘 마른 좁쌀을 이빨로 씹을 때 나는 소리이다. // 영 이빨로 씹으민 똑똑허민 지아졍 ᄆᆞᆯᄀᆞ레에 ᄀᆞᆯ앙 밥헹 먹어낫주.(이렇게 이빨로 씹으면 '똑똑' 하면 져서 연자매에 갈아서 밥해서 먹었었지.) 13 // 젖이민 밀랑허고 ᄆᆞᆯ르민 이빨에 놩 씹으민 똑똑 허주.(젖으면 물렁하고 마르면 이빨에 놔서 씹으면 '똑똑 '하지.) 13 [삼달]

똥겡이: 게의 일종으로 게딱지가 딱딱하지 않고 마른 모래밭을 기어 다니며, 바닷가 위쪽 조간대에 서식한다. 지역에 따라서 '똥깅이', '똥긍이'라고 한다. // 똥겡이는 물 없는데 우에, 우에꺼지 막 올라오랑 잡식성이주게.('똥겡이'는 물 없는데 위에, 위에까지 마구 올라와서 잡식성이지.) 05 // 그 겡이는 기자 ᄀᆞᆺ듸 강 잡는 거난 ᄎᆞᆷ겡이 순ᄉᆞ겡이 똥겡이 지름겡이 다 서꺼집니다.(그 게는 그저 가에 가서 잡는 거니까 참게 '순ᄉᆞ겡이' '똥겡이' '지름겡이' 다 섞입니다.) 23 // 멜랑멜랑허고 겡이도 원 곱도 안허고 붸림에도 경허난 똥겡이, 똥겡이 허는 거지.(말랑말랑하고 게도 원 숨지도 않고 보기에도 그렇게 하니까 '똥겡이', '똥겡이' 하는 거지.) 25 // 거시기 똥겡이도 잇고. 또 무신 겡이, 겡이도 막 ᄋᆞ라 개 허난.(거시기 '똥겡이'도 있고. 또 무슨 게, 게도 아주 여러 개 하니까.) 31 [세화, 온평, 태흥, 토평, 표선]

똥군: 작업하는 기량이 아주 부족한 해녀를 말한다. // 상군, 중군, 똥군 세 가지로.(웃음) ('상군', '중군', '똥군' 세 가지로.(웃음)) 04 [고성]

똥군불턱: 작업하는 기량이 부족한 해녀의 불턱을 말한다. // 상군불턱, 중군불턱, 똥군불턱헹 불턱도.('상군불턱,' '중군불턱,' '똥군불턱' 해서 '불턱'도.) 04 [고성]

똥긍이: 게 종류의 하나이다. // ᄎᆞᆷ긍이. 지름킁이, 또 똥긍이. 돌팟긍이.(참게. '지름킁이', 또 '똥긍이'. '돌팟긍이'.) 26 [신창]

똥깅이: 먹을 수 없는 게로, '똥겡이'라고도 한다. // 똥깅이는 물랑물랑허여. 잘 굳지 아녕이. 껍다리가 굳지 아녕 영 좁으민 ᄆᆞᆯ싹ᄆᆞᆯ싹 허여. 거는 먹지를 안 허여.('똥깅

이'는 물렁물렁해. 잘 굳지 않아서 이. 껍데기가 굳지 않아서 이렇게 집으면 말랑말랑해. 거는 먹지를 안 해.) 01 // 가에 물 이제 싸 들어가면은 그 저 깅이는 식깅이. 똥깅이.(가에 물 이제 써 들어가면 그 저 게는 '식깅이'. '똥깅이'.) 20 // 깅이는 건줌 다 먹어. 똥깅이도 잇고 말이지 뭐 벌건 깅이도 잇고 여러 가지고 웃밧에 사는 깅이도 잇고 말이여.(게도 거의 다 먹어. '똥깅이'도 있고 말이지 뭐 벌건 게도 있고 여러 가지고 '웃밧'에 사는 게도 있고 말이야.) 27 // 츰깅이 무슨 뭐 픗깅이, 똥깅이 뭐 무신 돌킹이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참게 무슨 뭐 '픗깅이', '똥깅이' 뭐 무슨 부채게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 27 [고내, 노형, 도련, 옹포]

똥꼬냥: 엉덩이이다. // 누게 말 곧잖아 똥꼬냥으로 쫑빼 맞을 걸로 영 헹.(누구 말 하잖아 '똥꼬냥'으로 꼬리뼈 맞을 걸로 이렇게 해.) 03 [송당]

똥떡: 돼지우리에서 자빠지거나 흔들렸던 사람의 좋지 않은 운을 나누기 위하여 만든 떡이다. 떡을 만들어서 백 사람한테 나눠주면 나쁜 운이 사라진다는 속설이 있다. // 막떡이나 똥떡. 똥통에 빠져나민 아이덜은 안 주고 어른덜만 먹으렌.('막떡'이나 '똥떡'. 똥통에 빠져나면 아이들은 안 주고 어른들만 먹으라고.) 05 [표선]

뚜데기: 해녀들이 간편한 이불로 삼거나 추위를 막기 위해 어깨에 걸치는, 누벼 만든 작은 이불 비슷한 것이다. // 다시 또 썽 앚일 거 뚜데기 닮은 거. 뚜데기 ᄒᆞ나 아지고.(다시 또 써서 앉을 거 '뚜데기' 같은 거. '뚜데기' 하나 가지고.) 13 [삼달]

뚜망뚜망: 모종을 심을 때 간격을 두는 상황에서 구술자가 '트멍'을 표현하며 틈과 틈의 의미로 말한 것이다. // 뫼종 뮐 놧다긴에 이제 뫼종을 뽑아긴에 영 뚜망뚜망 싱거근에.(모종 모를 놨다가 이제 모종을 뽑아서 이렇게 '뚜망뚜망' 심어서.) 16 // 돗걸름착 그걸로 담아근에 쉐로 시꺼다근에 밧디 강 믄 뚜망뚜망 뿌려.('돗걸름착' 그걸로 담아서 소로 실어다가 밭에 가서 모두 '뚜망뚜망' 뿌려.) 16 [하원]

뜨박뜨박: 수제비 따위를 떠놓은 모습이다. // 저베기. 궁둥저베기. 궁둥저베기는 ᄆᆞ멀ᄀᆞ르카가지고 뜨박뜨박 숟까락으로 거려놔근에 허는 거가 궁둥저베기고.('저베기'. '궁둥저베기'. '궁둥저베기'는 메밀가루 타가지고 '뜨박뜨박' 숟가락으로 떠 넣어서 하는 것이 '궁둥저베기'고.) 14 [성읍]

뜨벅뜨벅: 고구마 따위를 큼직큼직하게 써는 모양이다. // 히린좁쏠에 감저 썰어 놔근에 감저 뜨벅뜨벅 썰어놔근에 헤영 딱딱 허여근에 먹으민 잘도 맛잇어.(차좁쌀에 고구마 썰어 넣어서 고구마 '뜨벅뜨벅' 썰어 넣어서 해서 딱딱 해서 먹으면 매우 맛있어.) 01 [도련]

뜬드르: 서귀포시 하예동 바닷가 마을이다. // 열리, 뜬드르 미녕 클 이서낫수다. 그 테우는 클.('열리', '뜬드르' 무명 틀 있었습니다. 그 타는 틀.) 17 [대평]

뜬땅: 차진 기운이 없는 푸석푸석한 땅을 말한다. // 감저는 저 뜬땅엔 그냥 질렁만 내불어도 뒈는데 이 뒌땅엔 잘 다져줘야.(고구마는 저 '뜬땅'에는 그냥 찔러서만 내버려도 되는데 이 '뒌땅'엔 잘 다져줘야.) 01 // 이 토평을 오난 더 웨할머니 잇이난

어머니가 이디 와신디 더, 더. 더 ᄉᆞ못 살암직 안헤라게. 밧도 이, 이 제주도 안에서도 이 토평 땅이 막 뜬땅이라.(이 '토평'을 오니까 더 외할머니 있으니까 어머니가 여기 왔는데 더, 더. 더 사뭇 살 것 같지 않아. 밭도 이, 이 제주도 안에서도 이 '토평' 땅이 아주 '뜬땅'이야.) 31 [도련, 토평]

뜬흑: 차진 기가 조금도 없고 부슬부슬한 흙이다. // 여기면 여기대로 산성화된 뜬흑.(여기면 여기대로 산성화된 '뜬흑'.) 03 [송당]

뜸: 쟁기의 성에와 한마루 사이에 끼어 놓은, 갈이깊이를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 납작한 거 헤영 뜸을 줭 보섭을 박읍니다.(납작한 거 해서 '뜸'을 줘서 보습을 박습니다.) 03 // 뜸엔 헌 건 이거 설칫 구녁을 똘르면은 이게 올랏다 ᄂᆞ렷다 못허게 영 허영 ᄀᆞ로 뜸을 주주.('뜸'이라고 한 건 이거 한마루 구멍을 뚫으면 이게 올랐다 내렸다 못하게 이렇게 해서 가로 '뜸'을 주지.) 14 // 깊이 갈고 얕이 갈고 뜸. 설칫 우의 놓는 뜸 그거.(깊이 갈고 얕게 갈고 '뜸'. 한마루 위에 놓는 '뜸' 그거.) 29 [성읍, 송당, 외도]

뜸: 짚, 띠, 부들 따위로 비, 바람, 볕을 막기 위하여 거적처럼 엮어 만든 물건이다. // 저 뜸은 나 발로 한 발 뒈지만은. 숫토리헤서. 우리말로 가마니라.(저 뜸은 내 발로 한 발 되지만. '숫토리'해서. 우리말로 가마니야.) 03 [송당]

뜸빡: 너무 추워서 바닷물 속에 얼른 들어갔다 나온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 게난 얼언 물질은 가난, 고무옷 아니 입은 때난에 얼엉 테왁은 요런 디 나둬근에, 뜸빡 갓 적정 으하아. 영 ᄒᆞ멍, 노레영.(그러니 추워서 물질은 가니까, '고무옷' 아니 입은 때니까 추워서 '테왁'은 요런 데 나둬서는, '뜸빡' 금방 적셔 으하아. 이렇게 하면서, 놀라서.) 07 [보목]

뜨랑섬: 외딴 섬이다. // 이 뜨랑섬에 산에 올르민 얼마나 오래 살아?(이 '뜨랑섬'에 산에 오르면 얼마나 오래 살아?) 25 [태흥]

뜨스다: 따습다. 알맞게 따듯하다. // ᄆᆞ믈ᄀᆞ루 헤영은에 물 뜨스게 헤영은에 그거 쩌근에게.(메밀가루 해서 물 '뜨스게' 해서 그거 쪄서.) 16 [하원]

뜬곽: 물안경을 보관하는 상자를 말한다. // 뜬곽 옛날에 두 뒈갓들이 잇어낫어, 쏠 드는 거. 그만이헌 거에 이만인 영 짠 거 막 크메.('뜬곽' 옛날에 두 되들이가 있었어, 쌀 드는 거. 그만한 거에 이만큼 이렇게 짠 거 아주 커.) 31 [토평]

ㄹ

-락/이락: '-랑/이랑'.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 하간 거 떡이락 제숙이락 실과락 ᄀᆞ자 술이락 밥이락 다 헤놩 지내어.(온갖 거 떡이랑 '제숙'이랑 실과랑 아까 술이랑 밥이랑 다 해놔서 지내.) 11 [함덕]

리태민안: 국태민안이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함이어서, 비교하여 마을 리(里)를 써서 '리태민안'이라고 표현한 듯하다. // 겨울에는 입춘, 입춘 후 첫 정일이나 해일 이럴 때는 일 년 대운 다 뭐 국태민안 아니고 리태민안 허게끔 허영 지냇고.(겨울에는 입춘, 입춘 후 첫 정일이나 해일 이럴 때는 일 년 대운 다 뭐 국태민안 아니고 '리태민안' 하게끔 해서 지냈고.) 32 [덕수]

림: 임(林)으로 제보자가 두음법칙에 따라 발음하지 않고 '림'이라고 발음하고 있다. // 림이 번지로부떠 칠 번지ᄁᆞ지 허고, 그 산 번지허고 림 번지허곤 ᄯᅳ납니다.('림' 이 번지로부터 칠 번지까지 하고, 그 산 번지하고 '림' 번지하고는 다릅니다.) 35 [대림]

ㅁ

마갇이: 장마 시기가 지난 뒤에 파종하는 조 농사 따위로, 지역에 따라 '마걷이'라고도 한다. // 그렇게 헤서 날이 오래 좋으면은 마갇이 뒈엇다고 헤서 검질이 일절 안 나고 조만 나거든.(그렇게 해서 날이 오래 좋으면 '마갇이' 되었다고 해서 김이 일절 안 나고 조만 나거든.) 19 // 오월 그믐이 마, 장마 넘어가민. 비 왕은 아이 뒈고 장마 끗낭 마갇이 헤져.(오월 그믐 장마, 장마 넘어가면. 비 와서는 안 되고 장마 끝나서 '마갇이' 할 수 있어.) 26 // 마갇이엔 헌 말은. 마 졋다가 그 마, 조 ᄇᆞᆯ릴 때는 마 지주기게.('마갇이'라고 한 말은. 장마 졌다가 그 장마, 조 밟을 때는 장마 지지.) 29 // 마갇이엔 헌 건 비 안 맞쳥은에 요 정도로 나도록 비 안 오면 막 마갇이 조팟이엔 헙니다게.('마갇이'라고 한 건 비 안 맞춰서 요 정도로 나도록 비 안 오면 막 '마갇이' 조밭이라고 합니다.) 34 [구억, 구엄, 신창, 청수]

마굴궤: 애월읍 지경에 있었던 '궤' 이름이다. // 아, 저 폭낭굴궤. 예, 마굴궤. 족은궤가 잇엇주. 으, 지방돌. 아, 저 폭낭굴궤.(아, 저 '폭낭굴궤'. 예, '마굴궤'. '족은궤'가 있었지. 으, '지방돌'. 아, 저 '폭낭굴궤'.) 29 [외도]

마궁물: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내(川) 이름이다. // 다음은 그 마궁물이엔 ᄒᆞᆫ 디 이십주게. 경 ᄒᆞ연 그 마궁물 넘어가민 그자 박수, 박수덕이, 고기 나끄는 사름 살멍 고기 나깡 갑주게.(다음은 그 '마궁물'이라고 하는 데 있지요. 그렇게 하여서 그 '마궁물' 넘어가면 그저 '박수', '박수덕이', 고기 낚는 사람 살면서 고기 낚아서 가지요.) 17 [대평]

마농: 마늘을 뜻하는 제주어이나 표선면 성읍리와 성산읍 온평리에서는 달래를 '마농' 또는 '풀마농'이라고 하였다. 알이 큰 달래는 달리 '펑마농'이라고 하였다. // 오라 마농 캐레 허영 마농 캐레 가곡. 오라 고사리 꺾끄레 가게 헤영 고사리 꺾끄레 가곡.(와라 달래 캐러 해서 달래 캐러 가고. 와라 고사리 꺾으러 가자 해서 고사리 꺾으러 가고.) 14 // 마농지시 마농 캐당.('마농지시' 달래 캐다가.) 23 // 마농 캐당 징뀌 담앙 마농징뀌 헤영 아무 것도 안 논 거 기자 새금새금헌 거 그것만 먹곡 헷수게게.(달래 캐다가 김치 담가서 달래김치 해서 아무 것도 안 놓은 거 그저 새콤새콤한 거 그것만 먹고 했습니다.) 23 [성읍, 온평]

마농엿: 마늘을 넣어서 곤 엿이다. // 마농같이 영 기자는 둥갈둥갈 마농엿은 또 허민 문짝허게 익어. 익어도 둥갈둥갈헌 냥 잇어.(마늘같이 이렇게 그저는 '둥갈둥갈' 마늘엿은 또 하면 푹하게 익어. 익어도 '둥갈둥갈한' 대로 있어.) 01 // 마농엿은 안 헤봣수다. 마늘은 흑마늘.('마늘엿'은 안 해봤습니다. 마늘은 흑마늘.) 34 [구억, 도련]

마농적: 풋마늘 줄기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구워낸 음식이다. // 마농적 헤낫주, 대산이

로.(‘마농적’ 했었지, 마늘로.) 14 [성읍]

마농지: 여기서 마늘대를 잘라 지를 만든 것이고, 마늘장아찌는 마늘 뿌리로 담근 장아찌이다. // 저 부잣집의덜 영 우잣 이신 사름덜은 마농지 담앙 먹고 경 아년 사름은 들에 가근에 그거 꿩마늘.(저 부잣집에들 이렇게 텃밭 있는 사람들 마늘장아찌 담가서 먹고 그렇게 않은 사람들은 들에 가서 그거 달래.) 05 // 자리 거령이 젓 담을 때 엿날에, 엿날 할망덜 자리 거리면 주로 자리젓 반찬베끼 더 이샤게. 뒌장허고 자리젓, 마농지베끼 안 헷주게.(아이고, 자리돔 떠서 젓 담글 때 옛날에, 옛날 할머니들 자리돔 뜨면 주로 자리젓 반찬밖에 더 있어. 된장하고 자리젓, 마늘장아찌밖에 안 했지.) 26 // 마농지, 마농 나근에 ᄒᆞ끔 연ᄒᆞᆫ 때에 허여당은에 간장에 허영 담곡 헤낫수게게.(마늘장아찌, 마늘 놓아서 조금 연한 때에 해다가 간장에 해서 담그고 했었습니다.) 35 // 마농대로 담은 거는 마농지엔 허고, 이제 또 그 뿌리로 담은 것도 그거는 옛날엔 뭣이엔사 ᄀᆞᆯ아신지 모르켜.(마늘대로 담근 것은 ‘마농지’라고 하고, 이제 또 그 뿌리로 담근 것도 그건 옛날에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 35 [남원, 대림, 동광, 신창, 표선]

마농지시: 마늘장아찌. 성산읍 온평리에서는 예전에 ‘마농지시’를 ‘달래장아찌’라고 하였다. // 그 마농지시 허젠 것도이 건 마농지신 주로이 장물에 헌다, 장물에.(그 마늘장아찌 하려면 것도 건 마늘장아찐 주로 간장에 한다, 간장에.) 12 // 마농지시는 그 드릇마늘 헤당은엥에 요즘은 다 대산이로 장아찌엔 허주.(‘마늘장아찌’는 그 달래 해다가 요즘은 다 마늘로. 장아찌라고 하지.) 23 // 소금 아니 헤근에 장물만 꿰왕 장물 식거들랑에, 그거 저 마농지시드레 놔.(소금 안 해서 간장만 끓여서 간장 식으면, 그거 저 마늘장아찌에 놔.) 25 [온평, 태흥, 한동]

마농징뀌: 마늘김치. 제보자는 달래를 소금물에 담가서 익힌 음식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 마농 캐당 징뀌 담앙 마농징뀌 헤영 아무 것도 안 논 거 기자 새금새금헌 거 그것만 먹곡 헷수게게.(달래 캐다가 김치 담가서 달래김치 해서 아무 것도 안 놓은 거 그저 새콤새콤한 거 그것만 먹고 했습니다.) 23 [온평]

마누라할망: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천연두를 앓게 한다는 여신이다. // 마누라옌 ᄒᆞᆫ 것이 홍역이주게. 홍역은게, 그 할망이 그 마누라할망이 완전 큰 할망이주게.(천연두라고 한 것이 홍역이지요. 홍역은요, 그 할머니가 그 ‘마누라할망’이 완전 큰 할머니지요.) 17 [대평]

마눙: 마늘을 말한다. 여기서는 달래를 가리킨다. // 그 들에 강 마눙, 막 그땐 막 드르에 마눙이 경 좋아난.(그 들에 가서 마늘, 막 그땐 막 들에 달래가 그렇게 좋았었어.) 24 [세화]

마늘: 마늘을 말한다. 여기서는 달래를 의미한다. // 마늘 캐여당은에 그거 지시 담으민 그거 새금새금 맛잇주, 그 달래가.(달래 캐다가 그거 장아찌 담그면 그거 새금새금 맛있지, 그 달래가.) 23 [온평]

마대기빌레: 한림읍 옹포리의 지명이다. 마대기(馬待機)는 진상 말이나 공마들을 각지의 방

목장에서 징발하여 집결하고 반출될 때까지 대기했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 게난 그런 마대기빌레에서 말을 대기시켯다가 수군만호가 어느 정도 말이지 말이 뒈민 옹포포구로 헤서 진상 보내고 이렇게.(그러니 그런 '마대기빌레'에서 말을 대기시켰다가 수군만호가 어느 정도 말이지 말이 되면 '옹포포구'로 해서 진상 보내고 이렇게.) 27 [옹포]

마대리: 전복의 한 가지로 전복의 암컷과 비슷하면서도 좀 길쭉하고 껍질이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마드레'라고도 한다. // 마대리옌 헌 것이 잇어. 마대리옌 헌 거. 근데 어려와. 그건 보기 힘들어.('마대리'라고 한 것이 있어. '마대리'라고 한 거. 근데 어려워. 그건 보기 힘들어.) 27 [옹포]

마데: 일본어 'まで'로 '까지'라는 의미이다. // 일본 말게 듣곡게 허난 무신 말은 어떵헌 거 알아먹엇주게. 경허난게 아라카와구약소마데 도꼬니.(일본 말 듣고 하니까 무슨 말은 어떠한 거 알아먹지. 그러니까 아라카와구청까지 어디에.) 26 [신창]

마드레: 전복의 한 가지로 전복의 암컷과 비슷하면서도 좀 길쭉하고 껍질이 울퉁불퉁한 모양인 전복이다. // 마드레는, 그 마드레는이 영 점복이 전복이면서도 납작허게시리.('마드레'는, 그 '마드레'는 이렇게 전복이 전복이면서도 납작하게끔.) 05 // 그것이 이름이 뭣이라고 허는데. 마, 마, 마드레롄 허여.(그것이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는데. 마, 마, '마드레'라고 해.) 18 // 마드레는양 전복껍덕이 두들두들허여.('마드레'는요 전복갑이 두툴두툴해.) 23 // 매끈허지 안허영 그런 거는 마드레.(매끈하지 않아서 그런 거는 '마드레'.) 23 [신도, 온평, 표선]

마루팡: 마루귀틀을 받치는 짧은 기둥이다. // 엿날에는 낭이 ᄒᆞ쏠 요만씩 그 마루팡 요만씩 그 홈마루렌 헤근엥예 마리 귀클을 여러 개 놉니다게, 그냥.(옛날에는 나무가 조금 요만씩 그 '마루팡' 요만씩 그 홈마루라고 해서 마루 귀틀을 여러 개 놉니다, 그냥.) 15 [수망]

마리여코지: 한경면 신창리 지명의 하나이다. // 영 내앚은 디주게. ᄯᅳ로 영 내앚은 디난 마리여코지.(이렇게 내앉은 데지. 따로 이렇게 내앉은 데니까 '마리여코지'.) 26 [신창]

마보시: 띠로 노를 꼰 후 한 뼘 크기로 노 사이사이에, 다시 꼰 노를 끼운 세탁솔 모양의 도구이다. 누에가 고치를 만들기 전 그 '마보시'에 기대어 실을 뽑으며 고치를 만든다. // 누에 영 거시기 헤여지게 마보시로 ᄒᆞᆫ 것에 좀박에 놩 튼틀하게시리 팡이디 저 칭기칭기 허게 헨에, 그디 줏어 놩 영영 헹 놔두민 이 새에 저 새에 ᄆᆞᆫ허멍 영 서껑 집을 짓주게.(누에 이렇게 거시기 할 수 있게 '마보시'로 한 것에 잠박에 넣어서 튼튼하게끔 파서 여기 저 층계층계 하게 해서, 거기 주워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놔두면 이 사이에 저 사이에 모두 하면서 이렇게 섞어서 집을 짓지.) 15 [수망]

마ᄇᆞ름: 마파람을 말한다. 남서쪽에서 부는 바람이다. // 방향은 대개 마ᄇᆞ름은 여기서는 한라산 쪽, 한라산 서쪽으로 오는 게.(방향은 대개 마파람은 여기서는 한라산 쪽,

한라산 서쪽으로 오는 게.) 01 [도련]

마시리: 조의 일종이다. '맛시리'라고도 한다. // 개발시리 나오지 않은 때는예, 우리 아방네는예, 마시리라고, 맛시리옌 ᄒᆞᆫ 조는 보난에양, 고구리가양, 쫄랑쫄랑ᄒᆞᆫ 게, 이만씩 ᄒᆞ게 젠젠ᄒᆞ영 ᄀᆞᆯ아, ᄀᆞᆯ아.('개발시리' 나오지 않은 때는요, 우리 아버지네는요, '마시리'라고, '맛시리'라고 한 조는 보니까요, 이삭이요, 길쭉길쭉한 게, 이만큼씩 하게 자잘해서 잘아, 잘아.) 08 // 마시리는 그냥 좋지 않은 밧듸 막 씨 뿌려근에 뒈면은 ᄒᆞ여 먹곡, 아이 뒈면은 쉐주곡 ᄒᆞ젠, 그 마시리를 갈아근에 ᄒᆞ여신디, 그 마시리는 ᄒᆞ여단에 막 ᄒᆞ나ᄒᆞ나 ᄌᆞ난 ᄐᆞᆯ지 못ᄒᆞ여근에 뭇 ᄌᆞᆫᄌᆞᆫᄒᆞ게 무꺼근에.('마시리'는 그냥 좋지 않은 밭에 막 씨 뿌려서 되면 해 먹고, 아니 되면 소 주고 하려고, 그 '마시리'를 갈아서 하였는데, 그 '마시리'는 해다가 아주 하나하나 자니까 뜯지 못해서 뭇 자잘하게 묶어서.) 08 [동광]

마이병: '마호병'을 구술자가 이렇게 발음하였다. '마호병'은 일본어 'まほうびん'에서 온 말로, 표준어 '보온병'에 해당하는 말이다. // 동고령에 밥 거령 가믄 시방은 물병도 잇엉 물도 마이병에 질어아졍 먹고 허주만은 그땐 병이엔 헌 게 없거든.(도시락에 밥 떠서 가면 시방은 물병도 있어서 물도 보온병에 길어가지고 먹고 하지만 그땐 병이라고 한 게 없거든.) 01 [도련]

마작터: 오소리들이 똥을 싸 놓은 장소로, '마작통'이라고도 한다. // 경헤서 ᄒᆞᆫ 십오 미터쯤을 들어강 보면 그거 가기 전에 마작터라고 잇습니다.(그렇게 해서 한 십오 미터쯤을 들어가서 보면 그거 가기 전에 '마작터'라고 있습니다.) 03 [송당]

마장: '마(馬)+장(場)'으로 목장을 가리킨다. // 마장 안네에 어디 소 놓는 케에. 영 담 빙하게 다왕 포제터라고 이서낫주.(마장 안에 어디 소 놓는 지경에. 이렇게 담 뱅하게 쌓아서 포제터라고 있었었지.) 03 // 담을 다왕 그런 디 못 가게 허곡 이제 알레러만, 마장 이제 쉐 먹이는 데 쉐 마장, 마장이엔 헤낫저.(담을 쌓아서 그런 데 못 가게 하고 이제 아래로만, 마장 이제 소 먹이는 데 소 마장, 마장이라고 했었어.) 31 [송당, 토평]

마제: 마짓밥을 올려서 아이의 건강 비는 작은 규모의 굿이다. // 애기 엇이민 아덜 ᄑᆞᆯ앙 애기 엇이민 마제 헤줘야 혀.(아기 없으면 아들 팔아서 아기 없으면 '마제' 해줘야 해.) 13 // 애기 낭 쭤껴도 어디 강 들으민 쭤껌젠 허민 마젤 헤 줘야.(아기 낳아서 쫓겨도 어디 가서 물으면 쫓긴다고 하면 '마제'를 해줘야.) 13 [삼달]

마제: 부처에게 올리는 밥인 '마지'에서 온 말로 제주에서는 무속에서 신에게 올리는 밥을 말한다. // 마제 치는 거렌 허는 거는 ᄌᆞ식을 위해 ᄒᆞ는 거. 마제는 집에 굿할 때 굿할 때 마제 치는 거(마지 찌는 거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위해 하는 거. 마지는 집에 굿할 때 굿할 때 마지 찌는 거.) 03 // 그거는 할마님상에 올리젠 허민 보시떡으로 올령 쳥. 마제도 그 산메라고양. 그냥 사발에서. 사발에서 찝니다, 그건.(그거는 할머님상에 올리려고 하면 '보시떡'으로 올려서 쪄서. 마지도 그 '산메'라고요. 그냥 사발에서. 사발에서 찝니다, 그건.) 14 [성읍, 송당]

마제굿: 마지, 즉 '마짓밥'을 해서 올리는 '불도맞이굿'이다. // 삼승할망안티 불도할망안티 마제 치는 거. 그거 마제굿이라고 허는 거.('삼승할머니'한테 '불도할망'한테 마지 찌는 거. 그거 '마제굿'이라고 하는 거.) 14 [성읍]

마주목: 멀구슬나무의 이칭이다. // 남신은 종낭. 마, 마주목으로도 파낫수다.(나막신은 때죽나무. 마, 멀구슬나무로도 팠었습니다.) 14 // ᄆᆞᆯ쿠실낭이 마주목이주게.(멀구슬나무가 '마주목'이지.) 24 [성읍, 세화, 태흥]

마주목낭: 멀구슬나무이다. // 그루후젠 우리 어린 땐이 궤 헤영 가는 집이가 어찌허다가 막 산다 허는 집이 그 널덜 오령 널 오령 게민 ᄆᆞ쿠슬낭, 마주목낭, 마주목, 마주목 헤여.(그 후 우리 어린 땐 궤 해서 가는 집이 어쩌다가 아주 산다 하는 집이 그 널들 오려서 널 오려서 그러면 멀구슬나무, '마주목낭', '마주목', '마주목' 해.) 25 [태흥]

마줌허다: 마중하다. '마줌'은 잠녀들이 바다에서 물질을 하여 미역 따위를 따서 갯가로 올리면 밖으로 나르기 위해서 가는 일을 말한다.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서 '마중' 또는 '풍증'이라고 하고, 그런 일을 '마줌ᄒᆞ다', '마중ᄒᆞ다', '풍중ᄒᆞ다'라고 한다. // 메역 ᄒᆞᆫ 낭 아졍강 주민 빵 하나씩 주멍 헤근에 마줌허는 사름이영 ᄌᆞᆷ녀들이영 막 사먹주게.(미역 한 나무 가져가서 주면 빵 하나씩 주면서 해서 '마줌하는' 사람이랑 잠녀들이랑 막 사먹지.) 23 [온평]

마지겡이: 정도에 알맞게. '마직이'라고도 한다. // 순대사 ᄃᆞᆺ 잡으민게 그거 허영 재료 헤근엥 그것에 마지겡이 것도 질어야 그거 질어근엥 ᄌᆞᆯ라멩 ᄉᆞᆲ으민 순대주게.(순대야 돼지 잡으면 그거 해서 재료 해서 그것에 '마지겡이' 것도 길어야 그거 길어서 졸라매서 삶으면 순대지.) 18 [신도]

마직마직허다: 이런저런 일의 정도나 무엇의 양이 알맞다. // 눌이 ᄒᆞᆫ 군데만 허지 않고 ᄒᆞᆫ 두어 군데 헤 가지고 마직마직허게 헤 가지고서 눌 눌엇당 그 ᄆᆞ물을 갈 적에는 그 뭐 쉐 쟁기, 소허고 쟁기가 가져가야 뒐 거 아니라.(가리가 한 군데만 하지 않고 한 두어 군데 해 가지고 알맞게 해 가지고서 가리 가렸다가 그 메밀을 갈 적에는 그 뭐 소 쟁기, 소하고 쟁기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12 [한동]

마진흘: 한경면 청수리의 지경이다. // 고지 들어가면은 곶 안에 들어서 먹당 나오랑 마진흘이옌 헌 데 물 먹으면은 바로 안터레 자기, 자기 먹는 선이 잇어.(숲에 들어가면 숲 안에 들어서 먹다가 나와서 '마진흘'이라고 한 데 물 먹으면 바로 안으로 자기, 자기 먹는 선이 있어.) 19 [청수]

마카시리: 풀가사리의 일종이다. // 마카시리는 막 여라 개로 막 덥삭덥삭 벋은 거.('마카시리'는 아주 여러 개로 막 덥석덥석 벋은 거.) 23 [온평]

마타살: 두드럭고둥의 한 종류로 장마철에 많이 나온다고 한다. // 문두닥지하고 마타살하고는 국 끓영 먹지 아녀고 주로 국 끓이는 디는 보말하고 ᄎᆞᆷᄀᆞ메기 그거 허영 국 끌려.('문두닥지'하고 두드럭고둥하고는 국 끓여서 먹지 않고 주로 국 끓이는 데는 고둥하고 개울타리고둥 그거 해서 국 끓여.) 05 // 마타살은 메와져 부난

마타살, 영헌 돌강알에 찌깍 메와지주게, 젠젠헌 거.(두드럭고둥은 모이니까 '마타살', 이렇게 한 돌 아래에 가득 모이지, 자잘한 거.) 13 [삼달, 표선]

마타슬: 두드럭고둥의 한 종류로 장마철에 많이 나온다고 한다. // 마타슬 거 마 칠 적에만 올라와. 장마 안 칠 때는 못 봐. 어디 갔다 없어져 부는지.(마타슬 그거 장마 칠 적에만 올라와. 장마 안 칠 때는 못 봐. 어디 갔다 없어져 버리는지.) 06 // 마타슬이엔 헌 거, 건 장마에 가민 ᄒᆞᆫ 밧듸 막 메와져이, 장마에.('마타슬'이라고 한 거, 그건 장마에 가면 한 군데 막 모여져, 장마에.) 25 [남원, 태흥]

마풀림: 음력 7월에 행해지는 당굿으로 '마(곰팡이)'를 날려 보내는 제의이다. 장마가 끝난 후 신당을 청소하여 바람에 불려 말린다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마불림'이라고도 한다. // 마풀림은게 저 거시기 칠월 보름에 열사흘에 저 절간에 가는, 절간이 아니라 저 본향에 가는 거 마풀림.('마풀림'은 저 거시기 칠월 보름에 열사흘에 저 절에 가는, 절이 아니라 저 본향에 가는 거 '마풀림'.) 13 // 본향에 문 열앙 게 그디 강 제지내곡 굿허곡게 경허는 날이주, 마풀림은.(본향에 문 열어서 거기 가서 제지내고 굿하고 그렇게 하는 날이지, '마풀림'은.) 13 //정월달에 ᄒᆞᆫ번 세배 가고 칠월달에 또 이제 마풀림 헌다고 헤서 가고.(정월달에 한번 세배 가고 칠월에 또 이제 '마풀림' 한다고 해서 가고.) 23 [삼달, 온평]

마흐레: 탕건을 결을 때 '탕건골'을 고정시키는 연장이다. 헌 중절모자를 거꾸로 '쳇대기' 위에 얹히기도 한다. // 탕근 허는 거. 이 모저가 판나 가지고 이것이 이제 띠도 엇고 영허민 마흐레라고 허여. 이 모저가 판나, 판나 막 씨어가민.(탕건 하는 거. 이 모자가 망가져 가지고 이것이 이제 띠도 없고 이렇게 하면 '마흐레'라고 해. 이 모자가 망가져, 망가져 막 써가면.) 02 [선흘]

막: 장막을 말한다. 한데에서 볕 또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둘러치는 도구이다. // 우리 어린 때 ᄋᆞ 앞이 그 수박 갈안 막 치언에.(우리 어린 때 요 앞에 그 수박 갈아서 막 쳐서.) 22 [우도]

막떡: 떡을 만들 때 맨 마지막으로 만든 떡이라는 뜻으로 떡을 만들다 남은 마지막 조각을 가지고 만든 떡이다. // 막된 사름이나 먹지. 늙은 사름 먹는 거여. 젊은 사름덜은 안 먹는 거여. 안 줘, 막떡.(막된 사람이나 먹지. 늙은 사람 먹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안 먹는 거야. 안 줘, '막떡'.) 01 // 막떡이나 똥떡. 똥통에 빠져나민 아이덜은 안 주고 어른덜만 먹으렌.('막떡'이나 '똥떡'. 똥통에 빠져나면 아이들은 안 주고 어른들만 먹으라고.) 05 // 줴기떡 건이 요건 아주 좋은 ᄀᆞ루로 만든 거고이. 이건 두 번챗 ᄀᆞ루로 만든 거고이. 이건 젤. 막떡 뒌.('줴기떡' 그건 요건 아주 좋은 가루로 만든 거고. 이건 두 번째 가루로 만든 거고. 이건 젤. '막떡' 됐어.) 11 // 막떡은 그 저 절변, 솔변 헤놩 마지막으로 헌 건 어린아이 막 뒌 거난 아니 준덴 허영 허지마는 요즘 그런 거 시냐?('막떡'은 그 저 절편, '솔변' 해놓고 마지막으로 한 건 어린아이 막 된 거니까 안 준다고 해서 하지마는 요즘 그런 거 있니?) 33 [덕수, 도련, 온평, 인성, 표선, 함덕]

막불: 여러 벌 중에서 마지막 벌을 말한다. // 보리쌀 헤양케 가끄믄 그거 맨 막불 하양헌 거 십니다. 그거 헹은에 떡 만들앙 밧디 강 촐 빌 때 그걸로 간식으로덜 많이 먹엇수다.(보리쌀 하얗게 깎으면 그거 맨 막벌 하얀 거 있습니다. 그거 해서 떡 만들어서 밭에 가서 꼴 벨 때 그걸로 간식으로들 많이 먹었습니다.) 19 [외도, 청수]

막상올레: 표선면 표선리의 지명이다. // 막상올레 물이 나니까 거기서 처음부터 시작을 헷고.('막상올레' 물이 나니까 거기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05 [표선]

막은골: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지명이다. // 요디 잇어. 막은골.(여기 있어. '막은골'.) 17 [대평]

막은방: 막힌 방향이라는 뜻 사주에서 삼살방위로 모든 일이 막히는 방향을 말한다. // 무신거산디 큰 차옌 빌언 씨집온디, 집을 엇이난에 이디 동광 오라도 집을 엇이난에양 동광은 막은 방이옌 ᄒᆞ연에 그때 멩살이옌 ᄒᆞ연 나 오는 디가 멩살이옌.(무엇인지 큰 차라고 빌어서 시집왔는데, 집을 없으니까 여기 동광 와도 집을 없으니깐요 '동광'은 '막은 방'이라고 해서 그때 '멩살'이라고 해서, 나 오는 데가 '멩살'이라고.) 08 // 어디 튼 방, 막은 방 허는 식으로이.(어디 '튼 방', '막은 방' 하는 식으로.) 11 // 해가 어디 이 남방 막은 사름, 어디 북방 막은 사름, 막은 방은 안 간덴 허주게.(해가 어디 이 남방 막은 사람, 어디 북방 막은 사람, 막은 방은 안 간다고 하지.) 13 // 그맨 막은 방이 엇주게, 신구간 뒈민.(그맨 막은 방이 없지, 신구간 되면.) 13 [동광, 삼달, 함덕]

막은창: 돼지의 막은 창자이다. // 게민 그 막은창 쳇, 큰 것이 이만이 ᄉᆞᆯ진 게 막은창.(그럼 그 '막은창' 첫, 큰 것이 이만큼 살진 게 '막은창'.) 06 [남원]

막을락: 양쪽에 선을 긋고 경계선을 정한 다음, 경계선에 서로 손에 손을 잡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경계선을 넘는 놀이를 말한다. // 그자 막을락허고. 이거 영 허영 질 영 영 긋어근엥에 일로 이건 이짝허곡 저건 저짝허곡 헤근에. 이제 이레 들어오민, 들어오민 지는 거난 들어오지 못허게.(그저 '막을락'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길 이렇게 이렇게 그어서 이리로 이건 이쪽하고 저건 저쪽하고 해서. 이제 이리 들어오면, 들어오면 지는 거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32 // 막을락이엔 헌 건 영 금 그엉 놔뒁은에, 여기 영 금 그리곡 헹 영 사근에 일로 영 넘어가는 거라.('막을락'이라고 한 건 이렇게 금 그어서 놔둬서, 여기 이렇게 금 그리고 해서 이렇게 서서 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34 [구억, 덕수]

막펜지: 혼인하기 전에 신랑 쪽 집안에서 궁합이 맞으면 결혼할 날을 택일하여 신부 집에 정식으로 가지고 가는 의례적인 문서이다. 일종의 약혼 의례로 간주되기도 한다. '막편지' 전달은 중매인과 신랑 부친, 또는 신랑이 같이 가기도 하고, 신랑 쪽 근친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달리 '막핀지'라고도 한다. // 것도 요 중간에사 이제 그 막펜지 아졍 오랑 사둔덜끼리 우리도 우리 아이덜 풀 땐 다 헤연.(그것도 요 중간에야 이제 그 '막펜지' 가져 와서 사둔들끼리 우리도 우리 아이들 팔 땐 다

했었어.) 02 // 아무 날 잔치 ᄒᆞ쿠뎅 ᄒᆞ영 날 받아 오민 ᄯᅳ로 이젠 저 새각시칩의 ᄯᅳ로 그거는 막펜지 ᄀᆞ졍 가는 거.(아무 날 잔치 하겠다고 해서 날 받아 오면 다시 이젠 저 새색시집에 다시 그거는 '막펜지' 가져서 가는 거.) 17 // 몇 날 며칠 결혼식을 허게 됐습니다 헤근엥 신부 측에 통보허는 걸 막펜지라고 허는 거 주게.(몇 날 며칠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해서 신부 측에 통보하는 거를 '막펜지'라고 하는 거지.) 18 // 막펜진 아무 날 택일 낫다 헌 거 ᄋᆞ져가는 거 새각시칩이. 새서방칩이서.('막펜지'는 아무 날 택일 났다 한 거 가져가는 거 새색시집에. 새신랑집에서.) 33 [고산, 남원, 대평, 선흘, 신도, 신창, 신촌, 옹포, 월령, 인성, 한동, 함덕]

막핀지: 혼인하기 전에 신랑 쪽 집안에서 궁합이 맞으면 결혼할 날을 택일하여 신부 집에 정식으로 가지고 가는 의례적인 문서이다. 일종의 약혼 의례로 간주되기도 한다. '막편지' 전달은 중매인과 신랑 부친, 또는 신랑이 같이 가기도 하고, 신랑 쪽 근친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달리 '막펜지'라고도 한다. // 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 그, 옛날에는 막핀지 가져가는 거 잇어.(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 그, 옛날에는 '막핀지' 가져가는 거 있어.) 36 [봉성]

만두: 메밀가루로 둥그렇게 만든 후 안에 팥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가운데 접어 만들어서 삶거나 쪄낸 후 팥고물을 묻힌 떡이다. 달리 '만두떡', '만뒤', '만뒤떡', '만듸', '만듸떡'이라고도 한다. // 조개솔펜은 만두처럼 헌 거 그거는 조게솔펜 똥글락헌 건 이 ᄆᆞᆯ말쿱엔 허주게.('조개솔펜'은 '만두'처럼 한 거 그거는 '조게솔펜' 동근 건 이 'ᄆᆞᆯ말쿱'이라고 하지.) 23 // 재료를 많이 들이지 말젠 허면 빙 지지고 손쉽게 헹 허젠 허면 그자 ᄀᆞ루 빙빙 ᄆᆞᆯ앙 만두 ᄌᆞᆸ아.(재료를 많이 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빙떡 지지고 손쉽게 해서 하려고 하면 그저 가루 빙빙 말아서 '만두' 접어.) 25 // 우리는 이디서는 빙 지졍 내놓는디 어디 저 ᄯᆞᆯ덜이나 누게 오는 거 보민 제물떡 헹 오는 거 보민 그걸로 만두 ᄌᆞᆸ앙 와.(우리는 여기서는 빙떡 지져서 내놓는데 어디 저 딸들이나 누가 오는 거 보면 제물떡 해서 오는 거 보면 그걸로 만두 만들어서 와.) 25 [온평, 태흥]

만두떡: 메밀가루로 둥그렇게 만든 후 안에 팥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가운데 접어 만들어서 삶거나 쪄낸 후 팥고물을 묻힌 떡이다. 달리 '만두', '만뒤', '만뒤떡', '만듸', '만듸떡'이라고도 한다. // 곤떡도 놓고 만두떡도 요만씩 헌 거 놓고.('곤떡'도 놓고 '만두떡'도 요만큼씩 한 거 놓고.) 11 // 요만이 헌 거 헹 영 수제 ᄌᆞ락으로 영영 두 그믓 똑똑 기성 멘들아 놓고 또 만두덕이엔 헌 거 요만이 허게 쩨끌락허게.(요만큼 한 거 해서 이렇게 수저 자루로 이렇게 이렇게 두 금 똑똑 그려서 만들어 놓고 또 '만두떡'이라고 한 거 요만큼 하게 조그맣게.) 11 [함덕]

만두콩: 콩의 한 종류이다. // 만두콩은 저 거시기 콩. 두불콩 닮은 거 말고 동글랑 콩인데 물 들여진 거라라.('만두콩'은 저 거시기 콩. '두불콩' 같은 거 말고 동그란 콩인데 물 든 거더라.) 31 [토평]

만뒤: 메밀가루로 둥그렇게 만든 후 안에 팥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가운데 접어 만들어서 삶거나 쪄낸 후 팥고물을 묻힌 떡이다. 달리 '만두', '만두떡', '만뒤떡', '만듸', '만듸떡'이라고도 한다. // 만뒤는 ᄆᆞ물쏠로 헤 가지고서 영 헨 반달 식으로 헤 근에가 영 헹 영 퐂쉬 놩 영 허는 거, 그것ᄀᆞ라 만뒤엔 헌다.('만뒤'는 메밀쌀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반달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팥소 넣어서 하는 거, 그것보고 '만뒤'라고 한다.) 12 // ᄆᆞᆯ아근에 저 거시기 사발로 사발 톡톡 텅 그디 쉬, 쉰 아무 쉬라도 담앙 놈삐나 아무거라도 담앙 그레 꼭꼭 즙앙 솖아, 솖앙 따시 또 우이 미치는 건 퐂이나 콩이나 콩 보끈 거나 미치민 만뒤.(반죽해서 저 거시기 사발로 사발 톡톡 떠서 거기 소, 소는 아무 소라도 담아서 무나 아무거라도 담아서 그리 꼭꼭 접어서 삶아, 삶아서 다시 또 위에 무치는 건 팥이나 콩이나 콩 볶은 거나 무치면 '만뒤'.) 13 // 만뒤엔 헌 거 동글랑허게 영 밀어놔근에 얍지룽이 밀어놩 사발로 영 동글랑허게 뜨잖아. 뜨민 그레 무시거 감저 친 거나 아니민 무수채나 속드레 영 놩 마주 톡 놩 영영영 접아불민 똑 접아져.('만뒤'라고 한 거 동그랗게 이렇게 밀어놔서 얇게 밀어놔서 사발로 이렇게 동그랗게 뜨잖아. 뜨면 그리 무엇 고구마 찐 거나 아니면 무채나 속에 이렇게 놔서 마주 톡 놔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어버리면 꼭 접어져.) 25 // 퐂도 서끈다게. 퐂 서끄고. 만뒤 두 개 영헨 줌지롱헤게 젭앙 만뒤 두 개썩 허민 그건 첨 받앙덜 가고.(팥도 섞는다. 팥 섞고. '만뒤' 두 개 이렇게 자잘하게 접어서 '만뒤' 두 개씩 하면 그건 참 받아서들 가고.) 31 [삼달, 선흘, 온평, 태흥, 토평, 표선, 한동]

만뒤떡: 메밀가루로 둥그렇게 만든 후 안에 팥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가운데 접어 만들어서 삶거나 쪄낸 후 팥고물을 묻힌 떡이다. 달리 '만두', '만두떡', '만듸', '만듸떡'이라고도 한다. // 옛날은이 만뒤떡이엔 헹 상에 올리는 건 요만씩 헌 만뒤가서.(옛날은 '만뒤떡'이라고 해서 상에 올리는 건 요만큼씩 한 '만뒤떡'이 있어.) 11 // 제물이게 곤떡허고 저 무시거 만뒤떡 요멘이헌 거 허곡 곤떡허민 제물이고.(제물은 '곤떡'하고 저 무엇 '만뒤떡' 요만큼한 거 하고 흰떡하면 제물이고.) 11 // 만뒤떡은 영 똥글랑허게 무시거 터 가지고서이 이디 영 쉬 놔근에 반달 모양으로 합헤진 거.('만뒤떡'은 이렇게 동그랗게 무엇 떠 가지고서 여기 이렇게 소 넣어서 반달 모양으로 합쳐진 거.) 12 // 만뒤는 뭐 ᄆᆞᆯᄀᆞ르 헤영 또 빚어 가지고 이제 퐂 솖앙 미치고 소곱에 무 담곡 이젠 그건 만뒤떡.('만뒤'는 뭐 메밀가루 해서 또 빚어가지고 이제 팥 삶아서 묻히고 속에 무 담고 이젠 그건 '만뒤떡'.) 14 [고내, 성읍, 한동, 함덕]

만디: 메밀가루로 둥그렇게 만든 후 안에 팥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가운데 접어 만들어서 삶거나 쪄낸 후 팥고물을 묻힌 떡이다. 달리 '만두', '만두떡', '만뒤떡', '만듸', '만듸떡'이라고도 한다. // 거 제펜, 만두추룩 만드는 건, 건 만디.(거 '제펜', 만두처럼 만드는 건, 건 '만디'.) 24 [세화]

만디떡: 메밀가루로 둥그렇게 만든 후 안에 팥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가운데 접어 만들어서 삶거나 쪄낸 후 팥고물을 묻힌 떡이다. 달리 '만디', '만두', '만두떡', '만뒤

떡', '만듸', '만듸떡'이라고도 한다. // 만디떡에는 쉬 미치는 거.('만디떡'에는 고물 묻히는 거야.) 03 // 우리 먹는 떡은 기자 저 만디떡.(우리 먹는 떡은 그저 저 '만디떡'.) 24 // 경 헌 땐 기자 영 ᄆᆞᆯ앙 거 빨리 헤지는 걸로. 영헹 기자 좁앙 모ᄆᆞᆯᄀᆞ루로 영 헹 만디떡 만들앙 기자 확, 솖안에영.(그렇게 했을 땐 그저 이렇게 반죽해서 그거 빨리 해지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저 집어서 메밀가루로 이렇게 해서 '만디떡' 만들어서 그저 확, 삶아내서.) 24 [세화, 송당]

만리성: 성산읍 온평리에 있는 환해장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폭도 드는 헤는 입초 사근에 이디 만리성 이제 다 헐어져 부난 헌디 거기 상은에 아홉 시 전달, 열 시 전달허멍 연락허멍 헐 때는 폭도 내려왐쩌 허민 우린 바당에 간 살앗수게.(폭도 드는 해는 입초 서서 여기 '만리성' 이제 다 헐어져 버리니까 하는데 거기 서서 아홉 시 전달, 열 시 전달하면서 연락하면서 할 때는 폭도 내려오고 있다 하면 우린 바다에 가서 살았습니다.) 23 [온평]

만세: '만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죽은 이를 슬퍼하여 지은 글 또는 그 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 기(旗)처럼 만든 것이다. 주검을 산소로 옮길 때에 상여 뒤에 들고 따라간다. // 추도엔 허고 만세엔도 헌다. 부주추룩 ᄀᆞ뜨게 허는 거게.(추도라고 하고 만장이라고도 한다. 부조처럼 같게 하는 거.) 02 // 중간에사 돈 봉투주, 남자덜은 보통으로, 옛날 어른덜은 ᄆᆞᆫ딱 만세.(중간에야 돈 봉투지, 남자들은 보통으로, 옛날 어른들은 모두 만장.) 17 [대평, 선흘]

만수물: 구좌읍 송당리의 자연 마을 만수동에 있는 봉천수 이름이다. // 거기에 또 만수물이렌 헌, 만수동에도 사름은 살아낫수다. 만수동이렌 헌 디 저 동쪽에.(거기에 또 '만수물'이라고 하는 만수동에도 사람은 살았습니다. 만수동이라고 하는 데가 저 동쪽에.) 03 [송당]

만추: 양배추 종자의 하나이다. // 사계약, 만추라고 헤 가지고 우리 헐 때ᄁᆞ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잇엇는디 그 사계약은 ᄒᆞ끔 이른 거고. 만추는 ᄒᆞ끔 늦은 거고, 이렇게 뒈는디.('사계약', '만추'라 해 가지고 우리 할 때까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 '사계약'은 조금 이른 거고. '만추'는 조금 늦은 거고, 이렇게 되는데.) 35 // 나가 헐 때는 그 사계약허고 만추 ᄀᆞ뜬 걸 많이 헷는데, 그거 저 칠월에 싱급니다.(내가 할 때는 그 '사계약'하고 '만추' 같은 걸 많이 했는데, 그거 저 칠월에 심습니다.) 35 [대림]

말: 삿갓을 짤 때 중간에 넣은 무늬를 말한다. // 사이사이 말 놩 말. 말이엔 헌 거 잇어 이. 니귀방장헌 거.(사이사이 '말' 놔서 '말'. '말'이라고 하는 거 있어. 네모반듯한 거.) 30 [노형]

말땅: 한림읍 월령리의 옛 지명이다. // 저디도 ᄒᆞ나, 요디도 ᄒᆞ나, 저 말땅 아래 ᄒᆞᆫ 질 네 개나 알아졈저.(저기도 하나, 요기도 하나, 저 '말땅' 아래 한 길 네 개나 알겠어.) 10 [월령]

말라리: 애월읍 구엄리 바닷가에 있는 굴이다. // 내 터지믄 거난, 원내창 또 이 저 굴은

말라리라고 허영 바당 이염에 가믄 지금은 그 저 하, 엿날 바위덜 하영 돌 캐 가부난, 것이 굴이 하영 메와졋는디 옛날엔 말라리엔 허영 또 강 보믄 그 굴 저 돌 캐 가기 전엔양, 사름 치가 들어가게 ᄒᆞᆫ 디 잇수다.(내가 넘치면 그러니까, '원내창' 또 이 저 굴은 '말라리'라고 해서 바다 옆에 가면 지금은 그 저 많아, 옛날 바위들 많이 돌 캐 가버리니까, 그곳에 굴이 많이 메꿔졌는데 옛날엔 '말라리'라고 해서 또 가서 보면 그 굴 저 돌 캐 가기 전에는요, 사람 키가 들어가게 한 데 있습니다.) 28 [구엄]

말멩: '말명, 말미'라고도 하며 무당이 기원하는 말이나, 여기서는 '말씀, 격언'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 이제 강 절도 허고, 또 신안 오면은 말멩도 허영 신수도 보고.(이제 가서 절도 하고, 또 무당 오면은 '말멩'도 해서 신수도 보고.) 02 // ᄒᆞ쏠 허민 대추낭에 연 걸리듯 ᄒᆞᆫ 말멩이 엇이냐? 옛날 대추낭이 높아난 셍이라. ᄒᆞ쏠 허민 대추낭에 연 걸리듯 경허주.(조금 하면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한 '말멩'이 없냐? 옛날 대추나무가 높았던 모양이야. 조금 하면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그렇게 하지.) 02 [선흘]

말솟: 한 말들이 솥을 말한다. // 보통 네 개, 세 개. 막 엇인 할망, 할망덜이나 사는 디 두 개 허지 보통 큰솟, 중, 말솟, 다도테기.(보통 네 개, 세 개. 아주 없는 할머니, 할머니들이나 사는 데 두 개 하지 보통 큰솥, 중, '말솟', '다도테기'.) 26 [신창]

말왓: 자잘한 돌멩이가 많은 밭으로, 물 빠짐이 좋은 밭을 말한다. // 말왓이엔 헌 거는 비가 하영 와도 그 자리에서 빠져 부는 밧이난.('말왓'이라고 하는 거는 비가 많이 와도 그 자리에서 빠져 버리는 밭이니까.) 20 // 질왓은 물 하영 오민 죽어 부는 밧, 말왓은 물 하영 와도 그냥 그대로. 그대로 그냥 농사가 뒈 가고.('질왓'은 물 많이 오면 죽어 버리는 밭, '말왓'은 물 많이 와도 그냥 그대로. 그대로 그냥 농사가 돼 가고.) 20 // 말왓이라고 허여 가지고 그 얘기허는 건 뭐냐믄 그 물 아니 고영은에.('말왓'이라고 하여 가지고 그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물 아니 고여서.) 29 [고내, 외도]

말젯아버지: 아버지의 형제가 넷인 경우 세 번째 아버지이다. '말젯-'은 '셋째'의 뜻으로 쓰이는 접두사이다. // 요기 족은아버지도 살고. 셋아버지는 알순당 살고, 말젯아버지는 웃슨당을 사는데.(요기 작은아버지도 살고. '셋아버지'는 '알순당' 살고, '말젯아버지'는 '웃슨당'에 사는데.) 03 // 동경을 가젠 헤도 항상 대판까진 배로 간 때는 항상 대판을 내령 동경을 가야 헷주만은 우린. 난 또 그때 대판 족은아버지네영 말젯아버지네영 사니까 대판 강 살앗주게, ᄒᆞᆫ 멧 년.(동경을 가려고 해도 항상 대판까진 배로 간 때는 항상 대판을 내려서 동경을 가야 했지만 우린. 난 또 대판 '족은아버지네'와 '말젯아버지네'와 사니까 대판 가서 살았지, 한 몇 년.) 20 [고내, 송당]

말짜: 순서에서 맨 끝에 차지하는 위치인 말째를 말한다. // 겨난게 시어머니 돌아간 이제 말짜엔 후회가 나주게. 잘 못헤드린 것도 후회나고 경 허여.(그러니까 시어머니

돌아가서 이제 나중엔 후회가 나지. 잘 못해드린 것도 후회되고 그렇게 해.) 02 // 말짜에덜은 웃으멍 헷주마는, 그때는 숫 구젠 허민 그, 산감 때문에 ᄌᆞ들아젼.(말째에들은 웃으면서 했지마는, 그때는 숯 구우려고 하면 그, 산감 때문에 걱정되어서.) 35 [봉성, 선흘, 하원]

말찻: 구좌읍 송당리의 말찻오름을 말하는 것이다. // 송당이렌 헹은에 무신 형국이나 모양으로 봉은에 물찻이네, 말찻이네 그런 식으로 허는 게 아니고.(송당이라고 해서 무슨 형국이나 모양으로 보고 '물찻'이다, '물찻'이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03 [송당]

말쳇못: 구좌읍 송당리의 오름에 있는 산물 이름이다. // 그디 말쳇못이렌 헹 그디 물이 이서낫어.(그 곳에 '말쳇못'이라고 해서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03 [송당]

말쳇뭇거멀: 구좌읍 송당리의 오름 이름이다. // 시방은 물이 엇이난 말쳇뭇거멀이렌 하고.(시방은 물이 없어서 '말쳇뭇거멀'이라고 하고.) 03 [송당]

말치: 한 말 드는 크기의 솥을 말하며, 달리 '웨말띄기', '말치솟'이라고도 한다. // 밥 하영 ᄒᆞᆯ 때 말치에 말치에 밥 하영 놉 빌엉 ᄒᆞᆯ 때, 말치에 밥 하영 ᄒᆞᆯ 땐 큰 배술기로 젓곡.(밥 많이 할 때 '말치'에, '말치'에 밥 많이 놉 빌어서 할 때, '말치'에 밥 많이 할 땐 큰 죽젓개로 젓고.) 08 // 말치에 강 시리에 맞춰이근에게. 시리가 족으민 족은 솟디,게믄 저 닷뒈들이 시리, ᄒᆞᆫ 말들이 시리가 잇주게.('말치'에 가서 시루에 맞춰서. 시루가 작으면 작은 솥에, 그러면 저 '닷뒈들이' 시루, 한 말들이 시루가 있지.) 17 // 먹을 거 저 무시거 ᄒᆞᆫ 말치, ᄒᆞᆫ 말치 딸려근엥에 뭐 식으민 아시날 식으민 둣날 아척 멕영은에.(먹을 거 저 무엇 한 말치, 한 말치 다려서 뭐 식으면 전날 식으면 뒷날 아침 먹여서.) 32 // 콩 익어가가민 노릿노릿헤가민 콩 비어당 ᄒᆞᆫ 말치 ᄉᆞᆲ앙 저녁엔 밧디 갓다오민 먹을 것이 엇을 때난 밤이덜 앚앙 친구덜이영 동네 할망덜 오민 앚앙양, 까먹어난 추억벳기 엇수다.(콩 익어 가면 노릇노릇해가면 콩 베어다가 한 말치 삶아서 저녁엔 밭에 갔다 오면 먹을 것이 없을 때니까 밤에들 앉아서 친구들이랑 동네 할머니들 오면 앉아서요, 까먹었던 추억밖에 없습니다.) 34 [구억, 구엄, 대평, 덕수, 동광]

맛도로기: 맛과에 속하는 덩굴풀의 총칭인 '마'의 열매를 뜻한다. // 막 줄 벋으민 마가 맛도로기 이만썩 ᄒᆞᆫ 거 두렁두렁 열지 안ᄒᆞᆸ니까?(막 줄 벋으면 마가 '맛도로기' 이만큼씩 한 거 '두렁두렁' 열지 안합니까?) 08 [동광]

맛시리: 쌀알이 잘고 메진 조의 한가지로 흔히 박토에 가는 조의 하나이다. // 검은 조 나건 디가 언제라? 게난 건 찍도 잘나고, 맛도 좋고, 옛날은 맛시리 모힌 조.(검은 조 난 지가 언제라? 그러니까 건 짚도 잘나고, 맛도 좋고, 옛날은 '맛시리' 메조.) 19 // 맛시리도 들어봣는디 맛시리옝 허영, 그것이 열매는 아주 뭉갈뭉갈헌 게 그냥 이 고고리 하나도 이만씩 헌 거 맛시리, 맛시리, 맛시리 헙주게.('맛시리'도 들어봤는데 '맛시리'라고 해서, 그것이 열매는 아주 뭉갈뭉갈한 게 그냥 이 이삭 하나도 이만큼 한 거 '맛시리', '맛시리', '맛시리' 하지요.) 28 [구엄, 청수]

망: ‘쳇바퀴’를 가리킨다. // 그 체 헤영 못 쓰게 뒈면은 망만 있어. 영 망.(그 체 해서 못 쓰게 되면 쳇바퀴만 있어. 이렇게 쳇바퀴.) 30 [노형]

망내미동산: 제주시 도련동 지명의 하나이다. // 동쪽으로 나가민 거기서는 옛날 그 옆에 망내미동산이 잇는데.(동쪽으로 나가면 거기서는 옛날 그 옆에 ‘망내미동산’이 있는데.) 01 [도련]

망데기: 중두리 정도 크기의 중배가 부르지 않은 옹기를 말하는데 ‘망다기’라고도 한다. // 큰 항, 족은 항. 망데기. 망데긴 술은 망데기로 아이 담아. 항을 담앗주.(큰 항아리, 작은 항아리. ‘망데기’. ‘망데기’는 술은 ‘망데기’로 안 담가. 항아리에 담갔지.) 26 // 밥 허영 그것 궤영 영, 물 줭 놔두믄 물 줘엉 항 소곱에, 망데기에 놩 놔두믄 부각허여 ᄒᆞᆫ 이틀 만이 부각허민 그거 저 대체, 체로 헹 걸러근에 이제.(밥해서 그것 끓어서 이렇게, 물 줘서 놔두면 물 줘서 항 속에, ‘망데기’에 넣어서 놔두면 보각해서 한 이틀 만에 보각하면 그거 저 대체, 체로 해서 걸러서 이제.) 28 // 쪈, 쪈에 망데기 딱 담앙 놔뒀당은에 그 거린 장 다 먹어지건 먹으렌 허난 그 동네 사름 날 봐지난 장 어떵 경 맛 좋게 담읍디겐 허멍 자리훼 허젠 허난 빌어당 먹노렌 ᄀᆞᆯ아라.(쪄서, 쪄서 ‘망데기’ 딱 담아서 놔뒀다가 그 뜬 장 다 먹으면 먹으라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 나 보니까 장 어떻게 그렇게 맛 좋게 담갔냐고 하면서 자리돔회 하려고 하니까 빌려다가 먹는다고 말하더라.) 33 // 저 마늘지마씸, 이제난 무슨 플라스틱 통이여 시난 그레, 옛날엔 뒈나마나 옹기나 망데기에 담앗수다게.(저 마늘장아찌요, 이제니까 무슨 플라스틱 통이다 있으니까 그리, 옛날엔 되나마나 옹기나 ‘망데기’에 담았습니다.) 34 [고내, 구억, 구엄, 노형, 대평, 도련, 송당, 수망, 신도, 신창, 외도, 인성, 청수, 함덕]

망뎅기: 중두리 정도 크기의, 중배가 부르지 않은 옹기를 말한다. // 나 첨 망뎅기 사다 놓곡 헨 헤낫저만은 난 움직거리기 실프난 걸 안 헴주. 그거, 그거만이헌 거 엇나게.(나 참 ‘망뎅기’ 사다 놓고 해서 했었지만 난 움직거리기 싫으니까 걸 안 하고 있지. 그거, 그거만한 거 없어.) 31 [토평]

망동산: 구좌읍 한동리 지명의 하나이다. // 망동산, 망동산 헤 가지고 그거 기자 그 지경을 망동산이라고 허주. 그 돌 쌓여진 거 그냥 잇어.(‘망동산’, ‘망동산’ 해 가지고 그거 그저 그 지경을 ‘망동산’이라고 하지. 그 돌 쌓인 거 그냥 있어.) 12 [한동]

망동산: 서귀포시 하원동의 동산 이름이다. // 망동산이엔 허곡 구산봉이엔 헙니다.(‘망동산’이라고 하고 ‘구산봉’이라고 합니다.) 16 // 망동산이엔 헌 디 탈 막 잘 ᄋᆞᆯ곡.(‘망동산’이라고 한 데 산딸기 마구 잘 열고.) 16 [하원]

망머를: 애월읍 장전리에 위치한 지경 이름이다. // 경 헹 허믄 이제 우리도 무사 망머를 헐 때 콩 무껀 쉐에 시꺼와나서, 저 웃드리 밧디 강.(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우리도 왜 ‘망머를’ 할 때 콩 묶어서 소에 실어왔었어, 저 ‘웃드리’ 밭에 가서.) 28 [구엄]

망사리: 바다에서 해녀가 해산물을 채취하고서 담거나 넣는, 그물로 엮어 만든 물건이다.

달리 '걸망', '망시리', '망아리'라고도 한다. // 우리대로 ᄒᆞ민은 이제 걸망, 망아리 담은 거. 걸망 헤근에, 우리냥으로 ᄌᆞ물멍, 그 망사리에 담아근에 이젠 밀려왕 ᄀᆞᆺ이 왕 퍼근에, 져 내영, 우리대로 ᄆᆞᆯ리와.(우리대로 하면 이제 '걸망', 망사리 닮은 거. 망사리 해서, 우리대로 채취하며, 그 망사리에 담아서 이젠 밀려와서 가에 와서 퍼서, 져 내서, 우리대로 말려.) 07 // 모도우민 이제 모도우민 이젠 저 얼멩이엔 헌 거 잇어. 얼멩이 엉상엉상허게, 저 우리 테왁, 해녀덜 가졍 다니는 망사리 잇지 안허여, 망사리.(모으면 이제 모으면 이젠 저 얼망이라고 하는 거 있어. 얼망 '엉상엉상'하게, 저 우리 테왁, 해녀들 가지고 다니는 '망사리' 있지 않아, '망사리'.) 20 // 물싸민 또 이만썩 헌 디 탁 어우러진 거 막 그차당 그거 이녁, 이녁만 간 디 망사리에 ᄌᆞ물아당 ᄀᆞᆺ디 오랑 널엇당 ᄆᆞᆯ르민 져다근에 저기 이 엿날에, 지금 고구마 잇지게.(물써면 또 이만한 데 탁 어우러진 거 마구 잘라다가 그거 자기, 자기만 간 데 '망사리'에 캐다가 가에 와서 널었다가 마르면 져다가 저기 이 옛날에, 지금 고구마 있지.) 31 [고내, 고산, 보목, 세화, 신도, 신창, 옹포, 토평]

망소골: 서귀포시 하원동의 지명이다. // 이딧 뒷동산이고, 망소골이엔 허고.(여기 뒷동산이고, '망소골'이라고 하고.) 16 [하원]

망아리: 망사리. 바다에서 해녀가 해산물을 채취하고서 담거나 넣는, 그물로 엮어 만든 물건이다. 달리 '걸망', '망사리', '망시리'라고도 한다. // 감태 아레나 이런 돌 트멍에나. 경 허면은 이제 잡앙 올라와근에 손으로. 심엉 올라와근에. 망아리에 담앙.(감태 아래나 이런 돌 틈에나. 그렇게 하면 이제 잡아서 올라와서 손으로. 잡아서 올라와서. '망아리'에 담아서.) 04 // 거 망아리, 찍으로 얽어진 큰 망아리에 노덜 가졍강, 글켕이 갖고 경헤영 강 긁엉 노로 무껑 시꺼왓주게.(거 '망아리', 짚으로 얽은 큰 '망아리'에 노들 가져가서, 갈퀴 갖고 그렇게 가서 그러모아 노로 묶어서 실어왔지.) 26 [고성, 신창]

망중: 이십사절기의 하나인 '망종'을 말한다. 6월 6일 무렵 소만(小滿)과 하지(夏至) 사이에 든다. // 망중에 반 ᄀᆞ슬헤여, 반 ᄀᆞ슬헤여 옛날 어른덜 ᄀᆞᆯ아낫저게. 경허난 그 망중 뒈민 이제 조도 갈저, 산디도 갈저, ᄑᆞᆺ도 갈저, 콩도 갈저.(망종에 반 가을해 반 가을해, 옛날 어른들 말했었어. 그러니까 그 망종 되면 이제 조도 갈랴, 밭벼도 갈랴, 팥도 갈랴, 콩도 갈랴.) 31 [토평]

맞구들: 마주 보게 되어 있는 방이다. // 안팟거리 엇이난. 경헨 영 맞구들에 살단 첨 이레 온 거주.('안팟거리'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맞구들'에 살다가 참 이리 온 거지.) 31 [토평]

맞ᄀᆞ레: 두 명 이상이 마주 앉아서 함께 돌려서 가는 맷돌이다. // 소 메우민 소를 뗑기곡 몰곡 사공질 허곡 경허영 ᄀᆞᆯ아단 벳듸 널엉 ᄆᆞᆯ류왕 따시 이젠 그거 이제 다까가지고 또 강 ᄆᆞᆯ뱅이에 강 다까다가 또 ᄀᆞ레 이 영 맞ᄀᆞ레로 검펴가지고.(소 메우면 소를 당기고 몰고 '사공짓' 하고 그렇게 해서 갈아다가 볕에 널어서 말려서

다시 이젠 그거 이제 깎아가지고 또 가서 연자매에 가서 깎아다가 또 맷돌 이 이렇게 '맞ᄀᆞ레'로 거피해가지고.) 14 // 맞ᄀᆞ레에 ᄀᆞᆯ아근에 그걸 밋밋 ᄀᆞᆸ니다 게. ᄀᆞᆯ민 ᄀᆞ르가 나오주.('맞ᄀᆞ레'에 갈아서 그걸 밋밋 갑니다. 갈면 가루가 나오지.) 14 [성읍]

맞방: 안방에서 대청을 건너 맞은편에 있는 건넌방이다. // 이 안녯 건 족은방, 이건 영 허난 맞방.(이 안에 건 작은방, 이건 이렇게 하니까 '맞방'.) 13 // 씨집간 후제도 아덜 군인 가분 거난에양 밤의 놀레 갓다 오민 영 맞방에 살앗주.(시집간 후에도 아들 군대 가 버린 거니까요 밤에 놀러 갔다 오면 이렇게 '맞방'에 살았지.) 23 [삼달, 온평]

매기: 재료나 물건이 다 되어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매기독닥'처럼 쓰이기도 한다. // 빙떡 ᄒᆞ나 ᄆᆞᆯ민 빙떡 ᄒᆞ는 냥 먹어 불민 빙떡이 엇어마씀. ᄒᆞ는 냥 먹어 불어, 경 ᄒᆞ난 빙떡을 ᄒᆞ당 보민 매기, 빙떡을 ᄒᆞ당 보민 매기.('빙떡' 하나 말면 '빙떡' 하는 대로 먹어 버리면 '빙떡'이 없어요. 하는 대로 먹어 버려, 그렇게 하니까 '빙떡'을 하다가 보면 '매기', '빙떡'을 하다가 보면 '매기') 08 // 콩대허고 콩강메기허고 매기, 두 가지 매기. 요 소곱에 콩 들어 있는거.(콩대하고 콩깍지하고 '매기', 두 가지 '매기'. 요 속에 콩 들어 있는 거.) 11 // 물항 잇고게 솟 앚진 건 솟덕이고 겡 따시 살레 그디 ᄒᆞ나 놓곡 따시 또 물항허곡 허민 매기주게.(물독 있고 솥 얹힌 건 봇돌이고 그래서 다시 찬장 거기 하나 놓고 다시 또 물독하고 하면 '매기'지.) 13 // 소 다 먹엉 나가불민 매기.(소 다 먹어서 나가버리면 '매기'.) 14 [동광, 삼달, 성읍, 함덕]

매미: 성산읍 삼달리의 못 이름이다. // 다시 또 저 우이 산 때 옛날에 매미엔 헌 디 몰앙 가근에 쉐 댓 개썩, 부제 사름은 대여섯 개썩허고 엇인 사름 서너 개도 허곡 ᄒᆞ나도 허곡, 쉐 물 멕여당 또 막에 강 매엇당 뒷날은 쉐 물 멕이고.(다시 또 저 위에 살 때 옛날에 '매미'라고 한 데 몰아가서 소 댓 개씩, 부자 사람은 대여섯 개씩하고 없는 사람 서너 개도 하고 하나도 하고, 소 물 먹여다가 또 외양간에 가서 매었다가 뒷날은 소 물 먹이고.) 13 // 매미 성읍리서 내려오는 큰 못듸 강 우리 우이 사난 그디 강 쉐 물 낮인 멕영 오라.('매미' 성읍리서 내려오는 큰 못에 가서 우리 위에 사니까 거기 가서 소 물 낮엔 먹여서 와.) 13 [삼달]

매봉: 표선면 표선리에 소재한 봉우리 이름이다. // 매봉을 비추민 마을에서 그 매봉을 비추민 마을에 해가 뒌다고 헤서 그것을 방지허려고 헤서 탑을 쌓다는 거야. 겐디 도로 허면은 그 놈은 동산을 부솨불엇어.('매봉'을 비추면 마을에서 그 '매봉'을 비추면 마을에 해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방지하려고 해서 탑을 쌓았다는 거야. 그런데 도로 하면 그 놈의 동산을 부숴버렸어.) 14 [성읍]

매장ᄒᆞ다: 사람이 죽었을 때, 수의로 갈아입히기 전 시체가 오그라들지 못하도록 베 따위로 몸을 임시로 묶는 일을 말한다. // 공정은, 공정은 뭐냐 허면 요즘의 장의사 낫주마는 돌아가시면은 부모 ᄃᆞᆯ아당 매장헌 어른, 이제.('공정'은, '공정'은 뭐냐 하

면 요즘의 장의사 났지만 돌아가시면 부모 데려다가 '매장'한 어른, 이제.) 14 // 그거 다 베 임제덜이 다 매장허고 문딱 헤연.(그거 다 배 임자들이 다 '매장'하고 몽땅 했어.) 23 // 죽으민 우선 죽을 쒀근에 그 매장헌 어른덜이영 방상덜이영 다 먹엉 잇어사 죽은 성복나사 들어오주.(죽으면 우선 죽을 쒀서 그 '매장한' 어른들이랑 친척들이랑 다 먹어서 있어야 죽은 성복해야 들어오지.) 23 [성읍, 온평]

매치: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가 오그라들지 못하도록 베 따위로 묶는 일을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서 '매장'이라고도 하였다. // 그 매치헌, 매치라고 허주. 걸. 대소렴헌 사름. 대소렴.(그 '매치'한, '매치'라고 하지. 걸. 소렴한 사람. 소렴.) 14 [성읍]

맥시: 놀래깃과의 바닷물고기인 어렝놀래기를 말한다. // 조락으로 헤근엥 맥시 또 어렝이 뭐 많주게, 그에서 나끄는 거야.(종다래끼로 해서 어렝놀레기 또 황놀레기 뭐 많지, 가에서 낚는 거야.) 09 [고산]

맥주맥: 보리의 한 종류로 맥주를 만드는 원료가 된다. // 두줄보리엔 헌 게. 저 뭐 맥주맥을 말ᄒᆞ는 거 아니?(두줄보리라고 한 것이. 저 뭐 맥주보리를 말하는 거 아니?) 04 [고성]

맥진다리: 어렝놀래기의 암컷을 말한다. // 맥진다리엔 헌 건 베가 뽈락허난 맥진다리엔 허는 셍이라.('맥진다리'라고 한 건 배가 뽈록하니까 '맥진다리'라고 하는 모양이야.) 29 [외도]

맨처남: 한경면 신도1리에 있는 우물의 지명이다. // 우린 저 맨처남 물 이 동네에는 맨처남벳긔 엇이난.(우리는 저 '맨처남' 물 이 동네에는 '맨처남'밖에 없으니까.) 18 // 맨처남 강 질어와근엥. 일루 영 웃드리에 잇는 거.('맨처남' 가서 길어와서. 여기로 이렇게 '웃드리'에 있는 거.) 18 [신도]

맷돌: 연자매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였다. // 사름 힘으로 못허난 그 저 ᄆᆞᆯ을 메완에 맷돌 헷주게.(사람 힘으로 못하니까 그 저 말을 메워서 '맷돌' 했지.) 14 [성읍]

머구리선: 잠수기선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머구리'는 잠수를 뜻하는 일본어 '모구리(もぐり)'에서 온 말이다. // 그 머구리선 그 발동기 그걸로 이제 저 도항선을 시작헤수다.(그 '머구리선' 그 발동기 그걸로 이제 저 '도항선'을 시작했습니다.) 22 [우도]

머뎅이왓: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한 자연 마을이다. // 자리왓 ᄒᆞᆫ 오륙십 호가 살고 잇어. 열리왓, 또 마전동이라고 ᄆᆞᆯ팟. 상시ᄆᆞ름, 고도리왓, 에, 머뎅이왓, 겐 ᄋᆞ섯 개 ᄆᆞ을이 어도 이구로 뒈낫어, 어도 이구.('자리왓' 한 오륙십 호가 살고 있어. '열리왓', 또 마전동이라고 'ᄆᆞᆯ팟'. '상시ᄆᆞ름', '고도리왓', 에, '머뎅이왓', 그래서 여섯 개 마을이 어도 이구로 됐었어, 어도 이구.) 36 [봉성]

머드레: 보리, 밀, 조 따위를 심은 밭에서, 심어 놓은 작물 사이에 콩이나 팥 따위를 드문드문 심는 일을 말한다. 표준어로는 '대우'이다. // 지금 듬성듬성 놧젠 허니깐 머드레 ᄀᆞᆯ아지는디. 대죽도 머드레, 꿰도 머드레.(지금 듬성듬성 놨다고 하니깐

대우 말해지는데. 수수도 대우, 참깨도 대우.) 01 // ᄃᆞᆨ새기콩 ᄀᆞ뜬 건 조팟듸 머드레 놓는 거 머드레콩.('ᄃᆞᆨ새기콩' 같은 건 조밭에 '머드레' 놓는 거 '머드레콩'.) 08 // 산디, 산디 갈멍 경 ᄑᆞᆺ 머드레 노는 사름도 잇곡, 안 노는 사름은 안 놓곡.(밭벼, 밭벼 갈면서 그렇게 팥 '머드레' 놓는 사람도 있고, 안 놓는 사람은 안 놓고.) 08 [도련, 동광]

머드레콩: 보리, 밀, 조 따위를 심은 밭에서, 심어 놓은 작물 사이에 드문드문 심는 콩이다. // 머드레콩 ᄒᆞᆫ 건, 머드레콩도 ᄀᆞ뜬 우리 가는 콩인디 조팟 가운디 ᄒᆞ나씩 가운디 아니고 고랑에 고랑마다, 고랑마다 하나씩 하나씩 새 띄와근에 요만씩 새 띄와근에 ᄒᆞ나씩 ᄒᆞ나씩 노멍 ᄒᆞ민양, 그디 꺼 장국 거 훍은 콩 그렇게 심어근에.('머드레콩' 한 건, '머드레콩'도 같은 우리 가는 콩인데 조밭 가운데 하나씩 가운데 아니고 고랑에 고랑마다, 고랑마다 하나씩 하나씩 새 띄워서 요만큼씩 새 띄워서 하나씩 하나씩 놓으면서 하면요, 거기 거 장국 거 굵은 콩 그렇게 심어서.) 08 [동광]

머드레ᄑᆞᆺ: 보리, 밀, 조 따위를 심은 밭에서, 심어 놓은 작물 사이에 드문드문 심는 팥이다. // 산디 고랑에 ᄑᆞᆺ. 머드레ᄑᆞᆺ이옌 ᄒᆞ여근에 그듸 머드레ᄑᆞᆺ을 놉니다.(밭벼 고랑에 팥. '머드레ᄑᆞᆺ'이라고 해서 거기 '머드레ᄑᆞᆺ'을 놉니다.) 08 [동광]

머들: 돌무더기이다. // 영헌 밧디 머들 영 곡석 아니 되는 디, 그디도 싱건 놔두난 낭이 이만썩 헤연 이만썩 헷젠 허멍 허난, ᄒᆞᆫ동안은 그자 하영은 안 받아도 그때가 오백 원이라나실 거라.(이런 밭 '머들' 이렇게 곡식 아니 되는 데, 거기도 심어서 놔두니까 나무가 이만큼씩 해서 이만큼씩 했다고 하면서 하니까, 한동안은 그저 많이는 안 받아도 그때가 오백 원이었었을 거야.) 23 [온평]

머력솟: 아궁이 제일 바깥쪽에 안치는 큰 솥을 말하는데 머리라는 뜻의 '머력'과 '솟(솥)'이 결합한 형태이다. // 멩텡이가 시난에 원 아무 말도 안허고 멩텡이레 엿날엔 머력솟, 머력솟 허멍 머력에 앚진 큰 솟을 젤 우선권이라이.(멱둥구미가 있으니까 원 아무 말도 않고 멱둥구미에 옛날엔 '머력솟', '머력솟' 하면서 머리에 안친 큰 솥을 젤 우선권이야.) 25 [태흥]

머리: 여기서는 시루떡의 한 켜의 둥근 모양의 부분을 자른 것을 말한다. // 머리 양쪽 베민 두 빗 두 빗썩, ᄒᆞᆫ 징에.('머리' 양쪽 베면 두 '빗' 두 '빗'씩, 한 켜에.) 23 [온평]

머리굽: 머리카락이 나오기 시작하는 두피 부분이다. // 그 ᄀᆞ루 음식을 먹으믄이 애기 낭 보믄이 머리굽에고 무시거고 다 ᄀᆞ루 묻엉이 모욕 시키기가 힘들어.(그 가루 음식을 먹으면 아기 낳아서 보면 '머리굽'에고 무엇에고 다 가루 묻어서 목욕시키기가 힘들어.) 11 [함덕]

머리몸: 머리와 몸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저 머리몸 이틀 밤이나 오널 나민 오늘 낮이 나민 이제 자고 낼 처냑 자나민 뒷날은 사흘차 날은 머리몸을 ᄀᆞᆷ아, 쑥 솖아근에.(저 '머리몸' 이틀 밤이나 오늘 낳으면 오늘 낮에 낳으면 이제 자고 내일 저

녁 자고 나면 뒷날은 사흘째 날은 ‘머리몸’을 감겨, 쑥 삶아서.) 13 [삼달]

머리어진오름: 한경면 청수리에 소재한 오름이다. // 똥 줏이레도 하영 뎅기고, 저 머리어진오름에 낭 허레도 하영 뎅기고.(똥 주우러도 많이 다니고, 저 ‘머리어진오름’에 나무 하러도 많이 다니고.) 19 [청수]

머리에진오름: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오름이다. // 저 동남쪽으로 가민 머리에진오름이 잇곡.(저 동남쪽으로 가면 ‘머리에진오름’이 있고.) 08 [동광]

머리여진오름: ‘여진머리오름’인 ‘대병악’을 말한다. 안덕면 상창리 산 2-1번지, 표고 491.9m이다. // 그냥 등짐으로도 또 등짐으로, 등짐으론 저 머리여진오름.(그냥 등짐으로도 또 등짐으로, 등짐으로는 저 ‘머리여진오름’.) 32 // 머리여진오름은 가민 삭은 낭을 허고. 여긴 강 ᄂᆞᆯ 거마씨.(‘머리여진오름’은 가면 삭은 나무를 하고. 여긴 가서 날 거요.) 32 [덕수]

머리창: 부모나 시부모 상이 났을 때, 부녀자들이 머리에 넣어 땋는, 긴 헝겊 오리다. // 머리창도 처음은 죽으면 베 멘드는 삼, 모시. 베 멘드는 이제 그런 것도 하주.(‘머리창’도 처음은 죽으면 베 만드는 삼, 모시. 베 만드는 이제 그런 것도 많지.) 06 // 힌 머리창이나 드리민 그거 잔칫상 ᄎᆞᆯ리레 가도 안 허곡 잔치 음식 허도 안허곡.(흰 머리창이나 끼면 그거 잔칫상 차리러 가도 안 하고 잔치 음식 하지도 않고.) 13 // 머리창에 들여근에 그 머리창에 들영 머리 이디 영 꼬부랑허민 이레 머리창이 잘락 둥기곡 또 그 이멍거리엔 헌 거 멩지에 물들엿당은에 글로 영 무껑 머리 안 떨어지게.(‘머리창’에 들여서 그 ‘머리창’에 들여서 머리 여기 이렇게 꼬부랑하면 여기에 ‘머리창’이 ‘잘락’ 늘어지고 또 그 ‘이멍거리’라고 한 거 명주에 물들였다가 글로 이렇게 묶어서 머리 안 떨어지게.) 14 // 잇당 날 봐근에 어느 날 좋으민 산듸찝 클러두고 머리창. 그 관 소곱에 논 후에는 머리창 들여.(있다가 날 봐서 어느 날 좋으면 밭볏짚 풀어두고 ‘머리창’. 그 관 속에 놓은 후에는 ‘머리창’ 들여.) 21 [고산, 남원, 삼달, 성읍, 신촌, 함덕]

머릿ᄃᆞᆯ뤼: 머리숱이 많아 보이라고 덧넣었던 딴머리인 ‘ᄃᆞᆯ뤼’를 넣어서 만들어 올린 머리를 일컫는다. // 비영, 요만이 허게 비영 ᄑᆞᆯ민 그 머리를 막 잘 만들아. ᄃᆞ리, 머릿ᄃᆞᆯ뤼.(베어서, 이만큼 하게 베어서 팔면 그 머리를 아주 잘 만들어. 다리, ‘머릿ᄃᆞᆯ뤼’.) 06 [남원]

머릿빗: 시루떡을 네모나게 자를 때 둥근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 머릿빗이멍 말멍 이 양쪽 요거 영 끊으면은.(‘머릿빗’이며 말며 이 양쪽 요거 이렇게 끊으면.) 23 [온평]

머세: 돌이 엉기정기 쌓이고 잡목이 우거진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 머세란 것은 밧, 밧이 아 그 선덕으로 뒌 것을 머세라고 그래. 막 돌이 쎄여진 걸 머세.(‘머세’란 것은 밭, 밭이 아 그 ‘선덕’으로 된 것을 ‘머세’라고 그래. 아주 돌이 쌓인 걸 ‘머세’.) 12 // 그 우리 동알펜이 이제 한라대 헌 디, 머세야 머세.(그 우리 동쪽 아래편에 이제 한라대 하는 데, ‘머세’야, ‘머세’) 30 [노형, 한동]

머시께라: 남이 하는 짓이나 말이 너무도 기가 막힐 적에 내는 소리이며, '메께, 메께라'라고도 한다. // 아이고, 그거 그 방석 말고 아이고 머시께라.(아이고, 그거 그 방석 말고 아이고 '머시께라'.) 15 [수망]

머정: 어떤 일에 있어서의 재수라는 의미이다. 달리 '머의', '머젱이'라고 한다. // 사냥이나 그 뭣은 그 나 뭣에 맞들 아년 모양이라. 머정이 엇언.(사냥이나 그 뭣은 그 나 뭣에 맞질 않은 모양이야. '머정'이 없어서.) 01 // 게고 그리고 머정이 잇는 사름이. 우리 전복 못 터 나수다. 잘 허민 가다오다 춤 일 년에 혼 두 번이주.(게고 그리고 '머정'이 있는 사람이. 우리 전복 못 뗐습니다. 잘 허면 가다오다 참 일 년에 한 두 번이지.) 22 // 어뜬 사름은 암만 ᄀᆞ찌 강 물에 들어도 셍복 하나 구경을 못허는 사름이 잇어. 겨난 것ᄀᆞ라 머정이라고.(어떤 사람은 아무리 같이 가서 물에 들어가도 전복 하나 구경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보고 '머정'이라고.) 25 [도련, 우도, 태흥]

먹는ᄆᆞᆷ: 먹을 수 있는 모자반을 말한다. '춤ᄆᆞᆷ'이라고 한다. // 먹는ᄆᆞᆷ도 그것도 허영 깨 써낫주게.('먹는ᄆᆞᆷ'도 그것도 해서 꽤 썼었지.) 29 [외도]

먹대치기: 놀이의 한 종류이다. // 먹대치기라 헤 가지고서 것도이 네 군데 영 기려 놔 가지고서 거 허는 것도 셔낫저.('먹대치기'라 해 가지고서 것도 네 군데 이렇게 그려 놔 가지고서 거 하는 것도 있었었어.) 12 [한동]

먹돌: 아주 딴딴하고 광택이 나는 돌을 말한다. // 그새 그 물에 무쳐 불렘 험도 그 우리 저 몸 ᄀᆞᆷ으레 가믄 영 보믄 거 내창에 몸통드레 영 헤근에 ᄒᆞᆯ 때 영 귀 영 헤근엥에 ᄒᆞ는 사름들도 잇곡, 게난 먹돌 영.(그사이 그 물에 묻혀 버리라고 하는 것도 그 우리 저 몸 감으러 가면 이렇게 보면 그 내에 몸통에 이렇게 해서 할 때 이렇게 귀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 '먹돌' 이렇게.) 15 // 담 끗엉 경 허곡게 담 조롬에 이 먹돌이라도 고냥 ᄠᆞᆯ라진 거 꿰영 밧 갈듯이 탁 노 허영 허곡 황황 허멍 지렁지렁 막 끗엉 뎅기곡 허주.(담 끌어서 그렇게 하고 담 꽁무니에 이 '먹돌'이라도 구멍 뚫린 거 끼워서 밭 갈듯이 탁 노 해서 하고 '황황' 하면서 줄줄 마구 끌어서 다니고 하지.) 26 // 겐에 그 저 먹돌 닮은 것에 영 혹도 잇더라. 게고 이 먹돌 이거 유리 ᄲᆞᆺ는 것도 잇고.(그래서 그 저 '먹돌' 같은 것에 이렇게 확도 있더라. 그리고 이 '먹돌' 이거 유리 빨는 것도 있고.) 33 // 그 지붕에 그런 것도 허곡, 안네도 ᄯᅳ로 역시 이젠 세멘트라든지 ᄯᅳ로 저 먹돌로 허니까 고단입주만.(그 지붕에 그런 것도 하고, 안에도 또 역시 이젠 시멘트라든지 또 저 '먹돌'로 하니까 고단이지만.) 35 [고내, 구억, 구엄, 대림, 동광, 수망, 신창, 옹포, 인성]

먹씰일: 먹고 쓰고 할 일, 잔치나 장례 등 큰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달리 '먹을일'이라고도 한다. // 무신 이젠 경, 경 먹씰일 허단 이제 작, 작년 팔월멩질부떠 우리 씨아지방네가 마타 간.(무슨 이젠 그렇게, 그렇게 '먹씰일' 하다가 이제 작, 작년 팔월 명질부터 우리 시아주버니가 맡아 갔어.) 29 [외도]

먹을일: 잔치나 장례 등 큰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달리 '먹씰일'이라고도 한다. // 풀지도 못허고 난 종가칩이난에 먹을일이 워낙 하부난에 아이덜이 믄 공부 시키젠 허난 애기 오 남매 공부 시켱 내놓젠 허난 차비가 그렇게 어려와.(팔지도 못하고 난 종갓집이니까 '먹을일'이 워낙 많아버리니까 아이들이 몽땅 공부 시키려고 하니까 아기 오 남매 공부 시켜서 내놓으려고 하니까 차비가 그렇게 어려워.) 14 // 저 뭐 제사 때나 뭐 먹을일 이신 때만.(저 뭐 제사 때나 뭐 '먹을일' 있을 때만.) 29 [성읍, 외도]

먹청총이: 흰색 털과 검은색 털 가운데 검은색 털이 더 많이 섞인 총이말이다. // 똑 이 노리 색깔 모냥으로 흰 털 박아지고 검은 털 박아지고, 게난 청충이도 두 가지라. 먹청총이 잇고. 흰청충이 잇고 청충이 잇고.(꼭 이 노루 색깔 모양으로 흰 털 박히고 검은 털 박히고, 그러니까 총이말도 두 가지야. '먹청총이' 있고. '흰청총이' 있고 '청총이' 있고.) 14 [성읍]

먹총이: 검은 털과 흰 털이 섞여 난 말이다. // 거먼 거 먹총이라고 헷어.(검은 거 먹총이라고 했어.) 11 [함덕]

먼남박굴: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동굴 이름이다. // 열 멧 살이난 하고. 저, 그디는 워낙 굴이 커노난 알순당 먼남박굴이라고.(열 몇 살이니 하고. 저, 거기는 워낙 굴이 커서 '알순당' '먼남박굴'이라고.) 03 [송당]

먼문: 문간채에 달린 문으로 지역에 따라 '이문', '이문간'이라고 한다. // 먼문 붙은 디가 문간채.('먼문' 붙은 데가 문간채.) 01 // 대문간 지금 말허민 대문간인데 먼문.(대문간 지금 말하면 대문간인데 '먼문'.) 01 [도련]

먼문간: 집의 입구에 대문 곁에 있는 집채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 '이문간'이라고도 한다. // 대문이 일로 들어오는 디가 잇고. 먼문간.(대문이 일로 들어오는 데가 있고. '먼문간'.) 01 [도련]

먼문거리: 마당으로 드나드는 대문이 달려 있는 문간채이다. // 먼문간인디 먼문거리고.('먼문간'인데 '먼문거리'고.) 11 // 요거 밧그레, 모커리, 먼문거리.(요거 바깥채, 곁채, 문간채.) 11 [함덕]

먼물깍: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 습지의 지명이다. // 반못. 먼물깍엔 식당 엇고. 아무 것도 엇어.(반못. '먼물깍'에는 식당 없고. 아무 것도 없어.) 02 [선흘]

먼안튀: '먼+안튀' 구성으로, 여기에서 '안튀'는 집 뒤를 가리킨다. 집 뒤가 멀어서 '먼안튀'라고 한다. // 밖에는 이 나무가이, 만약에 나무가 이시면 우린 나무가 막 우거졍 우에 집터가 한 사백 평 가까와부난 우의 먼안튀에, 먼안튀엔 하주게.(밖에는 이 나무가, 만약에 나무가 있으면 우린 나무가 매우 우거져서 위에 집터가 한 사백 평 가까워버리니까 위에 '먼안튀'에, '먼안튀'라고 하지.) 05 [표선]

먼올레: 집에서 큰길까지의 거리가 긴 골목을 말한다. 오래가 길 때 '먼올레'라고 하고, 짧은 오래는 '올레'라고 한다. // 길이가 길고 짧은 거. 그냥 올레는 짧은 것이고, 먼올레 허민 긴 거.(길이가 길고 짧은 거. 그냥 오래는 짧은 것이고, '먼올레' 하

면 긴 거.) 01 // 먼올레 올레가 흔 참을 헤놓난에. 그 땅에 사백 평인디 안네 쑥 들어간에 집을 짓어놓난에 이제 우리 오빠네 그거 ᄀᆞ만이 놔근에 그 십 억 주켄 헤도 안 풀암서.('먼올레' 오래가 한 참을 해놓으니까. 그 땅에 사백 평인데 안에 쑥 들어가서 집을 지어놓으니까 이제 우리 오빠네 그거 가만히 놔서 그 십 억 주겠다고 해도 안 팔고 있어.) 05 // 여기가 이디도 먼올레지 올레가 머니까.(여기가 여기도 '먼올레'지 오래가 머니까.) 14 [도련, 성읍, 표선]

멀구: 표선면 성읍리에서 봉분을 다질 때 부르는 노래를 가리키는 말이다. 집을 지을 땅을 다지는 노래는 '달구소리'라고 하고, 봉분을 다질 때 부르는 노래는 '멀구소리'라고 구분해 부르기도 한다. // 봉분 쌀 때는 구신이 빨리 물러가라고 헤서 멀구라고 허고.(봉분 쌓을 때는 귀신이 빨리 물러가라고 해서 '멀구'라고 하고.) 14 [성읍]

멍: '멀꿀'의 열매로 '멍굴'이라고도 한다. // 이제 또 이제 멍이엔 헌 게 잇어, 멍. 그거 멍굴 헤다가도 또 세 겹으로 들영도 허곡 허다가 나이론 나니까 또 나이론으로도 헷주.(이제 또 이제 '멍'이라고 하는 게 있어, '멍'. 그거 멀꿀 해다가도 또 세 겹으로 드려서도 하고 하다가 나일론 나니까 또 나일론으로도 했지.) 06 [남원]

멍게원: 한경면 신창리의 '원담' 이름이다. // 남아 있는 건 요디도 다 뭣 헤 부난 이제 멍게원 허고 저디 ᄃᆞ리 아래 진원벳긘 엇어 이젠.(남아 있는 건 요기도 다 뭣 해 버리니까 이제 '멍게원' 하고 저기 다리 아래 '진원'밖에 없어 이젠.) 26 [신창]

멍에ᄐᆞᆨ: 소의 목에 멍에가 잘 얹히도록 길들여진 틱을 말한다. 소를 길들이거나 밭을 갈 때 소의 어깨에 얹인 멍에의 흔적이라는 의미이다. // 밧 갈젠 허면은 이 저 뭘, 글로 후제는 다이야가 나오난 다이야 허는 사름도 이신디 나무, 설피 헤 가지고는 무꺼 겡 쉐멍에 메와근에 처음엔 게벼운 걸로 허단 내중엔 돌을 놓나 사람 올랑 끗주게 멍에ᄐᆞᆨ 내운덴 헤근에.(밭 갈려고 하면 이 저 뭘, 그 후에는 타이어가 나오니까 타이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무, 끙게 해 가지고는 묶어서 그래서 소멍에 메워서 처음엔 가벼운 걸로 하다가 나중엔 돌을 놓거나 사람 올라서 끌지. 멍에턱 낸다고 해서.) 06 // 소를 하나 이끄고 그 저 뭔가 ᄀᆞ레착 같은 거 무슨 뭐 쫌 게부은 걸 헤 가지고 돌을 끗어 가지고 여기 멍에ᄐᆞᆨ을 나게끔.(소를 하나 이끌고 그 저 뭔가 맷돌짝 같은 거 무슨 뭐 쫌 가벼운 걸 해 가지고 돌을 끌어 가지고 여기 '멍에ᄐᆞᆨ'을 나게끔.) 23 // 가다가 툭 걸리곡 툭 걸리고 헤 가지고 여기 멍에ᄐᆞᆨ이라고 모가지에.(가다가 툭 걸리고 툭 걸리고 해 가지고 여기 '멍에ᄐᆞᆨ'이라고 모가지에.) 23 [남원, 온평]

멍죽내: 조천읍 선흘과 함덕 사이에 있는 내로 '선내'라고도 한다. // 그 내가 비가 하영 왕 멍죽내 세 번 터지민 숭년 진덴 헤낫저. 비 많이 왕.(그 내가 비가 많이 와서 '멍죽내' 세 번 터지면 흉년 든다고 했었어. 비 많이 와서.) 02 [선흘]

메: 기가 막힐 때 내는 소리로 '메께라, 메께'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 메, 통시 봣수다.('메', 통시 봤습니다.) 11 [함덕]

메: 누에씨인 '잠종(蠶種)'을 말한다. // 메 채 시문, 그 거를 누에씰 구헤다근에 메 채 시문 누에 그 쩨끔씩ᄒᆞᆫ 거 나와.('메' 채 있으면, 그 거를 누에를 구해다가 '메' 채 있으면 누에 그 쪼금씩 한 거 나와.) 16 [하원]

메께라: 남의 말이나 행동에 놀라거나 기가 막힐 때 내는 소리다다. // 무시게라게 메께라 짐치엔 허민 ᄂᆞ물로벳긔 더 허는 거라?(무엇이야 '메께라' 김치라고 하면 나물로밖에 더 하는 거야?) 06 [남원]

메꾸럭: 낙지를 말하는 것으로 '메록'이라고도 한다. // 낙지엔 이제사 표준어로 낙지엔 헷주, 옛날은 메꾸럭. 메꾸럭 심으레 갓저.(낙지라고 이제야 표준어로 낙지라고 했지, 옛날은 '메꾸럭'. 낙지 잡으러 갔어.) 26 [신창]

메다: 길이의 단위인 미터를 일본어 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 열두 차반지를 헤어야 그 ᄂᆞ는 메다를 맞추아근에 놀아서 또 메여서 짜사 베지.(열두 채롱을 해야 그 나는 길이를 맞춰서 날아서 또 매서 짜야 베지.) 06 [남원]

메레기: 밭의 구석이나 돌담이 쌓여 있는 주변 따위 공간을 가리킨다. // 좁아 놩 ᄒᆞ쏠 갈 앗당. 꿰도 메레기에 ᄒᆞ쏠 갈고.(집어 넣고 조금 갈았다가. 깨도 '메레기'에 조금 갈고.) 31 [토평]

메록: 낙지를 말하는 것으로 '메꾸럭'이라고도 한다. // 낙지 심는 거, 메록 심으레 간덴 허주.(낙지 잡는 거 '메록' 잡으러 간다고 하지.) 26 [신창]

메멩고냉이: 숯을 얼굴에 묻힌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이다. // 메멩고냉이 뒈지. 숫이영 허당 보민.('메멩고냉이' 되지. 숯하고 하다가 보면.) 03 [송당]

메물탕쉬: 제사에 쓰기 위하여 삶은 고사리나 콩나물 따위에 기름, 깨 등을 쳐서 만든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달리 '탕쉬', '탕수', 'ᄎᆞ무새', '채소' 등으로 말한다. // 메물탕쉬ᄒᆞ곡 묵ᄒᆞ곡, 궤기 굽곡.('메물탕쉬'하고 묵하고, 고기 굽고.) 15 [수망]

메역 허제[-許採]: 미역 채취를 허가하는 일이다. 해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채취를 금하였다가 합의된 날짜에 그 금지를 풀고 해산물을 캐기 시작하는 일을 말한다. 달리 '미역 허제'라고 한다. // 추워부난에 삼월 보름 물끼에 그 메역 허제를 허여.(추워버리니까 삼월보름 물때에 그 미역 허채를 해.) 05 // 그날은 첨, 메역 허제헌다면은 우리 저 학교 다닐 때는 안 허는디 저 동쪽 사름덜 보면은 메역 허제허면 남자덜토 메역허레 학교 공부허당도 조퉤헤서 가난.(그날은 첨, 미역 허채한다면 우리 저 학교 다닐 때는 안 하는데 저 동쪽 사람들 보면 미역 허채하면 남자들도 미역하러 학교 공부하다가도 조퇴해서 갔었어.) 07 // 메역 허제 허민 삼ᄉᆞ월에, 이 삼ᄉᆞ월에 허주, 메역 허제.(미역 허채 하면 삼사월에, 이 삼사월에 하지, 미역 허채.) 23 [보목, 온평, 표선]

메역귀: 돼지의 작은창자 양옆에 붙은 내장 중 횡경막의 한 부위이다. 모양이 미역귀와 비슷해서 붙은 이름이다. // 피 거기 하고 그 무시거 저 메역귀 ᄀᆞ튼 거 막 그런 거 다 ᄌᆞᆺ아 놓곡이.(피 거기 하고 그 무엇 저 '메역귀' 같은 거 마구 그런 거 다

쪼아 넣고.) 05 // 족은배설은 솖아 먹고 메역귀 간썸 뭇아 놩 순대에 담아. 경헤사 맛도 잇고.(작은창자는 삶아서 먹고 '메역귀' '간썸' 마 놔서 순대에 담아. 그래야 맛도 있고.) 11 // 이 도새기 내장에 메역귀 잇고.(이 돼지 내장에 '메역귀' 있고.) 11 [표선, 함덕]

메역바당: 미역을 채취하기 위한 바다 혹은 미역이 많이 자라는 바다를 맗나다. // 우리 저 그때는 학교바당, 메역바당은 풀멍 사고 헐 때우다.(우리 저 그때는 '학교바당', '메역바당'은 팔면서 사고 할 때입니다.) 23 [온평]

메역새: 미역과 비슷하게 생긴 해초인 미역쇠를 말하며 '미역쉐'라고 한다. // 메역새도 놩 국 끌리고.('메역새'도 놔서 국 끓이고.) 13 // 메역새사 국 끌령 먹엇지만 가시리 국사 끌려?('메역새'야 국 끓여 먹었지만 풀가사리 국이야 끓여?) 15 // 메역새 뜨나고 메역 뜨나.('메역새' 다르고 미역 달라.) 21 // 메역새도 엿날이주. 이제 먹읍니까게. 옛날에. 므음은 없고. 메역새도.('메역새'도 옛날이지. 이제 먹읍니까. 옛날에. 모자반은 없고. '메역새'도.) 23 [삼달, 수망, 신촌, 온평]

메역철: 미역을 채취하는 시기이다. // 메역철 나근에 오염이 안 뒈니까 메역 허곡. 그때는 미역을 그렇게 이제 깝이 잘 가근에 육지서 막 미역 받으레 와.('메역철' 나서 오염이 안 되니까 미역 하고. 그때는 미역을 그렇게 이제 값이 잘 가서 육지서 막 미역 받으러 와.) 05 // 열 칭 허는 사름 일곱 칭 허는 사름 다섯 칭 허는 사름 세 칭 허는 사름 경 허주게, 메역철에.(열 칭 하는 사람 일곱 칭 하는 사람 다섯 칭 하는 사람 세 칭 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메역철'에.) 23 // 미시거 메역헐 때 메역철 나민 메역.(무엇 미역할 때 '메역철' 되면 미역.) 25 [온평, 태흥, 표선]

메오름: 표선면 표선리 지경에 있는 오름이다. // 오름은 표선 메오름이라고 잇고.(오름은 표선 '메오름'이라고 있고.) 05 [표선]

메옹이: 고등 종류의 하나이다. // 메옹이는 맵주롱헌 게. 쏘롬헤가지고 영 허영 우린 메옹이엔 헤부난 몰라.(두드러고둥은 맵싸한 게. '쏘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린 '메옹이'라고 해버리니까 몰라.) 01 // 보멀 종류는 말이지 뭐 셍이보멀도 잇고 말이지 뭐 저 뭐 가마귀보멀도 잇고 무슨 먹보멀도 잇고 셍이보멀도 잇고 뭐 메옹이렌 그런 보멀도 잇고 보멀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둥 종류는 말이지 뭐 '셍이보멀'도 있고 말이지 뭐 저 뭐 타래고둥도 있고 무슨 밤고둥도 있고 '셍이보멀'도 있고 뭐 '메옹이'이라고 그런 고둥도 있고 고둥도 종류가 여러 가지야.) 27 [도련, 신창, 옹포]

메옹이꼿: 야생화의 한 종류이다. // 이 촐왓듸나 담벽 돌덜 모아놓은 디 메옹이꼿 그것이 상당이 고와낫어.(이 꼴밭에나 '담벽' 돌들 모아놓은 데 '메옹이꽃' 그것이 상당히 고왔었어.) 05 [표선]

메와들다: 한쪽으로 모여 들다. // 모영 허는 거 아니. 저 감태 그냥 바당 쎄면 막 메와들어근엥 곳이 막 모이주게.(모여서 하는 거 아니. 저 감태 그냥 바다 세면 막 모

여들어서 가에 막 모이지.) 18 [신도]

메인심방: 당을 책임진 심방이다. // 본향 메인심방이 그 심방이 그 심방이 메야해, 해요. 본향 멘 심방이.(본향 '메인심방'이 그 심방이 그 심방이 매야해, 해요. 본향 맨 심방이.) 05 [표선]

메질: 초목의 성장이 좋아 기름함을 이른다. // 낭이 거 춤 받기 좋게 크는 낭이 누룩낭벳긔. 누룩낭이 그냥 메질로 곧게 쭉 크니깐. 거 또 비도 오면은 그 누룩낭 이파리가 좋니까 그 물도 많이 내리곡.(나무가 거 '춤' 받기 좋게 크는 나무가 느릅나무밖에. 느릅나무가 그냥 '메질'로 곧게 쭉 크니깐. 거 또 비도 오면 그 느릅나무 이파리가 좋으니까 그 물도 많이 내리고.) 15 [수망]

메줄추ᄒᆞ다: 농작물 따위가 잘 발육되지 못하여 자잘하다. // 엿날은 걸름도 엇엇는디. 그때 나온 건 유한 ᄒᆞ꼼썩 화학비료 셔나고. 그 웨에는 이제 그 에, 너무 메줄추ᄒᆞ다 ᄒᆞ멍 오좀이나 ᄒᆞ꼼 지쳐, 이제.(옛날은 거름도 없었는데. 그때 나온 건 유한 조금씩 화학비료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그 에, 너무 '메줄추ᄒᆞ다' 하면서 오줌이나 조금 지쳐, 이제.) 28 [구엄]

메큰: 끈을 달아서 저고리 고름처럼 묶는 것을 말한다. // 속곳 헹 우이 적삼 입엉 헤영헌 적삼 헤근에 입엉 그 우터레 메큰 매고.(속곳 해서 위에 적삼 입어서 하얀 적삼 해서 입어서 그 위에 '메큰' 매고.) 13 // 속곳에 옛날은 이젠 빤스 닮아도 영헹 허민 옆으로 터근에 ᄒᆞᆫ 착 가달은 다 줘지고 ᄒᆞᆫ 착 가달은 옆으로 영 헌 디 다 단추 매곡 메큰 ᄃᆞᆯ앙 메고.(속곳에 옛날은 이젠 팬티 같아도 이렇게 하면 옆으로 터서 한 쪽 다리는 다 깁고 한 쪽 다리는 옆으로 이렇게 한 데 다 단추 매고 '메큰' 달아서 매고.) 13 [삼달]

메타: 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낟알을 거둘 때 사용하는 모터가 달린 기계인 탈곡기를 말한다. // 아이고, 비여 놩 옛날은 그거 우리, 우리 메타 그 기계 메타 난 두드려 먹은 거 우리 삼 년이나 안 헷저.(아이고, 베어 놔서 옛날은 그거 우리, 우리 '메타' 그 기계 '메타' 나와서 두드려 먹은 거 우리 삼 년이나 안 했어.) 31 // 경허단이 우리 막 설러 가젠 헐 때에 미깡낭 싱거 갈 때에 ᄇᆞ뎌 가사 메타가 낫저게.(그러다가 우리 막 치워 가려고 할 때에 귤나무 심어서 갈 때에 밭아 가야 '메타'가 났어.) 31 [토평]

메타기: 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낟알을 거둘 때 사용하는 모터가 달린 기계인 탈곡기를 말한다. // 이제 글후젠 메타기 나난 메타기로 홀타만 놓민 장만헷주게.(이제 그 후에 '메타기' 나니까 '메타기'로 훑어만 놓으면 장만했지.) 26 // 이젠 경허난 이젠 저 우리 시누인 그 밧을 주카부덴 저디서 메타기 허여 난 ᄀᆞ시락 담으멍 감제 이제 육지서 와시메 강 벌도 못허고 감제 싱경 약값이나 허렌.(이젠 그러니까 이젠 저 우리 시누이는 그 밭을 줄까 봐 저기서 '메타기' 하고 난 까끄라기 담으면서 고구마 이제 육지에서 왔으니까 가서 벌지도 못하고 고구마 심어서 약값이나 하라고.) 26 // 클에서 홀트민게 홀타지주게. 경허민 그걸 두드려나신디 메타기

난 후젠 요런 좀이 어디 있느니? 메타기레 앗아 대민 탕탕 쏠 낭 마다리레 쏠만 담곡.(그네에서 훑으면 훑아지지. 그러면 그걸 두드렸었는데 '메타기' 나온 후에는 요런 좋기가 어디 있니? '메타기'에 가져 대면 탕탕 쌀 나와서 마대에 쌀만 담고.) 31 [신창, 토평]

메탁기: 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낟알을 거둘 때 사용하는 모터가 달린 기계인 탈곡기를 말한다. // 중간에 발똥기 나난에 발똥기로 헨에 막 메탁기로 헨에.(중간에 발동기 나니까 발동기로 해서 마구 '메탁기'로 해서.) 16 [하원]

메호미: 나무 따위를 찍거나 자르는 낫 비슷한 도구이다. 지역에 따라 '나대', '미호미', '장호미'라고도 한다. // 가지 치는 거, 메호미.(가지 치는 거, '메호미'.) 05 // 낫은 영 이 쒜가 이렇게 이렇게 널른 것에 또 이것에 ᄌᆞ럭이 영 부뜬 거. 이거 ᄌᆞ럭. ᄌᆞ럭 심엉 착착 거슬러. 메호미.(낫은 이렇게 이 쇠가 이렇게 이렇게 넓은 것에 또 이것에 자루가 이렇게 붙은 거. 이거 자루. 자루 잡아서 착착 베어내. '메호미'.) 05 // 메호미, 메호미, ᄒᆞ면 게 여기 잇는 거 사투리로 육지부에선 낫이엔 ᄒᆞᆫ 게 여기선 호미엔 ᄒᆞ고.('메호미', '메호미', 하면 그 여기 있는 거 사투리로 육지부에선 낫이라고 한 게 여기선 호미라 하고.) 15 // 걸 보고 도끼엔 안 ᄒᆞ고 도치라고 여긴 말론 도치ᄒᆞ곡. 메호미 아정강 그 낭을 기치는 거라양.(걸 보고 도끼라고 안 하고 '도치'라고 여기 말론 도치하고. '메호미' 가져가서 그 나무를 끊는 거예요.) 15 [수망, 표선]

멕바농: 멱둥구미가 떨어질 적에 바늘귀에 가는 새끼 따위를 꿰어서 얽어매는 큰 바늘이다. // 말을 안 들으니까 코를 꿰마씨. 나무에 ᄃᆞᆯ아메근에 멕바농 ᄀᆞᆺ다근에 이제.(말을 안 들으니까 코를 꿰어요. 나무에 달아매서 '멕바농' 갖다가 이제.) 20 // 멕바농이라고 헤서 멩태기 짜는 바농도 잇고 말이지, 뭐, 중간에 큰 가빠도 말이여 그런 거 허기도 허고.('멕바농'이라고 해서 망태기 짜는 바늘도 있고 말이지, 뭐, 중간에 큰 카파도 말이야 그런 거 하기도 하고.) 27 [고내, 옹포]

멕신: 멱서리 짜는 것처럼 해서 만든 신이다. // 멕신은 산듸찍으로 절긴 절앗는디. 우리가 그거는 사삼사건 후에. 후에 그 겨울에. 그거를 짱 신엉 뎅기면 이ᄁᆡ지 장화 모냥으로 올라오게 허영 짱 신엉 뎅이면은. 겨울에 뎅겨도 발도 벨로 안 실렵고게.('멕신'은 밭볏짚으로 겯긴 결었는데. 우리가 그거는 사삼사건 후에. 후에 그 겨울에. 그거를 짜서 신어서 다니면 이까지 장화 모양으로 올라오게 해서 짜서 신어 다니면. 겨울에 다녀도 발도 별로 안 시리고.) 14 [성읍]

멕이다: 배어들게 하거나 고루 퍼지게 하거나 물감 등을 칠하다. // 그 옛날에 그 옛날에 범선에예. 칠 멕여근에 물 안 들어가게.(그 옛날에 그 옛날에 범선에요. 칠 먹여서 물 안 들어가게.) 22 // 감옷도 ᄒᆞ면은 감 멕이면은 막 저 영 페와서 그냥 저 아침마다 이제 물에 적지면서 발레여사 빨강ᄒᆞ메.('감옷'도 하면은 감 먹이면은 마구 저 이렇게 펴서 그냥 저 아침마다 이제 물에 적시면서 바래어야 빨개져.) 22 [우도]

멘넷정: 솜을 가늘게 말아서 두 뼘 가량의 길이로 끊어낸 물건이다. // 그거 곶엉 가근에 저 멘네 ᄒᆞ는 듸 강, 멘넷정도 헤 오곡, 소게도 멘들아 오곡 헷주게.(그거 가져서 가서 저 면화 하는 데 가서, '멘넷정'도 해 오고, 솜도 만들어 오고 했지.) 17 [대평]

멘도롱ᄒᆞ다: 매지근하다. 물이나 방바닥 따위가 조금 따뜻한 느낌이 있다. // 안목인지 둣목인지 무시거렌 ᄀᆞᆯ아? 구덜에 멘ᄃᆞ롱ᄒᆞ다 허민 거뿐이주.(아랫목인지 윗목인지 뭐라고 말해? 구들에 매지근하다 하면 그것뿐이지.) 07 // 무신 저 무시거 헤근에 무신 아웨낭썹이나 무신 걸로 헤영, 영 부침ᄒᆞᆫ덴 헷주. 영 멘도롱ᄒᆞ게 첨 영 기자, 대영 영 처미영 ᄒᆞᆯ 부침도 ᄒᆞ고.(무슨 저 무엇 해서 무슨 아왜나뭇잎이나 무슨 걸로 해서, 이렇게 붙인다고 했지. 이렇게 '멘도롱하게' 참 이렇게 그저, 대어서 이렇게 처매서 조금 붙임도 하고.) 15 // 순다리는 누룩헤근엥에 저 물 물 멘도롱ᄒᆞ게시리 ᄒᆞ꼼만 멘도롱헤영 안 뒈여.('순다리'는 누룩해서 저 물 물 '멘도롱ᄒᆞ게시리', 조금만 '멘도롱헤영' 안 돼.) 15 [보목, 수망]

멘작ᄒᆞ다: 물건이 아주 부드럽고 연하여 만질만질한 것을 말한다. // 겨난 그걸로 그 땅을 ᄆᆞᆫ 끗어지게. 끗어지게 경 멘작헌 걸로 허민 안 뒈여마씨.(그러니 그걸로 그 땅을 모두 끄어지게. 끄어지게 그렇게 '멘작헌' 걸로 하면 안 돼요.) 32 [덕수]

멘지락ᄒᆞ다: 거칠지 아니하고 반드럽다. // 섬피해 놔사 땅이 멘지락헤근에 저 씨뿌려이.(끙게 해놔야 땅이 '멘지락헤근에' 저 씨 뿌려.) 10 // 것만 시민 갈아논 거 잠대로, 쉐로 갈아논 거 섬피 끗어줘사 헉이 멘지락헤근에 씨도 잘 먹고게, 그 고지 셩은이 가는 딘 가곡 안 가는 딘 안 강이 경헨 헌다게, 멘지락허게 헤 놩 씨 뿌령 ᄇᆞᆯ라주민이 걸로 난다게.(그것만 있으면 갈아놓은 거 쟁기로, 소로 갈아놓은 거 끙게 끌어줘야 흙이 '멘지락해'서 씨도 잘 먹고, 그 이랑 있으면 가는 덴 가고 안 가는 덴 안 가서 그렇게 해서 한다, '멘지락허게' 해 놔서 씨 뿌려서 밟아주면 그걸로 난다.) 10 [월령]

멘짝: 평평하고 반드러운 모양이다. // 고디라고 흑, 흑 뀌어가지고 멘짝 바르는 거.(알매라고 흙, 흙 이겨가지고 '멘짝' 바르는 거.) 01 // 전부 이제 파가지고 발 들어가게끔 파가지고 멘짝 다듬어가지고 곱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거주게.(전부 이제 파가지고 발 들어가게끔 파가지고 '멘짝' 다듬어가지고 곱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거지.) 09 // 겨난 그거 뭐 어디 무신 벗들이라도 막 하근에 기자 영 뭐 헴시믄 허주만은 저 이 길이양, 길이 ᄒᆞᆯ 멘짝이라도 허영 헤시민 허주만은 경도 안허고 영 헨에 기자 뭐.(그러니 그거 뭐 어디 무슨 벗들이라도 막 많아서 그저 이렇게 뭐 하고 있으면 하지만 저 이 길이요, 길이 조금 평평하기라도 해서 했으면 하지만 그렇게도 안하고 이렇게 해서 그저 뭐.) 15 [고산, 도련, 수망]

멘쫍다: 오목한 부분을 메꿔서 평평하게 고른다는 의미이다. // 지금은 이만이 헤도. 경헨 영 헨 멘쭈와근에 영 멘쭈왕 그레 ᄑᆞᆺ ᄒᆞᆫ 도리 영 놔근에.(지금은 이만큼 해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멘쭈와근에' 이렇게 '멘쭈왕' 그리 팥 한 '도리' 이렇게 넣어서.) 31 [토평]

멘촌: 제주시 도련2동의 옛 이름으로, '맨돈지'라고도 한다. // 멘촌서 삿갓, 멘촌서 삿갓 멘들안.('멘촌'서 삿갓, '멘촌'서 삿갓 만들었어.) 01 // 어디 저 어디 저 우에 그디가 멘촌더렌 다 헤.(어디 저 어디 저 위에 거기가 '멘촌' 쪽엔 다 해.) 21 // 멘촌 사름 와근에 놉 빌엉 막 곱게 줄은 건디. 그거 창고에 시난 경 골으난 나줍서 허멍. 멍석이영. 멍석 일곱 찔에이.('멘촌' 사람 와서 놉 빌려서 아주 곱게 결은 건데. 그거 창고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나 주세요 하면서. 멍석이랑. 멍석 일곱 질에.) 30 [노형, 도련, 신촌]

멘털: 말의 이마에서 내려온 털이다. 달리 '멩털'이라고도 한다. // 멘털. 것도 문딱 비곡 총도 문딱 비곡.('멘털'. 것도 몽땅 베고 총도 몽땅 베고.) 01 [도련]

멜: 농작물을 해치는 나방의 한 종류로 '멸강나방'을 말한다. // 농약을 모르니까 막 거 나비 들어오고 막 헨, 병이 이선, 멜 들엇저 허는디 멸강나방이옌 허영 그것이 이 이파리 허믄 ᄒᆞ를에도 막 갉아먹어.(농약을 모르니까 마구 거 나비 들어오고 마구 해서, 병이 있어서, '멜' 들었다고 하는데 멸강나방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 이파리 하면 하루에도 막 갉아먹어.) 28 [구엄]

멜: 멸치의 제주어이다. // 멜도 마찬가지라. 혼 관대에 소곰 혼 사발.(멸치도 마찬가지야. 한 관대에 소금 한 사발.) 03 // 사람들 멜 거리젠 허민 새벡이, 아침 새벡이 때영 돌아뎅기는 사름이 잇어.(사람들 멸치 뜨려고 하면 새벽에, 아침 새벽에 때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20 // 주로 멜 거리고 자리 거리는 데 많이 썻어. 거 옛날엔 멜이 어떻게 흔헷는지.(주로 멸치 잡고 자리 뜨는 데 많이 썼어. 거 옛날엔 멸치가 어떻게 흔했는지.) 21 // 멜 들엇젠. 야, 저 앞바르 멜 들어서라. 멜 거리레 가게, 가게, 웨멍 가 불민 막 따라가주덜.(멸치 들었다고. 야, 저 앞바다 '멜' 들었더라. 멸치 뜨러 가자, 가자, 외치면서 가 버리면 막 따라가지들.) 23 [고내, 송당, 신촌, 온평]

멜갈치: 자잘한 갈치를 말한다. // 멜첫이나 자리젓이나 그 멜갈치덜 젠젠혼 것들.(멸치젓이나 자리젓이나 그 '멜갈치'들 자잘한 것들.) 03 [송당]

멜굿: 멸치가 잘 잡히기를 기원하기 위해 무당을 빌려서 하는 굿이다. // 멜굿 허레 가는디 가켄 헹덜 막 큰 심방 빌엉 굿을 막 허여.('멜굿' 하러 가는데 가겠다고 해서들 막 큰 무당 빌어서 굿을 막 해.) 11 // 도체비 모상이 막 그냥 멜굿 허는 것이 말도 못허게 허여.(도깨비 모셔서 막 그냥 '멜굿' 하는 것이 말도 못하게 해.) 11 [함덕]

멜락멜락허다: 단단하지 못하고 물렁물렁한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여기서는 말이 힘을 못 쓰고 쓰러지거나 바닥으로 내려앉는 모습을 나타낸다. // 물은 많이 소만이 시끄민 일어사질 못헤. 막 멜락멜락헤 불어.(말은 많이 소만큼 실으면 일어서지를 못해. 아주 '멜락멜락헤' 버려.) 30 [노형]

멜망텡이: 어깨에 메고 다니게 만든 두서 말들이의 망태기를 의미하고 '밀망태', '밀망텡이'라고도 한다. // 멜망텡이 둘러메곡. 도치 놓앙 둘러멩 헹 돌아다니곡.('멜망텡이' 둘러메고. 도끼 놓고서 둘러메서 하고 돌아다니고.) 03 // 조금만 헌 거 헤 가지고 거 웃둑지에 영 헤근에 씨 삐는 거주게, 거 멜망텡이라 그래.(조그만한 거 해 가지고 거 어깻죽지에 이렇게 해서 씨 뿌리는 거지, 거 '멜망텡이'라고 그래.) 12 // 멜망텡이옌 그거 허영 구루마 잇는 사람은 구루마 구루마가 이제 마차인데.('멜망텡이'라고 그거 해서 수레 있는 사람은 수레 수레가 이제 마차인데.) 18 // 기자 산디 씨 기자 헤영 놧당 산디 갈젠 허민 ᄒᆞ쏠 씨 헤사, 씨 헤사 허멍 놔뒁 다근에 기자 멜망텡이에 놔근에 강 뿌리주. 산디도. 산디도 강 뿌려.(그저 밭벼 씨 그저 해서 놨다가 밭벼 갈려고 하면 조금 씨 해야, 씨 해야 하면서 놔뒀다가 그저 '멜망텡이'에 넣어서 가서 뿌리지. 밭벼도. 밭벼도 가서 뿌려.) 31 [덕수, 송당, 신도, 토평, 한동]

멜싹: 물건 등이 아주 망그러져 납죽하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 이제는 벨 거 다 이서도 이제는 솜 닮은 거 놔불민 베개 닮지도 안헤, 눴당 보민 멜싹 까져불고.(이제는 별 거 다 있어도 이제는 솜 같은 거 놔버리면 베개 같지도 않아, 누웠다가 보면 '멜싹' 까져버리고.) 11 [함덕]

멜싹: 물건이 아주 망그러져 납죽하게 된 상태를 의미하나 여기서는 집안이 몰락했다는 의미로 쓰였다. // 덕은 무슨 덕. 엿날에, 우리 친정 왕왕헷는디, 이젠 멜싹.(덕은 무슨 덕. 옛날에, 우리 친정 왕왕했는데, 이젠 '멜싹'.) 15 [수망]

멜싹멜싹멜싹: 물렁물렁한 상태로 단단했던 것이 물러진 모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 전복껍덕 엄지로 심어근에 영 영 영 영 영 영 눌리면은 머리가 ᄒᆞ쏠 멜싹멜싹멜싹 거 웨냐, 고리카부덴.(전복갑 엄지로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머리가 조금 '멜싹멜싹멜싹' 거 왜냐, 고릴까봐서.) 23 [온평]

멜싹ᄒᆞ다: 물건 등이 아주 망그러져 납죽하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 끗동 곱게 입젠 ᄒᆞ민 이제 그 끗동 놔근에 입곡, 그냥 멜싹ᄒᆞ지 안ᄒᆞ여근에 그냥 이디 놓는 건 끗동.(끝동 곱게 입으려고 하면 이제 그 끝동 넣어서 입고, 그냥 '멜싹ᄒᆞ지' 않아서 그냥 여기 놓는 건 끝동.) 08 // 옛날엔 감저 우영에 구뎅이 팡 보릿대 영 ᄆᆞᆫ 헹 세완 그레 헤영 눌르멍 멜싹헷당 겨울에 먹음도 허곡 봄 나믄 또시 그 감저 파내근에 또시 우영에 묻으주게.(옛날엔 고구마 텃밭에 구덩이 파서 보릿대 이렇게 모두 해서 세워서 그리 해서 누르면서 '멜싹헷당' 겨울에 먹기도 하고 봄 나면 또 그 고구마 파내어서 또 텃밭에 묻지.) 33 [동광, 인성]

멜첫: 멸치로 담근 젓갈이다. // 멜첫도 담곡, 자리젓도 담곡. 근디 난 멜첫벳긔 안 담아난.(멸치젓도 담고, 자리젓도 담고. 그런데 난 멸치젓 밖에 안 담가봤어.) 03 [송당]

멜첫망데기: 멸치젓을 담글 때 사용하는 작은 옹기다. // 경 허민 멜첫동이, 멜첫동이 허멍

허연 그 육지서 멜을 ᄀᆞᆫ 맞게 허영 허염신ᄀᆞ라 그 육짓멜첫 그거 허영 동이로 사근엥에 멜을, 그 멜첫망데기엔도 아년 멜첫동이 멜첫동이 허대.(그렇게 하면 '멸치젓동이', '멸치젓동이' 하면서 해서 그 육지서 멸치를 간 맞게 해서 하고 있는지 그 '육지멸치젓' 그거 해서 동이로 사서 멸치를, 그 '멜첫망데기'라고도 않고 '멜첫동이' '멜첫동이' 하데.) 29 [외도]

멜추럭: 어깨에 메고 다니는 구덕이다. // 똥 줏는 구덕이 따로 잇어. 그걸 보고 멜추럭이라고 헤.(똥 줍는 구덕이 따로 있어. 그걸 보고 '멜추럭'이라고 해.) 06 [남원]

멜케: 멸치잡이를 위해 만들어진 계이다. // 멜케, 에 요런 것도 잇엇고.(멸치계, 에 요런 것도 있었고.) 04 [고성]

멜쿡: 멸치를 넣어 끓인 국이다. 나물과 날멸치를 넣어 끓인 국으로, '멜국'이라고도 한다. // 돈이 없으니까 ᄒᆞᆫ 사발 사는 사름 두 사발 사는 사름 허민, 그거를 와근에 젓 허기 전에 국 끓여 먹어불어. 멜쿡 끓여 먹어불민.(돈이 없으니까 한 사발 사는 사람 두 사발 사는 사람 하면, 그거를 와서 젓 하기 전에 국 끓여 먹어버려. 멸칫국 끓여 먹어버리면.) 01 // 바다에서 나가면 바당서 나면은 그 이름이 뭔지 잊어버려신디, 그 멜쿡.(바다에서 나가면 바다에서 나면 그 이름이 뭔지 잊어버렸는데, 그 '멜쿡'.) 09 [고산, 도련]

멜팜부리: 잠자리 떼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많이 날아다니면 멸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 그디 날뤠, 소금ᄌᆞᆯ레기, 소금ᄌᆞᆯ레기 허는디. 그디 멜팜부리 이젠 멜팜부리가 없어. 멜팜부리가 막 마당에 ᄂᆞᆯ아뎅겨이.(거기 일과리, '소금ᄌᆞᆯ레기', '소금ᄌᆞᆯ레기' 하는데. 거기 '멜팜부리' 이젠 '멜팜부리'가 없어. '멜팜부리'가 막 마당에 날아다녀.) 33 [인성]

멜팟: 멸치밭이라는 뜻으로 조천읍 함덕 해수욕장의 모래톱을 '멜팟'이라고 했다. // 해수욕장이엔 헌 건 엇어나신디 요 멧 년 전에부떠사 해수욕장 말도. 거기ᄀᆞ라 멜팟, 멜팟 헤여.(해수욕장이라고 한 건 없었었는데 요 몇 년 전에부터야 해수욕장 말도. 거기보고 '멜팟', '멜팟'해.) 11 [함덕]

멤ᄆᆞᆯ: 남의 말을 망아지 때 가져다가 길러서, 다 자라거나 새끼를 낳으면 원래 주인과 그 이득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기르는 말이다. // ᄆᆞᆯ도 이디 하영덜 질루와낫주. 멤ᄆᆞᆯ. 이 곽지, 귀덕 사름덜이 ᄆᆞᆯ 상 주면은 이 동네 사름덜이 ᄆᆞᆯ 그, 관리헤 가지고 새끼 낳으면은 반착씩, 반착씩 갈르고.(말도 여기 많이들 길렀었지. '멤ᄆᆞᆯ'. 이 곽지, 귀덕 사람들이 말 사서 주면은, 이 동네 사람들이 말 그, 관리해 가지고 새끼 낳으면은 반씩, 반씩 가르고.) 36 [봉성]

멤쉐: 배냇소의 제주어로 남의 소를 송아지 때 가져다가 길러서, 다 자라거나 새끼를 낳으면 원래 주인과 그 이득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기르는 소이다. // 쉔 질룰 때 이제 결혼헤서 처음에 소, 소를 없은 때는 놈으 쉐 멤쉐 메연.(소는 기를 때 이제 결혼해서 처음에 소, 소를 없을 때는 남의 소 배냇소 맸어.) 01 // 많이 경 헤낫어. 이 동네. 게난 곽금성 사름덜이 조금 부제니까 ᄆᆞᆯ 사근엥에. 쉐나 ᄆᆞᆯ이

나 상, 멤쉐 주고 멤ᄆᆞᆯ 주고.(많이 그렇게 했었어. 이 동네. 그러니까 곽지, 금성 사람들이 조금 부자니까 말 사서. 소나 말이나 사서, '맴쉐' 주고, '맴ᄆᆞᆯ' 주고.) 36 [도련, 봉성]

멧도고리: 메를 뜰 때 사용하는 함지박을 말한다. '메'는 제사 때, 신위 앞에 올리는 밥을 말한다. // 경헌디 멧도고리라고 우리 할머니네 헌 거 보민 나무로 뒌 도고리.(그런데 '멧도고리'라고 우리 할머니네 하는 거 보면 나무로 된 함지박.) 29 [외도]

멩감: 음력 정월에 행하는 굿의 하나이다. 잡귀를 물리치고 집안이 무사하고 행운이 오기를 빈다. // 거 헤마다 ○○이네 집이 멩감 헤나지 안헤샤게?(거 해마다 ○○네 집에 '멩감' 했었지 않았니?) 30 [노형]

멩긴골: 망건골을 말하는 것으로 망건을 뜨거나 고치는 데 사용하는 틀이다. // 요 ᄒᆞᆫ ᄀᆞ리ᄁᆞ지도 어무니 산 때는 멩긴골이엔 헌 거 멩긴골도 이성 헤나신디 그 멩긴골 ᄎᆞᆺ이멍 골동품으로.(요전까지도 어머니 산 때는 '망건골'이라고 한 것 '망건골'도 있어서 했었는데 그 '망건골' 찾으면서 골동품으로.) 11 [함덕]

멩담: 처마 끝 서까래 아래에 이엉을 누르는 줄을 묶기 위한 장대를 말한다. '거왕', '멩두암', '벵두암'이라고도 한다. // 그것이 멩담. 줄 매는 것이 멩담. 줄 매는 것이, 졸라매는 디가.(그것이 '멩담'. 줄 매는 것이 '멩담'. 줄 매는 것이, 졸라매는 데가.) 07 [보목]

멩랑동: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 거기는 또 한림서는 거 어디고, 멩랑동이엔 헌 디서부떠 살기 시작헤십주.(거기는 또 한림에는 거 어디고, '멩랑동'이라고 한 데서부터 살기 시작했었지.) 35 [대림]

멩살: 사주에서 가면 안 되는 막은 방향을 말한다. // 동광은 막은방이엔 ᄒᆞ연에 그때 멩살이엔 ᄒᆞ연, 나 오는 디가 멩살이엔. 멩살이엔 ᄒᆞ연에 동광의 오지 못ᄒᆞ연.('동광'은 막은방이라고 해서, 그때 '멩살'이라고 해서, 내가 오는 데가 '멩살'이라고. '멩살'이라고 해서 동광에 오지 못했어.) 08 [동광]

멩이눈: 한경면 저지리의 지명이다. 제보자는 '멩이동'이라고도 한다. // 남승이오름이엔 허멍 우리 저 멩이눈 우이도, 멩이눈에서 더 오름 강 그디까지 강 헤 와나서.('남승이오름'이라고 하면서 우리 저 '멩이눈' 위에도, '멩이눈'에서 더 오름 가서 거기까지 가서 해 왔었어.) 26 [신창]

멩전: 명정의 제주어이다. 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 따위를 적은 기다. 일정한 크기의 긴 천에 보통 다홍 바탕에 흰 글씨로 쓰며, 장사 지낼 때 상여 앞에서 들고 간 뒤에 널 위에 펴 묻는다. // 미시거 멩전벳긔. 멩전, 추도 엿날은.(무엇 명정밖에. 명정, 추도 옛날은.) 02 // 죽으민 관 우이 더끌 때 개판 더끄기 전이, 멩전, 우이 더꺼 놓는 거ᄀᆞ라 멩전이엔 허고 멩전 더끄젠 허민 버물카부덴 흑더레 가는 거 버무나 어떵허리만은 그 적삼으로 영 그디 상제 등망머리 영 지렝이 ᄃᆞᆯ아매는 베 닮은 걸로 그걸 ᄆᆞᆫ 다까뒁 개판 더꺼.(죽으면 관 위에 덮을 때 횡대 덮기 전에, 명정, 위에 덮어 놓는 거보고 명정이라고 하고 명정 덮으려고 하면 더러워질

까봐 흙으로 가는 거 더러워 어떻게 할까만은 그 적삼으로 이렇게 거기 상제 등에 이렇게 길게 달아매는 베 같은 걸로 그걸 모두 닦아둬서 횡대 덮어.) 11 // 그다음엔 막 곱게 영 멘짝허게 헤놩 곱닥허게 놩 개, 저 멩전 더껑.(그다음에 막 곱게 이렇게 매끈하게 해놔서 곱게 놔서 개어, 저 명정 덮어서.) 11 // 우이 개판 더꺼. 개판 더꺼난 우에는 또 멩전이 잇어이.(위에 횡대 덮어. 횡대 덮으니까 위에는 또 명전이 있어.) 21 [선흘, 신촌, 함덕]

멩틸: 말의 이마에서 내려온 털이다. 달리 '멘틸'이라고도 한다. // 봄 나민 내려왕 밧 ᄇᆞᆯ령 올라갈 때 ᄆᆞᆯ총 비곡 갈기 비곡 이 머리털은 뭐엔 헌다마는. 멩털, 멩털.(봄 되면 내려와서 밭 밟고 올라갈 때 말총 베고 갈기 베고 이 머리털은 뭐라고 한다만. '멩털', '멩털'.) 01 [도련]

멩텡이: 망태기의 제주어로 달리 '망텡이', '맹텡이'라고도 한다. // 멩텡이에 그걸 요만한 작은 멩텡이 그것에 담아서 이제 꼭꼭 발라서.(망태기에 그걸 요만한 작은 망태기 그것에 담아서 이제 꼭꼭 발라서.) 09 // ᄇᆞᆯ려 가멍 보리씰 그디 걸름에 막 뿌려, 뿌려근에 이젠 허민 쉐 신 사름은 쉐 헤영 멩텡이 두 개 담앙 질메 지왕 두 개썩 시꺼 가고.(밟아 가면서 보리씨를 거기 거름에 막 뿌려, 뿌려서 이젠 하면 소 있는 사람은 소 해서 '멩텡이' 두 개 담아서 길마 지어서 두 개씩 실어 가고.) 13 [고산, 삼달]

명도암: 제주시 봉개동의 자연 마을 중 하나이다. // 저 명도암서 그냥 뒤집어지니까 어떡 허민 좋고 그냥 막 걱정허고 잇으니까 것에 아주 좀, 옛 그 웃어른이 완에 요건 영 허민 일어난다 허멍 앞에 채경 꺼꺼질 걸 생각 안 허고 그냥 뒤에서 잡아 밀리는 거라.(저 '명도암'에서 그냥 뒤집어지니까 어떡하면 좋을까 그냥 매우 걱정하고 있으니까 것에 아주 좀, 옛 그 웃어른이 와서 요건 이렇게 하면 일어난다 하면서 앞에 채 꺾일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뒤에서 잡아 밀리는 거야.) 01 [도련]

명지: 입구가 없는 땅이다. '맹지'라고도 한다. // 길이 없는 저 명지.(길이 없는 저 '명지'.) 23 [온평]

모감물: 애월읍 구엄리를 가로질러 흐르는 물이다. // 아까 ᄀᆞᆯ은 모감물ᄒᆞ고 저 원물ᄒᆞ고 아 요거 두 가지로 헤 가지고 사람이 물을 먹언 살앗는디 물이 하지 않다 보난 아메도 사람이 덜 살아십주게.(아까 말한 '모감물'하고 저 '원물'하고 아 요거 두 가지로 해 가지고 사람이 물을 먹어서 살았는데 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마도 사람이 덜 살았습지요.) 28 [구엄]

모개기: '목'의 낮춤말이다. // 보선모개기허고 보선 앞코지, 듯코지.(버선목하고 버선 코, 뒤꿈치.) 15 [수망]

모관: '목 안' 즉 '제주목'이며 현재 제주시 지역을 말한다. 제주목은 조선시대 삼현 체제의 하나인 '제주목'을 '모관'이라고 하였다. // 경 하면은 조 ᄀᆞ튼 거 무시거 헤근에 모관 사름덜 콩 아져와근에 좁썰에 바꽈가곡.(그렇게 하면 조 같은 거 무엇 해서

‘모관’ 사람들 콩 가져와서 좁쌀에 바꿔가고.) 05 // 살앙 우리 안에 사는디, 그 모관 사름은 오라도 이리 거트민 저 읍사무소 근처에 관 중에 살고 우린 읍사무소 그 두어레 중학교 앞이 살고 헌디.(살아서 우리 안에 사는데, 그 ‘모관’ 사람은 와도 이리 같으면 저 읍사무소 근처에 관 안에 살고 우린 읍사무소 그 뒤로 중학교 앞에 살고 하는데.) 06 // 모관허고 정의허고 대정 풍습은 좀 달라. 다른 거 풍습이라는 게. 어 그건 그 당시는 그 효가 모관 모관 허민 어딘지 알아?(‘모관’하고 ‘정의’하고 ‘대정’ 풍습은 좀 달라. 다른 거 풍습이라는 게. 어 그건 그 당시는 그 효가 ‘모관’ ‘모관’ 하면 어딘지 알아?) 18 // 그때 경ᄒᆞ곡 그때 웨로는 하르방덜이, 이 우리 우도가 정의면 허고 에 옛날 정이면 허고 모관 모관ᄒᆞ고 이제 양 사이에 잇수다게.(그때 그렇게 하고 그때 외로는 할아버지들이, 이 우리 우도가 ‘정의면’ 하고 에 옛날 ‘정의면’하고 모관 모관하고 이제 양 사이에 있습니다.) 22 [남원, 노형, 대평, 삼달, 성읍, 신도, 우도, 표선, 한동, 함덕]

모낭궤: 성산읍 온평리에 소재한 굴이다. 달리 ‘모낭궤굴’이라고 한다. // 당번제로 헤 가지고 하루는 정심을 싸고 아침 다섯 시에 저녁 다섯 시까지 소를 몰고 멕이고 오면 그 모낭궤엔 헌 거기도 물통이 잇고.(‘당번제’로 해 가지고 하루는 점심을 싸고 아침 다섯 시에 저녁 다섯 시까지 소를 몰고 먹이고 오면 그 ‘모낭궤’라고 한 거기도 물통이 있고.) 23 [온평]

모낭궤굴: 성산읍 온평리에 소재한 굴이다. 달리 ‘모낭궤’라고 한다. ‘모낭궤굴’은 ‘굴’의 의미인 ‘궤’에 ‘굴’이 덧붙은 형태다. // 동굴은 서궁궤굴 무슨 뭐 어디 온평리 경계 가면은 모낭궤굴이라는 거 잇고.(동굴은 ‘서궁궤굴’ 무슨 뭐 어디 온평리 경계 가면 ‘모낭궤굴’이라는 거 있고.) 23 [온평]

모도록허다: 한군데 모아져 있다. // 영 데싸낫저게. 경허민 가운디가 모도록허게 모도아지는데.(이렇게 뒤집었었어. 그러면 가운데가 ‘모도록허게’ 모아지는데.) 02 // 오름으로 ᄒᆞ쏠 영 채 못간 디 오름 못간 디, 오름 못간 디 웨영 ᄒᆞ놓난 ᄒᆞ쏠, ᄒᆞ쏠 모도록한 동산이 이서 그디 가낫주.(오름으로 조금 이렇게 채 못간 데 오름 못간 데, 오름 못간 데 요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조금 ‘모도록한’ 동산이 있어 거기 갔었지.) 15 [선흘, 수망]

모도리: 돌묵상어의 제주어이다. // 옛날에 백 년 전에는 저 그물, 이제 그저 모도리 저, 저 모도리를 머라 허나, 상어.(옛날에 백 년 전에는 저 그물, 이제 그저 ‘모도리’ 저, 저 ‘모도리’를 무엇이라 하나, 상어.) 22 [우도]

모동장: ‘목장’을 의미한다. 원나라로 진상하기 위한 우마를 각소에서 차출하여 출육하기 전에 잠시 방목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곳이다. ‘모돔장’ 이라고도 한다. // 그게 여기서 보통 모동장 모동장 허는데 나가 생각허기는 그 한글 우리나라말 어원으로 모둠장. 모두 모두어서 관리헷던 곳이 아닌가.(그게 여기서 보통 ‘모동장’ ‘모동장’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그 한글 우리나라말 어원으로 ‘모둠장’. 모두 모아서 관리했던 곳이 아닌가.) 18 [신도]

모두락: 물건 따위가 많이 모여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돌멩이 하나로 답질 안허고 막 모여근에 모두락.(돌멩이 하나로 쌓질 않고 많이 모여서 '모두락'.) 30 [노형]

모두룩모두룩: 물건 따위를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가지런하게 소복이 쌓아 놓는 것을 말하다. // 게난 겅 모두룩모두룩 논 사름은 무신 마다리나 가빠 쪼가리 요만씩 헌 거 가졍은에 그레 톡톡, 톡톡 아지당 놓민.(그러니까 그렇게 '모두룩모두룩' 놓은 사람은 무슨 마대나 '가빠' 자투리 요만큼씩 한 거 가져서 거기에 탁탁, 탁탁 가져다가 놓으면.) 03 [송당]

모둠벌초: 친족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벌초이다. // 옛날에는 걸 생각, 모둠벌초라고 해서 초하루날 했는데.(옛날에는 걸 생각, '모둠벌초'라고 해서 초하룻날 했는데.) 06 // 벌초는 개인벌초허고 아까 식으로 제사도 마지막에 큰 종손 집에 허는 식으로 젤 웃어른, 입도는 입도, 입향이면 입향, 웃어른 묘가 젤 마지막에 모둠벌초라고, 모둠벌초라고 춤, 큰 범위 내에서 하는 묘젤 ᄒᆞ고.(벌초는 '개인벌초'하고 아까 식으로 제사도 마지막에 큰 종손 집에 하는 식으로 젤 웃어른, 입도는 입도, 입향이면 입향, 웃어른 묘가 젤 마지막에 '모둠벌초'라고, '모둠벌초'라고 참, 큰 범위 내에서 하는 묘제를 하고.) 07 [남원, 보목]

모력: 맨 앞에 주동이 되어 이끄는 사람, 혹은 그 상태이다. // ᄆᆞᆯ ᄒᆞ나만 탕 모력 상 이끄민 앞이 이끄민 조름에는 둘리가 영 ᄆᆞᆯ ᄆᆞᆯ앗주.(말 하나만 타서 '모력' 서서 이끌면 앞에 이끌면 뒤에는 둘이가 이렇게 말 몰았지.) 24 [세화]

모록모록: 여러 개가 한데 모여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나무나 풀, 꽃, 채소 따위가 한데 뭉쳐나서 소담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말복 뒈민 모ᄆᆞᆯ 갈민, 칠월절 뒈민, 처서 뒈민, 그 우시 갈라근에 모ᄆᆞᆯ씨가 영 씨 서껑 줍아 놓은[논] 거난 그디 모록모록 나지 안허여? 그것가 가락가락 떼어진덴 ᄀᆞᆸ갈른덴 말이주게.(말복 되면 메밀 갈면, '칠월절' 되면, 처서 되면, 그 '우시' 갈라서 메밀씨가 이렇게 씨 섞어서 집어 놓은 거니까 거기 '모록모록' 나지 않니? 그것이 '가락가락' 떼어진다고 'ᄀᆞᆸ갈른다'는 말이지.) 13 // 그 보리가 걸름을 탁탁탁 영 놓아 놓면은. 모록모록허게 나잖아 보리.(그 보리가 거름을 탁탁탁 이렇게 놓아 놓으면. '모록모록' 하게 나잖아 보리.) 24 [삼달, 세화]

모록밧: 안덕면 상천리를 일컫는 옛 지명이다. // 그때는예, 모록밧 사름도 이 ᄒᆞᆨ골 뎅기고예.(그때는요, '모록밧' 사람도 이 학교를 다녔고요.) 08 [동광]

모록이: 여러 개가 한데 모여 있는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여기서는 그릇에 밥 따위가 넘칠 만큼 담아놓은 모양이다. // 굵은 거는 굵은 것대로 그 콩꼬질이라고 헤서 집에 갓다가 이제 눌워둠서 멕이고, 줌진 건 거 강메기 털어진 거는 또 큰 멕에 담아다가, 저 쉐막 ᄒᆞᆫ쪽 구석에 조찍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에우싸면서 담앙 모록이 놔뒁당, 그걸 ᄀᆞᆯ체로 담으멍 쉐 줭 멕이고, 버릴 게 ᄒᆞ나도 엇주게.(굵은 거는 굵은 것대로 그 콩깍지라고 해서 집에 갔다가 이제 가리었다가 먹이고, 잔 건 그 '강메기' 떨어진 거는 또 큰 멱에 담아다가, 저 외양간 한쪽 구석에 조짚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에워싸면서 담아서 '모록이' 놔뒀다가, 그걸 삼태기로 담으면서 소 줘서 먹이고, 버릴 게 하나도 없지.) 19 [청수]

모록허다: 여러 개가 한데 모여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다. // 그자 안아 놩 모록허게 데며 놩 두께 더끄민 건 안 무꺼도 뒈여.(그저 안아 놔서 '모록허게' 쌓아 놔서 뚜껑 덮으면 그건 안 묶어도 돼.) 13 [삼달]

모멀만뒤: 메밀가루 반죽으로 반달 모양으로 얇게 만든 후에, 안에 팥소를 넣어 집어서 삶아낸 후 팥고물을 묻힌 떡이다. // 모멀만뒤를 허나 돌레떡을 허나.('모멀만뒤'를 하나 도래떡을 하나.) 14 [성읍]

모멀컬름: 메밀씨에 섞는 재를 의미하는 말이다. 메밀을 갈 때 사용하는 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재를 모아두었다가 섞어 파종한다. // 모멀컬름 논덴 허주게. 모멀컬름 논덴.('모멀컬름' 놓는다고 하지. '모멀컬름' 놓는다고.) 14 [성읍]

모빈단: 옷감 종류의 하나이다. // 경허난 이제 거기서 이제 소게 거튼 거, 뭐 이제 이불 싸는 거 거튼 거, 이제 더끄는 거 모빈단 셔낫주.(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솜 같은 거, 뭐 이제 이불 싸는 거 같은 거, 이제 덮는 거 '모빈단' 있었지.) 20 [고내]

모살디: 제주시 노형동의 지경 이름이다. // 족은도리 살다근에 어디 저 모살디엔 헌 디가 모살디엔 허민 이디서 일로 금방 서쪽으로 쫙 산에 올라가면은 을마 안 간 영 펜펜헌 디가 있었어.('족은도리' 살다가 어디 저 '모살디'라고 하는 데가 '모살디'라고 하면 여기서 이리로 금방 서쪽으로 쫙 산에 올라가면 얼마 안 가서 이렇게 편편한 데가 있었어.) 30 [노형]

모살통: 바다 중에 모래가 많이 깔려 있는 웅덩이를 말한다. // 경 허믄 그런 땐 이제 모살통에 춪으레 뎅기는 거라.(그렇게 하면 그런 땐 이제 '모살통'에 찾으러 다니는 거야.) 29 [외도]

모슬봉: 대정읍 모슬포에 있는 오름이다. // 이녁 살단 데 콘테나 허연 살단 디 살고, 하우스 어디 요 모슬봉 뒤에 싯고렌 허멍.(이녁 살던 데 컨테이너 해서 살던 데 살고, 하우스 어디 요 '모슬봉' 뒤에 있다고 하면서.) 34 [구억]

모에제완지: 바랭이의 한 종류이다. // 조밧듼 제완지, 모에제완지 막 나난.(조밭엔 바랭이, '모에제완지' 마구 났었어.) 24 [세화]

모읜침떡: 멥쌀이나 메좁쌀가루에 팥 따위의 소를 넣으며 켜를 지어서 찐 시루떡이다. // 시루떡, 제펜ᄒᆞ곡, 저 거세기. 흰 모읜침떡, 풋 놓곡 ᄒᆞ영 모읜침떡 흰 걸로만 양.(시루떡, '제펜'하고, 저 거시기. 흰 '모읜침떡', 팥 넣고 해서 '모읜침떡' 흰 걸로만요.) 17 [대평]

모인조: 조의 한 종류로, '메조'를 말한다. // 차조로 술 허주. 이제 그런 모인조로는. 흐린조라이, 차조가 아니고.(차조로 술 하지. 이제 그런 '모인조'로는. '흐린조'야, 차조가 아니고.) 06 [남원]

모인좁썰: 좁쌀의 한 종류로, 메좁쌀이다. // 모인좁썰은 막 살락허주게.(메좁쌀은 아주 '살락하지'.) 12 [한동]

모지악: 표선면 성읍리에 소재한 오름이다. 달리 '무찌오름'이라고도 한다. // 이 모지악을 옛날은 그 모지악을 보고 무찌오름이라고 헷는디.(이 '모지악'을 옛날은 그 '모지악'을 보고 '무찌오름'이라고 했는데.) 14 // 저 모지악허고, 원 여기서 젤 큰 오름은 영주산허고 저 모지악벳긴 없고.(저 '모지악'하고, 원 여기서 젤 큰 오름은 '영주산'하고 저 '모지악'밖에는 없고.) 14 [성읍]

모지직허다: 옷감의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단단하고 튼튼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 토멩지는 좋아마씨. 이디 건 아주 모지직헌 게 좋아마씨.('토멩지'는 좋아요. 여기 건 아주 '모지직헌' 게 좋아요.) 32 [덕수]

모지직허다: 한번 먹은 마음이나 뜻을 굳게 다잡는 성질이 있다는 의미이다. // ᄒᆞ꼼허믄 저 모지직헌 여자보고.(조금하면 저 '모지직헌' 여자보고.) 29 [외도]

모커리: 곁채의 제주어이다. // 보통 보면은 동 모커리나 서 모커리는 ᄒᆞ나는 곡간으로 쓰곡 ᄒᆞ나는 쉐막으로 쓰곡.(보통 보면 동 곁채나 서 곁채는 하나는 곡간으로 쓰고 하나는 외양간으로 쓰고.) 16 [하원]

모커리구둘: 곁채에 딸린 방이다. // 모커리방 이렇게 허는 건디 모커리구둘엔 허는 건디.('모커리방' 이렇게 하는 건데 '모커리구둘'이라고 하는 건데.) 01 [도련]

모트레기: 가루 따위가 엉켜서 뭉쳐 있는 작은 덩이를 말한다. // 모힌좁ᄊᆞᆯ에 그 콩ᄀᆞ르레 서껑. 콩ᄀᆞ를만 허영 허여도 모트레기 지니까 좁ᄊᆞᆯ에 영 허영 서껑 허민.(메좁쌀에 그 콩가루에 섞어서. 콩가루만 해서 해도 '모트레기' 지니까 좁쌀에 이렇게 해서 섞어서 하면.) 29 [외도]

모힌산듸: 메진 밭벼이다. // 모힌산듼데 기자 밥헹 먹곡 떡헹 먹곡게.('메밭벼'인데 그저 밥해서 먹고 떡해서 먹고.) 23 [온평]

목감: 공동목장에서 남의 소를 맡아서 돌봐주는 사람을 말한다. // 목감을 정헤서 목감 월급 주면서 육 개월 동안 데령 쓰주.('목감'을 정해서 '목감' 월급 주면서 육 개월 동안 데려서 쓰지.) 14 // 그런 것도 가는 거 잇고. 그거는 뭐 그 목감 이시난 헌디. 번쳥 강.(그런 것도 가는 거 있고. 그거는 뭐 그 '목감' 있으니까 하는데. '번쳐서' 가서.) 29 // 목장에 올린 거는 고사허고, 그땐 뭐 목장 안네 목감이 알앙은에 쉐 잃으민 쉐 잃어 버렷젠 쉐 임제안티 연락 오면은.(목장에 올린 거는 고사하고, 그땐 뭐 목장 안에 '목감'이 알아서 소 잃으면 소 잃어 버렸다고 소 임자한테 연락 오면.) 29 [성읍, 외도]

목다리: 다른 곳을 빠져 나갈 수 없는 길의 좁은 곳이다. // 기어가는 그 목다릴 지나가지 못ᄒᆞ게.(기어가는 그 '목다리'를 지나가지 못하게.) 08 [동광]

목마: 원통형의 나무토막에 자잘한 나무토막을 박아서 굴리면서 씨앗이 흙속에 묻힐 수 있게 만든 도구이다. 지역에 따라서 '목매', '남테', '낭테'라고 한다. // ᄆᆞᆯ로 ᄇᆞᆯ려 보질 안허고 우리가 어린 때는 아버지허고 목마라고.(말로 밟아보질 않고 우리가

어릴 때는 아버지하고 '목마'라고.) 23 [온평]

목매: 조 따위의 씨를 흙에 묻기 위하여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도구이다. '목매'는 '목마(木馬)'의 제주어식 발음이다. 지역에 따라서 '남테', '낭테'라고 한다. // 조농사 허젠 허민 ᄇᆞᆯ리젠 허민 ᄆᆞᆯ 엇인 집인 저 나무로 헤근엥에 그 ᄆᆞᆯ 다리 만들앙양, 것ᄀᆞ라 목매.(조농사 하려고 하면 밟으려고 하면 말 없는 집엔 저 나무로 해서 그 말 다리 만들어서요, 것보고 '목매'.) 23 // 목매 헤영 그거 그걸로 끗엉은에게.('목매' 해서 그거 그걸로 끌어서.) 23 [온평]

목매질: 좁씨 따위를 흙에 묻기 위하여 '목매'를 끌고 다니는 일이다. // ᄆᆞᆯ 잇인 사람은 그 ᄆᆞᆯ로 ᄇᆞᆯ리곡, 경 또 그치룩 목매질도 못허면은 끄세기로.(말 있는 사람은 그 말로 밟고, 그렇게 또 그처럼 '목매질'도 못하면 끙게로.) 23 [온평]

목산: 야산 지대의 밭으로, 주로 메밀이나 밭벼 농사가 가능한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 그거는 목산이라고 허거든 목산. 궂은 산디허고 메밀벳긔 잘 안 뒈니까. 조가 잘 안 뒈니까 저 피를 허는 거야.(그거는 '목산'이라고 하거든 '목산'. 궂은 밭벼하고 메밀밖에 잘 안 되니까. 조가 잘 안 되니까 저 피를 하는 거야.) 06 // 검질 별로 안 나. 저 목산이엔 ᄒᆞᆫ 것이. 새왓, 촐왓 갈아근엥이 그거 헌 디. 미릇 딴 풀씨가 거긴 없거든.(김 별로 안 나. 저 '목산'이라고 한 것이. 띠밭, 꼴밭 갈아서 그거 한 데. 미리 다른 풀씨가 거긴 없거든.) 15 // 그걸 게도 먹언 살고, 여기 저 산듸연 한 것이, 우리는 목산 헤가지고. 목산 헨, 목산 모르지?(그걸 그래도 먹어서 살고, 여기 저 밭벼라고 한 것이, 우리는 '목산' 해서. '목산' 해서, '목산' 모르지?) 15 [남원, 수망]

목시물굴: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작은 굴 이름이다. 제주4·3 당시 선흘 사람들이 이 굴속에 숨어 있다가 죽었다고 한다. // 그거, 그까짓 굴. 그 목시물굴 잇주게.(그거, 그렇게 작은 굴. 그 '목시물굴' 있지.) 02 // 도틀굴 요새에 세지 안헴주. 막아저 불언. 도틀굴 막어전, 막아졋어. 목시물굴 이제게 ᄒᆞ나 잇주게.('도틀물' 요새 세지 않지. 막혀버렸어. '도틀굴' 막혔어, 막혔어. '목시물굴' 이제 하나 있지.) 02 [선흘]

목장밧: 목장을 이겨서 만든 밭을 말한다. // 저 목장밧디레 그 대롱제완진 나주 가름팟디렌 대롱제완지 안 나.(저 목장밭으로 그 '대롱제완지'는 나지 '가름팟'으론 '대롱제완지' 안 나.) 14 // 갈산듸 ᄀᆞ튼 건 궂은 밧듸덜 막 갈아노난. 목장밧듸덜 가는 거난 허는 사름덜.('갈산듸' 같은 건 궂은 밭에들 막 갈아놓으니까. 목장밭에들 가는 거니까 하는 사람들.) 14 [성읍]

목장지: 말이나 소를 놓아 먹여 기르기도 하고 경작하기도 하는 땅이다. // 집에서 새끼 내와서 암소니까 동네에 여름철에는 목장지라고 헤 가지고 여름에는 일 안 ᄒᆞ여 소가.(집에서 새끼 나오게 해서 암소니까 동네에 여름철에는 '목장지'라고 해 가지고 여름에는 일 안 해 소가.) 27 [옹포]

목질: 심한 기침병이다. // 목질이렌 ᄒᆞ멍 그것 저 것도 저 그거주게, 뽕낭, 그거 멕연. 목

질에.(‘목질’이라고 하면서 그것 저 것도 저 그거지, 뽕나무, 그거 먹였어, ‘목질’에.) 24 [세화]

목쩨비: 목접. 목이 걸리도록 하게 만든 사냥도구이다. // 족제비 ᄀᆞ뜬 것도 목쩨비 이용허주.(족제비 같은 것도 목접이 이용하지.) 04 [고성]

몬지락: 까끄라기나 허드레한 검불 따위를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다. // 옛날 몬지락이나 소똥 ᄆᆞᆯ똥 줏어다가.(옛날 ‘몬지락’이나 소똥 말똥 주워다가.) 06 // 안터레 굴목 짓주게. 몬지락 헤근에. 보릿ᄀᆞ시락 뒈멋다근에.(안쪽으로 ‘굴목’ 짓지. ‘몬지락’ 해서. 보리까끄라기 쌓았다가.) 07 // 굴묵에 몬지락 데며놓은 디 그 구석에 강 곱으난에게.(‘굴묵’에 ‘몬지락’ 쌓아놓은 데 그 구석에 가서 숨으니까.) 23 [남원, 보목, 온평]

몬지락불: ‘몬지락+불’의 구성으로, 까끄라기나 검불 등에 불을 붙여 피운 불을 말한다. // 아래 모닥불 살르고 몬지, 몬지락불 옛날 말로 몬지락불 살롸근에 그 우터레 도 꼬마리 놓곡.(아래 모닥불 사르고 먼지, ‘몬지락불’ 옛날 말로 ‘몬지락불’ 살라서 그 위로 도투마리 놓고.) 31 [토평]

몬지락허다: 털 따위가 짧고 부드러운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그 족제비 가죽은 잘도 좋아. 몬지락헌 게 긴게이, 그거 영 헤근에.(그 족제비 가죽은 아주 좋아. ‘몬지락한’ 게 그렇네, 그거 이렇게 해서.) 30 [노형]

몰레알늣개통: 성산읍 온평리 바닷가 ‘몰레알’ 지경에 있는 ‘늣개통’을 말한다. // 신동산늣개통, 여맞은개늣개통, 도에늣개통, 몰레알늣개통 다 잇주게.(‘신동산늣개통’, ‘여맞은개늣개통’, ‘도에늣개통’,‘ 몰레알늣개통’ 다 있지.) 23 [온평]

몰레제완지: 성산읍 온평리에서 바랭이의 일종을 가리키는 말이다. 바랭이 밑동이 붉은 색을 띤다고 한다. // 몰레제완지는 저 굽뎅이 빨강헌 것이 몰레제완지고.(‘몰레제완지’는 저 밑동이 빨간 것이 ‘몰레제완지’고.) 23 // 저 줄 막 벋어 부난 쉽곡, 그 몰레제완지는양. 찔깁니다게, 뿔리가.(저 줄 막 벋어 버리니까 쉽고, 그 ‘몰레제완지’는요. 질깁니다, 뿌리가.) 23 [온평]

몰명허다: 사람이 용렬하여 야무지지 못하고 시원찮다. ‘몰멩지다’라고도 한다. // 몰명허게 난 건 ᄀᆞ늘게 꼬지락이 나오는데 그 불체 먹은 것은 그게 버루기 그냥.(‘몰명허게’ 난 건 가늘게 뾰족하게 나오는데 그 재 먹은 것은 그게 ‘버루기’ 그냥.) 19 // 제일 몰명헌 것덜만, 게 살아신디, 겐디 우리 어멍이 그 당시 ᄒᆞ교를 다 보내서, 중학교영 고등학교영 보내신디.(제일 ‘몰명한’ 것들만, 것이 살았는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 학교를 다 보냈어,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보냈는데.) 34 [구억, 노형, 청수]

몸뗑이: 저고리의 몸통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의몸’이라고 한다. // 천 놔근엥에 자 놔근에 이녁 몸뗑이 자 멧 치 멧 치 입을 거 허고 기럭시 멧 치 허곡 헤영 재영.(천 놔서 자 놔서 이녁 몸뚱이 자 몇 치 몇 치 입을 거 하고 길이 몇 치 하고 해서 재어서.) 23 [온평]

몸뻬: 일본어 'もんぺ'로 '일바지'이다. 일본에서 들어온 옷으로 통이 넓고 발목을 묶게 되어 있다. // 경 헹 몸뻬도 헤영 감 디렁 입곡.(그렇게 해서 일바지도 해서 감 들여서 입고.) 04 // 우리가 입는 건 그 옛날에 그 시절에 몸뻬를 헐 중 몰라 가지고 이만이 널른 거 중의라 중의. 갈중이.(우리가 입는 건 그 옛날에 그 시절에 일바지를 할 줄 몰라 가지고 이만큼 넓은 거 중의라고 중의. '갈중의'.) 06 // 여자도 그냥 여자는 여자니까 그냥 그땐 몸뻬도 엇지.(여자도 그냥 여자는 여자니까 그냥 그땐 일바지도 없지.) 11 // 요시 광목, 이런 옷ᄀᆞᆷ이 많이 이섯주만은 옛날은 미녕, 짠 거, 그런 거 상 몸뻬 헤영 입고.(요새 광목, 이런 옷감이 많이 있었지마는 옛날은 무명, 짠 거, 그런 거 사서 일바지 해서 입고.) 25 [고성, 남원, 덕수, 우도, 태흥, 함덕]

몸엣거: 성숙한 여성의 자궁에서 주기적으로 출혈하는 생리 현상인 월경이나 그때 나오는 피를 말한다. // 그 여자덜 몸엣거 온 때 몰랑 들어강 헤도 허곡, 불 ᄉᆞᆷ앙 치는 거난에 짐 시리에 불 저 짐 아니 올른 때에 그 부억으로 확허게 문에 베꼇듸서 안티레 들어와 불민 것도 부정 타근에 경 아니 익어근에 막. 게영 어떤 때 막 저 신착으로 시리 두드리멍.(그 여자들 '몸엣거' 올 때 몰라서 들어가서 해도 하고, 불 때서 찌는 거니까 김 시루에 불 저 김 아니 오른 때에 그 부엌으로 확하게 문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것도 부정 타서 그렇게 아니 익어서 막. 그래서 어떤 때 막 저 신짝으로 시루 두들기면서.) 23 [온평]

몸제: 상례의 제차 중 한 종류이다. // 죽으면은 성복제, 일폿제, 몸제. 몸제 지내곡 또 산제 지내두곡 헹 와.(죽으면 성복제, 일포제, '몸제'. '몸제' 지내고 또 산제 지내두고 해서 와.) 11 // 막 봉분헤 뒁 올 땐 몸제 지내뒁 마지막으로.(막 봉분해 두고 올 땐 '몸제' 지내두고 마지막으로.) 11 [함덕]

몹쓸다: 성질이 포악하면서 고약하다는 의미이다. // 숫소만 메난게, 부룽이만 송아지 헹 커 가민 부룽이 뒈주게이. 부룽이 뒌에 너미 몹쓸아 가민 ᄌᆞᆯ라 불어.(수소만 매니까, 부룩소만 송아지 해서 커 가면 부룩소 되지. 부룩소 돼서 너무 '몹쓸어' 가면 잘라 버려.) 30 [노형]

못벵뒤: 조천읍 선흘리 근처의 지명이다. // 경허곡 또 못벵뒤 가 불어서라, 영 허멍 소문 들으멍 쉐도 ᄎᆞᆺ아.(그리고 또 '못벵뒤' 가 버렸더라, 이렇게 하면서 소문 들으면서 소도 찾아.) 02 [선흘]

못적: 메밀묵이나 두부 등을 정육면체 모양으로 모지게 잘라 꿴 적이다. // 이 무신 적 영 못적이엔 헌 건 영 소름소름헹 귀나게 헌 게 묵적인디 경ᄒᆞᆫ디 그 청묵은 못해여.(이 무슨 적 이렇게 '못적'이라고 한 건 이렇게 기름기름해서 모나게 한 게 묵적인데 그런데 그 '청묵'은 못해.) 13 // 납작납작허게 허영 영 헤영 요추룩 헤영 몬착몬착 썰엉 헌 건 납작허곡 따시 이거라도 영 썰엉 ᄒᆞᆯ 못 잇게 쪼질쪼질허게 썬 건 못적.(납작납작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헤서 '몬착몬착' 썰어서 한 건 납작하고 다시 이거라도 이렇게 썰어서 조금 모 있게 '쪼질쪼질'하게

썬 건 '못적'.) 13 [삼달]

못정지: 곁채인 '모커리'에 있는 '정지'이다. // 마당에서 마께질헨 조 헤단 톧아단 두드련 이젠 그디 밧거리 구들은 두 개고 못정지 싯곡 허난 그디 솟 앚젼에.(마당에서 방망이질해서 조 해다가 뜯어다가 두드려서 이젠 거기 바깥채 구들은 두 개고 '못정지' 있고 하니까 거기 솥 안쳐서.) 13 [삼달]

못치기: '못'을 가지고 노는 놀이다. // 그 못이 많았어. 그 못이. 이 학생덜 그거 가근에 주워단. 그걸로 못치기 헤근에.(그 못이 많았어. 그 못이. 이 학생들 그거 가서 주워다가. 그걸로 '못치기' 해서.) 06 [남원]

몽갈몽갈: 작고 둥그스름한 것을 손으로 만지며 이리저리 흔들거나 미끄러지는 모양이다. // ᄆᆞ물묵인디 묵은 여러 가지로 치레 영 잘허는 사름은 아까 ᄀᆞ튼 ᄉᆞ레기나 그 저 도레미쏠 훍은 거는 안 뒈고이 죽 끓여 먹는 거 ᄒᆞ쏠 ᄆᆞ물쏠을 물에 푹 둠갔다가 푹 우려나면은 이제 차두에 담아서 몽갈몽갈 막 허다 보민 ᄆᆞ물쏠은 막 약헌 거니까 ᄆᆞ물은이 이 나는 시기도 막 짧으주게.(메밀묵인데 묵은 여러 가지로 치레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까 같은 싸라기나 그 저 '도레미쌀' 굵은 거는 안 되고 죽 끓여 먹는 거 조금 메밀쌀을 물에 푹 담갔다가 푹 우러나면 이제 자루에 담아서 '몽갈몽갈' 마구 하다 보면 메밀쌀은 아주 약한 거니까 메밀은 이 나는 시기도 아주 짧지.) 06 [남원]

몽골다: 너무 많이 쓰여 다 닳아지고 모지라짐을 뜻한다. 여기서는 너무 많고 험한 노동에 몸이 다 못쓰게 됐다는 의미로 쓰였다. // 물도 저디 저 내창 물 먼 디 거 지고, 그 애기들 키우곡 경ᄒᆞ멍 ᄒᆞ난 이 다 몽골아.(물도 저기 저 냇물 먼 데 것 지고, 그 애기들 키우고 그렇게 하며 하니까 이 다 '몽골아'.) 15 [수망]

몽글다: 너무 많이 쓰여서 다 닳아지고 모지라지다. // 뭐 저런 비차락 그 막 몽근 거, 몽근 그거 아무것도 엇인 거 사금바치.(뭐 저런 빗자루 그 막 '몽근' 거 '몽근'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 사금파리.) 27 [옹포]

몽수: 신 따위의 치수인 '문수(文數)'를 말한다. 일본어 'もんすう'에서 온 말이다. // 친정아버지도 나막신을 만들어낫주게. 나막신은 나무때기 요만쯤 훍은 거 비어다가. 그 자기 몽수만썩 짤라.(친정아버지도 나막신을 만들었었지. 나막신은 나무때기 요만큼쯤 굵은 거 베어다가. 그 자기 '몽수'만큼씩 잘라.) 30 [노형]

몽클: 쟁깃술이다. // 쟁기 젤 밑에 건 몽클.(쟁기 젤 밑에 건 쟁깃술.) 01 // 이젠 또 영 꼬부라진 건 에, 장긴 몽클.(이젠 또 이렇게 꼬부라진 건 에, 쟁기는 쟁깃술.) 16 [도련, 수망, 하원]

무거리피쏠: 핍쌀 가운데 쌀알이 굵은 핍쌀이다. // 무거리피쏠. 피라고양? 저 조도 아니 피도 아니 그 잇수다.('무거리피쏠', 피라고요? 저 조도 아니 피도 아니 그 있습니다.) 14 // ᄀᆞ랑좁썰에 무거리피쏠은 그것은 완전 고급이고양.('ᄀᆞ랑좁썰'에 '무거리피쏠'은 그것은 완전 고급이고요.) 14 [성읍]

무게기: 무거리의 제주어이다. 곡식 따위를 빻아 체에 쳐서 가루를 내고 남은 찌꺼기이다.

// 치멍 무게기 놩 또 이제 뻣곡, 경허멍 뻣아당 허여.(치면서 무거리 놔서 또 이제 빻고, 그러면서 빻아다가 해.) 02 [선흘]

무근동: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지명이다. // 무근동에 집도 싯곡.('무근동'에 집도 있고.) 08 // 무근동에 살안 그디만 벌어낫네이.('무근동'에 살아서 거기만 벌었었네.) 08 [동광]

무근동광: 안덕면 동광리의 지명이다. // 중매 결혼ᄒᆞ연에 그때 그 중매 결혼을 우리 씨하르방이 이 저 우리 어멍신디 무근동광 살단에 무근동광 오라근에 일ᄒᆞ레 자꾸 뎅기는 거 보난.(중매 결혼해서 그때 그 중매 결혼을 우리 시할아버지가 이 저 우리 어머니에게 '무근동광' 살다가 '무근동광' 와서 일하러 자꾸 다니는 거 보니까.) 08 [동광]

무끗: 한림읍 월령리의 옛 지명이다. 월령리에 있는 연못으로 옛날 식수, 또는 소 물 먹이는 곳으로 이용했었다. 지금도 '무끗물'이 있다. // 네 개가 만딱 아래 한질에 무끗디 네 개 알아졈저. 네 개나 셔낫저.(네 개가 모두 아래 한길에 '무끗'에 네 개 알아지겠다. 네 개나 있었지.) 10 // 내창 이름 그냥 무끗딜로 내려온 내창이엔 경만 헤낫주기.(내 이름 그냥 '무끗'으로 내려온 내라고 그렇게만 했었지.) 10 [월령]

무끗물: 월령리에 있는 물통 이름이다. // 무끗물 옛날에 먹어난 물 그 옆이 그디도 무끗물인디.('무끗물' 옛날에 먹었던 물 그 옆에 거기도 '무끗물'인데.) 10 // 무끗디, 무끗물 낮 되어사 물 멕이레.('무끗'에, '무끗물' 낮 되어야 물 먹이러.) 10 [월령]

무등이: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지명이다. // 영 뒌 굴인디 요 가운디는 어느 정도 사지는디 옆더렌 영 누움벳긔 못ᄒᆞ여. 거기가 동광 사름 사는 디라마씸. 무등이 사름 사는 디.(이렇게 된 굴인데 요 가운데는 어느 정도 서지는데 옆으로는 이렇게 누움밖에 못해. 거기가 '동광' 사람 사는 데지요. '무등이' 사람 사는 데.) 08 [동광]

무등이왓: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지명이다. // 근디 한 아침 새벽 ᄒᆞᆫ 세 시경에 구루마에 걸름을 시껀 저 무등이왓이엔 ᄒᆞ는 디 사름 죽어난 동네에 우리 살아나니깐, 그디 밧이난 그걸 끗엉 가는디 요 돌ᄃᆞ리옌 ᄒᆞᆫ 딘 가니까 쉐가 갑자기 가지를 안ᄒᆞ여.(그런데 한 아침 새벽 한 세 시경에 달구지에 거름을 실어서 '무등이왓'이라고 하는 데 사람 죽었던 동네에 우리 살았었으니깐, 거기 밭이니까 그걸 끌어서 가는데 요 '돌ᄃᆞ리'라고 한 덴 가니까 소가 갑자기 가지를 안해.) 08 // ᄉᆞ삼사건 전에 부락 형성이 저쪽 저 무등이왓이라는 데가 잇곡.(사삼사건 전에 부락 형성이 저쪽 저 '무등이왓'이라는 데가 있고.) 08 [동광]

무때로: 아무 때나 의미로 쓰였다. // 톨밥도 바당에 강 톨 옛날은 지금은 톨이 막 귀헌 거라도 그때는 흔헌 건 톨이라. 메역은 금허곡 톨은 안 금허곡 무때로 톨 비여당 ᄉᆞᆲ앙.('톳밥'도 바다에 가서 톳 옛날은 지금은 톳이 아주 귀한 거라도 그때는 흔한 건 톳이야. 미역은 금하고 톳은 안 금하고 '무때로' 톳 베어다가 삶아서.) 14

[성읍]

무뚱: 처마 밑에 신발 따위를 벗어둘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문 앞'의 의미이다. 방 앞이면 '방무뚱'이 되고, 부엌 앞이면 '정지무뚱'이 된다. // 아이들 요디 무뚱에 조랑조랑 산 아이덜 밥도 끊어주고 무시것도 다 주고 갈라주고.(아이들 요기 '무뚱'에 '조랑조랑' 선 아이들 밥도 잘라주고 무엇도 다 주고 갈라주고.) 11 // 눌트멍에도 곱곡, 장독 어염에도 강 곱아불곡, 따시 집의 무뚱에도 강 곱아불곡.(가리 틈에도 숨고, 장독 옆에도 가서 숨어버리고, 다시 집에 '무뚱'에도 가서 숨어버리고.) 17 // 엿날은 새각시 나시 새각시 들어오민 거 무싱거옌 허연 무뚱에덜 사람덜이 지깍허연.(옛날은 새색시 몫 새색시 들어오면 거 무엇이라고 해서 '무뚱'에들 사람들이 빽빽했어.) 19 // 비가림이라든지 바람막이로 헤 가지고 걸 무뚱에 세웁주, 것고라 풍체엔 협주기.(비가림이라든지 바람막이로 해 가지고 걸 '무뚱'에 세우지, 것더러 차양이라고 하지요.) 35 [노형, 대림, 대평, 선흘, 성읍, 온평, 청수, 토평, 한동, 함덕]

무뜽: 처마 밑에 신발을 벗어 둘 수 있는 공간이다. // 이 놈의 새끼 어디 가시녠 허멍 똘 안티 헤영 들어오는 거를 나 뜨리카부덴 정제 안튀 무뜽디레 돌아낫어양.(이 놈의 새끼 어디 갔느냐고 하면서 딸한테 해서 들어오는 거를 나 때릴까봐 부엌 '안튀' '무뜽'으로 달아났어요.) 23 [온평]

무락이: 물건 따위가 한 곳에 많이 쌓여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겐 그디 간 보민 그 산 쪽이난이 테우리동산서 그걸 똥 무락이 싸 놓곡 허민.(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그 산 쪽이니까 '테우리동산'에서 그걸 똥 '무락이' 싸 놓고 하면.) 30 [노형]

무랑무랑: 날씨가 아주 더운 상태를 나타낸 말이다. // 그디 팡 잇엉 물 떠다 놩 막 빨래허주게. 그디 혼 바게쓰 물 떠다 놩 바락바락 지치고 영허난 잘도 시원허영 좋아게. 막 무랑무랑 덥당.(거기 '팡' 있어서 물 떠다 놔서 막 빨래하지. 거기 한 바케쓰 물 떠다 놓고 바락바락 끼얹고 이러니까 아주 시원해서 좋아. 아주 '무랑무랑' 덥다가.) 30 [노형]

무르데기다: 삶을 콩이나 팥 따위를 문질러 으깨는 것을 말한다. 달리 '무르줴다', '무르쥐다'라고 한다. // 녹디죽은 녹디 무르데경게 곤쏠 놔사 먹주.(녹두죽은 녹두 '무르데겨서' 흰쌀 넣어야 먹지.) 07 // 솖앙 그거 무르데겨근에, 영영 무르데경 그거 걸렁.(삶아서 그거 '무르데겨서', 이렇게 이렇게 주물러서 그거 걸러서.) 31 [보목, 토평]

무르줴다: 삶을 콩이나 팥 따위를 문질러 으깨는 것을 말한다. 달리 '무르데기다', '무르쥐다'라고도 한다. // 돌레떡 만들앙 처근에 경 헤근에 네중엔 끗어네여근에 막 무르줴여근에 경 헹 그 메주 메준가 춤 저 누룩.('돌레떡' 만들어서 쪄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끌어내서 마구 '무르줴여서' 그렇게 해서 그 메주 메주인가 참 저 누룩.) 16 // 메역귀 썰엉 건, 건만 무싱거옌 허느니? 다시 소금으로 시쳣더라,

다시 밀ᄀᆞ루 놩 시쳣더라. 얼마나 무르쥉영 시치는 거라. 그 베설을.(미역귀 썰어서 건, 건만 무엇이라고 하니? 다시 소금으로 씻었더라, 다시 밀가루 놔서 씻었더라. 얼마나 '무르쥉서' 씻는 거야. 그 창자를.) 19 // ᄀᆞ치 놩 막 무르쥉영이. 무르쥉영 고사리 썰어 놓, 고사리도 지니까 썰어야지. 경 허믄 막 무르쥉여근에 허영 그것에도 밀ᄀᆞ리나 쪼끔 집 쪼끔 허팅.(같이 놔서 막 '무르쥐어서'. '무르쥐어서' 고사리 썰어 놓, 고사리도 기니까 썰어야지. 그렇게 하면 막 '무르쥐어서' 해서 그것에도 밀가루나 쪼끔 깃 쪼끔 흩어서.) 29 // 그거 허여근에 저 무시거 막 무르쥉영 놔두민 거 순다리 뒈는 거 아니우꽈?(그거 해서 저 무엇 막 '무르쥉서' 놓아두면 거 '순다리' 되는 거 아닙니까?) 32 [덕수, 외도, 청수, 하원]

무리다: 생선 따위가 습기나 열로 인하여 떠서 상하다. // 자리는 막 팔러 다녓거든. 팔지 못하면 무리면 젓 담그는 거라.(자리돔은 막 팔러 다녔거든. 팔지 못하면 '무리면' 젓 담그는 거야.) 27 [옹포]

무삭허다: 잘 익어서 물컹한 상태이다. // 그놈이 무삭허게 익은디, 이루 말허민 짠 것을 말허민 말헐 수가 엇지. 장 ᄃᆞᆷ는 지시 얼마나 짤 거라.(그놈이 '무삭'하게 익었는데, 이루 말하면 짠 것을 말하면 말할 수가 없지. 장 담그는 장아찌 얼마나 짤 거야.) 06 [남원]

무석목: 돌하르방을 달리 일컫는 명칭이다. // 무석목은 말 못 ᄀᆞᆯ으니까 무석목이엔 헤실 테주.('무석목'은 말 못 말하니까 '무석목'이라고 했을 테지.) 14 [성읍]

무셍이: 뭇이나 단 따위를 묶는 데 쓰는 줄이며, '무세, 무생이'라고도 한다. // 촐 ᄆᆞᆯ리면은 그 무셍이로 무셍이영 허는 거는 촐 무끄는 거.(꼴 말리면 그 매끼로 매끼라고 하는 거는 꼴 묶는 거.) 09 [고산]

무수천: 애월읍 광령리의 천 이름이다. // 굴왓, 굴왓. 무수천 더 저레 강.('굴왓', '굴왓'. '무수천' 더 저리 가서.) 30 [노형]

무숫동: 무의 연한 장다리이다. // 무숫동도 헤영 허여. 무숫동[무수똥].('뭇동'도 해서 해. '뭇동'.) 14 [성읍]

무시리: 조의 한 종류이다. // 우이 ᄇᆞᆯ린 곶인 밧딘 무시리.(위에 밟은 곶은 밭엔 '무시리'.) 13 // 무시리 모읜조고 가름팟딘 강돌와리.('무시리' 메조고 '가름팟'엔 '강돌와리'.) 13 // 좁ᄊᆞᆯ 이름은 잇어, 이름은 잇어도 다 ᄀᆞ뜬 거 뭐 박애시리니 뭐 무시리니 또 저 개발시리.(좁쌀 이름은 있어, 이름은 있어도 다 같은 거 뭐 '박애시리'니 뭐 '무시리'니 또 저 '개발시리'.) 25 [삼달, 태흥]

무정허다: 병이나 별 탈 없이 잘 자라는 것을 말한다. // 질 처음에부터, 겉보리가 무정헤.(제일 처음에부터, 겉보리가 '무정해'.) 30 [노형]

무죽시: 서귀포시 정방동의 지경 이름이다. // 시집옴 전에는 감저 공장 말 들어보도 안허고. 경헌디 원, 이 무죽시, 제일 먼저 생긴 것이 이 서귀포 무죽시 생겨낫주.(시집오기 전에는 고구마 공장 말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데 원, 이 '무죽시', 제일 먼저 생긴 것이 이 서귀포 '무죽시' 생겨났지.) 31 [토평]

무지리다: 풀이나 나물 따위를 손으로 뒤틀어 뜯는다는 의미이다. // ᄒᆞᆯ 커 가민 또 크게 썰고 또 헤당 영 무지령도 놓곡.(조금 커 가면 또 크게 썰고 또 해다가 이렇게 '무지려서'도 넣고.) 31 // 물 놔근에 뒌장 풀어 놔근에 끓이당, 불 아궁이로 ᄉᆞᆷ다근에 궤민 그레 ᄂᆞ물 무지려, 손으로 복복 무지려 놔.(물 넣어서 된장 풀어 넣어서 끓이다가, 불 아궁이로 때다가 끓으면 그리 나물 '무지려', 손으로 박박 '무지려' 넣어.) 31 [토평]

무ᄌᆞ귀신: 무자귀신으로 자손을 두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된 귀신이라는 뜻이다. // 그 홀아방으로 죽으민 남저 겔혼 안 헹 죽으민 무ᄌᆞ귀신 뒐 거난.(그 홀아비로 죽으면 남자 결혼 안 해서 죽으민 '무ᄌᆞ귀신' 될 거니까.) 13 // 무ᄌᆞ귀신 헤 가난 그 식게멩질 허젠 허민게 그디 아덜이나 무시거헹 겔혼시켜 오민 거 줘살 거 아니냐?('무ᄌᆞ귀신' 해 가니까 그 제사명절 하려고 하면 거기 아들이나 무엇해서 결혼시켜 오면 그거 줘야할 거 아니냐?) 13 [삼달]

무클: 쟁깃술이다.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뻗어 나간 나무이다. 이는 '몽클', '묵흔', '뭉콜', '쟁깃몽클', '쟁깃무클'라고도 한다. // 쟁기 좀 일찍도 ᄀᆞᆯ앗주만은 쟁기가 무클, 성에.(쟁기 좀 일찍도 말했지만 쟁기가 쟁깃술, 성에.) 09 // 무클은 보섭하고 벳. 보섭은 이제 영 삽 모양으로 생긴.('무클'은 보습하고 볏. 보습은 이제 이렇게 삽 모양으로 생긴.) 18 // 요것도 잘 헤야지 무클이 너무 굳작 벋으민 흑에 잘 안 들어.(요것도 잘 해야지 쟁깃술이 너무 곧게 벋으면 흙에 잘 안 들어가.) 28 [고내, 고산, 구엄, 신도, 청수]

무클락허다: 손끝에 물건이 닿았을 때 조금 물렁한 느낌이 들면서도 듬직하다. // 돌팟긍이. 막 겁죽 두더와근에 무클락헌 거.('돌팟긍이'. 아주 껍질 두꺼워서 '무클락한' 거.) 26 [신창]

묵고왓: 제주시 도련동 지명의 하나이다. // 이제 그 불무 모든 그 병기를 만들고, 다시 그 옆 밧이 묵, 묵고왓[묵꼬왇]. 묵고왓은 무슨 밧인고 하면은 무기를 만들어서 이제 창고에 넣었든 그.(이제 그 풀무 모든 그 병기를 만들고, 다시 그 옆 밭이 묵, '묵고왓'. '묵고왓'은 무슨 밭인가 하면 무기를 만들어서 이제 창고에 넣었든 그.) 01 [도련]

묵메몰: 메밀묵을 가늘게 채 썰어서 나물처럼 제사상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 잡채도 ᄒᆞᆫ 그릇, 콩ᄂᆞ물 ᄒᆞᆫ디 서껑, 고사리. 묵메몰이엔 헹 채소가 세 접시만 만드는 거. ᄒᆞᆫ듸 서꺼도.(잡채도 한 그릇, 콩나물 함께 섞어서, 고사리. '묵메몰'이라고 해서 채소가 세 접시만 만드는 거. 같이 섞어도.) 15 [수망]

묵메물: 메밀묵을 가늘게 채 썰어서 나물처럼 제사상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 묵메물이라고 그거. 원 그추룩 그거 채소 그거여.('묵메물'이라고 그거. 원 그렇게 그거 채소 그거야.) 06 // 묵을 고지에 끼우는 거 말앙 요추룩 ᄀᆞᆯ게 썰엉 그릇 ᄒᆞ나에는 그 묵을 놩 묵메물.(묵을 꼬치에 끼우는 거 말고 요처럼 잘게 썰어서 그릇 하나에는 그 묵을 놓고 '묵메물'.) 06 [남원]

묵싹허다: 잘게 부서진 상태이다. // 클로 안 헤. 저 나룩은 클로 허여도. 대죽쏠은 클로 못 허여. 묵싹헤 부난.(틀로 안 해. 저 벼는 틀로 해도. 수수쌀은 틀로 못 해. '묵싹해' 버리니까.) 26 [신창]

묵은동광: 안덕면 동광리의 옛 지명이다. // 우린 묵은동광에서 태, 태어날 때부떠 우린 묵은동광에서 태어낫주게.(우린 '묵은동광'에서 태, 태어날 때부터 우린 '묵은동광'에서 태어났지.) 08 [동광]

묵은열운이: 성산읍 온평리의 옛 지명이다. // 제일 처음에 열운이라는 거는 저 어디 묵은열운이 거기가 처음 왓다는 거 같아 베여.(제일 처음에 '열운이'라는 거는 저 어디 '묵은열운이' 거기가 처음 왔다는 거 같아 보여.) 23 [온평]

묵은짓밧: 남원읍 수망리의 지명이다. // 엿날에, 엿날에 묵은짓밧이 최고난, 묵은짓밧이 어딘공 ᄒᆞ민 우리 친정 밧이라.(옛날에, 옛날에 '묵은짓밧'이 최고니깐, '묵은짓밧'이 어딘가 하면 우리 친정 밭이야.) 15 [수망]

묵적: 묵을 네모지게 토막토막 썰어서 꼬치에 꿰어 만든 적이다. // 묵적 그 영 지지는 지지미ᄀᆞ치 지지는 묵도 잇고 메밀ᄀᆞ루로 쑤어근엥에 요만씩, 요만씩 끈엉 적꼬지에 꿰영 허는 것도 잇고 그것이 적이라.(묵, 묵적 그 이렇게 지지는 지짐같이 지지는 묵도 있고 메밀가루로 쑤어서 요만큼씩, 요만큼씩 잘라서 적꼬치에 꿰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이 적이야.) 11 // 집집마다 그거 구젱기나 오분제기는 못 허고 그 바다에 뎅기멍 허는 사름은 오분제기나 구젱기 적거치 헹 허고 경 안허민 보통 기자 뒈야지적허고 묵적허고.(집집마다 그거 소라나 오분자기는 못 하고 그 바다에 다니면서 하는 사람은 오분자기나 소라 적같이 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그저 돼지적하고 묵적하고.) 12 // 고기는 거 그거 한 종류로 적을 허고 묵적 그 묵적은 의무적으로 묵적은 메밀ᄀᆞ루로 쒕.(고기는 거 그거 한 종류로 적을 하고 묵적 그 묵적은 의무적으로 묵적은 메밀가루로 쒀서.) 12 [한동, 함덕]

묵점: 묵을 먹을 만하게 자른 하나하나의 점이다. // 그거를 옛날은 또 똑똑허게시리 그 묵점이라고. 요렇게 썰엉 니게반듯허게 썰어가지고 이젠 고지에 꿰여.(그거를 옛날은 또 똑똑하게끔 그 '묵점'이라고. 요렇게 썰어서 네모반듯하게 썰어가지고 이젠 꼬치에 꿰어.) 01 [도련]

문궤: 성산읍에 있는 굴의 이름이다. // 아무것도 아니. 그자 굴이라, 맨 굴. 저 문궤도 잇고.(아무것도 아니. 그저 굴이야, 맨 굴. 저 '문궤'도 있고.) 13 // 문궤엔 헌 굴도 막 안네 우리 그디 물 ᄀᆞᆯ르민 물 ᄀᆞ물 땐 물 질어당 먹곡 헤낫주게. ('문궤'라고 한 굴도 막 안에 우리 거기 물 고이면 물 가물땐 물 길어다가 먹고 했었지.) 13 [삼달]

문닥문닥허다: 반죽이나 떡 따위가 물렁물렁한 모양을 나타낸다. // 난 이거 요자기ᄁᆞ장 히린조 오메기 히린좁쏠 사당, 사다근에 클방에 강 물 컷당 ᄀᆞᆯ아당 오메기 헤근에 문닥문닥헤근에 오합주 헐 때.(난 이거 요사이까지 차조 '오메기' 차조 사다가, 사다가 정미소 가서 물 담갔다가 갈아다가 '오메기' 해서 '문닥문닥해서' '오합주'

할 때.) 31 [토평]

문닥허다: 가루 따위가 곱게 잘 갈아져서 보드랍다. // 것보리라도 헤여놓민 체가 잇어. 그거 쳐. ᄀᆞ를이 얼마 없어. 것보리. 것보리개역. 아이고, 입에 놓민 까락까락 까락까락. 이 중간에는 뭐 기곗방에도 강 뽓아오고 문닥헌 것덜.(겉보리라도 해놓으면 겨가 있어. 그거 쳐. 가루가 얼마 없어. 겉보리. 겉보리미숫가루. 아이고, 입에 놓으면 까끌까끌 까끌까끌. 이 중간에는 뭐 방앗간에도 가서 빻아오고 '문닥헌' 것들.) 01 [도련]

문달문달: 껍질을 깎은 쌀이 부드러운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푸는체로 퍼 놩 그 보리 나면은 이제 정ᄀᆞ레에서, ᄀᆞ레에서 거평 이제 밥을 헤 먹단 기계에, 가끄는 기계 나난에 하이고 간, 보리 간 장만헨 아졍 간 보리 가까단 밥허난이 문달문달 문달문달.(키로 까불러 놓고 그 보리 나면 이제 '정ᄀᆞ레'에서, 맷돌에서 거피해서 이제 밥을 해 먹다가 기계에, 깎는 기계 나오니까 하이고 가서, 보리 가서 장만해서 가지고 가서 보리 깎아다가 밥하니까 '문달문달', '문달문달'.) 31 [토평]

문덜문덜문덜: 쌀의 껍질이 잘 깎여 쌀이 부드러운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경헨 ᄆᆞᆯᄀᆞ레에서 빙빙빙 데우민 첨 보리썰이 문덜문덜문덜 허게 체 막 무시거 허주게.(그래서 연자매에 빙빙빙 틀면 참 보리쌀이 '문덜문덜문덜' 하게 체 마구 뭐 하지.) 31 [토평]

문도: 방으로 드나들게 된 곳이다. // 문도만 내 뒁, 다. 문도는 에, 이런 문이 아니고, 영 더껏다 열앗다 ᄒᆞ는 문도만 내 뒁.('문도'만 내 두고, 다. '문도'는 에, 이런 문이 아니고,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하는 '문도'만 내 두고.) 36 [봉성]

문두닥지: 고둥 종류의 하나로 눈알고둥을 이르는 말이다. // 그 수두리, 보말, 춤ᄀᆞ메기, 문두닥지.(그 팽이고둥, 고둥, '춤ᄀᆞ메기', '문두닥지'.) 31 [토평]

문둥구젱이: 껍질에 나 있던 돌기가 떨어져 매끈하게 된 소라를 말한다. 제보자는 달리 '문둥이'라고 하였다. // 거 뽈이 엇엉 막 영 뭉글락헌 것이 잇주게. 문둥구젱이, 문둥이.(거 뽈이 없어서 막 이렇게 뭉툭한 것이 있지. '문둥구젱이', '문둥이'.) 29 [외도]

문드룹다: 윤기가 나고 매끈하다는 뜻이다. // ᄉᆞᆯ오린 껍데기가 체가 없어. 체가 엇어. 경헤근에 ᄉᆞᆯ오리 밥이 더 문드로왕 맛도 좋고.(쌀보린 껍데기가 겨가 없어. 겨가 없어. 그래서 쌀보리 밥이 더 '문드로왕' 맛도 좋고.) 33 [인성]

문들락: 작은 물체가 틱지거나 울퉁불퉁한 데가 없이 매끈하다는 말이나, 여기서는 아기를 어려움 없이 낳았다는 표현으로 쓰였다. // 아기사 아기 베민 기냥 뎅기당 어느 때 날 지 몰랑 질레서라도 베 아팡 헤가민 문들락 낳는 사름도 싯곡, 집의 강 낳는 사름도 싯고.(아기야 아기 배면 그냥 다니다가 어느 때 낳을 지 몰라서 길에서라도 배 아파서 해가면 '문들락' 낳는 사람도 있고, 집에 가서 낳는 사람도 있고.) 17 [대평]

문들락문들락: 물건이 반드러워 거침없이 자꾸 빠져 나가는 모양을 말한다. // 저 어떠난

청묵은 문들락문들락 안 좋아 벱니다.(저 어때선지 '청묵'은 '문들락문들락' 안 좋아 보입니다.) 32 [덕수]

문들락ᄒᆞ다: 작은 물체가 틱지거나 울퉁불퉁한 데가 없고 아주 동글고 매끈하다는 말이다. '멘들락ᄒᆞ다', '민들락ᄒᆞ다', 'ᄆᆞ드글락ᄒᆞ다', 'ᄆᆞ들락ᄒᆞ다'라고도 한다. // 먹보말엔 헌 건 까망허곡 검어. 문들락허고. ᄋᆞ물도 큰 건 하.(밤고둥이라고 한 건 까맣고 검어. 매끈하고. 여물도 큰 것은 많아) 01 // 그걸로 이제 막 문들락허게 막 기계로 까깡 문들락헷어. 경 허민 고무줄 이만히 넓은 거 사당 이제 이디 딱 무꺼.(그걸로 이제 막 '문들락하게' 막 기계로 깎아서 '문들락'했어. 그렇게 하면 고무줄 이만큼 넓은 거 사다가 이제 여기 딱 묶어.) 18 // ᄒᆞ쏠 잘사는 집인 두불 ᄀᆞᆯ앙 문들락허게 밥을 헹 먹고, 못 사는 집인 초불만 헤당 ᄀᆞ레에 ᄀᆞᆯ앙 그거 헤 먹엇수다.(조금 잘사는 집엔 두벌 갈아서 '문들락허게' 밥을 해서 먹고, 못 사는 집은 초벌만 해다가 맷돌에 갈아서 그거 해먹었습니다.) 19 [도련, 신도, 청수]

문디리다: 가지고 있던 물건 따위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뜨리거나 잃어 버리다. // 감저 쳐근엥에 그것에 조쳥은에 톨, 톨 허영 널어난 디 문디리면은 비 자꾸 와나민 노랑케 발주, 톨이.(고구마 쪄서 그것에 찍어서 톳, 톳 해서 널었던 데 '문디리면' 비 자꾸 와나면 노랗게 발지, 톳이.) 23 [온평]

문딱: 모두, 전부, 잘이라는 뜻으로, 'ᄆᆞ딱'이라고도 한다. // ᄃᆞᆨ 삶아근에 허민 문딱 솖아지면 그 찢어 놔근에 다 식구가 나눠 먹엇주.(닭 삶아서 하면 '문딱' 삶아지면 그 찢어 넣어서 다 식구가 나눠 먹었지.) 01 // ᄃᆞᆨ 쏢앙 문딱 가시 테도근에게.(닭 삶아서 전부 가시 떼어두어서.) 16 [도련, 하원]

문우당: 표선면 성읍1리에 소재한 신당의 하나이다. 어린아이들 허물이나 종기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 문우당엔 헌 당은 이 얼아이덜 머리에 허멀나면은 메 헹 강 그디 강 ᄀᆞ시허믄 그 허물 좋아진덴 허영덜 허영 우리 어린 때도 그거 봐낫고.('문우당'이라고 한 당은 이 어린아이들 머리에 종기나면 메 해서 가서 거기 가서 고사하면 그 종기 좋아진다고 해서들 해서 우리 어릴 때도 그거 봤었고.) 14 [성읍]

문우장: 혼인할 때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보내는 편지로 혼서를 말한다. // 이 문우장에는 어멍 아방 다 놓고 다헤영 제라허게 써근엥에 박사신디 강 써당 새각시 집이 앗아와.(이 '문우장'에는 어머니 아버지 다 놓고 다해서 제대로 써서 박사에게 가서 써다가 새색시 집에 가져와.) 11 // 새시방이 저디 문우장 ᄀᆞ졍온 사름도 친촉이나 ᄉᆞ춘쯤은 뒐 거라이. 그걸 영 막 공순허게 ᄆᆞ상와.(새신랑이 저기 '문우장' 가져온 사람도 친척이나 사촌쯤은 될 거야. 그걸 이렇게 막 공손하게 모셔와.) 11 [함덕]

문은제: 제사 때 문전에서 지내는 제를 말하는데, '문전제', '문제'라고도 한다. // ᄋᆞ섯허고 문은제허민 일곱허고 경 헙니다.(여섯하고 '문은제'하면 일곱하고 그렇게 합니다.) 32 [덕수]

문입장: 문을 달기 위하여 세우는 세로 부재를 말한다. // 이건 문입장이라고 헤가지고. 그것이 방 들어가는 데마다 이것이 두 개씩 사게 뒌 거.(이건 '문입장'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방 들어가는 데마다 이것이 두 개씩 서게 된 거.) 01 [도련]

문작문작: 진흙이나 반죽 따위를 주무를 때 끈적끈적한 모양이다. // 새우리 뒌장에 놔근에게 뒌장 풀어 놔근에게 저 메역이라도 장에 헤영 문작문작 헤근에.(부추 된장에 넣어서 된장 풀어 넣어서 저 미역이라도 된장에 해서 '문작문작' 해서.) 06 // 하영 끌리는 건 손이로라도 문작문작 헤사 그디 콩이 문짝 뒈여지면은 콩가루가.(많이 끓이는 건 손으로라도 '문작문작'해야 거기 콩이 모두 되면 콩가루가.) 11 [남원, 함덕]

문작ᄒᆞ다: 촉감이 부드럽거나 음식이 잘 삶아져서 으깨어질 정도로 아주 부드럽고 연하다. 또는 반드럽다. // 솖앙 이 문작ᄒᆞ게시리 이제 솖으민 그 메주를 ᄒᆞ여근에 이제 그 찍 영 ᄒᆞ영 ᄆᆞᆫ 공쟁이마다 그거 ᄃᆞᆯ아매지 않습니까?(삶아서 이 '문작ᄒᆞ게끔' 이제 삶으면 그 메주를 해서 이제 그 짚 이렇게 해서 모두 걸이마다 그거 달아매지 않습니까?) 08 // 너패는 조그만이 놓고 물 조그만이 놩인에 오레 솖앙 문작허게 익어사 너팻국은.(넓패는 조금만 넣고 물 조금만 넣어서 오래 삶아서 반드럽게 익어야 '넓패국'은.) 16 // 메역도 그냥 솖지 아녕 ᄲᆞᆯ앙 문작하게 ᄲᆞᆯ앙 썰엉은에 메역에 장 ᄆᆞᆫ딱 간 맞추주게. 간 맞추민 그레 물 놩은에 싱거우냐, 짜냐 허민 것ᄀᆞ라 냉국.(미역도 그냥 삶지 않고 빨아서 '문작허게' 빨아서 썰어서 미역에 장 모두 간 맞추지. 간 맞추면 그리 물 넣어서 싱거우냐, 짜냐 하면 그것 보고 냉국.) 33 [동광, 인성, 하원]

문전: 마루방의 문(門)을 관장하는 신(神) 혹은 제사나 명절 때 본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문 앞에서 지내는 제를 말한다. '문전제'라고도 한다. // 경ᄒᆞ난 남선비는 문전에 문전이 뒈곡, 또 큰 어멍은.(그러니까 '남선비'는 문전에 '문전'이 되고, 또 큰 어머니는.) 18 // 조왕은 즉 말허면은 문전은 아방이고 조왕은 어멍이렌 허여.(조왕은 즉 말하면 '문전'은 아버지고 조왕은 어머니라고 해.) 20 // 문전 앞이게 이거, 이거 오널 제사 지냄구나 헹 경.('문전' 앞에 이거, 이거 오늘 제사 지내는구나 해서 그렇게.) 26 [고내, 신도, 신창]

문전상: '문전제'를 지내기 위해 차린 상이다. // 게난 문전이 먼저. 올릴 때도 문전상부터 올려뒁 제사상 올리주게.(그러니까 문전에 먼저. 올릴 때도 '문전상'부터 올려두고 제사상 올리지.) 26 // 저 기자 문전상 하나 놓주양, 거 일절 엇수다게.(저 그저 '문전상' 하나 놓지요, 거 일절 없습니다.) 34 [구억, 신창]

문전제: 제사 때 문 앞쪽에서 지내는 제이며, '문제', '문체'라고도 한다. 마루문 앞에서 문전신을 위해 지내는 제를 말한다. 주로 명절이나 제사 때 본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문 앞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 문전제사게, 문전에서 제허는 거난 문전제는 저 식게 때도 문전제허곡 멩질에도 문전제허는 거니까.('문전제'야, 문전에서 제하는 거니까 '문전제'는 저 제사 때도 '문전제'하고 명절에도 '문전제'하는 거니

까.) 19 // 문전제는이 들어가는 거 보고 문전이라고 허여. 건디 상을 체얌 ᄆᆞᆫ여 문전상부터 ᄆᆞᆫ저 ᄎᆞᆯ리는 거. 그다음은 초상.('문전제'는 들어가는 거 보고 '문전'이라고 해. 그런데 상을 처음 먼저 '문전상'부터 먼저 차리는 거. 그다음은 조상.) 21 // 그 마루에 놔 가지고 문 열어 가지고 허고. 제사도 제지내기 전에 문전제를 제일 먼저 문전제를 신에 모셔오겟습니다 허고 제를 지내는 거거든.(그 마루에 놔 가지고 문 열어 가지고 하고. 제사도 제지내기 전에 '문전제'를 제일 먼저 '문전제'를 신에 모셔오겠습니다 하고 제를 지내는 거거든.) 27 // 문전제를 지내는 거는 가신을 위한 것으로서 문전제를 지내고 다음은 ᄯᅳ로 그 저 다 지내놩 그때 ᄒᆞ끔썩 종지에 놔 가지고 ᄯᅳ로 저 부억신을 위헤 가지고 ᄯᅳ로 ᄒᆞ끔썩 ᄐᆞᆯ아 놓은[논] 걸 부억에 보내고.('문전제'를 지내는 거는 가신을 위한 것으로서 '문전제'를 지내고 다음은 또 그 저 다 지내놔서 그때 조금씩 종지에 놔 가지고 또 저 '조왕신'을 위해 가지고 또 조금씩 뜯어 놓은 걸 부엌에 보내고.) 35 [남원, 대림, 대평, 봉성, 세화, 신창, 신촌, 옹포, 월령, 청수, 토평, 하원, 한동, 함덕]

문전코시: 문전에서 지내는 의례이다. // 옛날은 문전코시엔 헹 문전에, 문전에 헤영 곡석이나 무시거 잘 뒈줍센 문전에 허주게.(옛날은 '문전코시'라고 해서 문전에, 문전에 해서 곡식이나 뭐 잘 돼 달라고 문전에 하지.) 13 [삼달]

문제: 주로 제사나 명절 때 본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문 앞에서 지내는 제를 말한다. 제보자는 이를 '문체'라고도 했다. 지역에 따라서 '문전제'라고도 한다. // 열ᄒᆞᆫ시 반만 뒈민 문제 지내근에 딱 열두시 뒈민 제지낸디 이젠 거 아니.(열한시 반만 되면 '문제' 지내서 딱 열두시 되면 제지냈는데 이젠 그거 아니.) 13 // 제사ᄒᆞᆯ 때에 문제는 무시거게 메 거려 놓곡, 무시거 영 ᄒᆞᆫ 거 ᄎᆞᆯ려놓곡 헹 문전에서 헤영 제사를 ᄒᆞ는 거.(제사할 때에 '문제'는 뭐야 메 떠 놓고, 뭐 이렇게 한 거 차려놓고 해서 문전에서 해서 제사를 하는 거.) 15 // 어멍이니까 문제헤 나면은 조왕에 가서 메라도 올려서 허다 못헹 센꼬라도 저 종이 ᄒᆞᆫ 장, 백지 ᄒᆞᆫ 권 사게 뒈믄 이제 헤근에 딴 건 못해도 소지 석 장은 ᄉᆞᆯ아 주는 것이 원칙.(어머니니까 '문제' 하고 나면 조왕에 가서 메라도 올려서 하다못해 향이라도 저 종이 한 장, 백지 한 권 사게 되면 이제 해서 딴 건 못해도 소지 석 장을 살라 주는 것이 원칙.) 20 // 허는 집 안 허는 집 헌다, 문제는. 문전 모른 공서가 어디 시리 헤도이.(하는 집 안 하는 집 한다, '문제'는. '문전' 모른 공서가 어디 있으리 해도.) 31 [고내, 삼달, 성읍, 수망, 온평, 토평]

문지데기다: '무르쥄다', '무르데기다'와 같은 의미로 보인다. 짓무르게 주무르는 동작을 표현한다. // 그레 저 이제 막 ᄭᅩᆫᄭᅩᆫ허게 막 문지데경 뒌장 만드는 거주.(거기에 저 이제 막 깐깐하게 마구 '문지데경' 된장 만드는 거지.) 24 [세화]

문지수: 남원읍에 수망리 냇가에 있는 용천수를 말한다. // 그때도 저희가 여기 살 때고, 그 물이 여기 바로 문지수라는 물이 잇는데, 물이 아주 컷어요.(그때도 저희가 여기 살 때고, 그 물이 여기 바로 '문지수'라는 물이 있는데, 물이 아주 컸어요.) 15 [수망]

문친떡: 시루떡의 한 종류이다. 쌀가루에 무나 고구마 따위를 넣고 팥고물을 묻혀서 시루에서 쪄낸 떡을 말한다. // 그 시루에서 문친떡도 치곡.(그 시루에서 '문친떡'도 찌고.) 06 // 쉬 논 건, 곤쏠에도 풋쉴 놓나 콩을 쉬 놓민 문친떡이고.(고물 놓은 건, 흰쌀에도 팥고물을 넣거나 콩을 고물 놓으면 '문친떡'이고.) 13 // 쏠만 허영 곤떡으로 문친떡으로도 칠 수 잇고. 제ᄉᆞ에는 풋떡 아니 올려.(쌀만 해서 흰떡으로 '문친떡'으로도 찔 수 있고. 제사에는 팥떡 아니 올려.) 14 // 엿날에, 이제는 그자 친떡 영 허주마는 엿날엔, 쉬 놩, 풋쉬 놔근에 친 건 문친떡.(옛날에, 이제는 그저 시루떡 이렇게 하지마는 옛날엔, 고물 놔서, 팥고물 놔서 찐 건 '문친떡'.) 25 [남원, 삼달, 성읍, 태흥]

문탁문탁: 야채 등을 큼직하고 가볍게 베거나 자르는 모양이다. // 놈삔 그자 놈삐 썰엉, 문탁문탁 썰엉 기자. 첨 쪽파나 ᄒᆞ꼼 놓고 기자 고칫ᄀᆞ루만 버물영 그자 혯주게.(무는 그저 무 썰어서, '문탁문탁' 썰어서 그저. 참 쪽파나 조금 넣고 그저 고춧가루만 버무려서 그저 했지.) 26 [신창]

물구덕: 물동이를 넣고 지어 다니게 된, 대로 만든 조금 큰 바구니이다. // 물구덕 대는 얄루니까 물 허민 썩어불민 빠져 불카부덴 이만씩 헌 대를 물구덕 창에 짱.('물구덕' 대는 얇으니까 물 하면 썩어버리면 빠져 버릴까봐 이만큼씩 한 대를 '물구덕' 바닥에 짜.) 11 // 일ᄒᆞ당 보민, 물 질엉 가당 물구덕 부려뒁 ᄒᆞ곡, 대배기 졍 가당 물구덕 질레에 부려뒁 내불어뒁 펭이치기 ᄒᆞ곡, 방칠락 ᄒᆞ곡 헤수게.(일하다가 보면, 물 길어서 가다가 '물구덕' 부려둬서 하고, '대배기' 져서 가다가 '물구덕' 길에 부려둬서 내버려둬서 팽이치기 하고, 사방치기 하고 했습니다.) 17 // 물허벅 질 때난 씨아바님이 물허벅도 고운 걸로 사ᄀᆞ렌 허멍 허연 씨아바님이 이제 허벅이영 물구덕이영 다 창영 ᄋᆞ깐이.(물동이 질 때니까 시아버님이 물동이도 고운 걸로 샀다고 하면서 해서 시아버님이 이제 물동이랑 '물구덕'이랑 다 바닥이랑 엮어서.) 29 // 물구덕은 대로 만드는데, 거 이젠 나이롱 ᄀᆞ뜬 거 하영 나오기도 허주만은 거의 다 대나무로 허는 광주리를 만들어십주기.('물구덕'은 대로 만드는데, 거 이젠 나일론 같은 거 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거의 다 대나무로 하는 광주리를 만들었습지요.) 35 [남원, 노형, 대림, 대평, 보목, 봉성, 삼달, 세화, 수망, 신창, 외도, 토평, 표선, 함덕]

물구릉: 물이 고여 있는 못을 말한다. // 지금 전부 춤. 물구릉이라고 그런 물을 질어다 먹은 거주.(지금 전부 '춤'. '물구릉'이라고 그런 물을 길어다 먹은 거지.) 01 [도련]

물꾼: 바다에 들어가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 메역허레 세계 바당에 강. 허경허민이 물꾼 허경허는 날이 이서.(미역하러 사계 바다에 가서. '허경'하면 '물꾼' '허경'하는 날이 있어.) 33 [인성]

물꾼: 집을 짓기 위해 흙질을 할 때 물을 길어다 주는 사람이다. // 마당에서 막 그거 불르멍 물꾼, 물꾼허멍 흑질 물 질어사.(마당에서 막 그거 밟으면서 '물꾼', '물꾼'하면서 흙질 물 길어야.) 25 [태흥]

물대바지: 물을 길을 때 사용하는 작은 물동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물)대배기'라고 한다. // 허벅으로 져. 물대바지 대바지엔 헌 것도 져나고, 허벅으로. 우리 외도 나 온 지 후제도 이디 고망물엔 헌 디 셔, 외도.(물동이로 길어. '물대바지' '대바지'라고 한 것도 길었었고, 물동이로. 우리 외도 나 온 후에도 여기 '고망물'이라고 한 데 있어, 외도.) 29 [외도]

물두꽝: 물독을 두는 집의 뒤편 장소이다. // 물두꽝에서 물황 물황엔도 ᄒᆞ고 물 통게.(물광에서 물독 물독이라고도 하고 물 독.) 16 [하원]

물떡: 메밀가루 등으로 반죽하여 반달 모양으로 빚어 그 안에 팥소나 무채를 넣어 삶아낸 떡이다. 일반적인 떡보다 크기가 크다. 부조를 위한 떡으로 사용된다. // 상웨떡이고 물떡이고 경 헹 두 가지 헹 그 집이서 영장 난 때 친떡 쳥 가민 친떡 끈어 놓고.(상화떡이고 '물떡'이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해서 그 집에서 상 났을 때 시루떡 쩌서 가면 시루떡 잘라 놓고.) 11 // 물떡이엔 헌 건이 ᄆᆞ물ᄊᆞᆯ로 헤 가지고서 아까 그 뭐인가 그 만뒤떡 모양으로 막 두껍게 막 두껍나.('물떡'이라고 한 건 메밀쌀로 해 가지고서 아까 그 뭐인가 그 '만뒤떡' 모양으로 아주 두껍게 아주 두꺼워.) 12 // 크게 ᄉᆞ뭇 크게 만든 건 물떡, 족게 멘든 건 세미, ᄒᆞᆯ 크게 멘든 건 물떡 우리 옛날 떡만 이제 안 말.(크게 사뭇 크게 만든 건 '물떡', 작게 만든 건 '세미', 조금 크게 만든 건 '물떡' 우리 옛날 떡만 이제 안 말.) 19 // 팔촌꺼지 물떡을 ᄒᆞ꼼 크게 헤. 저 ᄆᆞ물ᄊᆞᆯ ᄀᆞᆯ아당 ᄆᆞ물ᄀᆞ를로. 크게 허난 물떡 니 개가 ᄒᆞᆫ 뒈 치야.(팔촌까지 '물떡'을 조금 크게 해. 저 메밀쌀 갈아다가 메밀가루로. 크게 하니까 '물떡' 네 개가 한 되 치야.) 30 [고내, 노형, 도련, 송당, 외도, 청수, 한동, 함덕]

물랑겡이: 게의 한 종류이다. // 그거 세 가지주. 거 경 헤도 물랑겡인 영 심으민 물랑물랑헤여.(그거 세 가지. 거 그렇게 해도 물렁게는 이렇게 잡으면 말랑말랑해.) 04 [고성]

물레: 물감이다. '물ᄀᆞ음', '물헤', '물ᄀᆞᆷ', '물뤠'라고도 한다. // 물감은 물레 나오난에. 마 우린 사단 들이난에 뭐.(물감은 '물레' 나오니까. 마 우린 사다가 들이니까 뭐.) 07 [보목]

물레살: 씨아손에 꿰어져 돌며 목화씨가 따지게 하는 두 개의 나무이다. // 물레 멩그는 거는 이렇게 마주 이제 아주 저 그냥 소낭 것은 안 뒈고 구짝헌, 좀 저 물레살이엔 허믄, 거 ᄃᆞᆫᄃᆞᆫ헌 물레살 멩글 거여 허믄 저 고지나 강 아주 질긴 낭으로.(물레 만드는 거는 이렇게 마주 이제 아주 저 그냥 소나무 것은 안 되고 똑바른, 좀 저 '물레살'이라고 하면, 그거 단단한 '물레살' 만들 거야 하면 저 숲에나 가서 아주 질긴 나무로.) 28 [구엄]

물룻팝: 무릇을 넣고 지은 밥이다. // 경헨 다섯 수정이 살멍 이젠 우리 할마니가 뭇 헤영 구민 ᄂᆞᆷ덜은 뭇 구엉 먹엄젠 무신거엔 허민, 나 ᄯᅳᆯ 이제 늘랑 물룻팝 헹 먹지 말아근에 밥 ᄒᆞᆯ만 먹어근에 뭇 구엉 먹지 말렌.(그래서 다섯 명이 살면서 이젠

우리 할머니가 무릇 해서 구우면 남들은 무릇 구워 먹는다고 뭐라고 하면, 내 딸 이제 너는 무릇밥 해서 먹지 말고 밥 조금만 먹어서 무릇 구워서 먹지 말라고.) 13 [삼달]

물르레: 목화의 씨를 빼는 도구이다. // 저 소게 빠는 건 물르레고 실 영 허는 건 물레.(저 솜 빼는 건 '물르레'고 실 이렇게 하는 건 물레.) 13 [삼달]

물릇: 무릇.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 달리 '뭇', '물롯'이라고도 불린다. // ᄎᆞ츰ᄎᆞ츰 헤사 딸려져 경 허민이 물릇 ᄒᆞᆫ 사발 아졍 왕 보리쏠 ᄒᆞᆫ 사발 바꽝 와. 뭐 오죽 먹고 정 헤사. 그, 그 물릇 장시가 잇어.(차츰차츰 해야 달여져 그렇게 하면 무릇 한 사발 가져 와서 보리쌀 한 사발 바꿔서 와. 뭐 오죽 먹고 싶어 해야. 그, 그 무릇 장수가 있어.) 21 [신촌]

물마리: 팥이나 녹두 등을 삶았을 때 삶아지지 않고 딱딱한 알갱이를 가리킨다. // 이렇게 허면 물마리가 하나토 없어. 그 덜 안 익는 풋이 ᄒᆞ나썩 잇어. 허당 보민 잇어.(이렇게 하면 '물마리'가 하나도 없어. 그 덜 안 익는 팥이 하나씩 있어. 하다가 보면 있어.) 30 [노형]

물매: 지붕에서 비가 쉬 흘러내리게 하기 위한 경사각이다. // 집이서 왕 어디 장소에 그냥 눌어 가지고 거 다 시꺼 와지민 눌어 가지고 것에 그 새나 뭐인가 어웍 비여다 가이 물매, 물 들어가지 못허게 헤영.(집에서 와서 어디 장소에 그냥 가려 가지고 거 다 신고 오면 가려 가지고 것에 그 띠나 뭐인가 억새 베다가 '물매', 물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12 [한동]

물메: 돌 따위를 두들겨 쪼개는 데 쓰는 쇠로 된 큰 방망이로, 물몽둥이다. // 물메란 건 뭐냐 허면 그 돌로 때리는 큰 것이 물메주게. 돌 벌르는 거.(물몽둥이란 건 뭐냐 하면 그 돌로 때리는 큰 것이 물몽둥이지. 돌 쪼개는 거.) 12 [한동]

물메: 애월읍 수산리의 옛 이름이다. '물미'라고도 한다. // 물메 훈장. 거루 훈장은 누게라?('물메' 훈장. '거루' 훈장은 누구야?) 30 [노형]

물메기: 작은 전복이다. // 족은 건 물메기. 큰 건 생복.(작은 건 '물메기'. 큰 건 생복.) 13 [삼달]

물메제: 돌을 깨는 일 등을 서로 돕기 위한 계이다. '물멧접', '물메접'이라고도 한다. // 산담 거튼 거, 이런 질 거튼 거 담 보수허는 그런, 그런 걸 물메제 뭐 이렇게, 이렇게 헤 가지고서.('산담' 같은 거, 이런 길 같은 거 담 보수하는 그런, 그런 걸 '물메제' 뭐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서.) 12 [한동]

물멧접: 돌을 깨는 일 등을 서로 돕기 위한 계이다. '물메접', '물메제'라고도 한다. // 물멧접이라고 헤서 그 뭐인가 그 밧데 가서 막 돌도 일르고 또 이제 산담 거튼 것도 옛, 그 옛날은 손수, 요샌 기술자덜이 허주만은 옛날은 다 이렇게, 이렇게. 그런 물멧접이 다 잇엇어.('물멧접'이라고 해서 그 뭐인가 그 밭에 가서 마구 돌도 뜨고 또 이제 '산담' 같은 것도 옛, 그 옛날은 손수, 요샌 기술자들이 하지만 옛날은 다 이렇게, 이렇게. 그런 '물멧접'이 다 있었어.) 12 [한동]

물미: 애월읍 수산리의 옛 이름이다. '물메'라고도 한다. // 수산. 옛날 이름이 물미. 우리 할무니가 물미 어른이주게.(수산. 옛날 이름이 '물미'. 우리 할머니가 '물미' 어른이지.) 30 // 저 부인이 거루민이 거루 거느리고. 또 부인이 물미민 물미 훈장.(저 부인이 거로민 거로 거느리고. 또 부인이 '물미'이면 '물미' 훈장.) 30 [노형]

물박퉤식: 제지내는 데 들어오지 못하는 종의 영혼의 몫으로 상에 올렸던 것을 조금씩 뜯어서 물바가지에 놔서 '올레'에 뿌리는 것이다. // 종이엔 헌 건 옛날에 부제칩이 장남 ᄃᆞᆯ안 살아나부난 장남 나시엔 헤영 올레레 케우려, 그거. 올레에 비와. 물박, 그 물박퉤식이라고.(종이라고 한 건 옛날에 부잣집에 하인 데리고 살아서 하인 깃이라고 해서 오래에 고수레해, 그거. 오래에 부어. 물바가지, 그 '물박퉤식'이라고.) 13 // 멩질헹 그 제지내나민 이 숭늉 지붕에 올려나민 그 조름에 어가라 허주게. 물박퉤식이라고.(명절해서 그 제지내고 나면 이 숭늉 지붕에 올리고 나면 그 뒤에 바로 하지. '물박퉤식'이라고.) 13 [삼달]

물밥: 물을 길어다 주는 사람들이 먹을 밥으로 '물꾼밥'이라고도 한다. // 난 저 친정에서도 물밥은, 물꾼밥이엔 허는 건 여청 물 지는 사람.(난 저 친정에서도 '물밥'은, '물꾼밥'이라고 하는 건 여편네 물 지는 사람.) 13 [삼달]

물배: 물을 허벅에 길어, 지고 나를 때 사용하는 바를 말한다. // 마께 헹 던드렁마께. 두드령 걸로 물배 꼬앙 물도 지고. 검질도 지젠 허민 걸게시리 ᄒᆞᆫ 대섯 발 헹 검질도 지고, 물 질레도 그런 걸로 졍 뎅기고.(방망이 해서 '던드런마께'. 두드려서 그 걸로 '물배' 꼬아서 물도 지고. 검불도 지려고 하면 크게끔 한 대여섯 발 해서 검불도 지고, 물 길러도 그런 걸로 져서 다니고.) 13 // 기자 허벅에, 물허벅에 기자 끼왕 내불민 물배.(그저 '허벅'에, '물허벅'에 그저 끼워서 내버리면 '물배'.) 31 [삼달, 토평]

물버짐: 물을 많이 만져서 손이 부르튼 것이다. // 팔월 나믄 막 손이 ᄆᆞᆫ 물버짐 들엉 이거 ᄆᆞᆫ 튿어먹어 불어.(팔월 되면 막 손이 모두 '물버짐' 들어서 이거 모두 뜯어먹어 버려.) 11 // 요걸로 영영 허고 요거ᄁᆞ지 물버짐 들엉 막 먹어불어.(요걸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요것까지 '물버짐' 들어서 막 먹어버려.) 11 [함덕]

물색: 여러 가지 색깔을 물들인 천 따위를 말한다. // 우린이 본대 그 물색을 허영이 저 육지섬에도 살 때 저 요왕기도 가믄 물색 헤영 올려, 불쏘시로 올려.(우린 본래 그 물색을 해서 저 육지섬에도 살 때 저 용왕기도 가면 '물색' 해서 올려. 불쏘시개로 올려.) 10 [월령]

물세기: 논에 나는 김의 종류이다. // 나룩밧딘 저 물, 물세기옌 허영. 물세기 좀 넙작넙작 허멍.(벼밭에는 저 물, '물세기'라고 해서. '물세기' 좀 넓적넓적하면서.) 28 [구엄]

물소중이: 잠녀들이 물질 할 때 입는 무명천 따위로 만든 속곳이다. '소중기', '소중의'라고도 한다. // 물소중이가 잇어. 영 허영 이ᄁᆞ지 이만이 오는 거. 헤양케 헤영.('물소중이'가 있어. 이렇게 해서 이까지 이만큼 오는 거. 하얗게 해서.) 01 // 속옷

ᄀᆞ라 물소중이옌도.(속옷보고 '물소중이'라고도.) 10 [도련, 월령]

물수건: 해녀들이 물질할 때 머리에 쓰는 무명이나 광목으로 만든 하얀 수건이다. 집과 바닷가 사이를 드나들 때 햇볕을 가려주거나, 물속에서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머리를 동여매는 천으로 무명이나 광목으로 만들어진다. // 물수건 영 머리에 썽, 눈 이레 써사. 물에 들어가는 거.('물수건' 이렇게 머리에 써서, '눈' 여기 써야. 물에 들어가는 거.) 07 // 흰 물수건에 검은 속곳 입엉 요만이 오는 속곳 입엉.(흰 '물수건'에 검은 속곳 입고 요만큼 오는 속곳 입고.) 12 // 머리에 쓰는 건 물수건이라고 헤 가지고 하양헌 천으로 만든 수건 써낫저.(머리에 쓰는 건 '물수건'이라고 해 가지고 하얀 천으로 만든 수건 썼었어.) 12 // 옛날은 무신 그거주게. 속옷 입곡, 힌 적삼 입곡, 물수건 힌 수건 쓰곡, 눈은 요만인 ᄒᆞᆫ 거 썽 물에 들엇주게.(옛날은 무슨 그거지. 속옷 입고, 흰 적삼 입고, '물수건' 흰 수건 쓰고, 물안경은 요만큼 한 거 써서 물에 들었지.) 17 [고내, 대평, 보목, 한동]

물숨: 밭 따위에 물이 잘 드는 것을 가리킨다. // 쉐터럭은 인칙에 생각을 못 헤라이. 쉐터럭이 많이 나는디. 물숨 허는 딘.(김의털은 일찍이 생각을 못 하더라. 김의풀이 많이 나는데. '물숨' 하는 데는.) 30 [노형]

물숨: 잠녀들이 물에 들어 해산물을 캐는 동안에 참는 숨이다. // 그 물숨도 무신것고 겨울쯤은 얼면은 물숨도 ᄌᆞᆯ라근에 깊은 디도 못 가.(그 '물숨'도 무엇이니 겨울쯤은 추우면 '물숨'도 짧아서 깊은 데도 못 가.) 05 // 물숨 먹으민 왜냐면은 그 좀 한걸이 노릇허민 물이 바당에 가도 숨이 질곡, 그냥 할딱 할딱 허믄 숨 ᄌᆞᆯ랑 허도 못헌다.('물숨' 먹으면 왜냐면 그 좀 한가하게 '노릇'하면 물이 바다에 가도 숨이 길고, 그냥 할딱 할딱 하면 숨 짧아서 하지도 못한다.) 21 [신촌, 표선]

물아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말한다. // 난 때, 물아기 땐 모르고, 초등학교 들어가야 아는 거주게, 나가 아는 디는.(난 때, '물아기' 땐 모르고, 초등학교 들어가야 아는 거지, 내가 아는 데는.) 17 // 난 아기덜 물아기 ᄃᆞᆯ곡 ᄒᆞ영 눠시민, 하이고 밤중 들민 씨아방이영 씨어멍이영, 앞뒬로, 가로세로로 갈중의 씨우멍 곤밥 얻어멕이레 업엉 ᄃᆞᆯ앗수다.(난 아기들 '물아기' 데리고 해서 누워 있으면, 아이고 밤중 들면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앞뒤로, 가로세로로 '갈중의' 씌우면서 흰밥 얻어먹으러 업어서 달렸습니다.) 17 // 낭 가튼 것도 나 물아기 땐 우리 어머니 공출허구렌 헙디다마는, 나 큰 후젠 낭허여당 ᄑᆞᆯ레 우리 어머니 모슬포 자꾸 젼 갑디다게.(나무 같은 것도 나 '물아기' 땐 우리 어머니 공출하였다고 합디다만 나 큰 후에는 나무해다가 팔러 우리 어머니 모슬포 자꾸 져서 갑디다.) 34 // 나라에서 사사신디 어떵사 헤신디 난 물아기 ᄃᆞᆯ아부난, 그거 여꺼가 가민 그거 여끄곡, 공판은 헷어마씨.(나라에서 샀었는지 어떻게야 했는지 난 '물아기' 데려버리니까, 그거 엮어가 가면 그거 엮고, 공판은 했어요.) 34 [구억, 대평]

물영아리: 남원읍 수망리 북서쪽 남조로 변에 있는 오름이다. // 저 성판악 밑에 잇다가요, 물영아리 앞이에 보니까 그 굴이 하나 이수다. 그 굴에 간 여기서 살게.(저

성판악 밑에 있다가 요, '물영아리' 앞에 보니까 그 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굴에 가서 여기서 살자.) 15 // 그 물영아리 앞더레 그디 가민 ᄎᆞ남이 잇어이.(그 물영아리 앞으로 거기 가면 참나무가 있어.) 25 // 물영아리ᄁᆞ장은 안 간다. 농서 짓는 건 요 저 의귀리로 이 알르게 이 해벤 사름은 의귀리로 알르레.('물영아리'까지는 안 간다. 농사짓는 건 요 저 의귀리로 이 아래 이 해변 사람은 의귀리로 아래.) 25 [수망, 태흥]

물오름: 서귀포시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 물오름, 저 끌오름, 토평으로, 그 이 사막모루엔 헌 이 인정오름.('물오름', 저 '끌오름', 토평으로, 그 이 '사막모루'라고 하는 이 '인정오름'.) 31 [토평]

물왓: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잘 괴는 밭이다. // 조 농사허믄 상당히 힘들어. 저거 물 비집헌 밧도 잘 안 되고 물왓디도 안 뒈고 물 비집헌 디도 잘 안 되는 거여.(조 농사하면 상당히 힘들어. 저거 물 '비집헌' 밭도 잘 안 되고 '물왓'에도 안 되고 물 '비집헌' 데도 잘 안 되는 거야.) 10 // 물왓은 그 유월절을 넘엉 헷주.('물왓'은 그 '유월절'을 넘어서 했지.) 12 // 처음 사름 살던 앞에 이 물왓이 넓어서 물이 많이 이제 앚입주.(처음 사람 살던 앞에 이 '물왓'이 넓어서 물이 많이 이제 앉죠.) 19 // 그 물통밧더레에 흘러나간 그것이 이제 땅이름이 뒈가지고 방에가 그 물왓디 터갓다 헤서 방에왓이라고 이제 지엉 이름이 뒈엇엇수다.(그 '물통밧'에 흘러나간 그것이 이제 땅이름이 돼가지고 방아가 그 '물왓'에 떠갔다 해서 '방에왓'이라고 이제 지어서 이름이 되었었습니다.) 19 [월령, 청수, 한동]

물왓: 여기서는 '수망리'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다.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잘 괴는 밭을 말한다. // 옛날은 그 땅바닥이 흑바닥이난, ᄆᆞᆯ이 고삐를 끊으믄 그 잘 보면은 그걸 보니까 틀림없이 우트레 올라완 어디 수망리, 그때, 그때도 수망리엔 안 ᄀᆞᆯ안, 물왓트레 올라온 거 닮수다 헤영.(옛날은 그 땅바닥이 흙바닥이니까, 말이 고삐를 끊으면 그 잘 보면 그걸 보니까 틀림없이 위쪽으로 올라와서 어디 수망리, 그때, 그때도 수망리라고 안 말해, '물왓'으로 올라온 거 닮습니다, 해서.) 15 [수망]

물우찌다: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는 상태가 되게 한다는 뜻이다. // 방엣귀 ᄲᆞᆺ아. ᄲᆞᆺ음도 허고 원체 한 거는 또 그것도 ᄆᆞᆯ방에 강 ᄲᆞᆺ아. 물우쪗당, 물 우쪙.(절굿공이 빻아. 빻기도 하고 원체 많은 거는 또 그것도 연자매 가서 빻아. '물우쪗당'. '물우쪙'.) 20 // ᄆᆞ레에 ᄀᆞᆯ앙은에 물 우쪗당은에, 물 우찜도 허고 ᄌᆞ를지믄, ᄌᆞ를지믄 그냥 놔근에 솟디 솔입에 살뢍은에 밥허믄 밥이 가실가실허여.(맷돌에 갈아서 '물우쪗당은에', '물우찜'도 하고 바쁘면, 바쁘면 그냥 넣어서 솥에 솔잎에 불을 피워서 밥하면 밥이 진기가 없어.) 28 // 두분 또시 콩 ᄀᆞᆯ앙게. 콩 ᄀᆞᆯ앙인에 짱. 콩 물우쪗당 콩 ᄆᆞ는 물ᄆᆞ레 잇주게. 그것에 이젠 ᄆᆞ루가 이젠 ᄀᆞᆯ앙인에 찰리가 이서. 그것에 짱인에 이제 그 물을 솟듸서 막 ᄉᆞᆲ아.(두분 또 콩 갈아서. 콩 갈아서 짜서. 콩 '물우쪗당' 콩 가는 '물ᄆᆞ레' 있지. 그것에 이젠 가루가 이젠 갈아서 자루가 있어. 그것에 짜서 이제 그 물을 솥에서 막 삶아.) 33 // 조칵메기 그거

허믄 쉐 막, 물우쪗당 쉐도 멕이곡, 어떤 집인 둥글이지 아니허영 좁쏠 신 양도 멕여. 경 헤나서. 부제칩덜은 그추룩덜 허고.('조칵메기' 그거 하면 소 마구, '물우쪗당' 소도 먹이고. 어떤 집에는 굴리지 아니해서 좁쌀 있는 상태로도 먹여. 그렇게 했었어. 부잣집들은 그와 같이 하고.) 34 [고내, 구억, 구엄, 신창, 인성]

물웨국: 물외를 찬물에 간장과 초를 쳐서 만든 국을 말한다. // 냉국에 우믜 놩도 허곡. 물웨, 물웨국 ᄒᆞ고.(냉국에 우무 넣어서도 하고. 물외, 물외국 하고.) 16 [하원]

물적삼: 해녀가 잠수할 때 속곳 위에 입는 적삼이다. 소매의 배래는 직선이며 소맷부리에 고무줄을 넣어서 잠수하기에 간편하도록 하고, 천은 무명이나 광목을 사용한다. 물소중이는 검정색 물을 들여 입어도 '물적삼'은 흰색으로 입었다. // 경하면은 그 속곳허곡 저 거세기 광목수건 써근에 눈 영 헤근에 그것만게 물적삼이엔 헤근에.(그렇게 하면 그 '속곳'하고 저 거시기 광목수건 써서 물안경 이렇게 해서 그것만 '물적삼'이라고 해서.) 05 // 엿날엔 물점삼을 입으카. 물적삼이 무시거라, 구경도 못허곡 그자 물옷 ᄒᆞ나 요거 속곳이엔 헹 욜로 요레 헌 거 메친 멘 거 ᄒᆞ나만 입엉 눈 팡팡 와도 해ᄉᆞᆷ 난덴 눈 잘 온 땐 해ᄉᆞᆷ이 나이.(옛날엔 '물적삼'을 입을까. '물적삼'이 뭐야, 구경도 못하고 그저 물옷 하나 요거 속곳이라고 해서 요리로 요리 한 거 멜빵 맨 거 하나만 입어서 눈 팡팡 와도 해삼 난다고 눈 잘 온 때는 해삼이 나.) 25 // 속곳 그냥 허고 허민 얼엇주게. 물적삼 입곡게. 광목 수건 쓰곡게.('속곳' 그냥 하고 하면 추웠지. '물적삼' 입고. 광목 수건 쓰고.) 26 // 속곳이엔 헤. 속곳 요추룩 만들엉 그거 입곡. 물적삼 입곡. 수건 쓰고 쪽쉐눈.('속곳'이라고 해. '속곳' 이처럼 만들어서 그거 입고. '물적삼' 입고. 수건 씌고 '쪽쉐눈'.) 27 [고내, 고산, 보목, 삼달, 세화, 신도, 신창, 온평, 옹포, 태흥, 표선]

물찌뎅이: 바닷물 속에서 큰 돌 아래에 있는 붉은색 지렁이로, '물지렁이', '물주넹이'라고도 한다. // 족은 것들은 소위 말허면은 물찌뎅이 ᄀᆞ뜬 거.(작은 것들은 소위 말하면 '물찌뎅이' 같은 거.) 04 [고성]

물찻: 구좌읍 송당리의 물찻오름을 말한다. // 송당이렌 헹은에 무신 형국이나 모양으로 봉은에 물찻이네, 말찻이네 그런 식으로 허는 게 아니고.(송당이라고 해서 무슨 형국이나 모양으로 보고 물찻이다, 말찻이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03 [송당]

물천: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말한다. // 몰르게 허영 졍 ᄒᆞᆫ저 올라가렌 헤둰 말젠 물천 잡으민 낭푼이로 하나 바르 테고 구살도 테곡 헹 올라오곡.(모르게 해서 져서 빨리 올라가라고 해두고 말째는 '물천' 잡으면 양푼을 하나 '바르' 떼고 소라도 떼고 해서 올라오고.) 33 // 경헌디 이서난디 그 숨비기가 그땐 우리 헐 때 시민 우리 씨누이, 막둥이 씨누이 오랑은에 ᄀᆞᆺ디 시렌 헤영, 바구리영 ᄋᆞ경오랑 시렌 허영 ᄒᆞᆫ숨 들엉은에 ᄒᆞᆫ 바구리 헤지민 졍인에 ᄒᆞᆫ저 가렌 헤동 난 또시 물천 잡아왕.(그런데 있었었는데 그 숨비기나무가 그땐 우리 할 때 있으면 우리 시누이,

막둥이 시누이 와서 가에 있으라고 해서, 바구니랑 가져와서 있으라고 해서 한숨 들어서 한 바구니 하면 져서 어서 가라고 해두고 난 또 '물천' 잡아와서.) 33 // 쌀 때는 그 ᄀᆞ리는 그자 그믐날 경계라든지 보름날 경계 경에는 일반 서민덜 놀아지믄 그 저 물천 잡아당 그 보멀이라든지 소라 ᄀᆞ튼 것ᄀᆞ라 그냥 잡아 오는 것을 물천이엔 헙니다, 물천.(썰 때는 그 고비는 그저 그믐날 경계라든지 보름날 경계 경에는 일반 서민들 놀아지면 그 저 '물천' 잡아다가 그 고둥이라든지 소라 같은 것더러 그냥 잡아 오는 것을 '물천'이라고 합니다, '물천'.) 35 // 이디 쪽이 가깝고, 또 물천 잡기가 더 쉬와마씨.(여기 쪽이 가깝고, 또 '물천' 잡기가 더 쉬워요.) 35 [대림, 인성]

물컴질: 조그마한 비에도 잘 자라고, 매기 쉬운 김이다. // 물컴질은 절란지 닮은 거양, 영 나는 거 잇수다.('물컴질'은 바랭이 같은 거요, 이렇게 나는 거 있습니다.) 34 [구억]

물탁물탁ᄒᆞ다: 식물이나 동물이 살이 찐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ᄂᆞ물 종류가 ᄀᆞ새ᄂᆞ물 ᄯᅳ로 물탁물탁ᄒᆞ게, 넙죽넙죽 배추 닮은 것도 싯곡, ᄯᅳ로 저 ᄒᆞ쏠 ᄀᆞ노롱ᄒᆞ여근에 막 우터레 올라가는 것도 싯곡, 경 ᄒᆞ연 세 가지우다게.(나물 종류가 씀바귀 또 '물탁물탁하게', 넙죽넙죽 배추 같은 것도 있고, 또 저 조금 가느다래서 마구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세 가지입니다.) 08 // 감저줄은양, 감저메 논 뒨 물탁물탁ᄒᆞᆫ 거난 비여.(고구마기는줄기는요, 고구마 모종 놓은 데는 '물탁물탁한' 거니까 베어.) 17 [대평, 동광]

물톳: 감성돔의 제주어이다. // 나도 이만큼 헌 물톳, 멧 개 잡아다 먹어낫수다. 젊은 때, 이제도 잇어십디다마는양 무서와서 저 작살질 못헙니께.(나도 이만큼 한 감성돔, 몇 개 잡아다 먹었습니다. 젊은 때, 이제도 있습니다마는 무서워서 저 작살질 못합니다.) 08 // 물톳도 잇고, 웽이도 잇고 머 다금바리도 잇고.(감성돔도 있고, 흑돔도 있고 뭐 다금바리도 있고.) 22 // 이 제주서든 육지서든 경 허난 이디서도 가민 이만썩 헌 전복은 다 잡고 고기 물톳 ᄀᆞ튼 거.(이 제주서든 육지서든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도 가면 이만큼씩 한 전복은 다 잡고 고기 감성돔 같은 거.) 23 [동광, 온평, 우도]

물톳: 말리지 않은 톳을 말한다. // 톳 허여근에 전인 공동으로 허영 ᄆᆞᆯ령 창고에 데명 다 그걸 담으멍 ᄑᆞᆯ아주기게. 경헌디 이젠 우리 신창은 물톳으로.(톳 해서 전에는 공동으로 해서 말려서 창고에 쌓아서 다 그걸 담으면서 팔았지. 그런데 이젠 우리 신창은 '물톳'으로.) 26 [신창]

물통: 물이 고일 수 있게 파거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곳이다. // 그거 아졍가근에 물통에 거 막 영 다울리멍 거령 와낫주.(그거 가져가서 '물통'에 거 막 이렇게 쫓으면서 떠 왔었지.) 23 [온평]

물팡: 물을 길러 다니는 동이를 담은 '물구덕'을 올려놓는 대이다. 보통 돌로 만들고, 부엌 앞 한쪽 구석에 만들어 세운다. '물팡돌'이라고도 한다. // 그 물팡은 부억디레

가는 맞은편이 물팡이 그 만들어졌지. 돌로 헤근에 딱허게 우의도 돌 이만은 한 거 헨에 옛날 어른덜 어디 강 봉가당 다.(그 '물팡'은 부엌으로 가는 맞은편에 '물팡'이 그 만들어졌지. 돌로 해서 딱하게 위에도 돌 이만큼 한 거 해서 옛날 어른들 어디 가서 주워다가 다.) 05 // 물팡은 옛날엔 거 허벅 헤다근엥에 물 질어 오면은 그 부억 바깥에 부엌드레 출입허는 앞에 거 물 져당 영 허게 거기 놓는 거.('물팡'은 옛날엔 그거 허벅 해다가 물 길어 오면 그 부엌 바깥에 부엌으로 출입하는 앞에 그 물 져다가 이렇게 하게 거기 놓는 거.) 15 // 물팡이라는 건 이것추룩 영헌 돌 허여근에게 또 지동 세왕. 또 뒷벡은 정지 벡덜에 그냥 부쪄근에 허여이.('물팡'이라는 건 이것처럼 이러한 돌 해서 또 기둥 세워서. 또 뒷벽은 부엌 벽들에 그냥 붙여서 해.) 20 // 물허벅ᄒᆞ고 물팡 위에 물허벅 잇으면 이건 뭐 자기네 집안에서 뭐 물이 엇이민 아침 다음날 아침 누게가 가서 일찍 가서 물 질러 오고 주로 여자들이 가서 물 질러 왓지.('물허벅'하고 '물팡' 위에 '물허벅' 있으면 이건 뭐 자기네 집안에서 뭐 물이 없으면 아침 다음날 아침 누구가 가서 일찍 가서 물 길어 오고 주로 여자들이 가서 물 길어 왔지.) 27 [고내, 고산, 구억, 대림, 대평, 도련, 보목, 봉성, 성읍, 세화, 수망, 신도, 신창, 옹포, 월령, 청수, 토평, 표선, 한동, 함덕]

물페기: 독사를 가리키는 제주어이다. // 그 독사를 여기선 뭐엔 허느냐 허면 물페기렌 허주게.(그 독사를 여기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물페기'라고 하지.) 24 [세화]

물풀: 잡초의 한 종류이다. // 그 보리밧디는 물풀이엔 ᄒᆞᆫ 거 많이 나낫수다.(그 보리밭에는 '물풀이'라고 한 거 많이 났었습니다.) 22 [우도]

물풍: 배가 쓸리어 가지 않도록 바닷물 속에 치는 물건이다. // 물풍이엔 헌 것이 잇어. 물에 가믄 그 물에 끌어가지 말렌.('물풍'이라고 한 것이 있어. 물에 가면 그 물에 끌어가지 말라고.) 29 [외도]

물허벅: 모양이 둥글고 배가 불룩하고 아가리는 아주 좁으며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를 말한다. 물을 긷는 데 쓰는 '허벅'을 의미한다. '허배기', '허베기', '헙데기'라고도 한다. // 물허벅이 만약 두 사람이 질어올 수 잇는 거민 물팡을 조끔 크게 만들곡.('물허벅'이 만약 두 사람이 길어올 수 있는 거면 '물팡'을 조금 크게 만들고.) 14 // 추우면은 이제 그 모욕헤나민 그 불로 허여근엥 불 붙여근엥 이제 그 몸을 터는 거라. 그추룩 허영 불 허영 옷 입엉 또 올 때는 물허벅 지엉 왕 밥헹 먹고 헷주게.(추우면 이제 그 목욕하고 나면 그 불로 해서 불 붙여서 이제 그 몸을 떠는 거야. 그처럼 해서 불 해서 옷 입어서 또 올 때는 '물허벅' 지어서 와서 밥 해서 먹고 했지.) 18 // 게 아니믄 봄 나가가면은 이제 검질매레 갓당 물허벅 경 가근에 올 땐 뿌려동 오곡.(게 아니면 봄 되면 이제 김매러 갔다가 '물허벅' 져서 가서 올 땐 뿌려두고 오고.) 21 // 나도 물허벅 경 저 돈내코 물 질레이. 아이고, 나 아이덜 키와 올 때 그 물 질어다근에 조반헹 먹으민, 밥에 감저 놓민 아이덜 둥그리지 안허느냐?(나도 '물허벅' 져서 저 돈내코 물 길러. 아이고, 나 아이들 키워 올 때 그 물 길어다가 조반해서 먹으면, 밥에 고구마 넣으면 아이들

굴리지 않니?) 31 [고내, 남원, 봉성, 성읍, 수망, 신도, 신촌, 토평, 하원, 한동]

물황: 물독이다. // 물두꽝에서 물황, 물황엔도 ᄒᆞ고 물통게.('물두꽝'에서 물독, 물독이라고도 하고 물독.) 16 [하원]

뭇: 무릇이다. '물릇'이라고도 한다. // 밧 갈앙 비 와나민 강 보민 뭇이 헤뜩헤뜩허게 막 저 그 고랑에 막 잇는디 이젠 뭇 ᄒᆞ나도 안 보여.(밭 갈아서 비 오고나면 가서 보면 무릇이 희끗희끗하게 막 저 그 고랑에 막 있는데 이젠 무릇 하나도 안 보여.) 05 // 우리 보리 헤근에 보리밥 헹 먹어근에 우리 뭇 구엉 먹지 말게.(우리 보리 해서 보리밥 해서 먹어서 우리 무릇 구워 먹지 말자.) 13 [삼달, 표선]

뭇국물: 무릇을 푹 삶아서 얻은 국물이다. // 경 헹 그 뭇 솖아근에 뭇국물에 개역 ᄆᆞᆯ앙 먹곡.(그렇게 해서 그 무릇 삶아서 '뭇국물'에 미룻가루 말아서 먹고.) 23 // 아이고, 또 쌩보리쏠 ᄀᆞᆯ아 나민 그 ᄀᆞ르 뭇국물에 놔근엥에 비병 먹곡.(아이고, 또 '날보리쌀' 갈고 나면 그 가루 '뭇국물'에 놔서 비벼서 먹고.) 23 [온평]

뭉글뭉글ᄒᆞ다: 살쪄서 통통한 사물이 이리저리 움직이다. '뭉갈뭉갈ᄒᆞ다'라고도 한다. // 통보리밥을 허민 뭉글뭉글헤 가지고 팥 좀 놓고 허면은 결혼헐 때 주는 그 통보리밥이 어떻게 맛이 좋은지.(통보리밥을 하면 '뭉글뭉글헤' 가지고 팥 좀 넣고 하면 결혼할 때 주는 그 통보리밥이 어떻게 맛이 좋은지.) 19 [청수]

뭉울뭉울: 뭉키어 덩어리진 물건 따위가 매우 물렁하고 미끄러운 모양이다. // ᄑᆞᆺ 서껑게. ᄑᆞᆺ 놩 허민 뭉울뭉울 맛좋아라, 그땐. 쏠밥에도 다 ᄑᆞᆺ 놩 벌겅케 허고 잔치밥에. 흰밥은 안 헤봣저기게.(팥 섞어서. 팥 넣어서 하면 '뭉울뭉울' 맛좋더라, 그땐. 쌀밥에도 다 팥 넣어서 벌겋게 하고 잔칫밥에. 흰밥은 안 해봤어.) 26 [신창]

뭉칼뭉칼: 식물이나 콩나물 따위가 통통하고 힘 있게 잘 자라는 모양이다. // 경 ᄒᆞ여도 콩ᄂᆞᆯ이 뭉칼뭉칼 커.(그렇게 해도 콩나물이 '뭉칼뭉칼' 커.) 17 // 가늘어사, 너무 굵으믄예, 뭉칼뭉칼 굵엉, 열무씨는 막 바짝허게 헤사 좋읍니다.(가늘어야, 너무 굵으면요, '뭉칼뭉칼' 굵어서, 열무 씨앗은 아주 '바짝하게' 해야 좋습니다.) 34 [구억, 대평]

뭉클락허다: 길이가 짧게, 둥글고 통통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대 뭉클락허민 칼로 거 대 ᄒᆞ쏠 오려근에 소금 헷다근에 양념허민 그게 동김치주.(대 '뭉클락하면' 칼로 거 대 조금 오려서 소금 했다가 양념하면 그게 장다리김치지.) 06 // 콩은 부피가 많기 때문에 가져오기가 불편헷어. 그 무끄는 것도 막 불편허여. 뭉클락헤 부난.(콩은 부피가 많기 때문에 가져오기가 불편했어. 그 묶는 것도 아주 불편해. '뭉클락해' 버리니까.) 30 [남원, 노형]

뭣동산: 한경면 신창리 지명의 하나이다. // 경허멍 돌곡 허영 우리 메칠에 ᄒᆞᆫ 번썩 경 지켜낫저. 뭣동산.(그러면서 돌고 해서 우리 며칠에 한 번씩 그렇게 지켰었어. '뭣동산'.) 26 [신창]

미: 억새의 꽃을 싸고 있는 줄기를 말한다. 참억새의 꽃이 나오기 전에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이다. // 그거 만들앙, 그 다음엔 ᄂᆞᆯ은 뭘로 하느냐면은 미, 저 억새.(그거

만들어서, 그 다음엔 날은 뭐로 하냐면 '미', 저 억새.) 24 // 미 빠다근에 그거 막 고장 패기, 막 고장 패불민 너무 세어불곡 고장이 메쪽메쪽 나올 때 강 그거 막 빠다근에 집이서 막 ᄆᆞᆯ령 그거 부럭지 ᄆᆞᆫ 빠비뒁 그거 헹 놧당 이걸로 깍 내고, 신 삼곡, 망사리 노 헹 망사리로 허곡 경 허는 거.('미' 빼다가 그거 막 꽃 피기, 막 꽃 피어버리면 너무 쇠어버리고 꽃이 삐쭉삐쭉 나올 때 가서 그거 막 빼다가 집에서 막 말려서 그거 배동 모두 빼버려 두고 그거 해서 놨다가 이걸로 총 내고, 신 삼고, 망사리 노 해서 망사리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 25 // 경 허난 저 미뿌젱이 미로 거세기 헌디 그것이 막 올라왕 세민 그 꼿이 팍 피주기. 미뿌젱이엔 헌 거.(그렇게 하니까 저 새품 '미'로 거시기 하는데 그것이 막 올라와서 쇠면 그 꽃이 팍 피지. 새품이라고 한 거.) 29 // 그자 산에 가가지고 미 빠당 허고, 억새, 억새 소곱으로 난 줄기에는 그것을 요만이 진 건데 깨엉 노 꼬앙 걸 만들어십주.(그저 산에 가가지고 '미' 빼다가 하고, 억새, 억새 속으로 난 줄기에는 그것을 요만큼 긴 건데 깨어서 노 꼬아서 그것을 만들었습지요.) 35 [고내, 대림, 도련, 선흘, 세화, 신창, 신촌, 온평, 외도, 우도, 태흥, 한동]

미깡: 일본어 'みかん'으로 감귤이라는 의미이다. // 게민 강 저 미깡이라도 머 뭐.(그러면 가서 저 귤이라도 뭐 뭐.) 04 // 그 규슈 지방에 그 미깡이 잘 뒈는데 그걸 뭐인가 수입헤다가 농민에게 나눠 주라고 말야.(그 규슈 지방에 그 귤이 잘 되는데 그걸 뭐인가 수입해다가 농민에게 나눠 주라고 말야.) 12 // 우리 미깡 경 많이 싱그지는 안헷주게.(우리 귤 그렇게 많이 심지는 않았지.) 16 // 미깡 헨에 미깡 벳견에 알멩이만 까 놘에 솟디 하영 헤 놘 거 젯으멍 설탕 놔근에 젯으멍 기자 헤 가민 그거 ᄆᆞᆫ딱 녹앙 물 뒈여.(귤 해서 귤 벗겨서 알맹이만 까 넣어서 솥에 많이 해 넣어서 거 저으면서 설탕 넣어서 저으면서 그저 해 가면 그거 모두 녹아서 물 돼.) 31 [고성, 남원, 토평, 하원, 한동]

미나상: 일본어 'みなさん'로 '여러분'이라는 의미이다. // ᄒᆞᆫ 사름만 부뜨는 듸는 그렇게 단순허게 ᄒᆞᆫ번만 곤방와 곤이찌와 이렇게 허곡, 그 둘리 이신 듼 미나상을 똑 부찌주.(한 사람만 붙는 데는 그렇게 단순하게 한번만 '곤방와' '곤이찌와' 이렇게 하고, 그 둘이 있는 덴 '미나상'을 꼭 붙이지.) 24 [세화]

미나수루도꼬: 'みな(모두)'+'する(하다)'+'どこ(어느 곳)'의 합성어인 듯하며 이 마을의 이름을 일본어로 이렇게 말한 것 같다. // 우리가 왜정 때는 함덕이렌 허민 미나수루도꼬라고 헤서 일본말은 우리가 첨 알앗주만은.(우리가 왜정 때는 함덕이라고 하면 '미나수루도꼬'라고 해서 일본말은 우리가 참 알았지만.) 11 [함덕]

미두허다: 마음에 믿음성이 있어서 안심하다. // 영 허난 부젯집 사름은 암만 무시거 헤도 미두허는 거주.(이렇게 하니까 부잣집 사람은 암만 무엇 해도 '미두허는' 거지.) 23 [온평]

미럭당: 애월읍 고내리 지명의 하나이다. '미륵당'이라고도 한다. // 똥은 뭐 가까운 디서 줏고 나무 허레만 먼 데 가고 솔입 긁으레는 이디서민 저, 저 어디 소랑중 그런

디 어디 소랑중이엔 헌 디, 미럭당이엔 헌 디 그런 디 가낫주.(똥은 뭐 가까운 데서 줍고 나무 하러만 먼 데 가고 솔가리 그러모으러는 여기서면 저, 저 어디 '소랑중' 그런 데 어디 '소랑중'이라고 하는 데, '미럭당'이라고 하는 데 그런 데 갔었지.) 20 [고내]

미럽다: 물건 따위가 겉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미끈하다. // 피죽. 그게 상당히 진미가 있고 미러와.(피죽. 그게 상당히 진미가 있고 '미러워'.) 03 // 약허니까 미러운 낭은 도리깻장부로 많이 쓰거든. 게 가벼우니까 손이 안 아파. 여물질 못하니까.(약하니까 미려운 낭은 도리깻장부로 많이 쓰거든. 게 가벼우니까 손이 안 아파. 여물질 못하니까.) 19 [송당, 청수]

미렝이왓: 제주시 도련동 지명의 하나이다. // 저 우로 이제 남쪽으로 올라가면은 아까 그 차례로 넘어오지 못허고 넹겨 불엇는데 미렝이왓이라고 허는데, 미렝이왓을 우리가 사전으로 찾아보면은 그 난리나 어떠한 그 부락에 그 좀 좋지 아년 그런 일이 잇을 때 노인들을 이제 그쪽으로 전부 모여서 수용헤서 어르신덜랑 여기 가만이 시민 우리가 싸움을 허쿠다. 경 허던 곳.(저 위로 이제 남쪽으로 올라가면 아까 그 차례로 넘어오지 못하고 넘겨 버렸는데 '미렝이왓'이라고 하는데, '미렝이왓'을 우리가 사전으로 찾아보면 그 난리나 어떠한 그 부락에 그 좀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노인들을 이제 그쪽으로 전부 모여서 수용해서 어르신네들일랑 여기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싸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던 곳.) 01 [도련]

미망사리: 억새의 꽃을 싸고 있는 줄기를 꼬아서 만든 그물주머니이다. 해녀들이 물질할 때 들고 가는 '테왁'에 연결해 쓴다. // 어음 헤당 이젠 멘들앙 테왁 이제 돌아매영 망시린 이제 저 미망시리 아까 곧지 안헤냐?('어음' 해다가 이젠 만들어서 테왁 이제 달아매어서 망사리는 이제 저 '미망시리' 아까 말하지 않았니?) 10 // 망사리, 신사라망사리 미망사리 경 헷주게.(망사리, '신사라망사리', '미망사리' 그렇게 했지.) 23 [온평, 월령]

미배: 억새의 꽃이 채 나오기 전에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을 '미'라고 하는데 그 미로 만든 바를 말한다. // 고젱이로 헤영 꿰면은 쉐 코 꿰는 시방이면 나이롱배로 허는 마는 그때는 나이롱 배가 어디 셔나수과 이 미배로 꼬면은.(꼬챙이로 해서 꿰면 소 코 꿰는 시방이면 나이론 바로 하는 둥 마는 둥 그때는 나이론 바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 '미배'로 꼬면.) 03 // 멘들아서 여기에 미배로 헹 장착시키민 저착으로 오랑을 메나, 이착으로 오랑을 메게 뒈민 거 헹 봑 줍아뎅기민양.(만들어서 여기에 '미배'로 해서 장착시키면 저쪽으로 '오랑'을 매거나 이쪽으로 '오랑'을 매게 되면 그거로 해서 박 잡아당기면요.) 03 // 미배, 어욱 꼴렝이 빠당 짠 걸로 짠 거난 터진 것이 엇어, 아래 짬을 영 짱 이디 강 줴와젓주.('미배', 억새 꼬리 빼다가 짠 걸로 짠 거니까 터진 것이 없어. 아래 짜기를 이렇게 짜서 여기 가서 조여졌지.) 11 [송당, 함덕]

미비젱이: 억새꽃을 가리키는 말이다. // 놀을 뭘로 만드느냐 허민은 억새가 저게 에, 팔월

구물엉 구월 초승 나민은 저 그디 미비젱이렌 헌 게 나오주게.(날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하면 억새가 저게 에, 팔월 그물어서 구월 초승 되면 저 거기 '미비젱이'라고 한 게 나오지.) 14 [성읍]

미뿌젱이: 새품이다. 참억새의 줄기 끝에 이삭 모양으로 핀 기다란 꽃이다. '미삐쟁이, 미꾸셍이, 미우젱이'라고도 한다. // 미뿌젱이 그거 빠당은에 ᄆᆞᆯ리왕 그거 영 영 그 던드덩마께에서 막 두드령 북삭허게 헤영 다 깨여근에 그거 허영 ᄁᆞ는ᄁᆞ는하게 노 꼬아근에 거 가져근에 망사리.(새품 그거 뽑아다가 말려서 그거 이렇게 이렇게 그 '던드렁마께'로 막 두들겨서 부각하게 해서 다 깨서 그거 해서 가늘디가늘게 노 꼬아서 거 가져서 망사리.) 05 // 그 삥이를 미뿌젱이라고 ᄒᆞ여. 미뿌젱이를 빻다가.(그 삘기를 '미뿌젱이'라고 해. '미뿌젱이'를 빻다가.) 27 [옹포, 표선]

미삐쟁이: 참억새의 줄기 끝에 이삭 모양으로 핀 기다란 꽃이다. 여기서는 억새꽃을 싼 것 껍데기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경헌디 미삐쟁이로 꼬아야 이제 막 질겨.(그런데 '미삐쟁이'로 꼬아야 이제 막 질겨.) 02 [선흘]

미삭: 아주 많은 모양이다. // 당시에는 뭇이, 뭇이 밧데 뭐 미삭. 이젠 뭇이 ᄒᆞ나도 없어.(당시에는 무릇이, 무릇이 밭에 뭐 '미삭'. 이젠 무릇이 하나도 없어.) 05 [표선]

미삭허다: 양이 너무 많아 넘쳐나는 상태이다. // ᄀᆞᆫ장도 미삭허고, 뒌장도 미삭, 이녁냥으로 허난.(간장도 많고, 된장도 많고, 자기대로 하니까.) 12 [한동]

미살미살허다: 힘없이 흩어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그 ᄀᆞ루로 돌ᄀᆞ레에 ᄀᆞᆯ아난 ᄀᆞ루로 미살미살헌 ᄀᆞ루 헤근에 ᄑᆞ레에 헤다근에 헤영케 발헤영 비 올 때 발허고 물 지치멍 발허고 헤근에 그거 발헤여근에 이제 그거 다 헤영게 발민 밥헹 먹을 걸로 이제 물 적져근에 칼로 막, 너플너플 헌 거주 ᄑᆞ레.(그 가루로 맷돌에 갈았던 가루로 '미살미살'한 가루 해서 파래에 해다가 하얗게 바래서 비 올 때 바래고 물 끼얹으면서 바래고 해서 그거 바래서 이제 그거 다 하얗게 바래면 밥해서 먹을 거로 이제 물 적셔서 칼로 마구, 너불너불 한 거지, 파래.) 12 [한동]

미섹이: 무엇이 한데 많이 모아지거나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모양이다. // 메역은 미섹이 나고 우리 메역 ᄌᆞ물아근에 학교 세웁자 헤영 할망덜 헨에 저 다 들엉 우리가 저 ᄌᆞ물앙 저 집 짓엇어.(미역은 '미섹이' 나고 우리 미역 캐서 학교 세우자 해서 할머니들 해서 저 다 들어서 우리가 저 캐서 저 집 지었어.) 12 // 보리 허면은 일 년 먹을 거 헹 미섹이 담아 놔지민 아이고, 영 우리가 엇어 가는 양, 클방 나난에 그자 클방에 가민 가까단 먹고 헐 때는 허곡.(보리 하면 일 년 먹을 거 해서 '미섹이' 담아 놓으면 아이고, 이렇게 우리가 없어져 가는 대로, 정미소 나오니까 그저 정미소에 가면 깎아다가 먹고 할 때는 하고.) 31 [토평, 한동]

미스구리: 일본어 'にづくり'에서 온 말로, '짐을 장만함, 짐을 쌈, 짐 꾸리기'라는 의미이다. // 그 낭껍데기가 쫙쫙 헷당은에 우리 아버지가 이사장이난 우리 집이덜 다 동네 거 모여 와. 우알벵일이 거 우리 집이서 미스구릴 헤여. 경허믄 왕 시꺼 가.(그 나무껍질이 쫙쫙 했다가 우리 아버지가 이사장이니까 우리 집에들 다 동네 거 모

여 와. ‘우알벵일이’ 거 우리 집에서 짐 장만 했어. 그러면 와서 싣고 가.) 30 [노형]

미싱: 일본어 ‘ミシン’으로 ‘재봉틀’을 말한다. 영어 ‘mishin’의 일본어식 발음으로 바느질을 하는 기계로 우리말 재봉틀을 말한다. // 그때 옛날에, 난 미싱 시난 미싱으로 드러 헷주만은 손으로 하영 허주게.(그때 옛날에, 난 재봉틀 있으니까 재봉틀로 거푸 했지만 손으로 많이 하지.) 06 // 또 우리 집이 하르방은 엿날에 우린, 나영 하르방이영 저 미싱, 좁음틀 하나 놘 흑생복덜 수선도 허고 무신 엿날에 미녕옷덜도 헤나고 흑생복덜 헤나서게.(또 우리 집의 할아버지는 옛날에 우린, 나와 할아버지와 저 재봉틀, 재봉틀 하나 놓고 학생복들 수선도 하고 무슨 옛날에 무명옷들도 했었고 학생복들 했었어.) 20 // 만들앙은 미싱 하나 상은에 이녁냥으로 가정에 쓰는 옷도.(만들어서는 재봉틀 하나 사서 이녁대로 가정에 쓰는 옷도.) 22 // 호는 건 영 영 허는 거고. 뎅침이엔 헌 거 뒷바농질허영 또 뒷바농질허곡 허영 미싱 헌 거처록 틈 엇이 헤 가는 거 뎅침.(호는 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고. 박음질이라고 하는 거 뒷바느질해서 또 뒷바느질하고 해서 재봉틀 한 거처럼 틈 없이 해 가는 거 박음질.) 26 [고내, 남원, 덕수, 성읍, 신창, 우도]

미앗허다: 아주 많아 가득하다. // 겨민 그디 마눙이 막 미앗헤여.(그러면 거기 마늘이 매우 ‘미앗해’.) 24 [세화]

미에지벵뒤: 아무 거침없이 트인 널따란 벌판이다. 달리 ‘미여지벵뒤’라고 한다. // 이 그 ᄉᆞ삼사건 난 지 후에 약 이 부락이 설립뒈면서 한 칠 년 칠 년 정도 그 지나서 여기 설립뒛는데 이 설립 목적은 여기가 이 직 말ᄒᆞ민 이 덤불밧이 없어. 점 이 저 미에지벵뒤라, 옛날말로.(이 그 사삼사건 난 지 후에 약 이 부락이 설립되면서 한 칠 년 칠 년 정도 그 지나서 여기 설립됐는데 이 설립 목적은 여기가 이 즉 말하면 이 덤불밭이 없어. 점 이 저 ‘미에지벵뒤’야, 옛날말로.) 08 [동광]

미여지벵뒤: 아무 거침없이 트인 널따란 벌판이다. 달리 ‘미에지벵뒤’라고 한다. // 미여지벵뒤. 그 산에 가민 벵뒤 잇잔아. 집도 아무것도 엇고 허난 미여지벵뒤.(‘미여지벵뒤’. 그 산에 가민 들판이 있잖아. 집도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미여지벵뒤’.) 21 [신촌]

미여지벵듸: 아무 거침없이 트인 널따란 벌판이다. 달리 ‘미에지벵뒤’, ‘미여지벵뒤’라고 한다. // 우영담도 엇어부난 밋밋 미여지벵듸.(텃밭담도 없어 버리니깐 밋밋 ‘미여지벵듸’.) 03 [송당]

미역 마줌: 잠녀들이 물속에 들어 캐낸 미역을 남편 등의 남정네가 들고 오기 위해서 바닷가에 가는 행위를 말한다. // 미역 마줌 허염젠 허민 막 저들어.(‘미역 마줌’ 한다고 하면 매우 걱정해.) 05 [표선]

미역 망사리: 해녀들이 바다에서 미역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테왁’에 매달아 사용하는 그물주머니다. // 아니 미역 망사리허고 헛물에 망사리는 같이 고망썩 요만썩 고망 허영 허곡.(아니 ‘미역 망사리’하고 ‘헛물에 망사리’는 같이 구멍씩 요만큼씩 구멍

해서 하고.) 23 [온평]

미역 허제[-許採]: 미역 채취를 허가하는 일이다. 해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채취를 금하였다가 합의된 날짜에 그 금지를 풀고 해산물을 캐기 시작하는 일을 말한다. 달리 '메역 허제'라고 한다. // 그거 입곡 경 헤근에 하면 얼어근에 거 삼월 달에 그 미역 허제도 막 얼어. 추웡.(그거 입고 그렇게 해서 하면 추워서 거 삼월에 그 미역 허채도 매우 추워. 추워서.) 05 [표선]

미역귀: 돼지의 작은창자 양옆에 붙은 내장 중 횡경막의 한 부위이다. 모양이 미역귀와 비슷해서 붙은 이름이다. 달리 '메역귀'라고 한다. // 양념을 그자 뒈지도 말곡 허여근에 그 저 무시거 저 그 저 그 순대에 기름 나온 거. 것ᄀᆞ라 무시거엔 무시거엔 허민 뒈커니? 거. 그거, 그것ᄀᆞ라 무신 미역귀.(양념을 그저 되지도 말게 해서 그 저 무엇 저 그 저 그 순대에 기름 나온 거. 것보고 뭐라고 뭐라고 하면 되겠니? 거. 그거, 그것보고 무슨 '미역귀'.) 32 // 미역귀 간ᄉᆞᆷ 하나 뭽니다게, 뒈지 하나에 하나.('미역귀' 횡격막 하나 됩니다, 돼지 하나에 하나.) 32 // ᄆᆞ멀ᄀᆞ루 허여근에 미역귀 잇지 안 허우꽈? 도새기 미역귀 허영.(메밀가루 해서 '미역귀' 있지 않습니까? 돼지 '미역귀' 해서.) 34 [구억, 덕수]

미오름: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오름이다. // 그 저 녹색 껍질만 툭툭 벳겨졍, 나 그거 줏으레 여기서면 아마 멧 천 뒈나, 저 민오름옌 ᄒᆞᆫ 디 가.(그 저 녹색 껍질만 탁탁 벗겨져, 나 그거 주우러 여기서면 아마 몇 천 되나, 저 '민오름'이라고 하는 데가.) 08 // 저 어디, ᄒᆞᄉᆞᆯ 민오름도 강 곱아나곡, 저 큰넙궤도 강 곱아나곡.(저 어디, 조금 '민오름'도 가서 숨어나고, 저 '큰넙궤'도 가서 숨어나고.) 08 [동광]

미오름산테굴: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굴(屈)이다. '미오름굴'이라고도 한다. // 저 미오름산테굴이 크주.(저 '미오름산테굴'이 크지.) 08 // 그 미오름굴은, 그 미오름굴은 이 시국에 저 사름덜이 손수 파, 그냥 이녁이 파멍 굴 만든 디주게.(그 '미오름굴'은, 그 '미오름굴'은 이 시국에 저 사람들이 손수 파, 그냥 이녁이 파면서 굴 만든 데지.) 08 [동광]

미우젱이: 새품으로 참억새의 줄기 끝에 이삭 모양으로 핀 기다란 꽃이다. 여기서는 억새꽃을 싸고 있는 줄기를 말한다. // 칠팔월 나사 미우젱이 빠는 거주.(칠팔월 돼야 '미우젱이' 뽑는 거지.) 23 // 가레기, 가레기 요디 놓고 미우젱이 헤여근에 요디 영 놔근에.(가락, 가락 요기 놓고 '미우젱이' 해서 여기 이렇게 놔서.) 31 [온평, 토평]

미친이굴: 성산읍에 위치한 '미천굴'이다. // 굴은 저 웃삼달리 미친이굴.(굴은 저 윗삼달리 미천굴.) 13 // 미친이굴, 거가 옛날은 미친이굴인디 미천굴로 그디가 뒌 거.('미친이굴', 거기가 옛날은 '미친이굴'인데 미천굴로 거기가 된 거.) 13 [삼달]

미카와시마: 도쿄도(東京都)의 아라카와쿠(荒川区)에 있는 한 지역 이름이다. // 유센지 간에 오래 살, 유센지 간 ᄒᆞᆫ 멧 년 살고 그 다음엔 미카와시마 간 또 멧 년 살고 또 그 다음에 저 니시하라엔 헌 디 강 멧 년, 이년 쯤 사니까 대동아전쟁이 일어나

불어서.(유센지 가서 오래 살, 유센지 가서 한 몇 년 살고 그 다음엔 미카와시마 가서 또 몇 년 살고 또 그 다음에 저 니시하라라고 하는 데 가서 몇 년, 이년 쯤 사니까 대동아전쟁이 일어나 버렸어.) 20 [고내]

미호미: 나무 따위를 찍거나 자르는 낫 비슷한 도구이다. 지역에 따라 '나대', '미호미', '장호미'라고도 한다. // 미호민 영 오그라진 거ᄀᆞ라 미호미엔 허지 안허여?('미호미'는 이렇게 오그라진 것보고 '미호미'라고 하지 않아?) 29 [외도]

민둥구제기: 껍질의 돌기가 닳아 없어진 성숙한 소라를 말한다. 달리 '문둥구젱이', '민둥구젱기', '민둥구젱이'라고 한다. // 구젱기도 민둥구제기. 또 젠젠헌 소라구제기.(소라도 '민둥구제기'. 또 자잘한 '소라구제기'.) 31 [토평]

민둥구젱기: 껍질의 돌기가 닳아 없어진 성숙한 소라이다. 달리 '문둥구젱이', '민둥구제기', '민둥구젱이'라고 한다. // 쌀 엇인 건, 큰 구젱기. 민둥구젱기.(살 없는 건, 큰 소라. '민둥구젱기'.) 01 // 민둥구젱이 거 막 늙은 거. 늙은 구젱이고 건, 또 살도 하.('민둥구젱이' 거 아주 늙은 거. 늙은 소라고 건, 또 살도 많아.) 28 [구엄, 도련, 세화, 표선]

민둥이: 껍데기에 붙어 있는 돌기가 사라진 소라이다. '민둥구젱기'의 줄임말이다. // 민둥이는 막 껍덕도 두텁고 이 돈도 이 막 묵은 거.('민둥이'는 아주 껍질도 두껍고 이 '돈'도 이 아주 묵은 거.) 23 [온평]

민드락허다: 전 등을 지질 때 급하게 익히다 보면 제대로 익지 않아서 물기가 남다는 의미이다. // 전기 판에서 허민은 카지 아녕, 빨리 급허게 헤 불민 좀 민드락허곡.('전기' 판에서 하면 타지 않아서, 빨리 급하게 해 버리면 좀 '민드락하고'.) 23 [온평]

민물통: 민물이 고이는 우물이다. // 글로 저 밑에 민물통 잇수다. 민물통.(글로 저 밑에 '민물통' 있습니다. '민물통'.) 23 [온평]

민오름: 남원읍 수망리 남조로변의 충혼묘지 서쪽에 있는 오름을 말한다. // 영아리오름, 저 뭐 검은오름, 민오름, 저 넉시오름, 세기오름 다. 그 오름 꼭대기에 올라사근엥에 보니깐 횃불을 쏴근엥 영 흔드는 거라.('영아리오름', 저 뭐 '검은오름', '민오름', 저 '넉시오름', '세기오름' 모두. 그 오름 꼭대기에 올라서서 보니깐 횃불을 붙여서 이렇게 흔드는 거야.) 15 [수망]

민오름궤: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굴(屈)이다. // 또 동쪽으로 가면은 저 미오름궤엔 흔 거 잇곡.(또 동쪽으로 가면은 저 '미오름궤'라고 한 거 있고.) 08 [동광]

민작민작: 미끄럽고 끈적끈적한 모양이다. // 애기 날 때꺼장 무신 ᄀᆞ루 음식이나 먹으민이 애기 이디가 이디 상삐론가 행주로 헤 가민 민작민작 허민, 요즘은 애기 비누로 덜 싹 깨끗이 헤 부는디, 그땐 그 애기난 애기라고 비누나 허민 애기 비누도 아니고 눈더레나 비눗물 가카 부덴이.(아기 낳을 때까지 무슨 가루 음식이나 먹으면 아기 여기가 여기 '상삐'로인가 행주로 해 가면 '민작민작' 하면, 요즘은 아기 비누로들 싹 깨끗이 해 버리는데, 그땐 그 아기니까 아기라고 비누나 하면 아기

비누도 아니고 눈에나 비눗물이 갈까 봐.) 06 [남원]

민작민작: 털 따위가 매끄럽게 잘 빠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손님덜 막 그냥 밤이 들앙와근에 독 잡앙 먹겐 헤도 아방이 독 헤영 죽영 물 꿰우렌 헹 물 팔팔 끌이민 그 물 헤영 막 지치믄이 그 독터럭이 자기대로 나와, 민작민작.(손님들 마구 그냥 밤에 달려와서 닭 잡아서 먹자고 해도 아버지가 닭 해서 죽여서 물 끓이라고 해서 물 팔팔 끓이면 그 물 해서 마구 끼얹으면 그 닭털이 자기대로 나와, '민작민작'.) 30 [노형]

민작허다: 미끄러우면서 끈적끈적하다. // 그거 기자 물로만 허렌 허민, 헹주로 이레 밀민 이레 갓닥 저레 밀민 저레 갓닥 민작헌 거.(그거 그저 물로만 하라고 하면, 행주로 이리 밀면 이리 갔다가 저리 밀면 저리 갔다가 미끄러우면서 끈적끈적한 거.) 06 [남원]

민잘민잘: 물컹한 것이 틈 따위를 잘 빠져나가는 모양이다. // 도리버즘 낫을 땐 나 옛날말로 저 집 없는 돌벵이 험벅에 싸근에 그 버즘더레 막 민잘민잘 민잘헌 풀 나오게 막 닝겨 가민 이따근에 흔 이틀 잇당 씻어 불민 아이덜 좋아난 적 잇어.('도리버즘' 났을 땐 내가 옛날말로 저 집 없는 달팽이 헝겊에 싸서 그 버짐에 아주 '민잘민잘' '민잘한' 풀 나오게 마구 문질러 가면 있다가 한 이틀 있다가 씻어 버리면 아이들 좋았던 적 있어.) 06 [남원]

민잘허다: 물컹한 것이 틈 따위를 잘 빠져나간다. // 도리버즘 낫을 땐 나 옛날말로 저 집 없는 돌벵이 험벅에 싸근에 그 버즘더레 막 민잘민잘 민잘헌 풀 나오게 막 닝겨 가민 이따근에 흔 이틀 잇당 씻어 불민 아이덜 좋아난 적 잇어.('도리버즘' 났을 땐 내가 옛날말로 저 집 없는 달팽이 헝겊에 싸서 그 버짐에 아주 '민잘민잘' '민잘'한 풀 나오게 마구 문질러 가면 있다가 한 이틀 있다가 씻어 버리면 아이들 좋았던 적 있어.) 06 [남원]

민짝: '남김없이 모두'라는 의미이다. // 돌망도 그때 민짝 ᄌᆞ물민 그때 이제, 돌망 이제 난 때지.(모자반도 그때 '민짝' 캐면 그때 이제, 모자반 이제 난 때지.) 24 [세화]

민짝: 고르게 늘어서거나 가지런히 벌여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두불ᄑᆞᆺ이엔 헹 줄, 줄 올려근에. 줄 안 올리는 건 민짝 갈고.('두불ᄑᆞᆺ'이라고 해서 줄, 줄 올려서. 줄 안 올리는 건 '민짝' 갈고.) 31 [토평]

민짝: 보통 '몽땅, 모두'의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많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문짝'이라고도 한다. // 조개풀, 조개풀 허멍 강보민 요만썩 헌 거 다박다박헌 풀이 민짝 나.(조개풀, 조개풀 하면서 가보면 요만큼씩 한 거 '다박다박'한 풀이 '민짝' 나.) 25 [태흥]

민짝허다: 미끈하고 평평하다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많은 양을 말한다. // 옛날엔 바당에 듬북이 민짝허게 나낫어.(옛날엔 바다에 듬북이 밋밋하게 났었어.) 24 [세화]

민짝허다: 미끈하고 평평하다는 의미이다. 여기서는 '남김없이 전부'의 의미로 쓰였다. // 콩도 헤근에 갈민 가근에 막 놉덜 빌어 강 ᄃᆞᆫ 민짝허게 비여 놓민 멍석 졍 가근

에 꼴아근에 그레 문 놩 도께, 도리께. 지금은 도리께이.(콩도 해서 갈면 가서 마구 놉들 빌러 가서 모두 '민짝하게' 베어 놓으면 멍석 지고 가서 깔아서 그리 모두 놔서 도리깨, 도리깨. 지금은 도리깨.) 31 [토평]

민짝허다: 미끈하고 평평하다는 의미이다. 여기서는 잘 삶아진 팥을 으깼을 때, 그것이 부드럽고 미끈한 상태를 나타냈다. // 경허면은 솖아 가민 물을 경 많이 놓지 말앙 솖아 가민 풋에 물에 거의 들어. 거의 엇으민 그때는 불 꺼 둰 국자로나 영영 허민 그 풋이 민짝헤, 민짝.(그러면 삶아 가면 물을 그렇게 많이 넣지 말고 삶아 가면 팥에 물에 거의 들어. 거의 없으면 그때는 불 꺼 두고 국자로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팥이 '민짝해', '민짝'.) 30 [노형]

민짝ᄒᆞ다: 미끈하고 평평하다. // 쉐막은 기냥 저 민짝허게시리 저 뭐 놓고 무시거 하게 아녀게 헤근에 이런 거 ᄒᆞᆫ 칸 쉐 하는 디.(외양간은 그냥 저 '민짝하게끔' 저 뭐 놓고 무엇 하게 않게 해서 이런 거 한 칸 소 하는 데.) 05 // 그걸 푹 삶은 다음에 발로 밟던지 아니면 방에톡에 넣어 가지고이. 찧어 가지고는 그거를 완전히 잘 그 제주도말로 민짝ᄒᆞ게 잘 말이지 뻣아진 거를 사각형으로나 아니면 뭐 동글락허게 만들어 가지고.(그걸 푹 삶은 다음에 발로 밟던지 아니면 돌방아에 넣어 가지고. 찧어 가지고는 그거를 완전히 잘 그 제주도말로 '민짝ᄒᆞ게' 잘 말이지 빻아진 거를 사각형으로나 아니면 뭐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27 [옹포, 표선]

밀: 밀랍(蜜蠟)이다. // 물에 들젠 허문 옛날에 속 같은 거. 밀 막읍니께, 밀.(물에 들려고 하면 옛날에 쑥 같은 거. 밀 막습니다 밀.) 22 [우도]

밀골: 밀로 만든 엿기름이다. // 밀골은 더 새는 거주. 옛날은 줄보리허고 밀만 헤낫는데, 살보리가, ᄉᆞᆯ보리가 살이 많고 좋데.('밀골'은 더 새는 거지. 옛날은 맥주보리하고 밀만 했었는데, 쌀보리가, 쌀보리가 살이 많고 좋데.) 01 [도련]

밀다: '지우다', 혹은 '깎다'의 의미를 가지나 여기서는 '탈곡하다' 의미로 쓰였다. // 보리 밀젠 메탁기 불러근에. 메탁기 불렁은에 보리 저 보리 문딱 나와근엥에 보리 문딱 만들아 놩.(보리 탈곡하려고 탈곡기 불러서. 탈곡기 불러서 보리 저 보리 모두 나와서 보리 모두 만들어 놓고.) 32 [덕수]

밀레: 논바닥을 고르는 도구이다. // 밀레, 밀레로 그레 ᄃᆞᆼ겻다, 저레 ᄃᆞᆼ겻다 나록 판을 쫙 골릅네다. 경ᄒᆞ민 나록 이레 메여 논 걸 ᄯᅳ로 다 삐여('밀레', '밀레'로 그리로 당겼다, 저리로 당겼다 벼 판을 쫙 고릅니다. 그러면 벼 이리로 매어 놓은 걸 따로 다 뿌려.) 17 // 밀레옌 허던가, 미레기옌 허여. 영 밀엉 강 돌아가멍 ᄒᆞᆫ짝 흑도 일어나곡 허멍 검질 영.('밀레'라고 하던가, '미레기'라고 해. 이렇게 밀어서 가서 돌아가면서 한쪽 흙도 일어나고 하면서 김 이렇게.) 28 [구엄, 대평]

밀레질: 논바닥을 고르는 일이다. // 밀레질을 ᄒᆞ여놩 나록메를 다 뿌려, 논 달롸진 더레 뿌리민, 또 여자덜이 요만씩 갈르멍 톡톡톡 싱거.('밀레질'을 해놔서 볏모를 다 뿌려, 논 다져진 곳으로 뿌리면, 또 여자들이 요만큼씩 가르면서 톡톡톡 심어.)

17 [대평]

밀상웨: 밀가루로 만든 상화이다. // 밀상웨가 경 맛이 좋아.('밀상웨'가 그렇게 맛이 좋아.) 14 [성읍]

밀싹허다: 죽 따위를 너무 끓어 쌀알 등이 으깨져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 // 밀싹허연. 너미 쒀 불민 밀싹.('밀싹해서'. 너무 쒀 버리면 '밀싹'.) 31 [토평]

밀장: 미닫이문의 하나로 '밀장문'이라고도 한다. // 도절귀 허주게. 문, 문 저 도메 시키는 건, 옛날엔 밀장이 아니라 열고 닫아 허는 거니까.(돌쩌귀 하지. 문, 문 저 '도메' 시키는 건, 옛날엔 미닫이문이 아니라 열고 닫고 하는 거니까.) 06 [남원]

밀장두께비: 밀장을 집어넣는 뚜껑이다. // 밀장두께비엔 헌 게 시방 아지마니네 집의 밀장두께비 잇인 거 닮안게.('밀장두께비'라고 한 게 시방 아주머니네 집의 '밀장두께비' 있는 거 같던데.) 14 [성읍]

밀창: 미닫이 창문이나 문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 경허단 이 밀창도 ᄎᆞ츰ᄎᆞ츰 발전헤 가지고 밀창을 ᄃᆞᆫ 거라.(그러다가 이 '밀창'도 차츰차츰 발전해 가지고 '밀창'을 단 거야.) 02 [선흘]

밀콜: 밀을 틔워서 말린 것이다. 엿을 만드는 데에 쓰인다. // 밀콜 놔낫주, 우리냥으로.('밀콜' 놨었지, 우리대로) 14 [성읍]

밀ᄀᆞ르풀: 밀가루로 쑨 풀이다. '밀풀'과 '밀ᄀᆞ르풀'이 쑤는 방법이 다르다고 구분하고 있다. // 경 헤나신디 지금은 밀ᄀᆞ르풀 헹은에 뭐 풀 탁 칠허민 얼마든지.(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밀가루풀' 해서 뭐 풀 탁 칠하면 얼마든지.) 14 [성읍]

밋놀: 억새꽃으로 만든 짚신의 날이다. // 산디찝으로 놀은 그 놀은 밋놀로 헤근에.(밭벼짚으로 날은 그 날은 '밋놀'로 해서.) 12 [한동]

밋밋: 거침새 없이 넘어가는 모양이다. // 바당더레. 이 집 앞으로, 다리 앞이 싯지이. 글로 밋밋 내려간다.(바다로. 이 집 앞으로, 다리 앞에 있지. 거기로 '밋밋' 내려간다.) 10 // 절박 헌 디 간 보난 북한 놈 입초 사멍 잠서렌. 팍팍 찔러 둰 기냥 그 우이 올라 산 기관총 탁 메영은에 그 기냥 다다다다 허난 기냥 밋밋, 밋밋 막 야, 사람도 하렌.(절벽 한 데 가서 보니까 북한 놈 입초 서면서 자고 있더라고. 팍팍 찔러 두고 그냥 그 위에 올라 서서 기관총 탁 매여서 그 그냥 다다다다 하니까 기냥 '밋밋', '밋밋' 막 야, 사람도 많더라고.) 21 // 감저 저 생채 ᄑᆞᆯ민 전분 ᄀᆞ루 나가멍 밋밋 나왕 통에 받앙 도새기 사당 멕이곡 헤낫주게.(고구마 저 생짜 팔면 전분 가루 나가면서 '밋밋' 나와서 통에 받아다가 돼지 사다가 먹이고 했었지.) 26 // 멘서기던지 군에던지 어디든지 다 선생덜토 보성 사름덜이 선생이 밋밋 나오고 그랫어. 인성 이제 선생 하나 나왓주게.(면서기든지 군에든지 어디든지 다 선생들도 보성 사람들이 선생이 '밋밋' 나오고 그랬어. 인성 이제 선생 하나 나왔지.) 33 [고내, 삼달, 신창, 신촌, 월령, 인성, 토평]

밋밋: 거침새 없이 줄곧 넘어가는 모양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누구나 다'의 의미로 쓰인 것 같다. // 건 밋밋ᄒᆞ는 거. 피력ᄒᆞ고 ᄆᆞᆫ 술 ᄒᆞᆫ잔 대접허고, 속앗젠 ᄒᆞ여도, 엇엇

어, 엿날엔.(그건 '밋밋'하는 거. '피력'하고 모두 술 한 잔 대접하고, 수고했다고 해도, 없었어, 옛날엔.) 15 [수망]

밋붉은제환지: 바랭이 풀의 한 종류이다. // 밑에가 붉어. 밋붉은제환지 잇고 그냥 제환지도 잇고.(밑에가 붉어. '밋붉은제환지' 있고 그냥 바랭이도 있고.) 20 [고내]

밍그랑: 느끼한 모양이나 느낌이다. // 맨 처음 밍그랑만 허곡 원 안 좋아근엥에 안 먹어지는디 메누리덜토 헤연 보난 어머니가 담아준 장으로 먹엄섭데게.(맨 처음 '밍그랑'만 하고 원 안 좋아서 안 먹어지는데 며느리들도 해서 보니까 어머니가 담가준 장으로 먹고 있습디다.) 23 [온평]

밑바지: 아기들이 오줌을 쉽게 쌀 수 있도록 밑을 터서 만든 바지이다. 달리 '강알튼바지'라고 말한다. // 밑바지 입졋주. 옷 안 적지곡게 그자 벌기민 오줌은 싸질 거난. ('밑바지' 입혔지. 옷 안 적시고 그저 벌리면 오줌은 싸질 거니까.) 01 [도련]

밑에지팡: 문 아래에 덧대어 있는 문지방이다. // 우에지팡 밑에지팡. 알지방 웃지팡.('위에지팡' '밑에지팡'. '알지팡' '웃지팡'.) 05 [표선]

ᄆᆞ들ᄆᆞ들허다: 구불구불하다. // ᄆᆞᆯ라도 바짝허민 그 ᄆᆞ들ᄆᆞ들헌 거 풀어지민 옷ᄀᆞ슴 뒈는 거난게.(말라도 뻣뻣하면 그 'ᄆᆞ들ᄆᆞ들한' 거 풀어지면 옷감 되는 거니까.) 14 [성읍]

ᄆᆞ루줄: 지붕마루를 중심으로 지붕의 가로로 마루에 깔아 놓은 띠를 묶는 세 개의 긴 줄이다. // 그 ᄆᆞ루줄은 대개 새, 새로 꼬아근에 허는 것이고 그 옆이 것은이 칙 걷어다가, 칙 걷어당.(그 'ᄆᆞ루줄'은 대개 띠, 띠로 꼬아서 하는 것이고 그 옆에 것은 칡 걷어다가, 칡 걷어다가.) 12 [한동]

ᄆᆞ멀낭: 표준어 메밀짚에 대응한다. 'ᄆᆞ멀'은 메밀, '낭'은 짚을 말한다. // 돗집이 탁 두껍게 놓아 놩 그 우이 ᄂᆞ라밀 둘러게, ᄂᆞ라밀 둘렁 주젱일 씌와. 경헌 걸 우린 ᄆᆞ멀낭 엇이난 저 동네 삼춘이 ᄆᆞ멀낭 쓰컨 씁센 허민.(돼지우리가 탁 두껍게 놓아 놓고 그 위에 이엉을 둘러, 이엉을 둘러서 주저리를 씌워. 그런 걸 우린 메밀짚 없으니까 저 동네 삼촌이 메밀짚 쓰려면 쓰라고 하면.) 30 [노형]

ᄆᆞ멀죽: 메밀쌀을 넣어서 끓인 죽이다. // ᄆᆞ멀죽은게 ᄆᆞ멀 그냥 검피엉.('메밀죽'은 메밀 그냥 거피해서.) 14 [성읍]

ᄆᆞ쉬모루굴: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굴 이름이다. // 굴은 ᄆᆞ쉬모루굴 하나. ᄆᆞ쉬모루굴허고.(굴은 'ᄆᆞ쉬모루굴' 하나. 'ᄆᆞ쉬모루굴'하고) 31 [토평]

ᄆᆞ쉬모루내: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내 이름이다. // ᄆᆞ쉬모루엔 헌다. 건 원 이 토평은 ᄆᆞ쉬모루내 그거 ᄒᆞ나.('ᄆᆞ쉬모루'라고 한다. 건 원 이 토평은 'ᄆᆞ쉬모루내' 그거 하나.) 31 [토평]

ᄆᆞ쉬ᄆᆞ루: 서귀포시 토평동의 지경 이름이다. // 개간 안 헌 때난 옛날은 산에 가민 개간 안 허민 요 ᄆᆞ쉬ᄆᆞ루만 가민 ᄉᆞ못 내로 우터레 가민 들굽이 핫저게.(개간 안 할 때니까 옛날은 산에 가면 개간 안 하면 요 'ᄆᆞ쉬ᄆᆞ루'만 가면 사뭇 내로 위로 가

면 두룹이 많아.) 31 [토평]

ᄆᆞ쉬접: 마소를 공동으로 돌보기 위하여 꾸린 동아리이다. 동아리에서 한두 명씩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동아리의 마소를 목초지로 끌고 나가 돌본다. 말을 키우는 동아리는 따로 '물접'이라고 하였다. // 여기 제일 처음에는 그 ᄆᆞ쉬접엔 헌 게 그게 접이난, ᄒᆞᆫ 동네에 두 개 잇는 디 잇고 세 개 잇는 디가 잇고 하나 잇는 디가 잇고.(여기 제일 처음에는 그 'ᄆᆞ쉬접'이라고 한 게 그게 계니까, 한 동네에 두 개 있는 데 있고 세 개 있는 데가 있고 하나 있는 데가 있고.) 23 // ᄆᆞ쉬접은 그 동네에 영 헤 가지고 뭐 돈 내거나 영 허진 안허고 정허연 허는데 이제 소를 오늘은 누구네 집, 집 순위별로 헤 가지고.('ᄆᆞ쉬접'은 그 동네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돈 내거나 이렇게 하진 안하고 정해서 하는데 이제 소를 오늘은 누구네 집, 집 순위별로 해 가지고.) 23 [온평]

ᄆᆞ슬카다: 당에 간다. // ᄃᆞᆨ도이 엿날은 액맥이, 액맥이 허멍 ᄃᆞᆨ을 집에서 질롸근에 장ᄃᆞᆨ을 앗앙가이. 겨민 정월에 새끼 노는 거 이건 유월에 ᄆᆞ슬칼 때 아졍강 좋으켜 허멍.(닭도 옛날은 액막이, 액막이 하면서 닭을 집에서 길러서 장닭을 가져가. 그러면 정월에 새끼 노는 거 이건 유월에 'ᄆᆞ슬' 갈 때 가져 가서 좋겠다 하면서.) 25 // 거난 그거ᄀᆞ라 ᄆᆞ슬카는 거, ᄆᆞ슬카는 거 허주. 당에 감젠 요즘은.(그러니까 그것보고 'ᄆᆞ슬카는' 거, 'ᄆᆞ슬카는' 거 하지. 당에 간다고 요즘은.) 25 [태흥]

ᄆᆞ시: 마소. 말과 소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 막 ᄇᆞᆯ라. ᄆᆞ시 막 하영 그 어리 어리 어리 ᄒᆞ멍 막 텔레비에도 나오는게.(막 밟아. 마소 매우 많이 그 어리 어리 어리 하면서 막 텔레비전에도 나오던데.) 15 [수망]

ᄆᆞ작: 'ᄆᆞ디' 또는 '매듭'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ᄆᆞ작'은 머귀나무의 특징인 오돌토돌한 마디를 말한다. // ᄆᆞ작 ᄉᆞ방ᄉᆞ방ᄒᆞ난 어멍은 죽으민 머귀낭 지프고, 아방 죽으민 마음이 느직느직 ᄒᆞ난 왕대몽뎅이.(매듭 '소방소방'하니까 어머니는 죽으면 머귀나무 짚고, 아버지 죽으면 마음이 느직느직 하니까 왕대몽둥이.) 15 [수망]

ᄆᆞ작: 매듭. 여기서는 매듭단추를 말하고 있다. // 씰로 ᄆᆞᆫ딱 감쳐근에 그걸로 ᄆᆞ작을 만들앙. 게난 남자 단추도 쪼껫단추가 잇곡, 저고릿단추가 잇곡.(실로 모두 감쳐서 그걸로 마디를 만들어. 그러니까 남자 단추도 조끼단추가 있고, 저고리단추가 있고.) 08 [동광, 하원]

ᄆᆞ진흘물: 한경면 청수리 'ᄆᆞ진흘' 지경에 있는 물 이름이다. // 그 물에 가면은 그 물에 미릇 강 앚인 사람덜은 느네 쉔 멧 시에 물 먹엉 들어갓저. 느네 쉔 뭐 어떵 헷져. 헤근에 앚앙덜 서로 소문 듣고 무신거 허멍 헌디 앚인 물에서는 못 봐라. 물 멕이레 못 봐라. 가게 뒈민 그 도량에 강 사람 ᄆᆞᆯ앙 나왕 물 멕영 안트레 들여보내고 헌디 그거 ᄆᆞ진흘물인디 ᄆᆞ진흘물이 그거 물이 아니라십주.(그 물에 가면 그 물에 미리 가서 앉은 사람들은 너네 손 몇 시에 물 먹어서 들어갔다. 너의 손 뭐 어떻게 했다. 해서 앉아서들 서로 소문 듣고 뭐 하면서 했는데 앉은 물에서는 못 보더라. 물 먹이러 못 보더라. 가게 되면 그 지경에 가서 사람 몰아서 나와서

물 먹여서 안으로 들여보내고 하는데 그거 '믓진흘물'인데 '믓진흘물'이 그거 물이 아니었습지요.) 19 [청수]

믄독내: 여름철, 옥돔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이다. // 지금 이후로는 솔레국이 맛이 엇어. 건 겨울에. 늦은 가을부터 한겨울 그때가 젤 맛잇을 때고. 이제부터는 믄독내 나가지고.(지금 이후로는 옥돔국이 맛이 없어. 건 겨울에. 늦가을부터 한겨울 그때가 젤 맛있을 때고. 이제부터는 '믄독내' 나가지고.) 05 [표선]

믄작허다: 부드러운 모양이다. // 믄작허영 꼿부리ᄀᆞ추룩 보글보글헌 것이 잇어.('믄작'해서 꽃부리처럼 '보글보글'한 것이 있어.) 11 [함덕]

믄지락: '먼지'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소가 먹다 남긴 꼴 등을 말한다. // 먹으멍 부서진 것덜게, 그거 믄지락. 절로 어귀헤영 내민 글로 근데 헤여근에 굴묵 영 불껑도 파내곡 따시 믄지락도 꾹헹 찔렁 담곡 허주게.(먹으면서 부서진 것들, 그거 '믄지락'. 저리로 어귀해서 내면 그리로 고무래 해서 '굴묵' 이렇게 재도 파내고 다시 '믄지락'도 꾹해서 찔러서 담고 하지.) 13 [삼달]

믄지락허다: 촉감이 매끄럽고 부드러운 모양을 흉내낸 말이다. // 그걸 물에 탕 똘라놩 그냥 궤여가면은 꿰는 물에 ᄃᆞᆼ그면은 믄지락헹 그 멩지가 익어.(그걸 물에 타서 따라놔 그냥 끓어가면 끓는 물에 담그면 '믄지락해서' 그 명주가 익어.) 11 [함덕]

물가리: 나부랭이다. 달리 '물흐레기'라고도 한다. // 새 썹 가운디 물가리가 시난, 물가리 떼어비동 썹만 헐 거라부난.(띠 잎 가운데 나부랭이가 있으니까, 나부랭이를 떼어내고 잎만 할 거여서.) 24 // 물가리 그거 떼여동은에 허는 거난에.(나부랭이 그거 떼어내서 하는 거니까.) 24 [세화]

물구루마: 마차. 말이 끄는 수레이다. '구루마(くるま)'는 수레의 일본어다. // 쉐 시믄 쉐구루마 끗엉 가곡 물 시믄 물구루마 끗엉 가곡(소 있으면 소달구지 끌어서 가고, 말 있으면 마차 끌어서 가고.) 03 // 이디서 물구루마 ᄒᆞ여근에 저 돌오름팟디 낭ᄒᆞ레 뎅겻수다.(여기서 마차 해서 저 '돌오름팟'에 나무하러 다녔습니다.) 08 // 보리, 조, 감자 이렇게 밧에서 집까지 운반허는 거 전부 다 물구루마로 운반허고 허멍 다녓지.(보리, 조, 감자 이렇게 밭에서 집까지 운반하는 거 전부 다 마차로 운반하고 하면서 다녔지.) 27 [동광, 송당, 온평, 웅포]

물그랑: '연자매'를 가리키는 말이다. 달리 '물ᄆᆞ레'라고도 하였다. // 물도 헷어. 물그랑이엔 헷주. 물그랑.(말도 했어. 연자매라고 햇지. 연자매.) 14 [성읍]

물ᄆᆞ량: 연자매이다. 지역에 따라 '몰ᄆᆞ레', '물방에'라고도 한다. // 그런 그는 기곗방 엇인 때는 그 거시기 그 저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헤여근에 한 거 헤낫주마는. 물ᄆᆞ량인가 이디.(그런 그는 방앗간 없을 때는 그 거시기 그 저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해서 한 거 했었지만. '물ᄆᆞ량'인가 여기.) 05 [표선]

물ᄆᆞ레: 연자매이다. 지역에 따라 '물ᄆᆞ량', '물방에'라고 한다. // 밧 불리곡 머 물ᄆᆞ레도 허곡.(밭 밟고 뭐 연자매도 하고.) 16 [하원]

물데치: 말이 먹다 남은 꼴의 찌꺼기이다. // 물 먹단 남은 건 물데치.(말 먹다가 남은 건

‘ᄆᆞᆯ데치’.) 14 [성읍]

ᄆᆞᆯ루레기: 옷을 마르다가 남은 작은 헝겊 조각 따위를 말한다. // 팽이 멘들앙 멧 개 멘들앙 우리 아버지가 영 허영 돌려근에 낭께기에 ᄆᆞᆯ루레기 ᄌᆞᆯ라메민 톡톡 두드령 잘 돌민 어드레 드러눕지 못허게 잘 돌민 잘 뒌 거 헤영.(팽이 만들어서 몇 개 만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돌려서 나뭇개비에 ‘ᄆᆞᆯ루레기’ ᄌᆞᆯ라매면 톡톡 두드려서 잘 돌면 어디로 드러눕지 못하게 잘 돌면 잘 된 거 해서.) 33 [인성]

ᄆᆞᆯ루레기: 자그마한 헝겊 따위를 말하는데 문맥상 매듭단추를 가리키는 말이다. // 무시거 ᄆᆞᆯ루레기 요디 하나 ᄃᆞᆯ앙 영헹 ᄌᆞᆯ라메고 단추도 아니 ᄃᆞᆯ아.(무엇 ‘ᄆᆞᆯ루레기’ 요기 하나 달아서 이렇게 해서 ᄌᆞᆯ라매고 단추도 안 달아.) 33 [인성]

ᄆᆞᆯ른밧: 마른 밭이다. 바다에 대비해서 뭍을 가리키는 말이다. // ᄆᆞᆯ른밧듸서 헤도 심장마빈 죽어 붑니덴 그치록 허멍 막 얼먹언양.(‘ᄆᆞᆯ른밧’에서 해도 심장마빈 죽어 버린다고 그처럼 하면서 매우 언걸먹어서요.) 23 [온평]

ᄆᆞᆯ리다: 말리다. 물기를 다 날려서 없애다. // 호미로 영 끈어근에 경헤근에 말짜인 ᄆᆞᆯ류어.(낫으로 이렇게 끊어서 그렇게 해서 말째에는 말려서.) 16 [하원]

ᄆᆞᆯ망국: 모자반을 넣어서 끓인 국이다. // ᄆᆞᆯ망은 ᄆᆞᆯ망국. 잔치할 때 ᄆᆞᆯ망국 그거 헤먹곡. 또 ᄆᆞᆯ망 그거 ᄆᆞᆯ리왓당은에 물에 당갓당은에 그거 헤근에 무쳥 먹곡.(모자반은 ‘ᄆᆞᆯ망국’. 잔치할 때 ‘ᄆᆞᆯ망국’ 그거 해먹고. 또 모자반 그거 말렸다가 물에 담갔다가 그거 해서 무쳐서 먹고.) 05 [표선]

ᄆᆞᆯ모릿내: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내 이름이다. ‘ᄆᆞᆯ머리내’라고도 한다. // 내창은 저 ᄆᆞᆯ모릿내가 있고.(내는 저 ‘ᄆᆞᆯ모릿내’가 있고.) 30 [노형]

ᄆᆞᆯ바레기: 말이 이끄는 달구지이다. ‘바레기’는 표준어 ‘달구지’에 대응하는 말이다. // ᄆᆞᆯ바레기가 나가 열일곱 ᄉᆞᆯ부터 ᄆᆞᆯ바레기 헷주.(‘말바레기’가 내가 열일곱 살부터 ‘말바레기’ 했지.) 14 // ᄆᆞᆯ바레기엔 허는 말도 아쓱 들어진 거 닮은게.(‘ᄆᆞᆯ바레기’라고 하는 말도 조금 들었던 거 같은데.) 23 [성읍, 온평]

ᄆᆞᆯ발콥: 말발굽이나, 여기에서는 둥근 모양의 송편을 말발굽에 비유하여 한 말이다. 제주에서 송편은 둥근 모양의 것과 조개 모양의 것 두 가지가 있다. // ᄆᆞᆯ발콥 그것만 나오고 또 경 아녀민 어느 집안엔 보민 조 젊은 아이덜이라 놓난 그 무신 생일 떡 허는 거 그런 것도 헤영 색깔 그런 거 헤영 허곡.(‘ᄆᆞᆯ발콥’ 그것만 나오고 또 그렇게 않으면 어느 집안엔 보면 조 젊은 아이들이어 놓으니까 그 무슨 생일 떡 하는 거 그런 것도 해서 색깔 그런 거 해서 하고.) 23 [온평]

ᄆᆞᆯ발쿱: 말발굽이라는 뜻이나 여기에서는 둥그렇게 만든 송편을 비유하여 사용한 말이다. // 똥글락헌 거 ᄆᆞᆯ발쿱에 허영 똥글락허게 만들고.(동그란 거 ‘ᄆᆞᆯ발쿱’이라고 해서 동그랗게 만들고.) 23 [온평]

ᄆᆞᆯ방: 연자방아 또는 연자매이다. // 그게 ᄆᆞᆯ방을 중심으로 헤서 그 친목을. 게니까 ᄆᆞᆯ방이 혼자가 만든 게 아니고.(그게 연자방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친목을. 그러니까 연

자방아가 혼자가 만든 게 아니고.) 18 [신도]

ᄆᆞᆯ방계: 동네 사람들끼리 함께 쓰는 연자매를 운용하고 큰일이 있을 때에 서로 필요한 물자를 돕기 위하여 꾸민 계 조직을 의미한다. 달리 '말ᄀᆞ렛제', 'ᄆᆞᆯᄀᆞ렛접', 'ᄆᆞᆯ방엣접', 'ᄆᆞᆯ방엣제', 'ᄆᆞᆯ방잇접', 'ᄆᆞᆯ방잇제', 'ᄆᆞᆯ방제'라고도 한다. // 여러 사람이 거 만들어서 가지고 ᄆᆞᆯ방계라고 헤서 그 당시에는 좀 열심히 헤서 밧도 상 공동 작업도 허고.(여러 사람이 거 만들어서 가지고 'ᄆᆞᆯ방계'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좀 열심히 해서 밭도 사서 공동 작업도 하고.) 18 [신도]

ᄆᆞᆯ방제: 동네 사람들끼리 함께 쓰는 연자매를 운용하고 큰일이 있을 때에 서로 필요한 물자를 돕기 위하여 꾸민 계 조직을 의미한다. 'ᄆᆞᆯ방계', '말ᄀᆞ렛제', 'ᄆᆞᆯᄀᆞ렛접', 'ᄆᆞᆯ방엣접', 'ᄆᆞᆯ방엣제', 'ᄆᆞᆯ방잇접', 'ᄆᆞᆯ방잇제'라고도 한다. // ᄆᆞᆯ방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연자방아가 잇는데.('ᄆᆞᆯ방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연자매가 있는데.) 09 //ᄆᆞᆯ방제가 잇엇고, 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염장제.('ᄆᆞᆯ방제'가 있었고, 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염장제'.) 09 [고산]

ᄆᆞᆯ번: 이웃끼리 모아놓은 여러 마리의 말을 들판에 몰고 나가 돌보는 일을 할 때, 그 순번에 든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 ᄆᆞᆯ은 ᄆᆞᆯ번이엔 허곡 소는 소번이엔 허곡.(말은 'ᄆᆞᆯ번'이라고 하고 소는 '소번'이라고 하고.) 29 [외도]

ᄆᆞᆯ아초: 잘게 썬 잎담배를 종이에 넣어서 말아서 피우는 담배이다. // 담베도 옛날은 이 골련이 없었어요. 저 이 ᄆᆞᆯ아초.(담배도 옛날은 이 궐련이 없었어요. 저 이 'ᄆᆞᆯ아초'.) 14 [성읍]

ᄆᆞᆯ접: 말을 공동으로 돌보기 위하여 꾸린 동아리이다. 'ᄆᆞᆯ'은 말[馬], '접'은 '계'를 말한다. // ᄆᆞᆯ접이 잇는데 ᄆᆞᆯ덜은 다 안 멧으니까 ᄆᆞᆯ덜은 ᄒᆞᆫ 집의 일고ᄋᆞ덥 머리썩 열 머리썩 서너 사람이 동아리가 뒈어 가지고 ᄆᆞᆯ 허는 사름덜은 저 우에 가 가지고 내 버리면은 옛날에는 산에 올려 내 버려.('ᄆᆞᆯ접'이 있는데 말들은 다 안 맸으니까 말들은 한 집에 일고여덟 마리씩 열 마리씩 서너 사람이 동아리가 되어 가지고 말 하는 사람들은 저 위에 가 가지고 내 버리면 옛날에는 산에 올려 내 버려.) 23 [온평]

ᄆᆞᆯ줄: 말을 들판의 일정한 공간에서 풀을 뜯게 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맨 고삐에서부터 말뚝까지 연결하는 긴 줄을 말한다. 달리 'ᄆᆞᆯ줄레'라고 한다. // 드르에 메주. ᄆᆞᆯ줄 헹.(들에 매지. 'ᄆᆞᆯ줄' 해서.) 29 [외도]

ᄆᆞᆯ줄 싸다: 일정한 공간에서 풀을 뜯어 먹게 하려고 말의 고삐에 긴 줄을 연결하여 말뚝에 박다. // ᄆᆞᆯ줄 쌍, ᄆᆞᆯ 보레 감쩌.('ᄆᆞᆯ줄 쌍'. 말 보러 가고 있다.) 23 [온평]

ᄆᆞᆯ줄레: 일정한 공간에서 풀을 뜯어 먹게 하려고 말의 고삐와 말뚝과 연결하는 긴 줄을 말한다. 달리 'ᄆᆞᆯ줄'라고 한다. // ᄆᆞᆯ줄레허곡 말툭하고.('ᄆᆞᆯ줄레'하고 말뚝하고.) 23 [온평]

ᄆᆞᆯ축굿: 우도면의 민간 신앙 의례인 백중제이다. // 이만씩 꿰멍 또 집이서 ᄃᆞᆨ을 ᄒᆞᆫ두 ᄆᆞ리씩 길릅주게. 주곡 이렇게 ᄒᆞ곡 워낙 메뚜기가 어떤 때 갑자기 시면은예, 심지

어는 ᄆᆞᆯ축굿이엔 헤근에.(이만씩 꿰면서 또 집에서 닭을 한두 마리씩 기르지요. 주고 이렇게 하고 워낙 메뚜기가 어떤 때 갑자기 있으면요, 심지어는 '말축굿'이라고 해서.) 22 [우도]

ᄆᆞᆯ켓낭: 상여(喪輿)의 양편 아래로 각각 매어진 긴 채에 양끝을 걸치고서 동여 묶은 나무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ᄆᆞᆯ켓남'이라고도 한다. 상여의 양편 아래로 각각 매어진 긴 채에 양끝을 걸치고서 동여 묶은 나무이다. // ᄆᆞᆯ켓낭 다섯 개. ᄋᆞ섯 갠가? 다섯 개우다. 다섯 개.('ᄆᆞᆯ켓낭' 다섯 개. 여섯 갠가? 다섯 갭니다. 다섯 개.) 14 // 밑에 있는 거 ᄆᆞᆯ켓낭이엔 그것만 헤근에 저 상연 엇여불곡.(밑에 있는 거 'ᄆᆞᆯ켓낭'이라고 그것만 해서 저 상여는 없애버리고.) 16 [성읍, 하원]

ᄆᆞᆯ쿤벗: 군벗의 일종이다. // ᄆᆞᆯ쿤벗은 뽈그릉헌 게이 잘 안 먹어.('ᄆᆞᆯ쿤벗'은 불그레한 게 잘 안 먹어.) 01 [도련]

ᄆᆞᆯ테: 말떼를 돌보거나 키우는 일이다. // 경헤 놩 ᄆᆞᆯ테, 그것도 중간이주. ᄆᆞᆯ테 허는 사름이영 ᄆᆞᆫ 빌엉은에 ᄆᆞᆯ로 ᄇᆞᆯ려.(그렇게 해 놓고 '말테', 그것도 중간이지. '말테' 하는 사람이랑 모두 빌려서 말로 밟게 해.) 03 // ᄆᆞᆯ 만이 허는 사름ᄀᆞ라 ᄆᆞᆯ테허는 사름.(말 많이 하는 사람보고 'ᄆᆞᆯ테'하는 사람.) 12 [송당, 한동]

ᄆᆞᆯ퉁여: 표선면 표선리 바닷가의 여 이름 가운데 하나이다. // 원담 그 ᄆᆞᆯ퉁여는 원담 다 낫수다.(원담 그 'ᄆᆞᆯ퉁여'는 원담 쌓았었습니다.) 05 [표선]

ᄆᆞᆯ팟: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자연 마을이다. // ᄆᆞᆯ, ᄆᆞᆯ팟. 그 홍씨만 사는 디.(ᄆᆞᆯ, 'ᄆᆞᆯ팟'. 그 홍씨만 사는 데.) 36 [봉성]

ᄆᆞᆯ품: 말[馬]의 품삯이다. // ᄆᆞᆯ품은 물어사 ᄆᆞᆯ 빌려주는 거. 테우리가 잘 먹는 이유가게 그 ᄆᆞᆯ 빌려준 그 인정으로 잘 먹는 거 아니? ᄆᆞᆯ임제로.('말품'은 물어야 말 빌려주는 거. '테우리'가 잘 먹는 이유가 그 말 빌려준 그 인정으로 잘 먹는 거 아니? 말 임자로.) 14 [성읍]

ᄆᆞᆯ피: 논에 나는 잡초로 벼와 비슷하다. // 수확은양, 경 ᄒᆞ영 고고리 필 거 아니우꽈게? 경ᄒᆞ민 그 나록 말고, 나록 저 거세기 ᄆᆞᆯ피, 것ᄀᆞ라 ᄆᆞᆯ피옌 ᄒᆞᆸ니다. ᄆᆞᆯ피 뽑으레, 저 메레 뎅깁니다.(수확은요, 그렇게 해서 이삭 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벼 말고, 벼 저 거시기 'ᄆᆞᆯ피', 것더러 'ᄆᆞᆯ피'라고 합니다. 'ᄆᆞᆯ피' 뽑으러 저 매러 다닙니다.) 17 [대평]

ᄆᆞᆷ국: 돼지고기를 삶은 육수에 불린 모자반을 넣어 끓인 국을 말한다. 'ᄆᆞᆷ쿡', 'ᄆᆞᆯ망국', 'ᄆᆞᆯ망쿡'이라고도 한다. // 우리 헐 땐 아싯날 뒷날 먹엇잖아. 게난 아시날 ᄆᆞᆷ국 헤근에이 그 무신거 베설도 허는 거 닮아이.(우리 할 땐 전날 뒷날 먹었잖아. 그러니까 전날 'ᄆᆞᆷ국' 해서 그 뭐 창자도 하는 거 같아.) 30 // ᄆᆞᆷ국도 원 그대로 끌리메. 그것도이 우리 그 큰일 헐 때.('ᄆᆞᆷ국'도 원 그대로 끓여. 그것도 우리 그 큰일 할 때.) 31 // 이제도 막 저 잔치 때 막 셍각허영 끌리는 사름은 뻬 사당 딸령 ᄆᆞᆷ국 그추룩 끌리멍 내놈수게.(이제도 마구 저 잔치 때 아주 생각해서 끓이는 사람은 뼈 사다가 달여서 'ᄆᆞᆷ국' 그처럼 끓이면서 내놓고 있습니다.) 34 //

ᄆᆞᆷ국은게 쉐뼈나 딸려다 놓곡 허영 먹고.('ᄆᆞᆷ국'은 소뼈나 달여다 넣고 해서 먹고.) 35 [구억, 노형, 대림, 토평]

ᄆᆞᆷ자반: 모자반을 조금 짭짤하게 졸이거나 무쳐서 만든 반찬이다. 달리 'ᄆᆞᆷ차반'이라고 한다. // 거름으로 밧에도 거름으로 사용ᄒᆞ고 이렇게 ᄒᆞ고 ᄎᆞᆷᄆᆞᆷ ᄀᆞ튼 거는 ᄆᆞᆷ자반이라고 헤 가지고 ᄎᆞᆷᄆᆞᆷ 자반이라고 헤서 간장이나 뒌장 담으면 그 장물 잇잖아? (거름으로 밭에도 거름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ᄎᆞᆷᄆᆞᆷ' 같은 거는 'ᄆᆞᆷ자반'이라고 해 가지고 'ᄎᆞᆷᄆᆞᆷ' 자반이라고 해서 간장이나 된장 담그면 그 장물 있잖아?) 27 [웅포]

ᄆᆞᆷ차반: 모자반을 조금 짭짤하게 졸이거나 무쳐서 만든 반찬이다. // 자반, ᄆᆞᆷ차반이엔 헤근에 무쳥도 먹어. ᄂᆞᆯ채, ᄲᆞᆯ앙.(자반, 'ᄆᆞᆷ차반'이라고 해서 무쳐서도 먹어. 날짜 빨아서.) 20 [고내]

ᄆᆞᆷ치: 모자반으로 담근 장아찌이다. 주로 제주시 서쪽에서 많이 해 먹었다. 모자반장아찌를 말한다. 마른 모자반을 간장이나 된장에 담가서 짠 맛이 든 후에 먹는 반찬이다. 'ᄆᆞᆷ지', 'ᄆᆞᆷ치의', 'ᄆᆞᆷ지시', 'ᄆᆞᆷ치이'라고도 불린다. // 옛날은 차롱착에 밥헤영 보리밥 허영은에 ᄋᆞ라이 갈 땐 양착에 다 거령 탁 마주 착 부쳥 가근에 뒌장국 헤영 그것에 밥 먹고. ᄆᆞᆷ치에 반찬허고.(옛날은 채롱에 밥해서 보리밥 해서 여럿이 갈 땐 양쪽에 다 떠서 탁 마주 착 붙여서 가서 된장국 해서 그것에 밥 먹고. 모자반장아찌 반찬하고.) 19 // ᄆᆞᆷ 사다가 장 담을 때 ᄆᆞᆷ을 요만씩, 요만씩 몽크령 담앙 장 익으민 그 ᄆᆞᆷ치도 익으민 뭐 그거 큰 반찬이라. 그건 ᄆᆞᆷ치.(모자반 사다가 장 담글 때 모자반을 요만큼씩, 요만큼씩 뭉쳐서 담아서 장 익으면 그 모자반장아찌도 익으면 뭐 그거 큰 반찬이야. 그건 모자반장아찌.) 19 // 그거 그런 거 사당은에 그자 저 ᄆᆞᆷ치로 무쳐근에.(그거 그런 거 사다가 그저 저 모자반장아찌로 무쳐서.) 32 [덕수, 청수]

ᄆᆞᆷ컴질: 모자반처럼 생긴 김을 말한다. 'ᄆᆞᆷ쿨'이라고도 한다. // 겨울 검질은 ᄆᆞᆷ컴질이엔 허영 잔잔헌 거예, 그거허고 보리 검질은 대우리 같은 거, 쑥도 잇고, 그거 이십니다게.(겨울 김은 'ᄆᆞᆷ컴질'이라고 해서 잔잔한 거요, 그거하고 보리 김은 귀리 같은 거, 쑥도 있고, 그거 있습니다.) 34 // ᄆᆞᆷ컴질이라고 막 복삭허게 낭, 춘비 올라가믄 나는 거 잇수다.('ᄆᆞᆷ컴질'이라고 아주 많이 나서, 춘비 올라가면 나는 거 있습니다.) 34 [구억]

ᄆᆞᆷ쿡: 돼지고기를 삶은 육수에 불린 모자반을 넣어 끓인 국을 말한다. 달리 'ᄆᆞᆷ국', 'ᄆᆞᆯ망국', 'ᄆᆞᆯ망쿡'이라고 한다. // 국 허영 먹는 건, 기자 무 썰어 놩 국 헹 먹는 것도 싯곡, 그자. 콩국덜 끌령 먹곡. ᄆᆞᆷ쿡. 메역국. 콩나물국도 싯고.(국 해서 먹는 건, 그냥 무 썰어 놓고 국 해서 먹는 것도 있고, 그저. 콩국들 끌려 먹고. 모자반국. 미역국. 콩나물국도 있고.) 36 [봉성]

ᄆᆞᆷ크엥이: 게의 일종이다. // 또 그엥이도, 그엥이 잡을 땐 그 ᄆᆞᆷ크엥이라고 ᄒᆞ여. 존 그엥이덜이 이제 신디. 그걸 영 보말왓 전의라도 물이 싸기 시작ᄒᆞ믄 ᄉᆞ방에 자갈이

영 무룩ᄒᆞᆯ 거 아니우꽈?(또 게도, 게 잡을 땐 그 'ᄆᆞᆷ크엥이'라고 해. 잔 게들이 이제 있는데. 그걸 이렇게 고둥밭 전에라도 물이 써기 시작하면 사방에 자갈이 이렇게 뭉뚝할 거 아닙니까?) 28 [구엄]

ᄆᆞᆷ킹이: 게의 일종이다. // ᄆᆞᆷ킹이는 보통 물이 곧 쌍 곧 물 돌앗젠 ᄒᆞᆸ주게. 바당물 곧 싸 가믄, 에, 물 돌앗져, 영 ᄒᆞ멍 이제 물이 싸기 시작ᄒᆞ믄 요런 지름깅이 ᄀᆞ뜬 건 나와.('ᄆᆞᆷ킹이'는 보통 물이 곧 써서 곧 물 돌았다고 하지요. 바닷물 곧 써 가면에, 물 돌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이 썰기 시작하면 요런 '지름깅이' 같은 건 나와.) 28 [구엄]

ᄆᆞᆺ다: 짓찧어서 부스러뜨리다는 의미로 표준어 '마다'에 해당한다. 손이나 발 등 신체의 일부를 다치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나 요 손가레기 어릴 때, 돌로 ᄆᆞᆺ아부난에.(나 요 손가락 어릴 때, 돌로 'ᄆᆞᆺ아버려서'.) 24 [세화]

ᄆᆞᆼ셍이: 망아지이다. // 금승 ᄆᆞᆼ셍이만 ᄒᆞ는 거주.('금승' 망아지만 하는 거지.) 16 [하원]

ᄆᆞᆼ쿨락ᄒᆞ다: 손에 쥘 수 있을 만큼 자그마한 물건이 겉은 보드랍고 매끄러우면서도 속은 단단하다. // 난 이추룩 엿날에 벌ᄆᆞ작 ᄆᆞᆺ일 때 이추룩 안 헹 잘 ᄆᆞᆺ아. ᄆᆞᆼ쿨락ᄒᆞ게.(난 이처럼 옛날에 매듭단추 맺을 때 이처럼 안 해서 잘 맺어. 'ᄆᆞᆼ쿨락ᄒᆞ게'.) 15 [수망]

ㅂ

바가쓰: 영어 'basket'의 일본어식 발음 'バケツ'로 양동이를 말한다. // 그걸로 열 개 여산 헤영은엥이 바가쓰에 몃 개 영 놔보민 우리 물 바가쓰엔 족으난산디. 일곱 게 벳긴 안 들어.(그걸로 열 개 계산해서 '바가쓰'에 몇 개 이렇게 넣어보면 우리 물 '바가쓰'에는 작으니까인지. 일곱 개 밖에 안 들어.) 04 [고성]

바각바각바각: 액체가 끓는 모양이나 김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는 모양이다. // 그 막 바각바각바각 옆으로 짐 나와 불멍 떡이 부정 타난에 아니 뒈여가난.(그 막 '바각바각바각' 옆으로 김 나와 버리면서 떡이 부정 타니까 아니 되어가니까.) 23 [온평]

바굼지오름: 애월읍 하귀1리에 있는 오름이다. 달리 '파군봉'이라고도 한다. // 심지 못 허여 가지고 이젠 그게 또 넹견에 소레기동산으로 헤여 가지고 어디냐 허믄 바굼지오름. 파군봉꺼지 목까지 아이고, 틀렷다. 틀련, 보니까 거기 김○○라는 사름 잇엇는데 말여. 꿩코 보레 뎅기단에.(잡지 못 해 가지고 이젠 그게 또 지나서 '소레기동산'으로 해 가지고 어디냐 하면 '바굼지오름'. '파군봉'까지 목까지 아이고, 틀렸다. 틀렸어, 보니까 거기 김○○라는 사람 있었는데 말이야. '꿩코' 보러 다니다가.) 29 [외도]

바글바글: 벌레 따위가 아주 많은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우리 어린 때만 헤도 자리젓 강 꺼내레 강 보믄 버렝이가 바글바글 헤낫수다.(우리 어릴 때만 해도 자리젓 가서 꺼내러 가서 보면 벌레가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34 [구억]

바농벵뒤: 조천읍 교래리와 와흘리 경계에 있는 '바농오름' 북쪽에 있는 지명이다. // 저 바로 우에 바농벵뒤 강 그냥 올령 내버리곡.(저 바로 위에 '바농벵뒤' 가서 그냥 올려서 내버리고.) 21 [신촌]

바농쌍지: 바늘, 실, 골무, 헝겊 따위의 바느질 도구를 담는 그릇인 바느질고리이다. // 바농쌍지는 도구 다 놓는 거.('바농쌍지'는 도구 다 넣는 거.) 16 [하원]

바농오름: 조천읍 교래리와 와흘리의 경계에 위치한 오름이다. // 여기선 바른 디가 바농오름 잇는 데니까 바농오름 굽으로 올라강.(여기선 '바른' 데가 '바농오름' 있는 데니까 '바농오름' 밑으로 올라가서.) 21 // 바농오름은 뭐 나무가 벨로 엇고 그 우로 가야뒈.('바농오름'은 뭐 나무가 별로 없고 그 위로 가야돼.) 21 [신촌]

바농와치: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 바농질허는 사름, 바농질허는 사름이니까게 바농와치엔도 바농질허는 사름이주게.(바느질하는 사람, 바느질하는 사람이니까 '바농와치'라고도 바느질하는 사람이지.) 13 [삼달]

바눙쌍지: 바늘, 실, 골무, 헝겊 따위의 바느질 도구를 담는 그릇인 반짇고리이다. // 이녁ᄒᆞ단 행장 그레 놔근에 바눙쌍지에 놓멍 헷주.(이녁 하는 행장 거기에 놔서 '바눙쌍지'에 놓으면서 했지.) 07 [보목]

바눙질: 바느질을 말한다. // 바눙질 ᄒᆞ는 것이게, 이추룩 ᄒᆞ는 것이, 이거 안 이런 거 안 어신 것이 웨곱.('바눙질' 하는 것이, 이처럼 하는 것이, 이거 안 이런 거 안 없는 것이 홑겹.) 07 [보목]

바느질와치: 바느질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와치'는 '바치'와 같이 쓰이는 접미사로 잘하는 사람이다. // 건 아무사 아무나 못헤여 것도 바느질와치 잘ᄒᆞ는 사름이라사주.(건 아무야 아무나 못해 것도 '바느질와치' 잘하는 사람이어야지.) 16 [하원]

바닥바닥허다: 풀기가 있어서 뻣뻣한 모양이다. // 토멩지. 생멩지엔 헤근에 빠들락헌 바닥바닥헙디다, 저 멩지가. 생멩지엔 헌 건.('토멩지'. 생명주라고 해서 뻣뻣한 '바닥바닥헙디다', 저 명주가. 생명주라고 한 건.) 14 [성읍]

바당국: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로 끓인 국을 말한다. // 제사 같은 때엔 또 바당국 먹곡 경헷수다게.(제사 같은 때엔 또 '바당국' 먹고 그랬습니다.) 32 [덕수]

바당벵: 바다 일을 하면서 얻은 질병이다. 달리 '붓는몸살'이라고 한다. // 겐디 그거 아프기 시작허민 막 멧 시간 동안은 대게 얼먹주, 것ᄀᆞ라 허민 바당벵엔 헙니다.(그런데 그거 아프기 시작하면 막 몇 시간 동안은 대게 언걸먹지, 것보고 하면 '바당벵'이라고 합니다.) 23 [온평]

바대: 솥에 무엇을 찔 때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받침으로 놓는 물건인 겅그레의 의미로 쓰였다. 보통 다른 물건의 밑에 대는 '받침'의 의미로 쓰이는데 옷에서는 쉽게 해지는 곳에 헝겊 등을 덧붙이는 헝겊을 가리키기도 한다. // ᄑᆞᆺ쉴 담으나 콩쉴 담으나, 경 허곡 요즘은 설탕도 놧더라. 이디 헤영 영영영 멘졍은에 송펜 영 ᄌᆞᆸ앙인에 잇당 놧당 바대에 놩인에 치는 것ᄀᆞ라 송펜.(팥소를 담거나 콩소를 담거나, 그렇게 하고 요즘은 설탕도 놨더라. 여기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져서 송편 이렇게 접어서 있다가 놨다가 '바대'에 놔서 찌는 것보고 송편.) 33 [인성]

바둑: 공간적인 또는 추상적인 일정한 자리나 지역을 말한다. // 만약 ᄌᆞᆯ르게 뒈면 그 눈 나는 바둑이 잇어. 그것만 ᄌᆞᆯ라지게 헤도 뒈주만은 그렇게 ᄌᆞᆯ랑 뭣 허당은 썩어불고.(만약 자르게 되면 그 눈 나는 '바둑'이 있어. 그것만 잘리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잘라서 뭐 했다가는 썩어 버리고.) 20 // 영 ᄀᆞᆯ겡이로 긁어 놩, 긁어 놩 이젠 바둑, 바둑이 씨 ᄒᆞᆫ 방울씩 들이쳥 놔두면 나는 거난.(이렇게 호미로 긁어 놔서, 긁어 놔서 이젠 '바둑', '바둑'에 씨 한 방울씩 들이쳐서 놔두면 나는 거니까.) 20 [고내]

바둑: 그러모은 솔잎이나 고구마줄 등을 한데 모아 놓은 덩이를 세는 단위이다. // 그렇게 안아다가 요레 톡 놓고 ᄒᆞᆫ 바둑이렌 허여.(그렇게 안아다가 요리 톡 놓고 한 '바둑'이라고 해.) 06 // 비영 걷엉 영영 뭉쳐 놩 바둑 바둑이 뭉쳐 놔두고 ᄀᆞᆯ겡이로 파.(베어서 걷어서 이렇게 이렇게 뭉쳐 놔서 '바둑' '바둑'이 뭉쳐 놔두고 호미로 파.) 20 [고내, 남원]

바둑: 누에알이 들어 있는 일정 크기의 판을 세는 단위이다. // 그런 디 강. 나는 어무니가

허는 걸 따라서 보는디. 똑 요만이 헌 걸 가져와. 그것이 이름이 ᄒᆞᆫ 바둑이라. ᄒᆞᆫ 바둑.(그런 데 가서. 나는 어머니가 하는 걸 따라서 보는데. 똑 요만큼 한 걸 가져와. 그것이 이름이 한 '바둑'이야. 한 '바둑'.) 06 // 누에는 이 저 어디서 청구ᄒᆞ민은 ᄒᆞᆫ 멧 바둑ᄒᆞ민 그 일곱 바둑이여 세 바둑이여 ᄒᆞ는 거 멧 개 나오는 거라.(누에는 이 저 어디서 청구하면 한 몇 '바둑'하면 그 일곱 '바둑'이다 세 '바둑'이다 하는 몇 개 나오는 거야.) 15 // ᄒᆞᆫ 메틀 시멘 깨울 때 뒈민 거 파싹ᄒᆞ게 씨 영 무시거 헨 바둑 덴 것에서 그 누에가 나와.(한 며칠 있으면 깨울 때 되면 거 파삭하게 씨 이렇게 뭐 해서 '바둑' 댄 것에서 그 누에가 나와.) 15 [남원, 수망]

바둑: 소라 따위의 살을 보호하는 단단한 뚜껑이다. 지역에 따라 '돈', '장군', '장귀'라 한다. // 거 바둑이 딴딴헌 거.(거 '바둑'이 딴딴한 거.) 05 // 고동 바둑, 바둑 이서, 동글랑헌 거.(소라 '바둑', '바둑' 있어, 동그란 거.) 13 [삼달, 표선]

바드렝이: 겅그레의 제주어이다. 떡 같은 것을 찔 때 떡이 솥에 넣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바치는 것으로 달리 '떡징'라고도 한다. // 바드렝이 잇주만은 그거 바드렝이 엇이민 솟디 물ᄒᆞ고, 떡ᄒᆞ고 영 받청은에 ᄒᆞᆯ 거 아니?('바드렝이' 있지만 그거 '바드렝이' 없으면 솥에 물하고, 떡하고 이렇게 받쳐서 할 거 아니?) 16 [하원]

바라: 일본어 'ばら'에서 온 말로 낱개의 의미이다. // 그건이 이제 엿날 그냥 바라로 쉐 키울 때는 그런 것가 엇어낫는데 부룽이 더러 ᄑᆞᆯ아불곡 허민 엇어난디.(그것은 이제 옛날 그냥 '바라'로 소 키울 때는 그런 것이 없었었는데 부룩소 더러 팔아버리고 하면 없었는데.) 02 // 좁씬 그냥 바라로 삐어.('좁씨'는 그냥 '바라'로 뿌려.) 02 // 저추룩 ᄑᆞ는 거 ᄀᆞ친 안 헤도 바라로 놩 놔두민 심을 만치 뒈여.(저처럼 파는 거 같이는 안 해도 '바라'로 놓고 놔두면 심을 만큼 돼.) 06 [남원, 선흘]

바락: 갑자기 물건을 한쪽으로 밀쳐버리는 모양이다. // ᄀᆞ루 쳐당, 이젠 그걸 쪙 멘들아, 고냥 나게 오메기 이만씩 오메기 고냥 나게 멘들앙 ᄉᆞᆯ뭅디다. 솟듸 바락 발탁ᄒᆞ게.(가루 쳐다가, 이젠 그것을 쪄서 만들어, 구멍 나게 '오메기' 이만큼씩 '오메기' 구멍 나게 만들어서 삶습디다. 솥에 '바락' 축축하게.) 17 [대평]

바락허다: 갑자기 물건을 한쪽으로 밀쳐버리다는 뜻이다. // 이제 나 가고 허니까 그 항을 바락허게 벌러 불엿어.(이제 나 가고 하니까 그 항아리를 '바락허게' 깨 버렸어.) 23 [온평]

바량밧: 농사를 쉬면서 마소를 밭 안으로 들여 똥을 싸게 하고, 그 똥을 거름이 되게 하여 땅을 기름지게 돋우는 밭이다. // 재미난 기억은 아니 나고, 산디 ᄒᆞ레 간 보난 쉐덜 들언 막 바량밧 헤부난 머.(재미난 기억은 아니 나고, 밭벼 하러 가서 보니까 소들 들언 막 '바량밧' 해 버리니까 뭐.) 08 [동광]

바레기: 소나 말이 끄는 달구지를 말한다. // ᄆᆞᆯ 헤영 바레기. 간혹 가당 쉐로도 한 데도 잇어.(말 해서 '바레기'. 간혹 가다가 소로도 한 데도 있어.) 05 // 게난 그 바레

기로 시끄민 바레기 ᄒᆞ나에 열 바리도 시끄고 경허난. 바레기도 시끄멍 ᄂᆞ리고 허난.(그러니까 그 '바레기'로 실으면 '바레기' 하나에 열 바리도 싣고 그러니까. '바레기'도 실으면서 내리고 하니까.) 25 // 엿날 바쿠 이만은 둥그랑헌 거, 큰큰헌 거, 그런 거 끗는 거 봣지? ᄆᆞ쉬덜 허영, 그런 거. 것ᄀᆞ라 바레기, 옛날에.(옛날 바퀴 이만큼 둥그런 거, 크디큰 거, 그런 거 끄는 거 봤지? 마소들 해서, 그런 거. 그것보고 '바레기', 옛날에.) 25 [온평, 표선, 태흥]

바령: 농사를 쉬면서 마소를 밭 안으로 들여 똥을 싸게 하고, 그 똥을 거름이 되게 하여 땅을 기름지게 돋우는 것이다. // 칠월에 백중. 백중 그거 바령 뭣이 허는 사름들은 백중하곡 바령 뭐시 안 허는 사름은 안 허곡.(칠월에 백중. 백중 그거 '바령' 뭐 하는 사람들이 백중하고 '바령' 뭐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03 // 밤읜 밧듸 ᄆᆞ쉬 들여근에 직허민 바령 직험이엔 허영 밧듸 담에염에 그거 써근에 좀자곡 그렇게 헤연에 살아신디.(밤엔 밭에 마소 들여서 지키면 '바령' 지킴이라고 해서 밭에 '담에염'에 그거 써서 잠자고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14 // 바령ᄒᆞ민 바령, 그디에 오줌도 싸놓고 똥도 싸놓고 ᄒᆞᆫ 메틀 경 그 밧듸 바령 들이면은 그 밧이 걸엉 농사가 잘 뒈고, 경헨 살안.('바령ᄒᆞ민' '바령', 거기에 오줌도 싸놓고 똥도 싸놓고 한 며칠 그렇게 그 밭에 '바령' 들이면 그 밭이 걸어서 농사가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살았어.) 15 // 이제 오늘은 소를 누구가 멕일 거고, 내일은 누구가 멕일 거고 예를 들어 여름에는 바령을 헷거든.(이제 오늘은 소를 누구가 먹일 거고, 내일은 누구가 먹일 거고 예를 들어 여름에는 '바령'을 했거든.) 23 [고내, 고성, 성읍, 송당, 수망, 온평, 외도]

바령밧: 농사를 쉬면서 마소를 밭 안으로 들여 똥을 싸게 하고, 그 똥을 거름이 되게 하여 땅을 기름지게 돋우는 밭이다. // 밤에는 바령밧이라고 헌 디 어디 도망가지 못허게 그 바령밧디 영 놓면은 당번헤서 뒷날은 딴 사름이 강, 딴 사름이 강.(밤에는 '바령밧'이라고 하는 데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그 '바령밧'에 이렇게 놓으면 당번해서 뒷날은 딴 사람이 가서, 딴 사람이 가서.) 12 // 소 갖다 멕이고 와서 바령밧 주인안테 그거를 넘겨줘.(소 갖다 먹이고 와서 '바령밧' 주인한테 그거를 넘겨줘.) 23 // ᄆᆞᆯ덜은 놩 질롸나민 ᄆᆞᆯ 오줌 싸고 똥 오줌 싸고 허민 그것이 거는 거라, 엿날은. 겨울에 거기서 촐 주곡 그 밧듸 살멍 오줌 싸고 똥 싸고 헤나민 바령밧, 바령밧 허여.(말들은 풀어서 기르면 말 오줌 싸고 똥 오줌 싸고 하면 그것이 거는 거야, 옛날은. 겨울에 거기서 꼴 주고 그 밭에 살면서 오줌 싸고 똥 싸고 하고 나면 '바령밧', '바령밧' 해.) 25 // 쉐도 멧 바리 그추룩 헤낫저게, 옛날은. 바령밧, 바령밧. ᄆᆞᆯ 여남은 개, 댓 개 잇어 가민 기자 그 집이 ᄆᆞᆯ이 멧 마리 바령밧.(소도 몇 바리 그처럼 했었어, 옛날은. '바령밧', '바령밧'. 말 여남은 개, 댓 개 이어 가면 그저 그 집에 말이 몇 마리 '바령밧'.) 31 [세화, 온평, 태흥, 토평, 한동]

바르: 흔히 '오분자기'를 이르는 말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전복 새끼라고 설명하고 있다. // 영 돌 트멍에 ᄒᆞ끔씩 헌 점복 아니 그건 바르.(이렇게 돌 틈에 조금씩 한 전

복 아니 그건 '바르'.) 18 // 전복 새끼ᄀᆞ라 바르.(전복 새끼보고 '바르'.) 33 // 물천이엔 헌 건 보말이고, 바르고, 물꾸럭이고 닥치는 냥 심엉인에 와.('물천'이라고 한 건 고둥이고, '바르'고, 문어고 닥치는 대로 잡아서 와.) 33 [신도, 인성]

바르르허다: 물이 끓어 넘치는 모습이다. // 영 솟덕 앚졍 밥허당 바르르허게 부끄면은이 이젠 두껑 ᄋᆞᆯ앗당 두껑 더꺼뒁 불을 꺼불어이.(이렇게 봇돌 안쳐서 밥하다가 '바르르허게' '부끄면은이' 이젠 뚜껑 열었다가 뚜껑 덮어두고 불을 꺼버려.) 11 [함덕]

바르르허다: 밥이 차진 기가 없어서 밥알이 흩어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엿날은 요거 보리쏠 ᄒᆞ나민 두 쪽으로 쪼개진 거라도 어렵주게. 경헨에 ᄑᆞᆯᄑᆞᆯ허지 안허영 바르르허게시리 다 밥이 영 벙뎅이지지도 안허여.(옛날은 요거 보리쌀 하나면 두 쪽으로 쪼개진 거라도 어렵지. 그래서 'ᄑᆞᆯᄑᆞᆯ허지' 않고 '바르르허게시리' 다 밥이 이렇게 덩어리지지도 않아.) 31 [토평]

바른베기: 소의 뿔 모양으로 앞으로 바르게 자란 형태의 뿔을 말한다. // 저짝뿔이엔 허고 바른베기라 헤 가지고 앞으로 영 숙여진 뿔도 잇고.('저짝뿔'이라고 하고 '바른베기'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숙인 뿔도 있고.) 35 [대림]

바릇잡다: 바닷가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다는 뜻이다. // 그 헤벤 사름들 보니까 바릇잡아 먹으레 갯ᄀᆞ이를 가질 안 헙디다.(그 해변 사람들 보니까 '바릇잡아' 먹으러 갯가에 가지를 않습니다.) 03 [송당]

바릇줄: 바닷고기를 낚기 위해서 매는 줄이다. // 네 젓어가믄 그 ᄒᆞᆫ 사름은 네 젓곡, 둘이 강 헤도 이제 줄을 이렇게 메영은에 양쪽에 그 바릇줄 메영 그 저레 젓어가는 양 이제 ᄒᆞ믄 갈치 문 건 벌써 ᄎᆞᆷ대가 오그라질 거 아니우꽈?(노 저어가면 그 한 사람은 노 젓고, 둘이 가서 해도 이제 줄을 이렇게 매어서 양쪽에 그 '바릇줄' 매어서 그 저리 저어가는 대로 이제 하면 갈치 문 건 벌써 낚싯대가 오그라질 거 아닙니까?) 28 [구엄]

바릇찹다: 바닷가 돌밭에서 소라, 성게 따위를 잡다라는 뜻이다. // ᄀᆞ디로 강 그냥 바릇찹앗젠 헹 바릇덜 잡으레 갓당.(가로 가서 그냥 '바릇찹앗젠' 해서 '바릇'들 잡으러 갔다가.) 20 [고내]

바릇칠허다: 바다에서 물고기나 해산물 따위를 잡다라는 뜻이다. // 나 밑으로 세 성지, 나 너 오누이 살안. 게난 경헨 헌디 엿날에 다 가난헷주만은게, 아부진 바릇칠허고 어무닌 물질허고.(내 밑으로 세 형제, 나 네 오누이 살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 다 가난했지만, 아버진 '바릇칠허고' 어머닌 물질하고.) 20 [고내]

바리: 마소 한 마리가 등에 실어 나를만한 무게의 분량이다. 묶음이나 단을 나타내는 수량 단위이다. // 촐 그때 세 바린가, 네 바린가 ᄒᆞ영 ᄒᆞ여 놔둔 거 강 베려보난 오꼿 시꺼가불언게.(꼴 그때 세 바리인가, 네 바리인가 해서 하여 놔둔 거 가서 봐 보니까 '오꼿' 실어가 버렸어.) 08 // 망탱이에 걸름착에 담아근에 쉐 ᄒᆞ나에 시끄는 게 ᄒᆞᆫ 바리거든. 저 걸름착 두 개에 ᄒᆞᆫ 바리니까, 백 바리옌 ᄒᆞ면은 이게

이백 개 ᄒᆞ여야 백 바리라. 게난 부재칩은 걸름도 백 바리, 이백 바리 햇거든.('망탱이'에 '걸름착'에 담아서 소 하나에 싣는 게 한 바리거든. 저 '걸름착' 두 개에 한 바리니까, 백 바리라고 하면은 이게 이백 개 하여야 백 바리다. 그러니까 부잣집은 거름도 백 바리, 이백 바리 했거든.) 08 // 시꺼오는 거, 무꺼근에 바리 벌영 시꺼오주게.(실어오는 거, 묶어서 바리 벌여서 실어오지.) 17 // 조그만이 멧 바리 ᄒᆞ민 눌터를 족게 만들곡, 촐이 하민 눌터를 크게 멘들주게.(조그만큼 몇 바리 하면 '눌터'를 작게 만들고, 꼴이 많으면 '눌터'를 크게 만들지.) 17 [대평, 동광]

바리: '바르'를 말하고 있고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말한다. // 바리, 바리, 바리. 불 싸근에 가는 거.('바리', '바리', '바리.' 불 켜서 가는 거.) 22 [우도]

바리: 말의 수효를 셀 때 쓰는 단위, 즉 '마리'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 경 헤연 쉐 촞아완. 일곱 바리, 일곱 바리, 쉐.(그렇게 해서 소 찾아왔어. 일곱 '바리', 일곱 '바리', 소.) 29 [외도]

바리메: 애월읍 봉성리 평화로변에 있는 오름이다. 바리를 엎어 놓은 형태이다. // 이디 가민 저디 바리메 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새쉐 ᄀᆞ르치젠 허면은, 진 낭헤영 그, 저, 끗엉 와.(여기 가면 저기 '바리메' 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새쉐' 가르치려고 하면은, 긴 나무해서 그, 저, 끌고 와.) 36 [봉성]

바릿잡다: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을 채취하러 가는 일을 말한다. // 바릿잡으레 가자. 웨냐면 보말 잡으레 가는 것도 저 바릿이엔 허고.('바릿잡으레' 가자. 왜냐하면 고둥 잡으러 가는 것도 저 '바릿'이라고 하고.) 22 [우도]

바메기: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바메기는 큰바메기와 작은바메기 두 개의 오름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알밤오름', '웃밤오름'으로도 불린다. // 선흘 바메기라고 헤 가지고 족은바메기, 큰바메기 영허난 우린 선흘 건 중만 알앗거든.(선흘 '바메기'라고 해 가지고 '족은바메기', '큰바메기' 이렇게 하니까 우린 선흘 것인 줄만 알았거든.) 02 // 교래리 가는 디. 그 뭐 많지 뭐. 바메기오름, 울오름 보통으로 갓엇주.('교래리' 가는 데. 그 뭐 많지 뭐. '바메기오름', '울오름' 보통으로 갔었지.) 21 [선흘, 신촌]

바수다: 칼이나 창끝을 갈거나 두드려서 날카롭고 뾰족하게 만든다라는 뜻이다. // 철창은 그루후제 철창이 나고 그때는 왕대 요만은 진 거 허여근에 고쟁이 꼬짝 바수앗어.(철창은 '그루후제' 철창이 나고 그때는 왕대 요만큼 긴 거 해서 꼬챙이 곧추 '바수앗어'.) 25 [태흥]

바싹바싹: 아주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의 모양이다. // 그 막 그거 ᄆᆞᆯ젠 허민 손이 바싹바싹 떼불어이.(그 막 그거 반죽하려고 하면 손이 '바싹바싹' 뜨거워.) 11 // 바싹바싹 데게 헤사 그 반죽이 잘 뒈어근에게 떡 만들아도 헤싸지지 안허지.('바싹바싹' 데게 해야 그 반죽이 잘 되어서 떡 만들어도 '헤싸지지' 않지.) 11 [함덕]

바우: 멱둥구미나 바구니 따위의 가장자리이다. // 그 삼 헤여근에 영 헤여근에 이런 그 바

우에 다 그런 걸로.(그 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바우'에 다 그런 걸로.) 22 [우도]

바우드렁: 우도면의 한 지명이다. // 바위가 이렇게 둥구렇게 뒈 잇서. 바우드렁에 꼭 달ᄀᆞ치.(바위가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어. '바우드렁'에 꼭 달 같이.) 22 [우도]

바위꼬지: 대나무를 얇게 깎아 만든 대꼬챙이이다. // 대를 달롸가지고 깨난에게 적고지 만들앙 꿰난 바위꼬지.(대를 다뤄가지고 깨니까 적꼬치 만들어서 꿰니까 '바위꼬지'.) 14 [성읍]

바이다: 일본어 '베니다(べにいた)'에서 온 말로 합판을 가리킨다. // 그디 살민, 바이다 아래 그 재단ᄒᆞ는 그 우이 상 그 아래 바이다엔 허여. 그 아래 요 ᄀᆞᆯ앙 자, 나가. 방 엇으난게.(거기 살면, '바이다' 아래 그 재단하는 그 위에 서서 그 아래 '바이다'라고 해. 그 아래 요 깔아서 자, 내가. 방 없으니까.) 30 [노형]

바지게: 싸리나 대오리 따위로 만든 발채를 얹어 놓은 지게이다. // 미역 허제 헌덴 막 바지개영 막 준비헤영 가면은.(미역 '허제' 한다고 마구 '바지게'랑 마구 준비해서 가면.) 05 [표선]

바짝허다: 싹이 뾰족하게 난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 ᄂᆞᆯ보리. 이제 그거 헨에 비 오람직허민 무꺼야 헐 거 아니냐? 경 안 허민 보리 바짝허게 우리 ᄆᆞᆫ 나낫저게.(날보리. 이제 그거 해서 비 올 것 같으면 묶어야 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보리 '바짝허게' 우리 모두 났었어.) 31 [토평]

박삭: 풀 등이 사이가 촘촘하게 아주 많이 난 모양을 나타낸다. // 검질 씨진 밧은 박삭 나곡 걸류와 놓곡 헤놓민이 감젠 그냥 싱거도 안 뒈난 비료 줭 싱거줘사 헌다게.(김 씨 있는 밭은 '박삭' 나고 '걸류와' 놓고 하면 고구만 그냥 심어도 안 되니까 비료 줘서 심어줘야 한다.) 10 // 거 뜻게 헹 놔두민 박삭 튼다게. 것이 누룩이라.(거 따뜻하게 해서 놔두면 '박삭' 튼다. 것이 누룩이야.) 31 [월령, 토평]

박삭: 풀 등이 사이가 촘촘하게 아주 많이 난 모양이다. 여기서는 거품이 많이 올라온 모습을 나타냈다. // 경허영 베이킹파우다 영허영 캉 영 놓민 그것이 게끔 북깍허멍 박삭 올라와.(그래서 베이킹파우더 이렇게 타서 이렇게 넣으면 그것이 거품 보각보각하면서 '박삭' 올라와.) 26 [신창]

박삭허다: 풀이 빽빽하게 나다. // 저건 이제 커 가사 박삭허게 크민 박삭헌 것이 이만씩 허고.(저건 이제 커 가야 '박삭허게' 크면 '박삭헌' 것이 이만큼씩 하고.) 11 [함덕]

박서방통: 우도면 천진리에 소재한 곳이다. // 게민 동네사름도 거기 강. 거기 박서방통이엔 헌 통이라.(그러면 동네사람도 거기 가서. 거기 '박서방통'이라고 한 통이야.) 22 [우도]

박수: 안덕면 대평리 해안가에 있는 절벽이다. '박수덕이', '박수기정'이라고도 한다. // 경ᄒᆞ연 그 마궁물 넘어가민 그자 박수, 박수덕이, 고기 나끄는 사름 살멍 고기 나깡 갑주게.(그렇게 하여서 그 '마궁물' 넘어가면 그저 '박수', '박수덕이', 고기 낚

는 사람 살면서 고기 낚아서 가지요.) 17 [대평]

박싹허다: 사이가 촘촘하게 아주 많이 난 모양이나 솜 따위가 부풀어 오르다. // 그걸 초석 꼴앙 이디 놩 대 헤근에 수리대 요만큼헌 거 헤근에 세 갤 헤영 무꺼놩 탁탁탁탁 두드려 가민 영 영 영허멍 두드려 가민 소게가 박싹허주게.(그걸 초석 깔아서 여기 놔서 대 해서 '수리대' 요만큼한 거 해서 세 갤 해서 묶어놔 탁탁탁탁 두드려 가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두드려 가면 솜이 '박싹허주게'.) 13 // 겐 옛날은 그 소게 타는 거 엇으난 영 두드령 허민 박싹헤여.(그래서 옛날은 그 솜 타는 거 없으니까 이렇게 두드려서 하면 '박싹헤여'.) 13 [삼달]

박작박작허다: 쌀 따위가 차지지 않고 거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모인좁쌀이난이 박작박작헨 ᄒᆞ꼼 흐린 거 서끄지도 안허곡 허난이.(메좁쌀이니까 '박작박작헨' 조금 차진 거 섞지도 않고 하니까.) 30 [노형]

박죽: 탕건을 결을 때 탕건 골의 윗부분을 고정시키는 연장으로 박을 잘라서 만든다. // 박죽이엔 헌 게 이서. 요디 요디 톡허게 맞게시리 콕박으로 멘들앙 박죽.('박죽'이라고 한 게 있어. 요기 요기 톡하게 맞게끔 '콕박'으로 만들어서 '박죽'.) 02 // 이거 석 동 반을 뭇이면은 또 이레 강 마무리 지웁젠 헐 땐 그 박죽을 빼불어.(이거 석 동 반을 마치면 또 이리 가서 마무리 지으려고 할 땐 그 '박죽'을 빼버려.) 11 // 박죽 뺑 이젠 요디 또 바투는 대가 이서낫어.('박죽' 빼서 이젠 요기 또 받치는 대가 있었어.) 11 [선흘, 함덕]

박하물: 성산읍 온평리 경지에 있는 물을 말한다. // 여름에는 박하가 이파리 막 왕성허니까 그 물을 뭐 헴젠 허면은 우선 그거 멕이라, 박하물 헤영 멕이라 헤 가지고.(여름에는 박하가 이파리 아주 왕성하니까 그 물을 뭐 하고 있다고 하면 우선 그거 먹여라, '박하물' 해서 먹여라 해 가지고.) 23 [온평]

반검질: 억새 따위의 풀이 누렇게 바랬을 때 '장만해' 놓은 것이다. // 가을에 이 억새를 막 반 때 헌 게 거 옛날 이디 반검질이엔 허영 걸 비여당은에 눌엇당 그거 일 년 내낭 눌엇당 걸로 밥헹 먹고.(가을에 이 억새를 아주 반 때 한 게 거 옛날 여기 '반검질'이라고 해서 걸 베어다가 가리었다가 그거 일 년 내내 가리었다가 걸로 밥해서 먹고.) 14 [성읍]

반나신: 남자들이 신는 덧신처럼 생긴 신이다. // 나막신은 그 저 목수들이, 목수라도 특이헌 목수덜에 파는 건데, 나무에 코도 부찌고 헹은에 아까 반나신 모냥으로, 그추룩 팡, 소곱을 나무 뚤르멍 소곱을 팝주기.(나막신은 그 저 목수들이, 목수라도 특이한 목수들이 파는 건데, 나무에 코도 붙이고 해서 아까 '반나신' 모양으로, 그처럼 파서, 속을 나무 뚫으면서 속을 파지요.) 35 // 그 걸리는 것이 이디 저 반나신ᄀᆞ찌 저 그 목수가 제작헙주게. 안네 발 들어가게.(그 걸리는 것이 여기 저 '반나신'같이 저 목수가 제작하지요. 안에 발 들어가게.) 35 [대림]

반못: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연못 이름이다. // 반못으로 안트레 이제 저 ○○이 아방네 벌 놓는 디 목시물굴, 목시물.('반못'으로 안으로 이제 저 ○○이 아버지네 벌 놓는

데 ‘목시물굴’, ‘목시물’.) 02 [선흘]

반싱: ‘반승(半升)’으로 반 되 크기의 되를 말한다. // 경 허난 저 그때 경 ᄀᆞᆯ아낫어. 자리젓이나 멜젓이나 ᄀᆞ뜨난 저 멜젓 ᄒᆞᆫ 말, 자리젓, 자리젓이나 멜젓이나 ᄒᆞᆫ 말에 소금 저 반싱 하나.(그렇게 하니까 저 그때 그렇게 말했었어. 자리젓이나 멸치젓이나 같으니까 저 멸치젓 한 말, 자리젓, 자리젓이나 멸치젓이나 한 말에 소금 저 ‘반싱’ 하나.) 29 [외도]

반오장: 반회장이라는 말로 깃, 고름, 끝동에 다른 색의 천을 대어 지은 여자의 저고리인 반회장저고리이다. // 여자 거는 반오장 허젠 허민 요런 색깔 빨간 거 요디 놓민 짓도 ᄀᆞ찌 빨간 걸로 짓 ᄃᆞᆯ아 주고.(여자 거는 ‘반오장’ 하려고 하면 요런 색깔 빨간 거 요기 놓으면 깃도 같이 빨간 걸로 깃 달아 주고.) 11 [함덕]

반제펜: 제를 지낼 때 쓰는 시루떡을 만드는데 한 쪽은 쌀가루로, 한 쪽은 좁쌀가루 등을 넣어 만든 것이다. // 반제펜 경 허영 허고. 세미 인절미. 엿날 송편은 안 허더라.(‘반제펜’ 그렇게 해서 하고. ‘세미’ ‘인절미’. 옛날 송편은 안 하더라.) 26 // 제펜. 또 좁썰 반착 곤썰 반착 헌 건 반제펜.(‘제펜’. 또 좁쌀 반쪽 흰쌀 반쪽 한 건 ‘반제펜’.) 26 [신창]

반지기: 두 가지 쌀을 반씩 넣어서 지은 밥을 말한다. 주로 보리쌀이나 좁쌀에 볍쌀이나 밭벼쌀을 섞어서 지은 밥을 가리킨다. 달리 ‘반지기밥’, ‘반제기’라고도 한다. // 이디는 백멘디 이디는 반지기라.(여기는 ‘백메’인데 여기는 ‘반지기’야.) 14 // 반지기엔 헌 거는 보리썰에 곤썰게, 좁썰에 곤썰이나. 서끄는 것이 반지기.(‘반지기’라고 하는 거는 보리쌀에 흰쌀, 좁쌀에 흰쌀이나. 섞는 것이 ‘반지기’.) 20 // 반지기엔 헌 건 그게 그 말이주기. 그 보리ᄊᆞᆯ에 좁썰에 거세기 허영 반지기.(‘반지기’라고 한 건 그게 그 말이지. 그 보리쌀에 좁쌀에 거시기 해서 ‘반지기’.) 29 // 저 그 곤ᄊᆞᆯ 놓곡 보리ᄊᆞᆯ 놓고 것ᄀᆞ라 반지기옌 헙니다.(저 그 흰쌀 넣고 보리쌀 넣고 것보고 ‘반지기’라고 합니다.) 32 [고내, 덕수, 성읍, 외도]

반지기밥: 두 가지 쌀을 반씩 넣어서 지은 밥을 말한다. 주로 보리쌀이나 좁쌀에 볍쌀이나 밭벼쌀을 섞어서 지은 밥을 가리킨다. // 반지기밥은 보리ᄊᆞᆯ 놔근에 ᄉᆞᆷ당 어느 정도 ᄉᆞᆲ아지민 곤ᄊᆞᆯ 서꺼. 곤ᄊᆞᆯ 서꺼근에 ᄒᆞᄊᆞᆯ ᄉᆞᆷ다근에 내불민 틈 자민 영영 ᄒᆞ여근에 젓엉 먹으민 것이 반지기밥, 것이 반지기밥.(‘반지기밥’은 보리쌀 넣어서 때다가 어느 정도 삶아지면 흰쌀 섞어. 흰쌀 섞어서 조금 때다가 내버리면 뜸 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어서 먹으면 것이 ‘반지기밥’, 것이 ‘반지기밥’.) 08 // 반지기밥이옌 ᄒᆞᆫ 거는 흐린좁ᄊᆞᆯ에 곤ᄊᆞᆯ 논 것도 반지기밥, 보리ᄊᆞᆯ에 곤ᄊᆞᆯ 논 것도 반지기밥.(‘반지기밥’이라고 한 거는 차좁쌀에 흰쌀 넣은 것도 ‘반지기밥’, 보리쌀에 흰쌀 넣은 것도 ‘반지기밥’.) 17 // 반지기밥엔 헌 건 서꺼진 것이 반지기밥이주. 감저도 놓고 막 여라 가지 논 게 반지기밥.(‘반지기밥’이라고 한 건 섞인 것이 ‘반지기밥’이지. 고구마도 넣고 아주 여러 가지 놓은 게 ‘반지기밥’.) 23 // 보리밥 궤민 바르르 궬 때 ᄊᆞᆯ ᄒᆞ꼼 씻엉 놓민 반지기밥이주게.(보리밥 끓

으면 바르르 끓을 때 쌀 조금 씻어서 넣으면 '반지기밥'이지.) 26 [고내, 고산, 구억, 구엄, 남원, 노형, 대평, 동광, 봉성, 신창, 온평, 옹포, 우도, 토평, 표선, 하원, 한동]

반질레기: 무엇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가른 것을 이른다. // 겐디 조하곡 피하곡 반질레기 서꺼은엥 간다, 영헷어.(그런데 조하고 피하고 '반질레기' 섞어서 간다, 이렇게 했어.) 03 // 츤흑도 아니고 뜬흑도 아니고 허난 반질레기 뒈민 곡석이 잘뒈여.(찰흙도 아니고 '뜬흑'도 아니고 하니까 '반질레기' 되면 곡식이 잘돼.) 11 [송당, 함덕]

반찌릉허다: 구김살이나 울퉁불퉁한 데가 없고 반반하다. 여기서는 먼지나 어지러운 것이 없이 깨끗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 어디 밧듸 강오당 보민 엠에 거 문 짇고 흐민, 에염에 반찌릉헷주.(어디 밭에 오가다 보면 가에 것 모두 때버리고 하면, 가가 '반찌릉헷주'.) 15 [수망]

반찍: 씻은 듯이 아무것도 없는 모양이다. '펀찍'이라고도 한다. // 애기구덕에 밀 갈아 낭 밀칩헤여근엥이 반찍 털엉 저 물류왓당 톡흐게.(아기구덕에 밀 갈아 나서 밀짚해서 '반찍' 털어서. 저 말렸다가 톡하게.) 04 [고성]

반치: 파초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 그게 반치. 저디 시방 반치 잇주만은 그 반치 지시는 무맛인데.(그게 '반치'. 저기 시방 '반치' 있지만 그 '반치지시'는 무맛인데.) 03 [송당]

받은덜: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달이다. // 그자 아기 날 덜, 받은덜 뒛젠 헤영. 옛날은 기자 그 애기 날 때 뒌 거, 여정일이엔 허는디 그땐 받은덜.(그저 아기 낳을 달, '받은덜' 되었다고 해서. 옛날은 그저 그 아기 낳을 때 된 거, 예정일이라고 하는데 그땐 '받은덜'.) 06 [남원]

받이펭: 술을 고아 낼 적에 소줏고리에 대는 병이다. // 고소리를 아쩡 그 솟광 그 고소리 새에 가로무친 거 헤가지고 딱 막앙 저 막아가지고 우에 물 놓고 받는 것이 받이펭이라고 헤서 이제 고소리줏더레 ᄀᆞ져 강 찔르면은 그레 그 수증기라 헤서 펭더레 소주가 빠지거든.(소줏고리를 걸어 그 솥과 그 소줏고리 사이에 '가로무친' 거 해가지고 딱 막아서 저 막아가지고 위에 물 놓고 받는 것이 '받이펭'이라고 해서 이제 '고소리줏'에 가져 가서 찌르면 거기 그 수증기라 해서 병에 소주가 빠지거든.) 19 [청수]

발: 물에 불린 보리나 밀 따위에서 나는 싹을 말한다. // 밀 헤근에이 물 웃졍 영 놔두민 발 나와. 발 나오면은 물류와. 그것이 골이야.(밀 해서 물 '우쩡' 이렇게 놔두면 '발' 나와. '발' 나오면 말려. 그것이 엿기름이야.) 30 // 보리 이제 물우쩡 놧당. 물우쩡 놧당 발이 나. 물우쩡 자꾸 물 줘가민 발 나민, 보리 물에 컷당 건졍 발이 나민 이젠 자꾸 마다리에 놔둠서 물 ᄋᆞ져당 촉촉촉촉 뿌리민 발은 문저 나고 말째 이제 순 나는 거 이만썩 뽀족뽀족 나.(보리 이제 '물우쩡' 놨다가. '물우쩡' 놨다가 '발'이 나. '물우쩡' 자꾸 물 줘가면 '발' 나면, 보리 물에 담갔다가 건져

서 '발'이 나면 이젠 자꾸 마대에 놔두고 물 가져다가 촉촉촉촉 뿌리면 '발'은 먼저 나고 말째 이제 순 나는 거 이만큼씩 뾰족뾰족 나.) 33 [노형, 인성]

발내성: 무가에서 사용하는 떡인 '손내성'에 짝을 이루기 위해 나온 말인 듯하다. // 더겡이 쓰는 거ᄀᆞ라 무시거렌 허는디, 그런 거 이실 거라. 나 잊어비언. 대게 돌레떡이주. 돌레떡에 손내성, 발내성.(머리에 쓰는 것보고 뭐라고 하는데, 그런 거 있을 거야. 나 잊어버렸어. 대게 '돌레떡'이지. '돌레떡'에 '손내성', '발내성'.) 15 [수망]

발다: 담 위 같이 높고 좁은 데를 걸어가는 것을 말한다. // 게난 이 담 바난 말은 막 ᄀᆞᆯ아. 양○○이ᄀᆞ라 이 담 발렌 허민 잘 발켜.(그러니까 이 담 '바난' 말은 마구 말해. 양○○이보고 이 담 '발렌' 하면 잘 '발켜'.) 30 // 웨담을 막 발앙 저ᄁᆞ지 강 이레 오고. 게민 담 발아근에 낭에도 올라. 경허민 이디 ○○이 오렌 허민 낭 발아근에 이디 올라지켜. 경 담을 잘 발아낫덴.('웨담'을 마구 '발앙' 저까지 가서 이리 오고. 그럼 담 '발아근에' 나무에도 올라. 그러면 여기 ○○이 오라고 하면 나무 '발아근에' 여기 올라갈 수 있겠어. 그렇게 담을 잘 '발아낫덴'.) 30 // 그 폭낭 우의서 빙빙 발아마씸게.(그 팽나무 위에서 빙빙 '발아마씸게'.) 32 [노형, 덕수]

발다: 물이 스며들지 않고 흘러내린다는 의미이다. // ᄂᆞ람지 더펑. 죽 물 잘 발게 헤영.('ᄂᆞ람지' 덮어서. 죽 물 잘 '발게' 해서.) 04 [고성]

발라: 방향이나 쪽을 의미한다. // 그냥 ᄇᆞ름 발라 영 허민 뜨민 연 잘 떰젠 허영 높이 잘 뜨면.(그냥 바람 '발라' 이렇게 하면 뜨면 연 잘 뜬다고 해서 높이 잘 뜨면.) 02 [선흘]

발랑발랑: 점성이 있는 액체나 가루 따위가 한 덩어리가 되면서 굳어지는 모양이다. // 그냥 ᄂᆞ물이여, ᄂᆞ물 놔근에 ᄒᆞ꼼 발랑발랑 익어 가믄 그 우터레 놓믄 경헤근에 우린 그냥 경헨 끌령 먹언.(그냥 나물이며, 나물 놔서 조금 '발랑발랑' 익어 가면 그 위로 넣으면 그래서 우린 그냥 그렇게 끓여서 먹었어.) 20 [고내]

발레: 방한을 위해서 개가죽으로 각반처럼 만든 물건이다. 여기에선 방한 용품이라기보다 일을 할 때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한 것이다. // 옷이 끈어지면 끈어지지 안허게끔 발레라고 이서. 가죽. 여기 동무릎에 끼는 거.(옷이 끊어지면 끊어지지 않게끔 '발레'라고 있어. 가죽. 여기 무릎에 끼는 거.) 03 [송당]

발르다: 비뚤어지거나 굽은 데 없이 '바르다'는 의미이다. // 베틀에서 이제 감아멍 다 이제 발르게 헤놩, 또 이젠 막뎅이 절로 이레 다 헤영. 그거를 꼳짝 똑 ᄀᆞ뜨게. ᄀᆞ뜬 줄을 멘들엉 헤놩, 이제 풀 쒕 그걸 다.(베틀에서 이제 감으면서 다 이제 '발르게' 해놔서, 또 이젠 막대기 저리로 이리 다 해서. 그것을 곧게 딱 같게. 같은 줄을 만들어서 해놔서, 이제 풀 쑤어서 그걸 다.) 04 [고성]

발발발: 잘 마른 콩이 떨어지는 소리이다. // 못 무끄는 사름은 뒷날도 무꺼근에 허당 보민 시꺼 오라 가민 막 빠직빠직 발발발 털어지곡.(못 묶는 사람은 뒷날도 묶어서 하

다 보면 실어 오다 보면 아주 빠직빠직, '발발발' 떨어지고.) 06 [남원]

발아가다: 발을 붙이기 어려운 담 위 등을 기어가거나 걸어서 가다. // 폭도덜 내려올 때 입초 상 시간 뒈민 아홉 시 전달허민 저기서 아홉 시 전달 헹 저레 발아가곡 경헨 헌디 그 성담이 헐어져 벳지.(폭도들 내려올 때 입초 서서 시간 되면 아홉 시 전달하면 저기서 아홉 시 전달 해서 저리로 '발아가곡'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성담'이 헐어져 버렸지.) 23 [온평]

발아뎅기다: 담 위 같이 높고 좁은 데를 걸어 다니다. // 신발이 아니고, 비 오라나도 글로 발아뎅기주게.(신발이 아니고, 비 왔었어도 그리로 '발아뎅기주게'.) 11 // 저 이제 저영 발아가는 거이, 저거는 잇돌.(저 이제 저렇게 '발아가는' 거, 저거는 디딤돌.) 11 [함덕]

발탁발탁허다: 물에 흠씬 젖은 모양이나 고인 물 위를 걸을 때 나는 소리가 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는 고인 물을 밟는 소리가 나는 것으로, 표준어의 절버덕절버덕하다에 대응한다. // 찍신 신어근에 뎅기고 저 비 온 날도 맨발에 발탁발탁허게 기자 물 ᄇᆞᆯ르멍 그대로 넘어가고 경헷주게.(짚신 신고 다니고 저 비 온 날도 맨발에 '발탁발탁허게' 그저 물 밟으면서 그대로 넘어가고 그랬지.) 31 [토평]

발탁발탁허다: 죽 따위의 풀기가 있는 액체가 끓는다. // ᄆᆞ물묵이사게 영 ᄆᆞ물ᄀᆞ루 카 놩 영 쭈루룩허게 ᄋᆞᆯ룹지랑 허민 뒈여, 영 헤 보믄. 쭈루룩허게 ᄋᆞᆯ룹지랑 허민 발탁발탁헐 때꺼장만 쑤민 뒈고 경 안 쑤믄 안 뒈여. 발탁발탁헤 가민 딱 끼우민 뒈여. 막 얄룹게 캉.(메밀묵이야 이렇게 메밀가루 타 놔서 이렇게 '쭈루룩허게' 얇게 하면 돼, 이렇게 해 보면. '쭈루룩허게' 얇게 하면 '발탁발탁헐' 때까지만 쑤면 되고 그렇게 안 쑤면 안 돼. '발탁발탁헤' 가면 딱 끄면 돼. 아주 얇게 타서.) 26 [신창]

발턱: 발의 뒤꿈치에서 발 사이에 턱이 진 곳이다. 여기에서는 버선의 뒤꿈치 위에 턱이 진 곳이다. 지역에 따라서 '애턱'이라고 한다. // 그거는 턱, 발턱, 이거 잇는 거난에 건 발턱이 맞는 거.(그거는 '턱', '발턱', 이거 있는 거니까 건 '발턱'이 맞는 거.) 23 [온평]

발허다: 색깔 따위를 내려고 볕에 말리다. 여기서는 '볕이 들다'의 의미로 쓰였다. // 아이 내리는 디도 하고 막 발헌 딘 내리우고 풍체. 풍체는 거의 다 헤야 뒈. 경 안 허민 창문에 막 비 삐영 안 뒈. 창문더레 비 삐영 와작착와작착.(안 내리는 데도 많고 아주 '발헌' 데는 내리고 차양. 차양은 거의 다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창문에 마구 비 '삐영' 안 돼. 창문에 비 '삐영' 찰싸닥찰싸닥.) 26 [신창]

밤ᄀᆞ메기: 밤에 횃불을 들고 바닷가에서 잡는 고둥이다. // 궤기 잡지를 안허고 그런 건 우리 밤ᄀᆞ메기, 밤ᄀᆞ메기 허멍 조금에 물싸민 저 물싸면은 그 횃불 영 들렁 강 보민 그 ᄀᆞ메기가 과제기 나이.(고기 잡지를 않고 그런 건 우리 '밤ᄀᆞ메기', '밤ᄀᆞ메기' 하면서 조금에 물써면 저 물써면 그 횃불 이렇게 들어서 가서 보면 그 고둥이 '과제기' 나.) 25 [태흥]

밥쉬: '밥+쉬' 구성으로, 보리나 조, 쌀 따위에 밥을 지을 때 고물처럼 하나씩 섞는 콩과 팥 등의 부 재료를 말한다. // 밥쉬가 머드레콩으로 헤연 밥쉬.('밥쉬'가 대우콩으로 해서 '밥쉬'.) 29 [외도]

밧 ᄇᆞᆯ리는 소리: 조를 파종하고 나서 마소를 이용하여 흙을 다지며 불렀던 노동요를 말한다. // 그 흑 ᄇᆞᆯ릴 때도 그런 소리를 그 동네서 영 봉, 그자 영 목청 목소리 좋거든, 야, 그 저 밧 ᄇᆞᆯ리는 소리 허멍 흑 ᄇᆞᆯ리라, 게영.(그 흙 밟을 때도 그런 소리를 그 동네에서 이렇게 봐서, 그저 이렇게 목청 목소리 좋거든, 야, 그 저 '밧 ᄇᆞᆯ리는 소리' 하면서 흙 밟아라, 그렇게 해서.) 15 // 밧 ᄇᆞᆯ리는 소린이 우리 아버지, ᄆᆞᆫ 조 ᄇᆞᆯ릴 때 오후 뒈영 ᄒᆞᆫ 세 시쯤 뒈민 우리 그 사촌 오빠가 조 헐 때 ᄀᆞ찌 허니까, 밧 다 갈아 불민 밧 가는 쉐도 메왕 허민 앞이 탁 이꺼근에 게민 그때는 소리 둘이가 허젠 아버지도 뒤로 와.('밧 ᄇᆞᆯ리는 소리'는 우리 아버지, 모두 조 밟을 때 오후 돼서 한 세 시쯤 되면 우리 그 사촌 오빠가 조 할 때 같이 하니까, 밭 다 갈아 버리면 밭 가는 소도 메워서 하면 앞에 탁 이끌어서 그럼 그 때는 소리 둘이 하려고 아버지도 뒤로 와.) 30 [노형, 수망]

밧갈쉐: 밭을 가는 힘센 부룩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보통 황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암소를 밭갈이에 이용하기도 한다. // 밧갈쉐가 주로 밧만 가는 전용인디이 게난 밧갈쉐 엇은 디가 그냥 암쉐도 ᄀᆞ르쳥 갈긴 갈앗저.('밧갈쉐'가 주로 밭만 가는 전용인데 그러니까 '밧갈쉐' 없는 데가 그냥 암소도 가르쳐서 갈긴 갈았어.) 12 // 밧갈쉐엔 ᄒᆞᆫ 건 ᄒᆞᆫ 세 설 네 설 뒈면은 밧 갈 때 뒈면은 밧갈쉐주게.('밧갈쉐'라고 한 건 한 세 살 네 살 되면 밭 갈 때 되면 '밧갈쉐'지.) 16 // 밧갈쉐 키우젠 헤영 영 키우주게. 밧 갈젠 헤영 영 키우고 엿날엔 밧덜 갈젠.('밧갈쉐' 키우려고 해서 이렇게 키우지. 밭 갈려고 해서 이렇게 키우고 옛날엔 밭들 갈려고.) 20 // 나 밤이 강 그 ᄆᆞ물팟 갈ᄀᆞ렌 헨에이. 낮이쯤 밧 갈 땐 세가 닷 발은 난다게. 밧갈쉐 지쳥, 더웡이 하하하 헌다게.(나 밤에 가서 그 메밀밭 갈았다고 했지. 낮에쯤 밭 갈 때는 혀가 닷 발은 나온다. '밧갈쉐' 지쳐서, 더워서 하하하 한다.) 31 [고내, 고성, 남원, 노형, 대평, 덕수, 보목, 봉성, 삼달, 성읍, 세화 수망, 외도, 태흥, 토평, 하원, 한동]

밧갈아치: 밭을 전문적으로 가는 사람이다. // 건 ᄆᆞ쉬 안 빌엉 밧갈아치만 빌민 뒈는 거.(그건 마소 안 빌려서 '밧갈아치'만 빌리면 되는 거.) 13 [삼달]

밧갈에치: 밭을 전문으로 가는 사람이다. // 콩도게 기자 밧듸 가근에 씨 삐영 내 불민 밧갈에치 강 밧만 갈민 뒐 거난.(콩도 그저 밭에 가서 씨 뿌려서 내 버리면 '밧갈에치' 가서 밭만 갈면 될 거니까.) 23 [온평]

밧갈와치: 밭을 전문적으로 갈아주는 사람을 말한다. '와치'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 큰 쉐는 밧갈와치. 작은 거, ᄀᆞ르치는 건 새쉐. 새쉐. 큰 건 밧갈쉐. 남전 밧갈와치, 쉐는 밧갈쉔디, 조금 ᄀᆞ르치는 건 새쉐.(큰 소는 '밧갈와치'. 작은 거, 가르치는 건 '새쉐'. '새쉐'. 큰 건 '밧갈쉐'. '남전' '밧갈

와치', 소는 '밧갈쉐'인데, 조금 가르치는 건 '새쉐'.) 06 [남원]

밧거레: 바깥채이다. 달리 '밧거리'라고도 한다. // 안거리는 그자 앞에는 밧거레고.(안채는 그저 앞에는 '밧거레'고.) 16 // 시어머니네 모셩 살앗주. 안팟거리, 안팟거리 잇인 딘 밧거레 살고.(시어머니네 모셔서 살았지, '안팟거리', '안팟거리' 있는 데는 '밧거레' 살고.) 31 [토평, 하원]

밧거리: 바깥채이다. 달리 '밧거레'라고도 한다. // 놈이 밧거리에도 살곡 뭐.(남의 '밧거리'에도 살고 뭐.) 16 // 밧거리는 그자 방 하나 이간허여근에 ᄒᆞᆫ 펜이 쉐 메곡 ᄒᆞᆫ 펜인 또시 사름 눌 방 하나 멘들엉 밧거리엔. 경 허곡 헤낫주게.('밧거리'는 그저 방 하나 '이간허여근에' 한 편에 소 매고 한 편엔 또 사람 누울 방 하나 만들어서 바깥채엔. 그렇게 하고 했었지.) 33 [인성, 하원]

밧듸: 낱낱의 곳을 세는 단위인 군데를 말한다. // 그거 촐을 비젠 허문 동네 사람들 그거 ᄒᆞᆫ 밧듸 가젠 허문, 그 촐밧은 여기서 거이가 먼 디주게.(그거 꼴을 베려고 하면 동네 사람들 그거 한 '밧듸' 가려고하면, 그 꼴밭은 여기서 거의가 먼 데지.) 04 // 이제 놉 빌엉 수눌엉 수눌음으로 수눌어근에 이 사름 ᄒᆞᆫ 밧듸 가민.(이제 놉 빌려서 품앗이 품앗이하기로 품앗이해서 이 사람 한 '밧듸' 가면.) 16 [고성, 하원]

밧목: 말을 이용하여 밭을 밟을 때, 밭머리를 돌 때의 바깥쪽이다. // 영 돌아갈 땐 이 ᄆᆞᆯ이 영 돌아가멍 ᄇᆞᆯ라지는디 이 ᄆᆞᆯ이 이디서가 바짝 디리 몰앙 영헤불민 이 ᄆᆞᆯ이 영 돌아갈 때 이 담에염디레 돌아갈 ᄆᆞᆯ이 없어. 경헹 따문에 안목은 드리밀곡 밧목이랑 자치렌.(이렇게 돌아갈 땐 이 말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밟아지는데 이 말이 여기서가 바짝 들이 몰아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 말이 이렇게 돌아갈 때 이 '담에염'으로 돌아갈 말이 없어. 그렇게 해서 때문에 '안목'은 들이밀고 '밧목'은 '자치렌'.) 14 [성읍]

밧ᄆᆞ루: 표선면 세화리 앞바다이다. // 이디서 베운 사름만 터베 탕, 저 밧ᄆᆞ루 강 자리 거려 오곡 ᄒᆞ민, 우린 ᄒᆞ꼼 중간에 사난.(여기서 배운 사람만 떼배 타서, 저 '밧ᄆᆞ루' 가서 자리돔 '거려' 오고 하면, 우린 조금 중간에 사니까.) 24 [세화]

밧어염: 밭의 경계를 짓기 위하여 빙 돌아가며 둘러쌓은 밭담의 언저리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밧에염', '밧의염'이라고 한다. // 집에서도 그 좀 저 소낭 그 저 뭐허면은 저 몰르게 헤당근엥에 어디 그 저 밧어염에서. 숫을 궈.(집에서도 그 좀 저 소나무 그 저 뭐하면 저 모르게 해다가 어디 그 저 '밧어염'에서. 숯을 구워.) 01 [도련]

밧자리: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의 방바닥인 윗목을 말한다. // 경ᄒᆞ난 안자리, 밧자리. ᄯᅳ슨 딘 안자리, 써늘ᄒᆞᆫ 딘 밧자리.(그러니까 '안자리', '밧자리'. 따뜻한 데는 '안자리', 서늘한 데는 '밧자리.) 17 [대평]

밧조각여: 조천읍 신촌리에 위치한 동쪽에 있는 여 이름이다. // 밧조각여. 그 다음은 안뿔여.('밧조각여'. 그 다음은 '안뿔여'.) 21 [신촌]

밧지게문: 툇마루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 지게문도 방이 마루쪽으로 문이 잇곡 바깥쪽으로 문 잇는디 안지게문, 밧지게문.(지게문도 방이 마루 쪽으로 문이 있고 바깥쪽으로 문 있는데 '안지게문', '밧지게문'.) 15 [수망]

밧집: 바깥채를 뜻하는 말이나 창고의 의미로 쓰였다. // 요즘은 창고엔 허주마는 밧집이엔 허주기, 옛날엔.(요즘은 창고라고 하지만 '밧집'라고 하지, 옛날엔.) 23 [온평]

밧칠성: 부를 관장하는 신으로, 뱀신을 말한다. 집 밖인 터앝에 있는 경우가 많다. '뒤칠성', '뒷할망'이라고도 한다. // 밖에 모시는 거는 저 뒤에 밖에 모시는 거는 안칠성 밧칠성 밖에 모시는 것가.(밖에 모시는 거는 저 뒤에 밖에 모시는 것은 '안칠성' '밧칠성' 밖에 모시는 것이.) 05 // 안칠성 밧칠성 허는디, 이쪽으로는 거 허는 집이 벨로 드물어.(안칠성 '밧칠성' 하는데, 이쪽으로는 거 하는 집이 별로 드물어.) 06 // 밧칠성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거기 신을 위하는 거라 밧칠성.('밧칠성'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거기 신을 위하는 거야 '밧칠성'.) 15 // 다 밧칠성은 우영팟디 허곡, 안칠성은 고팡에 맞아.(다 '밧칠성'은 터앝에 하고, '안칠성'은 고방에 맞아.) 34 [구억, 남원, 성읍, 수망, 표선]

방: 곡식의 씨를 뿌릴 때 그 씨앗이 들어가는 자리로 다른 씨앗과 여유를 두는 공간을 말한다. // 초불 검질멜 적에 걸 소까. 제 방이 잇게끔. 겡 초불 검질메고 두벌 검질메면은 게민 익어근에 비여 들어근에.(초벌 김맬 적에 걸 솎아. 제 '방'이 있게끔. 그래서 초벌 김매고 두벌 김매면 그러면 익어서 베어 들여서.) 06 [남원]

방 벌이다: 모종의 간격을 일정하게 띄우다는 의미이다. // 조는 그 소끄는 것사게 그 방 벌이는 거난.(조는 그 솎는 거야 그 '방 벌이는' 거니까.) 01 // 고량에는 ᄯᅡ시 저 고량보리라고 뎅기멍 여자덜이 예펜덜이 뎅기멍 톡톡 요만씩 방 벌여가멍 ᄒᆞ나씩 톡톡 ᄐᆞᆫ아놔.(고랑에는 다시 저 '고량보리'라고 다니면서 여자들이 여편들이 다니면서 톡톡 요만큼씩 '방' 벌려가면서 하나씩 톡톡 뜯어놔.) 08 // 메 놔근엥에 헤영 싱그곡 경 방 벌영 싱그곡 경 헷당 먹씰일 허는 사름덜 경 ᄎᆞᆷ 먹씰일 때나 ᄊᆞᆯ밥 먹주기.(모 놔서 해서 심고 그렇게 '방 벌영' 심고 그렇게 했다가 '먹씰일' 하는 사람들 그렇게 참 '먹씰일' 때나 쌀밥 먹지.) 29 // 모멀 갈 때 모멀 씨 불채에 서껑 강은에 어머니신디 날라다 주민 영영영 방 벌영 영 놔.(메밀 갈 때 메밀 씨 재에 섞어서 가서 어머니께 날라다 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방' 벌려서 이렇게 놔.) 33 [남원, 도련, 동광, 외도, 인성]

방돈: 돼지를 놓아기르는 것이다. 여기서는 마소를 놓아기르는 것을 '방돈'이라 하였다. // 오월 중순 뒈 가면은 ᄆᆞᆯ덜을 이제는, 이제 그 이젠 산뒤가 나기 시작허민 ᄆᆞᆯ 거튼 거 방돈 헤영 제멋대로 놩 내부는 건디 이젠 관리를 헤야 뒈주. 산두가 나기 시작허면은. 그래서 그 ᄆᆞᆯ은 또 뭐인가 ᄆᆞᆯ 임제가 ᄀᆞ꾸주게.(오월 중순 돼 가면 말들은 이제는, 이제 그 이젠 밭벼가 나기 시작하면 말 같은 거 방돈 해서 제멋대로 놔서 내버리는 건데 이젠 관리를 해야 되지. 밭벼가 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말은 또 뭐인가 말 임자가 가꾸지.) 12 [한동]

방드리왓: 애월읍 중엄리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 방드리왓디 장 셔나지 아니허연? 방드리왓.(‘방드리왓’에 장 있었지 아니했어? ‘방드리왓’.) 28 [구엄]

방듸: 성산읍 신양리 옛 이름이다. // 이 고성 방듸는. 메역은 이제 공동 저 거시기허고 감테 무시거 허는 거는.(이 ‘고성’ ‘방듸’는. 미역은 이제 공동 저 거시기하고 감태 무엇 하는 거는.) 04 // 고성 저 방듸라고. 이 신양리가 방듸주게 옌날.(‘고성’ 저 ‘방듸’이라고. 이 신양리가 ‘방듸’지 옛날.) 04 [고성]

방머리: 우도면의 한 지명이다. // 그것도 어디 흔이 잇느냐 물 조류가 쎈, 이 방머리엔 흔데.(그것도 어디 흔히 있느냐 물 조류가 센, 이 ‘방머리’라고 한 데.) 22 [우도]

방법: 무속에서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액을 미리 막는 일이다. 사악함을 막는다는 의미로, 달리 ‘방서’, ‘방세’, ‘방쉬’라고도 한다. // 그 땅에 지신이 신이 그걸 우리가 이디 집을 지실 거니까 노레지 말라고 허는 방법이나 마찬가지.(그 땅에 지신이 신이 그걸 우리가 여기 집을 지을 거니까 놀라지 말라고 하는 ‘방법’이나 마찬가지.) 07 // 그게 요강이 여자들 오줌 누는 요이, 그게 방법이라.(그게 요강이 여자들 오줌 누는 요강, 그게 ‘방법’이야.) 09 // 저 육지서는 막 떡 헹 먹고 막 보름. 정월 보름도 막 크게 허는데 제주도는 저. 그. 일 년을 대헤서 이 방법허영. 방법.(저 육지에서는 막 떡 해서 먹고 막 보름. 정월 보름도 막 크게 하는데 제주도는 저. 그. 일 년을 대해서 이 ‘방법허영’. ‘방법’.) 18 [고산, 보목, 신도]

방베: 무속에서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액을 미리 막는 일이다. 사악함을 막는다는 의미로, 달리 ‘방서’, ‘방세’, ‘방쉬’라고도 한다. // 밥도 멕이곡 허믄 여러 사름이 왓다 갓다 허믄 이 집이 오라서 여라 발자국을 ᄇᆞᆯ랑 가면은 방베가 뒈어서 귀신이 안 나온다 이거지. 탈이 엇다.(밥도 먹이고 하면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이 집에 와서 여러 발자국을 밟아서 가면 ‘방베’가 되어서 귀신이 안 나온다 이거지. 탈이 없다.) 20 [고내]

방사허다: 무속에서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액을 미리 막는 일이다. 사악함을 막는다는 의미로 쓴다. // 방사허는 것이이. 이제는 그 사물놀이도 경허영 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방서허고 이제 그 액멕이가 엇어. 옛날은.(‘방사허는 것이. 이제는 그 사물놀이도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방서허고 이제 그 액막이가 없어. 옛날은.) 20 [고내]

방상: 일가붙이를 말한다. // 옛날은 그런 거 저런 거 엇이난 방상에 영장이 나나 무신거 허면 물떡, 만디떡 해당 멕이는 거.(옛날은 그런 거 저런 거 없으니까 ‘방상’에 영장이 나니까 무엇하면 ‘물떡’, ‘만디떡’을 해다가 먹이는 거.) 03 // 벌초는 백로가 팔월 절인디 백로를 중심으로 헤서 기점으로 헤서 전후에 가정마다 방상이민 방상마다 날짜를 정헙주게.(벌초는 백로가 팔월 절인데 백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전후에 가정마다 ‘방상’이면 ‘방상’마다 날짜를 정합지요.) 07 // 그거 새새각시 뒈면은 방상에 다 멩질 먹으레 뎅겻주.(그거 새색시 되면 ‘방상’에 다 명절 먹으러 다녔지.) 23 // 경ᄒᆞ민 그 식게 먹으레 ᄆᆞᆫ딱 방상에서 오민 그

거 믄 갈라 먹곡, 갈 때 믄 싸 주국.(그러면 그 '식게 먹으레' 모두 '방상'에서 오면 그거 모두 나눠 먹고, 갈 때 모두 싸서 주고.) 24 [보목, 세화, 송당, 온평, 하원]

방서: 무속에서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액을 미리 막는 일이다. 사악함을 막는다는 의미로, 달리 '방서', '방세', '방쉬'라고도 한다. // 정월보름에 방서를 만이 헷저.(정월보름에 방사를 많이 했어.) 20 [고내]

방세: 무속에서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액을 미리 막는 일이다. 사악함을 막는다는 의미로, 달리 '방서', '방쉬'라고도 한다. // 양웨를 헤다가 거 채와 주던가 또 이제 그렇게 방세를 헤여.(양하를 해다가 거 채워 주던가 또 이제 그렇게 '방세'를 해.) 12 // 방세 헌덴 허는데 자기가 운이 나쁘덴 허면, 토정비결을 본다.('방세헌덴' 하는데 자기가 운이 나쁘다고 하면, 토정비결을 본다.) 12 [한동]

방수 벌리다: 일정한 공간으로 띄어 간격을 벌리다. 지역에 따라 '방'이라고도 한다. // 걸름을 모ᄆᆞᆯ 씨, 밧듸 걸름 시꺼다놩 모ᄆᆞᆯ 씨에 걸름에 막 부합헤놩 그걸 구덕에 메영 방수 벌령 톡톡 좁아놔.(거름을 메밀 씨, 밭에 거름 실어다놓고 메밀 씨에 거름에 막 배합해 놓고 그걸 구덕에 메서 '방수' 벌려서 톡톡 집어놔.) 13 [삼달],

방수 벌이다: 일정한 공간으로 띄어 간격을 벌리다. 지역에 따라 '방'이라고도 한다. // 그거 다 씨 뿌리멍 소 말 헤근에 그 돗가레 막 ᄇᆞᆯ령 이제 또 다 쉐스렁으로 다 뒤집어 놔근에 또 씨 뿌리멍 또 막 ᄇᆞᆯ려놩 멩텡이로 소에 다 시끄멍 밧듸 강 다 방수 벌영 이디 ᄒᆞ나 놓민 저만 쪽에 ᄒᆞ나허곡 허멍 다 비와놩 돗가레 뿌린 거.(그거 다 씨 뿌리면서 소 말 해서 그 돼지거름 마구 밟아서 이제 또 다 쇠스랑으로 다 뒤집어 놔서 또 씨 뿌리면서 또 마구 밟아서 망태기로 소에 다 실으면서 밭에 가서 다 '방수 벌영' 여기 하나 놓으면 저만 쪽에 하나하고 하면서 다 부어 놓고 돼지거름 뿌린 거.) 05 // 방수 벌여, 방수 벌영근에 하나씩 하나씩 방수 벌영 욜로 요만씩 욜로 요만씩 헤근에 방수 벌영 그걸 ᄉᆞ꾸주게.('방수 벌여', '방수 벌영근에' 하나씩 하나씩 '방수 벌영' 요리로 요만큼씩 요리로 요만큼씩 해서 '방수 벌영' 그걸 솎지.) 31 // 씨 족은 딘 톡톡 놔근에 방수 벌영 놓곡.(씨 적은 데는 톡톡 넣어서 '방수 벌영' 넣고.) 31 [남원, 삼달, 성읍, 토평, 표선]

방쉬: 무속에서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액을 미리 막는 일이다. 사악함을 막는다는 의미로, 달리 '방서', '방세'라고도 한다. // 모ᄆᆞᆯᄏᆞ루 체암 카 줌은 애기 나낭 그 궂은 피 삭, 빠지렌 그 모ᄆᆞᆯᄏᆞ루 헤주는 거주, 방쉬로게.(메밀가루 처음 타 줌은 아기 낳고나서 그 궂은 피 삭, 빠지라고 그 메밀가루 해주는 거지, '방쉬'로.) 13 // 애기도 ᄀᆞᆷ지곡 어멍도 ᄀᆞᆷ아. 머리도 다 ᄀᆞᆷ곡 것도 방세로 뭐 속물 ᄀᆞᆷ는 거.(아기도 감기고 어머니도 감아. 머리도 다 감고 그것도 '방세'로 뭐 쑥물 감는 거.) 13 // 묻어 묻어. 저 어디 가근엥 그 묻어. 막은 방쉬 말고.(묻어 묻어. 저 어디 가서 그 묻어. 막은 '방쉬' 말고.) 18 [삼달, 신도]

방쉬제: '방쉬'가 '사악함을 물리치는 일'을 뜻하므로 '방쉬제'는 '방쉬'를 목적으로 하는 제사를 말한다. // 방역제라고 헤야 뒐까 방, 방쉬제라고 헤야 뒐까 방병제라고 헤야 뒐까.('방역제'라고 해야 될까 방, '방쉬제'라고 해야 될까 '방병제'라고 해야 될까.) 32 [덕수]

방씨: 씨 따위를 뿌리거나 곡식을 심을 때 일정한 구역을 정해 벌이는 일이다. '방씨 벌이다'처럼 쓰인다. 달리 '방쉬 벌이다'이라고도 한다. // 좁씨 삐여근에 검질, 그거 크민 검질메여근에 이젠 검질 막 그거 씨 방씨 벌영 세와근에 베짝허게 내불지 안허영 방씨 벌영 세우민 조코고리가 나왕.(좁씨 뿌려서 김, 그거 크면 김매서 이젠 김 아주 그거 씨 '방씨' 벌려서 세워서 '베짝허게' 내버리지 않고 '방씨' 벌려서 세우면 '조코고리'가 나와.) 12 // 손으로 영 헤영 방씨 벌영 접으멍 들이쳇주.(손으로 이렇게 해서 '방씨' 벌려서 집으면서 집어넣었지.) 23 [온평, 한동]

방씨 벌이다: 씨 따위를 뿌리거나 곡식을 심을 때 일정한 구역을 정해 벌리다는 뜻이다. // 방씨 벌영, 조 방씨 벌영 졸바로 소끄라.('방씨 벌영', 조 '방씨 벌영' 제대로 솎아라.) 23 // 거 딱 귀역을 맞춘다 허는 말로 방씨 벌인다 허는 거.(거 딱 구역을 맞춘다 하는 말로 '방씨 벌인다' 하는 거.) 23 [온평]

방에왓: 한경면 청수리에 있는 옛 지명으로 남방아가 '물왓'에 떠내려간 곳이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 나무로 멘들앗다 헤서 남방엔디 그 큰 비가 오니까 아, 그 물통밧더레에 흘러나간 그것이 이제 땅이름이 뒈가지고 방에가 그 물왓디 터갓다 헤서 방에왓이라고 이제 지엉 이름이 뒈엇엇수다.(나무로 만들었다 해서 남방안데 그 큰 비가 오니까 아, 그 '물통밧'에 흘러나간 그것이 이제 땅이름이 돼가지고 방아가 그 '물왓'에 떠갔다 해서 '방에왓'이라고 이제 지어서 이름이 되었었습니다.) 19 [청수]

방에혹: 절구 가운데에 박아 놓은 돌을 우묵하게 파서 만든 물건이다. // 데강이만 이 베ᄉᆞᆯ 내불어둬근에 데강이만 저 방에혹에 닥닥 뽓아.(대가리만 이 창자 내버려둬서 대가리만 저 '방에혹'에 닥닥 빻아.) 08 [동광]

방엣비: 방앗간에서 방아를 찧을 때에 쓰는 비이다. // 도구리에 막 방엣비로 선 이어동 ᄒᆞ라 셋 걸 방에, 그걸 뽓일 땐양, 막 ᄒᆞ멍, 이어동 ᄒᆞ라 셋 걸 방에 쉐 걸어간다. 이어동 ᄒᆞ라, 경 ᄒᆞ멍 방에 져.(함지박에 마구 '방엣비'로 선 이어동 해라 셋 걸 방에, 그거 빻을 때는요, 마구 하면서 '이어동 ᄒᆞ라 셋 걸 방에 쉐 걸어간다. 이어동 ᄒᆞ라,' 그렇게 하면서 방아 져.) 17 [대평]

방울: 모자반 등 해초류의 공기주머니를 이르는 말이다. // 방울 톡톡 씹는 맛도 나곡.('방울' 톡톡 씹는 맛도 나고.) 05 [표선]

방장: 좋지 못한 것을 막거나 몰아내는 징표로 하는 일이다. 여기서는 연줄이 끊어지면 그 연이 자신의 나쁜 운수를 막아 주는 것이라는 의미로 '연 방장'이라고 말했다. // 연 방장헷젠 허주게. 연 방장. 연 뛰다근에 낭에나 어디 걸리민 아이고 연 방장헷저 영 곧나. 낭에 걸리나 헌 거.(연 '방장'했다고 하지. 연 '방장'. 연 날리다가

나무에나 어디 걸리면 아니고 연 '방장'했다 이렇게 말해. 나무에 걸리거나 한 거.) 02 [선흘]

방찰락: 아이들이 하는 놀이로 사방치기를 이른다. // 방찰락, 돌로 ᄒᆞ영 영영 발로 차는 거.('방찰락', 돌로 하고 이렇게이렇게 발로 차는 거.) 08 [동광]

방추굴: 구좌읍 한동리 지명의 하나이다. // 저 방추굴 이장이 셔낫는데, 그 이장 집만 불나고.(저 '방추굴' 이장이 있었는데, 그 이장 집만 불나고.) 12 [한동]

방치기: 아이들이 하는 놀이로 사방치기를 이른다. // 너미 족은 건 멕사리 엇고 요만이 헌 거 허민 먹데라고 헤연 이디게 ᄆᆞᆫ 선 긋어 놔근에게 그 선더레 삿닥 그 선더레 삿닥 허멍 방치기.(너무 작은 건 힘이 없고 요만큼 한 거 하면 목대라고 해서 여기에 모두 선 그어 놓고 그 선에 섰다가 그 선에 섰다가 하면서 '방치기'.) 12 // 방치기엔 헌 것도 잇어나고. 여자덜 허는 거.('방치기'라고 한 것도 있었고, 여자들 하는 거.) 12 [한동]

배달밧: 성산읍 온평리에서 토질이 좋지 않은, 자갈이 깔린 밭을 가리키는 말이다. // 배달밧듸 피 가는 거고.('배달밧'에 피 가는 거고.) 23 // 배달밧이 빌레밧이라.('배달밧'이 '빌레밧'이야.) 23 [온평]

배부레기: 아기들의 배만 가릴 수 있게 만든 간소한 옷이다. 지역에 따라 '베부루기'라고도 한다. // 베로 허여근에 영 허영 아기덜 ᄋᆞ름에 그냥 멘드글레기 벳기지 아녀근에 그것만 베만 가냥허영 아으덜 거세기 험으로 베부레기.(베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아기들 여름에 그냥 홀딱 벗기지 않고 그것만 배만 '가냥허영' 아이들 거시기 함으로 '베부레기'.) 01 // 베부레기 베부레기 베 보호, 그걸 세밀히 말허민 베 보호지.('베부레기' '베부레기' 배 보호, 그걸 세밀히 말하면 배 보호지.) 01 [도련]

배창: 한라산에서 어승생 한밝저수지까지 내려오는 수로이다. // 엿날 저 뭐 이 거 저 수로가 잇수다. 저 무신 수로옝 헌다. 저 옛날 배창이렌 헤난.(옛날 저 뭐 이 그거 저 수로가 있습니다. 저 무슨 수로라고 한다. 저 옛날 '배창' 이라고 했었어.) 28 [구엄]

백게: 제주시 이호동 마을 이름의 하나이다. // 백게 바당물에 강 시치민 그거 얼마나 줄어들까이. 바당물에 시쳥 ᄒᆞ꼼 그 통에 ᄒᆞ꼼 영 담갓당 건졍. 아이고 건졍 나오민 영 졍 와낫저.('백게' 바닷물에 가서 씻으면 그거 얼마나 줄어들까. 바닷물에 씻어서 조금 그 통에 조금 이렇게 담갔다가 건져서. 아이고, 건져서 나오면 이렇게 지고 왔었어.) 30 [노형]

백반통: 표선면 성읍1리에 있는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큰 바위는 없고 저디 가면은 저 그디가 어디냐? 백반통이엔 헌 딘 가미는 바위가.(큰 바위는 없고 저기 가면 저 거기가 어디냐? '백반통'이라고 한 데는 가면 바위가.) 14 [성읍]

백입초: 잎담배의 한 종류이다. 마디가 길고 잎이 넓다고 한다. // 백입, 백입촌가 백입촌가 뭐 이런 거렌 ᄀᆞᆯ안게.('백입', '백입초'인가 '백입초'인가 뭐 이런 거라고 말하던

데.) 29 [외도]

백중: 음력 칠월 보름이다. '백중'의 민속행사로, 백중 물맞이, 민간신앙으로 당(堂)제와 말목동을 위한 '테우리ᄀᆞ사' 등을 지낸다. // 경 ᄒᆞ난 백중 넘으민 겡이가 막 원 싹 쫄어비러.(그렇게 하니까 '백중' 넘으면 게가 아주 전혀 싹 줄어버려.) 04 [고성]

백중제: 백중인 7월 15일에 마소가 자라는 목장에 가서 마소의 건강과 번성 등을 기원하면 지내는 의식을 말한다. // 백중제는 허당, 소 키우는, 소나 말 키우는 사름덜.('백중제'는 하다가 소 키우는, 소나 말 키우는 사람들.) 06 // 백중제는 그게 백 가지 구십 세가 돌아간다고 백가지 검질이.('백중제'는 그게 백 가지 구십 세가 돌아간다고 백가지 김이.) 09 // 성읍리까지 가 가지고 백중제 지내고 이렇게 헤 가지고 와.(성읍리까지 가 가지고 백중제 지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와.) 23 [고산, 남원, 온평]

뱀당: 성산읍 온평리에 소재한 당 이름이다. // 거기는 무슨 당이냐 허민 저 뱀당이라고 허는 식으로 이제 말을 헤 가지고.(거기는 무슨 당이냐 하면 저 '뱀당'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해 가지고.) 23 [온평]

뱀밧: 조천읍 함덕리의 한 지명이다. // 함덕 뱀밧이엔 헌디 넘어사믄 토지덜이 막 좋아, 크고.(함덕 '뱀밭'이라고 한 데 넘어서면 토지들이 막 좋아, 크고.) 11 // 선흘서 내려오는 것이 뱀밧이라고 이서. 뱀밧. 글로 헤서 해동으로 헤서 막 나가는 거 그것뿐.(선흘에서 내려오는 것이 '뱀밧'이라고 있어. '뱀밧'. 그리로 해서 '해동'으로 해서 막 나가는 거 그것뿐.) 11 [함덕]

뱅이왕: 남방아나 절구를 놓아두고서 방아를 찧는 헛간이다. // 헛간은 변소가 아니고, 뱅이왕 ᄀᆞ튼 거 헛간이엔 헷주게.(헛간은 변소가 아니고, '뱅이왕' 같은 거 헛간이라고 했지요.) 17 // 체는 뱅이왕에, 쉐막 에염에 뱅이왕이 잇주게. 저 남방에 짛는 뱅이왕, 그레 강 체 ᄀᆞ튼 거 톡톡 걸곡, 경 ᄒᆞ여.(체는 '뱅이왕'에, 외양간 옆에 '뱅이왕'이 있지요. 저 '남방에' 찧는 '뱅이왕', 그리로 가서 체 같은 거 톡톡 걸고, 그렇게 해.) 17 [대평]

버닥버닥: 짚이나 가죽 따위가 부드럽지 않고 뻣뻣한 상태이다. // 두드령 ᄒᆞ살 복삭ᄒᆞ게 두드령 잘 두두령 ᄒᆞᆫ 건 신이 곱게 잘 뒈곡, 경 안 ᄒᆞ여근에 대충 두두령 그자 저 배가 버닥버닥 ᄒᆞ게 뒌 건 신도 곱게 뒈지 안 ᄒᆞ곡.(두드려서 조금 '복삭ᄒᆞ게' 두드려서 잘 두드려서 한 건 신이 곱게 잘 되고, 그렇게 안 해서 대충 두드려서 그저 저 참바가 '버닥버닥' 하게 된 건 신도 곱게 되지 안하고.) 08 [동광]

버닥ᄒᆞ다: 물건의 바탕이 강하여 좀처럼 휘어지지 않다. 여기서는 명주를 부드럽게 물리지 않고 생명주였을 때를 말한다. '버작지다'라고도 한다. // 버닥ᄒᆞ며는 사그랑 ᄒᆞ게시리 버짝ᄒᆞ게 헤근엥 ᄒᆞ민은 그걸 풀 지우는 거는 그건 눼는 거.('버닥ᄒᆞ며는' '사그랑' 하게끔 뻣뻣하게 해서 하면, 그걸 풀 빼는 거는 그건 물리는 거.) 07 [보목]

버덕: 너른 들판 등으로 사람이 놀 수 있는 공간이다. // 어린 때난에 재미로 낭 ᄒᆞᆫ 짐이민 멧 짐 헹 올 건디 그디 강 버덕 좋은 디 강 막 가이셍도 허곡.(어릴 때니까 재미로 나무 한 짐이면 몇 짐 해서 올 건데 거기 가서 '버덕' 좋은 데 가서 막 '가이셍'도 하고.) 23 // 어디 강 버덕에 가근에 ᄆᆞᆯ 일 안 헐 때는 아침의 강 말뚝을 박아놔 가지고 이 평지에 강 놓면은.(어디 가서 '버덕'에 가서 말 일 안 할 때는 아침에 가서 말뚝을 박아놔 가지고 이 평지에 가서 놓으면.) 23 [온평]

버데기: 잔디가 깔려 있는 너른 들판이다. '버더기'라고도 한다. // 밧덜 측량허멍 ᄆᆞᆫ딱 앗아부난 헴주. 옛날엔 버데기가 잔디밧 그런 디 다 져내영 뻿데기.(밭들 측량하면서 몽땅 가져버리니깐 하고 있지. 옛날엔 '버데기'가 잔디밭 그런 데 다 져내서 '뻿데기'.) 05 [표선]

버들못: 표선면 표선리의 지경 이름이다. // 이디 이 버들못에서 이제 밥주리 이제 수ᄀᆞ를 잡앙 씰에 영 꿰여근에 그거 막 하멍 이제 암ᄀᆞ 봐지민 온다 온다 허멍 그 밥주리만 보멍 나룩질로부터 강단이ᄁᆞ장 강 포부뜨젠.(여기 이 '버들못'에서 이제 잠자리 이제 수컷을 잡아서 실에 이렇게 꿰어서 그거 막 하면서 이제 암컷 보이면 온다 온다 하면서 그 잠자리만 보면서 '나룩질'로부터 '강단이'까지 가서 맞붙으려고.) 05 [표선]

버렁: 제주시 삼양3동의 자연 마을 이름이다. // 신촌 강 봐, 원담 잇어. 삼양도 지금 버렁. 저 돌ᄃᆞ리도 이실 거고.(신촌 가서 봐. '원담' 있어. '삼양'도 지금 '버렁'. 저 돌다리도 있을 거고.) 01 [도련]

버렝이알: 한림읍 금능리의 옛 지명이다. '버렝이(벌레)'에서 나온 말로 금능리 아래쪽 바다를 가리키는 말이다. // 바당 이름 이디도 납닥이, ᄌᆞ룩코지, 버렝이알.(바다 이름 여기도 '납닥이', 'ᄌᆞ룩코지', '버렝이알'.) 10 [월령]

버루기: 무슨 일을 알고서 즉시로 빠르게 달려가거나 달려오는 모양이다. // 몰명허게 난 건 ᄁᆞ늘게 꼬지락이 나오는데 그 불체 먹은 것은 그게 버루기 그냥.('몰명허게' 난 건 가늘게 뾰족하게 나오는데 그 재 먹은 것은 그게 '버루기' 그냥.) 19 [청수]

버리동산: 우도면에 소재한 동산 이름이다. // 길가에 또 아니면 버리동산 ᄀᆞ뜬디 그디 가서 쉐를 심어갖고 쉐를 풀을 뜯기는 거라.(길가에 또 아니면 '버리동산' 같은데 가서 소를 잡아가지고 소를 풀을 뜯기는 거야.) 22 [우도]

버무돌: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지명이다. // 그디 칭게칭게 저 버무돌 앞의 거 하나 잇어.(거기 층계 층계 저 '버무돌' 앞에 거 하나 있어.) 08 [동광]

버물다: 더러워지다. // 감물은 버물지 아녕 보드락 형 버뭄 안 타곡.(감물은 '버물지' 않아서 보드랍게 해서 '버뭄' 안타고.) 16 [하원]

버벌레기풀: 도꼬마리를 말한 듯하나 도깨비바늘과 혼동해서 정확하지 않다. // 버벌레기풀ᄀᆞ라 거 무시거렌 ᄀᆞᆯ아나시니? 그 썹은 너불너불 난 부트국 허는 거 이서낫주.('버벌레기풀'보고 거 뭐라고 말했었지? 그 잎은 넓적넓적 나서 붙고 하는 거 있

었었지.) 24 [세화]

버슬다: 표준어의 벌다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밭을 경작했다는 의미이다. // 경허난 우리 경 쉐도 하영 안 질뤄 보고 쉐도 하나 질롸근에 기자 우린 못 사난 헤 온 사람이고. 도새기걸름 주장 걸름 헤영. 나 고사리 ᄉᆞᆯ아당 ᄂᆞᆷ의 밧도 버슬고 헷저. 고사리 ᄉᆞᆯ아당.(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소도 많이 안 길러 보고 소도 하나 길러서 그저 우린 못 사니까 해 온 사람이고. 돼지거름 주로 거름 해서. 나 고사리 살라다가 남의 밭도 '버슬고' 했어. 고사리 살라다가.) 31 [토평]

번: 이웃끼리 여러 마리의 소나 말을 모아 놓고 한 사람씩 번갈아가며 돌보는 일이다. 그런 일을 '번을 서다'라고 한다. // 이제 그 ᄆᆞᆯ들을 집집마다 질루니까 이제, 스무 집이 질루면은 스무 마리를 ᄆᆞᆯ 번 강 봥 오렌 허는 거라.(이제 그 말들을 집집마다 키우니까 이제, 스무 집에 키우면 스무 마리를 말 '번' 가서 보고 오라고 하는 거야.) 20 [고내]

번쉐: 소를 기르는 사람끼리 여러 마리의 소를 모아 놓고 한 사람씩 번갈아가며 들에 몰고 나가 먹이는 소이다. 지역에 따라서 '팻쉐'라고도 한다. // 번쉐허곡 맴쉐 허곤 그 차이가, 맴쉐허면은 벵작허는 쉐고. 번쉐는 여러 집이 모여서.('번쉐'하고 배냇소하곤 그 차이가, 배냇소하면은 병작하는 소고. '번쉐'는 여러 집이 모여서.) 01 // 그때는 이제 쉐 허는 사름이 다 돌아가멍, 번쉐 헤 가지고 이 집이, 오널 누게네 멕여나민 누게네 허멍 그 돌아가멍 이제 쉐를 간수허여낫저게.(그때는 이제 소 하는 사람이 다 돌아가면서, '번쉐'를 해 가지고 이 집이, 오늘 누구네 먹여나면 누구네 하면서 그 돌아가면서 이제 소를 간수했었어.) 02 // 여름에는 번쉐 허영 영 돌아가멍 쉐들 다 내오주게.(여름에는 '번쉐'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들 다 내오지.) 18 // 쉐 멕이렌 허젠 허민 번쉐 멕이는 날은 학교도 못 가게 우리 어머니 허영 우리 성제가 그 번쉐 먹이레 강 작벡 우이 올랑 ᄂᆞᆷ이 갈아시민 치마통에 이젠 몸뻬라도 입엉 간다.(소 먹이려고 하려고 하면 '번쉐' 먹이는 날은 학교도 못 가게 우리 어머니 해서 우리 형제가 그 '번쉐' 먹이러 가서 '작벡' 위에 올라서 남이 갈았으면 치마통에 이젠 '몸뻬'라도 입어서 간다.) 34 [구억, 도련, 선흘, 신도, 인성]

번자귀: 자귀의 한 종류로 날이 가로로 되어 있어 주로 굵은 통나무를 서서 깎는데 알맞게 만들어진 도구이다. // 그거 나기 전에는 목수가 그 뭐인가 도치와 그 뭐인가 번자귀엔 헌 게 잇저.(그거 나기 전에는 목수가 그 뭐인가 도끼와 그 뭐인가 '번자귀'라고 한 게 있어.) 12 // 자귀허고 무시거 번자귀여 뭐, 대패여 뭐 거베낀 엇어.(자귀하고 뭐 '번자귀'다 뭐, 대패다 뭐 거밖에 없어.) 31 [토평, 한동]

번찍: 아무 의심할 것 없이 말간 모양이다. '펀찍' '판찍'이라고도 한다. // 무신 ᄉᆞ상이라고 헤서 뭘 알앙 것도 죽어시민 칭원 안 허주민 번찍 이건 아무것도 몰른 사름. 그런 첨 나쁜 시대가 셔.(무슨 사상이라고 해서 뭘 알아서 그것도 죽었으면 청원 안 해주면 '번찍' 이건 아무 것도 모른 사람. 그런 참 나쁜 시대가 있어.) 02 //

오랜만이 왕 이거 올케 이거 번찍.(오랜만에 와서 이거 '올케' 이거 '번찍.') 04 // 우리 그 후에, 번찍 엇언, 밀체 다 먹으멍, 어렵게 살앗어, 막 굶언.(우리 그 후에, '번찍' 없어서, 밀겨 다 먹으면서, 어렵게 살았어, 막 굶었어.) 15 // 궹장히 수확이 많이 나는 작물인데. 안 뒈게 뒈면은 이것도 번찍. 혼 말도.(굉장히 수확이 많이 나는 작물인데. 안 되게 되면 이것도 '번찍'. 한 말도.) 32 [고성, 덕수, 선흘, 수망]

번치다: 이웃끼리 여러 마리의 소나 말을 모아 놓고 한두 사람씩 번갈아가며 들판에 이끌고 가서 돌보다는 의미이다. // 오늘은 누구, 누구? 게여 가지고 번치는 거주게.(오늘은 누구, 누구? 그래 가지고 '번치는' 거지.) 29 [외도]

번허다: 밭의 곡식을 거둔 후 애벌갈이이다. // 밧을 번홈이라고. 갈앙 놔두는 거 보고 번허는 거라고 허여.(밭을 '번홈'이라고. 갈아서 놔두는 거 보고 '번허는' 거라고 해.) 19 [청수]

벌레: 밭을 갈 적에 흙과 함께 일어나는 풀포기, 한 번 매어 뒀는데 다시 엉켜 붙은 풀포기를 이르는 말이다. '벌레기', '벌헤기'라고도 한다. // 남아 있는 거 벌레, 벌레라고 허주게.(남아 있는 게 '벌레', '벌레'라고 하지.) 09 [고산]

벌레기: 밭을 갈 적에 흙과 함께 일어나는 풀포기, 한 번 매어 뒀는데 다시 엉켜 붙은 풀포기를 이르는 말이다. 김맬 때 처음에 대강 매는 김을 가르키기도 한다. // 벌레기 둘른다고 헤서 초불은 이 씨 솎는 거보단 검질을 검질을 주로. 검질 뽑기 목적이주.('벌레기' 두른다고 해서 애벌은 이 씨 솎는 거보단 김을 김을 주로. 김 뽑기 목적이지.) 14 // 처음 그거 헤영 메엿당 사름 엇인 사름은 그거 벌레기부터 우선 메엿당.(처음 그거 해서 맸다가 사람 없는 사람은 그거 '벌레기'부터 우선 맸다가.) 23 // 초불 이제 허멍 대강 소끄멍 주진 디, 주진 디 초불, 준 때난 초불 허영 요만씩 헌 때, 준 때 이제 흙은 벌레기.(애벌 이제 하면서 대강 솎으면 잦은 데, 잦은 데 애벌, 잔 때니까 애벌 해서 요만큼 한 때, 잔 때 이제 굵은 '벌레기'.) 28 // 삐면은 우린 그걸 또게 벌레기라고 옛날에 밧 갈앙 저 검질메는 것이 벌레기엔 곧나게.(뿌리면 우린 그걸 또 '벌레기'라고 옛날에 밭 갈아서 저 김매는 것이 '벌레기'라고 말해.) 31 [구엄, 성읍, 온평, 토평]

벌레기검질: 밭을 갈 적에 흙과 함께 일어나는 풀포기, 한 번 매어 뒀는데 다시 엉켜 붙은 풀포기를 이르는 말이다. 김맬 때 처음에 대강 매는 김을 가르키기도 한다. // 경헤영 짝짝 삐여근에 솟뭇 벌레기 치민 문 묻어지고. 벌레기검질, 검질 문, 문 검질 치고.(그래서 쫙쫙 뿌려서 사뭇 '벌레기' 치면 모두 묻히고. '벌레기검질', 김 모두, 모두 김 치고.) 31 [토평]

벌레기돌름: 무성하게 자란 풀포기를 대충 뽑아 매는 것이다. // 막 저 잘 메는 사름은 벌레기돌름이라고 헤서 막 씨 족은 때 혼불 멧당 두불 메는디 보통 두불.(아주 저 잘 매는 사람은 '벌레기돌름'이라고 해서 아주 씨 작을 때 초벌 맸다가 두벌 매는데 보통 두벌.) 06 [남원]

벌립: 모자의 종류이다. '벙거지'를 가리키는 말로 '벙것'과 혼용해서 쓰이고 있다. // 벌립이렌 헌게 있고, 벙것이렌 헌게 이섯주.('벌립'이라고 하는 게 있고, '벙것'라고 하는 게 있었지.) 03 [송당]

벌문: 자손이 번성하고 출세한 가문이다. // 벌문은 아니레도 ᄒᆞ나씩은 꼭 꼭, 헤헤. 상속은 ᄒᆞ게끔 헤놓왓주게.('벌문'은 아니라도 하나씩은 꼭 꼭 헤헤. 상속은 하게끔 해놓았지.) 04 [고성]

벌ᄆᆞ작: 매듭단추, 벌매듭이다. 매듭 모양이 벌 모양이다. // 벌ᄆᆞ작인가 머, 벌ᄆᆞ작이 아니라, ᄆᆞ작 ᄆᆞ치는 건가 먼가 하튼.('벌ᄆᆞ작'인가 뭐, '벌ᄆᆞ작'이 아니야, 매듭 맺는 건가 뭔가 하여튼.) 16 [하원]

범목장: 표선면 세화리의 마을 공동목장이다. // 오라근에 이제 또 농사 끗나민 또 범목장에 이제 올리고.(와서 이제 또 농사 끝나면 또 '범목장'에 이제 올리고.) 24 [세화]

범이동산: 구좌읍 한동리 지명의 하나이다. // 범이동산이라고 헤 가지고 요기도 큰 돌이 셔낫는데 이 도로 거세기 허면서 말야 헤 부니까 그건 없어져 버리고 이젠.('범이동산'이라고 해 가지고 요기도 큰 돌이 있었는데 이 도로 거시기 하면서 말야 해 버리니까 그건 없어져 버리고 이젠.) 12 [한동]

법단: 옷감 종류의 하나이다. // 그땐 모빈단, 법단. 그런 거 이불 겁죽, 또 옷덜 다 거기서 이젠 산 오랏주게.(그땐 '모빈단', '법단'. 그런 거 이불 거죽, 또 옷들 다 거기서 이젠 사서 왔지.) 20 [고내]

벗내: 안덕면 화순의 옛 지명이다. // 세 번째는 삼 벗내라고 사계 쪽인데 아 저 사계 저쪽 그 저 화순 쪽.(세 번째는 삼 '벗내'라고 '사계' 쪽인데 아 저 '사계' 저쪽 그 저 '화순' 쪽.) 18 // 나록 헤난 거 찍 사당 저 벗내 강 사다근엥.(벼 했던 거 짚 사다가 저 '벗내' 가서 사다가.) 18 [신도]

벙것떡: 쌀가루를 반죽한 후에 벙거지 모양으로 만든 떡이다. // 지금은 춤 뭐 경 아녀건디가 오래신디 옛날은 숟가락떡이엔 허연 경도 허고. 또 저, 저 무신거 벙것떡이엔 헤여근에 세미ᄀᆞ치 쪼꼬만허게이.(지금은 참 뭐 그렇게 않은 지가 오래인데 옛날은 '숟가락떡'이라고 해서 그렇게도 하고. 또 저, 저 무엇 '벙것떡'이라고 해서 '세미'같이 조그맣게.) 29 [외도]

벙뎅이: 가루, 흙, 똥 따위가 작거나 크게 덩어리져서 뭉친 것이다. 그렇게 덩어리진 것을 세는 단위이기도 하다. // 우린 기자 큰 떠렁쉐여, 족은 떠렁쉐여 허는 디. 그 쉐똥 벙뎅이 동그리는 거양.(우리 그저 큰 투구풍뎅이야, 작은 투구풍뎅이야 하는데. 그 쇠똥 '벙뎅이' 굴리는 거요.) 03 // 남자로 영 ᄒᆞ영 젓엉 남ᄌᆞ로 영 ᄒᆞ연 젓어근에 저 골로루 젓으민 벙뎅이 싹 풀어져붑니다.(국자로 이렇게 해서 저어서 국자로 이렇게 해서 저어서 저 골고루 저으면 '벙뎅이' 싹 풀어져버립니다.) 08 // 테역 그 벙뎅이 막 여러 번 두드려근에 그 밧을 ᄃᆞᆫ 만들어근에.(잔디 그 '벙뎅이' 마구 여러 번 두드려서 그 밭을 전부 만들어서.) 16 // 뒤에 영 벙뎅이 닮

은 거 풀어주고 거 뭐 헤근엥 허는 거.(뒤에 이렇게 '벙뎅이' 닮은 거 풀어주고 거 뭐 해서 하는 거.) 18 [동광, 송당, 신도, 하원]

베: '바'의 뜻이나, 여기서는 '집줄'의 의미로 쓰였다. // ᄒᆞᆫ 사름은 줄 치곡, 줄 비는 사름은 계속, 그 저 줄 놓은 사름, 미리 나간 사름은 들곡, ᄒᆞᆫ 사름은 ᄯᅳ로 어울린다 헤 가지고 베를 멘드는 겁주게.(한 사람은 줄 치고, 줄 꼬는 사람은 계속, 그 저 줄 놓는 사람, 미리 나간 사람은 들고, 한 사람은 또 '어울린다' 해 가지고 '베'를 만드는 거지요.) 35 [대림]

베계: 베를 모으기 위한 계이다. // 베계여. 머 막 하낫어.('베계'다, 뭐 마구 많았었어.) 16 [하원]

베니다: 일본어 'べにィタ'에서 온 말로, 얇게 켠 나무 널빤지인 '베니어'를 말한다. // 이젠 베니다로덜 탁탁 막암주만은 옛날은 우리 거 가시새로덜.(이제는 '베니다'로들 탁탁 막고 있지만 옛날은 우리 거 가시새로들.) 31 [토평]

베락맞은내: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내 이름이다. 여기에서 '베락'은 벼락의 의미이다. // 아마 그 당신 쎄어 가지고 아까 얘기헷주마는 힘께나 쓰고 지사도 잇고 허니까 아까 베락맞은내 베락맞은내 허주마는 글로 경계선이주.(아마 그 당신 세어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힘깨나 쓰고 지사도 있고 하니까 아까 '베락맞은내' '베락맞은내' 하지마는 그리로 경계선이지.) 29 [외도]

베롱: 불이 약한 모습이다. // 삭다리 헤당 놧당 그걸로 불 베롱, 솟뚜껭이로 지진 것이 맛잇엇수다.(삭정이 해다가 놨다가 그걸로 불 '베롱', 솥뚜껑으로 지진 것이 맛있었습니다.) 23 [온평]

베롱베롱: 아주 희미한 불의 모양이다. // 그거 저 옛날엔 불 ᄉᆞᆷ아근에, 낭 불 졸졸 ᄒᆞ게시리 ᄒᆞ여근에 베롱베롱 낭 불 ᄉᆞᆷ아서 솟두껑 놔근에 밤새낭 빙떡 헷수다.(그거 저 옛날엔 불 때어서, 나무 불 졸졸 하게끔 해서 '베롱베롱' 나무 불 때어서 솥뚜껑 놓아서 밤새도록 빙떡 했습니다.) 08 [동광]

베롱베롱: 이삭이 잘고 많이 달리지 않은 모양이다. // 막 궂은 밧듸 고고린 요만썩 허여. 베롱베롱 그축 허난. 경헤도 석 단, ᄒᆞᆫ 짝에 석 단 넘엉은 못 시꺼.(아주 궂은 밭에 이삭 요만큼씩 해. '베롱베롱'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석 단, 한 쪽에 석 단 넘게는 못 실어.) 25 [태흥]

베롱베롱허다: 구멍이 난 모습이다. 표준어 송송 정도에 대응한다. // 경 하면 그거 가졍은에 가위로 자기가 생각대로 그 지전 말르는 그 셍각대로 헹 다 끊는 거라. 끊어근에 영 페우면은 본향 같은 데 강 돈이렌 제승돈이렌 헤근에 고망 베롱베롱허게시리 만든 그거 경 끊어근에 페우면은 그런 것이 뒈는 거.(그렇게 하면 그거 가져서 가위로 자기가 생각대로 그 지전 마르는 그 생각대로 다 끊는 거야. 끊어서 이렇게 펴면 본향 같은 데 가서 돈이라고 '제승돈'이라고 해서 구멍 '베롱베롱허게시리' 만든 그거 그렇게 끊어서 펴면 그런 것이 되는 거.) 05 // 쳇망ᄀᆞ치 이젠 고망 베롱베롱허게 나오게 헨에 톡허게 더퍼 놓는 거 나왓더라.(쳇바퀴같이

이젠 구멍 ‘베롱베롱허게’ 나오게 해서 톡하게 덮어 놓는 거 나왔더라.) 25 [태흥, 표선]

베롱베롱허다: 불이나 불빛이 희미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ᄒᆞᆯᄒᆞᆯ 그자 베롱베롱허게 그자 궴만 허게. 불 달게 허민 우터레 욱곽헨 부꺼 벼. 겨난 ᄒᆞᆯᄒᆞᆯ 허영 ᄒᆞ꼼 오래 ᄉᆞᆲ아사.(조금조금 그저 ‘베롱베롱허게’ 그저 끓기만 하게. 불 달게 하면 위로 부글대서 ‘부꺼’ 버려. 그러니까 조금조금 해서 조금 오래 삶아야.) 31 [토평]

베롱베롱허다: 생활이 옹색한 지경에서 벗어나 조금 여유 있다는 의미이다. // 또 다시 땅 남아 시카부덴 경 헌 땅 고량에 놩, 거름 잘한 밧들은 보리밥덜 먹고, 거름 못헌 밧은 보리 안 뒈영 베롱베롱헤영은에 뭐 허주기.(또 다시 땅 남아 있을까봐 그렇게 한 땅 고랑에 놔서, 거름 잘한 밭들은 보리밥들 먹고, 거름 못한 밭은 보리 안 되어서 ‘베롱베롱헤영은에’ 뭐 하지.) 10 [월령]

베롱허다: 불빛 따위가 희미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우린 큰눈은 안 써나신디 베롱헤게 두 개 영헌디 ᄒᆞᆫ 착썩 실 꿰영 고무줄 헹 영 써근에 수건 쓰고.(우린 ‘큰눈’은 안 썼었는데 ‘베롱헤게’ 두 개 이렇게 한데 한 짝씩 실 꿰어서 고무줄 해서 이렇게 써서 수건 쓰고.) 13 // 경헤사 ᄒᆞ꼼 베롱헤영 베레질 거 아니.(그래야 조금 ‘베롱헤영’ 보일 거 아니.) 26 // 여름이난 옷도 하영 안 입엉 난닝구만 입은디 허난 막 이디 밀어져낫저. 등뗑이로 요 앞으로 헹 밀어 가난 ᄒᆞᆯ 베롱허게 눈이 터져라게.(여름이니까 옷도 많이 안 입고 러닝만 입었는데 하니까 마구 여기 밀어졌었어. 등때기로 요 앞으로 해서 밀어 가니까 조금 ‘베롱허게’ 눈이 뜨이더라.) 31 [삼달, 신창, 토평]

베리왓: 제주시 도련동 지명의 하나이다. // 베리왓은 뭐이고 허면 지금 에, 줄다리기 하던 밧. 뭐 옛 어른덜이 그물코가 만이라도 베릿줄 없으면 못헌다.(‘베리왓’은 뭐인가 하면 지금 에, 줄다리기 하던 밭. 뭐 옛 어른들이 그물코가 만 개이라도 벼리 없으면 못한다.) 01 [도련]

베릿골: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옛 동네 이름이다. // 게난 송씨 할망이옝 ᄒᆞ영 지금도 저 거 뭐 일년에 ᄒᆞᆫ 번썩 제를 지냄수다마는 그 당할망 중심으로 헹 거기 베릿골 쵀초에 구엄 생겨날 때 베릿골에서부터 사름이 살기 시작헤십주게.(그러니까 송씨 할머니라고 해서 지금도 저 거 뭐 일 년에 한 번씩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할망’ 중심으로 해서 거기 ‘베릿골’ 최초에 ‘구엄’ 생겨날 때 ‘베릿골’에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지요.) 28 [구엄]

베릿내: 서귀포시 중문동 서쪽을 흘러 바다로 흘러가는 내이다. 포구에 형성된 자연 마을을 가리키기도 한다. // 거기 베릿내 해녀들로 헹 돈을 오죽 벌어낫수가게.(거기 ‘베릿내’ 해녀들로 해서 돈을 오죽 벌었었습니까.) 34 [구억]

베릿내: 제주시 화북동을 거쳐 바다로 빠지는 내이다. // 시에레 가는 디 베릿내 ᄀᆞ뜬 디 그런 내덜이, 그 내덜은 어디 화북더레 빠진 내가 이시난 그런 내엔 허주만은 함

덕은 그런 거 엇어.(시로 가는 데 '베릿내' 같은 데 그런 내들이, 그 내들은 어디 화북으로 빠진 내가 있으니까 그런 내라고 하지만은 함덕은 그런 거 없어.) 11 [함덕]

베역: 영장하는 날 상여꾼들에게 주는 특별한 음식이다. // 베역이엔 헤근에 막 궤기 큰 거 끼와근에 주지 안 ᄒᆞ여?('베역'이라고 해서 아주 고기 큰 거 꿰어서 주지 안 해?) 17 [대평]

베염깅이: 게의 일종이다. // 베염깅인 얼룩얼룩허영 ᄲᆞᆯ긋ᄲᆞᆯ긋허고. 바다에서 주루 이 돌 우의에만 살아. 물속엔 안 살아.('베염깅이'는 얼룩얼룩해서 빨긋빨긋하고. 바다에서 주로 이 돌 위에만 살아. 물속엔 안 살아.) 01 [도련]

베염당: 뱀을 모시는 당(堂)이다. // 잔인ᄆᆞ루는 가면은 저, 저건 저건 베염당엔 허는디, 베염당엔 허는디 ᄒᆞ나 잇고. 안할망 잇고.('잔인ᄆᆞ루'는 가면은 저, 저건 저건 '베염당'이라고 하는데, '베염당'이라고 하는데 하나 있고. '안할망' 있고.) 14 // 안칠성은 고팡지기. 밧칠성은 베염당.('안칠성'은 '고팡지기'. '밧칠성'은 '베염당'.) 14 [성읍]

베옥이다: 닫히거나 덮인 것을 약간 틈나게 열다라는 의미이다. // 공기 나가게 베옥영 그런 것도 고팡 안네 들여놘게게.(공기 나가게 '베옥영' 그런 것도 고방 안에 들여 놓던데.) 29 [외도]

베욱허다: 불이 세지 않고 약하게 피운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 돌이나 들어시카 부덴 막 일주게. 들어시카 부덴 솟디 놩 ᄉᆞᆯ, 경헨 솟디 놩 불 ᄉᆞᆷ당 궤여 가민 솟두껭이 ᄒᆞ썰 영 베욱헤사주, 경 안허민 막 부각부각 넘어.(돌이나 들었을까 봐 막 일지. 들었을까 봐 솥에 놔서 쌀, 그래서 솥에 넣어서 불 때다가 끓어 가면 솥뚜껑 조금 이렇게 '베욱헤사주'. 그렇지 않으면 마구 부글부글 넘어.) 31 [토평]

베중이왓: 한림읍 대림리 근처에 있는 배 모양의 밭이 있는 지명이다. // 베중이왓이라 헤 가지고 베가 들어와서 머무는 곳이다 이레 가지고 허는디, 거기 높은 동산 잇어 가지고 베중이왓이고.('베중이왓'이라 해 가지고 배가 들어와서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 높은 동산 있어가지고 '베중이왓'이고.) 35 [대림]

베지근ᄒᆞ다: 고기 따위를 끓인 국물이 맛이 돌아 구미가 있음을 말한다. '비지근ᄒᆞ다'라고도 한다. // 계란 아니 벨 거보다 베지근ᄒᆞ니 맛이 좋아.(계란 아니 별 거보다 '베지근ᄒᆞ니' 맛이 좋아.) 03 // 그 모인좁ᄉᆞᆯ을 멕어가민, 흰죽은이 심심허고 거 그 죽은 ᄒᆞ꼼 좀 베지근헌 맛이 잇어.(그 메좁쌀을 먹어 가면, 흰죽은 심심하고 거 그 죽은 조금 좀 '베지근헌' 맛이 있어.) 21 // 보멀도 궤기라고 베지근ᄒᆞᆫ 맛이 잇거든. 이제 그걸 까 가지고는 간장에 말이지 쫌 졸엿다가 하나씩 밥에 먹을 때도 먹고 ᄒᆞ면은 반찬도 뒈고 말이여 그렇게 헷지.(고둥도 고기라고 '베지근ᄒᆞᆫ' 맛이 있거든. 이제 그걸 까 가지고는 간장에 말이지 쫌 졸였다가 하나씩 밥에 먹을 때도 먹고 하면 반찬도 되고 말이야 그렇게 했지.) 27 // 걸러근에 죽 쑤민

막 지름기가 직깍허곡 막 베지근허여.(걸러서 죽 쑤면 아주 기름기가 '직깍허곡' 아주 '베지근허여'.) 29 [신촌, 송당, 옹포, 외도, 청수]

베지왓: 제주시 도련동 지명의 하나이다. // 그 양쪽으로 이제 관람헐 수 잇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잇고, 다시 그 앞에 저대왓이 잇고 베지왓이 잇고.(그 양쪽으로 이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고, 다시 그 앞에 '저대왓'이 있고 '베지왓'이 있고.) 01 [도련]

베짝베짝: 속이 다 드러날 정도로 밖으로 드러난 상태이다. // 걸지 안으민 베짝베짝 ᄒᆞᆫ 거, 경 ᄒᆞ여도 그걸로 바깟듸 영 푸린 썹은 ᄇᆞᆨᄇᆞᆨ ᄐᆞᆫ아다근에 국 끌령 먹곡.(걸지 않으면 '베짝베짝' 한 거, 그렇게 해도 그걸로 바깥에 이렇게 푸른 잎은 박박 뜯어서 국 끓여서 먹고.) 08 [동광]

베짝허다: 사이가 촘촘한 것이다. // 좁씨 삐여근에 검질, 그거 크민 검질메여근에 이젠 검질 막 그거 씨 방씨 벌영 세와근에 베짝허게 내불지 안허영 방씨 벌영 세우민 조코고리가 나왕.(좁씨 뿌려서 김, 그거 크면 김매서 이젠 김 아주 그거 씨 '방씨 벌영' 세워서 '베짝허게' 내버리지 않고 '방씨 벌영'세우면 '조코고리'가 나와.) 12 [한동]

베짝허다: 전복 모양이 납작한 것을 이를 때 쓰는 말로 주로 암컷 모습을 표현할 때 쓴다. // 숫천복은 오무룩ᄒᆞ게시리 좋코, 암천복은 베짝허여.('숫천복'은 오목하게끔 좋고, '암천복'은 '베짝허여'.) 04 // 크면서도 납작한 것이 잇어. 옴탕한 거 말고. 베짝헌 거 말고.(크면서도 납작한 것이 있어. 오목한 거 말고. '베짝헌' 거 말고.) 05 // 수첨복은 움틀랑허고 암컨 겁덕도 베짝허여.('수첨복'은 '움틀랑허고' 암컷은 껍데기도 '베짝허여'.) 13 // 이제 점복 하난 암첨복이옌 헌 거는 영 베짝ᄒᆞᆫ 어떤 점복은 돌로 영 납작 붙어.(이제 전복 하니까 '암첨복'이라고 한 거는 이렇게 '베짝ᄒᆞᆫ' 어떤 전복은 돌로 이렇게 납작 붙어.) 18 [고성, 삼달, 신도, 옹포, 표선]

베창옷: 배냇저고리의 제주어로 '봇뒤창옷', '봇데창옷'이라고도 한다. // 경 허난 등 ᄀᆞ릅지 말렌 그 베로 경. 그것ᄀᆞ라 베창옷.(그렇게 하니까 등 가렵지 말라고 그 베로 그렇게. 그것보고 '베창옷'.) 29 // 안 ᄇᆞᆯ랑 그냥 맨 물에서 비누도 안 멕영은에 그냥 물 지치멍 그 는질는질 헌 거 시쳐둰인에, 그 베창옷, 소미도 이만은 질게 헤영 넹경 내불곡 헤영인에 입져.(안 발라서 그냥 맨 물에서 비누도 안 먹여서 그냥 물 끼얹으면서 그 '는질는질' 한 거 씻어둬서, 그 '베창옷'. 소매도 이만큼은 길게 해서 넘겨서 내버리고 해서 입혀.) 33 [외도, 인성]

베초석: 낚싯배 등에 돛으로 달았던 초석으로, 돛을 말한다. // 아주 옛날에는 베초석 잇어낫주.(아주 옛날에는 '베초석' 있었었지.) 23 // 베초석. 베에 ᄃᆞᆯ리는 거나 베초석.('베초석'. 배에 달리는 거니까 '베초석'.) 29 [온평, 외도]

벡기: 성산읍 고성리의 한 지명이다. // 고성리 앞바당에 벡기 가민.(고성리 앞바다에 '벡기' 가면.) 04 [고성]

벡담: 돌멩이로 벽을 쌓듯이 에둘러 놓은 밭담을 말한다. // 덧은 거 족제비 잘 뎅김 직헌 디, 어디 어수룩헌 디 그디 논다. 벡담, 벡담. 벡담 속에 만이 사니까.(덪은 거 족제비 잘 다닐 만한 데, 어디 '어수룩헌' 데 거기 놓는다. '벡담', '벡담'. '벡담' 속에 많이 사니까.) 12 // 게난 우린 저 이 목장에 가민은 잣담엔 헌 게 잇어이. 벡담으로 이렇게 뒌 거.(그러니까 우린 저 이 목장에 가면은 '잣담'이라고 한 게 있어. '벡담'으로 이렇게 된 거.) 14 [성읍, 한동]

벡연: 외양간 한 편에 각종 농기구들을 놓는 곳을 일컫는다. // 하간거 놓는, 그 물건 ᄀᆞ튼 거 놓는 것이. 벡연이옌 ᄀᆞᆯ읍주.(온갖 거 놓는, 그 물건 같은 거 놓는 것이. '벡연'이라고 말하지.) 17 [대평]

벡조하르방: '송당본풀이'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 벡조하르방을 내쫏글 때. 저 ᄇᆞ름 알로 가렌 허난 거기 멧 백 년 된 낭이, 그때 폭낭이 이서낫수다.('벡조하르방'을 내쫓을 때. 저 바람 아래로 가라고 하니 거기 몇 백 년 된 나무가, 그 때 팽나무가 있었습니다.) 03 [송당]

벡조할망: '송당본풀이'에 등장하는 금벡조이다. // 송당에는 특이헌 거 벡조할망 그거 하나 특이한 거주.(송당에는 특이한 게 '벡조할망' 그거 하나 특이한 거지.) 03 // 벡조할망 집 짓은 걸 기준으로 헤서 소낭 아래 집을 짓엉 살앗기 때문에 기자 송당.('벡조할망'이 집 지은 걸 기준으로 해서 소나무 아래에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저 송당.) 03 [송당]

벡케: 돌무지를 가리킨다. // 우린 잣벡이엔 허여이. 우린 잣벡이엔 허는디 벡케엔 허는 디도 잇어. 벡케.(우린 '잣벡'이라고 해. 우린 '잣벡'이라고 하는데 '벡케'라고 하는 데도 있어. '벡케'.) 30 [노형]

벤또: 일본어 'べんとう'로 도시락을 말한다. // 보난 먹을 거 엇이난 감저 친 거, 고구마 친 거 멧 개 요런 항고에 항고엔 헌 거 영 저 벤또 닮은 거 친 ᄃᆞᆫ 거 잇어.(보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고구마 찐 거, 고구마 찐 거 몇 개 요런 '항고'에 '항고'라고 한 거 이렇게 저 '벤또' 같은 거 끈 단 거 있어.) 25 // 그때 우린 저 소풍 갈 때, 소풍 갈 때만 벤또 쌍 가고.(그때 우린 저 소풍 갈 때, 소풍 갈 때만 '벤또' 싸서 가고.) 26 // 벤또 이녁 거 닐 먹을 거 싸곡 조반도 ᄂᆞᆷ이 거 가졍 가고. 조반은 수눌어 가멍 다 갖다 줘.('벤또' 자기 거 내일 먹을 거 싸고 조반도 남의 거 가지고 가고. 조반은 품앗이해 가면서 다 갖다 줘.) 30 // 아방 밥을 ᄆᆞᆫ저 ᄒᆞᆫ 사발 딱 거려 뒁 겐 벤또 시 갤 거려. 시 갤 거리민 하나썩만 들어가.(아버지 밥을 먼저 한 사발 딱 떠 두고 그래서 '벤또' 세 개를 떠. 세 개를 뜨면 하나씩만 들어가.) 30 [고내, 노형, 삼달, 신창, 태흥, 한동]

벤밧: 제주시 도련동 지명의 하나이다. // 지금 벤밧이라고 허면은 벤밧은 이제 사람 그 목을 짤라난 곳이 아닌가.(지금 '벤밧'이라고 하면은 '벤밧'은 이제 사람 그 목을 잘랐던 곳이 아닌가.) 01 [도련]

벤베루: 일본어 'ベルベット'에서 온 말로 벨벳을 말한다. // 궨당덜도 그때 광목 대자 주는

사름, 벤베루 치메 기지 주는 사름게 으라 가지주게.(친척들도 그때 광목 대자 주는 사람, '벤베루' 치마 천 주는 사람 여러 가지지.) 26 [신창]

벤자리: 하스돔과의 바닷물고기이다. // 벤자리엔 한 고기는 바당에 영 저 희여가당 보면은 여가, 여엔 헌 건 높은 동산이주게.('벤자리'라고 한 고기는 바다에 이렇게 저 헤엄쳐가다가 보면 '여'가, '여'라고 한 건 높은 동산이지.) 05 // 저 벤자리 그런 거 여름에 경헨 지영 강 풀고.(저 '벤자리' 그런 거 여름에 그렇게 해서 지고 가서 팔고.) 20 // 갈치, 이젠 갈치가 엇어도 옛날엔 갈치가, 갈치, 벤자리 막 하.(갈치, 이젠 갈치가 없어도 옛날엔 갈치가, 갈치, '벤자리' 아주 많아.) 26 [고내, 신창, 표선]

벤줄레: 땅속의 돌 같은 것을 파 일으키는 데 쓰는 끝이 뾰족하게 만들어진 연장이다. // 벤줄레 따비로 저 그걸로 헷주게 세밧 이길 때 그걸로.('벤줄레' 따비로 저 그걸로 했지 띠밭 일굴 때 그걸로.) 16 [하원]

벨떡: 별 모양으로 생긴 떡이다. 보통 기름에 지져서 만들기 때문에 '기름떡'이라고도 한다. 주로 웃기떡으로 쓰는 기름떡을 말한다. // 그 우티레 놩. 그 우틔레 따시 동글락떡은 절벤. 그 우틔레 따신 솔벤 영 마주 놩 그건 솔벤. 그 우티렌 또 동글랑 동글랑 놓는 건 벨떡 그거.(그 위로 놔서. 그 위로 다시 '동글락떡'은 절편. 그 위로 다신 '솔벤' 이렇게 마주 놔서 그건 '솔벤'. 그 위론 또 동글동글 놓는 건 '벨떡' 그거.) 14 // 절벤 놔놩 우지시는 건 벨떡엔 헤근에 젤 우에.(절편 놔놔서 웃기떡은 건 '벨떡'이라고 해서 젤 위에.) 23 [성읍, 온평]

벨롱겡이: 일 년간 집안의 행운을 비는 굿의 이름이다. // 벨롱겡이. 집집마다 운을 빌기 위해서 무당을 빌기 때문에. 벨롱겡이, 벨롱겡이 헙니다.('벨롱겡이'. 집집마다 운을 빌기 위해서 무당을 빌기 때문에. '벨롱겡이', '벨롱겡이' 합니다.) 03 [송당]

벨롱벨롱: 반짝반짝이라는 뜻이나 여기서는 조 이삭이 조금밖에 달려있지 않은 모양을 묘사한 말이다. // 곶인 밧듸 고고리가 벨롱벨롱 생이치 들암직헌 거.(곶은 밭엔 이삭이 '벨롱벨롱' 새뒷에 달아맬 만한 거.) 13 [삼달]

벨롱벨롱벨롱: 초목 따위의 크기가 크게 자라지 않고 작은 모양이다. // 두루 뽑앙 내불민 벨롱벨롱벨롱 헤영 고고리가 이추룩 헤부난 흙게.(두루 뽑아서 내버리면 '벨롱벨롱벨롱' 해서 이삭이 이처럼 해버리니까 굵게.) 26 [신창]

벨호: 별호(別號), 별명(別名)으로 '벨랑', '벨리'라고도 한다. // 이 함덕은 벨호가 엇어.(이 함덕은 '벨호'가 없어.) 11 [함덕]

벳: 볏. 쟁기의 보습 위에 대는 조각이다. // 네벳띠기옌 허는 거는 영 갈아가면은 벳이 일로 두 번 더퍼지곡 절로 강 또 갈아가면은 일로 두 번.('네벳띠기'라고 한 것은 이렇게 갈아 가면 '벳'이 이리로 두 번 덮어지고 저리로 가서 또 갈아 가면 이리로 두 번.) 03 // 벳, 벳은 혼쪽 들어 넘어가야 만이 밧고지가 뒈니까.('벳', '벳'은 한쪽 들어 넘어가야 만이 밭이랑이 되니까.) 09 [고산, 송당]

벳공젱이: 보습 위에 댄 볏을 받치는 한마루에 꾀어진 나무깽이이다. 지역에 따라서 '벳바

드렝이', '벳받이', '벳받침'이라고도 한다. // 벳공젱이엔도 허곡 벳받침이엔도 허곡.('벳공젱이'라고도 하고 '벳받침'이라고도 하고.) 01 [도련]

벳놀: 쟁기의 볏에 묻은 흙을 긁어 내리우는 나뭇조각이다. 달리 '벳칼'이다. // 벳바드렝이. 이건 벳놀. 요거, 벳놀 요거.('벳바드렝이'. 이건 '벳놀'. 요거, '벳놀' 요거.) 36 // 벳놀. 벳바드렝이. 벳놀.('벳놀'. '벳바드렝이'. '벳놀'.) 36 [봉성]

벳돗: 배의 돛이다. // 벳돗이엔 허주, 돗 달 정도로 헌 베가.('벳돗'이라고 하지, 돛 달 정도로 한 배가.) 23 [온평]

벳바드렝이: 보습 위에 댄 볏을 받치는, 한마루에 꿰어진 나무깽이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벳받침, 벳받이' 따위로 부른다. // 아래 영 가고 이거 영허민 이레 영 뒌 거니까 이게 설칫. 설칫, 그다음에 고망 뚤랑 영 혼 건 벳바드렝이, 벳바드렝이, 이제 또 이제 일로 끗뎅이 영 헌 건 돌벵이뿔.(아래 이렇게 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리로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한마루. 한마루, 그다음에 구멍 뚫어서 이렇게 한 건 '벳바드렝이', '벳바드렝이', 이제 또 이제 일로 끄트머리, 이렇게 한 건 '돌벵이뿔'.) 19 // 잠데는 그 제일 처음에는 그 성에, 무클, 또 벳바드렝이, 돌벵이뿔, 양주머리 대게 이렇게 구분뒈어 가지고 허는디.(쟁기는 그 제일 처음에는 그 성에, 쟁깃술, 또 '벳바드렝이', '돌벵이뿔', 양지머리 대개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하는데.) 35 // 벳놀. 벳바드렝이. 벳놀.('벳놀'. '벳바드렝이'. '벳놀'.) 36 [대림, 봉성, 외도, 청수]

벳바드렝이끈: 보습 위에 댄 볏을 받치는, 한마루에 꿰어진 나무깽이를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물건이다. // 벳바드렝이끈도 이젠 들어가는 거. 건 뭐 벳바드렝이끈.('벳바드렝이끈'도 이젠 들어가는 거. 건 뭐 '벳바드렝이끈'.) 29 [외도]

벳바들: 보습 위에 댄 볏을 받치는, 한 마루에 꿰어진 나무깽이이다. // 겐 요것이 보기 좋게 쏙 저 뭣이엔 곧나, 질메 가진 너무 오그라지고, 그 보단 덜 오그라지고, 오그라졍 허믄, 요것이 무클이고, 성에, 그다음엔 이 벳바들이옌, 벳바들허믄 영 콕 찔렁 받는 것이 잇수다.(그래서 요것이 보기 좋게 쏙 저 뭐라고 말하나, 길마 가지는 너무 오그라지고, 그 보다는 덜 오그라지고, 오그라져서 하면, 요것이 쟁깃술이고, 성에, 그다음에는 이 '벳바들'이라고, '벳바들'하면 이렇게 콕 찔러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28 [구엄]

벳바투기: 보습 위에 댄 볏을 받치는 한마루에 꾀어진 나무깽이이다. '벳바드렝이', '벳공젱이', '벳받이'라고도 한다. // 이건 벳, 벳바투기엔 이걸, 요걸로 벳을 이레저레 가지 못허게 바투는 거주, 이거.(이건 볏, '벳바투기'라고 이걸, 요걸로 볏을 이리저리 가지 못하게 받치는 거지, 이거.) 12 [한동]

벳속머리: 배냇머리이다. // 벳속머리엔도 허고 베넷머리엔도 보통 벳속머리엔 헷저.('벳속머리'라고도 하고 배냇머리라고도 보통 '벳속머리'라고 했어.) 12 [한동]

벳접: 상이 났을 때 상복을 만들기 위한 베를 모으기 위한 계 조직이다. // 벳접은 돈 내놩 베, 큰일 때 베 헤영, 초상 때 허민 베 헤영 상복 허젠 벳접 허고 헤나도 그런

것엔 우리도 안 들어나고.('벳접'은 돈 내놓아서 베, 큰일 때 베 해서, 초상 때 하면 베 해서 상복 하려고 '벳접' 하고 했어도 그런 것에는 우리도 안 들었었고.) 13 [삼달]

벳줄: 쟁기 몸체에 볏을 고정시킬 때 묶는 줄을 말한다. // 경허난 이디 벳줄이라고양.(그러니까 여기 '벳줄'이라고요.) 20 [고내]

벳칼: 쟁기의 볏에 묻은 흙을 긁어 내리우는 나뭇조각이다. // 벳칼은 엇고게. 벳도 다끄는 것ᄀᆞ라 벳칼이엔 헴실 거여.('벳칼'은 없고. 볏도 닦는 것보고 '벳칼'이라고 하고 있을 거야.) 02 [선흘]

벳코: 볏의 뒷면에 있는 고리이다. // 그다음 벳바드렝이. 또 벳틀레. 벳코.(그다음 '벳바드렝이'. 또 '벳틀레'. '벳코'.) 29 [외도]

벳틀: 쟁기에 볏을 끼울 수 있도록 받히는 도구이다. // 여기는 벳이 이렇게 헌 게 잇지 아녀, 이거 벳틀일 거고.(여기는 볏이 이렇게 한 게 있지 않아, 이거 '벳틀'일 거고.) 23 [온평]

벳틀레: 쟁기에 볏을 단단히 틀어주는 나무 막대이다. // 벳틀렌 또 이디 낭 두 개 헤 가지고 까까근에 요추룩헌 거 까까 가지고 벳틀레도 또 요것ᄀᆞ치 영 양쪽으로 허여이.('벳틀레'는 또 여기 나무 두 개 해 가지고 깎아서 요처럼 한 거 깎아 가지고 '벳틀레'도 또 요것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해.) 02 // 이거 벳틀레라고. 이게 이게 센 나무로 헤야 뒈.(이거 '벳틀레'라고. 이게 이게 센 나무로 해야 돼.) 03 // 돌벵이뿔 그것에 이제 쉐멍에 헌 걸 걸려서 영 ᄃᆞᆼ이는 거라. 그다음에는 이제 보섭 찔르고 벳 ᄃᆞᆯ르고, 벳 ᄃᆞᆯ른 다음에는 벳틀레 요렇게 찔르는 것이 영 헌 것이 벳틀레가 잇고, 경허면은 그 잠대에는 명칭이 다 들어간 거.('돌벵이뿔' 그것에 이제 멍에 한 걸 걸어서 이렇게 당기는 거야. 그다음에는 이제 보습 찌르고 볏 두르고, 볏 두른 다음에는 '벳틀레' 요렇게 찌르는 것이 이렇게 한 것이 '벳틀레'가 있고, 그렇게 하면 그 쟁기에는 명칭이 다 들어간 거.) 19 // 그다음 벳바드렝이. 또 벳틀레.(그다음 '벳바드렝이'. 또 '벳틀레'.) 29 [봉성, 선흘, 송당, 외도, 청수]

벵뒤: 널따란 벌판 즉, 허허벌판을 의미하는 제주어로 '벵듸'라고도 한다. // 새끼 낳믄 봄나면은 벵뒤에 오랑은에 낳니까 다 알주게.(새끼 낳으면 봄되면 '벵뒤'에 와서 낳으니까 다 알지.) 02 // 비가 왓을 땐 벵뒤가 다 이제 물바다엿단 말이야.(비가 왔을 때는 '벵뒤'가 다 이제 물바다였단 말이야.) 09 // 벵뒤 쪽이 수성 화산 지대라서 굉장히 좋아.('벵뒤' 쪽이 수성 화산 지대라서 굉장히 좋아.) 09 // 그 털이 그냥 잇는데 아직은 벨로 곱지 못허니까 허긴 좀 비뜩비뜩 헙니만은, ᄆᆞᆼ아진 당일 벵뒤 간덴 헙주게.(그 털이 그냥 있는데 아직은 별로 곱지 못하니까 하긴 좀 '비뜩비뜩' 합니다만, 망아지는 당일 '벵뒤' 간다고 하지요.) 35 [고산, 대림, 선흘]

벵듯가름동네: 성산읍 고성리의 자연 마을 이름이다. // 소위 벵듯가름동네, 성안동네, 남문

동네, 웃도릉 웃동네 ᄒᆞ문, 장만이동산, 아 요런 이 저 동네별로 허문은 거이 접이나 계가.(소위 '벵딧가름동네', '성안동네', '남문동네', '웃도릉' 윗동네 하면, '장만이동산', 아 요런 이 저 동네별로 하면은 거의 '접'이나 계가.) 04 [고성]

벵디왓: 한림읍 대림리에 위치한 지경 이름이다. // 이디서 자리 거려 두고 테우 와 가니까 요 벵디왓 동산에서 비양도 앞ᄁᆞ지 강 테우는예 영 자리 거리는 동그란 것이 셔마씨.(여기서 자리돔 떠 두고 떼 와 가니까 요 '벵디왓' 동산에서 비양도 앞까지 가서 떼는요 이렇게 자리돔 뜨는 동그란 것이 있어요.) 35 [대림]

벵일동산: 제주시 노형동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겐 쪼금 올라가민 벵일동산.(그래서 조금 올라가면 '벵일동산'.) 30 [노형]

벵일이: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이다. // 벵일인 요 웃가름이 벵일이라. 여기 우리 하르부지 살단 그디 밧 이시난 글로 올라강 집 지엉 사는디.('벵일이'는 요 '웃가름'이 '벵일이'야. 여기 우리 할아버지 살다가 거기 밭 있으니까 그리로 올라가서 집 지어서 사는데.) 30 // 물 사름 먹는 물 두 개, 소 먹는 물 두 개 팡 놔둬신디이 이 벵일이광 정존이 사이에. 겐 여기서도 가곡 저디서도 강 허는디 엇언게게.(물 사람 먹는 물 두 개, 소 먹는 물 두 개 파서 놔뒀는데 이 '벵일이'와 '정존이' 사이에. 그래서 여기서도 가고 저기서도 가서 하는데 없더라.) 30 [노형]

벽치기: 구슬치기 놀이의 한 방법이다. // 벽치긴 이 벽덜에 돌마칠락, 돌세기로 팩 팩 헤근에 멧 개 마쳇저. 멧 개? 두 개.('벽치기'는 이 벽들에 '돌마칠락', 돌멩이로 팩 팩 해서 몇 개 '마쳇저'. 몇 개? 두 개.) 17 [대평]

보게또: 영어 'pocket'이 일본어 발음으로 변형된 것이다. // 주머니사 무시거 저 쑤봉주머니? 보게또?(주머니야 뭐 저 바지주머니? '보게또'?) 15 [수망]

보그랑허다: 떡 따위가 부드럽게 부풀어 오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보그랑케 떡 헹 먹고 고젱이에 영 헹 이만이 꿰영 줘게. 손도 커.('보그랑케' 떡 해서 먹고 꼬챙이에 이렇게 해서 이만큼 꿰어서 줘. 손도 커.) 30 [노형]

보끔이: 보리를 번철에 그대로 볶아낸 음식이다. // 보끔이 헤 먹곡, 개역 헤먹곡. 주로 보끔이 허곡 개역 허고 보리떡도 헹 먹곡.('보끔이' 해 먹고, 미숫가루 해 먹고. 주로 '보끔이' 하고 미숫가루 하고 보리떡도 해서 먹고.) 01 [도련]

보달: 솔가리 뭉치 따위를 몇 개의 기다린 매끼로 단단하게 동여 묶어 등짐으로 하나 되게 꾸린 짐이다. // 이제 보달 치젠 허믄 거기 이제 거기서 칙 걷엉도 이제 보달이엔 헌 건 ᄒᆞᆫ 뭉칠 만드는 거.(이제 '보달' 치려고 하면 거기 이제 거기서 칡 걷어서도 이제 '보달'이라고 한 건 한 뭉칠 만드는 거.) 01 // 잘 허는 사름은 완전 뛰어도 ᄒᆞ나 털어지지 아녀게 보달 무끄는 사름덜이 잇어.(잘 하는 사람은 완전 뛰어도 하나 떨어지지 않게 '보달' 묶는 사람들이 있어.) 05 // 이 장보다는 요만이 허게 헤근에 부각허게 헤 놔근에 기술적으로 할머니들이 짝 ᄆᆞ는디, 김밥보다는 ᄀᆞ늘고 길고 허게 멧 보달을 허다가 딱 여기 제겨 놔둠서 이걸로.(이 장보

다는 요만큼 하게 해서 '부각허게' 해 놓고 기술적으로 할머니들이 짝 마는데, 김밥보다는 가늘고 길고 하게 몇 '보달'을 하다가 딱 여기에 재여 놔두면서 이걸로.) 06 // ᄒᆞᆫ 보달게. ᄒᆞᆫ 짐, ᄒᆞᆫ 짐 뒈게.(한 '보달'. 한 짐, 한 짐 되게.) 29 [남원, 도련, 외도, 표선]

보달치다: 솔가리 뭉치 따위를 매끼로 단단하게 동여 묶어 등짐으로 꾸려 놓은 묶음을 말한다. // 그건이 이제 영 조금썩 허지 아니허영 크게, 크게 영허영 가멩이만이 무꺼근에 헌 것ᄀᆞ라 보달쳣젠 허고. ᄒᆞᆫ 짐 져와 그걸로 ᄒᆞᆫ 뭇 무껑.(그건 이제 이렇게 조금씩 하지 않고 크게, 크게 이렇게 해서 가마니만큼 묶어서 한 것보고 '보달쳣젠' 하고. 한 짐 져와 그걸로 한 뭇 묶어서.) 02 // 양편으로 놩 솔닙 탁탁 걷어근에 탁탁 보달쳥. 그레 탁탁 놩 ᄌᆞ근ᄌᆞ근 ᄇᆞᆯ르멍 헤영 그것에 그 노끗에 발로 차멍. 그걸 무끄게시리 헹 지민.(양편으로 놓아서 솔잎 탁탁 걷어서 탁탁 '보달쳥'. 거기에 탁탁 놓아서 자근자근 밟으며 해서 그것에 그 노끈에 발로 차며. 그것을 묶게끔 해서 지면.) 04 // 경 보달쳥 왕 이젠, 지게, 지게로 그 지게 가뎅이로 그 보달친 걸 꾹 찔르면 반은 찔러질 거 아니?(그렇게 '보달쳥' 와서 이젠, 지게, 지게로 그 지게 막대기로 그 '보달친' 걸 꾹 찌르면 반은 찌를 수 있을 거 아니니?) 11 [고내, 고성, 선흘, 함덕]

보루: 일본어 'ボール'로 상자나 폐지 등을 말하는 것이다. // 보루엔 허민 페병, 페병 들려난 옷 헹 데껴 불민 그거 주서당 ᄑᆞᆯ곡 애기덜 헹 주곡.('보루'라고 하면 폐병, 폐병 걸렸던 옷 해서 던져 버리면 그거 주워다가 팔고 아기들 해서 주고.) 13 // 우리 어머니 ᄉᆞ춘 동세가 젊은 때 넴펜 죽어부난 일본 간디 보루 주스난 ᄯᆞᆯ도 시 성젠가 니 성젠가 페병 걸련 죽엇어.(우리 어머니 사촌 동서가 젊을 때 남편 죽어 버리니까 일본 갔는데 '보루' 주우니까 딸도 삼 형제인가 사 형제인가 폐병 걸려서 죽었어.) 13 // 그 엿날에 우리 열다섯에 갈 때는 다 종이에 풀 ᄇᆞᆯ라 가지고 그 하꼬, 보루 바꼬를 이젠 하꼬 식으로 영 딱딱 만들어 놓면은 그걸 종이로 하꼬를 만드는 거라.(그 옛날에 우리 열다섯에 갈 때는 다 종이에 풀 발라 가지고 그 상자, '보루' '바꼬'를 이젠 상자 식으로 이렇게 딱딱 만들어 놓으면 그걸 종이로 상자를 만드는 거야.) 20 [고내, 삼달]

보름떡: 정월 대보름날 잘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를 보고 한 해 운수를 점치기 위해 찌는 시루떡이다. // 정월보름엔 열나흘날 처냑이 보름떡 치민 떡이 익으민 허고 떡 설민 궂덴 허난 떡 설엄덴 허곡, 이녁 이름 ᄊᆞᆯ ᄒᆞᆫ 줌썩, ᄒᆞᆫ 줌썩 놔근에 허민 일름 써놩 허민 그 떡 안 뒌 사름은 재수 엇덴 허주.(정월보름엔 열나흗날 저녁에 '보름떡' 찌면 떡이 익으면 하고 떡 설면 나쁘다고 하니까 떡 선다고 하고, 자기 이름 쌀 한 줌씩, 한 줌씩 놔서 하면 이름 써놔서 하면 그 떡 안 된 사람은 재수 없다고 하지.) 13 // 우리가 옛날에는 이 방에에서 막 떡ᄀᆞ를 ᄲᆞᆺ아근에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걸 잘 헤낫수다게. 경헨 보름떡이라고 정월 보름떡을 쪄.(우리가 옛날에는 이 방아에서 막 떡가루를 빻아서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걸 잘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름떡'이라고 정월 '보름떡'을 쪄.) 14 [삼달, 성읍]

보리 곱다: 보리가 굽다. 보릿대가 부러져 아래로 숙이고 있다. // 보리 곱고 삼 거릴 때는 말이야 그 뭐인가 사둔 봐도 밋구녕으로 절헌다고 경허는 거주.('보리 곱고' 삼 '거릴' 때는 말이야 그 뭐인가 사돈 봐도 밑구멍으로 절한다고 그러는 거지.) 12 [한동]

보리골: 보리로 만든 엿기름이다. 보리를 틔어서 말린 것이다. 엿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 엿기름엔 허영 지금은 곧는디 그자 옛사름덜은 골, 보리골.(엿기름이라고 해서 지금은 말하는데 그저 옛사람들은 '골', '보리골'.) 01 // 밀콜도 좋고 보리골도 좋은디 이 보통 약 허는 거는 보리골이 좋고 감쥐 허는 거는 밀콜이 존디 요샌 밀콜이 엇어, 보리골이주 다.('밀콜'도 좋고 '보리골'도 좋은데 이 보통 약 하는 거는 '보리골'이 좋고 감주 하는 거는 '밀콜'이 좋은데 요샌 '밀콜'이 없어, '보리골'이지 다.) 14 [도련, 성읍]

보리ᄀᆞ슬: 보리를 수확하는 것이다. // 건 보리ᄀᆞ슬 끗낭 에, 오월ᄃᆞᆯ, 오월 그믈엉 유월 ᄃᆞᆯ ᄭᆞ지.(건 '보리ᄀᆞ슬' 끝나서 에, 오월달, 오월 '그물엉' 유월 달까지.) 16 [하원]

보리께: 보리의 뭇을 묶을 때 사용하는 매끼로, 보리 자체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 그 보리남뎅이로 무끄주게. 보리께로.(그 '보리남뎅이'로 묶지. '보리께'로.) 14 [성읍]

보리끄르: 보리농사를 지었던 자리이다. // 이 보릿그르에 허는 거난 조 게믄 그 보리끄르에 다 거름 헤져세.(이 '보릿그르'에 하는 거니까 조 그러면 그 '보리끄르'에 다 거름 했었지.) 10 [월령]

보리만뒤: 보릿가루를 반죽하여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안에 팥소 따위를 넣어서 찐 후에 팥고물을 묻힌 떡이다. // 옛날엔게 밀 엇인 땐 보리떡, 보리만뒤헤근에양.(옛날엔 밀 없을 땐 보리떡, '보리만뒤' 해서요.) 23 // 감저 담고 허영 맛서, 건. 보리만뒤 맛싯어.(고구마 담고 해서 맛있어, 건. '보리만뒤' 맛있어.) 23 [온평]

보리묵: 보릿가루로 만든 묵이다. // 보리만, 보리떡 묵도 헤먹을 때 묵도 보리묵 쑤곡.(보리만, 보리떡 묵도 해먹을 때 묵도 '보리묵' 쑤고.) 23 [온평]

보리북매: 일제강점기 때 보리쌀 등 공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맞는 매이다. //매도 하영 맞앗젠 ᄒᆞ고, 그 말 잘 안 들으고 할당량 못 채우면은 게, 보리북매, 보리북매 헌 말이 그때 나온 말이엔 헙주.(매도 많이 맞았다고 하고, 그 말 잘 안 듣고 할당량 못 채우면 그래, '보리북매', '보리북매' 한 말이 그때 나온 말이라고 하지요.) 15 [수망]

보리상웨: 보리상화떡을 말한다. 보릿가루에 효모를 넣어서 부풀린 후 둥그렇게 만들어서 찐 빵이다. // 보리상웨도 헤 먹곡. ᄒᆞ꼼 허민 사름이라도 궂이민 보리상웨ᄀᆞ찌. 에이고, 보리상웨ᄀᆞ치. 밀떡엔 헌 건 그 개떡 말.('보리상웨'도 해 먹고. 조금 하면 사람이라도 궂으면 '보리상웨'같이. 에이고, '보리상웨'같이. 밀떡이라고 한 건 그 개떡 말.) 01 [도련]

보리쏠계: 보리쌀을 모으기 위한 계이다. // 무신 보리쏠계여. 무신 곤쏠계여.(무슨 '보리쏠계'다. 무슨 '곤쏠계'다.) 16 [하원]

보리철: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이다. // 보리철 뒈민 보리 태작헤 가지고 뭐 열 가마 때리면 한 가마는 내가 수입을 받앗으니까.('보리철' 되면 보리 타작해 가지고 뭐 열 가마 때리면 한 가마는 내가 수입을 받았으니까.) 23 [온평]

보리체: 보리쌀의 겉껍질이다. // 그 보리체는게 도새기 먹이고게.(그 '보리체'는 돼지 먹이고.) 18 [신도]

보리체시: 보리 농사가 끝나는 망종을 이르는 말로 '체시'는 저승사자를 뜻하는 제주어이다. // 보리를 다 익게 허는 게, 망종 날이민 다 익나. 보리체시엔 허여.(보리를 다 익게 하는 게, 망종 날이면 다 익는다. '보리체시'라고 해.) 36 [봉성]

보리클: 보리를 떠는 농기구이다. 보리 이삭을 훑는 데 쓰는 그네이다. // 보리클, 보리클 허메. 그런 거 요추룩 쉐 돋은 거에 놩 보리 탁탁 홀타, 홀트민 도께로 두드렷네.('보리클', '보리클' 해. 그런 거 요처럼 쇠 돋은 거에 놔서 보리 탁탁 훑어, 훑으면 도리깨로 두드렸네.) 25 // 다 시꺼오주기게. 시꺼당 집이서 홀탓주게. 돌러레도 엿날은 그 보리클 안 난 땐 돌러레 두드렷젠 헌다, 테작.(다 실어오지. 실어다가 집에서 훑었지. 돌에도 옛날은 그 '보리클' 안 났을 땐 돌에 두드렸다고 해, 타작.) 26 // 산디 그것도 보리 홀트듯 건 보리클은 ᄒᆞ끔 엉기곡 나룩클은 조금 좁니다.(밭벼 그것도 보리 훑듯 건 '보리클'은 조금 엉기고 '나룩클'은 조금 자잘합니다.) 35 [고산, 대림, 수망, 신창, 신촌, 태흥]

보리틀: 보리 이삭을 훑는 데 쓰는 그네이다. // 집의 시꺼 왕 보리틀 허영 홀타.(집에 실어 와서 '보리틀' 해서 훑어.) 14 [성읍]

보릿개역: 보리미숫가루. 보리를 볶아서 만든 미숫가루이다. // 술보리는 동글동글허고 껍데기 얇으게만 끼와진 거난 개역 허레 가도 보릿개역허레 가도 주넹이보리는 허민 기계에 겁떡을 벳겨 내뒁 ᄀᆞ를 골곡 쌀보리는 그대로 곱니다게.(쌀보리는 동글동글하고 껍데기 얇게만 끼워진 거니까 미숫가루 하러 가도 '보릿개역'하러 가도 맥주보리는 하면 기계에 껍질을 벗겨 내고 가루를 갈고 쌀보리는 그대로 갑니다.) 23 // 우린 그 엿날에는 딴 거 엇언에게 보릿개역, 보릿ᄀᆞ르.(우린 그 옛날에는 딴 거 없어서 '보릿개역', 보릿가루.) 23 [온평]

보릿그루: 보리를 베어 버리고 난 밑동 또는 그 밭을 말한다. // 보리 곧 비영 얼메 엇이민 보릿그루에 콩 가는 거.(보리 곧 베서 얼마 없으면 '보릿그루'에 콩 가는 거.) 26 // 보릿그루에 가는 건 이제 보리 허여 낭 가는 건 ᄒᆞ꼼 늦덴 허고 이르게 가는 건 ᄒᆞᆫ ᄉᆞ월 초파일 ᄆᆞ리에 가는 거.('보릿그루'에 가는 건 이제 보리 하고 나서 가는 건 조금 늦다고 하고 이르게 가는 건 한 사월 초파일 무렵에 가는 거.) 26 [신창]

보릿그르: 보리를 베어 버리고 난 밑동 또는 그 밭을 말한다. // 심기 전에 작업을 게메, 보리 헤난 디 옛날 어른덜은 보리 갈아나민 기냥 초불에 갈아근에 심그는 디도 이섯주마는 초불 갈민 감저가 무신 걸름도 아녀곡 뭐 헌덴허멍 똑 보릿그르를 ᄒᆞᆫ 번 처음 갈아.(심기 전에 작업을 그러게, 보리 했던 데 옛날 어른들은 보리

갈아나면 그냥 애벌에 갈아서 심는 데도 있었지만 애벌 갈면 고구마가 무슨 거름도 안하고 뭐 한다면서 똑 '보릿그르'를 한 번 처음 갈아.) 07 // 고구마는 주로 보릿그르에 심주게. 것도 이쟈 여름농사가 뒈다 보니까 그 보릿그르에 그 소서 유월절 직전에 싱거.(고구마는 주로 '보릿그르'에 심지. 것도 이제 여름농사가 되다 보니까 '보릿그르'에 그 소서 '유월절' 직전에 심어.) 19 // 보리 익, 익엉은에 거저 허여 가믄 이게 크기 시작헤영은에 에 보릿그르 나믄 이제 싱그주기.(보리 익, 익어서 거의 해 가면 이게 크기 시작해서 에 '보릿그르' 나면 이제 심지.) 29 // 유월절 뒈민은 이 거스름팟이라고 헤서. 보릿그르에 그 조를 갈아가지고 이제. 걸 ᄆᆞᆯ로 ᄇᆞᆯ리거든.('유월절' 되면 이 '거스름팟'이라고 해서. '보릿그르'에 그 조를 갈아가지고 이제. 걸 말로 밟거든.) 32 [덕수, 보목, 외도, 청수]

보릿ᄆᆞ스락: 보리를 탈곡할 때 나오는 까끄라기이다. // 보릿ᄆᆞ스락 굴묵 살르고.('보릿ᄆᆞ스락' '굴묵' 사르고.) 23 [온평]

보릿발: 보리의 뿌리를 말한다. // 경운기론가 구루마로라도 ᄇᆞᆯ라줘. 경허민 땅이 ᄃᆞᆫᄃᆞᆫ허민 보릿발이 ᄃᆞᆫᄃᆞᆫ허여.(경운기로나 달구지로라도 밟아줘. 그렇게 하면 땅이 단단하면 '보릿발'이 단단해.) 11 [함덕]

보말국: 고둥을 넣어 끓인 국이다. // 보말국도 헹 보말국도 그거 바당에 강 ᄒᆞ여다근에 까근에 닥살 톡톡 털어둬근에 지름에 놩 돌돌 보끄다근에.('보말국'도 해서 '보말국'도 그거 바다에 가서 해다가 까서 껍데기 톡톡 떨어둬서 기름에 넣어서 돌돌 볶다가.) 08 // ᄆᆞ메기는 국은 못헨 먹어봐도 그 보말국도 끌려 먹어보고.(개울타리고둥은 국은 못해서 먹어봐도 그 '보말국'도 끓여 먹어보고.) 14 // 가시리국은 아니 먹어보곡 넘페국 보말국.('가시리국'은 아니 먹어보고 '넘페국' '보말국'.) 16 // 보말국도 아까 보말국은 춤기름 놩 삭삭삭 메역이영 놩 보말 까근에 춤지름에 보깡 물 놔근에게, 거기도 다시다나 ᄒᆞ끔 놓곡게, 장물 놓민 그것이 보말국.('보말국'도 아까 '보말국'은 참기름 놔서 삭삭삭 미역이랑 놔서 고둥 까서 참기름 볶아서 물 놔서요, 거기도 다시다나 조금 넣고요, 간장 넣으면 그것이 '보말국'.) 34 [구억, 동광, 성읍, 신도, 하원]

보말죽: 고둥을 넣고 끓인 죽이다. // 보말죽도 헹 먹고. 게도 우리 촌이난에 여기 보말 잡으레 잘 안 갑니다게.('보말죽'도 해서 먹고. 그래도 우리 촌이니까요 여기 고둥 잡으러 잘 안 갑니다.) 34 [구억, 신촌, 청수]

보말쿡: 고동을 넣어 끓인 국이다. '보말국'이라고도 한다. // 보말쿡은 그 보말을 저 물에 놔 가지고 문작문작 헤근에 그 보말 더가리는 건져이.('보말쿡'은 그 고둥을 저 물에 넣어 가지고 '문작문작' 해서 그 고둥 대가리는 건져.) 06 // 보말쿡도 옛날엔 경 끌령 먹어보진 안헨. 그냥 ᄉᆞᆲ앙. 헤당 ᄉᆞᆲ앙 ᄋᆞᆯ앙덜 그자.('보말쿡'도 옛날엔 그렇게 끓여서 먹어보진 않았어. 그냥 삶아서. 해다가 삶아서 열어서 그저.) 20 [고내, 남원]

보말톨: 성산읍 온평리에서 어린 톳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 보말톨은 보말톨이 그거

납작톨 뒈주. 이루후제.('보말톨'은 '보말톨'이 그거 '납작톨' 되지. '이루후제'.) 23 [온평]

보멀국: 고둥으로 끓인 국이다. // 보멀국도 수두리보멀이라고 헤서 해녀들이 저 이제 금채 기간이 유월 달부터는 시월 달까지 사 개월 기간은 그 바다에 들어가지를 못 헤. 그 저기 산란하는 기간이랏어.('보멀국'도 두드럭고둥이라고 해서 해녀들이 저 이제 '금채' 기간이 유월 달부터는 시월 달까지 사 개월 기간은 그 바다에 들어가지를 못 해. 그 저기 산란하는 기간이었어.) 27 [옹포]

보미다: 쇠붙이가 공기 중에서 천천히 산화하여 녹슬다는 뜻이다. // 이제 바농은 안 보며도 옛날 바농은 쑥 나오민 그냥 ᄒᆞ쏠 ᄒᆞ민 보며 불어.(이제 바늘은 안 '보며도' 옛날 바늘은 쭉 나오면 그냥 조금 하면 '보며' 버려.) 08 // 바농 쓰당 남으민 그레 콕 찔렁놔두곡. ᄯᅮ시 쓰다근에 보미민 속돌에 복복 ᄀᆞᆯ멍 그 바농 쓰는 거. (바늘을 쓰다가 남으면 그리로 콕 찔러서 놔두고. 다시 쓰다가 '보미민' '속돌'에 복복 갈면서 그 바늘 쓰는 거.) 08 [동광]

보선ᄐᆞᆨ: 버선목 가장자리에서 보선 뒤축에서 안으로 조금 들어 간 지점이다. // 보선ᄐᆞᆨ이 어떠난 자꾸 벗어졈저 헤근에.('보선ᄐᆞᆨ'이 어떻게 하니까 자꾸 벗겨지고 있다 해서.) 04 [고성]

보섭물내: 한림읍 상대리와 금악리 경계에 있는 내이다. // 눈오름 내려오는 물이 저 보섭물내옌 헌 디 거기서 합수뒈고 허여 가지고, 그 상대허고 검악허고 경계가 보섭물내, 보섭물내 헤 가지고.('눈오름' 내려오는 물이 '보섭물내'라고 하는 데 거기서 합수되고 하여 가지고, 그 '상대'하고 '검악'하고 경계가 '보섭물내', '보섭물내' 해 가지고.) 35 // 보섭물내옌 허는 것은 보섭 형치에 그 지경이, 그 내에 그 저 보섭 형치에 빌레 우의 그 물이 뿔지 아니헌 물이 잇수다게.('보섭물내'라고 하는 것은 보습 형태에 그 지경이, 그 내에 그 저 보습 형태에 '빌레' 위에 그 물이 삐지 아니하는 물이 있습니다.) 35 [대림]

보섭뿔리: 풀 종류의 하나이다. // 드르에 가근에가 파다근에가 그거를 솖아, 그거를 영 시치면이 그 놈이 충이 삭 죽어, 그 보섭뿔리.(들에 가서 파다가 그거를 삶아, 그거를 이렇게 씻으면 그 놈의 충이 삭 죽어, 그 '보섭뿔리'.) 12 // 약촌데 상당히, 그 아무 데나 잘 안 나근에가 그거 좀 희귀헌 거여, 거 보섭뿔리.(약촌데 상당히, 그 아무 데나 잘 안 나서 그거 좀 희귀한 거야, 거 '보섭뿔리'.) 12 [한동]

보시: 김치나 깍두기 따위를 담는 반찬 그릇의 하나이다. 모양은 사발 같으나 높이가 낮고 크기가 작다. // 보시에 논 것광 영 베조록한 시접에 논 것이. 시접에 영 체영 놓난양 그렇게 맛이 좋읍디다.('보시'에 놓은 것과 이렇게 '베조록한' '시접'에 놓은 것이. '시접'에 이렇게 체해서 놓으니까요 그렇게 맛이 좋습디다.) 03 [송당]

보시떡: 보시기에 쌀가루 따위를 넣어서 쪄낸 떡을 말한다. '보시'는 보시기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보시떡엔 헌 게 못 봐나신디.('보시떡'이라고 한 거 못 봤었는데.) 05 // 돌레떡허고 메밀ᄀᆞ루로 영 네모나게 헤영이 영 기역나게 끈으민 이제 반

착으로 벌렁 허고 또 요만헌 보시 헤근에 그 쏠ᄀᆞ루 막 밀엉 시리떡ᄀᆞ추룩 그거 허고 보시떡.(도래떡하고 메밀가루로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이렇게 기역자로 자르면 이제 반쪽으로 나눠서 하고 또 요만한 보시기 해서 그 쌀가루 막 밀어서 시루떡처럼 그거 하고 '보시떡'.) 11 // 보시떡은 그건 이 할망 마지나 찌젠 헤야 보시떡 허는 거.('보시떡'은 그건 이 할머니 '마지'나 찌려고 해야 '보시떡' 하는 거.) 14 [성읍, 표선, 함덕]

보실렁보실렁허다: 말을 잘 듣지 않거나 마음이 탐탁지 않는 모양이나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표준어 '궁시렁거리다'와 비슷한 의미로 쓰인 게 아닌가 한다. // 그런 것에 시끄지. 쪼끔 나거치 보실렁보실렁허는 거는 시끄도 안허여.(그런 것에 싣지. 쪼끔 나같이 '보실렁보실렁허는' 거는 싣지도 않아.) 29 [외도]

보싯메: 신에게 제물로 올리기 위하여 보시기에 담은 밥이다. // 보싯메? ᄋᆞ 거믄 이제 보시도 후제 나 하민 그때랑 이녁 뎅기는 날ᄁᆞ장 뎅기당 그디 강 본향 할망 ᄌᆞ꿋디 강 헐려사 하르방 ᄌᆞ꿋디 강 허믄 안 뒈여.('보싯메'?, 응 그러면 이제 보시기도 후에 나이 많으면 그때는 이녁 다니는 날까지 다니다가 거기 가서 본향 할머니 곁에 가서 '헐려사' 할아버지 곁에 가서 하면 안 돼.) 10 [월령]

보제기: 어부, 고기를 낚는 일이나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 // 보제기덜 사흘만 ᄇᆞ름 세민 강알 굽어분덴.('보제기'들 사흘만 바람 세면 샅 굽어버린다고.) 11 // 돈이 어룬덴 말인지 배고픈덴 말인지 옛날은 보제기로 사는 사름덜은이 땅도 엇고이 그걸로 첨 밧 점 양석 점 바당에서 사는 사름 말이주.(돈이 '어룬덴' 말인지 배고프다는 말인지 옛날은 '보제기'로 사는 사람들은 땅도 없고 그걸로 참 밭 겸 양식 겸 바다에서 사는 사람 말이지.) 11 // 궤기 잡는 사름, 옛날은 궤기 나끄는 사름 보제기.(고기 잡는 사람, 옛날은 고기 낚는 사람 '보제기'.) 13 [삼달, 함덕]

보제기질: 어부, 고기를 낚는 일을 낮춰 부르는 말이다. // 남저덜 보제기질이나 허는 사름은 나까당도 먹고 헤낫주.(남자들 '보제기질'이나 하는 사람은 낚아다가도 먹고 했었지.) 13 [삼달]

보차 ᄀᆞᆫ다: 메밀을 껍질째 가루로 간다. 여기서 '보차'는 메밀의 껍질째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막 거평 쏠 내우고. 막 먹을 사름은 급허면 ᄆᆞ물만 ᄀᆞᆯ령 ᄆᆞ물로 겁덕 차 그대로 ᄀᆞᆯ아이. 보차 ᄀᆞᆫ덴 허영.(아주 거피해서 쌀 내고. 막 먹을 사람은 급하면 메밀만 말려서 메밀로 껍데기째 그대로 갈아. '보차 ᄀᆞᆫ덴' 해서.) 06 [남원]

보찻보리: 보리를 장만하지 못한 상태이다. // 심지어는 우리 어머닌 미처 일을 못허난 보찻보리.(심지어는 우리 어머닌 미처 일을 못하니까 '보찻보리'.) 22 [우도]

복감티: 모자의 일종이다. // 뭐엔 ᄀᆞᆯ으키여마는 노시 못 ᄀᆞ르키여. 저 속곳 속곳 그 거시기ᄀᆞ치록 멘든 거주. 그것ᄀᆞ라. 복감티? 복감틴가?(뭐라고 말하겠다마는 전혀 못 말하겠어. 저 속옷 속옷 그 거시기처럼 만든 거지. 그것보고. 감투? 감투인가?) 04 // 게메 겨울 모자는 복감보 그거 복감티엔사 헤신디 복감보엔 헤신디 하. 하.(그러면 겨울 모자는 '복감보' 그거 '복감티'라고야 했는지 '복감보'라고 했는

지 하. 하.) 04 [고성]

복당낭: 예덕나무이다. // 닥나문데 종이 닥이 아니라 여기서 복당낭이렌 허주게, 닥나무. (예덕나문데 종이 닥이 아니라 여기서 '복당낭'이라고 하지, 예덕나무.) 24 // ᄎᆞ낭 엇이민 복당낭, 폭낭, 뭐 뭐 아무 잡나무 다 썻주.(참나무 없으면 '복당낭', 팽나무, 뭐 뭐 아무 잡나무 다 썼지.) 24 [세화]

복목환(伏木丸): 1930년대 초 제주와 일본 사이를 왕래했던 배이다. // 복목환이엔 헌 거 그거는 북한 배엔 헨, 북한서, 북한 사름덜이 지어 논 거렌 헨 헤나실 거라. 복목환.('복목환'이라고 한 거 그거는 북한 배라고 해서,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이 지어놓은 거라고 해서 했었을 거야. '복목환'.) 20 [고내]

복밧낭: 벽지로 천장을 바르기 위해서 대나무를 엮어서 흙을 바를 수 있도록 만든 틀인 것 같다. // 복밧낭이엔 헌 거는 구들과 구들방을 꾸미는디 천장을 ᄇᆞᆯ르기 위해서는 그 ᄀᆞ로로 영 놓은 거ᄀᆞ라 복밧낭이엔 헙니다.('복밧낭'이라고 한 거는 방과 구들방을 꾸미는데 천장을 바르기 위해서 그 가로로 이렇게 놓은 것더러 '복밧낭'이라고 합니다.) 35 [대림]

복사쿨: 풀 이름의 하나이다. // 지일, 이제는 엇인디 복사쿨이엔 헌 검질이 잇어, 복사쿨. (제일, 이제는 없는데 '복사쿨'이라고 하는 김이 있어, '복사쿨'.) 30 [노형]

복삭: 몸이 노곤한 상태를 뜻하나 여기서는 표준어 '박산'에 가깝게 많이 다치고 아픈 상태를 말한다. // 그 유리창 부서지멍 그디 간 걸어젼마씸게. 튀언에. 그디 간 걸어진난 복삭 아픈 거라마씸게.(그 유리창 부서지면서 거기 가서 걸어졌어요. 튀어서. 거기 가서 걸어지니까 '복삭' 아픈 겁니다.) 32 [덕수]

복삭복삭: 곡식으로 밥을 지었을 때 부드러운 상태를 말한다. // 복삭복삭. 이 잔치헐 때도 곤썰에 ᄆᆞ물썰 서꺼근에 잔치헤낫어. 맛 좋렌.('복삭복삭'. 이 잔치할 때도 흰쌀에 메밀쌀 섞어서 잔치했었어. 맛 좋으라고.) 28 [구엄]

복삭복삭허다: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상태를 나타낸 말이다. // 피밥 막 맛이서. 복삭복삭헌 게.(피밥 매우 맛있어. '복삭복삭헌' 게.) 24 // 계란은 카 놓민 복삭복삭허여.(계란은 타 넣으면 '복삭복삭허여'.) 28 [구엄, 세화]

복삭허다: 단단한 것이 푹 익어서 보드랍거나 바스러지기 쉽다. 또는 으깨어져서 형체를 알아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 메밀 ᄀᆞ튼 건 상강일 넘엉 서리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팍 죽어불여. 복삭헤불어.(메밀 같은 건 상강일 넘어서 서리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팍 죽어버려. '복삭헤' 버려.) 03 // 거 어지간히 탄 때 영 보면서 구멍을 막아주지 아녀민 때가 놓치면은 그게 복삭헤불민 젯덩어리 뒈불어.(그거 어지간히 탄 때 이렇게 보면서 구멍을 막아주지 않으면 때가 놓치면 그게 '복삭헤불민' 잿더미 돼버려.) 24 // 경허난에 눈은 딱 ᄀᆞᆷ고 핀 도레기 나고 돌은 앗아 불고 우이론 판찍헤도 이디가 복삭허난 ᄑᆞᆯ이 엇인 거라.(그러니까 눈을 딱 감고 피는 '도레기' 나고 돌은 가져 버리고 위로는 '판찍헤도' 여기가 '복삭허난' 팔이 없는 거야.) 26 // 뒈야지 국물 엇이민 그냥 맹물에 ᄆᆞᆷ국 끌려도 먹고 바당에서 ᄆᆞᆷ

또시 뿔앙 ᄏᆞᆯ이 뿔앙은에 솖지 아녕 ᄋᆞ러 번 뿔앙 문작허게 뿔아지민 복삭허게 썰엉은에 ᄆᆞᆷ채 헤영 썰엉이 양념, 다 궤영 마늘이영 다 놩은에 지름 문드리곡 헹은에 그건 반찬으로.(돼지 국물 없으면 그냥 맹물에 모자반국 끓여서도 먹고 바다에서 모자반 또 빨아서 깨끗이 빨아서 삶지 않고 여러 번 빨아서 '문작허게' 빨면 '복삭하게' 썰어서 'ᄆᆞᆷ채' 해서 썰어서 양념, 다 끓여서 마늘이랑 다 놔서 기름 '문드리곡' 해서 그건 반찬으로.) 33 [고산, 덕수, 세화, 송당, 수망, 신창, 인성, 토평]

복삭ᄒᆞ다: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 또는 푹신하고 부드럽다. // 검질을 메어 놔두민양 산디가 요만이 ᄒᆞᆫ 거 하나가 거리멍 ᄒᆞᆫ 풀기썩 거려근에양, ᄒᆞᆫ 풀기썩 거려 ᄒᆞ나 영 ᄒᆞᆫ 것이 검질만 잘 메민 땅을 복삭ᄒᆞ게 검질만 잘 메민 ᄒᆞᆫ두 개, 두 풀기만 쉐민 ᄒᆞᆫ 줌씩 거립니다.(김을 매어 놔두면요 밭벼가 요만큼 한 거 하나가 '거리멍' 한 포기씩 '거려근에양', 한 포기씩 '거려' 하나 이렇게 한 것이 김만 잘 매면 땅을 '복삭ᄒᆞ게' 김만 잘 매면 한두 개, 두 포기만 '쉐민' 한 줌씩 '거립니다'.) 08 // 그 위에 복삭ᄒᆞᆫ 걸 입져도 뒈지만 속에는 꼭 봇적삼을 입져야.(그 위에 '복삭헌' 걸 입혀도 되지만 속에는 꼭 '봇적삼'을 입혀야.) 12 // 보리끄른 막 막 쉬와 ᄇᆞᆱ기가 밧이 복삭ᄒᆞ니까.('보리끄르'는 아주 아주 쉬워 밟기가 밭이 '복삭ᄒᆞ니까'.) 16 // 돼지가 그거 ᄇᆞᆱ아 다니고 돼지도 ᄒᆞ꼼 편하게 말이여 집 속에도 보릿낭 놔주면 돼지가 그 속에 가서 자고 헤 가지고 복삭ᄒᆞ게 만들엉 살고 그렇게 헤.(돼지가 그거 밟아 다니고 돼지도 조금 편하게 말이야 집 속에서도 보릿짚 놔주면 돼지가 그 속에 가서 자고 해 가지고 '복삭ᄒᆞ게' 만들어서 살고 그렇게 해.) 27 [고내, 구엄, 남원, 동광, 옹포, 토평, 하원, 한동]

복수건: 상이 났을 때 여자 친척들이 머리에 쓰는 베나 무명으로 만든 머릿수건을 말한다. // 메누리덜 경 복치메, 복수건 헤낫주. 옛날.(며느리들 그렇게 '복치메', '복수건' 했었지. 옛날.) 13 // 그땐 수건만 줫주게. 게. 응, 몸뻬바지 다 줭 심부름헴주. 응, 치메. 베수건, 복수건, 복수건.(그땐 수건만 줬지. 그렇지. 응, '몸뻬바지' 다 줘서 심부름하지. 응, 치마. 베수건, '복수건', '복수건'.) 33 [삼달, 인성]

복작허다: 모종, 씨앗 따위가 빽빽이 난 모양이다. // ᄀᆞᆯ겡이 드물앙 방 벌영 세와줘사 조가 뒈주이, 복작허영 안 뒌다게.(호미 들이밀어서 '방 벌영' 세워줘야 조가 되지, '복작허영' 안 된다.) 10 // 뽀들뽀들 ᄌᆞᆫ발이 영 물 안 줘불민 ᄌᆞᆫ발이 뽀족뽀족 나불주, 복작허게.(뾰족뾰족 삼태불이 이렇게 물 안 줘버리면 삼태불이 뾰족뾰족 나버리지, '복작허게'.) 13 [삼달, 월령]

복좋다: 복이 많거나 운수가 아주 길하다는 뜻이다. // 새각시 모시는, 안트레 들이는 시집 강인에 아기도 잘살고 복좋게 사는 어른 새각시 영 심엉 들어오는 거고.(새색시 모시는, 안으로 들이는 시집가서 아기도 잘살고 '복좋게' 사는 어른 새색시 이렇게 잡아서 들어오는 거고.) 33 [인성]

복질: 기침이 심한 병이다. // 복질, 지침, 어린애들 지침ᄒᆞ는 거는 돔박지름이 약이라.('복

질', 기침, 어린애들 기침하는 거는 동백기름이 약이야.) 24 [세화]

복짝: 잘고 가느다랗게 짓이겨 진 모양이다. // 오징어 성ᄒᆞᆫ 거 복짝 썰어 놩 오이 썰어 놓곡, 그거 냉국이 젤 맛 좋아마씀.(오징어 온전한 거 '복짝' 썰어 넣어서 오이 썰어 넣어서, 그거 냉국이 젤 맛 좋아요.) 08 // 무시거 줌질이 복짝 썬 거, 그거 ᄒᆞ쏠 물짐치로.(뭐 '줌질이' '복짝' 썬 거, 그거 조금 물김치로.) 15 // ᄒᆞ룻밤만 헷당 건저근엥에 막 영 복짝 뿟앙 그 물 짜 놔.(하룻밤만 했다가 건져서 마구 이렇게 '복짝' 빻아서 그 물 짜 놓아.) 24 [동광, 세화, 수망]

복짝ᄒᆞ다: 잘고 가느다랗게 짓이기다. // ᄀᆞ룰 얄루랑ᄒᆞ게 캉 놈삐 숢앙 쉬 ᄒᆞ영, 놈삐 숢아근에 놈삐 복짝ᄒᆞ게 채로 썰어근에, 놈삐 채로 썰엉, 그 건졍 숢앙.(가루를 얇게 해서 타서 무 삶아서 소 해서, 무 삶아서 무 '복짝ᄒᆞ게' 채로 썰어서, 무 채로 썰어서, 그 건져서 삶아.) 08 [동광]

복친: 초상났을 때, 상복을 입어야 하는 가까운 친척이다. // 복친이엔 헌 건 조케덜이나 손지덜이나.(복친이라고 한 건 조카들이나 손자들이나.) 11 // 복친 수건광 상제 두건 다.(복친 수건과 상제 두건 다.) 13 // 저 영 멀리 가근에 그거 저 미시거 허기 전인 복친이 들르주게.(저 이렇게 멀리 가서 그거 저 무엇 하기 전엔 복친이 들지.) 13 [삼달, 함덕]

본견: 명주실로 짠 옷감인 견 종류의 하나이다. // 그때는 멩지가 주장인디 멩지 치메 저고리 우리 어멍 헤여 줫주. 경헤영 헤 주고, 그때엔. 이제만인, 이제민 본견일 거여. 그땐 그것ᄀᆞ라 무신 인주엔 헤낫저만은 그 인주가.(그때는 명주가 주로인데 명주 치마저고리 우리 어머니 해 줬지. 그래서 해 주고, 그때에는. 이제만큼은, 이제면 '본견'일 거야. 그땐 그것보고 무슨 인조견이라고 했었지만 그 인조견이.) 31 [토평]

본보기: 어떤 표시로 삼기 위한 물건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해녀들이 물질을 하다가 전복 따위를 발견해서 따지 못하면 그 자리에 표시를 해두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지물을 말한다. 이때 사용하는 표지가 작은 전복껍데기이다. // 건 본보기. 허리에 영창 갓당. 만약 점복을 볼 거 아니라게. 게믄 숨은 다 뒐 거 아니? 그걸 이걸 이걸 이걸 놔둬 나왕. 숨 쉬어 가지고 그거 봥 강 떼여.(건 '본보기'. 허리에 이렇게 차고 갔다가. 만약 전복을 볼 거 아닌가. 그러면 숨은 다 될 거 아니? 그걸 이걸 이걸 이걸 놔둬서 나와서. 숨 쉬어 가지고 그거 봐서 가서 떼.) 29 [외도]

본향: 제주에서 마을의 본향당신을 모신 신당으로 마을의 생산(生産), 물고(物故), 장적(帳籍), 호적(戶籍)을 관장한다. // 초에. 정월달 뒈면은 다 그 본향에덜 가는 사름은 쭉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고 우리는.(초에. 정월달 되면 다 그 '본향'에들 가는 사람은 쭉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고 우리는.) 05 // 국은 안 허고 겡은 안 허고 기자 메만 헤근에 이제 본향 세 그릇.(국은 안 하고 갱은 안 하고 그저 메만 해서 이제 본향 세 그릇.) 05 // 경허난 본향 헹 가렌 허믄 이녁 가난 그릇덜 밥 마지 졍 그딘 돗궤기 먹나.(그러니까 '본향'해서 가라고 하면 이녁 갔던

그릇들 밥 잘 지어서 거긴 돼지고기 먹어.) 10 // 동짓ᄃᆞᆯ 초일레나 동짓ᄃᆞᆯ에 ᄒᆞ곡, 유월에 ᄒᆞ곡, 이 저 본향이엔 헌 딘. 일뤠에 강 일뤠에.(동짓달 초이레나 동짓달에 하고, 유월에 하고, 이 저 '본향'이라고 한 데. 이레에 강 이레에.) 15 [수망, 월령, 표선]

본향굿: 본향당에서 치르는 굿이다. // 본향굿은 본향굿은 여긴 아녑니다. 성읍린 본향이엇으니까.('본향굿'은 '본향굿'은 여긴 안 합니다. 성읍린 '본향'이 없으니까.) 14 [성읍]

본향당: 제주에서 마을의 본향당신을 모신 신당으로 마을의 생산(生産), 물고(物故), 장적(帳籍), 호적(戶籍)을 관장한다. // 대보름 전에. 정월 열사흘이 본향당이라고.(대보름 전에 정월 열사흘에 본향당이라고.) 03 // 것이 본향당 닮아이. 신촌에서는이. 이 심방들 여기서 헐 때 그 당을 거닐이더라고.(그것이 본향당 같아. 신촌에서는. 이 무당들 여기서 할 때 그 '당'을 들먹이더라고.) 21 // 정월보름 뒈면은 그때는 이 저 여기 본향당에 세배 간다고 헤 가지고 거기 가고.(정월보름 되면 그때는 이 저 여기 본향당에 세배 간다고 해 가지고 거기 가고.) 23 // 지금도 삼년 전이 ᄁᆞ진 잇엇는데 지금은 하나토 없어. 본향당이 지금.(지금도 삼년 전에 까진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 본향당이 지금.) 32 [대평, 덕수, 보목, 송당, 신촌, 온평]

볼레낭: 보리장나무이다. // 볼레낭덜이 하놓니까 볼레낭이라, 보통은 옛날 어른들은 볼레낭이렌 헙주게.('볼레낭'들이 많아놓으니까 '볼레낭'이야, 보통은 옛날 어른들은 '볼레낭'이라 합지요.) 07 [보목]

볼레낭개: 서귀포시 보목동의 옛지명이다. 보리장나무가 많은 포구라는 뜻이다. // 무지 그 볼레낭이 많으니까 볼레낭개 처음 헷다 이렇게 헷는데 뭐 그런 식으로 볼목리 저, 마을 이름이 지어젓다 재는 것입주.(무지 그 보리장나무가 많으니까 '볼레낭개' 처음 했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볼목리' 저, 마을 이름이 지어졌다 재는 것이지요.) 07 [보목]

볼레섬: 한경면 신창리의 한 지명이다. // 죽으멍은 우리 시누이 물질 가 불고 볼레섬 요디 밧이 두 개 시난 하나랑 느네 감제 메나 놓고 하나랑 이제 느네 시누이 주라 허난.(죽으면서 우리 시누이 물질 가 버리고 '볼레섬' 요기 밭이 두 개 있으니까 하나는 너희 고구마 모종이나 놓고 하나는 이제 너희 시누이 줘라 하니까.) 26 [신창]

볼목리: 서귀포시 보목동을 말한다. // 자리회사 우린 모실포서 볼목리 강은에.(자리돔회야 우리는 모슬포에서 '볼목리' 가서.) 30 // 경헤도 이 토평이 산춘으로 알주게. 이 볼목린 개춘이고 이딘 산춘이고.(그래도 이 '토평'이 산촌으로 알지. 이 '볼목리'는 '개춘'이고 여긴 산촌이고.) 31 // 밧 좋지 안헷저게. 이 신, 하효린 좋고 볼목리렌. 이 토평 땅만 영 궂인 디, 제일 궂인 디. 무사 영 사름 사는 디녠 그땐 경 헷저게.(밭 좋지 않았어. 이 신, '하효리'는 좋고 '볼목리'라고. 이 '토평' 땅만

이렇게 궂은 데, 제일 궂은 데. 왜 이렇게 사람 사는 데냐고 그땐 그렇게 했어.) 31 // 가을엔 볼목리벳긴 자리 안 나난, 가시가 족은덴 허영, 자리젓 허는 사름은 거기 꺼만 허는디, 우리 이 모슬포 사름덜은. 쎄어도양, 거기 자리젓 안 허영 여기 가파도 것이 맛 좋넨 허멍 훍은 걸로만 헙니다게.(가을엔 '볼목리'밖에 자리돔 안 나니까, 가시가 작다고 해서, 자리젓 하는 사람은 거기 거만 하는데, 우리 이 모슬포 사람들은 세도요, 거기 자리젓 안 해서 여기 '가파도' 것이 맛 좋다고 하면서 굵은 걸로만 합니다.) 34 [구억, 노형, 토평]

볼볼볼볼: 솔가리 등의 땔감이 불에 잘 타는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 연기도 안 나고 볼볼볼볼.(연기도 안 나고 '볼볼볼볼'.) 30 [노형]

봄조겡이: 해녀들이 물질을 하다가 전복 따위를 발견해서 따지 못하면 그 자리에 표시를 해 두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지물을 말한다. 이때 사용하는 표지가 작은 전복껍데기다. // 만약 전복을 볼 거 아니라게. 게믄 숨은 다 뒐 거 아니? 그걸 이걸 이걸 놔뒁 나왕, 그것ᄀᆞ라 봄조겡이.(만약 전복을 볼 거 아닌가. 그러면 숨은 다 될 거 아니? 그걸 이걸 이걸 이걸 놔둬서 나와서. 그것보고 '봄조겡이'.) 29 [외도]

봇데적삼: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입는 옷이다. 보통 베로 만들어 입히나 광목을 이용해 만들기도 한다. '봇+데+적삼' 구성으로, 여기에서 '봇'은 태(胎)를 말한다. 제보자들은 '봇데적삼'을 달리 '봇뎃적삼', '봇뎃옷', '봇적삼', '봇듸적삼'이라고도 하였다. // 그 태어나자마자 허는 거는 이 ᄉᆞ미도 안 줍곡 그자 펄락허게 줍는 베로 허는 거. 봇데적삼.(그 태어나자마자 하는 거는 이 소매도 안 기우고 그저 '펄락허게' 기우는 베로 하는 거. '봇데적삼'.) 14 [성읍]

봇뎃옷: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입는 옷이다. 보통 베로 만들어 입히나 광목을 이용해 만들기도 한다. '베창옷', '봇뒤창옷', '봇뒤옷', '봇뒤적삼', '봇딧옷', '봇딧창옷', '봇딧적삼', '봇듸창옷'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 곧 태어나민. 건 봇뎃적, 봇뎃옷엔 헤영 봇데적삼.(곧 태어나면. 건 '봇뎃적', '봇뎃옷'이라고 해서 '봇데적삼'.) 14 // 엇엇일 땐, 기자 그 모냥으로 멘들안 입엇주 무신. 저 무시거라게 저, 봇뎃옷 ᄀᆞ튼 것도 그거사 다 아는 거.(없었을 땐, 그저 그 모양으로 만들어서 입었지 무슨. 저 뭐야 저, '봇뎃옷' 같은 것도 그거야 다 아는 거.) 15 // 베넷저구리렌도 ᄒᆞ고, 봇뎃옷이렌도 ᄒᆞ고.(배냇저고리라고도 하고, '봇뎃옷'이라고도 하고.) 24 [성읍, 세화, 수망]

봇딧창옷: 아기가 태어나서 사흘 만에 입히는, 간편하게 만든 베옷을 말한다. '베창옷', '봇뒤적삼'이라고도 한다. // ᄀᆞᆺ 난 때 입지는 것이 거 창옷게. 으, 봇딧창옷.(갓 난 때 입히는 것이 '창옷'. 으, '봇딧창옷'.) 20 [고내]

봇저고리: 아기가 태어나서 사흘 만에 입히는, 간편하게 만든 베옷이다. '봇딧창옷', '봇뒤적삼'이라고도 한다. // 봇저고리 우에 하나만 입진다게. 이젠 다 우알덜 복섹이덜 다 입졈주만은. 그땐 이 우이 거 요만이만.('봇저고리' 위에 하나만 입힌다. 이젠

다 위아래들 '복섹이'들 다 입히지만. 그땐 이 위에 거 요만큼만.) 12 [한동]

봇적삼: 아기가 태어나서 사흘 만에 입히는, 간편하게 지은 베옷을 말한다. '봇뎃옷', '봇뎃창옷'이라고도 한다. // 봇적삼이라 헤 가지고. 그거 입지면은이 그 어린아이가 피부병, ᄀᆞ롭지 안허여.('봇적삼'이라 해 가지고. 그거 입히면 그 어린아이가 피부병, 가렵지 않아.) 12 [한동]

봉그다: '줍다'의 의미이나 여기서는 '보이다'의 의미로 쓰였다. // 봉가지는 냥 죽여 부난. 봉가지는 냥 죽여 부난. 십이월덜이 잇주.('봉가지는' 대로 죽여 버리니까. '봉가지는' 대로 죽여 버리니까. 십이월에 있지.) 06 [남원]

봉그다: '줍다'의 의미이나 여기서는 '캐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꿩마농은 어디 강 ᄒᆞᆯ 봉가다근에 콩죽 쑬 때.(달래는 어디 가서 조금 '봉가다근에' 콩죽 쑤는데.) 16 [하원]

봉그다: '줍다'의 의미이나 여기서는 문맥 상 '아이를 얻었다'는 의미이다. // 족은 각시 얻어당 뚤 하나 봉갓주게.(작은 각시를 얻어 다가 딸 하나 '봉갓주게'.) 03 [송당]

봉그다: '줍다'의 의미이나 여기서는 들에 가서 드문드문 나 있는 띠를 찾아 장만하는 것을 의미한다. // 새 봉그레 우리 가노렌 헌다.(띠 '봉그레' 우리 간다고 한다.) 31 [토평]

봉덕: 마룻바닥에 설치된 돌화로이다. 불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화로, 겨울에 난로 역할을 하며, '부섭'이라고도 한다. // 저 남군더렌 봉덕, 봉덕허는디, 봉덕방 헹, 부엌에도 봉덕 판덴 그딘.(저 '남군'으론 '봉덕', '봉덕'하는데, '봉덕'방 해서, 부엌에도 '봉덕' 판다고 거긴.) 11 // 그때는 난방 기구가 엇어 놓니까 봉덕이, 집집마다 그 봉덕은 다 잇엇저.(그때는 난방 기구가 없어 놓으니까 '봉덕'이, 집집마다 그 '봉덕'은 있었어.) 12 // 부억에서 부억에서 봉덕 만들어근에 잇어.(부엌에서 부엌에서 '봉덕' 만들어서 있어.) 16 // 봉덕이엔 헌 건이 돌로 판 거라. 네귀방장허게 돌로 파근에 이 마루를 딱 ᄀᆞᆯ라내엉 돌로 영 판 걸 톡허게 이레 놔.('봉덕'이라고 한 건 돌로 판 거야. 네모반듯하게 돌로 파서 이 마루를 딱 잘라내어서 돌로 이렇게 판 걸 톡하게 이리 놔.) 25 [송당, 태흥, 하원, 한동, 함덕]

봉덕불: '봉덕'에 피운 불이다. // 봉덕불 알겠어요? 부억에나 이, 저 마룻바닥 가운데 이제 불살랑 거기서 초면서 허는 거.('봉덕불' 알겠어요? 부엌에나 이, 저 마룻바닥 가운데 이제 불살라서 거기서 쬐면서 하는 거.) 01 // 그건 봉덕불 그건. 나도 막 어린 때 ᄒᆞᆫ번 봐낫주. 경 쉽질 아녀서.(그건 '봉덕불' 그건. 나도 아주 어릴 때 한번 봤었지. 그렇게 쉽질 않았어.) 01 // 부엌엔 그거 불살르는 것ᄀᆞ라 봉덕불이엔 허주마는 선흘은 봉덕불 엇어, 선흘은.(부엌엔 그거 불사르는 것보고 '봉덕불'이라고 하지마는 선흘은 '봉덕불' 없어, 선흘은.) 02 // 이 마루에 봉덕불거추룩 살련에 마리 안에 그 저, 이디 그 널판을 안 놔근에 요렇게 그냥 그 무신 요만큼씩 나무 짇어근에 저 뭣허곡 불도 담아당 이렇게 놓고 허믄 요 책상만큼 허게시리 기레기도 허믄 그디덜 앚앙 영 불 초아.(이 마루에 '봉덕불'처럼 살라서

마루 안에 그 저, 여기 그 널판을 안 놔서 요렇게 그냥 그 무슨 요만큼씩 나무 때서 저 뭐하고 불도 담아다가 이렇게 놓고 하면 요 책상만큼 하게끔 길이도 하면 거기들 앉아서 이렇게 불 쬐어.) 20 [고내, 도련, 선흘]

봉데기: 산봉우리 같이 물건이 솟거나 내민 부분이다. // 영덜 말허단 보난 원 어떵사 헌 것산디 옛 어른 그렇게 헤서 이계봉이라고 앞에 봉데기, 봉데기 영 잇으니까 새 끼덜이 이제 깨워 가지고 그 두 자리 깨운 형이라고 허는.(이렇게들 말하다가 보니까 원 어떻게 한 건지 옛 어른 그렇게 해서 '이계봉'이라고 앞에 '봉데기', '봉데기' 이렇게 있으니까 새끼들이 이제 깨워 가지고 그 두 자리 깨운 형이라고 하는.) 19 [청수]

봉봉: 밀물이 되어서 물이 많이 들어온 모양이다. 바닷물이 밀려와 만조가 된 모양이다. // 줌수덜 민 보말 잡아놓난에 물 봉봉 허민 줌수덜, 물 싸민 ᄀᆞᆺ할망덜 헨 잡아놓난 ᄀᆞ메기 엇덴.(잠수들 모두 고둥 잡아놓으니까 물 '봉봉' 하면 잠수들, 물 써면 'ᄀᆞᆺ할망'들 해서 잡아놓으니까 고둥 없다고.) 13 // 성제섬에 간 이제 ᄒᆞ여 쏘으지 못 ᄒᆞ단, 요놈의 듸 어떠난 고기가 엇이냐, 경ᄒᆞᆫ디 물이 봉봉 들어가난 아이 뎅기던 고기가 나옵디다게, 물 들어가난.(형제섬에 가서 이제 해 쏘지 못 하다가, 요놈의 데 어떠니까 고기가 없느냐, 그런데 물이 '봉봉' 들어가니까 아니 다니던 고기가 나옵디다, 물 들어가니까.) 17 [대평, 삼달]

봉상봉상: 솜이 부풀어 오른 모습이다. // 게민 그게 크면 거기서 솜이 봉상봉상.(그럼 그게 크면 거기서 솜이 '봉상봉상'.) 20 [고내]

봉을다: 단단하게 당겨서 매는 것이다. // 이놈으 ᄇᆞ딜 이걸 이추룩 봉을고 영영 헤져사 이거 짜는 거라이.(이놈의 바디를 이걸 이렇게 '봉을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이거 짜는 거야.) 25 [태흥]

봉천수: 빗물을 모아서 음용수나 생활에 쓰이고 있는 물이다. // 그 저 봉천수. 그런 물 ᄎᆞᆺ앙은에 밥차롱 그냥 밥 신 차 ᄃᆞᆼ강.(그 저 '봉천수' 그런 물 찾아서 '밥차롱' 그냥 밥 있는 채 담가서.) 01 // 어디 여기 지하수가 잇는 것도 아니고 봉천수니까 그렇게 헷, 헷을 거다 헷어.(어디 여기 지하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봉천수'니까 그렇게 했, 했을 거다 했어.) 18 // 여기 그 저 각 집집마다, 우물이 잇어. 물통이 잇어 물통 정부에서 여기 봉천수 봉천수가 자꾸 ᄆᆞᆯ라가지고 이제 쓰레또지붕을 게량헤서 쓰레또에서 물을 받아근에 그 물을 먹어라.(여기 그 저 각 집집마다, 우물이 있어. 물통이 있어 물통 정부에서 여기 '봉천수' '봉천수'가 자꾸 말라가지고 이제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해서 슬레이트에서 물을 받아서 그 물을 먹어라.) 22 [도련, 신도, 우도]

부각부각: 땅이 얼었다가 녹은 후 부풀어 오른 모습이다. // 옛날은 땅이 막 곳아 불민 봄이 나민 이만큼 땅이 막 부각부각 헤낫주게.(옛날은 땅이 아주 곱아 버리면 봄이 되면 이만큼 땅이 아주 '부각부각' 했었지.) 12 [한동]

부각부각: 무엇이 부풀어 올락 푹신푹신한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는 밭볏짚을 꼬아 만든 참

바가 푹신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 물허벅 거튼 거, 지는 것은 거 드리면 이디가 막 ᄀᆞᆯ아지주게. 게난 거 산뒤찝을 좀 잘 뭐인가 정성 들영 허면은 안 ᄀᆞᆯ아지주게, 이디가 아프질 안허여 부각부각 헤영.('물허벅' 같은 거, 지는 것은 거 드리면 여기가 마구 갈려. 그러니까 거 밭볏짚을 좀 잘 뭐인가 정성 들여서 하면 안 갈리지, 여기가 아프질 않아 '부각부각' 해서.) 12 [한동]

부각이: 거품이나 솜 따위가 잘 피어오른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경헤영 ᄒᆞ꼼 쉬게 쉰다리거치 쉬게 허여 놩. 그 물로 헹 쪄근에 헹 놔두민 부각이 영 올라와.(그래서 조금 쉬게 '쉰다리'같이 쉬게 해서 놔서. 그 물로 해서 쪄서 해서 놔두면 '부각이' 이렇게 올라와.) 20 [고내]

부각ᄒᆞ다: 땅이 얼었다 녹은 후 부풀어 오른 모습이다. // 부각헌 밧이나 ᄇᆞᆯ리지.('부각헌' 밭이나 밟지.) 19 // 밧 갈아서 고지 중심으로 부각헌 밧이난 그자 꾹꾹꾹 질르민 뭐.(밭 갈아서 고지 중심으로 '부각헌' 밭이니깐 그저 꾹꾹꾹 찌르면 뭐.) 19 [청수]

부각ᄒᆞ다: 거품이나 솜 따위가 잘 피어오른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부곡허다'라고도 한다. // 그 ᄃᆞ레 소곱으로 부각헌 솜이 잇어.(그 다래 속으로 '부각헌' 솜이 있어.) 06 // 경허믄 그게 이제 그거 허영 그 저 엿날은 솜클이라고 그 테우는 클에 가근에게 그거를 테와단 부각허게 헤근에 이렇게 소롬허게 영 ᄆᆞᆯ아, 이렇게.(그러면 그게 이제 그거 해서 그 저 옛날은 솜틀이라고 그 태우는 틀에 가서 그거를 태워다가 '부각하게' 해서 이렇게 갸름하게 이렇게 말아, 이렇게.) 20 // 경허민 멘네 경헹 그 ᄃᆞ레 올아근에 그걸 ᄃᆞ레가 익으민 헤영케 부각허게. 거 안 봔데이?(그러면 면화 그래서 그 다래 열어서 그걸 다래가 익으면 하얗게 '부각허게'. 거 안 봤었지?) 31 // 젓어근에 솟디 헹 놔두민 부각허게 궨다게.(저어서 솥에 해서 놔두면 '부각허게' 괸다.) 31 [고내, 남원, 토평]

부게: 짚으로 날을 촘촘하게 엮은 뒤 아가리를 주먹이 드나들 정도로 좁게 하여 목이 있게 만든, 아주 작은 멱둥구미이다. '씨부게'라고도 한다. // 씨 놔두는 그 부게 망, 부게라고 저 영 ᄃᆞᆯ아메여근에 허는 거, 가방거추룩 헌 거 동글랑허게 ᄌᆞᆯ앙.(씨 놔두는 그 '부게' 망, '부게'라고 저 이렇게 달아매서 하는 거, 가방같이 한 거 동그랗게 결어서.) 20 [고내]

부게늡: 성산읍 온평리 바닷가 지경에서 솟는 물 이름이다. // 부게늡 무슨 어디 어디 헤 가지고 아래까지 다 그런 물 나오는 디가 잇으니까.('부게늡' 무슨 어디 어디 해 가지고 아래까지 다 그런 물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 23 [온평]

부겍이: 거품이나 솜 따위가 잘 피어오른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요만은헌 항아리에 담아근에게 아까 야이 말젝 아니라도 놔두민 부겍이 올라와근에 발효뒈어.(요만한 항아리에 담아서 아까 얘 말 아니라도 놔두면 '부겍이' 올라와서 발효돼.) 30 [노형]

부구락허다: 술이 발효하여 거품 따위가 잘 피어오른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그것가 그

부구락허게 버금 잇게 올라와가주게, 올라왕, ᄒᆞᆫ 오래 이서사 헤여.(그것이 그 '부구락허게' 거품 있게 올라와가지, 올라와서, 한 오래 있어야 해.) 24 // 그 막 물 놔근에 그 좁썰이영 골고루 영 막 허끄지 안허여게. 허껑 놔두민 부구락허게 ᄒᆞ꼼 영 ᄃᆞᆯ코롬허민 이제, ᄒᆞᆫ 대여섯 시간 잇이민 골고루 캉.(그 마구 물 놔서 그 좁쌀이랑 골고루 이렇게 많이 섞지 않아. 섞어서 놔두면 '부구락허게' 조금 이렇게 달콤하면 이제, 한 대여섯 시간 있으면 골고루 타서.) 26 [세화, 신창]

부구리: 진드기가 성장하여 된 벌레이다. 소나 말에 붙어사는, 진드기가 자라서 생긴 혹 모양의 해충이다. // 군산에 논 사름 매날 쉐 보레 갓당 부구리약 ᄒᆞ영 박박 강알에영 ᄆᆞᆫ, 이만씩 ᄒᆞᆫ 부구리, 젠젠ᄒᆞᆫ 진독.('군산'에 놓은 사람 만날 소 보러 갔다가 '부구리약' 해서 박박 사타구니하고 모두, 이만큼씩 한 '부구리', 자잘한 진드기.) 17 // 소덜이 부구리 진두기가 많이 일기 때문에.(소들이 '부구리' 진드기가 많이 일기 때문에.) 23 // 부구리 게메, 부그리 진독약 허레 보통 ᄒᆞᆫ 십오일에, ᄒᆞᆫ ᄃᆞᆯ에 ᄒᆞᆫ번 갑주게, 강 그 약 허멍 ᄀᆞ를 헹은에 무신 진독약 읍에서 테와주곡 헙디다.('부구리' 글쎄, '부구리' 진드기 약 하러 보통 한 십오일에, 한 달에 한번 가지요, 가서 그 약 하면서 가루를 해서 무슨 진드기 약 읍에서 나눠주고 합디다.) 28 // 이젠 옛날엔 그 목장에 뎅겨나민 서미역이엔 헌 거 이서, 소 부구리 닮은 거. 이런 데 올랑인에 막 ᄀᆞ리왕 보민 뺑끄랑케 먹엉 싯곡, 이젠 그런 벌거지가 엇어.(이젠 옛날엔 그 목장에 다녀오면 '서미역'이라고 한 거 있어, 소 '부구리' 같은 거. 이런 데 올라서 막 가려워서 보면 빵빵하게 먹어서 있고, 이젠 그런 벌레가 없어.) 33 [구엄, 대평, 온평, 인성]

부구리약: '부구리'를 죽일 수 있는 약, 또는 약을 치는 일을 말한다. // 우리가 가 가지고 소를 메꼇지만은 우리 재산이기, 부구리약을 우리 가자 헤 가지고 헤서 가서 헤주고.(우리가 가 가지고 소를 맡겼지만 우리 재산이기, '부구리약'을 우리 가자 해 가지고 해서 가서 해주고.) 23 [온평]

부그락이: 작고 부드러운 물체나 싹 따위가 한곳에 많이 모여 있다. // 고망 ᄠᆞᆯ롸 이젠 영 영 영 동글락허게 헤영 요추룩 헤영 고망 ᄠᆞᆯ롸, 이젠 물 삭삭 꿰가민 그거 하나썩 들이치멍, 멧 개 들이쳥, ᄉᆞᆲ앙 건져내영, 이젠 그거 찌엉, 그거 드러 쪙, 막 문딱 찌어 놩 달롸, 그레 물 놓곡 누룩 놓곡 헤영 이젠 영 영 달롸, 항아리 담앙 놔두민 부그락이 궤영 이제.(구멍 뚫어서 이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요처럼 해서 구멍 뚫어서, 이젠 물 팔팔 끓어가면 그거 하나씩 '들이치멍', 몇 개 '들이쳥', 삶아서 건져내서, 이젠 그거 쪄서, 그거 마구 쪄서, 막 '문딱' 찌어 놔서 다뤄서, 그리로 물 넣고 누룩 넣고 해서 이젠 이렇게 이렇게 다뤄서, 항아리 담아서 놔두면 '부그락이' 괴어서 이제.) 19 [청수]

부깍: 끓어올라서 부풀어오르는 모습이다. // 물 하영 놩 ᄉᆞᆲ앙 그 ᄆᆞ물ᄀᆞ루로 맞일 이만이 물 놩, 무 ᄉᆞᆲ아진 우터레 ᄆᆞ물ᄀᆞ룰을 삭허게 서껑당 ᄒᆞᆫ 물이 부깍 올르민이 그냥 주걱으로, 주걱으로 젓이민 것이 범벅.(물 많이 놔서 삶아서 그 메밀가루로 맞을 만큼 물 놔서, 무 삶아진 위에 메밀가루를 삭하게 섞어다가 한 물이 '부깍'

오르면 그냥 주걱으로, 주걱으로 저으면 그것이 범벅.) 11 // 부꺼 부는 따문에 좀 영 체로 쳥 ᄒᆞᆯ 훍은 거는 미리 놩 ᄀᆞ찌 보리ᄊᆞᆯ에 ᄉᆞᆷ고, 좀 알러레 간 거 ᄀᆞ를은 놧다가 거저 쒀져가민 그거를 삭 허꺼놓면은 부깍 올라와.('부꺼' 버리는 때문에 좀 이렇게 체로 쳐서 조금 굵은 거는 미리 넣어서 같이 보리쌀에 삶고, 좀 아래로 간 거 가루는 놔뒀다가 거의 쒀지면 그거를 삭 섞어놓으면 '부깍' 올라와.) 14 [성읍, 함덕]

부끄다: 끓어 넘치거나 넘치기 직전의 상태이다. // 우린 풋죽ᄒᆞ곡 콩국은 잘 끌리는디, 콩국ᄒᆞᆯ 때 잘못ᄒᆞ민 확 부꺼.(우린 팥죽하고 콩국은 잘 끓이는데, 콩국할 때 잘못하면 확 '부꺼'.) 15 // 상웨떡 헤낫주게 저 밀ᄀᆞ루헤여근에 무시거 막걸리 놓곡 경 헹 ᄆᆞᆯ앙 놧다근에 부꺼 가거들랑 ᄌᆞᆯ라근에 경 헹 청.(상화떡 했었지 저 밀가루해서 무엇 막걸리 놓고, 그렇게 해서 반죽해서 놓았다가 '부꺼' 가거든 잘라서 그렇게 해서 쪄.) 16 // 콩ᄀᆞ를 기냥 영 그륵에 카근에, 카근엥에 이 솟듸레 영 놓멍 젓으멍 영허영 허민 두께 더껑 잘못허당 왈락 부꺼 불민 아무 것도 엇어.(콩가루 그냥 이렇게 그릇에 타서, 타서 이 솥으로 이렇게 넣으면서 저으며 이렇게 해서 하면 뚜껑 덮어서 잘못하다가 '왈락' '부꺼' 버리면 아무 것도 없어.) 29 // 그자 우로만 눌뜨고 나중에 또 영 부꺼 올라와 가민 아, 이거 궤염구나.(그저 위로만 누르고 나중에 또 이렇게 '부꺼' 올라와 가면 아, 이거 끓는구나.) 32 [덕수, 수망, 외도, 하원]

부끄다: 날씨가 추워서 흙이 얼어서 부풀어 오른 것이다. // 그 중간에는 이제 보리가 부꺼 가지고 아이 뒌덴 막 이 사름덜이 동원헤연 ᄇᆞᆯ르기도 헤낫어. 보리밧 ᄇᆞᆯ르레 나가, 일등이 막 사름.(그 중간에는 이제 보리가 '부꺼' 가지고 안 된다고 막 이 사람들이 동원해서 밟기도 했었어. 보리밭 밟으러 나가, 일등이 막 사람.) 02 [선흘]

부단치기: 우도면에서 행해지는 어린아이들 놀이의 이름이다. // 이제 돌 세와갖고 돌 심어 갖고 마칩니다게. 부단치기엔 헤낫어, 부단치기.(이제 돌 세워가지고 돌 잡아가지고 맞춥니다. '부단치기'라고 했었어, '부단치기'.) 22 [우도]

부두기: 남원읍 한남리를 말한다. // 할남리ᄀᆞ라 부두기엔 헤낫어 그때.(한남리'보고 '부두기'라고 했었어, 그때.) 15 [수망]

부들랑: 발버둥치거나 꿈틀거리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 난 가마에 오민 ᄆᆞᆯ이 좋은 건 ᄉᆞᆯᄉᆞᆯᄉᆞᆯᄉᆞᆯ 오는 디 ᄆᆞᆯ이엔 헌 거 그거 허지 말젠 부들랑 부들랑 부들랑 그것 영 두 개 헤근에이 요레 가마 짓엉 놔근에 ᄆᆞᆯ 우터레 그걸 올려노민 ᄆᆞᆯ이 부들락 부들락 부들락 부들락.(난 가마에 오면 말이 좋은 건 살살살살 오는 데 말이라고 한 거 그거 하지 말려고 '부들랑' '부들랑' '부들랑' 그것 이렇게 두 개 해서 요리로 가마 지어 놓고 말 위로 그걸 올려놓으면 말이 '부들락' '부들락' '부들락' '부들락'.) 06 [남원]

부랑꼬: 일본어 'ぶらんこ'에서 온 말로 그네를 말한다. // 게메 일본말인디이 여기 사람덜

은 부랑꼬엔 헷어.(그러게 일본말인데 여기 사람들은 '부랑꼬'라고 했어.) 06 [남원]

부럭: 배동. 곡식의 이삭이 나오려고 대가 불룩해지는 현상, '부레기', '부루기'라고도 한다. // 부럭 사기 전에 그 발 든든히 부뜨라고.('부럭' 서기 전에 그 '발' 든든히 붙으라고.) 25 // 마농지는 영 보민 너미 세어도 맛엇곡, 너미 연헤도 맛엇곡 허난, 부럭 사기 전에 헤당.(마늘장아찌는 이렇게 보면 너무 쇠도 맛없고, 너무 연해도 맛없고 하니까, '부럭' 서기 전에 해다가.) 25 [태흥]

부로끄: 블록(block)의 일본어식 발음 'ブロック'로 건축 재료의 하나이다. 시멘트로 네모지게 만들어서 벽면 따위를 쌓아 올리는 데 쓴다. // 저 우이도 경헨에 그땐 부로끄로 헨 허난 하르방은 부로끄, 나 세멘 서끄고 부로끄 날라다 놓곡 헹 하르방은 부로끄 싸고 난 세멘 헤당 날르고, 부로끄 날르곡 허멍 저 우이도 집, 삼간집 허난 경허멍 짓엇주게.(저 위에도 그렇게 해서 그땐 '부로끄'로 해서 하니까 할아버지는 '부로끄', 나 시멘트 섞고 '부로끄' 날라다 놓고 해서 할아버지는 '부로끄' 쌓고 난 시멘트 해다 나르고, '부로끄' 나르고 하면서 저 위에도 집, 삼간집 해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었지.) 13 // 이디 이거는 지금은 저 뭐인가 이 부로끄로 싸서 공고리를 헷지만은 옛날은 퉤기라고 헌 게.(여기 이거는 지금은 저 뭐인가 이 '부로끄'로 쌓아서 콘크리트를 했지만 옛날은 외라고 한 게.) 14 [삼달, 성읍]

부룩: 수수, 벼 따위 식물의 이삭이 채 나오기 전에 껍질에 쌓여 불룩하게 된 것이다. '부레기', '부루기'라고도 한다. // 억새 그걸 꼿 피기 전에 부룩이 영 사민 그걸 빠, 그 미 빠 온덴 허주.(억새 그걸 꽃 피기 전에 '부룩'이 이렇게 서면 그걸 빼, 그 '미' 빼 온다고 하지.) 12 [한동]

부리데기다: 흙덩이 등을 한꺼번에 많이 쏟아놓다. // 경헤근에 이만씩 헤근에 더거레기 앗당 부리데기멍, 사름덜 이 동네 집을 지은덴 허민은 이 동넷 어른들이 와근에 막ᄀᆞ찌 그 도와주주게.(그렇게 해서 이만큼 해서 '더거레기' 가져다가 '부리데기멍', 사람들 이 동네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 동네 어른들이 와서 막 같이 그 도와주지.) 07 [보목]

부림패: 소를 부리는 바로, 쟁기의 손잡이인 양지머리에서 소의 뿔까지 연결된 두 가닥의 기다란 줄 중 오른편에 있는 줄이다. 이를 이용하여 밭을 갈 때 소의 방향을 조절한다. 달리 '굴배'라고도 한다. // 양쪽 그 방향 조종하는 건 뭐냐면 부림패라고.(양쪽 그 방향 조종하는 건 뭐냐면 '부림패'라고.) 07 // 그 나머지 헌 건, 것ᄀᆞ라 부림패, 가린석이렌 허여.(그 나머지 한 건, 그것보고 '부림패', '가린석'이라고 해.) 36 [보목, 봉성, 하원]

부림패줄: 소를 부리는 바로, 쟁기의 손잡이인 양지머리에서 소의 뿔까지 연결된 두 가닥의 기다란 줄 중 오른편에 있는 줄이다. // 옆으로 허는 게 저 뭐헌 사름은 ᄃᆞ렛줄 헤당 허고 여기서는 보통 신사라나 무시거 헤 가지고 다 만들언 썻주게, 부림패줄인가 무신 줄일 거라.(옆으로 하는 게 저 뭐한 사람은 다래나무 해다가 하고

여기서는 보통 뉴질랜드삼이나 무엇 해 가지고 다 만들어서 썼지, '부림패줄'인가 무슨 줄일 거야.) 23 [온평]

부섭: 난방을 위하여 마루 뒤 쪽에 박아놓은 돌화로다. 예전에는 이 '부섭'을 이용하여 제사 때 고기를 구웠다. 마루 뒤편에 마룻장 밑으로 묻어 고정시키거나 부엌 바닥에 묻어 고정시켜 놓고 삭정이나 장작 또는 콩깍지 등으로 불을 때는 화로를 말한다. '봉덕'이라고도 한다. // 옛날에는 거의 다 옛날에 부섭이 잇엇주게.(옛날에는 거의 다 옛날에 '부섭'이 있었지.) 06 // 영헌 디 영 안자리에 영 ᄒᆞᆫ 더레 화리 놔근에 부섭 놩.(이런 데 이렇게 아랫목에 이렇게 한 데 화로 놔서 '부섭' 놔서.) 13 // 부섭은 것도 돌로 뭰 거우다. 돌로 뭬근엥에 마리 한가운데 부섭을 놓는 것이 아니라양.('부섭'은 그것도 돌로 된 겁니다. 돌로 돼서 마루 한가운데 '부섭'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15 // 저 불 ᄉᆞᆷ는 디 셔사 부섭이주, 그거 담아당 화리에 놧주.(저 불 때는 데 있어야 '부섭'이지, 그거 담아다가 화로에 놨지.) 26 [남원, 삼달, 성읍, 수망, 신창, 토평]

부수: 많이 혹은 마구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 물웨 ᄒᆞᆫ 여남은 거 놔서. 요 물웬 기자 비만 오민 부수 열아.('물웨' 한 여남은 거 놔서. 요 '물웨'는 그저 비만 오면 '부수' 열려.) 25 [태흥]

부수데끼다: 힘껏 쳐 깨어 부수다. // 손 재게 놀리는 사름은 하영 하고 손 뜨게 영영 허민 팍팍팍팍 부수데껴 가.(손 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많이 하고 손 느리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팍팍팍팍 '부수데껴' 가.) 13 [삼달]

부신랑: 신랑 곁에서 도와주는 신랑 친구를 말한다. // 그 ᄉᆞ나이는 부신랑으로 허고예, 우리 결혼헐 때.(그 사나이는 '부신랑'으로 하고요, 우리 결혼할 때.) 23 [온평]

부신부: 신부 곁에서 도와주는 신부 친구를 말한다. // 남잔 좋안 아녀도 여자가 좋아헷던 여잔양 부신부로 헨에 우리 결혼헷수다.(남잔 좋아하지 않아도 여자가 좋아했던 여자는요 '부신부'로 해서 우리 결혼했습니다.) 23 [온평]

부억등어리: 부엌의 뒤쪽이다. // 장 거리레 다니기 쉽게 부억등어리에서 많이 만들앗어.(장 뜨러 다니기 쉽게 '부억등어리'에서 많이 만들었어.) 14 [성읍]

부지데기다: '흙 같은 것을 던져서 벽에 붙이다'는 의미이나 여기서는 거름에 보리씨앗이 서로 섞이게 손으로 으깬다는 뜻이다. // 걸름 담아두서 이제 손으로 다 부지데경 뿌리는 거라.(거름 담아둬서 이제 손으로 다 '부지데경' 뿌리는 거야.) 32 [덕수]

부지데기다: 세게 부딪치다라는 의미이다. // 것이 안 살아나난 카부 확 허게 도난게 저레 간 착 부지데겨 부난.(것이 안 살아나니까 커브 확 하게 도니까 저리로 가서 착 '부지데겨' 버리니까.) 32 [덕수]

부지데기다: 흑 같은 것을 던져서 벽에 붙인다. // 탁탁 고망더레 부지데경 놔두민.(탁탁 구멍으로 '부지데경' 놔두면.) 05 // 페와 놓민 그 우이 ᄒᆞᆨ헤근에 ᄒᆞᆨ질헤근에 그 우터레 ᄒᆞᆨ 헹 막 치대기민 걸로 착착 부지데경 허민 이제 따시 또 안터렌 상방

안터렌 이 천장 마리 안 들이민 막 흑이 지랑지랑허주게.(펴 놓으면 그 위에 흙 해서 흙질해서 그 위에 흙 해서 막 '치대기민' 그걸로 착착 '부지데경' 하면 이제 다시 또 안엔 대청 안으로는 이 천장 마루 안 들이면 막 흙이 '지랑지랑허주게'.) 13 // 그냥 요만썩 착착 부지데기민 영영 불르고.(그냥 요만큼씩 착착 '부지데기민' 이렇게 이렇게 바르고.) 13 [삼달, 표선]

부찌다: 보통 오징어 따위를 낚다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제보자는 옥돔을 낚는 경우에도 '부찌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 경헨 나가는 배 탕 강 갈치 철엔 갈치 나까 오곡 셍성 철에 셍성 강 부쪄 오곡 그렇게 허면서 살고.(그래서 나가는 배 타고 가서 갈치 철엔 갈치 낚아 오고 옥돔 철에 옥돔 가서 '부쪄' 오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20 [고내]

부출: 들것이나 뎃 따위의 앞뒤를 깊게 양옆에 대어진 나무이다. // 이 놈의 산테도 부출을 모르는 사람도 잇관대. 요놈의 산테도 엇어져수다.(이 놈의 '산테'도 '부출'을 모르는 사람도 있건대. 요놈의 '산테'도 없어졌습니다.) 03 [송당]

북강셍이: 털이 폭신하게 난 어린 강아지인 복슬강아지를 말한다. // 북강셍인 강셍이 북삭헌 거 잇잖여게. 지달이가 그거 닮아. 잡아온 거 혼 번 봐신디 부각헙니다 털.('북강셍이'는 강아지 '북삭헌' 거 있잖아. '지달이'가 그거 같아. 잡아온 거 한 번 봤는데 '부각헙니다', 털.) 05 [표선]

북군: 북제주군을 줄여서 부른 말이다. 북제주군은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사라진 행정 구역이다. // 따비 두 갈래 따비가 잇어. 이 북군에는 따비가 하나고.(따비 두 갈래 따비가 있어. 이 '북군'에는 따비가 하나고.) 14 // 남군, 북군 틀리고 제주시 틀리고 말이 다 틀려. 같은 물건이면서도 이름이 틀리게 나온다고.('남군', '북군' 다르고 제주시 다르고 말이 다 달라. 같은 물건이면서도 이름이 다르게 나온다고.) 30 [노형, 성읍]

북덕방: 짚, 검불 따위가 난잡하게 깔린 방을 말한다. // 마리 논 딘 마리가 젖이민. 헌옷으로 따깟주만은 북덕방 헌딘 그자 알러레 ᄂᆞ리민 젖어신디.(마루 놓은 데는 마루가 젖으면. 헌옷으로 닦았지만은 '북덕방' 한데는 그저 아래로 내리면 젖었는지.) 04 // 마리, 상방에 북덕방에 큰 화리헤 놔근에 허민 이디 영 공장 걸엉 큰 구덕 이만이 헌 고리헤 놔근에.(마루, 대청에 '북덕방'에 큰 화로 해서 놔서 하면 여기 이렇게 '공장'에 걸어서 큰 구덕 이만큼 한 '고리'해 놓아서.) 13 // 딱 방 흑나 허고 이디 허민 어느 절에 마루 놓곡 그자 검질 꼴앙 이디서. 검질 꼴앙 살아. 엿날 북덕방, 북덕방 허멍.(딱 방 하나 하고 여기 하면 어느 겨를에 마루 놓고 그저 검불 깔아서 여기서. 검불 깔아서 살아. 옛날 '북덕방', '북덕방' 하면서.) 25 // 엿날엔 영헌 마리방에 또 마루 안 논 집이는 검질 꼴앙 북덕방이라고 이, 경 헌 디 앚앙 직직 직직 헤놓민 여기가 얼엉 ᄉᆞ뭇 짓벌겅허여.(옛날엔 이런 마루방에 또 마루 안 놓은 집에는 검불 깔아서 '북덕방'이라고, 그렇게 한 데 앉아서 직직 직직 해놓으면 여기가 추워서 사뭇 시벌개.) 25 [고성, 삼달, 태흥]

북덕자리: 보릿짚이나 검불 따위가 깔린 자리이다. '북덕방'이라고도 한다. // 나 아기, 북덕자리에서 이젠 기저귀도 잇주만은, 우리 아기덜 키울 땐 기저귀도 어려와낫어.(내 아기, '북덕자리'에서 이젠 기저귀도 있지만, 우리 아기들 키울 땐 기저귀도 어려웠었어.) 19 [청수]

북덕제완지: 바랭이의 일종을 가리키는 말이다. '북덕제완지'는 줄기로 마구 벋어가는 속성을 지녔다고 한다. // 북덕제완지는 막 커근에 막 벋어가는 것이 북덕제완지고.('북덕제완지'는 아주 커서 막 벋어가는 것이 '북덕제완지'고.) 23 [온평]

북데기방: 북데기를 깔아서 방처럼 꾸민 공간이다. // 그자 방하고 그거라. 부억 상방 그런 거 엇이 방 하나 북데기방. 그거 헤근에 거기에 불 솜앙 밥헤 먹고. 그 이간 집 조그만허게 초가 조그마하게 짓어근에 불치막처럼 짓어근에 그 사는 사람덜토 우린 봐낫수다.(그저 방하고 그거야. 부엌 대청 그런 거 없이 방 하나 '북데기방'. 그거 해서 거기에 불 때서 밥해 먹고. 그 '이간' 집 조그맣게 초가 조그마하게 지어서 '불치막'처럼 지어서 그 사는 사람들도 우린 봤었습니다.) 05 [표선]

북바리: 제주시 연동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그 북바리 집 짓은 디가 일름이, 동네 이름이 삼등이라.(그 '북바리' 집 지은 데가 이름이, 동네 이름이 '삼등이'야.) 30 [노형]

북베기: 밭볏짚을 방망이 같은 것으로 두드려 부드럽게 만든 것이다. // 부깍신을 북베기로 깍내멍 ᄌᆞ는 거곡, 깍신은 꼽닥허게 깍내엇당 붙이멍 ᄌᆞ는 거곡.('부깍신'을 '북베기'로 총 내면서 겯는 것이고, '깍신'은 예쁘게 총 내었다가 붙이면서 겯는 것이고.) 03 [송당]

북부리: 곡식에 이삭이 맺지 않고 말라 죽은 것을 말한다. // 고고리 나오지 못헤영 죽어 불어. 북부리, 북부리 졍. 것ᄀᆞ라 북부리.(이삭 나오지 못해서 죽어 버려. '북부리', '북부리' 져서. 것보고 '북부리'.) 31 // 오일육도로 저거 빠난에 일름도 나고 첨 이 미깡낭을 나난 이젠 첨 토평보단 더 존 디가 엇어 베도 옛날엔 이디 보리, 조 갈민 막 북부리 지엉, 보리 비레 가민 보리가 ᄆᆞᆫ 메여져. 땅에 떠 부난.(오일육도로 저거 빼니까 이름도 나고 참 이 귤나무가 나니까 이젠 참 '토평'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 보여도 옛날에는 여기 보리, 조 갈면 아주 '북부리' 져서, 보리 베러 가면 보리가 모두 매어져. 땅이 떠 버리니까.) 31 [토평]

북삭북삭: 삶은 고구마나 빵 따위가 말랑말랑한 상태이다. // 게난 다라에 부껑 우이 비니루 더껑 뭐 담요라도 더껑 놔두민 부각이 올라오민 그땐 또 찌멍 멘들아. 경허영 솟더레 놩 치민게 북삭북삭.(그러니까 '다라'에 '부껑' 위에 비닐 덮어서 뭐 담요라도 덮어서 놔두면 '부각이' 올라오면 그땐 또 찌면서 만들어. 그래서 솥에 놔서 찌면 '북삭북삭'.) 26 [신창]

북삭북삭ᄒᆞ다: 무거운 물건이 들어가도록 움푹 들어가도록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 들다. // 다음 갈아도 북삭북삭허는디 아주 그 고구마 심을 밧은 아주 ᄌᆞ는 때에 물이 많이 오랑 허는 때에 갈아가지고 따시 비나 탁 부찌면은 밧이 탄탄헤 불어.(다음

갈아도 ‘북삭북삭허는디’ 아주 그 고구마 심을 밭은 아주 무른 때에 물이 많이 와서 하는 때에 갈아가지고 다시 비나 탁 대면은 밭이 탄탄해 버려.) 19 // 이디 어떵 허냐면 땅이 저 헉발이 뒈니까 이딘 안 ᄇᆞᆯ려도 어떵 안 헌디 헉발 약헌 딘 북삭북삭헌 땅엔 보리가 죽으니까 ᄇᆞᆯ려 주는 거.(여기 어떻게 하냐면 땅이 저 ‘헉발’이 되니까 여긴 안 ‘ᄇᆞᆯ려도’ 어떻게 안 하는데 ‘헉발’ 약한 덴 ‘북삭북삭헌’ 땅엔 보리가 죽으니까 ‘ᄇᆞᆯ려’ 주는 거.) 19 // 우에는 또 북삭북삭ᄒᆞ는 껍데기 잇는 나무가 이서. 막 나무는 질긴 나문디, 그 껍데기가 고름 짜내는 그 역할을 ᄒᆞ주게.(위에는 또 ‘북삭북삭ᄒᆞ는’ 껍데기 있는 나무가 있어. 매우 나무는 질긴 나문데, 그 껍데기가 고름 짜내는 그 역할을 하지.) 24 [세화, 신도, 청수]

북삭지다: 무거운 물건이 움푹 들어가도록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 땅 그 북삭지게만 잘 갈앙 헤여근에. 삭삭 찔렁 놔두면은.(땅 ‘북삭지게만’ 잘 갈아서 해서. 삭삭 찔러서 놓아두면.) 04 // 씨를 싹싹 뿌려근에, 다시 ᄒᆞᆫ불 ᄇᆞᆯ령 ᄒᆞ면은 다 뒈는 거라. 게난 웨 ᄇᆞᆯ리느냐. 땅이 이제 북삭지므로 이걸 땅을 뒈게 만들엉. 강ᄒᆞ게 만들어근에 ᄒᆞ젠.(씨를 싹싹 뿌려서, 다시 애벌 ‘ᄇᆞᆯ령’ 하면은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ᄇᆞᆯ리느냐’. 땅이 이제 ‘북삭지므로’ 이것을 땅을 되게 만들어서. 강하게 만들어서 하려고.) 04 [고성]

북삭허다: 단단하지 않고 부드러운 상태를 말한다. // 밑에 ᄍᆞ끔 북삭허게 헤영 그걸로 때리주게.(밑에 쪼끔 ‘북삭허게’ 해서 그걸로 때리지.) 04 // 겅헤야 펀칙허영이 거 처음은 조 북삭헌 거 벙뎅이 풀엉 어느 정도 북삭허게 나주기게.(그래야 깨끗해져서 거 처음은 조 ‘북삭헌’ 거 덩어리 풀어서 어느 정도 ‘북삭허게’ 나지.) 10 // 그면 북삭ᄒᆞ게 소게가 뒈어. 그면 ᄯᆞᆯ 팔 때 그걸로 헤근엥 이불 만들어근엥.(그러면 ‘북삭ᄒᆞ게’ 솜이 돼. 그러면 딸 시집갈 때 그걸로 해서 이불 만들어서.) 18 // 꿀 나민 비여당게. 초불 갈앙 감저밧 초불 갈앙 놔둔다. 초불 갈앙 놔뒀당 북삭허렌.(덩굴 나면 베어다가. 초벌 갈아서 고구마밭 초벌 갈아서 놔둔다. 초벌 갈아서 놔뒀다가 ‘북삭허렌’.) 31 [고성, 신도, 월령, 청수, 토평]

북삭허다: 단단한 콩대가 썩어 부드러워진 상태를 말한다. // ᄒᆞᆫ 일 년만, ᄒᆞᆫ 해 저슬만 살민 기자 북삭헌다게. 콩꼬질 제기 썩어.(한 일 년만, 한 해 겨울만 살면 그저 ‘북삭헌다게’. ‘콩꼬질’ 재게 썩어.) 31 [토평]

북세기: 짚신을 만드는 과정에 총을 매면서 바로 만드는 짚신이다. // 저 북세기가 잇어, 북세기는 아주 깍 보벼근에 뭐ᄒᆞᆫ 거는 초신이고.(저 ‘북세기’가 있어, ‘북세기’는 아주 총을 비벼서 뭐한 거는 짚신이고.) 24 // 북세긴 기자 깍 메면서 그대로 만든 게 북세기고. 그걸 가늘다랗게 이젠 찌어가지고 그걸로 노 꼰 것이 미라.(‘북세긴’ 그저 총을 매면서 그대로 만든 게 ‘북세기’고. 그걸 가느다랗게 이젠 찢어가지고 그걸로 노 꼰 것이 ‘미’야.) 24 [세화]

북세미: 상제(喪制) 앞에 늘 놓아두는 상장(喪杖)의 길이만큼 길고 아주 굵직하게 짚을 묶어서 만든 물건이다. // 그 북뎅이는 북세미엔 ᄒᆞ여 것ᄀᆞ라. 북세미는 쉐 앞더레나

꼴고 불이나 ᄉᆞᆷ주.(그 북데기는 '북세미'라고 해 것더러. '북세미'는 소 앞으로 깔고 불이나 때지.) 08 [동광]

분짓: 조상을 섬기는 제사나 재산 따위를 자손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다. // 시어멍, 시아방네가 딱허게 이거 어느 아덜, 어느 거, 어느 거 딱 분짓 안 헤불민 공동으로 아방 일름에나 시민 다 뚤덜토 다 동등권이라.(시어머니, 시아버지네가 딱하게 이거 어느 아들, 어느 거, 어느 거 딱 '분짓' 안 해버리면 공동으로 아버지 이름에나 있으면 다 딸들도 다 동등권이야.) 13 [삼달]

불각제기: 전갱이과 어류의 일종이다. '각제기'는 전갱이이다. // 겨민 그것은 외방 사람 헤변 사람들이 불각제기를 가졍 와. 그 요만씩 헌 거. 뭐 시방 조기 말앙 불각제기라고.(그러면 그것은 외방 사람 해변 사람들이 '불각제기'를 가지고 와. 그 요만큼 한 거. 뭐 시방 조기 말고 '불각제기'라고.) 03 // 불각제기라고 ᄌᆞᆫᄌᆞᆫ한 거. 가근에 낚아당은에 ᄑᆞᆯ곡 먹는 게 이수다. 고등에영 뭐여.('불각제기'라고 자잘한 거. 가서 낚아다가 팔고 먹는 것이 있습니다. 고등어다 뭐다.) 03 [송당]

불그네: 고무래종류 중 '불당그레'를 말한다. 고무래에 비교하면 손잡이가 짧고 그네 끝에 톱니가 없다. 아궁이의 재를 끌어낼 때 사용한다. // 불그네, 굴묵 짓는 거 ᄆᆞᆫ 타나민 그걸 막 긁엉 동기주게. 꺼내영 ᄆᆞᆫ 꺼내비어 ᄆᆞᆫ 꺼내비사 다음 차기에 또.('불그네', '굴묵' 때는 거 모두 타면 그걸 막 긁어서 당기지. 꺼내서 모두 꺼내버려 모두 꺼내버려야 다음 차기에 또.) 07 [보목]

불덕: 언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부엌 가운데 화로처럼 만들어 불을 쬐던 곳이다. // 부억에는 그거 불덕이라고 잇엇는디 그건 큰 돌 아니고 막 곤란헌 집이 가운디 영 놩은이 가운디서만 불ᄉᆞᆯ뢍 허는 디 것이 불덕입주게.(부엌에는 그거 '불덕'이라고 있었는데 그건 큰 돌 아니고 아주 곤란한 집에 가운데 이렇게 놔서 가운데서만 불살라서 하는 데 것이 '불덕'이지요.) 35 // 삼방은 삼방인디 마루 아이라도 그 저 가운디 불덕 놩 불도 쬐곡, 그디 강.(대청은 대청인데 마루 아니라도 그 저 가운데 '불덕' 놔서 불도 쬐고, 거기 가서.) 35 [대림]

불도굿: '불도맞이굿'이며, 제주도에서 삼승 할머니를 맞아들여 자식의 출생과 양육을 비는 굿이다. // 그게 거 심방 덕담에 그거 잇어이. 그건 애기 엇일 때 불도굿헐 때 그런 거 허주. 애기 내와주렌.(그게 무당 덕담에 그거 있어. 그건 아기 없을 때 '불도굿'할 때 그거 하지. 아기 '내와주렌'.) 21 [신촌]

불도할망: 아기를 점지해주는 산육신이다. 달리 '삼승할망'이라고도 한다. // 삼승할망안티 불도할망안티 마제 치는 거.('삼승할망'한테 '불도할망'한테 '마제' 찌는 거.) 14 [성읍]

불림복: 상제의 상복에서 어깨와 앞가슴 붙이는 베 헝겊을 '불림'이라고 하는데 쓸데없는, 필요 밖으로 덧붙은 폭을 이렇게 부른다. // 이디 또 불림복이라고 요디 굴른 복 두 개가 잇어. 그 나머진 이것과 후루메광 ᄀᆞ튼디 요디 뒤에 복 두 개가 불리는 복 잇어, 뒤에까지.(여기 또 '불림복'이라고 요기 군 폭 두 개가 있어. 그 나머지

는 이것과 ‘후루메’와 같은데 요기 뒤에 폭 두 개가 불리는 폭 있어, 뒤에까지.) 25 [태흥]

불림질: 곡식 따위를 바람에 부쳐서 필요 없는 것을 없애는 일이다. ‘불리다’의 명사형 ‘불림’과 ‘하는 일’의 의미인 ‘-질’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 올레 상. 우리집 불림질 허기 좋아, ᄇᆞ름이.(‘올레’ 서서. 우리집 ‘불림질’ 하기 좋아, 바람이.) 02 [선흘]

불미왓: 풀무가 있던 밭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지명이다. ‘불미+왓’ 구성으로, ‘불미’는 ‘풀무’, ‘왓’은 ‘밭’이다. // 이제 그리고 또 서쪽으로 또 오면은 에 원단이ᄆᆞ루라고 헤가지고 이 새해 정월이 뒈면은 그 마을이 편안험을 빌기 위헤서 제를 모셧, 모셧던 곳이 잇는가 하면은 이제 그 밑으로 와서 불미왓.(이제 그리고 또 서쪽으로 또 오면 에 ‘원단이ᄆᆞ루’라고 해가지고 이 새해 정월이 되면 그 마을이 편안함을 빌기 위해서 제를 모셨, 모셨던 곳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 밑으로 와서 ‘불미왓’.) 01 [도련]

불보제기: 어부를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 거 뭐 저 보말 하나 톳 해 간 걸 못 ᄒᆞ게 ᄒᆞ믄 불보제기옌 ᄒᆞ멍 욕도 우리 해변 사름이엔 ᄒᆞ믄 벌써 욕부떠 들어.(거 뭐 저 고둥 하나 톳 해 간 걸 못 하게 하면 ‘불보제기’라고 하면서 욕도 우리 해변 사람이라고 하면 벌써 욕부터 들어.) 28 [구엄]

불치: 불에 타고 남은 재를 말한다. // 동이는 하도 아까우난 불치 소곱에 묻어난.(동이는 하도 아까우니까 ‘불치’ 속에 묻었어.) 02 // 보통 보리 가는디 겐디 그게 보리 갈 때 불치를 많이 뿌렷다고 옛날엔.(보통 보리 가는데 그런데 그게 보리 갈 때 ‘불치’를 많이 뿌렸다고 옛날에는.) 22 // 불치엔 안 굽고 숯을 만들앙, 물 뿌려 근에 숯을 만들앗당 걸 잘 관리헷당 그거에 이제 씨게 뒈면은 종이 ᄀᆞ뜬 거 놔 근에 불부쩌근에 연결헤근에 화로에 놔근에 적 걸쳐근에 거기에서 적을 굽기도 헷주게.(‘불치’에는 안 굽고 숯을 만들어서, 물 뿌려서 숯을 만들었다가 걸 잘 관리했다가 그거에 이제 쓰게 되면 종이 같은 거 넣어서 불붙여서 연결해서 화로에 넣어서 적 걸쳐서 거기에서 적을 굽기도 했지.) 22 [선흘, 우도]

불치막: 집처럼 만들어 놓은 재를 넣는 공간을 말한다. ‘불치’는 표준어 재에 해당하는 말이다. // 그자 방하고 그거라. 부억 상방 그런 거 엇이 방 하나 북데기방. 그거 헤근에 거기에 불 ᄉᆞᆷ앙 밥헤 먹고. 그 이간 집 조그만허게 초가 조그마하게 짓어근에 불치막처럼 짓어근에 그 사는 사람덜토 우린 봐낫수다.(그저 방하고 그거야. 부엌 대청 그런 거 없이 방 하나 ‘북데기방’. 그거 해서 거기에 불 때서 밥해 먹고. 그 ‘이간’ 집 조그맣게 초가 조그마하게 지어서 ‘불치막’처럼 지어서 사는 사람들도 우린 봤었습니다.) 05 // 불치를, 불치를 이거 허면은 이 좀 싸여 가믄 담아당 불치막에 갖다놓주게.(재를, 재를 이거 하면 이 좀 쌓여 가면 담아다가 ‘불치막’에 갖다놓지.) 05 // 이 촌에는 뭐 불치막 거튼 디, 촐눌 트멍 거튼 디, 뭐 조칩눌 트멍 거튼 디 그런 집안에는 그런, 집안에는 눌이 잇는 때 그건 더운

땐 못허는 거니까.(이 촌에는 뭐 '불치막' 같은 데, '촐눌' 틈 같은 데, 뭐 '조칩눌' 틈 같은 데 그런 집안에는 그런, 집안에는 가리가 있을 때 그건 더운 땐 못하는 거니까.) 12 // 불치가 막 모여가면은 ᄀᆞᆯ체로 가근에 그 저 뭐인가 불치막이라는 게 ᄯᅳ로 셧저게.(재가 아주 모여가면 삼태기로 가서 그 저 뭐인가 '불치막'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 12 [표선, 한동]

불치통: 재거름을 보관하는 공간이다. // 그 밥 허는 데는 저디 불치통 싯고.(그 밥 하는 데는 저기 '불치통' 있고.) 36 [봉성]

불칫막: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집인데, 달리 옛날에는 주로 검부러기 따위의 재를 보관하는 공간을 말한다. // 불칫막 허는 사름은 허곡게, 그냥 밧듸 져다 부는 사름 져 가곡.('불칫막' 하는 사람은 하고, 그냥 밭에 져다 버리는 사람 져 가고.) 02 // 불껑 ᄆᆞᆫ 내치민 그거 다 저 올레에 불칫막 쪼그만허게 짓엉 그레 불껑 담아다근에.(재 모두 내치면 그거 다 저 '올레'에 '불칫막' 조그맣게 지어서 그리 재 담아다가.) 13 // 불칫막 경 헤져게. 요런 디 싯당 모다지믄 밧디 강 이제 허꺼 불엇주.('불칫막' 그렇게 할 수 있어. 요런 데 있다가 모이면 밭에 가서 이제 섞어 버렸지.) 26 // 불칫막 ᄯᅳ루 짓어근에 담앙도 놓곡 헤여.('불칫막' 따로 지어서 담아도 놓고 해.) 33 [삼달, 선흘, 성읍, 세화, 신창, 인성]

불탁불탁: 죽이 끓으면서 내는 소리이다. // 웨솟디로 죽을 그자 불탁불탁 ᄒᆞᆫ 솟을 속빡 쒄. 곤ᄉᆞᆯ에 좁ᄉᆞᆯ에 감저에 놩 죽을 쒄.(웨솟'으로 죽을 그저 '불탁불탁' 한 솥을 수북하게 쑤었어. 흰쌀에 좁쌀에 고구마에 넣어서 죽을 쑤었어.) 04 [고성]

불턱: 해녀들이 무자맥질해서 작업하다가 언 몸을 녹이기 위하여 마련해 간 땔감으로 불을 지펴서 쬐는, 바닷가 바위 위 바람막이에 돌담을 둥그스름하게 에워싼 곳이다. // 모여앚아근에 그 불턱에서 불살랑 초이고 경허다가 이제는 고무옷이 나기 시작허난 불턱이 이젠 엇어.(모여앉아서 그 '불턱'에서 불살라서 쬐고 그러다가 이제는 '고무옷'이 나기 시작하니까 '불턱'이 이젠 없어.) 12 // 불턱에 ᄒᆞᆫ 대ᄋᆞ섯이 앚이민 가운디 ᄉᆞᆷ앙 양펜이 앚앙 추고.('불턱'에 한 대여섯이 앉으면 가운데 때서 양편에 앉아서 쬐고.) 13 // 불턱에 불살뢍덜 그걸로 초왕 이젠 ᄒᆞ꼼 ᄃᆞ시민 또 들어가근에 또 헤어 오고.('불턱'에 불살라서들 그걸로 쬐어서 이젠 조금 따뜻하면 또 들어가서 또 해 오고.) 20 // 바당에 강 불턱이라고 허여 가지고. 그 동리마다 가멍은 니 철 나도 바다에 들어가믄 추울 거니까 지들커 ᄀᆞ뜬 거 ᄀᆞ찌 졍 갑니다.(바다에 가서 '불턱'이라고 해 가지고. 그 동리마다 가면서는 네 철 나도 바다에 들어가면 추울 거니까 땔감 같은 거 같이 져서 갑니다.) 35 [고내, 대림, 대평, 삼달, 온평, 우도, 표선, 한동]

붉은굴: 한림읍 대림리 지경에 있는 굴이다. // 널르고 붉은굴 일대는 ᄒᆞᆫ, 그 도유지, 그때는 군유지라낫는디, 군유지 땅덜이 한 댓 필지 잇수다.(넓고 '붉은굴' 일대는 한, 그 도유지, 그때는 군유지였었는데, 군유지 땅들이 한 댓 필지 있습니다.) 35 [대림]

붉은물: 대정읍 보성리에 있었던 연못 이름이다. // 그 ᄀᆞ무는 해에 ᄀᆞ문 해에 제주도 다 ᄀᆞ물안 다 물 엇은 때. 보성은 질 땅이난 질왓 땅이난 저 서광, 동광 사름덜이 전시 이 독고동산 붉은물이엔 헌 디 오란 물덜 멕여서, 쉐덜, 그때.(그 가문 해에 가문 해에 제주도 다 가물어서 다 물 없을 때. '보성'은 진 땅이니까 '질왓' 땅이니까 저 서광, 동광 사람들이 전부 이 '독고동산' '붉은물'이라고 한 데 와서 물들 먹였어, 소들, 그때.) 33 [인성]

붉은오름: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오름이다. // 저 붉은오름이 잇곡.(저 '붉은오름'이 있고.) 08 [동광]

붓는몸살: 몸이 부으면서 몸살이 동반하는 병이다. // 이 붓는몸살이엔 헌 게 잇주.(이 '붓는몸살'이라고 한 게 있지.) 23 // 그거 붓는몸살 아녀는 지방은 아녀난에 처음 들엄실 거우다.(그거 '붓는몸살' 않는 지방은 않으니까 처음 듣고 있을 겁니다.) 23 [온평]

붓베기깍: 짚신을 만들 때 바닥을 겯는 짚에서 새로 비벼 만드는 총이다. // 붓베기깍은 허면 훍어근에 신이 곱지 안허여.('붓베기깍'은 하면 굵어서 신이 예쁘지 않아.) 02 [선흘]

붕당체: 알곡을 떨어내기 위하여 조 이삭을 방아 찧을 때 나온 겨를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 '붕등체'라고도 하였다. // 저 조 장만헤나민 그 붕당체 그거 멕이곡.(저 조 장만하고 나면 그 '붕당체' 그거 먹이고.) 19 // 붕당체옌 허영 그냥 조 장만헤낭 ᄇᆞ름에 불려나믄 영양가도 하나도 어신 거, 그자 그걸 조체, 붕당체 허믄 이제 그것에 ᄒᆞ끔 서껑.('붕당체'라고 해서 그냥 조 장만하고 나서 바람에 불려나면 영양가도 하나도 없는 거, 그저 그걸 '조체', '붕당체' 하면 이제 그것에 조금 섞어서.) 28 // 붕당체 이건 아무 영양도 어신 거. 그자 비삭헌 거.('붕당체' 이건 아무 영양도 없는 거, 그저 '비삭헌' 거.) 28 // 좁쌀에 껍데기는 붕당체게, 소 멕이는, 저 뒈지게.(좁쌀에 껍데기는. '붕당체', 소 먹이는, 저 돼지.) 29 [구엄, 외도, 청수]

붕뎅이: 가루로 된 물건이 서로 엉키어 붙은 작은 덩어리이다. // 모믈 붕뎅이, 모물 붕뎅이라고 이수다. 모물 헤나믄 지꺼기. 불려 난 지꺼기들.(메밀 '붕뎅이', 메밀 '붕뎅이'라고 있습니다. 메밀 하고 나면 찌꺼기. 불리고 난 찌꺼지들.) 03 [송당]

붕뎅이: 잘 못 먹어서 버짐처럼 살갗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 얼굴이 그 막 무슨 막 붕뎅이 닮은 거 일어난데 헙니다게.(얼굴이 그 마구 무슨 마구 '붕뎅이' 같은 거 일어난다고 합니다.) 34 [구억]

붕뎅이: 조를 방아에 찧을 때 나오는 겉껍질인 '겨'이다. // 붕뎅이엔 헌 거 조체 나민 도새기 주고 따시 여물은 헤당 이젠 멩텡이에 담으멍 집안에 다 들여놧다근에 창고시민 창고에 담앗다근에 벳 나민 다 ᄆᆞᆯ리와.('붕뎅이'라고 한 거 조겨 나오면 돼지 주고 다시 여물은 해다가 이젠 멱서리에 담으면서 집안에 다 들여놨다가 창고 있으면 창고에 담았다가 볕 나면 다 말려.) 13 [삼달]

붕둥체: 알곡을 떨어내기 위하여 조 이삭을 방아 찧을 때 나온 겨를 말한다. '붕당체'라고도 하였다. // 체가 그 곧 ᄒᆞᆫ, 그 조 질 우의. 껍데기를. 붕둥체. 붕둥체라 허고.(겨가 그 곧 한, 그 조 젤 위에 껍데기를. '붕둥체'. '붕둥체'라 하고.) 29 [외도]

붙깍신: 짚신의 한 종류로 제총박이를 말한다. // 노랑케 이제 깍, 붙, 깍이 노랑헤영근에 고니까 거 깍신은 이 깍신이옌 허곡 붙깍신옌 허곡.(노랗게 이제 총, 붙, 총이 노래서 고우니까 거 '깍신'은 이 '깍신'이라고 하고 '붙깍신'이라고 하고.) 01 [도련]

붙께: 뭇이나 단으로 묶을 물건을 이용하여 그것을 묶는 매끼이다. // 붙벡이 헌다고 헨에 아메도 붙께렌 허는 모냥이라.(붙박이 한다고 해서 아마도 '붙께'라고 하는 모양이야.) 01 [도련]

브라마: 소의 한 종류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한 소라고 한다. // 가까이 소가 없어질 무렵 될 때는 미국서나 카나다서 온 브라마라는 소를 놔 가지고 여기도 그 브라마 길롯던 사람 우리 전 훼장헤난 사람.(가까이 소가 없어질 무렵 될 때는 미국서나 캐나다서 온 '브라마'라는 소를 놔 가지고 여기도 그 '브라마' 길렀던 사람 우리 전 회장했던 사람.) 23 [온평]

브라만: 인도에서 유래한 육우 품종으로 가장 대표적인 피모(被毛) 색은 회색이며, 얼굴이 길고 어깨 부위에 커다란 견봉이 있으며, 목은 축 늘어지고 상당히 큰 귀가 앞으로 45도 각도로 늘어져 있는 점이 특징이다. // 브라만이엔 쉔 어떤 쉐냐ᄒᆞ면은 이 저 제주도가 축산 선진지니까. 그 미국에 가서 도입을 헤 온 거라.('브라만'이라고 소는 어떤 소냐하면은 이 저 제주도가 축산 선진지니까. 그 미국에 가서 도입을 해 온 거야.) 22 [우도]

브루코: 블록(block)의 일본어식 발음 'ブロック'로 건축 재료의 하나이다. 시멘트로 네모지게 만들어서 벽면 따위를 쌓아 올리는 데 쓴다. // 그때는 뭐 냉가도 없고 브루코도 엇고.(그때는 뭐 벽돌도 없고 '브루코'도 없고.) 32 [덕수]

블넷가루: 남원읍 한남리에 있는 지명이다. // ᄯᅳ리젠 헹 막뎅이 요만헌 거 아지고 똑 ᄯᅳ리젠 안 허곡 기자 원 좇아오멍, 기자 ᄒᆞ쏠 영 ᄃᆞᆯ으면은 ᄒᆞ쏠 제기 오곡, 또 경 안헹 나 천천히 가면 저만히 떨어정 천천히 오멍, 그디ᄁᆞ지 블넷가루엔 헌 디 그레.(때리려고 해서 막대기 요만한 거 가지고 꼭 때리려고 안 하고 그저 원 쫓아오면서, 그저 조금 이렇게 달리면 조금 빨리 오고, 또 그렇게 안 해서 내가 천천히 가면 저만치 떨어져서 천천히 오면서, 거기까지 '블넷가루'라고 한 데 그리로.) 15 [수망]

비께: 상어의 일종이다. // 훼 여기선 옛날엔양 비께에 헌 거 상언디 비께가 엇어양.(회 여기선 옛날에는요 '비께'라고 한 거 상언데 '비께'가 없어요.) 23 [온평]

비난허다: 가난하다. // 우린 그 저 부모님네가 완전 비난허게 살앗수다게.(우린 그 저 부모님네가 완전 '비난허게' 살았습니다.) 20 [고내]

비니루: 비닐(vinyl)의 일본어식 발음이다. // ᄂᆞ람지로 더프든지. 그 떼는 비니루도 별로.

('ᄂᆞ람지'로 덮든지. 그 때는 '비니루'도 별로.) 04 [고성]

비다: '집줄'을 뒤트는 것이다. 초가지붕을 이은 다음 그것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얽어매는 '집줄'을 만들기 위해 띠를 꼬는 것이다. // 여저든 남저든 호렝일 비는 사름이 잇어야 뒈여.(여자든 남자든 '호렝이'를 '비는' 사람이 있어야 돼.) 12 // 집줄 빈덴 ᄒᆞ주, 놓는 사람 요걸 비는 사람.('집줄' '빈덴' 하지, 놓는 사람 요걸 '비는' 사람.) 24 // 호렝이 멘들앙 이제 그 줄을 비여. 놓는 사름 헹 줄을 비여.('호렝이' 만들어서 이제 그 줄을 '비여'. 놓는 사람 해서 줄을 '비여'.) 31 // ᄒᆞᆫ 사름은 손으로 놔 주고 ᄒᆞᆫ 사름은 비어 가면은 것이 쑥 놔집주게.(한 사람은 손으로 놔 주고 한 사람은 '비어' 가면은 그것이 쑥 놔지지요.) 35 [남원, 대림, 세화, 토평, 한동]

비대죽: '비+대죽' 구성으로, 빗자루를 만들 때 쓰는 수수이다. // 비차룩대. 수숫대, 수수비. 비대죽, 수수 비대죽.('비차룩대'. 수숫대, 수수비. '비대죽', 수수 '비대죽'.) 01 // 비대죽. 느렁대축이 그 비 만들고 종지대축, 종지대축은 건 ᄆᆞᆯᄀᆞ레 헐 때.('비대죽'. '느렁대축'이 그 비 만들고 '종지대축', '종지대축'은 건 연자매 할 때.) 12 // 게난 그거 무슨 대죽이엔 허멍 먹는 대죽이엔 허멍 허고. 비자락 멘드는 대죽은 비대죽. 그건 이제 이제 ᄊᆞᆯ대죽 헷주게.(그러니까 그거 무슨 수수라고 하면서 먹는 수수라고 하면서 하고. 빗자루 만드는 수수는 '비대죽'. 그건 이제 이제 'ᄊᆞᆯ대죽' 했지.) 26 [도련, 신창, 한동]

비로도: '비로도(veludo)'로 거죽에 곱고 짧은 털이 촘촘히 돋게 짠 벨벳으로 비단의 한 종류이다. // 이제 양단이 아니주만은. 비로도 양단.(이제 양단이 아니지만. '비로도' 양단.) 22 [우도]

비릇질: 구좌읍 한동리 앞 바다 이름의 하나이다. 달리 '비릿질'이라고도 한다. // 앞바다가 우리가 당번이 뒐 때도 잇고 비릇질이 뒐 때도 잇고 저 서알 뒐 때도 잇고.(앞바다가 우리가 당번이 될 때도 있고 '비릇질'이 될 때도 있고 저 '서알' 될 때도 있고.) 12 [한동]

비리다: 큰일을 앞두고 몸엣것을 하거나 꺼리어 피해야 할 송장이나 마소의 죽은 것 따위를 보고 몸이 부정하게 되다. // 잔치헤 먹젠 허민이 몸을 비리지 말아야 뒈주.(잔치해서 먹으려고 하면 몸을 '비리지' 말아야 되지.) 12 // 몸 비린 사름은 적도 허지 안허고 경허야 뒈.(몸 '비린' 사람은 적도 하지 않고 그래야 돼.) 12 // 사름은 비린 사름 오지 못 허게 금허영. 정성허는 사름은 금줄 메고.(사람은 '비린' 사람 오지 못 하게 금해서. 정성하는 사람은 금줄 매고.) 26 // 비린 가심으로 허연 옛날에 ᄑᆞᆺ죽을 쒓고, 사둔 돌아가시민 사둔덜이 왕 ᄑᆞᆺ죽 쒕 멕여십주게.('비린' 가슴으로 해서 옛날에 팥죽을 쒔고, 사돈 돌아가시면 사돈들이 와서 팥죽 쒀서 먹였습지요.) 34 [구억, 신창, 한동]

비림: '비리다'에서 온 말로, '비리다'는 큰일을 앞두고 몸엣것을 하거나 꺼리어 피해야 할 송장이나 마소의 죽은 것 따위를 보고 몸이 부정하게 된다는 뜻이다. // 비림 삭

아지우크라. ᄒᆞ꼼게 장난 디 거세기 헌 건 ᄑᆞᆺ으로 ᄒᆞ꼼이. 이 ᄑᆞᆺ이 질 그런 거 허는 디 씨는 거 아니가게.('비림' 삭히겠어. 조금 초상난 데 거시기 한 건 팥으로 조금. 이 팥이 제일 그런 거 하는 데 쓰는 거 아니냐.) 26 [신창]

비릿질: 구좌읍 한동리 바다 이름의 하나이다. '비릇질'이라고도 한다. // 비릿질이엔 헌 디 잇고이.('비릿질'이라고 하는 데 있고.) 12 // 그디도 원담 멘들앗는디 그딘 자꾸, 파도가 쎄니까 자구 허물어져 불고, 원담 비릿질이엔 헌 디 지금 남아 잇저.(거기도 '원담' 만들었는데 거긴 자꾸, 파도가 세니까 자꾸 허물어져 버리고, '원담' '비릿질'이라고 하는 데 지금 남아 있어.) 12 [한동]

비삭비삭: 배춧잎이 옹골차지 못하여 먹을 때 맛없어 보이는 모양이다. // 꽃 피어불민 그 꽃이 비삭비삭 맛엇입니다.(꽃 피어버리면 그 꽃이 '비삭비삭' 맛없습니다.) 34 [구억]

비삭비삭: 종이 따위가 쉽게 구겨지거나 꺾이는 모양이나 소리이다. // 이거 종이를, 창호지. 창호지 쪽기는 질기는디 그냥 그런 종이로는 비삭비삭 다 꺼꺼져.(이거 종이를, 창호지. 창호지 제기는 질긴데 그냥 그런 종이로는 '비삭비삭' 다 꺾어져.) 26 [신창]

비석거리: 한림읍 옹포리에 공로 업적 등을 음각한 공적, 송덕, 열녀 기념비 등을 세웠던 곳이다. // 비석거리라고 허는 거는 옹포 신호등 사거리 저쪽 그 한림 쪽으로 가는 쪽으로 거기가 비석거리여.('비석거리'라고 하는 거는 '옹포' 신호등 사거리 저쪽 그 한림 쪽으로 가는 쪽으로 거기가 '비석거리'야.) 27 [옹포]

비석비석ᄒᆞ다: 물건의 부피가 앙상하여 옹골차지 못하다. // 힘이 약허여. ᄆᆞᆯ똥은 비삭비삭허거든. 쉐똥은 그거 잘 ᄆᆞᆯ리면 딱딱허거든.(힘이 약해. 말똥은 '비삭비삭허거든'. 소똥은 그거 잘 말리면 딱딱하거든.) 19 // 그거이 불려다가 또 ᄀᆞᆯ아야지 경 아니 허면 그 겁적이 많이 잇이민 밥 못 먹어. 비삭비삭헤여.(그거 불려다가 또 갈아야지. 그렇게 아니 하면 그 껍데기가 많이 있으면 밥 못 먹어. '비삭비삭헤여'.) 21 [신촌, 청수]

비석치기: 돌로 세워 놓은 돌을 쓰러뜨리며 노는 아이들의 놀이다. // 우리 어린 때는 비석치기엔 헤영 돌로 영 저기 세와낭 맞추고.(우리 어릴 때는 '비석치기'라고 해서 돌로 이렇게 저기 세워놓고 맞히고.) 14 [성읍]

비양도: 한림읍 협재리 앞바다에 있는 섬이다. // 그 웨에 사름덜은 그 저 비양도 ᄀᆞ뜬 디 잇는 사름덜은 다 구별을 허여마씨.(그 외에 사람들은 그 저 비양도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은 다 구별을 해요.) 35 // 그 저 생선 궤기도 한림 비양도 앞바다의 거라야.(그 저 생선 고기도 한림 비양도 앞바다의 거라야.) 36 [대림, 봉성]

비양접: 우도면 비양동에서 하던 계의 이름이다. // 비양접 ᄋᆞ 어장 ᄒᆞ나 놔갖고, ᄋᆞ 서쪽에 관계가 뒈거든, 저쪽 동네도 저쪽으로 ᄌᆞ끔 부터잇다고.('비양접' 요 어장 하나 놔가지고, 아 서쪽에 관계가 되거든, 저쪽 동네도 저쪽으로 조금 붙어있다고.) 22 [우도]

비역부찌: 장례 때 장지에서 친족과 상두꾼에게 나누어 주는 간식이다. // 아주 케케묵은 옛날은 조반 먹어근에 영장 메영 곧 밧디 가민 또 간식을, 건 피력이 아니고 건 비역부찌라고 헤서 간식을 줘 낫는디 그거는 우리가 안 후에는 아주 아주 옛날식인ᄀᆞ라 엇어지고.(아주 케케묵은 옛날은 조반 먹고 송장 메서 곧 밭에 가면 또 간식을, 건 '피력'이 아니고 건 '비역부찌'라고 해서 간식을 줬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안 후에는 아주 아주 옛날식이어서 없어지고.) 06 [남원]

비역부찜: 상여를 매고 가다가 조금 쉴 때 먹는 간식을 말한다. 장사를 지내는 중간에 장지에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떡이나 물품이라고 말했다. // 비역부찜허난에게 우리 그때 쏠 스무 말 ᄃᆞᆼ간 헤신디.('비역부찜'하니까 우리 그때 쌀 스무 말 담가서 했는데.) 23 // 피역부찜은 그 피력은 다 끗나근엥에 헤어질 때 안네는 거고. 비역부찜은 중간에.('피역부찜'은 그 '피력'은 다 끝나서 헤어질 때 드리는 거고. '비역부찜'은 중간에.) 23 // 비역부찜이엔 헌 건, 엿날에 영장 메영 가다근에, 중간에. 사름으로 메엉 가당 ᄒᆞ쏠 쉴 때, 쉴 때 이제 우리 ᄀᆞ트민 간식 주는 거라이.('비역부찜'이라고 한 건, 옛날에 영장 메서 가다가, 중간에. 사람으로 메어 가다가 조금 쉴 때, 쉴 때 이제 우리 같으면 간식 주는 거야.) 25 // 가다근에 지치민 영장 멘, 사름으로 멘텐 허난, 게난 가당 지치민 중간에서 쉬어. 쉬엉 그때 멕이는 건 비역부찜.(가다가 지치면 상여 멘, 사람으로 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지치면 중간에서 쉬어. 쉬어서 그때 먹이는 건 '비역부찜'.) 25 [온평, 태흥]

비작비작: 들나물들이 삐죽삐죽 여기저기 많이 솟아난 모습이다. // 드릇ᄂᆞ물 케당. 야이 첨, 하하하하. 난 그거 나자 마눙도 케레 가오고. 그자 비작비작 겡 헤.(들나물 캐다가. 애가 참, 하하하하. 난 그거 나자 마늘도 캐러 가오고. 그저 '비작비작' 그렇게 해.) 24 [세화]

비작비작: 바투바투의 제주어이다. 두 대상이나 물체의 사이가 아주 썩 가깝게 있는 모양이나 여기서는 집들이 모여서 여기저기 많아진 상태이다. // 이젠 원 그땐 우리 두린 땐게 경 이치룩 집이 비작비작 서서게?(이젠 원 그 땐 우리 어릴 땐 그렇게 이처럼 집이 '비작비작' 있었나?) 07 [보목]

비작비작허다: 술을 담았던 지게미의 흐물흐물한 맛을 나타낸 말이다. // 비작비작헹 못 먹겟더라게.('비작비작헹' 못 먹겠더라.) 30 [노형]

비작비작허다: 풀 따위가 잘 달라붙는 모양이다. // 그거는 저 강정 법환이나 이 해안 도로 가가지고 논밧디서 나룩찍이라고 헤서 사다가 멕도 ᄌᆞᆺ고 신도 삼고 이 이디는 비작비작헤서 괄아.(그거는 저 '강정', '법환'이나 해안 도로 가 가지고 논밭에서 볏짚이라고 해서 사다가 멱도 짜고 신도 삼고 이 여기는 '비작비작헤서' 잘 말라.) 19 [청수]

비작허다: 물기나 풀기가 많아 질퍼덕질퍼덕한 모습이다. // 저 솟디 놩 ᄉᆞᆷ앙 익음만 허민. ᄆᆞ물ᄏᆞ루난 제기 익어 빨리. 경허믄 이젠 남박세기 그거 저 이런 나일로 같은 거

나 사기그릇은 어염으로 물 짜돌진 안허여, 비작헤 불어.(저 솥에 놔서 삶아서 익기만 하면. 메밀가루니까 재게 익어 빨리. 그러면 이젠 나무바가지 그거 저 이런 나일론 같은 거나 사기그릇은 옆으로 물 잦아들지 않아, '비작헤' 버려.) 20 [고내]

비지근허다: 고기 따위를 끓인 국물 같은 것이 맛이 있다. // 꿩은 작아비어도 국을 끌리믄 족게 끌려도 비지근허고, ᄒᆞᆫ 말썩 끌려도 비지근허곡 헙니다.(꿩은 작아보여도 국을 끓이면 적게 끓여도 '비지근허고', 한 말씩 끓여도 '비지근허곡' 합니다.) 35 [대림]

비ᄌᆞ곶: 구좌읍 송당리의 지명이다. // 게서 나 오늘도 ᄀᆞᆯ앗주만은 난 저 비ᄌᆞ곶 일곱 바퀴 곶을 돌안에 두 살짜리 산 소를 심어낫수다.(그래서 나 오늘도 말했지만 난 저 '비ᄌᆞ곶' 일곱 바퀴 '곶'을 돌아서 두 살짜리 살아있는 소를 잡았었습니다.) 03 [송당]

비창: 잠녀들이 바다에서 전복을 딸 때 사용하는 쇠로 만든 도구이다. 길이는 약 30센티미터 정도로, 자루의 끝을 고리 모양으로 구부려 말총으로 만든 끈을 달아 놓는다. // 비창은 이제 허리에 찻당은에 전복 시민 트는 거.('비창'은 이제 허리에 찼다가 전복 있으면 따는 거.) 10 // 숫전복은 영허영 오모록 이추룩허영 오모록허믄 강 비창 덜락 허여시믄 강 비창으로 헤영 강 영 허믄 푹삭 열아졍 것이 암천복이주게.('숫전복'은 이렇게 해서 오목 이처럼 해서 오목하면 가서 '비창' 더럭 하였으면 '비창'으로 해서 가서 이렇게 하면 푹 열어져서 것이 '암천복'이지.) 10 // 비창 상군덜은 가졍가도 우린 ᄀᆞᆯ겡이베끼 아이 가져가.('비창' '상군'들은 가져가도 우린 호미밖에 안 가져가.) 26 // 그자 메역 허민 비창에 허리에 차고 ᄀᆞᆯ겡이 앗곡 경헨 가민 구제기 잡고 생복 봐지민 떼여 놓곡.(그저 미역 하면 '비창'에 허리에 차고 호미 가지고 그래서 가면 소라 잡고 생복 보이면 떼어 놓고.) 31 [신창, 온평, 월령, 토평]

비피다: 바쁘다는 뜻이라고 제보자는 설명하고 있다. // 막 비피영게 막 마타근에 그거 물 짜주민 물 ᄋᆞ져오랑 옷에 들이젠 허민 바빵.(막 '비피영게' 막 맡아서 그거 물 짜주면 물 가져와서 옷에 들이려고 하면 바빠서.) 33 [인성]

비호미: 잠녀들이 미역 따위를 벨 때 들고 다니는 낫이다. // 메호미. 비호미. 그 비호미엔 헌 건 바다에 가졍 뎅기는 거.('메호미'. '비호미'. 그 '비호미'라고 한 건 바다에 가져서 다니는 거.) 05 [표선]

빈: 고운 메밀가루 반죽을 기름을 두른 번철이나 프라이팬 따위에 얇게 펴 놓고 가운데에 양념한 무채 소를 넣고 말아서 지진 떡이다. '빙떡'이라고도 한다. // 빈은 기자 ᄆᆞ물 ᄀᆞᆯ아당 옛날, 이제는 계란 놓고 지름 놓고 다 헤도 옛날엔 경 안 헤연. 기자 ᄆᆞ물ᄀᆞ루만 칸 헷주. 옛날엔 ᄆᆞ물ᄀᆞ루 ᄒᆞ꼼 카고 밀카루 그레 쪼금 놩 캉 그자 저 ᄆᆞᆯ앙. 파가 옛날엔 벨로 파도 엇어서게.('빈'은 그저 메밀 갈아다가 옛날, 이제는 계란 넣고 기름 넣고 다 해도 옛날엔 그렇게 안 해. 그저 메밀가루만 타

서 했지. 옛날엔 메밀가루 조금 타고 밀가루 그리 조금 넣어서 타서 그저 저 말아서. 파가 옛날엔 별로 파도 없었어.) 26 [신창]

빈: 칼로 베어낸 시루떡의 낱개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이다. // 메누리 우리가 허여 오믄 메누리 어멍네 집이 그 떡 네 빈 놩 보낼 때 반제펜 하나, 제펜 하나 침떡 두 개, 적갈 경 놩 보내여.(며느리 우리가 해 오면 며느리 어머니네 집에 그 떡 네 '빈' 넣어서 보낼 때 '반제펜' 하나, '제펜' 하나 시루떡 두 개, 적 그렇게 넣어서 보내.) 26 [신창]

빈뎅이: 사람의 피부 표면에 입혀진 얇은 겉껍질을 말한다. // 감저밥만 경 먹어놓으민[노민] 아이덜은 봄 나민 막 빈뎅이 일엉은에.(고구마밥만 그렇게 먹어놓으면 아이들은 봄 나면 막 '빈뎅이' 일어서.) 33 [인성]

빈떡: 고운 메밀가루 반죽을 기름을 두른 번철이나 프라이팬 따위에 얇게 펴 놓고 가운데에 양념한 무채 소를 넣고 말아서 지진 떡이다. // 빈떡은 ᄆᆞ믈ᄀᆞ루 그냥 멩물에 막 풀풀ᄒᆞ게 너무 풀풀ᄒᆞ게 말아 그자 영.('빈떡'은 메밀가루 그냥 맹물에 마구 '풀풀ᄒᆞ게' 너무 풀풀하게 마라 그저 이렇게.) 16 [하원]

빈주룽케: '주의가 깊게', '유심히'를 뜻하는 제주어이다. // 이만썩헌 먹돌 잔뜩 ᄋᆞ져다근에 적 오민 적 오람젠 헤영 마치렌 허영 그 성 우이 빈주룽케 ᄋᆞ져당 막 데며낫어. 먹돌 이만썩 헌 것덜.(이만큼씩한 '먹돌' 잔뜩 가져다가 적 오면 적 온다고 해서 맞히려고 해서 그 성 위에 '빈주룽케' 가져다가 막 쌓았었어. '먹돌' 이만큼씩 한 것들.) 33 [인성]

빈주룽허다: 여기저기 흔하게 널어져 있다. 여기서는 많이 모여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옛날은 잔치 때 새각시 밥 이제 영 헤영 가짓겡이 큰 거 허영 주믄 이제 아이덜은 창 무뚱이 빈주룽허게 앚으민 그 밥 ᄒᆞᆫ 숟가락씩 더 줘. 손 영 내밀민 ᄒᆞᆫ 숟가락씩.(옛날은 잔치 때 새색시 밥 이제 이렇게 해서 밥뚜껑 큰 거 해서 주면 이제 아이들은 창 '무뚱'에 '빈주룽허게' 앉으면 그 밥 한 숟가락씩 더 줘. 손 이렇게 내밀면 한 숟가락씩.) 26 [신창]

빈지: 벽 아래쪽 두 기둥 사이에 가로 질러 막은 널빤지이다. // 거 그 무스거게. 빈지, 빈지. 널, 널로. 옛날은.(거 그 무엇. '빈지', '빈지'. 널, 널로. 옛날은.) 14 // 코거리 ᄒᆞ영 쉐 이른 빈지에 코거리 걸어근에 쉐석 메와근에 코거리에 쉐석 영 졸라 메엇주게.(올가미 해서 소 이런 '빈지'에 올가미 걸어서 '쉐석' 매워서 올가미에 '쉐석' 이렇게 졸라매었지요.) 17 // 영헌 디도 허곡 영헌 우에도 허고 우에 서슬, 영헌 딘 저 벡선. 이것ᄀᆞ라 빈지라, 옆이가.(이런 데도 하고 이런 위에도 하고 위에 산자, 이런 데 저 '벡선'. 이것보고 '빈지'야, 옆이.) 25 [대평, 성읍, 태흥]

빈직빈직허다: 번쩍번쩍하다. 그럴싸하고 보기 좋다. // 밀도 옛날은 우리냥으로 이녁냥으로 밀을 틔와근에 빈직빈직허게 틔왕 ᄀᆞ레 이녁냥으로 ᄀᆞ레 ᄀᆞᆯ민 ᄀᆞ루가 들크룽헌디 이제 사온 ᄀᆞ룬 경 맛엇어.(밀도 옛날은 우리대로 자기대로 밀을 틔워서

‘빈직빈직허게’ 틔워서 맷돌 자기대로 맷돌 갈면 가루가 달콤한데 이제 사온 가루는 그렇게 맛없어.) 13 [삼달]

빈찍빈찍: 빛이 언뜻 나타나는 모양이다. // 저슬에 이 멩질 때 멘드는 옷은 막 다듬앙 곱게 빈찍빈찍 다듬아근에 홍짓대 막 두드령, 경 헹 멘들앙 입읍디다게.(겨울에 이 명절 때 만드는 옷은 막 다듬어서 곱게 ‘빈찍빈찍’ 다듬어서 홍두깨 막 두드려서, 그렇게 해서 입었었습니다.) 08 [동광]

빈쿨: 풀 이름의 하나이다. // 뭐 원 쒜비눔 ᄀᆞ튼 거 비눔쿨 ᄀᆞ튼 거 원 원 제완지, 빈쿨. 원 원 아니 나는 거 엇이 잡쿨 나. 물릇 거튼 거.(뭐 원 쇠비름 같은 거 ‘비눔쿨’ 같은 거 원 원 바랭이, ‘빈쿨’. 원 원 안 나는 거 없이 잡김 나. 무릇 같은 거.) 31 [토평]

빌락빌락: 아무렇게나 마구의 의미이다. // 옛날이사 ᄒᆞ꼬만 헌 디 가젠 허민 허리 저 깍치마 입엉 둘렁 뎅겻주. 지금ᄀᆞ치록 빌락빌락 뎅겨나지 아녀수다.(옛날이야 조금만 한 데 가려고 하면 허리 저 풀치마 입어서 둘러서 다녔지. 지금처럼 ‘빌락빌락’ 다녔었지 않았습니다.) 14 [성읍]

빌레: 너럭바위를 말한다. 돌무더기가 많이 쌓여 있는 곳 또는 땅에 넓적하고 평평하게 묻혀진 돌이다. // 북춘, 동복더레가 땅이 빌레 끝에 뒈연 빌렛드르도 뒈서 땅이 ᄒᆞ꼼 궂주.(북촌, 동복으로가 땅이 ‘빌레’ 끝이 되어서 ‘빌렛드르’도 되어서 땅이 조금 궂지.) 11 // 큰 사둘 가진 사름덜 ᄉᆞ못 가운더레 사곡게. 못 헤영 체로 거릴 사름은 저 빌레레 가곡.(큰 사둘 가진 사람들 사뭇 가운데로 서고. 못 해서 체로 뜰 사람은 저 ‘빌레’로 가고.) 26 // 빌레가 많아 부난 주로 웬만헤근엥 큰 밧에 아니ᄒᆞᆫ 사람들은 ᄀᆞᆯ겡이 농사라고 헤 가지고 ᄀᆞᆯ겡이로 이렇게 긁어 가지고 헷던 걸 헷엇고.(‘빌레’가 많아 버리니까 주로 웬만해서 큰 밭에 안한 사람들은 호미 농사라고 해 가지고 호미로 이렇게 긁어 가지고 했던 걸 했었고.) 27 // 보섭물내옌 허는 것은 보섭 형치에 그 지경이, 그 내에 그 저 보섭 형치에 빌레 우의 그 물이 뿔지 아니헌 물이 잇수다게.(‘보섭물내’라고 하는 것은 보습 형태에 그 지경이, 그 내에 그 저 보습 형태에 ‘빌레’ 위에 그 물이 삐지 아니하는 물이 있습니다.) 35 [구엄, 대평, 대평, 동광, 신창, 신촌, 옹포, 함덕]

빌레기: 피륙을 세는 단위인 ‘필’을 말하는 것이다. // 겡 헨 그거 고지게 빵인에 ᄒᆞᆫ 빌레기 멧 개 헤지민 몽둥이에 감앙 미녕 ᄂᆞᆯ앙인에 미녕 차는 거주게.(그렇게 해서 그거 실꾸리 빼서 한 ‘빌레기’ 몇 개 하면 몽둥이에 감아서 무명 날아서 무명 짜는 거지.) 33 [인성]

빌레밧: 밭의 흙 밑에 너럭바위 따위가 깔린 밭을 말한다. 달리 ‘빌레왓’이라고도 한다. // 야픈 빌레밧은게 야픈 밧.(얕은 ‘빌레밧’은 얕은 밭.) 23 // 질왓디 잘 갈아지는 밧은 그냥 내불곡, 웃드르에 빌레밧들은 돌 놩 허는 디 끄서사. 야티 잘 못 갈앙, 쉐가.(‘질왓’에 잘 갈리는 밭은 그냥 내버리고, ‘웃드르’에 ‘빌레밧’들은 돌 놔서 하는데 끌어야. 얕게 잘 못 갈아서, 소가.) 34 [구엄, 온평]

빌착빌착: 죽 따위의 풀기가 있는 액체가 끓는 모양이다. // 단단허민 빌착빌착 궤민 딱 끼우민 뒈여. 경헨 양철더레 비우민. 경헨 ᄆᆞ물묵은 우리도 잘 쒀난.(단단하면 '빌착빌착' 끓으면 딱 끄면 돼. 그래서 '양철'에 비우면. 그렇게 메밀묵은 우리도 잘 쒔었어.) 26 [신창]

빗: 시루떡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썬 것을 세는 단위 또는 칼로 베어 낸 시루떡 등의 낱개이다. // 식게 때 설귀떡은 두 빗. 많으민 늬 빗도 올릴 수 잇고.(제사 때 '설귀떡'은 두 '빗'. 많으면 네 '빗'도 올릴 수 있고.) 01 // 큰 시리 네 빗. 네 빗 나오민 막 ᄋᆞ라 빗 나옵니다.(큰 시루 네 '빗'. 네 '빗' 나오면 아주 여러 '빗' 나옵니다.) 08 // 그 떡 ᄒᆞᆫ 빗 얻어먹젠 경 놉 안 빌어도 다 오랑 경 헤낫젠 ᄒᆞ난, 어멍.(그 떡 한 '빗'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놉 안 빌려도 다 와서 그렇게 했었다고 하니까, 어머니.) 24 // 그건 만들앙, 제사 때 만들아십주, 그건 기주떡 허영 영 빗으로 이만씩 부각허게 허영 그걸.(그건 만들어서, 제사 때 만들었습지요, 그건 '기주떡' 해서 이렇게 '빗'으로 이만큼씩 '부각허게' 해서 그걸.) 34 [구억, 남원, 노형, 대평, 도련, 동광, 봉성, 삼달, 성읍, 세화, 온평, 외도, 월령, 태흥, 토평, 함덕]

빗게: 제주 사삼사건 때 대나무 막대를 들고 보초를 서며 군인이나 경찰이 오는 지 마을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는데 젊은 아이가 주로 맡았다. // 거 사삼 ᄉᆞ건에 우리 그때가 열여ᄉᆞᆺ인가 열여ᄉᆞᆺ에서부터 거 이디 영 헹은에 빗게 사렌 헨이.(거 사삼사건에 우리 그때가 열여섯인가 열여섯에서부터 거 여기 이렇게 해서 '빗게' 서라고 했어.) 21 [신촌]

빗구물: 한림읍 대림리 지경 바닷가에서 솟는 용천수이다. // 물도 여기선 봉천수를 떠다 먹는데 봉천수 없이 꼭 저 바당 ᄌᆞ꼿디 가가지고 저 빗구물, 빗구물 허여 가지고 그 물을 질어다가 지주도 허고, 또 때도 그 지관덜 모욕도 그걸로 허고, 또 떡도 만들고 부쪄나십주.(물도 여기선 '봉천수'를 떠다 먹는데 '봉천수' 없이 꼭 저 바다 곁에 가서 저 '빗구물', '빗구물' 해 가지고 그 물을 길어다가 제주도 하고, 또 때도 그 지관들 목욕도 그걸로 하고, 또 떡도 만들고 붙였었지.) 35 // 거기 저 비석도 세와지곡, 그 저 빗구물이란 물이 잇수다.(거기 저 비석도 세워지고, 그 저 '빗구물'이란 물이 있습니다.) 35 [대림]

빗대기: 연을 만드는 대오리의 한 가지이다. // 객주리연이엔 헌 건 그걸 두 군데만 메고 갱연은 양쪽, 우이 그 빗대기 글로 실 헤여근에가 글로 양쪽으로 이렇게 허곡 가운데 고망 것에 합쳐 가지고 경헨 허는 거 그거.(가오리연이라고 한 건 그걸 두 군데만 매고 달연은 양쪽, 위에 그 '빗대기' 거기로 실 해서 거기로 양쪽으로 이렇게 하고 가운데 구멍 것에 합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12 [한동]

빗떡: 떡을 쪄서 가로로 길게 자른 한 덩어리를 '빗'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떡'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빗'으로 자른 떡이라고 할 수 있다. // 상웨떡은 또게 또 쉰다리 헹 놧당은에 거 ᄆᆞᆯ아근에 팔월멩질은 주로 그 송편만 헤영 올리질 안 허고

상웨떡을 헹 빗떡 헤근에 친떡 모냥으로 헤영 우린 경 헤나신디 걸 헹 놔두민 막 이렇게 잘 피여.(상화떡은 또 또 '쉰다리' 해서 놨다가 거 반죽해서 팔월명절은 주로 그 송편만 해서 올리질 안 하고 상화떡을 해서 '빗떡' 해서 시루떡 모양으로 해서 우린 그렇게 했었는데 걸 해서 놔두면 막 이렇게 잘 부풀어.) 14 // 떡은 무신 떡. 침떡은 빗떡이고.(떡은 무슨 떡. 시루떡은 '빗떡'이고.) 33 [성읍, 인성]

빗상웨: 밀가루나 보릿가루를 기주에 부풀려 길쭉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쪄낸 떡이다. 상화떡을 기다랗게 만든 떡이다. 여기에서 '빗'은 일정한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썰어놓은 시루떡 따위를 셀 때 쓰는 말이다. // 빗상웨로 여름은 상웨떡.('빗상웨'로 여름은 상화떡.) 23 // 이제 이제 수랑헌 빵들 잇잖아이. 그거 빗빵. 빗상웨, 엿날엔 빗상웨.(이제 이제 기름한 빵들 있잖아. 그거 '빗빵'. '빗상웨', 옛날엔 '빗상웨'.) 25 [성읍, 온평, 태흥]

빗주제: 비가 잠깐 내리는 것을 말한다. // 마갇이, 마갇이 조팟은 빗주제만 걸쳣다고 허면은 물 부끄듯 부끈다 허는 거거던. 그렇게 ᄒᆞ룻밤 자나면은 팍팍 올라오라.('마갇이', '마갇이' 조밭은 '빗주제'만 걸쳤다고 하면 물 '부끄듯' '부끈다'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룻밤 자나면 팍팍 올라와.) 19 [청수]

빗창: 해녀가 바다 속에 들어가서 전복을 캐는 데 쓰는 길쭉한 쇠붙이로 된 연장이다. // 미역헐 땐 호미고. 전복 잡으레 갈 땐 빗창.(미역할 땐 낫이고. 전복 잡으러 갈 땐 '빗창'.) 06 // 물 저 빗창 요만한 거 헤여근엥 손에 줴영 ᄂᆞ려가주게. ᄂᆞ려가민 점복 잇이민 확 헤영 올라오고 엇이민 그냥 구젱기나 손에 줴영 올라오고.(물 저 '빗창' 요만한 거 해서 손에 쥐어서 내려가지. 내려가면 전복 있으면 확 해서 올라오고 없으면 그냥 소라나 손에 쥐어서 올라오고.) 18 // 상줌녜덜 전복 떼젠 허민 빗창. 빗창도 가졍 가고. 빗창은 이디 영 이디 걸어근에.('상줌녜'들 전복 떼려고 하면 '빗창'. '빗창'도 가지고 가고. '빗창'은 여기 이렇게 여기 걸어서.) 20 // 도구라고 치고 뭐 테왁허고, ᄯᅳ로 그 저 빗창이엔 헤 가지고 전복 ᄀᆞ뜬 것 떼는 거 잇고.(도구라고 치고 뭐 '테왁'하고, 또 그 저 '빗창'이라고 해 가지고 전복 같은 것 떼는 거 있고.) 35 [고내, 고산, 구억, 남원, 대림, 대평, 보목, 삼달, 신도, 옹포, 우도, 태흥, 한동]

빙: 메밀가루 따위로 반죽하여 번철에서 전을 넓적하게 지지고는 팥이나 무채 따위의 소를 넣고 서 둘둘 말아 만든 떡이다. '빙떡'이라고도 한다. // 빙은게 영허영 얄룹게 헤영 풀엉 그 소곱에 놈삐 썰엉, 놈삐 썰엉 뎁형, 그레 영헤영 깨헤영 버물영은에, 이젠 요레 영 놩 우이 톡톡톡톡 ᄆᆞᆯ앙은에 건 빙떡이엔 ᄒᆞᆫ다.('빙'은 이렇게 해서 얇게 해서 풀어서 그 속에 무 썰어서, 무 썰어서 데쳐서, 그리로 이렇게 해서 참깨 해서 버무려서, 이젠 요리로 이렇게 놔서 위에 톡톡톡톡 말아서 건 빙떡이라고 한다.) 10 // 거평, ᄀᆞ레에 놩 거평 ᄌᆞ베기도 헹 먹곡, 빙도 지졍 먹곡, 경 헤십주게.(거피해서, 맷돌에 놔서 거피해서 수제비도 해서 먹고, '빙'도 지져서 먹고, 그렇게 했습지요.) 34 // 놈삐로 솟두껑 ᄇᆞᆯ라근에, 솟두껑에서 옛날에 해

빙을 지져십주.(무로 솥뚜껑 발라서, 솥뚜껑에서 옛날에 거의 '빙'을 지졌습지요.) 34 [구억, 월령]

빙떡: 메밀 가루 따위로 반죽하여 번철에서 전을 넓적하게 지지고는 팥이나 무채 따위의 소를 넣고서 길쭉하게 둘둘 말아 만든 떡이다. 지역에 따라 '빙', '전기', '전기떡', '장기', '정기떡', '멍석떡', '영빈'이라고도 한다. // 고구마는 썰언 ᄒᆞ멍 밥 ᄒᆞ연 먹어신디, ᄂᆞᆷ삐옌 ᄒᆞᆫ 건 썰어근에 옛날에 식게 때 탕쉬, 채로 썰엉 탕쉬 ᄒᆞ곡, 따시 국 낄령 먹곡, 빙떡 ᄆᆞᆯ젠 ᄒᆞ민 그 ᄂᆞᆷ삐채 ᄒᆞ여근에, 쪽파 썰어근에 ᄒᆞ영 빙떡에 ᄆᆞᆯ앗주.(고구마는 썰어서 하면서 밥해서 먹었는데, 무라고 한 건 썰어서 옛날에 제사 때 '탕쉬', 채로 썰어서 '탕쉬' 하고, 다시 국 끓여서 먹고, '빙떡' 말려고 하면 그 무채 해서, 쪽파 썰어서 해서 빙떡에 말았지.) 17 // 옛날에는 주로 무수 썰어 놔서 넣엇주게. 그 저 빙, 빙떡에는.(옛날에는 주로 무 썰어 놔서 넣었지. 그 저 '빙', 빙떡에는.) 27 // 동네 사름덜 이젠 식당이서 왕 밥 ᄀᆞ튼 거 다 허기 따문 뭐 허는데 빙떡 지지레 동넷 어른덜이 강 앚앙 놉니다게.(동네 사람들 이젠 식당에서 와서 밥 같은 거 다 하기 때문 뭐 하는데 빙떡 지지러 동네 어른들이 가서 앉아서 놉니다.) 34 // 모ᄆᆞᆯ로 그자 묵 쑤곡 떡 허곡 경허난 그거 이제도 메밀로 저 빙떡은 멘듭니께.(메밀로 그저 묵 쑤고 떡 하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도 메밀로 저 빙떡은 만들지요.) 36 [고산, 구억, 구엄, 노형, 대평, 동광, 봉성, 송당, 옹포, 월령]

ᄇᆞ디다: 정해 놓은 시기나 거리가 가까워지다. // 멩년 ᄃᆞᆷ을 떼민 ᄇᆞ뎌가민 물 놔근엥이.(명년 담글 때면 'ᄇᆞ뎌'가면 물 넣어서.) 04 [고성]

ᄇᆞ딘올레: 집에서 도로까지의 거리가 밭은 골목이다. // 마당에서 올레가 ᄍᆞᆲ으민 ᄇᆞ딘올레.(마당에서 '올레'가 짧으면 'ᄇᆞ딘올레.') 14 [성읍]

ᄇᆞ뜨다: 물건이나 재물의 씀씀이가 깐깐하고 작다는 의미로 쓰였다. // 그 우리 거릿 삼춘은 손이 ᄇᆞ따근에게 경. 우리 할무니 막 손이 걸어낫저게.(그 우리 '거릿' 삼촌은 손이 'ᄇᆞ따근에게' 그렇게. 우리 할머니 아주 손이 걸었었어.) 30 [노형]

ᄇᆞ른구덕: 대오리를 결은 바구니가 헐어서 종이나 헝겊 따위에 풀을 발라 붙인 바구니이다. 'ᄇᆞ름구덕', '풀ᄇᆞ른구덕'이라고도 한다. // 대구덕이 좀 헐면은 헐어 가면은 뭐 부쪄근에 그것ᄀᆞ라 ᄇᆞ른구덕.('대구덕'이 좀 헐면 헐어 가면 뭐 붙여서 그것보고 'ᄇᆞ른구덕'.) 12 // ᄇᆞ른구덕에 곤밥 ᄒᆞᆫ 그릇 놓곡.('ᄇᆞ른구덕'에 흰밥 한 그릇 넣고.) 17 // 헐엉 못 쓰게 뒈 가민 이젠 ᄇᆞᆯ라근에 ᄇᆞ른구덕으로 썻주게.(헐어서 못 쓰게 돼 가면 이젠 발라서 'ᄇᆞ른구덕'으로 썼지.) 30 // 뻿데기 ᄒᆞ끔 허영, 게 어디 ᄇᆞ른구덕이 놩 놔뒀다근에.('뻿데기' 조금 해서 그거 어디 'ᄇᆞ른구덕'에 놔서 놔뒀다가.) 34 [구억, 노형, 대평, 한동]

ᄇᆞ른바구리: 바구니에 종이나 천 따위를 붙여서 만든 물건이다. 가루 등을 담을 때 사용한다. // 엿날, 엿날은 가시리 헤여근엥에 그것도 발래영 풀 허여근엥에 뭐 그 ᄇᆞ른바구리도 ᄇᆞᆯ르곡이.(옛날, 옛날은 풀가사리 해서 그것도 바래서 풀 해서 뭐 그

‘ᄇᆞ른바구리’도 바르고.) 29 [외도]

ᄇᆞ름구덕: 풀을 바른 바구니이다. // 대를 헤근에 구덕을 짜근에 여기에 오면은 우리가 사는 거라. 상 어느 정도 씨당 중고품이 뒈면 이젠 헝겁을 ᄇᆞᆯ라 헝겁, 이런 헝겁을 ᄇᆞᆯ라근에 풀 쒀근에 ᄇᆞᆯ뢍 ᄇᆞ름구덕을 멩그는 거라 ᄇᆞ름구덕예.(대를 해서 바구니를 짜서 여기에 오면 우리가 사는 거야. 사서 어느 정도 쓰다가 중고품이 되면 이젠 헝겊을 발라 헝겊, 이런 헝겊을 발라서 풀 쒀서 발라서 ‘ᄇᆞ름구덕’을 만드는 거야 ‘ᄇᆞ름구덕’요.) 22 [우도]

ᄇᆞ름떡: 밀가루를 누룩이나 막걸리 따위로 반죽하여 부풀려 만든 떡이다. // 소상 대상 허영게 그 ᄇᆞ름떡덜 받곡게.(소상 대상 해서 그 ‘ᄇᆞ름떡’들 받고.) 26 [신창]

ᄇᆞ름의지: 바람을 막을 만한 장소이다. 여기서는 돌담이 쌓여진 곳을 뜻한다. // 구덕에 애기 눅젼에 담 옘에 ᄇᆞ름의지에 간 영, 하늬ᄇᆞ름의지에 간 영 놔둰.(‘구덕’에 아기 눕혀서 담 옆에 ‘ᄇᆞ름의지’에 가서 이렇게, ‘하늬ᄇᆞ름의지’에 가서 이렇게 놓아두었지.) 24 [세화]

ᄇᆞ리다: 종이나 헝겊 따위가 찢어지다. // 그때 ᄇᆞᆨᄇᆞᆨ ᄇᆞ리멍 애기덜 삿바도 허곡 데껴불기도.(그때 박박 ‘ᄇᆞ리멍’ 아기들 ‘삿바’도 하고 던져버리기도.) 22 [우도]

ᄇᆞᆨ작허다: 자잘한 것들이 빽빽하게 많이 모여 있는 상태이다. // 각단으론, 각단이엔 헌 건 젠젠헌 샌데 ᄇᆞᆨ작헌 거.(‘각단’으론, ‘각단’이라고 한 건 자잘한 띠인데 ‘ᄇᆞᆨ작헌’ 거.) 12 [한동]

ᄇᆞᆫ날: 바람 없이 잔잔한 날이다. // 저 빨리 ᄎᆞᆯ려 가지고 너이 들어사 건 ᄒᆞ루에 뒈는 거고, 경 아니헌 때는 오늘 줄 놔뒀다가 다음 ᄇᆞᆫ날 영 ᄇᆞ름도 자곡 영 헌 날을 저 집을 일엇수다.(저 빨리 차려 가지고 넷이 들어야 건 하루에 되는 거고, 그렇게 안 한 때는 오늘 줄 놔뒀다가 다음 ‘ᄇᆞᆫ날’ 이렇게 바람도 자고 이렇게 한 날을 저 집을 이었습니다.) 35 [대림]

ᄇᆞᆯ근오름: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오름 이름이다. // ᄇᆞᆯ근오름 앞의 오라그네, 아기 ᄃᆞᆯ레 ᄯᅳ시 ᄌᆞ물아가민 오주게.(‘ᄇᆞᆯ근오름’ 앞에 와서, 아기 데리러 다시 저물어가면 오지.) 08 [동광]

ᄇᆞᆯ다: 날씨가 화창하고 바람이 잔잔하여 날씨가 좋다. // 새 다, 경허난 ᄇᆞᆫ 날만 ᄎᆞ은 거. ᄇᆞᆫ 날, ᄇᆞ름 안 부는.(띠 다, 그러니까 ‘ᄇᆞᆫ’ 날만 짜는 거. ‘ᄇᆞᆫ’ 날, 바람 안 부는.) 11 // ᄇᆞᆫ 날 헤영 새 뱅뱅뱅뱅 돌아가멍 물매 나게 ᄆᆞᆫ 더껏당.(‘ᄇᆞᆫ’ 날 해서 띠 뱅뱅뱅뱅 돌아가면서 물매 나게 모두 덮었다가.) 11 // 겐디 사월덜 뒈근에 갈아도 대력 오월덜 나근에 허게 뒈면 그날 그때 사월 초파일에 일기가 ᄇᆞ느냐 어떵허느냐, 사월 초파일날 ᄇᆞᆯ면은 꿰 좋넨 헹 꿰 갈젠 헤영 사월 초파일 넘어사 갈곡 경허여.(그런데 사월 돼서 갈아도 대략 오월 돼서 하게 되면 그날 그때 사월 초파일에 일기가 ‘ᄇᆞ느냐’ 어떠하느냐, 사월 초파일 ‘ᄇᆞᆯ면은’ 깨 좋다고 해서 깨 갈려고 해서 사월 초파일 넘어야 갈고 그래.) 20 // 줄만 딱 메민 개영 갓당 날 봥 ᄇᆞᆫ 날, ᄇᆞᆯ앙 ᄇᆞ름 엇어사.(줄만 딱 매면 개어서 갔다가 날 봐서 ‘ᄇᆞᆫ’

날, ‘ᄇᆞᆯ앙’ 바람 없어야.) 33 [고내, 인성, 함덕]

ᄇᆞᆯ리다: 밟게 하다의 의미이나, 여기서는 ‘(조 따위를) 갈다’, ‘(조 따위를) 파종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그거 허고 또 너무 없는 사름은 그 집이 ᄆᆞ물을 그땐 많이 갈아나니까, 원 조만 ᄇᆞᆯ렷당 그르쳐도 ᄆᆞ물 갈고 ᄆᆞ물은 흔전허니까.(그거 하고 또 너무 없는 사람은 그 집에 메밀을 그땐 많이 갈았었으니까, 원 조만 ‘ᄇᆞᆯ렷당’ 그르쳐도 메밀 갈고 메밀은 흔전하니까.) 06 // 웃드르 밧듸 모인조 ᄇᆞᆯ리민 케삭케삭허고, 이제 가름팟듸 밧 신 사름은 그 좋은 조헹 ᄇᆞᆯ리민 츠근츠근허고.(‘웃드르’ 밭에 메조 ‘ᄇᆞᆯ리민’ ‘케삭케삭허고’, 이제 ‘가름팟’에 밭 있는 사람은 그 좋은 조해서 ‘ᄇᆞᆯ리민’ ‘츠근츠근허고’.) 13 // 피도 웃드르 사름은, 헤벤사름덜은 안 허고, 웃드르 사름덜은 궂인 밧이라부난 저 성읍리더레 피 잘 ᄇᆞᆯ려.(피도 ‘웃드르’ 사람은, 해변 사람들은 안 하고, ‘웃드르’ 사람들은 궂은 밭이라 버리니까 저 성읍리 쪽이 피 잘 ‘ᄇᆞᆯ려’.) 13 [남원, 삼달]

ᄇᆞᆯ리다: 좁씨 따위를 뿌려서 씨가 묻힐 수 있도록 말떼나 끙게 따위로 땅을 다지다는 뜻이다. // 뭐 ᄇᆞᆯ릴 밧도 초불 두불 세불 갈아야 뒈고.(뭐 ‘ᄇᆞᆯ릴’ 밭도 초벌 두벌 세벌 갈아야 되고.) 23 // 조 ᄇᆞᆯ릴 때 조팟 에염으로 잘 놓아.(조 ‘ᄇᆞᆯ릴’ 때 조밭 옆으로 잘 놓아.) 30 [노형, 온평]

ᄇᆞᆯ탁ᄇᆞᆯ탁ᄇᆞᆯ탁: 술이 익어서 끓는 모양이다. // 요런 항아리에 놩 이불 톡 더껑 놔두민양 ᄒᆞᆫ 사흘 셔 가민 ᄇᆞᆯ탁ᄇᆞᆯ탁ᄇᆞᆯ탁 술ᄀᆞ찌 궵니다.(요런 항아리에 놔서 이불 톡 덮어서 놔두면 한 사흘 있어 가면 ‘ᄇᆞᆯ탁ᄇᆞᆯ탁ᄇᆞᆯ탁’ 술같이 괍니다.) 34 [구억]

빠꾸: 영어의 ‘back’을 일본어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여기서는 퇴짜의 의미로 쓰였다. // 그 이디서 받아 가지고 그거 오케이 허면은 그 신랑이 들어가는 것이고 빠꾸 허면은 못 들어가는 것이고.(그 여기서 받아 가지고 그거 오케이 하면 그 신랑이 들어가는 것이고 ‘빠꾸’ 하면은 못 들어가는 것이고.) 12 [한동]

빠닥지다: 물체가 아주 딱딱한 것이다, 여기서는 뻣뻣하다의 의미로 썼다. // 빠닥졍 먹질 못 허여.(‘빠닥졍’ 먹질 못 해.) 06 [남원]

빠들락빠들락: 물체가 아주 딱딱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그 껍데기사 먹어저게? 빠들락빠들락 헤영.(그 껍데기야 먹을 수 있어? ‘빠들락빠들락’ 해서.) 24 [세화]

빠루: 일본어 ‘バール’에서 온 말로 배척이다. // 못 뽑을 때 쓰는 거, 여기 사름덜은 빠루.(못 뽑을 때 쓰는 거, 여기 사람들은 ‘빠루’.) 06 // 요사인 빠룬디, 엿날엔 못빼기엔.(요사인 ‘빠루’인데 옛날엔 ‘못빼기’라고.) 24 [남원, 세화]

빠마젱이: ‘파마’ 머리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 내일은 그땐 도두리도 장 살 때라이. 게난 이제 낼이엔 헌 날은 준비를 헤근에 둣날 ᄌᆞ냑에 빌어 줘야 뒐 건디 이젠 도두리 장에 이젠 낭 ᄒᆞᆫ 짐 지곡 아방ᄀᆞ라 돈 싯건 ᄒᆞ꼼 줍센 헨 빌어 아지고 헹 강 이제 추물을 출령 오젠 허난 이제 또 또 빠마젱이 빌레도 가야 뒐 거 아니라.(내일은 그땐 ‘도두리’도 장 설 때야.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라고 하는 날은 준비를 해서 뒷날 저녁에 빌어 줘야 될 건데 이제 ‘도두리’ 장에 이젠 나무 한 짐 지고

아버지에게 돈 있건 조금 주시라고 해서 빌려 가지고 해서 가서 이제 '추물'을 차려서 오려고 하니까 이제 또 또 '빠마젱이' 빌리러도 가야 될 거 아니니.) 30 [노형]

빠직빠직: 잘 마른 콩 따위가 떨어지는 소리이다. // 못 무끄는 사름은 뒷날도 무꺼근에 허당 보민 시꺼 오라 가민 막 빠직빠직 발발발 털어지곡.(못 묶는 사람은 뒷날도 묶어서 하다 보면 실어 오다 보면 아주 '빠직빠직', '발발발' 떨어지고.) 06 [남원]

빠짝ᄒᆞ다: 노끈 따위를 잡아 묶어 잔뜩 동여지거나 옷이 몸에 꼭 끼인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 저 미지근헌 물에 막 그걸 너무 무랑ᄒᆞ게 찌지 말고 빠짝ᄒᆞ게.(저 미지근한 물에 마구 그걸 너무 '무랑ᄒᆞ게' 찌지 말고 '빠짝ᄒᆞ게'.) 16 [하원]

빤스: 팬티의 일본 발음으로 '빤쓰(pantsu)', '팬티(pants)'이다. // 옛날 정벵이 입으민. 빤스 안 입엉 입으민 들랑들랑헤서.(옛날 잠방이 입으면. '빤스' 안 입어서 입으면 들렁들렁해서.) 04 [고성]

빨강꿰: 참깨 색깔이 붉으스름해서 붙은 이름이다. // 노랑꿰 아니민 빨강꿰 잇고 검은꿰 잇고.('노랑꿰' 아니면 '빨강꿰' 있고 검은깨 있고.) 01 [도련]

빼딱이: 가지런하지 못한 것, 삐져나온 것을 말한다. // 저거 헤젠 허민 새도 빼딱이 다 쳐 둬근에.(저거 하려고 하면 띠도 '빼딱이' 다 쳐 두고.) 06 [남원]

빼작빼작허다: 식물이 크게 자라지 않고 작은 모양이다. // ᄂᆞ물 갈앙 시래기 ᄆᆞᆯ령 무시거 헴주만은 옛날은 ᄂᆞ물도 ᄂᆞᆷ삐도 갈민 엇곡 허난 빼작빼작헌 단지ᄂᆞᆷ삐엔 헨 갈앙 허민 저슬 들엉, ᄀᆞ슬 들엉 ᄒᆞᆫ 팔월[팔뤌] 나민 갈앙 놔두민 모ᄆᆞᆯ팟듸 그 ᄂᆞᆷ삐 갈앙 놔두민 ᄂᆞᆷ삐가 이만썩 베끼 안 들주게.(나물 갈아서 시래기 말려서 무엇 하고 있지만 옛날은 나물도 무도 갈면 없고 하니까 '빼작빼작헌' '단지ᄂᆞᆷ삐'라고 해서 갈아서 하면 겨울 들어서, 가을 들어서 한 팔월 나면 갈아서 놔두면 메밀밭에 그 무 갈아서 놔두면 무가 이만큼씩밖에 안 들지.) 13 [삼달]

뻐꾹이: 스티로폼이나 물에 뜨는 소재의 플라스틱 종류를 말하는데 '버구기'라고도 한다. // ᄏᆞ박 알멩이 씨는 빠져불민 그땐 바싹 ᄆᆞᆯ려근에 그 고망 연 거 영헹 내불민 ᄇᆞ름 들멍 ᄆᆞᆯ르민 뻐꾹이 헤다근에 그레 맞게 딱 끼와.('ᄏᆞ박' 알맹이 씨는 빠져버리면 그땐 바싹 말려서 그 구멍 연 거 이렇게 해서 내버리면 바람 들면서 마르면 '뻐꾹이' 해다가 그리 맞게 딱 끼워.) 25 [태흥]

뻬따지: 마른 나뭇가지 따위이다. // 경허영 이젠 새에 뻬따지 요만썩 헌 거 다 놓멍 부뜨지 못허게. 놓멍 이철록 감앙 이젠 짤 땐 짜는 거주게.(그래서 이젠 새에 '뻬따지' 요만큼씩 한 거 다 놓으면서 붙지 못하게. 놓으면서 이처럼 감아서 이젠 짤 땐 짜는 거지.) 26 [신창]

뻬딱구두: 굽이 높은 여자 구두이다. // 나 돈은 안 주고 이치룩 베딱, 그땐 뻬딱구두엔 헷주.(나 돈은 안 주고 이처럼 '베딱', 그땐 '뻬딱구두'라고 했지.) 23 [온평]

빼짝: 살이 없이 마른 모양이다. // 수천복은 수룽허고 솔이 두텁주게. 이 통이 지프고 이제 암천복은 넵작허여 빼짝. 우리추룩 ᄆᆞᆯ른 사름 모냥으로.('수천복'은 '수룽허고' 살이 두껍지. 이 통이 깊고 이제 '암천복'은 넓죽해서 '빼짝'. 우리처럼 마른 사람 모양으로.) 26 [신창]

뻿데기: 절간고구마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구마를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말린 것이다. // 그 때는 처음에는 공장 안 셍긴 때난 뻿데기 헷수게.(그때는 처음에는 공장 안 생긴 때니까 '뻿데기' 했습니다.) 23 // 나가 쑤무 솔에 오난에, ᄒᆞᆫ 쑤물댓 나난 그 젓, 뻿데기 헷어양?(내가 스무 살에 오니까, 한 스물댓 나니까 그 젓, '뻿데기' 했지요?) 24 // 뻿데기도 이 감저공장 나기 전이 뻿데기 허멍 ᄑᆞᆯ앗어. ᄑᆞᆯ아근에게 것도 잘 ᄆᆞᆯ리와지면 일등품에 가곡 경 안허민 썩어불민 삼등에도 가곡 이등에도 가곡 허민 돈이 멧 푼 안 뒈여.('뻿데기'도 이 고구마공장 나오기 전에 '뻿데기' 하면서 팔았어. 팔아서 그것도 잘 말려지면 일등품에 가고 그렇게 안하면 썩어버리면 삼등에도 가고 이등에도 가고 하면 돈이 몇 푼 안 돼.) 25 // 뻿데기 헤근에, 아이구, 것도 기계 엇이민 ᄂᆞᆷ의 집이 강 빌엉을 허엿던 무시걸 허엿던 그거 ᄆᆞᆫ 헹 허믄이, 그 감저 뻿데기 ᄆᆞᆫ 하나 하나 하나 ᄆᆞᆫ 납작납작허게 헹 널엇단 그거 이제 ᄆᆞᆯ르민 ᄀᆞᆯ앙.('뻿데기' 해서, 아이고, 것도 기계 없으면 남의 집에 가서 빌려서 했든 뭐 했든 그거 모두 해서 하면, 그 고구마 '뻿데기' 모두 하나 하나 하나 모두 납작납작하게 해서 널었다가 그거 이제 마르면 갈아서.) 31 [세화, 온평, 태흥, 토평]

뻰끼: 일본어 'ペンキ'로 페인트를 말한다. // 남, 나무로 만든 그 뭐인가 뻰끼 거튼 칠 멕영 영 허민이 뻰또 쌍 강 영 올민 뻰끼 내가 나고 경 헤나세.(나무, 나무로 만든 그 뭐인가 '뻰끼' 같은 칠 먹여서 이렇게 하면 도시락 싸고 가서 이렇게 열민 '뻰끼' 냄새가 나고 그렇게 했었어.) 06 [한동]

뽀그락허다: 물레의 가락에 실이 많이 감긴 모양이다. // 요거 실이난 요레 영 헤 둰 이거 영 둘르멍 영 허민 요 가레기 도는 더레 이디 실 감아진 거라. 실 뽀그락헷네이.(요거 실이니까 요리 이렇게 해두고 이거 이렇게 두르면서 이렇게 하면 요 가락 도는 데 여기 실 감긴 거야. 실 '뽀그락헷네이'.) 25 [태흥]

뽀그락허다: 소금물에 담근 메주가 가라앉기 전에 물 위로 올라온 상태이다. // 그 넘엉, 그 소곰이 그 메주 ᄒᆞ쏠 ᄌᆞ눌앙, 그 무시거옝 뽀그락헤 가건 우트레 저 무시것에 싸 놩.(그 넘어서, 그 소금이 그 메주 조금 'ᄌᆞ눌앙', 그 뭐지 '뽀그락헤' 가면 위에 저 무엇에 싸 놓아.) 15 [수망]

뽀그레기: 콩국을 끓일 때 콩가루가 위로 부풀어 올라온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 올아근엥에 영 보민 뽀그레기 ᄃᆞᆯ무레기 그 둠비 거세기허듯게 올라와게. 경 허영 허믄 ᄂᆞᄆᆞᆯ 헤여근엥에 영 가운디레 영 놔근에 그 뭐 국자로나 무시거 영 허영 허민 창에 눌지 아녀게꾸리.(열어서 이렇게 보면 '뽀그레기' 'ᄃᆞᆯ무레기' 그 두부 거시기하듯 올라와. 그렇게 해서 하면 나물 해서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놔서 그

뭐 국자로나 무엇 이렇게 해서 하면 바닥에 눋지 않게끔.) 29 [외도]

뽄젱이: 멋 부리는 것을 좋아하거나 멋을 잘 부리는 사람을 말한다. // 너네 언닌 잘도 뽄젱이라낫어.(너희 언니는 아주 '뽄젱이'였어.) 30 [노형]

뿔대패: 대패의 한 종류이다. // 뿔대패라고 헤 가지고 양작에 첨 글자 그대로 뿔 도저 가지고 건 두 사름이 앉아사 땡겻다 놧다 하는 거.('뿔대패'라고 해 가지고 양쪽에 참, 글자 그대로 뿔 돋아 가지고 그건 두 사람이 앉아서 당겼다 놓았다 하는 거.) 15 [수망]

삐작삐작: 건물 따위가 빈틈없이 많이 들어선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 이제거치 삐작삐작허지 안 헷지게.(이제같이 '삐작삐작' 하지 않았지.) 31 [토평]

삐작삐작허다: 배추가 속이 앉지 않고 잎이 옆으로 퍼져 납작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옛날은 배추 지금처럼 시장에 안 팔앗저게. 갈아근에 헤 먹주. 갈앙 허민 속 안 앚아. 기자 삐짝삐짝헌 거 그거 기자 헤다근에 저 소금에 절이는 채헤근에 고춧ᄀᆞ루도 이녁 갈앙, 지금은 요즘은 갈아근에 고춧ᄀᆞ루 하영 헤 먹엄주만은 그걸 못 허연.(옛날은 배추 지금처럼 시장에 안 팔았어. 갈아서 해 먹지. 갈아서 하면 속 안 앉아. 그저 '삐작삐작헌' 거 그거 그저 해다가 저 소금에 절이는 척해서 고춧가루도 자기가 갈아서, 지금은 요즘은 갈아서 고춧가루 많이 해 먹지만 그걸 못 했어.) 31 [토평]

삥이치기: 삘기를 가지고 노는 내기 놀이를 말한다. // 그 선에 맞게끔 걸치지 않게끔 삥이영 허는 게 건드리면 못 따오는 거고 안 건드리면 숫자를 세어서 이제 열 개면 열 개 받아오는 게 삥이치기.(그 선에 맞게끔 걸치지 않게끔 삘기 이렇게 하는 게 건드리면 못 따오는 거고 안 건드리면 숫자를 세어서 이제 열 개면 열 개 받아오는 게 '삥이치기'.) 09 // 삥이치기는 거 삥이 빠다근에이 거 막 메역 단 허는 식으로 헤 가지고서이 경허멍이 거 삥이치기엔 헤난.('삥이치기' 거 삘기 빼다가 거 마구 미역 단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서 그러면서 거 '삥이치기'라고 했었어.) 12 // 삥이치기도이 새왓디 봄 나면은 새가 막 올라올 때 그 삥이가 막 올라올 때이 그 삥이가 막 올라오주게.('삥이치기'도 띠밭에 봄 나면 띠가 마구 올라올 때 그 삘기가 마구 올라올 때 그 삘기가 마구 올라오지.) 12 // 삥이치긴 이거 삥이 허영 영 탁 허민 이디 영 헤질 거 아니. 게민 그 삐 빠당 ᄀᆞ찡허게 이디 건들지 안 허영 디물아사주게.('삥이치기'는 이거 삘기 해서 이렇게 탁 하면 여기 이렇게 할 거 아니. 그럼 그 삘기 빼다가 'ᄀᆞ찡허게' 여기 건들지 안 해서 집어넣어야지.) 26 [고산, 남원, 신창, 한동]

ㅅ

사: 얇은 천의 한 종류이다. // 메밀쌀을 이젠 딱 허게시리 사에 담아. 사에 담아 가지고 놀려.(메밀쌀을 이젠 딱 하게끔 '사'에 담아. '사'에 담아 가지고 놀려.) 01 [도련]

사곌빌레: 한경면 청수리의 지명 이름이다. // 그기만 판 게 아니고 저기 저 사곌빌레라는 동산이 잇는데 거기도 와서 군인덜이 파던데 아주 멋지게 그 굴이 뒈 가지고 거기를 그 고안한 군인은 상을 타가지고 뭐 진급을 헷다고 합데다.(거기만 판 게 아니고 저기 저 '사곌빌레'라는 동산이 있는데 거기도 와서 군인들이 파던데 아주 멋지게 그 굴이 돼 가지고 거기를 그 고안한 군인은 상을 타가지고 뭐 진급을 했다고 합디다.) 19 [청수]

사계소: 대정읍의 한 지명 이름이다. // 이제 사계소 가메집 새로 곱닥허게 멘들앙 신랑덜 다 식 지내민 말쩬 그것에 들렁 뎅경 사진 찍고 해서고.(이제 '사계소' 가마집 새로 곱게 만들어서 신랑들 다 식 지내면 말째 그것에 들어서 다니며 사진 찍고 했던데.) 19 [청수]

사계약: 양배추 종자의 하나이다. // 양배추는 종자를 저 일본서 수입헌 건디 사계약 우린 많이 헷수다.(양배추는 종자를 저 일본서 수입한 것인데 '사계약' 우린 많이 했습니다.) 35 // 저거 팔월달에, 요즘은 그 저 사계약이엔 헌 종자가 많이 나오니까 예, 나가 헐 때는 그 사계약허고 만추 ᄀᆞ뜬 걸 많이 헷는데, 그거 저 칠월에 싱급니다.(저거 팔월에, 요즘은 그 저 '사계약'이라고 한 종자가 많이 나오니까, 내가 할 때는 그 '사계약'하고 '만추' 같은 걸 많이 했는데, 그거 저 칠월에 심습니다.) 35 [대림]

사공질: 방아 찧는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옆으로 튀어 나간 곡식을 안으로 쓸어 넣어 주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 ᄒᆞᆫ 사름 헤나민 ᄒᆞᆫ 사름 허고, 새 걸른 건. 둘리가 ᄒᆞᆫ듸 들어간 건 새 걸름 진 거. ᄒᆞᆫ 사름은 사공질 비차락으로 쓸어 놓고.(한 사람 하고나면 한 사람 하고, '새 걸른' 건. 둘이가 함께 들어간 건 '새 거름' 진 거. 한 사람은 사공질 빗자루로 쓸어 놓고.) 13 [삼달]

사그랑ᄒᆞ다: 가볍고 피부에 닿는 느낌이 좋은 천의 감촉을 말한다. // 버닥ᄒᆞ며는 사그랑ᄒᆞ게시리 버짝ᄒᆞ게 헤근엥 ᄒᆞ민은 그걸 풀 지우는 거는 그건 눼는 거. 풀, 풀.('버닥ᄒᆞ며'는 '사그랑ᄒᆞ게시리' 벗벗하게 해서 하면 그걸 풀 빼는 거는 그건 물리는 거. 풀, 풀.) 07 [보목]

사기단추: 사기로 만든 단추를 말한다. // 단추 종류 사기단추도 잇고게. 험벅단추도 잇고 종류가 무신 그것뿐이주, 뭐. 쒜단추도 잇고.(단추 종류 사기단추도 있고. 헝겊단추도 있고 종류가 무슨 그것뿐이지, 뭐. 쇠단추도 있고.) 14 [성읍]

사까다리: 일본어 '사까다찌(さかだち)'를 말하는데 그 발음을 사까다리라고 말한 것이다. 표

준어로 '물구나무서기'에 대응한다. // ᄯᅳ씨 사까다리. 사까다리 알아집니까? 꺼꿀로 헤영 허는 거.(다시 물구나무서기. 물구나무서기 알아집니까? 거꾸로 해서 하는 거.) 32 [덕수]

사까다치: 일본어 'さかだち'를 말하는데 우리말 표준어 '물구나무서기'를 말한다. // 사까다치엔 ᄒᆞᆫ 건 탁, 영 헤단 발로 ᄂᆞᆷ명 영영 올라강, 사까다치 영 굽엇단 그 영영 다리로 걸령 넘어가. 건 사까다치.(물구나무서기라고 한 건 탁, 이렇게 하다가 발로 날뛰어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물구나무서기 이렇게 굽었다가 그 이렇게 이렇게 다리로 걸려서 넘어가. 그건 물구나무서기.) 15 [수망]

사꼬: 일본어 'しゃくし'이며 표준어 '국자'를 말한다. // 아무것도 안 놔근에 그냥 ᄉᆞᆷ아근에 그자 그대로 그자 그 저 사꼬로 그레 데겨근엥에. 그디 ᄊᆞᆯ 놔근엥에.(아무것도 안 넣어서 그냥 삶아서 그저 그대로 그저 그 저 국자로 거기에 '데겨서'. 거기 쌀 넣어서.) 32 [덕수]

사끄: 일본어 'しゃくし'를 말하는데 표준어 '국자'에 대응한다. // ᄂᆞ물 썬 거 톡톡 노멍 불 ᄂᆞ려와근에 불 줄여근엥에 그자 사끄로 꼭꼭 누들멍 그 저 콩국을 허여마씸.(나물 썬 거 톡톡 넣으면서 불 내려서 불 줄여서 그저 국자로 꼭꼭 누르면서 그 저 콩국을 해요.) 32 [덕수]

사농동산: 한경면 청수리 지명이다. // 경 헤연 형성이 이제 뒈어서 청수마을에 에, 그 지형 이름이 어, 동쪽으로 사농동산이 잇고, 서쪽으로 답대동산이 잇고, 북쪽으로 널판동산이 있고, 아.(그렇게 해서 형성이 이제 되어서 청수마을에 에, 그 지형 이름이 어, 동쪽으로 '사농동산'이 있고, 서쪽으로 '답대동산'이 있고, 북쪽으로 '널판동산'이 있고, 아.) 19 [청수]

사대: 검질 맬 때 부르는 민요이다. // 나 방석에 앉지 말라고. 노래로 검질매멍. 사대 노래. 사대.(나 방석에 앉지 말라고. 노래로 김매면서. '사대' 노래. '사대'.) 36 [봉성]

사대소리: 여자들이 밭에서 김을 매며 부르는 노동요이다. // 옛날엔 검질멜 땐 그 사대소리, 또 촐 빌 땐 촐비는소리 거 몰라.(옛날엔 김맬 땐 그 '사대소리', 또 꼴 벨 땐 '촐비는소리' 거 몰라.) 34 [구억]

사돈대우: 결혼식에서 양가 사돈끼리 인사를 하며 예를 나누는 의식을 말한다. '사돈잔치', '사돈열멩'이라고도 한다. // 예장을 검토허영 합격이 뒈면 이젠 들어오렌 ᄒᆞ민 들어 왕 상 받곡 헤근에 ᄒᆞ민 상 끗나민 이젠 우시 뒌 사름은 또 저 신부덜 친척덜 거기다 인사 이제 사돈대우.(예장을 검토해서 합격이 되면 이젠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와서 상 받고 해서 하면 상 끝나면 이젠 위요 된 사람은 또 저 신부들 친척들 거기다 인사 이제 '사돈대우'.) 22 [우도]

사둔부찌: 사돈의 친족들을 말한다. // 아주 그거 허는 딘 사둔부찌에나 ᄇᆞ딘 친족이나.(아주 그거 하는 덴 '사둔부찌'에나 가까운 친족이나.) 06 [남원]

사둔상: 잔칫날 방문한 사돈을 위한 상차림을 말한다. // 뒷날도 그 저 사둔상허고 신부,

신랑상만 저 ᄆᆞᆷ국을 안 놓주 일반 상은 ᄆᆞᆷ국 먹는 딘 먹어.(뒷날도 그 저 사돈상하고 신부, 신랑상만 저 'ᄆᆞᆷ국'을 안 넣지 일반상은 'ᄆᆞᆷ국' 먹는 데는 먹어.) 30 [노형]

사들: 손잡이가 길고 모양이 국자처럼 생긴 것으로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말한다. // 족바지도 ᄒᆞ고 저 사들이엔 헌 거 양쪽으로 잡아근에 영허는 거.(뜰채도 하고 저 '사들'이라고 한 거 양쪽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 22 [우도]

사라봉: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 저 그 ᄒᆞ꼼 숨 쉬엉 살렌 허젠 허난산디사 그 자꾸 저 동문로타리 그 동더레 가민 사라봉 앞의, 사라봉.(저 그 조금 숨 쉬어서 살라고 하려고 하니까인지 그 자꾸 저 동문로터리 그 동으로 가면 '사라봉' 앞의, '사라봉'.) 29 [외도]

사라시허다: 일본어 'さらす'에서 온 말로 하얗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 ᄉᆞᆲ앙이 하양게 이제 ᄀᆞ뜨민 사라시헤불민 락스 놔불민 헤양허는디 그런 것이 엇어부난 ᄉᆞᆲ앙 멧 번 물에 강 막 마께로 영헹 두들멍 ᄇᆞᆯ앙 멧 번 발레민 헤양허여이.(삶아서 하얗게 이제 같으면 '사라시헤불민' 락스 놔버리면 하얀데 그런 것이 없어버리니까 삶아서 몇 번 물에 가서 막 방망이로 이렇게 해서 두드리면서 빨아서 몇 번 바래면 하얘.) 11 [함덕]

사라얼: 구좌읍 송당리의 오름 이름이다. // 시방 사라얼이엔 헌 게. 이 할망들은 알디라만은 멧월 메칠날 영ᄒᆞ연 자꾸 갑니다.(시방 '사라얼'이라고 하는 게. 이 할머니들은 알까만은 몇 월 며칠날에 이렇게 해서 자꾸 갑니다.) 03 [송당]

사락사락: 물건 따위의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거친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 밥에 허껑. 사락사락 보리ᄊᆞᆯ에 밥을 허끄면 포실포실 맛잇어. 복삭복삭.(밥에 섞어서. '사락사락' 보리쌀에 밥을 섞으면 '포실포실' 맛있어. '복삭복삭'.) 11 // 이녁 먹구정헌 대로 헹 먹어 건 영 ᄆᆞᆯ앙 사락사락허게 헹 먹구정허민 사락사락허게 먹곡 물ᄀᆞ찌 캉 먹구정허민 물ᄀᆞ찌 캉 드리쌈도 허곡 건 ᄆᆞ음대로 먹어. 사당도 먹엄시녜게.(자기 먹고 싶은 대로 해서 먹어 그건 이렇게 말아서 '사락사락'하게 해서 먹고 싶으면 '사락사락하게' 먹고 물같이 타서 먹고 싶으면 물같이 타서 들이키기도 하고 그건 마음대로 먹어. 사다가도 먹고 있잖아.) 13 // 그 집이 ᄊᆞᆯ로 밥을 헹 먹젠 허난 밥을 난 물 맞추지 못헤라게. 사락사락 허난. 경 허난 이젠 밥 먹고프도 아이 허고 허난 이젠 라면 사단이 나 산뒤쌀 ᄋᆞ정 갓주게.(그 집의 쌀로 밥을 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밥을 난 물 맞추지 못하더라. '사락사락'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젠 밥 먹고 싶지도 않고 하니까 이젠 라면 사다가 나 밭벼쌀 가져갔지.) 33 [삼달, 인성, 함덕]

사락사락ᄒᆞ다: 물건의 겉이 미끄럽지 못하고 좀 거칠다. // 막 사락사락ᄒᆞ여. 게민 그거는 ᄉᆞᆲ으면은 헤얗게 다 벌러져 불어.(아주 '사락사락ᄒᆞ여'. 그러면 그거는 삶으면 하얗게 다 깨져버려.) 08 // 비가와도 비가 많이 와도 ᄆᆞ르게 갈아 가지고 햇빛 맞인 밧은, 비가 많이 왕 밧을 갈아도 밧이 흙이 사락사락헤여.(비가와도 비가 많

이 와도 마르게 갈아 가지고 햇볕 맞은 밭은, 비가 많이 와서 밭을 갈아도 밭에 흙이 '사락사락'해.) 19 // 이젠 엇어 ᄌᆞᆫ다니. 겁죽 사락사락헌 거.(이젠 없어 개상어. 껍질 '사락사락'한 거.) 26 [동광, 신창, 청수]

사락허다: 물건 등이 볕에 잘 마른 상태를 나타낸 말이다. // 사락허게 막 고와. 헤영케 요만썩 허게 막 곱나.('사락허게' 아주 고와. 하얗게 요만큼씩 하게 아주 고와.) 31 [토평]

사락허다: 물건이 겉이 미끄럽지 못하고 좀 거친 것을 뜻하나 여기서는 '흔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 어디 밧듸 강오당 보민 엠에 거 ᄆᆞᆫ 짇고 ᄒᆞ민, 에염에 반찌룽헷주. 이젠 ᄉᆞᄆᆞᆺ 사락헤도 경 ᄒᆞ멍 살앗주게.(어디 밭에 가오다 보면 가에 것 모두 때 버리고 하면, 옆이 깨끗했지, 이젠 사뭇 흔해도 그렇게 하면서 살았지.) 15 [수망]

사랑사랑: '까끌까끌'의 의미로 쓰였다. // 개역덜 입에 놓민 사랑사랑.(미숫가루들 입에 놓으면 '사랑사랑'.) 01 [도련]

사름날: 12지지 가운데 '인날(寅-)'에 해당하는 날이다. '범날'을 가리킨다. // 다 경 ᄀᆞᆯ아. 어느 날 개날이난 장 담으라 경 허곡. 뱀날 용날 사름날 그런 날덜은 장 그거 안 담아.(다 그렇게 말해. 어느 날 개날이니까 장 담가라 그렇게 하고. 뱀날 용날 범날 그런 날들은 장 그거 안 담가.) 05 [표선]

사릅: 소의 나이 세 살을 말한다. 달리 '사롭'이라고도 한다. // ᄒᆞᆫ ᄉᆞᆯ은 처음 난 거, 금승이엔 ᄒᆞ고, 또 일 년 넘은 건 다간 송아기옌, 사릅 송아기, 나릅 송아기 경.(한 살은 처음 난 거, '금승'이라고 하고, 또 일 년 넘은 건 '다간' 송아지라고, 사릅 송아지, 나릅 송아지 그렇게.) 17 // 금승게. ᄒᆞᆫ 설에. 두 ᄉᆞᆯ은 다간. 사릅. 나릅. 그다음은 다습, ᄋᆞ습.(하릅. 한 살에. 두 살은 '다간'. 사릅. 나릅. 그다음은 다습, ᄋᆞ습.) 36 [대평, 봉성]

사리마다: 일본어 'さるまた'에서 온 말로 팬티의 개념으로 사용됐다. // 속에 ᄀᆞᆺ사 남저 빤스엔 ᄀᆞᆯ아, 사리마다엔 헤여 그때는이.(속에 아까 남자 팬티라고 말해, '사리마다'라고 해 그때는.) 11 [함덕]

사막모루: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물오름. 저 끌오름. 토평으로 그 이 사막모루엔 헌 이 인정오름.('물오름'. 저 '끌오름'. 토평으로. 그 이 '사막모루'라고 하는 이 '인정오름'.) 31 [토평]

사만셍이: 옛날 저지리 당맨 심방이다. // 여자도 두갓이 헷지만은, 할망 이름은 모르고. 하르방 사만셍이라고.(여자도 두 내외간이 했지만, 할머니 이름은 모르고. 할아버지 '사만셍이'라고.) 19 [청수]

사발떡: 사발에 쌀가루를 놓고 쪄낸 떡을 말한다. // 사발떡도 허는 집인 허곡 사발러레 그냥 앚졍 쳉 그냥 올리는 거. 그런 거 허여도 대정더렌 그런 거 안 허여.('사발떡'도 하는 집은 하고 사발에 그냥 안쳐서 쪄서 그냥 올리는 거. 그런 거 해도 대정엔 그런 거 안 해.) 33 [인성]

사발시리: 사발에 쌀가루를 넣어서 시루에서 쪄낸 떡이다. // '사발시리'는 사발에 놩 뽄 허여근에 사발에 존존헌 사발에 놩 치는 거.('사발시리'는 사발에 놔서 본 해서 사발에 자잘한 사발에 놔서 찌는 거.) 23 [온평]

사사라검질: 김 종류의 하나이다. // 최고 하영 나는 건 사사라검질. 이 봄의 나는 검질 사사라검질.(최고 많이 나는 건 '사사라검질'. 이 봄에 나는 김 '사사라검질'.) 08 [동광]

사솔왓: 남원읍 의귀리에 있는 밭 이름을 말한다. '왓'은 '밭'을 뜻하는 제주어이다. // 사솔왓이엔 하는 밧이 이서.('사솔왓'이라고 하는 밭이 있어.) 15 [수망]

사스락검질: 김의 일종이다. // 감탠 옛날 어른덜 밧디 꼴민 그 사스락검질 거 난덴 허영 아녀는 사름은 안 헤난.(감태는 옛날 어른들 밭에 깔면 그 '사스락검질' 거 난다고 해서 않는 사람은 안 했었어.) 29 [외도]

사스락쿨: 김의 일종이다. 예전에 보리밭에 많이 났던 김의 한 종류이다. // 겨울에 별로 엇수다게. 사스락쿨, 절마니, 진풀. 것이 겨울에 나는 풀이고.(겨울에 별로 없습니다. '사스락쿨', '절마니', 별꽃. 그것이 겨울에 나는 풀이고.) 29 [외도]

사시미: 일본어 'さしみ'로 '회'를 말한다. // 옛날에 사시미 이 존다니옌 헌 거만 잇엇주.(옛날에 회 이 개상어라고 하는 거만 있었지.) 26 [신창]

사이까이니: 일본어 'さいかい(再開)に'로 '재개한'라는 의미이다. // 사이까이니 헌 건 이 제주도라.('사이까이니' 한 건 이 제주도야.) 24 [세화]

사장밧: 한림읍 옹포리에 있는 모래밭으로 군사들이 활쏘기 연습도 하고 격식을 갖추지 않고 사람의 시신을 임시 매장을 했던 곳을 말한다. // 사장밧이 그 아까 이야기 한 옹포이 저기 모살밧인데 사장이라는 게 모래 사자거든.('사장밧'이 그 아까 이야기 한 옹포 저기 모래밭인데 사장이라는 게 모래 사자거든.) 27 [옹포]

사전: 농사가 잘 안되는 궂은 밭을 말한다. // 저 궂인 밧을, 궂인 밧을 여기서는 사전이엔 허주.(저 궂은 밭을, 궂은 밭을 여기서는 '사전'이라고 하지.) 12 [한동]

사제비오름: 애월읍 광령리, 한라산 국립공원의 어리목 남쪽에 있는 오름이다. // 아침 조반은 먹기 실프난 그냥 동고량착에 지곡 헹 올라가, 밥 헹 먹엉. 그날 이제 재수가 좋으믄 거의 사제비오름이라고 한라산 거의 올라가믄, 거 백록담 이렇게 허믄 거 너븐, 거 사제비동산이엔 헙디다.(아침 조반은 먹기 싫으니까 그냥 '동고량착'에 지고 해서 올라가, 밥해서 먹어서. 그날 이제 재수가 좋으면 거의 '사제비오름'이라고 한라산 거의 올라가면, 거 '백록담' 이렇게 하면 그거 넓은, 거 '사제비동산'이라고 합디다.) 28 [구엄]

사칸집: 칸이 네 개인 집을 말한다. // 풍체는 이디 두는 거주. 집 앞에 둘리는 게 초가집 앞에 둘리는 게 풍첸디. 보통 삼간집인 두 개. 사칸집읜 세 개를 헤여.(차양은 여기 다는 거지. 집 앞에 달리는 게 초가집 앞에 달리는 게 차양인데. 보통 삼간집엔 두 개. '사칸집'에는 세 개를 해.) 14 [성읍]

삭군: 품삯을 주기로 하고 빌려 쓰는 일꾼이다. // 그중에는 자기냥으로 번을 못 보는 사름은 ᄯᅳ로 삭군을 멧게붑니다.(그중에는 자기대로 번을 못 보는 사람은 따로 '삭군'을 맡겨버립니다.) 35 [대림]

산: 산소인 '뫼(墓)'를 말한다. // 골충이라고 헹 사람이 묻어 가지고 관리 안 허는 산을 골충이라고 허거든.('골충'이라고 해서 사람이 묻어 가지고 관리 안 하는 무덤을 '골충'이라고 하거든.) 27 [옹포]

산감: 산을 감독하고 지키는 '산감독(山監督)'이다. // 산감이라고 헤서 나무 이제 ᄌᆞᆯ라오는 거나 이거 ᄒᆞ면은 막 벌금ᄒᆞ곡 막 경찰관들이 막.('산감'이라고 해서 나무 이제 잘라오는 거나 이것 하면은 막 벌금하고 마구 경찰관들이 아주.) 04 [고성]

산감수: 산을 감독하고 지키는 사람을 말한다. // 감수 감 여기선 산감수 산감수엥 헤긴에.(감수 감 여기선 '산감수' '산감수'라고 해서.) 16 [하원]

산것: 남원읍 태흥리 지명의 하나이며, 바다 이름으로도 사용된다. // 산것이엔도 ᄀᆞᆫ고 덕둑케엔도 ᄀᆞᆫ고.('산것'이라고도 말하고 '덕둑케'라고도 말하고.) 25 [태흥]

산곳: '산 숲'을 이르는 말이다. '숲이 많은 지역'이라는 의미이다. // 전부 나무. 산곳인디 이걸 전부 비여내고 이거 마을을 만들엇덴 허는디.(전부 나무. '산곳'인데 이걸 전부 베어내고 이거 마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14 [성읍]

산담: '무덤 주위로 네모지거나 둥글게 둘러싼 돌담'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산잣'이라고도 한다. // 소임 한 사람 허영 허면은 산담 허민 언마 받아 허민 이거를 개인으로 갈랑 쓰는 게 아니라.(소임 한 사람 해서 하면 '산담' 하면 얼마 받아 하면 이거를 개인으로 갈라서 쓰는 게 아니라.) 14 // 우리 하르방ᄀᆞ라, 그 엠에 막 산덜도 하고, 뭐한 디 널엇는디, 저디 오랑 저 산담 염에 ᄒᆞᆯ만 누워도 헤영 벗헤주민 나만이라도 들이키엔 허난. (우리 할아버지 보고, 그 옆에 막 무덤들도 많고, 뭐한 데 널었는데, 저기 와서 저 '산담' 옆에 조금만 누워도 해서 벗해주면 나만이라도 들이겠다고 하니까.) 15 // 나록도 공출ᄒᆞ곡, 막 ᄒᆞ민 일본놈덜 ᄆᆞᆫ 공출ᄒᆞ여갓젠. 멘네 산담 소곱에도 ᄆᆞᆫ 곱져낫젠 ᄒᆞᆸ디다. 난 ᄒᆞ꼼 ᄋᆞᆨ은 때 공출ᄒᆞ레 뎅겨난 거 알아져.(벼도 공출하고, 마구 하면 일본사람들 모두 공출하여갔다고. 면화 '산담' 속에도 모두 숨겼었다고 합디다. 난 조금 성장한 때 공출하러 다녔던 거 알아져.) 17 // 근데 청명날은 가서 만져도 괜찮앗다고 헤서 사월 오일 청명에는 산에 가서 말이여 뭐 잡초도 뽑고 소왕이도 뽑고 돌도 말이여 산담도 무너지면 보수도 허고 이렇게 헷는데.(근데 청명날은 가서 만져도 괜찮았다고 해서 사월 오일 청명에는 산에 가서 말이야 뭐 잡초도 뽑고 엉겅퀴도 뽑고 돌도 말이야 '산담'도 무너지면 보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27 [구억, 대평, 봉성, 성읍, 수망, 옹포, 한동]

산담접: 묘 주변을 둘러싸는 담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을 함께 하는 동아리를 말한다. '접'은 표준어 '계'에 대응하는 말이다. // 산담접은 우리 ᄒᆞᆫ 이십오 년 동안 허단에 이젠 산담이 이젠 전부 공동묘지 가버리니깐 산담이 필요엇이난 해산해 불엇주.('산

담접'은 우리 한 이십오 년 동안 하다가 이젠 '산담'이 이젠 전부 공동묘지 가버리니깐 '산담'이 필요가 없으니까 해산해버렸지.) 14 [성읍]

산데ᄆᆞᆯ: 키가 큰 사람을 큰 말에 비유해서 쓴 말이다. // 산데ᄆᆞᆯ은 키가 커두서 놀레만 ᄃᆞᆯ아남쩬. ('산데ᄆᆞᆯ'은 키가 커가지고는 놀러만 달아난다고.) 32 [덕수]

산뒤떡: 밭벼쌀 가루로 만든 떡을 말한다. // 그냥 이 저 솔벤 절벤을 헤도 산뒤떡은 맛서.(그냥 이 저 솔편 절편을 해도 '산뒤떡'은 맛있어.) 23 [온평]

산듸: 표준어 '산도(山稻)'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우리말로는 '밭벼'라고 한다. '산도, 산뒤'라고도 한다. // 또 여름 나민 조 갈고 산듸 갈고.(또 여름 되면 조 갈고 산도 갈고.) 14 // 벼가 그 밧에서 나는 벼라 헤서 산듸라고 헤 산듸.(벼가 그 밭에서 나는 벼라 해서 '산듸'라고 해 '산듸'.) 27 [성읍, 옹포]

산듸밥: 밭벼쌀로 지은 밥이다. // 곤밥엔 허곡게. 산듸ᄊᆞᆯ로 헌 거난 산듸밥.(흰밥이라고 하고. '산듸'쌀로 한 거니까 '산듸밥'.) 14 [성읍]

산메: 길흉을 점치기 위해서 그릇에 쌀을 넣어서 솥에 넣어 찌는 밥을 말한다. 밥이 잘되면 운수가 좋고, 밥이 잘되지 않으면 운수가 나쁘다고 한다. // 다시 ᄒᆞᆫ 번 산메를 쪄보자 헤연에 ᄊᆞᆯ로 헤연 헤보난 그게 안 익어, 또. 안 익어. 다른 사름 건 다 뒈고. 이 ᄊᆞᆯ방울 ᄃᆞᆯ아지멍도 떨어지지 아녕 잘 뒙니다.(다시 한 번 '산메'를 쪄보자 해서 쌀로 해서 해보니까 그게 안 익어, 또. 안 익어. 다른 사람 건 다 되고. 이 쌀알 매달리면서도 떨어지지 않고 잘 됩니다.) 14 // 산메 쳐보겐 헨에 이젠 ᄊᆞᆯ 싯언에 솟듸 사발에 놘 이름 쓰곡 헨에 산멜 치난 다른 사름 건 다 좋곡 우리 언니 것만 막 ᄊᆞᆯ 부꺼불멍 물 파지멍 경 메도 안 뒙디다게.('산메' 쪄보자고 해서 이젠 쌀 씻어서 솥에 사발에 넣어서 이름 쓰고 해서 '산메'를 찌니까 다른 사람 건 다 좋고 우리 언니 것만 막 쌀 끓어버리며 물 파지면서 그렇게 메도 안 됩디다.) 14 [성읍]

산목: 애월읍 구엄리에 위치한 지명 이름이다. // 사삼사건은양, 우리 어린 때도 저 산목이엔 허영 이렇게 그건 사삼이 뭔지 모르는디, 그 저 ᄒᆞᆫ 일고여덟 살 쉐 멕이레 강 영 보믄, 아 저 수산봉 질로 궤물 저 어디 답동 그디 사름들이영 왕 그디 들엉양 수산봉 질로 와샤 와샤 와샤 허믄 야, 저 폭도 왐져.(사삼사건은요, 우리 어릴 때도 저 '산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건 사삼이 뭔지 모르는데, 그 저 한 일고여덟 살 소 먹이러 가서 이렇게 보면, 아 저 '수산봉' 길로 '궤물' 저 어디 '답동' 거기 사람들이랑 와서 거기 들어서요, '수산봉' 길로 와샤 와샤 와샤하면 야, 저 폭도 오고 있어.) 28 [구엄]

산물: 귤의 한 종류이다. // ᄀᆞ슬 틀어가민 다시 산물이엔 헌, 저 산물이엔 헌 거 요거만썩 헌 거 조랑조랑 여는 집이 잇주게.(가을 들어가면 다시 '산물'이라고 한, 저 '산물'이라고 한 거 요거만큼씩 한 거 주렁주렁 여는 집이 있지.) 13 [삼달]

산물: 샘물.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라는 개념이다. // 산물깍이라렌 헌 디도 이수다. 산물이 막 잘 나는 디.('산물깍'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산물'이 막 잘 나오

는 곳.) 03 [송당]

산물깍: 구좌읍 송당리의 지명이다. // 산물깍이라렌 헌 디도 이수다. 산물이 막 잘 나는 디.('산물깍'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산물'이 막 잘 나오는 곳.) 03 [송당]

산물낭: 귤나무 종류의 하나이다. // 우리가 어렷을 때도이 미깡낭이 잇엇어. 산물낭이라고.(우리가 어렸을 때도 귤나무가 있었어. '산물'나무라고.) 12 // 감 잘 올곡. 산물낭이라고이. 그 저 그거 지금은 산, 중간엔 이 지금은 뭣엔사 곧는지 중간엔 산물이엔도 허곡 엿날은 정귤엔 헷낫어. 그것ᄀᆞ라.(감 잘 열고. '산물낭'이라고. 그 저 그거 지금은 산, 중간엔 이 지금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중간엔 '산물'이라고도 하고 옛날은 '정귤'이라고 했었어. 그것보고.) 29 [외도, 한동]

산물이멩이: 서귀포시 하원동의 지명 중 하나이다. // 산물이멩이 그기 절간도 잇고.('산물이멩이' 거기 절간도 있고.) 16 [하원]

산물코: 안덕면 감산리에 용천수가 나는 지경이다. // 냇동네, 우리 동네엔 산물 나는 디가 잇이난 산물코, 산물코 ᄒᆞ멍 섯동네 사름덜도 그디 지르레 오곡, 온수물이라, 그딘.('냇동네', 우리 동네에는 용천수 나는 데가 있으니까 '산물코', '산물코' 하면서 '섯동네' 사람들도 거기 길러 오고, 온수물이야, 거기는.) 17 [대평]

산물코지: 대정읍 보성리의 지명 중 하나이다. // 보성은이 목장더레도 산물코지렌 헌 데 잇엇어. 산물 나는 것도 잇곡. 그냥 소 먹는 물도 선헌 디, 밧듸 바당물만썩 헌 거 이서.(보성은 목장으로도 '산물코지'라고 한 데 있었어. 산물 나는 것도 있고. 그냥 소 먹는 물도 선한 데, 밭에 바닷물만큼씩 한 거 있어.) 33 [인성]

산밧구석: 안덕면 동광리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 저 거의 다 여긴 뭐 뒌밧, 구석밧, 선남밧, 무신 뭐 산밧구석 이런 전을 헤 가지고 이 집을 지은 거라, 명칭이.(저 거의 다 여긴 뭐 '뒌밧', '구석밧', '선남밧', 무슨 뭐 '산밧구석' 이런 전을 해 가지고 이 집을 지은 거야, 명칭이.) 34 [구억]

산방: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산방산을 이르는 말이다. // 그 돔박기름 빤 먹어가난 그긴 가인 오꼿 도망가 불언게. 도망가 부난 막 좋으난 가이 어멍이 오랑은에 돔박 이거 줏어 나둬시난 한 말 ᄋᆞ경강인에 지름 빠 먹으라 먹으라 허건데 뒛수덴 허멍 나도 돔박 산방에 강도 타단에 돔박 지름 빵 아이덜 주곡 허멍 기추룩. 작년도 돔박 지름 두 뒈 빠전게이 아이덜 ᄆᆞ딱 갈란 줘시녜.(그 동백기름 빼서 먹어가니까 거긴 그 앤 그만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 버리니까 아주 좋아서 그 애 어머니 와서 동백 이거 주워 놔뒀으니까 한 말 가져가서 기름 빼서 먹어라 먹어라 하길래 됐습니다 하면서 나도 동백 산방산에 가서도 따다가 동백기름 빼서 아이들 주고 하면서 그처럼. 작년도 동백기름 두 되 빼었는데 아이들 모두 갈라 줬어.) 33 [인성]

산산이: 가랑비를 말하는데 산산이 부서지는 빗방울을 묘사한 것이다. // 산산이엔 헌 건 ᄀᆞ랑비 존존허게 오는 비, 그거 일뤠.('산산이'라고 한 건 가랑비 잔잔하게 오는 비, 그거 이레.) 25 // 산산이는 뭐 허민, 산산이 좀진 비 오는 것이 산산이주

게, 영허멍 허주게.('산산이'는 뭐 하면, '산산이' 자잘한 비 오는 것이 '산산이'지, 이렇게 하면서 하지.) 25 [태흥]

산산허다: 여기저기 흩어지다는 의미이다. // 그 우의 헤영 또 그 궤기 깐 우의 또 찝 ᄒᆞ꼼 영 산산허게 영 ᄀᆞᆯ아근에.(그 위에 해서 또 그 고기 깐 위에 또 짚 조금 이렇게 산산하게 이렇게 깔아서.) 29 [외도]

산세미오름: 애월읍 광령리와 유수암리 경계에 있는 표고 652미터의 오름이다. // 게난 고장 타당은에 저 우리 산세미오름에 고장 타레 감젠. 고장 타당 뭣 허쿠강 허믄 '물들이켜.' 에, 물 들영헤사 팔월 멩질에도 아이덜토 곱닥허게 허영.(그러니까 꽃 따다가 저 우리 '산세미오름'에 꽃 따러 가고 있다고. 꽃 따다가 뭐 하겠습니까 하면 '물들이겠어.' 에, 물들여야 팔월 명절에도 아이들도 곱게 해서.) 28 [구엄]

산신놀이: 사냥이 잘되기를 비는 굿이다. // 산신놀이를 어떵 허느냐 허민 ᄃᆞᆨ 헹 가근에 ᄃᆞᆨ 헹 ᄒᆞᆫ 사름은 막 ᄃᆞᆯ아, ᄃᆞᆯ으민 ᄒᆞᆫ 사름은 ᄂᆞᆫ다, ᄃᆞᆯ아난다, ᄃᆞᆯ아난다, 워리 머머머머 ᄂᆞᆯ아난다 허멍 개 불르는 ᄆᆞᆫ 헤여.(산신놀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닭 해서 가서 닭 해서 한 사람은 막 달려, 달리면 한 사람은 난다, 달아난다, 달아난다, 워리 머머머머 날아난다 하면서 개 부르는 모두 해.) 25 [태흥]

산앚인밧: 밭에 '산', 즉 묘소가 있는 밭 이름이다. 밭 안에 묘가 있어서 붙은 것 같다. // 산앚인밧은 산은 쓰니까 산앚인밧, 알력밧이엔 헌 건 집 알력 펜이니까 알력밧이엔 헴구나. 우리 어린 때도이.('산앚인밧'은 묘는 쓰니까 '산앚인밧', '알력밧'이라고 한 건 집 아래편이니까 '알력밧'이라고 하고 있구나. 우리 어릴 때도.) 29 [외도]

산제: 무덤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 나가 죽엉 이디 묻으레 가젠 허민이 산제 지내곡, 거 땅, 땅 임제 직시.(내가 죽어서 여기 묻으러 가려고 하면 '산제' 지내고, 그거 땅, 땅 임자 깃.) 11 [함덕]

산지: 제주시 동부두가 있는 동네 이름이다. // 경 허난 지금은 산지 산지축항에 베여, 공항에 이 비헹기 허주만 그때는 산지축항으로 못 완에 저 금덕, 애월면 금덕이, 이수암.(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산지' '산지축항'에 배다, 공항에 이 비행기 하지만 그때는 '산지축항'으로 못 와서 저 '금덕', '애월면' '금덕'이, '이수암'.) 29 [외도]

산지축항: 제주시 동부두 쪽에 있었던 마을 '산지'에 있었던 항구 이름이다. // 경 허난 지금은 산지 산지축항에 베여 공항에 이 비헹기 허주만 그때는 산지축항으로 못 완에 저 금덕, 애월면 금덕이, 이수암.(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산지' '산지축항'에 배다 공항에 이 비행기 하지만 그때는 '산지축항'으로 못 와서 저 '금덕', '애월면' '금덕'이, '이수암'.) 29 [외도]

산짓물: 제주시 건입동의 샘물 이름이다. // ᄒᆞ룰에 ᄒᆞᆫ번씩 저 헌병대 ᄉᆞ무실에 헤 둠서 산짓물에 왓다 갓닥 헴덴. 게난에 ᄀᆞ만이 영 사 시난에, 영 사 시난 지나가멍 시계 ᄒᆞ나 벗엉 줘렌게.(하루에 한번씩 저 헌병대 사무실에 해 두면서 '산짓물'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렇게 서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시계 하나 벗어서 주더라고.) 30 [노형]

산케: 갑각류인 게 종류의 하나이다. // 겡이도 산케 잇고 또 저기 그자 보통 겡이 잇고. (게도 '산케' 있고 또 저기 그저 보통 게 있고.) 31 [토평]

산태: 긴 채 두 개 사이에 가운데만 가로장을 띄엄띄엄 박아 들것처럼 앞뒤로 들게 된 도구이다. '삼태'라고도 한다. // 그 이제 산태는 이렇게 나무를 영 영 헤 가지고서 요 가운데, 가운데 뭘 줄로 영 저 무신거 끈으로 헐 거 거트민 이레 영 퍼 놓을 거 아냐이?(그 이제 산태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요 가운데, 가운데 뭘 줄로 이렇게 저 무슨 끈으로 할 거 같으면 이리 이렇게 떠 놓을 거 아니?) 12 // 산태엔 헌 거 이신디 앞에 ᄒᆞᆫ 사름 뒤에 ᄒᆞᆫ 사름 이렇게 헹 들르는 건디, 그것을 그 산태도 거 다 미리 준비헤놥니다게.('산태'라고 한 게 있는데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드는 건데, 그것을 그 산태도 거 다 미리 준비해놓습니다.) 15 // 산태로 앞 뒤 사름이 이렇게 긴 거에 흑을 이제 그 다져 논 것을 퍼놓면은.('산태'로 앞 뒤 사람이 이렇게 긴 것에 흙을 이제 그 다져 놓은 것을 퍼놓으면.) 24 // ᄆᆞᆯ로나 쉐로나 그거 ᄇᆞᆯ랑 그 ᄀᆞ시락 다 삭아지고 허도록 허영 그거 불리고 산태로 들러 가멍.(말로나 소로나 그걸 밟아서 그 까끄라기 다 삭아지고 하도록 해서 그거 불리고 '산태'로 들고 가면서.) 26 [삼달, 세화, 송당, 수망, 신창, 인성, 태흥, 표선, 한동, 온평]

산태걸이: 죄인을 '산태'에 묶어 거꾸로 세워놓고 매를 치는 일이다. // 옛날엔 부락에서 집마다 산태걸이는 거나헷주. 산태걸이는 건 무사냐민 나쁜 짓 ᄒᆞᆫ 사름 부락에서 심어다근에, 경 산태걸이 해서.(옛날에는 부락에서 집마다 '산태걸이'는 거나했지. '산태걸이'는 건 왜냐면 나쁜 짓 한 사람 부락에서 잡아다가, 그렇게 '산태걸이' 했어.) 17 // 옛날엔 상뒤칩 강 오라도 산태걸이ᄒᆞ고, 어느 저를에.(옛날엔 '상뒤칩' 가서 와도 '산태걸이'하고, 어느 겨를에.) 17 [대평]

산파: 밭에 여기저기 흩어지게 씨를 뿌리는 일(노가리)을 의미한다. // 산파라고 보리 씨 농사허기 전에 그건 또 따로 허주게.(산파라고 보리씨 농사하기 전에 그건 또 따로 하지.) 09 [고산]

산허다: '골고루 흩어져 퍼지다'라는 뜻이다. // 보리쏠은 보리쏠 솖앙 부끄주게, 부껑 솖앙은에 보리쏠이 익을 만허민 또 좁쏠 우터레 산허게 허꺼, 허껑 또 솖당은에 또 그거 골로게 젓어사, 겡 서꺼.(보리쌀은 보리쌀 삶아서 끓어오르지, 끓어올라서 삶아서 보리쌀이 익을 만하면 또 좁쌀 위로 '산하게' 섞어, 섞어서 또 삶다가 또 그거 골고루 저어야, 그렇게 섞어.) 33 [인성]

산호사: 우도면 하우목동에 위치한 산호해변이다. // 저 문화재 허가가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쿠다마는 지금 문화재로 보호 ᄒᆞᆯ랴고 허고, 저 산호사마는 막 지금, 문화재로 보호헨에.(저 문화재 허가가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재로 보호하려고 하고, 저 '산호사'만은 아주 지금, 문화재로 보호해서.) 22 [우도]

살그랑허다: 표면이 매끈하고 부드럽지 않고 껄끄럽다는 의미이다. // 좀 살그랑헌 거 헤야 어린아이덜 그 자꾸 궁글면서.(좀 '살그랑헌' 거 해야 어린아이들 그 자꾸 구르면서.) 14 [성읍]

살락살락: 밥에 풀기가 없어서 고들고들한 모양이다. // 살락살락 우린 경은 안해봐신디 그 추룩 뜬 밧디 밥이고 보리밥이고 안해신디.('살락살락' 우린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그렇게 뜬 밭에 밥이고 보리밥이고 안했는데.) 19 [청수]

살락허다: 느낌이 거칠다는 뜻으로, 달리 '사락하다'라고도 한다. // 살락헤도 조팝은 먹으민 그렇게 시장기가 안 나.('살락헤도' 조밥은 먹으면 그렇게 시장기가 안 나.) 12 // 보리쏠 살락허민 그 감저 막 데기민 젓으민 감저가 풀어지민 밥이 ᄒᆞ쏠 영 벙뎅이져근엥에게 그축 헤근에 감저밥.(보리쌀 '살락하면' 그 고구마 막 문대면 저으면 고구마가 풀어지면 밥이 조금 이렇게 덩이져서 그처럼 해서 '고구마밥'.) 23 // 치근허고 ᄉᆞᆯ보리 쏠은 ᄒᆞ쏠 살락헤도 ᄉᆞᆯ보리 쏠이 양이 하주게.('치근하고' 쌀보리 쌀은 조금 '살락해도' 쌀보리 쌀이 양이 많지.) 31 // 좁쏠에 놔 근엥에 감저밥을 허민게 살락헌 좁쏠에 감저밥을 노민게 아이들이 먹젠 헙니까? 그 학생들이 먹젠덜 아녕게.(좁쌀에 넣어서 고구마밥을 하면 '살락한' 좁쌀에 고구마밥을 넣으면 아이들이 먹으려고 합니까? 그 학생들이 먹으려고 안 해서.) 32 [덕수, 성읍, 온평, 토평, 한동]

살레: 찬장 모양으로 간략히 짜서 부엌 안에 세워 놓고 식기 따위를 넣는 물건이다. 달리 '정짓궤'라고도 한다. // 옛날은 살레 영 귀틀만 네 개 세와놩 영 귀틀 헤근에 옆인 대 헤영 헤낫주게.(옛날은 '살레' 이렇게 귀틀만 네 개 세워놔서 이렇게 귀틀 해서 옆엔 대 해서 했었지.) 13 // 살레엔 헹 뭐 그릇 잇는 거고.('살레'라고 해서 뭐 그릇 있는 것이고.) 15 // 살레옌 헌 건 그릇 놓는 지금 저 씽크대라는 거. 그거 살레허고. 그릇 엎으는 곳.('살레'라고 한 건 그릇 놓는 지금 저 싱크대라는 거. 그거 '살레'하고. 그릇 엎는 곳.) 21 // 살레게. 정지 안네 잇주.('살레'. 부엌 안에 있지.) 36 [봉성, 삼달, 세화, 수망, 신촌]

살르다: 방에 불을 때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 남뎅이는게 걸름허곡 불 때곡 ᄀᆞ스락은 굴묵 살르고.(줄기는 거름하고 불 때고 까끄라기는 '굴묵' 사르고.) 23 [온평]

살마다: 일본어 'さるまた'에서 온 말로, '팬티, 속옷'을 말한다. // 속곳은 옛날이고, 살마다는 이 중간이 나온 거고.('속곳'은 옛날이고, 팬티는 중간에 나온 것이고.) 03 // 속곳, 살마다엔 헤이 그때는 살마다가 일본말이라이. 살마다, 바지저고리, 쪼께. 쪼껜 쭉 입어이.('속곳', '살마다'라고 했어. 그때는 '살마다'가 일본말이야. '살마다', 바지저고리, 조끼. 조낀 쭉 입어.) 30 // 그거 미녕실로 경허고 미녕은 헤근에 이제 몸뻬도 헹 입고 저 이 소곱에 살마다 옛날은 그 해녀만 입지 안허고 속곳, 속곳 헤도 난 안 입어 봣저만은 속곳, 속곳 허멍 입어낫어덜.(그거 무명실로 그렇게 하고 무명은 해서 이제 몸뻬도 해서 입고 저 이 속에 '살마다' 옛날은 그

해녀만 입지 않고 '속곳', '속곳' 해도 난 안 입어 봤지만 '속곳', '속곳' 하면서 입었었어.) 31 [노형, 송당, 토평]

살체기문: 짐승이 못 들어가게 나무로 엮어서 만든 사립문이다. // 이제 왁왁헌 족은 구들에 영 창문, 영 종이 ᄇᆞᆯ른 창문덜에 이제 국이영 밥이영 구들러레, 구들문, 부억더레 가는 디도 게 무신 낭 널짝문 허영은에 영 헹 ᄋᆞᆯ곡 더껑은에 허난, 구들에 ᄇᆞᆯ가시믄 허주마는. 살체기문도 헤서.(이제 캄캄한 작은 방에 이렇게 창문, 이렇게 종이 바른 창문들에 이제 국이랑 밥이랑 방으로, 방문, 부엌으로 가는 데도 그렇게 무슨 나무 '널짝문' 해서 이렇게 해서 여닫으면서 하니까, 방에 밝았으면 하지만. '살체기문'도 해서.) 28 [구엄]

삼 거리다: 삼 농사를 할 때 삼 가닥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나간 것을 말한다. // 보리 곱고 삼 거렷으니깐이 뭐 머리가 어지럽다 그런 뜻이주.(보리 굽고 '삼 거렸으니까' 뭐 머리가 어지럽다 그런 뜻이지.) 12 [한동]

삼가꾸: 삼각을 말한다. '삼+가꾸'의 구성으로 여기서 '가꾸'는 일본어 'かく(角)'로 '각'의 의미이다. // 삼가꾸 식으로 헤 가지고 딱 딱 허민.(삼각 식으로 해 가지고 딱 딱 하면.) 12 [한동]

삼각곤ᄒᆞ다: 바느질 방법의 하나인 '새발뜨기를 하다'는 말이다. // 뒷바농질은예 이런 저 바지 알 ᄀᆞ뜬 디 ᄒᆞᆯ 때 삼각곤ᄒᆞ게, 삼각곤ᄒᆞ게 ᄒᆞᆸ니다.(뒷바느질은요, 이런 저 바지 알 같은 데 할 때 '삼각곤ᄒᆞ게', '삼각곤ᄒᆞ게' 합니다.) 08 [동광]

삼갑: 세 가닥으로 드린 참바를 말하는 것이다. 새끼 꼬아놓고 또 한번 꼬는 것이므로 세 가닥이 된다. // 노 ᄒᆞᆫ 번 꼬아놩 또 두 번 꼬는 것ᄀᆞ라 삼갑 디렴젠.(노 한 번 꼬아놓고 또 두 번 꼬는 것보고 삼겹 드린다고.) 02 [선흘]

삼갑신: 총이 세 개인 짚신을 말한다. '세깍신'이라고도 한다. // 삼갑신엔 헌 거는 저건 깍을 미리 비녀논 게 아니고. 절아가면서 비빕니다게.('삼갑신'이라고 한 거는 저건 총을 미리 비녀놓은 게 아니고. 결어가면서 비빕니다.) 14 [성읍]

삼남내: 구좌읍 송당리 지명의 하나이다. // 삼남내라고 저기 오는 디 ᄉᆞᄀᆞ리. 선흘서 오민 양. ᄉᆞᄀᆞ리. 예예 글로 저짝은 웃손당이고. 그 ᄉᆞᄀᆞ리에서 학교 압까지는 삼남내.('삼남내'라고 저기 들어오는 데 사거리. 선흘에서 들어오면은. 사거리. 예예 거기로 저쪽은 '웃슨당'이고. 그 사거리에서 학교 앞까지는 '삼남내') 03 [송당]

삼대바지: 돛대를 세 개 세운 배로 삼대선(三대船)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 또 삼대바지엔 ᄯᅳ시 ᄒᆞᆫ 오십 자 ᄉᆞ십 자도 잇고.(또 '삼대바지'라고 다시 한 오십 자 사십 자도 있고.) 22 [우도]

삼대선: 돛을 세 개 단 배를 말한다. // 아니 삼대선벳긔 이대선벳긔 엇엇어.(아니 삼대선밖에 이대선밖에 없었어.) 23 [온평]

삼덕: 부엌에 솥을 얹을 수 있게 놓은 세 개의 봇돌을 말한다. // 겐디 우리 어린 때는 ᄇᆞᆯ르지 안헹 그냥 삼덕만 앚져근에 불치 그냥 팡팡 내치멍 경헤근에. 우리 결혼헌 후에 그거 영 짝 허영 다 걸엉 솟덜 걸엉 온돌방 허고.(그런데 우리 어린 때는

바르지 않고 그냥 '삼덕'만 얹어서 재 그냥 팡팡 내치면서 그래서. 우리 결혼한 후에 그거 이렇게 짝 해서 다 걸어서 솥들 걸어서 온돌방 하고.) 26 [신창]

삼동: 상동나무 열매이다. // 삼동도 문 타레 뎅겨 타 먹꼬.('삼동'도 전부 따러 다녀서 따서 먹고.) 16 [하원]

삼동초: 잎담배의 한 종류이다. 맛이 독하고, 잎이 '백입초'보다 잘다고 한다. // 아까 그 삼동촌가 뭐 그거는 이파리가 줄고.(아까 그 '삼동초'인가 뭐 그거는 이파리가 잘고.) 29 [외도]

삼등이: 제주시 노형동의 한 지경 이름이다. // 지금 삼등이도 잇어, 잇어. 잇인디 일름은 엇인디 난 그디 보민 우리 옛날에 셔난 디로구나 헤져.(지금 '삼등이'도 있어, 있어. 있는데 이름은 없는데 난 거기 보면 우리 옛날에 있던 데로구나 하지.) 30 [노형]

삼마이그물: 그물의 한 종류이다. // 게 나이롱 그물에 삼마이그물 ᄒᆞ다가 삼마이그물은 이젠 ᄒᆞᆫ 몃 년 헤 가니까 정부에서 못허게 헤불고 행정에서 못허게 헤불고.(그럼 나일론 그물에 '삼마이그물' 하다가 '삼마이그물'은 이젠 한 몇 년 해 가니까 정부에서 못하게 해버리고 행정에서 못하게 해버리고.) 22 [우도]

삼메: 밀가루 따위에 더운 물과 기주를 조금 넣어 되게 반죽하고서 부풀어 오르게 하여 찐 떡으로 '삼메떡'이라고도 한다. // 떡 헤낫덴 허여, 보리떡, 집마다. 나중엔 웨 삼메옌 허영 밀ᄀᆞ를 헤영헌 거, 그건 아주 고급스러운 요즘 빵이고, 그땐 어디 가도 식겟집이 가믄 보리적하고, 보리 삼메허고.(떡 했었다고 해, 보리떡, 집마다. 나중엔 왜 '삼메'라고 해서 밀가루를 하얀 거, 그건 아주 고급스러운 요즘 빵이고, 그땐 어디 가도 제삿집에 가면 보리 적하고, 보리 '삼메'하고.) 28 [구엄]

삼메떡: 밀가루 따위에 더운 물과 기주를 조금 넣어 되게 반죽하고서 부풀어 오르게 하여 찐 떡이다. '상웨떡'이라고도 한다. // 떡 같은 것도 허는 디, 건 대개 그 저 보리떡이라고 허고 삼메떡, 이런 것을 허는디.(떡 같은 것도 하는데, 건 대개 그 저 보리떡이라고 하고 '삼메떡', 이런 것을 하는데.) 35 // 삼메떡이라고 헤 저 밀ᄀᆞ루 ᄀᆞ치 떡 나오면 거 뭐 빵 종륩주기.('삼메떡'이라고 해 저 밀가루 같이 떡 나오면 거 뭐 빵 종류지요.) 35 // 삼메떡이엔 헌 건. 경허난 그 보리 ᄀᆞᆯ아다근에 이제 그 기주 헤영 놔 뒀당 그것에 허영 떡 쪄근에 놔두민 그 ᄎᆞᆷ 무신 이제.('삼메떡'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 보리 갈아다가, 이제 그 '기주' 해서 놔뒀다가, 그것에 해서 떡 쪄서 놔두면 그 참 무슨 이제.) 36 [대림, 봉성]

삼미: 집 울타리 세 면에 인접한 이웃을 말한다. // 식게 누룩 허영 술 허영 좁쏠 허영, 좁쏠 서 말 너 말 술 허영 삼미 사름 다 멕엿주게. 이제, 이제보단 옛날이 인심이 좋아서.(제사 누룩 해서 술 해서 좁쌀 해서, 좁쌀 서 말 너 말 술 해서 '삼미' 사람 다 먹였지. 이제, 이제보단 옛날이 인심이 좋았어.) 26 // 이 집안이야 다 ᄀᆞ치 헤 먹주. 경허고 저 이 삼미에 늙은 할망신디 다 과세 뎅기고 또 상 논 디도 과세 뎅기고.(이 집안이야 다 같이 해서 먹지. 그리고 저 이 '삼미'에 늙은 할머

니에게 다 '과세' 다니고 또 상 놓은 데도 '과세' 다니고.) 26 [신창]

삼반: 표선면 성읍리 주민을 반으로 나눴을 때 '삼반'을 가리키는 말이다. // 저 삼반에서 헐 때 이거 허주게. 이여 이여 이여동 ᄒᆞ라, 그거게.(저 삼반에서 할 때 이거 하지. '이여 이여 이여동 ᄒᆞ라', 그거.) 14 [성읍]

삼밧: 안덕면 동광리의 지명 중 하나이다. // 그때에 굴 안에 들어갈 때 베려보난에 질 처음에 굴 안에 들어갈 때 베려보난에 삼밧 구석 사름덜만 그딜 점령ᄒᆞ영 사는디 우퉁덜 다 벗곡ᄒᆞ여근에 찍, 마께로 ᄒᆞ여근에양 찍 두드렴십디다, 찍.(그때에 굴 안에 들어갈 때 보니까 젤 처음에 굴 안에 들어갈 때 쳐다보니까 '삼밧' 구석 사람들만 거기를 점령해서 사는데 외투들 다 벗고 해서 짚, 방망이로 해서 짚 두드리고 있습디다, 짚.) 08 [동광]

삼밧달: 애월읍 구엄리 바닷가에 있는 지명이다. // 거기 ᄒᆞ믄 또 저 포젯동산이라고 허영 거기 삼밧달에 옌날 우리도 제 지낼 때 자꾸 얻어먹으레도 가 왓수다.(거기 하면 또 저 포젯동산이라고 해서 거기 '삼밧달'에 옛날 우리도 제 지낼 때 자꾸 얻어먹으러도 가 왔습니다.) 28 [구엄]

삼밧동: 안덕면 동광리에 있는 지명이다. // 또 여쪽에가 삼밧동이엇는 데가 잇어 지금 비석도 세워 잇는디.(또 이쪽에가 '삼밧동'이었는 데가 있어 지금 비석도 세워 있는데.) 08 // 이것이, 직 말ᄒᆞ자면 무등이왓이라는 데는 상동이고 여기 삼밧동은 하동 이렇게 불러왓거든. 불러 왓는데 그때 당시 공민ᄒᆞ교라는 게 이제 간이ᄒᆞ교가 이섯어 바로 여기.(이것이, 즉 말하자면 '무등이왓'이라는 데는 상동이고 여기 '삼밧동'은 하동 이렇게 불러왔거든. 불러왔는데 그때 당시 공민학교라는 게 이제 간이학교가 있었어 바로 여기.) 08 [동광]

삼밧동네: 안덕면 동광리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 원래 이 안덕 그 거세기 호적이 여기에 삼밧동네에 여기에 와나서. 면사무소 그 모든 서류가 여기 완 배치도 뒈낫다고.(원래 이 '안덕' 그 거시기 호적이 여기에 '삼밧동네'에 여기에 왔었어. 면사무소 그 모든 서류가 여기 와서 배치도 되었다고.) 08 [구억, 동광]

삼방: '마루'를 말한다. '상방', '마리'라고도 한다. // 문을 낭으로 뒈엇던 돌처귀로 ᄃᆞᆯ앗던 이것이 삼방더레 ᄃᆞᆫ 건 지게문이고.(문을 나무로 되었던 돌쩌귀로 달았던 이것이 마루쪽으로 단 건 지게문이고.) 02 // 여기서는 삼방.(여기서는 '삼방'.) 06 // 게니까 요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눠서 가운데 삼방.(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눠서 가운데 마루.) 06 [남원, 선흘]

삼분파: 세 명이 나눈다는 뜻으로 꼴밭 임자, 꼴밭의 꼴을 산 사람, 꼴을 베는 사람이 나누어 갖는다는 의미이다. // 게난 ᄒᆞᆫ 번 가오민 서른 바리 허민 스무 바리 허고 밧임젠 열 바리 앗아가고, 삼분파도 허곡.(그러니까 한 번 갔다오면 서른 바리 하면 스무 바리 하고 밭임자는 열 바리 가져가고, 삼분파도 하고.) 13 [삼달]

삼성할망: 아기를 점지하고 산모와 아기를 돌보는 신령인 '삼신할머니'를 말한다. 여기서는 산파를 가리키고 있다. // 게난 오래 진통을 헤서 오래 안 나와 가민 그 삼성할

망이라고, 동네 잇어낫저.(그러니까 오래 진통을 해서 오래 안 나와 가면 그 삼신할머니라고, 동네 있었어.) 12 [한동]

삼수: 말의 나이 세 살을 가리키는 말이다. // 이수매 삼수 ᄉᆞ수 오수 이렇게 허주게.('이수매' '삼수' 'ᄉᆞ수' '오수' 이렇게 하지.) 14 // 금승이, 이수는 삼수 ᄉᆞ수 오수 그 저 ᄆᆞᆯ은.(하릅이, '이수'는 '삼수' 'ᄉᆞ수' '오수' 그 저 말은.) 23 [남원, 선흘, 성읍, 송당, 온평, 외도, 한동, 함덕]

삼수매: 세 살 난 말의 의미이다. // 금승, 금승ᄆᆞᆼ아지, 두ᄉᆞᆯ배기는 이수매, 삼수매, ᄉᆞ수매 영 여녕을.(하릅, 하릅망아지, 두 살배기는 '이수매', '삼수매', '사수매' 이렇게 연령을.) 01 [도련]

삼수샛내: 제주시 도련동 지명 가운데 하나이다. // 이제 그런 것은 이 서쪽에 삼수샛내는 이제 항몽시대에도 거기서 이제 싸움을 헷다는 그런 그 구전이 잇고.(이제 그런 것은 이 서쪽에 '삼수샛내'는 이제 항몽시대에도 거기서 이제 싸움을 했다는 그런 그 구전이 있고.) 01 [도련]

삼승굿: 삼승할머니를 위한 굿이다. 달리 '할망굿'이라고도 한다. // 애길 못 나근에 이제 어디 공들여사 낳겐 허민 삼승굿 허렌 허민 마제 치는 거.(아길 못 나서 이제 어디 공들여야 낳는다고 하면 '삼승굿' 하라고 하면 마지 찌는 거.) 14 [성읍]

삼승할망: 아이를 점지해 준다는 신이다. 기자(祈子), 산육(産育), 아기를 점지하고 산모와 산아(産兒)를 돌보는 세 신령(생불할망인 명진국할망, 구천왕구불법 동이용궁할망, 마마신인 마누라)으로 '산신(産神)', '산육신(産育神)'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신종교의 대상으로 초인간적, 초자연적 위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화복을 내린다고 믿는 존재다. // 애기 삼승할망 헤근에 헤나민 그 큰마누라 헤낭 손을 내어불민 애기덜이 궤양 일어낭 뎅기고 경 안헹 내불민 애기덜이 오래 가주게.(아기 삼신할머니 해서 하고 나면 그 큰 마마 하고나서 손님을 내보내버리면 아기들 고이 일어나서 다니고 그렇게 안 해서 내버리면 아기들이 오래 가지.) 13 // 게난 애기들 낳젠 ᄒᆞ면 할망상에 할망상에 잘 빌렌 헤그넹 말이지. 삼승할망이 말이여 아기 내쳐준다고 믿엇거든.(그러니까 아기들 낳으려고 하면 삼신상에 삼신상에 잘 빌라고 해서 말이지. 삼신할머니가 말이야 아기 내쳐준다고 믿었거든.) 27 [삼달, 성읍, 옹포]

삼적다: 털빛이 붉은 말인 절따마가 세 번째 좋은 말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 색깔에 따라서 허는데. 총머리 일청춘이다 허는데, 에, 총머리 일청춘, 이가라, 삼적다 영헤 영 헤 가는데.(색깔에 따라서 하는데. '총머리' '일청춘'이다 하는데. 에, '총머리' '일청춘'. '이가라'. '삼적다' 이렇게 해 가는데.) 03 [송당]

삼커리: 줄이나 끈 따위를 묶는 모양이다. 집줄을 평고대에 묶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나온 말이다. // 삼커리로 영 요롱게 ᄒᆞ면 바끗딜로 영 들어가근에 일루 나와근에 또 일루 들어강 일루 나오민.('삼커리'로 이렇게 요렇게 하면 밖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리로 나와서 또 이리로 들어가서 이리로 나오면.) 24 [세화]

삼태: 긴 채 두 개 사이에 가운데만 가로장을 띄엄띄엄 박아 들것처럼 앞뒤로 들게 된 도구이다. // 날라주는 것도 마당이 것을 이 뒤꺼지 날라오젠 허믄 그 삼태라 헤 가지고 양쪽에 나무를 헤 가지고 가운데 가마테기를 놩 딱 허믄 그레 그 베껫디는 흑을 더 놩 둘이 들러가지고 그꺼지 날라다 주고, 삼태로.(날라주는 것도 마당에 그것을 이 뒤까지 날라오려고 하면 그 '삼태'라 해 가지고 양쪽에 나무를 해 가지고 가운데 가마니를 놔서 딱 하면 그리 그 바깥에는 흙을 더 놔서 둘이 들어가지고 그까지 날라다 주고, '삼태'로.) 35 [대림]

삼형제여: 한림읍 월령리에 있는 여 이름이다. 세 개의 바위로 이루어진 여라 해서 삼형제여라고 이름 붙여졌다. 세 개의 바위 중 하나는 현재 소실되었다고 한다. // 이름은 엇어, 삼형제여, 삼형제여는 이제 두 개벳긔 엇다.(이름은 없어, '삼형제여', '삼형제여'는 이제 두 개밖에 없다.) 10 [월령]

삿가달: 일본어 'さかだち'에서 온 말로 물구나무서기라는 뜻이다. // 기냥 삿가달로 저만은 강은에 허민 돌아가당 곤작 탁 상 이 발로 확 걸령 탁 놓민 그추룩도 허고.(그냥 '삿가달'로 저만큼 가서 하면 달려가다가 물구나무 탁 서서 이 발로 확 걸려서 탁 놓으면 그처럼도 하고.) 33 [인성]

상가축제: 표선면 성읍리 지역의 상점가들이 모여 치르는 축제이다. 제보자는 성읍민속축제를 이렇게 말했다. // 이제 상가축제헐 때 오랑 먹어봐.(이제 '상가축제'할 때 와서 먹어봐.) 14 [성읍]

상강: 원래는 '서리가 내리다'는 절기를 의미하나 서리 자체를 '상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상강 졍, 경허당 상강이나 독하게 지면은 이 여름풀은 몬 죽어 붑니다.(서리 내려서, 그러다가 서리나 독하게 내리면 이 여름풀은 모두 죽어 버립니다.) 03 // 상강일 넘어가민 상강이 지어 불주게. 상강을 지어 부는 때문에 익지 안 헌 것도 상강일 넘어가가민 복삭헤 불어.(상강일 넘어가면 상강이 져 버리지. 서리가 내려 버리기 때문에 익지 안 한 것도 '상강일' 넘어가면 '복삭헤' 버려.) 03 [송당]

상고: 제주상업고등학교를 말한다. 제주상업고등학교는 1984년 8월 30일 제주시 월평동으로 이설하였다. 2006년 11월 15일 제주중앙고등학교로 교명이 바뀌었다. // 저 그 상고, 고등학교도 싯고 중흑교도 셧주기게.(저 그 상고,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었지.) 29 // 상고 나오고 경 헤신디 이제 그전엔 요디 외도 살아낫어.('상고'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전엔 여기 외도 살았었어.) 29 // 오고 갓단 상고 갓수게게. 오고 간 허단 데껴뒨 아니 헨에.(오고 갔다가 상고 갔어. 오고 가서 하다가 던져두고 아니 하고.) 30 [노형, 외도]

상곡데기: 머리의 맨 윗부분을 말한다. // 상곡데기 터지곡 영 폭 쓰민 영 귀 막아지곡 뒤엔 흐꼼 질곡.('상곡데기' 터지고 이렇게 폭 쓰면 이렇게 귀 막아지고 뒤엔 조금 길고.) 29 [외도]

상굣동산: 제주향교가 있는 동네의 지명이다. '상교'는 향교를 말한다. 달리 '생깃동산'이라

고도 한다. // 상교, 시에 상굣동산 지금 싯지이.(향교, 제주시에 '향굣동산' 지금 있지.) 29 // 허벅으로 져당 먹곡 헤낫어. 경 허난 그 안네 이제 서문시장 안네 우리 씨어머님넨 살고. 우리 결혼허난에 상굣동산 우리 영 ᄯᅳ로이.(물동이로 져다가 먹고 했었어. 그렇게 하니까 그 안에 이제 서문시장 안에 우리 시어머님넨 살고. 우리 결혼하니까 '상굣동산' 우리 이렇게 따로.) 29 [외도]

상군: 기량이 뛰어난 잠녀를 가리키는 말이다. '큰줌녜', '상줌녜', '상중군', '상줌녀'라고도 한다. // 그때는 미역 깝이 잘 가니까 그때 그 당시 때 상군덜은 그 ᄒᆞᆫ 해 미역 ᄌᆞ물민 밧 하나씩 삿뎬.(그때는 미역 값이 잘 가니까 그때 그 당시 때 '상군'들은 그 한 해 미역 캐면 밭 하나씩 샀다고.) 05 // 그땐게 친정에 강 ᄒᆞ쏠 살고 시집 오랑 ᄒᆞ쏠 살앙 그자 시부모네 일허레 가가민 따라가근에게 일 도와 헹 오곡. 또 여기서 우리 시어멍은 막 물질이 아주 상군이랏어.(그땐 친정에 가서 조금 살고 시집에 와서 조금 살면서 그저 시부모네 일하러 가면 따라가서 일 돕고 해서 오고. 또 여기서 우리 시어머니는 아주 물질을 아주 잘하는 '상군'이었어.) 06 // 우리 할망은 넙메역 ᄌᆞ물레도 못 가낫수다게. 상군 아니라부난.(우리 할머니는 넓미역 캐러도 못 갔습니다. '상군' 아니니까.) 22 // 게민 상군이 돈 얼마, 중군이 돈 얼마, 하군이 돈 얼만. 그 돈 메왕 조합에 돈 바쩐.(그럼 '상군'이 돈 얼마, '중군'이 돈 얼마, '하군'이 돈 얼마. 그 돈 메워서 조합에 돈 바쳤어.) 31 [남원, 신창, 우도, 토평, 표선]

상그랑허다: 베옷 따위가 몸에 붙지 않고 바람이 통하여 시원하다는 뜻이다. // 모신 이거 헤영허게 이제 보민 모시옷, 모시옷 허멍 상그랑헌 거 잇잖아. 그치룩 헌 거.(모시는 이거 하얗게 이제 보면 모시옷, 모시옷 하면서 '상그랑헌' 거 있잖아. 그렇게 한 거.) 25 // 여름에 베옷 잇잖아. 상그랑헌 베옷덜, 엿날에.(여름에 베옷 있잖아. '상그랑'한 베옷들, 옛날에.) 25 [태흥]

상덕: 안덕면 창천리에 있는 군산 꼭대기에 있는 두 개의 돌이다. // 군산에 상덕, 바로 상덕 밑에도.('군산'에 '상덕', 바로 '상덕' 밑에도.) 17 [대평]

상도: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새 부제, 이 부 선생이엔 헌 사름허고 토평 상도 ○○○이, 그 멧 군데베낀 엇일 거여. 일등.(새 부자, 이 부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토평 '상도' ○○○이, 그 몇 군데밖에 없을 거야. 일등.) 31 [토평]

상돌: '돌향로'를 이르는 말로 조천읍 선흘리의 동백동산이 우뚝 솟아 있는 모양을 보고 '상돌동산'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 이제 돌로 영 싸여져서 상돌이 이제, 제ᄉᆞ 앞이 놓는 상돌 어샤게?(이제 돌로 이렇게 쌓여서 '상돌'이 이제, 제사 앞에 놓는 '상돌' 없냐?) 02 [선흘]

상동: 대정읍 구억리 윗동네를 말한다. // 옛날 저 상동 잇일 때는 밧거리도 하신디 사삼사건이 잇어노니까 겨우 사는 집만 지엇어.(옛날 저 '상동' 있을 때는 바깥채도 많았는데 사삼사건이 있으니까 겨우 사는 집만 지었어.) 34 [구억]

상동: 성산읍 온평리의 위쪽 마을이다. // 터베 그 전에는 상동에 한 네 갠가 잇엇고, 하동에도 ᄒᆞᆫ 서너 개 잇엇고.(떼배 그 전에는 '상동'에 한 네 갠가 있었고, '하동'에도 한 서너 개 있었고.) 23 [온평]

상둣동: 대정읍 구억리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 상둣동에서. 거긴 저 쉐막, 쉐막.('상둣동'에서. 거긴 저 외양간, 외양간.) 34 [구억]

상뒤: '상두'는 상여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집을 지을 때 흙질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 서슬 헹 놧다가 흑질허는 날 상뒤가, 그 동네 사름이 다, 그 조합원덜이 다 나오라 가지고서 그 이제 흑질허는 사름은 흑, 특별헌 젊은 사름, 힘 쎈 사름은 흑질을, 흑질을 허고 그 사름을 흑 밧디 든다고 헌다이.(산자 해 놨다가 흙질하는 날 '상뒤'가, 그 동네 사람이 다, 그 조합원들이 다 나와 가지고서 그 이제 흙질하는 사람은 흙, 특별한 젊은 사람, 힘 센 사람은 흙질을, 흙질을 하고 그 사람을 흙밭에 든다고 한다.) 12 // 상뒤허는 사름덜은 상뒤밥은 이제 잘허는 사름덜은 신경 다 쓴덴.('상뒤'하는 사람들은 '상뒤밥'은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신경 다 쓴다고.) 13 // 동네 사름 다 모여근에 허민 흑 물 지는 사름 밥 ᄯᅳ로 또 이제 상뒤, 상뒤 허멍 흑질허는 사름 ᄯᅳ로.(동네 사람 다 모여서 하면 흙 물 지는 사람 밥 따로 또 이제 '상뒤', '상뒤' 하면서 흙질하는 사람 따로.) 25 [삼달, 태흥, 한동]

상뒤: 상여꾼을 줄여서 말한 것이다. // 상뒤덜은 큰 거 주곡 따시 만뒤헤영 모ᄆᆞᆯ허영 만뒤허민 만뒤도 상뒤덜은 네 개, 겡 안허민 세 개 여청덜은 주고.(상여꾼들은 큰 거 주고 다시 만두해서 메밀해서 만두하면 만두도 상여꾼들은 네 개, 그렇지 않으면 세 개 여편네들은 주고.) 13 // 상뒤 빌민 그 사름덜이 다 파근에 헤영 허고 개광 ᄃᆞ룬 사름 또 ᄐᆞ로 잇주게.(상여꾼 빌리면 그 사람들이 다 파서 해서 하고 묘광 다지는 사람 또 따로 있지.) 13 [삼달]

상뒤밥: 집을 지을 때 흙질하는 사람들이 먹는 밥이다. // 상뒤밥이엔 상뒤허는 사름덜 ᄒᆞᆨ질허는 사름덜 상뒤밥을 그건 따시 곤ᄉᆞᆯ이나 놓고 헹 밥헹 멕이고.('상뒤밥'이라고 '상뒤'하는 사람들 흙질하는 사람들 '상뒤밥'을 그건 다시 흰쌀이나 놓고 해서 밥해서 먹이고.) 13 // 상뒤밥이엔 헹 상뒤밥은 특별히, 특별히 허여.('상뒤밥'이라고 해서 '상뒤밥'은 특별히, 특별히 해.) 25 [삼달, 태흥]

상뒤칩: 마을 사람들이 회합(會合)하는 집을 이른다. // 상뒤칩의 가온 비바리, 드르 카온 뒌장 뭣에 씁니까? 옛날엔 상뒤칩 강 오라도 산태걸이ᄒᆞ고, 어느 저를에.('상뒤칩'에 갔다온 처녀, 들에 갔다 온 된장 뭣에 씁니까? 옛날엔 '상뒤칩' 가서 와도 '산태걸이'하고, 어느 겨를에.) 17 [대평]

상ᄃᆞᆯ: 음력 1월을 말한다. 신에게 새로난 곡식을 드리는 10월을 상달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1월이 가장 으뜸이 되는 달이라고 '상ᄃᆞᆯ'이라고 하고 있다. // 상ᄃᆞᆯ이라고 해서 이월달에는 영등 할망인지 하르방인지가 들어노니까 정월 보름 안에. 뒈도록이민.('상ᄃᆞᆯ'이라고 해서 이월 달에는 '영등 할망'인지 할아버지인지가 드니까 정월 보름 안에. 되도록이면.) 03 // 정월은 상ᄃᆞᆯ이라고 그때에 ᄃᆞᆷ지 말앙 묵은

헤 담젠 허민 섣ᄃᆞᆯ 구물어 가민 막 장 ᄃᆞᆷ음들이 난리주.(정월은 '상ᄃᆞᆯ'이라고 그 때 담지 말고 묵은해에 담으려고 하면 섣달 저물어 가면 막 장 담음이 난리지.) 25 [송당, 태흥]

상량: 기둥에 보를 얹고 그 위에 처마 도리와 중도리를 걸고 마지막으로 마룻대를 의미하거나 그것을 올리는 일을 말한다. // 좀 그 저기 저 털 벗겨 가지고 목수가 상량이여 상량이여 상량이여 세 번 딱 ᄒᆞᆯ 때 딱 찍어그넹 그 저기 저 닭을 말이여.(좀 그 저기 저 털 벗겨 가지고 목수가 '상량이여' '상량이여' '상량이여' 세 번 딱 할 때 딱 찍어서 그 저기 저 닭을 말이야.) 27 [웅포]

상ᄆᆞ루: 용마루의 가장 높은 곳을 말하며, '상ᄆᆞ로', '상ᄆᆞ르', '상ᄆᆞ를', '상ᄆᆞᄅᆞ'라고도 한다. // 상ᄆᆞ룰 올려놔사 '서실'ᄒᆞ곡 헤근에 흑질 아녀꽈?('상ᄆᆞ루'를 올려놔야 '서실'하고 해서 흙질 아닙니까?) 07 // 젤 우에 모루 요롷게 헤서 우옛 게 상ᄆᆞ루.(제일 위에 요렇게 해서 위의 것이 '상ᄆᆞ루'.) 24 // 상ᄆᆞ루에서 비스듬히 요건 저 서리 중에 긴 서리.('상ᄆᆞ루'에서 비스듬히 요건 저 서까래 중에 긴 서까래.) 24 [보목, 세화]

상ᄆᆞ르: 용마루의 가장 높은 곳을 말하며, '상ᄆᆞ로', '상ᄆᆞ르', '상ᄆᆞ를'이라고도 한다. // 상ᄆᆞ르 저, 무신 줄 무신 줄 ᄀᆞᆯ아나실 거라.('상ᄆᆞ르' 저, 무슨 줄 무슨 줄 말했을 거야.) 07 // 상ᄆᆞ르 이거 아니라 이거, 이거는 포, 이거는 상ᄆᆞ르.('상ᄆᆞ르' 이거 아니라 이거, 이거는 들보, 이거는 '상ᄆᆞ르'.) 09 // 것도 마찬가지 상ᄆᆞ르도 다 잇어.(것도 마찬가지 '상ᄆᆞ르'도 다 있어.) 16 // 네 칸짜리, ᄉᆞ 칸짜리, 삼 칸 이렇게 헤 가지고 포를 놓고 포 앞으로 그 새는 상ᄆᆞ르 잇고, 그다음은 도리라고 헤 가지고 네 도리 ᄯᅳ로 도리를 놉니다.(네 칸짜리, 사 칸짜리, 삼 칸 이렇게 해 가지고 보를 놓고 보 앞으로 그 사이는 '상ᄆᆞ르' 있고 그다음은 도리라고 해 가지고 네 도리 따로 도리를 놓습니다.) 35 [고산, 대림, 보목, 하원]

상빗: 시루떡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썬 중 가장 큰 것이다. '옆빗'에 빗대서 일정하게 네모난 부분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다. // 영 시리 동글랑헌 거 요 한가운딧 것가 상빗 아냐?(이렇게 시루 동그란 거 요 한가운데 것이 '상빗' 아니냐?) 13 // ᄒᆞᆫ 징에 두 빗썩 나오곡, 이 저 영 상빗은 네 개.(한 켜에 두 '빗'씩 나오고, 이 저 이렇게 '상빗'은 네 개.) 23 // 상빗이 네 개 나오고. 쪼금 족게 허민 다섯 빗 멩글주.('상빗'이 네 개 나오고. 조금 작게 하면 다섯 '빗' 만들지.) 23 [삼달, 온평]

상삐: 행주를 말한다. // 애기 날 때꺼장 무신 ᄀᆞ루 음식이나 먹으민이 애기 이디가 이디 상삐론가 행주로 헤 가민 민작민작 허민, 요즘은 애기 비누로덜 싹 깨끗이 헤 부는디, 그땐 그 애기난 애기라고 비누나 허민 애기 비누도 아니고 눈더레나 비눗물 가카 부덴이.(아기 낳을 때까지 무슨 가루 음식이나 먹으면 아기 여기가 여기 '상삐'로인가 행주로 해 가면 '민작민작' 하면, 요즘은 아기 비누로들 싹 깨끗이 해 버리는데, 그땐 그 아기니까 아기라고 비누나 하면 아기 비누도 아니고 눈으로 비눗물이 갈까 봐.) 06 [남원]

상산: 한라산을 말한다. // 경ᄒᆞ곡 집 짓을 때는 목장이 가근에 상산이 강. 낭 낭 ᄒᆞ면은 낭도 끗어와.(그렇게 하고 집 지을 때는 목장에 가서 '상산'에 가서. 나무 나무 하면 나무도 끌어와.) 16 // 테우엔 ᄒᆞ는디, 치레ᄒᆞᆫ 사름덜은 상산에 강 이 저 구상낭, 구상낭도 그거 저, 전읜 그 낭을 상감덜 ᄒᆞ영 저 뭐 이 못 비게 관릴 덜 해낫수다.(떼라고 하는데, 치레한 사람들은 '상산'에 가서 이 저 구상나무, 구상나무도 그거 저, 전에는 그 나무를 '상감'들 해서 저 뭐 이 못 베게 관리를 덜했었습니다.) 28 [구엄, 하원]

상시ᄆᆞ름: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한 자연 마을 이름이다. // 상시ᄆᆞ름. 근디 그 지역이, ᄒᆞᆫ, 삼키로씩은 다 떨어젼 이렇게 살앗어.('상시ᄆᆞ름'. 그런데 그 지역이, 한, 삼 킬로씩은 다 떨어져서 이렇게 살았어.) 36 [봉성]

상엿계: 장사를 지낼 때 상여를 매고 가는 일을 하기 위한 계를 말한다. // 상엿계 무신에, 상여 ᄒᆞ나 만들어근에 돌아가멍 그, 계허는 거.('상여계' 무슨 에, 상여 하나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그, 계하는 거.) 16 [하원]

상예접: '상예' 즉 '상여(喪輿)'를 마련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꾸린 계를 말한다. 표준어 '상여계'에 해당하는 말이다. // 상예접은 그 저 골마다 장시 나면은 그날 가가지고 장시 지내주고.(상여계는 그 저 골마다 장사 나면 그날 가가지고 장사 지내주고.) 23 [온평]

상웨: '상웨떡'을 말한다. '상웨떡'은 밀가루 따위에 더운물과 막걸리를 조금 넣어 되게 반죽하고서 만두 모양으로 만들고는 더운 방에 두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여 찐 떡이다. // 또 체로 치멍 채 우이 건 허고 체 아래 것만. 경헨 그 쉰다리 물로 ᄆᆞᆯ앙 놔두민 피민 상웨주게.(또 체로 치면서 채 위에 것은 하고 체 아래 것만. 그렇게 해서 그 쉰다리 물로 말아서 놔두면 피면 '상웨떡'이지.) 06 [남원]

상웨떡: '상화떡'에서 온 말로 '밀가루 따위에 더운물과 기주를 조금 넣어 조금 반죽하고서 만두모양으로 만들고는 더운 방에 두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여 찐 떡'을 말하며, 안에 팥으로 만든 소를 넣고 빚기도 한다. '삼메떡'이라고도 한다. // 순다리물에 저 ᄀᆞ루를 버무령 나두민, 무시거 버무려근에 영 ᄆᆞᆯ앙 북싹하게 ᄆᆞᆯ앙, 무시거 더껑 나두민, 이 상웨떡은 여름에 ᄒᆞ는 거난.('순다리물'에 저 가루를 버무려서 놔두면, 뭐 버무려서 이렇게 반죽해서 보각하게 반죽해서, 무엇 덮어놔두면, 이 '상웨떡'은 여름에 하는 거니까.) 15 // 상웨떡 헤낫주게 저 밀ᄀᆞ루헤여근에 무시거 막걸리 놓곡 경 헹 ᄆᆞᆯ앙 놧다근에 부꺼 가거들랑 ᄌᆞᆯ라근에 경 헹 청.(상화떡 했었지 저 밀가루해서 뭐 거 막걸리 놓고, 그렇게 해서 말아서 놓았다가 '부꺼' 가거든 잘라서 그렇게 해서 쪄.) 16 // 엿날은 크게 만들엇어. 지금은 족게 헤도 엿날은 막 크게 만들아. 그것ᄀᆞ라 저 상웨떡이라고 헷주게.(옛날은 크게 만들었어. 지금은 작게 해도 옛날은 막 크게 만들어. 그것더러 저 상화떡이라고 했지.) 18 // ᄑᆞᆺ은 대게 밥에 놩도 먹곡, 떡 허는 디 징이라고 헤 가지고 떡 빗광 빗새이에 놔 가지고 허고, 소곱에 ᄯᅳ로 새미떡이라든지 상웨떡 헐 적에도 놓곡, 이

런 용으로나 써십주.(팥은 대개 밥에 넣어서도 먹고, 떡 하는 데 켜라고 해 가지고 떡 '빗'과 '빗' 사이에 놓아 가지고 하고, 속에 따로 '새미떡'이라든지 '상웨떡' 할 적에도 넣고, 이런 용으로나 썼습지요.) 35 [고산, 고성, 구억, 남원, 대림, 대평, 동광, 보목, 송당, 수망, 신도, 옹포, 세화, 하원, 한동]

상자리: 사람이 앉을 수 있게 돌 따위로 만들어 놓은 대를 말한다. // 그렇게는 안 헤보고 웨정 때에 아버지네가 그 뭐 왕 폭격허민 궤에 강 숨을라고 헤서 우리 어린 때 간 궤에 간 돌로 헨 돌로 상자리 놧어.(그렇게는 안 해보고 왜정 때 아버지네가 그 뭐 와서 폭격하면 굴에 가서 숨으려고 해서 우리 어릴 때 갔던 굴에 가서 돌로 해서 돌로 '상자리' 놨어.) 14 [성읍]

상장틀: 상여의 틀을 말한다. 2개의 장강과 5개의 연춧대로 꾸민다. // 상장틀 메영, 그디 놓앙, 웃둑지에 둘러멩덜 가는 거.(상여틀 매서, 거기 놔서, 어깻죽지에 둘러매서 들 가는 거.) 11 [함덕]

상제신: 상제가 신는 신을 말한다. // 장ᄉᆞ가 낫을 때. 상제신엔 헌 게 잇어. 것이 저 오, 오각엔 헌 건 이 깍을 다섯 개벳긴 안 부찌주게. ᄒᆞᆫ 짝에. ᄒᆞᆫ 짝에 다섯 개씩 부쪄근에 신은 신을 상제가 신는 신이 잇어낫어.(장사가 났을 때. '상제신'이라고 한 게 있어. 것이 저 오, '오각'이라고 한 건 이 총을 다섯 개밖에 안 붙이지. 한 쪽에. 한 쪽에 다섯 개씩 붙여서 신은 신을 상제가 신는 신이 있었었어.) 14 [성읍]

상제질: 상제로서의 맡은 바 구실을 낮추어 하는 말이다. // 찧신ᄒᆞ곡 또 상제질 ᄒᆞᆯ 때 신는 신은 세깍신.(짚신하고 또 상제노릇 할 때 신는 신은 세총신.) 16 [하원]

상ᄌᆞᆷ녜: 작업하는 기량이 뛰어난 해녀를 의미한다. '상군', '상ᄌᆞᆷ수', '왕ᄌᆞᆷ녜', '왕ᄌᆞᆷ수', '큰ᄌᆞᆷ녜', '큰ᄌᆞᆷ수'라고도 한다. // 우미 안 허여. 잘 안 허여. 우미 몰라 올리덜 허긴 헤실 거라. 상ᄌᆞᆷ녜덜, 큰ᄌᆞᆷ녜, 잘 허는 ᄌᆞᆷ녜덜.(우뭇가사리 안 해. 잘 안 해. 우뭇가사리 몰라 올해들 하긴 했을 거야. '상ᄌᆞᆷ녜'들, '큰ᄌᆞᆷ녜', 잘하는 해녀들.) 20 // 열 몇 살 때부터. 게난 공부허렌 헌 건 안 허고게 그냥 그저 바당들에만 들어가곡. 상ᄌᆞᆷ녜게. 상ᄌᆞᆷ녜. (열 몇 살 때부터.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한 건 안 하고 그냥 그저 바다에만 들아가고. '상ᄌᆞᆷ녜'. '상ᄌᆞᆷ녜'.) 27 [고내, 옹포]

상ᄌᆞᆷ수: 물질을 잘하는 상군 해녀를 말한다. // 딱 ᄀᆞᆷ을 놔근에 메역 허치나 허젠 허민 상ᄌᆞᆷ수, 상ᄌᆞᆷ수엔 헌 건 젤 물질 잘허는 사름 특허게 물질허는 사름, 저펜이서 둘, 이펜 바당에서 둘 헤영 딱 가근에 ᄀᆞ사 지내어.(딱 'ᄀᆞᆷ'을 놔서 미역 '허치'나 하려고 하면 '상ᄌᆞᆷ수', '상ᄌᆞᆷ수'라고 하는 것은 제일 물질 잘하는 사람 특별히 물질하는 사람, 저편에서 둘, 이편 바다에서 둘 해서 딱 가서 고사 지내.) 25 [태흥]

상코지: 한경면 신창리 지명의 하나이다. // 이딘 옛날은 신창 상코지, 마리여코지 헤낫주게. 견디 상코지는 이제 축항헤영 오꼿 헤여부난 상코진 엇어지고.(여긴 옛날은 신창 '상코지', '마리여코지' 했었지. 그런데 '상코지'는 이제 축항해서 그만 해버리니까 '상코지'는 없어지고.) 26 [신창]

상클: 나뭇가지가 돋아 벋어 나가서 갈려진 곳으로 '거림팍'이라고도 한다. // 요롷게 상클이 뒌 건데, 나무 요런 나무를 헤다가 밑에다가 요만씩 요만씩 대나무, 왕대나무 깨어근에 부쩌.(요렇게 '상클'이 된 건데, 나무 요런 나무를 해다가 밑에다가 요만큼씩 요만큼씩 대나무, 왕대나무 깨어서 붙여.) 24 [세화]

상퉁이: 상투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묻어 머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 경 허민 상퉁이 뒈쓰지 말앙 그냥 오렌 허민 쉐고젱이 ᄋᆞ정강은에 구덕 바위에 걸엉 쉐고젱이에 끼멍 영 상퉁이 뒈쓰민 그 먹을 빠불어사 헐 거주게이.(그러면 '상퉁이' 뒤집지 말고 그냥 오라고 하면 쇠꼬챙이 가져가서 바구니 바위에 걸어서 쇠꼬챙이에 끼면서 이렇게 '상퉁이' 뒤집으면 그 먹을 빼버려야 할 거지.) 33 [인성]

상호들밧: 안덕면 동광리에 있는 지명이다. // 이디 이노매기 밧 기주게 이디 상호들밧.(여기 이놈이 밭 기지. 여기 '상호들밧'.) 08 [동광]

새: 볏과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띠, 억새 따위가 있다. // 새 사이에 나무 땅땅한 거. 거 엇여 불어사메.(띠 사이에 나무 단단한 거. 그거 없애버려야 돼.) 03 [송당]

새각: 좋지 않은 사악한 기운을 말한다. // ᄐᆞᆨ허게 ᄐᆞ가리 받혀젼 잇언. 새각 비촨 경 허엿젠.(탁하게 턱 받혀져서 있었어. '새각' 비춰서 그렇게 했다고.) 29 [외도]

새각시풀: 풀 이름의 하나이다. // 아니, 그거 말고. 풀에 막 머리 거치 ᄌᆞᆷ진 풀이 잇어, 새각시풀이라 일름이.(아니, 그거 말고. 풀에 아주 머리 같이 가늘고 자잘한 풀이 있어. '새각시풀'이야, 이름이.) 06 [남원]

새감: 땅에 묻은 씨고구마에서 새로이 생기는 고구마이다. // 구감, 구감을 이제 구감을 판찍 아녀여근에 오래 ᄒᆞ여근에 대강은 다 썩어불주게. 줄 나나민 썩어부는디 썩지 안 ᄒᆞ여근에 잘 ᄒᆞ연 건 오래 놔두면 새감이 막 새감저도 막 들어.(해묵은 고구마, 해묵은 고구마를 이제 해묵은 고구마를 깨끗하지 않아서 오래 해서 대강은 다 썩어버리지. 줄기 나나면 썩어버리는 데 썩지 않아서 잘 한 건 오래 놔두면 '새감'이 막 '새감저'도 막 들어.) 08 [구억, 동광]

새감저: 땅에 묻은 씨고구마에서 새로이 생기는 고구마이다. // 새감저도 막 들고 그 구감도 ᄯᅳ시 막 부꺼부꺼 커, 막 부꺼부꺼. 게근에 그것도 ᄉᆞᆲ앙 먹곡 새감저도 시민.('새감저'도 막 들고 그 해묵은 고구마도 다시 막 부풀어부풀어 커, 막 부풀어부풀어. 그래서 그것도 삶아서 먹고 '새감저'도 있으면.) 08 [동광]

새금트름허다: 새콤하고 씁쓸한 맛이 난다는 뜻이다. // 갯ᄂᆞ물짐친 새금트름헌 게 갯내음살 낭 좋아.(갓김친 '새금트름헌' 게 갯냄새 나서 좋아.) 33 [인성]

새껍: 새 줄기나 줄기의 낱개를 일컫는 말이다. // 새껍으로 헤 가지고 너질너질 ᄆᆞ들아서 이레 앚다 놩 그 올르젠 허민 밥도 안 먹고 누에가 알랑 알랑 알랑 허멍 입으로 멩주실이 막 잘잘 나오라가.('새껍'으로 해 가지고 '너질너질' 만들어서 이리 가져다 놓고 그 오르려고 하면 밥도 안 먹고 누에가 '알랑 알랑 알랑' 하면서 입으로 명주실이 막 잘잘 나와 가.) 06 [남원]

새꼴: 꼴의 일종이다. 소세 따위의 꼴을 말한다. '새꿀'이라고도 한다. // 새꼴보다는 감저 꿀을 잘 먹어.('새꼴'보다는 고구마 줄기를 잘 먹어.) 13 // 아니, 저 새꼴, 새꼴은 육십 뭇이 ᄒᆞᆫ 바리.(아니, 저 '새꼴', '새꼴'은 육십 뭇이 한 바리.) 29 // 새꼴 헤영 놔둔 거 멕이곡.('새꼴' 해서 놔둔 거 먹이고.) 29 [삼달, 외도]

새끼훼: 1, 2개월 된 돼지 태를 손질하여 다진 다음에 갖은 양념을 하여 쳐서 만든 촛국이다. // 돗추렴 허민 새끼훼도 허고. 건 잘 ᄆᆞᆺ아 놩 양념 골로로 놩근엥에 물. 물 놓고 초 놓곡 양념장 잘 놓곡 헹 그냥 ᄒᆞᆫ 그릇썩 먹는 거주.(돼지 추렴하면 '새끼훼'도 하고. 그건 잘 마 놓아서 양념 골고루 넣어서 물. 물 넣고 초 넣고 양념장 잘 넣고 해서 그냥 한 그릇씩 먹는 거지.) 01 // 옛날엔이 애기가 배소곱에서 움직영 이상 뒈민 기자 새끼훼나, 뒈지 잡아근에이.(옛날엔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이며 이상 되면 그저 새끼회나, 돼지 잡아서.) 06 // 그런 말 들어낫어. 우리 뒈야지 추렴이나 허영 먹카? 경헌 말 들어낫어게. 경 허영 허믄 그 ᄎᆞᆷ 새끼 밴 도새길 허영 허믄 그 새끼훼는.(그런 말 들었었어. 우리 돼지 추렴이나 해서 먹을까? 그런 말 들었었어.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참 새끼 밴 돼질 해서 하면 그 '새끼회'는.) 29 // 도새기 새끼훼를 헹 먹으민 제일 좋덴 헹 먹으민 막 오장이 시원헌덴 말은 해. 경헌디 그거는.(돼지 '새끼훼'를 해서 먹으면 제일 좋다고 해서 먹으면 아주 오장이 시원하다는 말은 해. 그런데 그거는.) 30 [고내, 고성, 구억, 남원, 노형, 도련, 성읍, 신창, 외도, 월령, 하원, 한동]

새꼴: 꼴의 한 종류이다. // 전부다가 놉 빌어서도 비어 가지고 ᄒᆞᆫ 메칠 말리면은 그거 이제 무꺼 가지고 모두왕 집이 시꺼다근에 딱 눌엇당 눌엇당, 겨울에 빠멍 멕이주. 빠멍 멕이는디 새꼴 ᄒᆞᆫ 두어 번 주면은 제일 양이 많으니까 조짚도 ᄒᆞᆫ 번 주고, 산듸찍도 ᄒᆞᆫ 번 주고.(전부다가 놉 빌려서도 베어 가지고 한 며칠 말리면 그거 이제 묶어 가지고 모여서 집에 실어다가 딱 가리었다가 가리었다가, 겨울에 빼면서 먹이지. 빼면서 먹이는데 '새꼴' 한 두어 번 주면 제일 양이 많으니까 조짚도 한 번 주고, 밭볏짚도 한 번 주고.) 19 [청수]

새나물: 제주시 도련동 지명의 하나이다. // 물인 거 같아. 새나물헌 게. 벤방, 벤방 새 자 놔가지고. 생수니 뭐니 지금 허는데, 내가 생각헐 때는 변방 새 자로 변두리에 잇는 물이라고 헤서 이제 새나물이 아닌가.(물인 거 같아. '새나물'하는 게. 변방, 변방 새 자 놔가지고. 생수니 뭐니 지금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변방 새 자로 변두리에 있는 물이라고 해서 이제 '새나물'이 아닌가.) 01 [도련]

새당: 안덕면 덕수리의 옛 이름이다. // 글씨후제 이제 이 쒜로다가 이 저 철물점에서 멘들앙 ᄑᆞ는 거는 그거 얼마 안 가고 ᄂᆞ실지도 안허여. 새당 보섭이옌 헌 거는 ᄋᆞᆯ에도 칼날ᄀᆞ치 ᄂᆞ실아. 여긴 새당 보섭을 썻는데 새당이엔 헌 디가 덕수리주.(그 이후에 이제 이 쇠로다가 이 저 철물점에서 만들어서 파는 거는 그거 얼마 안 가고 날카롭지도 않아. '새당' 보습이라고 한 거는 옆에도 칼날같이 날카로워. 여긴 '새당' 보습을 썼는데 '새당'이라고 한 데가 덕수리지.) 19 [인성, 청수]

새동네: 대정읍 인성리의 한 지명이다. // 놈의 구루마 빌언에 시껑가젠 허난 시껑가난에 서부락 상사 신 디 강 보난 질르레 밋밋 사름들 막 ᄉᆞ뭇 하영 헌 사름들이난 우린 저 도루묵더레 새동네ᄁᆞ지 가사 그걸 놈의 구루마에 빌언 시껑강 푸게 뒈연.(남의 달구지 빌려서 실어가려고 하니까 실어가니까 서부락 향사 있는 데 가 보니까 길에 '밋밋' 사람들 막 사뭇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우린 저 '도루묵'으로 '새동네'까지 가야 그걸 남의 달구지에 빌려서 실어가서 푸게 되었어.) 33 [인성]

새동네: 안덕면 덕수리의 자연 마을 가운데 하나이다. // 저 새동네엔 헌 디 지금 하나 흔적만 남아 잇는디.(저 '새동네'라고 한 데 지금 하나 흔적만 남아 있는데.) 32 [덕수]

새맞추다: 보통 방아 찧는 사람이 시간을 잘 맞춰 방앗공이가 서로 부딪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노를 저을 때 시간을 잘 맞춰서 젓는 것을 말하고 있다. // 물 거령 짝짝, 물 안 거린 사름은 거 새맞촹 젓어사.(물 떠서 짝짝, 물 안 뜬 사람은 그거 '새맞춰'서 저어야.) 13 [삼달]

새물: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물 이름이다. // 물도, 수둣물도 엇곡 어디 쉐 멕이는 물에나 새물에나 가사.(물도, 수돗물도 없고 어디 소 먹이는 물에나 '새물'에나 가야.) 26 [신창]

새미: 메밀가루나 쌀가루 따위를 반죽해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안에 팥소 들을 넣어 접어서 솥에서 찌거나 삶아낸 떡이다. // 이딘 곤떡 허고, 주로 제ᄉᆞ때 허는 거는 그 셍펜허고 새미허고 친떡허고 지름떡허고.(여긴 흰떡 하고, 주로 제사 때 하는 거는 그 송편하고 '새미'하고 시루떡하고 기름떡하고.) 02 // 떡도 헹 먹고 산뒤로 떡도 헤여근에 크게 ᄎᆞ리는 딘 시리 앚졍 시리떡을 치곡 크게 안 허는 딘 새미 ᄌᆞᆸ으나 송펜을 ᄌᆞᆸ으나 허영 먹고 경 허주게.(떡도 해서 먹고 밭벼로 떡도 해서 크게 차리는 덴 시루에 안쳐서 시루떡을 찌고 크게 안 하는 덴 '새미' 접거나 송편을 접거나 해서 먹고 그렇게 하지.) 33 [구엄, 선흘, 인성]

새미떡: 메밀가루를 익반죽하여 둥근 사발로 모양을 떠서 가운데 팥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접어 눌러준 다음 삶아 찬물에 헹궈 참기름을 바른 떡이다. // 새미떡은 ᄆᆞ멀ᄊᆞᆯ로 새미떡 ᄒᆞ는 거고, 송펜은 곤ᄊᆞᆯ로 ᄒᆞ는 거고.('새미떡'은 메밀쌀로 '새미떡' 하는 거고, 송편은 흰쌀로 하는 거고.) 17 // 새미떡은게 곤ᄊᆞᆯ 물 ᄃᆞᆼ강 ᄀᆞᆯ아당 반죽 막 쪙 송편 허듯이 그 저 새미는 요추룩 헌 거 안반 큰 거 셔낫수다.('새미떡'은요 흰쌀 물 담가서 갈아다가 반죽 마구 쪄서 송편 하듯이 그 저 '새미'는 요처럼 한 거 안반 큰 거 있었습니다.) 34 // ᄑᆞᆺ은 대게 밥에 놩도 먹곡, 떡 허는 디 징이라고 헤 가지고 떡 빗광 빗 세이에 놔 가지고 허고, 소곱에 ᄯᅳ로 새미떡이라든지 상웨떡헐 적에도 놓곡, 이런 용으로나 써십주.(팥은 대개 밥에 넣어서도 먹고, 떡 하는 데 켜라고 해 가지고 떡 '빗'과 '빗' 사이에 놓아 가지고 하고, 속에 따로 '새미떡'이라든지 '상웨떡' 할 적에도 넣고, 이런 용으로나 썼습지요.) 35 // 그거는 저 새미떡이엔 헙니다. 사미떡. 그 쏘곱에 저 뭐 ᄑᆞᆺ이나 이제 무

나 놔근에 ᄆᆞ몰로 멘드는 건, 건 새미떡.(그거는 저 '새미떡'이라고 합니다. '사미떡'. 그 속에 저 뭐 팥이나, 이제 무나 넣어서 메밀로 만드는 건, 건 '새미떡'.) 36 [고산, 구억, 대림, 대평, 봉성, 송당, 신도, 월령]

새미물: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단산 앞의 산물 이름이다. // 인성은 죽은물이난에 ᄀᆞ물민 먹는 물도 엇어져 불어. 게민 인성 사름덜은 이제 단산에 새미물이엔 헌 거 것강 질어당 먹곡.(인성은 '죽은물'이니까 가물면 먹는 물도 없어져 버려. 그러면 인성 사람들은 이제 단산에 '새미물'이라고 한 거 그거 가서 길어다 먹고.) 33 [인성]

새미오름: 구좌읍 송당리의 오름 이름이다. // 우리가 평상시에 부르는 건 그자 새미오름, 올호래기 영 헙니다.(우리가 평상시에 부르는 건 그저 '새미오름', '올호래기' 이렇게 합니다.) 03 [송당]

새벡국: 명절날 아침 새벽에 조상들을 위해 일찍이 해 놓는 음식이다. // 새벡이 일찍 허는 거난 새벡국.(새벽에 일찍 하는 거니까 '새벡국'.) 03 [송당]

새벨오름: 애월읍 봉성리 평화로변에 있는 오름이다. // 이 저 새벨오름 들불축제 때 막 강 구젱기 궈 놓으믄, 이건 수커여, 암커여.(이 저 '새벨오름' 들불축제 때 마구 가서 소라 구워 놓으면, 이건 수컷이야, 암컷이야.) 35 // 저 새벨오름 물도 글로 갈려져마씨.(저 '새벨오름' 물도 거기로 갈라져요.) 35 [대림]

새별오름: 애월읍 봉성리 평화로변의 시온목장 남서쪽에 있는 오름이다. 달리 '새벨오름'이라고 한다. // 새별오름, 검은오름. 우리가 걸어서 다 뎅겻지, 엿날에.('새별오름', '검은오름', 우리가 걸어서 다 다녔지, 옛날에.) 20 // 저 우트레 올라가면 저 돌. 이달봉. 새별오름.(저 위로 올라가면 저 돌. '이달봉'. '새별오름'.) 36 [고내, 봉성]

새서악: 구좌읍 송당리의 지명 중 하나이다. '새스모루'라고도 한다. // 새서악이렌 허는 디 그디 신남궤물이 나는 디가 이수다. 그 물이 시방도 나 마씀.('새서악'이락 하는데 그 곳에 '신남궤물'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물이 '시방'도 납니다.) 03 [송당]

새쉐: 길들이지 않은 부룩소를 가리킨다. 달리 '새송에기'라고도 한다. // 새쉐엔 헌 건 처음 길들이기 시작허는 게 새쉐, 새쉐 ᄀᆞ리친덴 허주.('새쉐'라고 한 건 처음 길들이기 시작하는 게 '새쉐', '새쉐' 가르친다고 하지.) 14 // 고지 수정을 세당 잠대 ᄀᆞ져당 떡 허게 매엉 겡 헤영 졸졸졸졸 헤가민 아이고 이거 뭘로구나 헹은에 이거 나도 새쉐 ᄀᆞ르쳐 가지고 돈 꿰 하영 벌엇수다. 근데 새송에기 사다근에 그쟈 ᄒᆞ루 튀왕은에 밧 가는 걸로 헤영은 ᄑᆞᆯ아먹어으니까.(이랑 수를 세다가 쟁기 가져다가 떡 하게 매어서 그렇게 해서 졸졸졸졸 해가면 아이고 이거 되겠구나 해서 나도 '새쉐' 가르쳐 가지고 돈 꽤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새송아지' 사다가 그저 하루 띄워서 밭가는 걸로 해서 팔아먹었으니까.) 19 [성읍, 청수]

새스모루: 구좌읍 송당리의 지명이다. '새서악'이라고도 한다. // 새스모루. 반달형으로 뒈

어 있기 때문에 그 뭐 한자로 헹, 지는 ᄃᆞᆯ이라.('새스모루'. 반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뭐 한자로 해서, 지는 달이라.) 03 [송당]

새신오름: 한경면 청수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 북쪽으로. 동쪽으로는 저 한경면 이제 그게 새신오름.(북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저 한경면 이제 그게 '새신오름'.) 18 [신도]

새왓: 띠밭을 말하며 지붕을 일 띠가 자라는 밭을 말한다. // 보필벵이라고, 궷드르라고 헤가지고 궷드르, 그 저 궷드르, 그 보통 많이 목초도 비레 가고, 새왓도 허고 그 궷드르 지형에 가서.('보필벵'이라고, '궷드르'라고 해서 '궷드르', 그 저 '궷드르', 그 보통 많이 목초도 베러 가고, '새왓'도 하고 그 '궷드르' 지경에 가서.) 거기 강 새왓도 허고예.(거기 가서 '새왓'도 하고요.) 21 // 모지레고 그거 보충허레 막 그 새왓 엇인 사름덜은 그디 강 비어 와나고 저 당모오름에도 강 ᄒᆞ꼼 비여 와나고.(모자라고 그거 보충하러 마구 그 '새왓' 없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베어 왔었고 저 '당모오름'에도 가서 조금 베어 왔었고.) 26 // 경허단 또 산디 ᄇᆞᆯ르레 또 가 불어. 큰 새왓디, 또 가 불언.(그렇게 하다가 또 밭벼 밟으라고 또 가 버려. 큰 '새왓'에, 또 가 버렸어.) 30 // 부제칩인 이녁 새왓 잇수게.(부잣집은 자기 '새왓' 있어요.) 31 [노형, 신창, 신촌, 토평]

새원: 한경면 신창리의 '원담' 이름이다. // 저 둔말원, 새원, 이제 멍게원, 진원 경 셔낫주.(저 '둔말원', '새원', 이제 '멍게원', '진원' 그렇게 있었지.) 26 [신창]

새철: 입춘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보릿발이 마르민 비가 잘 오고, 보릿발이 화나민 비가 잘 안 온덴 헤서. 그리고 새철 들인 날은 이. 어떤 집에 가지 말아야 뒈주게.(보릿발이 마르면 비가 잘 오고, 보릿발이 화나면 비가 잘 안 온다고 했어. 그리고 '새철' 들인 날은. 어떤 집에 가지 말아야 되지.) 18 [신도]

새철드는날: 입춘을 말한다. 24절기 중 첫째 절기인 입춘을 새로운 절기가 들어오는 날로 보는 것이다. // 몰라, 어떵사 헌디 경 ᄀᆞᆯ아. 새철드는날 여ᄌᆞ ᄂᆞᆷ의 집이 가지 말렌.(몰라,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말해. '새철드는날' 여자 남의 집에 가지 말라고.) 02 [선흘]

새풀이: 사(邪)를 풀어내는 굿 의례이다. // 저 아이들이나 아팡은에 새풀이라도 허젠 허민 짚가지에 칼을 찔렁 헌덴 헤낫주게.(저 아이들이나 아파서 '새풀이'라도 하려고 하면 짚가지에 칼을 찔러서 한다고 했었지.) 03 [송당]

색색말축: 메뚜기의 한 종류이다. // 애긴 빽빽 울곡 보리 와삭와삭허고 색, 색색말축은 색색허곡, 어느.(아긴 빽빽 울고 보리 와삭와삭하고 색, '색색말축'은 색색하고, 어느.) 29 // 말축이엔 헌 건디 그 물말축 말고 색색 헌 말축, 건 막 맛잇넨.(메뚜기라고 하는 건데 그 띠무늬메뚜기 말고 색색 한 메뚜기, 건 아주 맛있다고.) 색색말축게.('색색말축'.) 30 [노형, 외도]

샘물벵디: 애월읍 중엄리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 게고 저 샘물벵디옌 ᄒᆞ영 그 중엄 물 저 이제도 물 큰 물이 남수다게.(그리고 저 '샘물벵디'라고 해서 그 '중엄' 물 저

이제도 물 큰 물이 나고 있습니다.) 28 [구엄]

샛놀: 동쪽에서 부는 샛바람에 이는 파도를 말한다. '놀'은 너울을 가리킨다. // 바당에 풍조가 바람을, 바람 쎄면은 샛놀 불어 나면은 바당에 막 풍조가 막 허게 올라오주게.(바다에 풍조가 바람을, 바람 세면 '샛놀' 불고 나면 바다에 마구 풍조가 많이 올라오지.) 12 // 샛놀 불어 나민이 감태가 올라와서 그걸 각자가 주워다가 자기 만썩 ᄆᆞᆯ류와서 지금도 이제 ᄑᆞᆫ다.('샛놀' 불고 나면 감태가 올라와서 그걸 각자가 주워다가 자기만씩 말려서 지금도 이제 판다.) 12 [한동]

샛담: 밭과 밭 사이에 쌓여 있는 담을 가리킨다. // 무신 초석이영 가멩텡이영 앗단에이 틈틈이 놩, 거 ᄒᆞᆫ디 어울령 놓지 안허고 틈틈이 놩 걸 더껑은에. 샛담 이시난 탁탁 올려놘. 경허난 하영 안 젖엇더라.(무슨 초석이랑 가마니랑 가져다가 틈틈이 놔서, 거 같이 어울려서 놓지 않고 틈틈이 놔서 걸 덮어서. '샛담' 있으니까 탁탁 올려놨어. 그러니까 많이 안 젖었더라.) 30 [노형]

생기리: 일본어 'せんぎり'에서 온 말로 주로 무말랭이를 의미한다. // 게나저나 옛날은 자리가, 자리가 최고. 자리도 먹곡, 생기리도 헹 먹고 헷주게.(그나저나 옛날은 자리가, 자리가 최고. 자리도 먹고, '생기리'도 해서 먹고 했지.) 18 [신도]

생깃동산: 제주향교가 있는 지경의 동산 이름이다. '생기'는 향교를 말한다. 제보자는 '상굣동산'이라고도 하였다. // 생깃동산 그 아래 그 옛날 둥글락헌 물통. 두레박으로 영 물 떵.('생깃동산' 그 아래 그 옛날 둥근 물통.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 떠서.) 29 [외도]

생동산: 성산읍 온평리의 지명의 하나이다. // 예를 들엉 말허면은 요건 생동산.(예를 들어서 말하면 요건 '생동산'.) 23 [온평]

생바리: 불이 잘 붙지 않고 잘 안 구워진 숯을 말한다. '냉바리'라고도 한다. // 또 덜 부떳다 ᄒᆞ믄 생바리 나, 생바리옌 ᄒᆞ주, 잘 안 부뜬 거. 경 ᄒᆞ영 생바리 엇이 ᄒᆞ젠 ᄒᆞ믄 불을 잘 피와사 ᄒᆞᆫ다 ᄒᆞ여. 경 ᄒᆞ영 숫덜을 굽니다, 보통 여기서.(또 덜 붙었다 하면 '생바리' 나, '생바리'라고 하지, 잘 안 붙은 거. 그렇게 해서 '생바리' 없게 하려고 하면 불을 잘 피워야 한다 해. 그렇게 해서 숯들을 굽니다, 보통 여기서.) 28 [구엄]

생밧: 한 번도 일구어 보지 않은 들판의 밭을 말한다. // 거는 홈 이렇게 생밧 뒈게시리 이렇게 그믓만 긋주, 그믓만 긋어.(거는 홈 이렇게 '생밧' 되게끔 이렇게 금만 긋지, 금만 그어.) 12 [한동]

생부룽이: 길들이지 않은 부룩소를 말한다. 달리 '생쉐'라고도 한다. // 쉐뿔에 감앙예? 예. 으, 겅 허영은에 이제 헤고. 그 질, 게난 ᄀᆞ리치지 안 헹은에 질들이지 않은 쉐, 그 쉐는 뭐렌 ᄀᆞᆯ아마씨?(소뿔에 감아서요? 예. 으,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 길, 그러니까 가르치지 안 해서 길들이기 않은 소, 그 소는 뭐라고 말해요?) 생부룽이, 생부룽이.('생부룽이', '생부룽이'.) 생쉐.('생쉐'.) 생쉐.('생쉐'.) 29 [외도]

생이궤: 표선면 성읍1리 지경에 있는 자연동굴의 하나이다. // 이 동네는 궤들이, 세 개.

아니 생이궤ᄁᆞ지 네 개 잇엇구나.(이 동네는 동굴들이, 세 개, 아니 '생이궤'까지 네 개 있었구나.) 14 [성읍]

생이오름: 제주시 연동에 있는 오름이다. '상여오름'이라고도 한다. // 우린 생이오름만 쭉 비어. 촐밧, 생이오름.(우린 '생이오름'만 쭉 베어. 꼴밭, '생이오름'.) 30 [노형]

생이왓: 나무가 심어진 조그만 임야를 말한다. // 생이왓 이신 사름덜은 자기 소낭 ᄀᆞ뜬 거 잇는 디서 솔잎 ᄀᆞ뜬 거 허영 오면은 보릿대를 덜 헤 가지고 넣지만은 경 못헌 사름은 다 보릿대로 땔감을 삼아십주기.('생이왓'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소나무 같은 거 있는 데서 솔잎 같은 거 해서 오면은 보릿대를 덜 해 가지고 넣지만은 그렇게 못한 사람은 다 보릿대로 땔감을 삼았습지요.) 35 [대림]

생이족박: 박과의 한해살이풀로 '새박'의 제주어이다. // 하수엔 헹 그 생이족박 뿔리가 잇저게.('하수'라고 해서 그 새박 뿌리가 있어.) 02 [선흘]

생이테기: 새를 잡을 때 사용하는 덫이다. 활대에 그물을 장치하고 노끈으로 잡아당겨서 그물 안에 새가 걸려들게 만든 기구이다. // 생이테기 요렇게 헤영 만들어 가지고.('생이테기' 요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23 [온평]

생이퉤기: 새를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활대에 그물을 장치하고 노끈으로 잡아당겨서 그물 안에 새가 걸려들게 만든 기구이다. // 생이 오랑 그 고고리 톡 ᄐᆞᆯ아 먹젠 허당 보민 걸려졍 잡아, 생이퉤기.(새 와서 그 이삭을 톡 뜯어 먹으려고 하다 보면 걸려서 잡아, '생이퉤기'.) 13 [삼달]

생잇방석: 탕건을 결을 때 가운데 부분의 둥근 모양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 그 모ᄌᆞᆫ 안 ᄌᆞᆯ아봐신디 모자 그거 ᄌᆞᆯ아, 탕근이 요만인 헌 거 모자 거세기 탕근치룩 허영 톡 씌왕은에 그것에 처음엔 그 탕근 영헌 가운디 헤영 허믄 생잇방석, 생잇방석이엔 ᄀᆞᆯ아난게.(그 모잔 안 결어봤는데 모자 그거 결어, 탕건이 요만큼 한 거 모자 거시기 탕건처럼 해서 톡 씌워서 그것에 처음엔 그 탕건 이런 가운데 해서 하면 '생잇방석', '생잇방석'이라고 말했었어.) 29 [외도]

생차: 날것 그대로를 말한다. // 건 소죽이엔 헹은에이 겐디 우리는 경 육지 사람 경허주기 게이. 저을들민 막, 그 우리는 생차 막 주는데 육지 강 보난에 큰솟데.(건 소죽이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육지 사람 그렇지. 겨울 들면 마구, 그 우리는 '생차' 마구 주는데 육지 가서 보니까 큰솥에.) 30 [노형]

생효: 서귀포시 상효동을 말한다. // 팔천 원 받안 그 돈을 이제 ᄂᆞᆷ 주멍, 생효 사름, ᄂᆞ물 장시허는 사름 줫단 이제 원뎅이도 못 받안 내벳저게.(팔천 원 받아서 그 돈을 이제 남 주면서, 상효 사람, 나물 장사하는 사람 줬다가 이제 원전도 못 받아서 내버렸어.) 31 // 우리 생효 저 제수장 잇저. 이젠 그 제수장도 엇어졋저만은.(우리 상효 저 저수장 있어. 이젠 그 저수장도 없어졌지만.) 31 [토평]

샤쿠: 일본어 'しゃく'로 국자를 말한다. // 이젠 샤쿠, 다 걸이는 거 나오주마는 것가 어디서, 낭국자.(이젠 국자, 다 뜨는 거 나오지만 그것이 어디 있어, 나무국자.) 24 // 빙떡 헐 때 모믈ᄀᆞ루를 막 ᄯᆞ려놩 국 끌려 먹는 샤쿠 잇잖아. 우리 국 끌려

먹는 영. 그걸로 쪼끔 거려근에 크게 허젠 허민 하영 거리곡, 족게 허젠 허민 족게 거리곡 헤영.('빙떡' 할 때 메밀가루를 막 때려놔서 국 끓여 먹는 국자 있잖아. 우리 국 끓여 먹는 이렇게. 그걸로 조금 떠서 크게 하려고 하면 많이 뜨고, 작게 하려고 하면 작게 뜨고 해서.) 25 [세화, 태흥]

서궁궤: 성산읍 온평리에 있는 굴 이름이다. '서궁궤굴'이라고 한다. // 서궁궤는 이건 바위로 이렇게 이건 그디 가면 우에는 다 바위로 뒈어 잇는데 이 구멍이 이렇게 뚤리고 이쪽을 뚤벗는데 이 길이 사람이 이렇게 서면은 즉각 가지고 그 안네는 물이 막 바당물처럼 있어.('서궁궤'는 이건 바위로 이렇게 이건 거기 가면 위에는 다 바위로 되어 있는데 이 구멍이 이렇게 뚫리고 이쪽을 뚫었는데 이 길이 사람이 이렇게 서면 즉각 가지고 그 안에는 물이 막 바닷물처럼 있어.) 23 [온평]

서궁궤굴: 성산읍 온평리에 있는 굴 이름이다. // 바위 굴덜 조그만헌 굴덜은 여라 곤데가 잇는데, 서 지금 서궁궤굴도 이제 봉헤 가지고 그디 표시만 헷지.(바위 동굴들 조그마한 동굴들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서 지금 '서궁궤굴'도 이제 봉해 가지고 거기 표시만 했지.) 23 [온평]

서끄다: 나무를 깎아 무엇을 만드는 것으로, '잠대 서끄다'처럼 쓰여서 '쟁기의 부분 부분을 맞춰 하나로 만들다'의 의미이다. // 거 쟁기 만드는 걸 쟁기 서끈덴 허주.(거 쟁기 만드는 걸 쟁기 '서끈다'고 하지.) 12 // 요것도 허는 서끄는 기술자도 흔 부락에 흔 사름 두 사름벳기 없어.(요것도 하는 '서끄는' 기술자도 한 부락에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 23 // 그 사름덜이 뭐 한디 갓으면 요런 걸 알지만은 그런 거 잠대 서끄레 가민 요거 서꺼 줍서.(그 사람들이 뭐 하는데 갔으면 요런 걸 알지만은 그런 거 쟁기 '서끄레' 가면 요거 '서꺼' 주십시오.) 23 [온평, 한동]

서녁집: 서쪽 울타리 밖에 있는 남의 집을 말한다. // ᄉᆞ무실 그 저 서녁집마씸게.(사무실 그 저 '서녁집'이요.) 32 [덕수]

서도테기: 석 되 정도의 밥을 할 수 있는 크기의 솥을 말한다. // 웅졸레기는 제일 적은 솟. 서도테기는 그 다음.(웅달솥은 제일 작은 솥. '서도테기'는 그 다음.) 19 [청수]

서두테기: 쌀 석 되 드는 크기의 솥을 말한다. '서도테기'라고도 한다. // 두 뒈들이 서두테기 석 뒈들이.(두 되들이 '서두테기' 석 되들이.) 32 [덕수]

서드럭: 돌무더기와 잡초와 나무가 얼크러진 곳을 말한다. '설드럭', '설덕'이라고도 한다. // 게난 그 머세는 사람이 갈아 먹을 수도 잇지만, 돌 서드럭은 건 못 갈아 먹는 거지게.(그러니까 그 '머세'는 사람이 갈아 먹을 수도 있지만, 돌 '서드럭'은 그건 못 갈아 먹는 거지.) 12 [한동]

서들: 나무가 자라는 돌무더기를 말하는 것이다. // 서들, 서들에 구럼페기낭이여. 그 냄새 막 그 낭은 냄새가 궹장히 나.('서들', '서들'에 까마귀쪽나무다. 그 냄새 매우 그 나무는 냄새가 굉장히 나.) 05 [표선]

서들: 대정읍 인성리의 지명 중 하나이다. // 대정골 지경 서들이렌 헌 디 가민 흔 사흘 셔

사 온덴 허난, 아이고 게민 어떵 허리 허연이 우리 셋년ᄀᆞ라 감절 막 메와 노렌 헹 나뒀주게.(‘대정골’ 지경 ‘서들’이라고 한 데 가면 한 사흘 있어야 온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리 해서 우리 둘째딸보고 고구말 막 모아 놓으라고 해서 놔뒀지.) 33 [인성]

서들기: 나무의 가지나 줄기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동백낭 오늘 그창은에 놓민 이파리 영허영 안 뒈어. 그창 ᄒᆞᆫ 이틀 뒈민 이파리가 영 웅크리민 저디 동백낭 저런 서들기 그쳐당 구들 하나 잔뜩 놓으민 차롱착에 가근에 픽픽 던졍 놔두민 고치 낭 위에 올라근에 헤영케 고치가 열어.(동백나무 오늘 잘라서 놓으면 이파리 이렇게 해서 안 돼. 잘라서 한 이틀 되면 이파리가 이렇게 웅크리면 저기 동백나무 저런 ‘서들기’ 잘라다가 방 하나 가득 놓으면 채롱에 가서 픽픽 던져서 놔두면 고치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얗게 고치가 열려.) 33 [인성]

서렝이: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돌이나 나무 따위로 만든 도구이다. // 요 쉐 ᄀᆞ르치젱 허믄 이디서 쉐 서렝이영 허영.(요 소 가르치려고 하면 여기서 소 ‘서렝이’라고 해서.) 28 [구엄]

서리: 서까래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서까래는 이거 영 뭣ᄀᆞ라 서까래라 허는디. 서리. 서리.(서까래는 이거 이렇게 무엇더러 서까래라 하는데. ‘서리’. ‘서리’.) 18 [신도]

서리눈: 한경면 청수리의 자연 마을 이름이다. // 이제 게난 저 ○○이신디 ᄑᆞᆯ앙 놔두난 ○○인 어디 저 어디 서리눈 ᄑᆞᆯ안에 우리집 ᄯᆞᆯ 말이 서리눈 십디덴, 우리 줴끼젠 ᄒᆞ난 쉐가 막 ᄌᆞ들인 셍이라.(이제 그러니까 저 완준이한테 팔아서 놔두니까 완준인 어디 저 어디 ‘서리눈’ 팔아서 우리 집 딸 말이 ‘서리눈’ 있었다고, 우리 쫓기려고 하니까 소가 아주 걱정시킨 모양이야.) 19 [청수]

서말떼기: 서 말어치의 밥을 할 수 있는 솥이다. ‘서말치’라고도 한다. // 말 두 뒈가웃 허는 건 서말떼기. 큰 솟 서말떼기.(말 두 되가웃 하는 건 ‘서말떼기’. 큰 솥 ‘서말떼기’.) 14 [성읍]

서머리: 우도면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 저녁 때 그디 가서 어디 가서 이제 메어 두엇다가 또 아침이 또 나가, 게서 이제 메날 아침 저녁 반복이라. 경 헨 ᄒᆞ다가 농삿때가 뒈면 ᄋᆞ, 이제 밤이 심지어는 저 서머리 서머리.(저녁 때 거기 가서 어디 가서 이제 매어 두었다가 또 아침에 또 나가, 그래서 이제 맨날 아침 저녁 반복이야. 그렇게 해서 하다가 농사 때가 되면 오, 이제 밤에 심지어는 저 ‘서머리’ ‘서머리.’) 22 // 서머리 산에 가근에 소를 아이 키왓는데 저 동착녁 사름덜.(‘서머리’ 산에 가서 소를 아니 키웠는데 저 ‘동착녘’ 사람들.) 22 [우도]

서먹다: 팔월 되면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고구마 먼저 먹는다는 뜻이므로 ‘서파먹다’와 비슷하게 쓰였다. // 감저는 인칙 놓민 인칙 드는 거난 건 그자 보리 ᄀᆞ슬허기 전이 ᄒᆞ꼼 서먹젠이 엿날엔 서먹음, 서먹음허는 게 이 팔월 나가민 먹을 것이 떨어지난 감저 먼저 파먹어이.(고구마는 일찍 놓으면 일찍 드는 거니까 그건 그저 보

리 수확하기 전에 조금 '서먹젠' 옛날엔 '서먹음', '서먹음'하는 게 이 팔월 나가면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고구마 먼저 파먹어.) 25 [태흥]

서모: 조천읍 함덕리의 서우봉을 말한다. '서무', '서무오름', '서무봉'이라고도 한다. // 큰사슴은 서모 앞이.('큰사슴'은 '서모' 앞에.) 11 [함덕]

서모관: 제주시 서쪽 지역인 조천읍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탕건을 만들 때 필요한 말총을 사갔다고 한다. // 물ᄀᆞ레 시민 물ᄀᆞ레서 하나씩 심으멍 물 갈기 비곡 목장에 올려살 거난이 갈기 비곡 꽁지 비곡 그추룩 헤영 조박조박 무껑 놔두민 저 서모관 사름덜 오랑 받아 가.(연자매 있으면 연자매에서 하나씩 잡으면서 말 갈기 베고 목장에 올려야 할 거니까 갈기 베고 꼬리 베고 그처럼 해서 '조박조박' 묶어서 놔두면 저 '서모관' 사람들 와서 받아 가.) 33 [인성]

서모살왓: 한림읍에 있는 모래밭 중의 하나이다. 서모가 본처의 자식을 살해해서 매장했던 곳이라는 유래가 있다. 이 장소에서 주민들의 경우 장사가 나면 가매장도 하고 옹포, 협재 청년들의 씨름 장소로 활용했다고 한다. // 그래 가지고 거기 협재에서도 그 우에 모살밧에서도 많이 묻고 옹포에서 온 거는 서모살왓에서 많이 묻고 이렇게 헤 가지고 헷다는 말을 내가 좀 들엇주게.(그래 가지고 거기 협재에서도 그 위에 모래밭에서도 많이 묻고 옹포에서 온 거는 '서모살왓'에서 많이 묻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는 말을 내가 좀 들었지.) 27 [옹포]

서모커리: 서쪽으로 난 곁채를 말한다. // 대개 서모커리를 부억을 헤요. 동모커리, 서모커리는 소막을 아녀거든. 웨.(대개 '서모커리'를 부엌을 해요. '동모커리', '서곁채'는 소외양간을 않거든. 왜.) 14 [성읍]

서목장: 표선면 성읍리 마을 서쪽에 있는 목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 서목장은 목장 조합원이 처음은 우리가 처음 목장 설립헐 땐 한 사십 명 허단에 나이 돌아가실 분 돌아가셔불고 뭘 헤가단 ᄎᆞᄎᆞ 허단 젤 내중엔 ᄒᆞᆫ 십오 명쯤 뒈어나신디.('서목장'은 목장 조합원이 처음은 우리가 처음 목장 설립할 땐 한 사십 명 하다가 나이 돌아가실 분 돌아가셔버리고 뭘 해가다가 차차 하다가 젤 나중엔 한 십오 명쯤 되었었는데.) 14 [성읍]

서무오름: 조천읍 함덕리의 서우봉을 말한다. '서무', '서모', '서무오름', '서무봉'이라고도 한다. // 두린 때부터 듣는 말이 서무오름, 서무오름 허여.(어린 때부터 듣는 말이 '서무오름', '서무오름' 해.) 11 [함덕]

서문통: 제주서문시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명으로, 옛 제주읍성의 서문(西門)이 있었던 거리를 가리킨다. // 저 제주시에 저, 저 그 집이 고치 좋넨 허여근에 그 서문통 시장 안에 강 우린 사단 먹엇주만은.(저 제주시에 저, 저 그 집에 고추 좋다고 해서 그 서문통 시장 안에 가서 우린 사다가 먹었지만.) 26 // 무시거 막 헤봣자 돈 얼마 아이뒈고 허난, 애월장에 강 졍 강 풀아오고 저 서문통 제주차보ᄁᆞ지 져 강, 제주차보 엿날은 졍 강은에.(무엇 마구 해봤자 돈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애월장'에 가서 져서 가서 팔아오고 저 '서문통' 제주차고까지 져 가서, 제주차고

옛날은 져서 가서.) 28 // 가반 들런 오단 그때 나 막 몸 아판 올 때난 가반은 그 지게꾼 빌언 지연 오단에 서문통 오란 그 느네 ᄉᆞ춘 오빠네.(가방 들고 오다가 그때 내가 아주 몸 아파서 올 때니까 가방은 그 지게꾼 빌려서 지고 오다가 서문통 와서 그 너희 사촌 오빠네.) 30 [구엄, 노형, 신창]

서물: 음력 열 하루와 스무 엿샛날의 조수(潮水)이다. // 바짝 뭐 서물, 너물 날은 안 내려가는디 ᄋᆞ섯 일곱물 날 뒈가면은.(바짝 뭐 '서물', '너물' 날은 안 내려가는데 여섯 일곱물 날 되가면.) 09 [고산]

서미역: 진드기를 이르는 말로 작은 것은 '서미역', 큰 것은 '부그리'라고 한다. // 이젠 옛날엔 그 목장에 뎅겨나민 서미역이엔 헌 거 이서, 소 부그리 닮은 거. 이런 데 올랑인에 막 ᄀᆞ리왕 보민 빼끄랑케 먹엉 싯곡, 이젠 그런 벌거지가 엇어.(이젠 옛날엔 그 목장에 다녀오면 '서미역'이라고 한 거 있어, 소 '부그리' 같은 거. 이런 데 올라서 막 가려워서 보면 빵빵하게 먹어서 있고, 이젠 그런 벌레가 없어.) 33 [인성]

서부두: 제주시 건입동 해변에 있는 부두를 말한다. // 게믄 그거 드는 항이 엇엉 담다근에 서부두에 강, ○○ 소개로이, 큰 항 사다근에.(그럼 그거 드는 항아리가 없어서 담다가 서부두에 가서, ○○ 소개로, 큰 항아리 사다가.) 30 [노형]

서부락: 안덕면 덕수리의 자연 마을 이름이다. // 서부락은 송칩이가 하고.('서부락'은 송씨 집안이 많고.) 32 [덕수]

서성동: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한 자연 마을이다. // 어도 일구 그렇주. 그 저, 그 중간에에 저 서성동이 잇고, 동대동이 잇고, 중화동이 잇고, 구멀동이 잇고.(어도일구 그렇지. 그 저, 그 중간에 에 저 '서성동'이 있고, '동대동'이 있고, '중화동'이 있고, '구멀동'이 있고.) 36 [봉성]

서숙: 표준어 '서속'에 대응하는 말로, 조와 기장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제주에서는 주로 조를 일컬을 때 사용한다. // 젤 처음엔 보리로부터 시작, 보리 서숙 다음엔 유채 요거 나오기 시작헤서.(젤 처음엔 보리로부터 시작, 보리 서속 다음엔 유채 요거 나오기 시작해서.) 23 // 조를 서숙이엔 허주, 서숙.(조를 '서숙'이라고 하지, '서숙'.) 23 // 콩 ᄀᆞ뜬 거 풋 ᄀᆞ튼 거 서숙이옌 헷주기.(콩 같은 거 팥 같은 거 서속이라고 했지.) 29 [온평, 외도]

서슬: 지붕을 이기 위해 서까래 위에 가는 나무오리나 싸리나무 따위로 엮은 것을 말한다. 표준어로는 '산자'이다. // 세워근에 우에 상ᄆᆞ루허고 중ᄆᆞ루허고 그 아래 건 포. 경헤근에 서리 걸쳥 서슬 헤근에 우이 흑질 허여.(세워서 위에 용마루하고 '중ᄆᆞ루'하고 그 아래 건 보. 그렇게 해서 서까래 걸쳐서 '서슬' 해서 위에 흙질 해.) 06 // 겨민 서슬은 미릿에 그날, 그날 동네가 다 나오니까 서슬 다 뭴 거 아니가이?(그럼 산자는 미리 그날, 그날 동네가 다 나오니까 산자 다 될 거 아니냐?) 12 // 서슬이엔 허는 건 대헤영 줄 놔놔나근에 그레 서슬대 꼭꼭꼭 찔러근에 영이 지붕 우이 다 올리주게.('서슬'이라고 하는 건 대해서 줄 놓고나서 그리 '서슬

대’ 꼭꼭꼭 찔러서 이렇게 이 지붕 위에 다 올리지.) 13 // 서슬로 얽엉. 서슬 우에 흑을 또 뒤치는. 서슬 우에. 흑 뒤쳐 놩 서슬 우에 흑 뒤치면은 그 우엔 새를 더끌 겁주.(산자로 얽어서. 산자 위에 흙을 또 뒤덮는. 산자 위에. 흙 뒤덮어 놓고 산자 위에 흙 뒤덮으면은 그 위엔 띠를 덮을 거지요.) 36 [남원, 대림, 대평, 도련, 보목, 봉성, 삼달, 세화, 하원, 한동]

서슬노: 지붕 서까래 위에 흙을 받쳐 띠를 이기 위하여 가는 나무오리나 싸리나무 따위를 엮기 위해 꼰 노를 말한다. // 껌메주게 ᄆᆞᆫ딱 서슬ᄒᆞ젠 ᄒᆞ면은 멘날 메틀 앚아 근에 밤낮으로 ᄉᆞ끼 꼬아 그 서슬노엔 ᄒᆞ여 그게.(꿰매지 전부 발비하려고 하면 맨날 며칠 앉아서 밤낮으로 새끼 꼬아 그 발비노라고 해 그거.) 16 // 저 노 꼬아근에 이걸로 다으는 거라. 거난 서슬 노가 엄청 많이 들주게.(저 노 꼬아서 이걸로 땋는 거야. 그러니 ‘서슬노’가 엄청 많이 들지.) 24 // 나무 깨멍 저 노꼿이디서 허젠 허민 아이고 그 서슬 헐 때에 서슬노, 서슬노 허멍 노를 꼬아이.(나무 쪼개서 저 노끈 여기서 하려고 하면 아이고 그 산자 할 때 ‘서슬노’, ‘서슬노’ 하면서 노를 꼬아.) 25 // ᄆᆞᆫ딱 노로 얽젠 허민 서슬노, 서슬노 허멍 놀 꼬젠 허민 이녁만 못허여. 집 짓젠 허민 방상이 신 사름덜 동기간 이신 사름덜 막 꼬멍 앚아와. 노를 막 꼬아오라, 부지로.(모두 노로 얽으려고 하면 ‘서슬노’, ‘서슬노’ 하면서 노를 꼬려고 하면 자기만 못 해. 집 지으려고 하면 친척이 있는 사람들 형제 있는 사람들 막 꼬면서 가져와. 노를 막 꼬아와, 부조로.) 25 [세화, 태흥, 하원]

서슬목: 지붕 서까래 위에 흙을 받쳐 띠를 이기 위하여 가는 나무오리나 싸리나무 따위로 엮은 것, 또는 그런 재료를 말한다. 표준어로는 ‘산자’이다. // 서슬목이라고 장작 똑 요만썩 질게 깨곡 저만썩 ᄀᆞ늘게 헹 막 노 꼬앙 가근에 거 ᄆᆞᆫ 얽어.(‘서슬목’이라고 장작 꼭 요만큼씩 길게 쪼개고 저만큼씩 가늘게 해서 막 노 꼬아 가서 그거 모두 얽어.) 25 [태흥]

서시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일부러 건드리다’의 뜻이다. 거스다’, ‘거슬다’, ‘거시다’, ‘거실다’, ‘거찌다’ 등으로도 쓰인다. // 겨민 거 봐져도 서시지 못헤여, ᄆᆞ수와. 물어 불카부덴.(그러면 그거 보여도 ‘서시지’ 못해, 무서워. 물어 버릴까봐.) 24 [세화]

서실: 지붕을 이기 위해 서까래 위에 가는 나무오리나 싸리나무 따위로 엮은 것을 말한다. 표준어로는 ‘산자’이다. // 게메, 이 나무 얽으는 것이 서실이엔 헤, 서실이엔.(글쎄, 이 나무 얽는 것이 산자라고 해, 산자라고.) 11 [함덕]

서알: 구좌읍 한동리 바다 이름의 하나이다. // 서알이렌 헌 딘이 갯, 다찌 올라오는 디가 잇주.(‘서알’이라고 하는 덴 갯, 독가시치 올라오는 데가 있지.) 12 [한동]

서알동네: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가이 이제 서알동네 어멍, 아방은 죽곡. 살앗저만은 난 안 살젠 막 돌아뎅겨 부난 나 삼 년 후제사 낫주.(걔 이제 ‘서알동네’ 어머니, 아버지는 죽고. 살았지만 난 안 살려고 마구 돌아다녀 버리니까

나 삼 년 후에야 낳았지.) 31 [토평]

서어레: 표선면 세화리 202번지 남쪽바닷가를 말하는데, 마을에서 서쪽에 있다고 하여 '서어레' 또는 '서코지'라고 했다. // 멜 들엇저 허민 저 서어레엔 헌 듸.(멸치 들었다 하면 저 '서어레'라고 한 데.) 24 // 서어레 오랑헤도 나중 뜬 뜬허민 강 멜도 무시거 두어 개 강 줏어 오나마나 허곡.('서어레'에 오고해도 나중 뜬 뜨면 가서 멸치도 무엇 두어 마리 가서 주워 오나마나 하고.) 24 [세화]

서와기동산: 제주시 도련동 지명의 하나이다. // 겐디 그때 절이 같이 없어졋는데 다시 그 옆에 서와기동산이라고 이제 그 어린아이덜을 이제 글 가르치던 동산. 반반허고 사방 보기 좋고 뭐 허니깐. 그런 그렇게 뒈고.(그런데 그때 절이 같이 없어졌는데 다시 그 옆에 '서와기동산'이라고 이제 그 어린아이들을 이제 글 가르치던 동산. 평평하고 사방 보기 좋고 뭐 하니깐. 그런 그렇게 되고.) 01 [도련]

서우녁펜: 서쪽 방향의 위편을 말한다. // 그디 강 헤 와. 골머리 서우녁펜이 어승생이라이.(거기 가서 해 와. '골머리' '서우녁펜'이 '어승생'이야.) 30 [노형]

서우봉: 조천읍 함덕에 있는 오름을 말한다. // 그래서 함덕 서우봉에 뭐 멜도채비여 무싱거여. 함덕 서모봉.(그래서 함덕 '서우봉'에 뭐 멸치 도깨비여 뭐여. 함덕 서우봉.) 21 [신촌]

서이다: 탕건을 결을 때 날줄마다 말총 서너 가닥 씩 지르면서 감치는 것이다. // 허여 놩 좁아. 경 이디 좁아놩근엥이 이젠 이걸 또 서이여, 서이여. 흔 불 허여 놩.(해 놓고 접어. 그렇게 여기 접어놓고 이젠 이걸 또 '서이여, 서이여'. 한 벌 해 놔서.) 02 [선흘]

서중면: 정의현 중에서 지금의 남원읍 일대를 이르던 이름이다. // 남원이는 서중면이라낫는데 서중면 면장 조카 뒐 철입주.('남원'은 '서중면'이었는데 '서중면' 면장 조카 벌입지요.) 24 [세화]

서천묵동산: 성산읍 온평리 지경의 동산 이름이다. // 온평리 그 동산 서천묵동산이라는 게 잇어.(온평리 그 동산 '서천묵동산'이라는 게 있어.) 23 [온평]

서체: 배추의 일종이다. // 저 쌍ᄂᆞᆯ이라마씨, 배추옌 흔 ᄂᆞᆯ이. 서체ᄂᆞᆯ 달믄 거 서체.(저 '쌍ᄂᆞᆯ'이지요, 배추라고 한 나물이. '서체ᄂᆞᆯ' 닮은 거 '서체'.) 08 // 퍼데기 서체, 서체ᄒᆞ여근에 갈면은 이제추룩 쏙 앚질 아녀주게.(속이 없는 '서체', '서체'해서 갈면 이제처럼 속 앉질 아니하지.) 08 [동광]

서촌: 제주도의 서쪽 한림읍, 한경면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 서촌에서 멘든덴, 여기 사름덜은 저 대정이나 한림 쪽을 서촌, 서촌 허는데.('서촌'에서 만든다고, 여기 사람들은 저 대정이나 한림 쪽을 '서촌', '서촌' 하는데.) 06 // 이 근래는 이 목안드레, 서촌드렌 대문이 잇는디, 이 안덕더렌 대문이 엇어수다.(이 근래는 이 '목안'으로, '서촌'으로는 대문이 있는데, '안덕'으로는 대문이 없었습니다.) 17 // 아, 게민 양태랑 모자 부찌는 거는 어디서 헤낫수과?(아, 그럼 양태랑 모자 붙이는 거는 어디서 했었습니까?) 이, 이 서촌더레 헤나실 거라.(이, 이 '서촌'으로 했었

을 거야.) 20 // 하영 나주게. 널름도 허고. 천초는 질 많이 날 거라, 이 서촌에선.(많이 나지. 넓기도 하고. 우뭇가사리는 제일 많이 날 거야, 이 서촌에선.) 26 [고내, 남원, 대평, 신창]

서춘: 제주도의 서쪽 지역 마을 즉, 한림읍, 한경면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 저 서춘더레는 이 물옷을 입는디 우리 동쪽에는, 이제 고무옷 나고 헹헤도 그 전 몃 년 전에도 물옷을 안 입어낫수다. 서촌들 사름덜 벳기.(저 '서춘'으로는 이 물옷을 입는데 우리 동쪽에는, 이제 잠수복 나고 해서해도 그 전 몇 년 전에도 물옷을 안 입었습니다. '서춘' 사람들 밖에.) 22 [우도]

서치동산: 제주시 외도동의 한 지경 이름이다. 지경이 다른 곳보다 높아 뒤에 '-동산'이 붙었다. // 수덕동산 헹은에. 이 서치동산이라고 헤서 저 귀야지 입구 쪽에.('수덕동산' 해서. 이 '서치동산'이라고 해서 저 귀퉁이 입구 쪽에.) 29 // 또 여기다사 서칫동산이라고 잇엇어.(또 여기다사 '서칫동산'이라고 있었어.) 29 [외도]

서카름: 마을 안에서 작은 단위로 구분한 것으로 서쪽 동네를 말한다. '서까름', '섯가름'이라고도 한다. // 이제 우리 헐 때는 막 하난디 잘하민 이디 사름도 ᄒᆞᆫ 예실곱 사름 뒈고, 요 중카름에가 하나고, 또 서카름에가 셋인가 넷인가고.(이제 우리 할 때는 막 많았었는데 잘하면 여기 사람도 한 여섯, 일곱 사람 되고, 요 중 동네에 하나고, 또 서동네에가 셋인가 넷은 가고.) 21 // 동카름 서카름 갈려졋지 아녓나 이렇게 봅니다. 아, 그게 언제쯤 뒈느냐 허니까 여기 저 그 조상님이 여기는 알 거지마는. 아마 그게 지금부터 ᄒᆞᆫ 아, 천육백 년.('동카름' '서카름' 갈라졌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아, 그게 언제쯤 되느냐 하니까 여기 저 그 조상님이 여기는 알 것이지만 아마 그게 지금부터 한 아, 천육백 년.) 29 // 우렝이가 동서가름허민 동가름, 동카름도 잇고 서카름도 잇거든. 게믄 서카름덜은 서카름 사름끼리만 번치는 사름 잇고.('우렝이'가 '동서가름'하면 '동가름', '동카름'도 있고 '서카름'도 있거든. 그러면 '서카름'들은 '서카름' 사람끼리만 '번치는' 사람 있고.) 29 [신촌, 외도]

서카름번: 한 마을에서 서쪽 지역 사람끼리 서로 교대로 마소를 돌보기 위해 조직된 모임이다. // 동카름번 서카름번 뭐 웃가름번도 뒈곡. ᄋᆞ라 개 될 수도 잇고.('동카름번' '서카름번' 뭐 '웃가름번'도 되고. 여러 개 될 수도 있고.) 29 [외도]

서톧음: 보릿짚을 한줌 쥐고 호미에 놓고 꼭지만 끊어내는 일을 말한다. // ᄒᆞ나ᄒᆞ나 집어ᄒᆞᆫ 줌허면은 호미 영 놧당은에 발로 끈는 거라. 곡지만. 이게 서톧음이라고 ᄒᆞ는 겁주게.(하나하나 집어서 한줌하면 낫을 이렇게 놨다가 발로 끊는 거예요. 꼭지만. 이것이 '서톧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03 [송당]

서파먹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아직 채 영글지 않은 고구마 먼저 파먹는다는 뜻이다. // 겨난 감저가 유월절 ᄇᆞ뎌가민 울랑울랑 더워가사 그 감저꿀이 커근에 감저 놓는 거, 그거. 겨곡 이 원상이엔 헌 건 어디 ᄃᆞᆺ은 담 엠에 강 구더기 팡 요만이 놩 그거 헹 인칙 놔사 서파먹을 거 아냐, 인칙 놔야.(그러니까 고구마가 유월절 가까

워 가면 울렁울렁 더워가야 그 고구마 덩굴 커서 고구마 놓는 거, 그거. 그리고 이 원상이라고 한 건 어디 따뜻한 담 옆에 가서 구덩이 파서 요만큼 놔서 그거 해서 일찍 놔야 파먹을 거 아니냐, 일찍 놔야.) 25 // 먼저 인칙 파먹나 허는 게 서파먹는 거라이. 인칙 파 먹나 허는 게 감저 서파먹나, 서파먹나 허는 거라이. (먼저 일직 파먹는다 하는 게 '서파먹는' 거야. 일찍 파먹는다 하는 게 고구마 '서파먹나', '서파먹나'하는 거야.) 25 [태흥]

서하동: 애월읍 고내리의 한 지역 이름이다. // 그 그 집 양철집, 양철집 헌 집이가 이제 저 서하동에 네커리에 그 집이라낫주게. 양철집이엔 헌 집.(그 그 집 양철집, 양철집 한 집이 이제 저 서하동에 네거리에 그 집이었지. 양철집이라고 하는 집.) 20 [고내]

서하동: 표선면 성읍1리 자연 마을의 하나이다. 마을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 옛날도 우리 동네도, 이거 우리가 살고 잇는 디는 하동. 서하동. 동하동.(옛날도 우리 동네도,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하동'. '서하동'. '동하동'.) 14 [성읍]

석: 가리를 덮은 이엉이 날아가지 않게 잡아매는 줄을 말한다. // 칙 걷어당, 석이 시민 좋주만은 하지 안허주게.(칡 걷어다가, 줄이 있으면 좋지만 많지 않지.) 11 [함덕]

석보리: 보릿고개를 넘기려고 일찍 수확한 보리를 말한다. // 경 헹 이제 웬만허민 비곡 허영 ᄆᆞᆯ류는디, 전이도 하도 곡식이 어려운 땐 어떵 헤신고 허믄 그 석보리라고 헤 가지고양, 보리.(그렇게 해서 이제 웬만하면 베고 해서 말리는데, 전에도 하도 곡식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석보리'라고 해 가지고요, 보리.) 28 [구엄]

석산베: 밭벼의 일종이며 찰진 벼를 말한다. // 좁ᄊᆞᆯ도 두 가지가 잇주, 히린 ᄊᆞᆯ이 잇고, 모힌 ᄊᆞᆯ이 잇고. 곤ᄊᆞᆯ도 석산베 ᄊᆞᆯ이렌 헌 거.(좁쌀도 두 가지가 있지, 찰진 쌀이 있고, 메진 쌀이 있고. 흰쌀도 '석산벼' 쌀이라고 한 거.) 15 [수망]

석상베: 찰기가 있는 밭벼의 하나이다. 끝에 까끄라기가 없다고 한다. // ᄆᆞ른 밧디 허는 건 출나룩이렌 헤근에 석상베엔 허잖아.(마른 밭에 하는 건 찰벼라 해서 '석상베'라 하잖아.) 07 // 옛날은 석상베 쌀이 나룩ᄊᆞᆯ이라고 히령.(옛날은 '석상베' 쌀이 볍쌀이라고 차져서.) 13 // 석상베는 ᄀᆞ시락 엇인 거.('석상베'는 까끄라기 없는 거.) 14 [보목, 삼달, 성읍]

석상비ᄊᆞᆯ: 찰기가 있는 밭벼쌀의 한 종류이다. '석상베ᄊᆞᆯ', 산듸춥ᄊᆞᆯ'이라고도 한다. // 밥 허는 거게. 보리ᄊᆞᆯ, 좁ᄊᆞᆯ. 피ᄊᆞᆯ, 석상비ᄊᆞᆯ.(밥하는 거. 보리쌀, 좁쌀. 핍쌀, '석상비ᄊᆞᆯ.') 04 // 죽 안 쑤는 거, 죽 못 쑤는 ᄊᆞᆯ사 어디서? 석상비ᄊᆞᆯ도 놩 죽 쒀도 뒈곡.(죽 안 쑤는 거, 죽 못 쑤는 쌀이야 어디 있니? '석상비ᄊᆞᆯ'도 넣어서 죽 쑤어도 되고.) 04 [고성]

석유각제기: 석유를 넣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등잔을 말한다. // 석유각제기 막 박물관에 가민 잇어.('석유각제기' 막 박물관에 가면 있어.) 14 [성읍]

선남밧: 대정읍 구억리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 사름인 한 선남밧디옌 아까 ᄀᆞᆫ지 아니헨, 이 동네 이. 거기 사름 ᄒᆞᆫ 서너이, 요 폭낭 고지엔 댓, 거의 ᄒᆞᆫ 예슬곱 가구가 살아나신디.(사람이 많은 '선남밧'이라고 아까 말하지 아니했어, 이 동네 이. 거기 사람 한 서너이, 요 팽나무 고지에는 댓, 거의 한 예닐곱 가구가 살았었는데.) 34 // 논사 셔나신디 선남밧이엔 헤나시난. 거 잇어낫어.(논이야 있었는지 '선남밧'이라고 했었으니까. 거 있었어.) 34 [구억]

선내: 구좌읍 송당리의 하천 이름이다. // 선내에 고븐이물ᄒᆞ고 엉장이 이수다.('선내'에 '고븐이물'하고 '엉장'이 있습니다.) 03 [송당]

선덕: 돌이 엉기정기 쌓이고 잡초와 나무가 우거진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설덕', '서드럭'이라고도 한다. // 머세란 것은 밧, 밧이 아 그 선덕으로 뒌 것을 머세라고 그래. 막 돌이 쎄여진 걸 머세.('머세'란 것은 밭, 밭이 아 그 '선덕'으로 된 것을 '머세'라고 그래. 아주 돌이 쌓인 걸 '머세'.) 12 // 꿩 잘 다니는 그 뭐인가 선덕이 잇저, 가시덤벌 속으로 가시덤벌.(꿩 잘 다니는 그 뭐인가 '선덕'이 있어, 가시덤불 속으로 가시덤불.) 12 [한동]

선돌: 큰 바위가 서 있는 형태여서 붙은 이름인 것 같다. // 그 거시기 선돌엔 허주. 선돌.(그 거시기 '선돌'이라고 하지. '선돌'.) 14 [성읍]

선돌: 한림읍 대림리의 옛 지명이다. '선둘'이라고도 한다. // 게난 맨날 ᄀᆞᆯ아, 미녕헐 땐 이거 선돌 아지망이 이거 나무려근에 이거 웃으켜.(그러니까 맨날 말해, 무명할 때는 이건 '선돌' 아주머니가 이거 나무라서 이거 웃겠어.) 30 // 어른덜이 ᄀᆞᆯ아게. 저 선돌 아지망이나 ᄋᆞ덥새미녕 허주. 딴 사름사 대충대충 훍게. 막 ᄌᆞᆷ질게 헤사 ᄋᆞ덥새가 나와. 게민 그걸로 소게 바지저고리 헤. 솜 놓앙.(어른들이 말해. 저 '선돌' 아주머니나 여덟새무명 하지. 딴 사람이야 대충대충 굵게. 아주 가늘게 해야 여덟새가 나와. 그럼 그걸로 솜 바지저고리 해. 솜 넣어서.) 30 // 대림이라고 헌 것은, 그때 선돌이라고 불러오다가 그 지역 펭창헷다 헤가지고 그 다음부떠는 대림이라고 불러난 건디, 한 육백여년 전이부떠는 대림이라고 헷수다.(대림이라고 한 것은, 그때 '선돌'이라고 불러오다가 그 지역 팽창했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대림이라고 불렀던 건데, 한 육백여 년 전부터는 대림이라고 했습니다.) 35 [노형, 대림]

선돌: 한림읍 수원리와 대림리 사이에 있는 큰 입석을 말한다. // 도로변에 수원허고 대림 더레 도로변에 이십주게. 그래서 그 돌을 놓고 선돌이라고 허고 입석이라고도 헤나십주게.(도로변에 수원하고 대림으로 도로변에 있습지요. 그래서 그 돌을 놓고 '선돌'이라고 하고 '입석'이라고도 했었습지요.) 35 [대림]

선둘: 한림읍 대림리의 옛 지명이다. '선돌'이라고도 한다. // 우리 시집완 보난 족은시어머님이 경 알력집서 베 짜곡, 짜는 것은 저 선둘 할망이라. 그디선 선둘, 우리 족은시어멍이 선둘 어른인디. 그디선 막 그런 거 헤낫젠 헙디다.(우리 시집와서 보니까 작은시어머님이 그렇게 아랫집서 베 짜고, 짜는 것은 저 '선둘' 할머니야.

거기서는 ‘선둘’, 우리 작은시어머니가 ‘선둘’ 어른인데. 거기서는 마구 그런 거 했었다고 합디다.) 28 // 대림, 수원, 한림, 상대꺼지가 제일 처음은 그 인구가 막 족을 때니까 그 선둘, 선둘 허는 것에 다 포함뒈어나십주게.(대림, 수원, 한림, 상대까지가 제일 처음은 그 인구가 아주 적을 때니까 그 ‘선둘’, ‘선둘’ 하는 것에 다 포함되었었지요.) 35 // 이조 그 멧 년도에 영천이 목사던가, 그 목사가 와 가지고 행정허니까 그때부떠 대림, 선둘을 대림이라 헤십주게.(이조 그 몇 년도에 ○○이 목사든가, 그 목사가 와 가지고 행정하니까 그때부터 대림, ‘선둘’을 대림이라 했습지요.) 35 [구엄, 대림]

선문: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아이고, 그 사람덜 심어당 이 선문이여게, 선문. 아이구 줄줄이 세와놘 총으로 쏘앙 그 사름덜 탁탁탁탁 자빠지는 거 문 보곡이.(아이고, 그 사람들 잡아다가 이 ‘선문’이야, ‘선문’. 아이고 줄줄이 세워놓고 총으로 쏘아서 그 사람들 탁탁탁탁 자빠지는 거 모두 보고.) 31 [토평]

선ᄆᆞ쉬: 말떼를 이용해 조밭을 밟을 때, 앞에 선 말을 가리킨다. 달리 ‘선ᄆᆞᆯ’이라고도 한다. // ᄆᆞᆯ 이끄민 그 조름에 ᄆᆞᆯ덜 모는 사름은 선ᄆᆞ쉬 돌아가는 냥 좇아뎅기멍.(말 이끌면 그 꽁무니의 말들 모는 사람은 ‘선마소’ 돌아가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14 [성읍]

선ᄆᆞᆯ: ‘말을 이용하여 밭을 밟을 때, 맨 앞에 서는 말’을 일컫는 말이다. // 선ᄆᆞᆯ은 질 그 말 잘 듣는 거.(‘선ᄆᆞᆯ’은 제일 그 말 잘 듣는 거.) 01 [도련]

선앙굿: 바다를 관장하는 신 ‘선앙’을 위하는 굿을 말한다. // 우리, 우리 하르버지네가 이제 그 삼 형제가 이제 그 백사장에 구물 놔근에 멜배 두 개 헨에 그 구물에 헤근에 멜 거련 거 헤나난 우리 오빠 그때 아프난에 선앙굿 하렌 헨.(우리, 우리 할아버지네가 이제 그 삼 형제가 이제 그 백사장에 그물 놔서 ‘멸치배’ 두 개 해서 그 그물에 해서 멸치 떠서 거 해나니까 우리 오빠 그때 아프니까 ‘선앙굿’ 하라 해서.) 05 [표선]

선왕: 무속에서 바다를 관장하는 신을 말한다. // 게고, 바당을 섬기는 선왕이 또 잇고.(그리고 바다를 섬기는 ‘선왕’이 또 있고.) 12 [한동]

선왕당: 바다를 관장하는 신을 모시는 당을 말한다. // 바당에 물질허곡이, 바당에덜 고기 잡는. 선왕당. 두 부처믄 영감 할망.(바다에 물질하고, 바다에 고기잡는. ‘선왕당’. 두 부처면 ‘영감 할망’.) 10 [월령]

선흘곶: 선흘 지역에 있는 숲을 말한다. ‘선흘’은 조천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이다. // 봄 나면은이 여유 잇는 사람은 저 선흘곶이엔 헌 목장에 가근에가 고사릴 빈다, 고사리.(봄 되면 여유 있는 사람은 저 ‘선흘곶’이라고 하는 목장에 가서 고사릴 벤다, 고사리.) 12 // 거 낭도 하여튼 남도 거 선흘곶이엔 헌 디 선흘곶 가게 헨 가면은 가시낭이라는 남들이 잇주게.(거 나무도 하여튼 나무도 거 ‘선흘곶’이라고 하는 데 ‘선흘곶’ 가게 해서 가면은 가시나무라는 나무들이 있지.) 12 [한동]

설개: 삼양1동의 옛 이름이다. // 나 저 설개 살 때에 설개엔 허믄 알주.(나 저 ‘설개’ 살

때에 ‘설개’라고 하면 알지.) 01 [도련]

설남은: 서른이 조금 넘는 수를 말한다. // ᄒᆞᆫ 설남은 뭇 시껴졈신가? ᄒᆞᆫ짝에 ᄒᆞᆫ 열댓 개씩.(한 ‘설남은’ 뭇 실을 수 있나? 한쪽에 한 열댓 개씩.) 26 [신창]

설드럭: 제주시 외도동에서 ‘돌이 쌓인 곳’을 일컫는 말이다. // 거기 나무가 크게 잇고. 설드럭이 상당이 많수다, 거기가.(거기 나무가 크게 있고. ‘설드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가.) 29 [외도]

설레: 곡식을 저을 때 쓰는 ‘고무래’를 가리키는 말이다. // 게난 설레는 밑에 톱날이 돋쳐 잇어.(그러니까 ‘설레’는 밑에 톱날이 돋쳐 있어.) 01 [도련]

설룬애기: 서럽고 가여운 아기라는 의미이다. // 아이고, 요 설룬애기야. 이 남원리 이 리사무실 엠에 널딱헌, 곡식 갈아먹는 밧 ᄒᆞ나에.(아이고, 이 가여운 아기야. 이 남원리 이 리사무소 옆에 널따란, 곡식 갈아먹는 밭 하나에.) 06 [남원]

설르다: ‘끝내다.’, ‘마치다.’, ‘그만두다.’의 의미이다. // 웨정 땐 엿날이난에, 그때 웨정 때 아니라? 한식. 웨정 때 뒐 때 설러 비언 못ᄒᆞ게 헤신가?(일제강점기 땐 옛날이어서, 그때 일제강점기 때 아니야? 한식. 일제강점기 때 될 때 ‘끝내버려서’ 못하게 했나?) 15 // 경헤 가난 설렁 미깡낭 싱것주.(그래 가니까 그만두고 귤나무 심었지.) 31 [수망, 토평]

설문뎅이: ‘설문’에 ‘뎅이’가 붙은 형태로 목에 붙은 등뼈라고 설명하고 있다. // 그건 그 ᄎᆞ례로 주당 버치민 그거 주고 매 막끗은 설문뎅이 주고.(그건 그 차례로 주다가 부치면 그거 주고 맨 마지막엔 ‘설문뎅이’ 주고.) 13 [삼달]

설인목: 혈(血)이 설로 발음되는 제주어이다. 비슷한 발음이 되는 제주어 ‘설배’는 운상 할 때에 상여에 매어 앞으로 잡아당기게 된 참바를 말하는데 ‘설인목’은 참바가 아닌 나무를 말하고 있다. // 이건 설인목이엔 ᄒᆞ는가 무시거엔.(이건 ‘설인목’이라고 하는가 무엇이라고.) 16 [하원]

설칫: 한마루를 말한다. ‘한마루’는 쟁기의 성애와 술을 꿰뚫어 곧게 선 긴 나무를 말한다. ‘설짓’이라고도 한다. // 저 길쭉하고 소 뗑기는 거는 설칫.(저, 길쭉하고 소 당기는 거는 한마루.) 07 [보목]

설칫못: 쟁기 성에에 꿰어진 한마루에 찌르는 나뭇조각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설칫세역’이라고 한다. // 설칫 설칫못이 셔이, 나무로 뒌 거.(한마루 ‘설칫못’이 있어, 나무로 된 거.) 29 [외도]

설페역: 작은 전복을 말한다. ‘섬피역’, ‘설피역’이라고도 한다. // 전복 족은 건 거 준 거엔 헌 거베낀. 아니, 족은 것ᄀᆞ라 설페역.(전복 작은 건 거 잔 거라고 한 거밖에. 아니, 작은 것보고 ‘설페역’.) 06 [남원]

설피: 길쭉길쭉한 잎나무를 여러 개 함께 엮어 부채 모양으로 만들고는 뿌린 씨를 묻고 밭이랑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를 말한다. ‘섬피’, ‘끄서귀’, ‘끄슬퀴’, ‘끄슬피’, ‘섬비’라고도 한다. 표준어 ‘끙게’에 해당한다. // 밧 갈젠 허면은 이 저 뭘, 글로

후제는 다이야가 나오난 다이야 허는 사름도 이신디 나무, 설피 헤 가지고는 무꺼 겡 쉐멍에 메와근에 처음엔 게벼운 걸로 허단 내중엔 돌을 놓나 사람 올랑 끗주게 멍에틐 내운덴 헤근에.(밭 갈려고 하면은 이 저 뭘, 그 뒤에는 타이어가 나오니까 타이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무, 끙게 해 가지고는 묶어서 그래서 소 멍에 메워서 처음엔 가벼운 걸로 하다가 나중엔 돌을 놓거나 사람 올라서 끌지. 멍에턱 낸다고 해서.) 06 // 경헤근에 헤영ᄒᆞ민, 이만큼 헌 설피엔 헤근에 배로 영 뗑기멍 골루로 영 더 퍼지게시리.(그렇게 해서 해서하면, 이만큼 한 '설피'라고 해서 배로 이렇게 당기며 골고루 이렇게 더 퍼지게끔.) 07 [남원, 보목]

설피: 잡목을 베어 '군불'의 땔감으로 쓰는 잡목 일체를 말한다. '섬비'라고도 한다. // 그 다음은 이딘 설피를 헤서 요만치, 요만치 솔입 안 떨어질 만치.(그 다음은 여긴 '설피'를 해서 요만치, 요만치 솔잎 안 떨어질 만치.) 06 // 요만씩헌 낭께기 불이. 설피, 설피엔 헤 것이.(요만큼씩 한 나무때기 불이. '설피', '설피'라고 해 그것이.) 11 [남원, 함덕]

섬비: 길쭉한 잎나무를 여러 개 함께 엮어 부채모양으로 만들어, 뿌려 놓은 씨를 묻고 밭이랑을 고르는데 쓰는 농기구이다. 소나 말이 끌거나 사람이 끈다. '끄서귀', '끄슬퀴', '끄슬피', '섬피'라고도 한다. // 섬비를 낭을 헤근에, 저 개꽝낭 ᄀᆞ튼 그추룩 왕그랑ᄒᆞᆫ 가시 돋은 낭들예 ᄒᆞ여근에 섬비를 미리 매여근에, 이거 영 ᄒᆞ여근에 ᄒᆞ민 영 ᄒᆞ영 섬비를 풍체추룩 멘듭니다. 풍체추룩 멘들앙 섬비를 멘들아근에 딱딱 저 너덩으로 얽어.('섬비'를 나무를 해서, 저 쥐똥나무 같은 그처럼 앙상한 가시 돋은 나무들 해서 섬비를 미리 매여서,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해서 '섬비'를 부채처럼 만듭니다. 부채처럼 만들어서 '섬비'를 만들어서 딱딱 저 으름덩굴로 얽어.) 08 // 끙게 ᄒᆞᆫ 거 여기선 여기선 섬비엔 ᄒᆞ여 섬비.(끙게 한 거 여기서는 여기서는 '섬비'라고 해 '섬비.') 16 // 저 꽝나무로 이제 만든 섬비로 헤서 좀 많이 그 무게를 저 무겁게 헤가지고 소 말로 끌던지.(저 광나무로 이제 만든 '섬비'로 해서 좀 많이 그 무게를 저 무겁게 해가지고 소 말로 끌던지.) 18 // 끗어 가지고 흑허고 보리허고 말이여 잘 범벅이 뭴 수 잇게끔 말이여 헤주는 게 거 섬비라고 하는 거여.(끌어 가지고 흙하고 보리하고 말이야 잘 범벅이 될 수 있게끔 말이야 해주는 게 거 끙게라고 하는 거야.) 27 [동광, 신도, 옹포, 하원]

섬비낭: 끙게로 쓸 나무라는 의미로 쓰였다. 꽝꽝나무나 쥐똥나무를 주로 이용하였다. // 난 섬비낭 ᄒᆞ렌 안 뎅겨보고, 우리 씨누의덜은 섬비낭 ᄒᆞ레 하영 뎅겨서.(난 '섬비'나무 하려고 안 다녀보고, 우리 시누이들은 '섬비'나무 하려고 많이 다녔어.) 17 // 그런 것을 호미로 이렇게 헤 가지고 하면 그것이 섬비낭이고 그런 걸로 헤 가지고 섬비 만들고 ᄒᆞ는 거지.(그런 것을 낫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그것이 '섬비낭'이고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끙게 만들고 하는 거지.) 27 [대평, 옹포]

섬비질: 길쭉길쭉한 잎나무를 수없이 함께 엮어 부채 모양으로 만들고는 뿌린 씨를 묻고 밭

이랑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로 하는 일이다. '섬비'는 '섬피'와 같은 제주어이다. // 씨 뿌령 ᄇᆞᆯ려, 섬비질 ᄒᆞ여.(씨 뿌려서 밟아, '섬비질' 해.) 08 // 그 씨만 ᄒᆞᆯ 그냥 땅이 북삭헤 노니까, 씨만 묻어지게 섬비질을 ᄒᆞ여. 섬비질만 해불면 그걸로 뒈는 거.(그 씨만 조금 그냥 땅이 푸석하니까 씨만 묻어지게 '섬비질'을 해. '섬비질'만 해버리면 그걸로 되는 거.) 08 // 그냥 섬비질 ᄒᆞᆫ번 싹 ᄒᆞ민 그데로 뒈는 거.(그냥 '섬비질' 한번 싹 하면 그대로 되는 거.) 16 // 무꺼근에 열 개믄 열 개 톡톡 나두면은 그 논을 이젠 갈아근에, 논을 갈 거 아니우꽈, 나록 싱그젠 ᄒᆞ민, 갈아근에 이젠 섬비질 ᄒᆞ여.(묶어서 열 개면 열 개 톡톡 놔두면 그 논을 이젠 갈아서, 논을 갈 거 아닙니까, 벼 심으려고 하면, 갈아서 이젠 '섬비질' 해서.) 17 [대평, 동광, 하원]

섬피: 길쭉길쭉한 잎나무를 여러 개 함께 엮어 부채 모양으로 만들고는 뿌린 씨를 묻고 밭이랑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이다. 지역에 따라 '끄서귀', '끄슬퀴', '끄슬피', '섬비'라고 한다. // 밧 갈면은, 쉐로 갈면은 이렁이가 나와이. 이렁이 나오면은 섬피로 끗으면은, 그걸 미끈허면은, 비료만 뿌려 불면은 거, ᄇᆞᆯ리지 안 헤도 말째엔 비료 시난에 섬피로만 끗엉 내불어낫주게.(밭 갈면은, 소로 갈면은 '이렁'이 나와. '이렁'이 나오면은 '섬피'로 끌면, 그걸 미끈하면, 비료만 뿌려 버리면 거, 밟지 안 해도 나중엔 비료 있으니까 '섬피'로만 끌어서 내버렸었지.) 36 [봉성]

섭지: 성산읍 신양리에 위치한 바닷가 이름이다. 지금은 '섭지코지'로 더 알려져 있다. // 신양이가. 게난 그 섭지에 가면은.('신양'이가. 그러니까 그 '섭지'에 가면은.) 04 [고성]

섭지: 한립읍 협재리를 말한다. // 섭지 가난게 화물차가 절로 ᄃᆞᆯ아완게마는 다락 받으난게 앞의 유리창 벌러젼게 그디 간 탁 걸어지난 어디 무신 안 거멍헌 디가 잇수가.(협재 가니까 화물차가 저리로 돌아오더니마는 '다락' 받으니까 앞의 유리창 깨지더니 거기 가서 탁 걸어지니까 어디 무슨 안 거먼 데가 있습니까.) 32 [덕수]

섯가름: 마을 안에서 작은 단위로 구분한 것으로 서쪽 동네를 말한다. // 섯가름, 건 무신 당, 그 당이 무신 당이엔 허더라만은 나도 몰라. 뭐 무신 당이렌 ᄀᆞᆯ앗어.('섯가름', 건 무슨 당, 그 당이 무슨 당이라고 하더라만은 나도 몰라. 뭐 무슨 당이라고 말했어.) 21 [신촌]

섯가름골: 제주시 외도동 가운데 서쪽마을을 가리킨다. // 게난 아까 한 번씩 얘기하는데 지금 그 도롯물이 터지면은 외도로도 가고 섯가름골은 그쪽디레 물이 가낫어요. 큰굴왓디레.(그러니까 아까 한 번씩 얘기하는데 지금 그 '도롯물'이 터지면 '외도'로도 가고 '섯가름골'은 그쪽으로 물이 갔었어요. '큰굴왓'으로.) 29 [외도]

섯내: 안덕면 대평리 지경에 있는 내 이름이다. // 섯내, 섯내옌 ᄒᆞ여. 아니 동내가 아니고 섯내옌 ᄒᆞᆸ디다.('섯내', '섯내'라고 해. 아니 '동내'가 아니고 '섯내'라고 합디다.) 17 // 섯내. 저 군산 앞으로 영 ᄂᆞ려오는 내.('섯내'. 저 '군산'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내.) 17 [대평]

섯냇굴: 성산읍 삼달1리 마을 서쪽에 있는 샘물 이름이다. // 서르렌 섯내굴, 동드렌 동냇굴. 다 그디 시방덜은 막 질 아스팔트 허멍 막 변경뒈엄주게, 냇굴덜이. ᄆᆞᆫ 파멍.(서쪽으로는 '섯내굴', 동쪽으로는 '동냇굴'. 다 거기 시방들은 막 길 아스팔트 하면서 막 변경되었지, '냇굴'들이. 모두 파면서.) 13 [삼달]

섯동네: 대림리 마을의 서쪽에 있는 동네 이름이다. // 돗대가 잇고 ᄯᅳ로 저 섯동네라 헤 가지고 수원 올라가는 그 ᄌᆞ꼿디 ᄒᆞᆫ 밧 들어간 디가 거기가 저 돗대 세와난 것이 잇수다.('돗대'가 있고 또 저 '섯동네'라 해 가지고 수원 올라가는 그 곁에 한 밭 들어간 데가 거기가 '돗대' 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35 [대림]

섯동네: 마을의 서쪽에 있는 동네를 이르며, 달리 '서카름'이라고도 한다. // 가울목이면은 우리 웃동네 가울목 섯동네꺼지 헤 가지고서 거 이제 딱 규정이 뒈엇저.('가울목'이면 우리 윗동네 '가울목' '섯동네'까지 해 가지고서 거 이제 딱 규정이 되었어.) 12 // 그 돌화로 멘드는 하르방이 요디 살아낫주게, 요 섯동네에.(그 돌화로 만드는 할아버지가 요기 살았었지, 요 '섯동네'에.) 12 // 냇동네, 우리 동네엔 산물 나는 디가 잇이난 산물코, 산물코 ᄒᆞ멍 섯동네 사름덜도 그디 지르레 오곡, 온수물이라, 그딘.('냇동네', 우리 동네에는 용천수 나는 데가 있으니까 '산물코', '산물코' 하면서 '섯동네' 사람들도 거기 길러 오고, 온수물이야, 거기는.) 17 // ᄂᆞ시 친정에 강 못 살게 허난, 가민 다울리고 가민 다울리고 허난 이젠 벗신디, 친구네 집이 섯동네 가시녜. 친구네 집이 강 살멍 곱안 살앗저게.(도무지 친정에 가서 못 살게 하니까, 가면 쫓고 가면 쫓고 하니까 이제는 벗에게, 친구네 집에 '섯동네' 갔어. 친구네 집에 가서 살면서 숨어서 살았어.) 31 [대평, 덕수, 토평, 한동]

섯마ᄇᆞ름: 한라산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한다. // 한라산 서쪽으로 오민 섯마ᄇᆞ름이고.(한라산 서쪽으로 오면 '섯마ᄇᆞ름'이고.) 01 [도련]

섯ᄇᆞ름: 서풍을 말한다. // 하니는 바다 쪽으로 올라가는 게 하니라이. 마ᄇᆞ름은 우이로 내려오는 게 마ᄇᆞ름이고이 샛ᄇᆞ름은 동으로 부는 게 샛ᄇᆞ름. 섯ᄇᆞ름으로 서으로 오는 게 섯ᄇᆞ름.(하늬는 바다 쪽으로 올라가는 게 하늬야. 마파람은 위로 내려오는 게 마파람이고 샛바람은 동으로 부는 게 샛바람. '섯ᄇᆞ름'으로 서로 오는 게 '섯ᄇᆞ름'.) 30 [노형]

섯성지: 안덕면 사계리 앞 바다에 있는 형제섬의 부분 지명이다. // ᄇᆞ레보난에 저 섯성지로 보난에, 섯성지 들언 영 보난, 웃성지ᄁᆞ지 영 보난에, 아 갓돔덜이 그자 ᄒᆞ나씩 둘씩 들엇닥 나왓닥 ᄒᆞ여.(봐보니까 저 '섯성지'로 보니까, '섯성지'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웃성지'까지 이렇게 보니까, 아, 도미들이 그저 하나씩 둘씩 들었다가 나왔다가 해.) 17 [대평]

섯하니: 조금 북쪽으로 치우친 하늬바람으로, 서북풍을 말한다. // 아이고, 섯하니 불엄저 날 좋켜. 영 허여 어른덜이. 섯하니 불언 날 좋으켜. 바른 하니가 아니고 섯하니.(아이고, '섯하니' 불고 있어 날 좋겠어. 이렇게 해서 어른들이. '섯하니' 불어

서 날 좋겠어. 바른 하늬가 아니고 '섯하니'.) 30 [노형]

성: 남자 형제 중 손윗사람을 이르는 '형'으로, 여자 형제를 부를 때도 사용한다. // 우리 아신 세 설 아랜디 막 밧디 강 검질메고 난 가 불민. 아이고, 성이랑은에 놀레 보냄덴. 놀레 보내고 나만 검질메레 감젠 막 원망을 헤도 아버지가 보내난 나가 산엘 갓어.(우리 아우는 세 살 아래인데 막 밭에 가서 김매고 난 가 버리면. 아이고, 언니는 놀러 보낸다고. 놀러 보내고 나만 김매러 간다고 많이 원망을 해도 아버지가 보내니까 내가 산에를 갔어.) 30 [노형]

성게국: 성게를 넣어 끓인 국을 말한다. // 우리 벨로 경 성게국은 펭상시에 경 끌령 먹어 보지 안허연. 이 큰일 때나덜 끌렷주.(우리 별로 그렇게 성게국은 평상시에 그렇게 끓여서 먹어 보지 않아. 이 큰일 때나 끓였지.) 20 [고내, 토평]

성골왓: 한경면 두모리 지명의 하나이다. // 게난 그런 집이 우리 성골왓도 하나 잇고 용당도 저 누게네 집이 하나 잇어나서. 게난 우리도 애기 ᄃᆞᆯ앙 그 순자 어멍네 집이 그디만 놀레 가나서. ᄯᅳᆺ헌 집이.(그러니까 그런 집이 우리 '성골왓'도 하나 있고 용당도 저 누구네 집에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아기 데려서 그 순자 어머니네 집에 거기만 놀러 갔었어. 따뜻한 집에.) 26 [신창]

성굴왓: 한경면 두모리 지명의 하나이다. // 젤 어려운 건 물 우린. 잘도 물 어려와. 우리 요 신흥동 살아갈 때 성굴왓디. 물이 무사 경 어려와. 첨 완전 이젠 자락자락 씻어도 첨 물 어려와.(제일 어려운 건 물 우린. 아주 물 어려워. 우리 요 신흥동 살아갈 때 '성골왓'에. 물이 왜 그렇게 어려워. 참 완전 이젠 자락자락 씻어도 참 물 어려워.) 26 // 동네 다 멕여. 우리 성굴왓, 신흥동이렌 허는 디 살아난디 동네 족으난 동네 사름 다 막걸리 먹는 사름 왕 ᄒᆞᆫ 사발 먹고. 청주 ᄒᆞᆫ 잔, 막걸리 ᄒᆞᆫ 사발 줫주게. 떡도 다 놓고. 이제난 안 내놓주.(동네 다 먹여. 우리 '성굴왓', 신흥동이라고 하는 데 살았었는데 동네 작으니까 동네 사람 다 막걸리 먹는 사람 와서 한 사발 먹고. 청주 한 잔, 막걸리 한 사발 줬지. 떡도 다 놓고. 이제는 안 내놓지.) 26 [신창]

성내: 성 안에 있는 마을로, 여기서 '성내'는 제주시를 가리킨다. // 성내 가젠 허민 알로만 돌앙 가시녜. 알로만 경. 이젠 중간 질 ᄆᆞᆫ 빠 놓고. 이 어디로 빠시, 봉개로, 봉개로 중간 질.('성내' 가려고 하면 아래로 돌아서 갔어. 아래로만 그렇게. 이젠 중간 길 모두 빼 놓고. 이 어디로 뺐니, 봉개로, 봉개로 중간 길.) 31 [토평]

성담: 성을 쌓아올린 돌담을 말한다. // 성담을 날르면서 어른들하고 ᄀᆞ찌들 헷어.('성담'을 나르면서 어른들하고 같이 했어.) 07 // 시아버님이 워낙 그런 걸 일을 잘허난 동네 할으버지 멧 사름허고 그거를 참 돈 벌레, 그 성담을 다레, 다아마씨.(시아버님이 워낙 그런 걸 일을 잘하니까 동네 할아버지 몇 사람하고 그거를 참 돈 벌러, 그 '성담'을 쌓으러, 쌓아요.) 34 [구억, 보목]

성두: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지명 중 하나이다. // 게난 모든 거 신양 ᄀᆞᆮ은 디도 다 뺏겨 버리고. 이 고성도 성두엔 가면은 그 부락 ᄌᆞᆺ긋디까지도 다 오조리 지경이라.

아, 이레서 그 전연 뭐 이 욕심이 엇인 동네고.(그러니까 모든 것 '신양' 같은 데도 다 뺏겨 버리고. 이 '고성'도 '성두'에 가면 그 마을 근처까지도 다 '오조'이지경이야. 아, 이래서 그 전혀 뭐 이 욕심이 없는 동네고.) 04 [고성]

성산장: 성산읍 성산리에서 서는 오일장 이름이다. // 게난 앞으론 안 보이곡. 뒤론 가민 이레착저레착 헴뗀 야, ○○이거 무시거 보커들랑 성산장에 가라. 성산장에 가라.(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보이고. 뒤로는 가면 '이레착저레착' 한다고 야, ○○이거 무엇 보려거든 '성산장'에 가라. '성산장'에 가라.) 04 // 이 장이 어디냐 허면은 동남장허고 성산장이 잇엇는데, 여기서 그때는 포장도 안 뭴 때 걷고 가서 이 옥수수.(이 장이 어디냐 하면 '동남장'하고 '성산장'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때는 포장도 안 될 때 걷고 가서 이 옥수수.) 23 [고성, 온평]

성안: 성의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여기에서 '성'은 제주목의 성을 말한다. // 사삼사건 후에게 벵일이 구릉 물 지어당 먹어시녜게. 이 성안에서게.(사삼사건 후에 '벵일이' 구릉 물 지어다가 먹었어. 이 '성안'에서.) 30 [노형]

성안: 정의현성 안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 저 성안에 가민 우리 ○○이 아방 살아난 디 우리 처부 살아난 디 잇고 홍 의원 살아난 디 잇고.(저 '성안'에 가면 우리 ○○이 아버지 살았던 데 우리 처부 살았던 데 있고 홍 의원 살았던 데 있고.) 14 [성읍]

성안동네: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 소위 벵딧까름동네, 성안동네, 남문동네, 웃도릉 웃동네 ᄒᆞ문, 장만이동산, 아 요런 이 저 동네별로 허문은 거이 접이나 계가.(소위 '벵딧가름'동네, '성안'동네, '남문'동네, '웃도릉' 윗동네 하면, '장만이동산', 아 요런 이 저 동네별로 하면은 거의 계나 계가.) 04 [고성]

성안칩: 성 안에 있는 집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성은 정의현성으로 '성안' 정의현성이 있었던 성읍 지역을 말한다. // 성안칩, 성내칩, 모커리 이제 경, 이제 알대 그 멧 부락이여게.('성안칩', '성내칩', 곁채 이제 그렇게, 이제 '알대' 그 몇 부락이야.) 31 [토평]

성전터: 표선면 성읍1리의 지명의 하나이다. // 고성리 잇다가 성읍리로 옮겨오면서 요디 성전터엔 헌 디가 잇어.(고성리 있다가 성읍리로 옮겨오면서 요기 '성전터'라고 한 데가 있어.) 14 [성읍]

성제비: 한경면 신창리 지명의 하나이다. // 경헨 이제 그 성제비엔 헌 디 가난 하르방덜 어느더레 가 분셍 몰른 셍이라. 그 질로 갈 걸로 알앙 ᄯᆞ라간덴.(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제비'라고 하는 데 가니까 할아버지들 어디에 가 버렸는지 모른 모양이야. 그 길로 갈 걸로 알아서 따라간다고.) 26 [신창]

성주: 집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신이다. // 저 성주 떡ᄒᆞ고, 코시 떡은 그자 통으로 ᄒᆞ꼼만 시리에 그자 ᄆᆞ딱 담앙 치는 거.(저 '성주' 떡하고, 고사 덕은 그저 통으로 조금만 시루에 그저 모두 담아서 찌는 거.) 08 [동광]

성주굿: 집의 수호신으로 성주를 새로 모시는 굿이다. 주로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를 한 뒤

하는 굿이다. // 이 목석 구신이엔 헹 낭구신도 풀어주고, 이 땅구신도 풀어주곡이, 집안도 펜안허곡이, 집 짓엉 후탈 엇게시리 헤도렌 그 굿이라. 아메도. 성주굿이.(이 목석 귀신이라고 해서 나무 귀신도 풀어주고, 이 땅 귀신도 풀어주고, 집안도 편안하고, 집 지어서 후탈 없게끔 해달라고 그 굿이야. 아무래도. '성주굿'이.) 11 // 집 짓으민 이제 심방 ᄃᆞᆯ아당 성주허젠 허민 성주굿 허주게.(집 지으면 이제 무당 데려다가 성주하려고 하면 성주굿 하지.) 33 [인성, 함덕]

성주풀이: 집을 새로 지었을 때 하는 굿이다. 달리 '성주낙성대풀이', '성주대풀이', '성주연맞이'라고도 한다. // 옛날부터 강태공 서목시라고, 성주풀이가 목적은 강태공 서목시가 중국 역살 테주마는 성주풀이, 것도 무당 허는 겁주게.(옛날부터 강태공 서목수라고, '성주풀이'가 목적은 강태공 서목수가 중국 역사일 테지만 '성주풀이', 것도 무당 하는 거지요.) 36 [봉성]

성코지: 표선면 표선리 바닷가의 곶 이름의 하나이다. // 저 서쪽에 가면 성코지, 성코지라고.(저 서쪽에 가면 '성코지', '성코지'라고.) 05 [표선]

세갈르다: 아기의 것과 어머니의 것을 나누어 '탯줄을 자르다'는 말이다. // 누게 받아게. 애기 난 후제사 동네 사름ᄀᆞ라 ᄀᆞᆯ으민 오랑 영 세갈라주곡 헷주.(누가 받아. 아기 난 후에야 동네 사람보고 말하면 와서 이렇게 '세갈라주곡' 했지.) 15 [수망]

세경목: 올이 가늘고 고운 세백목을 말하는 듯하다. // 엿날엔 세경목이여 무시거여 헤낫주마는.(옛날엔 '세경목'이여 뭐여 했었지만.) 07 [보목]

세계: 안덕면 사계리를 말한다. // 돌 ᄒᆞᆫ 뎅이에 언마. 경허연 깨여근엥에 저 세계서 저 밧거리도 다 돌 아니우꽈?(돌 한 덩이에 얼마. 그렇게 해서 깨서 저 '사계에서 저 바깥채도 다 돌 아닙니까?) 32 // 막 막아근에 못허게 ᄉᆞ뭇 세계 사름덜 ᄆᆞᆫ 못허게 허민 덕수 낭허레 오지 말렌 허곡.(마구 막아서 못하게 사뭇 사계 사람들 모두 못하게 하면 덕수 나무하러 오지 말라고 하고.) 32 // 그냥 이 동네 인성리서 살아. 우리 아부지넨 원래 세계 살단 이디 왓는디 옛날에 우린 몰랏는디 이 학교 터가 엿날 관개 살아난 터라.(그냥 이 동네 인성리에서 살아. 우리 아버지는 원래 사계 살다가 여기 왔는데 옛날에 우린 몰랐는데 이 학교 터가 옛날 관가 살았던 터야.) 33 // 모래 세계 바당 경 허는 디 좋은 디주게. 세계 바당 경헌덴 헹.(모래 사계 바다 그렇게 하는 데 좋은 데지. 사계 바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33 [덕수, 인성]

세글르다: 두 사람 이상이 방아를 찧을 때 서로 찧는 운율이 잘 맞지 않은 것을 말한다. // 이여 이여 이여도 ᄒᆞ라 싀콜방에 세글럼서라.('이여 이여 이여도 ᄒᆞ라' '싀콜방아' '세글럼서라'.) 19 [청수]

세긍설내: 서귀포시 보목동 절오름 옆 근처인 보목동 260번지에 있는 샘을 말한다. '세경물'이라고도 한다. // 세긍설내 허고 족은갠데 주로 정술내 물이라고헤서 거기는 딱 보민 거기를 새끼로 봉헤서 출입을 못하도록 헷주. ('세긍설내' 하고 작은 갠데 주로 정술내 물이라고해서 거기는 딱 보면 거기를 금줄로 봉해서 출입을 못하

도록 했지.) 07 [보목]

세기다: 조그만 헝겊을 덧대는 것을 말한다. // 험벅 세경 허라 영 헹. 잇엉도 허렌 허곡, 세경도 허렌 허곡.(헝겊 '세경' 해라 이렇게 해서. 이어서도 하라고 하고, '세경'도 하라고 하고.) 25 [태흥]

세기마레: 조천읍 함덕리 바닷가의 지명이다. // 바닷가 요디 물에 가민 세기마레여. 고냉이성창이여.(바닷가 요기 물에 가면 '세기마레'다. '고냉이성창'이다.) 11 [함덕]

세기오름: 남원읍 수망리 향사동 동쪽에 있는 오름인 '숫오름'이라고도 하는데, '쉐기오름' '웅악'으로도 불린다. // 영아리오름, 저 뭐 검은오름, 민오름, 저 넉시오름, 세기오름 다. 그 오름 꼭대기에 올라사근엥에 보니깐 횃불을 쏴근엥 영 흔드는 거라.('영아리오름', 저 뭐 '검은오름', '민오름', 저 '넉시오름', '세기오름' 모두. 그 오름 꼭대기에 올라서서 보니깐 횃불을 붙여서 이렇게 흔드는 거라.) 15 [수망]

세깍신: 앞쪽에 총을 셋만 돋게 만든 짚신으로 주로 상제가 신는다. // 엿날엔 ᄆᆞᆫ 만들아. 짚신도 ᄆᆞᆫ 사당 헷는디, 이젠 짚신 거런 거 아녀고, 엿날엔 ᄆᆞᆫ 짚신도 헷어, 세깍신.(옛날엔 모두 만들어. 짚신도 모두 사다가 했는데, 이젠 짚신 그런 거 안 하고, 옛날엔 모두 짚신도 했어, '세깍신'.) 15 // 세깍신, 세깍신, 세깍신이 맞주게. 저 무시거 만드는 치룩만 헤근에게 신으난게.('세깍신, 세깍신, 세깍신'이 맞지. 저 무엇 만드는 척만 해서 신으니까.) 32 [덕수, 수망]

세끼리: 일본어 'せきり'로 이질을 말한다. // 일본말론 세끼리고, 거 이질 병은이.(일본말론 '세끼리'고, 이질 병은.) 12 [한동]

세나다: 찾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 뒈야지 피 헤영인에 그레이 쏠밥도 헌 거 서끄고 경헹인에 모멀ᄀᆞ루에 쏠밥에 서껑 막 간 맞촹 맛 좋게 간 맞촹 순대에 질주게. 질엉인에 치민 순대도 맛 좋고. 요샌 오죽 순대 세나게덜이.(돼지 피 해서 그리 쌀밥도 한 거 섞고 그렇게 해서 메밀가루에 쌀밥에 섞어서 막 간 맞춰서 맛 좋게 간 맞춰서 순대에 길지. 길어서 치면 순대도 맛 좋고. 요샌 오죽 순대 '세나게들'.) 33 [인성]

세둔: 서귀포시 효돈동의 옛 지명으로 '쉐둔'이라고도 한다. // 콕 죽어간에 아이고, 이걸 어떵 ᄒᆞ민 좋곤 이젠 ᄒᆞ난, 새파랑 헤가난에 아니 이제 서귀포 병원에 갈 수도 엇고, 어디 저 세둔이엔 헌 디 가살 걸헤도.(콕 죽어가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젠 하니까, 새파랗게 해가니까 아니 이제 서귀포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어디 저 효돈이라고 한 데 가야할 걸해도.) 15 [수망]

세루: 질이 좋은 무명천을 말한다. '춤세루'라고도 한다. // 그디서 고무신이영 엿날에 광묵세루, 세루헌 거 막 엿날에 세루, 세루 세주게 기지.(거기서 고무신이영 옛날에 광목 '세루', '세루'한 그거 매우 옛날에 '세루', '세루' 많지, 천.) 07 [보목]

세미: 메밀가루나 쌀가루 따위를 반죽해 반달이나 조개송편 모양으로 만든 후에 안에 팥소 등을 넣어 집어서 솥에서 찌거나 삶아낸 떡을 말한다. '새미', '새미떡', '세미떡'이라고도 한다. // 우리 집인 똑 세미 영 소랑소랑헌 거 술잔으로 톡톡 떠놩 ᄌᆞᆸ

앙 만두ᄀᆞ치 ᄌᆞᆸ앙 세미도 올리고.(우리 집엔 꼭 '세미' 이렇게 '소랑소랑'한 거 술잔으로 톡톡 떠 놔서 접어서 만두처럼 접어서 '세미'도 올리고.) 13 // ᄀᆞᆺ사 ᄀᆞᆯ앙 는젱이ᄀᆞ루헤영 범벅도 헤영 먹고, ᄉᆞᆯ은 강 ᄑᆞᆯ고 거 돈 나는 거렌, 모멀허영 떡 헤영근에 ᄀᆞᆯ앙 식게명절에 중게 약게허고, 세미허곡 그런 거 헷주.(방금 갈아서 나깨가루해서 범벅도 해서 먹고, 쌀은 가서 팔고 거 돈 나는 거라고, 메밀해서 떡 해서 갈아서 제사명절에 중계 약과하고, '세미'하고 그런 거 했지.) 19 // 세미떡은 주전지 뚜껑으로 텅 귀나게 영 영 ᄌᆞᆸ은 것ᄀᆞ라 세미.('세미떡'은 주전자 뚜껑으로 떠서 '귀나게' 이렇게 이렇게 접은 것보고 '세미'.) 26 // 엿날은 ᄒᆞ꼼 뭐헌 집안엔 경 헤낫젠. 우리 할머니네도 ᄒᆞ꼼 ᄎᆞᆷ 뭐헌 집안 거세기난이, 세미 은절미.(옛날은 조금 뭐한 집안엔 그렇게 했었다고. 우리 할머니네도 조금 참 뭐한 집안 거시기니까, '세미' '은절미'.) 29 [삼달, 신창, 외도, 청수]

세미떡: 메밀가루나 쌀가루 따위를 반죽해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안에 팥소 등을 넣어 접어서 솥에서 찌거나 삶아낸 떡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새미', '새미떡', '세미'라고도 한다. // 다시 송편 이제 지름떡. 뭐 세미떡 이젠 그처럼 헷는데 그 모양덜이 에 그 침떡은 땅을 표시헨에 그 뭐 좀 그 땅은 이렇게 그냥 멘짝허지 아녀다는 그런.(다시 송편 이제 기름떡. 뭐 '세미떡' 이젠 그처럼 했는데 그 모양들이에 그 시루떡은 땅을 표시해서 그 뭐 좀 그 땅은 이렇게 그냥 평평하지 않는다는 그런.) 01 // 세미떡, 인절미떡. ᄆᆞ물ᄀᆞ룰로이 세미, 인절미.(세미떡, 인절미떡. 메밀가루로 세미, 인절미.) 20 // 세미떡은 쉬 담아근에 ᄆᆞ물ᄀᆞ루 헤근에 거의 정월은 ᄆᆞ멀떡 헤여. 경헨 인절미도 ᄆᆞ멀 인절미 허고 세미도 ᄆᆞ멀 인절미. 곤떡만, 이제 우이 더끄는 건 동글랑 곤떡. 손으로 멘들아.('세미떡'은 소 담아서 메밀가루 해서 거의 정월은 메밀떡 해. 그래서 인절미도 메밀 인절미 하고 '세미'도 메밀 인절미. 흰떡만, 이제 위에 덮는 건 동그란 흰떡. 손으로 만들어.) 26 // 세미떡 허단에 나중에라 가난 것도 원 좋아 베지 아년에 또, 또 저 흰ᄀᆞ루 ᄲᆞᆺ아다근에 세미떡 허단 것도 안 좋난 이제 송펜마씨.('세미떡' 하다가 나중에 가니까 것도 원 좋아 보이지 않아서 또, 또 저 흰쌀가루 빻아다가 '세미떡' 하다가 것도 안 좋으니까 이젠 송편이요.) 32 [고내, 노형, 덕수, 도련, 신창, 옹포]

세미알: 서귀포시 토평동 앞바다 이름의 하나이다. // 세미알, 검은여 원 두 군데 우린.('세미알', '검은여' 원 두 군데 우린.) 31 [토평]

세미은절미: '세미떡'과 '은절미'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은절미'는 '인절미'를 말한다. 이 두 개의 떡이 메밀로 만들어서 제보자가 한꺼번에 아울러 이른 게 아닌가 한다. // 세미은절미 ᄒᆞᆫ 거세기난 ᄒᆞᆫ 색깔이난 경 허영 허곡. 그다음엔 또 이제 지름떡이여.('세미은절미' 한 거시기니까 한 색깔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엔 또 이제 기름떡이다.) 29 // ᄌᆞᆸ아근엥에 허곡. 그것ᄀᆞ란 세미은절미.(접어서 하고. 그것보고 '세미인절미'.) 29 [외도]

세벳데기: 한 두둑을 세 개의 거웃으로 만들어 나가는 밭갈이 법을 말한다. // 거 ᄒᆞᆫ 번에 못 갈아. 초불 갈아놧당, 또 두불 갈앙 그자 심것주 세벳데기엔 헤근에.(거 한 번

에 못 갈아. 초벌 갈아놓았다가, 또 두벌 갈아서 그저 심었지 '세벳데기'라고 해서.) 24 [세화]

세부 측량: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제주 지역의 토지 조사 사업을 위해 기초 자료를 마련한 것이다. // 한일합방이 뒈고 천구백십삼 년도 십팔 년까지 거 전국 토지 조사. 보통 우리가 하는 거 세부 측량이라 하는데. 세부 측량이 끝나는 해에.(한일합방이 되고 천구백십삼 년도 십팔 년까지 거 전국 토지 조사. 보통 우리가 하는 거 세부 측량이라 하는데. 세부 측량이 끝나는 해에.) 18 [신도]

세앙비: 밭벼의 일종이다. 밭벼 가운데 품종이 좋은 종류로, 좁쌀 색깔이 노란 것이 특징이다. // 세앙비가 젤 나록ᄊᆞᆯ 닮은 거 좋은 거.('세앙비'가 제일 볍쌀 같은 거 좋은 거.) 14 [성읍]

세역: 무엇을 물릴 때에 그 사이에 물리는 나뭇조각 따위를 말한다. // 그냥 세역만 박으라. 겅헤낫주.(그냥 '세역'만 박아라 그렇게 했었지.) 03 [송당]

세이다: 탕건을 결을 때 날줄마다 말총 서너 가닥씩 지르면서 감치는 것이다. '서이다'라고도 한다. // 요딘 ᄋᆞ덥 동 ᄆᆞᆺ는디 요딘 가민 석 동 반 ᄆᆞᆺ앙 늘뢍 이젠 영 우좁앙, 이젠 또 요 영 놩 이걸 막 서이, 세여.(요긴 여덟 동 마치는데 요긴 가면 석 동 반 마쳐서 늘려서 이젠 이렇게 위 접어서, 이젠 또 이렇게 놔서 이걸 막 '서이', '세여'.) 11 // 줄은 세여 놓민 이ᄁᆡ지 강 ᄆᆞᆺ쳐두곡 요디 강 다 ᄆᆞᆺ쳐두고.(줄을 '세여' 놓으면 여기까지 가서 마쳐두고 요기 가서 다 마쳐두고.) 11 [함덕]

세이레 : 아기가 태어난 후 스무하루 동안 또는 스무하루가 되는 날로 대개 이 날 금줄을 거두며 이 날을 삼칠, 또는 삼칠일이라고 한다. // 세이레가 스물 하루까지는 조심허렌 헤가지고 이십일일 동안은 고셍헷다고 오지 못허게 한다든가. 이십일일.('세이레'가 스물 하루까지는 조심하라고 해가지고 이십일일 동안은 고생했다고 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십일일.) 21 [신촌]

세전가도: 일본어로 삼거리의 굽은 길을 말한다. // 거 잊어불지 말곡 거 장소가 동홍초등ᄒᆞ교난에 그 세전가도 잇잖여. 응 세전 그기서 오십 메다 더 강.(거 잊어버리지 말고 거 장소가 동홍초등학교니까 그 '세전가도' 있잖아. 응 '세전' 거기에서 오십 미터 더 가서.) 04 [고성]

세화장: 구좌읍 세화리에서 5일마다 서는 민속장이다. '서화장'이라고도 한다. // 저 세화장에도 장 보레도 그 배 탕 가고, 그렇게 헤서 그 배 탄 세화리 강 오단 ᄯᅳ시 배 엎어저 갖고 사름덜이 죽은 적 잇엇수다.(저 '세화장'에도 장 보러 그 배 타서 가고, 그렇게 해서 그 배 타서 세화리 가서 오다가 다시 배 엎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적 있었습니다.) 22 // 이제 저 우도식으로 이제 게민 다음 장에는 세화장으로 올거엔, 게 난 또 서화장에 갈 적에 저 새각기 ᄀᆞ슴 왐시난 옷도 곱게 입엉 간 거 똣고냥 주운 옷을 입엉 간 거라 뒤 준 옷을.(이제 저 우도식으로 이제 그러면 다음 장에는 '세화장'으로 올거라고, 그럼 난 또 '세화장'에 갈 적에 저 새색시감 오고 있으니까 옷도 곱게 입어서 간 거 똥구멍 기운 옷을 입어서 간

거야 뒤 기운 옷을.) 22 [우도]

센넨바리: 일본어의 '센닝바리(せんにんばり)'를 말한 것으로, 'せんにんばり(千人針)'는 한 조각의 천에 천 명의 여성이 붉은 실로 한 땀씩 박아 천 개의 매듭을 만들어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주며 무사함을 빌었던 것을 말한다. // 견디 우리 고모부도 가난 우리 고모님이영 흔디 그 센넨바리엔 헌 거 멩지로 모작지우는 거 범띠 춧앙 강 모작지워 도렌 허고 막 헷주게. 경허연 헌디 우리 고모분 모녜 간 오꼿 죽어 불고게.(그런데 우리 고모부도 가니까 우리 고모님이랑 같이 그 '센넨바리'라고 하는 거 명주로 매듭짓는 거 범띠 찾아서 가서 매듭지어 달라고 하고 마구 했지. 그렇게 했는데 우리 고모부는 먼저 가서 그만 죽어 버리고.) 26 [신창]

센바리: 일본어의 '센닝바리(せんにんばり)'를 말한 것으로, 'せんにんばり(千人針)'는 한 조각의 천에 천 명의 여성이 붉은 실로 한 땀씩 박아 천 개의 매듭을 만들어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주며 무사함을 빌었던 것을 말한다. // 그땐 센바리 범헤치 허영 멩지 허영 저 실 모작지우는 거 멧 번썩 헤렌 헨 그거 허레 뎅기곡 우리 어멍 헌디, 우리 어머니도 저 아덜 가민 죽으카부덴 ᄉᆞ못 탁 낙심헷주게.(그땐 '센바리' 범띠 해서 명주 해서 저 실 매듭짓는 거 몇 번씩 하라고 해서 그거 하러 다니고 우리 어머니 했는데, 우리 어머니도 저 아들 가면 죽을까 봐 사뭇 탁 낙심했지.) 26 [신창]

셋문: 부엌과 마루 사이에 있는 문이나 대문 옆에 있는 작은 출입문을 의미한다. // 대문은 젤 큰문이고 셋문은 이추룩 쪼꼴락헌 대문 옆이.(대문은 제일 큰문이고 셋문은 이처럼 조그마한 대문 옆에.) 07 // 앞에 창문. 이거 셋문.(앞에 창문. 이거 '셋문'.) 36 [보목, 봉성]

셋빗: 동그란 시루떡을 자를 때 옆 부분 조그마한 것을 말한다. // 정심헹 멕이고 따시 또 그디 떡헤근에 옛날은 저 떡헤근에 상뒤 큰 거 상뒤 큰 거 네귀방장헌 거 영헹 허민 흔 빗썩 주고 따시 복친덜이나 여저덜은 영 반 빗, 셋빗덜 영 소름소름 셋빗이나 주고.(점심해서 먹이고 다시 또 거기 떡해서 옛날은 저 떡해서 상여꾼 큰 거, 상여꾼 큰 거 네모반듯한 거 이렇게 해서 하면 한 '빗'씩 주고 다시 '복친'들이나 여자들은 이렇게 반 '빗', '셋빗'들 이렇게 기름기름 '셋빗'이나 주고.) 13 [삼달]

셋사슴: 조천읍 함덕리 해수욕장 지명이다. // 셋사슴에 멜 그물 ᄃᆞ겨왐저 허민 막 가주. 그물 임제덜은 멜 타레. 경헤낫어, 우리 두린 때.('셋사슴'에 멸치 그물 당겨온다 하면 막 가지. 그물 임자들은 멸치 따러. 그랬었어, 우리 어린 때.) 11 [함덕]

셋순당: 구좌읍 송당리 자연 마을 이름이다. // 그 제일 시방 중심지입주. 셋순당이엔흔게.(그 제일 시방 중심지입니다. '셋순당'이라고 하는 것이.) 03 [송당]

셋아버지: 아버지형제에서 두 번째이다. '셋-'은 '둘째'의 뜻으로 쓰이는 접두사이다. // 셋아버지, 말젯아버지, 족은아버지가 셔두, 아버지 소리를 못해 보고.(둘째 아버지, 셋째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라는 소리를 못해 보고.) 03 [송당]

셍: 의존 명사 '셍'은 한자어 '상'(相)에서 온 말로, 표준어 또한 의존 명사 '모양'에 대응하는 단어이다. // 잘 엇는 셍이라마씨.(잘 없는 모양이에요.) 22 [우도]

셍겡이: 새끼 소라를 가리키는 말이다. // 이것이 만약에 빌레, 돌이면 이치룩 파져서 인치룩. 인치룩 파진 디 이런 디 ᄀᆞ메기도 잇고 셍겡이도 잇곡 멜 들 때는 이런 호랑겡이에 멜이 헤영케 거 하민 우린 뭐, 나 같은 경우는 뭐 무신 족바지에 그런 거 엇이난 강 그런 거 그 빌레에.(이것이 만약에 너럭바위, 돌이면 이처럼 파져서 이처럼. 이처럼 파진 데 이런 데 개울타리고둥도 있고 '셍겡이'도 있고 멸치 들 때는 이런 '호랑겡이'에 멸치가 하얗게 거 많으면 우린 뭐, 나 같은 경우는 뭐 무슨 뜰채에 그런 거 없으니까 가서 그런 거 그 너럭바위에.) 05 // 고동. 큰 건? 민둥구젱기. 족은 건? 쌀고동. 셍겡이.(소라. 큰 건? '민둥구젱기', 작은 건? '쌀고동', '셍겡이'.) 24 [세화, 표선]

셍궹이: 어린 소라를 일컫는 말이다. 지역에 따라서 '조쿠젱기', '좁쏠구젱기'라고 한다. // 또 구젱기보단 영 족은 건 셍궹이.(또 소라보다 이렇게 작은 건 '셍궹이'.) 05 // 큰 건 구젱기. 족은 건 셍궹이.(큰 건 '구젱기'. 작은 건 '셍궹이'.) 13 // 조조헌 건 셍궹이. 셍궹이, 앙살기, 민둥이. 민둥구젱기.(자잘한 건 '셍궹이'. '셍궹이', '앙살기', '민둥이'. '민둥구젱기'.) 23 [삼달, 온평, 표선]

셍기리: 일본어 'せん(千)ぎり'에서 온 말이다. '채침' 또는 '채친 것'이라는 말이다. // 우리 셍기리도 마찬가지. 셍기리 헐 때도 그렇게 허고. 밤에 비왐직허민 강 더퍼야 뒈여.(우리 무말랭이도 마찬가지. 무말랭이 할 때도 그렇게 하고. 밤에 비올 것 같으면 가서 덮어야 돼.) 14 [성읍]

셍기리무수: '셍기리' 즉 무말랭이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무이다. '셍기리(せんぎり)'는'채침' 또는 '채친 것'이라는 말이다. // 옛날은 종류가 벨로. 저 다꽝무수허곡. 그 셍기리무수벳긔는.(옛날은 종류가 별로. 저 '다꽝무수'하고. 그 '셍기리무수'밖에는.) 14 [성읍]

셍꼬: 일본어 'せんこう(線香)'로 향을 말한다. // 또 센꼬 가지고. 상돌, 상돌 그거 영 저 셍꼬 꽂이는 상돌이 셔.(또 향 가지고. 향로석, 향로석 그거 이렇게 저 향 꽂는 향로석이 있어.) 20 // 어멍이니까 문제헤 나면은 조왕에 가서 메라도 올려서 허다 못헹 셍꼬라도 저 종이 ᄒᆞᆫ 장, 백지 ᄒᆞᆫ 권 사게 뒈믄 이제 헤근에 딴 건 못해도 소지 석 장은 ᄉᆞᆯ아 주는 것이 원칙. (어머니니까 '문제'하고 나면 조왕에 가서 메라도 올려서 하다 못해 향이라도 저 종이 한 장, 백지 한 권 사게 되면 이제 해서 딴 건 못해도 '소지' 석 장을 살라 주는 것이 원칙.) 20 [고내]

셍이보멀: 패류의 한 종류이다. '셍이벨망'이라고도 한다. // 보멀 종류는 말이지 뭐 셍이보멀도 잇고 말이지 뭐 저 뭐 가마귀보멀도 잇고 무슨 먹보멀도 잇고 셍이보멀도 잇고 뭐 메옹이렌 그런 보멀도 잇고 보멀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둥 종류는 말이지 뭐 '셍이보멀'도 있고 말이지 뭐 저 뭐 타래고둥도 있고 무슨 밤고둥도 있고 '셍이보멀'도 있고 뭐 두드럭고둥이라고 그런 고둥도 있고 고둥도 종류가 여

러 가지야.) 27 [웅포]

소개: 제주도에서 '사삼사건'에 한라산에 가까운 마을들을 해안마을로 강제 이주시킨 1948년 11월에 내려진 명령이다. 이것으로 군·경이 대다수 민간인을 무차별로 사살한 일이 된다. // 소개, 소개헨 ᄂᆞ려 간 거 이 둘레도 성 영 다완에.(소개, 소개해서 내려 간 거 이 둘레도 성 이렇게 쌓아서.) 16 [하원]

소게소금: 면화처럼 아주 하얀 소금을 일컫는다. // 그냥 소금, 이제 소게소금이렝 허여. 돌소금, 소게소금.(그냥 소금, 이제 '소게소금'이라고 해. 돌소금, '소게소금'.) 28 [구엄]

소곳허다: 비스듬하게 세워진 모양을 말한다. // 일론 이펜으론 문으론 다 ᄃᆞᆯ아멘 거난 게난 작대기가 비 오라가믄 비 들이카부덴 작대기 안터레 영 쏙허민 소곳허곡 날 좋으민 영 허민 허는 거.(이리론 이편으론 문으론 다 달아맨 거니까 그러니까 작대기가 비 오기 시작하면 비 들이칠까 봐 작대기 안으로 이렇게 쏙하면 '소곳허곡' 날 좋으면 이렇게 하면 하는 거.) 33 [인성]

소금국: 소금물의 의미로 말한 것이다. // 들머귀, 그거를 딱딱 캐여다가 이젠 ᄎᆞᆷ 소금국에 당갓다가 헤먹고.('들머귀' 그거를 딱딱 캐어다가 이젠 참 소금국에 담갔다가 해먹고.) 01 [도련]

소금빌레: 애월읍 구엄리 바닷가 '빌레' 위에 있는 소금밭이다. '빌레'는 넓적하고 평평한 돌이다. // 소금, 그땐 이제도 싯수다마는, 소금 거 바당에 가믄 그것이 소금도 밧ᄀᆞ찌 물려주곡양, ᄑᆞᆯ곡 사곡 헤마씀. 하간 소금빌레 허민 멧 파니, 멧 파니 다섯 파니라, 멧 개 이제 ᄒᆞ민, 것도 하민 이제 갈랑줘.(소금, 그땐 이제도 있습니다만, 소금 그거 바다에 가면 그것이 소금도 밭같이 물려주고요, 팔고 사고 해요. 모든 '소금빌레' 하면 몇 뙈기, 몇 뙈기 다섯 뙈기야, 몇 개 이제 하면, 것도 많으면 이제 갈라서 줘.) 28 [구엄]

소금ᄌᆞᆯ레기: 소금을 만드는 사람을 낮춰 부르는 말이다. 소금 산지였던 대정읍 일과리 출신 사람을 가리킨다. // 그디 날뤠, 소금ᄌᆞᆯ레기, 소금ᄌᆞᆯ레기 허는디. 그디 멜팜부리 이젠 멜팜부리가 없어. 멜팜부리가 막 마당에 ᄂᆞᆯ아뎅겨이.(거기 일과리, '소금ᄌᆞᆯ레기', '소금ᄌᆞᆯ레기' 하는데. 거기 '멜팜부리' 이젠 '멜팜부리'가 없어. '멜팜부리'가 막 마당에 날아다녀.) 33 [인성]

소까이: 일본어 'そかい(疏開)'에서 온 말로, 제주도에서 '사삼사건'에 한라산에 가까운 마을들을 해안마을로 강제 이주시킨 1948년 11월에 내려진 명령이다. // 그니까 여기에서는 그때 당시에 사삼사건 터져가지고 에 직 말ᄒᆞ면 피난오라고 ᄒᆞ는 것이 소까이 그 공문을 부락 지금은 이장, 통장 ᄒᆞ지만 그때는 구장이라 햇거든.(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때 당시에 사삼사건 터져가지고 에 즉 말하면 피난오라고 하는 것이 '소까이' 그 공문을 부락 지금은 이장, 통장 하지만 그때는 구장이하 했거든.) 08 [동광]

소낭굴: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자연 마을 이름이다. // 남평 문씨가 그 소낭굴 문씨덜이.(남

평 문씨가 그 '소낭굴' 문씨들이.) 36 [봉성]

소년이굴: 구좌읍 한동리에 있는 굴 이름이다. // 소년이굴이라는 게 그건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그때는 원족거치, 산보라고 헷지.('소년이굴'이라는 게 그건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에 그때는 원족같이, 산보라고 했지.) 12 [한동]

소도리: 남이 한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말하는 것으로 표준어로는 '말전주'이다. // 소도리 하지 마라 이런 거?('소도리' 하지 마라 이런 거?) 09 [고산]

소들개: 곡식의 대나 억새 따위의 속줄기를 말한다. '소독', '소들기'라고도 한다. // 신이 엇으믄이 나룩찝 소들개 빵, 소들개 빵인에 이제 치짓물 들영, 그때 치칫물 들영인에 이제 ᄆᆞ르민 나룩 소들기 그 말뚝으로 영 빵인에 이 나룩 끗뎅이 부떠난 거 안 들게시리 요 새에만 허영 치칫물 들영인에.(신이 없으면 볏짚 '소들개' 빼서, '소들개' 빼서 이제 치잣물 들여서, 그때 치잣물 들여서 이제 마르면 벼 '소들기' 그 말뚝으로 이렇게 빼서 이 벼 끄트머리 붙었던 거 안 들어가게끔 요 사이에만 해서 치잣물 들여서.) 33 [인성]

소람소람ᄒᆞ다: 길쭉한 모양을 나타낸 말로 '소랑소랑허다'라고도 한다. // 게난 아가미엔 ᄒᆞᆫ 게. 그 저 갈치엣 게 이 소람소람ᄒᆞ곡. 이 먹기가.(그러니까 아가미라고 한 것이. 그 저 갈치에 것이 이 길쭉하고. 이 먹기가.) 04 [고성]

소랑소랑: 좀 기름한 물건이 나란하게 놓여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침떡은 끊어 놓곡, 요만썩 소랑소랑 침떡은 꼭 허여사.(시루떡은 끊어 놓고, 이만씩 기름기름 시루떡은 꼭 해야.) 10 [월령]

소랑소랑허다: 가늘고 길쭉한 모양을 말한다. '수랑수랑'이라고도 한다. // 물 감자가 잇고 모읜 감저가 잇고 물감잔이 나 대가리만씩 크고, 그 폭삭폭삭허는 건 소랑소랑헹 크도 안 헤.(물 고구마가 있고 메진 고구마가 있고 물고구만 내 머리만큼씩 크고, 그 폭삭폭삭하는 건 '소랑소랑'해서 크지도 않아.) 21 [신촌]

소랑중: 애월읍 고내리 지명의 하나이다. // 똥은 뭐 가까운 디서 줏고 나무 허레만 먼 데 가고 솔입 긁으레는 이디서민 저, 저 어디 소랑중 그런 디 어디 소랑중이엔 헌 디, 미럭당이엔 헌 디 그런 디 가낫주.(똥은 뭐 가까운 데서 줍고 나무 하러만 먼 데 가고 솔가리 그러모으러는 여기서면 저, 저 어디 '소랑중' 그런 데 어디 '소랑중'이라고 하는 데, '미럭당'이라고 하는 데 그런 데 갔었지.) 20 [고내]

소레기동산: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지명의 하나이다. // 심지 못 허여 가지고 이젠 그게 또 넹견에 소레기동산으로 헤여 가지고 어디냐 허믄 바굼지오름. 파군봉꺼지 목까지 아이고, 틀렷다. 틀련, 보니까 거기 김○○라는 사름 잇엇는데 말여. 꿩코 보레 뎅기단에.(잡지 못 해 가지고 이젠 그게 또 지나서 '소레기동산'으로 해 가지고 어디냐 하면 '바굼지오름'. '파군봉'까지 목까지 아이고, 틀렷다. 틀렸어, 보니까 거기 김○○라는 사람 있었는데 말이야. '꿩코' 보러 다니다가.) 29 [외도]

소레물: 조천읍 함덕리 3구의 샘물 이름이다. // 소레물도 가고 고둣물도 가는디 거리가 머니까 이 얼아이 옷덜은 그 걸레들은 지셍기들은 이 못듸 강 ᄲᆞᆯ아.('소레물'도 가

고 ‘고둣물’도 가는데 거기가 머니까 이 어린애 옷들은 그 걸레들은 기저귀들은 이 못에 가서 빨아.) 11 [함덕]

소로록: 표준어 ‘소르르’ 또는 ‘수르르’에 대응하는 말이다. // 그 픗으로 둥그렁, 물르레 영 소로록 ᄒᆞ게 놓민, 꼭 그 닮게, 픗 반 께난 디게 꼭 그 모냥으로 나와.(그 팥으로 뒹굴려, 물에 이렇게 ‘소로록’ 하게 놓으면, 꼭 그 닮게, 팥 반 깼던 데 꼭 그 모양으로 나와.) 15 [수망]

소록소록: 콩국을 끓일 때 소금물을 조금씩 붇는 모양이다. // 숟가락으로 궤여 오는 더레 소록소록 ᄒᆞ꼼썩 놓아 가믄이 것이 전전허게 꺼져가.(숟가락으로 끓어오르는 데 ‘소록소록’ 조금씩 놓아가면 그것이 ‘전전’하게 꺼져가.) 11 [함덕]

소록소록허다: 불이 잘 타들어 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세 개썩만 헤영 손 잡앙 꺼꾸로 짇으민 일로 가젱이 영 헹 헤 가민 소록소록헐 건디 그냥 일로 짇으민이.(세 개씩만 해서 손 잡아서 거꾸로 때면 이리로 가지 이렇게 해서 해 가면 ‘소록소록할’ 건데 그냥 이리로 때면.) 30 [노형]

소록허다: 떡 따위가 폭신하고 부드럽게 잘 익은 상태를 나타낸 말이다. // 경 헹 딸령 이제 비우면 재수가 좋으면 잘 소록허게 익는데.(그렇게 해서 달여서 이제 비우면 재수가 좋으면 잘 ‘소록허게’ 익는데.) 06 [남원]

소배추: 이파리가 빳빳하고 거무스름한 배추를 말한다. ‘소배치’라고도 한다. 김치를 담가 먹지 못하고 국을 끓여먹는 용도로 사용했다. // 소배치엔 헌 건 ᄒᆞ쏠 깜시룽헤여. 배치 이파리가 빠닥빠닥허고.(‘소배치’라고 한 건 조금 까매. 배추 아파리가 ‘빠닥빠닥’ 하고.) 25 [태흥]

소분밧: 조상 제사를 모시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했던 밭이다. ‘제월전’이라고도 한다. // 하르방이 문중 강칩이 문중 이제 훼장이 뒈난 이제 소분밧, 종손이 소분밧 안 내놘에 다 풀아먹으난 문중재판을 헨.(할아버지가 문중 강씨 집에 문중 이제 회장이 되니까 이제 ‘소분밧’, 종손이 ‘소분밧’ 안 내놔서 다 팔아먹어버리니까 문중재판을 했어.) 13 // 소분밧이엔 헌 건 죽어 분 어른 제ᄉᆞ헐 밧을 옛날에 다 놔낫주게.(‘소분밧’이라고 한 건 죽어 버린 어른 제사할 밭을 옛날에 다 놨었지.) 13 [삼달]

소살: 작살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게서 뭐 헴직허면 자기가 이상하다 허면 작살질 허여. 작살로 찍엉. 서울에서는 작살을 뭐라고 허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소살이라고 허여.(그래서 뭐 하려하면 자기가 이상하다 하면 작살질 해. 작살로 찍어서. 서울에서는 작살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소살’이라고 해.) 09 // 건 소살이라고. 소살이라고 궤기 시민 그걸 찔러사 뒈주게.(그건 ‘소살’이라고. 작살이라고 고기 있으면 그걸 찔러야 되지.) 10 [고산, 월령]

소섬: 과거 우도면을 가리켜 부르던 다른 이름이다. // 이월덜 나믄. 정월 그믐 나믄, 정월 그물 때에는 저 소섬이엔 헌 디가 저 어디주게.(이월 되면. 정월 그믐 되면, 정월 그물 때에는 저 우도라고 하는 데가 저 어디지.) 20 // 경 헌디 메누리는 우리

제주에서 버틸 힘이 엇수다. 제주 시네에선 소섬 강 장ᄉᆞ도 ᄒᆞ곡 허길레 경 기영 ᄒᆞ라마는 난 모르키여 경만 헤연 잇는건디.(그런데 며느리는 우리 제주에서 버틸 힘이 없습니다. 제주 시내에선 '소섬' 가서 장사도 하고 하길래 그렇게 그리 하라마는 난 모르겠다 그렇게만 해서 있는건데.) 22 // (영등은) 소섬으로 들어온덴 헤낫어. 소섬으로 들어왕 나간덴 허멍.((영등은) 우도로 들어온다고 했었어. 우도로 들어와서 나간다고 하면서.) 26 // 뭐 이월 그뭄에 뭐 저 소섬 오랑 잇다근에 소섬 왕 ᄒᆞ룻밤 장 초ᄒᆞ를 뒈민 영등으로 제주로 헹 나온덴 허는디 영등굿도 허고. 영등ᄇᆞ름은 어느 ᄇᆞ름을 허는 걸 잘 생각 못허켜.(뭐 이월 그믐에 뭐 저 '소섬' 와서 있다가 '소섬' 와서 하룻밤 자서 초하루 되면 영등으로 제주로 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영등굿도 하고. 영등바람은 어느 바람을 하는 걸 잘 생각 못하겠어.) 30 [고내, 노형, 신창, 우도]

소세: 꼴의 한 종류이다. // 소세, 소세엔 헌 게 잇어. 쉐나 ᄆᆞᆯ이나 그거 비여당 그자 줫주.('소세', '소세'라고 한 게 있어. 소나 말이나 그거 베어다가 그저 줬지.) 14 // 소세, ᄆᆞᆫ작헌 소세. 우트레 꼿 피곡 헌 소세가 잘 먹읍니다.(소세, 반드러운 소세. 위에 꽃 피고 한 소세를 잘 먹습니다.) 32 [덕수, 성읍]

소수림: 장의사가 시체를 손질하는 절차 중 하나이다. '소렴'을 말하는 것 같다. // 소수림이엔 헌 건 임시 경헹 죽엉 ᄉᆞᄆᆞᆺ 죽어신디 말아신디 이 발 무끄고 손헤영 영 놩 한가운디 ᄒᆞᆫ 밧듸만 영 손 놩 ᄀᆞ짝헤영 무끄민 소수림.('소수림'이라고 한 건 임시 그렇게 해서 죽어서 사뭇 죽었는지 말았는지 이 발 묶고 손 해서 이렇게 놔서 한가운데 한 군데만 이렇게 손 놔서 곧게 해서 묶으면 '소수림'.) 13 [삼달]

소수산봉: 성산읍 고성에 소재한 오름이다. // 큰물믜는요 데수산봉이고, 족은물믜는 저 소수산봉.('큰물메'는요 '대수산봉'이고, '족은물메'는 저 '소수산봉.') 04 [고성]

소식은빌레: 한림읍 옹포리에 있는 바위 중 하나이다. 주로 주민들이 이곳에서 여름철 소들의 더위를 피하게 했던 곳이라 한다. // 그럼 소식은빌레도 잇수광? 들어보션마씨?(그럼 '소식은빌레'도 있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소식은빌레? 그거는 들어보긴 들어본 거 ᄀᆞ튼 디 어디 잇인지는 잘 몰르고.('소식은빌레'? 그거는 들어보기는 들어본 거 같은 데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고.) 27 [옹포]

소왕소왕: 목화의 씨를 뺄 때 사용하는 씨아에 잘 마른 목화를 넣고 돌릴 때 나는 소리나 씨아가 잘 돌아가는 상태를 나타낸 말이다. // 과상허게 ᄆᆞᆯ류와사 소왕소왕 허게 잘 먹주. 경 안허민 안 나가, 안 나가.('과상하게' 말려야 '소왕소왕' 하게 잘 먹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가, 안 나가.) 31 [토평]

소왕지다: 땅에 자갈들이 뽀족뽀족 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작지가 많이 저 소왕져서 그런 건디. 경 헤 가지고 이제 헌디 그 잣벡마다 보면은 간간이 그 수리대.(자갈이 많이 저 '소왕져서' 그런 건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잣벡'마다 보면 간간이 그 이대.) 29 [외도]

소유지: 유자의 한 종류이다. 당유자보다 작다. // 소유지, 소유지 허민 옛날은 이 사과, 배

엇어낫주게.('소유지, 소유지' 하면 옛날은 이 사과, 배 없었었지.) 13 [삼달]

소접: 소를 기를 때 협동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된 집단을 말한다. '접'은 표준어 '계(契)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 그 뭐 소접도 허고 뭣도 허멍.(그 뭐 '소접'도 하고 뭣도 하면서.) 23 [온평]

소정방: 서귀포시 정방폭포 서쪽에 있는 작은 폭포를 말한다. // 요 보통 소정방이렌 헤서 거문여라고 이서, 물 나는데.(요 보통 '소정방'이라고 해서 '거문여'라고 있어, 물 나는데.) 07 [보목]

소젱잇궤: 표선면 성읍1리 지경에 있는 자연 동굴의 하나이다. '수젱잇궤'라고도 한다. // 굴은 너분못궤 잇고, 소젱잇궤 잇고, 또 원남갯궤 잇고 그게 그게. 생이궤엔 헌 디가 잇는디 생이궤는 우로 들어가곡 우로 나오는벳기는 못허는 궤가 잇어.(굴은 '너분못궤' 있고, '소젱잇궤' 있고, 또 '원남갯궤' 있고 그게 그게. '생이궤'라고 한 데가 있는데 '생이궤'는 위로 들어가고 위로 나옴밖에는 못하는 굴이 있어.) 14 [성읍]

소종이: 물질할 때 해녀들이 입는 무면으로 만든 물옷을 말한다. '소중기', '소종의', '소중의', '속옷', '속곳'이라고도 한다. // 볼목리에서도 우리 소종이렌 헨. 옛날에는 소종의렌 헤난.(보목리에서도 우리 '소종이'렌 했어. 옛날에는 '소종의'라고 했지.) 07 [보목]

소중기: 물질할 때 해녀들이 입는 무명으로 만든 물옷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소중의', '속곳'이라고도 한다. // 소중기는 여자들, 해녀들 입는 빤쓰라. 지금 우리말로 이야기 허면 해녀들 입는 물옷.('소중기'는 여자들, 해녀들 입는 팬티야. 지금 우리말로 이야기 하면 해녀들 입는 물옷.) 27 [옹포]

소중기: 여자들이 속곳으로 입는, 오른쪽 옆이 트인 중의를 말한다. '소중의', '속중의'라고도 한다. // 곳세 ᄀᆞ치게 여자는 소중기 멘들앙 입고, 남저는 저 빤스도 멘들앙 입고.(아까 같이 여자는 '소중기' 만들어서 입고, 남자는 저 팬티도 만들어서 입고.) 19 [청수]

소중ᄃᆞᆯ메기: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었던 '소중의'의 매듭단추를 말한다. '소중ᄃᆞᆯ메기'라고도 했다. // 소중ᄃᆞᆯ메기. 소중의에 ᄃᆞᆯ메기.('소중ᄃᆞᆯ메기'. '소중의'에 매듭단추.) 20 [고내]

소중의: 물질할 때 잠녀들이 입는 무명으로 만든 물옷을 말한다. '물소중이', '소중기', '속곳'이라고도 한다. // 기냥 옛날에는이 속곳 영 허영 입곡. 우의 저 적삼 이만이 헌 거 허영. 아래 그건 무신 소중이옌 ᄀᆞᆯ아라마는.(그냥 옛날에는 속옷 이렇게 해서 입고. 위에 저 적삼 이만큼 한 거 해서. 아래 그건 무슨 '소중이'라고 말하더니만.) 01 // 옛날 물질허는 사름덜이나 따시 물질 안허는 사름도 옛날은 소중의 입어낫주게.(옛날 물질하는 사람들이나 다시 물질 안하는 사람도 옛날은 '소중의' 입었었지.) 13 // 지금 ᄌᆞᆷ수덜 저 물옷 입는 거. 것ᄀᆞ라 소중의.(지금 해녀들 저 물옷 입는 거. 것보고 '소중의'.) 14 // 소중의만 입엉, 그거 ᄆᆞᆯ망 ᄌᆞ물아다근

에 널엉 놧당 ᄆᆞᆯ루민 또 씻거.('소중의'만 입어서, 그거 모자반 캐다가 널어서 놓았다가 마르면 또 씻어.) 24 [고내, 도련, 삼달, 성읍, 세화]

소지허다: 일본어 'そづじ(掃除)'로 '청소하다'의 의미이다. // 아라카와귀약소엔 헌 디 그 염에 우리 사촌 오래비네가 집 시난. 경 허난에 그디 소지허는 거 사장. 그 사름신디 말허민 그 사름이 멧 멧 태왕 모집허영 어디 청소허는 디 보내고.(아라카와구청이라고 하는 데 그 옆에 우리 사촌 오라비네 집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거기 청소하는 거 사장. 그 사람에게 말하면 그 사람이 몇 몇 태워서 모집해서 어디 청소하는 데 보내고.) 26 [신창]

소줌녜: 작업하는 기량이 서투른 해녀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하군', '깍줌녜', '깍줌수', '돌파리', '돌ᄑᆞ레', '똥군', 'ᄇᆞᆯ락줌녜', 'ᄇᆞᆯ락줌수', '족은줌녜', '족은줌수', '하줌녜', '하줌수', '핫바리'라고도 한다. // 그냥 건 어린 것들. 소줌녜. 그냥 상줌녜, 소줌녜 그자. (그냥 건 어린 것들. '소줌녜'.그냥 '상줌녜', '소줌녜' 그저.) 27 [옹포]

속곳: '속속곳'과 '단속곳'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여자 옷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치메, 저고리, 바지, 속곳이영. 살마다.(치마, 저고리, 바지, '속곳'하고, 팬티.) 03 // 경허민 이 옷에, 옷도 옛날말로 속곳이라 속곳.(그러면 이 옷에, 옷도 옛날말로 '속곳'이야 '속곳'.) 06 [남원, 송당]

속곳: 물질할 때 해녀들이 입는 무명으로 만든 물옷을 의미한다. '물소중이', '소중의', '소중기'이라고도 한다. // 속곳을 한 쪽에만 이 뭔가 이꺼지 저 ᄃᆞᆯ마귀 ᄃᆞᆯ마귀 ᄀᆞᆮ이 그 땐 단초도 엇엇어.('속곳'을 한 쪽에만 이 뭔가 여기까지 저 매듭단추 매듭단추 같이 그 때는 단추도 없었어.) 09 // 경허난 훰 베우라 헹 가민 속곳 입곡 얼엉 영 영 영 영 테왁 들렁 사민 우리 어무니 물러레 자락 허게 밀어 비연.(그러니까 헤엄 배우라고 해서 가면 '속곳' 입고 추워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테왁' 들고 서면 우리 어머니 물로 와락 하게 밀어 버렸어.) 26 // 봄조겡이엔 허지. 그거 허리에. 옛날엔 속곳 입으난 그 끈에 영 허영 감앙 들어가낫거든.('봄조겡이'라고 하지. 그거 허리에. 옛날엔 '속곳' 입으니까 그 끈에 이렇게 해서 감아서 들어갔었거든.) 29 // 속곳 담곡 호미 담곡 비창 담곡 ᄀᆞᆯ겡이 담곡 눈 잇어. 눈 영 큰 거 허민 낭이로 영 헤근에 짜근에 그레, 벌러지카 부덴 놩 담곡. 또 그것에 낭 담앙 그 구덕에 담곡 그거 저거 물건 그거 다 담고 그 테왁, 테왁도 베여. 테왁헤근에 구덕에 놔근에 지곡. 겐 ᄒᆞᆫ 짐 졍 가 갈 때도.('속곳' 담고 낫 담고 '비창' 담고 호미 담고 물안경 있어. 물안경 이렇게 큰 거 하면 나무로 이렇게 해서 짜서 그리, 깨질까 봐 넣어서 담고. 또 그것에 나무 담아서 그 바구니에 담고 그거 저거 물건 그거 다 담고 그 '테왁', '테왁'도 무거워. '테왁' 해서 바구니에 놔서 지고. 그래서 한 짐 지고 갈 때도.) 31 [고내, 고산, 신도, 신창, 옹포, 외도, 토평, 표선, 한동]

속곳: 소라의 '맹낭'을 가리키는 말이다. 모양이 '속곳'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이다. // 그

속곳엔 헌 거 잇어. 그거 벳겨 불어야, 그거 먹으민 써(그 '속곳'이라고 한 거 있어. 그거 벗겨 버려야, 그거 먹으면 써.) 29 [외도]

속돌: 딴딴하지 않고 구멍이 송송하게 난 돌로, 바늘 등을 갈 때 사용한다. // (바농) 속돌. 속돌로 ᄀᆞᆯ아낫저게.((바늘)'속돌'. '속돌'로 갈았었어.) 26 [신창]

속박: 나무를 기름하면서도 둥글게 파서 곡식을 담거나 불림질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도구이다. 예전에는 나무를 파서 만드는데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지역에 따라서 '손박', '솔박', '좀박', '좀팍', '좀팍세기' 등으로 부른다. // 그땐 조고고리라도 영 허젱 ᄒᆞ민 속박, 옛날 속박 잇지?(그땐 조 이삭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속박', 옛날 '속박' 있지?) 07 // 불림질 허제 허면 속박허고게 멍석이지게.('불림질' 하려고 하면 '속박'하고 멍석이지.) 12 // 불림질헐 때 속박허고 얼멩이가 꼭.('불림질'할 때 '속박'하고 어레미가 꼭.) 12 // 오늘 나가 보리를 ᄀᆞᆯ겟다 허면 은 속박에 보리 하나 가지고 가서 엎어놔야 됌.(오늘 내가 보리를 찧겠다고 하면 은 '속박'에 보리 하나 가지고 가서 엎어놔야 돼.) 23 [보목, 온평, 한동]

속빡: 수북 물건이 가득하게 많이 담겨져 있거나 쌓여 있는 모양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솥 안에 가득 차 있다는 뜻이다. // 웨솟디로 죽을 그자 불탁불탁 ᄒᆞᆫ 솟을 속빡 쒄. 곤ᄉᆞᆯ에 좁ᄉᆞᆯ에 감저에 놩 죽을 쒄.('웨솟'에서 죽을 그저 불탁불탁 한 솥을 수북하게 쑤었어. 흰쌀에 좁쌀에 고구마에 넣어서 죽을 쑤었어.) 04 [고성]

속삿갓: 삿갓의 한 종류이다. // 게난 그 삿갓은 두불 헤. 밧디 뎅기는 삿갓은 속삿갓으로 허곡게. 비도 오민 비 맞이민 그 삿갓이 좀 거멍허주게.(그러니까 그 삿갓은 두벌 해. 밭에 다니는 삿갓은 '속삿갓'으로 하고. 비도 오면 비 맞으면 그 삿갓이 좀 거멓지.) 30 // 속삿갓이엔 헌 건 (대나무 껍데기) 그다음 걸로 짠 거. 게난 속삿갓이 빨리 헐어.('속삿갓'이라고 하는 건 (대나무 껍데기) 그다음 걸로 짠 거. 그러니까 '속삿갓'이 빨리 헐어.) 30 [노형]

속중의: 속에 입는 중의를 말한다. 속곳의 하나이다. // 베로 적삼도 헤영 입고. 아으덜토 ᄆᆞᆫ 멘들아주곡. 이 속중의라도 ᄆᆞᆫ 멘들앙 입곡게.(베로 적삼도 해서 입고. 아이들도 모두 만들어주고. 이 '속중의'라도 모두 만들어서 입고.) 01 // 속중의는 여자가 입는 거고. 겨곡 또 속중의 남자도 무사 저 중의바지 입을 때 속중의 안 입어?('속중의'는 여자가 입는 거고. 그리고 또 '속중의' 남자도 왜 저 중의바지 입을 때 '속중의' 안 입어?) 14 [도련, 성읍]

손: 손님의 줄임말로 천연두를 이른다. 바로 말하기 거북한 말을 돌려서 말하는 것이다. // 그거 헤나민 경허는 할망 빌어다근에 손 냄이엔 허영 밥헤영 문전에 빌곡 어디 헤당 어디 저 질더레 데끼고.(그거 하고나면 그렇게 하는 할머니 빌어다가 손님 내보낸다고 해서 밥해서 문전에 빌고 어디 해다가 어디 저 길로 던지고.) 13 [삼달]

손가락떡: 떡의 일종이다. // 그런 거나 이 손가락떡이나 뭐 전부 잇는데, 이젠 이름덜 전부 잊어부런 몰르커라.(그런 거나 이 '손가락떡'이나 뭐 전부 있는데, 이젠 이름

들 전부 잊어버려서 모르겠어.) 01 [도련]

손곱: 표준어 '손톱'에 대응하는데, 여기서 '손곱'은 손끝을 가리킨다. // 손곱 터져근에 피 나민, 바농질 만이 헤 가민.(손끝 터져서 피 나면, 바느질 많이 해 가면.) 12 [한동]

손내성: 굿을 할 때 사용하는 떡의 하나로 기름하게 만든 떡에 골을 낸 '골무떡'을 무가에서 이르는 말이다. // 굿홀 때는 돌레떡이여 손내성이여 발내성이여 그런 거 잇는디 나 그런 거 몰라.(굿할 때는 '돌레떡'이야 '손내성'이야 '발내성'이야 그런 것 있는데 나는 그런 거 몰라.) 15 [수망]

손당: 구좌읍 송당리를 말한다. // 사름덜 빌엉 강. 그거는 구좌면, 이 손당 그 낫질을 잘 허는디 선흘은 낫질허는 이도 벨로 엇어.(사람들 빌어서 가서. 그거는 구좌면, 이 송당 그 낫질 잘하는데 선흘은 낫질하는 이도 별로 없어.) 02 // 교래, 손당 ᄀᆞ튼 디 중산간, 거 산촌에서 나는 거주.(교래, 송당 같은 데 중산간, 그거 산촌에서 나는 거지.) 11 // 여기서 손당이면은 거리가 얼마여. 거리가 아마도 오십 리 더 뒈지 않을까? 걸언 그 연락하러 갓는데, 게 지금 ᄀᆞᆫ는 애이가 다 죽엇다는 거야.(여기서 '송당'이면 거리가 얼마야. 거리가 아마도 오십 리 더 되지 않을까? 걸어서 그 연락하러 갔는데, 그 지금 말하는 아이가 다 죽었다는 거야.) 24 [선흘, 세화, 함덕]

손도메: 팔뚝에 끼는 표준어 '토시'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일본어 'とめ'에서 온 말이다. // 엿날엔 입을 것도 엇곡 손도메가 시카.(옛날엔 입을 것도 없고 손 토시가 있을까.) 16 [하원]

손메다: 서로 손을 맞잡아 협력하여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 잘허는 사름도 못하는 사람네 메여줭 ᄀᆞ치 수눌엉 가는 것이 좋주게. 손메영 가근에 허는 것이 좋아.(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네 매어줘서 같이 품앗이해서 가는 것이 좋지. '손메영' 가서 하는 것이 좋아.) 33 [인성]

손봉오지: 떡 따위에 손으로 봉오리처럼 만든 것을 의미한다. // 게민 그것도 이 손봉오지만 부쪄근에 영 허영 꼭꼭 벨을 접는 거라.(그러면 그것도 이 '손봉오지'만 붙여서 이렇게 해서 꼭꼭 별을 접는 거야.) 23 [온평]

손사레: 고생한 사람들에게 공을 갚는 것으로 사례를 한다는 의미이다. // 특별히 속은 사름은이 집이 와도 손사레를 잘 닮암직이 헤 가지.(특별히 고생한 사람은 집에 와도 사례를 잘 그럴싸하게 해 가지.) 11 [함덕]

손지순: 참외 따위의 순 가운데 세 번째 순을 말한다. // 세 ᄆᆞ디에 하나씩 ᄌᆞᆯ랑 손지순에서, 손지순에서.(세 마디에 하나씩 잘라서 '손지순'에서, '손지순'에서.) 29 [외도]

손청거리: 사랑채를 말한다. // 부젯칩이 이문간 ᄯᅮ루 헤근엥에 그 이문간 ᄒᆞ는 집에는 보며는, 안거레, 또 손청거리, 모커리, 그런 거.(부잣집이 문간채 따로 해서 그 문간채 하는 집에는 보면, 안채, 또 '손청거리', 곁채, 그런 거.) 15 // 손청거린 옛날게 큰어른덜 앚앙 영 이제민 첨 어디 큰어른덜 뭐 허민 손청거리엔 헌 디는 영

저 하르방덜, 문세 가진 하르방덜.('손청거리'는 옛날 큰어른들 앉아서 이렇게, 이제면 참 어디 큰어른들 뭐 하면 '손청거리'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저 할아버지들, 문서 가진 할아버지들.) 31 [수망, 토평]

손탁손탁손탁: 무엇을 거칠고 빨리 써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 자리물훼 자리 사다근에 데멩이 그차 데껴 불고 가시 다 그차 놩 막 그차 불민 요만이베낀 안 허난 그거 반지륵케 비늘 헤 둬근에 가시 원 엇이 헤근에 손탁손탁손탁 썰어근에 물훼허는 거.(자리물훤 자리 사다가 대가리 끊어 던져 버리고 가시 다 끊어 놓고 마구 끊어 버리면 요만큼밖에 안 하니까 그거 깨끗하게 비늘 해 둬서 가시 전혀 없이 해서 '손탁손탁손탁' 썰어서 물회 하는 거.) 12 [한동]

솔가리다: 외가닥으로 돋아난 곡식의 싹이 점차 자라나면서 두 세 가닥으로 그 이파리가 벌어지다는 뜻이다. // 보리 빌 때 그거 솔가려그네 보리영 비여난 다음에는 끗나면은 산디 검질 우선 메곡, 게난 산디가 제일 먼저 ᄒᆞᆫ 약 음력으로는 삼월 말광 ᄉᆞ월 초에 갑니다.(보리 벨 때 그거 '솔가려서' 보리하고 베어난 다음에는 끝나면 밭벼 김 우선 매고, 그러니까 밭벼가 제일 먼저 한 약 음력으로는 삼월 말과 사월 초에 갑니다.) 08 [동광]

솔거리다: 외가닥으로 돋아난 곡식의 싹이 점차 자라나면서 두세 가닥으로 그 이파리가 벌어지는 것을 말한다. '거리다'라고도 한다. // 망종에 솔거리게 헷는디 그 망종 전이 갈앗주, 이거 산뒤는.(망종에 '솔거리게' 했는데 그 망종 전에 갈았지, 이거 밭벼는.) 12 [한동]

솔깍지네웃도: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솔깍지어웃도', '솔칵지어웃도'라고도 했다. // 솔깍지네웃도, 그 바우엔 헌 건 그 솔깍지네웃도, 솔깍지네웃도 헤낫저.('솔깍지네웃도', 그 바위라고 하는 건 그 '솔깍지네웃도', '솔깍지네웃도' 했었어.) 31 [토평]

솔대거리: 제주시 외도동의 거리 이름이다. '솔대', 즉 주변에 '솟대'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 여기는 솔대거리, 솔대거리 헷거든. 폭낭 신 디(여기는 '솔대거리', '솔대거리' 했거든. 팽나무 있는 데.) 29 [외도]

솔대왓: 제주시 노형동의 지명 중 하나이다. // 이것이가 다섯 설인가 일곱 설인가. 우리 아버지가 항상, ᄂᆞᆷ의 어른덜은 소 장기 지고 솔 헤근에 이 솔대왓디 오는디 우리 아버진 꼭 솔 이껑 글렌 헤, 날ᄀᆞ라.(이것이 다섯 살인가 일곱 살인가. 우리 아버지 항상, 남의 어른들은 소 쟁기 지고 소를 해서 이 '솔대왓'에 오는데 우리 아버지는 꼭 소를 이끌어서 가라고 해, 나보고.) 30 [노형]

솔대왓: 제주시 외도동의 지명 중 하나로 솟대가 세워 있던 곳이라는 뜻이다. '솔대'는 달리 '거욱대'라고도 하는데, '솟대'의 제주어이다. '솟대왓'은 달리 '거욱대왓'이라고도 하였다. // 솔대는 그 가운데 헤 가지고 그 폭낭 이디 지금 오게 뒈믄 중간에 그 건디 거기 솔대왓.(솟대는 그 가운데 해 가지고 그 팽나무 여기 지금 오게 되면 중간에 그것인데 거기 '솔대왓'.) 29 [외도]

솔덕돌: 제주시 외도동에서 솟대를 세운 돌을 일컫는 말이다. // 솔덕돌이라 뭐라 헤 가지고 그 액을 막나 헤서 그것이 두 개 잇엇고. 소레기동산 또 밑에 제멩이라 헤서 제멩이.('솔덕돌'이라 뭐라 해 가지고 그 액을 막는다 해서 그것이 두 개 있었고. '소레기동산' 또 밑에 '제멩이'라 해서 '제멩이'.) 29 [외도]

솔도: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화전 마을이다. // 광평이라든지 솔도렌 보리 ᄀᆞ뜬 것도 아이 뒈곡, 조도 아이 뒈고, 단 콩, ᄑᆞ벳기 아이 뒙주기.('광평'이라든지 '솔도'로는 보리 같은 것도 아니 되고, 조도 아니 되고, 단 콩, 팥밖에 아니 되지요.) 35 // 게난 거 어도 이구는 그렇게. 저디 화전에 잇어, 솔도. 그 어도 이구라.(그러니까 거 어도 이구는 그렇게. 저곳 화전에 있어, 솔도. 그 어도 이구야.) 36 [대림, 동광, 봉성]

솔동산: 서귀포시 송산동에 있는 지명 중 하나이다. // 경허난 서귀포 그때엔이 원 솔동산이나 어디나 집이 경 잇이냐게.(그러니까 서귀포 그때에는 원 '솔동산'이나 어디나 집이 그렇게 있니.) 31 [토평]

솔라니: '옥돔'을 이르는 것으로, '솔레기', '생성'이라고도 한다. // 솔라니 말고 우리 끌여 먹젠 허민 갈치도 사당 갈치국도 끌려 먹고.(솔라니 말고 우리 끓여 먹으려고 하면 갈치도 사다가 갈치국도 끓여 먹고.) 25 // 돔국, 돔국 허멍, 돔국이엔도 ᄀᆞᆫ고, 솔라니국이엔도 ᄀᆞᆯ아. 옥돔이엔도 허곡, 솔라니엔도 허곡.(돔국, 돔국 하면서, 돔국이라고도 말하고, '솔라니'국이라고도 말해. 옥돔이라고도 하고, '솔라니'라고도 하고.) 25 [태흥]

솔라니국: '솔라니'는 옥돔을 가리키는 말로, '솔라니국'은 옥돔을 넣어 끓인 국을 말한다. // 솔라니국으로만 많이 허곡 저 쉐고기국도 잇당 ᄒᆞᆫ번ᄒᆞ고 경 헤.(옥돔국으로만 많이 하고 저 소고깃국도 이따 한번하고 그렇게 해.) 16 // 아니, 이디 솔라니국 거튼 거 그거 궤기국게. 아무 고기라도이 멩질 때나 허고 식게 때나 먹주, 못 먹어.(아니, 여기 옥돔국 같은 거 그거 고깃국. 아무 고기라도 명질 때나 하고 제사 때나 먹지, 못 먹어.) 31 [토평, 하원]

솔락ᄒᆞ다: 구멍 따위를 쉽게 빠져 나가다의 의미를 지니는 제주어이다. // 솔락ᄒᆞ게 들어가 그넹 허면 그거는 먹는 거지. 안 들어가면 못 먹고. 게믄 그다음 사람이 또 쳐, 또 들어가면 하나씩 자기가 따서 먹는 거지.('솔락ᄒᆞ게' 들어가서 하면 그거는 먹는 거지. 안 들어가면 못 먹고. 그러면 그다음 사람이 또 쳐. 또 들어가면 하나씩 자기가 따서 먹는 거지.) 27 [옹포]

솔랑솔랑: 바닷고기를 길쭉길쭉하게 썬 모양이다. // 다 빠 둬근에 ᄯᅳ시 영 영 ᄀᆞ로 영 썰지 아녀그네 솔랑솔랑, 납작납작 ᄒᆞ게시리 솔랑솔랑 ᄒᆞ게시리 나풀나풀 ᄒᆞ게시리 썰엉.(다 빼 둬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가로 이렇게 썰지 않고서 '솔랑솔랑', 납작납작 하게끔 '솔랑솔랑' 하게끔 '나풀나풀' 하게끔 썰어서.) 08 [동광]

솔레기: 옥돔을 말한다. 달리 '오토미', '솔라니', '솔내기', '생선', '생성'이라고 한다. // 옥돔이엔 안 허곡, 엿날엔 솔레기, 생성. 그자 그거.(옥돔이라고 안 하고, 옛날엔

‘솔레기’, ‘생성’. 그저 그거.) 06 //생선은 솔레기도 좋고 갈치도 갈치국은 호박 놩 끌려야 좋아. 솔레기국광 거시긴 메역 놔도 갈치국은 호박 놔야 좋아. (생선은 옥돔도 좋고 갈치도 갈치국은 호박 넣어서 끓여야 좋아. 옥돔국과 거시기는 미역 놔도 갈치국은 호박 넣어야 좋아.) 13 [남원, 삼달]

솔박: 나무를 둥그스름하고 납죽하게 파서 만든 작은 바가지 비슷한 그릇이다. ‘속박’, ‘손박’, ‘솔팍’, ‘좀박’, ‘좀팍’, ‘좀팍세기’라고도 한다. // 나 놈의 밧 벌민 풋이 ᄒᆞ난에 그때 풋이 솔박으로 ᄒᆞ난에 솔박으로 풋 영 ᄒᆞ영 헤놘에 노놔 불민 저 두 개는 나 갖곡, ᄒᆞ나는 밧 임제 그땐 갖더라고.(나 남의 밭 벌면 팥이 하니까 그때 팥이 ‘솔박’으로 하니까 ‘솔박’으로 팥 이렇게 해서 해놓고 나눠 버리면 저 두 개는 나 갖고, 하나는 밭 임자 그땐 갖더라고.) 08 // 굴묵은게, ᄆᆞᆯ똥 줏어당 놓곡, 쉐똥 ᄆᆞᆯ령 해 놓곡, ᄀᆞ시락 서껑 불그네 요만 ᄒᆞᆫ 거 해영 조록 질게 헤근에 불치 ᄆᆞᆫ딱 파네 뒁, 불치 솔박이나 ᄒᆞᆫ 걸로 행 불치통드레 놔 뒁, 그 굴묵을 ᄆᆞᆯ똥, 쉐똥, ᄀᆞ시락 꽉 담주게.(‘굴묵’은요, 말똥 주워다가 놓고, 소똥 말려서 해 놓고, 까끄라기 섞어서 불당그래 요만큼 한 거해서 자루 길게 해서 재 모두 파내 두고, 재 ‘솔박’이나 한 걸로 해서 재통으로 놔 둬서, 그 ‘굴묵’을 말똥, 소똥, 까끄라기 꽉 담지요.) 17 // 헤양케 허고정헌 사람은 헤양케 허고, 풋 놓코졍 허민 풋 놓고, 그게 풋은이 왜냐허민이 큰 시리에다가 식게 때나 영장 때나 소상 때나 큰 시리허민 그레 풋을 숣아 가지고 산 산 산 산 허껑 또 우에 또 그 헐마니 헤영 솔박으로 세 개쯤 놩은에 또 영 헤놩 또 영 헤영 허끄면은 치면은 거 다 갈라져.(하얗게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하얗게 하고, 팥 놓고 싶어 하면 팥 놓고, 그게 팥은 왜냐하면 큰 시루에다가 제사 때나 영장 때나 소상 때나 큰 시루하면 거기 팥을 삶아 가지고 산 산 산 산 섞어서 또 위에 또 그 할 만큼 해서 ‘솔박’으로 세 개쯤 놔서 또 이렇게 해놔서 또 이렇게 해서 섞어서 찌면 거 다 갈라져.) 21 // 도께로 두드령 ᄇᆞ름 불 땐 영 헹 솔박 헤당, 솔박은 낭으로 헹 솔박 잇주게.(도리깨로 두드려서 바람 불 땐 이렇게 해서 ‘솔박’ 해다가, ‘솔박’은 나무로 해서 ‘솔박’ 있지.) 31 [고내, 남원, 대평, 덕수, 동광, 선흘, 송당, 수망, 신촌, 온평, 월령, 토평, 하원, 함덕]

솔박베: 배 모양이 ‘솔박’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규모가 작은 낚싯배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 고깃배는 그 낙베엔 헤영근엥에 뭐 장난말로 솔박베엔도 허곡.(고깃배는 그 낚배라고 해서 뭐 장난말로 ‘솔박배’라고도 하고.) 01 [도련]

솔벤: 쌀가루나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반달 모양의 떡본으로 눌러서 만들어 낸 흰떡을 말하는데, 지역에 따라 ‘솔변’, ‘솔펜’, ‘수랑곤떡’, ‘반ᄃᆞᆯ떡’, ‘ᄃᆞᆯ반착떡’이라고도 한다. // 식게 때 올릴 때도양, 잘 ᄒᆞ젠 ᄒᆞ민 솔벤, 절벤 ᄒᆞ곡, 침떡ᄒᆞ고, 이제 우찍ᄒᆞ고, 경 헹 우리 올련 식게헷수다게.(제사 때 올릴 때도요, 잘 하려고 하면 ‘솔벤’, 절편하고, 시루떡하고, 이제 ‘우찍’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올려서 제사했습니다.) 08 // 만뒤만 이 ᄆᆞ물쏠로 허주. 그 외는 솔벤이나 절벤도 다 산뒤쏠로 헌다.(‘만뒤’만 이 메밀쌀로 하지. 그 외는 솔편이나 절편도 다 밭벼쌀로 한다.) 12 //

식게떡은 무시거 허여 뭐. 저 정월멩질엔 친떡허고 솔벤 절벤. 솔벤 알아집니까?(제사떡은 무엇 해 뭐. 저 정월명절엔 시루떡하고 '솔벤' 절편. '솔벤' 알아집니까?) 14 // 솔벤도 그 안반에서 밀어 가지고. 밀엉 터근엥에 것도 기름 ᄇᆞᆯ라근엥에 ᄌᆞ근ᄌᆞ근ᄌᆞ근 놔근엥에 것도 치는 거마씨.('솔벤'도 그 안반에서 밀어 가지고. 밀어서 떠서 것도 기름 발라서 조근조근조근 놓아서 것도 찌는 거예요.) 32 [고내, 노형, 대평, 덕수, 동광, 보목, 봉성, 성읍, 세화, 태흥, 토평, 한동]

솔벤본: '솔벤'을 만들 때 사용하는 떡살이다. 알루미늄 따위로 반달 모양으로 만든다. // 솔벤본은 만들기가 좋주게.('솔벤본'은 만들기가 좋지.) 23 // 솔벤은 그냥 ᄀᆞ루로 쪙 솔벤본으로 딱딱 떠.('솔벤'은 그냥 가루로 쪄서 '솔벤본'으로 딱딱 떠.) 33 [온평, 인성]

솔변: 쌀가루나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민 다음에 반달 모양의 떡살로 떠서 끓는 물에 삶거나 겅그레 위에서 찐 떡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솔벤', '솔펜', '수랑곤떡'이라고도 한다. // 엿날에사게 솔변 절변 ᄆᆞᆫ 집이서덜 만들곡.(옛날에야 '솔변' 절편 전부 집에서 만들고.) 16 // 떡은 종류가 뭐, 뭐 잇언마씨? 떡. 기억나시는 거?(떡은 종류가 뭐, 뭐 있었어요? 떡. 기억나시는 거?) 게. 침떡, 새미떡 옛날에 뭐 솔변 절변 이렇게 잇엇주게.(그럼. 시루떡, '새미떡' 옛날에 뭐 '솔변', 절편 이렇게 있었지.) 18 // ᄌᆞᆫ 떡은 솔변 절변 ᄒᆞ는 게 ᄌᆞᆫ떡이주게, 그거. 그런 거는 네 가지 솔변, 젤변, 인절미, 또 과질 영 네 가지.(잔 떡은 '솔변', 절편, 하는 게 잔 떡이지, 그거. 그런 거는 네 가지 '솔변', 절편, 인절미, 또 과줄 이렇게 네 가지.) 24 // ᄯᅳ로 절변, 솔변 그건게 동그랑, 넵작헌 떡, 두 개 부찌는 떡, 옛날 큰떡이엔 허영 허지 안헙니까?(따로 절편, '솔변' 그건요 둥글고, 넓죽한 떡, 두 개 붙이는 떡, 옛날 큰떡이라고 해서 하지 않습니까?) 34 [고산, 구억, 세화, 신도, 옹포, 하원]

솔오름: 서귀포시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 무사 똥 줏으레 안 가느니? 우리 솔오름에 강 소똥 ᄆᆞᆫ 줏고 ᄆᆞᆯ똥 ᄆᆞᆫ 줏고. ᄆᆞᆯ똥은 줏어당 굴묵 짓고.(왜 똥 주우러 안 가니? 우리 '솔오름'에 가서 소똥 모두 줍고 말똥 모두 줍고. 말똥은 주워다가 '굴묵' 때고.) 31 // 묻엉 이제 그 가스락낭을 헤 오주게. 허민 우리 저 솔오름 우이 가근에 화목이엔 헌 그 옛날은 저 박탈낭이엔 헌 것이 젤 게벼워낫저.(묻어서 이제 그 우묵사스레피를 해 오지. 그럼 우리 저 '솔오름' 위에 가서 화목이라고 하는 그 옛날은 저 박달나무라고 하는 것이 제일 가벼웠었어.) 31 [토평]

솔치우럭: 우럭의 일종이다. '솔치' 쑤기미와 비슷해서 붙은 이름이다. // 것도 우럭 닮은 건디 그 가시가 이렇게 허니까 솔치우럭.(것도 우럭 닮은 건데 그 가시가 이렇게 하니까 '솔치우럭'.) 29 [외도]

솔펜: 쌀가루나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민 다음 반달모양의 떡살로 떠서 끓는 물에 삶거나 겅그레 위에서 찐 떡을 말하며, '솔벤', '솔변', '수랑곤떡'이라고도 한다. // 제펜, 솔펜, 인절미 또 무시거 약 아이 중궤, 약궤, 우찍. ᄋᆞ슷 가지이 딱 ᄋᆞ슷

가지.(‘제펜’, ‘솔펜’, 인절미 또 무엇 약 아니, ‘중계’, ‘약궤’, 웃기떡. 여섯 가지 딱 여섯 가지.) 15 // 어제 ᄀᆞᆯ은 식으로 솔펜, 절벤, 친떡 그런 거게 헤근에 다 올리고 신 거는 다 출령 올려.(어제 말한 식으로 ‘솔펜’, 절편, 시루떡 그런 거 해서 다 올리고 있는 거는 다 차려서 올려.) 15 // 솔펜 상제가 젤 큰 상제가 솔펜 맡아, 큰뚤이.(솔편 상제가 젤 큰 상제가 솔편 맡아, 큰딸이.) 25 [수망, 태흥]

솜: ‘말똥성게’를 말한다. 알은 식용한다. // 성게는 귀, 솜.(성게는 ‘귀’, 말똥성게) 07 // 그건 솜. 붉은 귀. 솜. 검은 귀. 그런 거주게.(그건 말똥성게. 붉은 성게. 검은 성게. 그런 거지.) 07 [보목]

솜빡허다: 물건이나 사람 등이 아주 많다는 뜻이다. // 물끼쯤은 물 솜빡헌 디 물싸 불민 멜이 다 나가지 못헹 막 돌고망마다 영헌 요만썩 헌 물통마다 나가지 못헹 들어온 게 잇어.(‘물끼’쯤은 물 ‘솜빡헌’ 데 물써 버리면 멸치가 다 나가지 못해서 막 돌구멍마다 이렇게 한 요만큼씩 한 물통마다 나가지 못해서 들어온 게 있어.) 25 // 경헤근에 ᄒᆞᆫ 장 질루민 구들 ᄒᆞ나 이 방만헌 거 솜빡허게, 이디 솜빡.(그래서 한 장 기르면 방 하나 이 방만한 거 가득하게, 여기 가득.) 31 [토평, 태흥]

솟 앚지는 거: 공기놀이에서 공깃돌 세 알 위에 한 알을 올려놓는 것으로 ‘솥 걸기’라고 한다. // 영 솟 앚지는 거 니 찍. 니 찍 땅값, 웨살.(이렇게 솥 거는 거 ‘니 찍’. ‘니 찍’ 땅값, ‘웨살’.) 02 [선흘]

솟강알: 걸어 놓은 솥의 아래 부분, 즉 솥 밑을 말한다. // 솟강알에, 거기서 기냥 검질로 검질로도 허고 나무로도 떼고 굴묵은 방 따듯하게 굴묵 별도로.(솥 아래에, 거기서 그냥 잡풀로 잡풀로도 하고 나무로도 때고 ‘굴묵’은 방 따듯하게 ‘굴묵’ 별도로.) 15 // 솟강알에 불 ᄉᆞᆷ을 때 짇어근엥에 경 내여근엥에 둑둑 먹어나시녜.(‘솟강알’에 불 땔 때 때어서 그렇게 꺼내서 ‘둑둑’ 먹었었네.) 24 // 쉐데치 허여근에 솟강알에 영 불 ᄉᆞᆷ아나믄 솟강알에 불치가 이실 거 아니?(‘쉐데치’ 해서 솥 밑에 이렇게 불 때면 솥 밑에 재가 있을 거 아니?) 29 [세화, 수망, 외도]

솟덕: 공기놀이를 할 때 공기 세 개 위에 공기 하나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 이거 영 공기 하나 놓고 하나 놓고 이레 영 하나 앗당 그 우터레 톡 놓민 잘 안, 돌 솟덕 앚져져. 겐 이겨.(이거 이렇게 공기 하나 놓고 하나 놓고 이리 이렇게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톡 놓으면 잘 안, 돌 봇돌 앉힐 수 있어. 그래서 이겨.) 26 [신창]

솟덕: 아궁이의 양쪽에 세우는 ‘봇돌’을 말한다. // 부억에는 요쪽에 여기서 솟덕 앚정 허면은 요만치헤근에.(부엌에는 요쪽에 여기서 봇돌 앉혀서 하면은 요만치해서.) 16 [하원]

솟밋: 솥 안의 바닥을 말한다. // 쌀 당강 놧단 거 쌀 놔근에 어느 정도 풀어지면, 풀어지면은 그 젤 막끗데 깔아앚인 그 ᄑᆞᆺ, 그 ᄑᆞᆺ 밑에 거 그거를 헤근에 놔근에 쑤는 거라. 게난 그 그 걸른 밑에 것이 그것이 솟밑에 잘 눌어.(쌀 담가서 놨던거 쌀 넣어서 어느 정도 풀어지면, 풀어지면 그 젤 마지막에 갈아앉은 그 팥, 그 팥 밑

에 거 그거를 해서 넣어서 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 거른 밑에 것이 그것이 '솥밑'에 잘 눌어.) 05 [표선]

솟밋방석: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앉을 수 있도록 나무나 짚으로 엮어 만든 방석을 말한다. // 방석은 솟밋방석이라고 헤 가지고 거 밥 헐 때 할망덜 여ᄌᆞ덜이. (방석은 '솟밋방석'이라고 해 가지고 거 밥 할 때 할머니들 여자들이.) 16 [하원]

솟밋할망: 큰일이 있을 때, 솥의 아래쪽에서 불을 때어 각종 떡이나 밥을 짓는 일을 하는 할머니를 말한다. // 솟디서 떡 ᄒᆞ곡 막 ᄒᆞ는 사름ᄀᆞ라 솟밋할망이렌 헤낫수다. (솥에서 떡하고 막 하는 사람더러 '솟밋할망'이라고 했었습니다.) 17 [대평]

솟바위: 솥의 운두 위쪽의 가장자리를 말한다. // 성게, 성게 ᄆᆞ녀 놔근에 끓이면은 이 성게가 솟바위에 다 묻어 벼근에 그디 얼마 엇어.(성게, 성게 먼저 놔서 끓이면 이 성게가 솥 가장자리에 다 묻어 버려서 거기 얼마 없어.) 05 [표선]

솟창: 솥 안쪽 바닥을 말한다. // 그거 젓지 안허민 솟창에 눌어 불어.(그거 젓지 않으면 솥 바닥에 눌어 버려.) 30 [노형]

송강송강: 누에가 뽕잎을 먹는 소리를 나타낸 말이다. // 송강송강 송강송강 허는디 것도 얼마나 약헌 짐승인지 누에 길를 땐 누에 일 년에 두 차례 질르지 봄, 가을.('송강송강' '송강송강' 하는데 것도 얼마나 약한 짐승인지 누에 키울 땐 누에 일 년에 두 차례 키우지 봄, 가을.) 06 [남원]

송낙: 무당들이 굿을 할 때 머리에 쓰는 백지로 만든 고깔을 말한다. // 이디 저 꼿으로 멘들 송낙 써 가지고서 주요 인물들은 그거 써 가지고 다 돌아다니고.(여기 저 꽃으로 만든 '송낙' 써 가지고서 주요 인물들은 그거 써 가지고 다 돌아다니고.) 12 [한동]

송뎅이: 나물 등의 잎을 갉아먹는 애벌레를 말하는데, 달리 '송동이'라고도 한다. // 웨도 싱그민 송뎅이 먹어비여근에 뒈어시냐?(오이도 심으면 '송뎅이' 먹어버려서 되었느냐?) 24 // 그 ᄂᆞᆯ개ᄃᆞᆫ은 쩨끌락헌 게 ᄇᆞᆯ그랑 그 송뎅이 송뎅이 허멍 그 웨 영 싱그민, 이파리 나가민 다 가까 먹어부러 그것가.(그 날개달린 조그마한 게 발그레한 그 '송뎅이' '송뎅이' 하면서 그 오이 이렇게 심으면, 이파리 나가면 다 깎아 먹어버려 그것이.) 24 [세화]

송동이: 나물 등의 잎을 갉아먹는 벌레이다. // 송동이라 ᄒᆞᆫ 거 이멘씩 ᄒᆞᆫ 거, ᄂᆞᆯ아뎅기는 거, 웨 튿어 먹는 거 송동이 그 저 나비 종류 송동이.('송동이'라 한 거 이만큼씩 한 거, 날아다니는 거, '웨' 뜯어 먹는 거. '송동이' 그 저 나비 종류 '송동이'.) 08 // 송동이 막 일민 송둥이 잡곡, 그만큼 얼먹어.('송동이' 마구 일면 '송동이' 잡고, 그만큼 얼먹어.) 17 [대평, 동광]

송둥이: 나물 등의 잎 따위를 먹는 벌레이다. // 겡 제 지내낫는디 나중에 허믄, 또 이것이 약 엇으난 이제 송둥이이라고 헹양, 이제 무신거 잘 먹어마씨. 거 ᄎᆞᆷ웨왓디 헤노믄 그때 약 엇으난 에 ᄎᆞᆷ웨왓디 송둥이 ᄃᆞ리레 가사.(그렇게 제 지냈었는데 나중에 하면, 또 이것이 약 없으니까 이제 '송둥이'라고 해서요, 이제 무엇 잘 먹어

요. 그거 참외밭에 해놓으면 그때 약 없으니까요 참외밭에 '송둥이' 쫓아 버리러 가야.) 28 [구엄]

송에기떡: 두 개를 붙인 모양으로 크기가 작은 쌀떡의 한 종류이다. // 송에기떡이렌 똥글락헌 거 두 개 헤영 부찌민 뒈.('송에기떡'이라고 동그란 거 두 개 해서 붙이면 돼.) 01 // 송에기떡이엔 헹 요만씩 헹 영 마주 부쪙도 허고 쏠랑쏠랑헌 것도 허고 만두 새끼 또 요멘씩 허고.('송에기떡'이라고 해서 요만큼씩 해서 이렇게 마주 붙여도 하고 '쏠랑쏠랑'한 것도 하고 '만두' 새끼 또 요만큼씩 하고.) 11 // 송에기떡이엔 헤영이 꼭 요만씩 헌 거 동골락 동골락헹 또 영 마주 부쪙 영 톡 부찌민 두 개가 뒈여이.('송에기떡'이라고 해서 꼭 요만큼씩 한 거 동글 동글해서 또 이렇게 마주 붙여서 이렇게 톡 붙이면 두 개가 돼.) 11 [도련, 함덕]

송죽학교: 제주시 서부교회 자리에 있었던 야간 학교 이름이다. // 못 간에 춤 막 늦언에 이제 다녓는데 늦어도 이 송죽학교엔 헨 잇어낫수다.(못 가서 참 막 늦어서 이제 다녔는데 늦어도 이 송죽학교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01 [도련]

송칩: 송씨 일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 열운이 형성 그거는 뭐 여기 열운이가 제일 처음은 강칩, 현칩, 이제 고칩, 송칩은 뭐 뒈고, 요렇게 뒈 가지고 잇엇고.('열운이' 형성 그거는 뭐 여기 '열운이'가 제일 처음은 '강칩', '현칩', 이제 '고칩', '송칩'은 뭐 되고, 요렇게 돼 가지고 있었고.) 23 [온평]

쇼와: 일본 히로히토 천황시대의 연호인 '소화(昭話)'를 말한다. // 쇼와가 나보다 혼나 밑에랏어. 쇼와 이십 년도에 해방뒛어.('쇼와'가 나보다 하나 아래였어. '쇼와' 이십 년도에 해방됐어.) 21 [신촌]

수건: 잠녀가 무자맥질해서 작업할 때 쓰는 하얀 수건인 '물수건'을 말한다. 무자맥질할 때 머리카락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따스하게 감싸주며, 집과 바닷가 사이를 드나들 때에는 햇볕을 가려준다. 무명이나 광목으로 만들며, 대체로 폭 30센티미터, 길이 80센티미터 정도이다. // 그다음은 게난 그때도 이 수건, 광목헤영 이 수건만 영 써.(그다음은 그러니까 그때도 이 수건, 광목해서 이 수건만 이렇게 써.) 24 [세화]

수꾸락떡: 쌀가루로 기름하게 만들어 가운데 수저로 눌러서 무늬를 낸 떡을 말한다. // 수꾸락, 수꾸락떡옌 헌 거 잇어. 요렇게 헤가지고 수까락으로 영 똑똑 찍어.(숟가락, '수꾸락떡'이라고 한 거 있어. 요렇게 해가지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똑똑 찍어.) 01 [도련]

수눌다: '품앗이하다'의 의미로 힘든 일을 이웃 간에 서로 거들어 가며 하는 것을 말한다. // 남자덜끼리도 수눌어근에 둘썩은, 그디 셋 사곡 이디 셋 사나, 저디 둘 사나 이디 둘을 사나, 너희나 여섯이나 ᄒᆞ여근에 마주 사근에, 그 도께로 ᄒᆞ곡, ᄯᅳ시 날라 오는 사름은 날라만 오곡.(남자들끼리도 '수눌어서' 둘씩은, 거기 셋 서고 여기 셋 서나, 저기 둘 서나 여기 둘을 서나, 넷이나 여섯이나 해서 마주 서서, 그 도리깨로 하고, 다시 날라 오는 사람은 날라만 오고.) 08 // 검질을, 검질을

메영 조 컴질 ᄒᆞᆯ 때 게민 저 ᄒᆞᆫ 열 집서 스무 집서, 게난 수눌엉, 수눌엉 돈 줭 ᄒᆞᆯ 것을 돈이 엇엉, 돈 줭 ᄒᆞᆯ 것이 엇고 그자 수눌엉 이 집의 강 메여주곡 다음 집의 강 메여줘근에 빌엉 ᄒᆞ곡.(김을, 김을 매어서 조 김 할 때 그러면 저 한 열 집서 스무 집서, 그러니까 '수눌어서', '수눌어서' 돈 줘서 할 것을 돈이 없어서 돈 줘서 할 것이 없고, 그저 '수눌어서' 이 집에 가서 매어주고, 다음 집에 가서 매어줘서 빌어서 하고.) 08 // 그거 수눌멍 잘 ᄇᆞᆯ라줘사 엿날은 조 안 ᄇᆞᆯ랑은 안 뒌덴 헌다.(그거 품앗이하면서 잘 밟아줘야 옛날은 조 안 밟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10 // 아니 그, 마늘 ᄒᆞᆯ 때는 비니루 더끌 때영 다 수눌엉 ᄒᆞ여, 서로 도우멍.(아니 그, 마늘 할 때는 비닐 덮을 때하고 다 '수눌어서' 해, 서로 도우면서.) 17 [대평, 동광, 월령]

수늬륭: '수룩'을 달리 표현한 듯하다. '수룩'은 꿩 따위가 서로 벗을 거느려 떼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소들이 서로 모여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우리 쉐들은 ᄂᆞᆷ의 쉐추룩 아니영 목장에 ᄒᆞᆫ 번 영 간 보난, 막 이디 구렵 짱 헤도 오랑 부량한 쉐들은 막 난리치는디 ᄆᆞᆫ뎔 이녁 거나 ᄂᆞᆷ의 거나 고집헌 날은 다 모야지면은 쉐가 이녁 수늬륭마다 이녁, ᄒᆞᆫ 집이 수룩ᄒᆞᆫ 디 강 ᄀᆞ찡 영 무 짓엉 다 이서.(우리 소들은 남의 소처럼 안 해서 목장에 한 번 이렇게 가서 보니까, 막 여기 그룹 짜서 해도 와서 불량한 소들은 막 난리치는데 모두들 이녁 거나 남의 거나 고집한 날은 다 모아지면 소가 이녁 '수늬륭'마다 자기, 한 집에 '수룩ᄒᆞᆫ' 데 가서 가지런히 이렇게 무리 지어서 다 있어.) 15 [수망]

수단멩지: 명주 종류의 하나이다. // 멩진 무신, 무신 멩지 알아져? 수단멩지 ᄒᆞ고양.(명주는 무슨, 무슨 명주 알 수 있나? '수단멩지' 하고요.) 28 [구엄]

수데기: 구좌읍 한동리 지명의 하나이다. // 피부병을 거세기 허는 이 수데기당이라고 헤, 수데기. 피부병을 거시기 허는 이 '수데기당'이라고 해, '수데기'.) 12 [한동]

수데기당: 구좌읍 한동리에 있는 당 이름이다. // 수데기당이엔 헌 디 잇어난디 거기는 피부병을 주로 거세기 허고.('수데기당'이라고 하는 데 있었는데 거기는 피부병을 주로 거시기 하고.) 12 [한동]

수둡: 밭에 흙을 깔 때 수북히 올려 땅이 평지보다 올라올 정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 게난 서리 내릴 때는 흑을 덮어줭은에. 흑을 덮어줘야 돼. 수둡으로 올려줭.(그러니까 서리 내릴 때는 흙을 덮어주고. 흙을 덮어줘야 돼. '수둡'으로 올려줘서.) 03 [송당]

수룡동: 한경면 산양리 자연 마을 이름이다. // 경주 김씨라 허고 경 헨, 서촌 살아나니까, 저 수룡동, 저 어떤 고산 그 우이에.(경주 김씨라 하고 그렇게 했어, 서촌 살았으니까, 저 '수룡동', 저 어떤 '고산' 그 위에.) 35 [대림]

수룩: 보통 짐승이 떼를 이루어 다니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여러 사람이 모인 '집단', '단체' 의미로 쓰였다. // 멘네 갈앙인에 미녕옷 헹 입게 헤시냐? 멘네 수룩 바찌지 못허민 미녕도 못허게 허고.(목화 갈아서 무명옷 해서 입게 했니? 목화 '수

룩' 바치지 못하면 무명도 못하게 하고.) 33 [인성]

수룩짓다: 한 곳에 소들이 모여서 떼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 // ᄒᆞᆫ 수룩졍 이서. ᄂᆞᆷ의 쉐들은 난리가 나불고.(한 '수룩졍' 있어. 남의 소들은 난리가 나버리고.) 15 [수망]

수룽이: 한경면 산양리의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이다. // 조수레 저 수룽이 우리 권당덜도 다 ᄋᆞ라 사름 죽엇저.(조수로 저 '수룽이' 우리 권당들도 다 여러 사람 죽었어.) 26 [신창]

수룽허다: 길쭉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 수천복은 수룽허고 ᄉᆞᆯ이 두텁주게. 이 통이 지프고 이제 암천복은 넵작허여 빼짝. 우리추룩 ᄆᆞᆯ른 사름 모냥으로.(수전복은 '수룽하고' 살이 두껍지. 이 통이 깊고 이제 암전복은 넙작해서 '빼짝'. 우리처럼 마른 사람 모양으로.) 26 [신창]

수리계: 일정 지역의 농사용 수도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물 저장고를 만들고 관리 사용하기 위해 조직된 '계'를 말한다. // 수리계는 그 지금도 그건 법정에서 그건 인정헤 준 거니깐.(수리계는 그 지금도 그건 법정에서 그건 인정해 준 거니깐.) 15 [수망]

수리짓다: '수룩짓다'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표준어 '무리 짓다'에 대응하는 말이다. // 강 보민 영 수리지영 ᄒᆞ디 시민, 아이고 어찌도 아까운디 아까와.(가서 보면 이렇게 무리 지어서 함께 있으면, 아이고 어찌도 아까운지 아까워.) 15 [수망]

수메: 떡 속에 넣는 소나 시루떡 따위의 고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순메', '숨메'라고도 한다. // 수메, 수메. 고구마까를, 침떡 쳐서 먹을 수도 잇고 올릴 수도 잇고.(고물, 고물. 고구마가루를, 시루떡 쪄서 먹을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01 [도련]

수메: 밥에 조금씩 섞는 팥 따위를 말한다. '수세'라고도 한다. // 밥에 지금 예를 들엉 우리가 밥 허면서 이 콩 ᄀᆞ튼 거나 뭐 잇잖아. 걸 놓는 거, 수메 놓는 거.(밥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 하면서 이 콩 같은 거나 뭐 있잖아. 그걸 넣는 거, '수메' 넣는 거.) 01 // 감저 수메 놓으면 감저밥.(고구마 '수메' 넣으면 고구마밥.) 01 [도련]

수박기: 뚜껑 위에 손잡이가 달린 놋으로 만든 밥그릇이다. 제사나 잔치 등 큰일 때 주로 사용하였다. // 놋그릇 영 허영 허믄 곡지 돋곡 헌 수박기로 톡허게 옛날 ᄒᆞ끔 집안이 뭐허다 헌 집안은 그런 그 그런 놋그릇에 수박기엔 헌 거 곡지 돋은 두께 영 허영 허곡, 그걸로 메 거리곡 놋그륵게.(놋그릇 이렇게 해서 하면 꼭지 돋고 한 '수박기'로 톡하게 옛날 조금 집안이 뭐하다 하는 집안은 그런 그 그런 놋그릇에 '수박기'라고 한 거 꼭지 돋은 뚜껑 이렇게 해서 하고, 그걸로 메 뜨고 놋그릇.) 29 [외도]

수복친: 장사가 났을 때 망인이나 상주와 촌수가 가까워 상복이나 두건을 쓴 친척을 말한다. // 장의사가 엇이난에게, 상준 또 일포날 해가 요만이 뒈 가민 수복친이라고 나ᄀᆞ트민 우리ᄀᆞ트민 시아주방 아덜네 ᄉᆞ춘 시아주방 아덜네 ᄀᆞ튼 사름이 이 ᄆᆞ

을을 다 돌면서 낼랑 수고헤 줍서.(장의사가 없으니까, 상준 또 '일포' 해가 이만큼 돼 가면 '수복친'이라고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시아주버니 아들네, 사촌 시아주버니 아들네 같은 사람이 이 마을을 다 돌면서 내일은 수고해 주세요.) 06 [남원]

수산봉: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오름 중 하나이다. // 이이 수산봉이 그 옛날에. 그 전에는.(이이 '수산봉'이 그 옛날에. 그 전에는.) 04 [고성]

수산봉: 애월읍 수산리 북서쪽 일주도로 변에 있는 오름이다. // 이디서 또 요 거 가까운디 수산봉에 아까시낭이 잇수다, 이제도 잇는디. 우트레 거의가 저 아까시낭 밧이 셔낫수다.(여기서 또 요 거 가까운 데 '수산봉'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위로 거의 저 아카시아 나무 밭이 있었습니다.) 28 // 여기 구엄은 저 지금 보이는 수산봉ᄒᆞ고, 또 그 이쪽에 저 원내창이라고 잇수다.(여기 '구엄'은 저 지금 보이는 '수산봉'하고, 또 그 이쪽에 저 '원내창'이라고 있어요.) 28 [구엄]

수세: 초가집을 지을 때 흙과 함께 섞어 벽이나 천장에 바르는 보릿대를 잘게 자른 짚이다. 이것을 섞어야 벽이나 지붕에 바른 흙이 떨어지지 않는다. 달리 '수세미'라고도 한다. // 수셀 잘 놓면은 비가 저런 그 축담 밖으로 나강근에 허민 비가 맞아도 그 즉 말허민 저걸로 흘러내리질 아녀.('수세'를 잘 놓으면 비가 저런 그 지대 밖으로 나가서 하면 비가 맞아도 그 즉 말하면 저걸로 흘러내리질 않아.) 01 // 수셀 놔야 흑 뀌어근엥이 저 고지도 올리곡 축ᄇᆞ름도 ᄇᆞᆯ르고.('수세'를 놔야 흙 이겨서 그 지붕도 올리고 벽도 바르고.) 02 // 거친 흑 막 수세로 보리낭께기 헌 걸로 ᄇᆞᆯ라놩 저 헤놓민 또 ᄌᆞᆷ진ᄌᆞᆷ진 흑 쳐.(거친 막 '수세'로 보릿대 한 걸로 밟아놔서 저 해놓으면 자잘한 흙 쳐.) 11 // 흑 헐 때는 그 저 마당 하나썩 흑을 파다 놩 그디 쉐로도 ᄇᆞᆯ리고 사람도 ᄇᆞᆯ르고 헤 가지고 흠뻑 뀌우면서 그 수세엔 헌 것이 잇입니다.(흙 할 때는 그 저 마당 하나씩 흙을 파다 놔서 거기 소로도 밟고 사람도 밟고 해 가지고 흠뻑 뀌면서 그 '수세'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35 [대림, 도련, 삼달, 선흘, 성읍, 세화, 하원, 함덕]

수심초: 해초의 한 종류이다. // 경ᄒᆞᆫ디 수심초, 천초ᄒᆞ는 거는 ᄀᆞ찌 ᄒᆞ여 옛날 풍습이.(그렇게 한데 '수심초', 우뭇가사리하는 거는 같이 해 옛날 풍습이.) 22 [우도]

수앙수앙수앙: 물레로 목화씨를 발라 낼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낸 말이다. // 괄민 영 ᄇᆞᆯ르멍 들으민 수앙수앙수앙. 그것이 씨가 돌라지는 소리가 나멍 씨가 톨 톨 톨 털어지멍 저레 나고.(바싹 마르면 이렇게 발라내면서 들으면 '수앙수앙수앙'. 그것이 씨가 도려내는 소리가 나면서 씨가 톨 톨 톨 떨어지면서 저리 나고.) 06 [남원]

수양중의: 옆쪽을 깁지 않고 단추 달아서 만든 중의를 말한다. // 수양중의라고. 것도 중읜 중읜디 요영 ᄋᆞᆶ으로 질게 ᄒᆞᆫ 폭 주질 안 허영 경 허여근에 그레 단추 ᄃᆞᆯ앙은에 경허민.('수양중의'라고. 것도 중읜 중읜데 요렇게 옆으로 길게 한 폭 깁지 안 해서 그렇게 해서 그리로 단추 달아서 그렇게 하면.) 01 [도련]

수역벙것: 무관들이 쓰는 전립을 말하는데 짐승의 털로 만든 모자이다. // 가메에 모사근에 ᄉᆞ령덜이 이서. 또, 수역벙것 씬 사름덜.(가마에 모셔서 사령들이 있어. 또, 전립 쓴 사람들.) 02 [선흘]

수오로: 늙은 오소리를 일컫는 말이다. // 겐디 거기서 약한 놈은 걸리민 괜찮은디 그 이삼십 킬로 쯤 나가는 수오로쯤은.(그런데 거기서 약한 놈이 걸리면 괜찮은데 그 이삼십 킬로 쯤 나가는 '수오로'쯤은.) 03 [송당]

수왕수왕: 누에가 뽕잎을 뜯어먹는 소리인데, 표준어 '사각사각'에 대응한다. // 꼼짝도 아녕은에 ᄀᆞ만이 헷당은엥에 ᄌᆞᆷ잘 때는 ᄀᆞ만이 헷당은엥에 ᄌᆞᆷ자나민 ᄯᅳ시 먹는 소리가 수왕수왕수왕수왕수왕 소리가 나마씸.(꼼짝도 않고 가만히 했다가 잠잘 때는 가만히 했다가 잠자고 나면 다시 먹는 소리가 '수왕수왕수왕수왕수왕' 소리가 나요.) 32 [덕수]

수왕수왕: 물이 팔팔 끓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 영장칩이 나가 영 원미 쑤렌 허민이 그런 거 물 수왕수왕 꿰민.(상갓집에 내가 이렇게 원미 쑤라고 하면 그런 거 물 '수왕수왕' 끓으면.) 11 // 급허게 쑤젠 허민이 물 수왕수왕허는 디 ᄊᆞᆯ ᄒᆞᆫ 줌만 놓민 곧 쒀져.(급하게 쑤려고 하면 물 '수왕수왕' 하는 데 쌀 한 줌만 놓으면 곧 쑤어져.) 11 [함덕]

수왕수왕: 오이나 무 따위를 입으로 베어 물거나 씹을 때 나는 소리이다. // 양에섶은 허민 양에 집지슬에 양에 갈앙 허민, 매 굽에 건 수왕수왕허곡 소곱에 배설은 연허민 밀랑밀랑헐 거 아니?(양하잎은 하면 양하 처맛기슭에 양하 갈아서 하면, 맨 굽에 것은 '수왕수왕'하고 속의 배설은 연하면 말랑말랑할 거 아니?) 13 // 나박짐친 옌 헌 것도 이만큼 썰어놩 거 맛잇어. 그거 김치허믄이 수왕수왕 이빨 졸 때 나박짐치 얼마나 맛좋아, 우린 이 손더멍만씩 짐치를 허여.(나박김치라고 한 것도 이만큼 썰어놔서 거 맛있어. 그거 김치하면 '수왕수왕' 이빨 좋을 때 나박김치 얼마나 맛좋아, 우린 이 손등만큼씩 김치를 해.) 21 // 그 우터레 그 국물이 올라사 경 허영 허믄 ᄎᆞᆷ 그거 허영 썰엉 허믄 싱ᄀᆞᆫ지옌 허여근엥에 수왕수왕 맛 좋곡.(그 위로 그 국물이 올라야 그렇게 해서 하면 참 그거 해서 썰어서 하면 '싱ᄀᆞᆫ지'라고 해서 '수왕수왕' 맛 좋고.) 29 [삼달, 신촌, 외도]

수왕수왕수왕: 오이나 무 따위를 입으로 베어 물거나 씹을 때 나는 소리를 강조한 것이다. // 우리도 요 앞이 건 막 쎄고 이디 안여라 허는 디 건 입에 놓민 수왕수왕수왕 그렇게 허고.(우리도 요 앞에 건 아주 세고 여기 '안여'라고 하는 데 건 입에 넣으면 '수왕수왕수왕' 그렇게 하고.) 06 [남원]

수왕허다: 몸에 열이 나면서 지끈거리는 것을 나타낸 말이다. // 뭇 ᄀᆞᆯ아근에 이디 하도 거세기 헤 가민 것도이 열독이 좀, 열이 나 가지고 수왕허면은 거 뭇 ᄀᆞᆯ앙 이디 영 부찌고.(무릇 갈아서 여기 하도 거시기 해 가면 그것도 열독이 좀, 열이 나 가지고 '수왕허면' 거 무릇 갈아서 여기 이렇게 붙이고.) 12 [한동]

수용이왓: 제주시 도련동 지명의 하나이다. // 다시 수용이왓이라고, 수용밧이라고 헤가지

고 거기에는 노인덜을 모여서 이제 잔치허고 뭐 헷던 그런 그 밧.(다시 '수용이 왓'이라고, '수용밧'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노인들을 모여서 이제 잔치하고 뭐 했던 그런 그 밭.) 01 [도련]

수우시: 새신랑 아버지 쪽 친척 중에 위요를 간 사람 중 웃어른을 말한다. // 신랑이 잘못 뒈는 것을 잘못허면은 그 우시가 그 뭐인가. 우시도 그 수우시가 잇저.(신랑이 잘못되는 것을 잘못하면 그 '우시'가 그 뭐인가. '우시'도 그 '수우시'가 있어.) // 12 // 수우시엔 헌 사름은 새서방칩이서도 저 새서방 거시기 새각시 어멍펜인 아니고 아방펜이서 오주, 똑똑헌 사름.('수우시'라고 한 사람은 새신랑 집에서도 저 새신랑 거시기 새색시 어머니편이 아니고 아버지편에서 오지, 똑똑한 사람.) 13 // 수우시는 그 신랑 쪽에 형이든 뭐 족은아방이든 신랑 쪽 사람.('수우시'는 그 신랑 쪽에 형이든 뭐 작은아버지든 신랑 쪽 사람.) 23 [삼달, 온평, 한동]

수월이물: 대정읍 인성리의 연못 이름이다. // 몰라. 우리 난 보난에 수월이물이엔 허난.(몰라. 우리 나서 보니까 '수월이물'이라고 하니까.) 33 [인성]

수위집터: 제주시 도련동 지명의 하나이다. // 게믄 저 뒷동산에 이제 수위집터가 잇는데 수위집턴 그 경비허는 사름덜이 살면서 거기에 사방을 그 살피던.(그러면 저 뒷동산에 이제 '수위집터'가 있는데 '수위집터'는 그 경비하는 사람들이 살면서 거기에 사방을 그 살피던.) 01 [도련]

수이도: 일본어로 'すいどう(水道)'로 수도를 말한다. // 그런 거고 또 이제 뭐 세대에 따라 가지고 전화가 들어왓지 전기가 들어왓지 수이도가 들어왓지.(그런 거고 또 이제 뭐 세대에 따라 가지고 전화가 들어왔지 전기가 들어왔지 수도가 들어왔지.) 20 [고내]

수자리: 낚시와 낚싯줄 사이에 매는 끈이다. // ᄀᆞ는ᄀᆞ는 ᄒᆞᆫ 수자리 ᄒᆞ여근에, 헤영ᄒᆞᆫ 거, 수자리옌 ᄒᆞᆸ주게.(가는가는 한 '수자리' 해서, 하얀 거, '수자리'라고 합지요.) 17 [대평]

수정사: 제주시 외도동에 있었던 고려시대 3대 사찰 중의 하나이다. // 그때 그 뭐 절 오백 당 오백을 부수엇다는 그 문 목사님이 그 저 뭣이 잇어 가지고 그때 그 여기 그 수정사가 없어졋지 않나 허는디 없어진 기록은 엇어 부난에 언제 없어진 건 모르고.(그때 그 뭐 절 오백 당 오백을 부수었다는 그 문 목사님이 그 저 뭣이 있어 가지고 그때 그 여기 그 수정사가 없어졌지 않나 하는데 없어진 기록은 없어 버리니까 언제 없어진 건 모르고.) 29 [외도]

수젱잇궤: 표선면 성읍1리 지경에 있는 자연동굴의 하나이다. 달리 '소젱잇궤'라고도 한다. // 다른 궨 이디 넓은궤 잇고, 수젱잇궤 잇고 원낭갯궤 잇고.(다른 굴은 이디 '넓은궤' 있고, '수젱잇궤' 있고 '원낭갯궤' 있고.) 14 [성읍]

수진무: 제주시 도련동 지명의 하나이다. // 수진무 벼슬까지 헤엿고. 이제 다시 또 거기에 다시 안병대. 지금으로 말허면 소연병장, 작은 병뒤 훈련 가르치던 곳. 또 그 밑으로 오면은 베리왓이 잇는데.('수진무' 벼슬까지 했었고. 이제 다시 또 거기에

다시 ‘안병대’. 지금으로 말하면 소연병장, 작은 ‘병뒤’ 훈련 가르치던 곳. 또 그 밑으로 오면 ‘베리왓’이 있는데.) 01 [도련]

수첨복: ‘전복의 수컷’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색이 거무죽죽하고 살쪄서 뭉뚝한 꼴이며, 껍질이 움푹한 편이다. ‘수춤복’, ‘수핏’, ‘숫퉁이’라고도 한다. // 이제 그 수첨복 이옌 헌 건 영 허주게. 영 두툼허여.(이제 그 ‘수첨복’이라고 한 건 이렇게 하지. 이렇게 두툼해.) 18 // 수첨복은양 움막ᄒᆞ고 소랑, 이렇게 소랑ᄒᆞ는디 암첨복은 이렇게 넙작.(수전복은요 우묵하고 길쭉, 이렇게 길쭉한데 암전복은 이렇게 넓죽.) 22 // 암첨복은 베짝허여. 수첨복은 영 좀 크곡.(‘암첨복’은 ‘베짝해’. ‘수첨복’은 이렇게 좀 크고.) 27 // 그 우리도 잘 구분은 못 ᄒᆞ는데 해녀들은 수첨복이라고 헤 가지고.(그 우리도 잘 구분은 못 하는데 해녀들은 ‘수첨복’이라고 해 가지고.) 27 [세화, 신도, 옹포, 우도]

수톳놓다: 암퇘지에게 수퇘지를 넣어 교미를 시키다. // 수톳놓아 나민 그거 수톳이 또 튀어난 ᄃᆞᆯ아나 부니. 그 셍각헨. 아이 빌려줘도.(‘수톳놓아’ 나면 그거 수퇘지가 또 도망가 달아나 버리니. 그 생각해서. 아니 빌려줘도.) 36 [봉성]

수투름ᄒᆞ다: 사람이 약지 못하고 어수룩하다는 뜻이다. // 아까도 비석을 뭐라고 헷는고 허니까 효열부, 유림에 허는 사람덜이 효열부 임필진 헹적비라 헷거든. 이거 뭐 춤 우리 동네가 이렇게 수투름헌 동네라.(아까도 비석을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효열부, 유림에 하는 사람들이 ‘효열부 임필진 행적비’라 했거든. 이거 뭐 참 우리 동네가 이렇게 ‘수투름헌’ 동네야.) 19 // 아이구, 웃어. 물 거려다 도렌 허난 수투름허게 거려밀고.(아이구, 웃어. 물 떠다 달라고 하니까 ‘수투름허게’ ‘거려밀고.’) 21 [신촌, 청수]

숙군: 조천읍 신촌리의 옛 이름이다. // 옛날엔 숙군이엔 헤서 숙군. 숙군인디 이젠 신촌이엔 옛날엔 숙군.(옛날엔 ‘숙군’이라고 해서 ‘숙군’. ‘숙군’인데 이젠 신촌이라고 옛날엔 ‘숙군’.) 21 [신촌]

숙두뭇: 조천읍 함덕리 연못의 이름이다. // 펄물, 거룻굴물. 거룻굴물. 저딘 펄물. 저딘 숙두뭇.(‘펄물’, ‘거룻굴물’. ‘거룻굴물’. 저긴 ‘펄물’, 저긴 ‘숙두뭇’.) 11 [함덕]

숙전: 물이 떨어지는 처마 밑에 땅이 파지지 않도록 박아 놓은 돌을 말한다. ‘숙전 박다’처럼 쓰인다. // 이렇게 숙전 박아근에. 요만은 노프게시리 헤근에 거기 양웨 뿔리, 게영 싱경 놔두면은 그 양에가 막 집집마다 그 양에는 막 잇어낫어.(이렇게 ‘숙전’ 박아서. 요만하게 높게끔 해서 거기 양하 뿌리, 그래서 심어서 놔두면 그 양하가 막 집집마다 그 양하는 막 있었었어.) 05 [표선]

순: 영장이 나면 떡을 해다가 친척들에게 나눠 먹이는 것을 말한다. ‘순 먹인다’라고 한다. // 나 순 할 때 만디떡 헤당. 영장 나민 방상 헤당 멕이는 거.(나 순할 때 ‘만디떡’ 해다가. 영장나면 ‘방상’ 해서 먹이는 거.) 03 [송당]

순다리: 쉰 듯한 밥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 만든 음료를 말한다. ‘쉰다리’라고도 한다. // 순다리는 어떵 헤시냐민, 옛날에는 누룩ᄒᆞ여근에양, 보리 ᄀᆞᆯ아다근에 보리나 보

리, 보리, 보리 거피당 체로 쳥, 첸 내불고, 건 딱 ᄒᆞ게 물 ᄃᆞᆼ강 쪄, 쪄근에 딱딱 ᄒᆞ민 체, 쳇망 싯지 안 ᄒᆞ우꽈? 그걸 그거안틔 딱 발로 ᄇᆞᆯ랑 놔두민 거 터, 거멍 ᄒᆞ게 터, 이만씩 다데 멘들앙 놔두주게.('순다리'는 어떻게 했느냐면, 옛날에는 누룩해서요, 보리 갈아다가 보리나 보리, 보리, 보리 거피해서 체로 쳐서, 겨는 내버리고, 건 딱 하게 물 담가서 쪄, 쪄서 딱딱하면 체, 쳇바퀴 있지 안 합니까? 그것을 그거한테 딱 발로 밟아서 놔두면 거 떠, 거멓게 떠, 이만큼씩 '다데' 만들어서 놔두지요.) 17 // 쉰다리도 밥 쉬민 물 놔근에 그 누룩. 그거 항상 누룩은 집의서 보리덜 ᄀᆞᆯ멍 허난에 만드니까.('쉰다리'도 밥 쉬면 물 놔서 그 누룩. 그거 항상 누룩은 집에서 보리들 갈면서 하니까 만드니까.) 23 // 순다린 누룩도 놔근에 허곡 저 보리, 보리밥 헤근에 우리 순다리 헹 먹어낫저. 지금도 이 순다리 헹 먹주게. 누룩 장에 강 사다근에이.('순다리'는 누룩도 넣어서 하고 저 보리, 보리밥 해서 우리 '쉰다리' 해서 먹었었어. 지금도 이 '순다리' 해서 먹지. 누룩 장에 가서 사다가.) 31 // 옛날엔 그 순다리 허여근에 밥 쉬엉 데껴불기 아까왕 순다릴 허영 먹어십주, 이젠 그냥 밥허멍 순다리 멩글앙 먹으민 맛 좁니다.(옛날엔 그 '순다리' 해서 밥 쉬어서 던져버리기 아까워서 '순다리'를 해서 먹었습지요, 이젠 그냥 밥하면서 '순다리' 만들어서 먹으면 맛 좋습니다.) 34 [고산, 구억, 대림, 대평, 덕수, 도련, 동광, 봉성, 성읍, 수망, 온평, 옹포, 토평]

순두내: 한림읍 대림리와 한림리로 이어지는 건천이다. 비가 많이 올 때는 한림항으로 흐른다. // 내가 그 내로 경계를 헤 가지고 한림 분리될 때에 서쪽은 한림, 동쪽은 우리 대림 영 해 가지고 것이, 순두내.(내가 그 내로 경계를 해 가지고 한림리 분리될 때에 서쪽은 한림리, 동쪽은 우리 대림 이렇게 해 가지고 것이, '순두내'.) 35 [대림]

순두물: 애월읍 광령1리에 있는 물 이름이다. // 이 마을의 경계가 광령일리 그 순두물이라고 헤 가지고 이제 이 중산간도로.(이 마을의 경계가 '광령일리' 그 '순두물'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이 중산간도로.) 29 [외도]

순메: 떡이나 밥을 할 때 넣는 소나, 고물 따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팥을 넣으면 '팟순메', 콩을 넣으면 '콩순메'라고 한다. // 빙떡 헐 때 돔베로 허여근엥에 영 허영 그레 탁 놓민 이젠 순메. 순메, ᄑᆞᆺ순메도 허고 ᄂᆞᄆᆞᆯ순매도 허고. ᄂᆞᆷ삐순메도 허곡.(빙떡 할 때 도마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리로 탁 놓으면 이젠 소. 소. 팥소도 하고 나물소도 하고. 무소도 하고.) 01 // 순메로 써 본 건 팟허고 없는 집읜 콩도 시민 콩 놩 허고.('순메'로 써 본 건 팥하고 없는 집에는 콩도 있으면 콩 넣어서 하고.) 01 [도련]

순비나레: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지명이다. // 옛날에 못살 때에 나가 이제 우리 요 순비나레 촐을 갈아서, 순비나레 우리 밧 아니라게.(옛날에 못살 때 내가 이제 우리 요 '순비나레' 꼴을 갈아서, '순비나레' 우리 밭 아니야.) 08 // 우리 성집이는 이제 글로 순비나레로 걸어근에 서광 학교 강, 순비나레로 걸엉.(우리 형집에는 이제 거기로 '순비나레'로 걸어서 '서광' 학교 가서, '순비나레'로 걸어서.) 08

[동광]

순ᄉᆞ겡이: 게의 일종이다. 등이 붉은 빛을 띤다고 한다. // 그 겡이는 기자 ᄀᆞᆺ듸 강 잡는 거난 ᄎᆞᆷ겡이 순ᄉᆞ겡이 똥겡이 지름겡이 다 서꺼집니다.(그 게는 그저 가에 가서 잡는 거니까 참게 '순ᄉᆞ겡이' '똥겡이' '지름겡이' 다 섞어집니다.) 23 // 순ᄉᆞ겡이엔 헌 거는 저 등따리가 빨강허주게.('순ᄉᆞ겡이'라고 한 거는 저 등때기가 빨갛지.) 23 [온평]

숟구락떡: 숟가락 자루로 꼭꼭 눌러 문양을 놓으며 타원형으로 기름하게 만든 떡이다. // 우에는게 그 저 무시거. 숟구락떡이라고 싯주기, 또.(위에는 그 저 무엇. '숟구락떡'이라고 있지요, 또.) 29 [외도]

술춘: 술은 담는 항아리를 말한다. '술춘'의 '춘'은 한자어 '준(樽)'에서 온 말이다. // 그 술춘 헤근에 그 단지덜이 없으니까 그 술춘은 요만은벳긔 안 하주게.(그 '술춘'해서 그 단지들이 없으니까 그 '술춘'은 요만큼밖에 안 하지.) 05 [표선]

숨굴: 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구멍을 말한다. 비가 내린 후에는 보통 그곳으로 물이 흘러든다. // 개발허연 보지 아녀니까 몰르지마는 숨굴이 터졋다 이거여. 게서 그 물이 많이 오면 그 궤 안으로 물이 바다로 내려가요.(개발해서 보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숨굴'이 터졌다 이거야. 그래서 그 물이 많이 오면 그 '궤' 안으로 물이 바다로 내려가요.) 29 [외도]

숨굴왓: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밭 이름이다. 밭에 '숨굴'이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 물이 터지면은 숨굴왓이라고 헤서 숨굴왓이 밧이 이름이 숨굴왓, 숨굴왓.(물이 터지면 '숨굴왓'이라고 해서 '숨굴왓'이 밭이 이름이 '숨굴왓', '숨굴왓'.) 29 [외도]

숨방숨방: 바늘땀을 드문드문 거칠게 자꾸 호는 모양인 '숭덩숭덩'의 다른 표현인 듯하다. // 요영 ᄒᆞ민 바농감침이엔 ᄒᆞᆫ 건 요영 ᄒᆞᆫ 것 골려당 요영 ᄒᆞ곡, 고미옌 영 헤당 바농 숨방숨방 저레 영 주어가는 거.(요렇게 하면 바늘감침질이라고 한 건 요렇게 한 것 골라다가 요렇게 하고, '고미'라고 이렇게 해놓고 바늘 숭덩숭덩 저리로 이렇게 기워가는 것.) 15 [수망]

숨비: 해녀가 물위에서 숨을 크게 들이 마시고, 물속에 잠기어 숨을 멈추고 작업을 하다가 물 위로 올라왔을 때, 허파에 압축되었던 공기가 입 밖으로 한꺼번에 새어나오면서 나는 소리이다. // 에이고. 뒈나마나 물 소곱에 들어강게 숨 진 놈은 오래 오래 살앙 왕 호이호이 허멍 숨비 허멍들 물에 들어강 거 숨 쉬는 거주게.(아이고. 되나마나 물 속에 들어가서 숨 긴 놈은 오래 오래 살아서 와서 '호이호이' 하면서 '숨비' 하면서들 물에 들어가서 거 숨 쉬는 거지.) 27 [웅포]

숨비다: 물질을 하기 위해 숨을 참고 물속으로 들어감을 뜻한다. // 그 모살통에 바글바글 옛날에는 그 벤자리가. 게민 소살이 영 허영 늘리왕은에 숨비영 동산으로 영 허영 곱앙 가근에 고기 그 발허여근에 착 하게 쏘아근에 하면 그 옛날에는 하도 고기가 벤자리가 바글바글허니까 허난 어떤 땐 두 개도 쏘아근에 와져.(그 '모래통'에 바글바글 옛날에는 그 벤자리가. 그러면 작살이 이렇게 해서 늘려서 '숨비

여서' 동산으로 이렇게 해서 숨어서 가서 고기 그 발해서 착 하게 쏘아서 하면 그 옛날에는 하도 고기가 벤자리가 바글바글하니까 하니까 어떤 땐 두 개도 쏘아서 와.) 05 // 숨 쉬멍 영 앚아둠서 검질매듯 잡아 오는 거고, 이 짚은 디 강 숨비는 건 생복.(숨 쉬면서 이렇게 앉고서 검질 매듯 잡아 오는 거고, 이 깊은 데 가서 '숨비는' 건 전복.) 21 // 그 동네 숨비는 사름 다 오렌 불러.(그 동네 '숨비는' 사람 다 오라고 불러.) 23 // 지픈 디레 숨벼가민 이 머리 땡기는 사름 이 눈이 바짝 부떠노민 이디 머리가 딱 ᄃᆞᆼ겨비엉 경허민 지픈 디 못 히는 사름 잇어.(깊은 데로 '숨벼'가면 이 머리 당기는 사람 이 눈이 바짝 붙어놓으면 여기 머리가 딱 당겨버려서 그러면 깊은 데 못하는 사람 있어.) 25 [덕수, 신촌, 온평, 태흥, 표선]

숨은바농질: 바늘땀이 밖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바느질을 말한다. 보통 옷단을 접어서 기울 때 사용하는 바느질법이다. // 베껴디레 씰 안 나오게. 경 헨 숨은바농질이엔 헤근에.(바깥으로 실 안 나오게. 그렇게 해서 '숨은바농질'이라고 해서.) 23 [온평]

숫단: 억새에 숱을 넣어서 단처럼 만든 것을 말한다. // 뱅허게 큰 숫단 족은 숫단 영 헤근에 가시 안자름서 그때 가시리 사름덜토 고생헷주. 그거 숫 헤근에 그 두 단이나 석 단이나 져근에 표선이 장에ᄁᆞ장 걸엉 와시난에.(뱅하게 큰 숯단 작은 숯단 이렇게 해서 가시 '안자름'서 그때 가시리 사람들도 고생했지. 그거 숯 해서 그 두 단이나 석 단이나 져서 표선 장까지 걸어서 왔으니까.) 05 [표선]

숫묻다: '숯을 (숯가마 속에 넣어서) 굽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그때 우리 사삼ᄉᆞ건 후에 보리고개 보릿고개 드니깐 숫 묻엉 ᄑᆞᆯ안에 먹언 살앗주.(그때 우리 사삼사건 후에 보릿고개 보릿고개 드니까 숯 구워서 팔아서 먹어서 살았지.) 14 [성읍]

숫토리: 숯을 담는 용기이다. // 숫토리, 옛날 가마니 역할 허는 숫토리라고 이수다.('숫토리', 옛날 가마니 역할을 하는 '숫토리'라고 있습니다.) 03 [송당]

승: 한자어 '흉(胸)'을 말한다. 돼지를 잡았을 때 가슴 부위 아래쪽에서 복부까지의 부위를 일컫는다. // 저 보약 헤당 헹 멕여둬 가젱 그 뒈지도 승이나 딴 고기도 안 허여.(저 보약 해다가 해서 먹여두고 가려고 그 돼지도 '승'이나 딴 고기도 안 해.) 23 [온평]

승당승당: 바늘땀을 드문드문 거칠게 자꾸 호는 모양을 말하는데, 표준어 '숭덩숭덩'에 대응한다. // 상제 한 디덜은 멘들지 못헹 난리주. 손으로 숭당숭당 ᄒᆞ는 사름, 미싱 신 사름은 미싱도 앗다 놩 헤가는 사름 난리도 ᄒᆞ멍 기가 탁, 두건도 다 접앙 응. 그추룩 헨 ᄒᆞ여.(상제 많은 데들은 만들지 못해서 난리지. 손으로 숭덩숭덩 하는 사람, 재봉틀 있는 사람은 재봉틀도 가져다 놓아서 해가는 사람 난리도 하면서 기가 탁, 두건도 다 접어 응. 그처럼 해서 했어.) 15 // 이녁 바농질 헤나도 숭당숭당 감추라 허는 건 감추고 도 뭣.(이녁 바느질 했어도 '숭당숭당' 감치라 하는 건 감치고 도 뭣.) 22 [수망, 우도]

숭당숭당: 야채 등을 단번에 큼직하고 가볍게 베거나 자르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감

저는 숭당숭당 썰엉 놩 감저 솖아져 가믄 이제 ᄀᆞ루 놩. 감저 거의 솖아져 갈 때. 경헨 문데기민 막 맛셔. 경헨 소금만 ᄒᆞ꼼 놓고 헨 허민 맛셔.(고구마는 '숭당숭당' 썰어서 넣어서 고구마 삶아져 가면 이제 가루 넣어서. 고구마 거의 삶아져 갈 때. 그래서 문대면 아주 맛있어. 그래서 소금만 조금 넣고 해서 하면 맛있어.) 26 [신창]

숭상제: '흉이 있는 상제'를 뜻하는데 망자와의 관계에서 띠가 맞지 않거나 입하관 시 '호충'에 해당되는 상제를 말한다. // 우리 아저씨가 숭상제라근에 못 볼 때는 삼일 잇다가 또 날짜 봐근에.(우리 아저씨가 '숭상제'여서 못 볼 때는 삼일 있다가 또 날짜 봐서.) 24 [세화]

숭시: 흉사를 말한다. // 아이고 말로 못헤. 생각지 안헌 땅에 막덜 호텔덜. 아이고 이 함덕은 무신 숭시가 이신디사.(아이고, 말로 못해. 생각지 않은 땅에 막 호텔들. 아이고 이 함덕은 무슨 흉사가 있는지야.) 11 [함덕]

숭을 털다: '흉내를 내다'는 의미이다. // 경헤도 나 베설 궂이면은 아이덜 저 아이덜 ᄯᅳ립서, ᄯᅳ립서 허민 느 ᄯᅳ리라 난 안 ᄯᅳ리켜 허멍 ᄀᆞᆯ앙. 그 숭을 턴다, 동네 사름. 이제도.(그래도 내가 배설 궂으면 아이들 저 아이들 때리세요, 때리세요 하면 너 때려라. 난 안 때리겠어 하면서 말해. 그 흉내를 낸다. 동네 사람. 이제도.) 31 [토평]

쉐것: 소의 먹이를 말한다. // 여물은 그 쉐것 헹 멕이는 거.(여물은 그 소먹이 해서 먹이는 거.) 16 [하원]

쉐기오름: 남원읍 수망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 수망리는 수망리 게난 그디 아무나 아녕 이녁 가는 디 만썩 다 ᄯᅡ나. 우린 난 친정이 현칩인디, 저 쉐기오름이엔 헌디, 저 오름 잇주.('수망리'는 '수망리' 그러니까 거기 아무나 안 해 이녁 가는 데 만씩 다 달라. 우린 난 친정이 현씨 집인데, 저 '쉐기오름'이라고 한 데, 저 오름 있지.) 15 [수망]

쉐다슬: 두드럭 고둥의 한 종류로 '메옹기', '메옹이'라고도 한다. // 쉐다슬이엔 헌 거, 건 지픈 디가 잇어, 메옹기엔도 ᄀᆞᆫ곡 쉐다슬이엔도 ᄀᆞᆫ곡.('쉐다슬'이라고 한 거, 그건 깊은 데가 있어, 두드럭고둥이라고도 말하고 '쉐다슬'이라고도 말하고.) 25 [태흥]

쉐데취: 소가 먹다 남은 꼴의 찌꺼기이다. '쉐데치'라고도 한다. // 쉐데취엥 헤근엥에, 쉐 먹어난 거 찌꺼러기 그거.('쉐데취'라고 해서, 소 먹어난 거 찌꺼기 그거.) 15 // 저 쉐가 잇는 집엔 쉐 먹단 그 쉐데취로도 그 불 ᄉᆞᆷ앗지만 쉐데취로 불 ᄉᆞᆷ으믄 거름이 족다고 헤 가지고.(저 소가 있는 집에는 소 먹다가 '쉐데취'로도 그 불 때었지만 '쉐데취'로 불 때면 거름이 적다고 해 가지고.) 35 [대림, 성읍, 수망]

쉐돈: 서귀포시 효돈동의 옛 이름이다. // 지네, 이디 이젠 신효여, 하효주만은 그땐 쉐돈, 이 신례리도 예춘.(자기네, 여기 이젠 신효여, 하효지만 그땐 '쉐돈' 이제 신례리도 '예춘'.) 06 [남원]

쉐동산: 소가 많이 가는 동산이라는 말이다. '쉐왓동산', '쉐밧', '쉐왓'이라고도 한다. // 그 쉐왓동산에 그, 그 쉐동산이란게, 쉐.(그 '쉐왓동산'에 그, 그 '쉐동산'이란 게, '쉐'.) 29 [외도]

쉐막: 외양간으로 '쉐마귀', '쉐왕', '쉐막사리'라고도 한다. // 엿날은 쉐막은 벨로 지어가지고 거기서 촐도 주고 물도 멕여주고 그게 쉐막이고.(옛날은 외양간은 별도로 지어가지고 거기서 꼴도 주고 물도 먹여주고 그게 외양간이고.) 09 // 또 저기 쉐 멕이젠 허민 쉐막.(또 저기 소 먹이려고 하면 외양간.) 16 [고산, 하원]

쉐머력: '머력'은 머리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소의 앞에 있는 먹이통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 그거 ᄆᆞᆫ지락, 검질덜 하영 헹 뿌서지민 그거 ᄆᆞᆫ지락도 허곡 따시 또 쉐머력 것도 헹 허고 촐도 엇이민 촐도 헹.(그거 'ᄆᆞᆫ지락', 검불들 많이 해서 부서지면 그거 'ᄆᆞᆫ지락'도 하고 다시 또 '쉐머력' 것도 해서 하고 꼴도 없으면 꼴도 해서.) 13 // 게민 그 쉐머력에 검질 확확 언주왕 짇으민 불을 때민 우리ᄀᆞ치 짇을거 허렌 안 뎅겨.(그러면 그 '쉐머력'에 검불 확확 그러모아서 때면 불을 때면 우리 같이 땔감 하러는 안 다녀.) 25 [삼달, 태흥]

쉐밧: 소의 밭이라는 뜻으로, 소에게 먹이를 많이 먹이는 장소여서 붙은 말인 것 같다. '쉐왓동산', '쉐밧', '쉐왓', '쉐동산이라고도 한다. // 그 쉐왓동산이란 말이 쉐왓, 에 쉐왓, 쉐왓이엔 허는디, 쉐동산이주. 쉐. 쉐밧이주. 쉐밧, 쉐왓.(그 '쉐왓동산'이란 말이 '쉐왓', 에 '쉐왓', '쉐왓'이라고 하는데, '쉐동산'이지. 소. '쉐밧'이지. '쉐밧', '쉐왓'.) 29 [외도]

쉐뿔ᄂᆞᆷ삐: 무의 일종으로, 소의 뿔처럼 생긴 무를 말한다. // 단지치록 땅소곱에만 들엉 우터렌 나오지 아녕 단지ᄂᆞᆷ삐는. 따시 쉐뿔ᄂᆞᆷ삐엔 헌 거는 우티레만 나오고.(단지처럼 땅속에만 들어서 위로 나오지 않아서 '단지무'는. 다시 '쇠뿔무'라고 한 것은 위로만 나오고.) 05 // 쉐뿔ᄂᆞᆷ삐옌 ᄒᆞ는 건 우터레 쫙쫙 올라와 크는 거, 요즘도 그 ᄂᆞᆷ삐 종류가 거읜디.('쉐뿔ᄂᆞᆷ삐'라고 하는 건 위로 쫙쫙 올라와 크는 거, 요즘도 그 무 종류가 거의인데.) 08 // 쉐뿔ᄂᆞᆷ삐는 겨울에 나지를 못ᄒᆞ는 거주게, ᄀᆞᆺ아불어.('쉐뿔ᄂᆞᆷ삐'는 겨울에 나지 못하는 거지, 'ᄀᆞᆺ아' 버려.) 08 [동광, 표선]

쉐뿔무수: 무 모양이 소뿔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쉐뿔무수는 우트레 구짝구짝 올라간 거.('쉐뿔무수'는 위로 곧게곧게 올라간 거.) 25 [태흥]

쉐석: 소의 대가리를 걸려 잡아매어 끄는 줄이다. // 이게 걸름을 시꺼 가는디 앞더레 끗어줘야 밧듸 강 퍼뒁 올 건디, ᄒᆞᆯ 수 엇이 쉐석을 고비쳔 때렷거든.(이게 거름을 실어 가는데 앞에서 끌어줘야 밭에 가서 퍼두고 올 건데, 할 수 없이 '쉐석'을 꼬불쳐서 때렸거든.) 08 // 코거리 ᄒᆞ영 쉐 이른 빈지에 코거리 걸어근에 쉐석 메와근에 코거리에 쉐석 영 졸라메엇주게.(올가미 해서 소 이런 '빈지'에 올가미 걸어서 '쉐석' 매워서 올가미에 '쉐석' 이렇게 졸라매었지요.) 17 // 쉐막에 들어가면은 다 석이 매영 있으니까 쉐석이 있으니까니 오랑 탁탁 매고, 겐디 쉐가 멍

청헌 거 닮아도 주인은 다 알아.(외양간에 들어가면 다 석이 매여 있으니까 '쉐석'이 있으니까 와서 탁탁 매고, 그런데 소가 멍청한 거 같아도 주인은 다 알아.) 19 // 쉐뿔에 석 끼와 가지고, 쉐석.(소뿔에 석 끼워 가지고, '쉐석'.) 20 [고내, 대평, 동광, 청수]

쉐시락쿨: 풀 이름의 하나이다. // 게민 우리가 걸 그것이 그거 ᄒᆞᆫ번 메민 두불이엔 헤. 것만 돌아뎅기멍 ᄒᆞᆫ번 메 놩 내중에 거 복사쿨, 저 쉐시락쿨, 알로만 기어 나는 거.(그럼 우리가 걸 그것이 그거 한번 매면 두벌이라고 해. 것만 돌아다니면서 한 번 매 놓고 나중에 거 '복사쿨', 저 '쉐시락쿨', 아래로만 기어 나는 거.) 30 [노형]

쉐시리: 조 품종의 하나이다. // ᄒᆞ린좁쌀, 모읜좁쌀. 조 이름도 하. 쉐시리여 무신, 쉐시리여. ᄀᆞᆺ사 ᄀᆞᆯ아지크라라마는.(차좁쌀, 메좁쌀. 조 이름도 많아. '쉐시리'다 무슨, '쉐시리'다. 아까 말할 수 있겠더라만은.) 11 [함덕]

쉐앗배: 마소에 짐을 실을 적에 동여매는 굵직하고 기다란 참바를 말한다. 달리 '수웻배', '쉣배', '쉐얏배'라고도 한다. // 쉐질메 쉐앗배로 헤영은에 짐 시끄는 배로 꾀엇당 욜로 디물앙 다섯뭇 실러놩 또 요레로 가서 ᄃᆞᆼ겨. 그믄 요거 다섯 뭇 고정.(소길마 '쉐앗배'로 해서 짐 싣는 바로 꼬았다가 여기로 집어 넣어 다섯 뭇 싣고 또 여기로 가서 당겨. 그러면 이거 다섯 뭇 고정.) 03 // 저 쉐앗배. 질게 영 앞이 멍에에 이어 가지고 뒤에 그 장기레 ᄃᆞᆯ아메영 영 손 양짝더레 걸령 걸엉 장기 영 심엉 허는 거.(저 봇줄. 길게 이렇게 앞에 멍에에 이어 가지고 뒤에 그 쟁기에 달아매서 이렇게 손 양쪽으로 걸려서 걸어서 쟁기 이렇게 잡아서 하는 거.) 20 // 저, 노로 거기에 동여메야 뒐 거 아냐? 그러문 그 배, 배를 쉐앗배렌 허주게이. 쉐앗배.(저, 노로 거기에 동여매야 될 거 아냐? 그러면 그 바, 바를 '쉐앗배'라고 하지. '쉐앗배'.) 24 // 이 줄 말앙, 질게 영, 쉐앗배 모냥 긴 줄이. 저 코 꿰영, 그 줄이 일로 ᄒᆞ영.(이 줄 말고, 길게 이렇게, '쉐앗배' 처럼 긴 줄이. 저 코 꿰어서, 그 줄이 이리로 해서.) 36 [고내, 도련, 봉성, 선흘, 세화, 송당, 외도]

쉐역: 소 한 마리로 하루 동안 밭을 갈 수 있는 일의 양을 말하는 것이다. // 소가 하루종일 갈 수 잇는 것이 천 평. 그것보고 ᄒᆞᆫ 쉐역.(소가 하루종일 갈 수 있는 것이 천 평. 그것보고 한 '쉐역'.) 05 // 게난 경헤연 멧 쉐역, 멧 쉐역이엔 헌 것이 메칠 간 거냐, 멧 시에 갈앗냐 ᄒᆞ는 거.(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몇 '쉐역', 몇 '쉐역'이라고 한 것이 며칠 간 것인가, 몇 시에 갈았나 하는 거.) 15 [수망, 표선]

쉐왓동산: 제주시 외도동의 한 지경 이름이다. // 아마 여기서 ᄒᆞᆫ 이키로 뒐 건가? 저기 저 쉐왓동산이라고 헤 가지고 여기선 쉐왓동산, 쉐왓동산 허는데.(아마 여기서 한 이킬로 될 건가? 저기 저 '쉐왓동산'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선 '쉐왓동산', '쉐왓동산' 하는데.) 29 [외도]

쉐줄: 소를 들판의 일정한 공간에서 풀을 뜯게 하게 하기 위해서, 소를 맨 고삐에서부터 말

뚝까지 연결하는 긴 줄을 말한다. // 또 저 밧 담 다왕 에왕도 메곡. 경 아녀민 쉐줄에 헤 가지고 뿔에 허영 말ᄐᆞᆨ 박앙.(또 저 밭 담 쌓아서 에워서도 매고. 그렇게 않으면 '쉐줄'에 해 가지고 뿔에 해서 말뚝 박아서.) 29 [외도]

쉐지프다: 밭을 갈기 위해 사람을 빌릴 때 소도 함께 빌리는 것을 말한다. // 밧 갈 사름도 엇이민 쉐지픈다 허는 건 쉐영 사름이영 ᄀᆞ치 왕 밧 갈아 도라 허는 거라이.(밭 갈 사람도 없으면 '쉐지픈다' 하는 건 소랑 사람이랑 같이 와서 밭 갈아 달라 하는 거야.) 25 [태흥]

쉐질: 애월읍 소길리의 옛 이름이다. // 촐 빌 땐양, 우리도 촐왓듸 해 놓믄. 이디서 주로 쉐질, 쉐질 드르에 가는디, 아, 이 사름덜은 이제 그 쉐질 사름덜은 막 늦어사 ᄒᆞᆸ니다.(꼴 벨 때는요, 우리도 꼴밭에 해 놓으면. 여기서 주로 '소길', '소길' 들에 가는데, 아,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소길' 사람들은 아주 늦어야 합니다.) 28 [구엄]

쉐질메가지: 떡의 한 종류로, 떡 모양이 소의 등에 짐을 실을 때 얹는 길마 모양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권미떡 말앙 ᄯᅳ시 그 쉐질메가지 영 오그라지는 거.(골무떡 말고 또 그 '쉐질메가지' 이렇게 오그라지는 거.) 30 [노형]

쉐촐: 소먹이로 쓰이는 꼴을 말한다. // 감저 파면 감젓줄 ᄆᆞᆯ려서 무끄면은 그거 쉐촐.(고구마 파면 고구마 덩굴 말려서 묶으면 그거 쇠꼴.) 09 // 게고 띤데 저 소 사료로 허는 쉐촐이 잇어. 쉐촐로 자라는 풀들이 잇어.(그리고 띠인데 저 소 사료로 하는 쇠꼴이 있어. 쇠꼴로 자라는 풀들이 있어.) 18 // 비 맞히지 말앙 ᄆᆞᆯ령 잘 놔두민 쉐촐로 다 쉐촐로 허주게. 경 허영 쉐 먹영 살리주게.(비 맞히지 말고 말려서 잘 놔두면 '쉐촐'로 다 '쉐촐'로 하지. 그렇게 해서 소 먹여서 살리지.) 18 [고산, 신도]

쉐테우리: 소떼를 돌보거나 키우는 사람을 말한다. // 그냥 하영 질루는 사름을 쉐테우리엥 허주.(그냥 많이 기르는 사람을 소목동이라고 하지.) 16 // 쉐테우리 앞이 멧겨. 게믄 그 사름이 ᄋᆞ름 내낭 그디 살멍 보리 받앙, 그때는 보리쌀 아이고 보리로. ᄒᆞᆫ 집이 허영 보리 멧 섬 헷저. 쉐 봐 나믄 보리, 보리 그 집이 보리 하서. 쉐 쿰 받을 거.('쉐테우리' 앞에 맡겨. 그러면 그 사람이 여름 내내 거기 살면서 보리 받아서, 그때는 보리쌀 아니고 보리로. 한 집에 해서 보리 몇 섬 했다. 소 봐 나면 보리, 보리 그 집에 보리 많아. 소 품삯 받을 거.) 28 [구엄, 보목, 하원]

쉘ᄆᆞ루: 남원읍 남원리의 한 지역 이름이다. // 아니, 저 기자 우리 그디서 이딘 나가 두려불고 우리 아바지넨 기자, 이것이 옛날 지역 일름이 쉘ᄆᆞ루.(아니, 저 그저 우리 거기서 여긴 내가 어리고 우리 아버지네는 그저, 이것이 옛날 지역 이름이 '쉘ᄆᆞ루'.) 06 [남원]

쉡씨: 거름을 안 하고 뿌리는 씨를 말한다. // 쉐 질롸 놩 통시에 담아 놩 널어 놩게 내어 근에 통시에 담아 놩 걸름에 요만썩 걸라고, 그냥 쉡씨 갈앙 잘 안 뒈. 그거 돗통시에 걸름ᄒᆞ곡 서껑 바당더레.(소 길러서 '통시'에 담아 놔서 널어 놔서 내어서

‘통시’에 담아와서 거름에 이만씩 걸라고, 그냥 ‘쉡씨’ 갈아서 잘 안 돼. 그거 돼지우리에 거름하고 섞어서 바다에.) 10 // 건 어느 정도 건 걸름 안 놔도 보리ᄀᆞ튼 건 걸름 안 헹은 안 뒈여이. 게도 이젠 쉡씨라고이 그냥 씨 삐영도 비료만 하영 허믄 된다.(그건 어느 정도 건 거름 안 놔도 보리 같은 건 거름 안해선 안 돼. 그래도 이젠 ‘쉡씨’라고 그냥 씨 뿌려도 비료만 많이 하면 된다.) 10 // 쉡씨 간덴 허는 건 거름에 무쳐서 갈다가 거름은 거름대로 뭐 헤불고 그 저 씨만 밧디 강 씨 데껑 갈앙 네부는 거. 것ᄀᆞ라 쉡씨옌 헙주.(‘쉡씨’ 간다고 하는 건 거름에 묻혀서 갈다가 거름은 거름대로 뭐 해버리고 그 저 씨만 밭에 가서 씨 던져서 갈아서 내버리는 거. 것보고 ‘쉡씨’라고 하죠.) 19 [월령, 청수]

쉡씨전: 거름을 하지 않아도, 씨만 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이다. // 건 밧은 걸름 안 ᄒᆞ여근에 씨만 뿌령도 갈앗거든. 것ᄀᆞ라 쉡씨전이엔 헤서. 쉡씨전이엔 ᄒᆞᆫ 것은 걸름 안 ᄒᆞ영 씨 뿌려도 헤 먹는다. 그 밧이 워낙 밧 힘이 좋은 밧이니까.(건 밭은 거름 안 해서 씨만 뿌려서도 갈았거든. 것더러 ‘쉡씨전’이라고 했어. ‘쉡씨전’이라고 한 것은 거름 안 해서 씨 뿌려도 해 먹는다. 그 밭이 워낙 밭 힘이 좋은 밭이니까.) 08 [동광]

쉣번: 이웃끼리 여러 마리의 소를 모아 놓고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며 소를 돌보는데, 당번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겐 소 이껑은에 이꺼지 와신디 정존이 알로이 부룽이 쉣번게, 중동 박 서방 뚤이 쉣번 보렌 ᄒᆞ난 쉐를 확 들어쌍 ᄀᆞ찌 몰아야 헐 건디 막 늘어지게 느런이 ᄃᆞᆯ앙 가니까, 나가 이제 쉘 이껑 누게네 가니까 우리 쉐가 중성기니까 그 부룽이난 중성기난 사름 ᄀᆞ트민 뭐 겡헨 강 확 찔러 불언게.(그래서 소 이끌어서 이까지 왔는데 정존 아래로 ‘쉣번’, ‘중동’ 박 서방 딸이 ‘쉣번’ 보라고 하니까 소를 확 둘러싸서 같이 몰아야 할 건데 마구 늘어지게 느런히 데리고 가니까, 내가 이제 소를 이끌어서 누구네 가니까 우리 소가 불친소니까 그 부룩소니까 불친소니까 사람 같으면 뭐 그렇게 가서 확 찔러 버렸어.) 30 [노형]

쉣베: 마소의 짐을 실을 때 동여매는 굵직하고 기다란 참바를 말한다. // 영 앞쪽에 노프게 허고 질메에 낭으로 다 공젱이가 잇어. 쉣베 영 허영 그 공젱이레 짐 시껑 싹 훌텅 또 시껑 또 이디 꿰고 경허여낫저.(이렇게 앞쪽에 높게 하고 길마에 나무로 다 갈고리가 있어. ‘쉣베’ 이렇게 해서 그 갈고리에 짐 실어서 싹 훑고 또 실어서 또 여기 끼우고 그랬었어.) 26 [신창]

쉬: 떡이나 빵 안에 담는 소, 시루떡 위에 뿌리는 고물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지역에 따라서 ‘순메’라고도 한다. // 쉰 다 ᄀᆞ따. ᄑᆞᆺ쉬, 콩쉬. 쉰 다 ᄀᆞ따.(‘쉬’는 다 같아. 팥‘쉬’, 콩‘쉬’. ‘쉬’는 다 같아.) 13 // ᄂᆞᆷ삐 놓고 꿰나 미치고 헹 그거, 옛날이나 이제나 쉰 ᄀᆞ따.(무 놓고 깨나 무치고 해서 그거, 옛날이나 이제나 ‘쉬’는 같아.) 13 // 쉬는 여기서 대개 ᄑᆞᆺ ᄉᆞᆲ앙 허곡 앚인베기콩도 ᄉᆞᆲ앙 허고, 꿰 보까근에 설탕 서꺼근에 꿰도 담곡 기자 그치룩.(소는 여기서 대개 팥 삶아서 하고 강낭콩도 삶아서 하고, 참깨 볶아서 설탕 섞어서 참깨도 담고 그저 그처럼.) 23

[삼달, 온평]

쉬악쉬악: 휘파람 부는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 휘ᄇᆞ름으로 쉬악쉬악 혜영 허믄 개가 돌아옵니다. 사농개가 그렇게 영리한 개입니다.(휘파람으로 '쉬악쉬악' 해서 하면 개가 돌아옵니다. 사냥개가 그렇게 영리한 개입니다.) 03 [송당]

쉬염: '수염'으로, 여기에서는 '뿌리'의 의미로 쓰였다. // 골 만드는 건 보리나 밀이나. 물 적져놓고 물 적셔놓고 말르는 냥. 것이 뿔이 나는 거라, 쉬염이. 말쩨민 것이 나온 거야. 요만치 뒈면 널어야 헤여.(엿기름 만드는 건 보리나 밀이나. 물 적셔놓고 물 적셔놓고 마르는 대로. 것이 싹이 나는 거야, 뿌리가. 말째면 것이 나온 거야. 요만큼 되면 널어야 해.) 01 [도련]

쉬염발: 길게 길러서 치렁치렁 늘어뜨린 수염의 채를 이르는 말로, 여기서는 보리의 잔뿌리를 말한다. // 비 맞아근에 허민 나근에 쉬염발이 그 보리가 난다게. 나민이 그 나민 땅더레 부떠 벼.(비 맞아서 하면 나서 수염발이 그 보리가 난다. 나면 그 나면 땅에 붙어 버려.) 31 [토평]

쉰게물: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물 이름이다. // 게난 이 읍내물이여 뭐 쉰게물이영 그 나는, 산물 나는 디 강 그디 강 앚으민 것도 ᄒᆞ꼼 풀리주기게.(그러니까 이 '읍내물'이며 뭐 '쉰게물'이다 그 나는, 산물 나는 데 가서 거기 가서 앉으면 것도 조금 풀리지.) 26 [신창]

쉰다리: 쉬어 가는 밥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 만든 음료이다. 여름철에 많이 해 먹었다. 지역이나 제보자에 따라서 '순다리'라고도 한다. // 쉰다리 뭐 밥, 저 밥 그것에게 누룩 서꺼근에게 헤근에 놔두민 물이영 서껑 놔두민 보글보글 궤민 거 걸러내민 거 쉰다리.('쉰다린' 뭐 밥, 저 밥 그것에 누룩 섞어서 해서 놔두면 물이랑 섞어서 놔두면 보글보글 괴면 거 걸러내면 거 '쉰다리'.) 05 // 옛날은 밥이 쉬어도 아니 버렷주게. 그것에, 그것이 골이, 발효제가 들어가면은 거 발효뒈면은 걸 솟에서 기자 그 끌령 먹으면 쉰다리 뒈는 거라.(옛날은 밥이 쉬어도 안 버렸지. 그것에 그것이 골이, 발효제가 들어가면 거 발효되면 걸 솥에서 그저 그 끓여서 먹으면 '쉰다리' 되는 거야.) 12 // 쉰다리는 옛날에 냉장고 엇이난 밥 먹당 쉬면. 그게 그 위에 누룩 넣으민 쉰다리 뒈고.('쉰다리'는 옛날에 냉장고 없으니까 밥 먹다가 쉬면. 그게 그 위에 누룩 넣으면 '쉰다리' 되고.) 18 // 누룩 헤영 놧당 그 누룩 튿아 놓곡 경 허영 쉰다리 허영 보글보글 궤민 그거 쌩차로도 남자덜은 영 들이싸곡 씨원허게 들이싸곡 여자덜은 솖앙 그거라.(누룩 해서 놨다가 그 누룩 뜯어 넣고 그렇게 해서 '쉰다리' 해서 보글보글 괴면 그거 생짜로도 남자들은 이렇게 들이켜고 시원하게 들이켜고 여자들은 삶아서 그거야.) 29 [고내, 고성, 구엄, 남원, 노형, 도련, 선흘, 세화, 송당, 수망, 신도, 신창, 신촌, 온평, 옹포, 외도, 청수, 태흥, 표선, 하원, 한동]

쉼팡: 마을 안 나무 그늘 아래 쉴 수 있게 놓여 있는 넓적한 돌이다. // 그 아래 쉼팡 그거 ᄉᆞ백 멧 펭짜리 그거 하나 싯곡.(그 아래 '쉼팡' 그거 사백 몇 평짜리 그거 하나

있고.) 08 [동광]

스뎅: 스테인레스의 일본어식 발음 'ステンレス'의 준말이다. // 쟁기엔 ᄒᆞ면 앞부분 보섭이라고 헤 가지고 지금 말하면 스뎅 종류로 보섭이 제일 앞에 잇곡.(쟁기라고 하면 앞부분 보습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말하면 스테인리스 종류로 보습이 제일 앞에 있고.) 27 [옹포]

스릉스릉: 톱질하는 소리는 나타낸 말이다. // 둘리가 마주사사 스릉 스릉 절로 ᄃᆞᆼ기민 밀리고 이레 ᄃᆞᆼ기민 밀리는 허는 법으로.(둘이 마주서야 '스릉 스릉' 저리로 당기면 밀리고 이리 당기면 밀리는 하는 법으로.) 06 [남원]

스타칭: 원동기 시동을 걸기 위한 장비를 의미한다. // 그 화물차 ᄀᆞ튼 데는 조수가 이걸 스타칭이라고 헤서 이걸 돌려 가지고 기계를 살리는 건데 이렇게 치다가 게찡이라고 헤 가지고 탁 허민 이게 거꾸로 돌면 팔도 부러지고 그게 힘도 좋아야 조수도 헷어 옛날에는.(그 화물차 같은 데는 조수가 이걸 '스타칭'이라고 해서 이걸 돌려 가지고 기계를 살리는 건데 이렇게 치다가 '게찡'이라고 해 가지고 탁 하면 이게 거꾸로 돌면 팔도 부러지고 그게 힘도 좋아야 조수도 했어 옛날에는.) 27 [옹포]

슥쉐: 털빛이 흑황색(黑黃色)으로 얼럭덜럭한 소를 말한다. // 황소여 허는 노랑한 쉐들은 말을 잘 듣는데 젤 말을 안 듣는 게 슥쉐우다. 슥쉐. 고양이 닮은 거. 감시룩ᄒᆞᆫ 거. 어룩거룩ᄒᆞᆫ 거.(황소라고 하는 노란 소들은 말을 잘 듣는데 젤 말을 안 듣는 것이 '슥쉐'입니다. '슥쉐'. 고양이 닮은 거. 검으스름한 것. 얼룩달룩한 거.) 03 // 슥쉐는이 이 검은, 검은 거, 노린 거영 서꺼진 걸 슥쉐라고 헌다.('슥소'는 이 검은, 검은 거, 노란 거랑 섞인 걸 흑소라고 한다.) 12 [송당, 한동]

승비다리내창: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내 이름이다. // 밑으로 가민 승비다리내옌 ᄒᆞᆫ 거 잇어. 승비다리내창이옌 ᄒᆞᆫ 거 잇어.(밑으로 가면 '승비다리내창'이라고 한 거 있어. '승비다리내창'이라고 한 거 있어.) 08 [동광]

싀콜방에: 세 사람이 둘러서서 서로 절구공이 부딪치지 않게 간격을 맞추어 방아를 찧는 일을 말한다. '세콜방에'라고도 한다. // 싀콜방에엔 ᄒᆞ여 서이 짓는 거.('싀콜방에'라고 해 셋이 찧는 거.) 16 // 남방에 질 땐 ᄲᅳ르게 이여 이여, 이여 이여 이여도 ᄒᆞ라 싀콜방에 세글럼서라.('남방아' 찧을 땐 빠르게 '이여 이여, 이여 이여 이여도 ᄒᆞ라' '싀콜방에' '세글럼서라'.) 19 [청수, 하원]

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말한다. // 여기는 경 헤도 촌이라부난예. 시에 사름은예. 저기 찍엇덴 허는 어른도 있긴 이십디다 뭐. 그 시에 어른들은예.(여기는 그렇게 해도 촌이니까요. 시에 사람은요. 저기 찍었다고 하는 어른도 있긴 있었습니다 뭐. 그 시에 어른들은요.) 04 // 하영 버난 아이덜 칠 남매 다 결혼시키고 아덜덜 성제 지금 시에 간 집 산 살고.(많이 버니까 아이들 칠 남매 다 결혼시키고 아들들 형제 지금 제주시에 가서 집 사서 살고.) 14 // 탈곡기를 이젠 경운기에 맞추와 가지고 시에 가서 맞추와다가 것도 뭐 ᄒᆞᆫ번에 뒈는 게 아니라 시에 저 무신 공

업사, 거기 가서 맞추왕.(탈곡기를 이젠 경운기에 맞춰 가지고 제주시에 가서 맞춰다가 것도 뭐 한번에 되는 게 아니라 시에 저 무슨 공업사, 거기 가서 맞춰서.) 23 // 시에 강, 겨곡 여관허멍 살아 놓난에 여관허멍 사는 도중에 우리 집의 왓수다게.(시에 가서, 그리고 여관하면서 살아 놓으니까 여관하면서 사는 도중에 우리 집에 왔습니다.) 32 [고성, 덕수, 성읍, 신창, 온평, 외도]

시각꾸: 일본어 'しかく(四角)'로 사각을 말한다. // 창호지 반 장 오려근에 이젠 시각꾸로 영 오려 놔근에 요만이 뚤루믄 한 가운듸 이렇게 둘라집니다.(창호지 반 장 오려서 이젠 사각으로 이렇게 오려 놔서 요만큼 뚫으면 한 가운데 이렇게 뚫립니다.) 20 //저 종이 헤근에 영 시까꾸 헤근에 이젠 ᄀᆞ세로 ᄀᆞᆺ아근에 안네 돈 영.(저 종이 해서 이렇게 사각 해서 이젠 가위로 잘라서 안에 돈 이렇게.) 20 [고내]

시건이: 표선면 성읍1리에 있었던 물 이름이다. 달리 '시건이물'이라고도 한다. // 먹는 물 그 전이는 이 시건이엔 헌 물이 큰물 잇엇는디, 그거는 ᄎᆞᆷ 삼백육십오일 ᄀᆞ물아도 물 ᄇᆞ뜨질 아녀주.(먹는 물 그 전에는 이 '시건이'라고 한 물이 큰물 있었는데, 그거는 참 삼백육십오일 가물어도 물 밭질 않지.) 14 // 옛날 시건이엔 헌 디가 일 키로.(옛날 '시건이'라고 한 데가 일 키로.) 14 [성읍]

시국: 4·3에서 한국전쟁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 시국 따문에 시집 못가고, 군인 가분덴 ᄒᆞ난.(시국 때문에 시집 못가고, 군인 가버린다고 하니까.) 15 // 시국 난에 집이멍 무시거 ᄆᆞ딱 부떠 부난 그런 거 농 움직이멍 어디 아무것도 엇이난 ᄆᆞ딱 칸 거우다. 다 카 비수다. 쓸 사람도 엇어 불고.('시국' 나서 집이며 무엇 모두 붙어 버려서 그런 거 농 움직이며 어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두 탄 겁니다. 다 타 버렸습니다. 쓸 사람도 없어 버리고.) 15 // 그 동산은 잇주, 그 시국에 헤난 거.(그 동산은 있지, 그 시국에 했던 거.) 23 // 이 시국으로 후에 이디 성담 다완에 살아가는 것이 ᄎᆞᄎᆞᄎᆞᄎᆞ 이디서 난 이디서 큰 사름이 이디만 집 짓으멍 살앗주, 어디 웨지에 사름은 엇어낫어.(이 시국으로 후에 여기 성담 쌓아서 살아가는 것이 차차차차 여기서 나서 여기서 큰 사람이 여기만 집 지으면서 살았지, 어디 외지의 사람은 없었었어.) 25 [수망, 온평, 태흥]

시다바리: 일본어 'したばり'로 어떤 일을 할 때 밑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 인부 여덥 사름 들여놓고, 또 그레 아래 허는 사름도 ᄋᆞ덥 사름. 시다바리.(인부 여덟 사람 들여놓고, 또 그리 아래 하는 사람도 여덟 사람. '시다바리'.) 20 // 난 아기덜 때문에 일 안 허고 그냥 심부름이나 허고 밥이나 헹 멕이곡 인부덜 미싱 ᄋᆞ덥, ᄋᆞ덥 채. 또 인부도 ᄋᆞ덥, 또 그디 아랫일 시다바리 허는 사름덜 멧 사름 있고.(난 아기들 때문에 일 안 하고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밥이나 해서 먹이고 인부들 재봉틀 여덟, 여덟 채. 또 인부도 여덟, 또 거기 아랫일 밑에서 도와주는 일 하는 사람들 몇 사람 있고.) 20 [고내]

시덕고랑: 밭의 고랑을 가리키며 콩을 거기에 심는다고 한다. // 시덕고랑 영 고랑 잇잖아 고랑마다 콩을 좍 놓는 거라.('시덕고랑' 이렇게 고랑 있잖아 고랑마다 콩을 좍

놓는 거야.) 16 [하원]

시라목: 기계로 면실을 얇으면서도 성글게 짠 부드러운 천으로 '소창'을 가리키는 것이다. '시랑목', '시렁목'이라 한다. // 지금은 시라목ᄒᆞ주만은 옛날은 미녕. 미녕 ᄒᆞᆫ 필.(지금은 '시라목'을 하지만은 옛날은 무명. 무명 한 필.) 03 // 시라목 나오기 전이 삳바 헤수꽈게?('시라목' 나오기 전에 삳바 했습니까?) 04 // 이제나 저 무신 그런 삳바도 아니고, 시라목 삳바도 아니고 고만이 잇당 ᄒᆞ나 아졍강 강알 안에만 톡톡 대줘주.(이제나 저 무슨 그런 삳바도 아니고, '시라목' 삳바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 가져가서 다리 안에만 톡톡 대주고 있지.) 11 // 홍세미녕은 저 엿날에는 허다가 요 중간에는 이제 시라목으로 헙네께.('홍세미녕'은 저 옛날에는 허다가 요 중간에는 이제 '시라목'으로 합니다.) 22 [고성, 송당, 수망, 우도, 함덕]

시랑목: 기계로 면실을 얇으면서도 성글게 짠 부드러운 천으로 '소창'을 가리키는 것이다. '시라목', '시렁목'이라고도 한다. // 요즘은 시랑목 헹 감옷 헴주만은 옛날은 미녕 사다근에.(요즘은 '시랑목' 해서 '감옷' 하고 있지만 옛날은 무명 사다가.) 23 [온평]

시렁목: 기계로 면실을 얇으면서도 성글게 짠 부드러운 천으로 '소창'을 가리키는 것이다. '시라목', '시랑목'이라고도 한다. // 우리도 아들 풀 때 시렁목 ᄒᆞᆫ 통 담앙 보냇수다게.(우리도 아들 팔 때 '시렁목' 한 통 담아서 보냈습니다.) 08 // 그거 놩 오민 그 저 함에 놩, 두 필인가 함에 놩 그걸로 아기, 첫아기 나민 기저귀덜을 헷수다게, 시렁목, 시렁목.(그거 놔서 오면 그 저 함에 놔서, 두 필인가 함에 놔서 그걸로 아기, 첫아기 나면 기저귀들을 했습니다, '시렁목', '시렁목'.) 34 [구억, 동광]

시레광목: 아기 기저귀 감을 하는 얇은 천이다. // 옛날 시레광목, 아기 기저귀 허는 천 잇지 아니허우꽈? 그거 영 허영.(옛날 '시레광목', 아기 기저귀 하는 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렇게 해서.) 34 [구억]

시르시르허다: 일가붙이 숫자가 아주 많은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다. // 우린 어떠난 경 알아신고 허난이 우리 셋사우네가이 셋사우 아방네가 아홉 성제라낫어. 아홉 성젠 디 이칩인디, 모슬포 이칩인디 막 방상도 시르시르허난 우리 사우가, 셋사우가 닐 어버이날이면 오늘 궤기 가져와.(우린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나 하니까 우리 둘째 사위네가 둘째 사위 아버지네가 아홉 형제였었어. 아홉 형제인데 이씨 집인데, 모슬포 이씨 집인데 막 일가붙이도 '시르시르허난' 우리 사위가, 둘째 사위가 내일 어버이날이면 오늘 고기 가져와.) 33 [인성]

시리고냥: 시루를 솥에 안칠 때 그 틈에서 김이 새지 않도록 반죽을 해서 시룻번을 바르는데 그 시룻번이 터진 구멍을 말한다. // 무사산디사 경헹 어떵 헹 누게 확확 들어 뎅기고 문 열고 헤 가민 그 시리고냥 막은 것이 터져근에 파 파 파 파.(왜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누가 확확 들어 다니고 문 열고 해 가면 그 '시리고냥'

막은 것이 터져서 파 파 파 파.) 20 [고내]

시리여: 월령리에 있는 여 이름으로 시루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이 경계허고 조끔 지나오민 시리여, 시리여옌 헌 건 시리 모냥으로 똥그랑허니까 시리여여.(이 경계하고 조금 지나면 '시리여', '시리여'라고 한 건 시루 모양으로 동그라니까 '시리여'야.) 10 [월령]

시릿고망: 시루 밑에 뚫려 있는 구멍이다. // 시릿고망 다섯, 족은 시리에는 다섯 개.('시릿고망' 다섯, 작은 시루에는 다섯 개.) 23 [온평]

시릿벵뒤: 조천읍 선흘리 근처의 지명이다. // 못벵뒤여 무신 시릿벵뒤여 그런 너른 목장도 다 이젠 다 이녁만썩 관리허연 다 풀아먹어 불고 외국사름신듸 다 풀아 불고.('못벵뒤'다 무슨 '시릿벵뒤'다 그런 너른 목장도 다 이젠 다 자기만큼씩 관리해서 다 팔아먹어 버리고 외국사람에게 다 팔아 버리고.) 02 [선흘]

시마이: 일본어 'しまい'로 '끝', '끝맺음'의 의미로 쓰인다. // 네 번첸 장만허영 풀지 안헨에. 동네 사름덜 양재기로 하나썩 줘불엇저게. 줘 두곤 허영 남으난 닐 줘시녜. 겡 어제 강 저거 마지막으로 낭 강 어지려완. 어제 헴시난 동녘집이 사름 ᄀᆞ치 저거 무지려 줜게. 시마이 뒈언.(네 번짼 장만해서 팔지 않아서. 동네 사람들 양재기로 하나씩 줘버렸어. 줘 두곤 해서 남으니까 널 줬어. 그래서 어제 가서 저거 마지막으로 나무 가서 어지르고 왔어. 어제 하고 있으니까 동녘집의 사람 같이 저거 무질러 줬어. 마무리 됐어.) 33 [인성]

시마지: '시렁목'이라고도 하는데 얇고 성글게 짠 면직물로 아기 기저귀 천으로 사용되는 옷감이다. // 또 그 다 여산헤 가지고 시마지 ᄒᆞᆫ 통 사오고 멩줄 ᄒᆞᆫ 통 놔서. 그 사람 결혼허민 애기 나면 시마진 기저귀 허고.(또 그 다 예산해 가지고 '시마지' 한 통 사오고 명줄 한 통 놔서. 그 사람 결혼하면 아기 낳으면 '시마지'는 기저귀 하고.) 06 // 옛날 그 함엔 헤봐야 시마지 ᄒᆞᆫ 통 놓앗주게.(옛날 그 함이라고 해봐야 '시마지' 한 통 넣었지.) 24 // 경허멍 헤영 그 메역을 풀아시멍 그걸로 생활헤영 옷도 미녕도 사당 헹 입곡 또 ᄒᆞ쏠 서가난 광목 그런 시마지 ᄀᆞ뜬 거 그런 거 사난 우리가 헤단 옷헨 입으멍 살아신디.(그러면서 해서 그 미역을 팔면서 그걸로 생활해서 옷도 무명도 사다가 해서 입고 또 조금 있어가니까 광목 이런 '시마지' 같은 거 그런 거 사니까 우리가 해다가 옷 해서 입으면서 살았는데.) 25 [남원, 세화, 태흥]

시발쉐: 둥근 쇠 테두리에 발이 세 개 달린 기구로 작은 솥, 냄비 등을 올려놓고 음식물을 끓이는 데 쓴다. // 시발쉔이 말째에 그 동솟 앚졍 불 ᄉᆞᆷ으민 좋아. 낭 때엉 시발쉐. 그것에 냄비도 앚졍 헤먹고.(삼발이는 나중에 그 옹달솥 안쳐서 불 때면 좋아. 나무 때어서 삼발이. 그것에 냄비도 안쳐서 해먹고.) 02 [선흘]

시아게: 일본어 'しあげ'로 마무리, 끝손질의 의미이다. // 대패는 시아게 대패 있고 그대로 대패 있는디.(대패는 끝손질 대패 있고 그대로 대패 있는데.) 06 // 큰 남손으로 쫙, 쫙 일정허게 이렇게 헤 놔 가지고서 마지막으론 쒜손으로 시아게 헌다.(큰

‘남손’으로 쫙, 쫙 일정하게 이렇게 해 놔 가지고서 마지막으론 쇠손으로 마무리 한다.) 12 [남원, 한동]

시안ᄆᆞ를: 제주시 지경의 하나이다. // ᄆᆞᆯ 보레 시안ᄆᆞ를에 주로 가주, 여기서 거리가. 성판악 ᄒᆞᄉᆞᆯ 못 간 디주. 절물, 절물 입구 바로 그.(말 보러 ‘시안ᄆᆞ를’에 주로 가지, 여기서 거리가. 성판악 조금 못 간 데지. 절물, 절물 입구 바로 그.) 01 [도련]

시에메압궤: 밭에 나는 김 이름의 하나이다. // 대우리, 여끼, 무신, 무시거 ᄀᆞᆯ아지크라. 시에메압궤엔 헌 거 시에미압궤.(귀리, 여뀌, 무슨, 무엇 말할 수 있겠어. ‘시에메압궤’라고 한 거 ‘시에메압궤’.) 06 [남원]

시우멩춘: 봄이 시작되는 처음 시기라는 뜻이다. 맹춘(孟春)은 초봄을 이르는 말로 제보자는 좋은 때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고 했다. // 시우멩춘이엔 헤영 씌는 거.(‘시우멩춘’ 이라고 해서 쓰는 거.) 04 [고성]

시접: 수저를 올려놓는 제기이다. 시접은 대접과 모양이 비슷하다. 수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구멍을 뚫어 뚜껑을 달기도 하였다. // 아니 일년이 넘어가난양 치져놩 놈 헤논 거 서너 개 씩 보시에도 아니랑 시접이라이. 시접이엔 헌 건 좀 압주룩헌 거, 베조록한 게 시접이고.(아니 일년이 넘어가니까요 찾아서 남 해 놓은 거 서너 개씩 보시기에도 아니고 시접이에요. 시접이라고 하는 건 좀 얄팍한 거, 얕은 게 시접이고.) 03 [송당]

시지그랑허다: 어지럽다는 뜻이다. 좀 시시하게 어지러운 것을 표현한 것 같다. // 시지그랑헌 거 검질이엔 헤사 쒜비듬 ᄀᆞ튼 거.(‘시지그랑헌’ 거 김이라고 해야 쇠비름 같은 거.) 07 // 콩밧듸 거 뭐 시지그랑헌 거 나. 뭐 이것저것 기자 여름에 잡풀 나, 이것저것.(콩밭에 거 뭐 ‘시지그랑헌’ 거 나지. 뭐 이것저것 그저 여름에 잡풀 나지, 이것저것.) 24 [보목, 세화]

시치렁이: ‘너무 선선하여 조금 추운 듯한’이라는 의미의 말이다. // ᄂᆞᆷ은 일주일이여 사흘이여 메칠이여 허여도 난 쳇 아기도 아침이 어떵 일어낭 시치렁이 얼고 어떵 추운 기 난, 그날 겨울이난 누웟단에 ᄌᆞ물아 가난 ᄌᆞ냑 허젠 가난 우리 시어멍도 ᄒᆞ꼼 알아신ᄀᆞ라 저, 강 누라. 나 ᄌᆞ냑 헴시켜, 헴시켜. 헤도 ᄌᆞ냑 ᄒᆞᆫ디 헹 먹엉 완 밤이 열ᄒᆞᆫ 시쯤에 나주게.(남은 일주일이며 사흘이며 며칠이며 해도 난 첫 아기도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서 ‘시치렁이’ 춥고 어떻게 추운 기 나서, 그날 겨울이니까 누웠다가 저물어 가니까 저녁 하려고 가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조금 알았는지 저, 가서 누워라. 나 저녁 하겠어, 하겠어. 해도 저녁 같이 해서 먹고 와서 밤에 열한 시쯤에 낳았지.) 26 [신창]

시컴: 논에 나는 김의 종류이다. // ᄀᆞ만 셔봐, 무신 그거 시컴인가 뭐 이제 요놈으 것이 부그락이 낭은에 요걸 잘 아이 헷당은 나중에 온 나룩밧이 번져, 게난 그걸 일엇다 허믄 금방 메지 아이허믄 안 뒈어. 물세기렌.(가만 있어봐, 무슨 그거 ‘시컴’인가 뭐 이제 요놈의 것이 보각하게 나서 요걸 잘 아니 했다가는 나중에 온 벼밭

에 번져, 그러니까 그걸 잃었다 하면 금방 매지 아니하면 안 돼. '물세기'라고.) 28 [구엄]

시콜방에: 세 사람이 둘러서서 서로 절구공이 부딪치지 않게 간격을 맞추어 방아를 찧는 일을 말한다. '세콜방에'라고도 한다. // 너이도 짓고 서이도, 시콜방에. 시콜방에, 네콜방엔 잘 짓는 사람. 시콜방엔 기자 보통. 저디가 흔 번 허민 나 흔 번 다 맞촤.(넷도 찧고 셋도, '시콜방에'. '시콜방에', '네콜방에'는 잘 짓는 사람. '시콜방에'는 그저 보통. 저기가 한 번 하면 나 한 번 다 맞춰서.) 26 [신창]

식게: '기제사(忌祭祀)'를 뜻하며, 조상(祖上)이 죽은 날에 제사(祭祀)를 지내고 제관(祭官)들이 제물을 음복하는 일이다. // 경 허난 춤 식게 떼나 올케 곤밥.(그렇게 하니까 참 제사 때나 올케 흰밥.) 04 // ᄒᆞ못 우리 식게 먹으레 가민 졸아왕 ᄒᆞ못 그 멧밥 흔 직 얻어 먹이젠 그 졸아 가민 ᄒᆞ못 졸아왕 일리젠 허민 ᄒᆞ못.(사뭇 우리 제사 지내러 가면 졸려서 사뭇 그 메 한 숟갈 얻어 먹이려고 그 졸아 가면 사뭇 졸려서 일으키려고 하면 사뭇.) 26 [고성, 신창]

식깅이: 게의 일종이다. 등껍질에 검정과 갈색 무늬가 있어 삵의 무늬와 비슷하다하고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식킹이'라고도 한다. // 얼룩얼룩ᄒᆞᆫ다, 식깅이라고 깅이 색깔이 얼룩얼룩ᄒᆞᆫ다.(얼룩얼룩한다, '식깅이'라고 게 색깔이 얼룩얼룩한다.) 10 // 영 젓 담앙 먹는 거고, 식깅인 영 헤영 것도 먹긴 먹어. 먹어도 저 솖앙덜 알앙 거시기 헹덜, 모르켜.(이렇게 젓 담가서 먹는 거고, '식깅이' 이렇게 해서 그것도 먹긴 먹어. 먹어도 저 삶아서들 알아서 거시기 해서들, 모르겠다.) 10 // 가에 물 이제 싸 들어가면은 그 저 깅이는 식깅이.(가에 물 이제 써 들어가면 그 저 게는 '식깅이'.) 18 // 돌고망에만 박아지곡 경 허영 헌 것ᄀᆞ란 식깅이엔 허곡.(돌구멍에만 박히고 그렇게 해서 한 것보곤 '식깅이'라고 하고.) 29 [신도, 외도, 월령]

식소: 털빛이 흑황백색(黑黃白色)으로 얼럭덜럭한 소를 말한다. // 얼록소허곡게. 식소허곡. 까만 거벳기 더 잇어?(얼룩소하고. '식소'하고. 까만 것밖에 더 있어?) 04 [고성]

식쉐: 털빛이 흑황색으로 얼럭덜럭한 소를 말한다. // 건디 보통 목장에 강, 쉐 춪으레 갈 때나 우리 얼룩쉐 봐저냐, 우리 쉐 봐저냐 허주 그렇게 저 뭔 쉐, 식쉐여 허진 안 헷주게.(그런데 보통 목장에 가서, 소 찾으러 갈 때나 우리 얼룩소 봤니, 우리 소 봤니 하지 그렇게 저 뭔 소, '식쉐'여 하진 않았지.) 06 [남원]

식은땅: 밭의 흙이 찰기가 없어서 푸석푸석한 땅을 말한다. // 겐디 좋은 밧 이신 사름은 보릴 ᄒᆞ여 먹곡, 그냥 저 식은땅, 폭삭폭삭ᄒᆞᆫ 땅 그런 땅엔양, 기추룩 보리에 걸름을 줍아놔도 보리가 잘 안 뒈어마씸.(그런데 좋은 밭 있는 사람은 보릴 해서 먹고, 그냥 저 '식은땅', 폭삭폭삭한 땅 그런 땅에는요, 그처럼 보리에 거름을 집어놔도 보리가 잘 안 됩니다.) 08 // 화산회토로서이 학자덜 허는 말이 여기서 허민 식은땅이엔 헌다, 식은땅. 식은땅 여깃 말로.(화산회토로서 학자들 하는 말이 여기서 하면 '식은땅'이라고 한다, '식은땅'. '식은땅' 여기 말로.) 29 // 식은

땅이엔 헌 건 땅이 멕가리 엇어근에 기자 보리, 조 갈아도 부꺼불어.(식은 땅이라고 하는 건 땅이 힘이 없어서 그저 보리, 조 갈아도 부풀어 버려.) 31 [동광, 외도, 토평]

식켕이: 게의 일종이다. // 식켕이는 빨강헌 거 이만은 헌 거 저 무슨 뒌장찌게 그거 하는 식켕이.('식켕이'는 빨간 거 이만큼 한 거 저 무슨 된장찌개 그거 하는 '식켕이'.) 05 [표선]

식킹이: 등어리에 검정과 갈색 무늬가 있는 게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싯깅이'라고도 한다. // 식킹이엔 헌 건. 얼룩얼룩헌 것이 저 그것이 우리 ᄀᆞ뜨민 뭐 베염깅이라고 헤여낫어서.('식킹이'라고 한 것은. 얼룩얼룩한 것이 저 그것이 우리 같으면 뭐 '베염깅이'라고 했었어.) 01 // 게도 식킹이니 모살깅이니 잇주게.(게도 '식킹이'니 '모살깅이'니 있지.) 09 // 다 틀려. 식킹이는 이 등때기가 이 등때기가 얼룩얼룩허여.(다 달라. '식킹이'는 이 등때기가 이 등때기가 얼룩얼룩해.) 27 [고산, 도련, 옹포]

신구간: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 3일까지의 약 일주일을 이르는 기간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대개 1월 25일부터 2월 1일 사이가 된다. 이 기간에는 모든 신들이 옥황상제가 거처하는 하늘에 모여 새로운 임무를 받으려고 대기하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는 신이 없어서 아무 일이나 해도 탈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신구간'을 이용해 집을 고치고, 변소를 수리하고, 이사를 한다. // 신구간에 이사는 안 헤봣는디. 신구간 들면은 가정이 모든 집수리 ᄀᆞ튼 거라던지.('신구간'에 이사는 안 해봤는데. '신구간' 들면 가정이 모든 집수리 같은 거라든지.) 07 // 그 올라간 순간을 보고 신구간이라고 허는 거라. 아무거나 헤도 동티가 엇다고 아무거나 헤도 걱정이 엇다고.(그 올라간 순간을 보고 '신구간'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거나 해도 동티가 없다고 아무거나 해도 걱정이 없다고.) 09 // 신구간은 입춘 넘어서, 입춘 넘어서 오 일 후 입춘 삼 일 전에 그게 신구간으로 모든 이사나 집에 모든 뭐인가 고치는 건 다 헷저.('신구간'은 입춘 넘어서, 입춘 넘어서 오 일 후 입춘 삼 일 전에 그게 '신구간'으로 모든 이사나 집에 모든 뭐인가 고치는 건 다 했어.) 12 // 이월 사일이 완전히 그건 뭐 거 양력 이월 사일이 입춘이면 입춘 전후로 헤서 십사일 간이 제주도에서 말하는 신구간이라 신구간. 신구간은 이사를 하는데.(이월 사일이 완전히 그건 뭐 거 양력 이월 사일이 입춘이면 입춘 전후로 해서 십사일 간이 제주도에서 말하는 '신구간'이야 '신구간'. '신구간'은 이사를 하는데.) 27 [고산, 남원, 보목, 송당, 수망, 옹포, 한동]

신남궤: 구좌읍 송당리의 지명이다. // 또 웃순당은 신남궤렌 헌 물이 이수다. 신남궤물이라고.(또 '웃순당'은 '신남궤'라고 하는 물이 있습니다. '신남궤물'이라고.) 03 [송당]

신남밑당: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할망당이다. 어원은 정확히 알려 있지 않다. 아이들이 병이나 부스럼이 났을 때, 객지로 주로 나갈 때 찾는다. '신남'은 '신나무'를 뜻하

는 제주어이다. // 신남밑당이라고 헤서 거긴 뭐 환자가 생기면은 가서 좀 뭐 낫게 헤달라고 기원하는 곳이 신남밑당.('신남밑당'이라고 해서 거긴 뭐 환자가 생기면 가서 좀 뭐 낫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곳이 '신남밑당'.) 07 [보목]

신데기: 고둥 종류의 하나이다. // 먹보말. 수두리보말. 이제 곰셍이. 으, 신데기, 경.(밤고둥. 두드럭고둥. 이제 '곰셍이'. 으, '신데기' 그렇게.) 26 [신창]

신돌: 숫돌이다. 칼이나 낫 따위의 연장들을 갈아 날을 세우는 데 쓰는 돌을 말한다. // 신돌도 엇어낫수다. 그때에는. 공구리 친 디도 이서수과?('신돌'도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콘크리트 바른 데도 있었습니까?) 03 [송당]

신동산늣개통: 성산읍 온평리 바닷가 '신동산'이라는 곳에 있는 '늣개통'을 말한다. // 신동산늣개통, 여맞은개늣개통, 도에늣개통, 몰레알늦개통 다 잇주게.('신동산늣개통', '여맞은개늣개통', '도에늣개통',' 몰레알늦개통' 다 있지.) 23 [온평]

신ᄃᆞᆯ메: 신이 벗어지지 않도록 신을 발에다 동여매는 끈이다. 표준어 '들메끈'에 해당하는 말이다. // 신ᄃᆞᆯ메는 거 여기 끈 허영은에 무끄는 거.(들메끈은 거 여기 끈 해서 묶는 거.) 01 [도련]

신명동: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한 자연 마을이다. // ᄒᆞᆫ 삼천 평 땅. 이 땅을 내놘. 이제 삼천 평을 보조받아 가지고, 어도2구 사름덜이 ᄉᆞ, 저 시월에 소개허고, 바로 삼월달에 이 집을 지언 이 동네 형성헌 거라. 그게 신명동이라.(한 삼천 평 땅. 이 땅을 내놔서. 이제 삼천 평을 보조받아 가지고, 어도2구 사람들이 사, 저 시월에 소개하고, 바로 삼월에 이 집을 지어서 이 동네 형성한 거라. 그게 '신명동'이라.) 36 [봉성]

신벡허다: 실력이나 힘을 겨룬다는 의미의 제주어이다. // 것도 아이덜 신벡허영 허여, 것도. 신벡허영.(그것도 아이들 서로 겨루면서 해, 그것도. 서로 겨루면서.) 02 [선흘]

신사라: 신사라(新西蘭)로 뉴질랜드 삼을 말한다. 집 울타리 안에 심는 식물로 잎을 두들겨 꼬아 밧줄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 이제 그 ᄆᆞᆯ려근에. 두드령 ᄒᆞ면은 그게 그 저. 뭐이냐 그 이 노가 아주 질겨. 응, 신사락 보다도 질겨.(이제 그 말려서. 두드려서 하면은 그게 그 저. 뭐냐 그 이 노가 아주 질겨. 응, '신사라' 보다도 질겨.) 04 // 신사라로 망시리 멘들안 육지 강 멘들앙 그거 허영 그 소곱이 전복도 헤영 오곡 구젱기도 ᄌᆞ물아 오고 경헤낫저.(뉴질랜드삼으로 망사리 만들어서 육지 가서 만들어서 그거 해서 그 속에 전복도 해서 오고, 소라도 캐서 오고 그렇게 했었어.) 10 // 노 꼬앙 막 질겨 걸 꼬앙 신사라 꼬앙은에 이제 테왁 얽엉 이제 어음 이만이 헌 거 삼동낭 어음.(노 꼬아서 매우 질겨 그걸 꼬아서 뉴질랜드삼 꼬아서 이제 테왁 얽어서 이제 '어음' 이만큼 한 거 상동나무 '어음'.) 10 // 옛날에 산딧찔으로 이제 닷을 만들기도 ᄒᆞ고 그 후에 신사라.(옛날에 밭볏짚으로 이제 닻을 만들기도 하고 그 후에 '신사라'.) 22 [고성, 우도, 월령]

신사라망사리: 뉴질랜드삼을 부드럽게 두드린 후 꼬아서 결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들고 가

는 '테왁'에 연결해 쓰는 그물주머니이다. // 신사라 엇인 사름은 미우젱이 빠다근에 허곡 신사라 이신 사름은 신사라망사리 허곡.(뉴질랜드삼 없는 사람은 '미우젱이' 뽑아다가 하고 뉴질랜드삼 있는 사람은 '신사라망사리' 하고.) 23 [온평]

신사라신: '신사라' 즉 뉴질랜드삼으로 만든 신이다. // 신사라는 거 푸석푸석헌 게 엇기 때문에 노도 잘도 곱고양, 신사라신은 잘도 고와.(뉴질랜드삼은 거 푸석푸석한 게 없기 때문에 노도 매우 곱고요, '신사라신'은 매우 고와.) 23 [온평]

신쉐: 털 색이 흑색과 회색인 섞인 소를 말한다. '슥쉐', '식쉐'라고도 한다. // 또 신쉐라고 그 푸리롱헌 검은 쉐도 잇어마씨.(또 '신쉐'라고 그 푸르스름한 검은 소도 있어요.) 20 [고내]

신안: 풍수설에 따라 집터나 묏자리 등의 좋고 나쁨을 가려내는 '지관(地官)'을 이르는 말이다. '정시'라고도 한다. // 아니 ᄀᆞᆯ아, 경 헤낫젠 헤고. 그런 아는 사름이 잇단 이젠 엇주게. 그런 아는 사름이 신안이엔 헤 가지고 정시, 이제 ᄀᆞ뜨민 정시.(안 말해, 그렇게 했었다고 하고. 그런 아는 사람이 있다가 이제는 없지. 그런 아는 사람이 '신안'이라고 해 가지고 지관, 이제 같으면 지관.) 02 // 신안이엔도 ᄀᆞᆫ고 보살이엔도 ᄀᆞᆫ곡 헌다게. 요새엔 다 보살이라. 신안이 시냐? 요새. 옛날은 신안이 첨 많아신디.('신안'이라고도 말하고 보살이라고도 말하고 한다. 요새는 다 보살이야. '신안'이 있니? 요새. 옛날은 '신안'이 참 많았었는데.) 02 [선흘]

신우면: 애월읍 지역의 옛 행정 이름이다. // 이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도 이 외도가 완전히 저 신우면.(이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도 이 외도가 완전히 저 '신우면'.) 29 // 싸와 가지고, 왜 너네 안 부뜨겟다. 우린 저디 신우면에 가겟다. 그래서 신우면으로 부떤.(싸워 가지고, 왜 너네 안 붙겠다. 우린 저기 '신우면'에 가겠다. 그래서 신우면으로 붙었어.) 36 [봉성, 외도]

신진미: 제주시 외도동 해수사우나 아래쪽에 있는 궤 이름이다. // 경 허영 허난 이제 저 어디로 피란 가야 헌덴 헤연 허난 이젠 신집이 이 요디 저 이젠 이 모욕탕 아래 신진미엔 헌 궤가 큰 궤가 셧낫어.(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제 저 어디로 피란 가야 한다고 해서 하니까 이젠 '신집이' 이 여기 저 이젠 이 목욕탕 아래 '신진미'라고 한 '궤'가 큰 '궤'가 있었었어.) 29 [외도]

신ᄎᆞ셍이: 짚신을 삼을 때에 신날을 걸어서 발(足)로 번디디어 당기기도 하고 신뒤축 같은 데를 꾸부러지게 누르기도 하는 기구이다. // 그 하르방네 올 때이, 진도서 할망 할르방이 와신디 허씨라. 하르부진 신ᄎᆞ셍이, 신 잘 삼으니까 신ᄎᆞ셍이 두 개, ᄎᆞ셍이영 꿰는 거허고 눌뜨는 거 잇어이. 거 두 개만 가졍오곡 또.(그 할아버지네 올 때, 진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왔는데 허씨야. 할아버진 '신ᄎᆞ셍이', 신 잘 삼으니까 '신ᄎᆞ셍이' 두 개, 'ᄎᆞ셍이'랑 꿰는 거하고 누르는 거 있어. 거 두 개만 가져오고 또.) 30 [노형]

신하효리: 서귀포시 신효동과 하효동을 아울러 가리킨다. // 산촌이고 볼목리가 개춘이고 이 신하효린 개춘. 이딘 산춘. 산춘이엔 헤낫저, 토평.(산촌이고 보목동이 '개춘'

이고 이 신하효리는 '개춘'. 여긴 산촌. 산촌이라고 했었어, 토평.) 31 [토평]

실가림: 실 뭉텅이에서 몇 올을 한 가닥으로 갈라내는 것이다. // 삼, 삼은, 삼 삼아 허영 그거 헤 놩 또 그걸로 이제 요런 것에 놩 이런 거보단 ᄒᆞᆯ 크게 헤영 영 둘러 근에 이젠 또 가림을 만드는 거라. 실가림 모냥으로, 가림 만들앙.(삼, 삼은, 삼 삼아 해서 그거 해 놔서 또 그걸로 이제 요런 것에 놔서 이런 거보다는 조금 크게 해서 이렇게 둘러서 이젠 또 '가림'을 만드는 거야. '실가림' 모양으로, '가림' 만들어서.) 25 [태흥]

실강지다: 약간 질긴 기운이 있어서 씹기 불편한 상태를 말한다. // ᄎᆞᆷᄑᆞ레주, 그냥 보통으로 나는 건 실강졍 못 먹어.('ᄎᆞᆷᄑᆞ레'지, 그냥 보통으로 나는 건 '실강져서' 못 먹어.) 11 [함덕]

실겡이: 거름용 해초의 일종이다. // 옛날에는 감태, 뭐 감태, 곡제기, 실겡이, 막 나와. 노랑쟁이.(옛날에는 감태, 뭐 감태, '곡제기', '실겡이', 막 나와. '노랑쟁이'.) 21 // 그 실겡이엔 헌 거는 엇입니다. ᄆᆞᆷ벳기 ᄆᆞᆷ은 겨울나민 ᄒᆞ끔 켐니께.(그 '실겡이'라고 한 거는 없습니다. 모자반밖에 모자반은 겨울나면 조금 캡니다.) 22 // 북, 감태, 노랑쟁이, 실겡이 다 나나십주.(듬북, 감태, 괭생이모자반, '실겡이' 다 났었죠.) 23 [신촌, 온평, 우도]

실름: '실르다'의 명사형으로, '실르다'는 표준어의 '바수다(여러 조각이 나게 두드려 잘게 깨뜨리다)'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보리쏠을 실름이라고 허여. 초불 헤영 온 거 방에에 놩 실르민 ᄒᆞᆯ 보리쏠이 ᄆᆞᆫ작헤지주게.(보리쌀을 바숨이라고 해. 초벌 해서 온 거 방아에 놓고 바수면 조금 보리쌀이 반드러워져.) 06 [남원]

실프다: '싫다, 귀찮다'라는 뜻의 제주어이다. 여기서는 귀찮을 정도로 많이 잡힌다는 의미이다. // 게난 거 낙지 잡앙 가믄 복젱이 ᄒᆞᆫ 구덕썩 줘. 낙지 멧 ᄆᆞ리사 줘신지. 이젠 복젱이가 엇인디 실프게 하영 물어.(그러니까 거 낙지 잡아서 가면 복어 한 바구니씩 줘. 낙지 몇 마리 줬는지. 이젠 복어가 없는데 '실프게' 많이 물어.) 26 [신창]

심다: '붙잡다, 잡다'의 의미와 '심다(植)'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 깅이는 돌 일리민 확 ᄃᆞᆯ아 불기 때문에 손 ᄲᆞᆫ른 사람은 확확 심어도 겅 아니 허민 심지도 못허여.(게는 돌 일으키면 확 달아나 버리기 때문에 손 빠른 사람은 확확 붙잡아도 그렇게 안 하면 잡지도 못 해.) 18 [신도]

심방: '무당'을 이르는 말이다. 제주도 전 지역에서 '심방'이라고 한다. // 종기난 사름은 빌엉. 말명허멍 빌어. 심방들 말명허듯이.(종기가 난 사람들은 빌었어. 말하면서 빌어. '심방'들이 말하듯이.) 03 // 심방덜 큰심방덜 옹포 김씨 하르방이엔 헌 하르방 영 헹 잇어.('심방'들 큰'심방'들 옹포 김씨 할아버지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있어.) 10 // 지금은 벵원 잇고 약 좋으니까 아파가민 병원에 가고 음, 약 먹고 허지. 심방 ᄎᆞᆺ지 안허여.(지금은 병원 있고 약 좋으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고 음, 약 먹고 하지. 무당 찾지 않아.) 19 // 옛날엔이, 잇인 사름은 ᄑᆞᆺ을

숨고, 풋 엇인 사름은 그렇게, 풋을 놔야 그거 징징이 떼지지. 풋 아이 노민 그거 한 덩어리 뒈 불어. 그 굿 심방덜 빌어근에 나까시리 허잖아.(옛날엔, 있는 사람은 팥을 삶고, 팥 없는 사람은 그렇게, 팥을 놔야 그거 층층이 떼어지지. 팥 안 놓으면 그거 한 덩어리 돼 버려. 그 굿 '심방들' 빌어서 '나까시리' 하잖아.) 21 [송당, 신촌, 월령, 청수, 하원]

심방깅이: '두점박이민꽃게'의 제주어이다. // 심방깅인 심도 못허여. 영 헌디 어느 동안에사 저디 들아 부는디 못 심어, 못 심어. 얼룩얼룩얼룩헌 게이 흙곡 막 재여.(두점박이민꽃게는 잡지도 못해. 이렇게 하는데 어느 동안에야 저기 달아나 버리는데 못 잡아, 못 잡아. 얼룩얼룩얼룩한 게 굵고 막 재.) 01 [도련]

심방떡: 굿을 할 때 올리는 떡을 가리킨다. // 아이, ᄆᆞ음은 탁탁탁탁, 낭은 자게 안 사고, 요거 사 갑서, 사 갑서 허멍 막 싸게 헨 풀안 이젠 나산 이제 종이 그 흔 권인가 두 권인가 사고 과일덜 사고 쏠 받고 허연 오란 부지런이 이젠 지물 만들고 다데떡 만들어야 뒈잖아. 심방떡.(아니, 마음은 '탁탁탁탁', 나무는 재게 안 사고, 요거 사 가세요, 사 가세요 하면서 아주 싸게 해서 팔아서 이제는 나서서 이제 종이 그 한 권인가 두 권인가 사고 과일들 사고 쌀 받고 해서 와서 부지런히 이젠 제물 만들고 '다데떡' 만들어야 되잖아. '심방떡'.) 30 [노형]

십소장: 1430년부터 세종의 지시로 제주에 세워진 10개의 국영 목마장을 의미한다. // 그걸로 보면은 그 당시에 천오백 한 이십년 전후에서도 여기 사람이 살앗던 거는 분명한데. 그 목장의 유래는 확실히 여기서는 거 파악이 못하지만은 어 육소 게니깐 십이 제주도 십소장과 별개로 어 여 이쪽에 거 모동장이라고 잇어신디 모동장.(그걸로 보면은 그 당시에 천오백 한 이십년 전후에서도 여기 사람이 살았던 거는 분명한데. 그 목장의 유래는 확실히 여기서는 거 파악을 못하지만 어 육소 그러니까 십이 제주도 '십소장'과 별개로 어 여 이쪽에 거 '모동장'이라고 있었는데 '모동장'.) 18 [신도]

십수: '말의 나이 열 살'을 가리킨다. // 금승, 이수, 두 설짜린 이수주게. 이수, 삼수, 오수. 오수 육수 칠수 팔수 구수 십수엔 헷네.(하릅 이듭 두 살짜린 '이수'지. 이듭, 사릅, 다습. 다습, 여습 '칠수' '팔수' '구수' '십수'라고 했네.) 01 [도련]

싯뿌: 일본어 'しっぷ'로 찜질을 말한다. // 그냥 동상 걸렸을 때는 싯뿌나 험베끼 뭐 벨 수가 엇고.(그냥 동상 걸렸을 때는 찜질이나 할 수밖에 뭐 별 수가 없고.) 12 [한동]

싱그다: '심다'의 제주어로, 상을 차리는 것을 '상을 싱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 제허는 집이 남저 엇이민 따시또 그 방상에서 강 그 상을 싱거주주.(제 하는 집에 남자 없으면 다시 또 그 일가붙이에서 가서 그 상을 차려주지.) 13 // 상 싱글 사름 엇이민 시아주방이나 조케나 오랑 그걸 상을 싱거줘.(상 차릴 사람 없으면 시아주버니나 조카나 와서 그걸 상을 차려줘.) 13 [삼달]

싱꼴: 성산읍 온평리의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싱꼴이여 무슨 숲, 굴이 많은 디라이.('싱

꼴'이다 무슨 숲, 굴이 많은 데야.) 23 [온평]

싱삐: 땅 밑에 자갈 따위가 있어서 물이 고이는 곳을 이르는 말이다. // 빌레 이신 밧은 우에 흑 잇어 봐도 비 ᄒᆞ꼼만 오민 물이 돌 잇어 부난 내려가지 못허는 따문에 삐작삐작헤근에 빠졍 싱삐, 싱삐.('빌레' 있는 밭은 위에 흙 있어 봐도 비 조금만 오면 물이 돌 있어 버리니까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삐작삐작'해서 빠져서 '싱삐', '싱삐'.) 23 [온평]

싱피: 땅 밑에 자갈 따위가 있어서 물이 고이는 곳을 이르는 말이다. // 싱피 진 딘 화산회토라 부난.('싱피' 진 데는 화산회토여 버리니까.) 23 [온평]

싱피밧: 바닥에 돌 따위가 있어서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질척거리는 밭을 말한다. // 싱피밧은 밑에 돌이 이신 거라.('싱피밧'은 밑에 돌이 있는 거야.) 23 [온평]

ᄉᆞ간집: 네 칸으로 지어진 집을 말한다. // ᄉᆞ간집은 고부장네 집이라고 막 부제집 안팟거리 헌 디.(사간집은 고부장네 집이라고 아주 부잣집 '안팟거리' 하는 데.) 20 // ᄃᆞᆯ아멜 데도 졸바로 엇고 이제만이. 보통 삼간집. ᄉᆞ간집은 워낙 잘 사는 사름덜.(달아맬 데도 제대로 없고 이제만큼. 보통 '삼간집'. 'ᄉᆞ간집'은 워낙 잘 사는 사람들.) 26 // 삼간집이민 삼간집이 맞추고 ᄉᆞ간집이민 ᄉᆞ간집이 맞추곡. 긴 줄.('삼간집'이면 '삼간집'에 맞추고 'ᄉᆞ간집'이면 'ᄉᆞ간집'에 맞추고. 긴 줄.) 31 [고내, 신창, 토평]

ᄉᆞ나이: 사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제보자가 사위를 가리키면서 한 말이다. // 저 ᄉᆞ나이가 게난 우리 아덜덜이 우리안티 안 ᄀᆞᆯ아 부난 거주게.(저 사내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우리한테 안 말해 버리니까 거지.) 23 [온평]

ᄉᆞ락허다: 만지거나 스칠 때 부드럽고 상쾌한 느낌이 나는 모양을 말한다. // 베ᄀᆞ찌 ᄉᆞ락헌 셍멩지로. 또 경 아녕 기자 치메 저고리 만드는 거는 양잿물에 헹 ᄉᆞᆲ아근에 뉀 멩지로 경 만들앙 입곡.(베처럼 'ᄉᆞ락헌' 생명주로. 또 그렇지 않고 그저 치마저고리 만드는 거는 양잿물에 해서 삶아서 누인 명주로 그렇게 만들어 입고.) 24 // 엿날 베난에 조난에 저 저거 베개 껍데기 헤두서 여름에 그 저 풀 허멍 두 개 헤근엥에 아저씨도 허여나고 허난 두 개 헤두서 ᄀᆞᆯ리멍 저 그거 허민 ᄉᆞ락허여근에 좋곡.(옛날 베니까 좋으니까 저 저거 베개 껍데기 해두고 여름에 그 저 풀 하면서 두 개 해서 아저씨도 해나고 하니까 두 개 해두면서 고르면서 저 그거 하면 'ᄉᆞ락해서' 좋고.) 32 [덕수, 세화]

ᄉᆞ랑ᄉᆞ랑ᄒᆞ다: 조금 알맞게 긴 듯한 모양을 말한다. 'ᄉᆞ람ᄉᆞ람'이라고도 한다. // 춥ᄊᆞᆯ로도 게 이제 춥ᄊᆞᆯ떡이렌 ᄒᆞ멍 ᄉᆞ랑ᄉᆞ랑ᄒᆞ게시리게 뒈민 것도 인절미 뒈곡.(찹쌀로도 이제 찹쌀떡이라고 하며 'ᄉᆞ랑ᄉᆞ랑ᄒᆞ게시리게' 되면 것도 인절미 되고.) 07 [보목]

ᄉᆞ롬ᄉᆞ롬허다: 조금 알맞게 긴 듯한 모양을 말하는데, 달리 'ᄉᆞ람ᄉᆞ람'이라고도 한다. // 엿날, 지금 닮지 아녕, 저, 지슬이 저 ᄉᆞ롬ᄉᆞ롬헌 게 저 토종지슬이 이서낫주.(옛날, 지금 같지 않고, 저, 감자가 저 'ᄉᆞ롬ᄉᆞ롬헌' 게 저 토종감자가 있었지.) 24

[세화]

ᄉᆞ망일다: 재수가 좋은 일이 생기거나 운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의미이다. // 영 헌 트멍에 영 보믄 요디 박아졍 싯주게게. 저 오분자구가 어떤 땐 ᄉᆞ망일믄 돌 일러도 부텅 싯고.(이렇게 한 틈에 이렇게 보면 여기 박아져서 있지. 저 오분자기가 어떨 땐 사망일면 돌 일으켜도 붙어 있고.) 10 // ᄉᆞ망인 디 애기엔 허영. 아기 잘 키와난 디 애기, 딴, 이 집이서가 왕 빌어가.(사망인 데 아기라고 해서. 아기 잘 키웠던 데 아기, 딴, 이 집에서 와서 빌려가.) 11 // ᄉᆞ망일민 ᄒᆞᆫ 다섯 개쯤 아졍와. 아이들 여라 개 시민 ᄒᆞ나썩 주렌 헹 심방이 주면은 아졍오는 거. 밥도 비와 앗곡.(사망일면 한 다섯 개쯤 가져와. 아이들 여러 개 있으면 하나씩 주라고 해서 무당이 주면 가져오는 거. 밥도 부어 갖고.) 25 [월령, 청수, 태흥, 함덕]

ᄉᆞ방ᄉᆞ방ᄒᆞ다: 작은 매듭들이 촘촘하게 박혀있다는 표현이다. // ᄆᆞ작 ᄉᆞ방ᄉᆞ방ᄒᆞ난 어멍은 죽으민 머귀낭 지프고, 아방 죽으민 마음이 느직느직 ᄒᆞ난 왕대몽뎅이.(매듭 '소방소방ᄒᆞ난' 어머니는 죽으면 머귀나무 짚고, 아버지 죽으면 마음이 느직느직하니까 왕대몽둥이.) 15 [수망]

ᄉᆞ수: 말의 나이 네 살을 가리키는 말이다. // 이수매 삼수 ᄉᆞ수 오수 이렇게 허주게.('이수매' '삼수' 'ᄉᆞ수' '오수' 이렇게 하지.) 14 // 금승이, 이수는 삼수 ᄉᆞ수 오수 그 저 ᄆᆞᆯ은.(하릅이, '이수'는 '삼수' 'ᄉᆞ수' '오수' 그 저 말은.) 23 // 이수, 삼수 뭐 이런 식으로. 삼수 허민 ᄉᆞ수 오수. ('이수', '삼수' 이런 식으로. '삼수' 하면 '사수' '오수'.) 29 [성읍, 온평, 외도]

ᄉᆞ수매: 네 살 된 말이라는 뜻이다. // 금승, 금승ᄆᆞᆼ아지, 두ᄉᆞᆯ배기는 이수매, 삼수매, ᄉᆞ수매 영 여녕을.(하릅, 하릅망아지, 두 살배기는 '이수매', '삼수매', '사수매' 이렇게 연령을.) 01 [도련]

ᄉᆞ시: 하루 세끼를 '삼시'에 비유해서 하루 네 끼를 먹는다고 비유적으로 쓴 표현이다. // 촐 비는 사름덜은 옛날 삼시가 아니고 ᄉᆞ시 먹은 거라.(꼴 베는 사람들은 옛날 삼시가 아니고 'ᄉᆞ시' 먹은 거야.) 23 [온평]

ᄉᆞ장: 학문이나 기예에 능하여 남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 또는 학문이나 기예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師匠'을 말한다. // 중매로 허연. 우리 하르바님은 ᄉᆞ장 글ᄉᆞ장이고 이디 하르방은 훈장이라.(중매로 했어. 우리 할아버님은 사장, 글사장이고 여기 할아버지는 훈장이야.) 02 [선흘]

ᄉᆞ주드림: 새신랑 집에서 결혼식 날짜를 잡고 새색시 집에 그 날짜가 적힌 종이를 가져가는 일을 말한다. // 거 ᄉᆞ주드림, ᄉᆞ주 드리민 그젠 사돈이 뒈는 거.(거 사주드림, 사주 드리면 그땐 사돈이 되는 거.) 13 [삼달]

ᄉᆞ칸집: 네 칸으로 지어진 집을 말한다. // 삼칸집이 잇고 뭐 보통, 이딘 ᄉᆞ칸집도 잇는데 보통 한동은 삼칸집이여.(삼간집이 있고 뭐 보통, 여긴 'ᄉᆞ칸집'도 있는데 보통 한동은 삼간집이야.) 12 // ᄉᆞ칸집은 이디 이거 부엌허고 이거 마루 허고 이디 구들 허영 구들에 또 저짝에 부엌 허민 이제 ᄉᆞ칸집.('ᄉᆞ칸집'은 여기 이거 부엌

하고 이거 마루 하고 여기 방 해서 방에 또 저쪽에 부엌 하면 이제 'ᄉᆞ칸집'.) 26 // ᄉᆞ칸집 짓은 사름덜이 부제.('ᄉᆞ칸집' 지은 사람들이 부자.) 31 [신창, 토평, 한동]

ᄉᆞ해: 연싸움을 할 때 연줄에다 유리가루를 밥에 개어 만든 유리밥풀을 입히는 것으로 표준어 '개미'를 말한다. // 연 싸움에도 그 유리 멕인 놈은, 실에 ᄉᆞ해 먹엿젠 헙니다. ᄉᆞ해.(연 싸움에도 그 유리 입힌 놈은, 실에 'ᄉᆞ해' 먹였다고 합니다. 'ᄉᆞ해'.) 03 [송당]

ᄉᆞ히: '개미'를 말한다. 연줄을 질기고 세게 만들기 위해서 연줄에 먹이는 '개미'에 대응하는 제주어는 'ᄀᆞᆯ리'이다. 제보자는 이를 'ᄉᆞ히', 'ᄉᆞ이'라고 했다. // 실에 ᄉᆞ히 멕영 연싸움 헌다고.(실에 'ᄉᆞ히' 먹여서 연싸움 한다고.) 12 [한동]

ᄉᆞᆨ새: 새의 일종으로, 예전에 새덫을 놓아서 잡을 정도로 흔한 새였다. // 뭐 총데기여 뭐 ᄉᆞᆨ새여 이런 새덜이 잇는데 그거를 그 이렇게 치와 노민 새들이 와 가지고 그걸 그디 왕 앉아서 거 곡식 이 서숙 조.(뭐 종다리다 뭐 'ᄉᆞᆨ새'다 이런 새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 이렇게 치워 놓으면 새들이 와 가지고 그걸 거기 와서 앉아서 거 곡식 이 서숙 조.) 23 [온평]

ᄉᆞᆨ쉐: 틱 색이 흑색과 회색인 섞인 칡소를 말한다. 'ᄉᆞᆨ쉐', '식쉐'라고도 한다. // ᄉᆞᆨ쉔 ᄯᅳ로 벌겅ᄒᆞᆫ 털 난 듸게 ᄀᆞ뭇 긋어진 거, 경 ᄒᆞᆫ 걸 ᄉᆞᆨ쉐옌 ᄒᆞᆸ주.(칡소는 따로 벌건 털 난 데 금이 그어진 거, 그렇게 한 걸 칡소라고 합지요.) 17 // ᄉᆞᆨ쉐이 그ᄎᆞ록 ᄋᆞ라 가지 색 헤진 건.('ᄉᆞᆨ쉐' 그처럼 여러 가지 색 한 건.) 26 // ᄉᆞᆨ쉐가 제일 고기 알아준덴 헙니께, ᄉᆞᆨ쉐가.('ᄉᆞᆨ쉐'가 제일 고기 알아준다고 합니다, 'ᄉᆞᆨ쉐'가.) 34 // ᄉᆞᆨ쉐는 호랑이 모냥으로 줄 긋어져 가지고 노랑쉐에 검은 줄이 얼룩얼룩 잇인 거.('ᄉᆞᆨ쉐'는 호랑이 모양으로 줄 그어져 가지고 노란소에 검은 줄이 얼룩얼룩 있는 거.) 35 [구억, 대림, 대평, 봉성, 신창]

ᄉᆞᆯ그랑이: 베나 모시의 천 따위의 풀이 서서 좀 거친 듯하나 살갗에 닿지 않은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ᄉᆞᆯ그랑이게 그 뭣 허렌 베로로만 헤라, 그땐. 미녕도 안 허고, 광목도 안 허고.('ᄉᆞᆯ그랑이' 그 뭐 하라고 베로만 하더라, 그땐. 무명도 안 하고, 광목도 안 하고.) 26 [신창]

ᄉᆞᆯ뜬밧: 흙이 좋은 밭을 가리키는 말이다. // ᄉᆞᆯ뜬밧은 조, 옛날 막 ᄉᆞᆯ뜬밧은 흐린조팟이옌 허영양 흐린조만 갈아.('ᄉᆞᆯ뜬밧'은 조, 옛날 아주 'ᄉᆞᆯ뜬밧'은 '흐린조팟'이라고 해서요 차조만 갈아.) 23 [온평]

ᄉᆞᆯ지다: '살지다'의 뜻이나 여기서는 '굵다'의 의미로 쓰였다. 줄 따위가 두꺼운 것도 이렇게 표현한다. // 발 여라 개 달려근엥에 그 저 나무 큰 거 ᄉᆞᆯ진 거 헤근에양.(발 여러 개 달려서 그 저 나무 큰 거 굵은 거 해서요.) 23 // 줄은 삼사 헴신지 거멍허더라 거멍. 거멍허영 ᄒᆞ꼼 ᄉᆞᆯ져라. 갈치 나끄는 건.(줄은 사서 하는지 거멓더라, 거멓고. 거메서 조금 굵어. 갈치 낚는 건.) 26 [신창, 온평]

ᄉᆞᆯ지픈밧: 흙이 깊은 밭이다. 즉 자갈이 많지 않은 밭을 가리킨다. // 흐린조 가는 밧을 ᄉᆞᆯ

지픈밧. 토흔밧.(차조 가는 밭을 '솔지픈밧'. '토흔밧'.) 23 [온평]

솔허다: '조심스럽다'라는 의미이다. // 그 끓인 물에 놓는 거는 무수 놓곡 무수 놔근에 영 더운 짐 무수에 들어가면은 콩ᄀᆞ르 물에 탄 거 우로 영 솔허게 비왕 내 불면은 젓지 말앙 비왕 내 불면은 그대로 익으멍 우깍허게 덩어리차 뒈주게.(그 끓인 물에 놓는 거는 무 놓고 무 놔서 이렇게 더운 김 무에 들어가면 콩가루 물에 탄 거 위로 이렇게 '솔허게' 부어서 내 버리면 젓지 말고 부어서 내 버리면 그대로 익으면서 '우깍하게' 덩어리째 되지.) 23 [온평]

숫: '새끼'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부정한 것의 침범이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문이나 길 어귀에 건너질러 매거나 신성한 대상물에 매는 새끼줄인 '금줄'을 의미한다. // 우린 그런 거 저런 거 안 헤여. 그냥 내부는 거라. 아, 숫 메는 사람도 이서.(우린 그런 거 저런 거 안 해. 그냥 내버리는 거야. 아, '숫' 매는 사람도 있어.) 15 [수망]

숫ᄂᆞ끼: 짚으로 꼬아 줄처럼 만든 것으로 '새끼'를 말한다. // 옛날엔이 초집이 다 그 물구덩 영 허는 것처럼 다른 낭 헤당은에 그 서리가 영영 헹 싯주게. 서리 시민 그 서릿 새에 영영 놓멍 그 노 꼬왕인에이 숫ᄂᆞ끼 꼬왕인에 숫ᄂᆞ끼 엇이믄 저 산에 강 찍 걷어당 찍, 찍 아나?(옛날엔 초가집에 다 그 물구덩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른 나무 해다가 그 서까래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있지. 서까래 있으면 그 서까래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서 그 노 꼬아서 '숫ᄂᆞ끼' 꼬아서 '숫ᄂᆞ끼' 없으면 저 산에 가서 짚 걷어다가 짚, 짚 아나?) 33 [인성]

숭키: 채소, 나물을 가르키는 말로 표준어의 '푸성귀'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반찬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 먹을 것만 기자, 메역 이녁 먹을 거 ᄆᆞᆯ류앗당 숭키로 먹을 거.(먹을 거만 그저, 미역 자기 먹을 거 말렸다가 '숭키'로 먹을 거.) 20 [고내]

숭키구덕: '숭키(푸성귀)'와 '구덕(바구니)'의 합성어로 푸성귀를 캘 때 사용하는 바구니라는 의미이다. // 숭키구덕도 그것에 따랑은에 ᄀᆞ치 멘들앗고 애기구덕허고 그 구덕은 이 숭키구덕은 겸허연에덜 만들언.('숭키구덕'도 그것에 따라서 같이 만들었고 요람하고 그 바구니는 이 '숭키구덕'은 겸해서들 만들었어.) 01 // 숭키구덕. 바구니 아졍가근에 칼 아지곡. 호미나 칼이나 가졍강 영 허영 톨도 비곡 미역도 봐지민 비곡 정각도 봐지민 허곡 경 허영.('숭키구덕'. 바구니 가져가서 칼 가지고. 낫이나 칼이나 가져가서 이렇게 해서 톳도 베고 미역도 봐지면 하고 그렇게 해서.) 01 // 홁은 대로 ᄌᆞᆯ아근에 숭키구덕이렌 헤근에 큰 거 잇어. 것에 담앙 졍 다녀. 숭키만 허는 구덕이.(굵은 대로 결어서 '숭키구덕'이라고 해서 큰 거 있어. 것에 담아서 지고 다녀. 푸성귀만 하는 바구니가.) 30 [노형, 도련]

숭키바구리: '숭키' 즉 푸성귀를 캘 때 사용하는 바구니이다. // 경 허난 그거 허영 ᄇᆞ른바구리로 무시거 기지에덜 허영 봉강 ᄇᆞᆯ랑. 그것ᄀᆞ라 ᄇᆞ른바구리, ᄇᆞ른바구리. 바구리에 우리 그 숭키바구리 ᄇᆞᆯ르민 그거 ᄇᆞ른바구리렌 허여근에.(그렇게 하니까 그거 해서 'ᄇᆞ른바구리'로 무엇 천에들 해서 주워서 발라서. 그것보고 'ᄇᆞ른바구

리', '부른바구리'. 바구니에 우리 그 '숭키바구리' 바르면 그거 '부른바구리'라고 해서.) 29 [외도]

싸다: 불을 일으키거나 전기제품의 동력을 작동하게 만들다의 의미인 '켜다'이다. // 촛불 쌈시민 놧다가 ᄋᆞ 거기 모셩 놧다가 또 우리 제지낼 때민 ᄀᆞ찌 ᄀᆞ찌 영 헤근에.(촛불 켜고 있으면 놓았다가 응 거기 모셔서 놓았다가 또 우리 제지낼 때면 같이 같이 이렇게 해서.) 16 [하원]

싸르레: 외국 수입소의 한 종류를 말한다. // 그다음엔 개량종들 브라만이니 뭐니 웨국서 들어온 무슨 싸르레니 그런 것덜, 종류가 만히 이섯지이.(그다음엔 개량종들 브라만이니 뭐니 외국서 들어온 무슨 '싸르레'니 그런 것들, 종류가 많이 있었지.) 24 [세화, 외도]

싸움판: 조천읍 함덕리에서 멸치잡이를 하는 조 이름 중의 하나이다. 그 외에도 '큰그물', '새벽그물', '새선진' 등이 있었다고 한다. // 싸움판, 큰구물, 새벡구물 이 함덕만도 네 고지가 이신가?('싸움판', '큰구물', '새벡그물' 이 함덕만도 네 군데가 있나?) 11 // 목선으로 멘든 거 그물 시끈 배가 잇어. 그 그물 싸움판 허는 것이 두 척 이서.(목선으로 만든 거 그물 실은 배가 있어.) 11 [함덕]

싼타: 수입 소 종류의 하나이다. // 췌근에는 그 양종덜이 막 들어오지 안헷어게? 브라마니 무신 뭐. 싼타, 싸르레니 뭐.(최근에는 그 양종들이 막 들어오지 않았어? '브라마'니 무슨 뭐, '싼타', '싸르레'니 뭐.) 29 [외도]

쌀: 소라 껍질에 돋은 돌기를 말한다. // 앙살기는 ᄒᆞ꼼 어린 거 쌀 왕, 영 곱닥허곡 헌 거 허곡.('앙살기'는 조금 어린 거 '쌀' 와서, 이렇게 곱고 한 거 하고.) 23 // 민둥구제기는 막 오래 살민 이 쌀이 ᄒᆞ꼼 몽골아지주게.('민둥구제기'는 아주 오래 살면 이 살이 조금 몽그라지지.) 31 [온평, 토평]

쌀고동: 껍질에 돌기가 돋은 성숙한 소라를 말한다. 달리 '쌀구제기', '쌀구젱이'라고 한다. // 족은 건 쌀고동. 셍겡이.(작은 건 '쌀고동', '셍겡이'.) 24 [세화]

쌀구제기: 껍질에 돌기가 돋은 성숙한 소라를 말한다. 달리 '쌀고동', '쌀구젱이'라고 한다. // 또 뭐 쌀구제기 그거라. 커 가는 양 구제기가 경 헤신가?(또 뭐 '쌀구제기' 그거야. 커 가는 양 소라가 그렇게 했나?) 31 [토평]

쌀구젱기: 껍질에 난 돌기가 왕성한, 성숙한 소라를 말한다. 달리 '쌀구젱이'라고도 하였다. // 영 벌겨진 거 그거 영 쌀 신 건 그건 쌀구젱기.(이렇게 '벌겨진' 거 그거 이렇게 돌기 있는 건 그건 '쌀구젱기'.) 29 [외도]

쌀구젱이: 껍질에 난 돌기가 왕성한, 성숙한 소라를 말한다. 달리 '쌀구젱기'라고도 하였다. // 쌀구젱이가 ᄋᆞ물이 하.('쌀구젱이'가 여물이 많아.) 29 [외도]

쌍ᄂᆞᄆᆞᆯ: 속이 없는 배추의 일종이다. // 요즘추룩 쏙 아니 앚앗어, 저 쌍ᄂᆞᄆᆞᆯ이라마씨, 배추옌 ᄒᆞᆫ ᄂᆞᄆᆞᆯ이.(요즘처럼 속 아니 앉았어, 저 '쌍ᄂᆞᄆᆞᆯ'이지요, 배추라고 한 나물이.) 08 // 퍼데기, 퍼데기, 그것ᄀᆞ라 쌍ᄂᆞᄆᆞᆯ이엔 ᄒᆞ곡.('퍼데기', '퍼데기', 그것더러 '쌍ᄂᆞᄆᆞᆯ'이라고 하고.) 08 [동광]

쌍따비: 두 개의 날이 하나로 어우러져 이루어진 따비를 말하는 제주어이다. // 여기서 쌍따비는 안 써봣수다.(여기서 '쌍따비'는 안 써봤습니다.) 16 [하원]

쌍콩: 콩 종류의 하나이다. // 쌍콩은 저 ᄀᆞᆯ아근에 그냥 메주도 쓰곡게. 메주.('쌍콩'은 저 갈아서 그냥 메주도 쓰고, 메주.) 20 [고내]

쌩밧: 개간하지 않은 밭을 가리키는 말이다. 보통 띠의 기력이 떨어져 지력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농작을 하려고 이기는 띠밭을 가리킨다. // 이걸로 쌩밧을 갈아엎어서 밧을 만들기 시작헷주.(이걸로 '쌩밧'을 갈아엎어서 밭을 만들기 시작했지.) 14 // 쌩밧, 쌩밧 이겨근에 처음에 뭘 가느냐 허면 필 갈아.('쌩밧', '쌩밧' 이겨서 처음에 뭘 가느냐 하면 필 갈아.) 14 [성읍]

쌩페: '생패'의 의미이다. '생(生-)'는 익히지 않은 것을 말하며 '패'는 해초의 한 종류이다. // 이거 ᄒᆞᆫ 번 걷어베뒁 또 놩 또 쌩펠 놔근에 다 익으면은 이거 물릇 완전 궈진 거.(이거 한 번 걷어두고 또 넣어서 또 '쌩페'를 넣어서 다 익으면 이거 무릇 완전 구워진 거.) 14 [성읍]

썩은개: 한림읍 옹포리와 협재리 사이에 있는 작은 만을 의미한다. // 원래는 서근갠디 우리 여기서는 썩은개 썩은개 헤서.(원래는 '서근개'인데 우리 여기서는 '썩은개' '썩은개' 해서.) 27 [옹포]

쎈또모: 일본어 '전투(戰鬪:せんとう)' 모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 모자도 모자도 잇엇는데. 그 일본군인덜 쎈또모라고.(모자도 모자도 있었는데. 그 일본군인들 전투모라고.) 04 [고성]

쏙베설: 속대를 말한다. // 요 쏙베설로만 전 거는 삿갓이엔만 허는디.(요 속대로만 견 거는 삿갓이라고만 하는데.) 14 [성읍]

쏠랑쏠랑: 기름기름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 주넹이보리는 껍덕이 막 여라 불 끼와지고 쏠랑쏠랑 ᄒᆞ꼼 소름, 소름소름허고.(맥주보리는 껍질이 아주 여러 벌 끼워지고 '쏠랑쏠랑' 조금 '소름, 소름소름' 하고.) 23 [온평]

쏩: '소곱'으로 속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 쏩 쏙에도 입는 거, 쏙점삼에 쏙바지에.(속 속에도 입는 거, 속적삼에 속바지에.) 16 [하원]

쒜구덕: 쇠로 만든 바구니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쇠로 만든 아기 요람을 말한다. // 쒜구덕허고 영 밀리는 거 헤도 대구덕도 그 애기 질롸난 거는이 그냥 그 애기 무덤 우에 강 더껑 내불고 경허여.('쒜구덕'하고 이렇게 밀리는 거 해도 '대구덕'도 그 아기 길렀던 거는 그냥 그 아기 무덤 위에 가서 덮어서 내버리고 그렇게 해.) 11 // 그거에 그디 눅지켄 허난 우리 큰메누리 ᄉᆞ못 놀래 자빠져 불더라. 겐 쒜구덕 사단 헤도 건 아니 눅젼. 이거 가젼 가난 나 안 허쿠다.(그거에 거기 눕히겠다고 하니까 우리 큰며느리 사뭇 놀라 자빠져 버리더라. 그래서 '쒜구덕' 사다가 해도 건 안 눕혔어. 이거 가지고 가니까 나 안 하겠습니다.) 30 // 쒜구덕도 우리 손지 키울 때에 어디 강.('쒜구덕'도 우리 손주 키울 때에 어디 가서.) 30 [노형, 함덕]

쒜군벗: 바닷가에 사는 연체동물인 '군부'의 한 종류이다. // 이제도 종류 하. 하도 몰라. 쒜군벗도 잇곡 하르비군벗도 잇곡 거 무신 ᄆᆞᆯ쿤벗도 잇고 무시거 뭐 ᄀᆞᆯ아도.(이제도 종류 많아. 많아도 몰라. '쒜군벗'도 있고 '하르비군벗'도 있고 거 무슨 'ᄆᆞᆯ쿤벗'도 있고 무슨 거 뭐 말해도.) 01 // 쒜군벗은 엇어, 쒜닥지 입은 군벗은.('쒜군벗'은 없어, '쒜닥지' 입은 군부는.) 01 [도련]

쒜닥지: '쒜'는 '쇠', '닥지'는 '딱지'의 방언이다. '쒜딱지'는 '쇠처럼 단단한 딱지'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합성어이다. // 쒜닥지 입은 거. 것ᄀᆞ란 돌포말이렌 허는가.('쒜닥지' 입은 거. 그것보고 '돌포말'이라고 하는가.) 01 [도련]

쒜마차: 바퀴가 쇠로 되어 있는 마차를 말한다. // 마차도 그 쒜마차가 잇고 글후에 다이야로 만든.(마차도 그 '쒜마차'가 있고 그 후에 타이어로 만든.) 23 [온평]

쒜뭬끼: 식물이며 며느리밑씻개를 말한다. // 겨울 풀은 쒜뭬끼, 궤대우리도 잇고 대우리.(겨울 풀은 며느리밑씻개, 귀리도 있고 귀리.) 24 [세화]

쒜버렝이: 대장간의 쇳덩이를 말하는 것으로 대장간에서 잔일을 하는 것을 '쒜버렝이 줍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 우리 시하르방이 엿날에 덕수 보섭을 잘헤, 저 쉐 불미를 잘허곡 헌덴 허난에 쒜버렝이 줏으켄 시하르방, 우리 시아방 어린 때 ᄃᆞᆯ안 오란 어멍도 엇은 총각 ᄃᆞᆯ안 오란 살멍 헤연 이제 우리 시어멍한티 장게간에, 장게간 새 서방 새각신데 일본 강 살멍 공장 헤연 공업 공장 헤연 돈 벌멍 살앗주게.(우리 시할아버지가 옛날에 덕수 보습을 잘해, 저 소 풀무를 잘하고 한다고 하니까 '쒜버렝이' 주우려고 시할아버지, 우리 시아버지 어릴 때 데리고 와서 어머니도 없는 총각 데리고 와서 살면서 해서 이제 우리 시어머니에게 장가가서, 장가가서 새신랑 새색시인데 일본 가서 살면서 공장 해서 공업 공장 해서 돈 벌면서 살았지.) 33 [인성]

쓰레빠: '슬리퍼(slipper)'의 일본어(スリッパ)식 표현이다. // 조리도 일본 일름이지. 이제 허믄 쓰레빠 닮은 거, 쓰레빠지.(조리도 일본 이름이지. 이제 하면 슬리퍼 같은 거, 슬리퍼지.) 30 [노형]

쓰레트접: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갈기 위해 조직된 동아리이다. 계원들이 함께 돈을 모은 후에 순번에 따라서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였다. // 그다음에 여기 접이라는 거는 개발뒈기 시작헨 돈 좀 나오기 시작허니까 쓰레트접이라는 걸 헷어.(그다음에 여기 계라는 거는 개발되기 시작해서 돈 좀 나오기 시작하니까 '쓰레트접'이라는 걸 했어.) 23 [온평]

쓰리코다: 일본어로, 자동차 종류의 하나이다. // 쓰리코다, 저 쓰리코다옌 ᄒᆞᆫ 거, 그때 막 큰 차드라.('쓰리코다', 저 '쓰리코다'라고 한 거, 그때 아주 큰 차더라.) 08 [동광]

쓰붕: 프랑스어 '즈봉'에서 온 일본어 'ズボン'을 한국어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주붕', '쓰봉'이라고도 한다. // 무릎 우에 가게꾸리 아래 쓰붕을 헤서 입고, 머리가 길루면은 우리말로 성냥 가져와서 머리 안 까까서 오면은 불내서 그냥 머리 태와버리겟

다고.(무릎 위에 가게끔 아래 바지를 해서 입고, 머리가 길면 우리말로 성냥 가져와서 머리 안 깎아서 오면 불내서 그냥 태워버리겠다고.) 19 // 지금은 쓰붕 입엇지만은 옛날은 주붕이 엇주.(지금은 바지 입었지만 옛날은 바지가 없지.) 23 [온평, 청수]

씨가볼로다: '씨를 잘 묻어준다'의 의미이다. // 씨가볼론덴 헨에. 씨 안 보이게 가볼른덴 헤영.('씨가볼론덴' 해서. 씨 안 보이게 '가볼른덴' 해서.) 14 [성읍]

씨감자: 씨앗으로 쓸 고구마 즉 '씨고구마'를 뜻한다. // 씨감자로 이제 팔기도 허믄 걸 사당도 허고 자기대로 저장헌 사름은 자기 걸로 허곡 헹근에 거 사당 허는 사름은 말로 ᄒᆞᆫ 말 두 말 말로 ᄑᆞᆯ믄 사다가 이제 그 멧자리를 멘들앙은에.('씻감자'로 이제 팔기도 하면 걸 사다가도 하고 자기대로 저장한 사람은 자기 걸로 하고 해서 거 사다가 하는 사람은 말로 한 말 두 말 말로 팔면 사다가 이제 그 못자리를 만들어서.) 29 [외도]

씨감저: 씨앗으로 쓸 고구마 즉 '씨고구마'를 뜻한다. // 씨감저는 거시지 못ᄒᆞᆯ 거고 먹을 감저는 영 ᄒᆞ여근에 거세기 ᄒᆞ민, 그 저 가운데 주젱기 ᄋᆞᆯ아근에 그 가운디로 손 디밀아근에 감저 영 퍼내어근에, 멧 개씩 퍼내영덜 먹읍니께.(씨고구마는 건드리지 못할 거고 먹을 고구마는 이렇게 해서 거시기 하면, 그 저 가운데 주저리 열어서 그 가운데로 손 넣어서 고구마 이렇게 퍼내어서, 몇 개씩 퍼내어서들 먹습니다.) 08 // 봄 낭 씨감저 사례 뎅기는 사름이 오죽 한다고.(봄 되어서 씨고구마 사러 다니는 사람이 오죽 많다고.) 14 [동광, 성읍, 온평, 외도]

씨막아지다: 파종한 씨에 흙이 덮혀 막는다는 의미이다. // 뿌려근에 이젠 영 섬피 넙싹헌 거 소낭 가지라도 너벌허게 멘들아근에 영 끗이믄 씨 막아지게.(뿌려서 이젠 이렇게 끙게 넓적한 거 소나무 가지라도 넓적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끌면 씨 막히게.) 20 [고내]

씨망텡이: 짚으로 둥그스름하게 엮어 아가리를 주먹이 드나들 정도로 해서 목이 있게 만든 작은 멱둥구미로 씨앗을 넣어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된 씨앗 주머니이다. '씨멩텡이', '씨부게기', '씻부게', '부게기'라고도 한다. // 씨망텡이ᄀᆞ라 멜망텡이엔 허잖아. 메니까.('씨망태기'보고 '멜망태기'라고 하잖아. 메니까.) 21 // 볏집으로 짜는 망텡이라고 있어. 남저덜이 ᄀᆞᆯ아. 씨망텡이라고 (볏짚으로 짜는 망태기라고 있어. 남자들이 결어. '씨망텡이'라고.) 30 [노형, 신촌]

씨멩텡이: 짚으로 둥그스름하게 엮어 아가리를 주먹이 드나들 정도로 해서 목이 있게 만든 작은 멱둥구미로, 씨앗을 넣어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된 씨앗 주머니이다. '씨망텡이', '씨부게기', '씻부게', '부게기'라고도 한다. // 조고만 ᄒᆞ영 야가기에 톡 ᄒᆞ게 두러메곡, 영 ᄒᆞ영 잡아줘서, 영 잡아근에 씨 뿌리는 씨멩텡이가 잇엇어.(조그만 해서 목에 '톡 ᄒᆞ게' 둘러메고, 해서 이렇게 해서 잡아줘서, 이렇게 잡아서 씨 뿌리는 씨망태기가 있었어.) 08 // 것도 막 빌엉 저디 씨멩텡이에 막 쟁일 빌어당 ᄀᆞᆯ루루 이걸 막 삐어.(그것도 아주 빌려서 저기 '씨멩텡이'에 막 전문가를 빌

어다가 골고루 이걸 막 뿌려.) 11 [동광, 함덕]

씨뭬께: 식물명으로 '며느리밑씻개'를 말한다. '며느리배꼽'을 제주어로 '쉐메기'라고 하는데 붉은 꽃이 핀다는 걸로 봐서 '며느리밑씻개'를 말하는 듯하다. '쉐메기'를 된소리로 '씨뭬께', '쒜뭬께'라고도 한다. // 보리밧 검질은 대우리도 나곡, 저 씨뭬껜 헌 거, 씨뭬껜 헌 것도 잇주게.(보리밭 김은 귀리도 나고, 저 '며느리밑씻개'라고 한 거, '며느리밑씻개'라고 한 것도 있지.) 15 [수망]

씨아덜: 자손을 말하는 것으로 '씨'와 '아들'의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다. // 그 사름네 이제 다 죽언 원 씨아덜이 엇어. 원 씨 멜족허영 원.(그 사람들 이제 다 죽어서 원 '씨아들'이 없어. 원 씨 멸족해서 원.) 25 [태흥]

씨앗: '시앗'으로, 여기서는 남편의 첩을 가리킨다. // 헌덴은 해도 씨앗, 두 개는 안 ᄒᆞ는 셍이라. ᄯᅳ로 헌다. 난 이제 늙언 안 허여, 아이덜 다 허여. 큰아덜이여 ᄌᆞᆨ은아덜이여.(한다고는 해도 시앗, 두 개는 안 하는 모양이야. 따로 한다. 난 이제 늙어서 안 해, 아이들 다 해. 큰아들이야 작은 아들이야.) 10 [월령]

씨전중: 대를 이를 씨를 계속 잇게 하는 일을 말한다. // 그걸, 그걸 어떵사 씨전중사 허염신디 경 허여근에 허기 덕분에 우린 이런 사름 여에나 가근에 허믄 그 소라나 그런 거라도 영 부떠 시민 떼여와 불카부덴 못 뎅기게.(그걸, 그걸 어떻게야 '씨전중'이야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하기 덕분에 우린 이런 사람 여에나 가서 하면 그 소라나 그런 거라도 이렇게 붙어 있으면 떼어와 버릴까 봐서 못 다니게.) 29 [외도]

씨제우다: 관리를 잘못해서 잡초 등의 씨가 떨어져 무성하게 된다는 뜻이다. // 하나씩 무끄는 것이 커근에 메여불어사주 이녁 밧은이. ᄂᆞᆷ의 밧 보는 사름들은 졸바로 메도 아니헌다. 씨제왕 내불어.(하나씩 묶는 것이 커서 매어버려야지 자기 밭은. 남의 밭 보는 사람들은 제대로 매지도 않는다. '씨제왕' 내버려.) 33 [인성]

씰밥: 꿰맨 실이 밖으로 드러난 부분인 실밥을 말한다. // 옷 만들 때 저 허는 거는 족은 바농으로 헤야 그 씰밥이.(옷 만들 때 저 하는 거는 작은 바늘로 해야 그 실밥이.) 23 [온평]

씰차데: 바늘겨레를 이르는 것으로 바늘을 꽂는 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 씰차덴 바농 찔르는 거 씰차데.('씰차데'는 바늘 찌르는 거 '씰차데'.) 16 [하원]

ᄊᆞ랑ᄊᆞ랑ᄒᆞ다: 조금 긴 듯한 상태를 말하는 제주어이다. // 인절미는 영, ᄊᆞ랑ᄊᆞ랑ᄒᆞᆫ 거.(인절미는 이렇게, 'ᄊᆞ랑ᄊᆞ랑ᄒᆞᆫ' 거.) 16 [하원]

ᄊᆞᆯ개풀: 풀 종류의 하나이다. // ᄊᆞᆯ개풀은 거 약재로도 사용허는 건디 그건 밧디 얼마 나지 안헤, 가끔만.('ᄊᆞᆯ개풀'은 거 약재로도 사용하는 건데 그건 밭에 얼마 나지 않아, 가끔만.) 12 [한동]

ᄊᆞᆯ대죽: 수수쌀을 얻을 수 있는 수수를 말한다. // ᄊᆞᆯ대죽은 허영 조겡이로도 영 긁으고 주로 저 뭣고 쳇망. 쳇망으로 자락자락 헐 거주.('ᄊᆞᆯ대죽'은 해서 '조겡이'로도 이렇게 긁고 주로 저 뭐지 쳇바퀴. 쳇바퀴로 자락자락 할 거지.) 26 [신창]

쏨: 바늘을 묶어 세는 단위를 말한다. 표준어 '쌈'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한 쌈은 바늘 스물네 개를 이른다고 되어 있다. 성읍리에서는 제보자에 따라서 '열 개' 또는 '열두 개'라고 응답해 사람이나 지역에 따라서 한 쌈의 인식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난 열 갠 중 아는디 혼 쏨이.(난 열 갠 줄 아는데 한 쌈이.) 14 [성읍]

ㅇ

아가네: 일본산 참외 종류의 하나이다. // 그건 게도 맛도 좋곡 헌디 춘양참웨는 별로, 뭐 아가네여 무신 일름이 읏라 가지랏는디, 아가네 춤웬 ○○이 아방네 허난.(그거는 그래도 맛도 좋고 하는데 '춘양참웨'는 별로, 뭐 '아가네'야 무슨 이름이 여러 가지였는데, '아가네' 참외는 ○○이 아버지네 하니까.) 28 [구엄]

아강발: 보통 돼지의 발을 말하는데 게의 가장 큰 발도 '아강발'이라고 한다. // 전복겡이엔 헌 건 거멍헌 게 흙은 거 발도 이 아강발 영 접지는 거 그것도 흙고.('전복겡이'라고 한 건 거먼 게 굵은 거 발도 이 '아강발' 이렇게 '접지는' 거 그것도 굵고.) 25 [태흥]

아귀톡: 턱의 낮춤말이다. // 경 허영 헌디 그 어려운 시절이난에 뭐허연 헌디 그 아귀톡은.(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어려운 시절이니까 뭐해서 했는데 그 '아귀톡'은.) 29 [외도]

아기구덕: 대오리로 엮어 만든, 아기를 눕혀 재우는 장방형(長方形)의 바구니로 제주도 특유의 육아기구이다. '애기구덕'이라고도 한다. // 아기구덕은 낭 ᄒᆞ꼼 싯당 허여 오주기게.('아기구덕'은 낳아서 조금 있다가 해 오지.) 26 // 영 끼왕 영 허영 허민 영 허영 아기구덕 무신, 잊어불어졋저. 퍼렁헌 건 아기구덕, 무신 구덕 허멍 헤난디.(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해서 '아기구덕' 무슨, 잊어버렸어. 퍼런 건 '아기구덕', 무슨 바구니 하면서 했었는데.) 26 // 시어머닌 아팡 아기 우는 소리에 머리팡 헤양헌 게, 아기구덕 옆이 강 앚으민, 반찬이 시민 두부 그때 당시 한 모에 삼십 원, 삼십 원 헐 때난에 두 모 사젠 허민 돈 십 원이 모자르난 십 원 보태영, 두부 사올 돈이 어십디다게.(시어머니는 아파서 아기 우는 소리에 머리털과 하얀 게, '아기구덕' 옆에 가서 앉으면, 반찬이 있으면 두부 그때 당시 한 모에 삼십 원, 삼십 원 할 때니까 두 모 사려고 하면 돈 십 원이 모자라니까 십 원 보태어서, 두부 사 올 돈이 없습디다.) 34 // 기술자가 필요헌 것이 그 구덕도 줃곡 아기구덕도 줃곡, 물허벅도 줃곡 모든 것을 그 저 가정용품을 다 대로 만들아십주게.(기술자가 필요한 것이 그 바구니도 겯고 '아기구덕'도 겯고, '물허벅'도 겯고 모든 것을 그 저 가정용품을 다 대로 만들었습지요.) 35 [구억, 노형, 대림, 신창]

아기밥: 아기가 무사히 태어난 것을 축하하며 밥을 해서 주변에 나눠 주는 것을 말한다. // 경헌디 요 집은이 ᄉᆞ뭇 죽어지켄 허멍 아기 나도이 시어멍도 양말 ᄒᆞᆫ 커리도 안 주고 아기밥덜 헤영 먹엇젠 헤도 아기밥도 ᄒᆞᆫ 적 안 줘, 요 집이.(그런데 요 집은 사뭇 죽겠다고 하면서 아기 낳아도 시어머니도 양말 한 켤레도 안 주고 '아기밥'들 해서 먹었다고 해도 '아기밥'도 한 숟가락 안 줬어, 요 집에.) 33 [인성]

아기삐 맞추다: 태아가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산모의 골반 등이 벌어져 자리를

잡는 것을 말한다. // 경헤도 나 원 아길 오래, 아이 그날도 아이 난. 경헤영 ᄒᆞᆫ 열흘 싯단 유월 열ᄒᆞ를 날사 아기삐 맞춰 나져라게.(그래도 나 원 아기를 오래, 아이 그날도 안 낳았어. 그렇게 해서 한 열흘 있다가 유월 열하루 날에야 '아기삐 맞춰' 낳게 되더라.) 26 // ○○이 셋아시 각시가 아기 나게 뒈난 시어멍이 간 느네 셋메누리 아기삐 맞촷젠 헤도 생전 오지 안헴젠, 보레.(○○이 둘째 아우 색시가 아기 낳게 되니까 시어머니가 가서 너희 둘째 며느리 '아기삐 맞촷젠' 해도 생전 오지 않는다고, 보러.) 33 [신창, 인성]

아기상: 아기가 잘 자라도록 기원하기 위해 방구석이나 벽 위에 두는 상을 말한다. '삼신상'이라고도 한다. // 경헨 성주헤연 또 이제 그 아기상 빌어 줜 허난 삼백만 원 들영 굿 두 번 헷어. 다시랑 굿허지 말앙 침 맞치렌 헌디 이제 저 열아홉이라게.(그래서 성주해서 또 이제 그 '아기상' 빌어 줘서 하니까 삼백만 원 들여서 굿 두 번 했어. 다시는 굿하지 말고 침 맞히라고 했는데 이제 저 열아홉이야.) 26 [신창]

아기업게돌: 안덕면 대평리 지경에 있는 돌이다. // 또 알러레 내려오민 아까 아기업게돌이 옌 ᄒᆞᆫ 디가 잇거던. 아기업게돌, 아기업은 돌이 있어.(또 아래로 내려오면 아까 '아기업게돌'이라 한 데가 있거든. '아기업게돌', 아기 업은 돌이 있어.) 17 [대평]

아기 풀다: 직역하면 '아기 팔다'라는 말이지만 '자식을 결혼시키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제주어이다. // 오라방 아기 ᄑᆞ는디 고모덜이 뭔 간섭헐 거니만은이.(오빠 '아기 ᄑᆞ는디' 고모들이 무슨 간섭할 거니만은.) 11 [함덕]

아까젱끼: 일본에서 판매되었던 빨간 상처 소독약 '赤チンキ'를 말한다. // 뭐에 쓰는 건디 뭐 옛날에는 요즘은 몰라도 옛날에 무신 아까젱끼도 만든다 무신 화장품에도 들어간다 그런 말이 잇어신디.(뭐에 쓰는 건지 뭐 옛날에는 요즘은 몰라도 옛날에 무슨 '아까젱끼'도 만든다 무슨 화장품에도 들어간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25 [태흥]

아니ᄆᆞᆫ직은궤야: 남원읍 수망리에 있는 자연 동굴로 '사리물궤'라고도 불린다. 또 다른 이름으로 '아이ᄆᆞᆫ죽은궤'로도 불리는데 이 명칭은 4·3 이후에 붙여진 것으로 추측된다. // 어멍은 첨, 아까 말한 디 아니ᄆᆞᆫ직은궤야에서 기냥 같이 이시니까 그자 죽여 버리고. 에, ᄒᆞᆫ 집안 안에 전 식구가 아주 멜족헌 디가 ᄒᆞᆫ두 군데 이수다. 우리 수망리는, 그자 전부.(어머니는 참, 아까 말한 데 '아니ᄆᆞᆫ직은궤야'에서 그냥 같이 있으니까 그저 죽여 버리고. 에, 한 집안 안에 전 식구가 아주 멸족한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 수망리는, 그저 전부.) 15 [수망]

아니ᄆᆞᆫ진궤야: 남원읍 수망리에 있는 자연 동굴로 '사리물궤'라고도 불린다. 또 다른 이름으로 '아이ᄆᆞᆫ죽은궤'로도 불리는데 이 명칭은 4·3 이후에 붙여진 것으로 추측된다. // 그 밑에 ᄂᆞ려오민 거 또 아니ᄆᆞᆫ진궤야라고 잇는데, 그 궤야도 크고, 그 밑에 내려가민 궤야 ᄌᆞᆫ 것덜, 기자 사름 기자 앚암시믄 ᄒᆞᆫ 대ᄋᆞ슷 사름썩게. 아니믄

일굽, ᄒᆞᆫ 열 사름썩 경ᄒᆞ는 궤야.(그 밑에 내려오면 거 또 '아니ᄆᆞᆫ진궤야'라고 있는데, 그 '궤야'도 크고, 그 밑에 내려가면 '궤야' 잔 것들, 그저 사람 그저 앉는다면 한 대여섯 사람씩. 아니면 일곱, 한 열 사람씩 그러는 '궤야'.) 15 [수망]

아다로: 일본어 '当たる(あたる)'에서 온 말로 '맞다, 명중하다, 적중하다, 들어맞다' 등의 의미이다. 어떤 상황에 들어맞다의 뜻으로 쓰였다. // 그게 방서에 첫 번 본 사름이나 재수 궂은 사름이 아다로 허면 사람 많은 위치에 앗당 놔아야만이 어느 재수 없는 사름이 그걸 걸려 들어가는 거라.(그게 방사에 첫 번 본 사람이나 재수 궂은 사람이 '아다로' 허면 사람 많은 위치에 가져다 놓아야만 어느 재수 없는 사람이 그걸 걸려 들어가는 거야.) 03 // 일본서 들어와야 그 ᄆᆞᆯ꼴렝이 사주. 그 믄이 ᄆᆞᆯ꼴렝이가 진 거 아다로 헌 사름은 탕관도 빨리 허여.(일본서 들어와야 그 말꼬리 사지. 그러면 말꼬리가 긴 거 '아다로' 한 사람은 탕건도 빨리 해.) 21 [삼달, 송당, 신촌]

아다로: 일본어 '当たる(あたる)'에서 온 말로 음식을 먹고 체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 거 곽란이엔 헤도 이제사 보난에 무시거 음식 먹언에 아다로 뒈는 그거 아이라? 배 아팡 막 ᄒᆞᆫ 거.(거 곽란이라고 해도 이제야 보니까 무슨 음식 먹어서 '아다로' 되는 그거 아니야? 배 아파서 막 한 거.) 15 [수망]

아다루: 일본어 '当たる(あたる)'에서 온 말로 '적중하다', '들어맞다'는 뜻으로 쓰였다. // 그디 강 그 사름 드리치는 거 봥 허당 아다루 뒈민 표시허영 감앙 허여.(거기 가서 그 사람 들이치는 거 봐서 하다가 '아다루' 표시하면서 감아서 해.) 11 // 그런 사름이 못뒌 몽니 아지민 줴로 아다루허여. 그 ᄊᆞᆯ ᄒᆞᆫ 말이 하냐?(그런 사람이 못된 몽니 가지면 죄로 '아다루허여'. 그 쌀 한 말이 많니?) 33 [인성, 함덕]

아다루: 일본어 '当たる(あたる)'에서 온 말로, 먹은 음식에 체하다는 의미이다. // 쉐가 배탈 나도 약 헹. 쉐도 아다루 뒐 때가 잇주게.(소가 배탈 나도 약 해서. 소도 '아다루' 될 때가 있지.) 31 [토평]

아덜: '도께아덜'을 말한다. 표준어 도리깻열에 대응한다. // 철에만 쓰기 때문에 이 아덜놈이 좀 뭐헌 아덜놈은 저 도께아덜 경헌 거 같애.(철에만 쓰기 때문에 이 '아덜'놈이 좀 뭐한 '아덜'놈은 저 '도께아덜' 그런 거 같아.) 30 [노형]

아덜: 일본어 '当たる(あたる)'에서 온 말로 여기서는 '적중'의 의미로 쓰였다. // 그니까 그걸 저 그렇게 아까워 헤 가지고 어떤 건 잇다근에 어디 강 두 개, ᄒᆞ나 낳아근에 ᄒᆞ는 쉐도 잇는디, 새끼를 그렇게 잘 나니까 그걸 지신디 ᄑᆞᆯ렌만 ᄒᆞ멍 헤낫는디 그런 쉐가 아덜 ᄒᆞ민 재수고.(그니까 그걸 저 그렇게 아까워 해 가지고 어떤 건 있다가 어디 가서 두 마리, 하나 낳아서 하는 소도 있는데, 새끼를 그렇게 잘 낳으니까 그걸 자기에게 팔라고만 하면서 했었는데 그런 소가 '아덜' 하면 재수고.) 15 [수망]

아덜덜 ᄑᆞᆯ다: 여기서는 '아들들을 결혼시키다'는 의미이다. // 우리 아덜덜 ᄑᆞᆯ 땐양, 열네 머리 잡고, 도새기.(우리 '아덜덜 ᄑᆞᆯ' 땐요, 열네 마리 잡고, 돼지.) 23 [온평]

아덜순: 원줄기에서 옆으로 난 곁가지 순을 말한다. // 수박은게 그냥 씨 놩 놔두난에 나오난에 그거 저 그 아덜순.(수박은 그냥 씨 놓아 놔두니까 나오니까 그거 저 그 '아덜순'.) 32 // 아덜순 그건 짤라 불어야 뒈여. 그거는 짤라 불지 아녀민 저레 강 멀리 가서 수박이 올아사 커마씨.('아덜순' 그건 잘라 버려야 돼. 그거는 잘라 버리지 않으면 저리로 가서 멀리 가서 수박이 열어야 커요.) 32 [덕수]

아들 풀다: 아들을 결혼시킨다는 뜻으로 쓰인 제주어이다. // 손매가 좋아. 경헹 또 젊은 사름덜 아들 풀젠 허민 신이 엇엇지.('손매'가 좋아. 그렇게 해서 또 젊은 사람들 '아들 풀젠' 하면 신이 없었지.) 33 [인성]

아들락아들락: 싹이 드문드문 돋아난 상태를 말한다. // 조 갈 때 ᄒᆞ나씩 삐민은 그게 아들락 아들락 ᄒᆞ나씩 이서.(조 갈 때 하나씩 뿌리면 그게 '아들락 아들락' 하나씩 있어.) 24 [세화, 표선]

아라리: 제주시 아라동을 말한다. // 할아버진 일찍 가 부니까 할머니가. 할머니 친정이 아라리라. 아라리 어른인데, 아라리 김씬데. 족은아덜은 나쁜 밧 주민 누게 벵작도 안 헌덴.(할아버지는 일찍 가 버리니까 할머니가. 할머니 친정이 '아라리'야. '아라리' 어른인데, '아라리' 김씨인데. 작은아들은 나쁜 밭 주면 누구 병작도 안 한다고.) 30 [노형]

아랑아랑허다: 몹시 야들야들하고 윤이 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 계속 젓어야 파글락탁 파글락탁 물 엇이민 푸글렉이 파글락 파글락 허주. 게민 청묵이엔 헌 건이 아랑아랑헌 거 곱닥허여.(계속 저어야 '파글락탁 파글락탁' 물 없으면 '푸글렉이' '파글락 파글락' 하지. 그러면 '청묵'이라고 한 건 '아랑아랑헌' 거 고와.) 33 [인성]

아레미: 알루미늄을 일본어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 그때는 벤또가 엇어 가지고이, 아레미 벤또가 엇어 가지고이.(그때는 도시락이 없어 가지고, '아레미' 도시락이 없어 가지고.) 12 [한동]

아명: 표준어 '아무리'에 대응하는 말이다. 주로 동사와 함께 쓰이는데 '아멩'이라고도 한다. // 아명 냉장고에 놩 싱싱헤영 좋은덴 헤도 오래여 가민 맛이 엇어. 맛이 엇어.('아명' 냉장고에 놔서 싱싱해서 좋다고 해도 오래되어 가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11 // 아명이나 닥치는 데로.('아명'이나 닥치는 대로.) 16 [하원, 함덕]

아무사: '아무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 건 아무사 아무나 못헤여. 것도 바느질와치 잘ᄒᆞ는 사름이라사주.(건 '아무사' 아무나 못해. 것도 '바느질와치' 잘하는 사람이어야지.) 16 [하원]

아무상: 표준어 '아무 일'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아이고 ᄌᆞᆷ헌 일도 아니고 거 아무상 젖은 것도 허면은 누에가 설쎄 나근에 죽어불어.(아이고 좀한 일도 아니고 거 '아무상' 젖은 것도 하면은 누에가 설사 나서 죽어버려.) 16 [하원]

아문질: 한림읍 월령리의 옛 지명으로 '가문질'이라고도 불렀다. // 이 월령리옌 허는 부락이 엿날엔 아문질이여, 아문질. 막 곶자왈로 어우러진 부락이주기.(이 '월령리'라

고 하는 부락이 옛날에는 '아문질'이야, '아문질'. 막 곶자왈로 어우러진 부락이지.) 10 // 막 곶자왈로 어우러지니까 아문질로 헤난 모양이라.(막 곶자왈로 어우러지니까 '아문질'로 했던 모양이야.) 10 [월령]

아방: 보통 '아버지'를 말하나 상황에 따라서 '남편'을 가리키기도 한다. // 큰아덜 날 땐 저 산뒤 비레 가신디, ᄉᆞᄆᆞᆺ 날을 헤도 못 바레난 재기 ᄉᆞᄆᆞᆺ 오젠 아판에 재기 헤 뒁 집이 오란에 난 눅고 아방은 또 ᄒᆞᆫ 번 시꺼 오고 헨에 밤이 낳주.(큰아들 날 땐 저 밭벼 베러 갔는데, 사뭇 날을 해도 못 보니까 재게 사뭇 오려고 아파서 재게 해 두고 집에 와서 난 눕고 '아방'은 또 한 번 실어 오고 해서 밤에 낳았지.) 06 // 촐 비렌 아방네 새벡이 보네동, 조반 새벡조반 헤근에 먹영 보네동, 정심이영 온 조름에 가는 뒈게로 미쳐가멍 경 얼먹어난.(꼴 베라고 '아방'네 새벽에 보내두고, 조반 새벽조반 해서 먹여 보내두고, 점심이랑 온 꽁무니에 가는 '뒈게'로 미쳐가면서 그렇게 얼먹었었어.) 15 // 우리 집 아방이 오민 친구들 와근에 주멍, 야, 우리 집이 거는 육합주여이, 오합주 아니여이. 너넨 오합주만 허지이. 우린 육합주여이. 경 잘 ᄀᆞᆯ아.(우리 집 '아방'이 오면 친구들 와서 주면서, 야, 우리 집의 거는 '육합주'야, '오합주' 아니야. 너희는 '오합주'만 하지. 우린 '육합주'야. 그렇게 잘 말해.) 30 // 아덜은 ᄯᅳ시 어두와 강 인칙 올 땐 와근에 허곡, 경 아녀근에 일요일 날은 오민 아방은 빈 상자 시꺼 오곡 아덜은 ᄯᅳ시 강 데미곡.(아들은 다시 어두워서 갔다가 일찍 올 땐 와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요일 날은 오면 '아방'은 빈 상자 실어 오고 아들은 다시 가서 쌓고.) 32 [구억, 남원, 노형, 덕수, 동광, 수망, 토평]

아시궤: 표선면 성읍1리 지경에 있는 자연 동굴의 하나이다. // 어디? 요디 아시궤엔 헌 디가 잇어. 요디.(어디? 요기 '아시궤'라고 한 데가 있어. 요기.) 14 [성읍]

아시날: 표준어 전날, 어제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아시날 ᄌᆞ냑 이제 돗 잡으민은.('아시날' 저녁 이제 돼지 잡으면은.) 16 [하원]

아울라: '아울러', '마저'의 의미이다. // 공깃돌 올령 네 개 영 심엉 그 공기돌 그거ᄁᆞ지 이젠 또 심엉인에 탁 올령 손등뗑이에 멧 개 올라가민 거 털어지지 안헤영 먹으민 멧 개썩 먹는 거. 그런 거 아울라 다 그래.(공깃돌 올려서 네 개 이렇게 잡아서 그 공깃돌 그거까지 이젠 또 잡아서 탁 올려서 손등에 몇 개 올라가면 그거 떨어지지 않아서 먹으면 몇 개씩 먹는 거. 그런 거 '아울라' 다 그래.) 33 [인성]

아울아울: 목화 등의 틈이 저절로 벌어지는 모양을 표현하는 말이다. // 갈앙 그거 ᄆᆞᆫ 헤가민 ᄋᆞ물 ᄋᆞᆯ아가민 거 세 번, 세 번이라. 아울아울 캐가민 소게가 바글바글바글 캐여와.(갈아서 그거 모두 해 가면 열매 열어 가면 거 세 번, 세 번이야. '아울아울' 터가면 솜이 '바글바글바글' 터와.) 13 [삼달]

아웨기소리: 김매는 소리의 한 가지이다. // 저 아웨기소리가 잇고 홍에기소리가 잇고.(저 '아웨기소리'가 있고 '홍에기소리'가 있고.) 14 [성읍]

아이롱: 일본어 'アイロン'으로 다리미를 말한다. // 아이롱은 중간에 우리 헐 때사 아이롱

이 나낫주게. 숫불 살롸 ᄌᆞ룩 심엉 쒜. 경허영 헷주.('아이롱'은 중간에 우리 할 때야 '아이롱'이 났었지. 숯불 살라서 자루 잡고 쇠. 그래서 했지.) 26 [신창]

아지: 일본어 'あじ'로 전갱이를 말한다. // 아지엔 허는 디 잇고 전갱이엔 허는 디 잇고. 거 지역마다 ᄯᅳ납디다.('아지'라고 하는 데 있고 전갱이라고 하는 데 있고. 거 지역마다 다릅디다.) 29 [외도]

아지바님: 여자가 자기 언니의 남편이나 동기 이외의 손위의 남자, 또는 남편의 형을 부르는 말이다. // 아지바님은 일 아니 헤낫수게예?('아지바님'은 일 아니 했었지요?) 14 [성읍]

아지방: 여자가 자기 아우의 남편이나 동기 이외의 손아래 남자, 또는 남편의 아우를 부르는 말이다. // 아지방은 남자난 아니만 헤나ᄀᆞ렌 헴젠 헷주. 남자도 헷주.('아지방'은 남자니까 안 했었다고만 하고 있다고 했지. 남자도 했지.) 14 [성읍]

아흔아홉골: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 골머리 헌 디 알아, 골머리. 아흔아홉골.('골머리' 하는 데 알아, '골머리'. '아흔아홉골'.) 30 [노형]

악살: 성내어서 소리를 지르며 야단하는 일을 말한다. // 그 전에 저 그 검사허는 사름이 셔신디 막 죽어지켄 악살을 허고 막 들럭퀸 셍이라.(그 전에 저 그 검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죽겠다고 '악살'을 하고 아주 날뛴 모양이야.) 29 [외도]

안가름: 한 마을 내에서 안쪽에 위치한 동네이다. // 그 할망이 경 모시물, 서촌 할망이난에, 그 할망 잘 들인덴 허멍, 우리 빌어단 안가름 할망 허는 집이, 우린 어린 때고 경 그것이 쉽게 허는 거 아닌 생입디다, 이젠 보난.(그 할머니가 그렇게 '모시물', '서촌' 할머니니까, 그 할머니 잘 들인다고 하면서, 우리 빌어다가 '안가름' 할머니 하는 집에, 우린 어릴 때고 그렇게 그것이 쉽게 하는 거 아닌 모양입디다, 이젠 보니까.) 28 [구엄]

안골: 구좌읍 송당리의 마을 이름 중 하나이다. // 그 다음에는 안골에 들어오면은 안트레 들어가면은 웃송당 안골.(그 다음에는 '안골'에 들어오면은 안으로 들어가면 '웃송당' '안골'.) 03 [송당]

안네: 고방에 모시는 칠성신으로 '안칠성', 또는 '고팡할망'이라고도 한다. 이 신들을 위한 제는 풍농과 고방 안의 곡식을 잘 지켜 부를 이루게 해달라는 의미이다. 명절이나 제사 때 주부가 메·채소 등을 차린 제물을 안칠성의 거처인 고방의 쌀독 뚜껑 위에 차려 놓는다. // 겨난 그디는 고팡을 차지헌덴 허여 가지고 고팡에도 올리곡 허단 이젠 구들에 그냥 올려. 구들에 안네엔 허여 가지고.(그러니까 거기는 고방을 차지한다고 해 가지고 고방에도 올리고 하다가 이젠 구들에 그냥 올려. 구들에 '안네'라고 해 가지고.) 02 // 엣날 콩 보리덜 막 헐 땐 안네엔 헤영 저레 ᄆᆞᆫ 용시도 고팡에 강 데미곡 허난 안네 찍시로.(옛날 콩 보리들 막 할 땐 '안네'라고 해서 저리 모두 농사도 고방에 가서 쌓고 하니까 '안네' 몫으로.) 11 // 그거 그 칠성이엔 허는 거 그 베끗듸 ᄂᆞ람지 그자 주지 더끈 사름은 그 안네 헤놩 그 숭늉 헤당 그디 강 비우주게.(그거 그 칠성이라고 하는 거 그 바깥에 이엉

그저 주저리 덮은 사람은 그 '안네' 해놔서 그 숭늉 해다가 거기 가서 비우지.) 13 // 이따근에 어떵허당 그런 거 이상헌 집이 위허는 것이 잇어. 경허민 앙팡에 가근에 밥 거려놓는 사름은 거려놔. 안네, 안네 허멍 밥을 거려놓고.(이따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거 이상한 집에 위하는 것이 있어. 그러면 고방에 가서 밥 떠 놓는 사람은 떠 놔. '안네', '안네' 하면서 밥을 떠 놓고.) 25 [삼달, 선흘, 태흥, 하원, 함덕]

안네밧: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지명이다. // 경 ᄒᆞ난 그 지역에 신 그 거기 살젠 ᄒᆞ난 사름 살암직 ᄒᆞᆫ 딘 요영 ᄒᆞ여근에 안네 들어가민 안네밧디 가민 동녁 구석에 가근에 막살이 짓언.(그렇게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거기 살려고 하니까 사람 살 것 같은 데는 요렇게 해서 안에 들어가면 '안네밧'에 가면 동쪽 구석에 가서 오막살이 지었어.) 17 [대평]

안덕천: 안덕면 감산리에 있는 안덕 계곡을 말한다. // 이 안덕도, 안덕 이제 지서영 멘사무소. 감산이 안덕천에 멘사무소 지선 저펜이 잇고 잇어낫수다.(이 '안덕'도, '안덕' 이제 지서하고 면사무소. 감산리 '안덕천'에 면사무소 지서는 저편에 있고 있었습니다.) 17 [대평]

안돌: 제주시 노형동의 지경 이름이다. // 생각남저. 우리 샛어머니 고장ᄆᆞ를이, 안돌이 잣벽 아니가게. 이제 ○○네 허는 디.(생각난다. 우리 둘째어머니 '고장ᄆᆞ를'이, '안돌'이 '잣벽' 아니니. 이제 ○○네 하는 데.) 30 [노형]

안돌오름: 구좌읍 송당리의 오름 이름이다. // 안돌오름이렌 또 이수다양. 야, 그게 올호래기 ᄒᆞᆫ 오름인디.('안돌오름'이라고 또 있습니다. 야, 그게 '올호래기' 한 '오름'인데.) 03 [송당]

안목: 말을 이용하여 밭을 밟을 때, 밭머리를 돌 때의 안쪽을 가리키는 말이다. // 안목은 이 저 사람이 그 선 상 ᄆᆞᆯ 이끈 사름 산 쪽이 안목이우다.('안목'은 이 저 사람이 그 선 서서 말 이끈 사람 선 쪽이 '안목'입니다.) 14 [성읍]

안목: 표준어 아랫목에 해당하는 말이다. '안자리'라고도 한다. // ᄯᅳᆺᄯᅳᆺ헌 디레 앚이렌 말로 안목이주게.(따뜻한 데에 앉으라는 말로 '안목'이지.) 14 [성읍]

안방: 광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옛날엔 안방이엔 허주게. ᄊᆞᆯ 놓고 곡식 놓는 디가.(옛날에 '안방'이라고 하지. 쌀 놓고 곡식 놓는 데가.) 18 [신도]

안병대: 제주시 도련동 지명의 하나이다. // 수진무 벼슬까지 헤엿고. 이제 다시 또 거기에 다시 안병대[안뼝대]. 지금으로 말허면 소연병장, 작은 병뒤 훈련 가르치던 곳. 또 그 밑으로 오면은 베리왓이 잇는데.('수진무' 벼슬까지 했었고. 이제 다시 또 거기에 다시 '안병대'. 지금으로 말하면 소연병장, 작은 '병뒤' 훈련 가르치던 곳. 또 그 밑으로 오면 '베리왓'이 있는데.) 01 [도련]

안뿔여: 조천읍 신촌리에 있는 '여' 이름이다. // 밧조각여. 그 다음은 안뿔여.('밧조각여'. 그 다음은 '안뿔여'.) 21 [신촌]

안안섭: 안섶의 안쪽 부분을 말한다. // 이거 이게 안으로 영 헤연 허난 안안섭.(이거 이게

안으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안안섭'.) 29 [외도]

안여: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여' 이름이다. // 낙지도 잡아낫주만은, 안여 가근에.(낙지도 잡았었지만, '안여' 가서.) 06 // 메역 헐 적에는 안여 메역이라고 허면은 육지 가서도 알아줬지.(미역 할 적에는 '안여' 미역이라고 하면 육지 가서도 알아줬지.) 06 [남원]

안자름: 표선면 가시리의 자연 마을 가운데 하나를 말한다. // 가시리 안자름 그 사름덜이 장날 그거 숫 그거 놓는 그것도 그 무신 조찍.('가시리' '안자름' 그 사람들이 장날 그거 숯 그거 놓는 그것도 그 무슨 조짚.) 05 [표선]

안자리: 표준어 '아랫목'에 해당하는 말이다. '안목'이라고도 한다. // 게여낫자 무신 아랫목이여 윗목이여 안 헤보고. 이딘 안자리, 밧자리.(그랬어도 무슨 아랫목이다 윗목이다 안 해보고. 여기 '안자리', '밧자리'.) 14 [성읍]

안조각여: 조천읍 신촌리에 있는 여 이름이다. // 바당 일름이야, 그거. 안조각여, 밧조각여. 거 바당 일름이야. 일름. 그거, 거기는 이제 해녀가 들어갈 수 잇고이. 그 나머진 너무 수심 짚어 가지고 못 들어가.(바다 이름이야, 그거. '안조각여', '밧조각여'. 거 바다 이름이야. 이름. 그거, 거기는 이제 해녀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머진 너무 수심 깊어 가지고 못 들어가.) 21 [신촌]

안좌리: 표선면 세화리와 가시리에 경계에 있는 자연 마을 이름이다. '안좌동'이라고도 한다. // 안좌리, 가시리 우예.('안좌리', '가시리' 위에.) 24 // 동중면부터 ᄒᆞ민은 젤 먼저 사람 살기 시작ᄒᆞᆫ 듸가 성읍리도 아니고 안좌리라마씀.('동중면'부터 하면 젤 먼저 사람 살기 시작한 데가 '성읍리'도 아니고 '안좌리'입니다.) 24 [세화, 표선]

안칠성: 고방에 모시는 여자 귀신으로 뱀의 화신으로 재물을 관장한다고 한다. 고방의 쌀독 위에 무명 일곱 자를 접어서 폐백으로 놓는다. // 것은 안칠성, 밧칠성. 칠성이엔. 안네는 안칠성이엔. 우리 우리 친정에는 밖에도 칠성이 잇고 안네도 그 저 헤근에 요만은헌 차롱에 ᄆᆞᆫ딱 거 헤 놓은 거 골고로 앗당은에.(것은 '안칠성', '밧칠성'. '칠성'이라고. '안네'는 '안칠성'이라고. 우리 우리 친정에는 밖에도 '칠성'이 있고 안에도 그 저 해서 요만한 채롱에 모두 거 해 놓은 거 골고루 가져다가.) 05 // 밧칠성은 몰르고 그디 안칠성에 밥 거려놓는 건이 멩질 때고 식게 때고 안네 거는 거려놔이.('밧칠성'은 모르고 거기 '안칠성'에 밥 떠 놓는 건 명절 때고 제사 때고 '안네' 것은 떠 놔.) 11 // 안칠성은 있는 집이는 허고 엇는 집인 안 허고. 거 매 집이 허는 거 아니.('안칠성'은 있는 집은 하고 없는 집은 안 하고. 거 매 집에 하는 거 아니.) 20 // 제서 때는 그기 뭐 칠성이라고 헤서, 그 안칠성이라고 헤서 그 저 뭐 뭐 밥ᄒᆞ고 뭐 고기 그런 거 헤근에 고팡에 차반지에 아지당 놧다근에 기냥 앗아 불곡 ᄒᆞ는 거.(제사 때는 거기 뭐 '칠성'이라고 해서, 그 '안칠성'이라고 해서 그 저 뭐 뭐 밥하고 뭐 고기 그런 거 해서 고방에 '차반지'에 가져다 놓았다가 그냥 치워 버리고 하는 거.) 24 [고내, 구억, 남원,

대평, 성읍, 세화, 송당, 수망, 표선, 한동, 함덕]

안카름: 한 마을에서 안쪽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많이 형성되니까에, 요 안카름, 안카름이라고 헤서 요 웃동네가 잇엇고, 서카름이라고 헤서 두 개 마을로 헤서 형성이 시작헤십주.(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많이 형성되니까 에, 요 '안카름', '안카름'이라고 해서 요 윗동네가 있었고, '서카름'이라고 해서 두 개 마을로 해서 형성이 시작했습지요.) 05 [표선]

안커리: 표준어 '안채'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안커리, 밧커리, 모커리옌.('안커리', '밧커리', '모커리'라고.) 16 // 제일 큰 집이지, 안커리. 그다음 밖거리라고 허는 건 안커리에 반대편에 바로 조그만허게 잇인 게 밖거리 그다음에 이문간.(제일 큰 집이지, '안커리'. 그다음 '밖거리'라고 하는 건 '안커리'에 반대편에 바로 조그맣게 있는 게 '밖거리' 그다음에 '이문간'.) 27 [옹포, 하원]

안택: 집안에 탈이 없도록 무당을 불러 집을 지켜 주는 신들을 위로하는 일이다. // 그것이 그거주, 안택. 이제 우리가 해마다 정성 드리는 거.(그것이 그거지, 안택. 이제 우리가 해마다 정성 드리는 거.) 02 // 칠성이민 안네허는 거 안택이엔 허는 걸 거여.('칠성'이면 '안네'하는 거 '안택'이라고 하는 걸 거야.) 13 [보목, 삼달]

안튀: 안채가 앉은 자리에서 뒤쪽에 있는 뜰이나 작은 터알을 말하며, '안뒤'라고도 한다. // 이젠 이디 엇인디 엿날에 보민 저 영 뒤예 이 뒤ᄀᆞ라 안튀옌 ᄒᆞ주.(이젠 여기 없는데 옛날에 보면 저 이렇게 뒤에 이 뒤보고 '안튀'라고 하지.) 15 // 안튀옌 헌 건 집 두에를 말하는 거.('안튀'라고 한 건 집 뒤를 말하는 거.) 15 // 이놈의 새끼 어디 가시녠 허멍 ᄯᆞᆯ안티 헤영 들어오는 거를 나 ᄯᅮ리카 부덴 정제 안튀 무뚱디레 ᄃᆞᆯ아낫어양.(이놈의 새끼 어디 갔느냐고 하면서 딸한테 해서 들어오는 거를 나 때릴까 봐 부엌 '안튀' '무뚱'으로 달아났어요.) 23 [수망, 온평]

안팟거리: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안채와 바깥채를 말한다. // ᄒᆞᆫ 거리 안팟거리믄 ᄒᆞᆫ 거리는 씨어머니네 살고, ᄒᆞᆫ 거리는 우리 살고 겡 헷어.(한 채 '안팟거리'면 한 채는 시어머니네 살고, 한 채는 우리 살고 그렇게 했어.) 15 // ᄉᆞ 간 집은 고부장네 집이라고 막 부제집 안팟거리 헌 디.(사 칸 집은 고부장네 집이라고 아주 부잣집 '안팟거리' 하는 데.) 20 // 안팟거리 허난, 그땐 이 초가집만 면헤져시민 좋겠다 허연 그자 대략헤연 엿날 집으로 허연 지엉 여태꺼지 살아왓수다게.('안팟거리' 하니까, 그땐 이 초가집만 면해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저 대략해서 옛날 집으로 해서 지어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20 // 살단 어떵 어떵 허멍 이젠 돈 ᄒᆞᆫ 푼씩 모연에 이거 안팟거릴 짓엇주.(살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이젠 돈 한 푼씩 모여서 이거 '안팟거리'를 지었지.) 31 [고내, 수망, 토평]

안팟그레: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안채와 바깥채를 말한다. '안팟거리'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 안팟그레 집이 우리 동생이 지은 집인데.('안팟그레' 집이 우리 동생이 지은 집인데.) 15 [수망]

안할망: 표선면 성읍1리의 '안할망당'에 좌정해 있다는 신의 이름이다. // 안할망이 원래

옛날 할망인디 성격이 상당히 좋아낫젠 헙디다.(‘안할망’이 원래 옛날 ‘할망’인데 성격이 상당히 좋았었다고 합디다.) 14 [성읍]

알: 곡식 등의 알곡을 말한다. // 그 여름 농사는 이제 그 조나 요런 거를 불리기 떼문에 이제 그, 알이 땅이 든든허게 그 말로도 불리곡.(그 여름 농사는 이제 그 조나 요런 거를 밟기 때문에 이제 그, ‘알’이 땅이 든든하게 그 말로도 밟고.) 04 [고성]

알: 초가지붕을 일 때 비바람에 삭아 축 늘어진 처마 끝을 바로잡아 주려고 우겨 넣는 띠나 억새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옛날은 그 알이라는 거 엇엇주게.(옛날은 그 ‘알’이라는 거 없었지.) 09 [고산]

알: 표준어 아래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여기에서는 옷자락 끝의 가장자리를 안으로 접어 붙이거나 감친 부분인 ‘단’의 의미로 쓰였다. // 그거 바지난에게 그거 알게.(그거 바지니까 그거 ‘알’.) 23 [온평]

알가름: 한 마을에서 아래쪽 지역을 말한다. // 동카름, 서카름. 뚜시 웃가름, 알가름 영 헤영 잇어낫는데 그런 방에덜이 다 잇어낫어마씨.(‘동카름’, ‘서카름’. 또 ‘웃가름’, ‘알가름’ 이렇게 해서 있었었는데 그런 방아들이 다 있었었어요.) 29 [외도]

알가지: 친족의 근본에서 작은아들로 갈라져 나온 갈래를 말한다. // 아까축으로 알가지라고 알가진 춤, 족은아들부터 종손 집까지 모여서, 마지막엔 종손 집이서.(아까처럼 ‘알가지’라고 ‘알가지’는 참, 작은아들부터 종손 집까지 모여서, 마지막엔 종손 집에서.) 07 [보목]

알녁거리: 여러 채로 이루어진 집에서 본채의 아래편에 위치한 집이다. // 알녁거리, 우녁거리 그런 식으로.(‘알녁거리’, ‘우녁거리’ 그런 식으로.) 34 [구억]

알당: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당 이름이다. // 일뤠 으드레에 가곡게. 유월 나민이 유월 초으드레 초일뤠 경헨 알당에 가고.(이레 여드레에 가고. 유월 되면 유월 초여드레 초이레 그렇게 ‘알당’에 가고.) 31 [토평]

알대: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성안칩, 성내칩, 모커리 이제 경, 이제 알대 그 멧 부락이여게.(‘성안칩’, ‘성내칩’, ‘모커리’ 이제 그렇게, 이제 ‘알대’ 그 몇 부락이야.) 31 [토평]

알데기: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토평서 잘난 사름 아이고, 도의원 알데기옌 헌 디서 재산이 문 망헤 벳주게.(‘토평’에서 잘난 사람 아이고, 도의원 ‘알데기’라고 하는 데서 재산이 모두 망해 버렸지.) 31 [토평]

알동네: 마을 중심에서 아래쪽에 위치한 마을을 말한다. // 이 하르방은 저 알동네 학교 저 끗듸고, 우린 요 중간에 살안.(이 할아버지는 저 ‘알동네’ 학교 곁이고, 우린 요 중간에 살았어.) 02 // 우린 집이 그 가시리에서 알동네라양.(우린 집이 그 가시리에서 ‘알동네’예요.) 24 [선흘, 세화]

알동네: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알동네 사름도 보민 기자 헌 거카 부

덴. 허민 멕이 이만썩 질어. 세 망, 두 망, 네 망 지민 이만썩 허는 거라.('알동네' 사람도 보면 그저 한 걸까 봐. 하면 멱이 이만큼씩 길어. 세 망, 두 망, 네 망 지면 이만큼씩 하는 거야.) 31 // 동창인디 이 알동네 아이 ᄀᆞ튼 동창인디 어떵헨에 이 동창 각시가 야개ᄃᆞᆯ아졍 죽어 불언게.(동창인데 이 '알동네' 아이 같은 동창인데 어떡해서 이 동창 각시가 목매서 죽어 버렸어.) 31 [토평]

알드르: '알(아래)'과 '드르(들)'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말로 대정읍의 한 지명이다. 일제시대 비행장으로 쓰던 군사시설이 있었던 곳이다. // 경 허난 이젠 그디 이젠 알드르 밧 삿주게. 큰 밧 산에 알드르 구뎅이 간 묻언. 들이쳐 불어서이.(그러니까 이젠 거기 이젠 '알드르' 밭 샀지. 큰 밭 사서 '알드르' 구덩이 가서 묻었어. 들이뜨려 버렸어.) 33 // 엿날에 저 알드르 뜬땅에 그것 가민 바구리로 하나썩 헤영 오라 낫저. 경 허민 짐치 헤여.(옛날에 저 '알드르' '뜬땅'에 그것 가면 바구니로 하나씩 해서 왔었어. 그러면 김치 해.) 33 [인성]

알드르: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아이가 넉나 벳주게. 경허난에 나 넉들여 줫주, 심방 헨에. 넉들여 줘낫저. 경헨 푸다시 이 알드르로 강 푸다시헤낫저.(아이가 '넉나' 버렸지. 그러니까 내가 '넉들여' 줬지, 무당 해서. '넉들여' 줬었어. 그래서 푸닥거리 이 '알드르'로 가서 푸닥거리했었어.) 31 // 알드르 강 알당에 가사게. 일뤠, ᄋᆞ드렌 알당에 가고.('알드르' 가고 '알당'에 가야. 이레, 여드레는 '알당'에 가고.) 31 [토평]

알드르: '알(아래)'과 '드르(들)'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말로 해변 또는 해안가 가까이에 있는 지역을 일컫는다. // 막 멜 들어왓저, 잡암저 헤도 알드르 사름덜이 그건 허는 거주.(마구 멸치 들어왔다 잡고 있다 해도 '알드르' 사람들이 그건 하는 거지.) 01 // 우리 ᄆᆞᆯ 질루단 저 이렌 밧 엇이 옛날, 저 알드르엔 밧 갊도 헷주게.(우리 말 기르다가 저 이리로는 밭 없이 옛날, 저 '알드르'엔 밭 갈기도 했지.) 34 // 이런 알드르 같은 딘 헤신디 웃드른이 불태완 다 헤부난게.(이런 '알드르' 같은 데는 했는데 '웃드르'는 불태워서 다 해버리니까요.) 34 [구억, 도련]

알드릇구릉: 제주시 노형동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게난 이디 온 때, 드릇구릉이엔 헌 딘 야네 옛날 동네라. 이디 시집 동네. 겐디 그디 알드릇구릉이 ᄆᆞᆯᄀᆞ레에 메영 놔두ᄀᆞ렌. 왕 ᄀᆞ난 원 좋덴 헤근에게.(그러니까 여기 올 때, '드릇구릉'이라고 하는 데는 얘네 옛날 동네야. 여기 시집 동네. 그런데 거기 '알드릇구릉'이 연자매에 매서 놔뒀다고. 와서 말하니까 원 좋다고 해서.) 30 [노형]

알랑알랑허다: 표준어의 야들야들하다 혹은 부들부들하다에 해당하는 말로 투명하며 얇고 부드럽다라는 의미이다. // 앙살기는 막 그거는 여물도 알랑알랑허영 맛잇곡.('앙살기'는 막 그거는 여물도 '알랑알랑허영' 맛있고.) 23 // 나 솔성에 막 헤영 곱고 알랑알랑헤엿주게.(내 '솔성'에 막 하얘 곱고 '알랑알랑헤엿주게'.) 24 [세화, 온평]

알렉밧: 현재의 위치보다 아래쪽에 있는 밭을 가리키는 말이다. // 경 허영 헌 디게, ᄌᆞ끗

듸 간 검질메연에 헨 완 집의 강 밥 먹주긴 허연 바로 알력밧, 알력밧 영. 알력밧 무신 산 쓴 밧은 산앚인밧.(그렇게 해서 한 데. 곁에 가서 김매서 해서 와서 집에 가서 밥 먹자 해서 바로 '알력밧', '알력밧' 이렇게. '알력밧' 무슨 묘 쓴 밭은 '산앚인밧'.) 29 [외도]

알바르: 성산읍 온평리 바다 이름의 하나이다. 마을 아래쪽에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 저 알바르 허민 알바르 ᄒᆞᆫ 개금이.(저 '알바르' 하면 '알바르' 한 '개금이'.) 23 [온평]

알벵일: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이다. // 아멩헤도 웃벵일은 족으난 ᄒᆞ나다이. 알벵일은 두 개.(아무래도 '웃벵일'은 작으니까 하나네. '알벵일'은 두 개.) 30 // 그 ᄆᆞᆯ방에는 그 동네에 이거 벵일동산이민 요거는 웃벵일이고이, 웃벵일이고 요레 가민 알벵일이가 잇어.(그 연자매는 그 동네에 이거 '벵일동산'이면 요거는 '웃벵일'이고, '웃벵일'이고 요리 가면 '알벵일'이 있어.) 30 [노형]

알부락: 아랫마을을 가리키는 말이다. // 하르방 혼자만 여기 허연에 헌디, 이 어디 알부락으로 갓다고 허는데, 경 헤 가지고 여기에 그 저 이 당을 돗당, 돗당 허곡 하르방당이엔 헌다, 이런 말이 잇는데.('하르방' 혼자만 여기 해서 하는데, 이 어디 '알부락'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그 저 이 당을 '돗당', '돗당' 하고 '하르방당'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29 [외도]

알산전: 아래를 의미하는 '알'과 들판을 의미하는 '산전'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 옛날은 이디도 알산전도 불 부쪙 소 키우고.(옛날은 여기도 '알산전'도 불 붙여서 소 키우고.) 02 // 이제 소덜도 경 난장에 놩 아이 질루고 허난. 옛날은 이디도 알산전도 불 부쪙 쉐 키우고 또로 저디 가민 웃산전이엔 헹 그디도 방에 부쪙 소 키우고 경헷주.(이제 소들도 그렇게 '난장'에 놓고 안 기르고 하니까. 옛날은 여기도 '알산전'도 불 붙여서 소 키우고 또 저기 가면 '웃산전'이라고 해서 거기도 방화 붙여서 소 키우고 그렇게 했지.) 02 [선흘]

알삼달리: 성산읍 삼달리 마을 이름으로 아래쪽에 있는 삼달리라는 뜻이다. 지금의 삼달2리를 말한다. // 삼달린디 웃동넨 저 시방은 일리, 이리 헤도 웃삼달리, 알삼달리.('삼달리'인데 윗동네 저 시방은 일리, 이리 해도 '웃삼달리', '알삼달리'.) 13 [삼달]

알손당: 구좌읍 송당리 마을 이름이다. // 게서 알손당, 셋순당, 웃순당 해서 옛날부터 기본적인 부락은 이섯수다.(그래서 '알손당', '셋순당', '웃순당' 해서 옛날부터 기본적인 부락은 있었습니다.) 03 [송당]

알숭물: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지명이다. // 알숭물은 마을 포제 지내는 딘디 거기도 암석으로 뒌 지반 우에 높은 쪼금 동산 잇는디 그런 디 허고.('알숭물'은 마을 포제 지내는 곳인데 거기도 암석으로 된 지반 위에 높은 쪼금 동산 있는데 그런 데 하고.) 32 [덕수]

알씨: 농사를 지을 때 밭 갈기 전에 뿌리는 씨를 말한다. 반대로 밭을 간 후에 뿌리는 씨는

'웃씨'라고 한다. // 산듸는 알씨, 우씰 허는디. 먼저 벤 씨를, 그 알씨주게.(밭벼는 '알씨', '우씨'를 하는데. 먼저 뿌린 씨를 그 '알씨'지.) 14 [성읍]

알오름: 대정읍 상모리 316번지에 위치한 '셋알오름'을 말한다. // 저 알오름 간에 죽여 불언. 겨난 그런 사름덜은 ᄁᆞ닥 안 ᄀᆞᆯ읍니다.(저 '알오름' 가서 죽여 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까딱 안 말합니다.) 32 [덕수]

알작지: 제주시 외도동의 바다 지경이다. 해안에 '작지' 즉 자갈이 많아 붙은 이름이다. // 알작지로 그거 ᄆᆞᆫ 메와 불엇수게. 메와져 불엇수게.('알작지'로 그거 모두 메워 버렸습니다. 메워져 버렸습니다.) 29 [외도]

알작지동산: 제주시 외도동의 동산 이름의 하나이다. // 것이 수덕동산이 바로 소레기동산 바로 알작지동산.(것이 '수덕동산'이 바로 '소레기동산' 바로 '알작지동산'.) 29 [외도]

알젱이: 제대로 크지 못하고 크기가 작거나 모양이 온전하지 못한 조를 가리킨다. '알맹이'의 의미로도 쓰인다. // 소깡 두불 멜 때 또 알젱이들을 다 소끄고 검질도 메고.(솎아서 두벌 맬 때 또 '알젱이'들을 다 솎고 김도 매고.) 12 // 이젠 각메기 ᄐᆞ로 ᄊᆞᆯ ᄐᆞ로 허영 체로 치여근에 각메긴 쉐나 ᄆᆞᆯ 멕이고 이제 그 알젱인 사름, ᄆᆞᆯ류와근에 ᄀᆞᆯ앙 ᄊᆞᆯ ᄒᆞᄊᆞᆯ썩 서끄멍 이제 ᄑᆞ레 헤다근에 버무령 먹고.(이젠 '각메기' 따로 쌀 따로 해서 체로 쳐서 '각메기'는 소나 말 먹이고 이제 그 '알젱이'는 사람, 말려서 갈아서 쌀 조금씩 섞으면서 이제 파래 해다가 버무려서 먹고.) 12 [한동]

알지방: 문 아래에 덧대어 있는 문지방을 말한다. // 입젱이라고 허는데, 입젱이 웃지방 알지방.('입젱이'라고 하는데, '입젱이', '웃지방' '알지방'.) 01 // 문 우에 또 지방이가 잇어 지방 웃지방, 알지방.(문 위에 또 지방이 있어 지방 '웃지방' '알지방'.) 16 [도련, 표선, 하원]

알친오름: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오름이다. // 대물동산이나 알친오름 순번제대로 물을 ᄯᆞᆯ우멍 하면은 ᄀᆞ문 때 물이 아니 나민 그디 가. 물을 허벅 지엉 강 얼른 질어와 불고.('대물동산'이나 '알친오름' 순번제대로 물을 따르면서 하면은 가물 때는 물이 안 나면 그곳에 가. 물을 '허벅' 지고 가서 얼른 길어와 버리고.) 03 // 물이 엇이민 우리 알친오름이나 대물동산에 물 질레 옵니다.(물이 없으면 우리 '알친오름'이나 '대물동산'에 물 길러 옵니다.) 03 [송당]

암창개: '약혼한 다음 혼례를 치르기 전에 신랑의 아버지가 돌아가거나, 혼례 당일 신랑이 먼 곳으로 나갔다가 부득이 돌아오지 못했을 때에 예정된 날에 신랑 집에서 상객들만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고 보통 혼례처럼 하객을 맞이하면서 치르는 혼례'를 의미한다. // 줴인이 그냥 ᄃᆞᆯ아당 그냥 상제 베치메든 베옷이든 그냥 입져 불믄 것이 암창개.(죄인이 그냥 데려다가 그냥 상제 베치마든 베옷이든 그냥 입혀 버리면 그것이 '암창개'.) 11 // 암창갠 새서방, 새각시 엇어근에 새서방만 가는 게 암창개.('암창개'는 새신랑, 새색시 없어서 새신랑만 가는 게 '암창

개'.) 13 // 신랑 안 강 여자만 새시방 칩이 오는 것ᄀᆞ라 암창개.(신랑 안 가서 여자만 새신랑 집에 오는 것보고 '암창개'.) 19 // 암창개. 새각시 엇이. 게난 얼마나 쏙 아플 거니? 그거 헤서. 여ᄌᆞ 엇이 구신으로 경 데려올 거.('암창개'. 새색시 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속 아플 거니? 그거 했어. 여자 없이 귀신으로 그렇게 데려 올 거.) 21 [고산, 남원, 대평, 삼달, 선흘, 세화, 수망, 신도, 신창, 신촌, 옹포, 인성, 청수, 표선, 한동, 함덕]

암첨복: '전복의 암컷'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색이 희멀건 편이며, 둥글고 넙데데한 모습이다. '암춤복', '암핏', '암퉁이'라고도 한다. // 이제 점복 하난 암첨복이옌 헌 거는 영 베짝ᄒᆞᆫ 어떤 점복은 돌로 영 납작 붙어. 게민 강 떼어 오곡.(이제 전복 하니까 '암첨복'이라고 한 거는 이렇게 '베짝ᄒᆞᆫ' 어떤 전복은 돌로 이렇게 납작 붙어. 그러면 가서 떼어 오고.) 18 // 수첨복은양 움막ᄒᆞ고 소랑, 이렇게 소랑ᄒᆞ는디 암첨복은 이렇게 넙짝.('수첨복'은요 우묵하고 길쭉, 이렇게 길쭉 하는데 '암첨복'은 이렇게 납작.) 22 // 암첨복은 베짝허여. 수첨복은 영 좀 크곡.('암첨복'은 '베짝허여'. '수첨복'은 이렇게 좀 크고.) 27 // 수첨복이 거 숫놈이지. 암첨복이 영 헤 가지고 허면은 수첨복은 이 그 알이 큰 거 닮아.('수첨복'이 거 숫놈이지. '암첨복'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수첨복'은 이 그 알이 큰 거 같아.) 27 [세화, 신도, 옹포, 우도, 표선]

압오름: 구좌읍 송당리의 오름 이름이다. // 당오름, 개발 못ᄒᆞ는 압오름 잇고.('당오름', 개발 못하는 '압오름'이 있고.) 03 [송당]

압작지: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지명이다. // 그 아이 살안 우리영 ᄀᆞ찌 곱앙 뎅기단 살아난. 이제 우리 요 압작지 오란 말젠 ᄒᆞᆯ 그.(그 아이 살아서 우리랑 같이 숨어 다니다가 살아났어. 이제 우리 요 '압작지' 와서 말째는 조금 그.) 08 [동광]

앗물: 아침에 써는 물이라는 말로 물때가 열물 전일 때 오전에 물이 써는 것을 말한다. // 물쌀 때면 앗물 싸고, 젓물 싸고이 앗물이 더 잘 싸이.(물썰 때면 '앗물' 써고, '젓물' 써고 '앗물'이 더 잘 써.) 11 // 앗물에 가면 싸는 물찌에는 물이 막 바당에 다 ᄆᆞᆯ른 것ᄀᆞ찌 허민 그런 걸 잘헤저.('앗물'에 가면 써는 물때는 물이 막 바다에 다 마른 것처럼 하면 그런 걸 잘 할 수 있어.) 11 [함덕]

앗사리: 일본어 'あっさり'에서 온 말로, '담박하게', '산뜻하게', '시원스럽게'라는 의미이다. // 안 헤 주민 앗사리 돈에 매껑 헤 불어.(안 해 주면 '앗사리' 돈에 맡겨서 해 버려.) 06 // 혼자만 내려왓주게. 게난 총으로 앗사리 죽으민 복 존 거지.(혼자만 내려왔지. 그러니까 총으로 '앗사리' 죽으면 복 좋은 거지.) 30 [남원, 노형]

앗아내다: '물건을 손에 집어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겨 놓다'의 의미이다. // 싱겁건 거 장물 앗아내라 영 헤낫다 말입니다.(싱거우면 그 장물 '앗아내라' 이렇게 했었다 말입니다.) 03 [송당]

앗아놓다: 물건을 손으로 집어 다른 자리로 옮기다. // 망텡이에 씨 놩 뎅이멍, 둑지에 망텡이 둘러메엉 그자 손으로 뿌리는디 것도 좀 잘 뿌리지 안허믄 싹싹 앗아노믄

아이 뒈어마씨.(망태기에 씨 넣어서 다니면서, 어깨에 망태기 둘러메어서 그저 손으로 뿌리는데 것도 좀 잘 뿌리지 않으면 싹싹 '앗아노믄' 안 돼요.) 35 [대림]

앙까: '앵커볼트(anchor bolt)'로 공업 기초 볼트를 말한다. // 앙까를 요즘은 쓰는디. 그 쒜로 뒌 거 영 헤근에.('앙까'를 요즘은 쓰는데. 그 쇠로 된 거 이렇게 해서.) 04 [고성]

앙꼬: 일본어 'あん-こ'에서 온 말로 떡이나 빵의 안에 든 소를 말한다. // 물떡에 콩입 놓는 사름도 잇곡, 앙꼬를. 콩잎 순메주.('물떡'에 콩잎 넣는 사람도 있고, '앙꼬'를. 콩잎 '순메'지.) 01 // 소곱에 앙꼬 놔도 곤떡은 쉬 안 묻힌다.(속에 '앙꼬' 놔도 흰떡은 소 안 묻힌다.) 10 // 앙꼰, 앙꼰이 거시기 요새 콩 게역도 잇고 풋도 솖앙 허고. 또 기자 두불콩도 솖앙 허고 건 기자 종류대로 또 완두콩도 잇고.('앙꼬'는, '앙꼬'는 거시기 요새 콩 미숫가루도 있고 팥도 삶아서 하고. 또 그저 두불콩도 삶아서 하고 건 그저 종류대로 또 완두콩도 있고.) 31 // 송펜은 그 저 즙는 거 허난에 앙꼬 놩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만들앙 그 멩질엔 저 떡을 아니 줍니다게.(송편은 그 저 집는 거 하니까 '앙꼬' 넣고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만들어서 그 명질엔 저 떡을 아니 줍니다.) 32 [덕수, 도련, 수망, 월령, 토평, 함덕]

앙당수: 남원읍 태흥리의 바다 이름 중 하나이다. // 이디는 바당 일름 요디 여가 ᄒᆞ나 시난 앙당수.(여기는 바다 이름 요기 '여'가 하나 있으니까 '앙당수'.) 25 [태흥]

앙살기: 성산읍 온평리에서 돌기가 잘 달려 있는 성숙한 소라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지역에 따라서 '쌀구젱기' 등으로 부른다. // 앙살기는 막 그거는 여물도 알랑알랑허영 맛잇곡.('앙살기'는 아주 그거는 '여물'도 '알랑알랑허영' 맛있고.) 23 [온평]

앙에굴: 성산읍 온평리에 있는 굴 이름이다. // 신산리도 그 앙에굴이라는 그거 온평리 경계로 내창이 그게 그 물덜도 온평리 물덜도 그레 가고 저레 가고 다 밑으로만 내려완 온평린 내창이 없는디.('신산리'도 그 '앙에굴'이라는 그거 '온평리' 경계로 내가 그게 그 물들도 '온평리' 물들도 그리 가고 저리 가고 다 밑으로만 내려와서 '온평리'는 내가 없는데.) 23 [온평]

앙작ᄒᆞ다: 어린애가 엄살하며 우는 것이다. // 막 개가 울멍 막 앙작ᄒᆞ멍 막 난리가 나.(막 개가 울면서 막 '앙작ᄒᆞ멍' 막 난리가 나.) 03 [송당]

앙팡: 곡식 등을 놓아두는 광을 말한다. '고팡'이라고도 한다. // 이짝으론 부엌이라. 손 웬짝으로 영 돌아사민 우리가 영 이 짝으로는 고팡이 아니고 앙팡, 앙팡헤여.(이쪽으론 부엌이야. 손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면 우리가 이렇게 이쪽으로 고방이 아니고 '앙팡', '앙팡'해.) 25 [태흥]

앚다: 앉다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여기서 '물 앚다'는 '물이 괴다'의 의미이다. // 지겟가지에 맞게, 이디 맞게시리. 오그령 ᄆᆞᆯ롸근에 그거 대영 물 앚지 못허게 허영 그 우에 구덕 놩.(지겟가지에 맞게, 여기 맞게끔. 오그려서 말려서 그거 대서 물 '앚지' 못하게 해서 그 위에 바구니 놔서.) 20 [고내]

앚은베기: 조의 한 종류이다. // 피, 조, 궤발시리여, 앚은베기이여, 흐린조, 모인조여.(피,

조, ‘궤발시리’다, ‘앚은베기’다, 차조, 메조다.) 03 [송당]

앚은베기보리: 보리의 한 종류이다. // 여기는 피, 뭐인가 그 ᄉᆞᆯ보리, 그 앚은베기보리가 아니고 ᄉᆞᆯ보리란 헷자 그 보리가 그 앚은베기만이 못 헷주.(여기는 피, 뭐인가 그 쌀보리, 그 ‘앚은베기보리’가 아니고 쌀보리라고 해도 그 보리가 그 ‘앚은베기’만큼 못 했지.) 12 // 저기 저레는 앚은베기보리. 우리 한동은 앚은베기보리가 안 뒈여. 땅이 뜬땅이라 부니까. 화산훼토로 그냥, 한라산으로 재 불려온 땅이라 부니까.(저기 저리는 ‘앚은베기보리’. 우리 ‘한동’은 ‘앚은베기보리’가 안 돼. 땅이 ‘뜬땅’이라 버리니까. 화산회토로 그냥, 한라산으로 재 불려온 땅이여 버리니까.) 12 // 것도 멧 가지. 앚은베기보리, 낭 난 보리 그추룩 헤영.(것도 몇 가지. ‘앚은베기보리’, 줄기 난 보리 그처럼 해서.) 31 [토평, 한동]

앚은제: 성주받이를 할 때 지내는 제의 하나이다. // 앚은제엔 헌 건 삼 일 허는 것ᄀᆞ라 앚은제엔 헌다.(‘앚은제’라고 하는 건 삼 일 하는 것보고 ‘앚은제’라고 한다.) 31 [토평]

앚지다: 표준어 앉히다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솥 등을 ‘걸어놓다’에 대응하는 말로 쓰였다. // 벽 쪽, 아무 벽 쪽 아무 쪽이나 벽 쪽으로 솟을 영 앚지면은 거기서 그냥 거기서.(벽 쪽, 아무 벽 쪽 아무 쪽이나 벽 쪽으로 솥을 이렇게 ‘앚지면은’ 거기서 그냥 거기서.) 15 [수망]

앚진ᄀᆞ레: 맷돌을 가리킨다. ‘앚진+ᄀᆞ레’의 구성으로 ‘앉힌 맷돌’이라는 뜻이다. // 보리 ᄆᆞᆯ류왕 돌ᄀᆞ레에, 앚진ᄀᆞ레에 건펴 가지고 벌러사 먹을 거.(보리 말려서 ‘돌ᄀᆞ레’에, ‘앚진ᄀᆞ레’에 거피해 가지고 깨어야 먹을 거.) 12 // 보리썰에 저 거세기 ᄑᆞ레도 서껑 먹고 그 ᄀᆞ룰 영 앚진ᄀᆞ레로 영 ᄀᆞᆯ아 놩 그 ᄀᆞ룰 나오민.(보리쌀에 저 거시기 파래도 섞어서 먹고 그 가룰 이렇게 ‘앚진ᄀᆞ레’로 이렇게 갈아 놔서 그 가루 나오면.) 12 [한동]

앞내고랑: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내 이름이다. // 내는 이거 저 잇날 말로 앞내고랑이옌 ᄒᆞ는 앞내가 잇곡.(내는 이것 저 옛날 말로 ‘앞내고랑’이라고 하는 ‘앞내’가 있고.) 08 [동광]

앞동산: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이 앞동산으로 알러레 간 디여게. 젤 알동네.(이 ‘앞동산’으로 아래로 간 데야. 제일 아랫동네.) 31 [토평]

앞멍에: 앞쪽에 있는 밭머리이다. // 앞멍에랑 들어오라 뒷멍에랑 나가라 허멍.(‘앞멍에’랑 들어오라 ‘뒷멍에’랑 나가라 하면서.) 16 [하원]

앞썰보리: 보릿고개 때 식량을 마련하려고 덜 여문 햇보리를 일찍 베어다 만든 보리쌀을 말한다. ‘앞썰’이라고도 한다. // 앞썰보리 파랑헌 거 비여다근에 이젠 ᄋᆞ물 들어 가민 비여당 그 곤밥 허젠 허민 곤밥이 족아부난에.(‘앞썰보리’ 파란 거 베어다가 이젠 여물 들어 가면 베어다가 그 흰밥 하려고 하면 흰밥이 적으니까.) 12 // 앞썰보리 안 익은 거ᄀᆞ라 앞썰이엔 허는 거.(‘앞썰보리’ 안 익은 거보고 ‘앞썰’이라고 하는 거.) 12 [한동]

앞코지: 버선코를 가리키는 말이다. // 이건 보선목. 이건 앞코지.(이건 버선목. 이건 '앞코지'.) 01 [도련]

애기구덕: 아기를 누여 재울 수 있게 만든 대나무로 결은 바구니이다. 표준어 요람에 해당하는 말이다. // 애기구덕은 에 도련이 엿날 그 목사가 와도 도련 와서 애기구덕은 사 가낫젠 허여.('애기구덕'은 에 '도련'이 옛날 그 목사가 와도 '도련' 와서 '애기구덕'은 사 갔었다고 해.) 01 // 대구덕이라낫주, 애기구덕은.('대구덕'이었지. '애기구덕'은.) 03 // 헌 옷으로 그 애기구덕 눅질 때도 거. 나도 우리 집이 큰아덜 헐 때꺼진 할망네 거 니비옷덜 그런 거 다 ᄀᆞᆺ안에 저 지성기 헹 키와낫저.(헌 옷으로 그 '애기구덕' 눕힐 때도 거. 나도 우리 집의 큰아들 할 때까진 할머니네 거 누비옷들 그런 거 다 잘라서 저 기저귀 해서 키웠었어.) 26 // 아이고, 또 팔월 나민 그 ᄉᆞ못 촐 비레. 그 산에 애기구덕 지어 앚앙 산에 가고. 점심 지곡. 애기구덕 지고 에이구, 이추룩도 호강허영 사느냐?(아이고, 또 팔월 되면 그 사뭇 꼴 베러. 그 산에 '애기구덕' 지어 가지고 산에 가고. 점심 지고. '애기구덕' 지고 어이구, 이처럼도 호강해서 사냐?) 31 [노형, 도련, 송당, 신창, 토평]

애기낭귀: 서귀포시 토평동의 지경 이름이다. // 이 동네서 고사리 ᄉᆞᆯ레 하영 가 온 사름은 누게 아무도 엇일 거여. 부쪄 놩 ᄒᆞᆫ 열흘썩 그자 저 애기낭귀도 넘어강 그 고사리 강이.(이 동네에서 고사리 'ᄉᆞᆯ레' 많이 갔다 온 사람은 누구 아무도 없을 거야. 붙여 놓고 한 열흘씩 그저 저 '애기낭귀'도 넘어가서 그 고사리 가서.) 31 [토평]

애기벤돌거리: 애월읍 구엄리 '자운당' 근처에 있는 지명이다. // 겜 시난 요 자운당 애기벤돌거리랑 요렇게 길이 ᄒᆞ끔 험헌 디우다. 이젠 길 느추와부난 모르는디, 거기 비석이 셔낫수다.(그렇게 있으니까 요 '자운당' '애기벤돌거리'랑 요렇게 길이 조금 험한 데입니다. 이젠 길 넓혀 버리니까 모르는데, 거기 비석이 있었습니다.) 28 [구엄]

애기시리다: '애'와 '기시리다'의 결합형으로 살짝 그을리는 것을 말한다. // 머리창 ᄀᆞ뜬 거이 ᄆᆞᆫ 벗엉이 찝뎅이 ᄉᆞᆯ 때 강 옷덜을 영영 애기시령만 와.('머리창' 같은 거 모두 벗어서 짚동 사를 때 가서 옷들을 이렇게 이렇게 '애기시령만' 와.) 11 [함덕]

애기아방: 아기 아버지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 옛날 어른, 우리 애기아방도예, 저 멩지 바지저고리, 어머니 저 도복은 아니 헨 놔둬도 멩지 바지저고리 어멍 산 때 장게갈 때 헤 줘십디다, 게난.(옛날 어른, 우리 '애기아방'도요, 저 명주 바지저고리, 어머니 저 '도복'은 안 해서 놔둬도 명주 바지저고리 어머니 산 때 장가갈 때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34 [구억]

애기업개: 어린아이를 업어주며 돌보는 사람인 업저지를 말한다. // 대 끈어지민 그냥 아녀는 거. 겨니까 아덜 나민 좋다. 좋다. 허곡, ᄯᆞᆯ은 나민 피목ᄉᆞ 놈의 집의 가 부

니까. 애기업개로.(대 끊어지면 그냥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아들 나면 좋다. 좋다. 하고, 딸은 나면 '피목ᄉᆞ'. 놈의 집의 가부니까. '애기업개'로.) 21 [신촌]

애기죽은날물: 성산읍 온평리에 있는 물 이름의 하나이다. // 저 밑으로 가면은 애기죽은날물, 거기는 소도 멕이고 요만큼헤 가지고 사람도 먹고 거 물이 많이 없엇을 때 먹엇고.(저 밑으로 가면은 '애기죽은날물', 거기는 소도 먹이고 요만큼해 가지고 사람도 먹고 거 물이 많이 없었을 때 먹었고.) 23 [온평]

애석허다: 근심에 겨워 속이 아주 상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제주어이다. // 게고 아니 물질은 우리 못 허엿주만은 멀어도 바당에 가민 물때 뒈민 바당에도 가곡 경 허멍 헤. 이 제국 시대에는 말도 잘 허지 못허여. 너무 ᄉᆞ뭇 애석허영.(그리고 아니 물질은 우리 못 했지만 멀어도 바다에 가면 물때 되면 바다에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해. 이 제국 시대에는 말도 잘 하지 못해. 너무 사뭇 '애석허영'.) 18 [신도]

애월면: 예전의 애월읍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 해안은 뭐 우리도 서쪽에 부뜨난 우리도 애월면에 부떠야 될 건디 외도로 봉은.(해안은 뭐 우리도 서쪽에 붙으니까 우리도 '애월면'에 붙어야 될 건데 '외도'로 봐서는.) 29 // 어머니 고향은 저 애월면 금덕. 그때는 유수암이엔 헷지, 옛날에.(어머니 고향은 저 '애월면' '금덕'. 그때는 '유수암'이라고 했지, 옛날에.) 30 [노형, 외도]

애월장: 애월읍 애월리에 있는 오일장이다. 3일과 8일에 열린다. // 어떵 배추 캣당 졍, 처음엔 졍 간디 멕에, 졍 가믄 얼마 졍 가집니까? ᄑᆞᆯ앙, 그거 애월장ᄁᆞ지 졍 가 봅서.(어떻게 배추 캤다가 져서, 처음에는 지고 갔는데 멱서리에, 져서 가면 얼마 져서 가집니까? 팔아서, 그거 '애월장'까지 져서 가 보세요.) 28 // 그 배로 ᄒᆞ영 시껑 나강 어디 ᄑᆞᆯ레사 감신디 원 어디 하귀장에 가켜 애월장에 가켜 ᄒᆞ멍 장은 모르고 어디 가켄 ᄒᆞ멍, 그 테우에 다 거려 논 것덜 그레 도렝 ᄒᆞ여.(그 배로 해서 싣고 나가서 어디 팔러야 가고 있는지 원 어디 '하귀장'에 가겠다 '애월장'에 가겠다 하면서 장은 모르고 어디 가겠다고 하면서, 그 떼에 다 잡아 올려놓은 것들 그리 달라고 해.) 28 [고내, 구엄]

애틐: 버선의 뒤꿈치 위에 틱이 진 곳을 말한다. 버선에 이것이 있기에 신었을 때 쉬 벗겨지지 않는다. // 보선코, 보선코를 좋게시리 애틐이영 코 조록ᄒᆞ게 잘 내우민 쏨씨가 좋은 사름이옌 ᄒᆞ곡, 경 아녀근에 이런 저 보선코도 엇엉 어떵 멘들안 저 ᄒᆞ민 이건 잘 못ᄒᆞ는 사름. 경 ᄒᆞ난 요건 애틐, 요건 보선코.(버선코, 버선코를 좋게끔 '애틐'이랑 코 '조록ᄒᆞ게' 잘 내면 솜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그렇게 안 해서 이런 저 버선코도 없어서 어떻게 만들어서 저 하면 이건 잘 못하는 사람. 그렇게 하니까 요건 '애틐', 요건 버선코.) 08 // 애틐이 이걸 거우다. 이거 잘 들어가지 아녑니다게, 잘 안 들어가.('애틐'이 이걸 겁니다. 이거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안 들어가.) 32 [덕수, 동광]

야개동산거멀: 구좌읍 송당리의 오름 이름이다. // 말쳇뭇거멀, 야개동산거멀. 그디 분화구가 네 개로구나.('말쳇뭇거멀', '야개동산거멀'. 거기 분화구가 네 개로구나.) 03

[송당]

야겸: 음식물 같은 것을 얻어먹으려고 자꾸 배도는 것을 말한다. '야긔염'이라고도 한다. // 아까 말헌 거 전라도 사람이 왓던 미국 사름이 와도 와신가 헹 야겸을 안 헤.(아까 말한 거 전라도 사람이 왔든 미국 사람이 와도 왔는가 해서 '야겸'을 안 해.) 11 [함덕]

야속허다: 사람이 꼼꼼하고 세심한 성질이 있다는 뜻이다. // 야속헌 선생은 가민 학생덜 다 ᄒᆞᆫ 고지썩 상 ᄌᆞ근ᄌᆞ근 ᄇᆞᆯ르렌 허곡 겡 아년 선생은 마음대로 허렌 허믄 그자 ᄆᆞᆯ 돌아뎅기듯 돌아뎅기당인에.('야속헌' 선생은 가면 학생들 다 한 이랑씩 서서 차근차근 밟으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선생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그저 말 돌아다니듯 돌아다니다가.) 33 // 떡 걸엉 올라강 아이고 잘 뒈엄젠 허멍 또시 앚은 심방 북 두두는 심방들 아이고 목시가 여간 아니 ᄎᆞᆷ말로 야속헌 어른이난 아이고 집도 곱게 잘도 올라감젠 헤영 집 그 상모리 탁 올라가민 그 하르방이 이제 발리주게.(떡 걸어서 올라가서 아이고 잘 된다고 하면서 또 앉은 무당 북 두드리는 무당들 아이고 목수가 여간 아니 참말로 '야속한' 어른이니까 아이고 집도 곱게 잘도 올라간다고 해서 집 그 용마루 탁 올라가면 그 할아버지 이제 바루지.) 33 [인성]

야우: 목장에서 일 년 내내 기르는 말을 말한다. // 야우는 목장에 놔근에, 겨울, 여름이고 그자 목장에 놩 키우는 거주.('야우'는 목장에 놔서, 겨울, 여름이고 그저 목장에 놔서 키우는 거지.) 34 [구억]

야윗돗: 배의 앞부분인 이물 쪽에 단 작은 돛을 말한다. // 앞의 거 족은 거ᄀᆞ란 야윗돗.(앞에 거 작은 거보고는 '야윗돗'.) 23 [온평]

약궤: 좁쌀가루나 밀가루 따위로 네모지게 만들어서 구멍 다섯을 내고 기름에 지지거나 삶아낸 떡을 말한다. '악궤', '얍게', '약궤'라고도 한다. 표준어의 약과에 대응하는 말이지만 재료나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 // 옛날은 시리떡ᄒᆞ곡, 중궤, 약궤ᄒᆞ곡, 솔벤, 젤벤ᄒᆞ곡 우선 올라가는 거는 그 떡 종류는 그거고.(옛날은 시루떡하고, '중궤', '약궤'하고, '솔벤', 절편하고 우선 올라가는 거는 그 떡 종류는 그거고.) 08 // 또 약궨 영 헨 네귀방장허영 고망 네 밧디 ᄠᆞᆯ랑 영 헨 영 헨 요 중궤나 약궤나 지름에 튀겨.(또 '약궤'는 이렇게 해서 네모반듯해서 구멍 네 군데 뚫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 '중궤'나 '약궤'나 기름에 튀겨.) 31 // 중게는 영 소랑헌 떡. 약궤는 넓은 떡. 솔벤은 또시 반ᄃᆞᆯ. 또시 동그락헌 떡은 절벤.('중게'는 이렇게 기름한 떡. '약궤'는 넓은 떡. '솔벤'은 또 반달. 또 동그란 떡은 절편.) 33 // 요즘은 허젠 허민양 중궤, 약궤 잘 아녕 절변, 솔변, 저 ᄃᆞᆯ반착떡허고, 곤떡 두 개 부찌는 거.(요즘은 하려고 하면요 '중궤', '약궤' 잘 안 해서 절편, '솔변', 저 'ᄃᆞᆯ반착떡'하고, 흰떡 두 개 붙이는 거.) 34 [구억, 대평, 동광, 삼달, 수망, 인성, 토평, 하원]

약도리: 사냥꾼이 잡은 것들을 넣고 매고 다니는 가방이다. 노를 꼬아 짜서 만든다. // 게

난 포수허곡. 포수헹 꿩 하나 맞추왕 약도리에 둘러 메곡. 총도 낭으로 있당. 목총이주. 멘들앙.(그러니까 포수하고. 포수해서 꿩 하나 맞춰서 '약도리'에 둘러메고. 총도 나무로 있다가. 목총이지. 만들어서.) 03 [송당]

약ᄒᆞᆯ레기: 약을 달고 사는 사람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 아이고, 이젠 늙은 생각으루 늙어가난 이거주. ᄒᆞ난 거주. 막 지금 기가 멕히게 을큰헤도 약ᄒᆞᆯ레기는 안 헹 살안.(아이고, 이젠 늙은 생각으로 늙어가니까 이거지. 했던 거지. 막 지금 기가 막히게 서운해도 '약ᄒᆞᆯ레기'는 안 해서 살았어.) 15 [수망]

양: 말을 시작할 때나 상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감탄사로, '여보세요, 이봐요' 따위의 의미로 쓰였다. // 양, 경 헨 보난예, 우리 ○○○ ᄯᆞᆯ 메누리로 와 벼십디게게.('양', 그렇게 해서 보니까요, 우리 ○○○ 딸 며느리로 와 버렸습디다.) 23 // 양, 왁웩이가 뭐꽈 허민 안개비가 왁웩이지. 안개 팍허게 지는 게 왁웩이라.('양', '왁웩이'가 뭡니까 하면 안개비가 '왁웩이'지. 안개 팍하게 끼는 게 '왁웩이'야.) 25 [온평, 태흥]

양님: 정해진 양보다 생각해서 조금 더 주는 것을 말한다. // 그 이거 검사하는 사름ᄀᆞ라 아이고 나가 이거 나 혼자 살멍 밤인 기계도 엇언 밤이 기계로 빌언 썰곡 허난에 나 혼자 ᄉᆞ뭇 기가 막히게 헌 거난 양님 멧 개 줍센 헷주게.(그 이거 검사하는 사람보고 아이고 내가 이거 나 혼자 살면서 밤엔 기계도 없어서 밤에 기계로 빌려서 썰고 하니까 나 혼자 사뭇 기가 막히게 한 거니까 '양님' 몇 개 주라고 했지.) 33 [인성]

양ᄂᆞᆯ베기: 여기서는 톱 종류 중에서 양쪽으로 날이 있는 톱을 말한다. '양ᄂᆞᆯ'은 양날, '-베기'는 '무엇이 박혀 있는 사람이나 짐승 또는 물건'이라는 뜻을 더하는 표준어의 접미사 -박이에 해당한다. // 또 또 목수들 쓰는 거, 이 문 짤 때 쓰는 건 양ᄂᆞᆯ베기.(또 또 목수들 쓰는 거, 이 문 짤 때 쓰는 건 '양ᄂᆞᆯ베기'.) 06 [남원]

양방통: 우도면 천진리에 있는 곳이다. // 저기 중앙더레 올라가는 딘 거긴 양방통이고.(저기 중앙으로 올라가는 데는 거긴 '양방통'이고.) 22 [우도]

양병방통: 우도면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 저 우리 중앙에 가민 소방서 옆에 가면은 그 흑이 그 양병방통, 그 위엔 헌데 거기는 그 흑이 찰집니다.(저 우리 중앙에 가면 소방서 옆에 가면은 그 흙이 그 '양병방통', 그 위엔 '헌데' 거기는 그 흑이 찰집니다.) 22 [우도]

양에: 표준어 양하를 가리키는 제주어이다. 여기서는 '양엣간', '양엣근'을 의미한다. '양엣간'은 양하의 땅속줄기에서 솟아나는 죽순 비슷한 꽃이삭을 가리킨다. // 양에는 ᄉᆞᆲ앙 무쳐먹고 그냥 헷주 지 안 ᄃᆞᆷ아.('양에'는 삶아서 무쳐먹고 그냥 했지 장아찌 안 담가.) 15 [수망]

양에근지이: 양하의 땅속줄기에서 솟아나는 죽순 비슷한 꽃이삭으로 담근 장아찌이다. // 장아찌는양, 반치지이, ᄂᆞᆷ삐지이, 마농지이, ᄯᅳ로 콥대사니지이, 양에근지이, 네 가지 거뿐.(장아찌는요, '반치지이', 무장아찌, 마늘장아찌, 따로 '콥대사니지이',

‘양에근지이’, 네 가지 거뿐.) 17 [대평]

양엣간: 양하의 땅속줄기에서 솟아나는 죽순 비슷한 꽃이삭을 말한다. ‘양엣근’, ‘양헷근’이라고도 한다. // 양웨 헤영근엥에 이제 헷당 먹곡 다시 그 저 양엣간엔 헤영근엥에 그 저 꼿 올라오는 거.(‘양웨’ 해서 이제 했다가 먹고 다시 그 저 ‘양엣간’이라고 해서 그 저 꽃 올라오는 거.) 01 // 양엣간도 지 만들지 안허영, 제사 때에나 허주.(‘양엣간’도 장아찌 만들지 않아서, 제사 때에나 하지.) 35 // 칠월. 그게 제라허게 완전 맛잇어. 양엣간이.(칠월. 그게 온전히 완전 맛있어. ‘양엣간’이.) 36 [도련, 대림, 봉성]

양엣근: 양하의 땅속줄기에서 솟아나는 죽순 비슷한 꽃이삭을 말한다. ‘양엣간’, ‘양헷근’이라고도 한다. // 양엣근 그거 하면은 그거 헤근에 헤영 멩질 때 그거 헤영 채소도 만들엉.(‘양엣근’ 그거 하면 그거 해서 명절 때 그거 해서 채소도 만들어서.) 05 // 양에지도, 양에지도양, 양엣근 영 ᄒᆞ여근에 ᄆᆞ딱 ᄒᆞ여다근에 다듬아.(‘양에지’도, ‘양에지’도요, ‘양엣근’ 이렇게 해서 모두 해다가 다듬어.) 08 // 양엣근 헤근에 장에 것도 그추룩 버물여. 장에 놔근에 끌영 놓고, 끌영 놓고 헤근에 양엣근.(‘양엣근’ 해서 장에 것도 그처럼 버무려. 장에 넣어서 끓여서 넣고, 끓여서 넣고 해서 ‘양엣근’.) 31 // 양에 그것도양 이 우리 마늘지 담는 식으로 그거 그추룩 담안덜 먹엄수게, 양엣근.(‘양에’ 그것도요 이 우리 마늘장아찌 담그는 식으로 그거 그처럼 담가서들 먹고 있습니다, ‘양엣근’.) 34 [구억, 동광, 봉성, 성읍, 토평, 표선, 하원]

양웻간: 양하의 땅속줄기에서 솟아나는 죽순 비슷한 꽃이삭을 말한다. ‘양엣간’이라고도 한다. // 양웻간으로도 허영 담고, 무우말렝이도 담고. 지시야 뭐 못 담는 거 엇어.(‘양웻간’으로도 해서 담그고, 무말랭이도 담그고. 장아찌야 뭐 못 담그는 거 없어.) 01 [도련]

양위산: 표선면 세화1리 2241번지 일대인 ‘양호산’의 다른 이름이다. // 허씨가 저 양위산 거기에 오란에 이제 그 터 잡고 살기 시작한 것이 세화리 설촌 처음이우다.(허씨가 저 ‘양위산’ 거기에 와서 이제 그 터 잡고 살기 시작한 것이 ‘세화리’ 설촌 처음입니다.) 24 [세화]

양잠단지: 애월읍 고성리에 1960년대 후반에 조성된 마을이다. // 멩지는 이 근방이서 잘 아니 ᄒᆞ여 부니까 ᄒᆞᆫ디. 나가 쪼금 저 양잠단지 다녀서 좀 들어본 거는, 그 멩지 우선 ᄒᆞ믄, 누게 번데길 해야 ᄒᆞᆯ 거 아니우꽈?(명주는 이 근방에서 잘 안 해 버리니까 하는데. 내가 조금 저 ‘양잠단지’ 다녀서 좀 들어본 거는, 그 명주 우선 하면, 누에 번데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28 // 양잠단지 무사 멩주 만들아?(‘양잠단지’ 왜 명주 만들어?) 30 [구엄, 노형]

양중머리: 쟁깃술의 우두머리 끝에 질러 박힌 가로나무를 말한다. // 이 그 양중머리엔 헌 건 소위 핸들이라. 거 허, 허. 이 양쪽에서 손 잡앙 헤는 거.(이 그 ‘양중머리’라고 한 건 소위 핸들이야. 거 허, 허. 이 양쪽에서 손 잡아서 하는 거.) 04 // 양

중머리. 양중머리 심으라, 심으라, 심으라 헹 양중머리 심엉은에 허곡 또시.('양중머리'. '양중머리'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해서 '양중머리' 잡아서 하고 또.) 33 [고성, 인성]

양지올레: 한림읍 대림리에 있는 지명이다. // 양지올레 거기가 이 대 묘가 잇는데 글로부떠 설촌뒌 끗데, 그 사름네는 이 동네서만 그자 멧 대가 그 살앗수다.('양지올레' 거기가 이 대 묘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설촌된 끝에, 그 사람네는 이 동네서만 그저 몇 대가 그 살았습니다.) 35 [대림]

양철: 양철, 양동이의 의미로 쓰였다. // 그 물릇을. 막 ᄃᆞᆯ아 경허믄. 거 엇인 사름덜이 그거 물릇 ᄉᆞᆲ앙 먹주게. 게난 경허난 그거 이제 잇는 집이 강 물릇 ᄒᆞᆫ 양철 가졍 가민 ᄉᆞᆯ 양철 가져가고.(그 무릇을. 아주 달아 그러면. 거 없는 사람들이 그거 무릇 삶아서 먹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제 있는 집에 가서 무릇 한 '양철' 가져가면 쌀 '양철' 가져가고.) 26 [신창]

양치멩지: 명주 종류의 하나이다. // 겅 ᄒᆞ연 우리 양단이옌 ᄒᆞ연, 양치멩지옌 ᄒᆞ연 우리 전의 들어밧수다만은.(그렇게 해서 우리 양단이라고 해서, '양치멩지'라고 해서 우리 전에 들어봤습니다만.) 28 [구엄]

양태판: 양태를 결 때 쓰는 연장이다. '양태판이'라고도 한다. // 우리 탕건도 안 헌 때 할머니 허는 거 이추룩헌 구덕 닮은 거 놩 요 양태판을 영 놩 요만큼은 허게 헹 그자 잘헤여 혹혹혹혹 잘헤나는 것만 봣주.(우리 탕건도 안 한 때 할머니 하는 거 이렇게 한 바구니 같은 거 놔서 요 '양태판'을 이렇게 놔서 요만큼은 하게 해서 그저 잘해 혹혹혹혹 잘하는 것만 봤지.) 11 [함덕]

양호산: 표선면 세화1리 2241번지 일대를 말한다. 두 줄기 동산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데 지형지세가 마치 두 마리 호랑이가 결투하는 모습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삼백년 전에 요 위에 가면은 양위산이라는, 양호산이라는 데가 이수다게.(삼백년 전에 요 위에 가면 '양위산'이라는, '양호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24 [세화]

양훼끈: 양하의 땅속줄기에서 솟아나는 죽순 비슷한 꽃이삭을 말한다. // 무사 양훼끈도 지시허는 사름은 헤도 우린 그냥 ᄉᆞᆲ앙 먹주.(왜 '양훼끈'도 장아찌하는 사람은 해도 우린 그냥 삶아서 먹지.) 03 [송당]

어걸: 자궁이나 그것이 몸 밖으로 튀어나온 것을 일컫는 말이다. // 경헨 강 헤 나난 어걸 등겨, 어걸 등겻젠 허민 느넨 몰른다.(그래서 가서 하고 나니까 '어걸' '등겨', '어걸' '등겻젠' 하면 너희는 모른다.) 31 // 나 우리 큰놈 난 때에 보리씨 닷말지기 불껑을 할망 접아놓고, 그거 더끄젠 허난 놉 빌어지건 허젠 헌디, 놉 못 비난 나 진정 말이주 그것 강 더꺼낫당 어걸 등연 나 구루마레 옛날 철 구루마레 걸어오지 못헨 안아 와낫저.(나 우리 큰놈 낳을 때에 보리씨 다섯 마지기 재를 할머니 집어넣고, 그거 덮으려고 하니까 놉 빌릴 수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놉 못 빌리니까 나 진정 말이지 그것 가서 덮었다가 '어걸' '등연' 나 달구지에 옛날 철 달구지에 걸어오지 못해서 안아 왔었어.) 31 [토평]

어귀돌: 아궁이 양 쪽에 놓인 돌이다. // 우에 돌을 저 어귀돌이라든지 그 저 구들돌이라든지 그것을 어디 강 헤 오느냐 허면 저 월령 우의 정원이엔 헌 디 가서 것을 구루마 끗엉 강은에 그 저 마차라던지 헤 가지고 돌을 봉가당 바닥을 펜펜허게 놉주게.(위에 돌을 저 '어귀돌'이라든지 그 저 구들장이라든지 그것을 어디 가서 해 오느냐 하면 '월령' 위에 '정원'이라고 한 데 가서 것을 마차 끌어서 가서 그 저 마차라든지 해 가지고 돌을 주워다가 바닥을 편편하게 놓지요.) 35 [대림]

어귓담: 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올레'를 따라 어귀 두 쪽에 쌓은 담장이다. // 올레에, 올레ᄀᆞ라 어귀, 올렛어귀, 어귓담. 어귓담에 정살 놩 영 걸치주게.('올레'에, '올레' 보고 '어귀', '올렛어귀', '어귓담'. '어귓담'에 '정살' 놔서 이렇게 걸치지.) 02 // 어른동지 때는 그추룩 허영 거 죽을 먹으민 옛날 할망덜은 꼭 어귓담에 간에 죽을 쑤민 우리 먹기 전에 간에 뿌립디다.(어른동지 때는 그처럼 해서 거 죽을 먹으면 옛날 할머니들은 꼭 '어귓담'에 가서 죽을 쑤면 우리 먹기 전에 가서 뿌립디다.) 34 [구억, 선흘]

어내다: '어'는 '숨을 한 번 쉴 동안'이라는 의미로, '어내다'는 '한숨 돌릴 시간을 갖다'의 의미이다. // 몇 번 행상헤여 갓젠은 허주기게. 행상꾼덜. 어내멍 헤여 갓젠은 허여. ᄒᆞᆫ 번에 못 허난게 쉬멍.(몇 번 행상해서 갔다고는 하지. 행상꾼들. '어내멍' 해 갔다고는 해. 한 번에 못 하니까 쉬면서.) 26 [신창]

어도봉: 애월읍 봉성리 북서쪽에 있는 오름이다. 조선 때 봉수대가 있던 곳이다. '도내산', '도노미', '어도악', '어도오름'이라고 한다. // 포제단. 집도 잇곡 포제 제단도 잇고. 집도 짓곡. 이 어도봉에.('포제단'. 집도 있고 포제 제단도 있고. 집도 짓고. 이 '어도봉'에.) 36 [봉성]

어디레: 밭을 갈 때 소가 가야할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갈 때 하는 소리이다. // 이거 뗑기면서 뭐 이쪽으로 갈 거를 소가 이렇게 허민 어디레?(이거 당기면서 뭐 이쪽으로 갈 거를 소가 이렇게 하면 '어디레'?) 23 [온평]

어랑어랑: 몹시 야들야들하고 윤이 나는 모양이다. // 이월달 뒈가믄 패마농이 막 어랑어랑 막 좋읍주게.(이월 돼가면 '패마농'이 아주 '어랑어랑' 아주 좋습지요.) 34 [구억]

어랑어랑ᄒᆞ다: 나뭇잎이나 상추 따위가 야들야들하고 윤이 나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당베치 ᄂᆞᄆᆞᆯ 갈면은, 걸면은 ᄒᆞᄉᆞᆯ 어랑어랑ᄒᆞ여근에 좋곡.('당베치' 나물 갈면, 갈면 조금 '어랑어랑ᄒᆞ여근에' 좋고.) 08 // 모멀은 경 헹 내불면 어랑어랑ᄒᆞ게 ᄯᅳᆫ 풀도 아이 나곡.(메밀은 그렇게 해서 내버리면 '어랑어랑ᄒᆞ게' 다른 풀도 아니 나고.) 08 // 땅 골 없이 경 나오민 씨 잘못 뿌리민 씨 잘 뿌려주는 사람은 어랑어랑허게시리 손보기 좋게 헤영 허는 사람이 드물어.(땅 골 없이 그렇게 나오면 씨 잘못 뿌리면 씨 잘 뿌려주는 사람은 '어랑어랑허게시리' 손보기 좋게 해서 하는 사람이 드물어.) 10 // 누에가 그 저 자기가 죽게 뒈면은 그 고치를 내와 가지고 죽는 거니까 그때 뒈어가면 색깔이 막 어랑어랑헙니다.(누에가 그 저 자기가 죽게 되면은 그 고치를 나오게 해 가지고 죽는 거니까 그때 되어가면 색깔

이 막 ‘어랑어랑헙니다’.) 35 [대림, 동광, 월령]

어랑지다: 나뭇잎이나 풀잎 따위가 야들야들하고 윤이 나는 것을 말한다. // 멘에 강은에 누에씰 받아왕 누에씨 무신거 젠젠헌 좁쌀 닮은 거 이런 디 종이에 바짝 부텅 이서. 흰 종이에이. 부텅 시민 어디다 놔두민 게여미, 새까만 게여미 닮은 거 나와. 나와가민 뽕 어랑진 걸로 어랑어랑한 뽕잎을 튿앙인에 막 줌질이 썰엉은에 이젠 그 가물가물 대가리 그 동그락 동그락 헌 것이 가물가물 나와.(면에 가서 누에씨를 받아와서 누에씨 무엇 자잘한 좁쌀 같은 거 이런 데 종이에 바싹 붙어 있어. 흰 종이에. 붙어 있으면 어디다 놔두면 개미, 새까만 개미 같은 거 나와. 나와 가면 뽕 ‘어랑진’ 걸로 ‘어랑어랑한’ 뽕잎을 뜯어서 아주 자잘하게 썰어서 이젠 그 가물가물 대가리 그 동그랗고 동그란 것이 가물가물 나와.) 33 [인성]

어러러러: 목장에서 말 부르는 소리이다. // 어러러러 허민 다 알아.(‘어러러러’ 하면 다 알아.) 34 [구억]

어레: 울퉁불퉁한 돌밭을 말한다. // 이제는 막 질도 좋앗는디 그때는 그냥 어레라 만딱 동산 굴렁헌 디 허민 저 꼭대기 가민 잔디밧이 펜펜허여.(이제는 막 길이 좋았는데 그때는 그냥 ‘어레’야 모두 동산 구렁진 데 하면 저 꼭대기 가면 잔디밭이 평평해.) 11 [함덕]

어렝이: 황놀래기의 제주어이다. // 조락으로 헤근엥 맥시 또 어렝이 뭐 많주게. 겨에서 낚으는 거야.(종다래끼로 해서 ‘맥시’ 또 ‘어렝이’ 뭐 많지. 가에서 낚는 거야.) 09 // 어렝이, 고생이 그런 것들이주게.(‘어렝이’, ‘고생이’ 그런 것들이지.) 09 [고산]

어려: 말을 모는 소리이다. // 어려 어여 어려 돌돌 허멍 경허연게 허멍 막 소리치멍 물 밧 불릴 때 막 소리혀.(‘어려’ ‘어여’ ‘어려’ ‘돌돌’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하면서 마구 소리치면서 말 밭 밟을 때 마구 소리해.) 24 [세화]

어려하랑: 말을 부리며 내는 소리를 말한다. // 조 갈앙 좁씨 삐영 물로 이젠 허멍 어려하랑 허멍 막 불리주기게. 사람덜마다 다.(조 갈아서 ‘좁씨’ 뿌려서 말로 이젠 하면서 ‘어려하랑’ 하면서 마구 밟지. 사람들마다 다.) 26 [신창]

어렵다: 여기서 ‘어렵다’는 가난하고 힘들다는 의미로 쓰였다. // 속 놩 범벅은 헹 먹어낫어. 엿날엔 어려우난 그거 저거 가졍.(쑥 넣어 범벅은 해 먹었었어. 옛날엔 어려우니까 그것 저것 가져서.) 15 [수망]

어렵다: 여기서는 귀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 그땐 보리쏠 흔전ᄒᆞ고 곤쏠이 어려와.(그땐 보리쌀 흔하고 흰쌀이 어려워.) 15 [수망]

어른동지: 11월 10일 전에 동지가 드는 것을 ‘아기동지’라고 하는 것에 빗대어 10일 이후에 동지가 드는 것을 어른동지라고 한다. // 아기동지엔 죽 안 쑨덴 허곡, 따시 아기동지 아니랑 어른동지엔 무신 밥, 저 죽 쑤곡 헌덴 허주, 옛날에.(아기동지에는 죽 안 쑨다고 하고, 다시 아기동지 아니라서 ‘어른동지’엔 무슨 밥, 저 죽 쑤고 한다고 하지, 옛날에.) 13 [삼달]

어리손질허다: '어리-'는 일부 동물 명사나 식물 명사 앞에 붙어, '모자라는', '덜 갖추어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손질' 앞에 붙어서 대충 손질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실 내민 일곱새미녕이라고 ᄌᆞᆷ지롱허고, 그자 어리손질형 에이 휘딱휘딱 넘어가주 허는 사람은 실도 홁게 내여이.(실 내면 '일곱새미녕'이라고 자잘하고, 그저 '어리손질형' 에이 후딱후딱 넘어가지 하는 사람은 실도 굵게 내.) 25 [태흥]

어리역 떠리역: '어리어려' 말 모는 소리를 대신해서 전체를 가볍게 표현한 듯하다. // 그게 ᄆᆞᆯ 헤근에 ᄇᆞᆯ리젠 허민 소리치멍 막 ᄇᆞᆯ려, 어리역 떠리역 허게시리 경헷주게.(그게 말 해서 밟으려 하면 소리치면서 막 밟아, '어리역 떠리역' 하게끔 그렇게 했지.) 24 [세화]

어림비: 애월읍 어음2리의 옛 이름이다. // 우린 어림비라 노난 더 안 헷주. 톨밥 요새사 ᄉᆞᄆᆞᆺ 무신 건가, 젤 뭣 헌 거를 톨밥이엔 헴수게.(우린 '어림비'라 놓으니 더 안 했지. '톨밥' 요새야 사뭇 무슨 건가, 제일 뭣 한 거를 '톨밥'이라고 하고 있지요.) 36 [봉성]

어불통어불통: 밭을 갈고 나서 흙이 울퉁불퉁한 모양을 이른다. // 돌로도 못 헤여. 게난 쉐로 쉐 신 사람 쉐 하나로 ᄇᆞᆯ리민 졸바로 ᄇᆞᆯ려지지 안허주게. 게민 또 가시낭 비영 섬비 닮은 거 허영 그레 돌 놓곡 ᄇᆞᆯ려도 굴려도 ᄇᆞᆯ려지지 아니허민 어불통어불통 허민 그땐 저 섬비 쉐 조름에 그 섬비 메영근에 쉐 몰멍 고르게 뎅기민 문짝 바닥 골라지주게.(돌로도 못 해. 그러니까 소로 소 있는 사람 소 하나로 밟으면 제대로 밟지 못하지. 그러면 또 가시나무 베어서 끙게 같은 거 해서 그리 돌 놓고 밟아도 굴려도 밟아지지 않으면 '어불통 어불통' 하면 그땐 저 끙게 소 뒤에 그 끙게 매어서 소 몰면서 고르게 다니면 '문짝' 바닥 고르게 되지.) 33 [인성]

어수에허다: 일없이 어정거리는 것을 나타낸 말이다. // 나하고 이제 나가믄 본향할망한티 본향할망도 절 받젠 허믄 어수에허곡.(나하고 이제 나가면 '본향할망'한테 '본향할망'도 절 받으려고 하면 '어수에허곡'.) 10 [월령]

어승생: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어승생오름을 말한다. // 백중 물맞이 경 헤근에 일부러 물맞으레 어디고 저 어승생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막 헤낫저.(백중 물맞이 그렇게 해서 일부러 물 맞으러 어디니 저 '어승생'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마구 했었어.) 12 [한동]

어승생: 제주시 노형동 남쪽 한밝저수지 뒤에 솟은 오름이다. // 저게 어디서 한라산 어승생에서 나오는 물로 헹 명월로 헹 일로 와 가지고는 이 물로 헤서 옛날에 그 여기 대동식품 통조림 공장이라든가 얼음공장이라든가 제약회사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공장들이 여기 공업지구가 형성뒈 가지고 옛날에는 크게 이제 그 한림읍에서 그 공업지구로 발달허기로는 이 옹포가 처음이엇주게.(저게 어디서 한라산 '어승생'에서 나오는 물로 해서 '명월'로 해서 여기로 와 가지고는 이 물로 해서 옛

날에 그 여기 대동식품 통조림 공장이라든가 얼음공장이라든가 제약회사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공장들이 여기 공업지구가 형성돼 가지고 옛날에는 크게 이제 그 '한림읍'에서 그 공업지구로 발달하기로는 이 '옹포'가 처음이었지.) 27 // 어승생허고 골머리, 노형선 그디 두 밧디만 강 헤 와. 어승생도 강 헤 오고.('어승생' 하고 '골머리', '노형'에선 거기 두 군데만 가서 해 와. '어승생'도 가서 해 오고.) 30 [노형, 옹포]

어승생오름: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오름을 말한다. // 논 헤난 수로, 그 수로 따라 구짝 그것이 어떵 허냐 허믄 저 어승생오름, 거의 그꼬지 간에, 지금 ᄀᆞ뜨믄 물맹크, 그 수로를 만들어서.(논 했던 수로. 그 수로 따라 곧장 그것이 어떻게 하냐 하면 저 '어승생오름', 거의 그까지 가서, 지금 같으면 물탱크, 그 수로를 만들었어.) 28 [구엄]

어시: '도께어시'를 줄여서 쓴 말로 도리깻장부를 말한다. // 영 영 허민 이거 영 때리는 건 아덜이고 영 잡는 건 어시야.(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때리는 건 '아덜'이고 이렇게 잡는 건 '어시'야.) 30 [노형]

어야홍: 도리깨질하면서 내는 소리를 나타낸 말이다. // 어야홍 허영 도께 마당질 소리가 이서.('어야홍' 하면서 도리깨 마당질 소리가 있어.) 02 // 어야홍 헤여 그걸 두드려 가지고. 아이고, 그 꺼럭 그거 두드려서.('어야홍' 해서 그걸 두드려 가지고. 아이고, 그 꺼럭 그거 두드려서.) 06 [남원, 선흘]

어야홍어야홍: 도리깨로 곡식을 때리는 마당질을 할 때 부르는 노동요의 한 소절이다. // 어야홍어야홍허멍 새 맞촤근에 두드려.('어야홍어야홍'하면서 사이 맞춰서 두드려.) 13 // 새 비엉 께 털민 콩낭 이만썩 헤영 무껑 이제 쉐에 시꺼당 집이 놔근에 도께로 ᄯᅳ려. 어야홍어야홍 ᄯᅳ령 우이 다 ᄯᅳ려진 거 털어진 거 닮으민 또 마당에 논 거 뒈싸.(띠 베어서 매끼 틀면 콩대 이만큼씩 해서 묶어서 이제 소에 실어다가 집에 놔서 도리깨로 때려. '어야홍어야홍' 때려서 위에 다 때린 거 떨어진 것 같으면 또 마당에 놓은 거 뒤집어.) 33 [삼달, 인성]

어어야 호오옹: 도리깨로 곡식을 때리는 마당질을 할 때 부르는 노동요의 한 소절이다. // 모멀 때리멍 ᄒᆞ는 노래가 잇서. 마당질 ᄒᆞ는 노래가 어어야 호오옹 ᄒᆞ는 그런 노래.(메밀 때리면서 하는 노래가 있어. 마당질 하는 노래가 '어어야 호오옹' 하는 그런 노래.) 08 [동광]

어어어: 목장에서 말 부르는 소리이다. // ᄆᆞᆯ더레 어어어 허게 뒈민 다 알앙 다 나와.(말에게 '어어어' 하게 되면 다 알아서 다 나와.) 34 [구억]

어엄: 망사리에 그물을 끼워 고정시키기 위해 나무나 대로 만든 둥근 테두리를 말한다. '어음'이라고도 한다. // 경헌디이, 어엄 큰 거 허영 이처록 허영 이문간이나 어디나 영 ᄃᆞᆯ아메 뒀당 멜 들엇저 허민 ᄉᆞ못 다덜 강 좀팍으로 거리곡이 허영 멜 빌레도 가고 엿날. 이젠 빌레 아이 가느녜게.(그런데, '어엄' 큰 거 해서 이처럼 해서 '이문간'이나 어디나 이렇게 달아매 뒀다가 멸치 들었어 하면 사뭇 다들 가서 '좀

팍'으로 뜨고 해서 멸치 빌리러도 가고 옛날. 이젠 빌리러 안 가지.) 26 [신창]

어울: 호박이나 물외 따위의 속에 씨를 품고 있는 부분을 말한다. // 어울덜이 우터레 ᄆᆞᆫ 뜨면은, 그걸 이제 어울덜에 영 ᄒᆞ여근에 ᄒᆞ민 씨는 굽에 ᄀᆞᆯ라앚곡 ᄒᆞ면은 물 놔근에, 그걸 곱닥ᄒᆞ게시리 싯어.('어울'들이 위로 모두 뜨면, 그걸 이제 '어울'들에 이렇게 해서 하면 씨는 밑에 가라앉고 하면은 물 넣어서, 그걸 곱게끔 씻어.) 08 [동광]

어울리다: 한 번 꼰 줄 두 개를 다시 엮어 꼬는 것을 말한다. // 줄 어울릴, 것ᄀᆞ라 어울린덴 허는 건디.(줄 '어울릴', 것보고 '어울린덴' 하는 건데.) 12 // 그 어울릴 적에는 너이가 그 뒤치기에 뒤에서 막 돌려 줘야 뒈는 거.(그 '어울릴' 적에는 넷이 그 '뒤치기'에 뒤에서 마구 돌려 줘야 되는 거.) 12 [한동]

어음: 나무 등을 휘어서 둥그렇게 만들어 그물을 끼워 고정시키는 둥근 테두리를 말한다. // 게난 그것에 이젠 알러렌 그물 ᄃᆞᆯ아메민 망시리, 그것에 ᄃᆞᆯ아멘 건 테왁, 어음 ᄃᆞᆯ아맨 거 나 물 헤영 헤어사 거 끗엉 뎅기멍 지펑도 뎅기고 그레 뭣 헤당 담앙 올라오곡 허는 거여.(그러니까 그것에 이젠 아래라고 그물 달아매면 망사리, 그것에 달아맨 건 '테왁', '어음' 달아맨 거 나 물 해서 해야 거 끌고 다니면서 짚어서도 다니고 그리로 무엇 해다가 담아서 올라오고 하는 거야.) 10 // 풍선게. 사둘로 이만헌 거 허영 사둘질 허는 것도 다 봉 자리 사레 가주게. 둥글랑헌 어음 허영 거려 놓고 허는 거 이 ᄀᆞ에서도 엿날 봐지고 헤낫주게.(풍선. 사둘로 이만한 거 해서 사둘질 하는 것도 다 봐서 자리돔 사러 가지. 둥그런 '어음' 해서 떠서 놓고 하는 거 이 가에서도 옛날 볼 수 있고 했었지.) 26 [신창, 월령]

어음비리: 애월읍 어음2리이다. '어른비', '어음리', '어린비', '어린빌레' 등이라고도 한다. // 저 어른비, 어른비가 어음비리라. 어음비리 보고 어음리, 어음리.(저 '어른비', '어른비'가 '어음비리'야. '어음비리' 보고 '어음리', '어음리'.) 36 [봉성]

어젱이: 밭 등의 가장자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에젱이'라고도 한다. // 엿날은 밧 어젱이 돌빌레도 다, ᄒᆞᆫ 밧이라도 다 돌르멍. 이제 그것도 이전 못 헤서.(옛날은 밭 '어젱이' '돌빌레'도 다, 한 밭이라도 다 도르면서. 이제 그것도 이전 못 했어.) 26 [신창]

어지렁ᄒᆞ다: '어지럽다, 하찮다'라는 뜻이다. // 기자 어지렁헌 궂인 거나 허여.(그저 '어지렁헌' 궂은 거나 해.) 06 // 어지렁ᄒᆞᆫ 지름는지레기덜 그 닥닥 ᄆᆞᆺ아근에, 그 반죽ᄒᆞ는 더레 다 그 마농이영, 패마농이영, 하간 거 ᄆᆞᆫ딱 모아놔근에.('어지렁ᄒᆞᆫ' '지름는지레기'들 그 닥닥 무수어서, 그 반죽하는 데로 다 그 마늘이랑, '패마농'이랑, 온갖 거 모두 모아 넣어서.) 08 [남원, 동광]

어지리다: 특별한 목적이 없이 참가하거나 그리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이리 저리 벌려놓다는 뜻의 제주어이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음식에 조금씩 들어간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옛날에는 기자 헤당 ᄉᆞᆲ앙도 먹고 두리치기 어떵헹 어지령 설러불엇주.(옛날에는 그냥 해다가 삶아서도 먹고 '두리치기' 어떻게 해서 '어지령' 그만두

었지.) 11 [함덕]

어질어질허다: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서 드문드문 보이는 것을 나타낸 말이다. // 밥 ᄒᆞᆫ 사발은 그대로 막 젓어 불지 안허면 거령 어른 나시 놓고 또 ᄒᆞᆯ 어질어질헌 건 보리쏠에 서꺼 불고.(밥 한 사발은 그대로 막 저어 버리지 않으면 떠서 어른 몫 놓고 또 조금 '어질어질헌' 건 보리쌀에 섞어 버리고.) 06 [남원]

언감: 귀신이 식사를 하는 일이다. // 저 구신이 언감 ᄒᆞ지 안 ᄒᆞᆫ덴, 그건 비늘 엇인 거. (저 귀신이 '언감' 하지 안 한다고, 그건 비늘 없는 거.) 08 [동광]

언물: 찬물을 말한다. // 언물. 찬물이옌 헤여? 언물이옌 허주.('언물'. 찬물이라고 해요? '언물'이라고 하지.) 03 [송당]

언주다: 흩어져 있는 것을 '그러모으다'의 의미이다. // 비여 놩 밧디서 ᄐᆞᆯ아. 널어, 널어진 양 ᄐᆞᆯ아. 건 언주지 안허영, 무끄지 안허영.(베어 놔서 밭에서 뜯어. 널어, 넌 양 뜯어. 건 '언주지' 않고, 묶지 않고.) 20 [고내]

얼덜덜: 올이 굵어서 성긴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저 그거 닷새미녕은 막 얼덜덜 이만이 막 홁고 ᄋᆞᆺ 새는 보통.(저 그거 '닷새미녕'은 아주 '얼덜덜' 이만큼 아주 굵고 엿 새는 보통.) 06 [남원]

얼랑얼랑: 몹시 야들야들하고 윤이 나는 모양을 말한다. '어랑어랑'이라고도 한다. // 그 부스럼이 ᄉᆞ뭇 얼랑얼랑 건들지 못헤 가민 그 영 허영 막 고름에 누르뜨는 거라. 막 누르뜨민.(그 부스럼이 사뭇 '얼랑얼랑' 건들지 못해 가면 그 이렇게 해서 막 고름에 누르는 거야. 막 누르면.) 18 [신도]

얼랑얼랑: 안경 등에 이물질이 끼어 선명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낸다. // 간 때도 속이나, 쑥 잇잖아, 쑥. 그거 감앙 ᄒᆞᆯ 캐영 가야 물 들어갈 때 영 다까야 눈이 얼랑얼랑 안 허주.(갔을 때도 쑥이나, 쑥 있잖아, 쑥. 그거 감아서 조금 캐서 가야 물 들어갈 때 이렇게 닦아야 눈이 '얼랑얼랑' 안 하지.) 31 [토평]

얼랑얼랑허다: 몹시 야들야들하고 윤이 나는 모양이다. // 그 누에가 막 먹으민 실ᄒᆞ민 얼랑얼랑ᄒᆞᆫ 건 쉬우멍 영 ᄒᆞ민 누에도 씰이 나와마씀.(그 누에가 막 먹으면 실하면 '얼랑얼랑ᄒᆞᆫ' 건 쉬면서 이렇게 하면 누에도 실이 나와요.) 08 // 당배치엔 헌 건 배추가 속은 안 앚아도 배치가 헤영허여이. 헤영허고 얼랑얼랑허고.('당배치'라고 한 건 배추가 속은 안 앉아도 배추가 하얘. 하얗고 '얼랑얼랑허고'.) 25 // ᄒᆞ끔 익은 건 비린내 나고, ᄒᆞ끔 얼랑얼랑헌 건 맛 좋고.(조금 익은 건 비린내 나고, 조금 '얼랑얼랑헌' 건 맛 좋고. 34 [구억, 동광, 태흥]

얼랑얼랑얼랑허다: 몹시 야들야들하고 윤이 나는 모양을 강조하여 말하는 것이다. // 그거 올르기 뒈민양, 얼랑얼랑얼랑허여마씸게.(그거 오르게 되면요, '얼랑얼랑얼랑'해요.) 32 [덕수]

얼레기: 무명 짤 때 실을 감는 도구인 바디의 모양이 머리빗처럼 생긴 것을 빗대어 사용한 말이다. // 이레 듸물앙 착 ᄒᆞ영 ᄒᆞ믄, 또 뭣이엔 이거 얼레기 닮은 걸로 탁 땡기곡, 또 이레 얼레기 디물앙 탁ᄒᆞ곡. 경 ᄒᆞ영 ᄒᆞᆫ 올 ᄒᆞᆫ 올 짭주게. 경 ᄒᆞ영 또

ᄒᆞᆫ 마.(이리 들이밀어서 착 해서 하면, 또 뭐라고 이거 '얼레기' 같은 걸로 탁 당기고, 또 이리 '얼레기' 들이밀어서 탁하고. 그렇게 해서 한 올 한 올 짜지요. 그렇게 해서 또 한 마.) 28 [구엄]

얼르다: 어지럽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것을 말한다. // 모멀 종류 떡 ᄒᆞᆯ 때는예, 골ᄀᆞ루 얼르지 말렌 ᄒᆞᆸ니다, 골.(메밀 종류 떡 할 때는요, 엿기름가루 '얼르지' 말라고 합니다, 엿기름.) 08 [동광]

얼멩이: 쳇불의 구멍이 가장 큰 채인 어레미를 이르는 말이다. 얼멩이는 쳇바퀴가 없이 대오리로 비스듬히 정사각형이 되게 둘레를 만든다. 메밀이나 콩 따위를 탈곡하고 난 후에 처음으로 그 뉘를 쳐내버릴 때 쓰인다. // 얼멩이보단 더 홁은 거기 때문에 능구려근에 ᄒᆞᆫ 쪽으로 밀어 넝.('얼멩이'보다는 더 굵은 것이기 때문에 '능구려근에' 한 쪽으로 밀어 넣어.) 03 // 얼멩이, 더 홁은 거. 얼멩이는 홁은 거, 치는 거고 대체는 그 다음.('얼멩이', 더 굵은 거. '얼멩이'는 굵은 거, 치는 거고 '대체'는 그 다음.) 21 [송당, 신촌]

얼벵이지다: 나무들이 우거져 엉켜 있는 것을 말한다. // 경헨 그걸 이제 그 나무 바깟디 톡 바꼇디 막 나와. 나왕 내창은 이만큼 큰 내창, 막 이렇게 얼벵이지민 그거 정은 못 내려와.(그래서 그걸 이제 그 나무 밖에 톡 밖에 마구 나와. 나와서 내는 이만큼 큰 내, 마구 이렇게 '얼벵이지민' 그거 져서 못 내려와.) 30 [노형]

얼터거리: 깃이 빠져 버린 늙은 꿩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얼터귀', '얼털이'라고도 한다. // 게난 꿩도 그 얼터거리 무신 꿩이렌, 어린 꿩은.(그러니까 꿩도 그 '얼터거리' 무슨 꿩이라고, 어린 꿩은.) 29 [외도]

엄불리다: 말을 분간하여 똑똑히 하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 허여나고렌 ᄉᆞ못 ᄀᆞᆯ아라게. 게 일본 말 ᄒᆞ꼼 엄불리난게 ᄎᆞᆺ아왓주게.(했었다고 사뭇 말하더라. 그래 일본 말 조금 '엄불리난게' 찾아왔지.) 26 [신창]

엄장이: 애월읍 구엄리, 중엄리, 신엄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게믄 그 옛날 어느 그 목사가 넘어가다가 아 여기구나 엄장이라고 해서 너무 좋다. 바당 완 보고 ᄒᆞ연 그 목사가 ᄒᆞ기를 아 일로 여기를 면을 헤시믄 좋겟다 헤 가지고 거 사또가 이제 그런 유래로 헨 돌아봐 가지고 여기를 엄장면이렌 헤낫수다.(그러면 그 옛날 어느 그 목사가 지나가다가 아 여기구나 '엄장이'라고 해서 너무 좋다. 바다 와서 보고 해서 그 목사가 하기를 아 일로 여기를 면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거 사또가 이제 그런 유래로 해서 돌아봐 가지고 여기를 '엄장면'이라고 했었습니다.) 28 [구엄]

엄쟁이: 애월읍 구엄, 중엄, 신엄리를 일컫는다. // 엄쟁이도 셔, 신엄도 셔나고. 애월, 주로 애월장에 뎅겻주게, 고낸.('엄쟁이'도 있어, 신엄도 있었고. 애월, 주로 '애월장'에 다녔었지, '고내'는.) 20 // 걸언 ᄯᅳ시 엄쟁이ᄁᆞ지 오고.(걸어서 다시 '엄쟁이'까지 오고.) 28 [고내, 구엄]

엄지ᄒᆞ다: 한 그릇에 두 가지 채소를 같이 놓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세 가지 올리

민 상에 착글름으로 세 가지 넘으게 올리지 안허민 그 민나리 ᄀᆞ뜬 건 엄지헤영 올리주.(세 가지 올리면 상에 '착글름'으로 세 가지 넘게 올리지 않으면 그 미나리 같은 건 '엄지헤영' 올리지.) 13 // 호박도 헤도 그 묵더레 헹 엄지허주, 거ᄐᆞ로 올리진 안 허여.(호박도 해도 그 묵에 해서 '엄지허주', 그거 따로 올리지는 않아.) 13 [삼달]

엉: 낭떠러지 비슷이 된 암석(岩石)을 말한다. // 거기로 이런 ᄋᆞ추룩 영 헨 이추룩 헌 담이나 요만이 헌 엉 잇인 딘 요레 벵ᄒᆞ게 돌아허근넹이 불 ᄉᆞᆷ앙 추곡게.(거기로 이런 이처럼 이렇게 해서 이처럼 한 담이나 요만큼 한 '엉' 있는 데는 요리로 '벵ᄒᆞ게' 돌아서 불 때서 쬐고.) 04 // 우리 마을 돌아가면서 그 아주 그 큰 나무 잇고 엉, 엉덕 잇곡 헌 데는 거의 다 흉물 없는 디가 없어.(우리 마을 돌아가면서 그 아주 그 큰 나무 있고 '엉', '엉덕' 있고 한 데는 거의 다 흉물 없는 데가 없어.) 32 [고성, 덕수]

엉게뿔: 소의 뿔이 앞으로 오그라진 것을 말한다. '엥게뿔'이라고도 한다. // 앞더레 영 오그라진 건 엉게뿔이.(앞으로 이렇게 오그라진 건 '엉게뿔'.) 29 [외도]

엉근탕건: '성긴 탕건'의 뜻으로 줄 수가 90개, 둘레 수가 55개 정도의 탕건을 말한다. // 엉근탕건, 엉근탕건.('엉근탕건', '엉근탕건'.) 11 [함덕]

엉글엉글: 성긴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 낭으로 ᄆᆞᆫ 엉글엉글허게 이상케 헹 ᄆᆞᆫ 칙이라도 걷어당이 이 나무를 털어지지 못허게 막 얽어.(나무로 모두 '엉글엉글허게' 이상하게 해서 모두 칡이라도 걷어다가 이 나무를 떨어지지 못하게 막 얽어.) 11 // 담이 엉글엉글 귀나곡 무시거 허곡 헌 거 그자 툭툭툭 앗앙 다와. 밧담 답듯.(담이 '엉글엉글' 모나고 무엇 하고 한 거 그저 툭툭툭 가져다 쌓아. 밭담 쌓듯.) 25 [태흥, 함덕]

엉덕: 큰 바위로 이루어진 언덕을 말한다. // 엉장이라고 허는 큰 바위. 엉장이라고 해서 엉덕입주게.('엉장'이라고 하는 큰 바위. '엉장'이라고 해서 '엉덕'입니다.) 03 // 우리 마을 돌아가면서 그 아주 그 큰 나무 잇고 엉, 엉덕 잇곡 헌 데는 거의 다 흉물 없는 디가 없어.(우리 마을 돌아가면서 그 아주 그 큰 나무 있고 '엉', '엉덕' 있고 한 데는 거의 다 흉물 없는 데가 없어.) 32 [덕수, 송당]

엉덕: 바닷가나 바다 속의 큰 바위를 말한다. '덕'이라고도 한다. // 영 헤근에 가근에, 탁 허게시리 그 영 이런 엉덕에 들어가민.(이렇게 해서 가서, 탁 하게끔 그 이렇게 이런 '엉덕'에 들어가면.) 07 // 비껠 물에 들엉 숨비당 하나 영 엉덕에 눈 거 보면은 그 동네 숨비는 사름 다 오렌 불러.('비껠' 물에 들어서 '숨비당' 하나 이렇게 '엉덕'에 눈 거 보면 그 동네 '숨비는' 사람 다 오라고 불러.) 23 // 고기가 물에 물질허당 보민 엉덕에 들어강 이시민.(고기가 물에 물질하다가 보면 '엉덕'에 들어가서 있으면.) 23 // 엉덕에 영 보민 코ᄐᆞ데기 먹보말은 박아졍 잇어. 엉덕에 영 보민.('엉덕'에 이렇게 보면 눈알고둥 밤고둥은 박혀 있어. '엉덕'에 이렇게 보면.) 29 [보목, 온평, 외도]

엉막: 목장에 간이 주거 시설을 짓는 데 쓰인 물건이다. // 엉막 메어 가지고 그디 집을 짓이믄 ᄯᅳ로 집도 짓곡, 번 보는 사름은 솟도 거정 강 그레 셔둠서 ᄒᆞ루밤 자기 위헤 가지고 그디 집 짓엉 자곡, 뒷날은 ᄯᅳ로 교대허고.('엉막' 매어 가지고 거기 집을 지으면 또 집도 짓고, 번 보는 사람은 솥도 가져가서 그리 있으면서 하룻밤 자기 위해 가지고 거기 집 지어서 자고, 뒷날은 또 교대하고.) 35 [대림]

엉살엉살: 구멍이나 사이 간격이 성긴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 그것에서 영 훌트젠 헤도 그게 엉살엉살 뒈영 보리 헐 때 보리 고고리 홀타난 거난 못 허주기게.(그것에서 이렇게 훑으려고 해도 그게 '엉살엉살' 되어서 보리 할 때 보리 이삭 훑았던 거니까 못 하지.) 20 [고내]

엉상엉상허다: 매우 성긴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 모도우민 이제 모도우민 이젠 저 얼멩이엔 헌 거 잇어. 얼멩이 엉상엉상허게, 저 우리 테왁, 해녀덜 가졍 다니는 망사리 잇지 안허여, 망사리.(모으면 이제 모으면 이젠 저 '얼멩이'이라고 하는 거 있어. '얼멩이' '엉상엉상허게', 저 우리 '테왁', 해녀들 가지고 다니는 망사리 있지 않아, 망사리.) 20 [고내]

엉창물: 조천읍 신촌리의 용천수 중 하나로 지금도 남아 있다. // 가마물, 통물, ᄃᆞᆫ물, 다 메와 불엇어. 이제 가마물 ᄒᆞ나 남안 이제, 엉창물, 엉창물은 남자만 목욕허는 물, 여자 안 뎅겨.('가마물', '통물', 'ᄃᆞᆫ물', 다 메워버렸어. 이제 '가마물' 하나 남았어. 이제 '엉창물', '엉창물'은 남자만 목욕하는 물, 여자 안 다녀.) 21 [신촌]

엉퉁매: 제주시 노형동의 지경 이름이다. // 겐 잡혀근에, 잡힌 장소가 어딘고 허민 저 남조봉 그 엉퉁매 사이에 사람 사는 디가 이십디다.(그래서 잡혀서, 잡힌 장소가 어딘가 하면 저 '남조봉' 그 '엉퉁매' 사이에 사람 사는 데가 있습디다.) 30 [노형]

에리: 일본어 'えり'로 양복이나 와이셔츠 따위의 목둘레에 길게 덧붙여진 부분인 '칼라'를 말한다. // 일본 학생출룩 학교 뎅길 때게 그 에리영 싯고 학교에 갈 때 그런 거 입고 우리도 아래 검엉허게 물들영이 치메 ᄒᆞ꼼 주름 사게 허고 우인 적삼이나 입어낫주기게.(일본 학생처럼 학교 다닐 때 그 '에리'랑 있고 학교에 갈 때 그런 거 입고 우리도 아래 검게 물들여서 치마 조금 주름 서게 하고 위엔 적삼이나 입었었지.) 26 [신창]

에염: '옆', '가', '근처'를 뜻한다. 여기서는 '길가'나 '밭가'를 말한 것이다. // 어디 밧듸 강 오당 보민 엠에 거 ᄆᆞᆫ 짇고 ᄒᆞ민, 에염이 반찌룽헷주.(어디 밭에 가서 오다 보면 '엠'의 것 모두 때 버리고 하면, '에염'이 깨끗했지.) 15 [수망]

여: 바닷가 바닥이 얕거나 조수가 썰 때 나타나 보이는 돌 따위를 말한다. // ᄯᅳ로 들렁귀옌 ᄒᆞᆫ 듸 가근에 가오리도 쏘아보고, 이 기움창 안네서도 가오리, 아 고기 쏘으레 가단 ᄇᆞ레보난에, 아 모살 여옌 ᄒᆞᆫ 여 우에 거무룽ᄒᆞᆫ 것이 덕석 모냥으로 협섹이 업더진 것이 잇어.(따로 '들렁귀'라고 한 데 가서 가오리도 쏘아보고, 이 '기움창' 안에서도 가오리, 아 고기 쏘러 가다가 봐보니까, 아 모래 '여'라고 한 '여' 위에 거무스름한 것이 멍석 모양으로 '협섹이' 엎어진 것이 있어.) 17 // 경 ᄒᆞ

영 또 여 ᄒᆞ영 뎅이당 보믄 담 고냥에 보믄 구젱이도, 그맨 구젱이도 싯곡, 전복도 싯곡 헤낫수다게.(그렇게 해서 또 '여' 해서 다니다 보면 담 구멍에 보면 소라도, 그맨 소라도 있고, 전복도 있고 했었습니다.) 28 // 바당이엔 ᄒᆞᆫ 건 바르철이엔 ᄒᆞ영 전의는 배 헹 테우로 ᄒᆞ영 자리 거리레 가곡, 또 여 가까이 ᄒᆞ믄 덤장이옌 헤 가지고 그냥 영 구물 놧당 하루 지나믄 이제 걷어내믄 거기 그 장소 노는 고기덜이 거기 걸려듭주게, 경 ᄒᆞ믄.(바다라고 한 건 바다철이라고 해서 전에는 배 해서 떼로 해서 자리돔 뜨러 가고, 또 '여' 가까이 하면 덤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물 놨다가 하루 지나면 이제 걷어내면 거기 그 장소 노는 고기들이 거기 걸려들지요, 그렇게 하면.) 28 [구엄, 대평]

여께쏠: 흰쌀에 좁쌀, 메밀쌀 등을 섞은 쌀을 말한다. // 미릿 숢아 놧당도 허주게. 건 저 여께쏠이엔 헤근에 좁썰이나 곤썰이나 셔사.(미리 삶아 놨다가도 하지. 건 저 '여께쏠'이라고 해서 좁쌀이나 흰쌀이나 있어야.) 31 [토평]

여드레: '여드렛당'의 줄임말로 매달 여드레에 찾아가는 당을 말한다. // 겐디이 일뤠, 여드레 가는 할망덜은 그거 헹 가, 상웨 헹 가.(그런데 '일뤠', '여드레' 가는 할머니들은 그거 해서 가, 상화 해서 가.) 25 [태흥]

여맞은개: 성산읍 온평리의 바다 지명의 하나이다. // 사람들이 우리가 여맞은개 입찰을 헤서 바당을 사니까, 사람덜이 다 부뜨는 거라.(사람들이 우리가 '여맞은개' 입찰을 해서 바다를 사니까, 사람들이 다 붙는 거야.) 23 [온평]

여맞은개늣개통: 성산읍 온평리의 바다 지명의 하나인 '여맞은개'라는 곳에 있는 '늣개통'을 말한다. // 신동산늣개통, 여맞은개늣개통, 도에늣개통, 몰레알늦개통 다 잇주게.('신동산늣개통', '여맞은개늣개통', '도에늣개통',' 몰레알늦개통' 다 있지.) 23 [온평]

여묻은밧: 대정읍 인성리의 한 지명이다. // 그 지경마다 ᄐᆞ나. 수월이물 ᄒᆞ쏠 올라가민 다 일름덜 여묻은밧이엔 허곡.(그 지경마다 달라. '수월이물' 조금 올라가면 다 이름이 '여묻은밧'이라고 하고.) 33 [인성]

여우내: 남원읍 신흥리의 옛 이름이다. '여온내'라고도 한다. // 여우내엔 헌디 광산 김칩이 뚤입주.('여우내'라고 하는데 광산 김씨의 집의 딸입지요.) 24 // 신흥2리 저 위에. 그디가 여우내, 신흥2리가.('신흥 이리' 저 위에. 거기가 '여우내', '신흥2리'가.) 25 // 솔입 걷고 또 나무가 엇인 때난 나무 헤다근에 잇당 이 제서 때나 불 땡 헤 먹젠 허민 이디서 저 여우네 우이 ᄎᆞ남밧이엔 헌 디 잇어, ᄎᆞ남밧.(솔가리 걷고 또 나무가 없을 때니까 나무 해다가 있다가 이 제사 때나 불 때서 해 먹으려고 하면 여기서 저 '여우네' 위에 'ᄎᆞ남밧'이라고 한 데 있어, 'ᄎᆞ남밧'.) 25 [세화, 태흥]

여전: 한 밭 안에서 경작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르는 말이다. '예전이'라고도 한다. // 이제 놈의 밧 ᄒᆞ꼼 이제 뭐헌 밧 빌엉 따비로 이경 헤 먹으렌 허민. 경허곡 또 밧이 존 밧 이서도 여전덜 신 사름.(이제 남의 밭 조금 이제 뭐한 밭 빌려서 따비로

일궈서 해 먹으라고 하면. 그리고 또 밭이 좋은 밭 있어도 '여전'들 있는 사람.) 02 [선흘]

여파당: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바위가 많은 바다를 말한다. '여'와 바당'의 합성어이다. // 옛날은 배로 헤여근에 이 조천드레 어드레 헷주마는 이딘 들어온 멜 벳귄 배로 멜 거릴 디가 엇어. 이딘 ᄆᆞᆫ 여파당이라부난.(옛날은 배로 해서 이 조천으로 어디로 했지마는 여긴 들어온 멸치밖에 배로 멸치 '거릴' 데가 없어. 여긴 모두 '여파당'이라서.) 25 [태흥]

여파리겡이: 게 종류의 하나이다. // 제여. 보통 심지 못허여, 여파리겡이는. 게고 또.(재. 보통 잡지 못해, '여파리겡이'는. 그리고 또.) 31 [토평]

여피다: 띠(茅)나 짚으로 이엉 따위를 '엮다'라는 말이다. '예피다'라고도 한다. // 우리 아버지도 저 담배썹 막 여편 ᄃᆞᆯ아메난.(우리 아버지도 저 담뱃잎 마구 '여편' 달아 맸었어.) 15 [수망]

역다: 'ᄋᆞᆨ다'와 같은 말로, 말귀를 알아듣고 혼자 판단할 만큼 성장하다는 뜻이다. // 우리 역은 후젠이 경 시집살이 시켜나지 안헷저.(우리 '역은' 후엔 그렇게 시집살이 시키지 않았어.) 25 // 나 알기에는 두린 때라도 알아지난. 경헤신디 역은 후제는 많이 엇인 디난에 그대로 내 불민 그자 저기 물때 뒈 가민 헤 오곡 물때 뒈 가민 헤 오곡.(내가 알기에는 어릴 때라도 알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역은' 후에는 많이 없는 데니까 그대로 내 버리면 그저 저기 물때 돼 가면 해 오고 물때 돼 가면 해 오고.) 31 [태흥, 토평]

역지동: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지명이다. // 족은아덜 요 역지동 들어가는 듸 그듸 강 집 짓엉 살암주게.(작은아들 요 '역지동' 들어가는 데 거기 가서 집 지어 살고 있지.) 24 [세화]

연대: 제주시 외도동의 자연 마을의 하나인 '연대동'을 말한다. 예전에 '연대'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 게니까 어떤 연대로 가느냐 허는 걸 우리 조상들이 ᄀᆞ스락 옛날 그 막 유래 얼로 가는 걸 확인할라고 그레 비우니까 연대로 헤서 ᄀᆞ스락이 나왓다 이거야.(그러니까 어떻게 '연대'로 가냐 하는 걸 우리 조상들이 까끄라기 옛날 그 막 유래 어디로 가는 걸 확인하려고 그리로 부우니까 '연대'로 해서 까끄라기가 나왔다 이거야.) 29 [외도]

연대동: 제주시 외도동의 자연 마을의 하나이다. 예전에 연대가 있어서 붙은 마을 이름이다. // 연대로, 연대동 바다로 내려강.('연대'로, '연대동' 바다로 내려가서.) 29 [외도]

연듸: 제주시 외도동의 자연 마을의 하나이다. 연대가 있어서 붙은 지명이다. // 외도 사이에 연듸엔 헌 디 거디. 저 외도파출소에 심어갓주기게.(외도 사이에 '연듸'라고 하는 데 거기. 저 외도파출소에 잡아갔었어.) 20 // 내도도 하고 저 연듸엔 헌디도 한디.('내도'도 많고 저 '연듸'라고 하는 데도 많은데.) 29 [고내, 외도]

연듸동산: 제주도 해안가 언덕 위에 연대를 설치했던 동산을 말한다. // 연듸동산이주, 그

게 연듸동산. 거기 불 피와서 연기, 연기. 연뒷동산.('연듸동산'이지, 그게 '연듸동산'. 거기 불 피워서 연기, 연기. '연뒷동산'.) 12 [한동]

연디ᄆᆞ르: 연대가 있는 마루라는 의미이다.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말등포연대'가 있는 곳을 말한다. '연디ᄆᆞ루'를 '연뒷동산'이라고도 한다. '말등포연대'는 조선시대 정의현에 소속되었던 연대이다. // 저 전달헤근에 입초 상 연락 받는 디는 연디ᄆᆞ르엔 헹양 게난 연뒷동산엔 허주.(저 전달해서 입초 서서 연락 받는 데는 '연디ᄆᆞ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연뒷동산'이라고 하지.) 23 [온평]

연메다: 이어서 매다는 뜻으로 소 등을 두 마리 나란히 메거나 담뱃잎을 여러 개 이어서 매는 것을 말한다. // 조팟은 쉐 이신 사름은 쉐 이신 사름은 연메어근에 고지 잡앙 어려어려허멍 ᄇᆞᆯ려가민 좁씨 삔 거 서꺼져근에 ᄃᆞᆫᄃᆞᆫ히.(조밭은 소 있는 사람은 소 있는 사람은 '연메어근에' 이랑 잡아서 '어려어려허멍' 밟아가면 '좁씨' 뿌린 거 섞여서 단단히.) 33 // 담배 싱거근에 걸름 잘 줭 싱그민 담배 이파리가 이만썩 허여. 게민 알잎으로 ᄆᆞᆫ ᄐᆞᆫ앙 집에 오랑인에 이제 여까근에 이런 그늘진 디, 벳 난 디 안 ᄆᆞᆯ려. 그늘진 디 다 연메엉 ᄆᆞᆯ리민 발갛게 ᄆᆞᆯ라.(담배 심어서 거름 잘 줘서 심으면 담배 이파리가 이만큼씩 해. 그러면 '알잎'으로 모두 뜯어서 집에 와서 이제 엮어서 이런 그늘진 데, 볕 난 데 안 말려. 그늘진 데 다 '연메엉' 말리면 발갛게 말라.) 33 [인성]

연발: 탕건을 결을 때 쓰는 연장으로 탕건을 겯다가 잡아당기기 편하도록 탕건과 탕건골 사이에 넣은 것이다. '이연발'이라고도 한다. // 요것만 들러내어 불면은 이디가 줌진총 놓는 디 잇고 써나지 안헌 총도 놓고 그디 영 늘루는 연발이엔 허여.(요것만 들어내 버리면 여기가 '줌진총' 놓는 데 있고 쓰지 않았던 총도 놓고 거기 이렇게 늘리는 '연발'이라고 해.) 11 [함덕]

연세: 사주단자를 말한다. // 저 연세 ᄀᆞ지레 가젠 허난 그거를 벌러분 거라마씸.(저 '연세' 가지러 가려고 하니까 그거를 깨버린 겁니다.) 32 // 엿날은 딱 허게 연세 ᄀᆞ졍 가젠 허면은 그 저 무시거 그 글을 이제 어떵 저 나 연세 놓곡.(옛날은 딱 하게 '연세' 가져서 가려고 하면은 그 저 무엇 그 글을 이제 어떻게 저 내 '연세' 놓고.) 32 [덕수]

연제: 일 년에 한 번 지내는 제를 말한다. // 아방 살아 부난에 허는 말인디, 연제 들여 부난에 준 거.(아버지 살아 버리니까 하는 말인데, '연제' 들어 버리니까 준 거.) 11 [함덕]

열굿떡: 떡을 괴는 종류가 열 가지라는 의미로, 소상 등 큰 제의 때에 예의를 갖춰 올리는 떡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이다. '작굿떡'과 비슷한 말로 여러 종류의 떡을 말하는 것이며 꼭 열 개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굿'은 구덩이를 말하는데, 제보자는 떡을 한 층 한 층 쌓아올리는 것을 '굿'이라고 표현하였다. // 열굿떡에 우지지시 놩 헌 건 그 떡이 열굿에 우지지실 지경 올려사 그거라.('열굿떡'에 웃기 놔서 한 건 그 떡이 '열굿'에 웃기를 지져서 올려야 그거야.) 13 // 열굿떡에 우찍 헤난

거. 우이 올라가난 열굿떡에 우찍.('열굿떡'에 웃기 했던 거. 위에 올라가니까 '열굿떡'에 웃기.) 13 // 열굿떡에 우지시라고 이것가 젤 우의가 우지시 젤로.('열굿떡'에 웃기라고 이것이 젤 위가 웃기 젤로.) 14 // 아무것도 엇어도 열굿떡에 우지시를 헤사 뒌다.(아무것도 없어도 '열굿떡'에 웃기를 해야 된다.) 23 [삼달, 성읍, 온평]

열리: 서귀포시 예래동을 일컫는 말이다. // 저 절벤도 옛날엔 손으로, 이 창감산이 ᄒᆞ고 열리는 방엣혹에 뿟앙 저 절벤을 ᄒᆞ영, 동글동글ᄒᆞ게 ᄒᆞ영 두 개 마주 부쪄, 떡 두 개.(저 절편도 옛날에는 손으로, 이 '창감산이' 하고 '열리'는 방아확에 빻아서 저 절편을 해서, 동글동글하게 해서 두 게 마주 붙여, 떡 두 개.) 17 // 저 감산리, 열리영 저 윳덜 엄청 잘 노는 사름덜 잇어.(저 감산리, '열리'랑 저 윷들 엄청나게 잘 노는 사람들 있어.) 34 [구억, 대평]

열리왓: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한 자연 마을이다. // 열리왓. 저 지름기옌 헌 디 이수다. 그 자리왓 ᄌᆞ끗디.('열리왓'. 저 '지름기'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자리왓' 옆에.) 36 [봉성]

열안지: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열안지오름을 말한다. // 열안지 간 베려보니깐 그 일러 먹은 날이 저냑에 갓어. 쉐가.('열안지' 가서 바라보니깐 그 잃어버린 날에 저녁에 갔어. 소가.) 29 [외도]

열운이: 성산읍 온평리의 옛 지명이다. // 열운이 형성 그거는 뭐 여기 열운이가 제일 처음은 강칩, 현칩, 이제 고칩, 송칩은 뭐 뒈고, 요렇게 뒈 가지고 잇엇고.('열운이' 형성 그거는 뭐 여기 '열운이'가 제일 처음은 '강칩', '현칩', 이제 '고칩', '송칩'은 뭐 되고, 요렇게 돼 가지고 있었고.) 23 [온평]

엽겡이: 게의 한 종류를 말한다. // 겡이 종류들 돌켕이, 엽겡이, 춤게, 그거주게.(게 종류들 '돌켕이', '엽겡이', 참게, 그거지.) 07 [보목]

엿새미녕: '엿새무명'을 말한다. '닷새미녕'은 품질이 좋지 않고, '일곱새미녕'은 아주 올이 고운 무명이다. // 겐 엿새미녕이엔 허믄 이렇게 넙주기게. 것ᄀᆞ란 엿새미녕이엔 허는 거.(그래서 '엿새미녕'이라고 하면 이렇게 넓지. 것보고 '엿새미녕'이라고 하는 거.) 20 // 엿새미녕 닷새미녕 헌 건, 일곱새미녕, 거 막 줌진 건 일곱새, 잇새. 닷샌 막 훍은 거.('엿새미녕' '닷새미녕' 하는 건, '일곱새미녕', 거 아주 자잘한 건 '일곱새', 엿새. '닷새'는 아주 굵은 거.) 31 [고내, 토평]

영감당: 도깨비를 모시는 당을 말한다. 영감은 모든 도깨비를 높이 이르는 말로 쓰인다. // 멩월? 아이구 이제 넘도록 왈랑왈랑허는 영감당 아니가?(명월? 아이고 이제 넘도록 '왈랑왈랑허는' '영감당' 아니니?) 10 [월령]

영등: 음력 2월 1일에 입도하여 2월 15일에 나간다고 하는 신(神)의 이름이다. '영등할망', '영등신'이라고도 한다. 섬을 돌며, 해산물의 낡은 것은 모두 먹어 버리고 새로운 씨앗을 뿌려준다고 전해진다. // 영등도 그건 뭐 주기적으로 영등은 영등날 가근에, 바다에 가근에 그 비는 것이 영등굿이란 게 잇저.('영등'도 그건 뭐 주기적으

로 ‘영등’은 ‘영등날’ 가서, 바다에 가서 그 비는 것이 ‘영등굿’이라는 게 있어.) 12 [월령, 한동]

영등굿: 음력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바다의 신인 ‘영등할망(또는 영등하르방)’을 위하여 행하는 굿을 말한다. 해녀와 어부들은 ‘영등할망’을 해상의 안전과 풍요를 주는 신으로 인식하고 있다. // 바다 강 물질허단에 영등굿 헐 때도. 물질을 잘 못 허연. (바다 가서 물질하다가 ‘영등굿’ 할 때도. 물질을 잘 못 하니까.) 06 // 영등도 그건 뭐 주기적으로 영등은 영등날 가근에, 바다에 가근에 그 비는 것이 영등굿이란 게 잇저.(그 ‘영등’도 그건 뭐 주기적으로 ‘영등’은 ‘영등날’ 가서, 바다에 가서 그 비는 것이 ‘영등굿’이라는 게 있어.) 12 // 영등굿 잘허여. 큰심방이니까 그 사람넨이, 대 ᄂᆞ리는 심방, 겐디 그 사람네 이제 엇어부난 대 끊어져불언, 또시 ○○이옌 허는 와흘 사람, 그 사람 이제 신촌 완 집 빌엉 왕 살당 집 산 살멍 그 사름 큰 굿허고.(‘영등굿’ 잘해. ‘큰심방’이니까 그 사람네, 대 내리는 무당, 그런데 그 사람네 이제 없어버리니까 대 끊어져버렸어. 또 ○○이라고 하는 와흘 사람, 그 사람 이제 신촌 와서 집 빌려서 와서 살다가 집 사서 살면서 그 사름 큰 굿하고.) 21 // 이삼월에 헤여근엥에 영등굿 곧 넘으민 메역허젤 헙니다.(이삼월에 해서 ‘영등굿’ 곧 넘으면 ‘메역허제’를 합니다.) 23 [고성, 남원, 보목, 신촌, 온평, 한동]

영등하르방: ‘영등할망’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일컫는 말이다. // 방서라는 것은 해안도로 영등할망, 영등하르방 나가젠 허민 짚으로 배 짱양.(‘방서’라는 것은 해안도로 ‘영등할망’, ‘영등하르방’ 나가려고 하면 짚으로 배 짜서.) 03 // 저 소섬 가민 이제 영등하르방 나가젠 허민 그 질카른덴 허멍 배도 바당에 안 나가주게.(저 ‘소섬’ 가면 이제 ‘영등하르방’ 나가려고 하면 그 ‘질카른덴’ 하면서 배도 바다에 안 나가지.) 13 [삼달, 송당]

영등할망: 음력 2월 2일에 입도하여 2월 15일에 나간다고 하는 신(神)의 이름이다. ‘영등할망’, ‘영등신’이라고도 한다. 섬을 돌며, 해산물의 낡은 것은 모두 먹어 버리고 새로운 씨앗을 뿌려준다고 전해진다. // 여기 영등할망 들어온덴 헨에 어제 가지 안 헤서.(여기 ‘영등할망’ 들어온다고 해서 어제 가지 않았어.) 06 // 거 영등할망이 온다허면 오고와서, 정월 열사흘 날에 저 고향에도 다녀오고 허는데 ᄒᆞᆫ 메칠 머물다가 아마 갈 적에는 바닷가에 뭐 할머니 왓다 갓다헤서 조개껍질이 뭐 껍데기만 남아 잇는 게 흔적이 나타난다 그런 말도 잇고, 영등할망이 온다 간다 그런 말은 헤낫주.(거 ‘영등할망’이 온다 하면 오고 와서, 정월 열사흘 날에 저 고향에도 다녀오고 하는데 한 며칠 머물다가 아마 갈 적에는 바닷가에 뭐 할머니 오갔다 해서 조개껍질이 뭐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게 흔적이 나타난다는 그런 말도 있고, ‘영등할망’이 오간다는 그런 말은 했었지.) 07 // 영등할망 들어오는 날은 온갖 바다에 그 미역 씨나 전복 소라 씨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헤 가지고 영등할망 청헤 가지고 이 월 이 월 칠일 날 허면은 보름날 끝날 거라. 보름날 그걸 완료헤 가지고 왕할망 영등 할망 잘 갑서 허는 거주게.(‘영등할망’ 들어오는 날은

온갖 바다에 그 미역 씨나 전복 소라 씨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영등할망' 청해 가지고 이 월 이 월 칠일 날 하면 보름날 끝날 거야. 보름날 그걸 완료해 가지고 '왕할망' '영등할망' 잘 가십시오 하는 거지.) 09 // 경 허난, 영등할망은 바다에서 배 부리는 사름허고, 해녀덜 그거, 바다에 제 드리는 거 아니꽈?(그러니까, '영등할망'은 바다에서 배 부리는 사람하고, 해녀들 그거, 바다에 제 드리는 거 아닙니까?) 36 [고산, 남원, 보목, 봉성, 송당]

영밧: 조천읍 함덕리 지명이다. // 족은사슴은 엇어. 족은사슴이 영밧인 셍이라.('족은사슴'은 없어. '족은사슴'이 '영밧'인 모양이야.) 11 [함덕]

영빈: 빙떡을 서귀포시 색달동에서 이르는 말이다. // 영빈은 이제사 난 말이고, 옛날 우리 실 땐 빙떡, 아이고 빙 지지레 가사컬, 솟뚜껭이에.('영빈'은 이제야 난 말이고, 옛날 우리 있을 때는 빙떡, 아이고 '빙' 지지러 가야할 걸, 솥뚜껑에.) 17 [대평]

영아리오름: 남원읍 수망리 북서쪽 남조로 연변에 있는 '물영아리오름'을 말한다. // 영아리오름, 저 뭐 검은오름, 민오름, 저 넉시오름, 세기오름 다. 그 오름 꼭대기에 올라사근엥에 보니깐 횃불을 쏴근엥 영 흔드는 거라.('영아리오름', 저 뭐 '검은오름', '민오름', 저 '넉시오름', '세기오름' 다. 그 '오름' 꼭대기에 올라서서 보니깐 횃불을 붙여서 이렇게 흔드는 거야.) 15 [수망]

영장: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인 '장사(葬事)'를 말한다. // 동네별로 장사가, 이제 영장이 나도. 그 동네서 이제 ᄀᆞ찌헤서 운상. 옌날에야 그 사름 다. 다 어께로 다 메어가고 뭐허고 ᄒᆞ지 안헤사게?(동네별로 장사가, 이제 영장이 나도. 그 동네에서 이제 같이해서 운상. 옛날에야 그 사람 다. 다 어깨로 다 메어가고 뭐하고 하지 않았니?) 04 // 영장 때 떡, 마찬가지 그 떡으로 벨난 떡이 엇어.('영장' 때 떡, 마찬가지 그 떡으로 별난 떡이 없어.) 16 [고성, 하원]

영장밥: '장사(葬事)'에 짓는 밥을 말한다. 팥을 넣어 밥을 짓는다. // 잔치밥에 ᄒᆞᆯ 때 ᄑᆞᆺ밥 헷주. 집이서 가정에서 먹을 때 ᄑᆞᆺ밥 헹 먹는 디가 벨로 엇엇일 거우다. 영장밥도 ᄑᆞᆺ밥.(잔치밥에 할 때 팥밥 했지. 집에서 가정에서 먹을 때 팥밥 해서 먹는 데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영장밥'도 팥밥.) 04 [고성]

영장밧: 장사하여 시체를 묻는 땅인 장지(葬地)를 말한다. // 영장밧디. 돌레떡은, 그 다 모믈. 그 저, 다 심방안티 가는 돌레떡도 다 ᄆᆞ믈.('영장밧'에, '돌레떡'은. 그 다 메밀. 그 저, 다 무당한테 가는 '돌레떡'도 다 메밀.) 04 [고성]

영장집: 장사(葬事)를 지내는 집을 말한다. '영장칩'이라고도 한다. // 게민 제물도 영장집이서 ᄎᆞᆯ리지 아녕, 딴 듸서 ᄎᆞᆯ령.(그러면 제물도 '영장집'에서 차리지 않고, 다른 데서 차려서.) 24 [세화]

영장칩: 장사(葬事)를 지내는 집을 말한다. '영장집'이라고도 한다. // 게난 다른 사름 토신제 멧기주게. 딱 멧기민 그 사름 영장칩의 오지도 안ᄒᆞ영 그 집이서 ᄎᆞᆯ려근에, 물제 사다 줘 불민은 미릇에 사다 주나, 돈으로 ᄒᆞ켄 ᄒᆞ민 이녁냥으로 사당 ᄒᆞ렌 돈으로 줘 불어. 경 헹 비리민 안 뒈주게, 토신젠.(그러니까 다른 사람 토신제

맡기지요. 딱 맡기면 그 사람 '영장칩'에 오지도 않아서 그 집에서 차려서, 물자 사다 줘 버리면은 미리 사다 주나, 돈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녁대로 사다가 하라고 돈으로 줘 버려. 그렇게 해서 '비리민' 안 되지요, 토신제는.) 17 // 제사헐 때는 영장칩이 가지 말아사. 저 영장칩에 가지 말아야.(제사할 때는 '영장칩'에 가지 말아야. 저 '영장칩'에 가지 말아야.) 18 [대평, 신도]

영전밧: 구좌읍 송당리 지명이다. // 영전밧이라고 해서 서녁쪽에 덕천으로 들어오는 디.('영전밧'이라고 해서 서쪽에 '덕천'으로 들어오는 데.) 03 [송당]

영주산: 표선면 성읍1리에 있는 오름의 이름이다. // 동목장을 어딘고 허니까 무, 영주산.('동목장'을 어딘가 하니까 무, '영주산'.) 14 // 밧 ᄇᆞᆯ리는 소리나 허주. ᄆᆞ쉬 내모는 소리 허여. 밧 ᄇᆞᆯ리는 소리 오래곡. 저레 내미는 소리. 영주산디레 올리는 소리.(밭 밟는 소리나 하지. 마소 내모는 소리 해. 밭 밟는 소리 오래고. 저리 내모는 소리. '영주산'으로 올리는 소리.) 14 [성읍]

옆빗: 둥그런 시루떡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낼 때 가장자리 쪽의 둥근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 옆빗은 그자 먹어 불곡 쓰는 거는 ᄀᆞᆺ인 걸로 헤근에 막 어렵게 써낫수게게. 거 막 어렵게.('옆빗'은 그저 먹어 버리고 쓰는 거는 온전한 걸로 해서 아주 어렵게 썼었습니다. 거 아주 어렵게.) 14 // 옆빗은 두 빗 뒐 거주. ('옆빗'은 두 '빗' 될 거지.) 23 // 시리가 똥글락헤 부니까 옆빗 안 끊어 병은 동글락허주.(시루가 동그래 버리니까 '옆빗' 안 끊어 버려서는 동그랗지.) 23 [성읍, 온평]

옆자귀: 자귀의 일종이다. // 옆자귀도 잇어야 허곡. 클, 클 구멍 뚤를 거.('옆자귀'도 있어야 하고. 끌, 끌 구멍 뚫을 거.) 05 [표선]

예장: 혼인할 때에 신랑 집에서 예단과 함께 신부 집에 보내는 편지를 말한다. '혼서'라고도 한다. // 예장이엔 헌 게 잇엇주. 예장. 거 뭐냐면 홍세함.(예장이라고 한 것이 있었지. 예장. 거 뭐냐면 '홍세함.') 04 [고성]

예춘: 남원읍 신례1리를 말한다. // 신례리가 예춘. 게난 그 예춘 사름이난, 아이고 우리 ᄆᆞ을에 삼 년생, ᄉᆞ 년생.('신례리'가 '예춘'. 그러니까 그 '예춘' 사람이니까, 아이고 우리 마을에 삼 년생, 사 년생.) 06 // 할머니 돌아가실 때 나 저 품 감에 ᄒᆞ멍 ᄉᆞᄆᆞᆺ 한남리 가난, 예춘 가난 ᄉᆞᄆᆞᆺ, 절간감자 들이렌 난리 젼에 두 번 들이멍 나 헤서.(할머니 돌아가실 때 나 저 품 가는 것에 하며 사뭇 '한남리' 가니까, '예춘'가니까 사뭇 절간고구마 들이라고 난리 나서 두 번 들이면서 내가 했어.) 15 [남원, 수망]

예춘망: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경헌디 저 끌오름엔 헌 저 오름은 저 무슨 오름, 예춘, 그건 예춘망이엔 헌다. 예춘망.(그런데 저 '끌오름'이라고 하는 저 '오름'은 저 무슨 '오름', '예춘', 그건 '예춘망'이라고 한다. '예춘망'.) 31 [토평]

예펜: 나이든 여자를 가리키는 제주어이다. '예청', '여편(女便)'라고도 한다. // 궤발시리니

영, 뭐영, 무신 무신 벨벨 이름들이 다 합니다. 그건 예펜들이나 알주. 난 원.('궤발시리니'랑, 뭐랑, 무슨 무슨 별별 이름들이 다 많습니다. 그건 '예펜'들이나 알지. 난 원.) 03 [송당]

예피다: 띠(茅)나 짚으로 이엉 따위를 엮는다는 말이다. 여기서는 담뱃잎을 달아매서 말리기 위해 띠나 짚으로 엮었다는 의미로 쓰였다. // 게민 만약에 그거 열 개 예핀 것에 모물 벙뎅이 흔 멕 도라.(그러면 만약에 그거 열 개 '예핀' 것에 메밀 덩어리 한 망태기 달라.) 03 // 누람지 옆이 담배썹 예펴근에 딱딱 돌아메주게. 경 물류와.(이엉 옆에 담뱃잎 '예펴근에' 딱딱 달아매지. 그렇게 말려.) 15 [송당, 수망]

옛개: 조천읍 신흥리의 옛 지명이다. // 신흥도 옛개, 신흥이엔 안 헹 옛개엔.(신흥도 '옛개', 신흥이라고 안 하고 '옛개'라고.) 11 [함덕]

오 개 리: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주변 다섯 개의 마을을 뜻하는 것으로 대정읍 보성리, 인성리, 안성리, 구억리, 신평리를 이른다. // 오 개 리서 막 훈련허민 오 개 리서 학교 운동장에서 허민 보성 일등 헤여. 다른 인성이나 안성이나 구억, 신펭 떨어져. 게민 또 모슬포끄지 가. 나 옛날 뛰기도 잘 뛰엉 뛰는 선수로 나가나고.('오 개 리'에서 막 훈련하면 '오 개 리'서 학교 운동장에서 하면 '보성' 일등해. 다른 '인성'이나 '안성'이나 구억, '신평' 떨어져. 그러면 또 모슬포까지 가. 나 옛날 뛰기기도 잘 뛰어서 뛰는 선수로 나갔었고.) 33 [인성]

오각: 짚신의 총을 다섯 개 내어서 만든다는 말이다. // 것이 저 오, 오각엔 헌 건 이 깍을 다섯 개벳긴 안 부찌주게. 흔 짝에. 흔 짝에 다섯 개씩 부쪄근에 신은 신을 상제가 신는 신이 잇어낫어, 그렇게.(것이 저 오, '오각'이라고 한 건 이 총을 다섯 개밖에 안 붙이지. 한 쪽에. 한 쪽에 다섯 개씩 붙여서 신은 신을 상제가 신는 신이 있었었어, 그렇게.) 14 [성읍]

오고셍이: 물건이 상하거나 수가 줄어지거나 하지 않고 본디 그대로의 상태를 말한다. // 그 맞춰완 잘 숭키 놓곡 저 그 ᄀᆞ루 놓곡 헤근엥 오고셍이 끌령 부각ᄒᆞ게 영 헹 젓엉 ᄒᆞ쏠 꼰꼰ᄒᆞ게 젓엇당 쑤어근에, 푹 두께 더껑 놔두민 터박터박 저 비제기국 닮앙 좋아.(그 맞춰서 잘 푸성귀 넣고 저 그 가루 넣고 해서 '오고셍이' 끓여서 '부각ᄒᆞ게' 이렇게 해서 저어서 조금 깐깐히 저었다가 쑤어서, 푹 뚜껑 닫아서 놔두면 '터박터박' 저 '비제기국' 같아서 좋아.) 15 // 올려난 거를 전부 목시 안틔 오고셍이 출령 줘 불어.(올렸던 거를 전부 목수한 '오고셍이' 차려서 줘 버려.) 24 // 아방 밥 ᄒᆞᆫ번 거려 불지 안허민 ᄒᆞ꼼 뒈긴 뭘 건디 아방 밥만 오고셍이 흔 사발 거려 뒀.(아버지 밥 한번 떠 버리지 않으면 조금 되긴 될 건데 아버지 밥만 '오고셍이' 한 사발 떠 뒀어.) 30 [노형, 세화, 수망]

오골오골: 가볍게 일어나거나 솟아오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서는 곡식이 볕에 잘 마른 모양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 오골오골 잘 물라사 오골오골.('오골오골' 잘 말라야 '오골오골'.) 11 [함덕]

오곳오곳: 물건이 상하지 않고 본디 모양 그대로인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 물 꿰영 놓면

은 그거 경 헤싸지지 안허여.(물 끓어서 놓으면 그거 그렇게 '헤싸지지' 않아.) 20 // 오곳오곳 ᄒᆞᆫ 점씩 거령.('오곳오곳' 한 점씩 떠서.) 20 [고내]

오그렝이: 물건이 상하거나 수가 줄어지거나 하지 않고 본디 그대로를 말한다. // 주낫 낚시라고 오그렝이 낚시가 주낫 낚신디. 그것 다 니껍 ᄒᆞ멍 주욱 네 젓으멍 놩 놔 뒀당. 것도 ᄒᆞ믄 ᄒᆞᆫ 쪽 ᄀᆞᆨ이옌 ᄒᆞ영 틔우는 게 잇수다.(주낙 낚시라고 '오그렝이' 낚시가 주낙 낚시인데. 그것 다 미끼 하면서 쭉 노 저으면서 놔서 놔뒀다가. 것도 하면 한 쪽 박이라고 해서 띄우는 게 있습니다.) 28 [구엄]

오글레기: '상하지 않고 본디 모양 그대로'의 의미이다. // 게난 그냥 오글레기 일어난.(그러니까 그냥 '오글레기' 일어났어.) 01 [도련]

오까리: 흙벽을 바르기 위해 외를 얽을 때 사용하는 자잘한 나뭇가지나 댓가지 등을 말한다. // 이 서리 말앙 ᄁᆞ느롱헌 거ᄀᆞ라 오까리라고 허여. 오까리 비어다근에, 낭.(이 서까래 말고 가느다란 거보고 '오까리'라고 해. '오까리' 베어다가, 나무.) 02 [선흘]

오깍: 콩국 등 무엇을 끓일 때 끓음과 동시에 거품이 순식간에 솥에서 넘치려는 순간을 말한다. '금새', '순식간에' 혹은 '확'의 의미이다. // 불 ᄉᆞᆯ 때 부끌 걸로 싹 알앙 헨디, 저 오깍 부끄지 아년 때 멩심헤사. 겨난 그 국이 어떵 헤서 맛잇는공 ᄒᆞ민.(불 땔 때 '부끌' 걸로 싹 알아서 했는데, 저 '오깍' '부끄지' 않은 때 명심해야. 그러니까 그 국이 어떻게 해서 맛있는지 하면.) 15 [수망]

오깨기: 쇠꼴의 한 종류이다. // 재게, 오깨기 전이 갈앗당 이거 저 퍼렁케 허영 비영 놔뒀당, 그것을 우테레 ᄀᆞᆯ앙 갑주게.(빨리, '오깨기' 전에 갈았다가 이거 저 퍼렇게 해서 베어서 놔뒀다가, 그것을 위에 깔아서 갈지요.) 28 [구엄]

오께기: 쇠꼴의 한 종류이다. // 이쁘게 저 보라색 꼿도 피고. 경허민 그 오께기 갈앗당 어디 촐 허레 못 가민 우리 아바지넨 그 오께기 갈앗단 그것 강 비어 오라 헹 쉐 멕이고.(이쁘게 저 보라색 꽃도 피고. 그러면 그 '오께기' 갈았다가 어디 꼴 하러 못 가면 우리 아버지네는 그 '오께기' 갈았다가 그것 가서 베어 와라 해서 소 먹이고.) 26 [신창]

오꼿: 가만히 있다가 선뜻 일어서는 모양을 말한다. '전부', '그만', '완전히'에 해당한다. // 부두에 오란 배 타멍 그걸 안 시꺼부난 그디 밧문세영 무시거 담아놔 부난 ᄒᆞᆫ 천 평을 그만 오꼿 밧은 일러분 거 아니?(부두에 와서 배 타면서 그걸 안 실어버리니까 거기 밭문서랑 무엇 담아놔 버리니까 한 천 평을 그만 '오꼿' 밭은 잃어버린 거 아니?) 13 // 이런 마리 옴에 이제 삼춘 담배쏨지 놔둔 거 ᄒᆞ끔 영 헨 도둑질헨에 갖단 줫단 말이야 ᄋᆞ 오꼿 삼춘안티 들련.(이런 마루 옆에 이제 삼촌 담배쌈지 놔둔 거 조금 이렇게 해서 도둑질해서 가져다가 줬단 말이야 오 '오꼿' 삼촌한테 들켜서.) 16 [삼달, 하원]

오꼿ᄒᆞ다: 가만히 있다가 선뜻 일어서는 모양을 말한다. 여기서는 '전부', '온전히'라는 뜻이다. // 그걸 잡아당 거 솖으민양. 네젠 ᄒᆞ민 코가 톡톡 토다집네다게. 오꼿ᄒᆞ

게 다른 것 ᄀᆞ찌 올라오지 아녕.(그걸 잡아다가 거 삶으면요. 꺼내려고 하면 코가 톡톡 뜯어집니다. '오꼿ᄒᆞ게' 다른 것 같이 올라오지 아니해서.) 04 [고성]

오니 다스께: 놀이의 한 종류이다. // 이제 연 날리곡 헤근에 거기서 그 저 뭐 다슷께엔 허는디 그 저. 거 오니 다스께. 거 일본말이라.(이제 연 날리고 해서 거기서 그 저 뭐 '다슷께'라고 하는데 그 저. 거 '오니 다스께'. 거 일본말이야.) 01 [도련]

오도롱: 제주시 이호동의 마을 이름의 하나이다. // 손지 사위가 오도롱 사람인디 죽어 불엇어. 죽어부난 이제 그 성님이 막 고집헤여게. 막 착허곡 글도 잘허곡 공부도 잘허곡 헤나신디.(손주 사위가 '오도롱' 사람인데 죽어 버렸어. 죽어 버리니까 이제 그 형님이 아주 고집해. 아주 착하고 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했었는데.) 30 // 나 속으로만 야 이거 주사기가 콩당콩당 헤 가민. 경허멍 이젠 살당 그디서 누게, 거기서 그 오도롱서 올라가는 게 연동 우이로 올라가서 또. 이호이동서 올라가민, 그디 강 오래 살앗지.(나 속으로만 야 이거 주사기가 '콩당콩당' 해 가면. 그러면서 이젠 살다가 거기서 누가, 거기서 그 '오도롱'에서 올라가는 게 '연동' 위로 올라가서 또. '이호이동'에서 올라가면, 거기 가서 오래 살았지.) 30 [노형]

오독똑: 작고 단단한 물체가 꺾이며 부러지는 소리를 나타낸 말이다. 표준어의 오도독에 해당한다. // ᄒᆞᆫ날ᄒᆞᆫ시에 기자 오독똑 헤 불엇어. 비어 논 거고 안 빈 거고.(한날 한시에 그저 '오독똑' 해 버렸어. 베어 놓은 거고 안 벤 거고.) 06 [남원]

오독오독: 아이가 한쪽에 옹기종기 앉아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 적갈 ᄀᆞ튼 거 경 허영 다 허영 허민 그 어려운 때난에 우리 동셍 하나 나 밑에 셔신디 ᄎᆞᆷ 세상을 떠 불언게. 경 허연 저 서월 간 결혼허연 서월 간 살안 허여신디 경 헌디. 영 허영 성제가 앚이민 오독오독 앚이민 그거 ᄆᆞᆫ 허여놩.('적갈' 같은 거 그렇게 해서 다 해서 하면 그 어려운 때니까 우리 동생 하나 내 밑에 있었는데 참 세상을 떠 버렸어. 그렇게 해서 저 서울 가서 결혼해서 서울 가서 살아서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형제가 앉으면 '오독오독' 앉으면 그거 몽땅 해두고.) 29 [외도]

오라리: 제주시 오라동을 말한다. // 겁도 엇이 그냥 일로 오민 잡을 거난 **오름 저 동쪽으로 헨에이 오라리로 헹 와 불언게. 고사리 꺼끄레 나영 ○○이 어멍이영 서이 가신디.(겁도 없이 그냥 일로 오면 잡을 거니까. **오름 저 동쪽으로 해서 '오라리'로 해서 와 버렸어. 고사리 꺾으러 나랑 ○○이 어머니랑 셋이 갔는데.) 30 [노형]

오랑: 마소의 안장이나 길마를 얹을 때 배에 걸쳐서 졸라매는 줄을 말한다. 뱃대끈의 제주어이다. // 오랑 이디 뱃따지로 헤당 이레 메여야 이 쉐질메가 부뜨주게, 등에, 쉐 등에.('오랑' 여기 배로 해다가 이리로 매어야 이 '쉐질메'가 붙지, 등에, 소 등에.) 02 // 끈 달린 게 오랑인데 오랑코가 잇주.(끈 달린 게 '오랑'인데 '오랑코'가 있지.) 03 [선흘, 송당]

오랑코: 말 등에 안장을 고정시키기 위해 말 앞가슴을 휘감아 안장 양 쪽에 묶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둥근 고리를 말한다. // 오랑코는 윤유리낭으로 센 낭으로 이렇게 낭으로 멘듭니다. 동그랑허게.('오랑코'는 윤노리나무로 센 나무로 이렇게 나무로 만듭니다. 동그랗게.) 03 [송당]

오로코미: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동굴 이름이다. // 오로코미 굴도 시방 메와져실 거고 헌디. 거기 강 밥도 헹 먹고 등잔불 피왕.('오로코미' 굴도 시방은 메워졌을 것이고 한데. 거기 가서 밥도 해 먹고 등잔불 피워서.) 03 [송당]

오롬젱이: 서귀포시 토평동의 바다 이름의 하나이다. // 검은여이 저 오롬젱이엔 헌 디 잇어, 오롬젱이.('검은여' 저 '오롬젱이'라고 하는 데 있어, '오롬젱이'.) 31 [토평]

오롯실: 가죽신을 삼을 때 사용하는 실 종류의 하나이다. // 또 저 실 허젠 허믄 그 오롯실이엔 헙디다. 이젠 뭣으로, 가만이 보니까 뭐 이 삼실은 아니고 오롯실이라고 헹 양, 신을 주는 가죽신이 뜨로 이서.(또 저 실 하려고 하면 그 '오롯실'이라고 합디다. 이젠 뭣으로, 가만히 보니까 뭐 이 삼실은 아니고 '오롯실'이라고 해서요, 신을 주는 가죽신이 따로 있어.) 28 [구엄]

오리목: 봇줄 끝에 매어진 나무와 쟁기의 성에 사이에 잇대어 붙잡아 매는 줄을 말한다. // 오리목, 오리목. 오리목은 또 한줄 끄뎅이에 조그만허게 또로 한줄ᄀᆞ찌 멘들앙 한줄에 끼와야 뒈어 것도, 오리목.('오리목', '오리목'. '오리목'은 또 봇줄 끝에 조그맣게 또 봇줄같이 만들어서 봇줄에 끼워야 돼 그것도, '오리목') 02 // 그 한줄 뒤에 쟁기에 메우는 거 오릿목입주게.(그 봇줄 뒤에 쟁기에 메우는 거. '오리목'이지요.) 12 // 마찬가지로 이젠, 멍엔 그건 다 가트고 이 쟁기만 이젠 그 저 오리목에 돌을 요만이헌 거 헤 가지고 ᄒᆞᆫ 사람, 힘 좋은 사름 지을 정도로 그것에 돌에 궁길 ᄠᅳᆯ라마씨.(마찬가지로 이젠, 멍엔 그건 다 같고 이 쟁기만 이젠 그 저 '오리목'에 돌을 요만한 거 해 가지고 한 사람, 힘 좋은 사람 지을 정도로 그것에 돌에 구멍을 뚫어요.) 20 // 쉐는 그자 멍에 메와 가지고 그다음은 멍에에 그 오리목에 잠데를 딱 무끄면은 뒤에 잠데허고 양주머리 지프곡.(소는 그저 멍에 메워 가지고 그다음은 멍에에 그 '오리목'에 쟁기를 딱 묶으면은 뒤에 쟁기하고 양지머리 짚고.) 35 [고내, 구억, 남원, 대림, 선흘, 송당, 외도, 하원, 한동]

오리목끈: 봇줄 끝에 달린 나무막대기인 비겨미 양쪽에 끼워서 봇줄과 쟁기의 성에와의 사이에 잇대어 걸려매는 줄을 말한다. // 오리목허고 ᄃᆞᆯ벵이 무끄는 것이 오리목끈게, 끈.('오리목'하고 'ᄃᆞᆯ벵이' 묶는 것이 '오리목끈'이야, 끈.) 29 [외도]

오리목매: 멍에의 봇줄 두 가닥 사이에 달린 비겨미에 달린 끈으로, 멍에를 쟁기에 고정할 때 사용하는 끈이다. // 게난 밧 갈 때에 밧대우리는 이 어디고 오리목매로 헤 가지고.(그러니까 밭 갈 때에 '밧대우리'는 이 어디고 '오리목매'로 해 가지고.) 29 [외도]

오릿물: 조천읍 선흘리에서 내려와서 조천읍 북촌으로 빠지는 건천의 이름이다. // 벰밧듸서 오릿물 터졍 저 북춘더레 터져. 그 물이 북춘더레 터져.('벰밧'에서 '오릿물'

터져서 저 '북춘'으로 터져. 그 물이 '북춘'으로 터져.) 11 [함덕]

오마기떡: 차좁쌀 가루에 더운물을 넣어서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이다. 고물을 묻혀 떡으로 먹기도 하고, 고물을 묻히지 않고 술을 빚기도 한다. '오메기', '오메기떡'이라고도 한다. // 누룩에 서꺼져근에 허는 게, 그게 오마기떡으로 그 누룩을 서끄는 거.(누룩에 섞여서 하는 게, 그게 '오마기떡'으로 그 누룩을 섞는 거.) 36 // 그, 그 오마기떡허고 그, 누룩. 누룩을 ᄀᆞ레에 뿟으면 ᄀᆞ루가 만들아져.(그, 그 '오마기떡'하고 그, 누룩. 누룩을 맷돌에 빻으면 가루가 만들어져.) 36 [봉성]

오막떡: '흰쌀떡'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메밀국수에 넣는 떡이다. // 모ᄆᆞᆯ국시에도이 집이서 엿날 두부허거든. 두부도 놓고, 이제 또 저 곤떡도이 셍펜허멍 이제 영 오막떡이엔 허영 동골동골 멘들앙 꼭꼭 영헌 거.(메밀국수에도 집에서 옛날 두부하거든. 두부도 놓고, 이제 또 저 흰떡도 송편하면서 이제 이렇게 '오막떡'이라고 해서 동글동글 만들어서 꼭꼭 이렇게 한 거.) 02 [선흘]

오망오망: 사람이나 물건이 졸망졸망하게 많이 모여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 ᄋᆞ숫 성제를 난 오망오망 놔 두난 얻어먹엉 살 수가 엇어졍, 이제 제주 절산을 올르난 한로산 영산을 올라간 보난 오름도 노프고 아렌 보난 어마서리시루 허 가난 어디 본향 아기 이디 앚아근에 좌정허영은에 받앙 먹으렌 헐 수가 엇엇거든.(여섯 형제를 낳아서 '오망오망' 놔 두니까 얻어먹어서 살 수가 없어져서, 이제 제주 '절산'을 오르니까 '한로산 영산'을 올라가서 보니깐 '오름'도 높고 아래는 보니까 '어마서리시루' 해 가니까 어디 본향 아기 여기 앉아서 좌정해서 받아서 먹으라고 할 수가 없었거든.) 10 // 이불 ᄒᆞ나에 오망오망 발 찔런 살곡 햇수게, 옛날엔게.(이불 하나에 '오망오망' 발 찔러서 살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17 [대평, 월령]

오메기: 차좁쌀 가루에 더운물을 넣어서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이다. 고물을 묻혀 떡으로 먹기도 하고, 고물을 묻히지 않고 술을 빚기도 한다. '오마기', '오메기떡'이라고도 한다. // 이제 물 쪼끔 그거 ᄀᆞᆫ 맞춰서 ᄀᆞ루에 물 놩 요만씩 허게 오메기를 만들어서.(이제 물 조금 그거 간 맞춰서 가루에 물 넣고 요만큼씩 하게 '오메기'를 만들어서.) 06 // 오메기 멘들아근에 저 절벤도 그냥 쪄근에, 오메기 멘들아 쪄근에 절벤도 ᄒᆞ곡.('오메기' 만들어서 저 절편도 그냥 쪄서, '오메기' 만들어 쪄서 절편도 하고.) 08 // 흐린조는 거무릉헌 게 ᄊᆞᆯ 지어 노믄, 밥헤 노믄 친닥친닥헌 게 이제 거 오메기도 허곡.('흐린조'는 거무스름한 게 쌀 지어 놓으면, 밥해 놓으면 찐득찐득한 게 이제 거 '오메기'도 하고.) 28 [고산, 고성, 구억, 남원, 대평, 덕수, 도련, 동광, 성산, 세화, 수망, 온평, 옹포, 외도, 월령, 토평, 표선, 하원, 한동]

오메기떡: 차좁쌀 가루에 더운물을 넣어서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 큰 구멍

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이다. 고물을 묻혀 떡으로 먹기도 하고, 고물을 묻히지 않고 술을 빚기도 한다. '오마기', '오메기'라고도 한다. // 오메기떡 헤근엥 술 만들거나 떡 만드는 거는 여유 잇는 집에서나 허는 거고 가난한 집에서는 주로 뭐 주식으로 사용헷다 봐야지.('오메기떡' 해서 술 만들거나 떡 만드는 거는 여유 있는 집에서나 하는 거고 가난한 집에서는 주로 뭐 주식으로 사용했다 봐야지.) 18 // 오메기떡은 먹는 거고 술 담으는 건 이 그 약술이라고 오메기떡으로도 픗 안 미쳥 그거를 그냥 헤여근에 식히면은 그 누룩이 잇어.('오메기떡'은 먹는 거고 술 담그는 건 그 약술이라고 '오메기떡'으로도 팥 안 묻혀서 그거를 그냥 해서 식히면 그 누룩이 있어.) 21 // 이제 콩 숢젠 허민 큰솟 잇고게. 콩도 숢고 그 오메기떡 헤영 술도 허고 허젠 허믄 큰솟디 헤야 뒈.(이제 콩 삶으려고 하면 큰솥 있고. 콩도 삶고 그 '오메기떡' 해서 술도 하고 하려고 하면 큰솥에 해야 돼.) 26 // 누룩이영 뭐여 술 헐 때 멘드는 오메기떡이나 그런 식으로 가운데 고망 뚤라진 거 그런 거 헷다가 그 술 담을 때 누룩이영 그거랑 같이 담강 먹고.(누룩과 뭐 술 할 때 만드는 '오메기떡'이나 그런 식으로 가운데 구멍 뚫린 거 그런 거 했다가 그 술 담글 때 누룩과 그거랑 같이 담가서 먹고.) 27 [구엄, 노형, 대림, 성읍, 세화, 송당, 신도, 신창, 신촌, 옹포, 외도, 우도, 월령, 표선]

오메기술: 오메기떡에 누룩을 섞어 반죽한 후 적당량의 물을 넣어 발효시킨 제주 전통 민속주'를 말한다. // 오메기술은 거 쉬운 거. 막걸리 멘든 거. 거 쉬운 거.('오메기술'은 거 쉬운 거. 막걸리 만든 거. 거 쉬운 거.) 01 // 오메기술은 그냥 펭상시 때는 아니 하고, 우리 집은 보면은 보리밧 돗가레 밧 할 때에 그 돗가레 내곡 봘리곡 그거 막 시꺼가곡 하젠 하면은 그거 오메기 헤여근에 오메기술 저 이만은 항으로 하나 담아놩.('오메기술'은 그냥 평상시 때는 아니 하고, 우리 집은 보면 보리밭 돼지거름 밭 할 때에 그 돼지거름 내고 밟고 그거 막 실어가고 하려고 하면 그거 '오메기' 해서 '오메기술' 저 이만한 항아리로 하나 담가놔서.) 05 // 오메기술은양, 좁쏠, 좁쏠 물 컷당 막 물 오르민 그 좁쏠을 뽓아수다. 저 남방에 예, 막 서너이 막 뽓앙 그걸 체로 치멍, 막 뽓앙 쳐 놩.('오메기술'은요, 좁쌀, 좁쌀 물 담갔다가 막 물 오르면 그 좁쌀을 빻았습니다. 저 절구에요, 막 서너이 막 빻아서 그걸 체로 치면서, 막 빻아서 쳐 넣어서.) 08 // 오메기술은 그 저 검은좁썰 사다근에. 검은좁썰 사다근에 시쳐근에 강 골아다근에 그걸 쪄근에 동글락허게 멘들앙 가운데 고망 뚤라지게양.('오메기술'은 그 저 차조 사다가. 차조 사다가 씻고 가서 갈아다가 그걸 쪄서 동그랗게 만들고 가운데 구멍 뚫어지게요.) 32 [고내, 고산, 구억, 남원, 대평, 덕수, 도련, 동광, 봉성, 성읍, 신창, 신촌, 온평, 옹포, 외도, 토평, 표선, 하원, 한동]

오몽: 몸을 일으켜 일을 한다는 뜻인 '오몽허다'에서 온 말이다. // 어머니는 저 아덜 다섯 개 헤여 놓고 뚤 두 개 허난 뭐 뚤덜사 자기 먹은 오몽 다 허멍 살암주마는 아덜 다섯 개라 놓난 막 힘들엉양.(어머니는 저 아들 다섯 명 해서 넣고 딸 두 명

하니까 뭐 딸들이야 자기 먹은 '오몽' 다 하면서 살지만 아들 다섯 명이라 놓으니까 막 힘들어요.) 32 [덕수]

오무랑허다: 자잘한 것이 많이 모여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 좁씬 ᄒᆞ꼼 ᄌᆞᆷ진 씨니까 이레 나가도 좇게 나가지. 젠젠헌 거난. 콩씨는 이렇게 뿌려도 홁은 거니까 잘 나가지 안허니까 오무랑허게 삐고. 다 삐기 마련이라. 이렇게.('좁씨'는 조금 잔 씨니까 이리 나가도 '좇게' 나가지. 자잘한 거니까. 콩씨는 이렇게 뿌려도 굵은 거니까 잘 나가지 않으니까 '오무랑허게' 뿌리고. 다 뿌리기 마련이야. 이렇게.) 26 [신창]

오바상: 일본어 'おばさん'으로 아주머니의 의미이다. // 것도 이상허다, 무사 아라카와구약소를 아이 불럼신고 경허단 이젠 아라카와구약소 이제 어디 가느닌 청허난 그 일본 사름이 날ᄀᆞ라 아이고 오바상 한따이노데스요.(것도 이상하다, 왜 '아라카와구약소'를 안 부르나 그러다가 이젠 '아라카와구약소' 이제 어디 가냐고 물으니까 그 일본 사람이 나보고 아이고 '오바상' '한따이노데스요'.) 26 [신창]

오봉리: 우도면에 있는 마을이다. // 대게 이기 오봉리 지역이 낫다고, 이 오봉리 지역에 그거는 이 저 사람이 저 ᄀᆞᆺ으로 가서 나끄는 것이 아니고.(대개 여기 '오봉리' 지역에서 났다고, 이 '오봉리' 지역에 그거는 이 저 사람이 저 'ᄀᆞᆺ'으로 가서 낚는 것이 아니고.) 22 [우도]

오분작: 돌구멍이나 '여' 틈에 붙는 떡조개를 말한다. '오분자기', '오분재기', '바르', '떡조갱이', '오분자귀'라고도 한다. // 오분작은 개전복, 요만썩ᄒᆞᆫ 거. 고만에 영 여트멍에 부트는 거.('오분작'은 '개전복', 요만큼한 거, 구멍에 이렇게 '여' 틈에 붙는 거.) 10 [월령]

오상뎃굴: 우도면에 있는 굴이다. // 서머리엔도 이렇게 허고 굴은 여디 가민 오상뎃굴이엔 헤근에 그 해안가에.('서머리'라고도 이렇게 하고 굴은 여기 가면 '오상뎃굴'이라고 해서 그 해안가에.) 22 [우도]

오수: 말의 나이 다섯 살을 가리키는 말이다. // 이수매 삼수 ᄉᆞ수 오수 이렇게 허주게.('이수매' '삼수' 'ᄉᆞ수' '오수' 이렇게 하지.) 14 // 금승이, 이수는 삼수 ᄉᆞ수 오수 그 저 ᄆᆞᆯ은.(하릅이, '이수'는 '삼수' 'ᄉᆞ수' '오수' 그 저 말은.) 23 [성읍, 온평, 외도]

오야: 일본어 'おや'에서 온 말로, 여기에서는 '계주(契主)'의 의미로 쓰였다. // 오야가 다 누구는 얼마, 얼마 헤 가지고 ᄒᆞᆫ 사름이 얼마 낼 거를 결정을 헤 버리면.('오야'가 다 누구는 얼마, 얼마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얼마 낼 거를 결정을 해 버리면.) 23 [온평]

오야지: 일본어 'おやじ'에서 온 말로, 여기에서는 '우두머리'의 뜻으로 쓰였다. // 울타리가 널르게 헨에 가돠 놩 키우난 그런지 촐도 앞듸레 안 놩 아무 디레라도 그 안티레만 께 풀멍 들렁 네껑 내불면은 자기네가 다 뎅기멍 ᄎᆞ앙 먹곡. 게민 그거 물멕일 때는 그 문 ᄋᆞᆯ아근에 헤영 하면 그 오야지가 뛰지 아니민은 말은 절대 또

꼬망에 새끼덜은 절대 안 뛰여.(울타리가 넓게 해서 가둬 놓아서 키우니까 그런지 꼴도 앞으로 안 놓아서 아무 데라도 그 안으로만 매끼 풀면서 들어서 던져 내버리면 자기네가 다 다니면서 찾아서 먹고. 그러면 그거 물 먹일 때는 그 문 열어서 해서 하면 그 '오야지'가 뛰지 않으면 말은 절대 '또꼬망'의 새끼들은 절대 안 뛰어.) 05 [표선]

오적돌: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지명이다. // 오적돌 요디 쪼그만 굴 잇어 요디.('오적돌' 요기 쪼그만 굴 있어 요기.) 16 [하원]

오주메기: 자그마한 주머니에 모래, 좁쌀 등을 넣어 공처럼 만든 놀이 도구를 말한다. 일본어 'おじめ'에서 온 말이다. // 실패에 바농 찔르기도 허지만 우리 요만헌 오주메기처럼 만들엉 영 바농 찔러 두는 것도 잇지예?(실패에 바늘 찌르기도 하지만 우리 요만한 '오주메기'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바늘 찔러 두는 것도 있지요?) 20 [고내]

오줌항: 거름으로 쓰기 위해 오줌을 받아서 모으는 항아리를 말한다. // 오줌항은 아무 집의나 안 놔.('오줌항'은 아무 집에나 안 놔.) 14 // 오줌항 논 디 옆에. 오줌항이 막 큰 거 헤, 이만이 오줌항을.('오줌항' 놓은 데 옆에. '오줌항'이 아주 큰 거 해, 이만큼 '오줌항'을.) 30 // 그거 오줌 받아난 오줌항에 거까지 다 비완 헷수다.(그거 오줌 받았던 '오줌항'에 거까지 다 부어서 했습니다.) 34 [구억, 노형, 성읍]

오지메: 자그마한 주머니에 모래, 좁쌀 등을 넣어 공처럼 만든 놀이 도구를 말한다. 일본어 'おじめ'이다. '오주메기'라고도 한다. // 고무줄ᄒᆞ고 오지메ᄒᆞ고.(고무줄하고 '오지메'하고.) 16 [하원]

오질오질: 달래 따위의 채소가 어느 정도 큰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 강 보면 밧듸덜 뀡마농 기냥 막 오질오질, 오질오질 영 언 밧듸. 요만썩 오질오질허민 걸 막 기냥.(가서 보면 밭에들 '뀡마농' 그냥 막 '오질오질', '오질오질', 이렇게 언 밭에. 요만씩 '오질오질허민' 걸 막 그냥.) 01 [도련]

오차: 일본어 'おちゃ'로 '차'를 말한다. // 게난 저 옛날은 보리 보깡 항에 탁 듬앙 소상 때나 영장 때나 보리 보끈 거 막 시커멍, 오차엔 허멍 그거 사까린 놩 그거 ᄒᆞᆫ 잔씩 주민 이제 거트민 음료수라.(그러니까 저 옛날은 보리 볶아서 항아리에 탁 담아서 소상 때나 영장 때나 보리 볶은 거 아주 시커멓게, '오차'라고 하면서 그거 사카린 놔서 그거 한 잔씩 주면 이제 같으면 음료수야.) 26 // 검은 거. 그거 헷지이. 또 산에 가민이 머위, 멀리 줄. 멀리 줄 거 무싱거 헤신고이, 머위 줄? 그것도 오차 헐 거엔.(검은 거. 그거 했지. 또 산에 가면 머위, '멀리' 줄. '멀리' 줄 거 뭐 했지, 머위 줄? 그것도 '오차' 할 거라고.) 30 [노형, 신창]

오충: 어린아이 무덤을 말한다. // 오충은 어린애이 죽은 무덤을 오충이라고 ᄒᆞ주게.('오충'은 어린아이 죽은 무덤을 '오충'이라고 하지.) 24 [세화]

오칩: 성씨가 오씨인 집안을 가리킨다. // 집집마다 허는 게 아니고 우리 오칩이도 그런 걸

안 헌디 그런 사람덜이 잇주게.(집집마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오칩'에도 그런 걸 안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 12 [한동]

오토미: 옥돔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 오토미엔도 허고 솔라니엔도 솔라니.('오토미'라고도 하고 '솔라니'라고도 '솔라니'.) 16 [하원]

오하요상: '안녕하세요'라는 의미의 일본어이다. // 게민 아침 갈 때 대판은 오하요상, 동경은 오하요고자이마스 헤도 대판은 오하요상 헤영.(그럼 아침 갈 때 대판은 '오하요상', 동경은 '오하요고자이마스' 해도 대판은 '오하요상' 해서.) 20 [고내]

오합주: 청주, 달걀, 참기름, 꿀, 생강 등 다섯 가지를 혼합하여 발효시킨 제주의 전통 민속주를 말한다. // 오합주는 몸보신. 인삼 들어가지. 참깨지름 들어가지, 참깨 들어가지, 또 거세기 누룩 들어가지.('오합주'는 몸보신. 인삼 들어가지. 참기름 들어가지, 참깨 들어가지, 또 거시기 누룩 들어가지.) 01 // 나 알아경 질 잘헤난 건 이 그 술 막걸리 헤영 영 청주허는 거 허곡 오합주가 있어. 오합주, 헌디 난 육합주를 했어. 그레 마농 ᄒᆞ나 더 놨어.(나 알아서 제일 잘했던 건 그 술 막걸리 해서 이렇게 청주하는 거 하고 '오합주'가 있어. '오합주', 그런데 난 '육합주'를 했어. 그리 마늘 하나 더 넣었어.) 30 // 그 계란 경헨 까 놔근에 그자 오메기 문닥문닥헤영. 경허민 누룩 놓곡 오합주난게 다섯 가지 놔근에 막 맛 좋아.(그 계란 그렇게 까 넣어서 그저 '오메기' '문닥문닥헤영'. 그러면 누룩 넣고 '오합주'니까 다섯 가지 넣어서 아주 맛 좋아.) 31 [노형, 도련, 토평]

온여: 애월읍 구엄리에 위치한 바닷가 지경 이름이다. // 경ᄒᆞ니까 이렇게 봥 아 무슨 여, 무슨 여 ᄒᆞ믄 그 온여 뭐 당여.(그러니까 이렇게 봐서 아 무슨 '여', 무슨 '여' 하면 그 '온여' 뭐 '당여'.) 28 // 소살 ᄒᆞ믄 보통 저 이 저 남뚜리알이옌 해 가지고 글로 들엉 요 저 온여ᄁᆞ지 오젠 ᄒᆞ믄 거의 ᄒᆞᆫ 멧 백 메다 뒈우다게.(작살 하면 보통 저 이 저 '남뚜리알'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로 들어서 요 저 '온여'까지 오려고 하면 거의 한 몇 백 미터 됩니다.) 28 [구엄]

온장벡이: 창호지 한 장을 모두 사용해서 만든 연을 부르는 말이다. 이에 반해 창호지 한 장이 다 들지 않고 반 정도로 만들어진 것은 '반장벡이'라고 부른다. // 온장벡이는 창호지 ᄒᆞᆫ 장에 헤서 대를 ᄒᆞ나, 둘, 신, 닛, 다섯 갠가 들어가고.('온장벡이'는 창호지 한 장에 해서 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가 들어가고.) 03 [송당]

온착: 짜개거나 가르거나 하지 않고 온통 그대로라는 뜻이다. '온채'라고도 한다. // 거기에 온착 걸 재차 놓고 재차 놓고 헹.(거기에 '온착' 걸 재차 놓고 재차 놓고 하면서.) 03 [송당]

올란이: 표선면 성읍1리에 있는 내 이름이다. '올란이내'라고도 한다. // 올란이엔 허니깐 모르주. 옛날부떠 우리 어린 때부터 올란이내창 올란이내창 허난.('올란이'라고 하니깐 모르지. 옛날부터 우리 어릴 때부터 '올란이내창' '올란이내창' 하니까.) 14 [성읍]

올란이내: 표선면 성읍1리에 있는 내 이름이다. '올란이'라고도 한다. // 올란이내엔 헨에 한라산에서 바로 직행 오는 낸디, 그 전이는 내만 왓덴 허미는 이 남문 동네 ᄉᆞ방 사는, 사는 디는 전부 물 들엉.('올란이내'라고 해서 한라산에서 바로 직행 오는 낸데, 그 전에는 내만 왔다고 하면 이 남문 동네 사방 사는, 사는 데는 전부 물이 들어서.) 14 [성읍]

올란이물: 표선면 성읍1리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했던 물 이름이다. // 게난 대개 올란이물은 옛날도 뭐 잔치가 결혼식이 허나 영장이 나나 허믄 동네에서 부주로 막 허벅으로 강 물 질어다 주곡 마차 잇는 사름은 마차에 이껑간 도라무통 실렁 강 물 실러다 주고 경 허멍 헤나신디.(그러니까 대개 '올란이물'은 옛날도 뭐 잔치가 결혼식을 하나 '영장'이 나나 하면 동네에서 부조로 막 '허벅'으로 가서 물 길어다 주고 마차 있는 사람은 마차에 이끌고 가서 실어서 가서 물 실어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14 [성읍]

올레: 제주만이 지닌 특유의 공간으로 큰길에서 집으로 드나드는 골목길이다. // 영 ᄒᆞ영이디 사름이 올레 직ᄒᆞ민 일로 이레 사둠서 이레 넘어가지 못ᄒᆞ게 막는 거.(이렇게 하고 여기 사람이 '올레' 지키면 이리로 이리 서 있으면서 이리 넘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 08 // 세 번 절헐 때에 그거 헤 놔 가지고서 잡식헤 놩 절헤근에 거 끝나면은 숭늉은 지붕 우터레 올리는 이도 잇고 어떤 집이는 올레러레 던지는 집이도 잇고.(세 번 절할 때에 그거 해 놔 가지고서 '잡식헤' 놔서 절해서 거 끝나면 숭늉은 지붕 위로 올리는 이도 있고 어떤 집에는 '올레'에 던지는 집도 있고.) 12 // 올레는 자기 집이 들어가젠 ᄒᆞ민 올렐 만들어사주, ᄂᆞᆷ의 땅으로 들어가저게?('올레'는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올레'를 만들어야지, 남의 땅으로 들어가지나?) 24 // 그때 저, 잊어불지 아니협니다. 올레서 집줄 영영 헐 때 쉐 장시 하르방 몰앙 완, 요거 좋은 쉐라, 좋은 쉐라 허멍 우린 속안 사난에, 얼마사 줜 사신지, 집 일젠, 초가집 일젠 줄 놈시난에, 잊어불지 아니허여.(그때 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올레'서 '집줄'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소 장수 할아버지 몰아서 와서, 요거 좋은 소야, 좋은 소야 하면서 우린 속아서 사니까, 얼마야 줘서 샀는지, 집 이려고, 초가집 이려고 줄 놓고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않아.) 28 [고내, 구엄, 노형, 대림, 대평, 덕수, 동광, 봉성, 세화, 신창, 토평, 표선, 한동]

올레거리: 골목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올레' 가까이에 있는 집채를 말한다. // 문세 가진 하르방 손청거리엔 짓곡 경헤낫저게. 올레거리에.(문서 가진 할아버지 '손청거리'라고 짓고 그랬었어. '올레거리'에.) 31 [토평]

올레코시: 정월에 집안에 탈이 없도록 무당을 불러 지내는 고사를 말한다. // 우리 집읜 그 마늘도 ᄆᆞᆫ딱 요만씩 다 남뎅이차 무꺼근에 올레 긴긴헌 올레에 올렛담에 빈지룽허게 다 널어 놓고 무수도 옛날 그 단지ᄂᆞᆷ삐.(우리 집엔 그 마늘도 몽땅 요만큼씩 다 대째 묶어서 '올레' 기다란 '올레'에 '올렛담'에 나란히 다 널어 놓고 무도 옛날 그 '단지ᄂᆞᆷ삐'.) 05 // 정월 나민 집이서 올레코시 허고.(정월 되면 집에서 '올레코시' 하고.) 31 [토평, 표선]

올렛동산: 집으로 들어오는 '올레'와 도로 사이에 집보다 높은 대지를 말한다. // 그때 수망리 카름엔 낭이 엇이난 영 우리 올렛동산에 강 영 사민 오름들 다 바레집니다게.(그때 '수망리' '카름'에는 나무가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 '올렛동산'에 가서 이렇게 서면 '오름'들 다 보입니다.) 15 [수망]

올리: 밭에 나는 잡초인 사초의 제주어이다. // 올리도 잇긴 잇어 이딘 감저 밧딘 없어.('올리'도 있기는 있어 여기는 고구마 밭에는 없어.) 16 [하원]

올코미: 안덕면 창천리와 서귀포시 예래동의 경계인 일주도로 남쪽에 있는 오름인 '군산'에 있는 지명이다. // 올코미에 낭 그디 ᄒᆞ연, 군산의 소낭 끈언에 부락에서 숫 굽는 사름이 이섯는디 ᄒᆞᆫ 멧 사름.('올코미'에 나무 거기 해서, '군산'에 소나무 끊어서 부락에서 숯 굽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몇 사람.) 17 [대평]

올호래기: 구좌읍 송당리의 오름 이름이다. // 게난 올호래기서 물이 이짝으로도 나고. 그 오름 하나에서.(그러니까 '올호래기'서 물이 이쪽으로 나고. 그 '오름' 하나에서.) 03 [송당]

옴떡: 기계로 만든 떡을 말한다. // 솔벤, 절벤허고 그 요즘은 옴떡이 나왓는데 옛날엔 그렇게 옴떡을 헐 줄 몰르고 어떻게 헤서 집이서 ᄀᆞ루를 ᄲᅡᆺ으니까 도꾸방에 놩.('솔벤', 절편하고 그 요즘은 '옴떡'이 나왔는데 옛날엔 그렇게 '옴떡'을 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해서 집에서 가루를 빻으니까 '도꾸방'에 놓고.) 06 // 원 떡 허는 거 그거. 이제 벨 거 옴떡이여 뭐여 헤도 옛날엔 떡이 그렇게.(원 떡 하는 거 그거. 이제 별 거 '옴떡'이며 뭐며 해도 옛날엔 떡이 그렇게.) 06 [남원]

옴막ᄒᆞ다: 가운데가 옴쏙하게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이 영 오름이주만은 그 가운디 한라산ᄀᆞ치 옴막ᄒᆞᆫ 데 잇어. 그듸를 가메창이라고 허여.(이 이렇게 '오름'이지만 그 가운데 한라산같이 '옴막ᄒᆞᆫ' 데 있어. 거기를 '가메창'이라고 해.) 18 [신도]

옴상허다: 솜 따위가 잘 피어오른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 그 테우는 기계가 있어. 발로 들랑 들랑 들랑 ᄇᆞᆯ라 가민 그 솜이 지글지글 지글지글 퍼져 가지고 옴상허게 퍼지면은.(그 태우는 기계가 있어. 발로 '들랑 들랑 들랑' 밟아 가면 그 솜이 지글지글 지글지글 퍼져 가지고 '옴상허게' 퍼지면.) 06 [남원]

옴탕ᄒᆞ다: 가운데가 둥글게 파여 깊숙이 오목하다는 뜻이다. // 청수도 여기에 뭐 헤서 이 윗질로만 이렇게 관광버스가 좀 다니긴 허지만은 여기에 뭐 옴탕ᄒᆞ고 뭐헤서 발전이 없어.(청수도 여기에 뭐 해서 이 윗길로만 이렇게 관광버스가 좀 다니긴 하지만 여기에 뭐 '옴탕ᄒᆞ고' 뭐해서 발전이 없어.) 19 // 저 큰물왓듸레 가는디 그 옴탕헌 밭 우녁 밧인디 우리 씨아바님이 보리 비여 가민 일을 영 못헙디다게.(저 '큰물왓'으로 가는디 그 '옴탕헌' 밭 위쪽 밭인데 우리 시아버님이 보리 베 가면 일을 이렇게 못합디다.) 32 [덕수, 청수]

옴틀락ᄒᆞ다: 오목하게 파여 들어간 것이 둥글고 미끈둥하다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전복이렌 헌 거는 요만큼 헹 옴틀락헌 거 잇고 뽀짝헌 게 잇어.(전복이라고 한 거

는 요만큼 해서 '옴틀락헌' 거 있고 뾰족한 게 있어.) 09 // 우리 마을은 저레 막 올라가야 이 사람 손으로 물을 파서 영 옴틀락ᄒᆞ게 팡 그 물로 허주게. 우리가 강 질어와 북으로 지어당 허벅에.(우리 마을은 저리 막 올라가야 이 사람 손으로 물을 파서 이렇게 '옴틀락ᄒᆞ게' 파서 그 물로 하지. 우리가 가서 길어와 '북'으로 지어다가 '허벅'에.) 18 [고산, 신도]

옷: 여기서는 상여를 두른 천을 의미한다. // 그 웨에는 남으로 뒌 거는 여기서 ᄌᆞ체적으로 나무 ᄀᆞ튼 건 만들 수 잇이난에. 옆이 영 둘르곡 우에 영 더프는 옷은 육지로 맞춰당 헤여.(그 외에는 나무로 된 거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나무 같은 건 만들 수 있으니까. 옆에 이렇게 두르고 위에 이렇게 덮는 '옷'은 육지로 맞춰다가 해.) 14 [성읍]

옷귀: 남원면 의귀리의 옛 이름이다. // 우리 어머니 고향은 저 옷귀, 의귀리.(우리 어머니 고향은 저 '옷귀', 의귀리.) 15 // 십격 들엇저, 아무 디 십격 들엇저. 견디 이제 경허멍 살아가는 게 옷귀엔 헌 디 저 의귀이.(습격 들었다, 아무 데 습격 들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옷귀'라고 한 데 저 의귀.) 25 // 젊을 때 감저씨 장ᄉᆞ헷주게. 경헹 강 옷귀, 수망리 강 감제씨 차로 하나씩 상 오민 보리쏠 ᄋᆞ경강 저 수망리 강 이장네 집이 강 감제씨 사젠 허난 그 보리쏠 먹지 맙센 허멍 지네 보리쏠 먹으렌 허난 밥 달달 털어지멍 먹지 못헤렌게. 수망리, 옷귀, 수망리.(젊을 때 고구마씨 장사했지. 그래서 가서 '옷귀', 수망리 가서 고구마씨 차로 하나씩 사서 오면 보리쌀 가져가서 저 수망리 가서 이장네 집에 가서 고구마씨 사려고 하니까 그 보리쌀 먹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네 보리쌀 먹으라고 하니까 밥 달달 떨어지면서 먹지 못하더래. 수망리, '옷귀', 수망리.) 33 [성읍, 수망, 인성, 태흥]

와: 일본어 'わ'로 바퀴를 말한다. // 자치기, 자치기. 자치기허고 그 자전거 와 그거 헹 영 쒜, 쒜 영 오그령 졸졸졸졸 영 돌리는 것도 막 허여.(자치기, 자치기. 자치기하고 그 자전거 '와' 그거 해서 이렇게 쇠, 쇠 이렇게 오그려서 졸졸졸졸 이렇게 돌리는 것도 많이 해.) 26 [신창]

와꾸: 일본어 'わく(枠)'로 틀, 테두리를 말한다. // 그것은 톱이 어떻게 뒛는고 허니 이렇게 이렇게 영 와꾸거치 이렇게 뒈 가지고이.(그것은 톱이 어떻게 됐는가 하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꾸'같이 돼 가지고.) 12 // 이제덜은 저것ᄀᆞ라 와꾸여 무신 무시거여 ᄀᆞᆯ아도.(이제들은 저것보고 '와꾸'며 무슨 무엇이며 말해도.) 20 // 이런 옆이ᄀᆞ라. 문입젱이, 그런 것ᄀᆞ라 우린 문입젱이. 와꾸엔도 허고. 와꾸엔도 허고 문입젱이엔도 허주.(이런 옆에보고. 문설주, 그런 것보고 우린 문설주. '와꾸'라고도 하고. '와꾸'라고도 하고 문설주라고도 하지.) 31 [고내, 토평, 한동]

와닥와닥: 유채 대가 불에 타는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이다. // 보리허민 막 그냥 낭도 엇인디 그냥 유채낭 헤당 와닥와닥 ᄉᆞᆷ으멍 ᄯᆞᆷ 찰찰허멍 그때는 솟뚜겡이가 이만이헌 솟뚜께 이서.(보리하면 막 그냥 나무도 없는데 그냥 '유채낭' 해다가 '와닥와닥'

때면서 땀 벌벌 하면서 그때는 솥뚜껑이 이만큼 한 솥뚜껑 있어.) 11 [함덕]

와들랑와들랑: 아파서 날뛰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 손이라도 그 까시로 쏘으믄 아이고 우리 집읫 아방도 옛날 경 허연 쏘아 불언 오란 와들랑와들랑 들럭퀴는디 아이고 볼 나위 읏언게.(손이라도 그 가시로 쏘이면 아이고, '우리 집읫 아방'도 옛날 그렇게 해서 쏘아 버려서 와서 '와들랑와들랑' '들러퀴는디' 아이고 볼 나위 없던데.) 29 [외도]

와랑와랑: 불이 성하게 타오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 날 좋은 때는 그자 그 당시에는 나무도양 웬만한 거는 나무를 떼는 데, 급하게 밥허젠 허는 거는 나무를 아니 뗍니다. 그냥 검질로 아졍 와랑와랑 솔아서.(날 좋은 때는 그저 그 당시에는 나무도요 웬만한 거는 나무를 떼는 데, 급하게 밥하려고 하는 거는 나무를 안 뗍니다. 그냥 김으로 가져와서 '와랑와랑' 살라서.) 03 // 불도 추곡, 낭으로, 생낭 해당 그디 와랑와랑 살롱도 추곡, 옛날엔 무싱거 온돌이 잇수과?(불도 쬐고, 나무로, 생나무 해다가 거기 '와랑와랑' 살려서도 쬐고, 옛날에는 무엇 온돌이 있습니까?) 17 // 그디 불 난에 막 그 산폭도덜 오란 불 짇어 부난 불 와랑와랑 해 가난 불끄렝이 해근에 초가집이난 불카카 부덴.(거기 불나서 마구 그 산 폭도들 와서 불 지펴 버리니까 불 '와랑와랑' 해 가니까 불티 해서 초가집이니까 불탈까 싶어서.) 17 [대평, 송당]

와랑자랑허다: 무척 바빠서 바삐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 게 산듸도 베곡, 조도 비곡, 콩도 허영 장만허곡. 이제 와랑자랑헐 때주게. 감제도 이제 파 가곡.(그러게 밭벼도 베고, 조도 베고, 콩도 해서 '장만허곡'. 이제 '와랑자랑헐' 때지. 고구마도 이제 파 가고.) 33 [인성]

와랑지다: 불이 성하게 타오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서는 '너무 세게' 의미로 사용되었다. // 우리 큰뚤 두린 때게 불 너미 와랑지게 솜아 부난 오가리 깨어낫저게.(우리 큰딸 어릴 때 불 너무 '와랑지게' 때 버리니까 '오가리' 깨었었지.) 02 [선흘]

와사사: 식물 따위의 잎이나 줄기가 싱싱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다. // 그렇지 못 헌 사름은 갈앙 나두민 그런 씨가 아니니까 섭만 와사사 나멍 속이 안 차.(그렇지 못 한 사람은 갈아서 놔두면 그런 씨가 아니니까 잎만 '와사사' 나면서 속이 안 차.) 06 [남원]

와삭바삭허다: 성질이 급한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다. // 성질이 와삭바삭헌 사름은 제기 바글바글 궤고.(성질이 '와삭바삭헌' 사람은 빨리 바글바글 끓고.) 06 [남원]

와상와상: 누에가 뽕잎 먹는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이다. // 그거 흔 번 주민 와상와상 먹어가민 곧 주민 다 먹어불곡 곧 주민 다 먹어불곡.(그거 한 번 주면 '와상와상' 먹어가면 곧 주면 다 먹어버리고 곧 주면 다 먹어버리고.) 14 [삼달]

와상와상: 물 따위가 끓는 소리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 오메기술은 좁쌀혜영 골아당, 그거 혜영 물 꿰왕, 물 설어도 안 뒈는 거. 물 와상와상 꿰엉 잘 꿰민, 그

물 거려 노멍 오메기 다 찌엉.('오메기술'은 좁쌀해서 갈아다가, 그거 해서 물 끓여서, 물 '설어도' 안 되는 거. 물 '와상와상' 끓어서 잘 끓으면, 그 물 떠 놓으면서 '오메기' 다 쪄서.) 19 // 물감을 사당 ᄯᅳ로 솟디 놔 가지고 솖앙 와상와상 꿰어가믄 물감 놩, 겡 ᄯᅳ로 꿰어가면은 미녕이라든지 멩지라든지 옷이라든지 디밀려서 놩은에 영영 젓이멍.(물감을 사다가 따로 솥에 놔 가지고 삶아서 '와상와상' 끓어가면 물감 놔서, 그래서 따로 끓어가면은 무명이라든지 명주라든지 옷이라든지 들이밀어 놔서 이렇게 이렇게 저으면서.) 35 // 무우국은 무우 그 저 물 와상와상 꿰어가믄 ᄂᆞᆷ삐 그 저 체 썰엉 물 꿰는 데 톡 놔놩.(뭇국은 무 그 저 물 '와상와상' 끓어가면 무 그 저 채 썰어서 물 끓는 데 톡 놔서.) 35 [대림, 청수]

와상와상허다: 누에가 뽕잎 먹는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이다. // 영 차반지에 헹 그거 헹 주민 그거 먹는 소리가 와상와상와상허주게, 막 먹어 가는 소리가 와상와상허게시리.(이렇게 '차반지'에 해서 그거 해서 주면 그거 먹는 소리가 '와상와상와상허주게', 막 먹어 가는 소리가 '와상와상허게시리'.) 13 [삼달]

와쌍바쌍: 사기그릇 따위를 부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와싹', '파싹', '와삭바삭'으로 쓰기도 한다. // 정두삼이네도 안 뒈고, 우리 ᄀᆞ튼 사람이 이 건강하게 헤줍센 헤영 이 노인덜 가주. 기추룩 와쌍바쌍은 안 허여.(정두삼이네도 안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이 이 건강하게 해주라고 해서 이 노인들 가지. 그처럼 '와쌍바쌍'은 안 해.) 21 [신촌]

와쌍와쌍허다: 사람들이 흥에 겨워 몸을 흔드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경허니깐 집이 오라근에 그 대영 소리 허멍 와쌍와쌍허멍 그 사름덜 오랑 집 붋으멍 신 신은 냥 돌아뎅기멍 허면은 모든 신이 딱 눌려지지 말게끔 허는 그런 식이주기. 그거.(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 징 소리 하면서 '와쌍와쌍허멍' 그 사람들 와서 집 밟으면서 신 신은 양 돌아다니면서 하면 모든 신이 딱 눌리지 말게끔 하는 그런 식이지. 그거.) 20 [고내]

와자작착: 한꺼번에 일이 끝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와작착'이라고도 한다. // 이게 거 가져오민 그때 그디서 와자작착 헤 빌주.(이게 거 가져오면 그때 거기서 '와자작착' 해 버리지.) 15 [수망]

와자착와자착: 도리깨로 곡식을 때리는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이다. // 마당에 놩 그거 헤놩 도깨로 이디도 둘리 저디도 둘리 너이가 상 와자착와자착 두드리고.(마당에 놔서 그거 해놓고 도리깨로 여기도 둘이 저기도 둘이 넷이 서서 '와자착와자착' 두드리고.) 13 [삼달]

와작착와작착: 한꺼번에 일이 끝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 이제 ᄀᆞᆺ디 멜이 막 오민. 물이 와작착와작착 ᄒᆞ게.(이제 가에 멸치가 막 오면. 물이 '와작착 와작착' 하게.) 04 [고성]

왁웩이: 캄캄하다의 제주어 '왁왁하다'에서 온 말로 안개가 껴서 아무 것도 안 보이는 날씨를 말한다. // 게난 옛날 어른덜 ᄀᆞᆫ는 거. 들어이, 나 ᄀᆞᆫ는 말. 미신 저 왁웩이

렌 헌 건 안개라이.(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말하는 거. 들어, 내가 하는 말. 무슨 저 '왁웩이'라고 한 건 안개야.) 25 [태흥]

완강허다: '완강'은 (불이) 아주 강하다는 뜻이다. // 콩찍으로 불 ᄉᆞᆷ아놔근에 불, 콩찍 불이 완강허주게.(콩짚으로 불 때고 나서 불, 콩짚 불이 '완강허주게'.) 05 [표선]

왈랑왈랑: 물이 야단스럽게 끓어오르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 보리밥 헤영은에 막 왈랑왈랑 막 쏠 거져 익어 가민, 좁쏠 확허게 허데경, 두껑 더껑 놧당 왈랑왈랑 궤영 놧당 이젠 틈 재왕 놧당 거령 허민 푸들푸들헌 게 맛은 좋아 게도.(보리밥 해서 막 '왈랑왈랑' 막 쌀 거의 익어 가면, 좁쌀 확하게 '허데경', 뚜껑 덮어서 놨다가 '왈랑왈랑' 끓여 놨다가 이젠 뜸 들여서 놨다가 떠서 하면 '푸들푸들헌' 게 맛은 좋아 그래도.) 19 [청수]

왓다: '아주 좋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씨 허기 전에 밧디 걸름 뿌렸당 콩 갈 때 강 엎으면은 아주 왓다주게.(씨 하기 전에 밭에 거름 뿌렸다가 콩 갈 때 가서 엎으면 아주 '왓다'지.) 03 // 앞코젱이허고 뒤허고 낙시질 허는 건 왓다주기.('앞코젱이'하고 뒤하고 낚시질 하는 건 '왓다'지.) 29 [송당, 외도]

왓사부대: 제주 4·3 당시 산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시위를 할 때 "왓사! 왓사!"하며 소리쳤다고 한다. 그래서 '왓사부대'라고 한 듯하다. // 왓사부대에 들언에 ᄆᆞᆫ딱 누게 누게 다 알아집니다.('왓사부대'에 들어서 모두 누가 누가 다 알아집니다.) 32 [덕수]

왕: 사람이 소를 길들일 때 길들이는 소에게 하는 소리를 말한다. // 쉐 양쪽으로 베 메영 헝허민 왕 허민 사곡 허들락 ᄒᆞ민 가곡. 왕 ᄒᆞ민 사곡.(소 양쪽으로 바 매어서 '헝'하면 '왕' 하면 서고 '허들락' 하면 가고. '왕' 하면 서고.) 10 // 왕 ᄒᆞ민 사곡, 이식 ᄒᆞ민 가곡.('왕' 하면 서고, '이식' 하면 가고.) 16 [월령, 하원]

왕그랑허다: 많은 물건이 정돈되지 않고 어수선하고 엉성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 우리 아버진 그런 건 일절 허젠도 안 허고 헐 충도 모르고. 겐 ᄉᆞ춘도 헤 오고 오춘 조카도 헤 오민 식구덜 건 다 헤. 식구가 다섯이민 다섯 배다. 아이고, 비 올 때쯤 그냥 벗어 노민 왕그랑헤.(우리 아버진 그런 건 일절 하려고도 안 하고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사촌도 해 오고 오촌 조카도 해 오면 식구들 건 다 해. 식구가 다섯이면 다섯 배다. 아이고, 비 올 때쯤 그냥 벗어 놓으면 '왕그랑헤'.) 30 [노형]

왕기리: 일본어 'きり'로 자른 것이라는 의미이다. '왕'+'기리'는 무말랭이의 일종으로 굵게 자른 것을 말한다. // 그 마늘지도 지금 저 뭐이나 저 무수 헤 가지고. 왕기리로 썰어 가지고.(그 마늘장아찌도 지금 저 뭐이나 저 무 해 가지고. '왕기리'로 썰어 가지고.) 06 // 이제 마눙지 엿날에 그것에 마눙지 왕기리 ᄒᆞ쏠 서껑 ᄆᆞᆫ짝 헤결 헷지만은, 이젠 벨것도 먹구정 ᄒᆞᆫ 게 엇이난.(이제 마늘장아찌 옛날에 그것에 마늘장아찌 '왕기리' 조금 섞어 몽땅 해결했지만, 이젠 별것도 먹고 싶은 것 없으니까.) 15 [남원, 수망]

왕꼬: 굵은 실을 말한다. '왕실'이라고도 한다. // 그거는 뜨로 짜서 왕꼬는 뜨로 짜서 훍은 디 사용허는, 뭐 수수헌 옷게.(그거는 따로 짜서 '왕꼬'는 따로 짜서 굵은 데 사용하는, 뭐 수수한 옷.) 06 [남원]

왕눈: 물안경의 한 종류로 렌즈가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족은눈'에 대비하여 '큰눈'이라고도 한다. // 이건 왕눈, 크난 왕눈.(이건 '왕눈', 크니까 '왕눈'.) 20 [고내]

왕대사: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절 이름이다. // 많진 안헤. 왕대사 하나지. 막 올라가야.(많진 않아. '왕대사' 하나지. 막 올라가야.) 30 [노형]

왕돌거리: 구좌읍 한동리 지명의 하나이다. '왕돌'은 커다란 돌로, 길 한 쪽에 커다란 돌이 놓여 있는 길을 말한다. // 저디 올라가믄 왕돌거리라고 잇어, 왕돌, 큰 돌 잇는 거리라고 헤서 왕돌거리란 게 잇엇주.(저기 올라가면 '왕돌거리'라고 있어, '왕돌', 큰 돌이 있는 거리라고 해서 '왕돌거리'란 게 있었지.) 12 [한동]

왕동산: 대정읍 구억리에 있는 동산 이름이다. // 왕동산이엔 허영 쪼끔만 헌 디 허단에 이젠 그런 거 저런 거 문화가 발달허니까 그걸 아니허여. 이젠 그것도 아니헴수다.('왕동산'이라고 해서 조금만 한 데 하다가 이젠 그런 거 저런 거 문화가 발달하니까 그걸 아니해. 이젠 그것도 않고 있습니다.) 34 [구억]

왕두거리: 구좌읍 한동리 지명의 하나이다. // 우리 가울목이민 이 왕두거리 우이 거의 다 온다. 젯북거리 우이도.(우리 '가울목'이면 이 '왕두거리' 위에 거의 다 온다. '젯북거리' 위에도.) 12 [한동]

왕상허다: 물기 없이 잘 마른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 걸름더레 막 뿌리면은 이제 소시랑으로 그 걸름을 이렇게, 이렇게 막 서꺼. 막 서끄는디 검질이 풀이 많이 들어가니까 왕상허거든.(거름에 막 뿌리면 이제 쇠스랑으로 그 거름을 이렇게, 이렇게 막 섞어. 막 섞는데 김이 풀이 많이 들어가니까 '왕상허거든'.) 19 [청수]

왕상허다: 왕성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서는 잉걸의 불이 이글거린다는 의미이다. // 게민 그것도 그것에 소소한 고기 마른고길 굴 수 잇어. 거 잉걸로, 그냥 검질보다 왕상헤. 솔입 불이, 진짜 솔입 불 심기 좋아.(그럼 그것도 그것에 소소한 고기 마른고기를 구울 수 있어. 거 잉걸로, 그냥 검불보다 '왕상헤'. 솔가리 불이, 진짜 솔가리 불 때기 좋아.) 30 [노형]

왕상허다: 풀, 마른 가지, 가시 따위가 거칠게 널려져 있는 모양을 이르는 말이나 여기서는 '대나무가 많이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제국 시대, 수삼사건에 불 부떠부난 대도 원 엇어낫저. 저 이제사 왕상헷주.(제국 시대, 사삼사건에 불 붙어 버리니까 대도 원 없었었어. 저 이제야 '왕상헷주'.) 02 [선흘]

왕실: 굵은 실을 말한다. '왕꼬'라고도 한다. // 안 좋은 거 왕실.(안 좋은 거 '왕실'.) 31 [토평]

왕이메: 안덕면 광평리 북서쪽, 호명목장 서쪽에 있는 둥글넓적한 오름이다. // 웃드리 그 왕이메라든지 이 목장에 양에들이 그냥 잇엇수다.('웃드리' 그 '왕이메'라든지 이

목장에 양하들이 그냥 있었습니다.) 35 [대림]

왕장허다: 왕성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서는 소의 뿔이 성한 것을 뜻한다. // 그 소가이 좀 까다로운 쉐가 있어, 우리 쉐 하나가. 뿔이 막 왕장헤.(그 소가 좀 까다로운 소가 있어, 우리 소 하나가. 뿔이 아주 '왕장헤'.) 30 [노형]

왠반: 떡을 칠 때 쓰는 두껍고 넓은 나무판인 '안반'을 말한다. // 방엣귀 허고 왠반. 아니, 건 쉐에 대한 거 아니.(절굿공이하고 '왠반'. 아니, 그건 소에 대한 거 아니.) 07 [보목]

외도천: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내 이름이다. // 그거 벨미로 헤낫지. 외도천에 은어가 사니까.(그거 별미로 했었지. '외도천'에 은어가 사니까.) 29 // 아마도 이 외도천이 가장 그 츰 훌륭한 츰 내엿주기.(아마도 이 '외도천'이 가장 그 참 훌륭한 참 내였지.) 29 [외도]

요꼬: 옆(よこ)이라는 뜻의 일본어이다. // 이제 저 요꼬엔 허영 모ᄌᆞ 영 옆드레 쓰고, 거 요꼬라 옆이.(이제 저 '요꼬'라고 해서 모자 이렇게 옆으로 쓰고, 거 '요꼬'야 옆이.) 02 [선흘]

요꼬마이: 일본어에서 온 말로 놀이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말이다. // 그 요꼬마이엔 헌 게 일본말로 잇섯는데 거 무신 놀인지를 나도 모르크라.(그 '요꼬마이'라고 한 것이 일본말로 있었는데 거 무슨 놀이인지를 나도 모르겠어.) 04 [고성]

요망지다: 사람이 똑똑하고 야무진 것을 말한다. // 신랑 쪽이 아니고 아바지 쪽 사름 ᄒᆞ나, 어머니 쪽 사름 ᄒᆞ나. 경헤도 아바지 쪽 사름은 글도 알고 요망진 사름을 보내여야 그 여장을 강 불합격허민 책임질 사름을 보내야.(신랑 쪽이 아니고 아버지 쪽 사람 하나, 어머니 쪽 사람 하나. 그래도 아버지 쪽 사람은 글도 알고 '요망진' 사람을 보내야 그 예장을 가서 불합격하면 책임질 사람을 보내야.) 06 [남원]

요웨: 떡의 일종이다. // 중계 약궤 강정 요웨 다 헤야 열 굿이주.(중계 '약궤' 강정 '요웨' 다 해야 열 '굿'이지.) 14 [성읍]

요자기: 요사이의 어느 때를 말한다. // 난 요자기 ᄀᆞ찌 절벤 멘들안. 솔입 놩 쳔.(난 '요자기' 같이 절편 만들었어. 솔잎 놔서 쪘어.) 08 [동광]

요ᄒᆞ룩이: 요사이 어느 때를 말한다. '요자기'라고도 한다. // 요ᄒᆞ룩이 그 저 무시거 ᄀᆞ져가렌 헨 떡이영 ᄀᆞ져가난게, 요 집이난게.('요ᄒᆞ룩이' 그 저 무엇 가져가라고 해서 떡이랑 가져가니까, 요 집이니까.) 32 [덕수]

욧가: 일본어 '욧가(よっか)(四日)'로 '나흘'을 말한다. // 게민 겨울에 욧가엔 ᄒᆞ민 팔일이거든.(그러면 겨울에 '욧가'라고 하면 팔일이거든.) 04 [고성]

용눈이오름: 구좌읍 종달리에 있는 오름이다. // 엿날에 차 없을 적에는 한 며칠썩 걸렸는데, 저 용눈이오름에, 거 티비도 나오는데.(옛날에 차 없을 적에는 한 며칠씩 걸렸는데, 저 '용눈이오름'에, 거 텔레비전에도 나오는데.) 06 [남원]

용머리: 성산읍 온평리 바닷가 지명의 하나이다. // 바당 이름이 요 용머리 ᄒᆞᆫ 개금이, 이거게 도에 ᄒᆞᆫ 개금이.(바다 이름이 요 '용머리' 한 '개금이', 이거 '도에' 한 '개금이'.) 23 [온평]

용ᄆᆞ루: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용머리를 말한다. // 곱아나지 안허연, 사삼사건에. 그 일본놈덜 오란 자기대로 굴 판 것덜 잇지. 엿날부터 파진 굴은 없엇어. 게난 일본 군인덜 오란 용ᄆᆞ루 근방에도 다 판에 굴덜 멘들고 경헷주. 그런 굴은 옛날부터 없어.(숨지 않았어, 사삼사건에. 그 일본놈들 와서 자기대로 굴 판 것들 있지. 옛날부터 파인 굴은 없었어.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 와서 '용ᄆᆞ루' 근방에도 다 파서 굴들 만들고 그랬지. 그런 굴은 옛날부터 없어.) 33 [인성]

용시: '농시' 즉 농사를 말한다. // 유월절 완전 끗나기 전이 용시 끗.('유월절' 완전 끝나기 전에 '용시' 끝.) 15 [수망]

용운동: 한림읍 수원리의 한 지역이다. 과거 '가자위', '가좌동'으로 불리었다. // 우리는 그 저 귀덕이리ᄒᆞ고 그 저 수원 용운동.(우리는 그 저 '귀덕이리'하고 그 저 수원 '용운동'.) 35 // 시집오난양 김치 담젠 허난양 구루마에 배추 시껀예, 저 용운동 간에, 거기서 웅뎅이 신디 간 담갓단 ᄯᅳ시 이제 이틀인가 시난 ᄯᅳ시 간에 그거 바닷물에 싯언 ᄯᅳ시 구루마로 간 또 시꺼완 담읍디가게.(시집오니까요 김치 담그려고 하니까 수레에 배추 싣고, 저 '용운동' 가서, 거기서 웅덩이 있는 데 가서 담갔다가 다시 이제 이틀인가 있으니까 다시 가서 그거 바닷물에 씻어서 다시 수레로 가서 또 싣고 와서 담갔습니다.) 35 [대림]

용찬이고냥: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굴의 이름 중 하나이다. // 굴이 그 고냥 같이 앞에는 널러도 안에 들어가면 좁거든 안에 들어가난 용찬이고냥 ᄒᆞ주게.(굴이 그 구멍 같이 앞에는 넓어도 안에 들어가면 좁거든 안에 들어가니까 '용찬이고냥' 하지.) 09 [고산]

우깍허다: 위로 끓어오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 그거 궤면은 저 뭣이거냐 솟듸 놔근에 헐 때 콩ᄀᆞ르 ᄀᆞ찌 놩 막 젓어근에 불ᄉᆞᆷ앙 그거 다 익어가민 우깍허게 틉니께게.(그거 끓으면은 저 무엇이냐 솥에 놔서 할 때 콩가루 같이 놔서 막 저어서 불 때서 그거 다 익어가면 '우깍허게' 뜹니다.) 23 // 남죽으로 젓다근엥에, 요거 익어갈 만허걸랑 톡허게 내 불면은 두께 톡 더껑 놔두면 그게 우깍허게 덩어리로 올라옵니다.(죽젓개로 젓다가, 요거 익어갈 만하면 톡하게 내 버리면 뚜껑 톡 덮어서 놔두면 그게 '우깍허게' 덩어리로 올라옵니다.) 23 [온평]

우녁거리: 여러 채로 이루어진 집에서 본채의 위편에 위치한 집이다. // 알녁거리, 우녁거리 그런 식으로.('알녁거리', '우녁거리' 그런 식으로.) 34 [구억]

우녁집: 한 집의 위쪽 울타리 밖에 있는 집이다. // 영장 헤줍센 ᄒᆞ영 일가방상 뎅기멍 영장 해줍서 ᄒᆞ영 다 뎅기는디, 이젠 우녁집 사름도 아니가.(영장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일가방상' 다니면서 영장 해주십시오 해서 다 다니는데, 이젠 '우녁집' 사람도 아니가.) 17 // 우녁집이 사는 동셍이옌 헷수다. 게 시집완 보난 우리 시어

머님은 아직 그런 거 아니허고 족은어머니 경 헨 경 허고.('우녁집'에 사는 동생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시집와서 보니까 우리 시어머님은 아직 그런 거 아니하고 작은어머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28 // ᄒᆞᆫ번, ᄒᆞᆫ번 한림 옹포 간에 감저 주시를 구루마로 이 우녁집이 할망허고 간에, 반씩 헤영 나누기로 헤연, 구루마로 시껀 오는디, 구루마, 이제 쉐가 뜨지 안헤여게? 저, 할망은 조름에 싯고. 난 하 저, 대림 오니까니 술 취헌 놈이 구루마를 딱 막앙 사는 거라.(한번, 한번 한림 '옹포' 가서 고구마 찌꺼기를 수레로 이 '우녁집'의 할머니하고 가서, 반씩 해서 나누기로 해서, 수레로 싣고 오는데, 수레, 이제 소가 느리지 않아? 저, 할머니는 뒤에 있고. 난 하 저, 대림 오니까 술 취한 놈이 수레를 딱 막아서는 거야.) 36 [구엄, 대평, 봉성]

우렁메: 얼룩소의 수소를 말한다. // 우렁메여 무슨거 그런 것도 ᄀᆞᆫ곡 허난에 알아지크라. 거 하도 잊어베연. 거 옛날에 헤난 거난게.('우렁메'다 무엇 그런 것도 말하고 하니까 알아지겠어. 거 하도 잊어버려서. 거 옛날에 했던 거니까.) 04 [고성]

우렝이: 제주시 외도동의 자연 마을의 하나이다. '우령'이라고도 한다. // 이렇게 뒈는디 여기에 이 우렝이엔 헌 디가 여기 그 두 씨족에서.(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 '우렝이'라고 한 데가 여기 그 두 씨족에서.) 29 // 우렝이가 이제 우렝인 베 형국이 뒈 가지고 아까 우리 훼장님도 얘기헷주마는 그 꿩이 알주마는. 가냐귈 헤 가지고 돗대가 돗대를 ᄃᆞᆯ아서.('우렝이'가 이제 '우렝이'는 배 형국이 돼 가지고 아까 우리 회장님도 얘기했지마는 그 꿩이 알지마는. 가마귀 해 가지고 돛대가 돛대를 달아서.) 29 // 우렝이민이 우렝이 우에 절이 잇어. 알아?('우렝이'면 '우렝이' 위에 절이 있어. 알아?) 30 [노형, 외도]

우렝이당: 제주시 외도동 '우렝이마을'에 있는 당을 말한다. // 할망당에 대헤 가지고, 약간의 유래가 잇는데. 이런 여기 이 우렝이당은 돗당이라고 헙니다. 돗당.('할망당'에 대해 가지고, 약간의 유래가 있는데. 이런 여기 이 '우렝이당'은 '돗당'이라고 합니다. '돗당'.) 29 [외도]

우령: 제주시 외도동의 자연 마을의 하나이다. // 그런 얘기도 허니까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연유뒈어 가지고 그 이제 우령이라는 마을이 이 이름이 형성뒈지 않은 것이 아닌가.(그런 얘기도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연유되어 가지고 그 이제 '우령'이라는 마을이 이 이름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29 [외도]

우룩맞추다: 자웅이 서로 소리 질러 부르며 응하다라는 뜻이다. // 그 하르방이 가죽감티 쓰고 이런 거 가죽 토시, 손도메 이거 허영 찌곡 이 신발도 가죽으로 신 헤영 신엉 아이고 저 하르방넨 노리 잡으레 이디 송 하르방신듸 오랑 우룩맞촨에 올레로 안 강 우리 우영팟으로 그디 성 영헌 골목 이서.(그 할아버지가 '가죽감티' 쓰고 이런 거 가죽 토시, '손도메' 이거 해서 끼고 이 신발도 가죽으로 신 해서 신어서 아이고 저 할아버지네는 노루 잡으러 여기 송 할아버지에게 와서 '우룩맞촨에' '올레'로 안 가서 우리 텃밭으로 거기 있어서 이런 골목 있어.) 33 [인성]

우리 집 할망: ‘우리 집의 할머니’를 말한다. 상황에 따라 ‘아내’의 의미로 쓰인다. // 우리 집 할망신듸 지금도 바농상지 이서.(‘우리 집 할망’에게 지금도 반짇고리 있어.) 15 [수망]

우리 집읫 아방: ‘우리 집의 아버지’를 말한다. 상황에 따라 ‘남편’의 의미로 쓰인다. // 나 허는 거 보난 뭐 헌ᄀᆞ라 경 허연. 경 허난 그때도 저 경 헷주기게. 우리 씨아버님이 ᄆᆞᆫ여 돌아가션 셔신디 우리 집읫 아방 엇인 때라게.(나 하는 거 보니까 뭐 했는지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니까 그때도 저 그렇게 했지. 우리 시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있었는데 ‘우리 집읫 아방’ 없을 때야.) 29 //옛날은 헌디 우린 셋하르바님 ᄯᆞᆯ이 저 이 월대동에 그디 저 뭐헌 어른이 션에 허연 영 헤연 살아신디 우리 집읫 아방이 그때 시절에 우리 스물 난 스물둘에 우리 집이 아방은 스물닛에 결혼을 헤신디.(옛날은 했는데 우린 ‘셋하르바님’ 딸이 저 이 ‘월대동’에 거기 저 뭐한 어른이 있어서 해서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우리 집읫 아방’이 그때 시절에 우리 스물 되어서 스물둘에 ‘우리 집읫 아방’은 스물넷에 결혼을 했는데.) 29 [외도]

우막다: ‘식물의 줄기 따위가 더 뻗어나가지 못하게 줄기 끝을 잘라주다’의 의미이다. // 갈앙 이젠 그거 우막고, 너미 낭 나 가민 우이로 톡 톤아. 영 가제기 벌령 멘네 피게. 그처록 허영 이젠 멘네 피민 타당 그거 다 각지 다듬앙.(갈아서 이젠 그거 ‘우막고’. 너무 나무 나 가면 위로 톡 뜯어. 이렇게 가지 벌려서 면화 피게. 그처럼 해서 이젠 면화 피면 따다가 그거 다 깍지 다듬어서.) 26 // 우막는 건 손으로마씨, 손으로 영 뎅이멍 그자.(‘우막는’ 건 손으로요, 손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저.) 35 [대림, 신창, 외도]

우머니: 두루마기 등의 소매에 달린 속주머니를 말한다. // 남자 상제 아들 상제는 소미가 요디 쪼라졍 그냥 우린 여상 후리메고이 사위덜 옷은 이디 우머니 ᄃᆞᆯ린 옷, 소미 이만은허게 헤여.(남자 상제 아들 상제는 소매가 요기 줄어들어서 그냥 우린 ‘여상’ ‘후리메’고 사위들 옷은 여기 ‘우머니’ 달린 옷, 소매 이만큼은 하게 해.) 25 [태흥]

우면: 옛 제주목의 오른쪽 면을 말한다. 현재 제주시 애월읍, 한림리가 여기에 속한다. // 애월, 한림, 한경이 우면, 조천, 구좌가 좌면.(애월, 한림, 한경이 ‘우면’, 조천, 구좌가 ‘좌면’.) 36 [봉성]

우무니: 두루마기나 도포 팔 안자락에 주머니처럼 만든 것이다. ‘우머니’라고도 한다. // 장옷은 두루막으로 여저 푸린 걸로 허고 골름, 옷골름허곡 짓 붉은 걸로 허영은에 두루막추룩 간단허고 도복이엔 헌 건 남전 도복이엔 헌 건 멩지로, 흰 멩지로 우이 이디 가달 ᄃᆞᆫ지고, 가달 ᄃᆞᆫ경은에 이디 허곡 이 우무니 허곡, 이 우무니 헌 거.(장옷은 두루마기로 여자 푸른 걸로 하고 고름, 옷고름하고 깃 붉은 걸로 해서 두루마기처럼 간단하고 도포라고 한 건 남자는 도포라고 한 건 명주로, 흰 명주로 위에 여기 ‘가달’ 달리고, ‘가달’ 달려서 여기 하고 이 ‘우무니’ 하고, 이 ‘우

무니' 한 거.) 33 [인성]

우뭇개: 우도면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 저 우뭇개 사름덜은 여기 와 가지고.(저 '우뭇개' 사람들은 여기 와 가지고.) 22 [우도]

우상우상허다: 웅성웅성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 정월에 아시해 그 섣둘, 춤 그해 낭 정월 열나흘날 저냑 떡 치멍 경헨게 그해 우상우상허단에 그만 동 ᄉᆞ삼사건이 활딱 이난에 오꼿 심어단에 성산포 간 죽여 볏수다게.(정월에 전해 그 섣달, 참 그해 되어서 정월 열나흘 날 저녁 떡 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해 '우상우상허단에' 그만 둬서 사삼사건이 활딱 이니까 '오꼿' 잡아다가 성산포 가서 죽여 버렸습니다.) 14 [성읍]

우선까라: '우선+까라(から)' 구성이다. 'から'는 '부터'의 의미의 일본어이다. // 유채 비곡 보리 비곡 허젠 우선까라 개역을 멘들앗주.(유채 베고 보리 베고 하려고 '우선까라' 미숫가루를 만들었지.) 14 [성읍]

우시: 결혼할 때 신랑이나 신부를 보살피며 같이 사가(舍家)에 상객(上客)으로 가는 사람을 말한다. 표준어로는 위요이다. // 그때? 우시 오주게. 그디서 양쪽에 이제.(그때? '우시' 오지. 거기서 양쪽에 이제.) 02 // 경 ᄒᆞ연에, ᄒᆞ난 나 ᄃᆞᆯ레 온 나 ᄃᆞᆯ레 오는 사름은 저 거세기 우시, 우시, 우시 오라근에 새각시가 무신거 화장시키곡 무신거어 ᄒᆞᆫ덴 ᄒᆞ멍 ᄒᆞ난에 우시옌 ᄒᆞᆫ 사름은 장방대가 나자네 화장을 시키는 청 ᄒᆞ난 장방대가 나잔, 장방대가 낮안에.(그렇게 해서, 하니까 나 데리러 온 나 데리러 오는 사람은 저 거시기 '우시', '우시', '우시' 와서 새색시가 무엇 화장시키고, 무엇 한다고 하면서 하니까 '우시'라고 한 사람은 '장방대'가 낮아서 화장을 시키는 척 하니까 '장방대'가 낮아서.) 08 [동광, 선흘, 한동]

우시루: 일본어 '우시로(うしろ)'이다. 표준어 '뒤'를 말한다. // 우시루엔 허영 뒤트레 씨곡, 두깡은 우시루라이.('우시루'라고 해서 뒤로 쓰고. 뒤쪽은 '우시루'야.) 02 [선흘]

우씨: 밭을 갈고 난 다음에 뿌리는 씨를 말한다. '우'는 표준어 '위'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 산듸는 알씨 우씰 허는디. 먼저 뷘 씨를, 그 알씨주게.(밭벼는 '알씨' '우씨'를 하는데. 먼저 뿌린 씨를, 그 '알씨'지.) 14 [성읍]

우알벵일이: 제주시 노형동 지경 이름이다. '우알'은 '위아래'의 의미로, '벵일'의 위쪽과 아래쪽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 그 낭껍데기가 쫙쫙헷당은에 우리 아버지가 이사장이난 우리 집이덜 다 동네 거 모여 와. 우알벵일이 거 우리 집이서 미스구릴 헤여. 경허믄 왕 시꺼 가.(그 나무껍질이 쫙쫙했다가 우리 아버지가 이사장이니까 우리 집에들 다 동네 거 모여 와. '우알벵일이' 거 우리 집에서 '미스구리'를 했어. 그러면 와서 싣고 가.) 30 [노형]

우알씨: 밭을 갈기 전에 뿌리는 씨와 밭을 간 이후에 뿌리는 씨를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 게난 것도 우알씨 삐주마는 대개 산듸씨는 우에 뿌령 것도 ᄇᆞᆯ려야 뒈여.(그러니까 것도 '우알씨' 뿌리지만 대개 '산듸씨'는 위에 뿌려서 것도 밟아야 되어.) 29 [외도]

우와기: 일본어 'うわぎ'이다. 표준어 '윗옷'을 말한다. // 아렌 베 베 베쓰봉 입고 우인 그 저 우와기 입고 헨 가낫수다.(아래는 베 베 '베쓰봉' 입고 위에는 그 저 '우와기' 입고 해서 갔었습니다.) 22 // 나냥으로 저 이 저 우와기를 만들앙. 만들앙은엥에 저 아저씨도 입곡. 우리도 입어근엥에 일허엿수다게.(나대로 저 이 저 이 저 '우와기'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저 아저씨도 입고. 우리도 입어서 일했습니다.) 32 [덕수, 우도]

우왁허다: 물이 펄펄 끓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 ᄒᆞᆫ불 싹하게 우왁허게 끓어올르민 건져내부는 거.('ᄒᆞᆫ불' 싹하게 '우왁허게' 끓어오르면 건져내 버리는 거.) 05 [표선]

우자왓: 한 집안의 울타리 안쪽 밭을 말한다. // 우자왓디 낭 싱것당 것도 신구간에 끈어 불고.('우자왓'에 나무 심었던 것도 신구간에 끊어 버리고.) 17 [대평]

우잣: 집안의 울타리 안쪽을 말한다. // 경 헤연 이젠 가네 벳긋디 간. 어디 우잣 우영에 간. ᄒᆞ쏠 영 뎅기는 추룩 헨 와네. "아이고 죽 다 쒀젓저. 느네 죽덜 ᄒᆞᆫ 사발 먹엉 가라. 먹엉 가라." ᄒᆞ멍 헨 죽을 데접으로 ᄒᆞ나썩 거려주난.(그렇게 해서 이제는 가서 밖에 갔어. 어디 '우잣' 텃밭에 갔다. 조금 이렇게 다닌 것처럼 했다 와서. "아이고 죽 다 쒀졌다. 너희 죽을 한 사발 먹어서 가. 먹어서 가." 하면서 해서 죽을 대접으로 하나씩 떠 주니까.) 04 // 우리 감산읜, 친정에는 담으로 장팡뒤 다지곡, 뒷문 넘어가는 문 담으로 딱 우잣 둘런에 해지곡 장팡뒬.(우리 '감산'에는 친정에는 담으로 '장팡뒤' 쌓아지고, 뒷문 넘어가는 문 담으로 딱 '우잣' 둘러서 하고 '장팡뒤'를.) 17 // 이듸ᄁᆡ정 가져와근엥 이 영 우잣이 영 헌데 눌엇다근엥.(여기까지 가져와서 이 이렇게 '우잣'에 이렇게 한데 가렸다가.) 18 // 콩은 그렇게 굽ᄁᆡ지 헤노믄 수확이 하영 나는디 어떤 딘 우잣디 갓단 놔두난 어디 사름덜은 밤에 콩 장만헨 놔두난, 아 거 누게 도둑질허레 밤이 헨 놔두니까 젼 나오단양, 우리 친족넨디 거 바가젼 이제 이름 안 ᄀᆞᆫ쿠다마는, 그런 면이 이선, 우리도 야 이거 콩 큰일 난다, 콩 일러부럿당.(콩은 그렇게 밑에까지 해놓으면 수확이 많이 나는데 어떤 데는 '우잣'에 갔다가 놔두니까 어디 사람들은 밤에 콩 '장만헨' 놔두니까, 아 그거 누구 도둑질하러 밤에 해서 놔두니까 져서 나오다가요, 우리 친족인데 거 '바가젼' 이제 이름 안 말하겠습니다만,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도 야 이거 콩 큰일 난다, 콩 잃어버렸다가.) 28 [고성, 구엄, 대평, 신도]

우지지시: '우찍'과 같은 말로 떡 위에 모양을 내기 위해 올려놓는 장식이라는 뜻으로 표준어 웃기이다. // 열굿떡에 우지지시 논 건 우이 올라가난 열굿떡에 우지지시, 우찍.('열굿떡'에 '우지지시' 놓은 건 위에 올라가니까 '열굿떡'에 '우지지시', '우찍'.) 13 [삼달]

우쭈다: 위로 받들다는 뜻이다. // 들받음이엔 헌 건 우쭈왕, 아기 배엇젠.('들받음'이라고 한 건 '우쭈왕', 아기 배었다고.) 13 [삼달]

우찍: 제사나 명절 떡 중에 맨 위에 올려놓는 떡을 가리키는 제주어로 '웃기떡'이라고도 한

다. // 절벤 우이 절벤 똥그랑ᄒᆞᆫ 거 그레, 우찍.(절편 위에 절편 동그란 거 거기에, '우찍'.) 16 [하원]

우추다: 위로 올리다는 뜻으로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 하루방이 저 모슬포 아이덜 미깡도 엇인디 이걸랑 내불라. 둬 콘테나 허건 아이들 타당 먹으렌 허게. 모슬포 딸들 우리 하르방 막 우촨허난게.(할아버지가 저 모슬포 아이들 귤도 없는데 이것은 내버려라. 둬 컨테이너 하면 아이들 따다 먹으라고 하자. 모슬포 딸들 우리 할아버지 아주 '우촨'하니까.) 33 [인성]

우치다: 비나 눈이 내리는 등 날씨가 좋지 않다는 말이다. // 그게 왜냐허면은 날 우치젠 허면은 그게 낭 뎅겨. 바람이나 낭 뎅겨.(그게 왜냐하면 날 '우치젠' 하면 그게 나서 다녀. 바람이나 나서 다녀.) 21 // 어린 때라도게. 날 우쳐 가민 하르방덜 찍신덜 삼젠게.(어린 때라도. 날이 '우쳐' 가면 할아버지들 짚신들 삼으려고.) 26 // 썩어근에 빨리 떨어져 불주기게. 경허기 때문에 날 우친 때는 꼭 나막신을 신어야 뒈.(썩어서 빨리 떨어져 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날 '우친' 때는 꼭 나막신을 신어야 돼.) 30 // 거의 벳 잘 나민 이틀이민 ᄆᆞᆯ라. 겡 안허민 ᄒᆞᆫ 사흘. 경헤영 날 우쳐 가민 ᄒᆞᄉᆞᆯ 허민 ᄂᆞᆯ보리 무꺼, ᄂᆞᆯ보리 무꺼.(거의 볕 잘 나면 이틀이면 말라. 그렇지 않으면 한 사흘. 그래서 날 '우쳐' 가면 조금 하면 날보리 묶어, 날보리 묶어.) 31 [고산, 노형, 신창, 신촌, 토평]

우퉁: 위쪽의 통을 말하는 것으로 탕건을 결을 때 턱이 진 윗부분을 말한다. // 탕건 코가 요만이 ᄌᆞᆯ아놩 밀민 요만이 올라와. 그다음 허여놩 이젠 이디ᄀᆞ란 이젠 저 우퉁이라고 허여이.(탕건 코가 요만큼 결어놓고 밀면 요만큼 올라와. 그다음 해 놓고 이젠 여기보고는 이젠 저 '우퉁'이라고 해.) 02 // 탕건 곡대기ᄀᆞ라 우퉁.(탕건 꼭대기보고 '우퉁'.) 02 [선흘]

우푼두건: 입관하기 전에 상제들이 쓰는 두건으로 위가 터진 두건을 말한다. // 베 그창 그 머리에 똑똑 마촤근에 그거 헹 영 빙허게 돌령 따시 삼으로 톡 무껑, 그게 우푼두건.(베 잘라서 그 머리에 똑똑 맞춰서 그거 해서 이렇게 '빙허게' 돌려서 다시 삼으로 톡 묶어서, 그게 '우푼두건'.) 13 [삼달]

운주름: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 운주름, 운주름 허는데 거 이제는 오름이 길 나 부니까 오름 같지 않주만은.('운주름', '운주름' 하는데 거 이제는 '오름'이 길 나 버려서 '오름' 같지 않지만.) 06 [남원]

울다: 어떤 대상을 위하다라는 의미이다. // 토지가 나쁘니까게 뭐 바당에 것만 울엉 사난에 못 살앗주게.(토지가 나쁘니까 뭐 바다의 것만 '울엉' 사니까 못 살았지.) 23 // 그 막걸리 나기 전에 청주가 나와. 그 청주를 좋아하니까 그 선생덜 울엉근에 우리 집 아방이 서무과장 헤나니까 그 아래 선생덜 울엉 해마다 해마다 ᄒᆞᆫ 해도 아니 아니 헤 봣어.(그 막걸리 나기 전에 청주가 나와. 그 청주를 좋아하니까 그 선생들 '울엉근에' 우리 집 아버지가 서무과장 했었으니까 그 아래 선생들 '울엉' 해마다 해마다 한 해도 아니 아니 해 봤어.) 30 [노형, 온평]

울담: 집터의 주위에 둘러쌓은 담이다. // 그땐 방풍도 뭬고. 경 허난 다으민 뭬는 거주마는. 울담은 우선 방풍 땜에 헌 거주.(그땐 방풍도 되고. 그렇게 하니까 쌓으면 되는 거지만. 울담은 우선 방풍 때문에 한 거지.) 34 // 우리집인예 ᄃᆞ시 마당에 잔디난양 모기가 저픕니다게, 마당에 잔디고 나무가 울담이라부난.(우리집은요 다시 마당에 잔디 나서요 모기가 '저픕니다게', 마당에 잔디고 나무가 울담이라서.) 35 [구억, 대림]

울렁쉬: 장마철에 습한 바람이 불고 바다의 물결이 울렁울렁 흔들리는 날씨라고 제보자는 설명했다. // 그것이 일레. 울렁쉬엔 헌 건 바당이 울렁울렁허는 거, 그것이 일레라이.(그것이 이레. '울렁쉬'라고 한 건 바다가 울렁울렁하는 거, 그것이 이레야.) 25 [태흥]

울안: 울타리 안이라는 뜻으로 '우영'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 울안이 시면이 울안에 강 놩이 임시 중싱이라도 부끄카부덴이 막 그 관을 잘 싼덴.('울안'에 있으면 '울안'에 가서 놔서 임시 짐승이라도 '부끄카부덴이' 막 그 관을 잘 싼다고.) 11 [함덕]

움트랑허다: 물체의 바닥이나 면이 우묵하게 쑥 들어간 모양이다. // 보시는 움트랑헌 게 보시인데.(보시기는 '움트랑헌' 게 보시기인데.) 03 [송당]

웃가름: 한경면 신창리 지명의 하나이다. // 엇언게. 이디 우인 웃가름이엔 헤낫주게. 상동은. 웃가름이엔 헤난디 이젠 상동이엔 ᄀᆞᆯ아.(없어. 여기 위엔 '웃가름'이라고 했었지. '상동'은. '웃가름'이라고 했었는데 이젠 '상동'이라고 말해.) 26 [신창]

웃가름: 한 마을에서 위쪽 지역을 말한다. // 동카름 서카름. ᄃᆞ시 웃가름 알가름 영 헤영 잇어낫는데 그런 방에덜이 다 잇어낫어마씨.('동카름' '서카름'. 또 '웃가름' '알가름' 이렇게 해서 있었었는데 그런 방아들이 다 있었었어요.) 29 [외도]

웃가름번: 한 마을에서 위쪽 마을 사람끼리 서로 교대로 마소를 돌보기 위해 조직된 모임이다. // 동카름번 서카름번 뭐 웃가름번도 뒈곡. ᄋᆞ라 개 뒐 수도 잇고.('동카름번' '서카름번' 뭐 '웃가름번'도 되고. 여러 개 될 수도 있고.) 29 [외도]

웃걸름: 농작물 위에다 하는 거름을 말한다. // 웃걸름으로는 요즘 우리 비료에 물탕 쓰듯이.('웃걸름'으로는 요즘 우리 비료에 물 타서 쓰듯이.) 03 [송당]

웃굴왓: 구좌읍 한동리 지명의 하나이다. // 웃드르에 저 웃굴왓이엔 헌 디 그디서 살다가 지금 이 부락에 와서 지금 제일 광김이 아주 역사가 조씨, 좌씨 그다음 광김이.('웃드르'에 저 '웃굴왓'이라고 하는 데 거기서 살다가 지금 이 부락에 와서 지금 제일 '광김'이 아주 역사가 조씨, 좌씨 그다음 '광김'이.) 12 [한동]

웃도릉: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지명 중 하나이다. // 소위 벵딧까름동네, 성안동네, 남문동네, 웃도릉 웃동네 ᄒᆞ문, 장만이동산, 아 요런 이 저 동네별로 허문은 거이 접이나 계가.(소위 '벵딧까름동네', '성안동네', '남문동네', '웃도릉' 윗동네 하면, '장만이동산', 아 요런 이 저 동네별로 하면은 거의 '접'이나 계가.) 04 [고성]

웃동네: 마을 중심에서 위쪽 마을을 가리킨다. // 자연부락은 웃동네 싯고, 알동네, 또 저

동카름, 배릿골, 지금은 또 중간에 이제 저 대흥동이라고 한질 웃동네 거기 생겨나고, 겡 허연 각 자연부락은 그렇게 헹 이제 생겨나십주게.(자연부락은 '웃동네' 있고, '알동네', 또 저 '동카름', '배릿골', 지금은 또 중간에 이제 저 '대흥동'이라고 한길 '웃동네' 거기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각 자연부락은 그렇게 해서 이제 생겨났지요.) 28 [구엄]

웃동네: 서귀포시 토평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이다. // 겡 헤 와도 누게 마중헐 사람 베랑 엇이민 그 ᄆᆞᆫ 놈 주멍 허고 시아방네 졍 오민 ᄆᆞᆫ 안네 불고 기자 졍 오멍도 사름덜 보민 기자 허는 것카 부덴 매날, 졍 오단 보민, 우리 웃동네 살앗주게.(그래서 해 와도 누가 '마중헐' 사람 별로 없으면 그 모두 남 주면서 하고 시아버지네 지고 오면 모두 드려 버리고 그저 지고 오면서도 사람들 보면 그저 하는 것일까 봐 맨날, 지고 오다가 보면, 우리 '웃동네' 살았지.) 31 // 경헤근에 소 잇인 사름은 ᄆᆞᆫ딱 헤영 이 부근 ᄆᆞᆫ딱 헌다게. 또 다른 동네, 섯동네레 섯동네, 웃동네레 웃동네. 우리 동알동네주, 이디가.(그래서 소 있는 사람은 모두 해서 이 부근 모두 한다. 또 다른 동네, '섯동네'에 '섯동네', '웃동네'에 '웃동네'. 우리 '동알동네'지, 여기가.) 31 [토평]

웃드레: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 이루어진 마을을 말하는데 '웃드르'라고도 한다. // 내령 웃드레 수망리가 더 무시거 헷는디, 저레 내려불고 그 시철에가 우리가 여레슷?(내려서 '웃드레' 수망리가 더 무엇 했는데, 저리로 내려버리고 그 시절에 우리가 열여섯?) 15 [수망]

웃드르: '위'와 '들판'이 합쳐진 복합어이지만 여기서는 삼달 본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 경헹 탁 웃드르나시 떵 놔둬 이젠 또 그걸 또 수정 하민 더러 먹을 사름은 먹고 안 먹을 사름은 안 먹곡 허난게.(그렇게 해서 탁 '웃드르' 몫 떠서 놔두고 이젠 또 그걸 숫자 많으면 더러 먹을 사람은 안 먹고 안 먹을 사람은 안 먹고 하니까.) 11 [함덕]

웃드르: '한라산이 있는 쪽 들, 또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마을'을 뜻한다. // 웃드르니까 배 허는 사름덜은 엇어.('웃드르'니까 배 하는 사람들은 없어.) 01 // 웃드른 돈이 안 뒈니까게, 것이 버는 거난.('웃드르'는 돈이 안 되니까, 그것이 버는 거니까.) 11 // 웃드르덜은 보리 갈고 따시 또 여름 나민 웃드르 궂인 밧듼 산뒤 갈고 따시 또 궂인 밧듼 피 ᄇᆞᆯ리고 좋은 밧듼 조 ᄇᆞᆯ리고.('웃드르'들은 보리 갈고 다시 또 여름 나면 '웃드르' 궂은 밭엔 밭벼 갈고 다시 또 궂은 밭엔 피 밟고 좋은 밭엔 조 밟고.) 13 // 엿날엔 짇을거 허레이 솔잎 걷으레 웃드르 올라가주.(옛날엔 땔감 하러 솔잎 걷으러 '웃드르' 올라가지.) 25 [고내, 고산, 구억, 구엄, 남원, 노형, 대림, 대평, 덕수, 도련, 동광, 봉성, 삼달, 성읍, 세화, 송당, 신도, 신창, 온평, 외도, 인성, 태흥, 표선, 하원, 함덕]

웃드리: 한라산이 있는 쪽 들, 또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마을을 뜻한다. '웃드르'라고도 한다. // 헤벤더레는 웃드리, 헤벤 허는 식으로 웃드리는 그런 뜬땅이 하.(해변으

로는 '웃드리', 해변 하는 식으로 '웃드리'는 그런 '뜬땅'이 많아.) 11 // 헹 먹지. 우에 강 사당은에 웃드리 강.(해서 먹지. 위에 가서 사다가 '웃드리' 가서.) 21 // ᄆᆞᆯ은 웃드리 우리 하르방네. ᄆᆞᆯ은 이디서 못 질룬다. 대개 ᄆᆞᆯ 신 사름덜은 목장더레 올리주.(말은 '웃드리' 우리 할아버지네. 말은 여기서 못 기른다. 대개 말 있는 사람들은 목장으로 올리지.) 26 // 걸 ᄇᆞᆨᄇᆞᆨ 허영은에 벳디 ᄆᆞᆯ리왕 거 헷당은에 허믄 구덕이영 뭐 쉐영 져당 웃드리에 강 곡식에도 ᄉᆞᆯ도 받앙 보리영 바꽝 허곡 뭐 허곡 협주게.(걸 박박 해서 볕에 말려서 거 했다가 하면 구덕이랑 뭐 소랑 져다가 '웃드리'에 가서 곡식에도 쌀도 받아서 보리랑 바꿔서 하고, 뭐 하고 하지요.) 28 [구엄, 대림, 덕수, 신창, 신촌, 옹포, 외도, 함덕]

웃마치: 짐을 질 때 본 짐 위에 별도로 얹어 놓는 짐을 말한다. // 게영 웃마치를 거 똥글락헌 거 ᄒᆞ꼼 족게 헌 거를 놩은에 또 무껑은에 오는 거주. 웃마치렌 헨.(그래서 '웃마치'를 거 똥그란 거 조금 작게 한 거를 놔서 또 묶어서 오는 거지. '웃마치'라고 해서.) 29 [외도]

웃밧: '윗밭'의 뜻으로 조간대 위쪽을 말한다. // 보멀 게난 뭐 무슨 뭐 수들이보멀도 잇고 먹보멀도 잇고 웃밧에는 셍이보멀도 잇고 뭐 무슨 저 뭐 아주 많아. 보멀도 그 그렇게 헤 가지고 그거를 잡아다가 그 보멀 종류도 다 먹어.(고둥 그러니까 뭐 무슨 뭐 두드럭고둥도 있고 밤고둥도 있고 '웃밧'에는 '셍이보멀'도 있고 뭐 무슨 저 뭐 아주 많아. 고둥도 그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잡아다가 그 고둥 종류도 다 먹어.) 27 // 그 마을 사람들이 내려가서 말이여 영 보면은 말이여 ᄆᆞᆷ 올라왓저 허면은 내려가 가지고 말이여 강 말이여 다 지어오곡 말이여 웃밧에 올려가지고 말이여 말려 가지고 또 집으로 가져오곡.(그 마을 사람들이 내려가서 말이야 이렇게 보면 말이야 모자반 올라왔어 하면 내려가 가지고 말이야 가서 말이야 다 지어오고 말이야 '웃밧'에 올려가지고 말이야 말려 가지고 또 집으로 가져오고.) 27 [옹포]

웃밧: 바다에 대립되는 들을 가리킨다. 바다가 아닌 들에서 하는 일을 말할 때 '웃밧디 일'이라고 한다. // 견디 우린 ᄀᆞ이서만 헌디 난 막 어난 우이, 웃밧디서 질 못 젼딘 일이라도, 뒌 일이라도 웃밧디서 일허주 난 물에 강 물질 안 허켄 헤낫주기게.(그런데 우린 가에서만 하는데 난 아주 추우니까 위에, '웃밧'에서 제일 못 견디는 일이라도, 힘든 일이라도 '웃밧'에서 일하지 난 물에 가서 물질 안 하겠다고 했었지.) 26 [신창]

웃베락고롱: 제주시 노형동의 지경 이름이다. // 아이구, 어떵사 겁이 나신디이. 경헤연 저디 웃베락고롱 너 알아지나?(아이고, 어떻게 겁이 났는지. 그래서 저기 '웃베락고롱' 너 아니?) 30 [노형]

웃벵일: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이다. // 웃벵일은 멧 사람, 멧 가구 엇네. 게난 하나네.('웃벵일'은 몇 사람, 몇 가구 없지. 그러니까 하나지.) 30 // 야넨 벵일이, 일름이 웃벵일이, 우린 알벵일이야.(얘네는 '벵일이', 이름이 '웃벵일이',

우린 '알벵일이'야.) 30 [노형]

웃봉: 손대기 전에 맨 처음 뜨거나 덜어내는 것을 말한다. // 막걸리로 먹고 우에 거는 청주로 헤서 고급손님이나 집이 제사 때에는 웃봉으로 헤서 이제 제주로 쓰고.(막걸리로 먹고 위에 거는 청주로 해서 고급손님이나 집에 제사 때에는 '웃봉'으로 해서 이제 제주로 쓰고.) 19 [청수]

웃산전: 위를 의미하는 '웃'과 들판을 의미하는 '산전'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 또로 저디 가민 웃산전이엔 헹 그디도 방에 부쪙 소 키우고 경헷주. 저을에는 저 집이 메당.(또 저기 가면 '웃산전'이라고 해서 거기도 '방에' 붙여서 소 키우고 그랬었지. 겨울에는 저 집에 매다가.) 02 // 이제 소덜도 경 난장에 놩 아이 질루고 허난. 옛날은 이디도 알산전도 불 부쪙 쉐 키우고 또로 저디 가민 웃산전이엔 헹 그디도 방에 부쪙 소 키우고 경헷주.(이제 소들도 그렇게 '난장'에 놓고 안 기르고 하니까. 옛날은 여기도 '알산전'도 불 붙여서 소 키우고 또 저기 가면 '웃산전'이라고 해서 거기도 '방에' 붙여서 소 키우고 그렇게 했었지.) 02 [선흘]

웃삼달리: 위쪽에 있는 성산읍 삼달리 마을을 뜻하는 것으로 지금의 삼달1리를 말한다. // 삼달린디 웃동넨 저 시방은 1리, 2리 헤도 웃삼달리, 알삼달리.(삼달리인데 윗동네 시방은 1리, 2리 해도 '웃삼달리', '알삼달리'.) 13 [삼달]

웃성지: 안덕면 사계리 앞 바다에 있는 형제섬의 부분 지명이다. // ᄇᆞ레보난에 저 섯성지로 보난에, 섯성지 들언 영 보난, 웃성지ᄁᆞ지 영 보난에, 아 갓돔덜이 그자 ᄒᆞ나씩 둘씩 들엇닥 나왓닥 ᄒᆞ여.(봐보니까 저 '섯성지'로 보니까, '섯성지'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웃성지'까지 이렇게 보니까, 아, '갓돔'들이 그저 하나씩 둘씩 들었다가 나왔다가 해.) 17 [대평]

웃수영: 제주시 도련동 지명의 하나이다. // 요쪽으로 다시 서쪽으로 똑허게 이 저 마을, 마을로 들어오면은 이제 웃수영이라고 허는 곳이 있는데.(요쪽으로 다시 서쪽으로 '똑허게' 이 저 마을, 마을로 들어오면 이제 '웃수영'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01 [도련]

웃숭물: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지명이다. // 저 웃숭물엔 헌 디 가면은 큰 돌덜 얽혀진 디.(저 '웃숭물'이라고 한 데 가면은 큰 돌들 얽혀진 데.) 32 [덕수]

웃음벨탁: 여러 사람이 한바탕 웃는 것을 말한다. // 헉 벙뎅기 싯곡 그자 그 상뒤 어른들 올랑들 막 웃음벨탁 허멍 허여불민 그 헤 구물엉 새해에 또시 새 비엉 ᄒᆞᆫ 번 일민 두 해에 ᄒᆞᆫ 번.(흙 덩어리 있고 그저 그 향도 어른들 올라서들 막 '웃음벨탁' 하면서 해버리면 그 해 그물어서 새해에 또 띠 베어서 한 번 이면 두 해에 한 번.) 33 [인성]

웃절: 위쪽을 위치한 절을 말한다. // 웃절이엔 헌 절이 저 골머리로 쑥, 산봉우리 올라가민 있어.('웃절'이라고 하는 절이 저 '골머리'로 쑥, 산봉우리 올라가면 있어.) 30 [노형]

웃지방: 문 위에 가로로 대는 인방을 말한다. 문 위에 있는 문지방이어서 '웃지방'이라고 하

였다. // 입젱이라고 허는데, 입젱이 웃지방 알지방.('입젱이'라고 하는데, '입젱이' '웃지방' '알지방'.) 01 [도련]

웃토산: 위쪽의 토산리를 말한다. 토산리는 '웃토산'과 '알토산'으로 나뉘는데, 웃토산은 산간 방면의 토산리를 가리킨다. // 웃토산에 ᄒᆞᆫ 사름 잇수다. ᄒᆞᆫ 구십 난 사름.('웃토산'에 한 사람 있습니다. 한 구십 된 사람.) 05 [표선]

웃할머님: 여기에서 '할아버지의 누님'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 것 같다. // 그 문헌상에 보면은 저 왕고모님은 그 웃할머님이고.(그 문헌상에 보면은 저 왕고모님은 그 '웃할머님'이고.) 01 [도련]

웅클랑허다: 움푹한 모양을 흉내낸 말이다. // 암첨북은 영 베짝허고 수컨 영 웅클랑허주게, ᄉᆞᆯ도 거멍허고.('암첨북'은 '베짝허고' 수컷은 이렇게 '웅클랑허주게'. 살도 거멓고.) 13 [삼달]

워가: 미루지 않고 곧을 뜻한다. '워ᄀᆞ라'라고도 한다. // 고무옷 안 입은 떼는 가민 그자 워가 들어갓당 나와야주 경.('고무옷' 안 입은 때는 가면 그저 곧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그렇게.) 04 [고성]

워가라: 미루지 않고 곧의 의미로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는 감탄사이다. '어가라', '어ᄀᆞ라' 등으로도 나타난다. // 부룽이 나민 이제 워가라 사레 와. 금싱인 때.(부룩소 나면 이제 '워가라' 사러 와. '금싱'일 때.) 02 [선흘]

워니: 술래를 뜻하는 일본어 '오니(鬼)'를 말한다. // 술래를 보통 워니렌 헤낫주. 워니가 일본말.(술래를 보통 '워니'라고 했었지. '워니'가 일본말.) 07 [보목]

원: 뜻밖의 일에나 놀라울 때, 언짢을 때 따위에 느꺼워 하는 말이다. // 그난 곱전, 알민 파 가불카부덴이? 메날 그거 원.(그러니까 숨겨서, 알면 파서 가버릴까 봐? 매일 그거 '원'.) 07 // 일본사람들은 딱 허믄 원, 면에서 와서 그 주로 이제 그 주재소.(일본사람들은 딱 하면 '원', 면에서 와서 그 주로 이제 그 주재소.) 07 [보목]

원: 해변 조간대(潮間帶)에 만(灣)을 이루는 듯한 곳에 돌담을 축조해 놓고 밀물을 따라 몰려든 고기떼를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 놓아 쉬 잡을 수 있게 장치해 둔 곳이다. '원담' 또는 '갯담'이라고도 한다. // 이 바당에도 이 원 안에 영 싯나, 물덜 잘 안 빠졍.(이 바다에도 이 '원' 안에 이렇게 있어, 물들 잘 안 빠져서.) 10 // 원은 그 옛날에는 그것이 들어왕 이디 담이 다와졋저, 갯담이라고.('원'은 그 옛날에는 그것이 들어와서 여기 담이 쌓였어, '갯담'이라고.) 12 // 멜이 만약에 이 원에 들어오면은. 물이 내려가면은 그것이 원담에서 거려져낫주게게.(멸치가 만약에 이 '원'에 들어오면. 물이 내려가면 그것이 '원담'에서 '거려져낫주게게'.) 18 // 다와 두면은 원에는 그 물 들어올 때는 고기 들어왓다가 싹 나가지 못헹은에 것이 걸어지믄 잡곡, ᄯᅳ로 멜 ᄀᆞ뜬 것도 원에 들고, 경 헤낫수다.(쌓아 두면은 '원'에는 그 물 들어올 때는 고기 들어왔다가 싹 나가지 못해서 그것이 걸리면 잡고, 또 멸치 같은 것도 '원'에 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35 [구엄, 남원, 대림, 덕수, 신도, 외도, 우도, 월령, 한동]

원남갯궤: 표선면 성읍1리 지경에 있는 자연 동굴의 하나이다. // 굴은 너분못궤 잇고, 소젱잇궤 잇고, 또 원남갯궤 잇고 그게 그게. 생이궤엔 헌 디가 잇는디 생이궤는 우로 들어가곡 우로 나오는벳기는 못허는 궤가 잇어.(굴은 '너분못궤' 있고, '소젱잇궤' 있고, 또 '원남갯궤' 있고 그게 그게. '생이궤'라고 한 데가 있는데 '생이궤'는 위로 들어가고 위로 나옴밖에는 못하는 굴이 있어.) 14 [성읍]

원낭갯궤: 표선면 성읍1리 지경에 있는 자연 동굴의 하나이다. // 다른 궨 이디 넓은궤 잇고, 수젱잇궤 잇고 원낭갯궤 잇고.(다른 굴은 이디 '넓은궤' 있고, '수젱잇궤' 있고 '원낭갯궤' 있고.) 14 [성읍]

원내창: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원물'의 냇가이다. // 원내창이라고 해서 저 아까 ᄀᆞᆯ은 내창, 거기 ᄋᆞ름에 이제 거 장마지믄 내 터집주게.('원내창'이라고 해서 저 아까 말한 내. 거기 여름에 이제 거 장마지면 내 터지지요.) 28 [구엄]

원단이ᄆᆞ루: 제주시 도련동 지명의 하나이다. '원단이', 'ᄆᆞ루'의 합성어로, 'ᄆᆞ루'는 표준어 마루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 원단이ᄆᆞ루에는 그 묘덜토 써버리고 뭐허니깐 이젠 마을회관에서 이제 젤 지내고.('원단이ᄆᆞ루'에는 그 묘들도 써버리고 뭐하니깐 이젠 마을회관에서 이제 젤 지내고.) 01 [도련]

원담: 해변 조간대에 만을 이루는 듯한 곳에 돌담을 축조해 놓고 밀물을 따라 몰려든 고기떼를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놓아 쉬 잡을 수 있게 장치해 둔 곳을 말한다. '원'이라고도 한다. // 바다에 원담도 잇엇주. 삼양삼동에도 잇엇고. 일동더레도 잇엇고, 삼동에 잇는 건 확실헌디 이 삼, 삼동에도 둬 군데 잇어낫어.(바다에 '원담'도 있었지. '삼양삼동'에도 있었고. 일동으로도 있었고, 삼동에 있는 건 확실한데 이 삼, 삼동에도 둬 군데 있었었어.) 01 // 원담 여기 잇어낫수다. 저 기운이 옌 ᄒᆞᆫ 듸, 원담이옌 ᄒᆞᆫ 거 잇어낫는디, 다 이거 바당의 멧 번 쎈 날은 자꾸 멜라져근에 끗어가곡, 끗어가곡 ᄒᆞ연 엇어져.('원담' 여기 있었었습니다. 저 '기운'이라고 한 데, '원담'이라고 한 거 있었었는데, 다 이거 바다가 몇 번 센 날은 자꾸 무너져서 '끗어가곡', '끗어가곡' 해서 없어져.) 17 // 막 엿날엔 그자 저 원담에 엿날엔 그 멜은 만이 들어낫주게, 멜덜.(아주 옛날엔 그저 저 '원담'에 옛날엔 그 멸치는 많이 들었었지, 멸치들.) 20 // 그, 그 말 거. 게난 에이구, 숭에 튀당 복쟁이 튀당 원담에 배 채여정 죽고.(그, 그 말 거. 그러니까 에이구, 숭어 뛰다가 복어 튀다가 '원담'에 배 찢어져서 죽고.) 21 [고내, 구억, 대평, 도련, 세화, 신창, 신촌, 옹포, 외도, 월령, 태흥, 토평, 표선, 하원]

원댕이드르: 구좌읍 송당리의 한 지명이다. // 이딘양, 저 대천동 우에 원댕이드르, ᄎᆞ낭밧이라고. ᄀᆞᆫ지 안헙디까? 초기 나무가 ᄎᆞ남이라.(여기는요, 저 '대천동' 위에 '원댕이드르', 'ᄎᆞ낭밧'이라고. 말하지 않습디까? 버섯 나무가 'ᄎᆞ남'이야.) 03 [송당]

원동산: 애월읍 구엄리에 물이 나는 지명이다. // 구엄은 물이 나빵 옛날부터 물이 경 좋지 아니허영 헙디다게. 사름은 하 밧자 저 물이 나빠. 다 원동산 가곡 모감물 가곡.('구엄'은 물이 나빠서 옛날부터 물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합디다. 사람이 많

아 봐야 저 물이 나빠. 다 ‘원동산’ 가고 ‘모감물’ 가고.) 28 // 옛날에 원물이옌 헤 가지고 물이 제우 먹는 물 나곡 허는 디, 이제 저 원동산, 그 물벳긴 그 ᄉᆞ방엔 엇어마씨. 그 물 하나로 나룩을 다 허는디 이쪽에 그저 우리 깍에는 허단 버치난 물통 판, 어떵 헙니까?(옛날에 ‘원물’이라고 해 가지고 물이 겨우 먹는 물 나고 하는데, 이제 저 ‘원동산’ 그 물밖에는 그 사방에는 없어요. 그 물 하나로 벼를 다 하는 데 이쪽에 그저 우리 끝에는 하다가 부치니까 ‘물통’ 파서 어떻게 합니까?) 28 [구엄]

원물: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물이다. // 비가 밤이 와도 걱정, ᄀᆞ물아 가믄 이거 어떵 물 대코 허는디, 겐디 거기서도 막 원물이옌 허영 요렇게 물꼬 허멍 ᄎᆞ례 대기가 싯수다. ᄆᆞᆫ제 거 원물 ᄆᆞᆫ제 거 나오는 디가 첫째 ᄎᆞ례라.(비가 밤에 와도 걱정, 가물어 가면 이거 어떻게 물 댈까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마구 ‘원물’이라고 해서 요렇게 물꼬 하면서 차례 대기가 있어요. 먼저 거 ‘원물’ 먼저 거 나오는 데가 첫째 차례야.) 28 [구엄]

원물오름: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오름이다. // 동남쪽으로 가민 머리에진오름이 잇곡, 또 그 조금 우의로 가민 미오름이 잇곡, 또 넘어사면은 족은다비오름이 잇곡, 원물오름이 잇곡.(동남쪽으로 가면 ‘머리에진오름’이 있고, 또 그 조금 위로 가면 ‘미오름’이 있고, 또 넘어서면 ‘족은다비오름’이 있고, ‘원물오름’이 있고.) 08 [동광]

원장내: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내 이름이다. // 동굴은 없어. 서쪽 가면은 또 원장내.(동굴은 없어. 서쪽 가면은 또 ‘원장내’.) 30 [노형]

월대: 제주시 외도2동에 있는 지명이다. // 외도일동 이 경계가 그 월대 그 저 내.(‘외도일동’ 이 경계가 그 ‘월대’ 그 저 내.) 29 // 거긴 엇고, 거긴 엇고 이번 월대에서 행사헐 때 책 이실 건디.(거긴 없고, 거긴 없고 이번 ‘월대’에서 행사할 때 책 있을 건데.) 29 [외도]

월대동: 제주시 외도동의 자연 마을의 하나이다. ‘월대’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 옛날은 헌디 우린 센하르바님 ᄯᆞᆯ이 저 이 월대동에 그디 저 뭐헌 어른이 션에 허연 영헤연 살아신디 우리 집이[지빈] 아방이 그때 시절에 우리 스물 난 스물둘에 우리 집이[지빈] 아방은 스물닛에 결혼을 헤신디.(옛날은 했는데 우린 ‘센하르바님’ 딸이 저 이 ‘월대동’에 거기 저 뭐한 어른이 있어서 해서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우리 집이 아방’이 그때 시절에 우리 스물 되어서 스물둘에 ‘우리 집이 아방’은 스물넷에 결혼을 했는데.) 29 [외도]

월대왓: 제주시 외도동의 자연 마을의 하나이다. ‘월대’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 저 아까 헷지마는 저번에 절물 월대왓에서 헐 때 그 부락이고.(저 아까 했지만 저번에 ‘절물’ ‘월대왓’에서 할 때 그 부락이고.) 29 [외도]

월라: 털빛이 얼룩덜룩한 말인 ‘월라ᄆᆞᆯ’을 가리키는 말이다. 표준어 얼룩말에 대응한다. // 가라ᄆᆞᆯ이나 적다ᄆᆞᆯ은 분간이 뒈는데 월라 같은 것도 분간이 뒈는데.(‘가라ᄆᆞᆯ’이나 ‘적다ᄆᆞᆯ’은 분간이 되는데 ‘월라’ 같은 것도 분간이 되는데.) 03 // 월라는 흰 털

에 노린 털 박아진 거.('월라'는 흰 털에 노란 털 박힌 거.) 14 [성읍, 송당]

월라ᄆᆞᆯ: 털빛이 얼룩얼룩한 말이다. '월라'라고도 한다. // 또로이 얼룩빼기ᄀᆞ란 월라ᄆᆞᆯ. 노린 건 적다ᄆᆞᆯ.(또 얼룩빼기보고는 '월라ᄆᆞᆯ'. 노란 건 '적다ᄆᆞᆯ'.) 02 // 얼룩쉐. 얼룩송아지, 얼룩쉐. ᄆᆞᆯ도 마찬가지 월라ᄆᆞᆯ. 영헤여.(얼룩소. 얼룩송아지. 얼룩소. 말도 마찬가지. '월라ᄆᆞᆯ'. 이렇게 해.) 03 [선흘, 송당]

월라봉: 안덕면 대평리 지경에 있는 오름이다. // 오름은 월라봉에 굴도 잇고, 저 군산에도 굴 이서.('오름'은 '월라봉'에 굴도 있고, 저 '군산'에도 굴 있어.) 17 [대평]

월랑: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이다. // 떡을 ᄒᆞᆫ 번도 아니 헤 와. 게난 사기펭 요만헌 거 두 벵들이 납작한 펭, 사기펭 걸로 청주이, 청주 그거 ᄒᆞ나 헤당 상에 딱 올령. 다랑굿이난 다랑굿도 가깝주게. 월랑서, 월랑서 요 우이.(떡을 한 번도 안 해 와. 그러니까 사기병 요만한 거 두 병들이 납작한 병, 사기병 걸로 청주, 청주 그거 하나 해다가 상에 딱 올려서, '다랑굿'이니까 '다랑굿'도 가깝지. '월랑'에서, '월랑'에서 요 위에.) 30 // 문씨는 정존이 많고 현씨는 월랑이 많고.(문씨는 '정존'이 많고 현씨는 '월랑'이 많고.) 30 [노형]

월산: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이다. // 원장내라고 서쪽더레 가민 월산더레 내창이 또 잇고.('원장내'라고 서쪽으로 가면 '월산'으로 내가 또 있고.) 30 [노형]

월월: 소나 말을 멈추게 하거나 가만히 있으라는 뜻으로 달래는 소리이다. // 월월 소리 나 가민 이것이 밧 ᄇᆞᆯ리는 걸 ᄆᆞᆯ도 알아 가지고서 벵 벵 벵 벵 그 사람이 멩령에 따랑, 소리에 따랑 ᄆᆞᆯ도 움직이주게.('월월' 소리 나 가면 이것이 밭 밟는 걸 말도 알아 가지고서 뱅 뱅 뱅 뱅 그 사람이 명령에 따라서, 소리에 따라서 말도 움직이지.) 12 // ᄆᆞᆯ 임제가 앞이 사 가지고 월월 허면서 헤 가면 주루룩허게 ᄆᆞᆯ이 따라오주게.(말 임자가 앞에 서 가지고 '월월' 하면서 해 가면 주루룩하게 말이 따라오지.) 12 [한동]

월호락: 구좌읍 송당리의 한 지명이다. // 복원은 안 헤도 그 위치 그대로 놩 놔둬십주. 모르주게. 월호락이옌 ᄒᆞᆫ 디.(복원은 안 해도 그 위치 그대로 놓고 놔두었지요. 모를테지. '월호락'이라고 하는 곳.) 03 [송당]

웡덩덩: 방아를 찧으면서 내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 막 소리 힘으로 허고 또 방아 질 때는 웡덩덩 허멍 우리 어머니는 친정 어무니는 소리가 좋으니까.(아주 소리 힘으로 하고 또 방아 찧을 때는 '웡덩덩' 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친정어머니는 소리가 좋으니까.) 06 [남원]

웡이 자랑: 아이를 재울 때 부르는 자장가의 후렴 부분이다. // 아기구덕 흔들 때도. 에, 경허주. 초사흘에 지곡하신 할마님아, 초일뤠에 지곡하신 할마님아, 초 아흐레에 지곡하신 할마님. 웡이 자랑 웡이 자랑, 웡이.(아기구덕 흔들 때도, 에, 그렇게 하지. 초사흘에 지극하신 할머님아, 초이레에 지극하신 할머님아, 초아흐레에 지극하신 할머님. '웡이 자랑' '웡이 자랑', '웡이'.) 03 [송당]

웨낭썹: 미역을 포개지 않고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 이딘 웨낭썹 헤도 그딘 이 이 책 너베기만썩 두껍게 그레 부쩍 부쩍 허멍.(여긴 '웨낭썹' 해도 거긴 이 이 책 너비만큼씩 두껍게 그리 붙이고 붙이고 하면서.) 26 [신창]

웨놀베기: 톱날이 좀 크고 굵은 톱을 말한다. // 낭 끊는 톱은 웨놀베기로 헤 가지고 그건 그 저 톱날이 좀 굵읍니다.(나무 자르는 톱은 '웨놀베기'로 해 가지고 그건 그 저 톱날이 좀 굵습니다.) 35 // 산에 강 베는 톱은 보통 웨놀베기로 헤 가지고 씁니다.(산에 가서 베는 톱은 보통 '웨놀베기'로 해 가지고 씁니다.) 35 [대림]

웨동촐: 꼴의 단을 만들 때, 한쪽으로만 놔서 묶을 수 있을 만큼 긴 꼴을 말한다. // 긴 건 웨동촐엔 허고.(긴 건 '웨동촐'이라고 하고.) 29 [외도]

웨따비: 날이 하나로 이루어진 따비를 말한다. // 여긴 쌍따빈 안 ᄒᆞ곡 웨따비로.(여긴 '쌍따비'는 않고 '웨따비'로.) 16 [하원]

웨말떼기: 쌀 한 말 들이 솥을 말한다. // 우리 집이 보통 두말떼기로 하나 웨말떼기로 하나 그렇게 헤낫주.(우리 집에 보통 '두말떼기'로 하나 '웨말떼기'로 하나 그렇게 했었지.) 12 [한동]

웨말치: 솥 중에서 한 말이 드는 것으로 보통 밥을 해 먹는다. // 웨말친 보통으로 밥헤 먹는 거고 서말치는 막 큰일 때에 이제 밥 하영 허는 거.('웨말치'는 보통으로 밥해 먹는 거고 '서말치'는 아주 큰일 때에 이제 밥 이렇게 하는 거.) 02 // 술 다끌 ᄒᆞᆫ 뒷젠 헤영 이제 엿날은 웨말치 솟이 이서.(술 고을 한 되었다고 해서 이제 옛날은 '웨말치' 솥이 있어.) 11 // 웨말친 따씨 족은 거 그자 밥헹 먹는 거 두어 개 앚지곡.('웨말치'는 다시 작은 거 그저 밥해서 먹는 거 두어 개 안치고.) 13 [삼달, 선흘, 함덕]

웨밀ᄀᆞ르: 토종밀가루에 빗대서 국외에서 들어온 밀가루를 통칭하는 말이다. // 밀ᄀᆞ르는 그때 배급인가 무시거 헤근엥에 웨밀ᄀᆞ르 웨밀ᄀᆞ르 허멍 그 어디서만 들어오는 거.(밀가루는 그때 배급인가 무엇 해서 '웨밀ᄀᆞ르' '웨밀ᄀᆞ르' 하면서 그 어디서만 들어오는 거.) 23 [온평]

웨바위: 바지 단을 접어서 바느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겹으로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 여름 거는 이거 웨바위, 일로도 웨바위 절로도 웨바위허난 꼬아지는 덕분에 잘 안 허는 거라.(여름 거는 이거 '웨바위', 이리로도 '웨바위' 저리로도 '웨바위' 하니까 꼬아지는 덕분에 잘 안 하는 거야.) 11 // 엿날엔 그냥 그자 웨바위 지금 이것추룩 일로 뒷바농질만 허는 거여, 이거 다.(옛날엔 그냥 그저 '웨바위' 지금 이것처럼 이리로 박음질만 하는 거야, 이거 다.) 25 [태흥, 함덕]

웨방 물질: 해녀들이 일정 시기가 되면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지내며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육지 물질'이라고도 한다. // 웨방 물질이라고, 육지 물질이엔도 헌다.('웨방 물질'이라고, '육지 물질'이라고도 한다.) 12 [한동]

웨벳떼기: 밭갈이 방법의 하나로 이랑을 쟁기로 한 번 갈아서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ᄒᆞᆫ벳떼기'라고도 한다. // 게난 보통 두, 보통은 그 웨벳떼기가 잇고이. ᄒᆞᆫ 번 가난

따시 영 오민 이것이 ᄒᆞᆫ 판, 우리말로 ᄒᆞᆫ 파니가.(그러니까 보통 두, 보통은 그 '웨벳떼기'가 있고. 한 번 가니까 다시 이렇게 오면 이것이 한 판, 우리말로 한 이랑이.) 12 [한동]

웨부치다 : 떨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 붙이는 것을 말한다. // 겐 두드리멍 웨부치멍 헌 디 원인이 우리가 헤 보난 딱 불 골이 안 살믄 원인게.(그래서 두드리면서 '웨부치멍' 하는데 원인이 우리가 해 보니까 딱 불 골이 안 살면 원인이야.) 26 [신창]

웨솟: 일본에서 만든 솥이다. // 웨솟디로 죽을 그자 불탁불탁 ᄒᆞᆫ 솟을 속빡 쒄. 곤ᄉᆞᆯ에 좁ᄉᆞᆯ에 감저에 놩 죽을 쒄.('웨솟'에서 죽을 그저 '불탁불탁' 한 솥을 '속빡' 쑤었어. 흰쌀에 좁쌀에 고구마에 넣어서 죽을 쑤었어.) 04 // 가메솟은 건 뭐인가 웨솟이엔 헤 가지고서 그건 기자 쒜로 만든 거라부난 그냥 타불엉 보끄질 못헤.(가마솥은 건 뭐인가 '웨솟'이라고 해 가지고서 그건 그저 쇠로 만든 거여서 그냥 타버려서 볶질 못해.) 12 // 웨솟은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거기서 밥허영 먹어.('웨솟'은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거기서 밥해서 먹어.) 14 [고성, 성읍, 한동]

웨쌀오리: '여물이 많이 달리지 않은 쌀보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 옛날은 비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민 그 보리가 나면 요멘치 나근엥에 웨쌀오리라고 헤여. 영 허영 멧 알 헌 것ᄀᆞ라는.(옛날은 비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면 그 보리가 나면 요만큼 나서 '웨쌀오리'라고 해. 이렇게 해서 몇 알 한 것보고는.) 01 [도련]

웨장목: 옷감의 한 종류이다. // 그거는 어디 웨국에서 나온 거난 웨장목이엔 헤실 거라. 헤양헨 막 ᄌᆞᆷ진 거 잇어. 하양헹.(그거는 어디 외국에서 나온 거니까 '웨장목'이라고 했을 거야. 하얘서 아주 'ᄌᆞᆷ진' 거 있어. 하얘서.) 20 [고내]

웨출: '외국으로 수출하다'라는 의미로 쓴 말이다. // ᄆᆞᆯ은 옛날은 저거 웨출, 저거 웨국으로 수출뒌 아녓엇고. 순전히 이 저 이 밧 ᄇᆞᆯ릴 용이고 그 외에는 여기에서 그자 나이 들어가민 잡아먹는 것벳긔는.(말은 옛날은 저거 '웨출', 저거 외국으로 수출되지는 않았었고. 순전히 이 저 이 밭 밟을 용이고 그 외에는 여기에서 그저 나이 들어가면 잡아먹는 것밖에는.) 14 [성읍]

웬ᄀᆞ메기: 고둥의 일종이다. // ᄀᆞ메기는 젠젠헌 거 웬ᄀᆞ메기라고 잇고.(개울타리고둥은 자잘한 거 '웬ᄀᆞ메기'라고 있고.) 14 [성읍]

웬깍: 풀치마의 왼쪽 선단을 말한다. // 깍치마 허민 양반덜은 저 웬깍을 둘러낫젠 영 웨로.(풀치마 하면 양반들은 저 '웬깍'을 둘렀었다고 이렇게 '웨'로.) 29 [외도]

웬당봉: 제주시 삼양동 바닷가, 조천읍 신촌리와의 경계에 걸쳐진 오름이다. // 웬당봉이 반은 저 삼양이고 반은 신촌 거주.('웬당봉'이 반은 저 '삼양'이고 반은 신촌 거지.) 21 [신촌]

웬당알: '원당'과 '아래'의 합성어로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의 원당봉 아래 바닷가를 이르는 지명으로 쓰인다. // 서부론 가민 그 내창이 막 커난디이. 저딜로 웬당알로 돌려신가? 경 안 헤시믄 그 내가 이번에 우리 다 죽어.(서부론 가면 그 내가 막 컸었

는데. 저기로 '웬당알'로 돌렸는가? 그렇게 안 했으면 그 내가 이번에 우리 다 죽어.) 21 // 우리 저 웬당알ᄁᆞ지 물질허레 가와서. 그 할망.(우리 저 '웬당알'까지 물질하러 갔었어. 그 할머니.) 21 [신촌]

웬보말: 대롱고둥의 제주어이다. // 웬보말엔 헌 건이, 까망허연. 아마 감아진 게 웬쪽으로 감아진 거 같아.('웬보말'이라고 한 건, 까매서. 아마 감긴 게 왼쪽으로 감긴 거 같아.) 01 [도련]

웬보멀: 대롱고둥의 제주어이다. // 웬보멀이엔 헤. 육진 그거 다세기. 육진 다세기엔 헴실거라.('웬보멀'이라고 해. 육지는 그거 다슬기. 육지는 다슬기라고 하고 있을 거야.) 26 [신창]

웬싓: 반대 방향으로 꼰 새끼줄이다. 주로 무속에서 금줄로 사용된다. // 신이나 ᄃᆞᆯ아다 가지고 뭐 일을 넹겨 나면은 신을 방비허기 위허영 웬싓을 매는 거라.(신이나 데려가지고 뭐 일을 넘기고 나면 신을 방비하기 위해서 '웬싓'을 매는 거야.) 02 [선흘]

웬젱이: 제주시 노형동의 지경 이름이다. // ᄇᆞ른구덕도 줘 불고. 두 개나. 그 웬젱이 사는 사름. 이젠 그 사름 엇드라이.('ᄇᆞ른구덕'도 줘 버리고. 두 개나. 그 '웬젱이' 사는 사람. 이젠 그 사람 없더라.) 30 [노형]

웻그르: 참외나 물외 따위를 수확한 후의 자리를 말한다. // 그 웻그르에 ᄂᆞᄆᆞᆯ 잘 뒌다고 헤 가지고, 게문 밧 갈믄 ᄒᆞᆫ 발이여 난 두 발이여 헤 가지고 그 면적으로 헤영이. ᄂᆞ놩 상은에.(그 '웻그루'에 'ᄂᆞᄆᆞᆯ' 잘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밭 갈면 한 발이다 난 두 발이다 해 가지고 그 면적으로 해서. 나눠서 사서.) 29 [외도]

웽이: 바다 물고기의 한 종류이다. // 옛날 우리 어릴 덕이는 뭐 돔, 돔이다 북바리다 응 뭐 저 웽이다 아니면은 굼 구문젱이이다 아니면 다금바리다 헷는데예. 지금 구경을 못헤마씨. 완전 씨가 ᄆᆞᆯ라버려 가지고.(옛날 우리 어릴 적에는 뭐 돔, 돔이다 붉바리다 응 뭐 저 '웽이'다 아니면은 굼 '구문젱이'다 아니면 다금바리다 했는데요. 지금 구경을 못해요. 완전 씨가 말라버려 가지고.) 22 [우도]

윈오름: 남원읍 수망리 남조로변의 층혼묘지 서쪽에 있는 오름을 말한다. // 거 ᄀᆞ만히 그디 저 윈오름 나둬시민 우리 모셔오민 한글헐 건디.(거 가만히 거기 저 '윈오름' 놔뒀으면 우리 모셔오면 한가할 건데.) 15 [수망]

유도리: 일본어 'ゆとり'에서 온 말로, 표준어의 여유 또는 융통성의 의미로 쓰였다. // 게난 아무리 나가 이제 좋은 사름이 뒐라고 앨 써도 음이라는 게 잇어놓니까 그 자식 그, 꼭 나쁜 데만 찝, 찝엉근엥게 그걸 얘기허는 사람이 잇으니까 그걸 우리가 그 지혜를 갖추면은 아주 그 유도리 잇게.(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제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앨 써도 음이라는 게 있어놓으니까 그 자식 그, 꼭 나쁜 데만 짚, 짚어서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그 지혜를 갖추면 아주 그 '유도리' 있게.) 01 [도련]

유비: 골무를 뜻하는 일본어 'ゆびぬき'에서 따와서 쓴 말이다. '유비(ゆび)'는 일본어로 '손

가락'을 뜻한다. // 골무가 양복집의선 유비야.(골무가 양복집에선 '유비'야.) 01 [도련]

유빈상 가시라이데: 일제 강점기 때 고무줄놀이 하면서 부르던 노래이다. // 웨정 때 일본 말로 유빈상 가시라이데. 허멍 영영 뛰멍 그런 거 헤연.(일제강점기 때 일본말로 '유빈상 가시라이데'.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뛰면서 그런 거 했어.) 15 [수망]

유월절: 이십사절기 중 소서 안팎을 말한다. '소서'는 하지와 대서 사이에 들며, 양력 7월 7일 전후가 된다. // 보름 서 가민 또 검질 날 것도 다 나불곡 허민 또 조 ᄇᆞᆯ릴 시기 뒈민 유월절 가까와 가민 아이고 유월절이 메칠이다, 메칠날 조 ᄇᆞᆯ리게.(보름 있어 가면 또 김 날 것도 다 나버리고 하면 또 조 밟을 시기 되면 '유월절' 가까워 가면 아이고 '유월절'이 며칠이다, 며칠날 조 밟게.) 11 // 일토쯤 뒌 것은 그 유월절 삼일 전에, 이일 전에, 또 ᄒᆞ루 넘엉 허는 디도 잇고.('일토'쯤 된 것은 그 '유월절' 삼일 전에, 이일 전에, 또 하루 넘어서 하는 데도 있고.) 12 // 저 조 ᄀᆞ튼 건 저 유월절 가까워야 하는데, 하지 넘엉 하는데 산듸는 하지 전에 하주.(저 조 같은 건 저 '유월절' 가까워야 하는데, 하지 넘어서 하는데 밭벼는 하지 전에 하지.) 15 // 유월절 전후로 가는 거라이. 유월절 고비에 갈아. 유월절 한 삼 일 전이 가는 게 많아. 삼 일 전에, 유월절.('유월절' 전후로 가는 거야. '유월절' 고비에 갈아. '유월절' 한 삼 일 전에 가는 게 많아. 삼 일 전에. '유월절'.) 30 [남원, 노형, 성읍, 수망, 온평, 외도, 우도, 토평, 한동, 함덕]

유입: 표준어 들깻잎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들꿰는 유입이주게.(들깨는 '유입'이지.) 16 // 유입. 그 유입, 고칫입 거튼 거 헤다근에 ᄒᆞᆫ디 막 서껑 그레 ᄀᆞ루 놔근에 버물여근에 그거 ᄉᆞᆲ으멍 그레 버물여근에 거 반찬.('유입'. 그 '유입', 고춧잎 같은 거 해다가 함께 마구 섞어서 그리 가루 넣어서 버무려서 그거 삶으면서 그리 버무려서 거 반찬.) 31 [토평, 하원]

유죽: 들깨죽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 머 콩죽 머, 유죽, ᄆᆞ믈축도 헷고.(머 콩죽 뭐, '유죽', 메밀죽도 했고.) 16 [하원]

유챗그르: 유채를 심었다가 벤 자리를 말한다. // 유채를 간 다음에 유챗그르에는 고구마를 심엇고.(유채를 간 다음에 '유챗그르'에는 고구마를 심었고.) 23 [온평]

육수: 말의 나이 여섯 살을 가리키는 말이다. // 육수 뒈 가민 ᄆᆞᆯ은 고기도 찔기다 뭐도 허다 이렇게 허는.('육수' 돼 가면 말은 고기도 질기다 뭐도 하다 이렇게 하는.) 23 [온평]

육지: 한국 본토를 말한다. 제주 이외의 지역을 제주 사람들이 지칭하는 용어이다. // 저디서 저 육지서 무신 큰 것덜은 허면은 그건 ᄉᆞᆲ으멍덜 머 먹곡 ᄒᆞ는 거난 머.(저데서 저 '육지'에서 무슨 큰 것들은 하면 그건 삶으면서들 뭐 먹고 하는 거니까 뭐.) 22 [우도]

육지물질: 제주 잠녀들이 제주 이외의 지역으로 나가서 하는 물질을 말한다. 여기에서 '육지'는 제주 사람들이 '제주 이외의 지역'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 육지물질

나 열여덥 솔 때부떠 다년.('육지물질' 나 열여덟 살 때부터 다녔어.) 23 [온평]

육짓광목: 광목 생산지가 육지여서 붙은 이름이다. // 게고 또 옥광목엔 헌 것이 건 육짓, 육짓광목이라. 옥광목엔 헌 건 막 그때 막 헤영헌 거 난 거.(그러고 또 옥광목이라고 한 것이 건 육짓, '육짓광목'이야. 옥광목이라고 한 건 막 그때 막 하얀 거 난 거.) 14 [성읍]

육짓멩지: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한 명주를 말한다. 제주에서 생산한 명주에 상대하여 부르는 명주 이름이다. // 육짓멩지엔 헤근에 저 육지서 오는 멩지도 잇어낫어. 줌진 거.('육짓멩지'라고 해서 저 육지서 오는 명주도 있었었어. '줌진' 거.) 14 [성읍]

육짓항: 육지, 즉 제주도 밖에서 들어온 항아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 육짓항덜도 놧고 이 지세항도 놧곡. 지세항은 꺼먼 건디.('육짓항'들도 놨고 이 '지세항'도 놨고. '지세항'은 꺼먼 건데.) 14 [성읍]

육짓항아리: 제주도 외에서 제작한 항아리를 말한다. // 그 항아리에 이 육짓항아리는 장맛이 엇덴 허주.(그 항아리에 이 '육짓항아리'는 장맛이 없다고 하지.) 23 [온평]

육합주: 제보자가 '오합주'를 만들 때 마늘까지 더 넣어서 만든 술을 말한다. // 마늘, 마늘. 그거 노니까 육합주가 뒈언. 오합주에서.(마늘, 마늘. 그거 넣으니까 '육합주'가 됐어. '오합주'에서.) 30 [노형]

윤노리: 윤노리나무를 말한다. // 윤노리 같은 거 조금 접궤 같은 거 필요헌 것덜 그런 것덜 헤근에 쓰당 내부는 것도 싯고 허난 그런 것덜 봉가근에.('윤노리' 같은 거 거 조금 목대 같은 거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해서 쓰다가 내버리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주워다가.) 20 [고내]

윤누리나무: 윤노리나무를 말한다. // 윤누리나무라고 막 질긴 나문디, 몰루주. 그전에는 그런 나무 산에 강 헷는지 몰라도, 그 이름이 윤누리나무 이서요.('윤누리나무'라고 막 질긴 나문데, 모르지. 그전에는 그런 나무 산에 가서 했는지 몰라도, 그 이름이 윤노리나무 있어요.) 07 [보목]

은절미: 메밀가루나 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민 후에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찌거나 삶아낸 떡이다. '인절미'라고도 한다. // 좁쏠로 ᄒᆞ여근에 쪄근에, ᄀᆞ를 ᄒᆞ여근에 쪄근에, 영영 끊어근에 솖아근에 그레 폿을 뻣아근에 폿을 탁탁 무쳐수다, 은절미레.(좁쌀로 해서 쪄서, 가루를 해서 쪄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삶아서 그리로 팥을 빻아서 팥을 탁탁 무쳤습니다, '은절미'로.) 08 // 은절미 엇어. 이제나 은절미 잇주.('은절미' 없어. 이제나 '은절미' 있지.) 11 // 멩질 때, 제 때 쓰는 거, 제 때에는 은절민 안 ᄒᆞ는 거고, 은절미, 솔벤, 젤벤, 은절미, 그거ᄀᆞ라 무싱거옌 헤라마는, 큰 은절미, 족은 은절미 흡디다, 츰. 니귀난 건 큰 거, 영 소랑이 흔 건 족은 거.(명절 때, 제 때 쓰는 거, 제 때에는 '은절미'는 안 하는 거고, '은절미', '솔벤', 절편, '은절미', 그거더러 무엇이라고 하던데, 큰 '은절미', 작은 '은절미' 합디다, 참. 네모진 건 큰 거, 이렇게 길쭉이 한 건 작은 거.) 17 // 은절

미 놓곡 솔벤 절벤게, 그거. 세미은절미 ᄒᆞ나에 경 다 궤는 거 봐난.(‘은절미’ 놓고 ‘솔벤’ 절편, 그거. ‘세미은절미’ 하나에 그렇게 다 괴는 거 봤었어.) 29 [대평, 동광, 봉성, 외도, 함덕]

을신: 터를 볼 때 지관들이 쓰는 방위에 관한 말이며 동남방을 말한다. // 것을 올려두면은 수원서는 저 을신이 동허면, 동허면은 그 수원이 헤롭다 이겁니다.(그것을 올려두면 수원서는 저 ‘을신’이 동하면, 동하면 그 수원이 해롭다 이겁니다.) 35 [대림]

음복: 제사를 마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이다. // 벤또 정심은 쌍 가민 보리조팝. 쌍 가민 ᄉᆞᆯ은 한 거 아메도 그 일본 벤또 먹는 때 그 음복 ᄒᆞ여근에 그걸 먹어.(도시락 점심은 싸서 가면 ‘보리조팝’. 싸서 가면 쌀은 많은 거 아마도 그 일본 도시락 먹는 때 그 ‘음복’ 해서 그것을 먹어.) 17 [대평]

읍내물: 한경면에 있는 물 이름이다. // 저 한경더레 가는 디. 그디 강 물 맞으민 뚬두데기 기여들어, 얼고. 게난 그거 더우 깨렌. 게난 그디 못 가민 우린 읍내물이엔 헌 디가 이서.(저 한경으로 가는 데. 거기 가서 물 맞으면 땀띠 ‘기여들어’, 춥고. 그러니까 그거 더위 깨라고. 그러니까 거기 못 가면 우린 ‘읍내물’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26 [신창]

응: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장식하며 내는 소리이다. // 건 싸멍 똥 싸멍 베령 사름 와가민 나 이디 잇노렌 응 허는 거주.(건 누면서 똥 누면서 봐서 사람 와가면 나 여기 있노라고 ‘응’ 하는 거지.) 14 [성읍]

이가라: 털빛이 온통 검은 말을 말한다. ‘가라말’이라고도 한다. // 색깔에 따라서 허는데. 총머리 일청춘이다 허는데, 에, 총머리 일청춘, 이가라, 삼적다 영헤영 헤 가는데.(색깔에 따라서 하는데. ‘총머리’ ‘일청춘’이다 하는데. 에, ‘총머리’ ‘일청춘’, ‘이가라’, ‘삼적다’ 이렇게 해서 해 가는데.) 03 [송당]

이간집: 두 칸으로 지어진 집을 말한다. // 옛날 못사는 사름은 이간집을 허주게.(옛날 못사는 사람은 ‘이간집’을 하지.) 06 // 이간집이 집이 두 칸이주게.(‘이간집’이 집이 두 칸이지.) 12 // 이간 막살이에 살앗주게. 정지도 남쪽데레 문 내영 글로 톡 들어간 디 먹어난 거 알아져. 이간집 살안.(‘이간’ 오막살이에 살았지. 부엌도 남쪽으로 문 내서 그리로 톡 들어간 데 먹었던 거 알 수 있어. ‘이간집’ 살았어.) 30 // 옛날 집은 이간집이여 삼간집이여.(옛날 집은 ‘이간집’이다 삼간집이다.) 31 [남원, 노형, 토평, 한동]

이까: 일본어 ‘いか’로 오징어를 말한다. // 자리물훼 말곡게 이디 이까도 물훼헹 먹고.(자리물회 말고 여기 ‘이까’도 물회해서 먹고.) 07 // 볼락도 나끄고, 심허게 헌 때는 이까잡이도 허고.(볼락도 낚고, 심하게 한 때는 오징어잡이도 하고.) 11 [보목, 함덕]

이네왓: 마을 안에 있는 밭을 의미한다. 지역에 따라 ‘거리왓’, ‘가름팟’이라고도 한다. // 요 집 인근 가까운 디를 이네왓이라고 허는데 이네왓. 마을 안에 밧이라고 헤가지고.(요 집 인근 가까운 데를 ‘이네왓’이라고 하는데 ‘이네왓’. 마을 안에 밭이라

고 해 가지고.) 18 [신도]

이달봉: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서쪽에 있는 오름이다. 달리 '이달이오름', '이달오름'이라 고도 한다. // 모슬포 사격장 훈련소가 바로 여기주게. 이달봉이엔 헌 디.(모슬포 사격장 훈련소가 바로 여기지. '이달봉'이라고 하는 데.) 36 [봉성]

이대선: 돛을 두 개 단 배를 말한다. // 아니 삼대선벳긔 이대선벳긔 엇엇어.(아니 삼대선밖에 '이대선'밖에 없었어.) 23 [온평]

이덕구: 제주 4·3과 관련된 인물이다. // 견디 그 저 이덕구 그 저 대천동서 죽을 때, 우리 그 디 토벌도 가 왓어.(그런데 그 저 '이덕구' 그 저 '대천동'에서 죽을 때, 우리 그 데 토벌도 갔다 왔어.) 04 [고성]

이러: 길들이는 소에게 하는 소리이다. // 이씩, 이러. 이러.(이씩, 이러. 이러.) 16 [하원]

이렁: 밭의 흙을 두 볏 마주 갈아 올려서 두두룩하게 된 곳이다. // 그걸 밧을 쪼옥ᄒᆞ게 배추 심을 디 ᄒᆞ면 저 이렁을 멘들아.(그걸 밭을 쭉 하게 배추 심을 데를 하면 저 '이렁'을 만들어.) 08 // 높은 디는 이렁, 이 고량 갈아난 그 고량 이 고량 이딘 고량 높은 딘 이렁, 게난 이렁엘 감저 심그는 거주게.(높은 데는 '이렁', 이 고랑 갈았던 그 고랑 이 고랑 여긴 고랑 높은 덴 '이렁', 그러니까 '이렁'엘 고구마 심는 거지.) 08 [동광]

이레착저레착: 마음이나 행동을 하나로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 경 흔들어 가민 머리가 애기구덕에서 이레착저레착, 정신이 혼동뒈어 이.(그렇게 흔들면 머리가 '애기구덕'에서 '이레착저레착', 정신이 혼동돼.) 03 // 우리 아버지는 이 동네 구장, 그 전에도 거 저, 죽은 사름, 경찰한테 죽은 사름도 잇주마는 이레착저레착 허당은 꼭 ᄀᆞᆫ데. 거 저, 영 허는, 들으니까 거, 동네 아이덜, 폭도덜앞이 막 욕을 허더라고.(우리 아버지는 이 동네 구장, 그 전에도 거 저, 죽은 사람, 경찰한테 죽은 사람도 있지마는 '이레착저레착' 하다가는 꼭 말하대. 거 저, 이렇게 하는, 들으니까 거, 동네 아이들, 폭도들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 36 [봉성, 송당]

이력상뒤: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서 서열이나 차례를 매겨 참석한 향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상주를 말한다. // ᄎᆞᄎᆞ 앉은 ᄎᆞ례로 가가는 거. 게난 이력상뒤.(차차 앉은 차례로 '가가는' 거. 그러니 '이력상뒤'.) 15 [수망]

이멍거리: 무당이나 시집가는 여자가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게 이마에 두르는 띠를 말한다. // 진진허게 헷당 그걸로 영 여꺼근엥에 그걸로 헷당 이디 오그라지게 헨에 곱닥헌 저 멩지 험벅으로 이멍거리 똑 무끄곡 장옷 입곡 쓰곡 경헤연 가메 타낫수다.(길고길게 했다가 그걸로 이렇게 엮어서 그걸로 했다가 여기 오그라지게 해서 고운 저 명주 헝겊으로 '이멍거리' 똑 묶고 장옷 입고 쓰고 그렇게 해서 가마 탔었습니다.) 14 [성읍]

이몸: 저고리 몸통 부분으로 '길'을 말한다. // 이몸, 이것ᄀᆞ라 저고리 이몸이엔 말허고.('이몸', 이것보고 저고리 '이몸'이라고 말하고.) 02 // 베 헤영 이디 이몸허고 소미

헹 진진허게 헤근에 곧짝허게 헹 그거 헹 ᄒᆞᆫ 일주일은 거 베옷 입져.(베 해서 여기 '이몸'하고 소매해서 길게 해서 곧게 해서 그거 해서 한 일주일은 그거 베옷 입혀.) 13 [삼달, 선흘]

이문간: 집의 입구에 대문 곁에 있는 집채이다. '문간채'라고 한다. // 우리 웨가에 신천리 웨가에가 그 시절에 잘살앗낫주게. 안거레는 막 좋게 짓고 몽커레는 그보다 적게 짓엉. 그 적게 짓은 디는 이제 정제 허고 그 저 밥허는 그런 식으로 헤근에 헹 짓곡. 몽ᄀᆞ레는 이문간.(우리 외가에 신천리 외가가 그 시절에 잘살았었지. 안채는 아주 좋게 짓고 곁채는 그보다 적게 지어서. 그 적게 지은 데는 이제 부엌 하고 그 저 밥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해서 짓고. 곁채는 '이문간'.) 05 // 이문간이엔 허여근에게 문 그 대문, 큰 이문 ᄌᆞᆷ그는 디가 잇주기게. 그딘 ᄌᆞᆼ그곡 쉐왕간은 요편으로 칸 허여근에.('이문간'이라고 해서 문 그 대문, 큰 대문 잠그는 데가 있지. 거긴 잠그고 외양간은 요편으로 칸 해서.) 20 // 이문간, 이문간이라는 건 대문이주게. 대문간을 이문간이라고 우리 제주도말로.('이문간', '이문간'이라는 건 대문이지. 대문간을 '이문간'이라고 우리 제주도말로.) 27 // 봉성은 이문간 엇은 동네. 옛날부터.(봉성은 '이문간' 없는 동네. 옛날부터.) 36 [고내, 봉성, 옹포, 표선]

이물코지: 배의 앞부분을 말한다. // 이물코지주게, 두에는 고물.('이물코지'지, 뒤에는 고물.) 23 [온평]

이바르다: 양지바르고 밭의 토질이 좋다는 뜻이다. // 이바른 디도 멘네는 하영 갈아낫어.('이바른' 데도 목화는 많이 갈았었어.) 11 // 산뒤쏠 저 이바른 디서, 손당 ᄀᆞ튼 디 강 받아다근엥에 밥을 허면은 거 막 씻당봐도 벌겅헌 물만 나.(밭벼쌀 저 '이바른' 데서, '손당' 같은 데 가서 받아다가 밥을 하면 그거 막 씻다봐도 벌건 물만 나.) 11 [함덕]

이바지: 결혼을 전후하여 신부 쪽에서 예를 갖추어 신랑 쪽으로 정성 들여 만들어 보내는 음식을 말한다. 형편에 따라 돼지나 계란 같은 것을 하기도 한다. // 다른 다리도 아니야. 도새기 앞다리 하나 놓고 헤근엥 이바지를 그거 가져갓주게.(다른 다리도 아니야. 돼지 앞다리 하나 놓고 해서 이바지를 그거 가져갔지.) 09 // 이바지 끝나면 뒷날은 이제 멧 시에 식 헐 걸로 헤 가지고서 이제는 이제 통보헐 거 아니가이?(이바지 끝나면 뒷날은 이제 몇 시에 식 할 걸로 해 가지고서 이제는 이제 통보할 거 아니냐?) 12 [고산, 한동]

이불상: 이불을 개어서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되는 상을 말한다. 발이 조금 굵고 단단하며 밥상보다 높다. // 벡장 엇인 집에는이 저런 구들에이 요런 구들에 이불상이 커, 다른 상보단이.(벽장 없는 집에는 저런 방에 요런 방에 '이불상'이 커. 다른 상보단.) 11 // 이불상은 중간에사 낫주. 옛날은 엇엇어. 무신 혀뜩헌 소리 허지 마라.('이불상'은 중간에야 났지. 옛날은 없었어. 무슨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14 // 이불 하나 딱 개엉 놓게시리. 건 막 치레허는 사름덜이, 아따 그 집인이 이불

상꺼장 문 헨 와서라, 영허여. 거 잘사는 사름.(이불 하나 딱 개어서 놓게끔. 그건 막 치레하는 사람들이, 아따 그 집은 '이불상'까지 모두 해서 왔더라, 이렇게 해. 그거 잘사는 사람.) 25 [성읍, 태흥, 함덕]

이불집: 이불을 만들고 장사하는 가게를 말한다. // 이불 홀 뗀 우린 저, 우리 큰 뚤 풀 땐. 저 어디니? 삼양이냐? 그 이불집 ᄒᆞ는디 이제도 잇인가?(이불 할 땐 우린 저, 우리 큰 딸 '풀' 땐. 저 어디니? '삼양'이냐? 그 '이불집' 하는데 이제도 있는가?) 04 [고성]

이빠이: 일본어 'いっぱい'에서 온 말로, 가득이라는 의미이다. // 이 속에 들어강 익어 가믄 불어나잖아. 거 때문에 이빠이 담으믄 터져 불주게.(이 속에 들어가서 익어 가면 불어나잖아. 거 때문에 '이빠이' 담으면 터져 버리지.) 30 // 열ᄒᆞᆫ 시 뒈난 간보난에 이빠이 저 손님이 차 부난.(열한 시 되니까 가서 보니까 '이빠이' 저 손님이 차 버리니까.) 32 [노형, 덕수]

이석 줏다: 고구마나 보리 따위를 거둔 밭에서 그 지스러기를 줍는 것을 말한다. // 그런 거를 이제 반 썩는 거라든 가다가 못 봐 가지고 비가 오라나면은 어디서 쪼금 보이면은 파나 그거ᄀᆞ라 이석 줏는다고 헷는데 없는 사람은 줏어다 먹고, 여유 있는 사람은 줏어다가 돼지도 멕이곡 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삶아 가지고 술을 헤여 술.(그런 거를 이제 반 썩는 거라든 가다가 못 봐 가지고 비가 오면 어디서 쪼금 보이면은 파나 그거보고 '이석 줏는다'고 했는데 없는 사람은 주워다 먹고, 여유 있는 사람은 주워다가 돼지도 먹이고 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삶아 가지고 술을 해. 술.) 19 [청수]

이수: 말의 나이 두 살을 가리키는 말이다. // 금승이, 이수는 삼수 ᄉᆞ수 오수 그 저 ᄆᆞᆯ은.(하릅이, '이수'는 '삼수' 'ᄉᆞ수' '오수' 그 저 말은.) 23 // 금승ᄆᆞᆼ셍이 그다음. 이수 허여, 이수. 이수, 삼수 뭐 이런 식으로.(하릅망아지 그다음. '이수' 해, '이수'. '이수', '삼수' 이런 식으로.) 29 [온평, 외도]

이수들이: 2홉짜리 다섯 병 들이인 1.8ℓ를 말한다. 1홉은 18ml이다. // 그디 그 저 나영 동갑이고 연세도, 연세 ᄋᆞ지레 가젠 허난에 옛날은 그 이수들이. 요만이 큰 거 그거 그거 들렁은엥에.(거기 그 저 나랑 동갑이고 '연세'도, '연세' 가지러 가려고 하니까 옛날은 그 '이수들이'. 요만큼 큰 거 그거 그거 들어서.) 32 // 작은 병이 엇으니까 이수들이 거 이수들이로만 사용헷수다게.(작은 병이 없으니까 '이수들이' 거 '이수들이'로만 사용했습니다.) 32 [덕수]

이수매: '두 살 된 말'의 의미이다. // 금승, 금승ᄆᆞᆼ아지, 두ᄉᆞᆯ배기는 이수매, 삼수매, ᄉᆞ수매 영 여녕을.(하릅, 하릅망아지, 두 살배기는 '이수매', '삼수매', '사수매' 이렇게 연령을.) 01 // 이수매 삼수 ᄉᆞ수 오수 이렇게 허주게.('이수매' '삼수' 'ᄉᆞ수' '오수' 이렇게 하지.) 14 [도련, 성읍]

이수벵: 2홉짜리 다섯 병 들이인 1.8ℓ를 말한다. 1홉은 18ml이다. // 아덜이 당추 다른 듸는 원 영 홈치 이수벵 그 술 신 거 다 벌러부리고게 안 가난게 어떵 홀 수가

엇는 거라마씸게.(아들이 당최 다른 데는 원 이렇게 한꺼번에 '이수벵' 그 술 있는 거 다 깨버리고 안 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32 [덕수]

이수펭: 2홉짜리 다섯 병 들이인 1.8ℓ를 말한다. 1홉은 18ml이다. // 청주허여근엥에 그 우의 거, 우의 건 뚤라근엥에 유리병에 저 이수펭. 이수펭엔 헙니다.(청주해서 그 위의 거, 위의 건 따라서 유리병에 저 '이수펭'. '이수펭'이라고 합니다.) 32 // 이수펭에 이만씩 헌 평에 질엉은에 청주 질어근에 청주허여근에 제지나레 가곡.('이수펭'에 이만큼 한 병에 길어서 청주 길어서 청주해서 제지내러 가고.) 32 [덕수]

이시돌: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이시돌 목장을 말한다. 여기서는 한경면 신창리에 있었던 이시돌 병원을 가리킨다. // 우유도 저 이시돌에 강 저 이시돌 성당에 강 타당, 막 덩어리 진 거 타당 이제 저 남비에 솖아근에 바글바글 불, 불 솜앙 헤 줫주.(우유도 저 '이시돌'에 가서 저 '이시돌' 성당에 가서 타다가, 아주 덩어리 진 거 타다가 이제 저 냄비에 삶아서 바글바글 불, 불 때서 해 줬지.) 26 [신창]

이식: 길들이는 소에게 하는 소리이다. // 이식 ᄒᆞ민 가곡.('이식' 하면 가고.) 16 [하원]

이야홍아: 타작할 때 부르는 노동요로 제주도 민요를 말한다. // 거 조코고리를 마당에 놓아근에. 그 저 도께질을 헤야주게. 이야홍아 허멍.(거 '조코고리'를 마당에 놓고서. 그 저 도리깨질을 해야지. '이야홍아' 하면서.) 04 [고성]

이어사 이어사: 방아를 찧으면서 내는 소리를 말한다. // 이어사 이어사 허멍 그 소리에 맞추멍게. 소리에 맞촹. 제기 허젠 허민 둘이가 마주쳥 안 뒐 거난게. 요만헌 구멍이난게 딱 구멍만 찍어야 뒐 거난.('이어사 이어사' 하면서 그 소리에 맞추면서. 소리에 맞춰서. 빨리 하려고 하면 둘이 마주쳐서 안 될 거니까. 요만한 구멍이니까 딱 구멍만 찍어야 될 거니까.) 26 [신창]

이여도허라: 방아노래나 맷돌노래의 한 소절이다. // 방에 노래도 이여도허라.(방아 노래도 '이여도허라'.) 13 // 그 모멀을 파싹 ᄆᆞᆯ리우민 들이치멍, 이여도허라, 허믄 거죽 ᄐᆞ로 ᄊᆞᆯ ᄐᆞ로 나오거던.(그 메밀을 바싹 말리면 들이치면서, '이여도허라', 하면 거죽 따로 쌀 따로 나오거든.) 17 [대평, 삼달]

이여이여이여허라: 맷돌 굴리는 노래의 한 소절이다. // ᄆᆞ렛돌, ᄆᆞ레 ᄀᆞᆯ지. 이여이여이여허라.(맷돌, 맷돌 갈지. '이여이여이여허라'.) 13 [삼달]

이연발: '연발'이라고도 하며 탕건을 결을 때 쓰는 연장으로 탕건을 견다가 잡아당기기 편하도록 탕건과 탕건골 사이에 넣은 것이다. // 그 탕근을 탕근골에 영 놩 이제 이연발로. 이젠 막 늘롸. 거민이 요만이 ᄌᆞᆯ아놩 늘루민 요만이 올라와, 이게.(그 탕건을 '탕근골'에 이렇게 놓고 이제 '이연발'로. 이젠 막 늘려. 그러면 요만큼 결어놓고 늘리면 요만큼 올라와, 이게.) 02 [선흘]

이온색동요: 방바닥에 까는 침구 종류의 하나이다. // 집 광목ᄒᆞ영 바레여근에, 겁데긴 무신 인주산디 ᄒᆞ곡, 저 이온색동요 ᄒᆞᆫ 거 알아져. 인지 인주주 인주로만 헷주게 인주로.(집 광목해서 바래여서, 껍질은 무슨 인주인지 하고, 저 '이온색동요' 한

거 알아져. 인주 인주지 인주로만 했지 인주로.) 08 [동광]

이칸집: 두 칸으로 지어진 집을 말한다. // 삼방 엇인 집이 이칸집은 정지에 헷주게.(대청 없는 집에 '이칸집'은 부엌에 했지.) 14 // 아까 대략적으로 집 지을 때 골아줘 신디, 보통은 우리 이렇게 크기에 따라 두 칸으로 나눠지면 이칸집, 삼칸집.(아까 대략적으로 집 지을 때 말했었는데 보통은 우리 이렇게 크기에 따라 두 칸으로 나눠지면 '이칸집', 삼간집.) 20 [고내, 성읍]

익은멩지: 삶아서 손질한 명주실로 짠 옷감을 말한다. // 숢아근에 허민 풀이 죽거든. 경허민 그거 풀허영 다듬으민 그건 그냥 멩지로 들어가곡. 셍멩진 다듬질 못허주게. 종내긴 다 ᄀᆞ튼 건디. 셍멩지허곡 익은멩지 뒈는 거주.(삶아서 하면 풀이 죽거든. 그러면 그거 풀해서 다듬으면 그건 그냥 명주로 들어가고. 생명주는 다듬질 못하지. 종류는 다 같은 건데. 생명주하고 '익은멩지' 되는 거지.) 01 // 옷 허민게 셍멩진 겨울엔 못 입지게. 익은멩진 겨울에 입곡.(옷 하면 생명주는 겨울엔 못 입지. '익은멩지'는 겨울에 입고.) 01 [도련]

익은역: 제일 첫 번째를 이르는 말이다. // 다들 익은역들 헤가당 내분 것들 조름에 있는 놈들은 얼먹주게.(다들 '익은역'들 해가다가 내버린 것들 꽁무니에 있는 놈들은 얼먹지.) 03 [송당]

인넹이: 대정읍 무릉2리 인향동의 옛 지명이다. // 아시 새서방은 저 인넹이엔 헌 디고 또 이제 그 성 서방은 저 안성 사름이고이. 보성인디. 새각신 보성인디 경 허난 그 인넹이 새서방은.(아우 새신랑은 저 '인넹이'라고 한 데고 또 이제 그 형 신랑은 저 '안성' 사람이고. '보성'인데. 새색신 '보성'인데 그렇게 하니까 그 '인넹이' 새신랑은.) 33 // 학교 짓으난 구억, 신펭, 인넹이 이제 모슬포도 큰 학교 서도 모슬포 사름도 그거 학교 왓더라게.(학교 지으니까 구억, '신펭', '인넹이' 이제 모슬포도 큰 학교 있어도 모슬포 사람들 그거 학교 왔더라.) 33 [인성]

인안성: 대정읍 인성리와 대정읍 안성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보성 사름덜이 인안성덜이영 부떠근에 인안성은 부떠보질 못헤여.(보성 사람들이 '인안성'들이랑 붙어서 '인안성'은 붙어보질 못해.) 33 [인성]

인절미: 메밀이나 쌀가루 따위로 네모지고 넓적하게 만든 후 삶거나 쪄낸 떡으로 '은절미'라고도 한다. // 세미엔 헌 건 우리 집인 저 솔펜, 솔펜허민 옛날엔 그디 친떡허곡 저 인절미, 솔펜, 절벤 우찍 안 헤낫수과?('세미'라고 한 건 우리 집엔 저 '솔펜', '솔펜'하면 옛날엔 거기 시루떡하고 저 '인절미', '솔펜', 절편, 웃기 안 했었습니까?) 13 // 솔벤. 친떡 다음은 인절미양.('솔벤'. 시루떡 다음은 '인절미'요.) 14 // 곳사 ᄀᆞᆫ듯이 솔벤, 절벤, 인절미, 또 이제 제펜 친떡 그거, 그거, 그거대로 원.(아까 말하듯이 '솔벤', 절편, '인절미', 또 이제 '제펜' 시루떡 그거, 그거, 그거대로 원.) 25 // 떡 뭐 저 헤줍서 허믄 그때는 오메기, 오메기떡 허영은에 영 좁쌀떡으로 오메기떡 허영 다 이제 인절미 헹 갑주게.(떡 뭐 저 해주십시오 하면 그때는 '오메기', '오메기떡' 해서, 이렇게 좁쌀떡으로 '오메기떡' 해서 다

이제 '인절미' 해서 가지요.) 28 [구엄, 삼달, 성읍, 태흥]

인정오름: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 게난 이 솔오름허고 인정오름허고 그 자 저 무슨 오름이주.(그러니까 이 '솔오름'하고 '인정오름'하고 그저 저 무슨 '오름'이지.) 31 [토평]

일가지: 일가인 문중에서 갈라진 친인척을 말한다. // 솟 석 ᄒᆞᆫ 밥은 느랑 나가 헷는디, 그 일가지에서 ᄒᆞ는 건 경 느랑 나가 헤나난 ᄀᆞᆫ는디. 문중벌초엔 ᄒᆞᆫ 건, 제주시레 가나서, ᄎᆞᆯ려.(솥 석 한 밥은 늘 내가 했는데, 그 '일가지'에서 하는 건 그렇게 늘 내가 했었기에 말하는데. '문중벌초'라고 한 건, 제주시로 갔었어, 차려.) 15 [수망]

일골: 한 마을을 여러 개로 나눈 단위의 하나이다. 보통 한 골목을 기준으로 '일골', '이골' '삼골'처럼 순번을 매겨서 골 이름을 정한다. // 일골에 장사 나면 일골 사름은 어떤 일이 잇어도 가 장사에 참석 안허민 욕먹어.('일골'에 장사 나면 '일골'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 장사에 참석 안하면 욕먹어.) 23 [온평]

일곱새: '일곱새 무명'을 가리킨다. // 일곱새는 막 좋은 미녕, ᄌᆞᆷ질고.('일곱새'는 막 좋은 무명, 'ᄌᆞᆷ질고'.) 06 [남원]

일곱물: 음력 보름과 그믐날의 조수(潮水)를 말한다. // 바짝 뭐 서물, 너물 날은 안 내려가는디 ᄋᆞ섯 일곱물 날 뒈가면은.(바짝 뭐 서물, 너물 날은 안 내려가는데 여섯 일곱물 날 되가면.) 09 [고산]

일곱새미녕: 새는 피륙의 날을 세는 단위로, '일곱새미녕'은 아주 올이 고운 무명이다. // 엿새미녕 닷새미녕 헌 건, 일곱새미녕, 거 막 ᄌᆞᆷ진 건 일곱새, ᄋᆞᆺ새. 닷샌 막 훍은 거.('엿새미녕' '닷새미녕' 하는 건, '일곱새미녕', 거 아주 'ᄌᆞᆷ진' 건 '일곱새', 엿새. '닷새'는 아주 굵은 거.) 31 [토평]

일뤠: '일뤳당'의 줄임말로 매달 이레에 찾아가는 당이다. // 겐디이 일뤠, 여드레 가는 할망덜은 그거 헹 가, 상웨 헹 가.(그런데 '일뤠', '여드레' 가는 할머니들은 그거 해서 가, 상화 해서 가.) 25 // 방에서 두어불 지엉 그 겁데기 벗어뒁 그땐 정ᄀᆞ레 영영헹 ᄀᆞ는 것에서 ᄀᆞ루 ᄀᆞᆯ앙 그거 빵떡 헹 일뤠, 여드레 가는 거나 허주.(방아에서 두어벌 찧어서 그 껍데기 벗겨두고 그땐 '정ᄀᆞ레'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는 것에 가루 갈아서 그거 빵떡 해서 '일뤠', '여드레' 가는 거나 하지.) 25 [태흥]

일뤠낭: 신촌의 일뤳당에 있는 나무를 말힌디. 현재 팽나무는 없다. // 다 태와 불언. 여기가 멧 갠곤 허민 돌코지 하나, 또 일뤠낭에 하나, ᄃᆞᆫ물에 하나, 세 개.(다 태워 버렸어. 여기가 몇 갠가 하면 '돌코지' 하나, 또 '일뤠낭'에 하나, 'ᄃᆞᆫ물'에 하나, 세 개.) 21 [신촌]

일뤠잔치: 이레 동안 치르는 잔치를 말한다. // 이젠 스무 말에치 헤단 허난 떡, 떡 지지는 반 도새기 잡는 날 게난 일뤠잔치 헷주게.(이젠 스무 말어치 해다가 하니까 떡, 떡 지지는 반기 돼지 잡는 날 그러니까 '일뤠잔치' 했지.) 23 [온평]

일뤠할망: 치병, 출산, 육아를 관장하는 '일뤳당'에 모신 여성신을 말한다. // ᄯᅩ로 저 정월 일뤠, 일뤠할망신듸도 호호 방문, 호당마다 가.(또 저 정월 이레. '일뤠할망'에게도 호호 방문, '호당'마다 가.) 02 [선흘]

일뤠할망당: 이레마다 가는 할망당으로 7일, 17일, 27일에 다니는 신당을 말한다. 이 당에 모신 '일뤠할망'은 어린아이의 치병과 산육을 담당한다. // 일뤳날, 일뤳당이옌 허여. 일뤠할망당이라고 어디 감시니? 허민 일뤠에 감젠.(이렛날, '일뤳당'이라고 해. '일뤠할망당'이라고 어디 가니? 하면 이레에 간다고.) 21 [신촌]

일뤳당: 이레마다 가는 당으로 7·17·27일에 다니는 신당을 말한다. 이 당에 모신 일뤠할망은 농경신이자 출산, 육아, 치병의 직능을 지니고 있는 여신이다. // 포제허고 또로 저 정월 일뤠, 일뤠할망신듸 호당마다. 이 저 이녁 집집마다, 집집마다 소원 빌레 가주게.(포제하고 또 저 정월 이레, '일뤠할망'에게 '호당'마다. 이 저 자기 집집마다, 집집마다 소원 빌러 가지.) 02 // 당에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주. 유월ᄃᆞᆯ 나민 유월 초일레, 열일뤠, 쓰무일뤠. 동짓ᄃᆞᆯ 나민 동짓ᄃᆞᆯ 초일뤠 열일뤠 쓰무일레 영 가는 거주. 일뤳당.('당'에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지. 유월달 나면 유월 초이레, 열이레, 스무이레. 동짓달 되면 동짓달 초이레 열이레 스무이레 이렇게 가는 거지. '일뤳당'.) 14 // 일뤳당이라고 헤가지고 어, 그거 일 년에 두 번 유월 초일렛날 ᄒᆞ고 가을 뜰민 음력으로 십일월월 초일렛날은 부녀자들이 그기 관심 잇는 사름덜은 거기 강 그 무당 심방, 심방을 옵센 헤근엥에 그 간 자기 가정집에 안녕을 비는 거라마씀.('일뤳당'이라고 해가지고 어, 그거 일 년에 두 번 유월 초이레 날하고 가을 들면 음력으로 십일월 초이레 날은 부녀자들이 거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그 무당 '심방', '심방'을 오십시오 해서 그 가서 자기 가정집에 안녕을 비는 거지요.) 15 [선흘, 성읍, 수망]

일번지: 주소상의 1번지이나 여기서는 '제일이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 그디가 송당의 일번지 먹엇수다. 딱.(거기가 송당의 '일번지' 먹었습니다. 딱.) 03 [송당]

일본시대: '일제강점기'의 의미로 쓴 말이다. // 일본시댄디 초등ᄒᆞᆨ교도 못 나완게, 나.('일본시대'인데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나.) 29 [외도]

일수: 말의 나이 한 살을 가리키는 말이다. // ᄆᆞᆯ은 일수 이수 삼수 이렇게 헤 가지고 오수ᄁᆞ지.(말은 '일수' '이수' '삼수' 이렇게 해 가지고 '오수'까지.) 23 // 이수, 삼수 그런 거 또, 일수.('이수', '삼수' 그런 거 또, '일수'.) 29 [온평, 외도]

일수장, 이수장, 삼수장: 방목을 위해 잣담을 쌓은 목장 형태의 공간이다. 일수장(대천이오름)·이수장(민오름)·삼수장(꾀꼬리오름)에서 소나 말을 키웠으며,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정기적으로 숲에 불을 놓기도 했다. // 딱 허민 일수장, 이수장, 삼수장 헤낫어. 목장 동쪽으로부터 일수장, 이수장, 삼수장.(딱 하면 일수장, 이수장, 삼수장 했었어. 목장 동쪽으로부터 '일수장, 이수장, 삼수장'.) 11 // 영업으로 해서 산에 가서 목장, 이수장, 삼수장 허면서 첨 그분들 돌아가셔 부난이주.(영업으로 해서 산에 가서 목장 이수장, 삼수장 하면서 참 그분들 돌아가셔 버리니까이지.)

11 [함덕]

일월제: 성주받이를 할 때 지내는 제의 하나이다. // 성줄 내젠 허면은 뭐 앚은제도 앚은제 부쳥도 허고 일월제도 허고 칠성맞이도 허고.(성주를 내려고 하면 뭐 '앚은제'도 '앚은제' 붙여서도 하고 '일월제'도 하고 '칠성맞이'도 하고.) 31 [토평]

일진의숙: 1929년 9월 1일 제주도 서귀포시 덕수리 2330번지에 설립된 덕수초등학교 전신을 말한다. // 일제시대에 일진의숙을 설립헤 가지고 허다가 해방 후에 바로 덕수초등학교 국민학교로 개편헨 허고 그때는 구월 학기엿거든.(일제시대에 '일진의숙'을 설립해 가지고 하다가 해방 후에 바로 덕수초등학교 국민학교로 개편해서 하고 그때는 구월 학기였거든.) 32 [덕수]

일청춘: 청총마를 가리키는 것으로 갈기와 꼬리가 푸르스름한 백마를 말한다. // 일청춘이엔 허는 게 옛날은 ᄆᆞᆯ이 순하니까 그거는 사름으로 제마를 만듭니다.('일청춘'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말이 순하니까 그거는 사람으로 제마를 만듭니다.) 03 [송당]

일토: 토질이 좋은 밭을 가리키는 말이다. 밭의 토질에 따라 일토, 이토, 삼토로 구분한다. // 좋은 밧, 토양이 일토, 이토, 삼토가 잇주.(좋은 밭, 토양이 '일토', '이토', '삼토'가 있지.) 12 [한동]

일토베기: 밭이 걸어서 밑거름이 없이도 경작이 가능한 좋은 밭을 말한다. '쉡씨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 건 쉡씨전. 건 일토베기. 좋은 밧.(건 '쉡씨전'. 건 '일토베기'. 좋은 밭.) 08 [동광]

일포: 장사를 지내기 전에 문상객을 받는 날을 말한다. '일포날'이라고도 한다. // 게민 성복제 지낸 후에 오일장을 허느냐, 삼일장을 허느냐, 사일장을 허느냐 허면은 그 장 아시날은 일포라고 헤서 손님 받는 날.(그럼 성복제 지낸 후에 오일장을 하느냐, 삼일장을 하느냐, '사일장'을 하느냐 하면 그 장삿날 전날은 '일포'라고 해서 손님 받는 날.) 06 // 성복 헤난 다음에 일포를 허는 거주.(성복 한 다음에 '일포'를 하는 거지.) 12 [남원, 한동]

일포날: 장사를 지내기 전에 문상객을 받는 날을 말한다. // 아시날이 대충 일포날이난에 그 전이도 먹고.(전날이 대충 '일포날'이니까 그 전에도 먹고.) 12 [한동]

일포밧: '발인 전날의 상가(喪家)'를 말한다. 일포는 '발인 전날'을 말하고, 발인 전날에 하는 제는 '일포제'라고 한다. '밧'은 표준어 '밭'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어떤 일을 치르는 곳'을 밭에 비유해서 표현한 말이다. // 일포, 일포밧듸도 경허곡 이 저 잔치밧듸도 경헙니다.(일포, '일포밧'에도 그렇게 하고 이 저 '잔치밧'에도 그렇게 합니다.) 14 [성읍]

입금: '음식 먹는 것을 가리는 일'의 의미이다. // 쪼끔 입금이랑 쪼금 헙센.(쪼끔 '입금'은 쪼금 하십사고.) 29 [외도]

입담허다: 당에 가서 신에게 기원하면서 하는 말이다. // 바구리, 차롱 바구리가 이서이. 그거 ᄐᆞ로 놧당 ᄆᆞᆺ까갈 때 그디 강 입담헤 뒁 끗낭 와.(바구니, 채롱 바구니가 있

어. 그거 따로 놨다가 '묻까갈' 때 거기 가서 '입담헤 뒁' 끝나서 와.) 11 // 백지 그 종이이. 그거 허영 가졍강 ᄉᆞᆯ아근엥에 이녁냥으로 기자 입담허곡 경.(백지 그 종이. 그거 해서 가져가서 살라서 이녁대로 그저 '입담허곡' 그렇게.) 29 [외도, 함덕]

입메: 음식을 먹을 때 입에서 느끼는 맛에 대한 감각이나 먹성 등을 말한다. // 우리 주민 우린 것도 맛잇게 우린 입메가 좋앙 맛잇게 먹어낫수다.(우리 주면 우리는 그것도 맛있게 우리는 '입메'가 좋아서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22 [우도]

입석: 한림읍 대림리의 옛 지명이다. 대림리에서 수원리로 가는 길목에 선돌이 있다. 선돌은 입석이라고 하여 대림리의 옛 지명으로 '선돌', '입석촌', '입석동' 같은 지명이다. // 그 돌을 놓고 선돌이라고 허고 입석이라고도 헤나십주게.(그 돌을 놓고 '선돌'이라고 하고 '입석'이라고도 했었습지요.) 35 [대림]

입젱이: 문짝을 끼워 달기 위하여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이다. // 문을 ᄃᆞᆯ면 입장이라고 허는데, 입젱이라고 허는데, 입젱이 웃지방 알지방.(문을 달면 '입장이'라고 하는데. '입젱이'라고 하는데, '입젱이' '웃지방' '알지방'.) 01 // 문 영 옆에 잇는 건 ᄆᆞᆫ딱 원 대문이나 창문이나 ᄆᆞᆫ딱 입젱이엔 ᄒᆞ곡.(문 이렇게 옆에 있는 건 모두 원 대문이나 창문이나 모두 '입젱이'라고 하고.) 16 [도련, 하원]

입춘굿: 입춘을 맞아 행하는 굿을 말한다. 관청에서 주관하던 행사로 무당들이 모여 농사짓는 과정을 흉내를 내면서 풍년을 기원한다. // 엇인디 옛날은 입춘굿도 다 헤서.(없는데 옛날은 입춘굿도 다 했어.) 26 [신창]

입하: 24절기 중 5월 5일을 이르는 것으로 사월절이라고도 한다. // 사월절 입하가 뒈면은 소가 닷 뒈를 뜯는답니다. 촐을. ᄆᆞᆯ은 ᄒᆞᆫ 말을 뜯곡.('사월절' 입하가 되면 소가 닷 되를 뜯는답니다. 꼴을. 말은 한 말을 뜯고.) 03 [송당]

입향: 조상이 마을에 들어와서 살게 됨을 말하는 것으로 '入鄕'이다. // 여긴 입향 헌 지는 모르주 뭐 멧 데산디.(여기는 '입향' 한 지는 모르지 뭐 몇 대인지.) 16 [하원]

잉감: 귀신이 제사 따위에 와서 식사하는 일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언감', '응감'이라고도 한다. // 경 이제 마타 가쿠덴 글로 강 잉감 헙센 고해여 불곡.(그렇게 이제 맡아 가겠다고 그리로 '잉감' 하십사고 고해 버리고.) 29 [외도]

ᄋᆞ시록ᄒᆞ다: 되바라지지도 변화롭지도 않아서 구석지고 매우 고요하다. // ᄋᆞ시록ᄒᆞᆫ 디. 나가 시방 꿩코를 집안에 들어왕 꿩코를 놧는데게, 들지를 안 헴서.('ᄋᆞ시록ᄒᆞᆫ' 데. 내가 시방 '꿩코'를 집안에 들어와서 '꿩코'를 놨는데. 들지를 안 하네.) 03 [송당]

ᄋᆞ망지다: 미련하지 아니하고 영리하고 똑똑하다는 의미로 표준어 '야무지다'에 대응하는 말이다. // 사름덜이 그때도 우리 동네도 산에 뎅기는 절민 사름덜, ᄋᆞ망진 사름덜은 산에 그 신 사름덜이 셧주게.(사람들이 그때도 우리 동네도 산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 'ᄋᆞ망진' 사람들은 산에 그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 08 // 기영 막 자마리 쎄고, ᄋᆞ망진 사람이 그런 거 ᄒᆞ주. 우리는 아녀주게, 그런 거.(그렇게 막

‘자마리’ 심하고, ‘ᄋᆞ망진’ 사람이 그런 거 하지. 우리는 안 하지, 그런 거.) 15 [동광, 수망, 인성]

ᄋᆞ물떼기: 생선의 지느러미를 가리킨다. // 지느러미 엿날은. 이젠 ᄀᆞ세로 다 ᄀᆞᆺ아 부는디 엿날은 그냥 헷주기게. 그냥 데겡이만 닥닥 ᄆᆞᆺ아근에 그냥 썰엉 헤난디 이젠 다 ᄋᆞ물떼기 그 지느러미 ᄀᆞᆺ앙. ᄀᆞᆺ앙 다 허여.(지느러미 옛날은. 이젠 가위로 다 ‘ᄀᆞᆺ아’ 버리는데 옛날은 그냥 했지. 그냥 대가리만 닥닥 무수어서 그냥 썰어서 했었는데 이젠 다 ‘ᄋᆞ물떼기’ 그 지느러미 ‘ᄀᆞᆺ앙’. ‘ᄀᆞᆺ앙’ 다 해.) 26 [신창]

ᄋᆞ습: 소의 나이 여섯 살을 말한다. // 다습, ᄋᆞ습. 두 ᄉᆞᆯ까진 다간. 그다음 사릅. 세 ᄉᆞᆯ이면 사릅.(다습, ‘ᄋᆞ습’. 두 살까진 ‘다간’. 그다음 사릅. 세 살이면 사릅.) 36 [봉성]

ᄋᆞᆨ다: 말귀를 알아듣고 혼자 판단할 만큼 성장하다는 뜻이다. // 나가 ᄋᆞᆨ안 보니까 포제 ᄒᆞ단 설 그자 얼마 엇언 ᄒᆞᆫ, 열 설 정도 됀.(내가 ‘ᄋᆞᆨ안’ 보니까. 포제 하다가 그냥 얼마 없어서 한, 열 살 정도 됀.) 16 // 난 ᄆᆞ멀 하영 헤져신ᄀᆞ라 우리 아기덜은양, 우리 큰아덜은 경 ᄀᆞᆯ읍니다. 나 뭣헤 가믄 우리 어머니 ᄆᆞᆯᄎᆞ베기 헴져. 그거 지일 싫어난 셍이라. 이제 ᄋᆞᆨ앙 허는 거.(난 메밀 많이 했었는지 우리 아기들은요, 우리 큰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 뭐해 가면 우리 어머니 메밀수제비 하고 있지. 그거 제일 싫었던 모양이야. 이제 ‘ᄋᆞᆨ앙’ 하는 거.) 19 // 우리 우리 ᄋᆞᆨ을 때는 연철이랏는디 그 후에는 몰라 어떤 걸 썻는지 모르크라 그때는.(우리 우리 ‘ᄋᆞᆨ을’ 때는 연철이었는데 그 후에는 몰라 어떤 걸 썼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22 // 우리 ᄋᆞᆨ안 보난 이디 마을이 잇어부난 어느 때쯤 만든 건 몰른디 이 마을이 사름이 이디 멧 가위 엇어낫어.(우리 ‘ᄋᆞᆨ안’ 보니까 여기 마을이 있어서 어느 때쯤 만든 건 모르는데 이 마을이 사람이 여기 몇 가호 없었었어.) 25 [노형, 우도, 청수, 태흥, 하원]

ᄋᆞᆺ새미녕: ‘엿새무명’을 말한다. ‘닷새미녕’은 품질이 더 좋지 않고, ‘일곱새미녕’은 아주 올이 고운 무명으로 엿새무명은 그 중간 정도의 품질의 무명을 말한다. // 저 ᄀᆞ는 것이 그 ᄋᆞ라 개 드는 것이 ᄋᆞᆺ새미녕이주기게.(저 가는 것이 그 여러 개 드는 것이 ‘ᄋᆞᆺ새미녕’이지.) 26 [신창]

ㅈ

자골촐: 자귀풀이 열매가 맺기 전에 소먹이용으로 베는 풀이다. '자굴촐'이라고도 한다. // 조눌, 보리낭눌, 보리눌, ᄯᅳ시 촐눌, 자골촐눌, 감저줄눌, 눌이 멪 개라게.(조가리, 보릿짚가리, 보리가리, 다시 꼴가리, 차풀가리, 고구마줄기가리, 가리가 몇 개야.) 17 // 촐은 팔월절 들엉, 입추. 팔월절 들믄 이제 뭐이냐 그 저 자골촐 말고.(꼴은 팔월절 들어서, 입추. 팔월절 들면 이제 뭐냐 그 저 자귀풀꼴 말고.) 28 // 겐디 질 좋은 촐이엔 헌 것은 아까 자골촐을 허여 가지고 그 웃드리 갈앙.(그런데 젤 좋은 꼴이라고 한 것은 아까 자귀풀을 해 가지고 그 웃드리 갈아서.) 35 // 보통은 자골촐 ᄀᆞ뜬 것은 미릇 비기 시작헤 가지고 백로 팔월절 구월 팔일산디 일 거우다.(보통은 자귀풀꼴 같은 것은 미리 베기 시작해 가지고 백로 팔월절 구월 팔일인지 일 것입니다.) 35 [구엄, 대림, 대평]

자구내: 한경면 고산리의 지명 중 하나이다. // 자구내로 가면은 글로 이쪽에 굴들 ᄒᆞᆫ 몇 군데 잇주게.('자구내'로 가면 그리로 이쪽에 굴들 한 몇 군데 있지.) 09 // 그 관리할 때부터 우리 마을에는 사람이 살앗던 걸로 보고. 또 이쪽에 그 포구 뭐 자구내 포구나 아니면 신도이리, 이 포구 현재 신도 이리 포구에 사람이 살앗지 않겟느냐. 그런 그 추측이 가능헌데.(그 관리할 때부터 우리 마을에는 사람이 살았던 걸로 보고. 또 이쪽에 그 포구 뭐 '자구내' 포구나 아니면 '신도이리', 이 포구 현재 '신도이리' 포구에 사람이 살았지 않겠느냐. 그런 그 추측이 가능한데.) 18 // 게난 그거 그 우리 우리 안 헌디 우리 이모네가 자구내에 살멍 모션. 게난 우리 어무니 신 때 아이고 저거 무신 도체비 모셔근에 ᄉᆞ못 용왕 모셔근에 잘 안 허민 망허여, 망허여. 헌디 이모네 막 잘 살아낫어, 옛날.(그러니까 그거 그 우리 우리 안 했는데 우리 이모네가 '자구내'에 살면서 모셨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있을 때 아이고, 저거 무슨 도깨비 모셔서 사뭇 용왕 모셔서 잘 안 하면 망해, 망해. 그런데 이모네 아주 잘 살았었어, 옛날.) 26 // 짐, 짐. 게난 잘 뒈믄 거 저 우리 허벅 열두 뒈 드는 허벅으로 저 자구내 우리 이모 사난 뱃사름덜안티 막 그거 이모ᄀᆞ라 ᄑᆞᆯ아 ᄃᆞ렌 헹 잘 찌어나서. 오래비 그때 대학 공부시키젠 허난. 그땐 대학교 허는 사름이 엇어서.(김, 김. 그러니까 잘 되면 거 저 우리 '허벅' 열두 되 드는 '허벅'으로 저 '자구내' 우리 이모 사니까 뱃사람들한테 아주 그거 이모보고 팔아 달라고 해서 잘 쪘었어. 오라비 그때 대학 공부시키려고 하니까. 그땐 대학교 하는 사람이 없었어.) 26 [고산, 신도, 신창]

자굴촐: 자귀풀이 열매가 맺기 전에 소먹이용으로 베는 풀이다. '자골촐'이라고도 한다. // 거 서꺼진 거 비엉 멕여. 쉐 멕이는 거. 자굴촐이엔 허영.(그거 섞인 거 베어서 먹여. 소 먹이는 거. 자귀풀꼴이라고 해서.) 02 [선흘]

자니ᄆᆞ루당: 표선면 성읍리 지경의 '자니ᄆᆞ루'에 있는 당이어서 붙은 명칭이다. // 당에 아

무 때나 가는 게 아니주. 유월ᄃᆞᆯ 나민 유월 초일레, 열일뤠, 쓰무일뤠. 동짓ᄃᆞᆯ 나민 동짓ᄃᆞᆯ 초일뤠 열일뤠 쓰무일레 영 가는 거주. 일뤳당, 건 자니ᄆᆞ루당.(당에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지. 유월달 나면 유월 초이레, 열이레, 스무이레. 동짓달 되면 동짓달 초이레 열이레 스무이레 이렇게 가는 거지. '일뤳당', 건 '자니ᄆᆞ루당'.) 14 [성읍]

자락: '와락'을 가리키는 제주어이다. // 엣날엔 아기 어멍 아기 나민 젓이 엇이민 그 북바리 사당은에 국 끌영 먹으면이 젓이 경 자락 나와, 애기 어멍.(옛날은 아기 어머니 아기 낳으면 젖이 없으면 그 붉바리 사다가 국 끓여서 먹으면 젖이 그렇게 '자락' 나와, 아기 어머니.) 33 [인성]

자락: 과일 따위가 많이 달리거나 김 따위가 무성하게 난 모양을 말한다. // 이백 말 통더레 탕은에 세 고지로 허민. 아니 어느 헨 허단 보난 미깡을 자락 ᄋᆞᆯ아부난에 허지 못허난에 나가 허는 말이. 야, 족은아덜신디레 야, 도저히 알로 못 허키여.(이백 말 통에 타서 세 군데로 하면. 아니 어느 해는 하다보니까 감귤이 '자락' 열어버려서 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야, 작은아들에게 야, 도저히 아래로 못 하겠어.) 32 [덕수]

자리: 돼지 두 마리를 일컬을 때 쓰는 단위 명사이다. // 도새기 ᄒᆞᆫ 자리는 그거 쌍이라.(돼지 한 '자리'는 그거 쌍이야.) 01 [도련]

자리다: 소똥 등을 차곡차곡 모아놓는다는 의미로 쓰인 듯하다. // 그 쉐걸름이주게. 쉐 해서 자령, 그걸 터당 또 돗통시에 그 담는단 말이여, 걸.(그 소거름이지. 소 해서 '자령', 그걸 떠다가 또 돼지우리에 그 담는단 말이야, 그걸.) 15 [수망]

자리물훼: 자리돔을 잘게 썬 것에 채소 따위를 넣어서 식초를 곁들여 만든 냉국이다. // 자리물훼에 제피 꼭 놓민 좋고. 그것도 ᄉᆞᆼ키로 똑똑 뒌장에 ᄒᆞ나 ᄒᆞᆫ 가지썩 먹어봐, 맛좋아. 우리 저디 낭 이서.(자리물회에 초피를 꼭 놓으면 좋고. 그것도 푸성귀로 똑똑 된장에 하나 한 가지씩 먹어봐, 맛있어. 우리 저기 나무 있어.) 02 // 자리물훼는 ᄒᆞᆯ 훍은 자리 사다근에 비늘 거시령, 비늘 거시려뒁 옆 꽝, 옆 꽝만 떼어. 옆 꽝만 떼여뒁, 옆 꽝만 떼어놔근에 이젠 저 싯어.(자리물회는 조금 굵은 자리 사다가 비늘 '거시령', 비늘 '거시려'둬서 옆 뼈, 옆 뼈만 떼어. 옆 뼈만 떼어둬서, 옆 뼈만 떼어둬서 이젠 저 씻어.) 08 // 자리물훼 자리 사다근에 비늘 거시려 뒁 짤라놓고 뭐 식촌 아무 때도 식촌 잇으니까 식초 놓고 고칫ᄀᆞ르 좀 놓고. 게, 고칫ᄀᆞ르도 많이 못 먹엇어.(자리물회는 자리돔 사다가 비늘 '거시려' 두고 잘라넣고 뭐 식촌 아무 때도 식촌 있으니까 식초 넣고 고춧가루 좀 넣고. 게, 고춧가루도 많이 못 먹었어.) 14 // 바당 아니라도 자리물훼는 헹 먹어 여기서도.(바다가 아니라도 '자리물회'는 해서 먹어 여기서도.) 16 [동광, 선흘, 성읍, 하원]

자리여: 애월읍 고내리에 있는 여의 이름이다. // 고내 바당 쪽에는 고내 앞에는 이제 저에, 자리연가 허고.(고내 바다 쪽에는 고내 앞에는 이제 저 에, '자리여'인가 하

고.) 20 [고내]

자리왓: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한 자연 마을이다. // 요쪽에 지금도 아직 이키로 삼키로. 남평 문씨 설촌인데, 그 본부가 어도이구 자리왓이라. 거의 남평 문씨만 거의 살고, 우리 강씨는 여기 살다가 우리 오대 하르방이 올라간 살앗주.(요쪽에 지금도 아직 이 킬로 삼 킬로. 남평 문씨 설촌인데, 그 본부가 어도이구 '자리왓'이야. 거의, 남평 문씨만 거의 살고, 우리 강씨는 여기 살다가 우리 오대 할아버지가 올라가서 살았지.) 36 [봉성]

자리젓국: 자리젓을 따뜻한 물에 이겨서 나물을 넣고 끓이는 국이라고 말한다. // 자리젓국도 잇어, 자리젓을 저 뒌장 대신 자리젓을 이겨근에.('자리젓국'도 있어, 자리젓을 저 된장 대신 자리젓을 이겨서.) 16 [하원]

자릿그물: 자리돔을 뜰 때 사용하는 그물이다. // 경 허연 야 자리 하영 날 때난 자릿그물 헹은에 자리 거리자 헨 자릿그물 멘들앙 자릴 거려신디.(그렇게 해서 야 자리돔 많이 날 때니까 '자릿그물' 해서 자리돔 뜨자 해서 '자릿그물' 만들어서 자리돔을 떴는데.) 23 [온평]

자릿도새기: 어미젖을 떼었어도 아직 두 마리를 우리에 함께 넣고 기르는 돼지를 말한다. // 자릿도새기는 자릿도새기엔도 곧곡. 새끼도새기ᄀᆞ라 자릿도새기.('자릿도새기'는 '자릿도새기'라고도 말하고. 새끼돼지 보고 '자릿도새기'.) 07 // 도새기 심어당 자릿도새기 놓민 돗도고리 요추룩 ᄒᆞᆫ 거 놩, 자릿도새기 심어오랑 족은 도새긴 ᄀᆞ루 ᄆᆞᆫ작ᄒᆞᆫ 걸로 주곡, ᄒᆞ꼼 커 가민 방에 져난 보리체, 그걸로 주곡, 돗도고리 영 놩.(돼지 잡아다가 '자릿도새기' 넣으면 '돗도고리' 요처럼 한 거 놓아서, '자릿도새기' 잡아와서 작은 돼지는 가루 반드러운 걸로 주고, 조금 커 가면 방아 찧었던 보리쌀의 겉껍질, 그것으로 주고, '돗도고리' 이렇게 놓아서.) 17 [대평, 보목]

자바라: 귤의 품종을 말한다. // 타레 가난 이웃집 사름도 ᄀᆞ치 가멍 뭣허레 감수광? 허난에 새 낭에 미깡 다섯 콘테나 열앗젠 허멍 타레 감저 허난 ᄀᆞ치 강 보겐 허난 스무 콘테나도 더 나. 어이구 우리 미깡은 자바라엔 헌 거.(따러 가니까 이웃집 사람도 같이 가면서 뭐하러 갑니까?하니까 새 나무에 귤 다섯 컨테이너 열었다고 하면서 따러 간다 하니까 같이 가서 보자고 하니까 스무 컨테이너도 더 나. 어이구 우리 귤은 '자바라'라고 한 거.) 33 [인성]

자부동: 방석이라는 뜻으로 일본어 'ざぶとん'에서 온 말이다. // 홍세 싸는 건 노란포따리. 요런 색깔을 주로 많이 써, 자부동 색깔.(혼서 싸는 건 노란보자기. 요런 색깔을 주로 많이 써. 방석 색깔.) 14 // 베개허고, 자부동도 둬 개 허고.(베개하고, 방석도 두 개하고.) 33 [성읍, 인성]

자빡도리: 뒤로 기울어지고 끝이 뒤틀린 자빡뿔을 갖고 있는 소를 말하는 것이다. // 자빡도리엔 헌 건이 뿔이 족아, 크지 안헤여. 몽콜락헤둠서 것ᄀᆞ라 자빡도리.('자빡도리'라고 한 건 뿔이 작아, 크지 않아. 뭉툭해서 그것보고 '자빡도리'.) 02 // 그

거 자빡도리옌도 허고 건지뿔이렌 하고.(그거 '자빡도리'라고도 하고 '건지뿔'이라고 하고.) 03 // 앞으로 돌아온 거 잇고이 영 두이로 자빠진 건 이 두이로 자빠진 건 자빡도리엔 허는디 앞으로 돌아온 거는 거 잘 모르겟네.(앞으로 돌아온 거 있고 이렇게 뒤로 자빠진 건 이 뒤로 자빠진 건 '자빡도리'라고 하는데 앞으로 돌아온 거는 거 잘 모르겠네.) 14 // 뿔 모양이 오그라진 것도 있고, 뭐. 그런 건 자빡도리렌 허여.(뿔 모양이 오그라진 것도 있고, 뭐. 그런 건 '자빡도리'라고 해.) 21 [선흘, 성읍, 송당, 신촌, 한동]

자빡뿔: 뒤로 기울어지고 끝이 뒤틀린 자빡뿔을 말한다. // 뿔은 무신 자빡뿔이여 무시거여 말은 잇는데 거는 뭐.(뿔은 무슨 자빡뿔이다, 뭐다 말은 있는데 그거는 뭐.) 11 [함덕]

자우락자우락: 힘이 없거나 어지러워서 몸을 바로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는 모양이다. // 비형기가 오라근에 영 ᄂᆞ치 떠근엥에 자우락자우락 허당 기자 삐라 짝 뿌려동 가불어.(비행기가 와서 이렇게 낮게 떠서 '자우락자우락' 하다가 그저 삐라 짝 뿌려 놓고는 가 버려.) 24 [세화]

자운당: 애월읍 하가리 입구 쪽에 있는 지명이다. // 그때 알아진 기억은 그때 구엄 사삼사건 습격 들어온 때, 고내, 자운당 애기벤돌거리라고 잇수다게.(그때 알았던 기억은 그때 '구엄' 사삼사건 습격 들어온 때, '고내', '자운당' '애기벤돌거리'라고 있습니다.) 28 [구엄]

자짝뿔: 뒤로 기울어지고 끝이 뒤틀린 자빡뿔을 말한다. // 건 자짝, 자짝, 자짝뿔이엔 허고.(건 '자짝', '자짝', '자짝뿔'이라고 하고.) 29 [외도]

자파리: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놀이 또는 장난이다. 달리 '잡파리'라고 한다. // 자파리는 어른덜 ᄀᆞᆫ는 말이곡 거 본전허겐 허민 이거 다 알아들어. 우리 어린 때이 어른덜 ᄀᆞᆫ는 건 자파리.('자파리'는 어른들 말하는 말이고 그거 본전하자고 하면 이거 다 알아들어. 우리 어린 때 어른들 말하는 건 '자파리'.) 10 // 돈 받앙. 게난 돈 받는 놈은 꼭, 요즘 ᄀᆞ트면 개그멘 닮은 놈들이 잇어. 옛날 동네에. 웃기고 자파리 허고.(돈 받고. 그러니까 돈 받는 놈은 꼭, 요즘 같으면 개그맨 닮은 놈들이 있어. 옛날 동네에. 웃기고 '자파리' 하고.) 36 [월령, 봉성]

작굿떡: 여러 가지 떡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흰쌀로 만든 떡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다. // 거 오만 거 다섯 개 다 허민 작굿떡.(그거 온갖 거 다섯 개 다 하면 '작굿떡'.) 13 // 작굿엔 헌 건 여라 가지 떡.('작굿'이라고 한 건 여러 가지 떡.) 14 // 솔벤, 절벤 ᄆᆞᆫ딱. 그 작구떡이엔 ᄒᆞ는 게 그거주게.('솔벤', 절편 모두. 그 '작구떡'이라고 하는 게 그거지.) 15 // 만드는 거 도아 ᄒᆞ젠 헤나실 거주게. 게난, 그 그건 작구떡이라고 헤서 의미가 신 떡이라 부난.(만드는 거 도와서 하려고 했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그건 '작굿떡'이라고 해서 의미가 있는 떡이라 버리니까.) 15 [삼달, 성읍, 수망]

작박: 작은 바가지를 말한다. 표준어 '쪽박'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여기에서는 조의 잎이

‘작박’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 잎을 ‘작박’에 비유해서 붙인 명칭이다. // 처음 나오는 게 작박. 작박 뒈영 다음 나오는 게 작박에 침 질렀저 허주.(처음 나오는 게 ‘작박’. ‘작박’ 되어서 다음 나오는 게 ‘작박’에 ‘침’ 찔렀지 하지.) 14 // 좁씨는 좁씨대로 뿌리고 불체는 불체대로 건 여자덜이 뿌리고 허며는 그 불체 뿌리민 날 때부터 조가 작박이라고 허여.(조씨는 조씨 대로 뿌리고 재는 재대로 건 여자들이 뿌리고 하면 그 재 뿌리면 날 때부터 조가 ‘작박’이라고 해.) 19 [성읍, 청수]

작벡: 자갈을 쌓아 올린 담벼락이나 돌무지이다. // 촐 비렌 가민 갈치 궝 먹을 시간은 엇곡, 작벡 우의 올랑은에 졸겡이 타 먹곡 멀리, 멀리, 그땐 뭐 베고픈 시절이난.(꼴 베러 가면 갈치 구워서 먹을 시간은 없고, 잣벽 위에 올라서 으름 따 먹고 머루, 머루, 그땐 뭐 배고픈 시절이니까.) 34 // 작벡 우의덜 막 멀뤼 ᄀᆞ튼 거 막 하낫수다게.(‘작벡’ 위에들 아주 머루 같은 거 아주 많았었습니다.) 34 [구억]

작산: 어떤 것 많거나 크다의 뜻으로 쓰이는 어휘이다. // 벡장엔 이제사 놈주게. 옛날에 그 작산 감절 어떵 벡장에 놔. 이제 사름덜 헤꼬만 밧 구석에 ᄒᆞᆫ 발썩 싱그는 사름게.(벽장엔 이제야 놓고 있지. 옛날에 그 많은 고구마를 어떻게 벽장에 놔. 이제 사람들 조금만 밭 구석에 조금씩 심는 사람.) 17 // 시국 아이고 환장허여. 게난 큰어머니 난 아기 난 어멍이 돌아불언. 큰어멍이, 작산 아덜게.(시국 아이고 환장해. 그러니까 큰어머니 난 아기니까 어머니가 돌아버렸어. 큰어머니가, 다 큰 아들.) 21 // 안 헌다. ᄀᆞᆯ겡이로 어떵 허영 그 작산 거 ᄀᆞᆯ겡이로.(안 한다. 호미로 어떻게 해서 그 많은 거 호미로.) 26 [대평, 신촌, 신창]

작작: 거침없이 밀거나 지나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게서 복개헤 부니까 그보단 아주 깨끗허고 널리 이용헤지고. 부락에 뭐. 버스가 이레 못 들어와났습니다. 이제는 대형차도 작작 들어오고예.(그래서 복개해 버리니까 그보단 아주 깨끗하고 널리 이용할 수 있고. 부락에 뭐. 버스가 이리 못 들어왔었습니다. 이제는 대형차도 ‘작작’ 들어오고요.) 20 [고내]

작젱이: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 우리도 요 쪼금 한질 우터레 올라간 작젱이엔 헌디.(우리도 요 조금 한길 위에 올라가서 ‘작젱이’라고 하는데.) 28 [구엄]

잔인ᄆᆞ루: 표선면 성읍1리 지명의 하나이다. // 또 잔인ᄆᆞ루는 가면은 저, 저건 저건 베염당엔 허는디, 베염당엔 허는디 ᄒᆞ나 잇고. 안할망 잇고.(또 ‘잔인ᄆᆞ루’는 가면은 저, 저건 저건 ‘베염당’이라고 하는데, ‘베염당’이라고 하는데 하나 있고. ‘안할망’ 있고.) 14 [성읍]

잔철: 무쇠 솥 중에서 가장 자그마한 솥을 말한다. // 쒯물이 좀 남으면 질 작은 것에 쒤질어서 잔철이거든. 남은 쒜를 가서 쏟앗다고 헤서 잔철.(쇳물이 좀 남으면 젤 작은 것에 쇠를 부어서 ‘잔철’이거든. 남은 쇠를 가서 쏟았다고 해서 ‘잔철’.) 32 // 잔철로도 즉 말허면 자리 ᄀᆞ뜬 거 ᄒᆞᆫ ᄋᆞ남은 개 놩 보깡 지졍 먹고게. 조그만 거 작은 거.(‘잔철’로도 즉 말하면 자리돔 같은 거 한 여남은 개 넣어 볶아서

지져서 먹고. 조그만 거 작은 거.) 32 [덕수]

잔치밥: 잔치에 짓는 밥이다. 주로 팥을 넣어 밥을 짓는다. // 잔치밥에 홀 떼 풋밥 헷주. 집이서 가정에서 먹을 때 풋밥헹 먹는 디가 벨로 엇엇일 거우다.(잔치밥에 할 때 팥밥했지. 집에서 가정에서 먹을 때 팥밥해서 먹는 데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04 [고성]

잔치밧: 잔치가 열리는 집을 말한다. '밧'은 밭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집'을 밭에 비유해서 표현한 말이다. // 경 허난 옛날에 애기 돌아근에 저 잔치밧듸 영 가면은 애기가 아기가 가죽을 먹으면은 이제 연치카부덴 저 아방이 그 아덜 반에 그 고기를 영 헤근에 가죽 영 떼어 가민 "아버지 술도 하영 부떠벰젠 허멍.(그렇게 하니까 옛날에 아기 데려서 저 '잔치밧'에 이렇게 가면 아기가 아기가 가죽을 먹으면 이제 체할까봐서 저 아버지가 그 아들 반기에 그 고기를 이렇게 해서 가죽 이렇게 떼어 가면 "아버지 살도 많이 붙어버리고 있다"고 하면서.) 05 // 권당칩이 잔치허난에 잔치밧듸 갓곤데 아이고, 는, 낼 도새기 잡는 날이고 오널은 그 잔치칩이난 간. 아 잔친걸 잔치 먹으레 온딘.(권당집에 잔치하니까 '잔치밧'에 갔길래 아이고, 넌, 낼 돼지 잡는 날이고 오늘은 잔칫집이니까 갔어. 아 잔치인 걸 잔치 먹으러 왔냐고.) 13 // 궤기 썰엉만 내불민 지네 먹고 싶은 냥 앗당 먹어, 이젠. 잔치밧듸 가나 영장밧듸 가나 다 그거.(고기 썰어서만 내버리면 지네 먹고 싶은 대로 가져다가 먹어, 이젠. 잔칫집에 가나 장지에 가나 다 그거.) 14 [삼달, 성읍, 표선]

잘락잘락: 물을 한꺼번에 끼얹거나, 힘차게 밀어내는 모양을 표현한 말이다. // 옷헤근에 뿔앙 그레 놩 잘락잘락 놀령 접지랑 널엇당 경허주게. 거 풀 멕영.(옷해서 빨아서 그리 놔서 '잘락잘락' 움직여서 짜서 널었다가 그렇게 하지. 그거 풀 먹여서.) 13 [삼달]

잘락잘락: 아무렇게나 흐트러진 모양 또는 아무렇게나 흘어놓는 행위를 말한다. // 뚠 사름들은 잡으나 마나 기냥 잘락잘락 놓단 보민 허터지곡.(다른 사람들은 잡으나 마나 그냥 '잘락잘락' 놓다 보면 흐트러지고.) 03 [송당]

잠데: '쟁기'의 제주어이다. // 보통 잠데 메어가지고 남자가 허주게.(보통 쟁기 메어가지고 남자가 하지.) 09 // 잠데라는 거 영 밧 가는 거 잇어. 영 손 심엉 옛날 밧 가는 거 잇어, 쉐 먹영 그것에 헤 가지고 쉐 ᄀ르친 쉐로 그걸로 허주게.(쟁기라는 거 이렇게 밭 가는 거 있어. 이렇게 손 붙잡아서 옛날 밭 가는 거 있어, 소 먹이고 그것에 해 가지고 소 가르친 소로 그걸로 하지.) 09 [고산]

잡식허다: '제를 지내고 난 후 술잔에 진설되었던 제수들을 조금씩 뜯어서 놓고 그것을 바깥에 두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제를 올린 조상 주변에 빈곤한 떠돌이 귀신들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그런 귀신들 달래고 대접하는 행위를 말한다. 끝나고 올레에 뿌려준다. // 게 잡식헹 소주 혼잔 비왕 절허영 한번 절해근엥예 잡식헹 올려뒁 이제 그다음부터는 멩질제를 헐거 차리는 거주.(그럼 '잡식해서' 소주 한잔 비워

서 절하고서 한번 절하고 나서 '잡식'해서 올려두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명절제를 할 거 차리는 거지.) 03 // 그 술잔에 잡식헌 걸 갓다가 지붕 우에 올리던가 아니면 올레러러 영 거세기.(그 술잔에 제반한 걸 갔다가 지붕 위에 올리든가 아니면 '올레'에 이렇게 거시기.) 12 [송당, 한동]

잣: 기다랗게 돌을 쌓아 올린 담을 말한다. // 돌아가멍덜 문 지켯주게. 경 첨 그 성 문 지켯고 잣 다왕 뭐 오죽 ᄉᆞ못 이 토평은 난리 나나신에.(돌아가면서들 모두 지켰지. 그렇게 참 그 성 모두 지켰고 담 쌓아서 뭐 오죽 사뭇 이 토평은 난리 났었어.) 31 [토평]

잣담: 자갈을 쌓아 올린 담벼락이나 돌무지를 말한다. '잣벽'이라고도 한다. // 이게. 갑이 많이 나갔는데 이건 저 어디 목장 가면은 이수장 경계에 이 잣담이라고 이수다.(이게. 값이 많이 나갔는데 이건 저 어디 목장 가면 이소장 경계에 이 '잣담'이라고 있습니다.) 03 // 이 잣담에 족제비가 잘 살거든. 그딜 많이 노레 뎅겨봣주.(이 '잣담'에 족제비가 잘 살거든. 거길 많이 놓으러 다녀봤지.) 14 // 그디 강 안 헤도. 그딘 영 잣담 단 디 강 헤나서. 잣담 단 디 강 헤나서. 잣담 단 디.(거기 가서 안 해도. 거긴 이렇게 '잣담' 쌓은 데 가서 했었어. '잣담' 쌓은 데 가서 했었어. '잣담' 쌓은 데.) 26 // 공출 막 바쪄. 만일 ᄊᆞᆯ, 보리 열 가마니 헤도 열 가마니 바쪄 불민 엇지 안허여. 겨난 이제 막 잣담 팡도 묻고 어디 강 땅 팡도 묻어서, 그 ᄊᆞᆯ.(공출 마구 바쳐. 만일 쌀, 보리 열 가마니 해도 열 가마니 바쳐 버리면 없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마구 '잣담' 파서도 묻고 어디 가서 땅 파서도 묻었어, 그 쌀.) 26 [성읍, 송당, 신창]

잣벡: 자잘한 돌로 벽처럼 쌓아 만든 밭의 울타리를 일컫는 말이다. // 군산 에염에 이짝으로 서짝으로 작벡이 잇엇수다. 돌 메완 작벡인디.('군산' 옆에 이쪽으로 서쪽으로 '잣벡'이 있었습니다. 돌 메워서 '잣벡'인데.) 17 // 작지가 많이 저 소왕져서 그런 건디. 경 헤 가지고 이제 헌디 그 잣벡마다 보면은 간간이 그 수리대.(자갈이 많이 저 '소왕져서' 그런 건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잣벡'마다 보면 간간이 그 이대.) 29 // 잣벡은 이중으로 막 쌍 올라간 거게.('잣벡'은 이중으로 마구 쌓아서 올라간 거.) 30 [노형, 대평, 외도]

장궤: 마루 뒤쪽이나 툇마루 벽을 이용하여 만든 붙박이장을 말한다. '벽장(壁欌)'의 의미이다. // 장궤, 두 군데 양쪽 헷주게. ᄒᆞᆫ쪽에는 젯상, 젯상을 놓곡. ᄒᆞᆫ쪽엔 젯그릇 놓곡.('장궤'. 두 군데 양쪽 했지. 한쪽에는 제상, 제상을 놓고. 한쪽엔 제기 놓고.) 14 [성읍]

장귀: 악기 '장구'를 말한다. // ᄆᆞ을 사름덜이 ᄎᆞᆯ려 가지고 춤도 추곡게 북 장귀 두드리멍 노는 게 걸궁이주.(마을 사람들이 차려 가지고 춤도 추고 북 장구 두드리면서 노는 게 걸궁이지.) 02 // 두드는 장귀. 굿할 때 장귀.(두드리는 장구. 굿할 때 장구.) 03 [선흘, 송당]

장깨미: 장을 담근 '메주 덩어리'를 말한다. // 장깨미, 영 영 똑똑 떠다 먹엇지. 떠놩은에

묵엿당 먹을 수도 없어. 없어 가지고.(‘장깨미’, 이렇게 이렇게 똑똑 떠다 먹었지. 떠놓아서 묵혔다가 먹을 수도 없어. 없어 가지고.) 01 [도련]

장껜: 일본어 ‘じゃんけん(ぽう)’에서 온 말로, ‘가위바위보’를 말한다. 제보자는 ‘가위바위보’를 ‘장껜’, ‘장껜보’, ‘장껨뽀’, ‘장겸보’, ‘장끼’ 등으로 말하고 있다. // 게믄 그 춪는 사름 어떵 정해? 너가 춪아, 영허젠 허민.(그러면 그 찾는 사람 어떻게 정해? 네가 찾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장겸보헤연 헤실 거여.(가위바위보해서 했을 거야.) 02 // 요즘은 가위바위보 헤연 허주만은 그때는 장껨뽀.(요즘은 가위바위보 해서 하지만 그때는 ‘장껨뽀’.) 03 // 경 헨 춪으면은 춪은 사름들끼리 장껜 불렁 술래허고.(그렇게 해서 찾으면 찾은 사람들끼리 가위바위보 불러서 술래하고.) 06 // 춪은 사름끼리만 또 장껜보허는 거라.(찾은 사람끼리만 또 가위바위보하는 거야.) // 장겐뽀 헹 진 사름은 진 사름끼리, 이긴 사름은 이긴 사름끼리.(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은 진 사람끼리,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끼리.) 12 [남원, 선흘, 송당, 수망, 한동]

장남: ‘건강한 일꾼’ 혹은 ‘머슴’을 뜻한다. // 장남 사는 집이 잇어. ᄒᆞ끔 잘 사는 집은 장남 데령 살아.(‘장남’ 사는 집이 있어. 조금 잘 사는 집은 ‘장남’ 데리고 살아.) 27 [웅포]

장남밥: 머슴이나 일꾼을 뜻하는 ‘장남’에 ‘밥’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로 장남이 먹을 밥이라는 뜻이다. // 육지 사름들도 장남밥이라고이 농촌 사름들 밥 먹는 건이, 사발이 이만큼 움팍 커.(육지 사람들도 ‘장남밥’이라고 농촌 사람들 밥 먹는 건, 사발이 이만큼 움푹 커.) 25 [태흥]

장낫: ‘장(長)+낫’ 구성으로, 자루와 날이 보통의 낫보다 크고 긴 도구를 말한다. 달리 ‘낫’이라고 한다. 보통의 낫을 제주에서는 ‘호미’ 또는 ‘좀호미’라고 한다. ‘장낫’을 이용하여 꼴 따위를 베려고 하면 서서 베야 한다. // 한동 저쪽으로 구좌, 구좌로 낫이엔 허민 장낫.(한동 저쪽으로 구좌, 구좌로 낫이라고 하면 ‘장낫’.) 01 // 촐 ᄒᆞᆫ 바린 마흔 뭇. 여기도 이 저 뭐 낫으로 빈 거? 장낫. 그건 서른 뭇 쳐.(꼴 한 바리는 마흔 뭇. 여기도 이 저 뭐 낫으로 벤 거? ‘장낫’. 그건 서른 뭇 쳐.) 01 // 장낫으로 비는데 동쪽은 장낫으로 허는데. 그 호민 장낫을 가졍 이딘 뒈질 아녀.(‘장낫’으로 베는데 동쪽은 ‘장낫’으로 하는데. 그 낫은 ‘장낫’을 가져서 여긴 되질 않아.) 29 [도련, 외도]

장막눌: 크고 길쭉하게 가리는 가리를 말한다. // 조칩도 경 동글랑허게 눌곡 저 드르에 강 촐 눌엉 쉐 질루는 집인 막 크게 장막눌 크게 눌주게.(조짚도 그렇게 동그랗게 가리고 저 들에 가서 꼴 가려서 소 기르는 집은 막 크게 ‘장막눌’ 크게 가리지.) 13 // 수랑ᄒᆞ게 눈 건 장막눌.(길쭉하게 가린 건 ‘장막눌’.) 13 [삼달]

장만이동산: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동산 이름이다. // 소위 벵딧까름동네, 성안동네, 남문동네, 웃도릉 웃동네 ᄒᆞ문, 장만이동산, 아 요런 이 저 동네별로 허문은 거이 접이나 계가.(소위 ‘벵딧가름’동네, ‘성안’동네, ‘남문’동네, ‘웃도릉’ 윗동네 하면, ‘장

만이동산', 아 요런 이 저 동네별로 하면은 거의 계나 계가.) 04 [고성]

장밧: 남원읍 태흥리의 지역 명칭이다. // ᄒᆞᆫ 가족만 건 김 참서, 김 참서허영 어디 가도 이제 우리 저디 하르방 정도는 태흥 삼리 장밧듸 김칩허민 장밧 김칩이엔 허민 그 집 막 벌어졋어.(한 가족만 그건 김 참서, 김 참서해서 어디 가도 이제 우리 저기 할아버지 정도는 태흥 삼리 '장밧'에 김씨 집하면 '장밧' 김씨 집이라고 하면 그 집 아주 벌어졌어.) 25 [태흥]

장밧퍼기: 남원읍 태흥리 지역 명칭인 '장밧'에 일가친족 뜻하는 '퍼기'를 결합한 말이다. // 요 장밧퍼기 떨어불민 원 부제로 사는 사름도 엇고. ᄇᆞ듯 이녁 밥 먹어.(요 '장밧퍼기' 빼 버리면 원 부자로 사는 사람도 없고. 바듯이 자기 밥 먹어.) 25 [태흥]

장방: 마루 구석에 찻장처럼 만들어서 제기나 그릇을 놓아 두는 곳이다. // 또 마리에도 장방이 잇거든, 장방. 그 살레ᄀᆞ추룩 문 네 개, 문 두 개 ᄃᆞᆯ아근에 영 자치곡 허영 찻장 모냥으로.(또 마루에도 '장방'이 있거든, '장방'. 그 살강처럼 문 네 개, 문 두 개 달아서 이렇게 젖히고 해서 찻장 모양으로.) 02 [선흘]

장석: 몸이 편안하지 못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 때 끙끙 내는 소리를 말한다. // 쉐가 영 보난 밤이 눠둠서 들으난. 저 하르방 간세로 아이 나가. 경허난이 막 쉐 장석 소리 나난 가보난 송애기 나젠 허는디.(소가 이렇게 보니까 밤에 누어서 들으니까. 저 할아버지 게으름으로 안 나가. 그러니까 난 막 소 '장석' 소리 나니까 가 보니까 송아지 낳으려고 하는데.) 02 // 아기 털어진 거만 그디 수건 시난 영영 머리 막 궂인 거 부떤, 는잘는잘 부뜨난 그거만 영 씨노렌 허난. 아이고, ᄋᆞ게, 힘내라 아이고 느가 장석 나왐구나 힘내라 허난 뭣 나왓수다. 뭣 나와시민 뒛저. 경헨 이젠 방석 나오난 그 베똥줄을 아기신디레 가게 영영 훌터.(아기 떨어진 거만 거기 수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머리 막 궂은 거 붙었어, '는잘는잘' 붙으니까 그것만 이렇게 쓴다고 하니까. 아이고, 응, 힘내라 아이고 네가 '장석' 나오는구나 힘내라 하니까 뭐 나왔습니다. 뭐 나왔으면 됐다. 그렇게 해서 이젠 태반 나오니까 그 탯줄을 아기에게 가게 이렇게 이렇게 훑어.) 33 [선흘, 인성]

장석굴: 제주시 삼양1동에 있는 자연 마을의 하나이다. // 그 이 장석굴이엔 헌 디. 나 살아난디 간 ᄒᆞᆫ 이 년 살아난디.(그 이 '장석굴'이라고 하는 데. 나 살았었는데 가서 한 이 년 살았었는데.) 01 [도련]

장석허다: 몸이 편안하지 못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 적에 끙끙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 힘 남젠 허난 힘 나가건 날 ᄌᆞᆯ건 심엉이, ᄌᆞᆯ건 심엉 니도 저 장석허곡이 저 힘 남젠 허민 나 니 이 요디 오목가슴 나 꼭허게 이 동무릅으로 누드렁 나신디레 시꺼지렌 허영이.(힘 난다고 하니까 힘 나면 날 불끈 잡아서, 불끈 잡아서 너도 '장석'하고 저 힘 난다고 하면 나 너 이 요기 오목가슴 나 꼭하게 이 무릎으로 눌러서 나에게 실리라고 해서.) 33 [인성]

장애자: 장의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 이젠 다 장애자허민 그자 ᄒᆞᆷ치헹 딱 돈만 주민

헤도 옛날은 문딱 빌어사.(이젠 다 장의사하면 그저 함께해서 딱 돈만 주면 해도 옛날은 모두 빌어야.) 13 // 막 빗난 낭으로 허영 놔뒀당인에 허주마는 요즘은 죽엇젠 허민 장애자 시민 관 앚져당 탁 허게.(막 비싼 나무로 해서 놔뒀다가 하지만 요즘은 죽었다고 하면 장의사 있으면 관 가져다가 탁 하게.) 33 [삼달, 인성]

장지방: 기둥 중 하인방의 일종이다. 한반도의 하방은 마루 높이로 들어가지만 제주도에서는 거의 지면에 맞닿을 정도로 아주 낮고 튼튼하게 돌려진다. 사람에 따라서는 '장지벙'이라고도 한다. // 요거 이 형태가 장지방 이거 다 들어가는 것이고. 지방 밑에 들어가는 거 잇어.(요거 이 형태가 '장지방' 이거 다 들어가는 것이고. 지방 밑에 들어가는 거 있어.) 01 [도련]

장캐미: '장'과 '개미'의 합성어로 간장에 담가진 메주를 말한다. // 장물에 안 들인 건 뒌장, 장물에 들이쳐진 건, 저 저 장캐미. 장캐미 강 건져오라.(간장에 안 들이뜨린 건 된장, 장물에 들이뜨린 건, 저 저 '장캐미'. '장캐미' 가서 건져와라.) 25 // 그냥 따시 장물 갈랑 그냥 헌 땐, 뒌장 거려오라 영 헷주만은, 그 간장물에 신 때 강 거려오젠 허민 저 장캐미 강 ᄒᆞ나 거려오라.(그냥 다시 간장 갈라서 그냥 한 땐, 된장 떠와라 이렇게 했지만, 그 간장 물에 있을 때 가서 떠오려고 하면 저 '장캐미'가서 하나 떠와라.) 25 [태흥]

장콩: 장을 담글 용도로 가는 콩을 말한다. // 장콩이라고 헤서 머드레콩이렌 허는 게 이서수다.(메주콩이라고 해서 그루콩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03 [송당, 표선]

장터: 구좌읍 송당리의 자연 마을 이름이다. // 게난 옛날도 들겡이목, 대천동, 장터 영 헤낫수다.(그러니까 옛날에도 '들겡이목', '대천동', '장터'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03 [송당]

장테: 양푼 모양으로 하되 그보다 크게 만든 질그릇이다. // 낭 도구리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안 허민 장테, 장테라고 허주. 대정서 만든 거 풀레 오는 사기 장테.(나무 함지박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안 하면 '장테', '장테'라고 하지. 대정에서 만든 거 팔러 오는 사기 '장테'.) 06 // 방안에 장테 바투곡 헹 방안에 아졍 놧당 이젠 거 ᄒᆞ루 삼시 씻어사주.(방안에 '장테' 받치고 해서 방안에 가져다 놨다가 이젠 그거 하루 삼시 씻어야지.) 13 // 사그마치는게 돌 허영 방찰락 헐 때 사금마치도 허고. 저 장테, 장테 벌러진 거 허영 영 허영 방찰락 헐 때 그걸로. 이레 강 차고 저 방에 강 차고.(사금파리는 돌 해서 '방찰락' 할 때 사금파리도 하고. '장테', '장테' 깨진 거 해서 이렇게 해서 '방찰락' 할 때 그걸로. 이리 가서 차고 저 방에 가서 차고.) 26 // 마농 삐져 놓고 고치가루 놓고 또 꿰ᄀᆞ루영 좀 서껑 생강도 뽓아 놓곡 경헹인에 양념을 ᄒᆞᆫ 장테 허민 이제 이파리 걷으멍 영영 ᄇᆞᆯ랑.(마늘 빻아 넣고 고춧가루 넣고 또 깻가루랑 조금 섞어서 생강도 빻아 넣고 그렇게 해서 양념을 한 '장테' 하면 이제 이파리 걷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발라서.) 33 [남원, 대평, 동광, 삼달, 신창, 인성]

장톡: 들에 일하러 다닐 때 된장이라든지 젓을 담고 다니는 통이다. // 저 장톡에 뒌장 놩 양에잎 것드당 꾹 놩 망텡이에 들이쳥은에 저 걸머졍은에 웃드리 촐왓디 뎅이는 게 낫다.(저 장독에 된장 놔서 양하잎 갖다가 꾹 놔서 망태기에 들이쳐서 저 걸머져서 '웃드리' 꼴밭에 다니는 게 낫다.) 35 // 장톡이엔 헌 건 그 저 뒌장 통이라든지 멘들아 가지고 옛날 장이라든지 젓을 담아 가지고 밧디 뎅길 땐 그거 담앙 뎅입주게.('장톡'이라고 한 건 그 저 된장 통이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옛날 장이라든지 젓을 담아 가지고 밭에 다닐 땐 그거 담아서 다니지요.) 35 [대림]

장통: 달구지의 한 부분을 말한다. // 이 장통도 나무로 뒌 거고 홀롱통이렌 헌 것도 나무로 뒌 거고.(이 '장통'도 나무로 된 거고 '홀롱통'이라고 한 것도 나무로 된 거고.) 14 [성읍]

장팡: 장독을 넣어두는 자리인 장독대를 뜻하는 제주어이다. // 그 그 뒤에 가면 또 장, 장팡이 잇고 ᄋᆞ.(그 그 뒤에 가면 또 장, '장팡'이 있고 오.) 16 [하원]

장팡두: '장독을 넣어 두는 곳'으로 표준어 '장독대'에 대응한다. 주로 부엌의 뒷문을 통해 나가는 곳에 있다. // 저 구뎅이, 저 장팡두에 구뎅이 영 막 팡.(저 구덩이, 저 '장팡두' 구덩이 이렇게 마구 파서.) 34 // 장팡두에 무사 이쪽 두에 우영팟.('장팡두' 왜 이쪽 뒤에 터앝.) 34 [구억]

장팡뒤: '장독을 넣어 두는 곳'으로 표준어 '장독대'에 대응한다. 주로 부엌의 뒷문을 통해 나가는 곳에 있다. '장항뒤', '장황뒤'라고도 한다. // 이장네 집의서 저 아침을 먹는디 암ᄐᆞᆨ이 장팡뒤 알아집니까?(이장네 집에서 저 아침을 먹는데 암탉이 '장팡뒤' 아십니까?) 32 // 장팡뒤는 이 부엌에 이 문 말아 저쪽에 문이 하나 잇어 십주.('장팡뒤'는 이 부엌에 이 문 말고 저쪽에 문이 하나 있었습지요.) 34 // ᄃᆞᆯ밤이덜 고무튈락허영 놀당 장팡뒤에 튀어 강 ᄂᆞᆷ이 대죽 막 비언에 질레 앚앙덜 막 먹어낫주.(달밤에들 고무줄놀이해서 놀다가 장독 뒤에 튀어 가서 남의 수수 마구 베어서 길에 앉아서 마구 먹었었지.) 34 [구억, 덕수]

장항굽: 장독을 받치기 위해 넓적한 돌을 놓은 것을 말한다. // 맷돌이 못 씨는 맷돌이 이서낫어이, 거 못 씨는 거 헤당 장항굽드레 놔.(맷돌이 못 쓰는 맷돌이 있었었어, 그거 못 쓰는 거 해다가 '장항굽'으로 놔.) 11 // ᄀᆞ레착 밑에 놓고, 그것덜 놩 그 우터레 항. 장항굽, 장항굽.(맷돌짝 밑에 놓고. 그것들 놔서 그 위에 항아리. '장항굽', '장항굽'.) 31 [토평, 함덕]

장항뒤: '장독을 넣어 두는 곳'으로 표준어 '장독대'에 대응한다. 주로 부엌의 뒷문을 통해 나가는 곳에 있다. '장황두이', '장황뒤'라고도 한다. // 장황두인 여기도 장황두인 장황이 잇언 둔 디. 나 지금 ᄀᆞᆫ는, 들어보는 건 여길 딱 눌굽ᄀᆞ치 이제 그 이름이 잇는가 허연에 ᄯᅳᆫ 집 구역에서. 경허난 여기선 뭐.(장독댄 여기도 장독대는 장항이 있어서 둔 데. 나 지금 말하는, 들어보는 건 여길 딱 '눌굽'같이 이제 그 이름이 있는가 해서 다른 집 구역에서. 그렇게 하니까 여기선 뭐.) 01 // 장항뒤가 뒤에 장 ᄃᆞᆷ으난 장항뒤엔 헷주게.('장항뒤'가 뒤에 장 담으니까 '장항뒤'라고

했지.) 02 // 망데기, 망데기 어디, 장팡뒤 ᄀᆞ뜬 디.(옹기, 옹기 어디, '장팡뒤' 같은 데.) 08 // 장 담는 항아리 놓는 장팡뒤. 장팡뒤, 옛날 제주도 사투리가 장팡뒤.(장 담는 항아리 놓는 '장팡뒤'. '장팡뒤', 옛날 제주도 사투리가 '장팡뒤'. 장독 놓는 데니까 '장팡뒤'.) 17 [대평, 도련, 동광, 선흘]

장호미: 땔감을 할 때 사용하는 긴 낫의 일종이다. 지역에 따라서 '미호미'라고도 한다. 일본어로 '나다, 나대'라고도 한다. // 듬북 헹근에게 그 저 이 작두로 ᄆᆞᆺ으멍. 이 장호미로 ᄆᆞᆺ으멍 저 밧듸 ᄀᆞᆯ앙 그건.(듬북 해서 그 저 이 작두로 마면서. 이 '장호미'로 마면서 저 밭에 깔아서 그건.) 01 // 장호미, 나대엔도 허고. 서촌선 것ᄀᆞ라 나대엔 허더라.('장호미', '나대'라고도 하고. 서촌에선 그것보고 '나대'라고 하더라.) 02 // 그거 허고 장호미 거튼 것도 필요헌다.(그거 하고 '장호미' 같은 것도 필요하다.) 12 [도련, 선흘, 한동]

재깍: 빈틈없이 꽉 찬 모양을 말한다. '째깍', '찍깍', '직깍'이라고도 한다. // 경허영 ᄒᆞᆫ 도리 헤지민 또 ᄀᆞ루 안 들게 그 대썹을 재깍 또 더프는 거여.(그래서 한 층 하면 또 가루 안 들게 그 댓잎을 빈틈없이 또 덮는 거야.) 06 [남원]

재량: 양태 중에서 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국상이 났을 때 일반 사람들도 모두 썼다고 한다. // 또 재량은 국상이나 나라가 죽으나, 나라에 국상이라고 헤서.(또 '재량'은 국상이나 나라가 죽거나, 나라에 국상이라고 해서.) 02 [선흘]

잰잰: 낱낱이 다 잘디잔, 아주 작은 것을 말한다. // 우리 아버진 담벨 잘 허난, 담베 헤근에 우연네 씨 거 담베 씨가 잰잰, 잰잰 허여.(우리 아버진 담밸 잘 하니까, 담배 해서 터앝에 씨 거 담배씨가 '잰잰' '잰잰' 해.) 24 // 잰잰 허민 거 헤영 낫당, 낫다가 그 씨 봄 나민 삐영 갈앙, 우연네 영 울왓에.('잰잰' 하면 그거 해서 놔뒀다가, 놔뒀다가 그 씨 봄 나면 뿌려 갈아서, 터앝에 이렇게 터앝에.) 24 [세화]

잿국: 불타고 난 재를 물에 탄 것을 말한다. // 생멩지로 저실옷 ᄀᆞ치 만들젠 허믄 잿국 헤놩 ᄉᆞᆲ으민 그냥 ᄀᆞ따.(생명주로 겨울옷 같이 만들려고 하면 '잿국' 해놓아서 삶으면 그냥 같아.) 11 // 감자 비누는 생각나는디 경 그 잿국 허는 건 생각이 안 남서.(고구마 비누는 생각나는데 그렇게 '잿국' 하는 건 생각이 안 나.) 30 [노형, 함덕]

쟁기 서끄다: 직역하면 쟁기를 섞다의 의미이지만 여기에서 '서끄다'는 쟁기를 만든다는 의미이다. // 쟁기 만들어 보기사 만들어봣주. 쟁기 서끄는 거.(쟁기 만들어보기야 만들어 봤지. 쟁기 섞는 거.) // 거 쟁기 만드는 걸 쟁기 서끈덴 허주.(거 쟁기 만드는 걸 쟁기 '서끈다'고 하지.) 12 [한동]

쟁통이: 마소의 새끼 가운데 제일 못나고 작은 것을 이른다. // ᄆᆞᆼ셍이 족은 건 쟁통이. 못낫다는 말입주양.(망아지 작은 건 '쟁통이'. 못났다는 말이지요.) 03 [송당]

저대왓: 제주시 도련동에 있는 지역 명칭이다. '왓'은 표준어 '밭'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 그 양쪽으로 이제 관람헐 수 잇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잇고, 다시 그 앞에 저대왓이 잇고 베지왓이 잇고.(그 양쪽으로 이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고, 다시 그 앞에 '저대왓'이 있고 '베지왓'이 있고.) 01 [도련]

저들루다: 걱정하게 하다. // 남ᄌᆞ덜은 족은각시 허민 큰각시 저들루고 옛날은 경 두드려 패고.(남자들은 '족은각시' 하면 '큰각시' '저들루고' 옛날은 그렇게 두들겨 패고.) 23 [온평]

저리: 소 두 마리가 끄는 것을 말한다. // 쉐도 쌍으로 두 개 메와근에 저리, 것ᄀᆞ라 저리 메운덴 헤서.(소도 쌍으로 두 개 매어서 결어, 것보고 결어 맨다고 해서.) 16 [하원]

저리왓: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로 가는 밭을 말하는데 소 한 마리로는 갈기 힘든 처음 개간하는 밭을 말한다. // 피는이 저 저리왓이라고이 테역밧 간 거. 그거 처암에 갈아 놓민 피 씨를 그디 앗당 뿌리는 거라.(피는 저 '저리왓'이라고 잔디밭 간 거. 그거 처음에 갈아 놓으면 피 씨를 거기 가져다가 뿌리는 거야.) 25 [태흥]

저물떡: 초상 등 큰일이 있을 때 제물로 해가는 떡을 말한다. // 초상나민 막 저물떡이라고 걸 어렵게 헤낫수다.(초상나면 막 '저물떡'이라고 걸 어렵게 했었습니다.) 14 [성읍]

저바당: 표선면 표선리의 지명이다. // 저바당에 당을 지어놓고 뭐, 뭐마을, 마을에 잘 헤ᄃᆞ렌 허는 거, 가정적으로 잘 헤ᄃᆞ렌 세벡이 강 기도도 허고 경 헹. 심방 가근에 허는 것이 잇엇는데.('저바당'에 당을 지어놓고 뭐, 뭐 마을, 마을에 잘 해달라고 하는 거, 가정적으로 잘 해달라고 새벽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심방 가서 하는 것이 있었는데.) 05 // 당 잇는 근처 이 이름이 저바당.(당 있는 근처 이 이름이 '저바당'.) 05 [표선]

저바당본향: 표선면 표선리 본향당을 말한다. '저바당'에 있어서 '저바당본향'이라고 한다. // 당 잇는 근처 이 이름이 저바당. 저바당본향.(당 있는 근처 이 이름이 '저바당'. '저바당본향'.) 05 [표선]

저베기: 수제비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지역에 따라서 'ᄌᆞ베기'라고도 한다. // 저베기. 궁둥저베기. 궁둥저베기는 ᄆᆞ멀ᄀᆞ르 카가지고 뜨박뜨박 숟까락으로 거려놔근에 허는 거가 궁둥저베기고.('저베기'. '궁둥저베기'. '궁둥저베기'는 메밀가루 타가지고 '뜨박뜨박' 숟가락으로 떠 넣어서 하는 것이 '궁둥저베기'고.) 14 [성읍]

저빡두리: 뒤로 기울어지고 끝이 뒤틀린 자빡뿔을 갖고 있는 소를 말하는 것이다. // 숫소가 뒤터레 건 저빡두리라 뒤터레 뿔이 영 뒤터레, 뒤터레 영 잦아진 건 저빡두리.(수소가 뒤로 건 '저빡두리'야 뒤로 뿔이 이렇게 뒤로, 뒤로 이렇게 젖혀진 건 '저빡두리'.) 12 [한동]

저빡부리: 뒤로 젖혀진 소의 뿔, 혹은 그런 뿔을 갖고 있는 소를 말한다. // 뿔은 저빡박부리, 건지뿔. 또 아이고, 앞더레 돌아온 거 뭐인지 모르겠다, 그건.(뿔은 자빡뿔, '건지뿔'. 또 아이고, 앞으로 돌아온 거 뭐인지 모르겠다, 그건.) 01 // 저빡부린 이 뿔 끗이 두이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제 옆구릴 이렇게 허민 옆구리 박을 수 잇는 게 이 접, 접을 박아분다.(자빡뿔은 이 뿔 끝이 뒤로 이제 이렇게 돌

아가니까 이제 옆구릴 이렇게 하면 옆구리 박을 수 있는 게 이 주걱뼈, 주걱뼈를 박아버린다.) 01 [도련]

저승굴: '당산봉' 북서쪽 벼랑에 있는 해식동굴의 이름이다. // 뭐 일본 시대에 많이 팟지. 저 저싱굴이라고 잇어.(뭐 일본 시대에 많이 팠지. 저 '저승굴'이라고 있어.) 09 [고산]

저승돈: 영혼들이 저승에서 쓸 돈을 말한다. 지전이 이에 해당한다. // 지전 ᄆᆞᆯ랑이, 지전 ᄆᆞᆯ르는 건 그 돈ᄀᆞ찌 옛날 그 저승돈엔 허주게.(지전 말아서, 지전 마는 건 그 돈같이 옛날 그 '저승돈'이라고 하지.) 29 [외도]

저승옷: 영혼들이 저승에서 입는 옷이다. // 할망이 저승옷 ᄒᆞ는 할망, 장씨 할망, 죽어불언.(할머니가 '저승옷' 하는 할머니, 장씨 할머니, 죽어버렸어.) 17 [대평]

저실이: 제주시 외도동의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달리 '제실이'라고도 한다. // 독, 그에 대해서 독짓굴이라고 허는가. 마 그런 것도 연유 같으고. 저쪽으로 가면 저실이라고 뒈지 저실이니까 뒈지 저 자에 그 열매 실 자를 허니까 그게 어떤 말인지 나는 모르겟어요. 그디를 저실이라고 헙니다.(독, 그에 대해서 '독짓굴'이라고 하는가. 마 그런 것도 연유 같고. 저쪽으로 가면 '저실이'라고 돼지 '저실'이니까 돼지 저 자에 그 열매 실 자를 하니까 그게 어떤 말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거기를 '저실이'라고 헙니다.) 29 [외도]

저울이다: 저울 따위로 무게를 재는 것을 말한다. // 같은 분량을 놓면은 무게가 틀려. ᄒᆞᆫ 뒈 갖당 탁 놩 저울이면.(같은 분량을 놓으면 무게가 달라. 한 되 갖다가 탁 놓아 저울이면.) 01 // 짜게 담기민 너무 장이 짜곡 ᄒᆞ는 거주게. 소금 하영 헤불민. 겅 ᄒᆞ영 이제는 저울이멍 장을 ᄒᆞᆫ으로 담주마는, 그땐 무조건 그자 짐작ᄒᆞ영 뒛박으로 거리멍 잘락잘락 ᄎᆞᆫ물 ᄒᆞ영 놔 노난 무신.(짜게 담그면 너무 장이 짜고 하는 거지요, 소금 많이 해버리면.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저울이멍' 장을 'ᄒᆞᆫ'으로 담지만은, 그때는 무조건 그저 짐작해서 되로 거리면서 잘락잘락 짠물 해서 넣어 놓으니까 무슨.) 17 [노형, 대평, 도련]

저지오름: 한경면 저지리 저청초중학교 북쪽에 있는 오름이다. 위에 둘레 약 850미터, 깊이 75미터의 깔때기형 분화구가 있고 표고 239미터이다. '당ᄆᆞᆯ오름, 새오름, 생이오름, 시오름, 저지악(楮旨岳)'이라고도 불린다. // 아니, 오름 안 강 저지오름ᄁᆞ지도 아니고 ᄇᆞ든 디 저 소낭밧디 강은에.(아니, 오름 안 가서 저지오름까지도 아니고 가까운 데 저 소나무밭에 가서.) 19 // 저지오름에 그딘 ᄌᆞᆯ른 거베낀 엇고.('저지오름'에 거긴 짧은 거밖에 없고.) 26 [신창, 청수]

저짝뿔: 뒤로 기울어지고 끝이 뒤틀린 자빡뿔을 말한다. // 저짝뿔이라 헤 가지고 뿔이 영 비틀어졍 자쳐진 것 싯수다.('저짝뿔'이라 해 가지고 뿔이 이렇게 비틀어져서 젖혀진 것 있습니다.) 35 [대림]

저펜: 제사상에 올리는 시루떡으로 '제펜'이라고도 한다. // ᄊᆞᆯ로 저펜도 허고 오만 거 다 헤도 옛날은 그 피로만 제ᄉᆞ 때에 떡도 허고, 절벤도 허고, 솔벤도 허고, 산뒤ᄊᆞᆯ

서꺼근에 그추룩 헤낫주게.(흰쌀로 시루떡도 하고 오만 것 다해도 옛날은 그 피로만 제사 때에 떡도 하고, 절편도 하고, 솔편도 하고, 밭벼쌀 섞어서 그렇게 했었지.) 13 // 저펜은게 곤ᄉᆞᆯ헹 친떡 친 거 저펜 아니꽈?('제편'은 흰쌀해서 시루떡 찐 거 '제편' 아닙니까?) 13 [삼달]

저프다: 보통에서 뛰어나 놀라고 두려울 만하다는 뜻이다. // 시아방 강칩인디, 강칩이 어른인디 화순 지칩이 양제, 첨, 장게가난 새서방이 키가 헤끄만허난 예장 잘 쓰는 사름이 한글이 저프게 아는 어른인디 잘못 썻젠.(시아버지 강씨 집인데, 강씨 집 어른인데 화순 지씨 집에 양자, 첨, 장가가니까 새신랑이 키가 자그마하니까 예장 잘 쓰는 사람이 '한글'을 '저프게' 아는 어른인데 잘못 썼다고.) 33 [인성]

적: 바다의 돌에 붙어 있는 해초의 뿌리 부분에 있는 굴 껍데기 따위를 말한다. // 호미로 그런 건, 그런 건 비여근에 게도 적 붙게 말아사. 적 부뜨믄.(낫으로 그런 건, 그런 건 베어서 그래도 '적' 붙게 말아야. '적' 붙으면.) 28 // 돌멩이 그 부튼 게 적이렌 허주게.(돌멩이 그 붙은 게 '적'이라고 하지.) 30 [구엄, 노형]

적갈: 생선이나 고기 따위를 대꼬챙이에 꿰어 불에 굽거나 지진 음식인 '적'을 통틀어 일컬어 하는 말이다. // 제허는 거 밥헤 놓고 떡이멍 적갈이멍 그런 거 다 헤놩, 거주 정월 초ᄒᆞ루 날은.(제하는 거 밥해놓고 떡이며 '적갈'이며 그런 거 다 해놓아, 거지 정월 초하루 날은.) 15 // 뭐 무슨 적갈 ᄀᆞ튼 거 허고 말이지 뫼 영 ᄒᆞ면 곤밥, 겡 끓이는 거는 국 또 무슨 적갈허고 말이지 뭐 무슨 이런 것들 좀 헤서 상에 올려서 과일.(뭐 무슨 '적갈' 같은 거 하고 말이지 메 이렇게 하면 흰밥, 갱 끓이는 거는 국 또 무슨 '적갈'하고 말이지 뭐 무슨 이런 것들 좀 해서 상에 올려서 과일.) 27 // 이디 돗궤기 적갈 떨어졋저 허믄 가져오곡.(여기 돼지고기 '적갈' 떨어졌다 하면 가져오고. 28 // 그걸로 헤영 ᄉᆞᆯ 뽔앙 떡 허곡, 은절미 허곡, 제펜 허곡, 경허여근에 그땐 제ᄉᆞ 하는 건 기자 무슨 건가 과일 올리곡, 적갈 헹 올리곡, 고기 구웡 헹 올리고. 경 이제 허는 거난 마찬가지로 뭐 고사리 탕쉬 허지 안헙니까게?(그걸로 해서 쌀 빻아서 떡 하고, 인절미 하고, '제펜' 하고, 그렇게 해서 그땐 제사 하는 건 그저 무슨 건가 과일 올리고, '적갈' 해서 올리고, 고기 구워서 해서 올리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뭐 고사리 '탕쉬' 하지 않습니까?) 36 [구엄, 봉성, 수망, 옹포]

적감: 띠밭을 이겨서 농사를 지을 때 두 번째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한다. // 새왓 갈안 피 갈아나난 적감은 두불이 뒈는 거 아니라게.(띠밭 갈아서 피 갈았었으니까 '적감'은 두벌이 되는 거 아닌가.) 14 [성읍]

적감밧: 띠밭을 이겨서 두 번째 농사를 짓는 밭을 말한다. 보통 '생밧'을 이겨서 처음에 피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는 메밀 농사를 짓는데, 메밀 농사를 짓는 밭을 '적감밧'이라고 한다. // ᄆᆞ멀 무신거라게. 그 적감, 적감밧이옌 헤근에. 그 피 갈아난 다음 가는 게 적감밧이라.(메밀 무엇이야. 그 '적감', '적감밧'이라고 해서. 그 피 간 다음 가는 게 '적감밧'이야.) 14 [성읍]

적다: ‘적다말’, 즉 ‘절따말’을 가리키는 말이다. ‘절따말’은 몸 전체의 털색이 밤색이어서 불그스름한 말이다. // 게난 두 개옌 헌 말인디 처음은 일 가라 이 적다 삼 삼 월라 ᄉᆞ 아, 일 가라 이 청춘.(그러니까 두 개라고 한 말인데 처음은 일 ‘가라’ 이 ‘절따’ 삼 삼 ‘얼룩’ 사 아, 일 ‘가라’ 이 청총.) 14 [성읍]

적다ᄆᆞᆯ: 몸 전체의 털색이 밤색이거나 불그스름한 말이다. // 적다ᄆᆞᆯ은 노린 거. 적다ᄆᆞᆯ이 젤 색이 좋아, ᄆᆞᆯ에서. 흰 건 백매. ᄀᆞᆺ사 그 일청총은 아주 좋은 거라이, 희도 안허고 회색, 회색. 회색이 일청총, 것이.(절따말은 노란 거. 절따말이 제일 색이 좋아, 말에서. 흰 건 백마. 아까 그 일청총은 아주 좋은 거야, 희지도 않고 회색, 회색. 회색이 일청총, 그것이.) 02 [선흘]

적삼: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적삼을 말하다. ‘물적삼’이라고도 한다. // 경허단 말쩨라 가난 이녁냥으로 적삼 멩글아근에 입엇주.(그러다가 말짜라 가니까 자기대로 적삼 만들어서 입었지.) 31 [토평]

적차룽: 제의 때 적을 담아 두는 채롱을 말한다. // 건디 우리 두린 때 보믄, 우리 어머니네는 저 적차룽 헨 차룽 헌 차반디가 잇는데.(그런데 우리 어린 때 보면, 우리 어머니네는 저 적채롱 해서 채롱 한 채롱이 있는데.) 15 [수망]

적채롱: 제의 때 적을 담아 두는 채롱을 말한다. // 팔월추석 때에 적 지져근엥에 적 지지는 것도 못허게 막 허믄. 엿날은 이런 카뗑도 엇어낫주게. 이불 껍데기나 이불 안이나 허영 창문에 막앙 포장 쳐뒁이 그 경 허영 것도 모르게 지졍은에게 허난 다 조사, 조사 왐쩌 헌 ᄌᆞ끗디덜 영 연락헤 주민 우리 할머니네 대왓디 강. 그 적채롱. 곱지곡 허는 거 원 잊어 불어지지 아녀.(팔월추석 때에 적 지져서 적 지지는 것도 못하게 막 하면. 옛날은 이런 커텐도 없었었지. 이불 껍데기나 이불 안이나 해서 창문에 막아서 포장 쳐두고 그 그렇게 해서 것도 모르게 지져서 하니까 다 조사, 조사 온다 하는 곁에들 이렇게 연락해 주면 우리 할머니네 대밭에 가서. 그 ‘적채롱’. 숨기고 하는 거 전혀 잊어 버리지 않아.) 29 [외도]

전기: 메밀가루 반죽을 기름을 두른 번철이나 프라이팬 따위에 얇게 펴 놓고 가운데에 양념한 무채 소를 넣고 말아서 지진 떡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전기떡’, ‘정기’, ‘빙’, ‘빙떡’, ‘영빈’, ‘멍성떡’이라고도 한다. // 전기도 그 차롱에 지졍 오는 사름, 철에 딸랑 겨울엔.(빙떡도 그 채롱에 지져서 오는 사람. 철에 따라서 겨울엔.) 06 // 전기는양 ᄆᆞᆯᄀᆞ르로 헤근엥에 반죽헤영.(‘전기’는요 메밀가루로 해서에 반죽해서.) 23 // 게난 도새기 지름으로 정길 지졍 가 분 거라양?(그러니까 돼지기름으로 ‘전길’ 지져서 가 버린 거예요?) 23 // 전기떡은 전기ᄀᆞ루 놩 이디 물 놔근엥에 막 영 영 ᄯᆞ려근엥에 얇궤.(‘전기떡’은 메밀가루 넣어 여기 물 넣어서 마구 이렇게 이렇게 다뤄서 얇게.) 24 [남원, 세화, 온평]

전복겡이: 게의 일종으로 색깔이 검고 크기가 큰 것이다. // 전복겡이엔 헌 건 거멍헌 게 흙은 거 발도 이 아강발 영 접지는 거 그것도 흙고, 또 똥겡이엔 헌 것이 또 잇어이.(‘전복겡이’라고 한 건 거먼 게 굵은 거 발도 이 집게발 이렇게 집는 거 그

것도 굵고, 또 '똥겡이'라고 한 것이 또 있어.) 25 [태흥]

전분공장: 전분(澱粉)을 만드는 공장이다. // 뭐 ᄒᆞ고 게이까 그전에 여기 이 감저 많이 갈 떼는 거이. 어느 동네 절간 저 거시기 전분공장 엇인 동네가 엇엇주게.(뭐 하고 그러니까 그전에 여기 고구마 많이 갈 때는 거의. 어느 동네 절간 저 거시기 전분공장 없는 동네가 없었지.) 04 [고성]

전상: 본래 타고난 성질이나 모습을 말한다. // 전상이난게 메누리도 줘야 제사헐 거난게. 메누리도 줘수게. ('전상'이니까 며느리도 줘야 제사할 거니까. 며느리도 줍니다.) 32 [덕수]

전중: 소가 새끼를 계속 낳아 씨를 계속 잇는 것을 말한다. // 쉐는 그거 기자 집의 그 하는 거는 어떤 집의는 아까 곧듯이 암커 키와근에 새끼 막 낭 그거 새끼 전중헤 근에 돈 벌젠 하는 사름 잇고.(소는 그거 그저 집에 그 하는 것은 어떤 집에는 아까 말하듯이 암컷 키워서 새끼 막 낳아서 그것 새끼 '전중'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있고.) 05 [표선]

전지: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번철에서 동그랗고 자그맣게 지진 전이다. // 이 뭐, 전지도 집이서만 다 헐 때난. 나무가 아주 귀헤나십주게. 그때는.(이 뭐, '전지'도 집에서만 다 할 때니까. 나무가 아주 귀했었지요. 그때는.) 36 [봉성]

전향각: 쇠뿔이 앞으로 향한 것을 말한다. // 앞으로 영 나간 건 전향각. 에 이거 두 가지는 아는데 나머진 잊어 불언 몰르커라.(앞으로 이렇게 나간 건 '전향각'. 에 이거 두 가지는 아는데 나머진 잊어 버려서 모르겠어.) 29 [외도]

전흘동: 우도면에 소재한 마을 이름이다. // 아 씨어머니 ᄃᆞᆯ앙 간 그디 그 이제 어촌게 전흘동 어촌계 짓인 바로 여피우다.(아 시어머니 데려서 가서 거기 그 이제 어촌계 '전흘동' 어촌계 지은 바로 옆입니다.) 22 // 경 뒈잇고 전흘동 삼양동 상고수동.(그렇게 돼있고 '전흘동' '삼양동' '상고수동'.) 22 [우도]

절간: '절간고구마'를 말한다. // ᄂᆞ람쥐에 헤 가지고서 겨울에는 ᄂᆞ람쥐에 주젱일 헤 가지고서 비 방지헹 건 겨울에 뭐인가 이제 먹곡 새해 봄에 종자허고 그 남은 것은 전부 다 절간을 헷주, 절간.(이엉에 해 가지고서 겨울에는 이엉에 주저리 해 가지고서 비 방지해서 건 겨울에 뭐인가 이제 먹고 새해 봄에 종자하고 그 남은 것은 전부 다 절간고구마를 했지, 절간고구마.) 12 // 계속헤 가지고 그거 뭐 큰 저 벌이가 뒌다는 건 아니던디 그 전에 오일육 혁명이 뒈니까 이 제주도에 절간을 장려헤 가지고.(계속해 가지고 그거 뭐 큰 저 벌이가 된다는 건 아니던데 그 전에 오일육 혁명이 되니까 이 제주도에 절간을 장려해 가지고.) 29 [외도, 한동]

절간기: 날 고구마를 잘라주는 기구를 말하고 있다. // 그거를 다 그 뻿데기로 썰어게. 그 절간기로 헤영.(그거를 다 그 절간고구마로 썰어. 그 절간기계로 해서.) 04 [고성]

절다: 점성이 있는 액체나 가루 따위가 한 덩어리가 되면서 굳어지는 것을 말한다. 표준어의 '엉기다'에 대응하는 말이다. // 물만 떨어지면은, 떨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절

기 시작허여이.(물만 떨어지면, 떨어지면 그것이 이제 엉기기 시작해.) 12 [한동]

절동산: 대정읍 인성리 우체국 근처의 지명으로 대정현성으로 오는 길목이다. 높은 벼슬아치들이 오면 절을 하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했다. // 업더지렌 헤영 사름 오라가민 그 심부름꾼덜이 절허렌 막 헤가민 분수 몰른 사름 오당 절 안헴젠 욕헤가민 업더졍 절허난. 우체국 뒤 글로 ᄂᆞ려오주게. 경성서. ᄂᆞ려오라 가민 그디 절허렌 헌 따문 그디 벨리가 절동산. 그디가 절동산.(엎드리라고 해서 사람 와가면 그 심부름꾼들이 절하라고 막 해가면 분수 모른 사람 오다가 절 안 한다고 욕하면 엎드려서 절했었어. 우체국 뒤 그리로 내려오지. 경성에서. 내려와 가면 거기 절하라고 한 때문에 거기 별명이 '절동산'. 거기가 '절동산'.) 33 [인성]

절동산: 애월읍 유수암리의 한 지명 이름이다. // 그 우리 하르버지 살아난 금덕이엔 헌 디 이.(그 우리 할아버지 살았던 금덕이라고 한 데.) 막 널른 디 비스름헌 디 대가 그 ᄉᆞ뭇 대가.(아주 너른 데 비탈진 데 대가 그 사뭇 대가.) 금덕 같으면 건 절동산이야.(금덕 같으면 건 '절동산'이야.) 29 [외도]

절롸니: 식물 바랭이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제와니, 절롼지, 제완지, 제환지'라고도 한다. // 여러 가지 나. 여름에 난 절롸니 ᄀᆞ튼 거.(어. 여러 가지 나. 여름에 난 '절롸니' 같은 거.) 18 // 검질은 뭐 쒜비놈 ᄀᆞ튼 거 절롸니 ᄀᆞ튼 거.(김은 뭐 쇠비름 같은 거 바랭이 같은 거.) 18 [신도]

절마니: 식물 바랭이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제와니, 절롼지, 제완지, 제환지'라고도 한다. // 무신 검질이라. 콩쿨, 진쿨. 온갖 검질 다 나주. 무슨 절마니도 나고.(무슨 김이야. 개불알꽃, 별꽃. 온갖 잡초가 다 나지. 무슨 바랭이도 나고.) 03 // 검질이 뭐. 사스락쿨엔 헌 것도 나고 담베쿨, 진풀. 머 안 나는 게 엇어. 절마니, 진풀.(김이 뭐. '사스락쿨'이라고 한 것도 나고 '담베쿨', 별꽃.뭐 안 나는 게 없어. 바랭이, 별꽃.) 29 [송당, 외도]

절멩주: 메주콩 크기의 작은 환으로 만들어진 조약인데, 숟가락에 짜낸 어머니 젓에 섞어 아기에게 먹였던 약으로 열이 나거나 경기 등에 먹였다고 한다. '절멩지'라고도 한다. // 아이덜 뭐 홀 때는 젤멩주 헤당 거 멕이곡 헤낫주.(아이들 뭐 할 때는 '젤멩주' 해다가 거 먹이고 했었지.) 24 // 절멩지 헤근에 갈아나지 아녓수과?('절멩지'해서 갈았었지 않았습니까?) 24 [세화]

절물: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물 이름이다. 물 곁에 절집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절물도 허고 하도도 가고 종달이도 가고.(절물도 하고 하도도 가고 종달리에도 가고.) 12 [한동]

절물: 제주시 외도동의 자연 마을의 하나이다. // 경 헨 절물로 막 따울련에 바당에도 강 빠져나곡, 노루가.(그렇게 해서 '절물'로 막 쫓아서 바다에도 가서 빠졌었고, 노루가.) 29 // 쉬완에 멘허증 허연 그 관광. 엿날은 이 웃동네 이 절물이엔 헌 디 셔.(쉬워서 면허증 해서 그 관광. 옛날은 이 윗동네 이 '절물'이라고 한 데 있어.) 29 [외도]

절물동네: 제주시 외도동 자연 마을의 하나이다. // 저 절물동네에 가믄 은어식당이라고 지금도 간판 그대로 잇어.(저 절물동네에 가면 은어식당이라고 지금도 간판 그대로 있어.) 29 [외도]

절물벵뒤: 제주시 봉개동의 지경 이름이다. // ᄆᆞᆯ덜이 내려오민 어디 오느냐 허믄 절물벵뒤. 절물벵뒤 오랑 딱 중단허주.(말들이 내려오면 어디 오느냐 하면 '절물벵뒤'. '절물벵뒤' 와서 딱 중단하지.) 01 [도련]

절물오름: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오름이다. // 목장 동쪽으로부터 일수장, 이수장, 삼수장. 삼수장 절물오름.(목장 동쪽으로부터 일수장, 이수장, 삼수장. 삼수장 절물오름.) 11 [함덕]

절벤: 둥근 꽃판으로 눌러 만든 흰떡을 말한다. '동고랑곤떡', '절변'이라고도 한다. // 친떡을 치나 상웨떡을 치나 ᄒᆞ민 그레 솔벤, 절벤 헤근에게 ᄃᆞᆫ 그레 우트레 놘게 제서 지네주게.(시루떡을 찌나 '상웨떡'을 찌나 하면 거기에 '솔벤', '절편' 해서 모두 거기 위에 놓아서 제사 지내지.) 07 // 솔벤은 저 소랑헌 거 영 네 귀, 저 귀 난 걸로 톡톡허민, 이 사발로도 헹 동글랑 사발로 톡헹 벌르민 똑 귀나지 안헙니까? 그추룩 허민 그거 솔벤 소랑헌 거.(솔편 절편은 저 갸름한 거 이렇게 네 귀, 저 귀 난 걸로 톡톡하면, 이 사발로도 해서 동그란 사발로 톡해서 쪼개면 꼭 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거 솔편 갸름한 거.) 13 // 아메도 열굿 뒈진 안헌디양. 세어봐도양. 친떡 인절미 절벤 솔벤 우지시 거 다섯 굿벳긔 안 뒌디 열굿엔 허난 건 어떤.(아마도 '열굿' 되지는 안 한데요. 세어봐도요. 시루떡 인절미 절편 '솔편' 웃기떡 거 다섯 '굿'밖에 안 되는데 '열 굿'이라고 하니까 건 어떤.) 14 // 동글랑 영영영영 동그령 놔근에 두 개 마주 부쳉 꽉 눌리는 거라. 이건 절벤.(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굴려 놔서 두 개 마주 붙여서 꽉 누르는 거야. 이건 절편.) 25 [보목, 봉성, 삼달, 성읍, 세화, 태흥, 하원]

절벤본: 절편을 만드는 떡살이다. // 절벤본에 ᄎᆞᆷ지름 딱딱 ᄎᆞᆷ지름 딱 ᄇᆞᆯ르멍 누뜰민 그자 ᄎᆞᆷ지름 ᄇᆞᆯ라지멍 나옵니다.('절벤본'에 참기름 딱딱 참기름 딱 바르면서 누르면 그저 참기름 발라지면서 나옵니다.) 08 // 절벤본으로 딱 누르민 절벤 뒈는 거.('절벤본'으로 딱 누르면 절편 되는 거.) 17 // 영영 달롱 꼽딱ᄒᆞ민 또막또막 요만썩 요만썩 똥꼴똥꼴 영ᄒᆞ게 헤 놓민, 두 개 영 톡톡 부찌민 그 절벤본으로 이축 헹.(이렇게이렇게 다루어 곱다라면 토막토막 요만씩 요만씩 동글동글 이렇게 해서 놓으면, 두 개 이렇게 톡톡 붙이면 그 절편판으로 이처럼 해서.) 24 [대평, 동광, 세화]

절변본: 절편을 만드는 떡살이다. // 곤ᄊᆞᆯᄀᆞ루로 저 이추룩 만들앙, 옛날에 절변본이 잇엇수다.(흰쌀가루로 저 이처럼 만들어서, 옛날에 '절변본'이 있었습니다.) 34 [구억]

절부암: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있는 바위이다. 마을의 절부 고씨의 절개를 기리며 기념하는 바위이다. // 용수리에 가면 장안이라고 잇어. 요듸 거 절부암 밋티가 장안이라.('용수리'에 가면 '장안'이라고 있어. 요기 거 '절부암' 밑에가 '장안'이라.) 09

[고산]

절석보시: 저승꽃, 기미, 검버섯 등을 말한다. // 건 그거 절석보시라고 헤서 의당히 경 헐 거로 알주게.(건 그거 '절석보시'라고 해서 의당히 그렇게 할 거로 알지.) 24 [세화]

절왓: 제주시 도련동 지명의 하나이다. '절이 있던 밭'이어서 붙은 지명이다. // 게니까 거기서 뭘 만들어난 것도 가트고. 그것도 없고. 다시 또 이 동쪽으로 돌아오면은 절왓이 잇는가 하면은 그 절왓은 에 서 목사.(그러니까 거기서 뭘 만들었던 것도 같고. 그것도 없고. 다시 또 이 동쪽으로 돌아오면 '절왓'이 있는가하면 그 '절왓'은 에 서 목사.) 01 [도련]

접 지다: 채소나 과일 따위를 일정한 개수로 묶는 것을 말한다. // 이파릴 모당 헤 가지고 무꺼 가지고이 그걸 접 진덴 헌다.(잎을 모아서 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그걸 '접 진다'고 한다.) 12 [한동]

접게: 멍에 양편에 각각 꿰어서 목 아래로 휘어다가 매게 된 나뭇가지를 말한다. '적괘', '적궤', '좁게', '좁궤', '좁작게', '집궤'라고도 한다. 표준어 '목대'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 요딘 다시 요게 이 밑으로 요렇게 헤가지고 이 접게가 잇어이, 접게.(여긴 다시 요게 이 밑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이 '접게'가 있어, '접게'.) 01 // 그 윤누리낭으로 접게 ᄒᆞ주게. 게 멍에에 끼와근에게 줄로 졸라메여근에게, 접게 줄 ᄒᆞ영 졸라메여근에, 경 ᄒᆞ영 두에서 또로 귀마리, 저 장기 귀마리, 그 저 앞 코지에 ᄒᆞ여근에 저 졸라메는 노 잇주게.(그 윤노리나무로 목대 하지. 그거 멍에에 끼워서 줄로 잘라매어서, 목대 줄 해서 잘라매어서, 그렇게 해서 뒤에서 따로 '귀마리', 저 쟁기 '귀마리', 그 저 앞 코에 해서 잘라매는 참바 있지.) 17 // 또 여기 그 멍에 영 낭 헤여근에 궁기 뚤랑 모가지 영 헌 건 접궤, 쉐 접궤.(또 여기 그 멍에 이렇게 나무 해서 구멍 뚫어서 모가지 이렇게 하는 건 목대, 소 목대.) 20 // 접게. 이건 쉐 멍에에 접게, 이건 쉐 멍에 다 잇구나게.('접게'. 이건 소 멍에의 '접게', 이건 소 멍에 다 있구나.) 33 [고내, 남원, 대평, 도련, 보목, 인성]

접세기: 띠 따위로 엮어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인 '도롱이'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접세기 여기선 새로 헤긴에 영 짜근에 비옷.(도롱이 여기선 띠로 해서 이렇게 짜서 비옷.) 16 [하원]

접짝베: 돼지의 머리와 갈비 사이의 뼈를 말한다. // 접짝베도 두드려 놓고. 베설덜. 베설 거튼 거 뭐.('접짝베'도 두드려 놓고. 창자들. 창자 같은 거 뭐.) 30 [노형]

젓거리: 배의 양옆에서 젓는 노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젯거리'라고도 한다. // 하네 젓고 옆에 젓는 건 옆에 젓는 건 젓거리.('하네' 젓고 옆에 젓는 건 옆에 젓는 건 '젓거리'.) 23 [온평]

젓걸이: 거룻배의 양옆에서 젓는 노를 말한다. // 노는 하녜가 잇고 젓걸이가 잇엇수다게.(노는 '하녜'가 있고 '젓걸이'이 있었습니다.) 22 [우도]

젓겡이알: 겨드랑이 밑을 말한다. // 요건 베껫짓. 이거 영 허민 이딘 젓겡이알.(요건 겉깃. 이거 이렇게 하면 여긴 '젓겡이알'.) 01 [도련]

젓물: 저녁에 써는 물이라는 것으로 물때가 열물 뒤일 때 오후에 물이 써는 것을 말한다. // 젓물은 이제 싸는 게 젓물이고 앗물은 물때가 늦엉이 열물 넘어가민인 아침이가 물이 잘 싸.('젓물'은 이제 써는 게 '젓물'이고 '앗물'은 물때가 늦어서 열물 넘어가면 아침에 물이 잘 써.) 11 [함덕]

젓부지: 자리젓이나 멸치젓 따위를 가지고 지진 음식을 말한다. // 아이고, 강 출레라, 출레라도 지져사 밥 먹컬. 뒌장국이라도 끌리곡 출레 지져사 허컬 허민 젓부지.(아이고, 가서 '출레'라, '출레'라도 조려야 밥 먹을걸. 된장국이라도 끓이고 '출레' 조려야 할 걸 하면 '젓부지'.) 29 [외도]

젓자리: 젓갈을 담기에 적당한 크기가 작은 자리돔을 말한다. // 보통으로 그때 뒈민 젓자리로 요만씩 요만씩헌 거지.(보통으로 그때 되면 '젓자리'로 요만큼씩, 요만큼씩 한 거지.) 11 [함덕]

정: 물레를 돌려 실을 뽑으려고 만들어 놓은 솜방망이인 고치를 말하는 것으로 제주에서는 '멘넷정'이라고도 한다. 솜을 가늘게 말아서 두 뼘 가량의 길이로 끊어 낸 그 상태를 의미한다. // 솜이 나오면 이제 거기서 뭘 하냐면 정이야 정, 정.(솜이 나오면 이제 거기서 물 하냐면 '정'이야 '정', '정'.) 09 // 무신 저 젯가락 닮은 것에 영영영 ᄆᆞᆯ아당 요만썩 요만썩 정이엔 ᄒᆞᆫ 건 만들아젼.(무슨 저 젓가락 닮은 것에 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아다가 요만큼씩 요만큼씩 '정'이라고 한 건 만들어졌어.) 15 // 닷새미녕, 엿새 저 ᄋᆞ답새미녕이 완전히 곤 거, 씰도 ᄀᆞ늘게 꼼꼼 줏앙 정으로 밀어당, 멘네 테와당, 정 해다근에, ᄋᆞ답새미녕 ᄒᆞ젠 ᄒᆞ민 막 멩심ᄒᆞ영 씰 내와사 뒈여.(닷새무명, 엿새 저 여덟새무명이 완전히 고운 거, 실도 가늘게 꼼꼼 잣아서 '정'으로 밀어다가, 면화 타다가, '정' 해다가, 여덟새무명 하려고 하면 아주 명심해서 실 나오게 해야 돼.) 17 // 정 줏는 거. 이 물레 ᄒᆞ믄, 거 기술이라양. 이렇게 ᄒᆞ믄 한쪽으로 둘러가멍 이짝으론 정 영 하나 ᄒᆞᆯ 만썩 막뎅이 두드려 논 부그락ᄒᆞᆫ 거.(꼬리 잣는 거. 이 물레하면, 거 기술이에요. 이렇게 하면 한쪽으로 둘러가면서 이쪽으로는 꼬리 이렇게 하나 할 만큼씩 막대기 두들겨 놓은 보각한 거.) 28 [고산, 구엄, 남원, 노형, 대림, 대평, 수망, 토평]

정각무채: 청각과 무를 넣어서 무친 음식을 말한다. // 정각무챈 맛 좋아낫주기, 춤.('정각무채'는 맛 좋았었지, 참.) 29 [외도]

정기: 메밀가루로 얇게 지져낸 후에 그 안에 무채를 삶아서 깨소금 등을 넣어서 양념한 소를 넣어서 만 떡이다. 지역에 따라서 '빈떡', '빙떡', '영빈', '멍석떡' 등으로 부른다. // 빙떡, 옛날엔 빙떡헤근에, 큰 제 아니민 정기 지졍 하영 헤낫주게.(빙떡, 옛날엔 빙떡해서, 큰 제 아니면 '정기' 지져서 많이 했었지.) 13 // 옛날은 엇이 난 상제에 제물떡을 다 헹 가젠 허민 감저도 썰어놩 이만썩 헌 거 썰어놩 서너 개썩 담으민 정기가 이만썩 허주게.(옛날은 없으니까 상주에 제물떡을 다 해서

가려고 하면 고구마도 썰어놔서 이만큼씩 한 거 썰어놔서 서너 개씩 담으면 '정기'가 이만큼씩 하지.) 13 // 기자 떡도이, 묵은 지져져. 얄룹게 정기 못 지지고 묵은 지져. 걸로 묵 지져 먹는 거.(그저 떡도, 묵은 지질 수 있어. 얇게 '정기' 못 지지고 묵은 지져. 그걸로 묵 지져 먹는 거.) 25 [삼달, 태흥]

정기떡: 메밀가루로 얇게 지져낸 후에 그 안에 무채를 삶아서 깨소금 등을 넣어서 양념한 소를 넣어서 만 떡이다. 지역에 따라서 '빈떡', '빙떡', '영빈', '멍석떡' 등으로 부른다. // 솟 앚지듯 앚졍 알로 이제 불 ᄉᆞᆷ으멍 그 우의서 이제 그 정기떡을 짓는디. 정기떡을 짓는디.(솥 앉히듯 앉혀서 아래로 이제 불 때면서 그 위에서 이제 '정기떡'을 지지는데. '정기떡'을 지지는데.) 05 // 정기떡은 저 영 보면은 그때에는 옛날에 보면 놈의 집덜은 저 이 정기 헤근에 상에도 올리는디 우리 집인 정기떡 헤영 상에는 안 올련게.('정기떡'은 저 이렇게 보면 그때에는 옛날에 보면 남의 집들은 저 이 '정기' 해서 상에도 올리는데. 우리 집에는 '정기떡' 해서 상에는 안 올리던데.) 05 // 쪽파 썰어 놓곡 뀃ᄆᆞ르 무치곡 허영 소금 서꺼근에 양념 맞게 헤여근에 무 놓멍 ᄆᆞᆯ면은 그것이 정기떡.(쪽파 썰어 넣고 깨소름 묻히고 해서 소금 섞어서 양념 맞게 해서 무 넣으면서 말면 그것이 '정기떡'.) 14 [성읍, 표선]

정ᄆᆞ레: 조금 얄팍하고 가벼운 돌로 만든 '풀맷돌'을 말하며, '정ᄆᆞ래', '젱ᄆᆞ래', '쟁ᄆᆞ레'라고도 한다. // ᄆᆞᆯ려앙 그냥 정ᄆᆞ레라고 양 ᄆᆞ래 잇지 안허우꽈양.(말려서 그냥 '정ᄆᆞ레' 맷돌 있지 않습니까?) 03 // 이 정ᄆᆞ레에서이. 이 돌 조그마헌 ᄆᆞ레에서 ᄀᆞᆯ아서 그 그걸 벌러네야 또.(이 '정ᄆᆞ레'에서. 이 돌 조그마한 돌에서 갈아서 그 그걸 쪼개내야 또.) 04 // 솟허곡, 그다음은 뭐 그 곡식을 장만허민 저 저런 정ᄆᆞ레 시민 정ᄆᆞ레. 또 푸는체, 체, 그거 따라가곡, 그다음엔 살림살이 들어가는 거라양.(솥하고, 그다음은 뭐 그 곡식을 장만하면 저 저런 '풀맷돌' 있으면 '풀맷돌'. 또 키, 체, 그거 따라가고, 그다음엔 살림살이 들어가는 겁니다.) 15 // ᄆᆞᄆᆞᆯᄊᆞᆯ은 ᄆᆞᄆᆞᆯ 갈아네 허면은 그 저 거시기 ᄆᆞ레에 돌ᄆᆞ레 정ᄆᆞ레ᄆᆞ뜬 거에 헹 ᄀᆞᆯ아근에 ᄊᆞᆯ 벌러근에.(메밀쌀은 메밀 갈아서 하면은 그 저 거시기 맷돌에 돌맷돌 풀맷돌 거에 해서 갈아서 쌀 쪼개서.) 22 [고성, 동광, 송당, 수망, 온평, 우도, 청수, 토평]

정낭: 거리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대문(大門) 대신 가로 걸쳐 놓는 길고 굵직한 나무이다. '정', '정남', '정살', '정살낭', '정술낭'이라고도 한다. // 정낭은 그건 사람이 출입허는 거고. 건 올레에 허는 거고.('정낭'은 그건 사람이 출입하는 거고. 건 오래에 하는 거고.) 01 // 게민 그 정낭은 어떵 ᄒᆞᆫ 의미냐 ᄒᆞ민은양, 세 개 아이꽈? 이제 저디 관광역 가는 디도 잇는디, 세 개민 ᄒᆞ나만 놔진 집은 보든 디 간 사름, 주인이, 주인이.(그러면 그 '정낭'은 어떻게 한 의미냐 하면은요, 세 개 아닙니까? 이제 저기 관광지 가는 데도 있는데, 세 개면 하나만 놓아진 집은 가까운 데 간 사람, 주인이, 주인이.) 17 // 저 대문을 대신헤 가지고 정낭이란 것은 두 개도 걸치고 ᄒᆞ나도 걸치고 허는 것인디 건 어디 가젠 허믄 정낭을 톡 걸쳥

놔두민 아, 이 집인 사름이 없구나.(저 대문을 대신해 가지고 정낭이란 것은 두 개도 걸치고 하나도 걸치고 하는 것인데 건 어디 가려고 하면 정낭을 톡 걸쳐서 놔두면 아, 이 집에는 사람이 없구나.) 35 // 정낭은 저 이거, 이거, 이것이 이 담이 엇어낫수다게.('정낭'은 저 이거, 이거, 이것이 이 담이 없었습니다.) 36 [대림, 대평, 도련, 봉성]

정동모자: 댕댕이덩굴로 결은 모자이다. // 정동모자는게 가끔 남저덜이나 헹 쓰주게. 정동으로 만든 거.('정동모자'는 가끔 남자들이나 해서 쓰지. 댕댕이덩굴로 만든 거.) 23 // 모자는 뭐 옛날 뭐. 정동모자 지금도 잇어이.(모자는 뭐 옛날 뭐. '정동모자' 지금도 있어.) 30 [노형, 온평]

정반못: 애월읍 구엄리 해안가에 위치한 못 이름이다. // 어디 저 못ᄀᆞ뜬 디에 노믄 쉐덜, 쉐, ᄆᆞᆯ덜 물 먹으레 왕 똥 싸곡 허믄, 그거 누게가 주서간 처리 몰르게 우리도 ᄀᆞᆯ체허곡, 멩텡이허영 우리도 저 밑에 정반못이옝 허영 이염에 살아십주게.(어디 저 못같은 데 놓으면 소들, 소, 말들 물 먹으러 와서 똥 싸고 하면, 그거 누가 주워간 처리 모르게 우리도 삼태기하고, 망태기해서 우리도 저 밑에 '정반못'이라고 해서 옆에 살았지요.) 28 [구엄]

정방폭포: 서귀포시 정방동에 있는 폭포로 폭포수가 바로 바다로 떨어지는 곳이다. 중국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사신을 보냈다는 전설로 유명하다. // 여기 그 당시 사삼 때 사상, 그 책임자 뒈다시피 헌 사름이 여기 서귀 정방폭포에 살앗어요.(여기 그 당시 사삼 때 사상, 그 책임자 되다시피 한 사람이 여기 서귀 정방폭포에 살았어요.) 07 [보목]

정소암: 표선면 성읍1리의 내 이름 가운데 하나이다. 경관이 좋아 예전에 그곳으로 물놀이를 다녔다고 한다. // 정소암은 저 우에. 이 저 거시기 영주산 바로 서쪽 그 지금 그기다 지금 저수지 허는 디주.('정소암'은 저 위에. 이 저 거시기 '영주산' 바로 서쪽 그 지금 거기다 지금 저수지 하는 데지.) 14 [성읍]

정수암: 표선면 성읍1리에 있는 바위 이름이다. 근처에 물이 있다. '정소암'이라고도 한다. // 정수암은 웃동네 사름덜은 정수암 강 질고.('정수암'은 윗동네 사람들은 '정수암' 가서 긷고.) 14 [성읍]

정수암놀이: 예전 표선면 성읍리에서 삼월 삼짇날 행해졌던 화전놀이를 말한다. '정수암'은 달리 '정소암'이라고도 하는데, 주민들은 못 모양이 가마솥과 비슷하다 하여 '가매소(--沼)'라고도 부른다. 정의현(旌義縣) 당시 정의현감이 관속과 육방 하인들을 거느리고 가서 큰 잔치를 베풀던 곳으로, 그 놀이를 '정소암 화전놀이'라고 불렀다. 그때 기생들이 불렀던 민요 중 하나가 '신목사 허리'라고 전해진다. // 정수암놀이, 정수암놀이라고 헹 헤낫다고 허든만. 게난 우리가 육지에 ᄒᆞᆫ번 그 저 문화재로 민속경연 갈 때에 그 정소암놀일 헨 ᄒᆞᆫ번 갓다왓낫어.('정수암놀이', '정수암놀이'라고 해서 했었다고 하더만. 그러니까 우리가 육지에 한번 그 저 문화재로 민속경연 갈 때에 그 '정소암놀이'를 해서 한번 갔다왔었어.) 14 [성읍]

정술내: 서귀포시 보목동 중심을 흐르는 내로 보목동 1121-3번지에서 보목동 571번지까지를 말한다. // 그 정술내 물 보목리 그 물, 정술내 물 다 먹어 사난에 다 알주게.(그 '정술내' 물 보목리 그 물, '정술내' 물 다 먹어 살아서 다 알지.) 07 // 세긍설내(세경물내)허고 족은갠데 주로 정술내 물이라고헤서 거기는 딱 보민 거기를 새끼로 봉헤서 출입을 못하도록 헷주.('세긍설내'(세경물내)허고 족은갠데 주로 정술내 물이라고해서 거기는 딱 보면 거기를 금줄로 봉해서 출입을 못하도록 했지.) 07 [보목]

정술물: 서귀포시 보목동 '정술내'에서 솟는 용천수를 말한다. '정술내'는 보목동 마을 가운데에 있는 내를 말한다. // 또 장 나면 동네에서 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부조로 가서 다, 특기나 그 당시 물이 음료수가 여기 아까 그 정술물을 부인들은 그 물 길어다 주는 것이 부조에요.(또 장 나면 동네에서 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부조로 가서 다, 특기나 그 당시 물이 음료수가 여기 아까 그 '정술물'을 부인들은 그 물 길어다 주는 것이 부조에요.) 07 [보목]

정씨: 씨를 뿌릴 때 간격이 일정하게 뿌리는 것을 말한다. 영등굿 요왕맞이굿의 씨뿌림 제차에서 '정씨'라고 하면서 뿌리기도 한다. // 이거라. 정씨, 뿌리는 사름이 정씨가 아니라 이제 그 춤 별로 간격이. 죽 고르게 잘 뿌리느냐.(이거야. 정씨, 뿌리는 사람이 정씨가 아니라 이제 그 참 별로 간격이. 죽 고르게 잘 뿌리느냐.) 04 [고성]

정에: 기온이 영하일 때 유리나 벽 따위에 수증기가 허옇게 얼어붙은 서릿발인 '성에'를 말한다. // 막 손도 실렵고 가민 과짝 정에가 사이.(아주 손도 시리고 가면 곧추 성애가 서.) 25 [태흥]

정역: '징역'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여기에서는 남편 뒷바라지를 '징역살이'에 비유하여 '정역'이라고 쓴 것 같다. // 나도 정역 하영 혯수다. 웃음.(나도 징역살이 많이 했습니다. 웃음.) 14 [성읍]

정원: 한경면 월령리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 구들돌이라든지 그것을 어디 강 헤 오느냐 허면 저 월령 우의 정원이엔 헌 디 가서 것을 구루마 끗엉 강은에 그 저 마차라던지 헤 가지고 돌을 봉가당 바닥을 펜펜허게 놉주게.(구들장이라든지 그것을 어디 가서 해 오느냐 하면 월령 위에 '정원'이라고 한 데 가서 것을 마차 끌어서 가서 그 저 마차라든지 해 가지고 돌을 주워다가 바닥을 편편하게 놓지요.) 35 [대림]

정월이오름: 한림읍 금릉리 남동쪽에 있는 오름이다. 표고 106미터이다. // 오름이엔 헌 건 월령 우이 오름 정월이오름벳긔 엇다.(오름이라고 한 건 월령 위에 오름, '정월이오름'밖에 없다.) 10 [월령]

정의: 조선시대에 사용됐던 서귀포시 동부지역의 행정구역 단위로 줄여서 말한 것이다. // 게난 막는 사름덜은 이거를 나가지 아녀게 허는 따문에 이딜 막는 거라. 우린 이 정의는 이게 굴묵 나가게 허민 이디 돌이 구둘돌이 이렇게 길게 나가주게.(그러

니까 막는 사람들은 이거를 나가지 않게 하는 때문에 여길 막는 거야. 우린 이 '정의'는 이게 '굴묵' 나가게 하면 여기 돌이 구들돌이 이렇게 길게 나가지.) 14 // 그거 출려가기 전인 어떵 ᄒᆞ는 거궁 ᄒᆞ민, 안전 엿날엔 어떵ᄒᆞ는 거고ᄒᆞ민, 그 벌초 때에 이디서 가는 사름 정의, 그땐 정의, 정의 헤연, 정의서 가는 사름은 또 모물돌레떡을 헤여 오라는 거라.(그거 차려가기 전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완전 옛날엔 어떻게 하는 건가하면, 그 벌초 때에 여기서 가는 사람 '정의', 그땐 '정의' '정의'해서, '정의'에서 가는 사람은 또 메밀도래떡을 해서 오라는 거야.) 15 // 우리 어린 땐 거 육지서 저 무슨 볼목리 무신 어디고 저 정읫 온 할망.(우리 어린 땐 거 육지서 저 무슨 '보목리' 무슨 어디고 저 '정의' 온 할머니.) 22 // 쉐 우리 쉐 일러먹엇저. 쉐 대정 몰아간 셍이여. 정의 몰아간 셍이여. 막허단 이제 ᄌᆞᄁᆞᆺ딧 하르방이 에, 저 엉둥이에, 엉둥이에 무신거 헷 놔두난 알아진다, 알아진다.(소 우리 소 잃어버렸다. 소 '대정' 몰아간 모양이야. '정의' 마을에 몰아간 모양이야. 마구 하다가 이제 옆에 할아버지가 에, 저 엉덩이에, 엉덩이에 무엇 해서 놔두니까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28 [구엄, 노형, 성읍, 수망, 우도, 하원]

정의고을: 표선면 성읍리의 옛 이름이다. // 성읍리는 웨 이섯냐면은 옛날 정의고을 아니라게?('성읍리'는 왜 있었냐면 옛날 '정의고을' 아니야?) 24 [세화]

정의내창: 애월읍 고내리에 있는 내 이름이다. // 옛날엔 우리 요 고내봉더레 올라가는 디 정의내창이라고 내창이 이렇게 막 높은 디 그디 물을 맞으민 궨찮은덴 허영 그디서 맞아낫주게.(옛날엔 우리 요 '고내봉'으로 올라가는 데 '정의내창'이라고 내가 이렇게 아주 놓은 데 거기 물을 맞으면 괜찮다고 해서 거기서 맞았었지.) 20 [고내]

정의면: 서귀포시의 조선시대 행정단위를 이르는 '정의'에 현재 행정단위인 '면' 덧붙인 말이다. // 이 우리 우도가 정의면 허고 에 옛날 정이면 허고 모관 모관ᄒᆞ고 이제 양 사이에 잇수다게.(이 우리 우도가 '정이면' 하고 에 옛날 '정의면 하고 모관 모관하고 이제 양 사이에 있습니다.) 22 [우도]

정의현: 조선시대에 사용됐던 서귀포시 동부지역의 행정구역 단위이다. // 대정현은 현재 한경면 일대가 에 제주시 관할 한경면 일대가 거의 대정현 안에 들엇는데 에 저쪽으로 보민 거 읍성 이난 보성 그렇게 허니까 대정군청 소재지 거기허고 모슬포 게난 상모슬 하모슬 게니까 모슬 하모슬은 엇일지도 모르고.('대정현'은 현재 '한경면' 일대가 에 제주시 관할 '한경면' 일대가 거의 '대정현' 안에 들었는데 에 저쪽으로 보면 거 읍성 이니까 보성 그렇게 하니까 '대정' 군청 소재지 거기하고 '모슬포' 그러니까 '상모슬' '하모슬' 그러니까 '모슬' '하모슬'은 없을지도 모르고.) 18 // 그 옛날 정의현이, 현에는 엿날 현감이 잇잖읍니까?(그 옛날 '정의현'이, 현에는 옛날 현감이 있잖습니까?) 24 [세화, 신도]

정존: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이다. // 옛날에이 이 노형 마을 풍습이, 노형

마을이엔 허민 오 개 부락인디 오 개 부락 말고 정존, 정존만 허는 그 옛날에 사름을 돌아가시면 사름 한번 돌아가시면 삼 년을 제사를 헤여.(옛날에 이 노형 마을 풍습이, 노형 마을이라고 하면 오 개 부락인데 오 개 부락 말고 '정존', '정존'만 하는 그 옛날에 사람을 돌아가시면 사람 한번 돌아가시면 삼 년을 제사를 해.) 30 // 현씨가 많은가, 양씨가 많은가 걸 모르겠어. 현씨, 양씨이. 문씨는 정존이 만이 간, 문씨가이.(현씨가 많은가, 양씨가 많은가 걸 모르겠어. 현씨, 양씨. 문씨는 '정존'이 많이 갔어, 문씨가.) 30 [노형]

정존동: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이다. // 나가이 말헤도 뒈나? 옛날에는이 일 년에 두 번 거리 질을 다까. 일 년에 두 번. 봄에 ᄒᆞᆫ 번, 팔 월에 ᄒᆞᆫ 번 따까. 경 따끄는디 이 정존동 동네 거리 질을 다끄게 뒛어.(나가 말해도 되냐? 옛날에는 일 년에 두 번 거리 길을 닦아. 일 년에 두 번. 봄에 한 번, 팔 월에 한 번 닦아. 그렇게 닦는데 이 정존 동네 거리 길을 닦게 됐어.) 30 [노형]

정존마을: 제주시 노형동에 속한 마을을 말한다. // 저 어디? 신제주 그 저 노형.(저 어디? 신제주 그 저 노형.) 노형. 노형에 시집갓구나예?(노형. 노형에 시집갔군요?) 아니, 남군에 저 대포엔 헌 디 시집은 갓는데.(아니, 남군에 저 대포라고 한 데 시집은 갔는데) 노형 어디? 정존마을, 월랑, 뭐 이런 디 어디 살암신고예? 이름이 뭐꽈?(노형 어디? 정존마을, 월랑, 뭐 이런 데 어디 살고 있는지요? 이름이 뭡니까?) 30 [노형]

정존이: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이다. '정존'이라고도 부른다. // 물 사름 먹는 물 두 개, 소 먹는 물 두 개 팡 놔둬신디이 이 벵일이광 정존이 사이에. 겐 여기서도 가곡 저디서도 강 허는디 엇언게게. ᄒᆞᆫ 이 년, 이 년, 일 년 사이에. 어떠난 엇어불언. 다 밭 만들어 불언게. 그 구릉을.(물 사람 먹는 물 두 개, 소 먹는 물 두 개 파서 놔뒀는데 이 '벵일이'와 '정존이' 사이에. 그래서 여기서도 가고 저기서도 가서 하는데 없더라. 한 이 년, 이 년, 일 년 사이에. 어떠니까 없어버렸어. 다 밭 만들어 버렸어. 그 구릉을.) 30 // 할머니는 바늘상자. 바농질을 잘허여게. 바늘상자 하나 이엉 와근에 제일 오멍 정존이 이 동네를 왓덴. 게난 우리 시집이, 먼 문간에 방 ᄒᆞ나씩 싯잖아.(할머니는 반짇고리. 바느질을 잘해. 반짇고리 하나 이고 와서 제일 오면서 '정존이' 이 동네를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집에, 먼 문간에 방 하나씩 있잖아.) 30 [노형]

정짓문: '부엌문'을 말한다. // 저 정짓문 이 구들러레 들어가는 딘 지겟문.(저 부엌문 또 이 구들로 들어가는 덴 지게문.) 16 [하원]

제깍허다: 빈틈없는 꽉 찬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영 ᄀᆞᆫ 거나 영 ᄒᆞ꼼 ᄌᆞᆷ쏠이나 허영 물 영 쪼끔 쪼끔 줴질 만이, 수제비 허게 말고 약간 질게 허영 쳇망이나 저 양철에 놩 딱 ᄇᆞᆯ라. 딱 ᄇᆞᆯ르민 제깍허지 안허여게?(이렇게 간 거나 이렇게 조금 'ᄌᆞᆷ쏠'이나 해서 물 이렇게 조금 조금 쥘 수 있을 만큼, 수제비 하게 말고 약간 질게 해서 쳇바퀴나 저 양철에 놔서 딱 발라. 딱 바르면 '제깍하지' 않아?) 26 //

읍게. 그거 영 들러젼 잘 허난 그걸 제깍허게 정월 나민 불라 줘. 경허민 그것이 거령 좋나 거.(여물게. 그거 이렇게 들려서 잘 하니까 그걸 '제깍하게' 정월 되면 밟아 줘. 그러면 그것이 줄기가 여러 갈래로 나서 좋아 거.) 26 [신창]

제께: 매끼를 만들 때 곡식 대 자체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다. 보릿단 따위를 묶을 때 사용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지께', '붙께'라고도 한다. // 거 제께로 허기 때문에 그 다른 뭐인가 께가 필요엇주게.(거 '제께'로 하기 때문에 그 다른 뭐인가 매끼가 필요없지.) 12 // 그냥 보리 제께로 헤서 무꺼.(그 그냥 보리 '제께'로 해서 묶어.) 12 [한동]

제꾼: '계꾼' 또는 '계원'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석수장이'의 의미로 쓰였다. // 저 돌 싸레 뎅기는 제꾼. 그 사름덜 빌엉근에양, 돌 싸근엥에 그거 허여낫수다게.(저 돌 쌓으러 다니는 계꾼. 그 사람들 빌어서요, 돌 쌓아서 그거 했었습니다.) 32 [덕수]

제마: 한편쪽 다리를 나란하게 옮기며 걷거나 달리는 말이다. '제매'를 타면 편안하여 타는 말로 많이 쓴다고 한다. // 제마라고, 네 발인디 각각 이렇게 노려 걷는 건디 보통은, 겐디 두 발로 걷는 거 식으로 앞뒤 다리가 ᄀᆞ치.('제마'라고, 네 발인데 각각 이렇게 놀려 걷는 건데 보통은, 그런데 두 발로 걷는 것 식으로 앞뒤 다리가 같이.) 01 // 본심으로 가는 거엔 ᄀᆞ는가. 말 타 가지고 영 폴폴폴폴하는. 제마게, 제마. 제마.(본심으로 가는 거라고 말하는. 말 타 가지고 이렇게 폴폴폴폴하는. '제마', '제마', '제마'.) 29 [도련, 외도]

제멩이: 제주시 외도동의 자연 마을의 하나이다. '제명이', '계명'이라고도 하였다. // 또 욜로 쪼끔 저디 가믄 그디가 어디고? 제멩이, 그거 어디. 제멩이 그 저 쉐왓동산 아래, 그디 ᄒᆞ꼼 높은 디가 잇고. 또 이쪽으로 오면은 아까 얘기헌 제실이동산이렌 헨에 잇고 어.(또 욜로 쪼끔 저기 가면 거기가 어디고? '제멩이', 그거 어디. '제멩이' 그 저 '쉐왓동산' 아래, 거기 조금 높은 데가 있고. 또 이쪽으로 오면 아까 얘기한 '제실이동산'이라고 해서 있고 어.) 29 [외도]

제물: 제사나 굿 등 의례에 올리는 음식을 말한다. // 제물로 허는 건 뭐인가 그디 친떡도 헤야 뒈고이.('제물'로 하는 건 뭐인가 거기 시루떡도 해야 되고.) 12 [한동]

제물떡: 제사나 굿 따위의 의례에 올리는 떡을 말한다. // 떡, 빵. 빵 사 아졍오랏어, 제물떡으로.(떡, 빵. 빵 사서 가져왔어, '제물떡'으로.) 24 [세화]

제반: 제사나 명절 때 제상에 있는 음식을 조금씩 골고루 뜯어서 모은 잡신용 의례를 말하는 제주어로 '걸명'이라고도 한다. // 제반이라고 헌 게 제사 올린 다음에 귀신 먹엉 남은 끄트머리.('제반'이라고 한 게 제사 올린 다음에 귀신 먹어서 남은 끄트머리.) 09 // 그거 웨 그러냐면 제반 걷는 거는 온갖 다 걷어 불거든.(그거 왜 그러냐면 '제반' 걷는 거는 온갖 다 걷어 버리거든.) 09 [고산]

제비: 굿을 할 때 쌀을 집어던져서 손에 잡힌 쌀알의 수효로 점을 치는 일을 말한다. '제비쏠'이라고도 한다. // 제비쏠이주게. 영 제비 뽑는 거난 영 헤근에 영 봐근에 ᄋᆞ답 방울 허민은 짝 맞게 오난 좋겐 허곡 짝 틀리게 오믄 궂이켄 허곡 훅 들러

데껴뒁 허민 궂이난에 또 인정 걸렌 허민 또 돈 그레 또 놓곡 그추룩 허멍.('제비쌀'이지. 이렇게 '제비' 뽑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서 여덟 알 하면 짝 맞게 오니까 좋겠다고 하고 짝 다르게 오면 궂겠다고 하고 훅 들어서 던져둬서 하면 궂으니까 또 인정 걸라고 하면 또 돈 그리로 또 놓고 그처럼 하면서.) 05 [표선]

제삿방: 제사를 할 때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 이게 큰방에는 잠을 자고 저 방에는 제사를 모시는 방이라. 제삿방.(이게 큰방에는 잠을 자고 저 방에는 제사를 모시는 방이야. '제삿방'.) 14 [성읍]

제서리: 제주시 외도동의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이디가 저 무신 동산이라, 이. 저 우리 제터, 포제터 헌 디가.(여기가 저 무슨 동산이야, 이. 저 우리 제터, 포제터 한 데가.) 아, 거기 제서리.(아, 거기 '제서리'.) 29 [외도]

제서리동산: 제주시 외도동의 한 지경 이름이다. 지경이 다른 곳보다 높아 뒤에 '-동산'이 붙었다. // 제서리동산. 제서리동산 이제 쉐왓동산.('제서리동산'. '제서리동산' 이제 '쉐왓동산'.) 29 [외도]

제석할망: 농업을 관장하고 보호하는 풍농의 신이다. // 밧듸 가민 제석할망 직시로 이디 헤나민 농사허는 창고니까게.(밭에 가면 '제석할망' 몫으로 여기 하고나면 농사하는 창고니까.) 11 // 우리가 이제 밧디 가민 옛날 할망덜 밥 먹젠 ᄒᆞ민 톡톡 케우리지 안 ᄒᆞᆸ니까? 저 제석할망 먹는 거.(우리가 이제 밭에 가면 옛날 할머니들 밥 먹으려고 하면 톡톡 고수레하지 안 합니까? 저 '제석할망' 먹는 거.) 17 [대평, 함덕]

제숙: 제사상에 올리는 고기나 생선류를 말하는 것으로 '제육'의 제주어이다. // 쉐가 비싸. 밧도 갈곡 쉐는 고기용으로 사름덜이 쉐고기 이제 제숙도 씨고 경허니까 비싸고 ᄆᆞᆯ고기는 제숙을 안 쓰주게.(소가 비싸. 밭도 갈고 소는 고기용으로 사람들이 소고기 이제 제육도 쓰고 그러니까 비싸고 말고기는 제육 안 쓰지.) 02 // 소도 허고 뒈지도 허고 미릇에 추렴을 헤 가지고서이 그 제숙을, 제숙을 다 장만헤야 뒈여.(소도 하고 돼지도 하고 미리 추렴을 해 가지고 그 '제숙'을, '제숙'을 다 장만해야 돼.) 12 // 물질허는 사름덜 궤기 쏘아당 제숙도 허고 이녁 멩질도 헹 먹어 낫주게.(물질하는 사람들 고기 쏘아다가 제육도 하고 자기 명절도 해서 먹었었지.) 13 // 밥만 올리우곡, 그 하간 거 떡 헤논 거여, 저 거시기 무시거 제숙인디 무시거 적갈인디 헌 거 다 올리고 술도 올리는디, 문제 허는 디.(밥만 올리고, 그 '하간' 거 떡 해놓은 거야, 저 거시기 뭐 '제숙'이니 뭐 '적갈'이니 한 건 다 올리고 술도 올리는데, 문제 하는 데.) 15 [남원, 대평, 삼달, 선흘, 수망, 온평, 우도, 토평, 세화, 한동, 함덕]

제승돈: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갖고 갈 때 가지고 가는 돈이다. 지전을 가리키는 말이다. // 경 하면 그거 가졍은에 가위로 자기가 생각대로 그 지전 말르는 그 셍각대로 헹 다 끊는 거라. 끊어근에 영 페우면은 본향 같은 데 강 돈이렌 제승돈이렌 헤

근에 고망 베롱베롱허게시리 만든 그거 경 끊어근에 페우면은 그런 것이 뒈는 거.(그렇게 하면 그거 가져서 가위로 자기가 생각대로 그 지전 마르는 그 생각대로 다 끊는 거야. 끊어서 이렇게 펴면 본향 같은 데 가서 돈이라고 '저승돈'이라고 구멍 '베롱베롱'하게끔 만든 그거 그렇게 끊어서 펴면 그런 것이 되는 거.) 05 [표선]

제실이: 제주시 외도동의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저실이'라고도 하였다. // 독, 그에 대해서 독짓굴이라고 허는가. 마 그런 것도 연유 같으고. 저쪽으로 가면 저실이라고 뒈지 저실이니까 뒈지 저 자에 그 열매 실 자를 허니까 그게 어떤 말인지 나는 모르겟어요. 그디를 저실이라고 헙니다.(독, 그에 대해서 '독짓굴'이라고 하는가. 마 그런 것도 연유 같고. 저쪽으로 가면 '저실이'라고 돼지 '저실'이니까 돼지 저 자에 그 열매 실 자를 하니까 그게 어떤 말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거기를 '저실이'라고 헙니다.) 제실이.('제실이'.) 29 [외도]

제완지: '바랭이'의 제주어로, '제완지', '제와니', '절롸니', '절롼지', '제환지'라고도 한다. // 줄 벋는 종자가 우터레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제완지엔 헌 건 줄 벋는 검질이주.(줄 뻗는 종자고 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바랭이라고 한 건 줄 뻗는 김이지.) 19 // 겨울 검질이 진풀 많이 나주. 무신 여름에 ᄀᆞ트민 제완지여 무시거여 막 나주만은 겨울 검질은 진풀 진풀. 주로 진풀.(겨울 김이 별꽃 많이 나지. 무슨 여름에 같으면 바랭이다 무엇이다 막 나지만 겨울 김은 별꽃 별꽃. 주로 별꽃.) 23 // 제완지는 하나썩 안 허민 막 발 버치는 거주게 그것이.(바랭이는 하나씩 안 하면 막 발 부치는 거지 그것이.) 27 [온평, 옹포, 청수]

제자리: 나무껍질을 벗길 때 사용하는 도끼의 일종이다. 서서 사용한다. // 쉐구루마 헌 우차 놓고 보니까 그 남을 그 비어다가 그 자왈 앞의 놘에. 이걸 목재를 헤 가지고. 제자리로.(소달구지 한 우차 놓고 보니까 그 나무를 그 베어다가 그 덤불 앞에 놔서. 이걸 목재를 해 가지고. '제자리'로.) 29 [외도]

제제기오름: 서귀포시 보목동 동쪽 끝 해안가에 있는 오름이다. '제지기오름'이라고도 한다. // 제제기오름이라고 하고, 또 여기 보면은 본향당이 이십주게, 본향당.('제제기오름'이라고 하고, 또 여기 보면 '본향당'이 있습죠, 본향당). 07 // 거기서 뭐 처음 거주하다가, 그 이쪽 보는 제지기오름이라고 잇어.(거기서 뭐 처음 거주하다가, 그 이쪽 보는 '제지기오름'이라고 있어.) 07 [보목]

제주 차부장: 1970년대 제주시 남성로 근처에 있었던 오일장이다. // 오일장이라? 제주 차부장이주. 거기도 가곡, 오일장에도 ᄑᆞᆯ레 뎅여난, 처음에.(오일장이라? '제주차부장'이지. 거기도 가고, 오일장에도 팔러 다녔어, 처음에.) 28 [구엄]

제주목: 현재 제주시 지역으로 서쪽으로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까지, 동쪽으로 조천읍, 구좌읍까지를 말한다. // 우리가 제주목은 제주시 쪽인디 그걸 우리 목안이엔 헙주, 목안.('제주목', 그러면 우리가 제주목은 제주시 쪽인데 그걸 우리 목안이라고 하지, 목안.) 34 [구억]

제주읍: 제주시의 옛 행정명이다. // 두에서 일로 헤서 내로 헤서 경계를 에, 제주읍으로 부찌고.(뒤에서 이리로 해서 내로 해서 경계를 에, '제주읍'으로 붙이고.) 29 [외도]

제창문: 마루방인 '상방'의 큰 대문 옆에 시설한 조그만 문이다. '호령창'이라고도 한다. // 옛날 집은 우린 이 마리 마리에 또 우리 우리고향엔 호령창이라고 헤서 창문이 저 제창문이엔 헹 제창문이엥 헤서 제창문. 마리에 대문이 잇고 옆에 ᄍᆞ글락ᄒᆞᆫ 문 ᄒᆞ나.(옛날 집은 우린 이 마루 마루에 또 우리 우리고향에는 호령창문이라고 해서 창문이 저 '제창문'이라고 해서 '제창문'이라고 해서 '제창문'. 마루에 대문이 있고 옆에 자그마한 문하나.) 16 [하원]

제층집: 기와집을 말하는 것이다. // 김칩이 ᄒᆞᆫ 퍼기만 사난에 장밧퍼기, 장밧퍼기 허멍 옛날에. 그 막 울르령 그딘이 막 부제칩이난 제 지내는 집도 ᄯᅳ로, 조그만허게 요 방보다 ᄒᆞᄊᆞᆯ 크게 헤영 기와 올령. 지에, 제층집이라고.(김씨 집이 한 일가만 사니까 '장밧퍼기, 장밧퍼기'하면서 옛날에. 그 막 올려서 거긴 막 부잣집이니까 제 지내는 집도 따로, 조그마하게 요 방보다 조금 크게 해서 기와 올려서. 기와, '제층집'이라고.) 25 [태흥]

제펜: 제사 등의 제를 지낼 때 쓰는 떡으로, '쌀가루에 팥소 따위로 켜를 앉혀 찐 시루떡'을 의미한다. '저펜'이라고도 한다. // ᄑᆞᆺ떡 놓는 건 제펜이렌 헤근에 거 상에 올리주게.(팥떡 놓는 건 '시루떡'이라고 해서 그거 상에 올리지.) 15 // 떡허면은 ᄀᆞᆫᄊᆞᆯ 제펜이라고 허거든. ᄀᆞᆫᄊᆞᆯ 제펜. 제펜만 줘도 아주 그냥 옛날 산듸ᄊᆞᆯ은 흐리지 안허영 모히혀.(떡하면 흰쌀 '제펜'이라고 하거든. 흰쌀 '제펜'. '제펜'만 줘도 아주 그냥 옛날 밭벼쌀은 흐리지 않아서 메져.) 19 // 친떡은 제펜이엔 허는 건 쉬 안 놔근에이, 쉬 안 놔근에 헤영헌 떡이 제펜, 또 그냥 친떡은 쉬 놔근에 헌 것은 문친떡.(시루떡은 '제편'이라고 하는 건 고물 안 놔서, 고물 안 놔서 하얀 떡이 '제편', 또 그냥 시루떡은 고물 놔서 한 것은 '문친떡'.) 25 // 무수 썰어 놩 제펜 치믄 좋주. 막 그추룩도 헤나고. 겐디 이젠 그런 것도 엇어. 몬딱 사당 헤 놓으난게.(무 썰어 놔서 '제펜' 치면 좋지. 막 그처럼도 했었고. 그런데 이젠 그런 것도 없어. 전부 사다가 해 놓으니까.) 27 [고산, 남원, 대평, 보목, 봉성, 삼달, 성읍, 세화, 수망, 신창, 옹포, 인성, 청수, 태흥, 토평, 하원]

제피: 초피나무나 그 잎을 가리킨다. // ᄌᆞᆷ질게 썰어. 거 썰어 놓고 이제 오이나 뭐 놓고 싶으면 놓고 보통 여기는 잘 안 놓는데. 새우리. 허고 제피.(가늘게 썰어. 거 썰어 놓고 이제 오이나 뭐 넣고 싶으면 넣고 보통 여기는 잘 안 넣는데. 부추. 그리고 초피.) 06 [남원]

젠기: '빙떡'을 말한다. 고운 메밀가루 반죽을 기름을 두른 번철이나 프라이팬 따위에 얇게 펴 놓고 가운데에 양념한 무채 소를 넣고 말아서 지진 떡을 말한다. // 젠기 지질일 떼도 그걸로 허곡.(빙떡 지질 때도 그걸로 하고.) 04 [고성]

젠젠허다: 표준어 '자잘하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ᄌᆞᆫᄌᆞᆫᄒᆞ다'로도 사용하고 있다. // 먼 젠젠

헌 거 똥글락 똥글락 ᄒᆞᆫ 거 머 머.(무엇 자잘한 거 동글 동글 한 거 뭐 뭐.) 16 // ᄑᆞᆺ겡이 먼 젠젠헌 거, ᄑᆞᆺ겡이죽도 잇고 춤겡이죽도 잇고.('ᄑᆞᆺ겡이' 뭐 자잘한 거 동글 동글 한 거, 'ᄑᆞᆺ겡이죽'도 있고 참게죽도 있고.) 16 [하원]

젯북거리: 구좌읍 한동리 지명 가운데 하나이다. // 우리 가울목이민 이 왕두거리 우이 거의 다 온다. 젯북거리 우이도.(우리 '가울목'이면 이 '왕두거리' 위에 거의 다 온다. '젯북거리' 위에도.) 12 [한동]

젯새왓: 계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마련한 띠밭이다. // 저, 젯새왓 ᄯᅳ로. 저 젯이 ᄒᆞᆫ, ᄒᆞᆫ, 열 사름이 합동으로. 새왓을 저, 저, 저, 저, 새왓이 영 저, 목장에 다 사 가지고 젯밧 헤영.(저, '젯새왓' 따로. 저 계가 한, 한, 열 사람이 합동으로. 띠밭을 저, 저, 저, 저, 띠밭이 이렇게 저, 목장에 다 사 가지고 젯밧 해서.) 36 [봉성]

젯자리: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돗자리를 말한다. // 친족은 저 요만이 헌 돗자린가 젯자리 ᄒᆞ나 앗다 놩 이디 술이영 ᄒᆞᆫ 잔 앗다 놔근에.(친족은 저 요만큼 한 돗자린가 '젯자리' 하나 가져다 놓고 여기 술이랑 한 잔 가져다 놓고.) 06 [남원]

젯통: 굵은 대통은 끊거나 또는 가는 대오리로 엮어 만든 좁고 길쭉한 수저를 넣는 물건을 말한다. // 숟가락은 젯, 젯통. 저 대로 예낀 젯통도 잇고. 대, 대 영 파믄 그 대통에 헤영 영 살레에 걸엉 놔뒁주게. 경헨 숟가락 그레 놔.(숟가락은 젯, '젯통'. 저 대로 엮은 '젯통'도 있고. 대, 대 이렇게 파면 그 대통에 해서 이렇게 찬장에 걸어서 놔뒀지. 그래서 숟가락 그리 놔.) 26 [신창]

젱ᄀᆞ레: 곡식을 가는 데 쓰는 맷돌을 말한다. // 그거게 젱ᄀᆞ레에 ᄀᆞᆯ앙, 가난ᄒᆞᆫ 사름은 젱ᄀᆞ레에 ᄀᆞᆯ아근에 범벅 졈, 밥 졈 ᄒᆞ연 멕여서, 아의덜이영.(그거 '젱ᄀᆞ레'에 갈아서, 가난한 사람은 '젱ᄀᆞ레'에 갈아서 범벅 겸, 밥 겸 해서 먹였어, 아이들하고.) 17 [대평]

젱일이: 제주시 노형동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정존 훈장은 우리 족은하르부지. 저 젱일이 하르방. ('정존' 훈장은 우리 작은할아버지. 저 '젱일이' 할아버지.) 30 [노형]

조 ᄇᆞᆯ리다: '조 밟는다'는 의미로 조를 파종한 밭을, 씨가 흙에 잘 묻히도록 밟는 것을 말한다. // 이제 밧 ᄇᆞᆯ릴 때 뒈면 이제 조 ᄇᆞᆯ릴 때 뒈면은 몰아당 조 ᄇᆞᆯ려 놩 절물벵뒤에 강 내불민 ᄌᆞ기대로 이젠 또 산더레 올라갑니다게. 예.(이제 밭 밟을 때 되면 이제 조 밟을 때 되면 몰아다가 조 밟아 놓아서 '절물벵뒤'에 가서 내버리면 자기대로 이젠 또 산으로 올라갑니다. 예.) 01 // 말은 주로 이제 조 ᄇᆞᆯ릴 때 사용헌다.(말은 주로 이제 조 밟을 때 사용한다.) 12 [도련, 한동]

조 하르방: '조일훈 가옥'의 '조일훈'을 일컫는 말이다. '조일훈 가옥'은 1979년 1월 23일 중요민속자료 제68호로 지정되었다가 2017년 1월 23일 '제주 성읍마을 객주집'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제68호로 변경되었다. // 조 하르방네 집이 튿어 벼실 거라.(조 하르방네 집에 뜯어 버렸을 거야.) 14 [성읍]

조가물: 서귀포시 상효동 근처의 샘물 이름이다. // 상효 사름덜 조가물양, 밑으로 막 나는 물이 시난.(상효 사람들 '조가물', 밑으로 막 나는 물이 있으니까.) 31 [토평]

조각메기: 조 이삭에서 열매를 떨어 버리고 남은 깍지 따위를 말한다. // 보리 ᄒᆞ여도 쉔이 ᄀᆞ시락 셔 놓믄 덜 먹어마씨. 젤 잘 먹는 건 조각메기 ᄒᆞ곡, 콩붕뎅이 ᄒᆞ곡. 콩붕뎅이 영 불려난 거. 또 감젯줄, 요거 성ᄒᆞ게 ᄒᆞ믄 구싱ᄒᆞᆫ 게, 쉔 곤밥이 감젯줄.(보리 해도 소는 이 까끄라기 있어 놓으면 덜 먹어요. 제일 잘 먹는 건 '조각메기' 하고, 콩깍지 하고, 콩깍지 이렇게 불려난 거. 또 고구마 덩굴, 요거 성하게 하면 구수한 게, 소 흰밥이 고구마줄기.) 28 // 처음에 그 고고리 헤난 거 그거는 소 멕이고. 각메기, 조각메기. 조 만들 때 그거 나오고.(처음에 그 이삭 했던 거 그거는 소 먹이고. '각메기', '조각메기'.조를 만들 때 그거 나오고.) 29 [구엄, 외도]

조개못: 구좌읍 한동리 지명 가운데 하나이다. // 게 가지고서 그 조씨를 조씨 뭐인가 그 밧덜이 조개못이니 조씨가 그렇게 헤고, 또한 알동네는 좌씨, 좌씨가 것도 한 육백 년 거의 뒛저, 거기도.(그래 가지고서 그 조씨를 조씨 뭐인가 그 밭들이 '조개못'이니 조씨가 그렇게 하고, 또한 아랫동네는 좌씨, 좌씨가 것도 한 육백 년 거의 됐지, 거기도.) 12 [한동]

조개솔벤: 쌀가루 따위를 익반죽 하여 안에 팥소 등을 조개 모양으로 만든 떡을 말한다. '조개솔편', '조개송펜'이라고도 한다. // 게난 쪼끔 숢앙 허민 잘 어우러졍 만들기가 좋아. 겐 만들 때 똑 조개솔벤 허듯이 영 동글랑허게 헹 요레 앙꼬 담아근에 벵벵 헹 돌리민 송펜 뒈는 거.(그러니까 조금 삶아서 하면 잘 어우러져서 만들기가 좋아. 그래서 만들 때 꼭 '조개솔벤' 하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요리 소 담아서 뱅뱅 해서 돌리면 송편 되는 거.) 31 [토평]

조개솔편: 쌀가루 따위를 익반죽 하여 안에 팥소 등을 조개 모양으로 만든 떡을 말한다. '조개솔벤', '조개송펜'이라고도 한다. // 솔벤, 절벤 안 허영 그 인절미, 첨 송펜, 송펜만 허는 디 잇고 조개솔편 또, ᄃᆞᆯ 영 헨 ᄃᆞᆯ거치 허는 거, 접는 거.(솔편, 절편 안 해서 그 인절미, 첨 송편, 송편만 하는 데 있고 '조개솔편' 또, 달 이렇게 달같이 하는 거, 접는 거.) 31 [토평]

조개송펜: 쌀가루 따위를 익반죽 하여 안에 팥소 등을 조개 모양으로 만든 떡을 말한다. '조개솔벤', '조개솔편'이라고도 한다. // 조개송펜, 옛날엔 조개송펜이고, 이젠 동글락ᄒᆞᆫ 송펜은 이제야 난 거라.('조개송편', 옛날에는 '조개송편'이고, 이제는 동그란 송편은 이제야 난 거야.) 17 [대평]

조겡이: '새끼 전복'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그냥 저 조겡이만 이렇게 붙어 잇는 게 잇고. 그게 암캐라 말이여.(그냥 저 '조갱이'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고. 그게 암캐라 말이야.) 09 // 조겡기. 새끼 허민 조겡기.('조겡기'. 새끼 허민 '조겡기'.) 29 [고산, 외도]

조겡이: 전복이나 오분자기의 껍데기를 말한다. // 게난 조겡이 막 그 ᄑᆞ레 긁으젠 허주게. 멘들글락헌 돌에 박박 긁으민 하영 나와.(그러니까 '조겡이' 아주 그 파래 긁으려고 하지. 매끈한 돌에 박박 긁으면 많이 나와.) 26 // 불 숨앙 허영, 허여 가민

또 영 좁썰 ᄒᆞ꼼 놓곡게. 좁썰 놩 이젠 틈 재왓당 이제 그거 헹 먹곡. 자리도 이제는 저 무시것덜 잇이난 허주 조겡이, 옛날은 전복겁죽.(불 때서 해서, 해 가면 또 이렇게 좁쌀 조금 넣고. 좁쌀 놔서 이젠 뜸 들였다가 이제 그거 해서 먹고. 자리돔도 이제는 저 무시것들 있으니까 하지 '조겡이', 옛날은 전복껍데기.) 26 [신창]

조곰: '조금'을 이르는 것으로 조수가 가장 낮은 때를 이르는 말이다. // 그거 날 때만 그 저기 자리는 유월달 유월 스무 사흘 조곰이라 헤 가지고 그때 나는 것이 알이 아주 많이 몸에 다 베여.(그거 날 때만 그 저기 자리돔은 유월 달. 유월 스무 사흘 조금이라 해 가지고 그때 나는 것이 알이 아주 많이 몸데 다 베어.) 27 [웅포]

조그르: 조를 수확한 후 베어난 자리라는 의미이다. '그르'는 표준어 '그루'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 게민 막 그젠 어디 조크르에 ᄀᆞ튼 디 기냥 밧데기로 이젠 막 그냥 ᄒᆞ꼼허민 개간허여근에 뭐 딴 거 허고 딴 거 허주마는, 그 농ᄉᆞ짓도록은 그 밧을 놔두거든.(그러면 막 그젠 어디 '조그루' 같은 데 그냥 밭떼기로 이젠 막 그냥 조금하면 개간해서 뭐 딴 거 하고 딴 거 하지만, 그 농사짓도록 그 밭을 놔두거든.) 01 [도련]

조깡마기: 조 이삭에서 열매를 떨고 남은 줄기를 말한다. '조칵메기'라고도 한다. // 조코고리 다 털어낸 다음에 그 깡마기옌 헌다, 그 깡마기 소 잘 먹어.(조 이삭 다 털어낸 다음에 그 '깡마기'라고 한다, 그 '깡마기' 소 잘 먹어.) 10 // 조 털어불믄 깡마기 별도로 나온다게, 그거 조깡마기.(조 털어버리면 '깡마기' 별도로 나온다, 그거 '조 깡마기'.) 10 [월령]

조나무: 조의 줄기를 말한다. // 어욱 세와 놩은에 그다음엔 조집, 조나무, 좃대. 그거 헹 세와 놩.(억새 세워 놔서 그다음에는 조짚, '조나무', '좃대'. 그거 해서 세워 놔서.) 30 [노형]

조낭: '조+낭(나무)'로, 여기서 나무는 조의 줄기를 말한다. // 촐 비여단에 촐 부족허민 그 조낭, 산디낭도 ᄆᆞᆫ 멕엿주만은 조낭, 이제 감저꿀. 감저꿀이 밧디서 뒈쌍 ᄂᆞ뒈쌍 허멍.(꼴 베어다가 꼴 부족하면 그 조짚, 밭볏짚도 모두 먹였지만 조짚, 이제 고구마덩굴. 고구마덩굴 밭에서 뒤집고 뒤집고 하면서.) 31 [토평]

조노기당: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굴인 '조노궤' 안에 있는 당을 말한다. '조노궤당', '조노잇당'이라고도 한다. // 조노기, 조노기당이라고 지으니 바로 조노기주 조노기.(조노궤, '조노궤당'이라고 지으니 바로 조노궤주 조노궤.) 07 // 조노기당이라 허기도 허곡, 보통 조노기당이라고 허는디 본향입주 본향당.('조노기당'이라 하기도 하고, 보통 '조노궤당'이라고 하는데 본향입주 '본향당'.) 07 [보목]

조눌: 조를 쌓은 가리를 말한다. '조눌'의 '눌'은 표준어 '가리'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 사삼 때 힘들엇주. 우리 아버지네 집이, 집이 세 거리랏는디 우연에 조눌도 눌고 피눌도 눌고 쉐 먹을 촐눌도 눌고 헷는디. 게난 집에 일부러 불을 붙인 게 아니

고.(사삼 때 힘들었지. 우리 아버지네 집이, 집이 세 채였는데 터앝에 '조눌'도 가리고 '피눌'도 가리고 소 먹을 '촐눌'도 가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집에 일부러 불을 붙인 게 아니고.) 14 [성읍]

조락물: 팥을 삶는 중간에 넣는 적은 분량의 물을 일컫는 말이다. // 저 ᄒᆞ쏠 저 물 읏게, 물 읏게 뜸 재와근에 ᄯᅳ시 조락물이엔 ᄒᆞᆫ 물이 잇어.(저 조금 저물 없게, 물 없게 뜸 재워서 다시 '조락물'이라고 한 물이 있어.) 08 [동광]

조랑조랑: 사람이 문 앞에 많이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 아이들 요디 무뚱에 조랑조랑 산 아이덜 밥도 끊어주고 무시것도 다 주고 갈라주고.(그거 해다가 아이들 요기 '무뚱'에 '조랑조랑' 선 아이들 밥도 잘라주고 무엇도 다 주고 갈라주고.) 11 // 그걸로 밥 ᄒᆞ나 헤영 새각시신듸 대반 앚인 사름 주민 에영헌 문에 조랑조랑조랑 사민 수까락에 ᄒᆞ나 마트민 ᄃᆞᆯ아나불민 그 조름에 따시 강 수까락 ᄒᆞ나 강 마트고.(그걸로 밥 하나 해서 새색시에게 대반 앉은 사람 주면 이러한 문에 '조랑조랑조랑' 서면 숟가락에 하나 맡으면 달아나버리면 그 뒤에 다시 가서 숟가락 하나 가서 맡고.) 13 // 그젠 아이덜 첨 무뚱에 조랑조랑 사민 수꾸락 ᄒᆞ나썩 주고.(그젠 아이들 참 문밖에 '조랑조랑' 서면 숟가락 하나씩 주고.) 13 [삼달, 함덕]

조레기: 해녀들이 물질할 때 갖고 가는 작은 그물주머니이다. 전복 등을 따서 넣는다. // 조레긴 건 굴후이 ᄃᆞᆯ아멩 뎅겸주기, 뭐 ᄯᅳᆫ 거 봉가지믄.('조레기'는 건 별도로 매달아서 다니고 있지, 뭐 다른 거 주워지면.) 29 // 지금도 그거 봐지민 조레기 아졍강 둥그려단 이만 원 만팔천 원 줘, 족아도.(지금도 그거 보이면 '조레기' 가져가서 굴려다가 이만 원 만팔천 원 줘, 작아도.) 29 [외도]

조록조록: 가는 물줄기가 좁은 구멍으로 빨리 흐르다가 그치는 소리 또는 모습이다. // 우리가 들어오지는 안허고, 이 저 우리 할머니는 조수에서 살다가 일로 결혼헤 가지고 올라오셧고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멀리허젠 헤도 멀리헐 수 없는 원인이 뭐냐면 요새ᄀᆞ치 차로 뭐 조록조록 헤근에 뭐 뎅길 때가 아니고 걸어가지고 뎅길 때라 노니 이 ᄎᆞᆷ.(우리가 들어오지는 않고, 이 저 우리 할머니는 조수에서 살다가 이리로 결혼해 가지고 올라오셨고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멀리하려고 해도 멀리할 수 없는 원인이 뭐냐면 요새같이 차로 뭐 '조록조록' 해서 뭐 다닐 때가 아니고 걸어가지고 다닐 때라 버리니까 이 참.) 19 [청수]

조롬: 꽁무니 혹은 뒤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우리는 쉐 조롬에 상 쉐 몰곡. 게민 어멍은 다시 이제 그 방에에서 들어 올려.(우리는 소 꽁무니에 서서 소 몰고. 그러면 어머니는 다시 이제 그 방아에서 들어 올려.) 17 // 어, 그 사름 조롬에 ᄒᆞᆫ 사름이 좀팍 갖곡 옛날은 가멩이도 가졍 가더라게.(어, 그 사람 꽁무니에 한 사람에 '좀팍' 가지고 옛날은 가마니도 가져서 가더라.) 26 [대평, 신창]

조르마: 빨갛고 검은 털이 섞인 말이다. // 젤 헌 것이 조르마라고 벨겅허고 거무릉헌 것이 일등으로 놓고.(젤 한 것이 '조르마'라고 벨겋고 거무스름한 것이 일등으로 놓고.)

11 [함덕]

조리: 일본어 'ぞうり'에서 온 말로,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 끈을 끼워서 신는 신발을 말한다. // 난이 무시것도 신어낫어, 이디 발만 꿰엉 신는 것ᄀᆞ라 조리?(난 뭐도 신었었어, 여기 발만 꿰어서 신는 것보고 조리?) 30 [노형]

조막단지: 질그릇으로 만든 단지로 젓갈 따위를 담을 때 쓰는 자그마한 단지를 말한다. // 조막단지에 담아서 아이덜 미치지 못 허게.('조막단지'에 담아서 아이들 미치지 못 하게.) 06 // 국이나 끌려 먹을 거 ᄒᆞᆯ 넹겨둬근에 소곰 버무려그네 기냥 망데기, 망데기에 무신 조그만한 조막단지 닮은 거에라도, 것이라도 담앙 놔둡니다게.(국이나 끓여 먹을 거 조금 남겨둬서 소금 버무려서 그냥 옹기, 옹기에 무슨 조그마한 '조막단지' 닮은 거에라도, 것이라도 담아서 놓아둡니다.) 08 // 막 쪼끌락ᄒᆞᆫ 건 조막단지.(아주 조그마한 건 '조막단지'.) 16 [남원, 동광, 하원]

조만: 앞에 나온 '오만'과 운율을 맞추어 쓴 것으로 종류가 많은 여러 가지를 말한다. // 그 떡이게 오만 거 조만 거 과질이영 오만 거 다 헤여가민 열굿에, 거 다섯 가지에 그디 따시 과질.(아, 그 떡이 온갖 거 '조만' 거 과줄이랑 온갖 거 다 해가면 '열굿'에, 그거 다섯 가지에 거기 다시 과줄.) 13 [삼달]

조메: '조메조메'처럼 써서 젖먹이가 두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재롱을 부리는 일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주먹' 정도의 의미이다. // 조메떡은 그 ᄌᆞᆫᄌᆞᆫ허게시리 영영 소름소름허게 영 줴영 쏙 누르떵, 조메 줴부난 조메떡.('조메떡'은 그 자잘하게끔 이렇게 기름기름하게 이렇게 쥐어서 쏙 눌러서, 주먹, '조메' 쥐어버리니까 '조메떡'.) 13 [삼달]

조메: 조로 지어 신위 앞에 올리는 밥이다. // 조메 두 개, 곤메 두 개, 경 ᄒᆞᆸ디다. 메도 두 개, 조메도 두 개고, 경 행 나 이번 토신제 ᄒᆞᆯ 때.(조로 하고, 흰쌀로 하고, 그리고 또 메는 두 개씩, 두 개씩 합디다. '조메' 두 개, '곤메' 두 개, 그렇게 합디다. 메도 두 개, '조메'도 두 개고, 그렇게 해서 나 이번 '토신제' 할 때.) 08 [동광]

조메떡: 흰쌀을 가루 내어 반죽한 후 손으로 꾹꾹 쥐어서 만든 떡이다. // 요 손 저 조메떡이엔 헌 거 소름소름헌 거.(요 손 저 '조메떡'이라고 한 거 기름기름한 거.) 13 //굿헐 때 조메떡, 소름소름헌 거 허고 그 저 동글랑떡허고 친떡벳긔 안허여.(굿할 때 '조메떡, 기름기름한 거 하고 그 저 동그란 떡하고 시루떡밖에 안 해.) 13 [삼달]

조방: 옛날 돌쩌귀를 뜻하는 건축 용어이다. '합장'이라고도 한다. // 돌체기는 저 그 문광문 새이에 ᄋᆞᆯ앗다 더껏다 허는, 이제 ᄁᆞ뜨믄 조방입주.(돌쩌귀는 저 그 문과 문 사이에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제 같은면 '조방'이지.) 35 [대림]

조붕뎅이: 조를 방아에서 찧을 때 나오는 겉껍질이다. '조풍뎅이, 붕당체'라고도 한다. // 조 두드려 나민 조붕뎅이엔 헹, 조붕뎅이엔 헹 도새기 건 ᄐᆞ로 헷당 도새기 멕여.(조 두드리고 나면 '조뎅이'라고 해서. '조붕뎅이'라고 해서 돼지 그것은 따로

했다가 돼지 먹여. 돼지 먹여도 그것은 거칠어.) 11 [함덕]

조오메기: 차좁쌀 가루에 더운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을 말한다. // 조오메길 허든지 원헤근에.('조오메기'를 하든지 원해서.) 04 // 그거 헤근에 그보리밧 할 때 그거 먹곡. 조오메기 헤근에.(그거 해서 그 보리밭 할 때 그거 먹고. '조오메기' 해서.) 05 // 누룩 놔근에 조오메기 허는 건 좁썰 헤근에 죽 쒕.(누룩 넣어서 '조오메기' 하는 건 좁쌀 해서 죽 쒀서.) 23 [고성, 온평, 표선]

조왕: 부엌을 관장하는 여신이다. '조왕할망'이라고도 한다. // 그 아들 난 할망. 조왕, 음식을 계속, 그디는 배고프지 안허는 디가, 정지난에.(그 아들 난 할머니. 조왕, 음식을 계속, 거기는 배고프지 않는 데가, 부엌이니까.) 36 [봉성]

조왕제: 부엌을 관장하는 신에게 지내는 제를 말한다. // 문제를 지낸 다음에는 또 잡식을 허영 이게 또 어디 가는고 허니까 조왕제라고 헤서이, 조왕에 그 솟 앚진 자리 부억.(문제를 지낸 다음에는 또 잡식을 해서 이게 또 어디 가는가 하니까 '조왕제'라고 해서, 조왕에 그 솥 건 자리 부엌.) 14 // 조왕제, 조왕제 그거는 조왕제엔 헌 건게 이 심방 올 때. 제서 때엔 안 헌다, 조왕에. 이 심방 올 때엔 조왕제렌 헨 조왕에. 조왕 모른 공ᄉᆞ가 어디시린, 글로 음식허는 따문이.('조왕제', '조왕제' 그거는 '조왕제'라고 하는 건 이 무당 올 때. 제사 때에는 안 한다, 조왕에. 이 무당 올 때에는 '조왕제'라고 해서 조왕에. 조왕 모른 공사가 어디 있으리, 그리로 음식하는 때문에.) 31 // 차롱 ᄀᆞ튼 거 놓앙, 간단허게 놓앙. 쏠이영 돈도 그디 올리고. 조왕에, 조왕제는 젤 내중에 허데. 내중에. ᄆᆞ칠 때 조왕에, 조왕제 허영 그날, 그, 심방이 다 끝난 거라.(채롱 같은 거 놓아서, 간단하게 놓아서. 쌀과 돈도 거기 올리고. 조왕에, 조왕제는 젤 나중에 하데. 나중에. 마칠 때 조왕에, 조왕제 해서 그날, 그, 심방이 다 끝난 거야.) 36 [봉성, 성읍, 토평]

조지다: 두 개의 가닥을 하나로 연결할 때 고리를 만들어 묶는다는 의미이다. // 보리로 영영 조졍 영 갈랑은에.(예, 보리로 이렇게 이렇게 '조졍' 이렇게 갈라서.) 23 [온평]

조체: 조에서 벗겨 낸 겉껍질을 말한다. // 조체 건 도새기 먹고. 버리는 게 하나토 엇어.(조체 건 돼지 먹고.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 01 // 거 보리 보리, 보리체, 좁썰조 불려난 조체 그거 주주게. 보리체, 조체 경헨 이제 물 질어당 항에 그 조체, 보리체 캉 놔뒁당 이제 박세기로 거령 줘.(거 보리 보리, 보릿겨, 좁쌀 조 불렸던 '조체' 그거 주지. 보릿겨, '조체' 그래서 이제 물 길어다가 항아리에 그 '조체', 보릿겨 타서 놔뒀다가 이제 바가지로 떠서 줘.) 26 // 조체, 조체. 거 뒈야지 주곡.('조체', '조체'. 거 돼지 주고.) 36 [도련, 봉성, 신창]

조침떡: 좁쌀가루에 팥소 따위로 켜를 앉혀서 찐 시루떡이다. '조친떡'이라고도 한다. // 게난 조친떡 반, 그 저 곤친떡 반, 조친떡 반, 시릴 반반씩 허면은 그 ᄒᆞᆫ꺼번에 뒈는 거주게. ᄯᅳ로 안 쳐도.(그러니까 조시루떡 반, 그 저 백설기 반, 조시루떡 반,

시룰 반반씩 하면 그 한꺼번에 되는 거지. 따로 안 쪄도.) 12 // 게민 침떡은 늠삐채로 썰엉, 무채로 썰엉 서껑도, 조침떡 쳐.(그러면 시루떡은 무채로 썰어서, 무채로 썰어서 섞어도, '조침떡 쪄.) 17 // 조침떡을 헤도 곤침떡은 안 허여. 그냥 설기떡이엔 허연.('조침떡'은 해도 '곤침떡'은 안 해. 그냥 백설기라고 해.) 20 // 여긴 조를 많이 가니까 조침떡 우에 그걸 살짝 흰 걸로.(여긴 조를 많이 가니까 '조침떡' 위에 그걸 살짝 흰 것으로.) 35 [고내, 구억, 대림, 대평, 토평]

조칵메기: 조 이삭에서 열매를 털어 버리고 남은 줄기나 깍지 따위를 말한다. 표준어 '깍지'에 해당하는 말이다. '조캉메기'라고도 한다. // 여물. 그거 그거 헹은에 물 끓여근에 조칵메기 잇잖아. 조칵메기하곡 그 산듸찍 썬 거 그거 하고 그거 헤근에 소 죽 쑤는 솟 큰 것이 잇어.(여물. 그거 그거 해서 물 끓여서 '조칵메기' 있잖아. '조칵메기'하고 그 밭볏짚 썬 거 그거 하고 그거 해서 소 죽 쑤는 솥 큰 것이 있어.) 05 // 조 헤나민 조캉메기도 허고 문딱 챈 다 굴묵 살르주.(조 하고 나면 '조캉메기'도 하고 모두 겨는 다 '굴묵' 때고.) 13 // 경 안허민 조 장만헤난 조칵메기 그거 소곱에도 놩 에워싸끈에 헷당.(그렇지 않으면 조 장만하고 난 조 깍지 그거 속에도 놔서 에워싸서 했다가.) 20 // 조칵메기옌 허영, 조칵메기옌 허영, 그것이 이제 쉐도 잘 먹읍주, 영양가도 잇곡 허난, 그것 두불 헤사.('조칵메기'라고 해서, '조칵메기'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소도 잘 먹지요, 영양가도 있고 하니까, 그것 두벌 해야.) 28 [고내, 구엄, 삼달, 표선]

조컴질: 조밭에 나는 김을 가리킨다. // 다 더꺼져 불언. 조컴질 닮진 안허주게.(다 덮여 버려. 조 김 같진 않지.) 26 // 일은 물도 질어오고 헷주기게. 닐 조컴질 메레 가젠 물 허영 항 다 ᄀ득이고 그, 그 감제 싱그는 날 ᄒᆞᆫ 이틀만 아파. 똑 꿧병 모냥으로.(일은 물도 길어오고 했지. 내일 조밭에 김매러 가려고 물 해서 항아리 다 가득 채우고 그, 그 고구마 심는 날 한 이틀만 아파. 꼭 꾀병 모양으로.) 26 // 맨발에 조컴질 강 씨 ᄉᆞ꽝 메 가민 발창이 파삭파삭 데불민 그 검질 멩 발창더레 놓멍 나 메엿저.(맨발에 '조컴질' 가서 씨 솎아서 매 가면 발바닥이 바싹바싹 뜨거우면 그 김 매서 발바닥에 놓으면서 나 맸어.) 31 [신창, 토평]

조쿠제기: 껍질의 돌기가 크지 않은 어린 소라를 말한다. // 다 가면 뭐 영허여근에 요런 엉덕 속에 영 보면 조쿠제기가 숨빡 담아졍 잇곡.(다 가면 뭐 이렇게 해서 요런 언덕 속에 이렇게 보면 '조쿠제기'가 가득 담아져서 있고.) 01 [도련]

조쿠젱이: 껍질의 돌기가 크지 않은 어린 소라를 말한다. // 이제 곧 깨운 건 조쿠젱이.(이제 곧 깐 건 '조쿠젱이'.) 29 [외도]

조크르: 조를 갈았던 그루터기를 말한다. '그르'는 표준어 '그루'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조크루'라고도 한다. // 보릴 조크르나 콩그르에. 이제 밧 갈앙. 이제 씨 뿌령.(보리를 '조그루'나 '콩그루'에.이제 밭 갈아서. 이제 씨 뿌려서.) 01 // 보리밧에서 연 띄운 것이 아니라 옛날 조크루에서 막 연덜 띄워낫주덜.(보리밭에서 연 띄운 것이 아니라 옛날 '조크루'에서 많이 연들 띄웠었지.) 12 // ᄀ시락 져당 허

곡, 다시 허당 버치난에 무싱거 솔똥 줏어당 굴묵 짇고, 다시 이젠 옛날엔 저, 소까이 간 때쯤은양 다시 조크르도 다 메당 숨아서. 조크르도.(까끄라기 지어다 하고, 다시 하다가 부치니까 무엇 솔방울 주워다가 '굴묵' 때고, 다시 이젠 옛날엔 참, 소개 간 때쯤은요 다시 조 그루도 다 매다가 땠어. 조 그루도.) 19 // 그 땐 오일장 막 살 때주게. 경허난 졸 비레 가젠 허난이 조크루에 발 잘 찔루주게.(그땐 오일장 아주 설 때지. 그러니까 조를 베러 가려고 하니까 '조크루'에 발 잘 찔리지.) 26 [도련, 신창, 신촌, 청수, 한동]

조파: 고랑에 씨를 파종하는 방법이다. '골파'라고도 한다. // 산파허고 조파 그겁주. 산파는 막 싹싹 뿌령 내버리는 거고.(산파하고 조파 그거지요. 산파는 막 싹싹 뿌려서 내버리는 거고.) 35 [대림]

조펌벅: '조범벅'으로 좁쌀을 가루로 갈아 범벅을 한 것이다. // 조펌벅은 좁쏠 ᄀᆞᆯ아서도 허여먹곡, 옛날엔 그 좁쏠이 체에 강 맷돌에 강 돌려야. 가근에 이제 ᄆᆞᆯ방에엔 허매이.('조범벅'은 좁쌀 갈아서도 해먹고, 옛날엔 그 좁쌀이 겨에 가서 맷돌에 가서 돌려야. 가서 이제 연자마라고 해.) 01 // 조펌벅도 먹고, 조 ᄀᆞᆯ아긴에 ᄀᆞ루로 ᄒᆞ곡.('조범벅'도 먹고 조 갈아서 가루로 하고.) 16 [도련, 하원]

조풍뎅이: 조에서 알곡을 벗기어 낸 겉껍질 따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 ᄋᆞ물 재료는 보리도 숢앙 주고 그자 거기에 체에 서껑. 그 보리체나 이 저 무슨 조풍뎅이 ᄀᆞ튼. 조풍뎅이옌 헤영 조도 초불 깐 거.(여물 재료는 보리도 삶아서 주고 그저 거기에 겨에 섞어서. 그 보릿겨나 이 저 무슨 '조풍뎅이' 같은. '조풍뎅이'라고 해서 조도 초벌 깐 거.) 01 // 조풍뎅이도 거기에 서껑 주곡, 엇이민 ᄋᆞ물이 많으민 ᄋᆞ물만 헤연 주곡. 경 아녀민 조풍뎅이 ᄀᆞ튼 것도 걸 좀 보테영근엥에 헤주고.('조풍뎅이'도 거기에 섞어서 주고, 없으면 여물이 많으면 여물만 해서 주고. 그렇지 않으면 '조풍뎅이' 같은 것도 걸 좀 보태어서 해주고.) 01 // 조풍뎅이 ᄋᆞᆯ매 그 조 담아져난 ᄋᆞᆯ맬 조풍뎅이라고 허주.('조풍뎅이' 열매 그 조 담겼던 열맬 '조풍뎅이'이라고 하지.) 12 // 조풍뎅이도 쉐 잘 먹어.('조풍뎅이'도 소 잘 먹어.) 16 [도련, 하원, 한동]

족바지: 멸치나 자리 따위를 뜰 수 있게 만든 손잡이가 있는 그물이다. 표준어 '뜰채'에 해당하는 말이다. '족베기'라고도 한다. // 통, 통 이신 디 물 숨빡 들민 그 멜수룩 다니다근에 그 통에 와근에 노는디 물 싸불민 나가지 못 헤근에 그 통에 가두와지민 뭐 차롱 아졍 가는 사름, 족바지 멘들앙 가는 사름, 뭐 가근에 거려근에 그거 가졍 젓도 담곡.(통, 통 있는 데 물 가득 들면 그 멸치 떼로 다니다가 그 통에 와서 노는데 물 써버리면 나가지 못 해서 그 통에 가둬지면 뭐 채롱 가져서 가는 사람, '족바지' 만들어서 가는 사람, 뭐 가서 떠서 그거 가져서 젓도 담고.) 05 // 이 저 요만이헌 족베기 멘들엉 놔뒀당 확 확 확 거려.(이 저 요만한 '족베기' 만들어 놔뒀다가 확 확 확 '거려'.) 10 // 족바지 영 그걸로 멜 뜨는 거.(어. '족바지' 이렇게 그걸로 멸치 뜨는 거.) 10 [월령, 표선]

족발이: 걸음을 걸을 때 발회목 위가 내리 디디어지는 말을 말한다. // 그런 것도 잇긴 잇어. 그것도 벨도로. 그 족발이엔만 허주.(그런 것도 있긴 있어. 그것도 별도로. 그 '족발이'라고만 하지.) 01 // 족발이엔 헌 건 발목이 긴 거.('족발이'이라고 한 건 발목이 긴 거.) 29 [도련, 외도]

족숟가락: 자루가 짧은 숟가락이다. // 겁펑 하나 곶곡, 족숟가락, 숟가락 영 꺽어진 거, 쫄른 거 옆이 ᄒᆞ쏠 영 ᄒᆞ여근에 막 긁어가민 다이는 거 잇어.(전복 껍데기 하나 갖고, '족수까락', 숟가락 이렇게 꺾어진 거, 짧은 거 옆에 조금 이렇게 해서 막 긁어 가면 닳는 거 있어.) 08 [동광]

족은각시: 본처인 '큰각시'에 대비해서 첩을 일컫는 말이다. // 남ᄌᆞ덜은 족은각시 허민 큰각시 저들루고 옛날은 경 두드려 패고.(남자들은 '족은각시' 하면 '큰각시' '저들루고' 옛날은 그렇게 두들겨 패고.) 23 [온평]

족은개: 서귀포시 보목동 해안가의 이름이다. // 세긍설내허고 족은갠데 주로 정술내 물이라고 헤서 거기는 딱 보민 거기를 새끼로 봉헤서 출입을 못하도록 헷주.('세긍설내'허고 '족은개'인데 주로 '정술내' 물이라고 해서 거기는 딱 보면 거기를 금줄로 봉해서 출입을 못하도록 했지.) 07 // 나머지 반은 족은개라고 해서 섭섬 앞에.(나머지 반은 '족은개'라고 해서 섶섬 앞에.) 07 [보목]

족은눈: 해녀들이 물질할 때 쓰는 물안경으로 알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테왁이 물적삼 헤양한 걸로 우이 족은눈 허당 말제라가난 큰눈 처음엔 족은눈 헤서 말제라가난 아멩헤도.(테왁에 물적삼 하얀 걸로 위에 '족은눈' 하다가 말째 되어 가니까 '큰눈' 처음엔 '족은눈' 해서 말째 되어 가니까 아무래도.) 10 // 옛날엔 족은눈 써낫는디 이제 것ᄀᆞ란 큰눈이엔 헌다, 큰눈.(옛날엔 '족은눈' 썼었는데 이제 것보고 '큰눈'이라고 한다.) 12 // 족은눈 요즘은 안경이엔 허주.('족은눈' 요즘엔 안경이라고 하지.) 23 // 큰눈이나 족은눈이나 영 다깡 쓰주.('큰눈'이나 '족은눈'이나 이렇게 닦아서 쓰지.) 31 [고내, 온평, 월령, 토평, 한동]

족은다비오름: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오름 이름이다. // 민오름 넘어사면은 족은다비오름이 잇곡.(민오름 넘어서면 '족은다비오름'이 있고.) 08 [동광]

족은대문: 마당에서 마루로 들어오는 쪽에 단 마루문 가운데 작은 문을 말한다. '큰대문' 옆에 단다. 주인이 앉아서 밖을 내다볼 때 사용하는 문이다. 지역에 따라서 '호령문'이라고도 한다. // 호령창 족은문 말이라. 족은대문. 그게 아무 집안이나 잇는 건 아니고. 막 잘사는 집.('호령창' '족은문' 말이야. '족은대문'. 그게 아무 집안이나 있는 건 아니고. 아주 잘사는 집.) 14 [성읍]

족은마누라: 작은 마마로 홍역이나 수두를 일컫는다. // 족은마누란 기냥 이 뜸떼기ᄀᆞ치 낯이 삭삭삭 나곡, 눈곱제기 잡혀근에 열 나가민 그 뜸띠 삭삭허게 뜸띠가 과짝 나주게. 과짝 낭 그것가 영 궤양 헤가민 ᄒᆞᆫ 일주일 뒈가민 삭아지주게.(작은 마마는 그냥 이 땀띠가치 낯이 삭삭삭 나고, 눈곱 잡혀서 열 나가면 그 땀띠 삭삭하게 땀띠가 '과짝' 나지. '과짝' 나서 그것이 이렇게 고이 해가면 한 일주일 되

어가면 삭아지지.) 13 [삼달]

족은문: 마루문에 딸린 작은 문이다. 마루문을 제주에서는 '대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작은 문은 '족은대문'이라고도 한다. // 호령창 족은문 말이라. 족은대문. 그게 아무 집안이나 잇는 건 아니고. 막 잘사는 집.('호령창' '족은문' 말이야. '족은대문'. 그게 아무 집안이나 있는 건 아니고. 아주 잘사는 집.) 14 [성읍]

족은물믜: 성산읍 고성리에 소재한 오름이다. // 저기 신양 그, 요 들어가는 입구에 잇인 족은물믜.(저기 '신양' 그, 요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족은물믜'.) 04 [고성]

족은바르메: 애월읍 상가리에 위치한 '족은바리메오름'을 말한다. // 이제 저 노꼬메, 검은오름, 큰바르메, 족은바르메, 뭐 하꼬네 그런, 그런 디 다 뎅겻주게. 여름에.(으. 이제 저 '노꼬메', '검은오름', '큰바르메', '족은바르메', 뭐 '하꼬네' 그런, 그런 데 다 다녔지. 여름에.) 20 [고내]

족은새물: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물 이름이다. // 이 신창은 물은 좋아낫저, 맛도 좋곡. 경허민 큰새물, 족은새물. 큰새물은 먹는 물, 족은새물은 빨래허는 물.(이 신창은 물은 좋았었어, 맛도 좋고. 그러면 '큰새물', '족은새물'. '큰새물'은 먹는 물, '족은새물'은 빨래하는 물.) 26 [신창]

족은아부지: '작은아버지'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아버지의 형제가 넷인 경우로 넷째를 말하는데 보통 가장 막내인 아버지 형제를 말한다. // 동경을 가젠 헤도 항상 대판까진 배로 간 때는 항상 대판을 내령 동경을 가야 헷주만은 우린. 난 또 그때 대판 족은아부지네영 말젯아부지네영 사니까 대판 강 살앗주게, ᄒᆞᆫ 멧 년.(동경을 가려고 해도 항상 대판까진 배로 간 때는 항상 대판을 내려서 동경을 가야 했지만 우린. 난 또 대판 넷째 아버지네와 셋째 아버지네와 사니까 대판 가서 살았지, 한 몇 년.) 20 [고내]

족은여: 애월읍 구엄리에 위치한 바닷가 지경 이름이다. // 둘이 ᄒᆞ믄 그거 궤기 버쳐가믄 이제 이 허리에 창은에 작살 주멩이영 차놓믄 저ᄁᆞ지 줄 흘리멍도 하나씩은 아게미에 ᄒᆞ영 딱딱 무끄멍 경 나오믄, 춤 저 어디 온여로 ᄒᆞ영 그 어딜로 들엉 나오믄 그거 저ᄁᆞ지, 족은여ᄁᆞ지 히영 나오젠 ᄒᆞ믄 진짜 버쳐.(둘이 하면 그거 고기 부쳐 가면 이제 이 허리에 차서 작살 주머니랑 차 놓으면 저까지 줄 흘리면서도 하나씩은 아가미에 해서 딱딱 묶으면서 그렇게 나오면, 참 저 어디 '온여'로 해서 그 어디로 들어서 나오면 그거 저까지 '족은여'까지 헤엄쳐 나오려고 하면 진짜 부쳐.) 28 [구엄]

족은오름: '노꼬메족은오름'이라고도 하며, 애월읍 유수암리에 나란히 있는 두 오름 중 작은 오름을 말한다. // 거 가젠 ᄒᆞ믄 여기서 ᄒᆞᆫ 두 참, 시 참은 가사 ᄒᆞᆯ 거. 저 한라산, 큰오름, 족은오름 두 트멍더레 보통 올라가믄 거 가믄, 이제 거 영 사름덜 하영 뎅겨나곡 질이 좀 나잇는 디 잇수다.(거 가려고 하면 여기서 한 두 참, 세 참은 가야 할 거. 저 '한라산' '큰오름', '족은오름' 두 틈으로 보통 올라가면 거 가면, 이제 거 이렇게 사람들 많이 다녀나고 길이 좀 나있는 데 있습니다.) 28

[구엄]

족은원: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원 이름이다. '큰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서 붙은 이름이다. // 두 군데지. 족은원 큰원 허주게.(두 군데지. '족은원' '큰원' 하지.) 29 [외도]

족은한집: 작은 마마라는 뜻으로 홍역이나 수두를 말한다. // 큰한집, 족은한집이엔 헷주게.(천연두, 홍역이라고 했지.) 24 [세화]

족은할망: 작은할머니라는 의미로 할아버지의 작은 부인인 첩을 가리키는 말이다. // 족은할망의 아들에 손지들 주고.(작은할머니의 아들의 손주들 주고.) 03 // 족은할망헨 저끗듸 사름 헤연에 아부지 산 땐 고셍만 고셍만.('족은할망' 해서 곁에 사람 해서 아버지 산 땐 고생만 고생만.) 23 [송당, 온평]

졸멩이: 부스러진 밭벼 쌀알을 가리키는 것으로, '싸라기'를 말한다. // 아이고, 경허민 산디 졸멩이 헤근에 좁썰에 서껑 밥허민 요런 ᄃᆞᆲ이 어디 시니? 이젠 나룩밥도 무시것에 먹으렌 헤도이.(아이고, 그러면 밭벼 싸라기 해서 좁쌀에 섞어서 밥하면 요런 달기가 어디 있니? 이젠 쌀밥도 뭐 먹으라고 해도.) 31 [토평]

좀팍: 한 되들이만큼 하게 나무를 파서 만든 둥그스름한 그릇을 말한다. 곡물을 뜰 때 사용하는 도구로 지역에 따라 '좀박', '손박', '솔박', '좀팍세기' 라고도 한다. // ᄋᆞ라 개 션. 방애. 조코고리 둥글이젠 허민 미릇덜 ᄆᆞᆫ 져당 놔둰 ᄌᆞᆷ팍에 헤당 ᄆᆞᆫ 방에에 엎으민 ᄎᆞ례로 둥글일거난 경허멍 ᄃᆞ투멍덜 헨, 옛날 헨 살아완.(여러 개 있었어. 방아. 조 이삭 굴릴려고 하면 미리들 모두 져다가 놔뒀어 'ᄌᆞᆷ팍'에 해다가 모두 방아에 엎으면 차례로 굴릴거니까 그렇게 해서 다투면서들 했어. 옛날 해서 살아왔어.) 19 // 보리씨 뿌릴 때는 무신 저 옛날 좀팍. ᄒᆞᆫ 뒈, 이제 거트민 뒈싱 ᄒᆞᆫ 뒈 드는 좀팍.(보리씨 뿌릴 때는 무슨 저 옛날 '좀팍'. 한 되, 이제 같으면 되승 한 되 드는 '좀팍'.) 20 // 게난 반, ᄒᆞᆫ 좀팍 놀 거민 좁썰ᄀᆞ루 반 좀팍 놩 그다음 곤썰 ᄀᆞ루 반 좀팍 놩 그다음 쉬 놔.(그러니까 반, 한 '좀팍' 넣을 거면 좁쌀가루 반 '좀팍' 넣어서 그다음 흰쌀 가루 반 '좀팍' 넣어서 그다음 쉬 넣어.) 26 // 잘 빠지곡 그추룩 헤 놩 불치로 각 구뎅이 헐 때는 영 허영 허믄, 이디서 불치 하영 헤당 그레 ᄒᆞ끔썩 ᄒᆞᆫ 좀팍썩 노멍 보그락허게 구뎅이 짓어 마씨.(잘 빠지고 그처럼 해 놔서 불티로 각 구덩이 할 때는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서 불티 많이 해다 그리 조금씩 한 '좀팍'씩 넣으면서 보드랍게 구덩이 지어요.) 28 [고내, 구엄, 노형, 봉성, 신도, 신창, 청수, 함덕]

좀호미: 앉아서 손으로 잡아서 베는 낫을 일컫는 말이다. '좀'은 표준어 '줌'의 옛말이다. 꼴 따위를 벨 때 서서 두 손으로 베는 것은 '낫', '장낫'이라고 한다. // 낫으로 비고. 그 낫이엔 허민 저 좀호미엔 헹근엥에 영 그 뭐인디, 이 저 어디 세화 저쪽으론 가면은.(낫으로 베고. 그 낫이라고 하면 저 '좀호미'라고 해서 이렇게 그 뭐인데, 이 저 어디 세화 저쪽으론 가면.) 01 // 좀호미로 영 영 이젠 우리가 좀호미로 헤근에 낫으로 못 후릴 디는 낫으로 돌 신 디 후리민 낫이 그 이제 꺼꺼졍

나가니까. 그거 경 그런 디 돌 이신 디는 기자 우리 여자덜이 다 비여.('좀호미'로 이렇게 이렇게 이젠 우리가 '좀호미'로 해서 낫으로 못 후릴 데는 낫으로 돌 있는 데 후리면 낫이 그 이제 꺾어져서 나가니까. 그거 그렇게 그런 디 돌 있는 데는 그저 우리 여자들이 다 베어.) 05 // 또 좀호미라고 이 앚아서 비는 좀호미라고 헤서.(또 '좀호미'라고 이 앉아서 베는 '좀호미'라고 해서.) 06 // 좀호미는 그거 땔 사름이나 좀호미로 비엇지.('좀호미'론 안 했어. '좀호미'는 그거 땔 사람이나 '좀호미'로 베었지.) 23 [남원, 도련, 온평, 태흥, 표선]

좃대: 조의 줄기를 말한다. // 어욱 세와 놩은에 그다음엔 조집, 조나무, 좃대. 그거 헹 세와 놩.(억새 세워 놔서 그다음에는 조짚, '조나무', '좃대'. 그거 해서 세워 놔서.) 30 [노형]

종이알궤: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굴 이름이다. // 요디도 가민 종이알궤도 셔.(여기도 가면 '종이알궤'도 있어.) 08 [동광]

종인내: 조천읍 신촌리의 내 이름이다. // 내창은 이 저 종인내라고 해가지고 저 우로 내려오는 내가 지금 저 닥ᄆᆞ루ᄁᆞ지 내려가죠.(내는 이 저 '종인내'라고 해가지고 저 위로 내려오는 내가 지금 저 '닥ᄆᆞ르'까지 내려가죠.) 21 [신촌]

종지대축: 이삭의 모양이 사람의 손 주먹과 비슷한 수수의 한 가지이다. // 종지대축은 그자 과짝 사 가지고 발갛게 익어. 그건 막 출, 출지주. ('종지대축'은 그저 곧게 서 가지고 발갛게 익어. 그건 아주 찰, 찰지지.) 12 // 제주도 말론 수수대축은 비차락 멘드는 게 수수대축인디 종지대축이란 게 잇어저, 빨간 거 종지대축.(제주도 말론 '수수대축'은 빗자루 만드는 게 '수수대축'인데 '종지대축'이란 게 있었어, 빨간 거 '종지대축'.) 12 [한동]

좌면: 옛 제주목의 왼쪽 면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조천읍과 구좌읍이 여기에 속한다. // 지금도 구좌, 구좌 안 헤여? 그게 좌면, 우면 허는.(지금도 구좌, 구좌 안 해? 그게 '좌면', '우면' 하는.) 36 [봉성]

좌보미: 표선면 성읍1리에 있는 오름 가운데 하나이다. // 성읍리 목장 안네 잇는 성읍리 경계 내에 잇는 오름은 목장은 저기 좌보미라고 잇어.(성읍리 목장 안에 있는 성읍리 경계 내에 있는 오름은 목장은 저기 '좌보미'라고 있어.) 14 [성읍]

주넹이발락: 아이들의 놀이 중 하나이다. // 주넹이발락 잘 허주. 말 타는 것거치 사람이 짝 굽으민 이짝 손심고, 저짝 손심엉 쭉 굽은 사람 우이 걸어오는 건 주넹이발락.('주넹이발락' 잘 하지. 말 타는 거같이 사람이 짝 굽으면 이쪽 손잡고, 저쪽 손잡아서 쭉 굽은 사람 위에 걸어오는 건 '주넹이발락'.) 26 [신창]

주넹이보리: 보리의 한 종류인 맥주보리를 말한다. // 양쪽으로 이제 뭐인가 그 두 줄 반쭉허게 올라강 맺는 거. 게니까 주넹이, 주넹이 발거치 뒈 부난 주넹이보리.(양쪽으로 이제 뭐인가 그 두 줄 반듯하게 올라가서 맺는 거. 그러니까 지네, 지네 발같이 돼 버리니까 '주넹이보리'.) 12 [한동]

주눈이콩: 콩 종류의 하나이다. // 주눈이콩도 그거 메주레 다 들어가고 그건 뭐, 그것도

무신 약제로도 들어간덴 헤라만은. 주눈이콩도.('주눈이콩'도 그거 메주로 다 들어가고 그건 뭐, 그것도 무슨 약제로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만. '주눈이콩'도.) 20 [고내]

주랑허다: 길게 늘어진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경 모자가 씬 사름이 셔서. 워냑 잘 사는 사름은, 이제 그 저 시집 장게간 디 보면은 여저덜 무시거 등뗑이꺼지 주랑헌 모자 영 씨는 거 잇언게.(그렇게 모자가 쓴 사람이 있어. 워낙 잘사는 사람은, 이제 그 저 시집 장가간 데 보면 여자들 무엇 등때기까지 '주랑한' 모자 이렇게 씨는 거 있었어.) 20 [고내]

주럭: 헐거나 찢어진 헝겊 조각이나 옷을 낮추어 이르는 말을 뜻한다. // 무시거 험벅 뭐ᄒᆞ리루 둑지에 쓸 거 ᄒᆞ쏠 기자 이녁냥 멘들앙 입지곡, 지성귀도 기자 헌 주럭 ᄒᆞ쏠 영 감앙 키우곡 경헷주.(뭐 헝겊 뭐 허리로 죽지에 쓸 거 조금 그저 이녁대로 만들어서 입히고, 기저귀도 그저 헌 '주럭' 조금 이렇게 감아서 키우고 그랬지.) 15 [수망]

주리벵: 제대로 먹지 못해 걸리는 영양실조를 말한다. '주리다'와 '병' 결합하여 만들어진 어휘이다. // 걸 죽 쒕 멕이면은 막 주리벵 ᄒᆞ는 아이도.(그걸 죽 쒀서 먹이면 막 '줄이병' 하는 아이도.) 04 // 주리벵 허는 애기덜 꿩고기 헹은에 참기름 ᄇᆞᆯ랑 구웡 그 애기덜 멕이면은 살로, 앞가슴살로.('주리벵' 하는 아기들 꿩고기 해서 참기름 발라서 구워서 그 아기들 먹이면 살로, 앞가슴살로.) 23 [고성, 온평]

주멩기: '주머니'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씰차데가 잇어 주멩기 모냥으로.('씰차데'가 잇어 '주멩기' 모양으로.) 16 [하원]

주어: 성산읍 삼달2리의 한 지명이다. // 이 동넨 주어. 저 상동은 웃삼달리. 옛날은 웃삼달리, 알삼달리 헤낫주.(이 동네는 '주어'. 저 상동은 윗삼달리. 옛날은 윗삼달리, 아랫삼달리 했었지.) 13 [삼달]

주장: 주로 많이 사용하거나, 중심이 된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 미녕 주장. 하여튼 봄 나민 갈옷허영 감 들영 갈옷 그자. 매해에 갈옷 허주게. ᄒᆞᆫ 헤 헌 걸로 입어지냐? 매날.(무명 '주장'. 하여튼 봄 나면 갈옷해서 감 들여서 갈옷 그저. 매해 갈옷 하지. 한 해 한 걸로 입을 수 있니? 맨날.) 33 [인성]

주제: 비나 바람, 볕 따위가 한 번 몰아 지나감을 세는 단위이다. // ᄒᆞ꼼만 벳 나민 두불콩 타근에 저 ᄒᆞᆫ 주제만 ᄆᆞᆯ리면은 나지는 안 하니까 옛날엔 그 콩 그거 나는 통에 우리 죽, 죽만 죽만 먹어.(조금만 볕 나면 강낭콩 따서 저 한 '주제'만 말리면 나지는 안 하니까 옛날엔 그 콩 그거 나는 통에 우리 죽, 죽만 죽만 먹어.) 05 // 좌르륵 좌르륵 ᄒᆞᆫ 주제 좌르륵 헤불민 그거 넘어갓당 또 맨도롱허게 벳 낫당 또 산더레 붸리민 또 시커멍헌 구름이 올라오곡.(좌르륵 좌르륵 한 '주제' 좌르륵 해버리면 그거 넘어갔다가 또 따뜻하게 볕 났다가 또 산으로 보면 또 시커먼 구름이 올라오고.) 25 [태흥, 표선]

주제기: 주저리의 제주어로, 띠나 짚으로 둥글게 엮어 가리 꼭지 따위에 덧덮는 물건이다.

‘주젱이’라고도 한다. // ᄀᆞ딱, 고만히 주제기 ᄂᆞ람지 더껑, 주젱기 탁 세왕. 주장이엔 헌 게 잇어. 주제기.(까딱, 가만히 주저리 이엉 덮어서, 주저리 탁 세우고. 주저리라고 하는 게 있어. 주저리.) 36 [봉성]

주젯비: 잠깐 동안 내리는 비를 말한다. // 요즘은 경 안헤도 엿날엔 짐벵이, 짐벵이 허멍 이 겨울만 나가민 산으로 비가 자꾸 와, 주젯비가.(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옛날은 진눈깨비, 진눈깨비 하면서 겨울만 나가면 산으로 비가 자꾸 와, ‘주젯비’가.) 25 [태흥]

주젱기: 띠나 짚으로 둥글게 엮어 가리 꼭지 따위에 덧덮는 물건이다. 표준어 ‘주저리’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며, ‘주젱이’라고도 한다. // 주젱이 ᄀᆞ튼 거 그런 건 눌 덕그는 거고. ᄂᆞᆯ암지, 주젱이.(주저리 같은 거 그런 건 가리 덮는 거고. 날개, 주저리.) 03 // 새로 영 ᄒᆞ여근에 둘러근에 그 감저 구뎅이 새로 우의 영 ᄒᆞ영 더끄면은 그 주젱기 새로 ᄒᆞ여근에 주젱길 짭니다.(띠로 이렇게 해서 둘러서 그 고구마 구덩이 띠로 우에 이렇게 해서 덮으면 그 ‘주젱기’ 띠로 해서 ‘주젱기를’ 짭니다.) 08 // 우로헹 흑 더퍼근에게 우에 주젱기 .(위로해서 흙 덮어서 위에 주저리.) 16 // 주젱이, 이건 ᄂᆞ람지 벵 둘르민 꼭데기 트멍나지 안 ᄒᆞᆸ니까, 이추룩 ᄒᆞ믄. 게믄 주젱이 멘들앙 톡 더꺼불민 ᄇᆞ름 걷어지카부덴 베로 역던지, 돌로 지둘르던지, 경 ᄒᆞ는 거.(주저리, 이건 이엉 빙 두르면 꼭대기 틈나지 안 합니까, 이처럼 하면. 그러면 주저리 만들어서 톡 덮어버리면 바람 걷어질까 싶어서 참바로 엮든지, 돌로 지지르든지, 그렇게 하는 거.) 17 [대평, 동광, 송당, 하원]

주젱이: 삶은 팥이나 콩 따위를 으깨어 죽을 쑬 때 잘 으깨지지 않은 덩어리나 껍질 등을 말한다. // 여기도 막 요새 사름덜 경 헤영 헤여. 주젱이 헹 빵 데껴 둥.(여기도 마구 요새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해. ‘주젱이’ 해서 빼서 던져 두고.) 30 [노형]

주지: 띠로 엮어 이엉으로 두른 위에 덧덮는 물건을 말한다. ‘주젱이’라고도 하는데, 표준어의 ‘주저리’에 대응한다. // 담강 돌 지둘놩놧다근에 그 우터레 소금물 올라오게끔 돌 지둘놧당은에 그거 주지. 영 주지처럼 ᄆᆞᆯ앗덴 허영 주지 주지 헤낫주게.(담가서 돌 지질렀다가 놔둬서 그위로 소금물 올라오게끔 돌 지질렀다가 그거 ‘주지’. 이렇게 ‘주지’처럼 말았다고 해서 ‘주지’, ‘주지’ 했었지.) 05 // ᄂᆞ람쥐 둘르고 우인 또 주지, 주지라고 또 영헹. 나도 그거 헤낫저게. 주지 싸근에.(이엉 두르고 위에는 또 주저리, 주저리라고 또 이렇게. 나도 그거 했었어. 주저리 싸서.) 31 [토평, 표선]

주짝: 물건의 윗머리가 높이 솟아 뛰어난 모양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이건 허물 나민 허물이주게. 주짝 튀어 나와 허물이.(이건 헌데 나면 헌데이지. ‘주짝’ 튀어 나와 헌데가.) 18 [신도]

죽대장: 죽을 많이 쑨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 나가 죽대장이주. 죽을 많이 쒀봣어.(내가 ‘죽대장’이지. 죽을 많이 쒀봤어.) 14 [성읍]

죽도: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차귀도를 말한다. // 죽도옌 헤서 엿날에 대나무가 많이 잇엇

주게.('죽도'라고 해서 옛날에 대나무가 많이 있었지.) 09 // 옛날은 뭐 헐 적에는 죽도에 대나무가 잇어부난 일름이 죽도라고 헷주게.(옛날은 뭐 할 적에는 '죽도'에 대나무가 있어버리니까 이름이 '죽도'라고 했지.) 09 [고산]

죽으믈곶: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지명이다. // 죽으믈곶이엔 헌 디가 엿날도 땅이 혈이 엇언 밑에서 죽엇다 해서 죽으믈 죽으믈 헷수다.('죽으믈곶'이라고 하는 데가 옛날에도 땅에 지혈이 없어서 밑에서 죽었다 해서 '죽으믈 죽으믈'이라고 했었습니다.) 03 [송당]

죽은물: 산물의 반대말로 비가 내려서 고인 물을 이르는 말이다. // 엿날에 그디 먹는 물도 서근에 죽은물 질어당 먹고 그디서 빨래허곡 막 허엿주마는 이젠 빨래도 안허곡.(옛날에 거기 먹는 물도 있어서 '죽은물' 길어다 먹고 거기서 빨래하고 막 했지만 이젠 빨래도 않고.) 33 [인성]

죽장: 표준어 '늘'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엿날이사 다 중메가 죽장이주.(옛날에야 다 중매가 늘이지.) 16 [하원]

죽젓개: 죽을 쑬 때에 고르게 끓이기 위해서 죽을 휘젓는 나무방망이를 말한다. // 쏠 놩 쑤당 괴여가민 콩ᄀᆞ루를 놩 남죽으로 휘 젓으멍.(쌀 놔서 쑤다가 끓어 가면 콩가루를 놔서 죽젓개로 휘 저으면서.) 03 [송당]

죽지다: 죽처럼 뒤엉킨 상태를 말한다. // 보리로, 조로 가져왕 주민이, ᄀᆞ레도 올라갓드라. ᄀᆞ레로 영 ᄀᆞᆯ으민 비시시시 막 나와. 나오민 그거 헹 죽졍 범벅졍 허민 그거 먹으민 아이덜 똥 못 쌍 또꼬망 막아.(보리로, 조로 가져와서 주면, 맷돌도 올라갔더라. 맷돌로 이렇게 갈면 비시시시 마구 나와. 나오면 그거 해서 '죽졍' 뒤엉켜서 하면 그거 먹으면 아이들 똥 못 싸서 똥구멍 막아.) 30 [노형]

준여: 제주시 외도동 바닷가에 있는 여 이름이다. // 연대 장난꾸레기 하르방 우리 ᄃᆞᆯ앙 준여에 물에 들레 가믄 이년 난 것덜아 다른 디 가라. 자리 따울리지 말렌. 웃음.(연대 장난꾸러기 할아버지 우리 데려서 '준여'에 물에 들러 가면 이년 난 것들아 다른 데 가라. 자리돔 내쫓지 말라고. 웃음.) 29 [외도]

준자리: 제주의 재래종 콩으로 알이 작아서 '좀콩'이라고도 한다. 콩나물을 만드는 콩이라고 해서 '주름콩'이라고도 부르고 두부를 만드는 콩이라고 해서 '둠비콩'이라고도 했다. // 요즘에는 힐콩이여, 뭐여, 준자리여. 콩도 뭐 말할 나위가 엇수다.(요즘에는 힐콩이다, 뭐다, 준자리다. 콩도 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03 // 콩도 그자 푸린콩, 장콩이나 ᄯᅩ로 그자 보리 두어 말지기, 댓 말지기 갈곡 그 나머지는 전부 준자리콩 갈곡.(콩도 그저 푸른 콩, 장콩이나 따로 그저 보리 두어 마지기, 다섯 마지기 갈고 그 나머지는 '준자리콩' 갈고.) 08 // 그것이 준자리옌 ᄒᆞ는데 요즘말로.(그것이 '준자리'라고 하는데 요즘말로.) 08 // 엿날 팔월베[팔뤌베]는 콩이 두부도 하곡 맛도 싯는디 이제 준자리엔 헌 콩은 우리 집이서는 두불 못헤여.(옛날 '팔월베'는 콩이 두부도 많고 맛도 있는데 이제 '준자리'라고 하는 콩은 우리 집에서는 두부를 못 해.) 11 [동광, 송당, 함덕]

준저리: 콩나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콩 이름이다. 콩의 의미로는 '기름콩'에 대응하는 콩이다. '준자리'라고도 한다. // 아니, 전문 얘기가 콩나물 콩은 준저리.(아니, 전문 얘기가 콩나물 콩은 '준저리'.) 29 [외도]

줄: 제주 지역에서 초가를 이은 다음에 바둑판처럼 얽어매는 줄을 말한다. 달리 '집줄'이라고도 한다. // 줄이사게 그 더플 때 매는 거주게.(줄이야 그 덮을 때 매는 거지.) 14 // 아니 줄은 미리 놧당, 줄은 아무나 웬만허민 노는디 집 이는 건 아무나 못 놔. ᄒᆞᆫ 동네 ᄒᆞᆫ 두서너 사람. 게난 그때 돈으로 ᄒᆞ꼼씩 얼마 줘실 거라.(아니 줄은 미리 놨다가, 줄은 아무나 웬만하면 놓는데 지붕 이는 건 아무나 못 놔. 한 동네 한 두서너 사람. 그러니까 그때 돈으로 조금씩 얼마 줬을 거야.) 26 [성읍, 신창]

줄나시: 넓미역 작업에서 사용하는 어구를 말한다. // 말르젠 그 줄나시 ᄒᆞ는 사름덜 이 팀만 갈라먹는 거지 동네사름덜 다 주는 건 아니.(말리려고 그 '줄나시' 하는 사람들 이 팀만 갈라먹는 거지 동네에 사람들 다 주는 건 아니.) 22 // 밧이 엇어부난에 심지어는 저 이 거 우리 일갓 사름이주만은 그 줄나시 듬북 줄나시 말허지 안읍디가, 줄나시 듬북.(밭이 없어버리니까 심지어는 저 이 거 우리 일가에 사람이지만은 그 '줄나시' 듬북 '줄나시' 말하지 않았습니까. '줄나시' 듬북.) 22 [우도]

줄 놓다: 초가지붕을 일 때 묶는 '집줄'을 꼬아 만드는데 이때 띠를 알맞게 차례로 잘 조정해 주어 알맞은 굵기로 줄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각단이엔 허는 건 줄 이젠, 줄 여기선 줄 논다, 영 허는 사름은 줄 논다 허고 이거 데왕 가는 건 줄 빈다 이러거든.('각단'이라고 하는 건 줄 이젠, 줄 여기선 줄 놓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줄 놓는다 하고 이거 틀어서 가는 건 '줄 빈다' 이러거든.) 06 // 호렝이 영 비여 가민 이디선 영 거 줄 놓는다고 그레.('호렝이' 이렇게 '비여' 가면 여기선 이렇게 거 줄 놓는다고 그래.) 12 // 새를 비여다가 그 우이 더퍼근에 일젠 허믄, 또 줄 놓는 거 각단이엔 헤영 새 요만큼씩 헌 거 헤당 이렇게 줄 허믄 이젠 그 나무 무신 걸로 이렇게 허멍 이젠 하르방덜은 이렇게 놔 주면은.(띠를 베어다가 그 위에 덮어서 이려고 하면, 또 줄 놓는 거 '각단'이라고 해서 띠 요만큼씩 한 거 해다가 이렇게 줄 하면 이젠 그 나무 무슨 걸로 이렇게 하면서 이젠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놔 주면.) 20 // 처음에 노끈으로 맞춰 봥 줄을 놔 감주게.(처음에 노끈으로 맞춰 봐서 놔 가지.) 26 [고내, 남원, 신창, 한동]

줄대: 말뚝을 길게 간격을 두고 양쪽에 박은 다음, 말뚝과 말뚝 사이에 길게 줄을 묶고 말의 고삐를 그 줄에 느슨하게 매어 말의 이동공간을 넓혀주는 그 밧줄을 말한다. // 말톡엔 헌 건 알러레 박는 거. 땅더레 박는 거고 줄대는 이렇게 진 거.(말뚝이라고 하는 건 아래에 박는 거. 땅에 박는 거고 '줄대'는 이렇게 긴 거.) 32 [남원, 덕수]

줄락: 갑자기 나오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 게난 물 끓인 물 놔근에 쪼꼼씩놔야주,

줄락하게 놧당은 그것이 죽 뒈면 감당 못허여. 가루 ᄒᆞᆫ 푸대 놔도.(그러니까 물 끓인 물 넣어서 조금씩 놔야지, '줄락'하게 넣었다가 그것이 죽 되면 감당 못해. 가루 한 부대 놔도.) 05 // 뱀이가 줄락허게 나왕 노래곡, 그자 한창 아무 셍각 없이 가당 보민 베미가 옆으로 술술 감앙 탁 만나근에 또 주침허멍 노래곡 아이고.(뱀이 '줄락'하게 나와서 놀래고, 그저 한창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보면 뱀이 옆으로 술술 감아서 탁 만나서 또 주춤하면서 놀래고 아이고.) 05 // 가마 물, 다 ᄯᅳ로, 경허당 남자 쭐락 가나 여자가 쭐락 가나 허잖아. 물이 ᄯᅳ로ᄯᅳ로 헤야.('가마 물', 다 따로, 그렇게 하다가 남자 '쭐락' 가나 여자가 '쭐락' 가나 하잖아. 물이 따로따로 해야.) 21 [신촌, 표선]

줄레: 소나 말을 벌판의 일정한 구역에서 풀을 뜯어 먹게 하려고 고삐에 연결하는 긴 끈이다. 이 '줄레'를 말뚝에 박아두면 소나 말은 이 '줄레'가 닿는 구역에서만 풀을 뜯어 먹게 된다. // ᄆᆞᆯ을 강 줄레 서 발이나 다섯, 서 발 너 발 이 너 발 지러기면은 충분.(말을 가서 '줄레' 서 발이나 다섯, 서 발 너 발 이 너 발 길이면 충분.) 23 [온평]

줄방석: 지붕을 동여맬 때 쓰다 남은 줄을 이용하여 만든 방석이다. 주로 부엌방석으로 쓴다. // 정짓방석도 허긴 헤. 그것이 오래 가지. 정짓방석. 줄방석. (부엌방석도 하긴 해. 그것이 오래 가지. 부엌방석. '줄방석'.) 01 // 줄방석. 정젯방석. 정젯방석 ᄒᆞᆫ 다섯 개만 멘들라 이러면서 경.('줄방석'. 부엌방석. 부엌방석 한 다섯 개만 만들어라 이러면서 그렇게.) 05 // 줄로 줄방석이라고 허여 가지고 여끄는 걸로. 부엌에 꼴아 앚는 방석을 멘들아낫수다.(줄로 '줄방석'이라고 하여 가지고 엮는 걸로. 부엌에 깔아 앉는 방석을 만들었습니다.) 35 [대림, 도련, 성읍, 표선]

줄보리: 줄처럼 줄줄이 파종한 보리를 말한다. 곧 조파(條播)한 보리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두줄보리, 혹은 줄보리는 '맥주보리'를 의미한다. // ᄉᆞᆯ보리가 거 뭐인가 그 줄보리라고 그렇게 헷주.(쌀보리가 거 뭐인가 그 '줄보리'라고 그렇게 했지.) 12 // ᄉᆞᆯ오리, 겉보리, 떡보리, 두줄보리, 줄보리 ᄀᆞ라 두줄보리엔.(쌀보리, 겉보리, 떡보리, 두줄보리, 줄보리 보고 두줄보리엔.) 15 // 보까. 경헤영 보리게역게. ᄉᆞᆯ보리도 경허고 줄보리도 경허고. 줄보리 잇고 ᄉᆞᆯ보리 잇고.(볶아서. 그래서 보리미숫가루. 쌀보리도 그러고 '줄보리'도 그러고. '줄보리' 있고 쌀보리 있고.) 31 [수망, 토평, 한동]

줄비다: 초가의 지붕을 일 때 사용하는 '집줄'을 만들기 위해서 '호롱이'란 도구로 줄이 되게 꼬는 것을 말한다. '집줄 비다'라고도 한다. // 각단이엔 허는 건 줄 이젠, 줄 여기선 줄 논다, 영 허는 사름은 줄 논다 허고 이거 데왕 가는 건 줄 빈다 이러거든.('각단'이라고 하는 건 줄 이젠, 줄 여기선 줄 놓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줄 놓는다 하고 이거 틀어서 가는 건 '줄 빈다' 이러거든.) 06 // 새찍 다 마련헹 나두어근에, 마련헹 놧당 ᄒᆞ주. 겅 헹 줄 멘들아, 줄 비엉.(띠짚 다 마련해서 놔둬서, 마련해 놔뒀다가 하지. 그렇게 해서 줄 만들어, '줄 비어'서.) 24 [남원, 세화]

줄살린탕건: '줄 살린 탕건'의 뜻으로 줄 수가 120개, 둘레 수가 130개 정도의 탕건을 말한다. // 줄살린탕건도 잇고, 홁은탕건도 잇고.('줄살린탕건'도 있고, '홁은탕건'도 있고.) 11 [함덕]

줄싸다: 벌판에서 말 따위가 풀을 먹을 수 있도록 '고삐에 줄을 연결하여 말뚝에 박아 놓다'의 의미이다. // 쪼금 뚯아 가면 밧데 강 줄 싸근에, 줄 영 헤 가지고 어디 가지 못허게 말뚝 박앙 내불민 그 주위에만 영헤영 먹고.(조금 따뜻해 가면 밭에 가서 줄 길게 해서, 줄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 가지 못하게 말뚝 박아서 내버리면 그 주위에만 이렇게 먹고.) 12 // 너른 버덕에 ᄆᆞᆯ 줄 싸레 간.(너른 벌판에 말 '줄 싸레' 갔어.) 23 [온평, 한동]

줄톱: 여기서 '대톱'을 말한다. 둘이 서로 밀고 당기는 날이 굵고 톱의 크기가 큰 톱이다. 나무를 오릴 때 쓰는 톱이다. // 손톱은 혼자 허는 거고. 줄톱은 둘이 허는 거고.(손톱은 혼자 하는 거고. '줄톱'은 둘이 하는 거고.) 14 // 그저 톱 줄톱, 줄톱으로 밀고 뗑기고, 밀고 뗑기면서 나무를 오렷거든.(그저 톱 대톱, 대톱으로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면서 나무를 오렸거든.) 24 [남원, 성읍, 세화]

줄호렝이: 초가지붕을 이는 새끼줄을 꼴 때 쓰는 도구이다. // 줄호렝이로 영영 비어당 지겟가지에 강 그걸 꼭 빼멍 놧당 또 왕 비어당 또 지겟가지에 놧당.('줄호렝이'로 이렇게 이렇게 꼬아다가 지겟가지에 가서 그걸 꼭 빼면서 놨다가 또 와서 꼬아다가 또 지겟가지에 놨다가.) 11 [함덕]

줍다: '깁다'에 대응하는 말이나 여기서는 '묶다'의 뜻으로 쓰였다. // 그때 무신 단추가 이섯수과 뭐에 놔, 그자 돌 돌려 주웡 거 헤근에 만들어근에 험벅 영 찢어근에 훅훅. 또 경허난 야튼.(그때 무슨 단추가 있습니까, 뭐에 놓아, 그저 돌 돌려 묶어 그거 해서 만들어서 헝겊 이렇게 찢어서 훅훅. 또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15 [수망]

중간도리: 동자기둥에 얹어서 서까래나 지붕널을 받치는 가로재를 말한다. // 이건 아랫ᄃᆞ리는 하, 알ᄃᆞ리, 알ᄃᆞ리엔도 허곡 하도리엔도 허는데. 이거는 중간ᄃᆞ리주.(이건 아랫도리는 많아, 아랫도리, 아랫도리라고도 하고 '하도리'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중도리지.) 01 [도련]

중게: 표준어의 '중계', '중계과'와 비슷하지만 재료나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다른 지역의 '중계'가 밀가루를 꿀과 기름으로 반죽하여 네모지게 잘라 기름에 지져 만드는 유밀과의 하나인데 제주 지역에서는 좁쌀가루나 메밀가루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기름하게 만들어 기름에 튀기거나 쪄낸 떡을 말한다. '중궤'라고도 한다. // 솔벤, 절벤, 약궤, 중게.('솔벤', 절편, '약궤', '중게'.) 16 // 영장 때는 제 떡 ᄒᆞ젠 ᄒᆞ문, 저 거세기 제펜, 침떡양, 제펜ᄒᆞ곡, 솔벤, 젤벤ᄒᆞ곡, 솔벤ᄒᆞ곡, 젤벤ᄒᆞ곡, 중게ᄒᆞ곡, 약궤ᄒᆞ곡, 거는 경 헤서.(영장 때는 제 떡 하려고 하면, 저 거시기 '제펜', 시루떡이요, '제펜'하고, '솔벤', 절편하고, '솔벤'하고, 절편하고, '중게'하고, '약궤'하고, 거는 그렇게 했어.) 17 // 니귀방장헌 거부떠 ᄆᆞᆫ저 허당 그 지끄

레기로 또 소랑헌 건 중게지게. 중게 멘들아.(네모반듯한 거부터 먼저 하다가 그 나머지로 또 기름한 건 '중게'지. '중게' 만들어.) 33 [대평, 인성, 하원]

중경: 작물이 자라는 도중에 김을 매어 두둑 사이의 골이나 그 사이의 흙을 부드럽게 하는 일을 말한다. '사이갈이'라고도 한다. // 영 고랑으로 올리주게. 꿀을 영 벋어시민 앞이 고랑 올리는 쉐보단 먼저 앞이서 줄 떼영 올려불민, 이 고랑을 중경이엔 헤근에.(이렇게 고랑으로 올리지. 줄기를 이렇게 뻗었으면 앞이 고랑 올리는 소보다 먼저 앞에서 줄기 떼어서 올려버리면, 이 고랑을 중경이라고 해서.) 07 [보목]

중관: 제관으로 선택된 사람들을 말한다. // 그 중관뒌 사름덜은 일주일간을 제를 모시는 차릴 집에 가서 합숙을 헤십주게.(그 중관된 사람들은 일주일간을 제를 모시는 차릴 집에 가서 합숙을 했습지요.) 35 [대림]

중군: 작업하는 기량이 보통인 해녀를 말한다. // 저 저 상군들이 아니면 중군이하는 못 나가.(저 저 상군들이 아니면 중군이하는 못 나가.) 22 [우도]

중궤: 표준어 '중계'에서 온 말이나 만드는 방법이나 재료가 조금 다르다. '좁쌀가루나 메밀가루 등을 반죽하여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만들고 구멍을 다섯 개 정도 내서 기름에 튀긴 떡'으로 '중게'라고도 한다. // 일포제에 솔벤, 젤벤이고, 중궤, 약궤고, 침떡이고 전부 귀곶촤근에 올령 젤 지네사 ᄒᆞ주.(일포제에 '솔벤', 절편이고, '중궤', '약궤'고, 시루떡이고 전부 모든 것을 갖추고 오려서 제를 지내야 하지.) 08 // 그 중궤엔 헌 건 소름허게 영헹 소름헌 거 길쭉길쭉허고, 약궤엔 헌 건 은절미 닮은 거 헤근에 고망 네 귀 고망 똘랑 그거 후라이판에 놩 지졍 지진 거가 중궤, 약궤.(그 '중궤'라고 한 건 갸름하게 이렇게 해서 갸름한 거 길쭉길쭉하고 '약궤'라고 한 건 '은절미' 같은 거 해서 구멍 네 모서리 구멍 뚫어서 그거 프라이팬에 놔서 지져서 지진 것이 '중궤', '약궤'.) 13 // 중궤 약궤는, 그 중궤는 영 기창 소롬ᄒᆞ게 요영 기차근에 영 헌 건 중궤고, 대판은 영 네귀난 거, 우의 더끄는 거.(중계, 약과는, 그 중계는 이렇게 잘라서 갸름하게 요렇게 잘라서 이렇게 한 건 중계고, 대판은 이렇게 네모난 거, 위에 덮는 거.) 15 // 중궤, 약궤, 저 시리떡, 저 인절미 거시기 인절미도 막 ᄋᆞ라 가지.(중계, 약과, 저 시루떡, 저 인절미 거시기 인절미도 아주 여러 가지.) 31 [구억, 동광, 삼달, 수망, 토평]

중낭부리: 서귀포시 영천동에 있는 내 이름을 말한다. // 거난 구루마 아전에, 아방이영 나영 저 토평 위 중낭부리엔 헌 내 이시난, 그디 간에 낭을 비는디.(게니 수레 가져서, 애기아버지하고 나하고 저 토평 위 '중낭부리'라고 한 내 있어서, 거기 가서 나무를 베는 데.) 07 [보목]

중동: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의 하나이다. 마을의 중간에 있는 동네를 가리킨다. 제보자는 이를 '중통'이라고 했다. // 겐 소 이껑은에 이꺼지 와신디 정존이 알로이 부룽이 쉣번게, 중동 박 서방 똘이 쉣번 보렌 ᄒᆞ난 쉐를 확 들어쌍 ᄀᆞ찌 몰아야 헐 건디 막 늘어지게 느런이 ᄃᆞᆯ앙 가니까.(그래서 소 이끌어서 이까지 왔는데 정존 아래로 '쉣번', '중동' 박 서방 딸이 '쉣번' 보라고 하니까 소를 확 둘러싸서

같이 몰아야 할 건데 마구 늘어지게 느런히 데리고 가니까,) 30 // 왕 볼 생각도 안 허고. 중동 박 서방이엔 중동 박 서방이엔 허연. 박씬 박씬디 똥을 잘 뀌어 이. 방귈 뎅기멍도 박, 박 허난.(와서 볼 생각도 안 하고. '중동' 박 서방이라고 '중동' 박 서방이라고 했어. 박씨는 박씨인데 똥을 잘 뀌어. 방귀를 다니면서도 박, 박 하니까.) 30 [노형]

중들다: 전복을 잡을 때 조금 건드리면 돌에 딱 붙어 버리는 것을 말한다. // 경 안 허민 중들엉 빗창을 못 찔르주게.(그렇지 않으면 '중들어'서 빗창을 못 찌르지.) 13 [삼달]

중디떡: 밀가루를 갈아서 고운 가루로는 상화떡을 만들고, 마지막 남은 밀기울을 뺀 중간 가루로 만든 것이다. // 중디떡엔 ᄒᆞ꼼 숨메도 놩 허곡이.('중디떡'엔 조금 소도 놔서 하고.) 11 [함덕]

중ᄆᆞ루: 용마루와 처마와의 중간 높은 곳을 말하며 달리 '중ᄆᆞ로', '중ᄆᆞ를'이라고도 한다. // 세워근에 우에 상ᄆᆞ루허고 중ᄆᆞ루허고 그 아래 건 포. 경헤근에 서리 걸쳉 서슬 헤근에 우이 흑질 허여.(세워서 위에 용마루하고 '중ᄆᆞ루'하고 그 아래 건 보. 그렇게 해서 서까래 걸쳐서 '서슬' 해서 위에 흙질 해.) 06 // 중ᄆᆞ루는 가운딘지둥 없이 요렇게 걸쳐 잇는 게 중ᄆᆞ루.(중도리는 가운덴 기둥 없이 요렇게 걸쳐 있는 게 중도리.) 14 // 중ᄆᆞ르 상ᄆᆞ르.('중ᄆᆞ르' 용마루.) 16 // 게민양, ᄯᅳ로 그 뭣옝 ᄒᆞᆫ다마는 상머리, 그 상머리, 다음 지동, ᄯᅳ로 그 중ᄆᆞ리영, 무싱거영마씸, 거난.(그러면요, 다시 그 뭐라고 한다만 용마루, 그 용마루, 다음 기둥, 다시 그 중도리하고, 무엇하고요, 그러니까.) 17 [남원, 대평, 세화, 하원]

중방: 결혼 때 신부집에서 신랑을 맞아들이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중방은 무시거라, 중방 말은 엇고, 대반은 누게게 신부, 그 새서방칩이도 새서방이 가면은 그디 알아서 그 보통 새서방칩이는 우리집이 사위가 오게 뒈면은 ᄆᆞᆫ저 큰 사위가 잇이민 큰사월 앚저이.('중방'은 무엇이야, '중방' 말은 없고, 대반은 누구 신부, 그 새서방 집에도 새서방이 가면 거기 알아서 그 보통 새서방 집에는 우리 집에 사위가 오게 되면 먼저 큰사위가 있으면 큰사위를 앉혀.) 06 // 거기 신랑 딱 내려오면은 딱 중방이엔 헌 게 그 사람이 가 가지고 중방 허는 사람이 중방도 동세가 허여.(거기 신랑 딱 내려오면. 딱 '중방'이라고 한 게 그 사람이 가 가지고 '중방' 하는 사람이 '중방'도 동서가 해.) 09 // 중방이엔 헌 거 ᄀᆞᆺ사게 이 저 홍세 들른 사름이 영 들어오는.(중방이라고 한 거 아까 이 저 혼서 든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11 [고산, 남원, 함덕]

중방: 외양간에 소를 매는 곳과 사람이 다니는 곳을 구분하기 위하여 구유 앞쪽으로 나무로 칸살을 만들어 놓은 곳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중방'을 '메낭'이라고 하기도 한다. // 중방이엔 허여이. 쌀 박은 거이. 소 출입허는 디가 저 중방. 소 나오지 못허게 허는 디가 중방.('중방'이라고 해. 살 박은 거. 소 출입하는 데가 저 '중방'. 소 나오지 못하게 하는 데가 '중방'.) 01 // 소 나오젠 허면 쉐가 나오젠 중

방 빼여둥 쉐 네밀고 또 물이나 멕영근엥게 또 들어오면 또 중방 놔버리면 그냥 가둬지고.(소 나오려고 하면 소가 나오려고 '중방' 빼여두고 소 내몰고 또 물이나 먹여서 또 들어오면 또 '중방' 놔버리면 그냥 가둬지고.) 01 [도련]

중ᄇᆞᆯ레기: '중ᄇᆞ레기'라고도 하며 중의 머리처럼 빡빡 깎은 머리나 대머리를 말한다. // 옛날은 초파일 뒈민 이 머리 ᄆᆞᆫ딱 중ᄇᆞᆯ레기 ᄆᆞᆫ딱 ᄀᆞᆺ아비어낫주만은 이젠 안 허여.(옛날은 초파일 되면 이 머리 모두 중대가리 모두 잘라버렸었지만 이젠 안 해.) 13 // 중ᄇᆞᆯ레기 ᄆᆞᆫ딱 ᄀᆞᆺ아분 거 중ᄇᆞᆯ레기주게, 머리 맨 데멩이가 중ᄇᆞᆯ레기라.(중대가리 모두 잘라버린 거 중대가리지, 머리 맨 대가리가 중대가리야.) 13 [삼달]

중산간: 해발 100~300m 해안 지역과 산간 지역의 중간 지대를 이르는 말로 '웃드르'라고도 한다. // 중산간에 그 촐밧을 허는 때문에.('중산간'에 그 꼴밭을 하는 때문에.) 04 // 이 중산간 부락에, 영 뉴스 들으믄 이 부락에도 쉐 장시덜이 멧 분 계시니까 그 사 온 것도 보고 또 저, 나 쉐 바꾸젠 헴시메 어디 좋은 거 하나 봉가 옵서.(이 중산간 부락에, 이렇게 뉴스 들으면 이 부락에도 소 장수들이 몇 분 계시니까 그 사 온 것도 보고 또 저, 나 소 바꾸려고 하고 있으니 어디 좋은 거 하나 구해 오세요.) 20 // 거기 가서 죽을 바에는 여기서 죽을 테니까 당신네 절대 우린 소개 못 허겟다 헤선 딱 나바쩌지니까, 중산간에서 소탕 아녠 듸가 이 부락ᄒᆞ고 성읍리 뿐이야.(거기 가서 죽을 바에는 여기서 죽을 테니까 당신네 절대 우린 소개 못 하겠다 해선 딱 나자빠지니까, '중산간'에서 소탕 안한 데가 이 부락하고 '성읍리' 뿐이야.) 24 // 제주도 뻥 일주도로에만 사람이 잇고 중산간에 ᄒᆞ나토 엇어, 집이.(제주도 뱅 일주도로에만 사람이 있고 '중산간'에 하나도 없어, 집이.) 24 [고내, 고성, 세화]

중산촌: 해발 100미터에서 300미터의 지대인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마을을 가리킨다. // 그 놈삐 거튼 거는 중산촌더레 가민 만이 갈아낫주게.(그 무 같은 거는 '중산촌'으로 가면 많이 갈았었지.) 20 // 웃드르. 중산촌, 중산촌이지.('웃드르'. '중산촌', '중산촌'이지.) 30 [고내, 노형]

중상웨: 굵은 가루에 기주를 넣어서 부풀려 쪄낸 상화를 말한다. // 정ᄆᆞ레든 맞ᄆᆞ레이든 ᄀᆞᆯ앙. 그걸 쪄근에 ᄆᆞ르 쳐근에 곤ᄆᆞ르 빠 앗아, 두 번차 흙은체로 헌 거는 순다리 걸러놩 헌 것에 중상웨. 세 번차 체 우의 거는 쥐기떡.(맷돌이든 '맞ᄆᆞ레'이든 갈아서. 그걸 찧어서 가루 쳐서 고운 가루 빠 가지고, 두 번째 굵은체로 한 거는 '순다리' 걸러놔서 한 것에 '중상웨'. 세 번째 체 위에 거는 '쥐기떡'.) 14 [성읍]

중솟: 중간 크기의 솥을 가리키는 표선면 성읍리 지역의 말이다. // 우리가 보통 밥헹 먹는 거는 보통으로 두말떼기 저 웨솟. 두말떼기 말고게, 중솟, 중솟.(우리가 보통 밥 해서 먹는 거는. 보통으로 '두말떼기' 저 '웨솟'. '두말떼기' 말고, 중솥, 중솥.) 14 [성읍]

중시리: '중쇠'의 제주어로 맷돌의 위짝을 아래짝에 끼워 돌릴 때 벗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돌릴 수 있게 아래짝 가운데 뾰쪽하게 박아 세운 쇠나 나무로 된 기둥 같은 것을 말한다. // 조정이 잇어. 그거 ᄀᆞ레가 우이가 무거와근에 허면은 우이 영 중시리가 잇주게. 아래 영 들어가는 중시리가.(조정이 있어. 그거 맷돌이 위가 무거워서 하면 위에 이렇게 중쇠가 있지. 아래 이렇게 들어가는 중쇠가.) 20 [고내]

중체: '쳇눈이 굵지도 잘지도 않은 체'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체가 세 개 들어가.대체, 중체, 거름체.(체가 세 개 들어가. 대체 중체. '거름체.') 21 //중체, ᄌᆞᆷ진체, 중체. 이건 대체.('중체', 'ᄌᆞᆷ진체', '중체'. 이건 굵은체.) 27 [신촌, 옹포]

중화동: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한 자연 마을이다. // 이디는 ᄉᆞ삼 때 만들어진 동네난 질 가난헌 동넨디 이제는 평균화 뒀주마는, 봉성에는 옛날부떠 부자만 사는 동네는, 저 오름 앞에 중화동이엔 헌 디가 잇어.(여기는 사삼 때 만들어진 동네니까 제일 가난한 동넨데 이제는 평준화 됐지마는, 봉성에는 옛날부터 부자만 사는 동네는, 저 오름 앞에 중화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36 [봉성]

쥐기떡: 밀가루를 갈 때 나온 밀기울을 손으로 꾹꾹 쥐어서 만든 떡이다. // 밀 ᄀᆞᆯ앙보민 이디 토벡이 밀 ᄀᆞᆯ아나민 체로 치고 체로 치고 허단 남은 건 쥐기떡.(밀 갈아보면 여기 토박이 밀 갈고나면 체로 치고 체로 치고 하다가 남은 건 '쥐기떡'.) 11 // 쥐기떡은이 영영 쥐어, 영영. 경헹 큰큰허게, 큰큰허게 허민 요 정돈 뒈게 멘들아이.('쥐기떡'은 이렇게 이렇게 쥐어,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큼직하게, 큼직하게 하면 요 정돈 되게 만들어.) 11 [함덕]

쥐기알: 조금 때 물이 잘 괴는 바닷가 언덕 위에 패어 들어간 곳이다. // 그거는 이제 밤의 어둡곡 ᄒᆞ믄 쥐기알 씰레 가자 ᄒᆞ믄.(그거는 이제 밤에 어둡고 하면 '쥐기알' 쓸러 가자 하면.) 28 // 쥐기알이엔 ᄒᆞᆫ 건 물때 맞추앙 밤의 이제 초저녁에 물이 딱 싼 때 강 물이 벤직벤직ᄒᆞᆯ 때 ᄒᆞ믄 영 횃불 들렁, 횃댈 들렁 이 불 뎅이믄 그 보말이영 뭐영 그 햇당 전부 벳, 벳 맞젠 나앚읍니다.('쥐기알'이라고 한 건 물때 맞춰서 밤에 이제 초저녁에 물이 딱 썬 때 가서 물이 반짝반짝할 때 하면 이렇게 횃불 들러서, 횃불을 들러서 이 불 다니면서 그 고둥이랑 뭐랑 그 했다가 전부 볕, 볕 맞으려고 나앉습니다.) 28 [구엄]

쥐끼다: 표준어 '쫓기다'로 '매우 어려운 일을 당하다'라는 뜻으로 쓴다. // 병 ᄀᆞ쳔, 게난 우리 ᄌᆞ들리젠 ᄒᆞ난 쉐 집이, 쥐끼젠 ᄒᆞ난 경 헤난 거 닮아.(병 고쳐서, 그러니까 우리 걱정시키려고 하니까 소 집에, 쫓기려고 하니깐 그렇게 했던 거 같아.) 19 [청수]

쥐피: 초피나무나 잎을 말한다. // 쉐우린 옛날 쉐우리, 쥐피 미나리 헤근에 뒌장에 버무령 그것이 반찬이주게.(부추는 옛날 부추, 분디 미나리 해서 된장에 버무려서 그것이 반찬이지.) 16 [하원]

쥉이쉬: 빗방울이 굵은 큰비가 내리는 날씨를 말한다. 아마도 비가 내리는 모양나 소리가 쥐가 뛰어다니는 모양이나 소리와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다. // 쥉이쉬엔 헌 건 요새 오는 흙은 비, 큰비 오잖아.('쥉이쉬'라고 한 건 요새 오는 굵은 비,

큰 비 오잖아.) 25 [태흥]

쥐듬북: 해초 '듬북'의 한 종류이다. // 춤듬북이엔 헌 쥐듬북.('참듬북'이라고 한 '쥐듬북'.) 13 [삼달]

쥐ᄆᆞᆯ망: 해초 모자반의 일종이다. 공기주머니와 잎이 모자반보다 잘다. 달리 '쥐ᄆᆞᆷ'이라고도 한다. '쥐ᄆᆞᆷ'이라고도 한다. // 아니 게난 그냥 ᄆᆞᆯ망허고. ᄆᆞᆯ망보다 틀린 거는 쥐ᄆᆞᆯ망엔 헤근에.(아니 그러니까 그냥 모자반하고. 모자반보다 다른 거는 '쥐모자반'이라고 해서.) 05 // 막 ᄌᆞᆷ질주, 쥐ᄆᆞᆯ망은.(아주 자잘하지, '쥐ᄆᆞᆯ망'은.) 23 // 저기 무신거 쥐ᄆᆞᆷ 잇고 기자 ᄆᆞᆯ망 잇고.(아, 저기 무엇 '쥐ᄆᆞᆷ' 있고 그저 모자반 있고.) 23 [표선, 온평]

지: 해녀들이 용왕에게 해상의 안전과 해산물의 풍성함을 기원하기 위해 바다에 던져 넣을 밥과 계란 등의 제물을 백지에 싼 물건을 말한다. // 거 지 드린다고 헤서 밥이랑 고기랑 싸 가지고.(거 '지' 드린다고 해서 밥이랑 고기랑 싸 가지고.) 06 [남원]

지게눌: 아주 크게 가린 가리를 말한다. // 영 ᄒᆞᆫ 펜으로 막 크게 지게눌은 ᄒᆞᆫ 펜으로 영 눌 빠는 디가 잇주.(이렇게 한 편으로 아주 크게 '지게눌'은 한 편으로 이렇게 가리 빼는 데가 있지.) 13 [삼달]

지게문: 옛날식 가옥에서, 마루와 방 사이의 문이나 부엌의 바깥문으로 흔히 돌쩌귀를 달아 여닫는 문이다. // 문을 낭으로 뒈엇던 돌처귀로 ᄃᆞᆯ앗던 이것이 삼방더레 ᄃᆞᆫ 건 지게문이고.(문을 나무로 되었던 돌쩌귀로 달았던 이것이 마루쪽으로 단 건 지게문이고.) 02 [선흘]

지깍: 일정한 공간에 물건이 가득 박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전 밭 전체를 '촘촘히' 밟은 상태를 말한다. // 경허영 지깍 ᄇᆞᆯ려사마씸. 지깍 ᄇᆞᆯ려.(그렇게 해서 '지깍' 밟아야 돼요. '지깍' 밟아.) 32 [덕수]

지깍ᄒᆞ다: '일정한 공간에 물건이 가득 들어박혀 빽빽하다, 깊게 박혀 있어서 꼼짝달싹 않다'의 의미를 지니는 제주어이다. '디깍ᄒᆞ다, 직깍ᄒᆞ다'라고도 한다. // 사름으로만 ᄇᆞᆯ리젠 허믄 거 밧 얼만큼이나 ᄇᆞᆯ리면 ᄇᆞᆯ려? 막 지깍ᄒᆞ게 ᄇᆞᆯ령.(사람으로만 밟으려고 하면 거 밭 얼마만큼이나 밟으면 밟혀? 막 '지깍ᄒᆞ게' 밟아서.) 27 [웅포]

지께: 매끼를 만들 때 곡식 대 자체를 이용해서 만든 것을 말한다. 보릿단 따위를 묶을 때 사용하는데, 지역에 따라 '제께', '뭍께'라고도 한다. // 겐 욜로다가 영 휙허게 데와다 놔 가지고 영 자쳐 가지고 나무데기를 자쳐 가지고 그걸로 무꺼.(그래서 욜로다가 이렇게 휙하게 꼬아 놔 가지고 이렇게 젖혀 가지고 나뭇 가지를 젖혀 가지고 그걸로 묶어.) 게민 지께인 거다예?(그럼 '지께'인 거네요?) 으. 보리 지께 지게. 보리 지께.(으. 보리 '지께'지. 보리 '지께'.) 20 // 산디로 그대로. 자기 께로, 지께로?(밭벼로 그대로. 자기 매끼로 '지께'로?) 으, 자기.(으, 자기.) 20 // 그냥 그냥 그자 보리로. 보리로 무꺼마씸. 지께로 무꺼마씸.(아냐, 그냥 그냥 그

저 보리로. 보리로 묶어요. '지께'로 묶어요.) 32 [고내, 덕수]

지꾸물: 성산읍 수산리에 있는 물 이름이다. // 저기 수산에 가면 지꾸물이라는 데 잇고.(저기 수산에 가면 '지꾸물'이라는 데 있고.) 23 [온평]

지냥으로: '지(자기)+냥으로(대로)'로 '자기대로'의 의미인데 여기서는 '저절로'의 의미로 쓰였다. // 저 검은여 가믄 오롬젱이렌 헌 디. 지냥으로 생겨진 통이 잇주게.(저 '검은여' 가면 '오롬젱이'라고 하는 데. 저절로 생긴 통이 있지.) 31 [토평]

지다리엿: 오소리고기를 넣어서 곤 엿을 말한다. // 시집완 엿 헤본 건 ᄃᆞᆨ엿 헤보고양, 꿩엿 헤보고, 뒈지엿 헤보고, 저 무슨거 지다리엿 헤보고 것벳기 안 헤봣수다.(시집와서 엿 해본 건 '닭엿' 해보고요, '꿩엿' 해보고, '돼지엿' 해보고, 저 무엇 '오소리엿' 해보고 그것밖에 안 해봤습니다.) 34 [구억]

지두옷: 남자 상제가 입는 상복을 말한다. // 남전 지두옷 ᄒᆞ나허곡 행경허곡 두건 허곡베끼 더 써? 지두옷허고.(남자는 '지두옷' 하나하고 행전하고 두건하고 밖에 더 써? '지두옷'하고.) 13 [삼달]

지둘루다: 표준어 '지지르다'에 해당하는 제주말이다. // 그디 강은에 ᄂᆞ물 커근에 돌로 영 지둘뢍 놔둬.(그데 가서 나물 잠가서 돌로 이렇게 지질러 놔두어.) 16 [하원]

지둥쉐: 집에서 부리기 위해서 오래 기르는 소로, 크고 실한 수소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 그 집안에 제일 좋은 걸로 헤영 오래 길를 거를 지둥쉐엔 허주.(그 집안에 제일 좋은 걸로 해서 오래 기를 거를 '지둥쉐'라고 하지.) 29 [외도]

지드림: '지아롬'이라고도 하며 영등굿에서 용왕이나 바다에서 죽은 영혼을 대접하기 위해 백지에 제물을 싸서 바다에 던지는 일이다. // 이녁냥으로 지드림헌 사름만 지드리주, 안 허여, 줌수덜은 강 지드리주.(자기대로 '지드림'한 사람만 '지드리지', 안 해, 잠수들은 가서 '지드리주'.) 13 // 이녁냥으로 메 헤영 강 종이 영 쌍 강 은에 훅 데껴, 지드리주.(자기대로 메 해서 가서 종이 이렇게 싸서 가서 훅 던져, '지드리지'.) 13 [삼달]

지루개: 한림읍 대림리 바닷가 지경이다. // 지루개에는 그 물, 빗구물, 빗구물 허는디, 이제 한림, 이제 저 대림사동, 뭐냐 이 저 도항선 잇는디 ᄌᆞᆺ디우다.(예, 예. 그래거 그 '지루개'에는 그 물, '빗구물', '빗구물' 하는데, 이제 한림리, 이제 더 대림사동, 뭐냐 이 저 도항선 있는데 곁에입니다.) 35 [대림]

지르르륵ᄒᆞ다: 콩국 따위가 무른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 콩국 헐 때 미릇 헹 막 젓어 불곡 ᄒᆞ민, 국이 기자 지르르륵ᄒᆞ게 안 좋고.(콩국 할 때 미리해서 마구 저어 버리고 하면, 국이 그저 '지르르륵하게' 안 좋고.) 15 [수망]

지르륵지르륵: 보리쌀이 소화되지 않고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는 모양이다. // 보리밥을 무룩허게 거려. 경헤도 남저들 그 노동일 헤나민 배고파. 엿날엔 케실케실허난 그냥 밥 먹으민 지르륵지르륵 경헷주.(보리밥을 가득 떠. 그래도 남자들 그 노동일 하고 나면 배고파. 옛날엔 '케실케실'하니까 그냥 밥 먹으면 '지르륵 지르륵' 그랬지.) 25 [태흥]

지르륵허다: 국물에 풀기가 없고 맛이 밍밍하다는 의미이다. // 물장 ᄀᆞ튼 것에 끓리민 메역국은 지르륵헤영 안 좋아.(간장 같은 것에 끓이면 미역국은 '지르륵해서' 안 좋아.) 23 // 비우민 그다음엔 우의로만 꼭꼭 눌뜨멍 젓질 아녀마씸. 젓어불민 지르륵허곡 허난.(부우면 그다음엔 위로만 꼭꼭 누르면서 젓질 않아요. 저어버리면 '지르륵하고' 하니까.) 32 [덕수, 온평]

지륵: 갑자기 힘있게 밀거나 물 따위를 붓는 모양으로 '가락', '자락이', '지락이' 등으로도 쓰인다. // ᄂᆞ려지곡, 이디 신 막 얼령은에 이만이 높아. 경 허민 뎅기당 지륵허민 헤뜩 갈라지곡 사람이 옛날은 그렇게 허멍 살아왓어.(넘어지고, 여기 신 막 얼려서 이만큼 높아. 그렇게 하면 다니다가 '지륵'하면 희뜩 자빠지고 사람이 옛날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어.) 19 [청수]

지름깅이: 게의 일종이다. // 깅이도 ᄋᆞ라 종류지. 참게가 잇고 또 이제 얼룩얼룩헌 그. 지름깅이엔 헌 거 잇고. ᄑᆞᆺ깅이엔 헌 것가 잇고, 돌킹이가 잇고, 까메기깅이가 잇고, ᄋᆞ라 질이라.(게도 여러 종류지. 참게가 있고 또 이제 얼룩얼룩한 그. 저 뭐냐. '지름깅이'라고 한 거 있고. 'ᄑᆞᆺ깅이'라고 한 것이 있고, '돌킹이'가 있고, '까메기깅이'가 있고, 여러 종류야.) 29 [외도]

지름ᄆᆞᆷ: 모자반이 일종이다. 공기주머니가 자잘한 모자반이다. // 이제도 비양도 가믄 저 거시기 지름ᄆᆞᆷ 막 꽉 차실 거여.(이제도 비양도 가면 저 거시기 '지름ᄆᆞᆷ' 막 꽉 찼을 거야.) 10 [월령]

지름콩: 콩나물을 만드는 콩을 일컫는다. // 여기선 그자 뭣고 지름콩 지름콩 헙니다. 씨가 좀 ᄌᆞᆯ아마씨.(거 저 여기선 그저 뭣인가 '지름콩', '지름콩' 헙니다. 씨가 좀 ᄌᆞᆯ아마씨.) 35 [대림]

지릇: 습기를 먹어 축축한 기운이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게난 노랑헌 곰펭이 피민 아이고 누룩 이거 잘 뒀저 허고. 거멍헌 곰펭이 피민 아이고 너미 지릇 텃구나. 잘 만들언, 누룩. 누룩 술 잘 허연, 나도. 아, 잘 만들어서.(그러니까 노란 곰팡이 피면 아이고 누룩 이거 잘됐어 하고. 거먼 곰팡이 피면 아이고 너무 '지릇' 텄구나. 잘 만들었어, 누룩. 누룩 술 잘 했어, 나도. 아, 잘 만들었어.) 26 [신창]

지릇허다: 습기를 먹어 축축한 기운이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로, 표준어의 '누지다'에 대응한다. '지릿허다'라고도 한다. // 게난 영 ᄃᆞᆯ아멘 걸 보믄 일절 버렝이 안 궤는디 옛날 아래 틀 때 버렝이 잘 궤여서. 게난 지릇허면서 버렝이 궤는 거라.(그러니까 이렇게 달아맨 걸 보면 일절 벌레 안 꾀는데 옛날 아래 틀 때 벌레 잘 꾀었어. 그러니까 누지면서 벌레 꾀는 거야.) 26 // 그냥 정지 구석에서 ᄆᆞᆯ리왕 또 이젠 ᄒᆞ꼼 지릿험젠 허믄 이추룩 날 좋은 때 ᄆᆞᆯ리왕 또 뭐 허고. 경허믄 너미 지릿헐 땐 ᄆᆞᆫ 베렝이 궤고 경헌디.(그냥 부엌 구석에서 말려서 또 이젠 조금 '지릿하다' 고 하면 이처럼 날 좋은 때 말려서 또 뭐 하고. 그러면 너무 누질 땐 모두 벌레 괴고 그러는데.) 26 [신창]

지릉지릉: 소가 길에서 돌을 끄는 소리를 흉내 낸 말이다. // 멩글앙 크게 멩글앙 잠데 ᄀᆞ

치 노 헤엥 지릉지릉 질레 다 끗어. 빈 밧이나 질레나 끗엉 뎅기멍 ᄀᆞ리쳐.(만들어서 크게 만들어서 쟁기처럼 노 해서 '지릉지릉' 길에 다 끌어. 빈 밭이나 길에나 끌어서 다니면서 가르쳐.) 13 [삼달]

지믜지다: 식물의 잎이 희읍스름하게 시들어 마르다는 뜻이다. // 그 계속 연작을 허게 뒈며는 조가 딴 거 허민 지믜진다고 헤여. 병들어서 그냥 멜락 자우라져서 결실이 안 뒈니까.(그 계속 연작을 하게 되면 조가 딴 거 하면 '지믜진다'고 해. 병들어서 그냥 폭삭 갸울어져서 결실이 안 되니까.) 19 // 상 먹주. 물이 앚아도 안 뒈고, 지믜져도 안뒈여.(사서 먹지. 물이 있어도 안 되고, '지믜져'도 안 돼.) 21 [신촌, 청수]

지미봉: 구좌읍 종달리의 오름 이름 가운데 하나이다. // 꼴랭이라는 거야. 거북이 꼬리야. 그 지미봉에서 만나서 종달리에서 헤어진 거야 그 종달 글로 일본으로 들어가 그것이 바로 종자가 마칠 종 자거든.(꼬리라는 거야. 거북이 꼬리야. 그 '지미봉'에서 만나서 '종달리'에서 헤어진 거야 그 종달 거기로 일본으로 들어가 그것이 바로 종자가 마칠 종 자거든.) 09 [고산]

지미짐: '지미지다'의 명사형으로 식물 등이 병들어 잎이 시들어 마르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 조에 지미짐이엔 허영 벵들어 비어.(조에 '지미짐'이라고 해서 병들어 버려.) 13 [삼달]

지방돌궤: 제주시 외도동에 있었던 굴 이름이다. '궤'는 위로 큰 바위나 절벽 따위로 가려지고 땅속으로 깊숙하게 패어 들어간 곳을 말하는데, 위에 얹어진 큰 돌이 지방 모양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 지방돌궤, 저 폭낭굴궤, 마굴궤, 족은궤가 잇엇주.('지방돌궤', 저 '폭낭굴궤', '마굴궤', '족은궤'가 있었지.) 29 [외도]

지방판: 제사나 명절 때 지방을 써서 붙이는 도구를 말한다. // 앗다 놓고 이제 상주들 친족덜은 초제 헤근에 이제 옛날은 그 초제를 헤서 그대로 집이 오면은 저 사진도 옛날 엇는 때에는 지방이라고 요만이 글 쓴 거 ᄒᆞ나만 이제 아져 오라근에 저디 지방판이라고.(가져다 놓고 이제 상주들 친족들은 초제 해서 이제 옛날은 그 초제를 해서 그대로 집에 오면 저 사진도 옛날 없을 때에는 지방이라고 요만큼 글 쓴 거 하나만 이제 가지고 와서 저기 지방판이라고.) 06 [남원]

지브렌: 배추의 한 종류를 말한 것으로, '지부배추'를 말한다. // 뭐 지브렌이다 포드렌이다 허는 거는, 청방이다 허는 게 전부 중국서 왓주게.(뭐 '지브렌'이다 '포드렌'이다 허는 거는, '청방'이다 하는 게 전부 중국에서 왔지.) 06 [남원]

지선: 원래 있었던 곳, 소가 태어난 곳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 이녁 난 디 보고 지선이엔 허는디.(이녁 난 데 보고 '지선'이라고 하는데.) 29 [외도]

지성치마: 여자아이들이 소변이나 대변을 보기 쉽게 밑을 터서 만든 옷이다. // 지성치마 여자 지집아이덜은 지성치마 입지라 경 허여근에 헤여나신디 몰라 ᄉᆞ나이놈들은 어떵사 허여신디.('지성치마' 여자 계집아이들은 '지성치마' 입혀라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몰라 사내놈들은 어떻게야 했는지.) 29 [외도]

지세: ‘기와’를 뜻하는 제주어이다. 기와를 만드는 흙으로 구워서 색깔이 검은 옹기를 의미한다. // 아주 옛날들은 지세 시리. 검은 거 보고 지세엔 허주.(아주 옛날들은 ‘지세’ 시루. 검은 거 보고 ‘지세’라고 하지.) 01 // 그건 ᄒᆞ끔 꺼무고 지세.(그건 조금 검고 기와.) 16 [도련, 표선, 하원]

지세물항: ‘지세’ 즉 ‘기와’와 같이 검은 빛을 띠는 물독을 말한다. // 물항도 지세, 지세물항이렌 헤근에 허베기로 허벅으로 열두, 열두, 열두 번을 질어다 놔야 그 이제 항이 꽉 차는 이만헌 항이라.(물독도 ‘지세’, ‘지세물항’이라고 해서 ‘허벅’으로 ‘허벅’으로 열두, 열두, 열두 번을 길어다 놔야 그 이제 독이 꽉 차는 이만한 항아리야.) 05 [표선]

지세시리: 기와를 만드는 흙으로 구워서 색깔이 검은 시루다. ‘지세시리’의 ‘지세’는 기와, ‘시리’는 시루의 제주어이다. //옛날은 허벅도이 과영허벅 잇고 지세허벅이엔 허영이 지세로 어떵 것이 흑으로 익현에 경 까망케 멘든 거 닮아. 지세주게. 지세시리라 것이.(옛날은 동이도 ‘과영허벅’ 있고 ‘지세허벅’이라고 해서 질로 어떻게 그것이 흙으로 익혀서 그렇게 까맣게 만든 거 같아. 질이지, 질 시루야 그것이.) 11 [함덕]

지세항: ‘지세’ 즉 ‘기와’와 같이 검은 빛을 띠는 항아리를 말한다. ‘검은굴’이라 불리는 가마에서 구워낸 항아리이다. ‘지세통’, ‘지세황’이라고도 한다. // 그거는 지세항에는 물이 놔도 변허질 아녀.(그거는 ‘지세항’에는 물이 놔도 변하질 않아.) 14 // 지세통도 잇어, 지세통 거멍헌 거 지세통 엿날에.(‘지세통’도 있어, ‘지세통’ 거멓한 거 ‘지세통’ 옛날에.) 16 // ᄀᆞ레 저 독석, ᄀᆞ렛착 아래에 놩, 그 우트레 부잣집읜 큰 지세항 놓곡, 다른 딘 아무 항이라도 놓곡, 아무 항이라도.(맷돌 저 멍석, 맷돌짝 아래에 놓아서, 그 위로부잣집에는 큰 ‘지세항’ 놓고, 다른 데는 아무 독이라도 놓고, 아무 독이라도.) 17 // 물항도 두 개씩도 놓고. 지세항, 검은 물항이엔 허주게. 검은 물항 그것에 놓민 물 시원허영 검은 물항에만 놩 먹고. 겐 ᄒᆞᆫ 덜에 ᄒᆞᆫ 번이나 물항 씻고. 물이 막 찌끄레기 일어. 그디 물 질어당 먹어.(물독도 두 개씩도 놓고. ‘지세항’, 검은 물독이라고 하지. 검은 물독 그것에 넣으면 물 시원해서 검은 물독에만 놔서 먹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물독 씻고. 물이 마구 찌꺼기 일어. 거기 물 길어다가 먹어.) 26 [대평, 성읍, 신창, 하원]

지세허벅: 기와를 만드는 흙으로 만든 물동이를 말한다. // 그 지세허벅 벌러진 양순이땅 단추 닮은 걸 멘들아.(그 ‘지세허벅’ 깨어진 ‘양순이땅’ 단추 닮은 걸 만들어.) 03 [송당]

지숙: 제상에 올리는 고기나 생선류를 말한다. ‘제숙’이라고도 한다. // 옥돔은 또 이제 그냥 영 올 릴 거 지숙이라고이, 지숙, 바당에 거 허영 올 리는 건 지숙.(옥돔은 또 이제 그냥 이렇게 올릴 거 제수라고, 제수, 바다에 거 많이 올리는 건 제수.) 10 // 우럭은 셔난. 우럭 헤도 우럭은 지젼이나 먹곡 캇다근에 그자 지숙이나 쓰곡. 기제서 때에. 우럭, 셍선 그런 건 제숙 쓰는 거.(우럭은 있었어. 우럭 해도 우럭

은 지져서나 먹고 배를 갈랐다가 그저 '지숙'이나 쓰고. 기제사 때에. 우럭, 옥돔 그런 건 '제숙' 쓰는 거.) 20 [고내, 월령]

지슬: 초가 뒤쪽이나 옆 처마 밑에 그늘진 곳을 말한다. // 초가집 밋테 그 초가 지슬에. 막 나근에 ᄉᆞ뭇 집집마다, 이젠 양에도 별로 엇어마씨.(초가 밑에 그 초가 '지슬'에. 마구 나서 사뭇 집집마다, 이젠 양하도 별로 없어요.) 34 [구억]

지슬굿: '감자북'으로 '굿'은 표준어 '북'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굿'은 뿌리를 감싸는 흙을 말한다. // 지슬굿 올리는, 지슬굿 굿 올린다.(감자북 올리는, 감자북 북 올린다.) 16 [하원]

지싯데가리: 장아찌를 낮추어서 한 말이다. // 지싯데가리에 거 밥 맛 좋으메. 저 콥데산이엔 헌 거주. 옛날 콥데산이.(장아찌에 거 밥 맛 좋아. 저 마늘이라고 한 거지. 옛날 마늘.) 01 [도련]

지엠므시: 미군 화물차를 가리키면서 한 말이다. // 이젠 또 석수덜이 그 지엠므시에 시끌 수 잇게시리 돌을 깨는 거라.(이젠 또 석수들이 그 '지엠므시'에 실을 수 있게끔 돌을 깨는 거야.) 22 [우도]

지전: 무속에서 백지나 창호지를 오려 엽전 모양으로 만들어 신의 노자로 바치는 돈이다. // 영 요영 헌 건 지전 우이 올리고 친떡은 굽에 허곡 돌레떡은 우이 올리고 그건 지전 우이 올려.(이렇게 요렇게 한 건 지전 위에 올리고 시루떡은 아래에 하고 도래떡은 위에 올리고 그건 지전 위에 올려.) 13 [삼달]

지제: 제사를 그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3대까지 제사를 지내고 그 윗대의 조상의 제사를 묘제로 지낸다. '친제'라고도 한다. // 고 고조 웃데를 지제를 못헤여.(고 고조 윗대를 지제를 못해.) 04 // 지제는 이제 ᄎᆞ례 엇이 지제헤 불엄신게.(지제는 이제 차례 없이 '지제'해 버리고 있네.) 11 // 지제는 뭐 식게, 식게 안 허는 게 영영 헹 축 헹 식겔 영영헨 못헴수다 헹 ᄒᆞᆫ이 뒈난 못헴수다 허민 것이 지제 뒈난 끗나분 거지.(지제는 뭐 제사, 제사 안 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축 해서 제사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한이 되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것이 '지제' 되니까 끝나버린 거지.) 11 [고성, 함덕]

지제허다: 제사를 그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3대까지 제사를 지내고 그 윗대의 조상의 제사를 묘제로 지낸다. // 지제헤부난이주 지제헌 조상들은 안 거려 놉니다.('지제헤' 버리니까지. '지제헌' 조상들은 안 떠 놓습니다.) 03 [송당]

지쳇광목: 짠 뒤에 한 번도 빨지 않은 광목을 말한다. // 게난 그때 나 돈 ᄒᆞ꼼 허고 그땐 시집가젠 허민 지쳇광목, 광목 ᄒᆞᆫ 통 상 와져실 거라.(그러니까 그때 나 돈 조금 하고 그땐 시집가려고 하면 '지쳇광목', 광목 한 통 사서 왔을 거야.) 26 [신창]

지치다: '기운이 빠지다'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많다'는 뜻으로 쓰였다. // 바당에 멜도 지쳐불고, 졍 허는 거, 갯담. 그 안네 멜이 들어와.(바다에 멸치도 '지쳐'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 갯담. 그 안에 멸치가 들어와.) 11 [함덕]

지치다: '기운이 빠지다'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여위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 사람은 뭔

가 암, 암, 여자가, ᄉᆞᆯ지는디 전복은 여자가 지쳐.(사람은 뭔가 암 암 여자가, 살 찌는데 전복은 여자가 여위어.) 09 [고산]

직구섬: 서귀포시 토평동 앞바다에 있는 섬 이름이다. // 원 나 알아지는 건 것베낀 엇다. 이 바당에 섬은 직구섬이여 무슨 섬이여 그건.(원 내가 아는 건 것밖에 없다. 이 바다에 섬은 '직구섬'이며 무슨 섬이며 그건.) 31 [토평]

직깍: 몹시 굳고 단단하게라는 의미이다. // 뱅뱅허게 둥그리멍 직깍 ᄇᆞᆯ르멍 다 둥그령강 양쪽에 거 무끄면은 떼깍허여.(뱅뱅하게 굴리면서 딱딱하게 밟으면서 다 굴려가서 양쪽에 거 묶으면 단단해.) 29 [외도]

직낭: 거리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대문 대신 가로로 걸쳐 놓은 길고 굵직한 나무 막대를 말한다. '정낭'이라고도 한다. // 직낭. 직낭 두 개 시 개 헤영 직낭 걸쳐사 뒐 거 아니. 쉐 들어오곡게. 직낭 걸치민 사름 엇인 집이고 직낭 ᄋᆞᆯ아지민 사람 신 집이고.('직낭'. '직낭' 두 개 세 개 해서 '직낭' 걸쳐야 될 거 아니. 소 들어오고. '직낭' 걸치면 사람 없는 집이고 '직낭' 열리면 사람 있는 집이고.) 26 [신창]

진대듬북: 해초 '듬북'의 한 종류이다. // 듬북 이름이 ᄎᆞᆷ듬북, 진대듬북, 듬북이 여러 가지라.(듬북 이름이 참듬븍, 진대듬북, 듬북이 여러 가지야.) 13 [삼달]

진드르: 조천읍 신촌리 지명 중 하나이다. // 진드르는 밧이 좋으니까 진드르라고 헤엿고 닥ᄆᆞ루는 닭 형치ᄀᆞ치 생겨서 닥ᄆᆞ루 가민 경치가 썩 좋죠.('진드르'는 밭이 좋으니까 '진드르'라고 했고 '닥ᄆᆞ르'는 닭 형치 같이 생겨서 '닥ᄆᆞ르' 가면 경치가 썩 좋죠.) 21 [신촌]

진또리: 목적지를 정하고 '준비! 시작!'의 구령에 맞춰 출발하면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를 말한다. // 그 ᄃᆞᆯ아다니는 거. 진또리 그 여저난 자치기 거튼 건 별로 안 허고 진또리.(그 돌아다니는 거. '진또리' 그 여자니까 자치기 같은 건 별로 안 하고 '진또리') 06 // 진또리는예, 이거 여엉 ᄒᆞ민 이디 사곡, 일로, 일로 영 ᄒᆞ민 이딘 ᄒᆞᆯ 널버. 이딘 ᄒᆞᆯ 널브곡. ᄯᅳ시 이디 상. 이디 신 사름덜이 이레 넘어가는 거, 이레 넘어가지 못ᄒᆞ게 막아상 막는 거, 진또리. 막는 거. 영 ᄒᆞ영 이디 사름이 올레 직ᄒᆞ민 일로 이레 사둠서 이레 넘어가지 못ᄒᆞ게 막는 거.('진또리'는요, 이렇게 하면 여기 사고, 이리로, 이리로 이렇게 하면 여긴 조금 넓어. 여긴 조금 넓으고. 다시 여기 사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리 넘어가는 거, 이리 넘어가지 못하게 막 가져서 막는 거.) 08 //그 엿날이난, 엿날이난 그런 노랠 잔치집읜 가민 불르곡, 경 아녀민 또 진똘이 알아집니까? 진또리.(그 옛날이니까, 옛날이니까 그런 노랠 잔칫집에 가면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진또리 알아집니까? 진또리.) 32 [남원, 덕수, 동광]

진박진박: 질퍽하고 진득한 상태를 말하는 듯하다. // 그걸 헤다근에 그딜 막 ᄇᆞᆯ라. 사름으로 물 진박진박ᄒᆞ게, 그거 ᄒᆞᆫ 다음에 이제 나룩씨를, 가근에 골루로 짝 뿌리민. (그걸 해다가 거길 막 밟아. 사람으로 물 '진박진박'하게, 그거 한 다음에 이제 볍씨를, 가서 골고루 쫙 뿌리면.) 07 [보목]

진밧: 돌멩이가 없이 진흙이 깔려있는 밭이다. // 뀡마늘도, 뀡마늘, 마늘 싱근 디예, 진밧은 하나씩 납니다.(달래도, 달래, 마늘 심은 데요, '진밧'은 하나씩 납니다.) 34 [구억]

진사리: 표선면 성읍1리의 자연 마을의 하나이다. // 글쎄 난 진사리 말도 허긴 허는디 난 별로 그런 건.(글쎄 난 '진사리' 말도 하기는 하는데 난 별로 그런 건.) 14 // 게서 이 저, 표선면에도 제일 먼저 그 마을이 산 듸가 진사리라고 해서, 진사리가 어디냐면은 성읍리라양.(게서 이 저, 표선면에도 제일 먼저 그 마을이 산 데가 진사리라고 해서, 진사리가 어디냐면 '성읍리'예요.) 24 [성읍, 세화]

진사일: 용날과 뱀날을 동시에 부르는 말이다. // 베염날 허민은 메주가 뜨질 안 허여. 진사일에 허면은, 진일은 ᄉᆞ일보다는 낫아도. 하이튼 이 날 중에 젤 ᄉᆞ일허곡 그 무시거.(뱀날 하면 메주가 뜨질 안 해. '진사일'에 하면은, 진일은 사일보다는 나아도. 하여튼 이 날 중에 젤 사일하고 그 무엇.) 14 [성읍]

진셋복: 남자 한복바지에서 마루폭과 마루폭 사이에 댄 큰 폭을 말한다. 표준어 '큰사폭'에 해당하는 말이다. // 이디 샛복. 이거 영 헌 건 진셋복.(이디 사폭, 이거 이렇게 한 건 큰사폭.) 01 [도련]

진순내: 구좌읍 송당리 지명 가운데 하나이다. // 진순내. 먹을 물을 우리 질레 가 와낫수다.('진순내'. 먹을 물을 우리 길러 다녀왔었습니다.) 03 [송당]

진술: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매날 그디 솔오름 아래 진술이엔 헌 딘 우리 촐 비레 뎅기는 디.(매날 거기 '솔오름' 아래 '진술'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 꼴 베러 다니는 데.) 31 [토평]

진여: 제주시 외도동 바다에 있는 여 이름이다. 여가 길어서 붙은 이름이다. 달리 '까막여'라고도 한다. // 개껏듸 돌은 다 껌으난 그딘 워낙 질게 영 뻗쳐 이시난 진여.(바닷가 돌은 다 껌으니까 거긴 워낙 길게 이렇게 뻗쳐 있으니까 '진여'.) 29 [외도]

진여: 한림읍 월령리에 있는 여 중 하나로 '길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 또 저펜이 또 질딱ᄒᆞ연 진여.(또 길쭉해서 '진여'.) 10 [월령]

진원: 한경면 신창리의 '원담' 이름이다. // 남아 있는 건 요디도 다 뭣 헤 부난 이제 멍게원 허고 저디 ᄃᆞ리 아래 진원베낀 엇어 이젠.(남아 있는 건 요기도 다 뭣 해 버리니까 이제 '멍게원' 하고 저기 다리 아래 '진원'밖에 없어 이젠.) 26 [신창]

진자: 일본 신사(神社)를 말한다. // 여기서도 저 일출봉 지금. 저 절간 우에 진자가 잇엇서.(여기서도 저 일출봉 지금. 저 절간 위에 신사가 있었어.) 04 [고성]

진자삼빠이: 일본말 '진자삼빠이(神社參拜)'로 '신사참배(神社參拜)'이다. // 일제시덴데, 그 욧가 팔 일마다 진자삼빠일 ᄒᆞ거든.(일제강점긴데, 그 사흘 팔 일마다 신사참배를 하거든.) 04 [고성]

진줄: '진줄'은 길이가 긴 줄이라는 뜻이다. 초가지붕을 인 후에 지붕을 단단히 동여맬 때

사용하는, 길이로 매는 줄을 말한다. '건줄'이라고도 한다. // 이제 그거 줄을 다 세여근에 진줄 멧 개 쯔른줄 멧 개. 경 헤영 세여근에 그 다 ᄒᆞ나썩 비여 간 거 다 막끗데 두 개를 이제 꼬을 거니까.(이제 그거 줄을 다 세어서 '긴줄' 몇 개 '쯔른줄' 몇 개. 그렇게 해서 세여어 그 다 하나씩 꼬아 간 거. 다 끝에 두 개를 이제 꼴 거니까.) 05 // 지락지락 무끄는 건 진줄이고.(치렁치렁 묶는 건 '진줄'이고.) 09 // 긴줄은 이거 길게 나간 게 진줄이고 쯔른줄은.('긴줄'은 이거 길게 나간 게 '긴줄'이고 '짧은줄'은.) 14 // 그걸 ᄯᅳ로 일정한 거리 집줄 놓젠 허믄 진줄, ᄌᆞ른줄 헤 가지고 거리를 맞춰마씨.(그걸 또 일정한 거리 집줄 놓으려고 하면 '긴줄', '짧은줄' 해 가지고 거리를 맞춰요.) 35 [고산, 대림, 도련, 성읍, 옹포, 토평, 표선]

진질: 한림읍 귀덕2리의 옛 명칭이다. // ᄒᆞᆫ두 사름 잇어도 건 베에, 저 진질이라든지 진질은 저 귀덕이리, 이리나 ᄯᅳ로 수원리 가좌동에 그 베가 고깃베 ᄒᆞ나에 ᄒᆞᆫ 사름만 허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끼리 돈을 내어 가지고 걸 삽주게.(한두 사람 있어도 건 배에, '진질' 이라든지 '진질'은 귀덕이리, 구덕이리나 또 수원리 가자동에 그 배가 고깃배 하나에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끼리 돈을 내어 가지고 걸 사지요.) 35 [대림]

진투: 장사를 치르는 날 봉분을 둥그스름하게 만드는 데 쓰일 흙을 말한다. 달리 '진토'라고 한다. // 진투 허는 거는 그 사름덜 강 막 힘들게 땅 파곡 요샌 기계로 파난 허주마는 삽으로만 다 허지 안허우과?('진투' 하는 거는 그 사람들 가서 막 힘들게 땅 파고 요샌 기계로 파니까 하지만 삽으로만 다 하지 않습니까?) 23 [온평]

진투굿: 장사를 치르는 날 봉분을 등그스름하게 만드는 데 쓰일 흙을 파내는 구덩이를 말한다. 달리 '진토굿'이라고 한다. // 진투굿.('진투굿'.) 23 [온평]

진풀: '별꽃'의 제주어이다. // 뭐 진풀 이런 것도 잇고, 난쟁이 같은 것들도 잇고. 뭐 풀은 여러 가지주.(뭐 별꽃 이런 것도 있고, 냉이 같은 것들도 있고. 뭐 풀은 여러 가지지 뭐.) 09 // 검질, 보통 많이 나는 게 진풀.(검질, 보통 많이 나는 게 별꽃.) 09 [고산]

진황: '사초류'를 통틀어 '진황'이라 표현했으며 '솔새'류도 '큰진황', 혹은 '족은진황'으로 말하기도 했다. // 새꼴이렌 헌 건 저 들에 강 풀 새라든지, 진황이라던지 그런 풀.(띠라고 한 건 저 들에 가서 풀 띠라든지, 사초라든지 그런 풀.) 24 // 풀이 나서 이렇게 자란, 뭐 저 고사리도 나고 거기 저 종류가 새도 나곡, 또 자굴도 나곡, 저, 진황이엔 헤근에.(풀이 나서 이렇게 자란, 뭐 저 고사리도 나고 거기 저 종류가 띠도 나고, 또 자귀풀도 나고, 저, 솔새라고 해서.) 24 [세화]

짇다: '때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방에 불을 놓다'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불때는 곳에 집어넣다'의 의미로 쓰였다. // 불에 영 짇으민, ᄀᆞᆺ사 말짜간에라도 ᄀᆞ스락 불에도 쑥 짇어근엥에 내불곡.(불에 이렇게 지피면, 아까 말했지만도 까끄라기 불에도 쑥 '짇어서' 내버리고.) 24 [세화]

짇다: 불 따위를 '때다'의 의미이다. 여기서는 '(불) 사르다'의 의미로 쓰였다. // 토벌대 오민 불 짇고 쏘아 불고. 하영 죽엇저.(토벌대 오민 불 때고 쏘아 버리고. 많이 죽었어.) 31 [토평]

짇을커: 장작, 검불 따위의 불을 때는 데 쓰는 재료를 말한다. '짇을커', '짇을것', '짇을거', '짇을케'라고도 하는데 표준어 '땔감'에 해당한다. // 낭 엇이민 그디서 문 삼낭 이만씩 무꺼근에 이끄지 휘어오라. 낭 밀려근에. 경 헹 짇어낫어 우리. 짇을커 엇엉.(나무 없으면 거기서 모두 삼나무 이만씩 묶어서 여기까지 헤엄쳐 와. 나무 밀려서. 그렇게 해서 지폈어 우리. '짇을커' 없어서.) 07 // 땔감은 여기는 주로 짇을커.(땔감은 여기는 주로 '짇을커'.) 07 // 짇을커는 나 살민 나가 헷주. 무신 아이덜이 헤다 줘? 나가.(땔감은 나 사면 내가 했지. 무슨 아이들이 해다 줘? 내가.) 15 // 톱은 낭도 싸곡, 끊음도 허곡, 강 싸당 끊엉 옴도 허곡, 집의서 쌈도 허곡, 짇을커 질게 행 오민 줄게 줄름도 허곡, 경 햇주게.(톱은 나무도 켜고, 끊음도 하고, 가서 켜다가 끊어서 오기도 하고, 집에서 켬도 하고, '짇을커' 길게 해서 오면 잘게 잘름도 하고, 그렇게 했지요.) 17 [대평, 보목, 수망]

짇을케: 장작, 검불 따위의 불을 때는 데 쓰는 재료를 말한다. // 밥 헤먹을 때 눌게, 짇을케.(밥 해먹을 때 가리, 땔감.) 10 [월령]

질: '지다'로 물건을 짊어서 등에 얹는다는 뜻이다. // 이제 딱 위에 씌와 낭. 그기에 짐을 실르는 거라. 게서 질.(이제 딱 위에 씌워 놓아서. 거기에 짐을 싣는 거야. 그래서 질.) 04 [고성]

질곰: 산이나 들에 사람이 다녔던 길의 흔적을 말하는 것 같다. // 질이 엇인 디라노난 그냥 몽콜몽콜 막 오름이니까 내로 만딱 씻어부난 이추룩 헌 딜로 웅퉁불퉁헌 딜로 그 일로 ᄐᆞ다가고 절로 ᄐᆞ다가멍 그 질곰이 시난 그레 올라가.(길이 없는 데라서 그냥 몽글몽글 막 오름이니까 내로 모두 씻어버리니까 이렇게 한 데로 울퉁불퉁한 데로 그 이리로 뜯어가고 저리로 뜯어가면서 그 '질곰'이 있으니까 그리 올라가.) 11 [함덕]

질구덕: 물건을 넣어서 지고 다니는, 대나무로 만든 큰 바구니를 말한다. // 고무옷이 엇일 적에는이 각자가 그 뭐인가 저 불 초을 그 뭐를 가졍 가낫저, 각자가 질구덕에.(고무옷이 없을 적에는 각자가 그 뭐인가 저 불 쬘 그 뭐를 가지고 갔었어, 각자가 '질구덕'에.) 12 // 스무 술 땐 고둥을 신산리 ᄒᆞᆫ 짐을 졍 가도 돈 ᄒᆞᆫ 십 원이나 허지 안헹 ᄒᆞᆫ 질구덕으로 멧 번 졍 강 옛날 돈 이백 원, 이백오십 원 벌어낫어.(스무 살 땐 소라를 신산리 한 짐을 져서 가도 돈 한 십 원이나 하지 않아서 한 '질구덕'으로 몇 번 져서 가서 옛날 돈 이백 원, 이백오십 원 벌었었어.) 13 // 질구덕에 놩 그거 메삭메삭 지어아졍 오랑 돈 안 줄 때난 토렴도 헤영 먹고, 기자 쏢앙도 먹곡.('질구덕'에 놔서 그거 '메삭메삭' 지어가지고 와서 돈 안 줄 때니까 토렴도 해서 먹고, 그저 삶아서도 먹고.) 23 // 것에 퍼 놔. 막 밥에 그 찍 다 부떠. 경헤도 거 막 먹어. 경헤영 질구덕에도 푸고 질구덕만 다 아이

뒈난. 쏠은 질구덕에 씻어 놓고.(것이 떠 놔. 마구 밥에 다 짚 다 붙어. 그래도 거 마구 먹어. 그래서 '질구덕'에도 뜨고 '질구덕'만 다 안 되니까. 쌀은 '질구덕'에 씻어 놓고.) 26 [고내, 노형, 삼달, 신창, 온평, 표선, 한동]

질로지만썩: 여럿이 다 저마다 따로따로의 의미이다. 지역에 따라서 '질로지썩'이라고도 한다. // 그 막 어려운 때난 어려운 때난에 우리 하르버지가 경 일을 경 풍으로 못 허난 이젠 우린 할머니네 우리 어린 때라도 소낭밧도 큰 밧 셔나난 그런 소낭덜 허영 허믄 형제간덜이나 친촉이영 허여근에 허여다 드렌 허믄 낭허영근에 춤 쉐에 시끄곡 문 헤영 오믄 어려운 시절이난게 콩국 허영 혼 솟 끌려근엥에 헤영 밥허영 우리 할머닌 지금은 질로지만썩 밥을 거령 먹엄주마는 낭푼이에 거령이.(그 아주 어려운 때니까 어려운 때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일을 그렇게 풍증으로 못하니까 이젠 우린 할머니네 우리 어릴 때여도 소나무밭도 큰 밭 있었으니까 그런 소나무들 해서 하면 형제간들이나 친족이랑 해서 해와 달라고 하면 나무해서 참 소에 싣고 몽땅 해서 오면 어려운 시절이니까 콩국 해서 한 솥 끓여서 해서 밥해서 우리 할머닌 지금은 '질로지만썩' 밥을 떠서 먹고 있지만 양푼에 떠서.) 29 [외도]

질루다: 표준어의 '키우다'에 해당하나 여기서는 '(어른을) 모시다'의 의미로 쓰였다. // 아니, 어른이나 질루고 헌 어른들은 밥허는 게 공상시럽게 보리쏠밥 반은 뒈면은, 보리쏠 삶기가 얼마나 힘들어서 반 뒌 후제사 곤쏠을 씻엉 영 흰펜더레 보리쏠을 밀려 뒁 그 곤쏠을 놓면.(아니, 어른이나 키우고 하는 어른들은 밥하는 게 궁상스럽게 보리쌀 밥 반은 되면, 보리쌀 삶기가 얼마나 힘들어서 반 된 후에야 흰쌀을 씻어서 이렇게 한편으로 보리쌀을 밀려 두고 그 흰쌀을 넣으면.) 06 [남원]

질메: 표준어 '길마'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쉐질멘 뒤에이 등땡이에 놩 허는 것ᄀᆞ라 질메.(소 길만 뒤에 등에 놔서 하는 것보고 질메.) 10 // 보리씰 그디 걸름에 막 뿌려. 뿌려근에 이젠 허민 쉐 신 사름은 쉐 헤영 멩텡이 두 개 담앙 질메 지왕 두 개썩 시꺼가고.(보리씨를 거기 거름에 막 뿌려. 뿌려서 이젠 하면 소 있는 사람은 소 해서 '멩텡이' 두 개 담아서 길마 지어서 두 개씩 실어 가고.) 13 // 짐 시끌 때 질메.(짐 실을 때 길마.) 16 [삼달, 월령, 하원]

질메오량: 소에 짐을 싣기 위해 길마를 채울 때 길마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소의 가슴을 휘감아 묶어주는 끈이다. '오량'은 뱃대끈을 말한다. // 도곰, 으. 그다음은 또 질메오량. 베따지에 무끄는 오량.(떰치, 으. 그다음은 또 '질메오량'. 배때기에 묶는 뱃대끈.) 29 [외도]

질메툭: 제주시 천왕사 근처의 지경 이름이다. '질메툭'은 '질메+툭'으로 구성된 말로, '질메'는 표준어의 '길마'에, '툭'은 '턱'에 대응한다. // 허릿당은 요 아래 허릿당 싯고 그 우이 꺼 질메툭이엔 허여게, '질메툭.('허리당'은 요 아래 '허릿당' 있고 그 위의 거 '질메툭'이라고 해, '질메툭'.) 30 [노형]

질소용: 운상 중에 쉬면서 먹는 음식 따위를 말하는데, '질수용', '질수영', '지름영', '질수

헹'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 그건 질소용, 질소용 너미 저 거리가 머니까양.(그건 '질소용', '질소용'. 너무 저 거리가 머니까요.) 32 [덕수]

질소질: 질소(窒素) 비료를 말하고 있다. // 이 이런 비료 나온 때 그. 질소질 나온 때.(이 이런 비료 나온 때 그. '질소질' 나왔을 때.) 04 [고성]

질왓: 돌멩이가 없고 진흙이 깔려 있는 밭을 말한다. // 요즘도 이제 집덜 짓어 불곡 허니까 허주마는 제명이 가민 구명물터렌 헤서 지금도 거기는 질왓인데 지금도 비 와 나민 구명 나요, 지금도.(요즘도 이제 집들 지어 버리고 하니까 하지만 '제명이' 가민 '구명물터'라고 해서 지금도 거기는 '질왓'인데 지금도 비 와 나면 '구명' 나요, 지금도.) 29 [외도]

질왓: 돌멩이가 없이 진흙이 깔려 있는 밭을 말한다. // 질왓이라는 건 건 무신 말인가 허믄 땅이 거 출흑 밧이기 때문에 곡식이 잘뒀어, 옛날로부떠.(질왓'이라는 건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땅이 거 찰흙 밭이기 때문에 곡식이 잘됐어, 옛날로부터.) 12 // 저 그 감저 싱거근에 잘 드는 밧이 이런 밧도 질왓, 말왓이 잇어. 질왓은 비만 쪼금 와도 물 골르는 밧. 물이 얼른 빠지지 안허영.(저 그 고구마 심어서 잘 드는 밭이 이런 밭도 '질왓', '말왓'이 있어. 질왓은 비만 조금 와도 물 고이는 밭. 물이 얼른 빠지지 않아서.) 20 // 밧디 헷당 비 오믄 줍젠 헤도 경허고, 질왓, 웃드리, 웃드리ᄀᆞ찌 자갈 신 밧이믄 몰라도 이디선.(밭에 했다가 비오면 주우려고 해도 그러고, '질왓', '웃드르', '웃드르' 같이 자갈 있는 밭이면 몰라도 여기서는.) 28 // 그 흑을 파 가지고 여기는 작지왓이니까, 저 알쪽에 강은에 작지 읏인 딜로 그 질왓 입구레 강 많이 팡 걸로 허곡 헤낫수다.(그 흙을 파 가지고 여기는 자갈밭이니까, 저 아래쪽에 가서 자갈 없는 데로 그 '질왓' 입구로 가서 많이 파서 걸로 하고 했었습니다.) 35 [고내, 구엄, 대림, 한동]

짐녕: '김녕'을 이르는 것으로 구좌읍 김녕리이다. // 지엉 강도 풀고, 짐녕 지엉 강 풀고. 또 막 하영 사레 오는 사름도 잇고. 시에 강 풀젠. 하영 사.(져 가서도 팔고, 김녕 져 가서 팔고. 또 아주 많이 사러 오는 사람도 있고. 제주시에 가서 팔려고, 많이 사.) 02 [선흘]

짐동산: 제주시 외도동의 지명의 하나이다. // 내로 우터레 올라간 디 짐동산엔 헌 디가 잇어. 짐동산, 짐동산 헌 디, 그디도 맨 아이 무덤.(내로 위로 올라간 데 '짐동산'이라고 한 데가 있어. '짐동산', '짐동산' 하는 데, 거기도 맨 아이 무덤.) 29 // 짐동산이라고 허는 거는 베에서 퍼다가 짐 쌓여, 쌓여낫다고 헤 가지고 짐동산, 짐동산 허는디.('짐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배에서 퍼다 짐 쌓아, 쌓았었다고 해 가지고 '짐동산', '짐동산' 하는데.) 29 [외도]

짐벵이: 눈과 비가 섞여 내리는 진눈깨비를 뜻한다. // 시월ᄃᆞᆯ만 나가민 눈 부쳥 눈도 반, 비도 반헤여, 그것이 짐벵이라이.(시월만 되면 눈 붙여서 눈도 반, 비도 반 해, 그것이 진눈깨비야.) 25 // 산더레 붸리민 또 시커멍헌 구름이 올라와 가민 아이고, 또 짐벵이 ᄂᆞ리켜, 또 ᄒᆞ쏠 시민 눈에 부쳥 좌르륵허게 ᄂᆞ리곡 경허여. 비

눈, 그게 짐벵이라.(산으로 보면 또 시커먼 구름이 올라와 가면 아이고, 또 진눈깨비 내리겠어, 또 조금 있으면 눈에 붙여서 좌르륵하게 내리고 그렇게 해. 비눈, 그게 진눈깨비야.) 25 [태흥]

짐새: 김을 말릴 때 사용하는 띠를 말한다. '짐'은 표준어 '김', '새'는 표준어 '띠'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 짐새엔 헌 게 잇어이. 짐새. 김 부찌는 새.('짐새'라고 한 게 있어. '짐새'. 김 붙이는 띠.) 14 // 열일곱 설에 내 마차를 헐 때에 마차조합에 가입허렌 헨 가입헨 마차를 헨, 우리. 게난 가입헌 사름 웨에는 부락에서 나온 그때는 뭘 많이 운반헷는고 허니깐 뜸허고 짐, 짐, 김새, 짐새.(열일곱 살에 내 마차를 할 때에 마차조합에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해서 마차를 했어, 우리. 그러니까 가입한 사람 외에는 부락에서 나온 그때는 뭘 많이 운반했는가 하니깐 뜸하고 김, 김, '김새', '김새'.) 14 [성읍]

짐치: 표준어로 '김치'로, '징뀌'라고도 한다. // 엿날에 여기서 짐치엔 헤서, 김치 아니라.(옛날에 여기서 '짐치'라고 했어, 김치 아니라.) 06 [남원]

짐패: 짐을 지는 데 쓰는 줄을 말한다. 표준어의 질빵에 해당한다. // 그냥 저 무시거로 꼰 짐패. 그걸로나 질빵으로나 메영 ᄃᆞᆼ기곡 또 멧 사름은 밀리곡.(그냥 저 무엇으로 꼰 '짐패'. 그걸로나 질빵으로나 메어서 당기고 또 몇 사람은 밀고.) 20 // 살 치메, 그거 헹, 궨 큰뚤이옌 허영 허곡, 게난 찻장도 이 구엄더레 져 오곡, 궤도 져 오곡, 시꺼오곡, 져 왓수게. 짐패로 허연으네. 아시날 밤이 져 완.(살 치마, 그거 해서, 궤는 큰딸이라고 해서 하고, 그러니까 찬장도 이 '구엄'으로 져 오고, 궤도 져 오고, 실어오고, 져 왔습니다. '짐패'로 해서. 전날 밤에 져 왔어.) 28 // 이거 또시 영허민 그 사름넨 다 빠민 요 고냥더레 꼭 찔렁은에 어우러지게 풀어지지 아니허게 헤영 픽 던지민 그 지가 영 노 꼬아간 사름이 그걸로 사려. 동글락허겔 사리나 또 그냥 저 촌에서 짐패 사리듯 영 헤영 사리나 허영 픽허게 던져.(이거 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다 빼면 요 구멍에 꼭 찔러서 어울리게 풀어지지 않게 해서 픽 던지면 그 자기가 이렇게 노 꼬아간 사람이 그걸로 사려. 동그랗게를 사리거나 또 그냥 저 촌에서 '짐패' 사리듯 이렇게 해서 사리거나 해서 픽하게 던져.) 33 [고내, 구엄, 인성]

집: 지붕의 의미로 쓰였다. // 거 집 이는 사름이주게. 뭐 이름이 무신거.(거 지붕 이는 사람이지. 뭐 이름이 무엇.) 14 [성읍]

집ᄀᆞ를: 집에 있는 보릿가루나 밀가루 따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 호박입국은 끓여 가지고 이제 저 그거를 집어 놓고, 집ᄀᆞ를이라고 헤여. 보릿ᄀᆞ를이라도 잇어근에 물을 타서 영 서꺼.(호박잎국은 끓여 가지고 이제 저 그거를 집어 넣고, '집ᄀᆞ를'이라고 해. 보릿가루라도 있어서 물을 타서 이렇게 섞어.) 01 [도련]

집아방: '집'과 '아버지'가 결합한 말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 한치 요번이 우리 집아방이영 물훼 먹으레 가난 만오천 원입디다.(한치 요번에 우리 '집아방'이랑 물회 먹으러 가니까 만오천 원입디다.) 34 [구억]

집이 사름: 집의 사람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집이 아방'이라고도 한다. // 우리 집이[지빋] 사름은, 겨울엔 베가 막 쌉니다게, 농업 단지 뒈지 벼, 등벼 ᄀᆞ뜬 거 사믄 그거 만 원어치 사믄 막 하영 줘마씨.(우리 '집이 사름'은, 겨울엔 벼가 아주 쌉니다. 농업 단지 돼지 벼, 등벼 같은 거 사면 그거 만 원어치 사면 아주 많이 줘요.) 34 [구억]

집장: 고춧잎에 메밀가루 따위를 넣어 버무린 음식을 말한다. // 나가 그 생각이 나. 촐 빌 때 집장 헹 왓저. 내놩 먹으민 잘도 맛잇어.(내가 그 생각이 나. 꼴 벨 때 '집장' 해서 왔어. 내놓고 먹으면 아주 맛있어.) 30 [노형]

집줄: 초가지붕을 이은 다음 바둑판처럼 얽어매는 줄이다. // 아니, 집줄 허민 놔난 사름은 다 놔.(아니, '집줄' 하면 놨던 사람은 다 놔.) 26 // 그럼 집줄 맬 때도 몇 번 횟수가 잇어마씨?(그럼 '집줄' 맬 때도 몇 번 횟수가 있어요?) 아니 보통 그자 그 풀어지지 않을 정도로 두 번 감아 가지고 ᄒᆞᆳ아 가지고 무끄더라고.(아니 보통 그저 그 풀어지지 않을 정도로 두 번 감아 가지고 훑아 가지고 묶더라고.) 27 // 일정한 거리 집줄 놓젠 허믄 진줄, ᄌᆞ른줄 헤 가지고 거리를 맞춰마씨.(일정한 거리 집줄 놓으려고 하면 '긴줄', '짧은줄' 해 가지고 거리를 맞춰요.) 35 // 다 허면은 그것에 집줄을 멥주게. 거왕대.(다 하면은 그것에 집 줄을 매지요. '거왕대'.) 36 [고내, 고산, 남원, 대림, 대평, 봉성, 삼달, 선흘, 신도, 신창, 옹포, 한동]

짓: 표준어 '깃'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깃'은 외양간이나 마구간, 돼지우리에 깔아 주는 보릿대 따위를 말한다. // 도새기 짓, 짓도 주곡. 집 소곱에 아상 도새기 짓도 주곡.(돼지 깃, 깃도 주고. 집 속에 가져서 돼지 깃도 주고.) 14 [성읍]

짓누렁허다: 매우 누렇다는 의미이다. // 히린좁쏠에 누룩 놓고 쭈물러. 뭰죽거찌 허민 그거를 항아리레 부각부각부각 궤지. 그렇게 맛잇을 수가 없어. 우의다가 짓누렁허영.(차좁쌀에 누룩 놓고 주물러. 된죽같이 하면 그거를 항아리에 부각부각부각 괴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위에다가 '짓누래서'.) 01 [도련]

짓다: '논밭에 잡풀이 많이 난다'는 의미이다. 표준어 '깃다'에 대응한다. // 산듸밧디나 보리밧디나 막 농사지면은 그 밧디 검질 짓넨. 검질이 많이 낭.(밭벼밭에나 보리밭에나 막 농사지으면 그 밭에 김 깃는다고, 김이 많이 나서.) 03 // 검질 짓으민 세불 검질 엇인 밧딘 두 번. 이거 산뒤엔 헌 것도이 제법 손 하영 들어.(응, 김 깃으면 세벌 김 없는 밭엔 두 번. 이거 밭벼라고 한 것도 제법 손 많이 가.) 25 // 절완지가 짓으민 절완지가 메기 궂어. 절완지는 딱 줄 벋으멍 땅 부떤에 절완지렌. 절완지가 메기 궂어.(바랭이가 깃으면 바랭이가 매기 궂어. 바랭이는 딱 줄 벋으면서 땅에 붙어서 바랭이라고. 바랭이가 매기 궂어.) 33 [송당, 인성, 태흥]

짓동산: 한경면 신창리 지명 중 하나이다. // 포젠 저 동산에 강 허주기게. 이디 거트민 저 소낭 동산. 성굴왓디도 짓동산이엔 헌 디가 거 포제 동산이라. 이제도 포제 동산이엔 허여.('포제'는 저 동산에 가서 하지. 여기 같으면 저 소나무 동산. '성굴왓'

에도 '짓동산'이라고 하는 데가 거 '포제' 동산이야. 이제도 '포제' 동산이라고 해.) 26 [신창]

짓줄: 마소에 멍에를 씌울 때 멍에가 목에 고정되도록 동여매는 끈을 말한다. // 목 우에 헤근에 한 줄, 한 줄 영 헤근에 짓줄 무끄는 거.(목 위에 해서 한 줄, 한 줄 이렇게 해서 '짓줄' 묶는 거.) 22 [우도]

짓찻광목: 짜낸 후로 한 번도 빨아 다듬지 아니한 광목으로 표준어로는 '깃광목'이다. // 그 풀을 지우젠 ᄒᆞ민 그것이 짓찻광목 아니 짓미녕 ᄉᆞᆲ은 바랜 짓미녕 바랜 미녕 바랜 미녕은 헤영ᄒᆞ고 그건 누렁ᄒᆞ주게.(그 풀을 지우려고 하면 그것이 깃광목 아니 깃무명 삶은 바랜 깃무명, 바랜 무명, 바랜 무명은 하얗고 그건 누렇지.) 08 [동광]

짓찻미녕: 짜낸 후로 한 번도 빨아 보지 아니한 무명으로 표준어로는 '깃무명'이다. // 풀 안ᄒᆞᆫ 미녕은 그냥그냥 그자 베에서 베틀에서 짱만 ᄒᆞ는 미녕은 건 그자 짓찻미녕이고 짓찻미녕 ᄃᆞ시 짓 부빈 짓은, 짓을 영 ᄒᆞ여근에 ᄲᆞᆯ아근에 재 놓앙, 그때는 불체 놔근에 그 미녕을 막 물에 ᄲᆞᆯ아근에 물에 그 미녕을 ᄲᆞᆯ아근에 재 놔근에 그걸 ᄉᆞᆲ읍디다.(풀 안 한 무명은 그냥, 그냥 그저 베에서 베틀에서 장만하는 무명은 건 그저 깃무명이고, 깃무명 다시 옷깃 비빈 옷깃은, 옷깃을 이렇게 해서 빨아서 재 놓아서, 그때는 불티 넣어서 그 무명을 막 물에 빨아서 물에 그 무명을 빨아서 재 넣어서 그걸 삶았습니다.) 08 [동광]

짓쳇광목: 잿물에 삶아 바래지 아니한 광목인 깃광목을 말한다. // 허영케 헌 게 옥광목이고, 짓쳇광목은 이제 ᄲᆞᆯ지 아년 거.(허옇게 한 게 옥광목이고, 깃광목은 이제 빨지 않은 거.) 01 [도련]

징: 솥에 무엇을 찔 때, 찌는 것이 솥 안의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받침으로 놓는 것이다. 표준어의 '겅그레'인데, 여기서는 면이 포개져 있는 층을 가리키고 있다. // 빠지지 안허게 놔서 솔입 살 살 허게 ᄒᆞᆫ 도리 놓고 떡 ᄒᆞᆫ 도리 놔지민 또 솔입 ᄒᆞᆫ 도리 놓고 헤영 멧 징 , 징 놔 가지고.(빠지지 않게 놓아 가지고 솔잎 살 살 하게 한 '도리' 놓고 떡 한 '도리' 놓으면 또 솔잎 한 '도리' 놓고 해서 몇 층 층 놔서.) 06 // 밑에고, 여라 징 놓젠 허민 그 시리 ᄒᆞ나에.(밑에고, 여러 '징' 놓으려고 하면 그 시리 하나에.) 13 // 징 징 징 징이. ᄒᆞᆫ 열 징쯤 뒐 거라.(층 층 층 층. 한 열 층쯤 될 거야.) 20 [고내, 남원, 삼달]

징: 시루에 떡을 찔 때 알맞은 두께로 만드는 켜를 말한다. // 침떡도 게 건 쉬 놔. 그건 징 놓는 거. ᄀᆞᆸ 갈랑 징 놓는 거.(시루떡도 그건 고물 놓지. 그건 '징' 놓는 거. 굽 갈라서 '징' 놓는 거.) 03 // 잘 허꺼 가지고 덩어리 잘 지게 잘 풀어 가지고서 ᄒᆞᆫ 징을 놓면이 그 위에 또 다시 이제 뭐인가 그 ᄒᆞᆫ 징을 놓면은 다시 또 징을 놔야 뒐 거 아니가?(잘 섞어 가지고 덩어리 잘 지게 잘 풀어 가지고서 한 켜를 놓으면 그 위에 또 다시 이제 뭐인가 그 한 켜를 놓으면 다시 또 켜를 놔야 될 거 아니냐?) 12 // ᄋᆞ답 도리, 여덟 징을 허는 거라?(여덟 '도리', 여덟 '징'

을 하는 거야?) 어, 징을. 경허민 그거 세 빗, ᄒᆞ나에 세 빗.(어, 켜를. 그러면 그거 세 '빗', 하나에 세 '빗'.) 31 [송당, 토평, 한동]

징게엇다: 힘없이 떼어지는 모양을 표현하는 말이다. // 이것이 발이 영헌 때는 일로 빗창이라도 들렁 아무 쉐라도 영허민 헤싹허게 징게엇이 떼져 불어.(이것이 발이 이렇게 한 때는 이리로 빗창이라도 들어서 아무 쇠라도 이렇게 하면 '헤싹'하게 '징게엇이' 떼져 버려.) 11 [함덕]

징부찌다: 좁쌀가루에 팥소 따위로 켜를 짓되 그 사이에 쌀가루를 넣어 켜를 안치다는 의미로 이렇게 만든 떡을 '징부찐떡'이라고 한다. // 그 말만 듣고 그 대소상 때나 그때에는 특별히 그 징부찐 거엔 헌 것이 잇어.(그 말만 듣고 그 대소상 때나 그 때에는 특별히 그 '징부찐 거'라고 하는 것이 있어.) 20 [고내]

징어리멜: '정어리'와 '멸치'라는 말이 결합된 것으로 크기가 큰 멸치를 뜻한다. // 소금 헷당 궈도 먹곡 막 멜 이만썩 헌 것도 이서, 징어리멜.(소금 했다가 구워서도 먹고 막 멸치 이만큼씩 헌 것도 있어, '징어리멜'.) 33 [인성]

짚뎅이: '상장(喪杖)'으로 상이 났을 때 상제 앞에 놓이는 짚으로 엮어 만든 지팡이를 말한다. // 옛날은 그 짚뎅이를 집 안에 가지고 들어가면은 이리저리 가졍 당기지를 못한답니다.(옛날에는 그 상장을 집 안에 가지고 들어가면 이리저리 가지고 다니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03 [송당]

ᄌᆞ그뭇ᄒᆞ다: 고집이 세고 단단하여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성질이 있다는 의미이다. // 옛날 어른덜 경 ᄀᆞᆯ아낫어. 요 암천복ᄀᆞ치 ᄌᆞ그뭇헤엿젠.(옛날 어른들 그렇게 말했었어. 요 암전복처럼 'ᄌᆞ그뭇하였다'고.) 29 [외도]

ᄌᆞ근ᄌᆞ근: '차근차근'을 말한다. 자세하고도 차례가 있게 일하는 모양을 말한다. // 보리 비민, 그거 영 영 비어근에, 영영 ᄒᆞᆫ 줌씩 영 영 ᄌᆞ근ᄌᆞ근 놓민.(보리 배면, 그거 이렇게 이렇게 배어서, 이렇게이렇게 한 줌씩 이렇게이렇게 '자근자근' 놓으면.) 07 // 대여섯이 헹 가민 어른으로 ᄌᆞ근ᄌᆞ근 헹 허민 어른은 전지엔 헌 거 ᄂᆞᆯ개.(뭥 물어. 대여섯이 해서 가면 어른이 'ᄌᆞ근ᄌᆞ근' 해서 하면 어른은 전지라고 한 거 날개.) 13 // 그거 헤영 우로 ᄌᆞ근ᄌᆞ근 헹 주당 ᄒᆞᆫ 가운디 꽝 주짝헌 거게 가슴꽝.(그거 해서 위로 차근차근 해서 주다가 한 가운데 뼈 길쭉한 거 가슴뼈.) 13 [보목, 삼달]

ᄌᆞ끗디: 표준어 '곁'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경ᄒᆞ난 누게 절떼 그 시루떡 칠 떼로 ᄌᆞ끗디로 오지 못허게.(그렇게 하니까 누구 절대 그 시루떡 찔 때로 곁으로 오지 못하게.) 16 [하원]

ᄌᆞ냥: 식량이나 물건을 아껴서 비축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준어의 '절약'과 유사하다. // 지금 우리 세상에 ᄌᆞ냥헷주. 엿날엔 그 세상에 조금만 틈나믄 먹을 거 준비가 그렇게 힘들엇지.(지금 우리 세상에 'ᄌᆞ냥'했지. 옛날엔 그 세상에 조금만 틈나면 먹을 거 준비가 그렇게 힘들었지.) 15 // 그런 수눌음이라는 게 엇어. 옛날엔 수눌음 정신이 우리 제주도 정신이나 마찬가지엿는데. 그 ᄌᆞ냥정신.(그런 품앗이라

는 게 없어. 옛날에는 품앗이 정신이 우리 제주도 정신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 'ᄌᆞ냥정신'.) 27 // 밥을 헤 먹거나 말이여 어디 가 지어서 그거는 굶어 죽어도 그거 씨는 말이지 ᄌᆞ냥 정신이라 헤 가지고 그거는 거 내년에 살림살이를 위헤 가지고는 말이여 그거는 필요 꼭 헌 거니까.(밥을 해 먹거나 말이야 어디 가 지어서 그거는 굶어 죽어도 그거 씨는 말이지 'ᄌᆞ냥' 정신이라 해 가지고 그거는 거 내년에 살림살이를 위해 가지고는 말이야 그거는 필요 꼭 한 거니까.) 27 [수망, 옹포]

ᄌᆞ눌다: 땅 속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흙이 딴딴하지 않고 땅을 갈기에 알맞을 정도로 무르다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소금물이 메주 속으로 스미며 메주가 물러가는 상태를 말한다. 'ᄌᆞ늘다'라고도 한다. // 그 넘엉, 그 소곰이 그 메주 ᄒᆞ쏠 ᄌᆞ눌앙, 그 무시거옝 뵤그락 헤가건 우트레 저 무시것에 싸 놩.(그 넘어서, 그 소금이 그 메주 조금 'ᄌᆞ눌앙', 그 뭐지 '뵤그락' 해가면 위에 저 무엇에 싸 놓아.) 15 // 어느 정도 기자 ᄌᆞ눌민은 아 요 정도믄 뒈겟다 헤근엥에, 다라나 무시거나 놩 기자 더껑 내 불민 ᄒᆞᆫ 댓새 뒈민 콩ᄂᆞᆯ 나듯이 납니다.(어느 정도 그저 'ᄌᆞ늘민' 아 요 정도면 되겠다 해서, 대야나 무엇에나 놔서 그저 덮어서 내 버리면 한 닷새 되면 콩나물 나듯이 납니다.) 23 // 손으로가 깨껏이 막아지주게. 짚이 묻어져사 씨도 잘 ᄌᆞ눌앙 난다.(손으로가 깨끗이 막을 수 있지. 깊이 묻혀야 씨도 잘 자리 잡혀서 나.) 31 [수망, 온평, 토평]

ᄌᆞ늘다: 물이 스며들어서 단단하지 않고 알맞게 무른 상태를 말한다. 'ᄌᆞ눌다'라고도 한다. // 무뎌지곡 무뎌진 다음에는 이따가 그 때는 보리는 ᄌᆞ늘 때 아니 갈고 밧을 ᄆᆞ른 때 갈아.(무뎌지거든 무뎌지고 무뎌진 다음에는 이따가 그때는 보리는 'ᄌᆞ늘' 때 아니 갈고 밭을 마른 때 갈아.) 19 // 빨리 ᄆᆞᆯ리지 말앙 그냥 그걸 저 뒷날도 ᄆᆞᆯ리고 또 밤이도 헤쌍 네불고 허멍 ᄌᆞ늘루멍 헌 건 ᄃᆞᆯ고 즉시 그냥 ᄇᆞ싹 ᄆᆞᆯ린 건 ᄃᆞᆯ지 안혀.(빨리 말리지 말고 그냥 그걸 저 뒷날도 말리고 또 밤에도 흐트러뜨리고 하면서 'ᄌᆞ늘루멍' 한 건 달고 즉시 그냥 바싹 말린 건 달지 않아.) 21 // 옛날엔 미녕옷만 입어시난 풀 아니 허민 못 입지. 경허난 그것에 흰 옷덜 입엉 광목옷, 미녕옷 그것에 흰 옷 입어노난 게나저나 그거 컷다근에 ᄌᆞ늘민 막 접지라근에 접지랑 걸로 풀 쒀근에 풀허는 거, 풀허는 거. (옛날엔 무명옷만 입었으니까 풀 안 하면 못 입지. 그러니까 그것에 흰 옷들 입어서 광목옷, 무명옷 그것에 흰 옷 입어서 그러나저러나 그거 담갔다가 'ᄌᆞ늘민' 막 짜서 짜서 그걸로 풀 쒀서 풀하는 거, 풀하는 거.) 25 [신촌, 청수, 태흥]

ᄌᆞ들다: 걱정하다, 근심하다의 의미를 갖는데 여기서는 아기가 힘들어 하는 것을 말한다. // 할망상 놓는 사름도 싯곡, 아기가 ᄌᆞ들아 가민 아이고 그거 할망상 놔주라 헹 할망상 놓곡 경 안허민, 우린이 아기덜 할망상 놔보지 안헷저.('할망상' 놓는 사람도 있고, 아기가 'ᄌᆞ들아' 가면 아이고 그거 '할망상' 놔주라 해서 '할망상' 놓고 그렇지 않으면, 우린 아기들 할망상 놔보지 않았다.) 33 [인성]

ᄌᆞ른줄: 각단으로 만들어서 초가지붕을 얽어매는 짧은 줄이다. // 일정한 거리 집줄 놓젠

허믄 진줄, ᄌᆞ른줄 헤 가지고 거리를 맞춰마씨.(일정한 거리 집줄 놓으려고 하면 '긴줄', '짧은줄' 해 가지고 거리를 맞춰요.) 35 [대림]

ᄌᆞ매떡: 굿을 할 때 올리는 떡의 일종이다. 동그랗게 만든 후에 손가락으로 눌러서 만든다. // 동글동글허게 헤여근에 영 소롬허게 누르떠 놩 영 꼭 누르뜨민 이게 ᄌᆞ매떡이 뒈는 거라.(동글동글하게 해서 이렇게 기름하게 눌러 놔서 이렇게 꼭 누르면 이게 'ᄌᆞ매떡'이 되는 거야.) 14 // 굿헐 때 ᄌᆞ메떡 쓰주, 딴 땐 안 쓰주게.(굿할 때 'ᄌᆞ메떡' 쓰지, 다른 땐 안 쓰지.) 23 [성읍, 온평]

ᄌᆞ물다: 바다 속에 들어가 전복, 소라, 미역 등의 해산물을 따낸다는 뜻이다. // 메역은이 이제 시세 엇엉 이젠 안 ᄌᆞ물고. 옛날에는 메역만 시세가 좋아낫는데.(미역은 이제 시세 없어서 이젠 안 캐고. 옛날에는 미역만 시세가 좋았었는데.) 12 // 감테 ᄌᆞ물아네 감테 ᄒᆞᆫ 층에 만원씩 헤네 일년에 ᄒᆞᆫ 백 층씩 허연 ᄒᆞᆫ 백만 원씩 벌어나서.(감태 'ᄌᆞ물어'서 감태 한 칠에 만원씩 해서 일년에 한 백칠씩 해서 한 백만 원씩 벌었어.) 22 // 게 아주 옛날에, 웨정 때에 감테 ᄌᆞ물젠 감테 ᄌᆞ물젠 테우를 헤난 모양이라. 고기 나끄젠 않고, 또 테우로 자리도 거려난 혹시 거려난 배가 잇일런지 모를 거라.(그럼 아주 옛날에, 왜정 때에 감태 'ᄌᆞ물'려고 감태 'ᄌᆞ물'려고 떼를 했던 모양이야. 고기 낚으려고 않고, 또 떼로 자리돔도 뜨던 혹시 뜨던 배가 있을지 모를 거야.) 22 [우도, 한동]

ᄌᆞ반남수물: 구좌읍 송당리 지명 중 하나이다. // ᄌᆞ반남수물이라고 이수다. 목장 저 쪽에. 쉐앗배 열두 발을 놓아도 끝이 업다고 짚은 물이 이서낫수다.('ᄌᆞ반남수물'이라고 있습니다. 목장 저쪽에. '쉐앗배' 열두 발을 내려 놓아도 끝이 없다고 하는 깊은 물이 있었어요.) 03 [송당]

ᄌᆞ베기: 밀가루를 반죽하여 맑은장국이나 미역국 따위에 적당한 크기로 떼어 넣어 익힌 음식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표준어 '수제비'의 의미로 지역에 따라 'ᄌᆞ베기', '저베기', '조베기'라고도 한다. // 벙뎅이 지면 ᄃᆞᆨᄃᆞᆨ 즉앙 그런 거 저 무시거렌 골아라, ᄌᆞ베기.(덩이지면 톡톡 찍어서 그런 거 저 무엇일고 말해라. 'ᄌᆞ베기'.) 16 // 잘못 뿌리면은 많이 가는 데는 많이 가고 거름이 이 저 ᄌᆞ배기추룩.(잘못 뿌리면 많이 가는 데는 많이 가고 거름이 이 저 수제비처럼.) 18 [신도, 하원]

ᄌᆞ베낭: 구슬잣밤나무의 제주어이다. // 보통 마릿 마릿널은 저 ᄌᆞ베낭으로 헤서 ᄌᆞ베낭 저베낭.(보통 마룻널은 저 구슬잣밤나무로 했어 구슬잣밤나무 구슬잣밤나무.) 16 [하원]

ᄌᆞ북ᄌᆞ북: 차근차근 넣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쪼그만헌 단지레 이제 갯ᄂᆞ물을 ᄌᆞ북ᄌᆞ북 이제 쎄여. 쎄여 가지고 소금을 놔.(조그만한 단지에 이제 갓을 'ᄌᆞ북ᄌᆞ북' 이제 쌓아. 쌓아 가지고 소금을 놔.) 01 [도련]

ᄌᆞ엽: 떠들썩하게 뛰어다니면서 하는 장난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는 자유롭게 나다니는 것을 말하고 있다. // 게난 덕수 젊은 사름덜 막 얌전헤라게. 그땐이 ᄌᆞ엽이 엇엉이. 쳇 장게간 사름덜 각시영 눵 자젠 허젠 허믄 일주일 그디 살민 어떤 사름은 몰

르게 곱앙인에 각시신디 오랑가젠 그 올레도 안 열앙 담 넘엉오단 그디 지키는 사름 걸령 난리가 낭인에 제도 못 맡게 허곡 욕 얻어먹고.(그러니까 덕수 젊은 사람들 아주 얌전하더라. 그땐 'ᄌᆞ엽'이 없어서. 첫 장가간 사람들 색시랑 누워서 자려고 하려고 하면 일주일 거기 살면 어떤 사람은 모르게 숨어서 색시에게 와서 가려고 그 '올레'도 안 열어서 담 넘어오다가 거기 지키는 사람 걸려서 난리가 나서 제도 못 맡게 하고 욕도 얻어먹고.) 33 [인성]

ᄌᆞ중이: 애월읍 광령리의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이다. // ᄌᆞ중이나 이런 딘 많이 허주.('ᄌᆞ중이'나 이런 덴 많이 하지.) 29 // 줄로 가난 어떵허영 담장으로 말ᄐᆞᆨ 빠져 가지고 쉔 ᄌᆞ름 좇안 가 불엇단 말여. 게난 이젠 낮 넘언 ᄎᆞᆺ젠 허난 뭐 ᄎᆞᆺ을 수가 잇나. 아니 게난 광령으로 ᄌᆞ중이로 다 돌아다녓어.(줄로 가니까 어떡해서 담장으로 말뚝 빠져 가지고 소는 꽁무니 쫓아서 가 벼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젠 낮 넘어서 찾으려고 하니까 뭐 찾을 수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광령으로 'ᄌᆞ중이'로 다 돌아다녔어.) 29 [외도]

ᄌᆞ지찌다: 기다란 것으로 가다듬어 알맞게 매듭을 짓다라는 의미이다. // 꿩마늘엔 허멍 막 그거 캐영 와근에 그거 소금에 절엿당 양념 엇일 때고 허난 그냥 또 또 그냥 소금물에 ᄃᆞᆼ가놩 영 영 ᄌᆞ지찐 냥.(달래라고 하면서 막 그거 캐어서 와서 그거 소금에 절였다가 양념 없을 때고 하니까 그냥 또 또 그냥 소금물에 담가놔서 이렇게 이렇게 'ᄌᆞ지찐' 대로.) 23 [온평]

ᄌᆞᆫ갑: 앞머리를 양쪽으로 가늘게 땋아서 옆으로 둘러서 뒷머리와 합치는 것을 말한다. // ᄉᆞ나이덜이나 박박 까끄주. 지집아이덜은이 가끄지 안헤라. 어린 때 우리 어린 때 ᄌᆞᆫ갑 땅인에 뒤엔 또시 붉은 댕기 들이곡.(사내 아이들이나 박박 깎지. 계집아이들은 깎지 않더라.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ᄌᆞᆫ갑' 땋아서 뒤에 또 붉은 댕기 들이고.) 33 [인성]

ᄌᆞᆫ동산: 표선면 성읍리의 지경 이름이다. // 거기서 저 성읍리 우에 올라가면 ᄌᆞᆫ동산이엔 잇수다. ᄌᆞᆫ동산.(거기서 저 성읍리 위에 올라가면 'ᄌᆞᆫ동산'이라고 있습니다. 'ᄌᆞᆫ동산'.) 05 [표선]

ᄌᆞᆫᄃᆞᆼ머리: 허리를 낮춰 부르는 말로 여기서는 '중간'이라는 뜻이다. 말을 앞뒤 없이 중간부터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 ᄌᆞᆫᄃᆞᆼᄆᆞ리로 ᄀᆞᆯ지 맙서게.('ᄌᆞᆫᄃᆞᆼᄆᆞ리'로 말하지 마세요.) 11 [함덕]

ᄌᆞᆫ떡: 시루떡보다 작은 송편 따위의 자잘한 떡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솔편', '절편', '인절미' 등을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 정시나 헌 건 돗다리 걸치고 헹 주고 따시 또 그디 옷이나 ᄆᆞᆯ라준 사름은 갈비나 놓곡 떡 헤근에 ᄒᆞᆫ 빗 놓곡 존떡 헹 놓곡 헹 아졍가곡, 차롱착에 아졍가곡.(지관이나 한 건 돼지다리 걸치고 해서 주고 다시 또 거기 옷이나 마른 사람은 갈비나 놓고 떡 해서 한 '빗' 놓고 '존떡' 해서 놓고 해서 가져가고, 채롱에 가져가고.) 13 // 제물은 뭐, 빵 ᄒᆞ는 건 아녀도 침떡 헹 오고, 조개송편 좁앙도 허곡, 또 ᄌᆞᆫ떡도 헤오곡, 묵 허곡, 모ᄆᆞᆯ묵 허

곡, 묵 쒀근에. 또 전덜 전 ᄀᆞ튼 거 지지곡.(제물은 뭐, 빵 하는 건 안 해도 시루떡 해 오고, 조개송편 집어도 하고, 또 자잘한 떡도 해오고, 묵 하고, 메밀묵 하고, 묵 쒀서. 또 전들 전 같은 거 지지고.) 24 // 그 우리 노형은 양촌으로 이 ᄌᆞᆫ떡을 많이 허주게. ᄌᆞᆫ떡을 많이 헹 다숫 가지를 허는디.(그 우리 노형은 양촌으로 그 'ᄌᆞᆫ떡'을 많이 하지. '잔떡'을 많이 해서 다섯 가지를 하는데.) 30 // 옛날 헤난 떡은게 그 젤 ᄌᆞᆫ떡이 옛날에 허여신디.(옛날 했던 떡은 그젤 'ᄌᆞᆫ떡'이 옛날에 했는데.) 32 [노형, 덕수, 삼달, 성읍, 세화, 인성]

ᄌᆞᆫ마롱ᄒᆞ다: 한아름에서 좀 작은 정도의 부피를 말한다. // 산듸 이 무끄문 보리 무끔만 썩벳긔 아녀, ᄌᆞᆫ마롱ᄒᆞ게 만큼씩 무껏주.(밭벼 이 묶으면 보리 묶음만 씩밖에 않아, 'ᄌᆞᆫ마롱ᄒᆞ게' 만큼씩 묶었지.) 24 [세화]

ᄌᆞᆫ심허다: 자잘한 정을 주다는 뜻으로 'ᄌᆞᆫ셈허다'라고 한다. // 손지 돌아보젠 아녀곡 ᄌᆞᆫ심 허질 아녑디다게.(손주 돌보려고 않고 자잘한 정을 주지 않습디다.) 32 [덕수]

ᄌᆞᆫ쏠밥: 굵은 보리쌀 다음으로 나온 보리쌀로 지은 밥이다. // 두 번째 쏠로 ᄒᆞᆫ 건 ᄌᆞᆫ쏠밥.(두 번째 쌀로 한 건 'ᄌᆞᆫ쏠밥'.) 08 [동광]

ᄌᆞᆫ자리콩: 콩 종류의 하나로, 자잘한 콩을 일컫는다. // 이제는 족은 건 ᄌᆞᆫ자리콩이옌 ᄒᆞ영 젠젠ᄒᆞᆫ 거난 그거주.(이제는 작은 건 'ᄌᆞᆫ자리콩'이라고 해서 자잘한 거니까 그거지.) 17 [대평]

졸레: 장작 따위의 묶음을 의미하는 단위명사이다. // 짇을케 엇이난 나무젤 ᄒᆞ주게 나무제를 헤영 ᄒᆞᆫ 졸레.(그러니까 땔감이 없으니까 나무계를 하지 나무계를 해서 한 '졸레'.) 16 // 옛날 졸레가 잇어 ᄒᆞᆫ 안음 헤영 ᄒᆞᆫ 졸레, ᄒᆞᆫ 졸레 두 졸레.(옛날 '졸레'가 있어 한 아름해서 한 '졸레', 한 '졸레' 두 '졸레'.) 16 [하원]

졸르다: 물에 오래 담가두었다는 의미로 쓰였다. // 그냥 ᄆᆞᆯ리왓다가 이제 물에 졸라근에 그거를 벌겅헌 물 울려와비둥 그걸 보리쏠에 놩 밥을 허민 바로 ᄑᆞᆺ밥 뒈여, 이건 벌겅허여.(그냥 말렸다가 이제 물에 '졸라근에' 그거를 벌건 물 우려내어버려서 그걸 보리쌀에 넣어서 밥을 하면 바로 팥밥 되어, 이건 벌개.) 14 [성읍]

줌박': '잠박', '누에 채반'의 제주어로 누에를 치는 데 쓰는 채반이다. 싸리나 대나무 따위로 얽어서 긴 네모꼴로 만든다. '줌방메'라고도 한다. // 나민게 줌박 이만이 이추룩 네개방작 ᄒᆞ게 큰 줌박, 커 가민.(나면 '잠박' 이만큼 이처럼 네모 반듯 하게 큰 잠박, 커 가면.) 07 // 누에 영 거시기 헤여지게 마보시로 ᄒᆞᆫ 것에 줌박에 놩 튼틀하게시리 팡 이디 저 칭기칭기 허게 헨에, 그디 줏어 놩 영영 헹 나두민 이 새에 저 새에 ᄆᆞᆫ 허멍 영 서껑 집을 짓주게.(누에 이렇게 거시기 할 수 있게 '마보시'로 한 것에 잠박에 넣어서 튼튼하게 파서 여기 저 층계층계 하게 해서, 거기 주워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놔두면 이 사이에 저 사이에 모두 하면서 이렇게 섞어서 집을 짓지.) 15 // 겨민 이 채롱이라고 영 저 욜로 요영 요만썩 헌 차롱에 놔. 이만썩 진 것에 경 놓민 줌박이라고 칭칭칭칭 올려놔.(그러면 이 채롱이라고 이렇게 저 요리로 요렇게 요만큼씩 한 채롱에 놔. 이만큼씩 긴 것에

그렇게 놓으면 '즘박'이라고 칭칭칭칭 올려놔.) 25 // 즘박에 영헹 놔두민 깨우민이 그걸 문딱 깨우민 이 즘박더레 들여놓고 저레 놓고 똥 치우멍 영 영 허멍. 쳇 번은 요만썩헌 거 허민 뽕 헤당 즘질이 막 끄늘게 썰어근에 그거 영 영 주민 그거 문 먹어.('즘박'에 이렇게 놔두면 깨우면 그걸 모두 깨우면 이 '즘박'에 들여놓고 저리 놓고 똥 치우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첫 번은 요만한 거 하면 뽕 해다가 가늘게 아주 가늘게 썰어서 그거 이렇게 이렇게 주면 그거 모두 먹어.) 31 [보목, 수망, 태흥, 토평]

즘방메: '잠박', '누에채반'의 제주어로 누에를 치는 데 쓰는 채반이다. 싸리나 대나무 따위로 얽어서 긴 네모꼴로 만든다. '즘박'이라고도 한다. // 차롱에 헤근에 엿날 어른덜이 이 차롱에 허민이 즘방메, 즘방메 요거ᄀᆞ치룩이 칭칭이 칭칭이 영 노프게 영 남 여러 밧듸 세와근에 칭칭이 놓는 거라이.(채롱에 해서 옛날 어른들이 이 채롱에 하면 '즘방메', '즘방메' 요거처럼 층층이 층층이 이렇게 높게 이렇게 나무 여러 군데 세워서 층층이 놓는 거야.) 25 [태흥]

즘상허다: 사리를 헤아림이 꼼꼼하고 자세하다는 의미이다. // 잘 멘드는 고영 그것이 곱게 멘드는 손이 서근에 고영 멘드는 사름은 고영 멩글곡, 궂게 멩그는 사름은 이녁 손에 ᄄᆞᆯ랑 이녁 곱게 멘들젠 ᄒᆞ민 곱게 멘들아지질 아녕 곱게 멘드는 사름은 곱게 멘들곡, 사름도 즘상헌 사름만.(잘 만드는 곱게 그것이 곱게 만드는 손이 있어서 곱게 만드는 사람은 곱게 만들고, 궂게 만드는 사람은 이녁 손에 따라서 이녁 곱게 만들려고 하면 곱게 만들어지질 안 해서 곱게 만드는 사름은 곱게 만들고, 사람도 '즘상한' 사람만.) 07 // 우리 또 두 설 밑에 동생은 성질이 왈왈 왈왈 허영 이 즘상허는 집안일을 못 허니까 가이는 밖에서 영 물도 질어오고.(우리 또 두 살 밑에 동생은 성질이 왈왈 왈왈 해서 이 꼼꼼한 집안일을 못 하니까 걔는 밖에서 이렇게 물도 길어오고.) 20 // 그건이 실 내는 사람이 실 ᄌᆞᆺ는 사람이 즘상헌 사람은 실도 즘상허게 내영 ᄀᆞ늘이 곱닥허게 내여.(그건 실 내는 사람이 실 잣는 사람이 '즘상'한 사람은 실도 '즘상'하게 내어서 가늘게 곱게 내어.) 25 [고내, 보목, 태흥]

즘수: '잠수(潛嫂)'로 바닷속에 들어가 해삼, 전복, 미역 따위를 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해녀를 말한다. // 여기는 해녀엔 헙니까 즘녀엔 헙니까? 옛날에.(여기는 해녀라고 합니까 해녀라고 합니까? 옛날에.) 즘수게 즘수.(해녀 해녀.) 22 [우도]

즘숙즘숙허다: 졸려서 잠이 들듯 말듯하다는 뜻이다. // 경 허난 즘은 안 들고 즘숙즘숙허단 즘 ᄒᆞᄊᆞᆯ 들중말중허난 막 동녁 한질이주게이.(그러니까 잠은 안 들고 '즘숙즘숙허단' 잠 조금 들락말락하니까 막 동녁 한길이지.) 33 [인성]

즘숫베: 물질을 하는 잠수, 즉 해녀들을 태우고 다니는 배를 말한다. 달리 '해녓베'라고도 한다. // 충청도 가면은 안민돈디 즘숫베가 열ᄋᆞ섯 척 잇어예.(충청도 가면은 안면돈데 '즘숫베'가 열여섯 척 있어요.) 23 [온평]

즘쏠: 잘게 부서진 보리 쌀알을 말한다. // ᄊᆞᆯ ᄀᆞᆯ멍 해가민 ᄊᆞᆯ 즘쏠이영 ᄀᆞᆯ아가민 즘쏠

치면은 즘쏠 아래 뜨시 ᄀᆞ루가 그디 부떵 나와.(쌀 갈면서 해가면 쌀 '즘쏠'하고 갈아 가면 '즘쏠' 치면 '즘쏠' 아래 다시 가루가 거기 붙어서 나와.) 08 // 보리 먹젠 허단 즘쏠 ᄀᆞ튼 거 그런 걸로 헹은에.(보리 먹으려고 하다가 '즘쏠' 같은 거 그런 걸로 해서.) 29 // 즘쏠이고 ᄉᆞ레기쏠 ᄀᆞ뜬 거 놔 가지고 죽을 많이 쒔수다.('즘쏠'이고 싸라기쌀 같은 것 넣어 가지고 죽을 많이 쒔습니다.) 35 // ᄀᆞ레엔 헌 거 잇어. ᄀᆞ레. 또 그걸 ᄀᆞ는 거라이. 골면은 그게 반착으로 부서지멍 또 즘쏠이 나오곡 체가 나오민 또 그걸 넣어 가지고 또 걸로 세상을, 밥헤연 먹언 살앗주게. 게난.(맷돌이라고 하는 거 있어. 맷돌. 또 그걸 가는 거라. 갈면은 그게 반쪽으로 부서지면서 또 '즘쏠'이 나오고 체가 나오면 또 그걸 넣어 가지고 또 그걸로 세상을, 밥해서 먹고 살았지. 그러니까.) 36 [대림, 동광, 봉성, 외도]

즘쏠밥: 잘게 간 보리쌀 따위로 지은 밥이다. '즘진밥'이라고도 한다. // 즘쏠, 홁은 쏠이 잇주게. 게민 체로 쳥 대거름체, 대거름체엔 헌 체로 쳥, 홁은 걸로 밥 헤 먹고 즘진 건 또 저 즘쏠밥이엔 허영 뜨로 헤영 먹고.('즘쏠', 굵은 쌀이 있지. 그럼 체로 쳐서 '대거름체', '대거름체'라고 한 체로 쳐서, 굵은 걸로 밥 해 먹고 잔 건 또 저 '즘쏠밥'이라고 해서 따로 해서 먹고.) 20 // 거피덴, 거피는 거는 거피는 대로 즘쏠밥이엔 헨 즘쏠.(거피한덴, 거피하는 거는 거피하는 대로 '즘쏠밥'이라고도 해서 '즘쏠'.) 20 // 즘쏠밥이여, 즘쏠밥이 ᄉᆞ레기밥이주기. ᄉᆞ레기밥, ᄉᆞ레기밥.('즘쏠밥'이여, '즘쏠밥'이 싸라기밥이지요. 싸라기밥, 싸라기밥.) 28 [고내, 구엄]

즘자다: 부풀어 오른 물건이 가라앉아 평평해지다는 말이다. // (담배) 딱 무껑 놔두민 그 자 즘자근엥에. 싹 허영. 경 허연에 ᄋᆞ져단 저 허연 태웁디다게.((담배) 딱 묶어서 놔두면 그저 '즘자서'. 싹 해서. 그렇게 해서 가져다가 저 해서 태웁디다.) 32 [덕수]

즘진밥: 잘게 간 보리쌀 따위로 지은 밥이다. '즌쏠밥'이라도 한다. // 두 번째 즘진 쏠로 ᄒᆞᆫ 건 즘진밥.(두 번째 잔 쌀로 한 건 '즘진밥'.) 08 [동광]

즘진베: 올이 곱고 색상이 아름다우며 통풍이 잘 되는 고급 삼베를 말한다. // 삼베는 저 무시거 즘진베는 우리, 우리 그 저.(삼베는 저 무엇 '즘진베'는 우리, 우리 그 저.) 32 // 즘진베 하얀 거는 그 모시가 너무 비싸부난에.('즘진베' 하얀 거는 그 모시가 너무 비싸버려서.) 32 [덕수]

즘진체: 체의 한 종류로 가루나 액체를 거를 때 사용되며 구멍이 아주 작은 체를 말한다. // 즘진체로 쳥 그걸 반죽을 ᄒᆞ는 거라. 반죽을 물 놩 반죽을 ᄒᆞ여근에 막 손으로 밀어.('즘진체'로 쳐서 그걸 반죽을 하는 거지. 반죽을 물 넣어서 반죽을 해서 막 손으로 밀어.) 08 // 보리 영 헤근에 즘진체로 친 건 ᄉᆞ레기주.(보리 이렇게 해서 '즘진체'로 친 건 싸라기지.) 15 // 즘진체 허영 치민 그건 즘진 ᄀᆞ루 허영 맛 좋게 먹고.('즘진체' 해서 치면 그건 아줄 자잘한 가루 해서 맛 좋게 먹고.) 18 // 그때 당시에도 뭐 걸를 즘진체 시민 그거에 확 걸런에 똘란에 죽 쑤난 맛

좋는 겁디다.(그때 당시에도 뭐 거를 '좀짐체' 있으면 그거에 확 걸러서 따라서 죽 쑤니까 맛 좋는 겁디다.) 34 [구억, 동광, 수망, 신도, 옹포]

좀진탕건: '가는 탕건'의 뜻으로 줄 수가 150개, 둘레 수가 120개 정도의 탕건을 말한다. // 좀진탕건도 잇고 훍은탕건도 잇고.('좀진탕건'도 있고 '훍은탕건'도 있고.) 11 [함덕]

좀질다: '물건이 잘고 가늘다'는 뜻이다. // 가레기클보다 좀진 것이 잇수다. 쒜로, 쒜로 영 넙짝ᄒᆞ게 ᄒᆞ여진 것이 이신디.(가락틀보다 '좀진' 것이 있습니다. 쇠로, 쇠로 이렇게 납작하게 하여진 것이 있는데.) 08 // 그냥 지가 떡 허는 거는 가루가 좀 지는디.(그냥 지가 떡 하는 거는 가루가 잘고 가는데.) 09 // 또 무 좀질게 나풀나풀 썰엉도 먹고.(또 무 '좀질게' 납작납작 썰어도 먹고.) 15 // ᄋᆞ돕새미녕이란, 건 좀 씰이 좀 좀질아, 좀 고급 고급 미녕.(여덟새무명이라는, 건 좀 실이 좀 잘아, 좀 고급 고급 무명.) 16 [고산, 동광, 수망, 하원]

좁게: 멍에 양편에 꿰어 목 아래로 휘어다가 매게 된 나뭇가지이다. 지역에 따라서 '적궤, 집궤, 접게, 좁궤, 좁작게' 등으로 부른다. // 좁게. 좁게. 이디 이디 영 허영은에. 벵벵허게시리 저 뭣으로 무꺼근에.('좁게', '좁게'.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벵벵하게끔 저 뭣으로 묶어서.) 32 [덕수]

좁게친: 멍에 양편에 꿰어 목 아래로 휘어진 나뭇가지를 집어 매는 끈이다. // 좁게친, 메는 거. 친, 친. 좁게 영.('좁게친' 매는 거. 끈, 끈. 목대 이렇게.) 34 [구억]

좁질다: 물기를 짜려고 양쪽에서 쥐고 비트는 것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 청묵은 저 쏠로 헹 물 컷당 좁질엉 ᄒᆞ는 거.(청묵은 저 쌀로 해서 물 잠갔다가 짜서 하는 거.) 16 [하원]

줏: 산뽕나무의 애벌레번데기를 말한다. // 뽕나무에 줏, 줏. 그 베렝이. 뽕나무에 베렝이.(뽕나무의 애벌레번데기, 애벌레번데기. 그 애벌레. 뽕나무의 애벌레.) 24 [세화]

중가지다: '잠기다' 뜻이지만 여기서는 '아끼다'의 의미로 쓰였다. // 먹을 것도 춤 어떤 땐 아기덜 주젠 허영 중가지긴 헙니다게.(먹을 것도 참 어떤 땐 아기들 주려고 해서 아끼긴 합니다.) 34 [구억]

중개호미: 해녀들이 물속에서 미역·톳 등의 해초를 베는 데 쓰는 도구이다. // 저 호미도 여기선 중게호미옌 허여.(저 낫도 여기선 '중게호미'라고 해.) 06 // 중게호민 이 추룩 꾸짝헌 걸로. 넓짝헌 쉐줄 헤영 영허민 전복이 걸어 뎅길 땐 영 건들민 그냥 툭허게 자빠져 불어.('중게호미'는 이렇게 곧은 걸로, 넓죽한 쇠줄 해서 이렇게 하면 전복이 걸어 다닐 땐 이렇게 건드리면 그냥 툭하게 자빠져 버려.) 11 // 물에 들젠 허민 그 중게호미가 잇어야 뒐 거지.(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중게호미'가 있어야 될 거지.) 12 // 갯깃이 뎅기는 호미 영 무끈 뭐가 잇주. 중개호미.(갯가에 다니는 호미 이렇게 묶은 뭐가 있지. '중개호미'.) 13 [고내, 남원, 삼달, 한동, 함덕]

줏다: 몹시 애가 타다의 의미를 지니는 제주어이다. // 제주도말로 줏아, 조가 막 복삭 나

민.(제주도말로 '좇아', 조가 막 폭삭 나면.) 27 [옹포]

짝글르다: 짝이 맞지 않는 것으로 흘수가 됨을 말한다. // 이 심방신듸 가는 건 짝 맞게 허고 귀신은 짝글르게.(이 무당에게 가는 건 짝 맞게 하고 귀신은 짝 그르게.) 13 // 솔펜 열다섯 개난 절벤도 것도 열다섯 개 올려야 헤, 짝 맞게만, 짝 그르게만.(솔편 열다섯 개니까 절편도 그것도 열다섯 개 올려야 해, 짝 맞게만, 짝 그르게만.) 13 [삼달]

쩜쩜쩜: 색이 선명하지 않음을 표현한 것이다. // 쩜쩜쩜 짠 것도 쩜쩜쩜쩜 까물까물까물 뒈어.('쩜쩜쩜' 짠 것도 '쩜쩜쩜쩜' '까물까물까물' 되어.) 24 [세화]

쩨깍허다: 싹이 촘촘하게 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잘 나는디 이디 무상헌 딘 잘 안 나. 하나씩 나도이 휘칙휘칙허고이. 이 불린 딘 쩨깍헹 잘 뒈. 불린 디.(잘 나는데 여기 무상한 덴 잘 안 나. 하나씩 나도 '휘칙휘칙하고'. 이 밟은 덴 '제깍해서' 잘 돼. 밟은 데.) 30 [노형]

쪼꼬자: 쪼끼와 마고자를 한꺼번에 이른 말이다. // 쪼꼬자도 엇어.('쪼꼬자'도 없어.) 11 [함덕]

쪼끌락: '아주 작다'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낭이 엇인 디 엇주. 그레 물을 하영 받앙 그레 하영 받앙 내려오주. 쪼끌락한 낭에 물 받으민 얼마나 받을 거라? 큰낭. 그것도 큰나무가 잇어야만.(나무가 없는 데 없지. 그리로 물을 많이 받아서 그리로 많이 받아서 내려오지. 조그마한 나무에 물 받으면 얼마나 받을 거야? 큰 나무. 그것도 큰 나무가 있어야만.) 05 // 쪼끌락허게. 메믈로 안 헹 그냥 곤쏠로.(조그맣게. 메밀로 안 하고 그냥 흰쌀로.) 11 // 막 쪼끌락ᄒᆞᆫ 건 조막단지.(아주 조그마한 건 '조막단지'.) 16 [표선, 하원, 함덕]

쪼짝: '물건의 윗부분이 뾰족이 솟아 있는 모양'의 제주어이다. '쭈짝'이라고도 한다. // 영 앞에 쪼짝 나와 가지고. 여자들 신는 건 코고무신. 남자들 신는 건 반고무신이라고 헤서 다 이름이 잇어 그것도. 반고무신은 편평헌 거.(이렇게 앞에 '쪼짝' 나와 가지고. 여자들 신는 건 코고무신. 남자들 신는 건 반고무신이라고 해서 다 이름이 있어 그것도. 반고무신은 평평한 거.) 27 [옹포]

쪽쉐눈: 해녀들이 물질 할 때 눈에 쓰는 쇠로 만든 알이 두 개인 물안경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족쉐눈'이라고도 한다. // 쪽쉐눈. 요런 쪽쒜눈 써낫어 우리 어린 때는.('쪽쉐눈'. 요런 '쪽쉐눈' 썼어 우리 어린 때는.) 27 [옹포]

쫄개쫄개: 조각조각의 의미로 쓰였다. // 새서방칩이서 새각시칩이 간 때에 그 가마 멩글젠 허민 창나무 두 개 시끄곡 가마 쫄개쫄개 ᄆᆞᆫ 틀엉 하꼬에 ᄆᆞᆫ딱 헷다근에.(새서방집에서 새색시 집에 갈 때에 그 가마 만들려고 하면 '창나무' 두 개 싣고 가마 조각조각 모두 틀어서 상자에 모두 했다가.) 06 [남원]

쫄락허다: 갑자기 밖으로 나오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쫄락허게 그디 영 질레 나온 거라.('쫄락'하게 거기 이렇게 길에 나온 거야.) 23 [온평]

쫄랑쫄랑쫄랑: 보리 방울이 길쭉한 모양을 표현한 말이다. // 경헌디 보리, 보리 방울이 쫄

랑쫄랑쫄랑허여.(그런데 보리, 보리 방울이 '쫄랑쫄랑쫄랑'해.) 25 [태흥]

쫄리다: 겁을 먹거나 기를 펴지 못하거나 무시를 당하다는 뜻이다. // 나는 수줍고 뭐허게 살아나난 그 집의 강 쫄령 못산덴.(나는 수줍고 뭐하게 살았었으니까 그 집에 가서 쫄려서 못산다고.) 23 [온평]

쭈시: '찌꺼기'를 말한다. '주시', '주셍이'라고도 한다. // 감저쭈시도 헤영 막 시처근에, 경 막 저 담 우이 널엉 ᄆᆞᆯ랏 그.(고구마찌꺼기도 해서 마구 씻어서, 그렇게 마구 저 담 위에 널어서 말려.) 16 // 벌통 청쭈시로.(벌통 청 찌꺼기로.) 22 [우도, 하원]

쭈짝허다: 물건의 윗부분이 뾰족이 솟아 있다는 의미의 어휘이다. '주짝ᄒᆞ다', '조짝ᄒᆞ다'라고도 한다. // 보말 그 쭈짝헌 쭈짝이 저 코지가 이러면서도.(보말 그 '쭈짝한' '쭈짝이' 저 코가 이러면서도.) 01 // 윤디 영 ᄒᆞᆫ 거. 쭈짝ᄒᆞᆫ 거. 윤디로 헹 다렷주게.(인두 이렇게 한 거. '쭈짝한' 거. 인두로 해서 다렸지.) 18 [도련, 신도]

쭉데기: 게 등을 빻아서 국물을 걸러낸 나머지 껍질 등을 말한다. // 겡이 ᄲᆞ으면은 겡이 쭉데기가 잇거든.(게 빻으면 게 '쭉데기'가 있거든.) 16 [하원]

쫄랑ᄒᆞ다: 물건이 쪼금 기다랗다는 뜻이다. // 손젭이 영 쫄랑ᄒᆞ지 그걸로 영 영 다리고.(손잡이 이렇게 '쫄랑'하지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다리고.) 16 [하원]

찌레: '끼리'의 의미로 '서로 함께하는 부류만'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 어멍 허는 거 ᄆᆞᆫ 보곡, 우리 찌레도 ᄆᆞᆫ 헷주마는 난 간세로 안 헷주. 미녕도 ᄌᆞᆺ국 헤낫주게.(어머니 하는 거 모두 보고, 우리 '찌레'도 모두 했지만 난 게으름으로 안 했지. 무명도 잣고 했었지.) 07 [보목]

찌르륵탁: 익힌 모자반 등이 입 속에서 미끄러지듯 넘어가는 느낌을 말한다. // 찌르륵탁 헹은에 맛이 엇어.('찌르륵탁' 해서 맛이 없어.) 24 [세화]

찍깍: 일정한 공간에 물건이 가득 들어박혀 있어서 빽빽한 모양이다. // 종이에 씨를 저 좁쌀씨만한 거 찍깍 박아진 거라.(종이에 씨를 저 좁쌀 씨만 한 거 '찍깍' 박혀진 거지.) 08 [동광]

찐똘이: 달리기하며 노는 놀이의 일종이다. // 게고 그때 당시에 난 걸 아는디, 그거 찐똘이, 막을락.(그리고 그때 당시에 난 걸 아는데, 그거 '찐이', '막을락'.) 34 // 찐똘이, 거 달음작허는 거. ᄃᆞᆯ음작허는 거.('찐똘이', 거 달리기하는 거, 달리기하는 거.) 34 [구억]

찔각찔각: 수제비 따위를 먹을 때의 느낌을 표현한 말이다. // 기주 아니 부끈 때 영 먹는 것도 찔각찔각 ᄌᆞ베기처록.(기주 아니 부풀 때 이렇게 먹는 것도 '찔각찔각' 수제비처럼.) 23 [온평]

찔레: 소나 사슴 따위가 서로 뿔로 받으며 싸우는 것을 말한다. // 이제 그 두 찔레 부뜨는 걸 봣어. 찔레.(이제 그 두 '찔레' 붙는 걸 봤어. '찔레'.) 01 // 경헐 때 놈의 쉐 만나민 막 찔레부뜨젠도 헤도 그걸 꼭 잡아근에 어떵형 강 멕영 왕.(그렇게 할

때 남의 소 만나면 막 '뿔로 받으며' 싸우려고도 해도 그걸 꼭 잡아서 어떻게 해서 가서 먹여서 와.) 07 // 쉐를 막 풀어놩 짝 갯것디 강 멕영 오젠 허민 물때 맞춰 가젠 허민 막 이 집 저 집 막 쉐덜 풀어 놓고 허민 쌉곡 난리라. 서로 찔레도 부뜨고.(소를 막 풀어놔서 쫙 바닷가 가서 먹여서 오려고 하면 물때 맞춰서 가려고 하면 막 이 집, 저 집 막 소들 풀어 놓고 하면 싸우고 난리야. 서로 '찔레'도 붙고.) 25 // 질메 ᄒᆞ영 그 영 ᄒᆞᆫ 사름이 쉐 둘씩 몰곡 ᄒᆞ영 올 땐 ᄉᆞᄆᆞᆺ 쉐덜 질레 잘못ᄒᆞ믄 찔레 부뜨곡 ᄒᆞ믄.(길마 해서 그 이렇게 한 사람이 소 둘씩 몰고 해서 올 땐 사뭇 소들 길에 잘못하면 '찔레' 붙고 하면.) 28 [구엄, 대림, 도련, 보목, 삼달, 태흥]

찝깍신: 짚신을 만들 때 총을 따로 만들어 두지 않고 짚을 결어 나가면서 총을 꼬아 삼은 짚신을 표준어로 '제총박이'라고 한다. '붓깍신'이라고도 한다. // ᄒᆞᆫ번에 찝깍신. 찝으로만 허는 거.(한번에 제총박이. 짚으로만 하는 거.) 30 [노형]

찝뎅이: 상제 앞에 늘 놓아 두는 상장의 길이만큼 길고 아주 굵직하게 짚을 묶어서 만든 물건인데, 달리 '북세미', '북시미', '찝동', '찝동이'라고 한다. // 머구낭, 또로 그 앞이 놓는 건 찝뎅이.(머귀나무, 또 그 앞에 놓는 건 짚동.) 02 // 찝뎅이광 대막댕이나 머구낭은 소상 날은 다 ᄉᆞᆯ아 불어.(짚동이랑 대막대나 머귀나무는 소상 날은 다 태워 버려.) 21 [선흘, 신촌, 함덕]

찝동: 상제 앞에 늘 놓아 두는 상장의 길이만큼 길고 아주 굵직하게 짚을 묶어서 만든 물건인데 '북세미', '북시미', '찝동이', '찝뎅이'라고도 한다. // 찝동은 그건 뭐, 거 찝동은 꼭 그건 만들주, 찝동은 일곱 ᄆᆞ작으로 헹 만드는데, 그걸 돌아간 망인 보듯이 그걸 그렇게 놩 제사 지낼 때.(짚동은 그건 뭐, 거 짚동은 꼭 그건 만들지, 짚동은 일곱 마디로 해서 만드는데, 그걸 돌아간 망인 보듯이 그걸 그렇게 놔서 제사 지낼 때.) 12 // 찝동은 똑 ᄀᆞ트고. 일곱 개, 일곱 개. 영 친 거 일곱 개 무꺼십디다.(짚동은 똑 같고. 일곱 개, 일곱 개. 이렇게 친 거 일곱 개 묶었습디다.) 17 [대평, 세화, 한동]

쯔른줄: '짧은 줄'이라는 의미이다. 초가지붕을 인 후에 지붕을 단단히 동여맬 때 사용하는, 가로로 매는 줄을 말한다. '쫄른줄'이라고도 한다. // 이제 그거 줄을 다 세여근에 진줄 멧 개 쯔른줄 멧 개. 경 헤영 세여근에 그 다 ᄒᆞ나썩 비여 간 거 다 막 끗데 두 개를 이제 꼬을 거니까.(이제 그거 줄을 다 세어서 '긴줄' 몇 개 '쯔른줄' 몇 개. 그렇게 해서 세여어 그 다 하나씩 꼬아 간 거. 다 끝에 두 개를 이제 꼴 거니까.) 05 // 옆으로 영 ᄀᆞ로 무끄는 건 쯔른줄.(옆으로 이렇게 가로 묶는 건 '쯔른줄'.) 09 // 길이로 메는 건 긴줄,길이로 메는 게 긴줄, 가로로 메는 건 쯔른줄. (길이로 매는 건 '긴줄', 길이로 매는 게 '긴줄', 가로로 매는 건 '짧은 줄'.) 14 [고산, 성읍, 표선]

쫀물: '짠물'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여기에서는 바닷물의 의미로 쓰였다. // 두부 만드는 거 이디서는 그 쫀물 바당이 잇이난, 먼 동네도 질어 갑니다게.(두부 만드는 거

여기서는 그 '짠물' 바다가 있으니까, 먼 동네도 길어 갑니다.) 23 [온평]

쫀쫀하다: '맛이 짜고 짠 상태'를 매우 짠 것을 의미하는 '짜디짜다'의 제주어이다. // 지시 듬앙도 먹어나고 엿날엔 그거 쫀쫀ᄒᆞ게.(장아찌 담가서도 먹었었고 옛날엔 그거 짜디짜게.) 15 [수망]

쫄른줄: 초가지붕을 얽어맬 때 사용하는 짧은 줄을 말한다. 보통 지붕을 세로로 맬 때 사용한다. 제보자에 따라서 '쯔른줄'이라고도 한다. // 보통 저 긴줄은 서른 개 쫄른줄은 서른다섯 개 내지 마흔 개.(보통 저 '긴줄'은 서른 개 '짧은줄'은 서른다섯 개 내지 마흔 개.) 05 // 진줄은 지러기 맞추곡 쫄른줄도 지러기 맞춰인에 헤여.(그러게, 긴줄은 길이 맞추고 짧은줄도 길이 맞춰서 해.) 33 [도련, 인성, 표선]

쫍지롱ᄒᆞ다: 표준어 '짭짜래'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쫍지롱ᄒᆞᆫ 반찬ᄀᆞ라 출레엔 ᄒᆞ는 거난.(짭짜래한 반찬보고 '출레'라고 하는 거니까.) 16 [하원]

쫍질다: 물기를 짜려고 양쪽에서 쥐고 비트는 것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 경헤근에 딱 쫍지랑 골로루 다 들여야 뒈여.(그렇게 해서 딱 짜서 골고루 다 들여야 돼.) 16 [하원]

ㅊ

차롱: 채롱이다. 대나 싸리를 쪼개어 네모나게 결어 속이 깊숙하고 뚜껑이 있게 만들어 음식 따위를 넣는 그릇이다. // 배만 소곱에 내장만 끈어놔뒁 차롱이나 구덕에 몽크령.(배만 안에 내장만 끊어 놓아 두고서 채롱이나 바구니에 뭉쳐서.) 03 // 나오민 멘 처음은, 영 쪼끄만ᄒᆞᆫ 뭔 차롱이나 무시것에 놔근에.(나오면 맨 처음은, 이렇게 조그마한 무슨 '차롱'이나 무엇에 놔서.) 16 [송당, 하원]

차롱착: 채롱의 한 짝을 말한다. // 옛날은 차롱착에 밥헤영 보리밥 허영은에 ᄋᆞ라이 갈 땐 양착에 다 거령 탁 마주 착 부쳉 가근에 뒌장국 헤영 그것에 밥 먹고.(옛날은 '차롱착'에 밥해서 보리밥 해서 여럿이 갈 땐 양쪽에 다 떠서 탁 마주 착 붙여서 가서 된장국 해서 그것에 밥 먹고.) 19 // 차롱착엔 허나? 그 무슨 이제는 저 무시거 사당 헙니다게.('차롱착'이라고 하나? 그 무슨 이제는 저 무엇 사다가 합니다.) 32 [덕수, 청수]

차륵차륵: 비온 뒤 땅이 굳어 호미로 김을 매기에 미끄러운 상태를 말한다. // 검질이나 비나 와낭 검질메젠 허민 ᄀᆞᆯ개기 안 들어강 차륵차륵 또 땅 팔 딘 가민 닝끼르곡 겅헤나서.(김이나 비나 와나면 김매려고 하면 호미 안 들어가서 '차륵차륵' 또 땅 팔 데는 가면 미끄럽고 그랬었어.) 24 [세화]

차반지: 채롱의 한 종류이다. // 끗 잇이민 또 끗 앗당 요레 부쪙 어떵 헨 ᄉᆞ록 허게 헹 요레 헤 놓곡 헹 이 차반지로 이만이 그거 헤 놓곡 또 이만이 헤 놓곡 허민 이제 그것이 열두 고망 헐 거민 열두 차반지를 헤야 헐 거야.(끝 이으면 또 끝 가져다 이리 붙여서 어떻게 해서 삭 해서 이리 해 놓고 해서 이 채롱에 이만큼 그거 해 놓고 또 이만큼 해 놓고 하면 이제 그것이 열두 구멍 할 거면 열두 채롱을 해야 할 거야.) 06 [남원]

착맞다: 짝이 맞는 것으로 짝수가 됨을 말한다. // 그거 착맞게 올령 열다섯 개.(그거 짝맞게 올려서 열다섯 개.) 13 [삼달]

착부찌: 돼지거름을 담아 나르는 멱서리를 말한다. '착부지'라고도 한다. // 걸름 시끌 땐 그냥 그 착부찌라 헤 가지고서 그냥 착 걸어 가지고 영 ᄒᆞᆫ 밧디로만 영 부뜨러 메는디 이거 거시긴 세 도롬으로 허주.(거름 실을 땐 그냥 그 '착부찌'라 해 가지고서 그냥 착 걸어 가지고 이렇게 한 군데로만 이렇게 붙들어 매는데 이거 거시긴 세 '도롬'으로 하지.) 12 [한동]

착콩: 반으로 쪼개진 콩을 말한다. '착'은 두 쪽 중 한 쪽을 가리키는 말이다. // 버렝이 일은 콩 ᄆᆞ딱 착콩 뒈 병은에.(벌레 인 콩 몽땅 '착콩' 되어 버려서.) 23 // 착콩도 ᄒᆞ쏠 덜 뒌 거는 ᄀᆞᆯ아근엥에 그치룩 국도 끓이고 죽도 쒕 먹주만은 너무 하영 먹어 분 거는 먹을 셍각, 먹을 정도가 안 뒈지.('착콩'도 조금 덜 된 거는 갈아서 그처럼 국도 끓이고 죽도 쒀서 먹지만 너무 많이 먹어 버린 거는 먹을 생각, 먹

을 정도가 안 되지.) 23 [온평]

찰보리: 찰기가 있는 보리를 말한다. // 요세 찰보리는 요세도 그저 도시에서나 경주에선 찰보리 찰보리 허데 경주는.(요새 '찰보리'는 요새도 그저 도시에서나 경주에서는 '찰보리' '찰보리' 하데 경주는.) 04 [고성]

찰찰: 액체 따위가 스며든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 그땐 종이가 필필필 물 칠헤은에 찰찰 헤벼. ᄇᆞᆯ르지 못허여.(그땐 종이가 필필필 물 칠해서 '찰찰' 해버려. 바르지 못해.) 05 [표선]

참: 거리를 재는 단위이다. 한 참은 약 5리이다. // 고사리 ᄒᆞᆫ 짐썩 꺽어 아지곡 김녕 내려가젠 허민이. 네 참.(고사리 한 짐씩 꺾어서 가지고 김녕 내려가려고 하면. 네 참.) 03 // 네 참 헤나실 거라.(네 참 했을 거야.) 03 [송당]

찻방: 마루와 부엌 사이에 있는 작은 마루이다. // 정지레 가는 디가 또 찻방이렌 헌 디가 이서.(부엌으로 가는 데가 또 '찻방'이라고 한 데가 있어.) 11 // 찻방도 마루주게, 마루방이라, 마루방. 이제도 마리레 들어가곡, 부엌으로 들어가곡 잇수다게.('찻방'도 마루지요, 마루방이야, 마루방. 지금도 마루로 들어가고, 부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34 [구억, 함덕]

창: 물건의 맨 아래 바닥을 말한다. // 경도 허고 저 거시기도 신문도 저 ᄒᆞᆫ두 장쯤 헤영 ᄆᆞᆯ아 가지고 접시에 헤영 톡 세왕 꼭대기로 불을 부치면 ᄎᆞᄎᆞᄎᆞᄎᆞ 카 오라 가민 ᄆᆞᆫ 카근에 확 불을 영 허민 노랑헌 기름이 접시 창에 좀 잇어.(그렇게도 하고 저 거시기도 신문도 저 한두 장쯤 해서 말아 가지고 접시에 해서 톡 세워서 꼭대기로 불을 붙이면 차차차차 타 와 가면 모두 타서 확 불을 이렇게 하면 노란 기름이 접시 바닥에 좀 있어.) 06 [남원]

창감산: 안덕면 창천리와 감산리를 한꺼번에 부르는 표현이다. '창감산이'라고도 한다. // 엿날은 이자 창감산이서 오라근에 이자. 엿날은 그 고기도 경 잘 물곡, 거시기 저 그땐 머 ᄒᆞᆫ 때라노난 잇는디, 지금은 고기가 당추 나끄기 힘듭주기.(옛날은 이자 '창감산'에서 와서 이자. 옛날은 그 고기도 그렇게 잘 물고, 거시기 저 그땐 뭐 한 때라서 있는데, 지금은 고기가 당최 낚기 힘들지요.) 17 [대평]

창감산이: 안덕면 창천리와 감산리를 일컫는다. '창감산'이라고도 한다. // 저 절벤도 옛날엔 손으로, 이 창감산이ᄒᆞ고 열리는 방엣혹에 ᄲᆞᆺ앙 저 절벤을 ᄒᆞ영, 동글동글ᄒᆞ게 ᄒᆞ영 두 개 마주 부쪄, 떡 두 개.(저 절편도 옛날에는 손으로, 이 '창감산이' 하고 '열리'는 방아확에 빻아서 저 절편을 해서, 동글동글하게 해서 두 개 마주 붙여, 떡 두 개.) 17 // ᄆᆞ멀범벅 창감산이 ᄆᆞ멀범벅, ᄃᆞ리 송당 피범벅, ᄃᆞ리 송당 큰애기덜 피범벅.(메밀범벅, '창감산이' 메밀범벅, 교래 송당 피범벅, 교래 송당 큰애기들 피범벅.) 19 [대평, 청수]

창고냥: 고방 등을 밝게 하려고 바람이 통하게 벽에 조그맣게 구멍을 뚫은 구멍으로 달리 '창곰', '창꼼', '창굼'이라고도 한다. // 게난 춤 ᄇᆞᆯ라근에 애기덜 놀렌 허민이 창고냥 ᄆᆞᆫ딱 터지와 불어.(그러니까 침 발라서 아기들 놀라고 하면 창구멍 모두

뚫어 버려.) 02 // 창고냥. 창꼼 영허영 그자.바람 통허거들랑 그자 영 붉게끔 영 허영 그디도 가라스가 엇어도 무시거 뎅기지 못허게 영영영 헤여.('창고냥'. '창꼼' 이렇게 해서 그저. 바람 통하거든 그저 이렇게 밝게끔 이렇게 해서 거기도 글라스가 없어도 무엇 다니지 못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33 [선흘, 인성]

창곰: 고방 등을 밝게 하려고 바람이 통하게 벽에 조그맣게 구멍을 뚫은 구멍으로 달리 '창고냥', '창곰', '창꼼', '창굼'이라고도 한다. // 옛날엔 영 이젠 문 ᄃᆞᆯ아도 옛날엔 창곰 영 비루허게 영 창곰 ᄃᆞᆯ앙 허주게.(옛날엔 이렇게 이젠 문 달아도 옛날엔 '창곰' 이렇게 비루하게 이렇게 '창곰' 달아서 하지.) 13 // 우리 집이 경우, 창곰이 아니고 창꿈을 말허는 거 아인가?(우리 집의 경우, '창곰'이 아니고 '창꿈'을 말하는 거 아닌가?) 15 // 두에 하나 창곰잇어사.(뒤에 하나 '창곰' 있어야.) 16 // 앙팡에 고망 요만은 ᄠᅳᆯ라. 건 무사냐민 공기 통허렌도 창곰. 고망 그거 창곰. 창고가 아니고 창고망.(고방에 구멍 요만큼은 뚫어. 그건 왜냐하면 공기 통하라고도 창구멍. 구멍 그거 창구멍. 창고가 아니고 창구멍.) 25 [대림, 봉성, 삼달, 선흘, 성읍, 수망, 신촌, 청수, 태흥, 토평, 하원, 함덕]

창멕: 두 섬들이 멱둥구미이다. // 밧듸 실러갈 때는 옛날에는 멩텡이 이만씩ᄒᆞᆫ 걸름착이엔 ᄒᆞᆸ니다, 멩텡이ᄀᆞ라. 저 걸름 담는 건 걸름착, 곡석 담는 건 창멕, 뭐 그추룩 ᄒᆞ는디.(밭에 실어갈 때는 옛날에는 망태기 이만큼씩한 '걸름착'이라고 합니다, 망태기보고. 저 거름 담는 건 '걸름착', 곡식 담는 건 '창멕', 뭐 그처럼 하는데.) 08 [동광]

창신: 가죽신이라고 하며, 밑창 겉 바닥에 징을 박고 운두는 얕고 코는 뾰족 내밀게 만든 신이다. // 창신, 창신 우리 신어보지 안ᄒᆞ연, 창신이 가죽신이라.(가죽신, 가죽신 우리 신어보지 안해서, '창신'이 가죽신이지.) 08 // 돈도 싯곡 고급 사름이 창신 신엇수다.(돈도 있고 고급 사람이 가죽신 신었습니다.) 08 [동광]

채경: 맷돌의 맷손에 끼워 돌리거나, 물레에 연결된 나무 자루이다. // 채경 영 낭 이만이 질게 멘들앙 요만인, 요만인 동글락ᄒᆞ게 고망 터주앙, ᄀᆞ레 거세길에 영 톡 디밀롱.('채경' 이렇게 나무 이만큼 길게 만들어서 요만큼, 요만큼 동그랗게 구멍 내서, 맷돌 거시기에 이렇게 톡 들이밀어서.) 08 // 그거 안 ᄀᆞᆯ아냐, 소게 빼는 건 영 헹 이거 ᄒᆞᆫ 착 다리 진진헌 거 시난 거 영 ᄭᆞᆯ앙 앚앙 이착으로 채경을 빙빙 돌당, 돌아가당 그레 영 소게 복삭허게 대민 씰 빠지고 소겐 떨어지주. 경헤근에 빠는 거.(그거 안 말했냐, 솜 빼는 건 이렇게 해서 이거 한 쪽 다리 긴긴한 거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깔아서 앉아서 이쪽으로 '채경'을 빙빙 돌다가, 돌아가다가 그리 이렇게 솜 '복삭'하게 대면 실 빠지고 솜은 떨어지지. 그렇게 해서 빼는 거.) 13 [동광, 삼달]

채경: 수레의 앞쪽으로 양옆에 댄 긴 나무 막대기를 말한다. '차경', '창낭', '챗낭'으로도 불린다. // ᄆᆞᆯ 영 질게 나무. 거 진진허게. ᄆᆞᆯ 새에서 놩 엉구는 거, 것ᄀᆞ라 채경이엔 허여.(말 이렇게 길게 나무. 거 길디길게. 말 사이에서 놔서 '엉구는' 거,

그것보고 ‘채경’라고 해.) 21 [신촌]

척박도레기: 뿔이 뒤로 향한 수소를 말한다. 달리 ‘작박도리쉐’라고도 한다. // 우리 질루던 건 척박도레기라고 이 뿔이 앞으로 안 나서 뒤로 난 거.(우리 기르던 건 ‘척박도레기’라고 이 뿔이 앞으로 안 나서 뒤로 난 거.) 07 [보목]

천리: 천묘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묏자리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이다. // 옛날엔 천리라 헷어. 천리를 헤 와야 천리 헤 오는 거주게. 영 가족 공동묘지 허젠 허민. 이듸저듸 묻엇던 거를 다 천리 헤 와.(옛날에는 ‘천리’라 했어. ‘천리’를 해 와야 ‘천리’ 해 오는 거지. 이렇게 가족 공동묘지 하려고 하면. 여기저기 묻었던 거를 다 ‘천리’ 해 와.) 18 [신도]

천상각: 위로 솟은 소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천상뿔’이라고도 한다. // 옆으로 돋은 건 사름에 이익을 시기곡. 위로 돋은 건 천상뿔이렌 헌 건 천상각이렌 헤가지고.(옆으로 돋은 건 사람에 이익을 시키고. 위로 돋은 건 ‘천상뿔’이라고 한 건 ‘천상각’이라고 해 가지고.) 03 [송당]

천상불이: 말의 한 종류로 얼굴이 오그라진 모양이고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말이라고 한다. // 천상불이라는 것은 사름에 이익을 안 주는 거. 이익을 안 주는 말. 말이 영 오그라진 거.(‘천상불이’라는 것은 사람에 이익을 안 주는 거. 이익을 안 주는 말. 말이 이렇게 오그라진 거.) 03 [송당]

천상뿔: 소뿔이 위로 솟은 모양을 말한다. ‘천상각’, ‘천상뿔이’, ‘천향각’이라고도 한다. // 겨난 영 돋은 건 천상뿔이여 감은쉐뿔이영, 들각뿔이여.(그러니까 이렇게 돋은 건 ‘천상뿔’이다 ‘감은쉐뿔’이다, ‘들각뿔’이다.) 03 // 위로 돋은 건 천상뿔이렌 헌 건 창상각이렌 헤가지고.(위로 돋은 건 ‘천상뿔’이라고 한 건 ‘창상각’이라고 해 가지고.) 03 // 우터레 구짝 돋은 뿔, 천상뿔이라고 헤 가지고 우트레 돋은 뿔도 싯고.(위로 곧게 돋은 뿔, ‘천상뿔’이라고 해 가지고 위로 돋은 뿔도 있고.) 35 // 천상뿔이엔 헤 가지고 우트레 오르는 거.(예. ‘천상뿔’이라고 해 가지고 위로 오르는 거.) 35 [대림, 송당]

천아오름: 한림읍 상대리 마을 남동쪽에 있는 낮은 오름이다. // 천아오름. 것도 그때는 것도 대림이라나십주마는 상대리가 분리뒈면서 것도 상대로 가불고.(‘천아오름’. 그것도 그때는 것도 대림리였습니다만 상대리가 분리되면서 그것도 상대리로 가버리고.) 35 // 그게 우론 가달이 으라 갠디, 천아오름 일대로 내려오는 내가 뜨로 저 그 상대를 거쳐 가지고 우리 대림이영 합수뒈고.(그게 위로는 물길이 여러 개인데 ‘천아오름’ 일대로 내려오는 내가 따로 저 그 상대리를 걸쳐 가지고 우리 대림리랑 합수되고.) 35 [대림]

천왕사: 제주시에 있는 절 이름이다. // 천왕산 골머리광 어승생 사이에 큰 절로 잇곡.(천왕사는 ‘골머리’와 ‘어승생’ 사이에 큰 절로 있고.) 30 // 천왕사 그 절에도이 육지 아이 왕 멧 년 살 때 경헨게 내중에 그 어른 가 부난 그냥 막 헤. 그냥.(천왕사 그 절에도 육지 아이 와서 몇 년 살 때 그러더니 나중에 그 어른 가 버리니까

그냥 막 해. 그냥.) 30 [노형]

천장만장: 아주 높거나 멀리라는 의미로 천 길, 만 길만큼 날뛰거나 도망간다는 말과 쓰인다. // 구르마 끄신 차 천장만장 막 뛰어가민 사름도 상허는 수가 하.(달구지 끄는 채 '천장만장' 막 날뛰어 가면 사람도 상하는 수가 많아.) 11 // 이제 이 사름네 애기덜이 후제 크민 우리 아방네 죽여낫젠 허여근에 지네신디 원수 헌덴 순경덜이 오란이 그 성담 둘른 거영 비석이영 막 ᄆᆞᆺ안 천장만장 던져불어셈.(이제 이 사람네 아기들이 후에 크면 우리 아버지네 죽였었다고 해서 자기네에게 원수 한다고 순경들이 와서 그 성담 두른 거랑 비석이랑 마구 마서 '천장만장' 던져버렸어.) 33 [인성, 함덕]

천장밧: 천장만큼 아주 큰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 반추 막 크민 천장밧듸 허주게. 거 짤라불면 또 나와.(파초 아주 크면 '천장밧'에 하지. 거 잘라버리면 또 나와.) 01 [도련]

천지빗갈: 아주 많다는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천지만지'라고도 한다. // 이북 사름덜이 글도 모른 사름덜이 천지빗갈. 글도 몰랑 이녁 고향에 펜지 썽 보낼 중도 모른 사름덜 다 소게바지짜리덜 오랑인에 양복 입쪄근에 ᄉᆞ못 훈련 ᄀᆞ리쳔.(이북 사람들이 글도 모른 사람들이 '천지빗갈'. 글도 몰라서 자기 고향에 편지 써서 보낼 줄도 모른 사람들 다 핫바지들 와서 양복 입혀서 사뭇 훈련 가르쳤어.) 33 [인성]

천초: 우뭇가사리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우미', '우믜'라고도 한다. // 저 천초 닮은 건데 너풀너풀 헌 거 잇어.(저 우뭇가사리 같은 건데 너풀너풀 한 거 있어.) 18 [신도]

천평지평: 눈에 다래끼가 났을 때 발바닥에 '천평지평(天坪地坪)'을 쓰면 낫는다고 했던 민간요법을 말한다. // 천평지평 쓰곡, 돗통담 가근에 뒤집고.('천평지평' 쓰고, 돼지우리에 가서 뒤집고.) 07 [보목]

천향각: 소뿔이 위로 솟은 모양을 말한다. '천상각', '천상뿔', '천상뿔이'이라고도 한다. // 저, 그 난 잘 모르주마는 그 쉐뿔을. 이, 하늘로 영 올른 건. 천향각. 천향각.(저, 그 난 잘 모르지마는 그 쇠뿔을. 이, 하늘로 이렇게 오른 건. '천향각'. '천향각'.) 29 [외도]

철 구루마: 바퀴가 쇠로 되어 있는 달구지를 말한다. // 철 구루마 헷단에 글후젠 고무 난에 고무 구루말 헷주게. 글후제는.(철 달구지 했다가 그 후엔 고무 나오니까 고무 달구지를 했지. 그 후에는.) 31 [토평]

청: 메밀쌀 따위에 물에 불려 우려낸 물을 말한다. // 청 내영 그 물로 쑤민 청묵.('청' 내서 그 물로 쑤면 '청묵'.) 31 [토평]

청각: 녹조류 청각과의 해조를 말한다. // 청각도 헤영 회헹 먹곡게.(청각도 해서 회해서 먹고.) 04 // 청각은 그 날 철이 이서부난. 오월달 나사, 지금은 안 헤여.(청각은 그 날 철이 있어버려서. 오월 나야 지금은 안 해.) 07 [고성, 보목]

청묵: 메밀쌀을 물과 함께 자루에 담아 놀려서 나온 묽은 물로 만든 묵이다. // 모멀묵엔 청묵허고 그냥 묵이 잇주.(메밀묵엔 '청묵'하고 그냥 묵이 있지.) 01 // 청묵이고

청묵 못 허는 사름은 그대로 영 ᄀᆞ룰 ᄆᆞ물ᄀᆞ룰 헤 가지고 뭴성시프다 허게 물에 카서.(‘청묵’이고 ‘청묵’ 못 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렇게 가루를 메밀가루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물을 타서.) 06 // 묵은 그냥 그 기자 그 묵 종류는 이 기자 그 쑤는 묵도 잇고이 청묵이란 게 잇저.(묵은 그냥 그 그저 그 묵 종류는 그저 그 쑤는 묵도 있고 ‘청묵’이란 게 있어.) 12 // ᄊᆞᆯ 물에 컷당 잘리 잡앙, 잘리 잡앙 담아근엥에 ᄲᆞᆯ아놔근에 쑤민 청묵 뒈고.(쌀 물에 담갔다가 자루 잡아서, 자루 잡아서 담아서 빨아놓아서 쑤면 ‘청묵’ 되고.) 15 [고내, 구억, 남원, 덕수, 도련, 동광, 삼달, 봉성, 성읍, 수망, 세화, 신창, 온평, 태흥, 토평, 표선, 하원, 한동, 함덕]

청방: 마루와 부엌 사이에 있는 작은 마루를 말하는데, ‘족은삼방’, ‘천방’, ‘챗방’이라고 한다. // 청방이 족은 구들 옆에 붙은 게 청방이야.(‘청방’이 작은 구들 옆에 붙은 게 ‘청방’이야.) 09 // 청방이엔 헌 거는 거 부억에서 반찬이나 뭐나 헤 먹으려면 부억에 못 놓으니까 청방에 놓앗다가 가져다가 저 헤 먹는 게 청방이고.(‘청방’이라고 한 거는 거 부엌에서 반찬이나 뭐나 해 먹으려면 부엌에 못 놓으니까 ‘청방’에 놓았다가 가져다가 저 해 먹는 게 ‘청방’이고.) 09 [고산]

청방: 배추의 한 종류이다. // 뭐 지브렌이다 포드렌이다 허는 거는, 청방이다 허는 게 전부 중국서 왓주게.(뭐 ‘지브렌’이다 ‘포드렌’이다 하는 거는, ‘청방’이다 하는 게 전부 중국에서 왔지.) 06 [남원]

청새: 익지 않고 새파란 띠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이와 달리 익은 띠를 ‘황모’, ‘황새’라고 하였다. // ᄆᆞᆯ라야 질겨. 청새는 금방, 금방 삭아 불주게.(말라야 질겨. ‘청새’는 금방, 금방 삭아 버리지.) 36 [봉성]

청신: 신랑, 신부 등이 결혼식 때 신는 신발이다. // 청신이여, 청신. 청신이엔 헤서. 게 새시방 신는 거, 청신. 뭣이옌 ᄀᆞᆯ아서? 그때 새시방 이껑 가는 사름도 셔나난, 그건. 엿날은 거 무당산디, 무시거산디 새시방 이껑 가는 사람도 그 신을 신언 간. 새시방도 신고.(‘청신’이다, ‘청신’. ‘청신’이라고 했어. 그거 새서방 신는 거, ‘청신’. 뭣이라고 말했어? 그때 새서방 이끌고 가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건. 옛날은 그거 무당인지, 무엇인지 새서방 이끌고 가는 사람도 그 신을 신어서 갔어. 새서방도 신고.) 28 [구엄]

청오름: 구좌읍 송당리의 오름 이름이다. // 허물할망 이수게. 또 사라얼도 잇어이. 청오름 아레 앞이.(‘허물할망’ 있잖아요. 또 ‘사라얼’에도 있어. ‘청오름’ 아래 앞에.) 03 [송당]

청촐: 아직 새파란 기운이 살아 있는 꼴을 말한다. // 우리 만약에 농서지레 가젠 허민 청촐 비레 가주게. 쉐 멕여사 뒷날 밧 갈레 갈 거주. 경허민 강 영 청촐이라도 들어강 비노렌 허민 임제가 촐왓디 비지 말렌 경 헹 ᄀᆞᆫ고.(우리 만약에 농사지으러 가려고 하면 ‘청촐’ 베러 가지. 소 먹어야 뒷날 밭 갈러 갈 거지. 그러면 가서 이렇게 ‘청촐’이라도 들어가서 벤다고 하면 임자가 꼴밭 베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말하고.) 31 [토평]

청총이: 총이말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갈기와 꼬리가 파르스름한 백마를 말한다. // 청총이가 일등일 거라. 일 청총, 이 가라. 일 청총, 이 가라. 게도 가라ᄆᆞᆯ이 이등에 가나실걸.('청총이'가 일등일 거야. 일 청총, 이 가라. 일 청총, 이 가라. 그래도 가라말이 이등에 갔었을걸.) 02 [선흘]

청충: 총이말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청충마' 즉, '청총마'를 줄여 부르는 이름이다. // 삼 월라, ᄉᆞ 월라. 저 오 청충. 청춘이옌 헌 ᄆᆞᆯ이 잇어.(삼 '월라', 사 '월라'. 저 오 '청총'. '청총'이라고 한 말이 있어.) 14 [성읍]

청충이: 총이말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몸의 색깔이 흰색 털과 검은색 털이 섞어진 말을 말한다. // 청충이가 ᄆᆞᆯ 색깔이 두 개엔 헌 말이주.('청총이'가 말 색깔이 두 개라고 한 말이지.) 14 // 똑 이 노리 색깔 모냥으로 흰 털 박아지고 검은 털 박아지고, 게난 청충이도 두 가지라.(꼭 이 노루 색깔 모양으로 흰 털 박히고 검은 털 박히고, 그러니까 총이말도 두 가지야.) 14 [성읍]

청콩: 콩의 일종이다. 달리 '푸린콩'이라고 한다. 표준어로는 '푸르대콩', '청대콩' 따위로 부른다. // 헤영헌 청콩에 저 무신 흰콩엔 헤연 홁은홁은헌 콩 잇고.(하얀 청대콩이라고 저 무슨 흰콩이라고 해서 굵디굵은 콩 있고.) 14 // 청콩이 푸린 거.(청대콩이 푸른 거.) 14 [성읍]

청태: 콩의 일종이다. 콩 색깔이 푸른 색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 콩 종류가 상당이 많은데 그건 나도 몰르커라. 청태니 뭐니 청태 뭐 은대두 뭐. 아이고, 나도 이젠 ᄆᆞᆫ딱 잊어불엇네.(콩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건 나도 모르겠어. '청태'니 뭐니 '청태' 뭐 '은대두' 뭐. 아이고, 나도 이젠 몽땅 잊어버렸네.) 01 [도련]

체시: 저승사자(使者)를 말한다. // 육학년 마탄에 하간 거 먹을 거, ᄉᆞᄆᆞᆺ 졸입ᄒᆞ난 학생들게 무신거 사단 먹으멍, 선셍들 대접허젠 ᄆᆞᆫ 사오란, 먹는 가운데 어떵 헨에 밥 헹 주젠, 반찬이영 막 헨에 어떵 어떵 허단 보난에 아이는 어떵 헨에, 그때 체시난ᄀᆞ라 데영, 데영.(육학년 맡아서 여러 가지 먹을 거, 사뭇 졸업하니 학생들 무엇 사다 먹으면서, 선생들 대접하려고 모두 사와서, 먹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 밥 해서 주려고, 반찬이랑 막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아이는 어떻게 해서, 그때 '체시'났는지 데어서, 데어서.) 07 [보목]

체시질: 병 종류의 하나이다. // 아이가 막 그냥 의지헐 곳 갑제기 죽어 불곡 허난, 그냥 친언니 ᄀᆞ치 살단 죽어 부난 얼마나 서럽고 정말로 뭐 헐 거라게. 막 울어져렌게. 겐디 오꼿 체시질에 걸어젼게.(아이가 아주 그냥 의지할 곳 갑자기 죽어 버리고 하니까, 그냥 친언니 같이 살다가 죽어 버리니까 얼마나 서럽고 정말로 뭐 할 거야. 마구 울게 되더라고. 그런데 그만 '체시질'에 걸렸어.) 30 [노형]

체우치다: 멍석, 그물 따위 안에 들어 있는 것을 걷어 모으는 것을 말한다. // 삼일씩 그 멍석 페와놔근에 그거 헤근에 하루 두 번, 세 번 체우쳐근에 또 널엉 또 해가 저만인 가민 ᄒᆞᆫ 번 체우쳥 이제 또 널엉 그치룩 하멍 삼일 동안 말려근에 기곗방

에 가근에 그 ᄀᆞᆯ아근에 보리쌀.(삼일씩 그 멍석 펴놓아서 그거 해서 하루 두 번, 세 번 '체우쳐서' 또 널어서 또 해가 저만큼 가면 한 번 '체우쳐서' 이제 또 널어서 그처럼 하면서 사흘 동안 말려서 방앗간에 가서 그 갈아서 보리쌀.) 05 // 멍석에 널엉 체우치멍 헤근에 ᄒᆞᆫ 이삼일 ᄆᆞᆯ랴근에 기곗방에 가근에 거 ᄀᆞᆯ아다근에 그 체는 그 ᄀᆞᆯ멍 나온 체는 도새기.(멍석에 널어서 '체우치면서' 해서 한 이삼일 말려서 방앗간에 가서 갈아다가 그 겨는 그 갈면서 나온 겨는 돼지.) 05 // 족바진 그냥이라도 들 수 잇주만은 사둘은 체우쳐야.(뜰채는 그냥이라도 들 수 있지만 사둘은 한쪽 끝을 들어 올려야.) 20 [고내, 표선]

체크: 여기서는 '트집 잡는'의 의미로 쓴 것 같다. // 처음 갈 때는 전주가 열ᄋᆞ덥 설에 뭐 허레 감시닌 체크 거놓렌 헤난 애기 ᄃᆞᆯ레 가는 걸로 헤여근에 그땐 막 저 경비선 나와근에게 ᄌᆞᆷ수덜 단속허여서양.(처음 갈 때는 전주가 열여덟 살에 뭐하러 가고 있느냐고 '체크' 거노라고 하니까 아기 돌보러 가는 걸로 해서 그땐 막 저 경비선 나와서 잠수들 단속했어요.) 23 [온평]

쳇데기: 탕건을 결을 때 '탕건골'을 받치는 데 쓰이는 도구이다. 여기서는 '겅그레' 용도로 사용되는 체를 말한다. // 갓은 이거 갓. 모저 위이. 이거 쳇데기. 이 탕건 놩 허는 거ᄀᆞ라 쳇데기.(갓은 이거 갓. 모자 위에. 이거 골걸이. 이 탕건 놓고 하는 것 보고 골걸이.) 02 // 이거 탕건골인디 요 쳇더귀 놧단 것이 탕건 졸루는 것이 이서이.(이거까지는 우리가 안 했었는데 그러면 다 이것이 다 되면은 이거 '탕건골'인데 요 '쳇더귀' 놨다가 그것이 탕건 조이는 것이 있어.) 11 // 쳇데기 그거 허영 그거에 아래 놔놩 그 우이 영 이추룩 꾸며.('쳇데기' 그거 해서 그거 아래 놔서 그 위에 이렇게 이렇게 꾸며.) 11 [선흘, 함덕]

쳇방: 마루에서 부엌으로 통하는 곳에 위치한 조그마한 마루를 말한다. // 작은방 잇고, 쳇방이라고 부억 저런 저, 저 우리 부억에 모냥으로.(작은방 있고, '쳇방'이라고 부엌 저런 저, 저 우리 부엌에 모양으로.) 20 // 정지, 쳇방으로 들어가서 정지에 가는 거니까 출입허는 곳이 쳇방이고 살레옌 헌 건 그릇 놓는 지금 저 씽크대라는 거.(부엌, '쳇방'으로 들어가서 부엌에 가는 거니까 출입하는 곳이 '쳇방'이고 '살레'라고 한 건 그릇 놓는 지금 저 싱크대라는 거.) 21 // 삼칸집이고 ᄉᆞ칸집이고 쳇방은 ᄯᆞ로 잇어.(삼간집이고 사간집이고 '쳇방'은 따로 있어.) 34 // 부억광 마리 사이에, 그게 쳇방.(부엌과 마루 사이에, 그게 '쳇방'.) 34 [고내, 구억, 신촌]

초감제: 제주도 굿제차에서 천지개벽의 내용을 담은 무가로 청신의례를 말한다. // 성주 낼 때는 이제 심방 헤근에 이제 모든 이제 조상들 청헤여근에 막 머 초감제 머 큰굿 다 헤놔근에.(성주 낼 때는 이제 '심방' 해서 이제 모든 이제 조상들 청해서 아주 뭐 '초감제' 뭐 큰굿 다 해놔서.) 16 [하원]

초라니: 하회 별신굿 탈놀이에 등장하는 인물의 하나로, 행동거지가 가볍고 방정맞은 하인이다. // 난이 그것도이 ᄂᆞᆷ보단 먼저 초라니ᄀᆞ찌 알아.(난 그것도 남보다 먼저

'초라니'같이 알아.) 33 [인성]

초랍다: '떫다'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경 안 허민 초라와. 게난 경 뿔아근엥게 썰엉 그것도 메루치나 쪼금 놓곡 장물이나 놓고 경 허민 그것도 맛잇어.(그렇게 안 하면 떫어. 그러니 그렇게 빨아서 썰어서 그것도 멸치나 조금 넣고 장물이나 넣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맛있어.) 18 [신도]

초ᄒᆞ루보름: 삭망제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장례를 치르고 음력으로 초하루와 보름에 제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 아들 죽엉 짚뎅이를 놓을 자리를 구하라. 어떵 노상에서 초ᄒᆞ루보름을 ᄒᆞ게 뒈엇으니까.(아들이 죽어서 상장을 놓을 자리를 구해라. 어떻게 노상에서 '초ᄒᆞ루보름'을 하게 되었으니까.) 03 [송당]

초ᄒᆞ를보름: 초하루와 보름을 한꺼번에 이르는 말이다. // 경 헤연 돌아가셔신디 저 거기서 이제 엿날은 초ᄒᆞ를보름 섹일허곡 대소상 다 헤나신디 지금은.(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저 거기서 이제 옛날은 초하루보름 삭망하고 대소상 다 했었는데 지금은.) 29 [외도]

촐 베는 소리: 꼴을 베면서 부르는 노동요를 말한다. // 호미로 앚아서 촐 베는 소리.(낫으로 앉아서 '촐 베는 소리'.) 10 // 촐 베는 소린 막 잘허는 사름이 ᄒᆞᆫ 동네 ᄒᆞᆫ 멧 어른이 이시나 마나 헤. 우리 동네도 야네 아부지나벳긔 없어.('촐 베는 소리'는 아주 잘하는 사람이 한 동네 한 몇 어른이 있으나 마나 해. 우리 동네도 얘네 아버지나밖에 없어.) 30 [노형, 월령]

촐 비는 소리: 늦가을에 한 해 동안 마소에게 먹일 꼴을 산간에 있는 꼴밭에서 베면서 부르는 노동요이다. '촐 비는 홍애기'라고도 한다. // 할무니덜 멧 사름 빌엉 가믄 할무니덜이 촐 비는 소리 잘허는 어른덜은 그렇게 잘 헙니다게.(할머니들 몇 사람 빌어서 가면 할머니들이 '촐 비는 소리' 잘하는 어른들은 그렇게 잘 합니다.) 34 [구억]

촐눌: '촐+눌' 구성으로, '촐'은 표준어 '꼴', '눌'은 표준어 '가리'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 촐눌도 눌고 짇을커도 헹 눌고 다 해. 출눌도 하나 두 개라? 조칩눌도 잇고 콩눌도 싯고 헤불민.(꼴가리도 가리고 땔감도 해서 가리고 다 해. 꼴가리도 하나 두 개니? 조짚가리도 있고, 콩대가리도 있고 해버리면.) 11 // 촐눌 우연에 눌주, 우연에. 쉐막, 쉐막 가까운 디.(꼴가리 터앝에 가리지, 터앝에. 외양간, 외양간 가까운 데.) 14 // 촐눌은 ᄯᅳ로 누는디 보리낭은 거의 도새기 집 우이 눌어.(꼴가리는 따로 가리는데 보릿짚은 거의 돼지 집 위에 가려.) 26 [성읍, 신창, 함덕]

촐눌굽: 꼴을 가릴 수 있게 바닥에 둥그렇게 돌 따위로 깔아놓은 바닥을 말한다. // 쉐 먹이. 그걸 그건 지정뒈 잇엇어. 어느 집이든지. 촐눌굽이라고 헤가지고.(소 먹이. 그걸 그건 지정되어 있었어. 어느 집이든지. '촐눌굽'이라고 해가지고.) 01 [도련]

촐막: 꼴 베는 철에 꼴 베는 사람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처를 말한다. // 촐막엔 허영 ᄂᆞ려와 불민은 일헐 시간이 엇주게.('촐막'이라고 해서 내려와 버

리면 일할 시간이 없지.) 29 [외도]

촐밧: 마소의 사료인 꼴을 가꾸는 밭을 말하며, '촐왓'이라고도 한다. // 촐밧이 강 그 새ᄀᆞ튼 거 잇지? 그거 비엉 ᄒᆞᆫ ᄉᆞ흘 ᄆᆞᆯ령 무껑 그걸로 소 멕여.(꼴밭에 가서 그 새 같은 거 있지? 그거 베어서 한 사흘 말려서 묶어서 그걸로 소 먹여.) 09 [고산]

촐테: 꼴의 부스러기 등을 말한다. // 옛날에 촐테 올르민 목욕을 매날 헤졋수과?(옛날에 '촐테' 오르면 목욕을 매일 할 수 있었습니까?) 13 // ᄀᆞ랍곡게 촐테 올랑.(가렵고 '촐테' 올라서.) 13 [삼달]

총사발: 탕건을 견기 위해 총을 물에 담가 놓는 그릇을 말한다. // 총사발은 그냥 저런 사발 아무거라도 영 컹.('총사발'은 그냥 저런 사발 아무것이라도 이렇게 담가서.) 11 [함덕]

총체: 말의 갈기나 마소의 꼬리털로 만든 체인데, 쳇불을 가늘게 짠 '가는체'를 말한다. // ᄊᆞᆯ 받아다가 맷돌에 ᄀᆞᆯ아가지고 총체로 쳐가지고 이젠 쑤는 거야.(쌀 받아다가 맷돌에 갈아가지고 '총체'로 쳐가지고 이젠 쑤는 거야.) 01 // 갈아근에 체로 총체로 쳐가지고 이젠 그 가를을 헤가지고 막걸리를 가져당 부어놩 경 헤영 만드는 거.(갈아서 체로 '총체'로 쳐가지고 이젠 그 가루를 해가지고 막걸리를 가져다가 부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 01 // 대거름체, 거름체, 총체 걸로 치민, 총체는 ᄀᆞ루 나오곡, 대거름체는 홁은 대거름체, ᄌᆞᆷ진 대거름체 ᄒᆞᆸ니다.(대체, '거름체', '총체' 걸로 치면, '총체'는 가루 나오고, '대거름체'는 굵은 '대거름체', 가는 '대거름체' 합니다.) 17 [고내, 대평, 도련]

총칼: 탕건을 견는 말총을 자르기 위한 작은 칼이다. // 총칼은 또 요추룩 이제 네귀난 거, 영. 뽀쭉허영 이추룩 민짝 안 헤 가지고 요 지레미 헌 거 헤 가지고. 총을 이제 끄차지나 어떵 ᄆᆞ칠 때는 톡허게 총칼로 그차.('총칼'은 또 이처럼 이제 네모난 거, 이렇게. 뾰족해서 이렇게 평평하지 않아 가지고 요 길이 한 거 해 가지고. 총을 이제 잘라지거나 어떻게 마칠 때는 톡하게 '총칼'로 끊어.) 02 [선흘]

추니: 술 따위를 담는 준(罇)이다. 기다랗게 둥그스름하며 위아래는 끝이 차차 가늘어진 모양이며, 밑은 앉혀지게 되고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은 모양이다. // 옛날엔 부제 칩인양, 추니로 ᄒᆞ나썩 담앙 먹곡 가난헌 사름은 자리젓도 엇엇낫수게게.(옛날엔 부잣집은요, '추니'로 하나씩 담가서 먹고 가난한 사람은 자리젓도 없었습니다.) 13 // 이제 ᄯᆞ로 팔월 낭 ᄀᆞ실 들어가민 장물 ᄯᆞ라 놩 항아리레, 추니레 ᄯᆞᆯ라 놓민 이젠 뒌장은 딱딱ᄒᆞ게 놔뒀당, 뒌장은 그 항아리에서 거리멍 사발이고 보시고 ᄋᆞ경 거리멍 먹곡.(이제 따로 팔월 되서 가을 들어가면 간장 따라 넣어서 항아리에, '추니'에 따라 넣으면, 이젠 된장은 딱딱하게 놔뒀다가, 된장은 그 항아리에서 뜨면서 사발이고 보시기고 가져서 뜨면서 먹고.) 17 // 그 추니옌 ᄒᆞᆫ 것이 장물 거리는 추니라.(그 '추니'라고 한 것이 간장 거리는 '추니'야.) 17 [구억, 대평, 삼달]

추다: 불 등을 쬐다는 뜻이다. // 셀벡 ᄒᆞᆯ 높은 딘 거기로 헹 불 ᄉᆞᆷ안 추곡 경 헷주게.(석벽 조금 높은 데는 거기로 해서 불 때서 쬐고 그렇게 했지.) 04 [고성]

추렴: 모임이나 놀이 또는 잔치 따위의 비용으로 여럿이 각각 얼마씩의 돈을 내어 거둠을 말한다. 명절 때나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돼지를 잡아 알맞게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 도새기도 질루당. 올케 추렴이나 허민 ᄒᆞᆯ 갈라당 먹어지곡. 경 안 허민 도새기궤기 꼴을 봐수꽈게?(돼지도 기르다가. 올케 '추렴'이나 하면 조금 갈라다가 먹어지고. 그렇게 안 하면 돼지고기 꼴을 봤습니까?) 04 // 궤기 옛날엔 궤기 일 년 넘어가도 추렴 ᄒᆞᆫ 번 안 헤낫저.(고기 옛날엔 고기 일 년 넘어가도 추렴 한 번 안 했었어.) 12 // 옛날엔이 소 거튼 거, 소고기 거튼 건 미릿에 추렴을 헌다.(옛날엔 소 같은 거, 소고기 같은 건 미리 추렴을 한다.) 12 [고성, 송당, 한동]

추록: '같이', '처럼'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모양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조사다. // 이추록 게민 고팡에 들어가는 고팡문.(이처럼 그러면 고방에 들어가는 고방문.) 16 [하원]

추리다: 특별히 칭찬해 올리다는 의의 제주어이다. // 우리 할머니네ᄒᆞ곡 일굽 새, 일굽 새 미녕 잘 쫀덴 나 막 추려 받고 나 ᄎᆞᆷ ᄂᆞᆷ의 말 ᄀᆞᆯ아낫어.(우리 할머니네 하고 일곱 새, 일곱 새 무명 잘 잣는다고 나를 매우 '추려' 받고 나 참 남의 말 말했었어.) 15 [수망]

추물: 굿을 할 때 신에게 올리는 제물을 말한다. // 진 바쁘니까 지 헤 주켄 허는 말은 안 허곡게. 난 들어보도 못허곡게. 경 ᄀᆞᆯ으멍 헹 허길래 아이고, 게민 추물은 뭐 뭐 듭니까, 허난 뭐 뭐 헤근에 허영 당장 빌어 주지 안허민 안 뒈켄 허는 거라.(자기는 바쁘니까 자기 해 주겠다고 하는 말은 안 하고. 난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해서 하길래 아이고, 그럼 '추물'은 뭐 뭐 듭니까, 하니까 뭐 뭐 하고 해서 당장 빌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거야.) 30 [노형]

추분하다: '건지다' 또는 '보충하다'는 의미의 제주어이다. 손해 본 것이나 투자한 밑천 따위를 도로 찾는다는 뜻이다. // 지금 게난 지금 돈 엇엉에 노름을 못허니까 사름 미처질 지경입디다게. 우리 씨어머니가예. 약ᄒᆞᆫ 할망이라. 추분ᄒᆞ젠.(지금 그러니까 지금 돈 없어서 노름을 못하니까 사람 미쳐질 지경입디다. 우리 시어머니가요 약한 할머니이야. '추분'하려고.) 22 [우도]

추사관: 대정읍 안성리에 있는 제주추사관을 이르는 말이다. // 수월이물이엔 헌 딘 요 추사관으로 우터레 가민 저 못물이 이서. 그디 먹는 물도 잇곡 헤도 오래 ᄀᆞᆯ르질 안헤여. 죽은 땅이라부난.('수월이물'이라고 한 덴 요 추사관으로 위로 가면 저 연못물이 있어. 거기 먹는 물도 있고 해도 오래 고이질 않아. 죽은 땅이라서.) 33 [인성]

축담: 집채 둘레에 돌로 쌓은 담을 말한다. // 물허벅 그 보관허는 그 집 앞에 그 축담에 부쪙 그건 논다.('물허벅' 그 보관하는 그 집 앞에 그 '축담'에 붙어서 그건 놓는

다.) 12 // 부로크라든지 저 넹가돌 쌓은 데를 그 큰 담 돌쳉이덜이 귀 바르게 벌르믄 그 돌을 겆당 축담을 쌓아십주.(블록이라든지 저 블록 쌓은 데를 그 큰 담 석공들이 귀 바르게 깨면 그 돌을 갖다가 축담을 쌓았습지요.) 35 // 축담을 헐엉 글로 도둑 들엉 쌀도 퍼 가니까 걸 못허게 허기 위헤서 축담 안으로 나무를, 이런 축담 셔도 사름 들어 다니지 못허게 나무를 세워낫수다.(축담을 헐어서 거기로 도둑 들어서 쌀도 퍼 가니까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축담 안으로 나무를, 이런 축담 있어도 사람 들어 다니지 못하게 나무를 세웠었습니다.) 35 [대림, 한동]

축바람: 흙 따위를 겉으로 발라 막은 방의 칸막이를 말한다. // 축바람, 이거 축바람, 축바람 헤, 엿날. 옆축 헤사뒐 거.('축바람', 이거 '축바람', '축바람' 해, 옛날. 옆축 해야할 거.) 25 [태흥]

축ᄇᆞ름: 바람벽의 의미인 제주어이다. 돌과 흙 따위로 둘러막은 집의 둘레. 또는 흙 따위를 겉으로 발라 막은 방의 칸막이이다. // 축ᄇᆞ름 거튼 건 거 상뒤, 그땐 상뒤엔 헷주. 상뒤가, 상뒤가 와 가지고서 처음 초불 ᄇᆞᆯ르는 거 헤 준다. 그 흑질허는 날.('축ᄇᆞ름' 같은 거 건 거 '상뒤', 그땐 '상뒤'라고 했지. '상뒤'가, '상뒤'가 와 가지고서 처음 초벌 바르는 거 해 준다. 그 흙질하는 날.) 12 // 온 집안을, 게면은 그 축ᄇᆞ름을, 흑 꿰 가지고 그 축ᄇᆞ름을 다 ᄇᆞᆯ라. 겨민 이제 ᄇᆞᆯ랑 이제 문도만 내 둰. 그 흑으로 다 ᄇᆞᆯ라.(온 집안을, 그러면은 그 바람벽을, 흙 이겨 가지고 그 바람벽을 다 발라. 그러면 이제 발라서 이제 '문도'만 내 두고. 그 흙으로 다 발라.) 36 [봉성, 한동]

축일당: 제일이 축일인 당을 말한다. // 우리도 할머니 살아계실 때는 저 축일 본향이라고 축일당이라고 헤가지고 여기는 입춘 후 첫 축일 날. 경 헹 강 제지내고 고사헤근에 헌 비념허곡 다 헷는디.(우리도 할머니 살아계실 때는 저 축일 본향이라고 '축일당'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입춘 후 첫 축일 날. 그렇게 해서 가서 제지내고 고사해서 한 기원하고 다 했는데.) 32 [덕수]

춘: 술을 담는 준을 말하는데 '추니'라고도 한다. // 술 춘인이 제국 시절에, 술 춘도 어디덜 이실 거여.(술 '춘'은 제국 시절에, 술 '춘'도 어디들 있을 거야.) 02 // 술 춘이 저 그저 술 ᄇᆞ듯 나오게시리 헤영 모게기 영 ᄌᆞᆯ르게 헤영 버구기 딱 막앙.(술 '춘' 이 저 그저 술 조금 나오게끔 해서 모가지 이렇게 짧게 해서 '버구기' 딱 막아서.) 02 // 술 ᄒᆞᆫ 춘에 ᄊᆞᆯ 한 가멩이.(술 한 준에 쌀 한 가마.) 03 [선흘, 송당]

춘세멕히다: 몹시 혼이 난 일을 당하여 할 말을 잃거나 아무 생각이 나지 않다는 뜻이다. '중치멕히다', '억바치다'라고도 한다. // 치료는 뚜렷한 건 기억 안 나고. 그거 춘세멕혓덴은 허는디, 아이들추룩.(치료는 뚜렷한 건 기억 안 나고. 그거 '춘세멕혓덴'은 하는데, 아이들처럼.) 07 [보목]

춘양참웨: 참외씨가 일본산으로, 참외 종류의 하나이다. // 씨는 저 질 씨 한 건 이 저 일

본, 그 춘양참웨옌 헤 가지고 이건 보믄 춘양웨옌 헤도 일산이라마씨.(씨는 저 제일 씨 많은 거는 이 저 일본, 그 '춘양참웨'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보면 '춘양웨'라고 해도 일본산이에요.) 28 [구엄]

치: 사냥 할 때 만들어 놓은 장치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이 저 셍이 테기ᄒᆞ곡. 그 말총으로 치 멘글아근에.(이 저 새 '테기'하고. 그 말총으로 '치' 만들어서.) 04 [고성]

치근허다: 밥이 찰기가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밥 먹는 건 줄보리 쏠이 저 치근허고 ᄒᆞ쏠 촙쏠거치.(밥 먹는 건 '줄보리' 쌀이 저 '치근하고' 조금 찹쌀같이.) 31 [토평]

치까데비: 문맥상으로 보아 일본에서 발가락양말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인 것 같다. // 저 발ᄀᆞ락 영 헤진 치까데비 헹 신곡 이디ᄁᆞ장 영 무끄는 거 일본 사름덜 하듯이 총 가져근에 풩 쏘레 뎅겨낫어.(저 발가락 이렇게 해진 '치까데비' 해서 신고 여기까지 이렇게 묶는 거 일본 사람들 하듯이 총 가져서 풩 쏘러 다녔었어.) 05 [표선]

치랑치랑: 길게 드리운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 메역이 잘도 좋안 이만씩 헌 메역이 치랑치랑.(미역이 잘도 좋아서 이만큼씩 한 미역이 '치랑치랑'.) 11 [함덕]

치릉치릉허다: 호미가 땅에 부드럽게 잘 들어가는 모양을 흉내 낸 말이다. // 골갱이가 치릉치릉허주게, 좋은 밧딘 경허민 조도 여물곡.(호미가 '치릉치릉하지', 좋은 밭엔 그러면 조도 여물고.) 13 [삼달]

치메깍: 표준어 '치맛자락'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치메깍은 이거 뒷테 끗 이거 돌아오는 거.(치맛자락은 이거 뒤로 끝 이거 돌아오는 거.) 16 [하원]

치선메: 아기를 분만한 다음 아기의 생육을 관장한다는 삼승할망을 위한 할망상에 올리는 메이다. // 할망상은이 ᄀᆞᆺ 나민 이제 고맙수뎅 헤영 할마님신듸, 불도할마님신듸 치선메엔 허영 올려.('할망상'은 갓 나면 이제 고맙다고 해서 할머님께, 불도할머님께 '치선메'라고 해서 올려.) 02 [선흘]

칙광: 한쪽 구석에 있는 측광을 말한다. // 우리두 칙광엔 것도 이 돌아가멍 그 클을 매 집에 안 놩.(우리도 '측광'엔 것도 이 돌아가며 그 틀을 매 집에 안 놓아.) 07 [보목]

친거리: 끈을 만드는 재료의 뜻이나 여기서는 '끈'을 말한다. // 그런 건 엇고 그 일본 시대에 그 가반 거튼 거이 그런 건 제비 뽑앙 나와라. 나오민 제비 뽑앙 나도 그 군인덜 지는 거 닮은 거게. 친거리 주랑주랑 가반. 가반 나완에 나도 타낫저.(그런 건 없고 그 일본 시대에 그 가방 같은 거 그런 건 제비 뽑아서 나오더라. 나오면 제비 뽑아서 나도 그 군인들 지는 거 같은 거. 끈 주렁주렁 가방. 가방 나와서 나도 탔었어.) 26 [신창]

친떡: 시루떡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떡가루에 콩이나 팥 따위를 섞어 시루에 켜를 안치고 찐 떡을 말한다. '찐떡', '침떡', '시리떡'이라고도 한다. // 이딘 곤떡 허고, 주로

제ᄉᆞ 때 허는 거는 그 셍펜허고 새미허고 친떡허고 지름떡허고.(여긴 흰떡 하고, 주로 제사 때 하는 거는 그 송편하고 '새미'하고 시루떡하고 기름떡하고.) 02 // 그 친떡은 어떤 거냐, ᄑᆞᆺ 놩 무친 떡이 친떡이고이.(그 시루떡은 어떤 가냐, 팥 놓고 묻힌 떡이 '친떡'이고.) 06 // 떡도 두 빗 다 헹 올리는 디, 따시 또 올리는디, ᄒᆞᆫ 빗이민 영 반 빗 올령 짝글르게 친떡도 올리주만은 이젠 친떡은 그자 두 빗 올려.(떡도 두 '빗' 다 해서 올리는데, 다시 또 올리는데, 한 '빗'이면 이렇게 반 '빗' 올려서 '짝글르게' 시루떡도 올리지만 이젠 시루떡은 그저 두 '빗' 올려.) 13 // 알착 우착 흐린 거 좁썰 우에 부찐 거. 친떡엔만 ᄀᆞᆯ으난.(아래쪽 위쪽 차진 거 좁쌀 위에 붙인 거. 시루떡이라고만 말하니까.) 14 [남원, 삼달, 선흘, 성읍]

친제: 제사를 그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3대까지 제사를 지내고 그 윗대의 조상의 제사를 묘제로 지낸다. // 친제헤비엇젠 헤근에 그 하르방덜은 따시 또 ᄆᆞᆯ 메와놓민 옛날은 그 제가 모제라고 드르에 강 제지내주게.('친제'해버렸다고 해서 그 할아버지들은 다시 또 말 키우면 옛날은 그 제가 묘제라고 들에 가서 제지내지.) 13 [삼달]

칠삭동산: 제주시 외도동의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여기도 우리 집사름도 씨집완 이 칠삭동산 어디 솔입 긁으레 잘 뎅겻어.(여기도 우리 집사람도 시집와서 이 '칠삭동산' 어디 솔잎 긁으러 잘 다녔어.) 29 [외도]

칠성: 집안의 부를 관장하는 신으로 뱀 신을 말하며 '안칠성'과 '밧칠성'의 민간신앙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 누게 주도 아녀곡, 칠성에 암팡 지커는 질서.(누구 주지도 안하고, 칠성에 고방 지키는 질서.) 07 // 그건 칠성이엔 헤 가지고. 이 베염을 칠성이라고 헌다.(그건 '칠성'이라고 해 가지고. 이 뱀을 '칠성'이라고 한다.) 12 // 고팡엔 조왕에 허곡 이 안네 모시는 사름 칠성.(고방엔 조왕에 하고 이 '안네' 모시는 사람 칠성.) 12 // 주젱이 헤근에 영 뒤에 헤근에 만들앙 칠성 모시는 집이 잇어낫수다.(주저리 해서 이렇게 뒤에 해서 만들어서 '칠성' 모시는 집이 있었습니다.) 16 // 칠성은예, 칠성은 함불로 손을 대는 거 아니.('칠성'은요, '칠성'은 함부로 손을 대는 거 아니.) 20 [고내, 남원, 대림, 보목, 봉성, 삼달, 토평, 하원, 한동]

칠성눌: 집안의 부귀와 영화를 가져다준다는 칠성을 모시는 주저리의 제주어이다. // 그건 이 우리 ᄆᆞ을에도 보문 ᄒᆞᆫ 멧 집이 그런 칠성눌을 헤근에.(그건 이 우리 마을에도 보면 한 몇 집에 그런 '칠성눌'을 해서.) 16 [하원]

칠성맞이: 성주받이를 할 때 지내는 제의 하나이다. // 성줄 내젠 허면은 뭐 앚은제도 앚은제 부쳥도 허고 일월제도 허고 칠성맞이도 허고.(성주를 내려고 하면 뭐 '앚은제'도 '앚은제' 붙여서도 하고 '일월제'도 하고 '칠성맞이'도 하고.) 31 [토평]

칠성제: 칠성신에게 지내는 제를 말한다. // 칠성제는이 이제 첨 복 엇인 사름 복도 빌어줍센, 멩 엇인 사름 멩도 빌어줍서, 헤영 막 큰제라.('칠성제'는 이제 참 복 없는

사람 복도 빌어주세요, 명 없는 사람 명도 빌어주세요, 해서 막 큰 제야.) 02 // ᄌᆞ식들 무사안녕이나 집안의 모든 곡식 모든 걸 무사안녕 하기 위해서는 칠성제를 합니다.(자식들 무사안녕이나 집안의 모든 걸 무사안녕하기 위해서는 '칠성제'를 합니다.) 03 // 고팡제가 일월제주게. 이 저 칠성제가 고팡제주.('고팡제'가 '일월제'지. 이 저 '칠성제'가 '고팡제'지.) 31 [선흘, 송당, 신창, 토평]

칠수: 이롭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말의 나이 일곱 살을 일컫는다. // 금승, 이수, 두 설짜린 이수주게. 이수, 삼수, 오수. 오수, 육수, 칠수, 팔수, 구수, 십수엔 헷네.(하릅, 이듭, 두 살짜린 '이수'지. 이듭, 사릅, 다습. 다습, 여습, '칠수', '팔수', '구수', '십수'라고 했어.) 01 [도련]

칠월절: 음력 7월의 절기인데 제보자는 소서인 7월7일 전후라고 하고 있다. // 망종, 소서. 소서가 그 저 칠월절이라고 허는 절긴디 소서.(망종, 소서. 소서가 그 저 '칠월절'이라고 하는 절긴데 소서.) 29 // 포제만은 허는디 이제 칠월 들어 가지고 음력 저 칠월절 들엉은에 첫 에, 정일이나 해일 택헤서 이제 포제를 허는데 그 포제가 연유뒌 연대는 아메도 ᄒᆞᆫ.(포제만은 하는데 이제 칠월 들어 가지고 음력 저 '칠월절' 들어서 첫 에, 정일이나 해일 택해서 이제 포제를 하는데 그 포제가 연유된 연대는 아마도 한.) 29 [외도]

침: 조 잎의 모양이 침처럼 뾰족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용어이다. '침'은 '작박' 사이로 나온 뾰족한 잎을 가리킬 때 부르는 이름이다. // 작박 뒈영 다음 나오는 게 작박에 침 질럿저 허주.('작박' 되어서 다음 나오는 게 '작박'에 '침' 찔렀지 하지.) 14 [성읍]

침떡: 시루떡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떡가루에 콩이나 팥 따위를 섞어 시루에 켜를 안치고 찐 떡을 말한다. 달리 '찐떡', '시리떡', '친떡', '침떡'이라고 한다. // 거 침떡이라고 허지, 침떡, 시리떡이영 같은 거고.(거 시루떡이라고 하지, 시루떡, 시루떡과 같은 거고.) 09 // 아까 침떡이엔 ᄒᆞᆫ 게 시루떡이라.(아까 '침떡'이라고 한 게 시루떡이야.) 16 // 침떡, 새미떡 옛날에 뭐 솔변 절변 이렇게 잇엇주게.(시루떡 '새미떡' 옛날에 뭐 '솔변', 절편 이렇게 있었지.) 18 // 옛날에도 시리떡이엔 헷저게. 시리 침떡. 옛날에도 시리떡, 시리떡 헷저. 시리가 동글랑헌 거 구멍 난 거 시난 그것에 치난 시리떡.(옛날에도 시루떡이라고 했어. 시루 시루떡. 옛날에도 시루떡, 시루떡 했어. 시루가 동그란 거 구멍 난 거 있으니까 그것에 찌니까 시루떡.) 31 [고산, 신도, 토평, 하원]

침술: 갈치를 낚는 줄을 말한다. // 갈치는 침술이라고 해서 건 바로 제라헌 거주. 갈치가 멧 개 물어도.(갈치는 '침술'이라고 해서 그건 바로 제대로된 거지. 갈치가 몇 개 물어도.) 11 [함덕]

칫거리: 매듭단추를 가리키는 것이다. // 소미도 이만은 질게 헹 이디 터주고 이디도 질게 허영 기자 짓도 엇곡 이 아무것도 엇곡 단추도 엇곡 그자 요디 칫거리 ᄒᆞ나 ᄃᆞᆯ앙인에.(소매도 이만큼은 길게 해서 여기 트고 여기도 길게 해서 그저 깃도 없고

이 아무것도 없고 단추도 없고 그저 요기 '칫거리' 하나 달아서.) 33 [인성]

칭: 무게의 단위로 1칭은 1근의 100배이다. 한 근은 고기나 한약재의 무게를 잴 때는 600그램에 해당하고, 과일이나 채소 따위의 무게를 잴 때는 한 관의 10분의 1로 375그램에 해당한다. // 경 헹 놔둬 막 헹 얼만이 헹 것도 멧 칭 허민 얼만이 헹 풀아낫어.(그렇게 해서 놔두고 막 해서 얼만큼 해서 그것도 몇 '칭' 하면 얼만큼 해서 팔았었어.) 13 // 감태도 ᄒᆞᆫ 칭에 요즘 십만 원이라이.(감태도 한 칭에 요즘 십만 원이야.) 25 [삼달, 태흥]

ᄎᆞ겡이: 띠를 엮어 이엉처럼 만들어 비 올 때 쓰는 도롱이를 말한다. 'ᄎᆞ궹이'라고도 한다. // ᄎᆞ겡이 쓰언덜 밧디 이제 우리 가빠 입듯이 영 쓰는 게 비 맞아도 알러레 다 내려가게 새로.(도롱이 쓰고들 밭에 이제 우리 가빠 입듯이 이렇게 쓰는 게 비 맞아도 아래로 다 내려가게 띠로.) 26 [신창]

ᄎᆞ근허다: 차분하다는 말로 날씨가 좋아 바람이 세게 불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아칙 때민 ᄎᆞ근헌 때민 영 서답줄에 강 널엇당 ᄎᆞ근헌 ᄇᆞ름에 널민 그놈으 기지도 짝짝 잘 페와지고 삔찍허게 고와.(아침 때면 'ᄎᆞ근한' 때면 이렇게 빨랫줄에 가서 널었다가 'ᄎᆞ근한' 바람에 널면 그놈의 천도 짝짝 잘 펴지고 반짝하게 고와.) 11 [함덕]

ᄎᆞ남밧: 글자 그대로 하면 참나무밭 정도가 되는데 남원읍 신흥 2리에 있는 지명인 듯하다. // 솔입 걷고 또 나무가 엇인 때난 나무 헤다근에 잇당 이 제서 때나 불 땡헤 먹젠 허민 이디서 저 여우네 우이 ᄎᆞ남밧이엔 헌 디 잇어, ᄎᆞ남밧.(솔가리 걷고 또 나무가 없을 때니까 나무 해다가 있다가 이 제사 때나 불 때서 해 먹으려고 하면 여기서 저 '여우네' 위에 'ᄎᆞ남밧'이라고 한 데 있어, 'ᄎᆞ남밧'.) 25 [태흥]

ᄎᆞ낭: 참나무과의 나무를 이른다. // 숫도 먹엉 살젠 허민 원댕이드르 ᄎᆞ낭밧디 강 숫을 묻으면은.(숯도 먹고 살려고 하면 '원댕이드르' 'ᄎᆞ낭밧'에 가서 숯을 묻으면.) 03 [송당]

ᄎᆞ류: 찰기가 있는 종류로, 여기서 찰기가 있는 쌀 종류를 말한다. // 조팝은 그 그 ᄎᆞ류나 허민 ᄒᆞ꼼 먹으카 몰라. 모인조팝은 좋은 사름 벨로 엇일 거라. 좋질 안헤.(조밥은 그 그 'ᄎᆞ류'나 하면 조금 먹을까 몰라. 메조는 좋은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좋질 않아.) 30 [노형]

ᄎᆞ마귀: 뿌리가 들기 전의 무를 말하는 제주어이다. 'ᄎᆞ마기'라고도 한다. // 간격이 배추는 어느 정도다 딱 ᄒᆞ여근에 이 클 것 생각ᄒᆞ지만 이거 조금 좃게 ᄒᆞ여근에 내중에 어느 정도 클 때 뽑아불어. 게 뽑아 그걸 버려부는 게 아니라 그걸 먹어. 그 이 ᄎᆞ마귀 ᄒᆞ여근에.(간격이 배추는 어느 정도 딱 해서 이 클 것 생각하지만 이거 조금 잦게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클 때 뽑아버려. 게 뽑아 그걸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먹어. 그 이 'ᄎᆞ마귀' 해서.) 08 // ᄎᆞ마귀로 짐치도 담그곡, 국도 끓영 먹곡.('ᄎᆞ마귀'로 김치도 담그고, 국도 끓여서 먹고.) 09 // ᄎᆞ마귀에 뒌장에 헤근에 이파리가 상당히 맛좋아.('ᄎᆞ마귀'에 된장에 해서 이파리가 상당히 맛

이 좋아.) 16 // 경허여근에 ᄎᆞ마귀나 영 고치도 아니 놓곡게 약간 버물령 허곡. 첨 먹을 때거리덜토 이제난 허주 우리 아기덜 클 때사 ᄒᆞᆫ엇이 헤사? 경허난 우린 그때도 배추 갈아근에 우리 아, 친정아방이 막 입매 ᄌᆞᆯ르는 따문.(그래서 'ᄎᆞ마귀'나 이렇게 고추도 안 넣고 약간 버무려서 하고. 참 먹을 땟거리들도 이제니까 하지 우리 아기들 클 때야 한없이 했니? 그러니까 우린 그때 배추 갈아서 우리 아, 친정아버지가 아주 입매 짧기 때문.) 26 [고산, 대림, 동광, 신창, 인성, 하원]

ᄎᆞ마귀썹: 뿌리가 들기 전의 무잎이다. // 헤영ᄒᆞᆫ ᄂᆞᄆᆞᆯ 말고 센 ᄂᆞᄆᆞᆯ이나 경 아녀민 ᄎᆞ마귀썹이나 ᄂᆞᆷ삐썹, ᄂᆞᆷ삐썹이나 배추썹이나 ᄒᆞ영 ᄆᆞᆷ, ᄆᆞᆷ, ᄆᆞᆷ만 놓지 말앙 ᄒᆞ꼼 서꺼, 게사 더 맛 좋아.(하얀 나물 말고 쇤 나물이나, 그렇게 아니하면 'ᄎᆞ마귀썹'이나 무잎, 무잎이나 배추잎이나 해서 모자반, 모자반, 모자반만 넣지 말아서 조금 섞어서, 그래야 더 맛 좋아.) 08 [동광]

ᄎᆞ마기: 뿌리가 들기 전의 무를 말한다. 'ᄎᆞ마귀'라고도 한다. // ᄎᆞ마기는 이제 어린 거 ᄒᆞᆫ 목에 문짝 놩 이제 메당 짐치허는 것이 ᄎᆞ마기 김치, ᄎᆞ마기 김치 허주.('ᄎᆞ마기'는 이제 어린 거 한 목에 모두 놔서 이제 매다가 김치하는 것이 'ᄎᆞ마기' 김치, 'ᄎᆞ마기' 김치 하지.) 11 // ᄎᆞ마기엔은 그냥 그것이 ᄂᆞᆷ삐라, ᄎᆞ마기, 어린 때부터 커 가는 거. 그때부터 무신 ᄎᆞ마기여, ᄂᆞᆷ삐여. ᄂᆞᆷ삐 어린 때에 ᄎᆞ마기엔 헤근에.('ᄎᆞ마기'라고는 그냥 그것이 무야, 'ᄎᆞ마기', 어린 때부터 커 가는 거. 그때부터 무슨 'ᄎᆞ마기'며, 'ᄂᆞᆷ삐'며. 무 어린 때에 'ᄎᆞ마기'라고 해서.) 20 // ᄎᆞ마기엔 헌 거 체암에 열무 무수 나올 때 젠젠헐 때.('ᄎᆞ마기'라고 한 거 처음에 열무 무 나올 때 자잘할 때.) 25 // 젠젠헐 때. 소꽈 먹을 때. ᄎᆞ마기, ᄎᆞ마기.(자잘할 때. 솎아 먹을 때. 'ᄎᆞ마기. ᄎᆞ마기'.) 25 [고내, 태흥, 함덕]

ᄎᆞ쒜: 소의 코에다 꿰는 꼬챙이를 말한다. // ᄎᆞ쒜라고 이수다. ᄎᆞ쒜. 쉐 코 꿰는 고지.('ᄎᆞ쒜'라고 있습니다. 'ᄎᆞ쒜'. 소 코를 꿰는 꼬챙이.) 03 [송당]

ᄎᆞᆫ금: 일한 후에 주기로 한 돈 전부를 말한다. 달리 'ᄎᆞᆫ일당'이라고 하였다. // ᄎᆞᆫ금을 내곡. ᄎᆞᆫ금을 내곡.('ᄎᆞᆫ금'을 내고. 'ᄎᆞᆫ금'을 내고.) 29 [외도]

출구덕: '출+구덕' 구성으로, 허리에 차서 나물 따위를 캐서 넣는 용도로 쓰는 대오리를 엮은 바구니이다. // 출구덕에 헤근에 영 저것이 끈 헤근에 어깨에 영 허영 그 불치 담아근에 젭아 놓는 거라, 다. 요디 젭아 놓민 요만쯤에 가게시리. 것도 완전 기술적으로 세 고랑씩 심어근에.('출구덕'에 해서 이렇게 저것이 끈 해서 어깨에 이렇게 해서 그 재 담아서 집어 넣는 거야, 다. 여기 집어 놓으면 요만쯤에 가게끔. 것도 완전 기술적으로 세 고랑씩 심어서.) 05 // 경 물 빠졍 출구덕이고 소쿠리에고 놔두민 쉬엄이 헤영케 복삭ᄒᆞ게 납주게.(그렇게 물 빠져서 '출구덕'이고 소쿠리에고 놔두면 수염이 하얗게 '복작하게' 나지요.) 17 // 대남으로 만든 거 출구덕.(대나무로 만든 거 '출구덕'.) 23 // 모믈은 불 ᄉᆞᆷ아난 불껑에 버무령 출구덕에 영 뚜러멩 ᄌᆞᆸ아놔.(메밀은 불 때었던 재에 버무려서 '출구덕'에 이렇게 둘

러매서 집어넣어.) 25 [남원, 대평, 온평, 태흥, 토평, 표선, 한동]

출레: 밥과 곁들어 먹는 장, 젓 따위의 반찬을 말한다. // 반찬 가져오라 허는 말을 출레 가져오라.(반찬 가져와라 하는 말을 '출레' 가져와라.) 30 // 장물 문저 놔근에 출렐 문저 놔 베사. 경 안허영 출레랑 말쩨랑 놓고, 고기 문저 놩 장 말쩨 놓민 장 내나고 카져 불고.(간장 먼저 넣어서 '출레'를 먼저 넣어 버려야. 그렇지 않고 '출레'는 말째에 넣고, 고기 먼저 넣고 장 말째 넣으면 장 냄새나고 '카져' 버리고.) 31 // 젓 ᄀᆞ뜬 것ᄀᆞ라 그 옛날도 멜젓도 담곡 자리젓도 담곡 그걸로게 먹으난에 출레덜토 거려오라, 경 경 ᄀᆞᆯ읍디다.(젓갈 같은 것더러 그 옛날도 멸치젓도 담고 자리젓도 담고 그걸로 먹으니까 '출레'들도 떠와라, 그렇게 그렇게 말합니다.) 32 // 나 셍각엔 출레엔 헌 건 거 쫍찔허게 허영 먹는 말로 출레, 출레 헌 거 닮아마씨.(내 생각엔 '출레'라고 한 건 거 짭짜래하게 해서 먹는 말로 '출레', '출레' 한 거 같아요.) 34 [고성, 구억, 노형, 덕수, 송당, 토평]

츰: 띠를 머리 땋듯이 땋아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이슬 따위를 받아 그 밑에 둔 항아리에 들어가게 하는 물건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물메누리'라고도 한다. // 이 새로 헤서 ᄂᆞ래미 짱. 나무 둘레를 딱 무꺼서 머리 다완 알레로 내려와근에 받는 거. 그것이 츰. (이 띠로 해서 이엉 짜서. 나무 둘레를 딱 묶어서 머리 땋아서 아래로 내려서 받는 거. 그것이 '츰'.) 01 // 경헤근에 항아리에 물을 받는 거를 보고 츰 받는다고 그러지.(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받는 거를 보고 '츰' 받는다고 그러지.) 06 // 건 옛날 물, 물이 어려우난 물 받앙 쓰젠 츰 헷주게.(건 옛날 물, 물이 어려우니까 물 받아서 쓰려고 '츰' 했지.) 14 // 비 오면은 거 낭에서 ᄂᆞ리는 물이 그 츰으로 헤영 내리는 것이 츰.(비 오면 그거 나무에서 내리는 물이 그 '츰'으로 해서 내리는 것이 '츰'.) 15 [남원, 대림, 도련, 봉성, 성읍, 세화, 수망, 신촌, 옹포, 한동]

츰겡이: 참게의 제주어이다. 등때기가 푸르스름하고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다. 지역에 따라서 '츰긍이', '츰깅이'라고 한다. // 츰겡이도 잇고 돌켕이도 잇고 기름겡이도 잇고 순ᄉᆞ겡이도 잇곡.(참게도 있고 '돌켕이'도 있고 '기름겡이'도 있고 '순ᄉᆞ겡이'도 있고.) 23 // 츰겡이가 보통 그거주게. 겡이가 막 ᄋᆞ라 갠디 다 ᄀᆞᆫ지 못허켜.(참게가 보통 그거지. 게가 아주 여러 개인데 다 말하지 못하겠어.) 31 [온평, 토평]

츰깅이: 참게의 제주어이다. 등에 푸르스름하고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다. 지역에 따라서 '츰겡이', '츰긍이'라고 한다. // 츰깅이엔 헌 건 기냥 츰 이제 이 아래도 거세기 허영 허민 츰깅이엔 헌 거고 식깅인 그 등뗑이가 알록알록 ᄒᆞ꼼 거무룽허곡이.('츰깅이'라고 한 건 그냥 참 이제 이 아래도 거시기 해서 하면 '츰깅이'라고 한 거고 '식깅이'는 그 등때기가 알록알록 조금 거무스레하고.) 29 [외도]

츰ᄀᆞ메기: 개울타리고등의 제주어이다. 고둥 종류의 하나이다. // 돌만 일루민 뭐 수두룩하게시리 그것이 잇어. 츰ᄀᆞ메기로부터 보말까지 수두리까지 그 안네에.(돌만 일으

키면 뭐 수두룩하게끔 그것이 있어. 개울타리고둥으로부터 '보말'까지 팽이고둥까지 그 안에.) 05 // 그 춤ᄀᆞ메기엔 헌 건 또 지름에 놩 ᄒᆞ쏠 달달 보끄다근에 죽 쑤민 저, 맛이 잇어.(그 개울타리고둥이라고 한 건 또 기름에 놔서 조금 달달 볶다가 죽 쑤면 저, 맛이 있어.) 25 // 밤이 어둑운 디 영 강 불 들러근에 ᄀᆞ메기 난 거 잡아오주게. ᄀᆞ메기, 춤ᄀᆞ메기, 보말, 수두리.(밤에 어두운 데 이렇게 가서 불 들고 'ᄀᆞ메기' 나온 거 잡아오지. 'ᄀᆞ메기', '춤ᄀᆞ메기', '보말', '수두리'.) 31 [토평, 태흥, 표선]

춤ᄂᆞ물: 무청을 이르는 말이다. // 무수 우트레 이파리 나온 건 춤ᄂᆞ물.(무 위로 이파리 나온 건 '춤ᄂᆞ물'.) 25 // 처암 갈 때 춤ᄂᆞ물 갈아사컬, 춤ᄂᆞ물 갈아사컬 헤영 갈앙 뽑아먹을 땐 그걸 무수이파리엔 안헹 춤ᄂᆞ물, 춤ᄂᆞ물허당 무수 커가민 무수이파리.(처음 갈 때 '춤ᄂᆞ물' 갈아야겠네, '춤ᄂᆞ물' 갈아야겠네 해서 갈아서 뽑아먹을 땐 그걸 무청이라고 않고 '춤ᄂᆞ물, 춤ᄂᆞ물' 하다가 무 커가면 무청.) 25 // 춤ᄂᆞ물, 춤ᄂᆞ물은 이만썩헌 거 헹 강 바당물에 가근에 그것이 밀멍 씻으멍 헤영 죽이어근에.('춤ᄂᆞ물', '춤ᄂᆞ물'은 이만한 거 해서 가서 바닷물에 가서 그것에 밀면서 씻으면서 해서 죽여서.) 31 [태흥, 토평]

춤ᄂᆞ물짐치: 무청으로 담근 김치를 말한다. // 춤ᄂᆞ물김치 가져오라고. 거 배추짐치는 그거 좋은 김치로 셍각헤연 감저 먹을 때는 그 그 김치를 안 먹고.('춤ᄂᆞ물김치' 가져오라고. 거 배추김치는 그거 좋은 김치로 생각해서 고구마 먹을 때는 그 그 김치를 안 먹고.) 05 // 춤ᄂᆞ물짐친 바당에 강 밀어다근에 단지에 헤당 딱 닫으민 고치도 안 허고 아무것도 안 놔. 기자 딱 담앙 돌 딱 지둘뢍 놔두민 누렁허민 막 맛 좋아, 새콤새콤.('춤ᄂᆞ물김치'는 바다에 가서 밀어다가 단지에 해다가 딱 닫으면 고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넣어. 그저 딱 담아서 돌 딱 지질러 놔두면 누러면 아주 맛 좋아, 새콤새콤.) 31 [토평, 표선]

춤듬북: 해초 '듬북'의 한 종류이다. // 듬북 이름이 춤듬북, 진대듬북, 듬북이 여러 가지라.(듬북 이름이 참듬븍, 진대듬북, 듬북이 여러 가지야.) 13 [삼달]

춤물: 비가 올 때 '춤'을 이용해서 받은 물이다. '춤'은 띠를 머리 땋듯이 땋아서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빗물 따위를 받아 그 밑에 둔 항아리에 들어가게 하는 물건이다. // 낭이 엇인 디 엇주. 그레 물을 하영 받앙 그레 하영 받앙 내려오주. 쪼끌락한 낭에 물 받으민 얼마나 받을 거라? 큰 낭. 그것도 큰 나무가 잇어야만. 것도 아무 집이나 춤물도 엇어.(나무가 없는 데 없지. 그리로 물을 많이 받아서 그리로 많이 받아서 내려오지. 조그마한 나무에 물 받으면 얼마나 받을 거야? 큰 나무. 그것도 큰 나무가 있어야만. 것도 아무 집이나 '춤물'도 없어.) 05 [표선]

춤ᄆᆞᆯ망: 모자반의 한 종류로 먹는 모자반이다. 먹지 않는 모자반에 대비해서 '춤-'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 ᄆᆞᆷ이 춤ᄆᆞᆯ망이주기.(모자반이 '춤ᄆᆞᆯ망'이지.) 23 [온평]

춤ᄆᆞᆷ: 모자반의 일종으로 데쳐서 무쳐 먹거나 자반으로 만들어 먹는다. 이파리와 공기주머니가 가늘고 자잘한 모자반인 '주ᄆᆞᆷ'보다 잎과 줄기가 굵다. // 춤ᄆᆞᆷ 헤다근에

이젠 그냥 놀채덜도 솖아근에 허주만은 물류왕 그 물류왓당 이제 뺄앙.(‘츰믐’ 해서 이젠 그냥 날짜도 삶아서 하지만 말려서 그 말렸다가 이제 빨아서.) 20 // 그 뭐 꼭 믐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감태랑 파래 종류도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말이지 거기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류에서 츰믐이라고 흔 믐도 잇어.(그 뭐 꼭 모자반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감태랑 파래 종류도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말이지 거기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류에서 ‘츰믐’이라고 한 모자반도 있어.) 27 // 옛날 우리 할머니네 허는 거 우리 어린 때에 봐나신디 장을 둠을 거 아니? 항아리에 장을 둠으믄 츰믐 헤여다근엥에 저 ᄀᆞᆯ 시쳐뒁 뺄아뒁이.(옛날 우리 할머니네 하는 거 우리 어릴 때에 봤었는데 장을 담글 거 아니? 항아리에 장을 담그면 ‘츰믐’ 해다가 저 깨끗이 씻어두고 빨아두고.) 29 [고내, 옹포, 외도]

츰상식: 상복을 벗지 않고 부모의 상을 지키면서 상식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 츰상식은 이 상제가 떠나지 안허여.(‘츰상식’은 상제가 떠나지 않아.) 11 [함덕]

츰소세: 꼴의 일종이다. 억새에 비해 길이가 짧은 꼴이다. // 츰소세 뭐허주마는 이 호미로 비지 아녕은 장낫이 안 뒈주기. 게난 동촌덜은 어욱 ᄀᆞ뜬 거 막 거친 밧듸 ᄌᆞᆫ둥우로 비는 거.(‘츰소세’ 뭐하지만 이 낫으로 베지 않고 ‘장낫’이 안 되지. 그러니까 동촌들은 억새 같은 거 아주 거친 밭에 잔등 위로 베는 거.) 29 [외도]

츰일당: 일한 후에 주기로 한 일당 전부를 말한다. 달리 ‘츤금’이라고도 하였다. // 조합에 안 든 사름은 제라허게 츰, 츰일당을 받아 불곡.(조합에 안 든 사람은 제대로 참, ‘츰일당’을 받아 버리고.) 29 [외도]

츰제완지: 바랭이의 일종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츰제완지’는 ‘대롱제완지’에 비해 잎이 잘지만 길이는 길다. // 츰제완지는 이파리가 좀 줄곡.(‘츰제완지’는 이파리가 좀 잘고.) 14 // 우리 제완지, 제완지 헤나신디, 제완지도 모에제완지, 츰제완지 헷주.(우리 바랭이, 바랭이 했었는데, 바랭이도 ‘모에제완지’, ‘츰제완지’ 했지.) 24 [성읍, 세화]

츰항: ‘츰’을 타고 내려온 이슬 따위를 담는 항아리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물이 귀허니까이 그 나무에이, 이것이 나무면이 이디 영 저 뭐인가 물 새로 영 예껴근에 허면 이렇게 영 허면은 물이 영 오면은 일로 헤 가지고서 항더레 물이 빠지게끔. 그 큰 나무에서는 물이 만이 나온다. 것ᄀᆞ라 츰항이엔 헌다. 츰, 츰 받는다고.(물이 귀하니까 그 나무에, 이것이 나무면 여기 이렇게 저 뭐인가 물 띠로 이렇게 엮어서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물이 이렇게 오면 일로 해 가지고서 항에 물이 빠지게끔. 그 큰 나무에서는 물이 많이 나온다. 것보고 ‘츰항’이라고 한다. ‘츰’, ‘츰’ 받는다고.) 12 // 츰항은. 게난 물이 그 새로 인헤 가지고 게난 더러운 건 덕지는 그 새에서 다 걸러져근에 이레 떨어지주게.(‘츰항’은. 그러니까 물이 그 띠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더러운 건더기는 그 띠에서 다 걸러져서 이리로 떨어지지.) 24 [남원, 세화, 옹포, 토평, 한동]

ㅋ

카지다: 단단했던 것이 무르거나 그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한다. // 솖앙 궤민, 궤민 그 고기 도막 내엉 썬 거이, 졸게 썬 거 놔근에 경허영 장물 안 놓민 궤기가 카져 벼.(삶아서 끓으면, 끓으면 그 고기 도막 내어서 썬 거, 잘게 썬 거 넣어서 그래서 간장 안 넣으면 고기가 '카져' 버려.) 31 // 건 질기난에 복삭 두드리민 그 카지주게. 경헨 오랑 집이 오랑 그거 막 씻어 둬근에 솖아.(건 질기니까 '복삭' 두드리면 그 '카지지'. 그래서 와서 집에 와서 그거 마구 씻어 두고 삶아.) 31 [토평]

카지다: 흙덩이나 가루덩이 따위가 물에 풀리어 아주 잘게 바수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 게민 ᄂᆞᄆᆞᆯ도 좀 카지곡.(그러면 나물도 좀 '카지고'.) 24 // 겡 헹 뿌리멍 젓으민 막 반은 카지곡.(그렇게 해서 뿌리면서 저으면 막 반은 '카지고.') 24 [세화]

칼칼허다: 고르지 못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영 들르민 기자 영 헹 쭈런허게 거시기 헤져사. 칼칼허민 안 뒈여.(이렇게 들면 그저 이렇게 해서 쭈룩하게 거시기 해야. '칼칼하면' 안 돼.) 31 [토평]

캉캉허다: 찰떡이나 당이 말라 단단히 굳은 모양을 말한다. // 좁쌀만은 캉캉헹 궂고.(좁쌀만은 '캉캉해서' 나쁘고.) 11 // 너미 캉캉허게 ᄆᆞᆯ민 맛엇고, 흔닥허게 ᄆᆞᆯ앙 딱딱, 경 헤야지 캉캉허민 못 먹어.(너무 '캉캉하게' 말면 맛없고, 물렁하게 반죽해서 딱딱, 그렇게 해야지 '캉캉하면' 못 먹어.) 21 [신촌, 함덕]

커승커승: 잠깐씩 갔다왔다 하는 모습을 말한다. // 고무옷 입어사 얼게 살주. 경 안 헹 커승커승 강 들엉 나오는디 닷배 무끄곡 경 멀리 가도 못허고 얼엉.('고무옷' 입어야 춥게 살지. 그렇게 안 하고 '커승커승' 가서 들어서 나오는데 '닷배' 묶고 그렇게 멀리 가지도 못하고 추워서.) 25 [태흥]

커싱커싱: 트집을 잡고 짜증내는 모습이나 신경질적으로 자꾸 화를 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 표준어 '포들짝포들짝'과 유사하다. // 막 대접 잘허민 헤노민 ᄆᆞᆯ이라도 잘 ᄇᆞᆯ려주고, 경 안허민 커싱커싱 졸바로 ᄆᆞᆯ도 안 헤줘.(아주 대접 잘하면 해놓으면 말이라도 잘 밟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포들짝포들짝 제대로 말도 안 해줘.) 13 // 나신딘 커싱커싱 허곡이. 애기신디는이 크게 말도 아니 ᄀᆞᆯ아. 뭐옌 허민 기여. 경ᄒᆞ라. 난 안 뒈어. 안 뒈어. 나신디. 어따. 애기신딘 기여 허곡 무사 나광 드렁? 너광이나 허지 아기광 헤지나?(나에겐 '커싱커싱'하고, 애기한테는 크게 말도 안 말해. 뭐라고 하면 그래. 그렇게 해라. 난 안 돼. 안 돼. 나에게. 어따. 애기에게 그래 하고 왜 나하고만? 너하고나 하지 아기랑 하나?) 21 [삼달, 신촌]

케: 지역의 공동 농경지로 마을의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땅을 말한다. // 케지기. 목장을 케라고 케 헷주게. 개인 케도 잇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케도 잇고.('케지기'. 목장을 '케'라고 '케' 했지. 개인 '케'도 있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케'도 있

고.) 07 [보목]

케뿌리다: 모여 있는 물체를 헤집어 이리저리 흩어지게 하다의 뜻이다. '케우리다'라고도 한다. // 뭐 허곡 헤근에. 거 나중에 다 케뿌령.(뭐 하고 해서. 거 나중에 다 '케뿌령.') 04 [고성]

케삭: 밥이나 가루 반죽 따위가 찰기가 없어서 잘 뭉쳐지지 않고 흐트러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영, 영 밀지 안헤도. 또 원 안 솖앙 그대로 달루민 영 헤도 케삭, 영 헤도 케삭 어우러지질 잘 안허여.(이렇게, 이렇게 밀지 않아도. 또 원 안 삶아서 그대로 이기면 이렇게 해도 '케삭', 이렇게 해도 '케삭' 어우러지질 잘 않아.) 31 [토평]

케삭케삭: 물기가 없거나 메져서 잘 엉기지 않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잘 ᄀᆞ루 물 맞촹 잘 밀어 놓민, 친떡 쳥 내놓민 친떡이 졸긋졸긋허게 질기곡, 경 안허민 케삭케삭케삭 헤여.(잘 가루 물 맞춰서 잘 밀어 놓으면, 시루떡 쪄서 내놓으면 시루떡이 쫄깃쫄깃하게 질기고, 그렇지 않으면 '케삭케삭케삭' 해.) 25 [태흥]

케삭허다: '풀기가 없어 좁쌀알이 떨어질 정도로 메지다'의 의미이다. // 이 차좁쏠 모힌좁쏠은 케삭헌 거 대개 우리 먹는 거는 모인좁쏠을 하영 먹어.(이 차좁쌀 메좁쌀은 '케삭헌' 거 대개 우리 먹는 거는 메좁쌀을 많이 먹어.) 14 [성읍]

케싹허다: 쌀이 찰기가 없이 푸석한 것을 말한다. // 케싹헹 조팝만이도 못 허여.('케싹해서' 조밥만큼도 못 해.) 31 [토평]

케왓: '케+왓'의 구성으로, 목장을 말한다. '케'는 지역의 공동 농경지로 마을의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땅을 말한다. '왓'은 '밭'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 목장은 그냥이 사름 하나 그 여름 나 가민 보리 줘이. 보리 닷 뒈썩 줘근에 사름 하나 상 관리헤. 케왓 보는 하르방이엔 헨. 케왓 보는 사름 정허영.(목장은 그냥 사람 하나 그 여름 돼 가면 보리 줘. 보리 닷 되씩 줘서 사람 하나 사서 관리해. '케왓' 보는 할아버지라고 해서. '케왓' 보는 사람 정해서.) 30 [노형]

케지기: 공동 농경지를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케지기. 목장을 케라고 케 헷주게. 개인 케도 잇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케도 잇고. 거기 관리하는 사름이 아까 케지기라고 헤서.('케지기'. 목장을 '케'라고 '케' 했지. 개인 케도 있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케'도 있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아까 '케지기'라고 했어.) 07 [보목]

케파장: 일정한 보수를 받고 소나 말을 맡아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 ᄆᆞ을에서 옛날에는 케파장을 ᄒᆞᆫ 사름 정ᄒᆞ여.(마을에서 옛날에는 '케파장'을 한 사람 정해.) 16 // 이제 케파장이 헤근에 쉐 보는 사람.(이제 '케파장'이 해서 소 보는 사람.) 16 [하원]

케푸리다: 뭉치거나 모아 있는 물체를 헤집어 이리저리 흩어지게 하다는 제주어이다. '케우리다'라고도 한다. // 자치기는 그 이름은 그 자치기 보면 그냥 받는 자치기가 잇고, 또 구멍 파서 놔서 춤, 이때 말로 케푸려서, 또 던져서 구멍드레 던져서

가까운 데 잇으면 또 때려서, 세 번이나 두 번 때려서 멀리 보내서, 자로 그걸로 재서 때리는 자치기로, 이렇게 재서 많이 나가는 게 이기는 걸로.(자치기는 그 이름은 그 자치기 보면 그냥 받는 자치기가 있고, 또 구멍 파서 놔서 참, 이때 말로 '케푸려서', 또 던져서 구멍으로 던져서 가까운 데 있으면 또 때려서, 세 번이나 두 번 때려서 멀리 보내서, 자로 그걸로 재서 때리는 자치기로, 이렇게 재서 많이 나가는 게 이기는 걸로.) 07 [보목]

켓생이: 목장을 맡아서 마소를 돌보는 사람을 일컫는다. // 켓생인 부락에 보리 받아가곡 켓생이고, 쉐 보는 사름은 ᄯᅡ나주게.('켓생이'는 부락에 보리 받아가고 '켓생이'고, 소 보는 사람은 다르지.) 17 [대평]

코: 밧줄을 둥글게 둘러서 고를 만든 것이다. // 우리 부친도 보면은 옛날 쉐막 지어나난, 그 쉐, 돌에 코 영 멘들앙은에, 큰 돌로 헹은에, 거 낭에도 멧주마는, 돌에도 죽지 못허게 헹은에 그레 메엇주게.(우리 부친도 보면 옛날 외양간 지었었으니까, 그 소, 돌에 '코' 이렇게 만들어서, 큰 돌로 해서, 거 나무에도 매었지만, 돌에도 죽지 못하게 해서 그리 매었지.) 34 [구억]

코간전: 이마 밑에서 코까지 흰 줄이 길게 나 있는 말이다. // 간전이라는 거는 일로 헤 가지고 코까지 거 코간전.('간전이'라는 거는 이리로 해 가지고 코까지 거 '코간전'.) 29 [외도]

코간전이: 이마에서 코에 이르기까지 흰 줄이 나 있는 말을 가리킨다. // 얼굴에 점 헌 건 이거는 이디 흰털 박아진 게 잇어. 코간전이라고 헤서.(얼굴에 점 한 건 이거는 여기 흰털 박힌 게 있어. '코간전이'라고 해서.) 14 [성읍]

코간제미: 이마에서 코에 이르면서 흰 줄이 있는 간자말이다. // 이 코간제미, 앞에 이 흰.(이 '코간제미', 앞에 이 흰.) 35 // 저 코간제미 ᄆᆞᆯ이라든지, ᄯᅳ로 얼룩베기, 얼룩ᄆᆞᆯ.(저 '코간제미' 말이라든지, 또 얼룩빼기, 얼럭말.) 35 [대림]

코글래기: 밧줄을 둥글게 둘러서 고를 만든 것 혹은 옷고름 매듭이 풀리지 않게 한 가닥을 잡아 빼어 고리처럼 되게 한 것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코골래기',라고도 한다. // 노 꼬아근엥게 영 코글래기 헤근엥게 만들엇주게. 이제도 만드는 사람 잇어.(노 꼬아서 이렇게 '코글래기' 해서 만들었지. 이제도 만드는 사람 있어.) 18 [신도]

코돋은망데기: 부리가 있는 중두리 정도 크기의 옹기를 말한다. // 엿날 우리 시고모가 바당에 시고모 냄편이 뎅기문이 그디 각제기 다가리, 뭐 하간 궤기 다가리, 코돋은망데기 이만헌 걸로 젓 담앙 집이 ᄋᆞ져와. 시에 살멍이 ᄋᆞ져오민 그거 그 국물로 짐치에 담으민 그렇게 맛이 좋아.(옛날 우리 시고모가 바다에서 시고모 남편이 다니면 거기 전갱이 대가리, 뭐 온갖 고기 대가리, '코돋은망데기' 이만한 걸로 젓 담가서 집에 가져와. 제주시에 살면서 가져오면 그거 그 국물로 김치 담그면 그렇게 맛이 좋아.) 33 [인성]

코삿허다: 무슨 일이 마음에 맞아 흡족하다는 의미이다. // 겡 나 코삿허민 물 먹으렌 허고

경 안허민 먹지 말렌 허영은에 더런 먹고 더런 아이 먹곡 허민 우리 아부지 어디 강 놀다 오라근에 못 먹게 헤 가민 아이덜은 시무룩 시무룩 허민 막 날ᄀᆞ라 욕허여.(그래서 나 '코삿허민' 물 먹으라고 하고 그렇게 안 하면 먹지 말라고 해서 더러는 먹고 더러는 안 먹고 하면 우리 아버지 어디 가서 놀다 와서 못 먹게 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시무룩 시무룩 하면 막 나보고 욕해.) 33 [인성]

코셍이: 놀래기의 일종인 용치놀래기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고멩이', '고셍이', '골멩이', '궤멩이', 'ᄀᆞᆯ셍이', 'ᄀᆞᆯ쉥이'라고도 한다. // 고상이가 아니고 코셍이엔 헤 가지고 우리 제주도 방언으로는 그게 다 틀린데.('고상이'가 아니고 용치놀래기라고 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 방언으로는 그게 다 다른데.) 27 [옹포]

코싱코싱: 구수한 맛을 표현한 말이다. // 돗ᄀᆞ레 놔놘 손으로 밥을 먹어마씨, 코싱코싱.(돼지거름 놨던 손으로 밥을 먹어요, '코싱코싱'.) 23 [온평]

코젭이보선: 버선코가 뾰족하게 나와 있는 버선을 말한다. // 가막창신에 코젭이보선에. 그 판관 뚤이나 메누리는 그렇게 출리곡.('가막창신'에 '코젭이보선'에. 그 판관 딸이나 며느리는 그렇게 차리고.) 02 // 이디 영 허영 허믄 코젭이보선이엔 허곡 허난에.(여기 이렇게 하면 '코젭이보선'이라고 하고 하니까.) 29 [선흘, 외도]

코젱이: 끝이 뾰족한 물건이나 모서리 등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코젱이를 만들엉 요만큼 헹 우로 끊어, 끊어가지고 나무를 요만헌 게 잇어.('코젱이'를 만들어서 요만큼 해서 위로 끊어, 끊어가지고 나무를 요만한 게 있어.) 09 // 끄트머리에 가면은 코젱이 가면은 못 박는 사람은 못 박고 안 박는 사람은 안 박고.(끄트머리에 가면 '코젱이' 가면 못 박는 사람은 못 박고 안 박는 사람은 안 박고.) 09 // 널은 ᄒᆞ끔 영 코젱이 만들아근에 그레 홈드레 들어가게끔 헤근에.(널은 조금 이렇게 '코젱이' 만들어서 그리로 홈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16 // 수두리는 이 코젱이가 꾸짝허고 영 꾸짝헤근에 큰 거.(팽이고둥은 이 '코젱이'가 뾰족하고 이렇게 뾰족해서 큰 거.) 23 [고산, 온평, 하원]

코지: 해안선에 용암이 길게 내려 뻗어 돌출된 곳이나 바람받이에 돌출한 곳을 의미한다. // 암반이 물이 싸민 쭉 나가 좀 잇인디 그거를 뭐 진 코지라고도 인제 일명 이제 허거든.(암반이 물이 써면 쭉 나가 좀 있는데 그거를 뭐 긴 '코지'라고도 인제 일명 이제 하거든.) 27 [옹포]

코지버선: 버선코가 뾰족하게 난 버선을 빗대어 쓴 말이다. // 버선ᄀᆞ라 코지버선이엔 ᄀᆞᆫ지 무신.(버선보고 '코지버선'이라고 말하지 무슨.) 15 [수망]

코찡허다: 길이나 크기 따위가 가지런하고 고르다는 뜻이다. 'ᄀᆞ찡ᄒᆞ다'라고도 한다. // 삥이 빠단이 이젠 영 허여근에 이젠 영 허민 이제 삥이 탁 놓민 밧이 영 니귀반듯허게 밧이 나와. 삥이 코찡허게 허영 그 밧듸 디물아.(삘기 빼다가 이젠 이렇게 해서 이젠 이렇게 하면 이제 삘기 탁 놓으면 밭이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밭이 나와. 삘기 '코찡허게' 해서 그 밭에 들이밀어.) 02 [선흘]

코ᄐᆞ데기: 남방울타리고둥의 제주어이다. // 쩨깐허영 허영 허민 영 내민 똥이 털어져. 코

ᄐᆞ데기엔 허여. 그건.(자그마해서 해서 하면 이렇게 내민 똥이 떨어져. '코ᄐᆞ데기'라고 해. 그건.) 01 [도련]

콤바인: 곡식을 베는 일과 탈곡하는 일을 한꺼번에 하는 농업 기계이다. // 지금 그, 요 트렉타 나오고 콤바인 나온 지가 ᄒᆞᆫ 삼십 년, 삼십 년 뒈실 거우다.(지금 그, 요 트랙터 나오고 콤바인 나온 지가 한 삼십 년, 삼십 년 됐을 겁니다.) 36 [봉성]

콥대사니: '마늘'을 의미하는 제주어로 '대사니', '송개마농', '승게마농', '승게비'라고 한다. // 콥대사니는 까기가 좋은디, 이 패마농 까는 건 까기 실퍼근에 우리가 안 먹엇주게.(마늘은 까기가 좋은데, 이 쪽파 까는 건 까기 싫어서 우리가 안 먹었지.) 08 // 장아치, 콥대사니로 장아치 담그고.(장이찌, '콥대사니'로 장아찌 담그고.) 09 [고산, 동광]

콩: 들돌 중 중간 크기의 '콩돌'을 가리킨다. // 게난 그 뜸돌 큰 건 못 들르고 크니까. 못 들르고 콩돌도 못 들러. 콩이 무거우니까.(그러니까 그 들돌 큰 건 못 들고 크니까. 못 들고 '콩돌'도 못 들어. 콩이 무거우니까.) 30 [노형]

콩각메기: 콩꼬투리에서 열매를 떨어 버리고 남은 깍지 따위를 말한다. // 처음에 그 고고리 헤난 거 그거는 소 멕이고. 각메기, 거 콩각메기. 조각메기 조를 만들 때 그거 나오고.(처음에 그 이삭 했던 거 그거는 소 먹이고. '각메기', 거 '콩각메기'. '조각메기' 조를 만들 때 그거 나오고.) 29 [외도]

콩개역: 콩을 볶아서 곱게 간 음식을 말한다. 보리를 볶아서 만든 '보리개역'에 견주어서 한 말이다. // 콩개역은 그자 이 무시거 헐 때 양념 먹젠 허주.('콩개역'은 그저 이 무엇 할 때 양념 먹으려고 하지.) 23 [온평]

콩걸름: 거름을 위해서 심은 콩이다. 콩을 심어서 어느 정도 자라면 베어서 밭고랑에 깔아 거름으로 쓴다. // 처음부터 여름농사를 이제 목적으로 허지 아녕근에 콩을 갈앙. 콩걸름 헌다고 헤 가지고 그 풀콩 당시 풀을, 풀콩은.(처음부터 여름농사를 이제 목적으로 하지 않아서 콩을 갈아서. '콩걸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풀콩' 당시 풀을, '풀콩'은.) 29 [외도]

콩검질: 콩밭에 나는 김이라는 뜻이다. // 잊어불지 못헐 추억은 나 그 콩검질 메렌 허난 콩낭 강알로 기어 뎅겨낫주마는.(잊어버리지 못할 추억은 나 그 '콩김' 매라고 하니까 콩대 밑으로 기어 다녔었지만.) 29 [외도]

콩그르: 콩을 갈았던 곳의 그루터기를 말한다. // 보릴 조크르나 콩그르에. 이제 밧 갈앙. 이제 씨 뿌령.(보리를 '조그루'나 '콩그르'에. 이제 밭 갈아서. 이제 씨 뿌려서.) 01 [도련]

콩꼬질: 콩을 털어내고 남은 콩깍지나 콩대를 모두 가리킨다. // ᄒᆞᆫ 오십 년대부터 콩꼬질을 쉐한테 주기 시작헷지 경 안헐 땐 쉐 안 줘수다.(한 오십 년대부터 '콩꼬질'을 소한테 주기 시작했지 그렇지 않을 때는 소 안 줬습니다.) 03 // 콩꼬질이 콩짚이주게. 이제 콩꼬질이주게.('콩꼬질'이 콩짚이지. 이제 '콩꼬질'이지.) 13 // 경헹 손으로 영 막 만들어근엥 허영 놔둿다근엥 틔우민 콩 콩꼬질 콩 헤난 콩꼬질

이나 우리 옛날에는.(그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서 해서 놔뒀다가 틔우면 콩 '콩꼬질' 콩 했던 '콩꼬질'이나 우리 옛날에는.) 18 // 우리 옛날에 콩꼬질, 콩꼬질. 콩남뎅이ᄀᆞ라.(우리 옛날에 '콩꼬질', '콩꼬질'. 콩대보고.) 31 [삼달, 송당, 신도, 토평]

콩장: 콩으로 담근 장이다. // 장은 원 그 장이 콩장이주, 무신 장 잇어.(장은 원 그 장이 콩장이지, 무슨 장 있어.) 14 // 그자 콩장 좀 만들앙 부족허면 보리장 만들아근에 또 보리장을 못 만들민은 껍질차 껍질차 만들앙.(그저 콩장 좀 만들어서 부족하면 보리장 만들어서 또 보리장을 못 만들면 껍질째 껍질째 만들어서.) 22 [성읍, 우도]

콩죽: 콩가루에 쌀을 넣어서 쑨 죽이다. // 죽은 뭐 풋죽도 쒀 먹고 콩죽도 쒀 먹고 녹두죽도 쒀 먹고 그냥 ᄊᆞᆯ에 메밀ᄊᆞᆯ도 놩 쒀 먹고.(죽은 뭐 팥죽도 쒀 먹고 콩죽도 쒀 먹고 녹두죽도 쒀 먹고 그냥 쌀에 메밀쌀도 넣어서 쒀 먹고.) 14 // 콩죽도 쒀 먹주게. 아까 ᄀᆞᆫ듯이게 콩ᄀᆞ르게 ᄀᆞᆯ아근에.(콩죽도 쒀 먹지. 아까 말하듯이 콩가루 갈아서.) 14 [성읍]

콩쿨: 보리밭에 많이 났던 김의 하나이다. // 이름은 콩쿨이옌도 허곡. 또 무신거. 요새 무신 풀이니?(이름은 '콩쿨'이라고도 하고. 또 무엇. 요새 무슨 풀이니?) 14 // 겨울에 나는 건 그 콩풀 같은 거 나고, 여름엔 절완지 그 절완지 그런 게 나.(겨울에 나는 건 그 콩풀 같은 거 나고, 여름엔 바랭이 그 바랭이 그런 게 나지.) 24 [성읍, 세화]

콰상하다: 습기가 없이 푸석푸석한 상태를 말한다. '과상ᄒᆞ다'보다 거센 느낌을 준다. // 콩은 잘 ᄆᆞᆯ랑 콰상하게 헤당은엥 ᄆᆞᆯ려근에 그자 두드려 ᄑᆞᆯ앗든가 먹엇든가.(콩은 잘 말려서 '콰상하게' 해다가 말려서 그저 두드려 팔았든가 먹었든가.) 15 [수망]

콰시허다: 많은 양의 액체가 급히 쏟아져 흐르는 소리가 나는 것을 나타낸 말이다. // 물 아래 들어가민 콰시허게 무신 수도에 물 튼 거거치 소리 나.(물 아래 들어가면 콸콸하게 무슨 수도에 물 튼 거같이 소리 나.) 31 [토평]

쿨: 나물 등을 세는 단위명사인 '포기'라는 뜻으로 아주 적은 양을 표현하기 위해 쓴것이다. // 고사리 ᄒᆞᆫ 쿨 해 먹젠, 고사리 ᄒᆞᆫ 쿨 해 먹젠 ᄒᆞ멍.(고사리 한 '쿨' 해 먹으려고, 고사리 'ᄒᆞᆫ 쿨'해 먹으려고 하면서.) 08 [동광]

크다: 무엇을 물속에 담가 두다. // 누에고치를 뜨신 물에 막 저 커서.(누에고치를 따뜻한 물에 막 저, 담가 두어서.) 09 [고산]

큰각시: 후처인 '족은각시'에 대비하여 본처를 가리키는 말이다. // 우리 아버지는 큰각시에도 ᄯᆞᆯ 하나, 두 번찌 각식에 ᄯᆞᆯ 두 개.(우리 아버지는 큰각시에 딸이 하나, 두 번째 각시에 딸 두 '개'.) 03 // 하르방은 큰각시 살 때 그 뒈지엿만 먹언 살앗수다.(회장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큰각시 살 때 그 '돼지엿'만 먹어서 살았습니다.) 23 [송당, 온평]

큰개: 서귀포시 대포동의 옛 이름이다. // 저 돔이 큰개레 서귀포레 옥돔 나지, 이 대정 지

경엔 옥돔.(저 돔이 '큰개'에 서귀포에 옥돔 나지, 이 대정 지경엔 옥돔.) 33 [인성]

큰굴왓: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밭 이름이다. // 큰굴왓이라고 물 고이고 밧이 넓으니까.('큰굴왓'이라고 물 고이고 밭이 넓으니까.) 29 [외도]

큰낫: 꼴 같은 것을 베는 자루가 긴 연장을 말한다. // 건 낫으로 비주, 큰낫.(그건 '낫'으로 베지, '큰낫'.) 24 [세화]

큰내: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외도천의 다른 이름이다. // 큰내에 간 들이쳔 놔둠서 은얼 걸리는데, 삼봉으로.('큰내'에 가서 집어넣어서 놔두고서 은얼 걸리는데, 삼봉으로.) 29 [외도]

큰넙궤: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굴의 이름이다. // 굴은예, 저 지슬 영화에 나오는 거, 저디 큰넙궤옌 ᄒᆞᆫ 거 잇곡.(굴은요, 저 '지슬' 영화에 나오는 거, 저기 '큰넙궤'라고 한 거 있고.) 08 // 저 큰넙궤도 강 곱아나곡. 큰넙궤 곱은 때도 조그만이 해서?(저 '큰넙궤'도 가서 숨어나고. '큰넙궤' 숨은 때도 조그만치 했어?) 08 [동광]

큰눈: 해녀들이 물질할 때 쓰는 물안경으로 알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왕눈'이라고도 한다. // 옛날엔 족은눈 써낫는디 이제 것ᄀᆞ란 큰눈이엔 헌다, 큰눈.(옛날엔 '족은눈' 썼었는데 이제 것보고 '큰눈'이라고 한다, '큰눈'.) 12 // 우린 큰눈 안 써봔 물질 설러 불언, 난 물질 ᄒᆞᆫ, 일 버쳔에 ᄒᆞᆫ 육십ᄁᆞ장벳긔 안 허난 큰눈 안 써봔.(우린 '큰눈' 안 써보고 물질 그만둬 버렸어, 난 물질 한, 일 부쳐서 한 육십까지밖에 안 하니까 '큰눈' 안 써봤어.) 13 // 큰눈 무사게, 지금은 다 큰눈 쓰주게.('큰눈' 왜, 지금은 다 '큰눈' 쓰지.) 23 // 건 ᄒᆞᆫ 오십 년도 넘어. 오십 년 ᄃᆞᆫᄃᆞᆫ이 뒛주, 큰눈은. 큰눈 나건 딘 ᄒᆞᆫ 오십 년도 넘엇고.(그건 한 오십 년도 넘어. 오십 년 단단히 됐지, '큰눈'은. '큰눈' 난 진 한 오십 년도 넘었고.) 25 [삼달, 온평, 태흥, 토평, 한동]

큰대문: 마당에서 마루로 들어오는 쪽에 단 마루문 가운데 큰 문을 말한다. // 젤 ᄆᆞᆫ저 들어오는 건 큰대문.(젤 먼저 들어오는 건 '큰대문'.) 14 [성읍]

큰덥물: 조천읍 함덕리 바닷가에 있는 샘물 이름이다. // 요디 저 큰덥물 헌 디 그디도 생수가 나오고 잇어, 바당물.(요기 저 '큰덥물' 한 데 거기도 생수가 나오고 있어, 바닷물.) 11 [함덕]

큰돌궤: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굴이다. // 제일 큰 게 큰돌궤옌 ᄒᆞᆫ 거, ᄒᆞᆫ 삼사백 명 피신덜 헤난 그 사삼사건 때, 그 굴이주.(제일 큰 게 '큰돌궤'라고 한 거, 한 삼사백 명 피신들 했던 그 사삼사건 때, 그 굴이지.) 08 [동광]

큰마누라: 큰 마마로 천연두를 말한다. // 큰마누라 허민 막 바젝이 벌겅케, 짓벌겅케 필 거난 그거 피지 못헹 열로 죽어 비어.('큰마누라' 하면 막 '바젝이' 벌겋게, 시벌겋게 필 거니까 그거 피지 못해서 열로 죽어 버려.) 13 [삼달]

큰물: 구좌읍 송당리 지명의 하나로 지금은 없어졌다고 한다. // 그 엉장이렌 헌 게 그자 큰물이렌 헌 디 메와져 부난, 이젠 질 빠져 부난 큰물이렌 헌 디 엇어져 불고.

(그 '엉장'이라고 하는 게 그저 '큰물'이라고 하는 데 메워 버리니깐, 이젠 길 나니 '큰물'이라고 한 데 없어져 버리고.) 03 [송당]

큰물: 조천읍 신촌리의 대표적 용천수 중 하나로 지금도 있다. // 큰물 오족 좋아요. 제주시로 동쪽으로 와서는 이 신촌 큰물만이한 물이 없을 거야.('큰물' 오죽 좋아요. 제주시로 동쪽으로 와서는 이 신촌 '큰물'만한 물이 없을 거야.) 21 [신촌]

큰물믜: 대수산봉의 옛 이름, 성산읍 고성리에 소재한 오름이다. // 오름은 여기 그 저, 큰물믜, 족은물믜 허주.(오름은 여기 그 저, '큰물믜', '족은물믜' 하지.) 04 [고성]

큰물왓: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지역 이름이다. // 저 큰물왓듸레 가는 디, 그 옴탕헌 밧 우녁 밧인디 우리 씨아바님이 보리 비여가민 일을 영 못헙디다게.(저 '큰물왓'으로 가는 데, 그 '옴탕헌' 밭 위쪽 밭인데 우리 시아버님이 보리 베가면 일을 영 못 합디다.) 32 [덕수]

큰바르메: 애월읍 어음리에 위치한 '큰바리메오름'을 말한다. // 이제 저 노꼬메, 검은오름, 큰바르메, 족은바르메, 뭐 하꼬네 그런, 그런 디 다 뎅겻주게. 여름에.(이제 저 '노꼬메', '검은오름', '큰바르메', '족은바르메', 뭐 '하꼬네' 그런, 그런 데 다 다녔지. 여름에.) 20 // 어디 그 큰바르메 앞쯤 뒈지 안허카 허는데.(어디 그 '큰바르메' 앞쯤 되지 않을까 하는데.) 20 [고내]

큰반: 제주에서 삼 분의 이 정도의 분량을 가리키는 말이다. // 저 거세기 청묵 말고 그냥 묵 쑤는디. 묵도 이제 이만한 두말떼기로 큰반을 헹 반죽헹 쑤젠 허민 그렇게 힘들어.(저 거시기 '청묵' 말고 그냥 묵 쑤는데. 묵도 이제 이만한 '두말떼기'로 '큰반'을 해서 반죽해서 쑤려고 하면 그렇게 힘들어.) 05 [표선]

큰밧: 안덕면 대평리의 지명 가운데 하나이다. // 우리 집 앞의우다, 큰밧. 경 ᄒᆞ여신디 그디 동더레 돌아앚진 집도 잇곡, 알러레 돌아앚인 집도 잇곡, ᄉᆞ칭, 오칭 짓엇어양.(우리 집 앞입니다, '큰밧'. 그렇게 하였는데 거기 동으로 돌아앉은 집도 있고, 아래로 돌아앉은 집도 있고, 사층, 오층 지었어요.) 17 [대평]

큰사심: 조천읍 함덕리 서우봉 앞의 해수욕장 지경을 이르는 지명이다. // 펭사동 오름 앞이가 큰사심.(평사동 오름 앞에가 '큰사심'.) 11 [함덕]

큰새물: 한경면 신창리 지경에 있는 물 이름이다. // 이 신창은 물은 좋아낫저, 맛도 좋곡. 경허민 큰새물, 족은새물. 큰새물은 먹는 물, 족은새물은 빨래허는 물.(이 신창은 물은 좋았었어, 맛도 좋고. 그러면 '큰새물', '족은새물'. '큰새물'은 먹는 물, '족은새물'은 빨래하는 물.) 26 [신창]

큰섬: 우도면에서 제주본섬을 가리키는 제주어이다. // 고구마 말린 고구마 허는 것보다 전분 원료로 전분 원료로 이젠 파는 것이 좋겟다. 이렇게 헤서 이제는 전분 원료로 헤서 ᄒᆞᆫ 두어 번 ᄒᆞᆫ 이 년 동안 육 ᄀᆞᆺ 큰섬에 가서 ᄑᆞᆯ아오는데 아, 것도 ᄑᆞᆯ기가 까다로운 거라.(고구마 말린 고구마 하는 것보다 전분 원료로 전분 원료로 이젠 파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전분 원료로 해서 한 두어 번 한 이 년 동안 육 'ᄀᆞᆺ' '큰섬'에 가서 팔아오는데 아, 것도 팔기가 까다로운 거야.) 22 //

아니 우리사 헤, 큰섬에서 그런 것덜 다 ᄒᆞ는 나오는 거라 이 디.(아니 우리야 해, '큰섬'에서 그런 것들 다 하는 나오는 거야 이 데.) 22 [우도]

큰엉: 남원읍 남원리 앞바다에 있는 해안 절벽을 말한다. '엉'은 낭떠러지 비슷이 된 암석을 나타내는 제주어이다. // 박물관 앞이 큰엉 ᄒᆞ나 잇어.(박물관 앞에 '큰엉' 하나 있어.) 06 [남원]

큰오름: '노꼬메큰오름'이라고도 하며, 애월읍 유수암리에 나란히 있는 두 오름 중 큰 오름을 말한다. // 그 웨로 엿날은양, 삭다리엔 ᄒᆞ영 이 저 큰오름 뒤트멍에 쉐 몰곡 헹 간 헤와난 적 잇수다게.(그 외로 옛날은요, 삭정이라고 해서 이 저 '큰오름' 뒤틈에 소 몰고 해서 가서 해왔던 적 있습니다.) 28 // 하잣도 욮의 큰오름 바로 아픠 이렇게 움막 헹 ᄒᆞᆫ 만 평 넘은 이제 그 낭이 울창ᄒᆞᆫ 디, 이제도 그 터는 신디.('하잣도' 옆에 '큰오름' 바로 앞에 이렇게 움막 해서 한 만 평 넘은 이제 그 나무가 울창한 데, 이제도 그 터는 있는데.) 28 [구엄]

큰왓: 큰 밭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큰촐왓' 즉 '큰 꼴밭'을 뜻한다. '왓'은 '밧'(田)이 변한 형태로, '왓'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고, '물왓·대왓·촐왓'처럼 합성어를 이룰 때만 실현된다. // 무사 하는공 ᄒᆞ민, 그 시철에 저 큰왓 밧이렌 ᄒᆞ는 신흥목장인디, 정심이 열 사름 ᄒᆞᆯ 거 두 번 먹으민 스무 사름 나시 정심을 졍 그 밧 듸 젼 올라낫어. 나 그 촐 ᄒᆞᆷ에 다리 다 병신 뒛어.(왜 많은가 하면, 그 시절에 저 '큰왓' 밭이라고 하는 '신흥목장'인데, 점심에 열 사람 할 거 두 번 먹으면 스무 사람 깃의 점심을 져서 그 밭에 져서 올랐었어. 내가 그 꼴 하며 다리 다 병신 됐어.) 15 [수망]

큰원: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원 이름이다. '작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 족은원 큰원 허주게.('족은원' '큰원' 하지.) 29 [외도]

큰이물: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물 이름이다. // 또 요쪽더레 가민 큰이물.(또 요쪽으로 가면 '큰이물'.) 16 // 물 질어단 큰이물.(물 길어다가 '큰이물'.) 16 [하원]

큰일: 집안의 결혼, 장례 등의 큰 잔치나 예식을 치르는 일을 말한다. // 큰일 때에 옛날엔 일포 때에도 칼국수 허고게, 칼국수 이녁냥으로도 헹 먹곡 헤낫수게게.(큰일 때에 옛날엔 일포 때도 칼국수 하고, 칼국수 '이녁'대로도 해 먹고 했었습니다.) 13 [삼달]

큰일밧: 집안의 중대한 일이 치뤄지는 장소라는 사전적인 뜻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장지를 의미한다. // 만두도 이 저 제물 때 엿날엔이 제물 떡 큰일밧듸 돈으로 부주 안 헤영 떡을 헤 가주게.('만두'도 이 저 제물 때 옛날엔 제물 떡 '큰일밧'에 돈으로 부조 안 해서 떡을 해 가지.) 25 [태흥]

큰일칩: 결혼, 회갑, 초상 따위의 큰 잔치나 예식 등의 큰일을 치르는 집이라는 뜻이다. // 큰일칩이도 보통으로 둠비 아니 헤낫어.('큰일칩'에도 보통으로 두부 안 했었지.) 03 // 장물 놓곡 허여근에 저 간 맞촹 만들아근에 그것이 경 좋아근에 경 것도, 것도 큰일칩 ᄀᆞ져 뎅겻수다.(간장 넣고 해서 저 간 맞추고 만들어서 그것이 그렇

게 좋아서 그렇게 것도, 것도 '큰일칩' 가져 다녔습니다.) 32 // 여기선 이 오메기떡이엔 허민이 큰일칩인 떡 허젠 허민 흰ᄀᆞ루 쪙인에 이젠 동그락허게시리 오메기추룩 허영 가운데 터좌. 영영 가운데 터좡인에 솟듸 물에 놩 숢아.(여기선 이 오메기떡이라고 하면 '큰일칩'엔 떡 하려고 하면 흰가루 쪄서 이젠 동그랗게 끔 '오메기'처럼 해서 가운데 터뜨려.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터뜨려서 솥에 물에 넣어서 삶아.) 33 [덕수, 송당, 인성]

큰제: '포제'를 뜻하는데 마을을 지키는 신을 위하여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 저 어디 포제단에 큰제 지나젠 허민. 경 헤연 헤낫수다게.(저 어디 포제단에 '큰제' 지내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32 [덕수]

큰호렝이: 두 가닥의 집줄을 하나로 만들 때 뒤에서 돌리는 기루를 말한다. // 마흔 개 뒈민 다 뒛수덴 헤여근에 그거 두에서 그 호렝이 큰호렝이 그거 헤영 딱하게 헤영 두에. ᄒᆞᆫ 사름이 돌리면은 두 사름은 영 영.(마흔 개 되면 다 됐습니다고 해서 그거 뒤에서 그 '호렝이' '큰호렝이' 그거 해서 딱하게 해서 뒤에. 한 사람이 돌리면 두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05 [표선]

클: 틀이나 장치를 말하는 제주어이다. 여기서는 보리를 훑는 표준어 '그네'에 해당한다. // 그것을 이제 초담은 무꺼근엥이 이제 집이 져당 클 이서, 또. 홀트는 거.(그것을 이제 처음은 묶어서 이제 집에 져다가 틀 있어, 또. 훑는 거.) 02 // 우선 클 헤여 클에 홀타사 홀타근에 이제 도리께.(우선 그네 해서 그네에 훑어야 훑어서 이제 도리깨.) 16 [고성, 도련, 선흘, 하원]

클방에: 쌀을 찧어 희고 깨끗하게 만드는 기계인 '정미기' 따위를 말한다. // 조, 조가 뒈민 이젠 조도 방에에 강 짓는 사름 싯곡게. 것도 두불, 초불 다 지고 글후제 클방에 나난에 헷주만은 엿날은 ᄆᆞᆯ방에서 지엇주기게.(조, 조가 되면 이젠 조도 방아에 가서 찧는 사람 있고. 것도 두벌, 초벌 다 찧고 그 후에 '클방에' 나니까 했지만 옛날은 연자매에서 찧었지.) 26 [신창]

클칩: 안덕면 감산리에서 재봉틀을 가지고 이불을 만들었던 할머니의 집을 일컫는다. // 미싱질 ᄒᆞ는 집의가 드뭅주게. 감산이 클칩, 클칩 ᄒᆞ영, 시집가젠 ᄒᆞ민 누비이불, 감산이 클칩 할망, 클칩 할망 ᄒᆞ멍 그 할망벳긔 엇어서.(재봉질 하는 집이 드뭅지요. '감산리' '클칩', '클칩' 해서, 시집가려고 하면 누비이불, '감산리' '클칩' 할머니, '클칩' 할머니 하면서 그 할머니밖에 없었어.) 17 [대평]

ᄀᆞ찡ᄀᆞ찡: 길이나 크기 따위가 가지런하고 고른 모습을 표현한다. // 이제 영 ᄀᆞ찡ᄀᆞ찡 허영 호미로 끄차놔.(이제 이렇게 'ᄀᆞ찡ᄀᆞ찡' 해서 낫으로 이렇게 잘라 놔.) 02 // 삭다리는 저 곶 낭 가근에 그 가젱이 거시령 숫구멍, 가젱이 거시령 네분 거 헤근에 ᄀᆞ찡ᄀᆞ찡 놔근에 그거 헤 온 것ᄀᆞ라 거 삭다리엔 허는 거고.(삭정이는 저 숲 나무 가서 그 가지 쳐서 '숯구멍', 가지 쳐서 내버린 거 해서 'ᄀᆞ찡ᄀᆞ찡' 놔서 그거 해 온 것보고 거 삭정이라고 하는 거고.) 19 // 이런 도구릴 어프던가 이런 딜 허여근에 이젠 그거를 그 쳇망으로 쪼금씩 줴영 영 박박 박박 허믄 나룩은

싹 저레 홀타졍 산딘 나가믄 찝은 이제 찝만 또 ᄏᆞ찡ᄏᆞ찡 놓멍 쪼그만씩 무꺼근에게.(이런 함지박 엎던지 이런 델 해서 이젠 그거를 그 쳇바퀴로 조금씩 쥐어서 이렇게 박박 박박 하면 벼는 싹 저리 홅아져 밭벼는 나가면 짚은 이제 짚만 또 ‘ᄏᆞ찡ᄏᆞ찡’ 놓으면서 조그만씩 묶어서.) 20 [고내, 선흘, 청수]

ᄏᆞ찡ᄒᆞ다: 길이나 크기 따위가 가지런하고 고르다는 뜻이다. ‘코찡허다’라고도 한다. // 뽕남 썹을 톧아당 그레 막 서껑 다 ᄏᆞ찡허게 이추룩 허게 놓민 그레 그거 앗다 놓민 그자 하영 앗다 놓민 막 범벅 지멍 먹는 거라.(뽕나무 잎을 뜯어다가 그리 마구 섞어서 다 ‘ᄏᆞ찡허게’ 이처럼 하게 놓으면 그리 그거 가져다 놓으면 그저 많이 가져다 놓으면 마구 범벅 되면서 먹는 거야.) 12 // 일일이 손으로 이 고고릴 영 고고리를 ᄏᆞ찡 ᄏᆞ찡ᄒᆞ여.(일일이 손으로 이 이삭을 이렇게 이삭을 ‘ᄏᆞ찡’ ‘ᄏᆞ찡해’.) 16 // 줄 끗뗑이 그창 그 끗뗑이 ᄏᆞ찡허게 그창 그 줄 끗뗑이 헤영 그 버려불기 에스러우니까 그 트멍에 저 게왓 트멍에 그레 ᄌᆞ근ᄌᆞ근 데명 쌓앗당 그걸로 불도 숨고 그쟈 아무 거라도 헤져.(줄 끄트머리 끊어서 그 끄트머리 ‘ᄏᆞ찡허게’ 끊어서 그 줄 끄트머리 해서 버려 버리기 아쉬우니까 그 틈에 저 툇기둥 틈에 그리로 자근자근 쟁여서 쌓았다가 그걸로 불도 때고 그저 아무거라도 해져.) 19 [청수, 하원, 한동]

ᄏᆞᄀᆞᆯ: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하다는 의미의 제주어이다. // 엿날에 쳉길이엔 ᄒᆞᆫ 게 잇어 쳉길 ᄒᆞ는 거. 게난 그날은 ᄆᆞᆫ딱 이건 저 마당이 ᄏᆞᄀᆞᆯ 치와근에.(옛날에 청결이라고 한 게 있어 청결하는 거. 그러니까 그날은 모두 이건 저 마당이 깨끗이 치워서.) 16 [하원]

ᄏᆞ박: 박을 쪼개어 씨를 파내어 만든 바가지를 말한다. 여기서는 ‘ᄏᆞ테왁’을 가리킨다. ‘ᄏᆞ박세기’, ‘ᄀᆞᆯ락박세기’라고도 한다. // 그때는 ᄏᆞ박, ᄏᆞ테왁, ᄏᆞ으로 헌 테왁.(그때는 ‘ᄏᆞ박’, ‘ᄏᆞ테왁’, 박으로 한 테왁.) 20 [고내]

ᄏᆞ박세기: 박을 쪼개어 씨를 파내고 만든 바가지를 말한다. // 콕박세기, 엿날 그걸로 저 밥 국. 강, 밧듸 강 일허레 갓당 걸로.(‘콕박세기’, 옛날 그걸로 저 밥 국. 가서, 밭에 가서 일하러 갔다가 그걸로.) 24 // 박세기 톡 허게 ᄏᆞ박세기나 놓고.(바가지 톡 하게 ‘ᄏᆞ박세기’나 놓고.) 31 [세화, 토평]

ᄏᆞ테왁: 박을 쪼개어 씨를 파내어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물질할 때 바다에 가서 타는 물건을 말한다. ‘ᄀᆞᆯ락박세기’, ‘ᄏᆞ박’, ‘ᄏᆞ박세기’라고도 한다. // 그때는 ᄏᆞ박, ᄏᆞ테왁, ᄏᆞ으로 헌 테왁.(그때는 ‘ᄏᆞ박’, ‘ᄏᆞ테왁’, 박으로 한 테왁.) 20 // ᄏᆞ테왁허고 비창허곡 그 도구는 뭐 ᄀᆞᆯ게기나 호미 그 마찬가지 지금도.(‘ᄏᆞ테왁’하고 비창하고 그 도구는 뭐 호미나 낫 그 마찬가지 지금도.) 23 [고내, 온평]

ᄀᆞᆯ락박: 박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덩굴식물로 주로 속을 파내어 바가지를 만든다. ‘ᄏᆞ’ ‘ᄀᆞᆯ락’, ‘ᄀᆞᆯ왁’이라고도 한다. // 거 테왁은이, 옛날 이 테왁 엇어. 이제는 저 스폰지 잇주만은 옛날엔 꼭 ᄀᆞᆯ락박, ᄀᆞᆯ락, ᄀᆞᆯ락 테왁 닮은 거 ᄋᆞᆯ앙 ᄀᆞᆯ락이엔 헌 거 신다.(거 ‘테왁’은, 옛날 이 ‘테왁’ 없어. 이제는 저 스펀지 있지만 옛날엔 꼭 박,

박, 박 '테왁' 같은 거 열어서 박이라고 한 거 있다.) 10 // 아기 할망이 나신디 멕이레 오고 아적 ᄌᆞ냑 멕이멍 허곡 허난 테왁 ᄒᆞ나 줘라. 테왁이옌 헌 거 알아지느냐? ᄀᆞᆯ락박.(아기 할머니가 나한테 먹이러 오고 아침 저녁 먹이면서 하고 하니까 '테왁' 하나 줘라. '테왁'이라고 한 거 아니? 박.) 10 [월령]

ᄀᆞᆯ락박세기: 박을 쪼개어 씨를 파내고 만든 바가지이다. 'ᄏᆞ박', 'ᄏᆞ박세기', 'ᄏᆞ테왁'이라고도 한다. // 옛날 항아리레 들이치면은, 이제 소금을 ᄀᆞᆯ라앚은 거, 다른 조그만 ᄒᆞᆫ 통이고 다라이고 헹 나뒁당, 걸 ᄀᆞᆯ락박세기로 그 항아리레 메주 논 항아리레 짐작ᄒᆞ영 메주 ᄒᆞᆫ 말이민 소금 얼마, 두 말이민 메주, 콩이 두 말이민 얼마, 겅 ᄒᆞ영 그 ᄎᆞᆫ물을 질엇주게.(옛날 항아리에 들이치면, 이제 소금을 가라앉은 거, 다른 조그마한 통이고 대야고 해서 놔뒀다가, 걸 'ᄀᆞᆯ락박세기'로 그 항아리에, 메주 넣은 항아리에 짐작해서 메주 한 말이면 소금 얼마, 두 말이면 메주, 콩이 두 말이면 얼마, 그렇게 해서 짠물을 길었지요.) 17 // 저 테왁이주게 테왁 옛날은. 겐디 이젠 저런 스펀지로 안 허고게. ᄀᆞᆯ락박세기로 헤낫주게 ᄀᆞᆯ락박세기.(저 '테왁'이지 '테왁' 옛날은. 그런데 이젠 저런 스펀지로 안 하고. 'ᄀᆞᆯ락박세기'로 했었지 'ᄀᆞᆯ락박세기'.) // ᄀᆞᆯ락박세기라 헤 가지고 테왁 만드는 거 싯고, 호박ᄀᆞ찌 뒌 건디.('ᄀᆞᆯ락박세기'라 해 가지고 '테왁' 만드는 거 있고, 호박같이 된 건데.) 35 [대림, 대평, 옹포]

ㅌ

타박허다: 나무, 풀 따위가 무성하여 위가 소복하다는 뜻이다. // 고고리가 타박허게 동글랑헌 게 타박허게 뒀저.(이삭이 '타박허게' 동그란 게 '타박허게' 됐지.) 12 [한동]

타지다: 사기그릇 따위의 가장자리가 약간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가 나간다'는 의미이다. // 이것도 돌멩이로 못 ᄆᆞᆺ읍니께. 낭또막 헹은에 이게 무쇠라노니까. 낭토막 헹은에 톡 박아사주. 경 안 하면 타져부니까.(이것도 돌멩이로 못 박습니다. 나무조각 해서 이게 무쇠라서. 나무조각 해서 톡 박아야지. 그렇게 안 하면 '타져부니까'.) 03 [송당]

탁베기: 걸러내지 않은 그대로 된 술을 말한다. '탁바기'라고도 한다. // 그 마당질 ᄒᆞ레 가는 남자덜은 그디 멀 ᄀᆞ졍 가느냐 ᄒᆞ면은 주루 탁배기 주루 아졍 가거든.(그 마당질 하러 가는 남자들은 거기 뭘 가져서 가느냐 하면은 주로 '탁배기' 주로 가져서 가거든.) 08 // 그다음 탁배기 청주 빼난 다음 탁배기주게.(그다음 '탁배기' 청주 빼고 난 다음 '탁배기'지.) 08 // 우이 뜬 것은 청주라고 헤 가지고 허고, 아래 잇는 것은 저 탁배기, 막걸리라고 나오고.(위에 뜬 것은 청주라고 해 가지고 하고, 아래 있는 것은 저 '탁배기', 막걸리라고 나오고.) 35 [대림, 덕수, 동광]

탈: 표준어 '딸기'에 해당하는 제주어로 여기서는 산딸기를 말한다. // 그걸로 영 영 탈 타는 거 만들아근에 보리낭으로.(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탈' 따는 거 만들어서 보릿대로.) 16 [하원]

탕건골: 탕건을 결을 때 쓰는 연장의 하나로 탕건 모양의 테두리를 잡는 나무로 만들어진 틀이며, 위 아래로 나뉘어졌다. '탕관꼴', '탕근골'이라고도 한다. // 총 허여근에, 탕건골에 끼왕 ᄀᆞᆯ아봣주.(총 해서, '탕건골'에 끼워서 결어봤지.) 01 // 탕건 헤영 ᄉᆞᆲ앙 파싹 ᄆᆞᆯ랑 벳길 땐 그 실을 톡톡 안트로 끈어불민 것이 뽁 빠민 탕건골은 탕건골대로 나오고 이 탕건은 탕건대로 나와.(탕건 해서 삶아서 바싹 말려서 벗길 땐 그 실을 톡톡 안으로 잘라버리면 그것에 '뽁' 빼면 '탕건골'은 '탕건골'대로 나오고 이 탕건은 탕건대로 나와.) 11 [도련, 함덕]

탕관골: 탕건을 결을 때 쓰는 연장의 한 가지로 탕건 모양의 테두리를 잡는 나무로 만들어진 틀이며 위 아래로 나뉘어졌다. '탕건골', '탕근골'이라고도 한다. // 골로. 탕관골이 이서야 허지. 탕관골 엇엉은 허지도 못헌다. 그게 이 탕관도 여러 찔이라. 흙은 탕관, 중탕관, ᄌᆞᆷ진 탕관, 세 개라. 우린 ᄌᆞᆷ진 것만 헤연. 비싼 건만.(골로. '탕관골'이 있어야 하지. '탕관골' 없어서는 하지도 못한다. 그게 이 탕건도 여러 질이라. 굵은 탕건, 중탕건, 가는 탕건, 세 개야. 우린 가는 것만 해서. 비싼 거만.) 21 [신촌]

탕근골: 탕건을 결을 때 쓰는 연장의 하나로 탕건 모양의 테두리를 잡는 나무로 만들어진

틀이며, 위 아래로 나뉘어졌다. '탕건골', '탕관꼴'이라고도 한다. // 이 탕건을, 탕근골이 잇다고 낭으로 멘든 거. 이디 놔근에.(이 탕건을, '탕근골'이 있다고 나무로 만든 거. 여기 놔서.) 02 [선흘]

탕쉬: 고사리, 콩나물 따위를 삶아 참깨 등의 양념을 넣고 버무려 제사(祭祀)에 쓰는 나물을 말한다. 달리 '탕시'라고도 한다. // 게난 겨울 들기 전에 수확 쉐뿔놈삐는 수왕 수왕 ᄒᆞ여근에 맛도 좋곡, 수왕수왕 ᄒᆞ여근에 그거로 탕쉬도 헤영 먹곡.(그러니까 겨울 들기 전에 수확 '쉐뿔놈삐' 서벅서벅 해서 맛도 좋고, 서벅서벅 해서 그거로 '탕쉬'도 해서 먹고.) 08 // 떡 다 헹 제지낼 때 기자 고사리 탕쉬 다 허곡. 고사리 탕쉬도 무수 채소도 허곡게. 콩ᄂᆞ물.(떡 다 해서 제지낼 때 그저 고사리 '탕쉬'도 다 하고. 고사리 '탕쉬'도 무 채소도 하고. 콩나물.) 33 // 물 드러 주멍 ᄯᅳ시게 허영 키우멍 콩ᄂᆞᄆᆞᆯ 허영 탕쉬도 헹 먹고.(물 들이 주면서 따뜻하게 해서 키우면서 콩나물 해서 '탕쉬'도 해서 먹고.) 34 // 가을이면 양에 불리 나믄 그것 헤 가지고 제삿상에 그거 탕쉬로도 올리고 헷수다.(가을이면 양하 뿌리 나면 그것 해 가지고 제사상에 그거 '탕쉬'로도 올리고 했습니다.) 35 [구억, 대림, 대평, 도련, 동광, 삼달, 신창, 인성, 표선]

탕시: 고사리, 콩나물 따위를 삶아 참깨 등의 양념을 넣고 버무려 제사에 쓰는 나물이다. 달리 '탕수', '탕쉬'라고 한다. // 둠비 적도 허고, 고사리 탕시, 콩ᄂᆞ물, 다 그거 헙니께게.(두부 적도 하고, 고사리 '탕시', 콩나물, 다 그거 합니다.) 36 [봉성]

태상박이: 대성마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이마에 흰털의 점이 마치 별처럼 박힌 말을 이른다. '태성벡이'라고도 한다. // 게난 이 몸에 ᄯᅡ라서 그게 들어가. 그런데 간전이 하고 태상박이가 또 틀려.(그러니까 이 몸에 따라서 그게 들어가. 그런데 '간전이'하고 '태상박이'가 또 달라.) 03 [송당]

태성벡이: 대성마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이마에 흰털이 별모양으로 박힌 말을 이른다. '태상박이'라고도 한다. // 경헤근엥이 네 가지. 월라ᄆᆞᆯᄁᆞ장 허민 다섯 가진가? 경 뒐 거여. 월라ᄆᆞᆯ은 얼룩베기게. 또 ᄆᆞᆯ도 태성벡이 잇주.(그렇게 해서 네 가지. 월라말까지 하면 다섯 가진가? 그렇게 될 거야. 월라말은 얼룩빼기. 또 말도 '태성벡이' 있지.) 02 // 얼룩쉐엔 허고 얼룩소. 요런 디 헤뚜룩허게 박아진 건 태성벡이.(얼룩소라고 하고 얼룩소. 요런 데 히뜩하게 박혀 있는 건 '태성벡이'.) 02 // 태성벡이. 가끔 그런 거 이서 페까롭덴 허주.('태성벡이'. 가끔 그런 거 있어. 페롭다고 하지.) 11 [선흘, 함덕]

태우다: 어떤 복이나 기능 재주가 타고 나다. 여기에서는 '관계가 제일 알맞다'의 뜻이다. // 저 ᄂᆞ물은 아니. 그 솜엔 메역. 그 태우는 게 잇이난에.(저 나물은 아니. 그 말똥성게엔 미역. 그 '태우는' 것이 있으니까.) 04 [고성]

태작: 표준어 '타작'에 대응하는 말이다. 여기에서 '태작'은 타작을 하는 기계, 즉 탈곡기의 의미로 한 말이다. // 콩 태작도 옛날에는 태작 엇이난 도께로 헷주게.(콩 타작도 옛날에는 타작 없으니까 도리깨로 했지.) 23 [온평]

택경: 연을 올려서 힘주거나 감았다가 풀면 연이 꺼꾸러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러한 재주부리기를 말한다. '택견'이라고도 한다. // 택경, 영 허는 거, 무릎에 영 허주. ᄂᆞ리거나 연이 ᄂᆞ려 불어. 막 땡기민.('택경', 이렇게 하는 거, 무릎에 이렇게 하지. 내리거나 연이 내려 버려. 막 당기면.) 02 [선흘]

택일기: 큰일 하는 날짜를 받아 적어 놓은 종이를 말한다. // 게민 그레 광목이던지 미녕이던지 놩, 그 우터레 글 쓴 걸, 택일기 쓴 걸 가져가.(그러면 그리로 광목이든지 무명이든지 넣어서, 그 위로 글 쓴 걸, '택일기' 쓴 걸 가져가.) 17 // 거는, 것도 멧 시에 토신제 지네렝 헌 택일기에 다 적어져서.(그거는, 것도 몇 시에 토신제 지내라고 한 '택일기'에 다 적어졌어.) 24 [대평, 세화]

터박타박허다: 자란 가지와 잎이 풍성한 모습 혹은 그 상태를 말한다. // 담배썹이 더발더발 흙주, 영 터박타박허민 그 가무릉허게 맨 아래 썹으로 튿아.(담뱃잎이 '더발더발' 굵지, 이렇게 '터박타박허민' 그 거무스름하게 맨 아래 잎으로 뜯어서.) 24 [세화]

터박터박: 콩국의 콩가루 등이 뭉쳐진 모양을 표현한 것이다. // 그 맞춰완 잘 ᄉᆞᆼ키 놓곡 저 그 ᄀᆞ루 놓곡 헤근엥 오고셍이 끌령 부각ᄒᆞ게 영 헹 젓엉 ᄒᆞ살 꼰꼰ᄒᆞ게 젓엇당 쑤어근에, 푹 두께 더껑 놔두민 터박터박 저 비제기국 닮앙 좋아.(그 맞춰서 잘 푸성귀 넣고 저 그 가루 넣고 해서 '오고셍이' 끓여서 보각하게 이렇게 해서 저어 조금 깐깐히 저었다가 쑤어서, 푹 뚜껑 닫아서 놔두면 '터박터박' 저 비지국 같아서 좋아.) 15 [수망]

터벅터벅: 흙이 적당히 물러 굳은 상태를 말한다. // 이렇게 그걸 기냥 흑 거 서설한 후에 흑 터벅터벅 논 걸 걸, 멘짝ᄒᆞ게 우에 선 거, 삽 좀 올리면 삽 등어리를 그자 이렇게 이렇게 문지민 거기서 그 사름들은 경 헤지민 내려와빈, 그거 또 거 또 다 헹 내리민.(이렇게 그걸 그냥 흙 그 산자한 후에 흙 '터벅터벅' 놓은 걸 그걸, '멘짝'하게 위에 선 그거, 삽 좀 올리면 삽 등을 그저 이렇게 이렇게 문지르면 거기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지면 내려와 버리면, 그거 또 거 또 모두 해서 내리면.) 15 [수망]

터베: 떼배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뗏목처럼 통나무를 엮어 만든 배로 주로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데 이용한다. 달리 '터우선'이라고도 한다. // 게난 남자덜토 엿날은 뭐 거 어선이나 이런 게 시원치를 아녓주. 터베라고나 이제 그 뭐 쪼그만 그 베덜.(그러니까 남자들도 옛날은 뭐 거 어선이나 이런 것이 시원하지를 않았지. 떼배라거나 이제 그 뭐 자그마한 그 배들.) 04 // 자리 거리레 다니는 거. 터베는 나무토막 여껴가지고.(자리 뜨러 다니는 거. 떼배는 나무토막 엮어가지고.) 05 [고성, 표선]

터우선: 떼배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터우'는 '떼'의 제주어로 뗏목처럼 통나무를 엮어서 주로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이다. '터베'라고도 한다. // 터우선 터웃배로 다니멍 많이 중간 오다가 풍파도 만낭 죽고, 여기 우

도지 보문예. 사람도 죽으면 뭐 성씨ᄁᆞ지도 이름ᄁᆞ지도 다 나와 잇수다게.(떼 떼배로 다니면서 많이 중간 오다가 풍파도 만나서 죽고, 여기 우도지 보면요. 사람도 죽으면 뭐 성씨까지도 이름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22 [우도]

터져 돌다: 온 힘을 다해서 달아나다는 뜻이다. // 터젼 ᄃᆞᆯ안. ᄒᆞᆫ번에 집ᄁᆞ장 어른, 저디, 어른비 오난 ᄃᆞᆯ, ᄃᆞᆯ 훤ᄒᆞ게 턴.('터젼 ᄃᆞᆯ았어'. 한번에 집까지 어른, 저기, '어른비' 오니까 달, 달 훤하게 떴어.) 36 [봉성]

터진목: 성산읍 고성리에서 성산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목을 이르는 지명이다. // 남노당에 다 가입뒌 사름 누게 누게엔 다 ᄀᆞᆯ아 부니까. 다 심어단. ᄒᆞ루에 이십팔 명. 터진목서.(남로당에 다 가입된 사람 누구 누구라고 다 말해 버리니까. 다 붙잡아다가. 하루에 이십팔 명. '터진목'에서.) 04 // 쉐멍에 씌운 냥 잇이난 멀리 안 간 걸로 알안 심엉 간에 죽여볏주게. 건 다 저 터진목에서 죽엇주.(소멍에 씌운 대로 있으니까 멀리 안 간 걸로 알아서 잡아 가서 죽여버렸지. 건 다 저 '터진목'에서 죽었지.) 23 [고성, 온평]

털감테: 털로 만든 방한모이다. // 모자 종류는 저 털감테옌 허영 추울 때 털감테.(모자 종류는 저 '털감테'라고 해서 추울 때 '털감테'.) 28 [구엄]

털락털락: 줄 등이 끊어져서 달랑달랑 거리는 모양을 표현하는 말이다. // 선비덜도 저 고을더레 초신 신엉 가당 그차지민 털락털락 헤불민 그거 신을 거.(선비들도 저 고을에 가다가 잘라지면 '털락털락' 해버리면 그거 신을 거.) 13 [삼달]

털메기: 한데 뭉치거나 말거나 감은 덩이라는 '뭉치'의 의미이다. // ᄒᆞᆫ 집이 살안. 일고ᄋᆞ덥 식구가 이불 ᄒᆞᆫ 털메기덜 다 살앗주. 게난 이 이불짓에 때가 빈질빈질헤난 생각나.(한 집에 살았어. 일고여덟 식구가 이불 한 '털메기'들 다 살았지. 그러니까 이 이불깃에 때가 번질번질했던 생각나.) 26 [신창]

텅에: 닭이나 새의 둥지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바랭이 풀이 몹시 덩이진 상태를 말한다. // 절롼이가 경 ᄉᆞ뭇 텅에 틀엉은에. 거 짓은 것ᄀᆞ란 텅에 틀엇젠 헙니다.(바랭이가 그렇게 사뭇 덩이 틀어서. 거 깃은 것보고 덩이 틀었다고 합니다.) 32 [덕수]

텅에: 둥우리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닭이 들어앉아 있으면서 알을 낳는 곳이다. // 눌 트멍에 ᄃᆞᆨ새기 난 거 하. 거 텅에 안 헤여근에, 거 텅에 ᄃᆞᆨ새기 안 나시카 부뎅 보민, 그 눌, 촐 빠당 보민 그 눌, 촐 소곱에 보민 ᄃᆞᆨ새기가 수두락ᄒᆞ곡, 경 헤낫어.(가리 틈에 달걀 낳은 거 많아. 거 '텅에' 안 해서, 거 '텅에' 달걀 안 낳았을까 봐서 보면, 그 가리, 꼴 빼다가 보면 그 가리, 꼴 속에 보면 달걀이 수두룩하고, 그렇게 했었어.) 17 [대평]

테: 떼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일정한 수의 소를 모아 떼를 이룬 것을 말한다. // 그 부락에도 쉐 테가 ᄋᆞ라 곤데가 잇엇주게이.(그 마을에도 소 '테'가 여러 군데가 있었지.) 04 // 웃동네 테. 이 알동네 테. 이 중동네 테 헤가지고 잇는데 그 테에서. 소위 한 사람씩, 하루씩 지정헤영 ᄀᆞ꾸렐 뎅기주.(윗동네 '테'. 이 아랫동네 '테'. 이 중동네 '테' 해가지고 잇는데 그 '테'에서. 소위 한 사람씩, 하루씩 지정해서

가꾸러 다니지.) 04 [고성]

테기: 새를 잡기 위한 덫을 말한다. // 거기에 좁쌀 싹 뿌령 놔두면은 와근에 뎅기당. 그 치에 걸리곡.(거기에 좁쌀 싹 뿌려서 놓아두면 와서 다니다가. 그 '치'에 걸리고. '테기'에 걸리고. 해서 잡는 수는, 마구 잡았었지.) 04 [고성]

테역촐: '테역' 즉 잔디처럼 길이가 짧은 꼴을 말한다. // 여기는 다 테역촐엔 헤 가지고.(여기는 다 '테역촐'이라고 해 가지고.) 29 // ᄇᆞ뜬 거 보고 테역촐.(받은 거 보고 '테역촐'.) 29 [외도]

테왁: 박의 씨를 파내고 구멍을 막아, 잠녀들이 바다에서 작업할 때 지친 몸을 의지하여 잠시 쉬거나 망사리를 매달아 두는 물건을 말한다. '두룽박', 'ᄏᆞ박', 'ᄏᆞ박세기', 'ᄏᆞ테왁', 'ᄏᆞᆯ락박세기'라고도 한다. // 테왁에 거 꼭 찔렁 뎅기당이 야 그 궤긴 바당 소곱에 영 무시거 소곱에 신나게이 영 영 저 무싱거 쏘는 그 소곱에 시민 그걸로 강 콱 찔렁은에 궤기 잡아오는 거여게.('테왁'에 거 꼭 찔러서 다니다가 야 그 고긴 바다 속에 이렇게 뭐 속에 신나게 이렇게 이렇게 저 무엇 쏘는 그 속에 있으면 그걸로 가서 콱 찔러서 고기 잡아오는 거야.) 10 // 어떵 잡아게. 물에 들엉 손으로 줏어당 테왁더레 놓주게.(어떻게 잡아. 물에 들어서 손으로 주워다가 '테왁'에 넣지.) 26 // 게난 듬북 헤당 그자양. 테왁에 거 얼마나 담읍니까게.(그러니 '듬북' 해다가 그저요. '테왁'에 거 얼마나 담습니까.) 27 // 그때 물질헐 때는 테왁 지곡덜 입어헷당 추우면은 풀젠 짇을케 ᄀᆞ져당 내려가곡 ᄒᆞ여 낫는데.(그때 물질할 때는 '테왁' 지고들 입어했다가 추우면 몸 풀려고 땔감 가져서 내려가고 했었는데.) 35 [구억, 구엄, 노형, 대림, 보목, 세화, 송당, 신도, 신창, 온평, 옹포, 월령, 토평]

테왁어음: 망사리에 그물을 끼워 고정시키기 위해 나무나 대로 만든 둥근 테두리로 '어음', '에움'이라고 한다. // 테왁어음 헤여 나근에 그레 노로 헤근에 테왁 동글락헌 거 요거 동글락헌 거민이 욜로 헤영 요레 강 ᄒᆞᆫ 밧듸 테왁어음더레 ᄃᆞᆯ아메고.('테왁어음' 하고나서 그리 노로 해서 '테왁' 동그란 거 요거 동그란 거면 요리로 해서 요리 가서 한 군데 '테왁어음'에 달아매고.) 25 [태흥]

테우: 뗏목처럼 통나무를 엮어서 만든 배로 주로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물건을 실어 나른다. '터우', '터베', '터위', '테', '테베', '테위'라고도 한다. // 무슨 베가 나가면 뭐 낚베 또 테우.(무슨 배가 나가면 뭐 '낚베' 또 '테우'.) 09 // 보리 ᄀᆞ뜬 거 ᄒᆞ쏠 앚엉 가근에 막 자리 테우 잇잖여.(보리 같은 거 조금 가져서 가서 마구 자리 떼배 있잖아.) 16 [고산, 하원]

테우다: 몫으로 물건 따위를 받게 하다는 의미의 제주어이다. // 경 ᄒᆞ나씩 그 테우곡 허주게. 겐디 우린 갓자 무시거 얻어먹지도 못허곡.(그렇게 하나씩 그 태우고 하지. 그런데 우린 갔어도 무엇 얻어먹지도 못하고.) 04 [고성]

테우리: 말과 소를 들에 놓아먹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그 테우리 그 소위, 저 그 ᄆᆞᆯ ᄆᆞᆯ앙 온 사름이.(그 '테우리' 그 소위, 저 그 말 몰아서 온 사람

이.) 04 // 밧을 ᄇᆞᆯ릴라고 허면은 뭐 농ᄉᆞ철에 테우리 빌엉 밧 ᄇᆞᆯ리젠 허민은 테우리 나시 곤밥을 헤야 뒙주.(밭을 밟으려고 하면 뭐 농사철에 '테우리' 빌려서 밭 밟으려고 하면 '테우리' 몫 흰밥을 해야 됩지요.) 14 // 우리 아버지가 그때도 막 ᄆᆞᆯ 많이 헤근엥에 테우리렌 헷주게. ᄆᆞᆯ테우리.(우리 아버지가 그때도 막 말 많이 해서 '테우리'라고 했어. 말 '테우리'.) 15 // 우리 아버지 ᄆᆞᆯ 열다슷 마리 쑤무 개썩도 헤서 우리 아버지 ᄆᆞ치 테우리 허레 뎅겨서.(우리 아버지 말 열다섯 마리 스무 마리씩도 해서 우리 아버지 마침 '테우리' 하러 다녔어.) 24 [고성, 성읍, 세화, 수망]

테우리동산: 제주시 노형동의 지경 이름이다. // 우리도 저 테우리동산이엔 헌 디 모멀 한 멧 번 우리 아부지 갈 때가 잇어낫어.(우리도 저 '테우리동산'이라고 하는 데 메밀 한 몇 번 우리 아버지 갈 때가 있었었어.) 30 [노형]

테우리밥: 말을 운용해서 일을 하는 '테우리'를 위해 지은 밥을 말한다. // 테우리밥 헤영 강 그디 강 ᄆᆞᆯ 돌아나게 말렌 영 내조 헤근에 헤뒁 허는 거주.('테우리밥' 해서 가서 거기 가서 말 달아나게 말라고 이렇게 내조 해서 해두고 하는 거지.) 23 [온평]

텡구리다: 손에 든 물건을 굴리는 듯이 한꺼번에 뿌리는 것을 의미한다. // 새썹 끈어놔 뒁. 너다섯 개, 너다섯 개, 여기서 다섯 개. 사람 숫자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걸 ᄆᆞᆫ딱 심엉 쫙 삐염냥. 영 텡구리주게.(새잎을 끊어 놓고. 너 다섯 개, 너 다섯 개, 여기서 다섯 개. 사람 숫자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걸 모두 잡고 쫙 뿌립니다. 이렇게 '텡구리지'.) 03 // 저기 가근에 어디 꽂으라 ᄒᆞ민, 그걸 심어근에, 그걸 탁 텡구리민은 까만 걸로 탁 텡그려지주게.(저기 가서 어디 꽂아라 하면, 그걸 잡아서, 그걸 탁 '텡구리면' 까만 걸로 탁 '텡그려지지'.) 07 // 딱 거기 강 꼽으면은 요것 탕 텡구리면 줄 짝허게 나오지.(딱 거기 가서 꼽으면 요것 탕 '텡구리면' 줄 짝하게 나오지.) 24 [보목, 세화, 송당]

토끼섬: 구좌읍 하도리에 소재한 섬이다. // 거 옛날 공동바당 옛날 저 육지 사름덜토, ᄀᆞᆺ이 사름덜[싸름덜]토 완에 이 너른지 왕 잡아 가낫수다. 또 이제 반대 바당이엔 헤긴에 저 토끼섬, 하도 앞이 토끼섬.(거 옛날 공동바다 옛날 저 육지 사람들도, 'ᄀᆞᆺ'에 사람들도 와서 이 '너른지' 와서 잡아 갔었습니다. 또 이제 반대 바다라고 해서 저 '토끼섬', 하도 앞에 '토끼섬'.) 22 [우도]

토락토락허다: 무르지 않고 탱탱한 상태를 말한다. // 저 ᄒᆞᆯ 저 토락토락허게. 식초를 놓고 뒌장을 놓고.(저 조금 저 '토락토락하게'. 식초를 넣고 된장을 넣고.) 32 [덕수]

토랑토랑허다: 묵같은 것이 단단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 그것만 허멍 살아나난게. 경 헤근에 잘 쒀야 하여튼 무주건 잘 쒀야 뒈여. 잘 쒀야만 ᄀᆞ르가 잘 익어야만 맛이 잇주, 토랑토랑허게.(그것만 하면서 살았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 쒀야 하여튼 무조건 잘 쒀야 되어. 잘 쒀야만 가루가 잘 익어야만 맛이 있지, '토랑토랑

하게'.) 14 [성읍]

토렴: 뜨거운 물에 잠깐 넣어 살짝 익힌 것을 말한다. // 건 벳기지 못허니까 물에 끌령 토렴헤영. 토렴헤영 막 긁어내영.(건 벗기지 못하니까 물에 끓여서 토렴해서. 토렴해서 막 긁어내어서.) 05 // 잔치 때나 뭐헐 때도 그 해ᄉᆞᆷ 토렴헤근엥에 손님덜 안티 대접허곡 헤낫수게게.(잔치 때나 뭐할 때도 그 해삼 토렴해서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했었습니다.) 23 // 기자 잠깐 잡아낭 에이구, 질구덕에 놩 그거 메삭메삭 지어 아졍 오랑 돈 안 줄 때난 토렴도 헤영 먹고, 기자 삶앙도 먹곡.(그저 잠깐 잡아서 에이구, '질구덕'에 놔서 그거 '메삭메삭' 지어 가지고 와서 돈 안 줄 때니까 토렴도 해서 먹고, 그저 삶아서도 먹고.) 23 [온평, 표선]

토로록: 작고 동그란 것이 가볍게 구르는 모양으로 표준어로 '또르르'와 같다. // 쓴덴 말 쓴덴 말 발창에도 쓴덴 허고, 토로록 허게 영 물르레 들이치민 꼭 눈에 팔추룩 ᄑᆞᆺ 방울 바눙귀 뀌난 거 그 모냥. 경 헤나민 좋넨. 좋아신디 말아신지.(쓴다는 말 쓴다는 말 발창에도 쓴다고 하고, 또르르 하게 이렇게 물에 넣으면 꼭 눈에 삼처럼 팥 방울 바늘귀 꿰었던 거 그 모양. 그렇게 하고 나면 좋다고. 좋았는지 말았는지.) 15 [수망]

토멩주: 재래식 방법으로 손으로 짠, 실이 굵은 명주를 말하며 '육짓멩지'에 상대하여 부르는 제주산 명주 이름이다. '토멩지', '토목멩지'라고도 한다. // 옛날 옛날에 토멩주, 토멩주 어디 대정에 만드는 디 쫌 잇어낫주만, 옛날에는 토멩지 말 낫어. 토멩지 토멩지 허민 제주에서 멘드니까 토멩지라. 좀 굵고이 좋아. 겐디 지금 토멩지 나는 디 없어. 다 육지서만 만들아.(옛날 옛날에 '토멩주', '토멩주' 어디 대정에 만드는 데 좀 있었지만, 옛날에는 '토멩지' 말 났어. '토멩지' '토멩지' 하면 제주에서 만드니까 '토멩지'야. 좀 굵고 좋아. 그런데 지금 '토멩지' 나는 데 없어. 다 육지에서만 만들어.) 30 [노형]

토멩지: 재래식 방법을 이용하여 손으로 짠 실이 굵은 명주를 말하며 '육짓멩지'에 상대하여 부르는 제주산 명주 이름이다. '토멩주', '토목멩지'라고도 한다. // 토멩지, 기계주. 육지 사름 이디 오랑 ᄑᆞ는 건 토멩지도 싯고 기계지도 싯고.('토멩지', '기계주'. 육지 사람 여기 와서 파는 건 '토멩지'도 있고 '기계지'도 있고.) 12 // 게고 이디서 토멩지엔 허민 이디서 우리가.(그리고 여기서 '토멩지'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14 // 토멩지는 이디 거. 그 육짓멩지엔 헌 거는 좋지 아녀고. 토멩지는 좋아마씨.('토멩지'는 여기 거. 그 육지명주라고 한 거는 좋지 않고. '토멩지'는 좋아요.) 32 [덕수, 성읍, 한동]

토목멩지: 재래식 방법을 이용하여 손으로 짠 실이 굵은 명주를 말하며 '육짓멩지'에 상대하여 부르는 제주산 명주 이름이다. '토멩지', '토멩주'라고 한다. // 시집, 장겔 가젠 허면은 그 새서방 칩이선 그 토목멩지라도 저, 토목멩지도 아니고 저 미녕, ᄋᆞᆺ새미녕이나 닷새미녕이나 그거를 두 필을 개여근에 그 함 안에 놔게.(시집, 장갈 가려고 하면 그 새서방 집에선 그 '토목멩지'라도 저, '토목멩지'도 아니고 저

무명, ‘엿새미녕’이나 ‘닷새미녕’이나 그거를 두 필을 개어서 그 함 안에 놔.) 20 // 종류는 그게 토멩지라고 쪼금 굵게 헤여근에 멩지를 두껍게 허는 건 토멩지고 그거 말고는 ᄯᅳ로.(종류는 그게 ‘토멩지’라고 조금 굵게 해서 명주를 두껍게 하는 건 ‘토멩지’고 그거 말고는 따로.) 20 [고내]

토신제: 흙을 맡아 다스린다는 신에게 올리는 제사로 무덤을 만들 땅에서 제를 지낸다. // 토신제ᄒᆞᆯ 땐양, 조메 두 개, 곤메 두 개, 또 조떡 ᄒᆞ나 ᄒᆞ고, 아니 조떡 두 개, 곤떡 두 개, 그추룩 헹 우리 토신제ᄒᆞᆯ 때 그추룩 헹 헷수다.(‘토신제’ 할 땐요, ‘조메’ 두 개, ‘곤메’ 두 개, 또 조떡 하나 하고, 아니 조떡 두 개, 흰떡 두 개, 그처럼 해서 우리 ‘토신제’ 할 때 그처럼 해서 했습니다.) 08 // 토신제엔 헌 건 이녁 몸 직시 제 묻곡.(토신제라고 한 건 자기 몸 깃 제 묻고.) 11 // 상 나근에 가 산을 쓰젠 헤도 아시날 강 토신제를 지낸다.(상 나서 산을 쓰려고 해도 전날 가서 토신제를 지낸다.) 12 [동광, 한동, 함덕]

토종구루마: 제주에서 예전부터 만들어 쓰던 달구지이다. ‘구루마’는 ‘달구지’에 대응하는 일본어이다. ‘토종바레기’라고도 한다. // 그전이는 저 토종구루마라고 헤서 저 일 개 부락에 멧 개 없엇어. 성읍리도 ᄒᆞᆫ 서너네 개벳긴 엇언.(그전에는 저 ‘토종구루마’라고 해서 저 일 개 부락에 몇 개 없었어. 성읍리도 한 서너네 개밖엔 없었어.) 14 [성읍]

토종바레기: 제주에서 예전부터 만들어 사용한 달구지를 말한다. ‘토종구루마’라고도 한다. // ᄆᆞᆯ바레기. 옛날은 토종, 토종바레기엔 헌 게 잇어.(‘말바레기’. 옛날은 토종, ‘토종바레기’라고 한 게 있어.) 14 // 토종바레기옌 헌 거는 이 우리 제주도에서만 만들엇덴 헌 구루마가 잇어.(‘토종바레기’라고 한 거는 이 우리 제주도에서만 만들었다고 한 달구지가 있어.) 14 [성읍]

토지: 제주도에서 생산된 종이를 말한다. // 게고 문도 이 창오지. 옛날에 허면 토지.(그리고 문도 이 창호지. 옛날에 하면 ‘토지’.) 07 // 창오지는 고급이고 토지, 토지.(창호지는 고급이고 ‘토지’, ‘토지’.) 07 [보목]

토켕이: 게의 한 종류를 말한다. // 겡이 ᄀᆞ튼 건, 물에 들어강 ᄉᆞᆷ ᄀᆞ튼 디 가근에 강 잡는 거는, 이추룩 홁은 거주마는 우리추룩 가에 거 돌 일렁 잡는 거는 돌켕이하고 토켕이.(게 같은 건, 물에 들어가서 샘 같은 데 가서 가서 잡는 거는, 이처럼 굵은 거지만 우리처럼 가에 거 돌 일으켜서 잡는 거는 ‘돌켕이’하고 ‘토켕이’.) 07 [보목]

토허다: 밭에 흙이 많다는 의미이다. // 밧이 땅더레 막 토허지 아녕 얇은 거.(밭이 땅으로 아주 ‘토하지’ 않아서 얇은 거.) 23 [온평]

토ᄒᆞᆫ밧: 흙이 많은 밭이다. ‘ᄉᆞᆯ지픈밧’을 달리 일컫는 이름이다. // ᄉᆞᆯ지픈밧은게 토ᄒᆞᆫ밧. 흐리조팟 가는 밧이 ᄉᆞᆯ뜬밧. 토ᄒᆞᆫ밧이 토ᄒᆞᆫ밧이 그것이 그거주게.(‘ᄉᆞᆯ지픈밧’은 ‘토ᄒᆞᆫ밧’. ‘흐리조팟’ 가는 밭이 ‘ᄉᆞᆯ뜬밧’. ‘토ᄒᆞᆫ밧’이 ‘토ᄒᆞᆫ밧’이 그것이 그거지.) 23 [온평]

톨: 톳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갈조류 듬북과의 해조이다. // 게난 노인들만 살다보니까 이제 톨 ᄀᆞ뜬 것도, 이제 ᄀᆞ치 부역을 헤서 톨을 ᄀᆞ치 케면은 그 배당을 받앗는데, 이제 늙어 노니까 톨을 케질 못허는 거라마씨.(그러니까 노인들만 살다보니까 이제 톳 같은 것도, 이제 같이 부역을 해서 톳을 같이 캐면 그 배당을 받았는데, 이제 늙어 버리니까 톳을 캐질 못하는 거예요.) 22 [우도]

톨냉국: 톳을 넣어 만든 촛국으로 여름철에 즐겨먹는다. // ᄆᆞᆯ령 놧뒀당은에게 톨냉국도 헤영 먹고.(말려서 놔뒀다가 톳냉국도 해서 먹고.) 01 // 톨냉국 헤민. 톨냉국 헹 먹곡.('톳냉국' 하면. '톳냉국' 해서 먹고.) 04 [고성, 도련]

톨락허다: 물건이 한쪽 또는 일부가 갑자기 튀어나온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겐 가졍 가민 그 떡 비와 둬근에 또 이젠 그 떡 빕는 건 다 보통으로 알아, 경 고르게 헹 가도이. 탁 비우민 한가운데 거만 톨락허게 둥굴엉.(그래서 가지고 가면 그 떡 부어 두고 또 이젠 그 떡 붓는 건 다 보통으로 알아, 그렇게 곯게 해서 가도. 탁 부으면 한가운데 거만 '톨락하게' 굴러서.) 30 [노형]

톨바당: 톳이 많이 나는 바다를 가리키는 말이다. // ᄒᆞᆫ 번은 톨바당을 막 ᄑᆞᆯ아낫수다.(한 번은 '톳바다'를 막 팔았었습니다.) 23 [온평]

톨밥: 톳을 넣어 기근 때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톳과 보리를 섞어서 지은 밥으로 '톳밥'이라고도 한다. // 우리 부제라도 톨밥도 먹고 헤낫수다게.(우리 부자라도 톳밥도 먹고 했었습니다.) 03 // 딴 집의덜은 막 이제는 톨밥 그치룩 막 헤영 하는디. 그 옛날에는 톨밥 하면은 아주 못사는 집만 톨밥 헹 먹으니까 우린 막 그 톨밥이 맛잇어근에.(딴 집들은 아주 이제는 톳밥 그처럼 막 해서 하는데. 그 옛날에는 톳밥 하면 아주 못사는 집만 톳밥 해서 먹으니까 우린 아주 그 톳밥이 맛있어서.) 05 // ᄑᆞᆺ밥이나 마찬가지. 뭉클뭉클 톨밥이 제일 먹긴 좁니다.(팥밥이나 마찬가지. 뭉클뭉클 '톳밥'이 제일 먹긴 좋읍니다.) 14 // 톨밥 ᄑᆞ레밥은 저 뭐 거시기 ᄒᆞᆯ 득에 이녁이 막 곤란헌 떡에 톨 헤여다근에, 저 거시기 발레영 ᄎᆞᆷ, ᄆᆞᆯ류와긴에 물 ᄃᆞᆷ갓다근에 그거 ᄒᆞ곡.(톳밥 파래밥은 저 뭐 거시기 할 적에 '이녁'이 막 곤란한 때에 톳 해다가, 저 거시기 바래어 참, 말려서 물 담갔다가 그거 하고.) 22 [고성, 선흘, 성읍, 송당, 온평, 우도, 표선]

톨채: 톳을 물기가 있게 해서 된장 따위로 무친 음식을 말한다. '톨체'라고도 한다. // 톨채 ᄒᆞ꼼 컬컬하게 뭐 새콤달콤허게 배, 배도 썰어 놓곡 오이도 썰어 놓곡 경 헹 건 뭐. 그렇게 하면은 완전 뭐?('톨채' 조금 컬컬하게 뭐 새콤달콤하게 배, 배도 썰어 넣고 오이도 썰어 넣고 그렇게 해서 건 뭐. 그렇게 하면 완전 뭐?) 05 // 톨채 국물 등당허민 들이싸면은 그것이 국이 뒈는 거난에.('톨채' 국물 흥건하면 들이켜면 그것이 국이 되는 거니까.) 05 [표선]

톳날: 지지(地支)가 묘(卯)로 된 날로 토끼날을 말한다. // 톳날 많이 ᄎᆞᆺ앗주. 토끼날덜.(토끼날 많이 찾았지. 토끼날들.) 01 [도련, 하원]

톳밥: 톳을 넣어 기근 때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톳과 보리를 섞어서 지은 밥으로 '톨밥'이

라고도 한다. // 톳밥 이야기 허는데, 그 한해 막 가물고 농사가 원 안 뒈서 헐 때.(톳밥 이야기 하는데, 그 한해 아주 가물고 농사가 전혀 안 돼서 할 때.) 05 // 톳밥은 아니 먹어보고.('톳밥'은 안 먹어보고.) 16 [표선, 하원]

톳밧: 톳이 많이 나는 곳을 '밭'에 비유해서 한 말이다. // 삼월 보름에 허민 톳밧도 옛날은 바당에덜 안 간 사름 트멍에 잇주게.(삼월 보름에 하면 '톳밭'도 옛날은 바다에들 안 간 사람 틈에 있지.) 29 [외도]

통개: 독, 항아리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거디 머 통개덜토 놓곡 헤근에 문 쏠, 쏠 놓곡 하간 거 다.(그데 뭐 '통개'들도 놓고 해서 전부 쌀, 쌀 놓고 온갖 거 다.) 16 // 엿날 뒌장 두 통개썩 담은 거 그 뒌장 ᄂᆞ물, ᄂᆞ물 놔근에 ᄇᆞ글ᄇᆞ글 궤민게 그 뒌장 저 거려당은에게 그거 어느 정도 맞을 만이 헤근에 숟구락으로 영영 개여근엥에 그 저 그거 놔근엥에 국 끌령 먹엇수다.(옛날 된장 두 '통개'씩 담은 거 그 된장 나물, 나물 넣어서 바글바글 끓으면 그 된장 저 떠다가 그거 어느 정도 맞을 만큼 해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개여서 그 저 그거 넣어서 국 끓여 먹었습니다.) 32 // 밧듸서 허영 졍은에 ᄀᆞᆯ이 불령 망데기, 통개에 담앗당은에 물 팔팔 끼려가민 좁쏠 ᄋᆞ져당 산허게 놩은에 배술기로 ᄒᆞᆫ번 젓엉 물이 어느 정도 맞을로구나 허영 불 ᄉᆞᆷ당 밥허는 사름 짐작허지게.(밭에서 해서 찧어서 깨끗이 불려서 '망데기', '통개'에 담았다가 물 팔팔 끓여가면 좁쌀 가져다가 '산하게' 놔서 죽젓개로 한번 저어서 물이 어느 정도 맞겠구나 해서 불 때다가 밥하는 사람 짐작하지.) 33 // 뒌장은 이제 가을에 ᄉᆞᆲ앗당 가을에 메주 ᄉᆞᆲ앙 메주 ᄉᆞᆲ앙 틔왕. 잘 ᄆᆞ리왕. 잘 ᄆᆞᆯ리왕 ᄀᆞᆯ이 씻엉 놧당 섣ᄃᆞᆯ그믐날 이디론 섣ᄃᆞᆯ그믐날 허젠 허민 미릇 이제 장 담는 통개.(된장은 이제 가을에 삶았다가 가을에 메주 삶아서 메주 삶아서 띄워서. 잘 말려서. 잘 말려서 깨끗이 씻어서 놨다가 섣달그믐, 여기로는 섣달그믐 하려고 하면 미리 이제 장 담그는 '통개'.) 33 [덕수, 인성, 하원]

통두건: 윗부분을 꿰매지 않은 채 쓰는 두건으로 성복 전에 쓴다. // 게민 상복은 집의서 멩글앙 놔뒀당 영장나민 통두건ᄒᆞ곡, 저 아덜 상제 ᄯᅳ나곡, 사위 ᄯᅳ나곡, 치메 ᄯᅳ나곡, 경 헴주게.(그러면 상복은 집에서 만들어서 놔뒀다가 초상나면 '통두건' 하고, 저 아들 상제 다르고, 사위 다르고, 치마 다르고, 그렇게 하고 있지.) 17 // 성복 안 허민이 통두건 쓰곡이.(성복 안 하면 '통두건' 쓰고.) 21 [대평, 신촌]

통량: 양태 중에서 질이 좋은 것으로 양반들이 주로 썼다. // 통량은 양반들이 뽄 내엉 쓰는 거고, 높은 사름덜.('통량'은 양반들이 멋 부려서 쓰는 거고, 높은 사람들.) 02 // 통량은 좋게 씨는 사름은 일반도 막 모저로 씨는 사름은 통량을 헤당 써.('통량'은 좋게 쓰는 사람은 일반도 막 모자로 쓰는 사람은 '통량'을 해다가 써.) 02 [선흘]

통물: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물 이름이다. // 우리 ᄆᆞ을에 ᄆᆞ을 안에 통물 이서 통물.(또 우리 마을에 마을 안에 '통물' 있어 '통물'.) 16 [하원]

통물: 성산읍 고성리에 소재한 물 이름이다. // 것ᄀᆞ라 거시기게 에, 통물이엔 허여. 통물. (그것보고 거시기 에, '통물'이라고 해. '통물.') 04 [고성]

통물: 안덕면 감산리에 있는 물 이름이다. // 통물 오란, 감산이서 통물 질레 오라낫주. 난 아으난 물만 질어오렌 ᄒᆞ여.('통물' 와서, 감산리서 '통물' 길러 왔었지. 나는 아이니까 물만 길어오라고 해.) 17 // 감산이도 통물에 당 잇고, 난드르 당 잇곡, 세 성제난 세 개 잇곡, 할망당.(감산리도 '통물'에 당 있고, '난드르' 당 있고, 세 형제니까 세 개 있고, '할망당'.) 17 [대평]

통물: 조천읍 신촌리에 있었던 물 이름이다. // 가마물, 통물, ᄃᆞᆫ물, 다 메와 불엇어. 이제 가마물 ᄒᆞ나 남안. 이제, 엉창물, 엉창물은 남자만 목욕허는 물, 여자 안 뎅겨. ('가마물', '통물', '단물', 다 메워 버렸어. 이제 '가마물' 하나 남았어. 이제, '엉창물', '엉창물'은 남자만 목욕하는 물, 여자 안 다녀.) 21 [신촌]

통물동네: 서귀포시 하원동의 자연 마을 이름이다. // 통물동네엔 헨 거기.('통물동네'라고 해서 거기.) 16 [하원]

통보리밥: 갈지 아니한 온 보리쌀로 지은 밥이다. // 통보리밥은 방에에 강 져다근에 그 ᄀᆞ레에 겁지지 안ᄒᆞᆫ 거. 그냥 벌르지 안ᄒᆞᆫ 밥이 통보리밥.('통보리밥'은 방아에 가서 찧어다가 그 맷돌에 거피지 않은 거. 그냥 쪼개지 않은 밥이 '통보리밥'.) 08 // 통보리밥은 먹젠 ᄒᆞ민 또 남방에에 그걸 물 놩 맞졍 곱딱ᄒᆞ게 막 져어근에 경 ᄒᆞ영 밥을 멘들민 통보리밥이 뒈곡.('통보리밥'은 먹으려고 하면 또 남방아에 그걸 물 넣어서 맞춰서 곱게 막 저어서 그렇게 해서 밥을 만들면 '통보리밥'이 되고.) 08 // 잔칫집인 저, 반지기밥 허영도 허고, 반지기밥 영 허고, 어떤 딘 통보리밥도 싯고.(잔칫집에는 저, '반지기밥' 해서도 하고, '반지기밥'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통보리밥'도 있고.) 28 // 보리밥이엔 허믄이 ᄀᆞᆯ은 보리밥, 통보리밥 그거 두 개라.(보리밥이라고 하면 간 보리밥, 통보리밥 그거 두 개야.) 30 [구엄, 노형, 동광]

통사발: 통이 깊은 사발을 말한다. // 통사발 이만이 헌 거.('통사발' 이만한 거.) 32 [덕수]

통사발오메기: 통이 깊은 사발인 '통사발' 만큼 큰 '오메기'를 말한다. // 통사발오메기라고 헤서 이만이 헌 거.('통사발오메기'라고 해서 이만큼 한 거.) 32 [덕수]

통제: 돼지우리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달리 '돗통', '돗통시', '뒈야지통', '통시'라고도 한다. // 통제에서 난 걸로 그게 씨영 ᄀᆞ치 붙어잇주게.(돼지우리에서 난 걸로 그게 씨랑 같이 붙어있지.) 09 // 그게 통제에서 일단 걸름을 어디서 들어가냐면은 쉐 질르거든, 쉐 질르면은 거기서 쉐 먹던 거나 쉐똥이영 그 쉐 멕인 데서는 썩지 않거든 그게.(그게 돼지우리에서 일단 거름을 어디서 들어가냐면 소 기르거든, 소 기르면 거기서 소 먹던 거나 쇠똥과 그 쇠 먹인 데서는 썩지 않거든 그게.) 09 [고산]

통지: 돼지우리의 제주어이다. '돗통', '돗통시', '뒈야지통', '통시', '통제'라고도 한다. // 통지는 집집마다 영 울타리 옆이. 여기 구석에.('통지'는 집집마다 이렇게 울타리

옆에. 여기 구석에.) 18 // 통지에 걸름허영 그거 통지 하간 거 보릿낭 ᄀᆞ튼 거 하간 거 놓으멍 걸름 막 시켱 도새기 질르난 그거막 붋으민 그거 걸름이 뒈주게.(돼지우리에 거름해서 그거 돼지우리 여러 거 보릿짚 같은 거 여러 거 놓으면서 거름 막 시켜서 돼지 기르니까 그거 막 밟으면 그거 거름이 되지.) 18 [신도]

투박투박: 콩물을 끓일 때 소금을 넣은 다음 엉긴 상태를 표현한 말이다. // 가마솟디 그 콩ᄀᆞ룰 놓아근에 쓺아 게민 그것이 투박투박 ᄒᆞ주게.(가마솥에 그 콩가루를 넣어서 삶아 그러면 그것이 '투박투박' 하지.) 16 [하원]

투발투발: 두부를 만들 때 순두부처럼 되어 가는 모양을 표현한 말이다. // 그거 영 ᄒᆞ끔씩 비우멍 영 영 젓어 가민 콩 ᄀᆞᆯ앙 딸린 물이 두부ᄀᆞ찌 투발투발 간수 쳐가민 나와마씸, 거.(그거 이렇게 조금씩 부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저어 가면 콩 갈아서 달인 물이 두부같이 '투발투발' 간수 쳐가면 나와요, 거.) 34 [구억]

투불투불: 점성이 있는 액체나 가루 따위가 한 덩어리가 되면서 굳어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저 콩이영 물이영 놔근에 막 젓으멍 젓으멍 오래 오래 끌령근에 투불투불 헤 가민 무수도 놩 먹을 때 싯곡 ᄂᆞ물도 놩 먹을 때 싯곡 경헤낫주.(저 콩이랑 물이랑 넣어서 마구 저으면서 저으면서 오래 오래 끓여서 '투불투불' 해 가면 무도 넣어서 먹을 때 있고 나물도 넣어서 먹을 때 있고 그랬었지.) 12 [한동]

투불투불ᄒᆞ다: 울퉁불퉁한 흙바닥을 표현하는 말이다. // 이렇게 투불투불ᄒᆞ니까, 게민 그것이 이제 나뭇데기로 거기 돌을 놔갖고 게서 그걸 눌러지게 헤서 이제 거 땅을 골르는 거라.(이렇게 '투불투불하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나뭇가지로 거기 돌을 놓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눌러지게 해서 이제 거 땅을 고르는 거야.) 22 [우도]

툴ᄒᆞ다: 세련되지 못하고 거칠거나 잘 다듬어지지 않아 투박하다는 뜻이다. // 이녁 검질만 툴ᄒᆞ게 확확 흙은 것만 메여뒁 집의 오곡 헤낫어.(이녁 김만 '툴ᄒᆞ게' 확확 굵은 건만 매어둬서 집에 오고 했었어.) 08 [동광]

퉁허다: 고르지 못하고 두꺼워서 나쁘다는 의미로 쓴 말이다. // 거에 좀 좋은 거고 막 뚜꺼운 거는 퉁허게 멘기니까 나쁜 걸로 나 셍각은 납니다게.(것에 좀 좋은 거고 매우 두꺼운 거는 '퉁허게' 만드니까 나쁜 걸로 나 생각은 됩니다.) 22 [우도]

퉤기: '외'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흙벽을 바르기 위하여 벽 속에 나뭇가지, 댓가지 잡목 따위를 가로세로로 얽는 것을 말한다. // 퉤기, 퉤기 ᄇᆞᆯ라시냐 축ᄇᆞ름ᄀᆞ라. 퉤긴다 ᄇᆞᆯ란 그디 경허고.(외, 외 발랐니 벽보고. 외 다 발랐어 거기 그렇게 하고.) 02 [선흘]

퉤빗막: 거름을 모아 두는 곳을 말한다. // 갈 디 올 디 엇이난 퉤빗막이엔 헌 거 엿날, 엿날 어른덜 퉤빗막이엔 허민 알아이. 퉤빗막이엔 헌 거 욜로 요만은 헤근에 그것에 ᄆᆞᆯ똥 줏어다 놓곡, 풀검질 비어다 놓곡, 듬북 헤다 놓곡 재어 놓멍 퉤비 모두는 거라.(갈 데 올 데 없으니까 '퉤빗막'이라고 한 거 옛날, 옛날 어른들 '퉤빗막'이라고 하면 알아. '퉤빗막'이라고 한 거 요리로 요만큼 해서 그것에 말똥 주워다

놓고, 풀 베어다 놓고, 듬북 해다 놓고 재어 놓으면서 퇴비 모으는 거야.) 25 [태흥]

트글락트그락: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나무토막 등이 부딪치는 소리이다. // 욜로 요 새에 돌 하나 지둘롸, 요디. 경 안 허민 요것이 트글락트글락 안 뒈지.(요리로 요 사이에 돌 하나 지질러, 요기. 그렇지 않으면 요것이 '트글락트글락' 안 되지.) 25 [태흥]

트랑트랑: 액체가 묵처럼 잘 굳어진 모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 도새기 잡으멍 필영 ᄒᆞ여근에 무신 낭푼이 받앙 놔둬, 게민 트랑트랑 얼리민.(돼지 잡으면서 피를 이렇게 해서 무슨 양푼 받아서 놓아둬, 그러면 '트랑트랑' 얼리면.) 08 // 그것에 영 허영 거령 놔두민 기자 트랑트랑 얼리우민 영 뒈여.(그것에 이렇게 해서 떠서 놔두면 그저 '트랑트랑' 얼리면 이렇게 돼.) 29 [동광, 외도]

트랑트랑허다: 액체가 시간이 흘러 묵처럼 잘 굳은 모양을 의미한다. // 우미 사당. 사다근 엔엥 드러 딸령 걸렁은에 저 놔두민 트랑트랑허는 거난게.(우뭇가사리 사다가. 사다가 들이 다려서 걸러서 저 놔두면 '트랑트랑하는' 거니까.) 32 [덕수]

트물: 남원읍 수망리에 있는 지명이다. // 다음날 아침 보니까 저 영아리 두에 그 앞이 트물이엔 ᄒᆞᆫ 디가, 수망리 모 사람이 죽엇다더라.(다음날 아침 보니까 저 '영아리' 뒤에 그 앞의 '트물'이라고 한 데가, 수망리 모 사람이 죽었다더라.) 15 [수망]

트박: 생선 등을 덩어리로 크게 토막내어 썬 모양을 말한다. // 그거 트박 저 까시 이신 체 온 체 영 썰어 논 거 헤사 상에 올림도 허지 헤싸져 불민 안 뒈지게.(그거 '트박' 저 가시 있는 채 온 채 이렇게 썰어 놓은 거 해야 상에 올리기도 하지 바수어져 버리면 안 되지.) 16 [하원]

튼방: 뚫린 방향이라는 뜻으로 사주에서 삼살방위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방향을 말한다. // 튼방 ᄎᆞᆺ앙 강 데껴불어.('튼방' 찾아 가서 던져버려.) 11 // 무신 중싱 그 바당 중싱이라도 안 부그게. 먹어불카부덴. 경헹 데껴비어. 이제도 경헤여, 손지덜 나도 다 바당에 강 데껴불언. 어디 튼방, 막은방허는 식으로 이.(무슨 짐승 그 바다 짐승이라도 안 일게. 먹어버릴까봐. 그렇게 해서 던져버려. 이제도 그렇게 해, 손주들 나도 다 바다에 가서 던져버렸어. 어디 '튼방', '막은방' 하는 식으로.) 11 [함덕]

튿다: '뜯다'이지만 여기서는 '터득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튿다'라고도 한다. // 나 스스로가 이제 그 지금 한글을 알아서 그자 그 간판 써진 거나 전화번호나 통장번호나 그자 나 스스로 튿어 가지고.(나 스스로가 이제 그 지금 한글 알아서 그저 그 간판 쓰인 거나 전화번호나 통장번호나 그저 나 스스로 터득해 가지고.) 06 [남원]

틀막틀막틀막: 된 국물이 끓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ᄆᆞ른 채 허끄는 사름도 잇고 우에, 또 물그릇에 영 허믄 낭푼이에 미지근헌 물에 그 콩ᄀᆞ루를 카근에 젓어근에 막 범벅거치 ᄒᆞ꼼 물랑허게 허영 우터러 ᄉᆞᆯ허게 놓면은 그 콩쿡이 틀막틀막틀막 뒈주게.(마른 채 섞는 사람도 있고 위에, 또 물그릇에 이렇게 하면 양푼이에 미지

근한 물에 그 콩가루를 타서 저어서 마구 범벅처럼 조금 말랑하게 해서 위로 살살 넣으면 그 콩국이 '틀막틀막틀막' 되지.) 20 [고내]

ᄐᆞ레기: 올바르지 않고 비뚤어진 상태의 물건을 뜻한다. 여기서는 모자를 비뚤어지게 쓴 상태로 놀이를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 // ᄃᆞᆯ밤이 이건 웨정 땐 ᄐᆞ레기엔 헌 거.(달밤에 이건 일제강점기 땐 'ᄐᆞ레기'라고 한 거.) 16 // 전쟁놀이 에, 대장ᄒᆞ곡 뒤에 ᄒᆞ곡 ᄐᆞ레기ᄒᆞ곡 헤근에, 이제 게 이거 웨정, 웨정 놈덜 ᄒᆞ는 놀이 닮아.(전쟁놀이 에, 대장하고 뒤에 하고 'ᄐᆞ레기'하고 해서, 이제 게 이거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놈들 하는 놀이 같아.) 16 [하원]

ᄐᆞᆫ깍: 딴총박이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짚신을 만들 때 별도로 꼰 총을 말한다. 또는 총을 따로 꼬아 붙여서 삼은 짚신인 'ᄐᆞᆫ깍신'을 줄여서 'ᄐᆞᆫ깍'이라고 하기도 한다. // 그 초신에도이 영 그 ᄐᆞᆫ깍 베병 이쁘게 삼은 신이 잇어이. 거는이 ᄐᆞᆫ깍신이엔 헤여.(그 짚신에도 이렇게 그 'ᄐᆞᆫ깍' 비벼서 예쁘게 삼은 신이 있어. 거는 'ᄐᆞᆫ깍신'이라고 해.) 30 // ᄐᆞᆫ깍신은 웨 ᄐᆞᆫ깍이엔 허느냐면 그 그냥 무대기로 신는 신은 이렇게 짜 가면서.(딴총박이는 왜 'ᄐᆞᆫ깍'이라고 하느냐면 그 그냥 무더기로 신는 신은 이렇게 짜 가면서.) 30 [노형]

ᄐᆞᆫ깍신: 딴총박이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짚신의 한 종류로, 총을 따로 꼬아 붙여서 삼은 짚신을 말한다. // 따로 헷당 부친 거니까 ᄐᆞᆫ깍신, ᄐᆞᆫ깍신. 그거는 막 새 메누리나 줘이. 새 메누리나 헤 오민 줘. ᄐᆞᆫ깍신.(따로 했다가 붙인 거니까 'ᄐᆞᆫ깍신', 딴총박이. 그거는 아주 새 며느리나 줘. 새 며느리나 해 오면 줘. 딴총박이.) 30 [노형]

ᄐᆞᆫ대섬: 한림읍 한수리에 포함된 한림항 북쪽 방파제와 이어진 큰 여를 말한다. // ᄐᆞᆫ대섬, 거기도 현재 우리 대림 경계우다.('ᄐᆞᆫ대섬', 거기도 현재 우리 대림 경계입니다.) 35 // 우리 상동 쪽은 ᄐᆞᆫ대섬 쪽으론 덜 가낫수다.(우리 상동 쪽은 'ᄐᆞᆫ대섬' 쪽으론 덜 갔엇습니다.) 35 [대림]

ᄐᆞᆫ다: 표준어 '뜯다'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튿다'라고도 한다. // 조도 마찬가지 무껑 집이 오랑 ᄐᆞᆫ아야주게.(조도 마찬가지 묶어서 집에 와서 뜯어야지.) 16 [하원]

ᄐᆞᆫ아지다: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까다롭다는 의미이다. // 하르방 막 ᄐᆞᆫ아진 하르부지여, 이축 헹 안 뒌다.(할아버지 아주 까다로운 할아버지다, 이처럼 해서 안 된다.) 23 // 쪼끔 ᄐᆞᆫ아진 사름은 뭐 아래도 삐어.(쪼끔 'ᄐᆞᆫ아진' 사람은 뭐 아래도 뿌려.) 29 [온평, 외도]

ᄐᆞᆯ락ᄐᆞᆯ락허다: 탄력 있게 튀어 올랐다 내렸다 하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그다음 공 데껴근에 허는 것덜 허고 우리 두린 때 허고 또, 고무줄 영 심엉 벳줄 심어근엥이 이젠 또 ᄐᆞᆯ락ᄐᆞᆯ락허는 것도 허고.(그다음 공 던져서 하는 것들 하고 우린 어린 때 하고 또, 고무줄 이렇게 잡아서 밧줄 잡아서 이젠 'ᄐᆞᆯ락ᄐᆞᆯ락하는' 것도 하고.) 02 [선흘, 신창]

ᄐᆞᆯ레: 타래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실을 감아서 틀어 놓은 얼마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

다. // 박싹허민 그때 싹싹허게 그걸 헤영 영 멘짝, 초석 ᄀᆞ치 멘짝허게 헹 놩 그제 따시 또 영 그거 ᄒᆞᆫ 방울썩 그치멍 ᄐᆞᆯ레 짓주, 영영영영 ᄐᆞᆯ레 짓엉 요만썩 헹 전기 ᄆᆞᆯ듯.('박싹'하면 그때 싹싹하게 그걸 해서 이렇게 매끈, 초석 같이 매끈하게 해 놓아서 그때 다시 또 이렇게 그거 한 방울씩 자르면서 타래 짓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타래 지어서 요만큼씩 해서 빙떡 말듯.) 13 // 마흔 자 허민 그 마흔 자 발수만이 멧 발이엔 발아근에 따시 정 또 막뎅이 빙빙빙빙 헤영 그거 따시 만딱 ᄐᆞᆯ레 짓주게.(마흔 자하면 그 마흔 자 발수만큼 몇 발이라고 재어서 다시 정 또 막대기 빙빙빙빙 해서 그거 다시 모두 타래 짓지.) 13 [삼달]

ㅍ

파군봉: 애월읍 하귀1리에 있는 오름이다. '바굼지오름'이라고도 한다. // 심지 못허여 가지고 이젠 그게 또 넹견에 소레기동산으로 헤여 가지고 어디냐 허믄 바굼지오름. 파군봉꺼지 목까지 아이고, 틀렷다. 틀련, 보니까 거기 김○○라는 사름 잇엇는데 말여. 꿩코 보레 뎅기단에.(잡지 못해 가지고 이젠 그게 또 지나서 '소레기동산'으로 해 가지고 어디냐 하면 '바굼지오름'. '파군봉'까지 목까지 아이고, 틀렸다. 틀렸어, 보니까 거기 김○○라는 사람 있었는데 말이야. '꿩코' 보러 다니다가.) 29 [외도]

파니: '이랑'의 제주어로, 갈아 놓은 밭의 한 두둑과 한 고랑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 이거추룩 요건 또 파니믄 요 영 헌 고랑에 보리가 잇는 거라.(이거처럼 요건 또 이랑이면 요 이렇게 한 고랑에 보리가 있는 거야.) 25 // 감저 싱그기 전에 이 고랑더레 꼴앙 일로 갈곡, 일로 갈곡 허민 요디가 파니 뒈는 거라이.(고구마 심기 전에 그 고랑에 깔아서 이리로 갈고, 이리로 갈고 하면 요기가 이랑이 되는 거야.) 25 [태흥]

파락: 거루 따위 배의 양옆 위쪽에 바깥으로 둘러 붙인 나무를 말한다. // 파락에 잇어근에 잇는 건 이제 젓걸이엔 헤낫수다.('파락'에 있어서 있는 건 이제 '젓걸이'라고 했습니다.) 22 [우도]

파락파락허다: 이리저리 심하게 휘젓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물 끓이멍 경 파락파락허지 말앙 솔허게 성게 놔근에 궤면은 메역 놔근에 근 허민 뒈는 거.(물 끓이면서 그렇게 '파락파락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성게 넣고 끓으면 미역 넣어서 간 하면 되는 거.) 06 [남원]

파박: 총소리를 나타낸 말이다. // 죽을 사름이 열 개민 총 가진 사름도 열 개라이. 딱 맞은펜이로 사근에 그자 파박 헤 불민 메기.(죽을 사람이 열 개면 총 가진 사람도 열 개야. 바로 맞은편에 서서 그저 '파박' 해 버리면 끝.) 06 [남원]

파실파실파실: 가루 따위에 엉기지 않고 흩어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파실파실파실헹 골앙 나와.('파실파실파실' 해서 갈아서 나와.) 30 [노형]

파싹: '더할 나위 없음'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파싹 더운 때 건정, 소금 놓곡.('파싹' 뜨거운 때 건져서, 소금 넣고.) 15 [수망]

파싹: 단단한 물건을 깨뜨릴 때 나는 소리 혹은 그 모양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그거 밟앗당 넘어졍 이듸가 파싹 꺽어젼.(그거 밟았다가 넘어져서 여기가 '파싹' 꺽어졌어.) 18 [신도]

파싹: 물기가 다 말라 버리거나 타들어 가는 모양인 '바싹'의 제주어이다. // 걷어오민 걷어서 파싹 마르면은 이렇게 그 둘르는 기계가 잇어.(걷어오면 걷어서 '파싹' 마르면

이렇게 그 두르는 기계가 있어.) 09 // 그거 파싹 허게 헹 구우난 다시 돋지도 안허고 그 고름 막 엇어지난게.(그거 '파싹' 하게 해서 구우니까 다시 돋지도 안하고 그 고름 막 없어지니까.) 18 [고산, 신도]

파싹파싹: 만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뜨거운 모양을 말한다. // 그자 ᄂᆞ물 솖앙 썰엉 갓다 근에 요샌 게도 냉장고 산도룩헌 물이나 잇지, 물 파싹파싹 떼분 물 그거 놩 뒌장 풀어놩 그자 국허민 그거 냉국으로 먹엇지. 엿날에.(그저 나물 삶아서 썰어서 갔다가 요샌 그래도 냉장고 시원한 물이나 있지, 물 '파싹파싹' 뜨거운 물 그거 놔서 된장 풀어놔서 그저 국이면 그거 냉국으로 먹었지, 옛날에.) 25 [태흥]

파이: 일본어 'パイ(敗)'에서 온 말로 '망침, 실패, 못쓰다'라는 의미이다. // 요새 육지서 들어온 ᄀᆞᆯ겡이론 못 메, 영 거세기 헤 부난, 그 땅 극지도 못허고 파이라.(요새 육지에서 들어온 호미론 못 매, 이렇게 거시기 해 버리니까, 그 땅 긁지도 못하고 못써.) 12 // 아이고, 촐 성케 헤당 파랑케 눌엉 그추룩 헷주. 비만 오지 말아사 팔월에 비 오랑은 파이고.(아이고, 꼴 성하게 해다가 파랗게 가려서 그처럼 했지. 비만 오지 말아야 팔월에 비 와서는 실패고.) 31 [토평, 한동]

파짝: 가볍고 빠르게 덤비거나 날아 붙는 모양을 말한다. // 사람이 보이나 뭐 허나 새끼 날 때 탁 쓰러져 눕거든. 누웟다가 대가리가 나오라 가면은 파짝 일어살 때는 딱 떨어지니까 그때 ᄌᆞᆷ들어 불면은 그쟈 에미가 고통 받는다 이거라.(사람이 보이나 뭐 하나 새끼 날 때 탁 쓰러져 눕거든. 누웠다가 대가리가 나와 가면 벌떡 일어설 때는 딱 떨어지니까 그때 잠들어 버리면 그저 어미가 고통 받는다 이거야.) 19 [청수]

파짝파짝파짝: 빨리 걷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야네 시아바님이 야네 냄편네보단 쪼금 크나마나 헌디 막 걸음도 빨르곡이, 걸음도 파짝파짝파짝 걸음 빨르고 잘도 자상헌 어른. 책도 보고.(얘네 시아버님이 얘네 남편네보다는 조금 크나마나 한데 아주 걸음도 빠르고, 걸음도 '파짝파짝파짝' 걸음 빠르고 아주 자상한 어른. 책도 보고.) 30 [노형]

판: 떡 모양을 만들어주는 떡살을 말한다. // 세미 뜨는 그 판이 잇어.('세미' 뜨는 그 '판'이 있어.) 29 [외도]

판대: 흙 바르는 사람이 이겨진 흙을 받는 나무 판이다. // 판대라 헤 가지고 그 저, 일을 헐 때는 분담허여 가지고 ᄒᆞ끔 기술자라던지 잘허는 사름은 그 쒜손으로 허여 가지고 흑을 ᄇᆞᆯ라가면은 밑에 잇던 사름은 판대로 허여 가지고 ᄒᆞ끔썩 떵 그 판대레 놔 줍니다.('판대'라 해 가지고 그 저, 일을 할 때는 분담하여 가지고 조금 기술자라든지 잘하는 사람은 그 쇠손으로 하여 가지고 흙을 발라가면은 밑에 있던 사람은 판대로 하여 가지고 조금씩 떠서 그 판대로 놔 줍니다.) 35 [대림]

판매칩: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파는 집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 너미 미안헤영이 저냑엔 오랑인에 보민 인부들이 가지 아니시민 일꾼들이 안 가시민 너미 미안헤영 요 집이 판매칩이난 고기 멧 근 사곡 산뒤ᄉᆞᆯ 밥허영 일허는디 쉬렌 허여근에 이디서

주난이 그 사름이 놈의 집보단 더 잘헤줘.(너무 미안해서 저녁엔 와서 보면 인부들이 가지 않았으면 일꾼들이 안 갔으면 너무 미안해서 요 집이 '판매집'이니까 고기 몇 근 사고 밭벼쌀 밥해서 일하는데 쉬라고 해서 여기서 주니까 그 사람이 남의 집보단 더 잘해줘.) 33 [인성]

판잣동산: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동산 이름이다. // 그렇게 헤서 저지 학교 잇는 동산이 배 타는 동산이라고 헤요. 판잣동산이라고 널판자.(그렇게 해서 저지 학교 있는 동산이 배 타는 동산이라고 해요. '판잣동산'이라고 널빤지.) 19 [청수]

판지랑허다: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그때 혼번 보난 판지랑헤서라. 나신디 인사도 막 허고이.(그때 한번 보니까 '판지랑했더라'. 나에게 인사도 마구 하고.) 30 [노형]

판지룽: 조금도 의심할 것 없이 말갛게라는 의미로 '판찍'이라고도 한다. // 프리찜 경 나도 질 때 뒈민 좋곡 나도 판지룽 ᄒᆞ는디, 나이 탁 들언 지금 이거 영 뒈난 주근깨가 막 나불고, 무시거 어두른 거 부슴 나불고.(주근깨 그렇게 나도 자기 때 되면 좋고 나도 '판지룽' 하는데, 나이 탁 들어서 지금 이거 이렇게 되니까 주근깨가 막 나버리고, 뭐 어지러운 거 부스럼 나버리고.) 15 [수망]

판찍: 씻은 듯이 아무것도 없는 모양의 의미를 지니는 제주어이다. '펀찍', '퍼찍'이라고도 한다. // 경허난 그 올를 때에 뒈어 가민 그 누에가 밥도 안 먹엉. 먹어진 게 이 일로 알르레 판찍 헤영 헤둠서 고개 혼들혼들혼들 그거 벌써 집 짓을 중후라.(그러니까 그 오를 때에 돼 가면 그 누에가 밥도 안 먹어. 먹은 게 이 이리 아래로 '판찍' 하게 해두고서 고개 한들한들한들 그거 벌써 집 지을 징후야.) 15 // 그냥 판찍 씰아 두어둰에 게난 마당이 깨끗해야 뒈어.(그냥 '판찍' 쓸어 두어서 그러니까 마당이 깨끗해야 돼.) 16 // 이제 판찍 헌 사람들 아이들 군인 강 죽은 사람들은 부모나 자식 엇이믄 그대로 내 불고 거 완전 안 뒌 일이라.(이제 '판찍' 한 사람들 아이들 군인 가서 죽은 사람들은 부모나 자식 없으면 그대로 내 버리고 거 완전 안 된 일이야.) 18 // 곰팽이가 피면은 이자 그거 장담을 때는 물에다 담가서 판찍 곰팽이 싯어두고 소금물에 헤서 장 담그고.(곰팡이가 피면 이제 그거 장 담글 때는 물에다 담가서 '판찍' 곰팡이 씻어두고 소금물에 해서 장 담그고.) 19 [봉성, 수망, 신도, 청수, 하원]

판찍ᄒᆞ다: 씻은 듯이 아무것도 없는 모양을 말하는 제주어인데, 여기서 '판찍ᄒᆞ게'는 '깨끗하게, 혹은 '깔끔하게' 조이삭의 꺼풀이나 이물질을 제거한 상태를 말한다. // 물ᄀᆞ랑에서 ᄀᆞᆯ앙 오민은 그 ᄊᆞᆯ을 불련, 판찍ᄒᆞ게 불령 밥헹 먹엇주게.(연자맷간에서 갈아서 오면 그 쌀을 불려서, '판찍하게' 불려서 밥해서 먹었지.) 15 [수망]

판포오름: 한경면 판포리에 있는 오름이다. '널개 오름', '판포악(板浦岳)'이라고도 한다. // 판포오름만이 헌다.('판포오름'만큼 한다.) 10 [월령]

팔: 삼, 눈삼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눈동자에 좁쌀만 하게 생기는 흰 점이나 붉은 점을 말한다. 여기서는 '다래끼'를 말하는 것 같다. // 팔 낫젠 ᄒᆞ멍 그 뭐이궁 ᄒᆞ민

그거ᄀᆞ라 팔이엔 ᄀᆞᆯ아.(삼 낫다고 하면서 그 뭐냐고 하면 그거보고 '팔'이라고 말해.) 15 [수망]

팔룽허다: 앞으로 불쑥 튀어나오다는 뜻이다. // 눈 영 가운디 팔, 거 무시거 영 팔룽헌 거 그런 거 나.(눈 이렇게 가운데 삼, 거 뭐 이렇게 '팔룽한' 거 그런 거 나.) 15 [수망]

팔수: 말의 나이 여덟 살을 일컫는 말이다. // 금승, 이수, 두 설짜린 이수주게. 이수, 삼수, 오수. 오수, 육수, 칠수, 팔수, 구수, 십수엔 헷네.(하릅, 이듭, 두 살짜린 '이수'지. 이듭, 사릅, 다습. 다습, 여습, '칠수', '팔수', '구수', '십수'라고 했네.) 01 [도련]

팔월베: 콩의 하나로 색깔이 노란 콩으로 주로 기름을 짜거나 콩나물을 재배하는 데 쓰는 콩이다. // 팔월베는 장콩이고. 머드레콩이라고 씨가 좀 틀린 거우다.('팔월베'는 메주콩이고 그루콩이라고 씨가 좀 다른 거예요.) 03 // 엿날 팔월베[팔뤌베]는 콩이 두부도 하곡 맛도 싯는디 이제 준자리엔 헌 콩은 우리 집이서는 두불 못 헤여.(옛날 '팔월베'는 콩이 두부도 많고 맛도 있는데 이제 '준자리'라고 하는 콩은 우리 집에서는 두부를 못 해.) 11 // 파란 콩, 또 팔월베엔 헤연 거 그거 잇고 콩ᄂᆞ물 놔 먹는 ᄌᆞᆷ진 거 잇고.(파란 콩, 또 '팔월베'라고 해서 그거, 그거 있고 콩나물 놔서 먹는 자잘한 거 있고.) 25 [송당, 태흥, 함덕]

팔월절: 24절기의 하나로 백로를 가리킨다. '백로'는 처서와 추분 사이에 들며, 양력 9월 9일경을 말한다. // 백로에는 그 뭐인가 이슬이 그 만이 내린다고 그래서 백로주. 그것이 바로 팔월절이여, 백로가.(백로에는 그 뭐인가 이슬이 그 많이 내린다고 그래서 백로지. 그것이 바로 팔월절이야, 백로가.) 12 // 팔월절은 백로가 팔월절인디.('팔월절'은 백로가 '팔월절'인데.) 14 // 팔월절 들기 전이난에.('팔월절' 들기 전이니까.) 29 [성읍, 외도, 한동]

팔월중: 팔월의 절기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팔월중'이 정확하게 언제를 일컫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구술 내용을 보면 백로 이후에 10일 정도 지난 후의 날을 가리키고 있다. 이 '팔월중'이 들면 꼴 베기를 시작한다고 한다. // 백로 지낭 한 십일 지나민 팔월중이 돌아와.(백로 지나서 한 십일 지나면 '팔월중'이 돌아와.) 14 // 멩질 지낭도 들어오는 팔월중 뒈면은 우리 멩질 헤 먹엉 강 촐 무끄레도 놉 빌언 가왓는디.(명절 지나서도 들어오는 '팔월중' 되면 우린 명절 해 먹고서 가서 꼴 묶으러도 놉 빌려서 가왔는데.) 14 [성읍]

팔찌: 당에 다닐 때 신앙민들이 신을 위해 갖고 가는 천을 말한다. // 팔찌엔 한 거는 비단이나 비단 양단.(팔찌라고 한 거는 비단이나 비단 양단.) 05 [표선]

팡: 말을 타고 내리거나 짐을 지고 부리거나 할 적에 대(臺)가 되게끔 놓인 넓적한 큰 돌 따위를 말한다. // 집을 좀 높은 사람은 것도 또 키 작은 사름은 아래서 팡에나 안 앚이민 것도 줄 메지도 못ᄒᆞᆸ니다.(집을 좀 높은 사람은 그것도 또 키 작은 사람은 아래서 '팡'에나 안 앉으면 그것도 줄 매지도 못합니다.) 15 // 집의서는

집의 허벅 부리는 물팡은 낭으로 세와근에 지둥 두 개 세우곡, 베리 세왕 납작ᄒᆞ게 우트레 무싱거 여까놔근에 물 질레 갈 때 톡 경가곡, 톡 경오곡, 경ᄒᆞ고 물 질레 가민 통물엔 물팡이 돌로 뒌 팡이우다.(집에서는 집에 '허벅' 부리는 '물팡'은 나무로 세워서 기둥 두 개 세우고, 물추리막대 세워서 납작하게 위로 무엇 엮어놓아서 물 길러 갈 때 톡 져서가고, 톡 져서오고, 그리고 물 길러 가면 '통물'에는 '물팡'이 돌로 된 '팡'입니다.) 17 // 나무를 지어 오면은 뭐 할머니나 어머니나 이런 사람들 많이 지어서 오래 걷지도 못ᄒᆞ면은 우리가 중간까지 마중 나가는 팡이 잇어.(나무를 지어오면 뭐 할머니나 어머니나 이런 사람들 많이 지어서 오래 걷지도 못하면 우리가 중간까지 마중 나가는 '팡'이 있어.) 27 // 솔입 긁엉 오단 일러불언에. 저 줄창 ᄒᆞ젠, 줄창이엔 ᄒᆞᆫ 말은 ᄒᆞᆫ번 이펜 팡더레 져다 뒁 또 강 저듸 거 이펜 팡더레 져다 놓곡. 경헤사 집의 가까와 가젠.(솔잎 긁어서 오다가 잃어버려서. 저 줄곧 하려고, '줄창'이라고 한 말은 한번 이편 '팡'으로 져다둬서 또 가서 저기 거 이편 '팡'으로 져다 놓고. 그래야 집에 가까워 가려고.) 28 [고내, 구억, 구엄, 남원, 대평, 보목, 수망, 옹포, 토평]

팡돌: 말을 타고 내리거나 짐을 지고 부리거나 할 적에 대가 되게끔 놓인 넓적한 큰 돌 따위를 말한다. 달리 '팡'이라고도 한다. // 물팡은 대 셉는 게 아니고 그냥 팡돌 놓는 거.('물팡'은 대 세우는 게 아니고 그냥 '팡돌' 놓는 거.) 01 // 그거, 이 저 팡돌엔 헌 게 잇어. 돌에 영 ᄒᆞ꼼 영 납수룩헌 놈 허영은에 영 고냥 ᄠᅳᆯ랑.(그거, 이 저 '팡돌'이라고 한 게 있어. 돌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납작한 놈 해서 이렇게 구멍 뚫어서.) 14 // 땅이 수평 안 뒌 디는 물이 고인 디가 잇거든. 게니까 그거를 방지허기 위헤서 이 담 쪽으로 돌을 놔. 게 팡돌, 거.(땅이 수평 안 된 데는 물이 고인 데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담 쪽으로 돌을 놔. 게 '팡돌', 거.) 14 // 무신 거 노픈 거 놩 올라상은엥에. 팡돌 놩 올라상.(무슨 거 높은 거 놔서 올라서서. '팡돌' 놓고 올라서서.) 36 [도련, 봉성, 성읍]

팡팡팡: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 걸 불 질르면은 불 부뜨기 시작ᄒᆞ면은 그게 제일 처음 불 부찔 땐 제일 꼭대기에 흑을 완전히 안 더프는 거라. 그 웨냐면 불은 웃트레 공기 순환뒈렌. 경ᄒᆞ민 연기 팡팡팡 낭 불 완전히 부뜬 거 닮으민 우의 완전히 더꺼 불어.(그것을 불 지르면 불 붙기 시작하면 그게 제일 처음 불 붙일 땐 제일 꼭대기에 흙을 완전히 안 덮는 거야. 그 왜냐하면 불은 위쪽으로 공기 순환되라고. 그러면 연기 '팡팡팡' 나서 불 완전히 붙은 거 닮으면 위에 완전히 덮어 버려.) 08 [동광]

패: 흑갈색 해조류이다. // 패, 패. 정각은 우리 생차로 먹는 거고. 패, 넙패라고.('패', '패'. 청각은 우리 생채로 먹는 거고. 패, 넓패라고.) 03 [송당]

패마농: 쪽파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삥이마농'이라고도 한다. // 그 쪽파짐치는 패마농엔 허주.(그 쪽파김치는 '패마농'이라고 하지.) 23 [온평]

패밥: 보리쌀에 흑갈색 해조류 패를 넣어 지은 밥을 말한다. 구황 음식의 한 가지이다. //

패밥이엔 헌 거는 잇어신디 안 헤 먹엇어. 여기는. 아, 패밥 헤 먹어낫다.('패밥'이라고 한 거는 있었는데 안 헤 먹었어. 여기는. 아, 패밥 해 먹어났다.) 09 // 패밥은 아니 헤보고. 패에는 물릇 굴 때.('패밥'은 아니 해보고. 패에는 무릇 구울 때.) 14 // 패밥은 못 먹어. 못 먹어. 톳은 놓은 거 먹어져. 톳은 흐린좁쏠에 놩 밥 허믄 맛 좋안게 건.('패밥'은 못 먹어. 못 먹어. 톳은 놓은 거 먹을 수 있어. 톳은 차조에 놔서 밥 하면 맛 좋았어 건.) 27 // 패밥 ᄀᆞ뜬 건 여기선 안 먹어낫수다.('패밥' 같은 것은 여기에서는 안 먹었습니다.) 35 [고산, 구억, 대림, 성읍, 옹포, 월령, 우도]

패싸다: 물고기의 배를 가르다는 뜻이다. // 솔레긴 패싸근에 소금 헤영, 소금 ᄍᆞᆸ지롱허게 소금 이제ᄀᆞ치 안 헹 소금 짜게 허주게.(옥돔은 '패싸서' 소금 해서, 소금 짭짤하게 소금 이제처럼 안 하고 소금 짜게 하지.) 13 [삼달]

패우럭: 우럭의 한 가지다. '패'라는 식물이 나는 곳에서 서식하여 붙은 명칭이다. // 패우럭엔 헌 거는 영 호랑겡이에 잇는 디, 패 나는 디.('패우럭'이라고 한 거는 이렇게 '호랑겡이'에 있는 데, '패' 나는 데.) 05 [표선]

팩팩: 총소리를 나타낸 말이다. // ᄒᆞᆯ. 오란 머졋는디, 다 조반 헨에 밥헨에 낭푼이가 어딧어, 나무도고리에 밥헨에 다 푸노렌 허난에 요쪽으로 팩팩.(조금. 와서 묵었는데. 다 조반 해서 밥해서 양푼이 어딨어, 나무함지박에 밥해서 다 뜬다고 하니까 요쪽에서 팩팩.) 06 [남원]

퍼더기: 속이 여물지 않고 넓게 퍼진 배추를 말한다. '퍼데기', '퍼데기ᄂᆞ물'이라고도 한다. // ᄂᆞ물 퍼더기 닮은 거, 함덕 강 안 사오민 ᄂᆞ물도 속 안 찬 거 헤영 저 우린 바다 ᄇᆞ디난 바당에 가근에 물 질어당 큰큰헌 항아리에 소금 쪼금 헤영 돌 꽉 지둘뢍 ᄒᆞᆫ 메칠 놔두민.(나물 '퍼더기' 같은 거, 함덕 가서 안 사오면 나물도 속 안 찬 거 해서 저 우린 바다가 가까우니까 바다에 가서 물 길어다가 크디큰 항아리에 소금 조금 해서 돌 꽉 지질러서 한 며칠 놔두면.) 06 [남원]

퍼덕지다: 배추 따위의 채소가 속이 둥글게 들지 아니하고 윗부분이 벌어진 것을 말한다. // ᄂᆞ물도 속 안 차도게 갈아 퍼덕진 거.(나물도 속 안 차도 갈아 '퍼덕진' 거.) 06 [남원]

퍼데기: '퍼데기ᄂᆞ물'로 속이 여물지 않고 넓게 퍼진 배추를 말한다. '퍼더기'라고도 한다. // 퍼데기로 헤도 짐치 경헤도 맛잇어.('퍼데기'로 해도 김치 그렇게 해도 맛있어.) 01 // 담은 장이난 맛셔. 담은 장이난 맛셔. 게난 그저 ᄂᆞ물쿡, ᄂᆞ물 퍼데기. 드릇ᄂᆞ물 그거 케당 허곡. ᄂᆞ물 가는 걸 몰른 거라. 이젠 속 앚는 ᄂᆞ물 잘 뒈는디 옛날은, ᄂᆞᆷ삐도 문달문달 잘 뒈도 옛날 ᄂᆞ물 가는 걸 몰란.(담근 장이니까 맛있어. 담근 장이니까 맛있어. 그러니까 그저 나물국, 나물 '퍼데기'. 들나물 그거 캐다가 하고. 나물 가는 걸 모른 거야. 이젠 속 앉는 나물 잘 되는데 옛날은, 무도 는적는적 잘 돼도 옛날 나물 가는 걸 몰랐어.) 26 // 퍼데기로 허여근에. 그거는, 열무김친예, 여름에 담읍니다게.('퍼데기'로 해서. 그건, 열무김치는

요, 여름에 담급니다.) 35 // 저 배추 퍼데기, 배춧국은 그자 뒌장도 놩 끌련 먹곡, 아무거라도 그거 놩 궁합 맞는 거.(저 배추 '퍼데기', 배춧국은 그저 된장도 넣어서 끓여 먹고 아무거라도 그거 넣어서 궁합 맞는 거.) 36 [고내, 대림, 도련, 봉성, 성읍, 신창, 표선, 하원, 함덕]

퍼데기ᄂᆞᆯ: 속이 여물지 않고 넓게 퍼진 배추를 말한다. 달리 '퍼데기', '퍼더기'라고도 한다. // 퍼데기ᄂᆞᆯ이주마는 속앚인ᄂᆞ물은 짐치도 봄 나사 맛잇주, 겨울엔 맛엇어. 퍼렁허연.('퍼데기ᄂᆞᆯ'이지마는 결구배추는 김치도 봄 되어야 맛있지, 겨울엔 맛없어. 퍼래서.) 14 // 배추에 쏙도 안 앚인 퍼데기ᄂᆞᆯ 거 퍼렁헌 거 소금에 절엿당.(배추에 속도 안 앉은 '퍼데기ᄂᆞᆯ' 거 퍼런 거 소금에 절였다가.) 23 [덕수, 성읍, 온평]

퍼들퍼들: 바람에 따라 천 등이 나부끼는 소리인 '펄럭펄럭'의 의미이다. // 초석이엔 헌 건 배에 큰 배민 상선허민 대에 ᄃᆞᆯ아매엉 퍼들퍼들 허는 게 배 초석이주게.(돛이라고 한 건 배에 큰 배면 상선하면 대에 달아매어서 '퍼들퍼들' 하는 게 배 돛이지.) 13 [삼달]

펀찍: 아무것도 없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판찍'이라고도 한다. // 막 ᄆᆞᆷ이 옛날엔 잘도 하. 이젠 ᄆᆞᆷ이 엇인디. 옛날은 ᄒᆞᆫ 짐씩 강 헤여 왓주게. 근디 이젠 무사 엇어게, 펀찍.(아주 모자반이 옛날에는 아주 많아. 이젠 모자반이 없는데. 옛날은 한 짐씩 가서 해 왔지. 그런데 이젠 왜 없어, '펀찍'.) 26 [신창]

펄깅이: 주로 갯벌에 사는 게를 말한다. '펄겡이'라고도 한다. // 펄깅인 노린내 나는 거, 그건 먹지 안허는 거.('펄깅이'는 노린내 나는 거, 그건 먹지 않는 거.) 12 [구엄, 한동]

펄뭇: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지명의 하나이다. // 이구에 와서는 요디 허면 펄뭇 동네, 펄뭇 동네 김칩이라고 유명.(이구에 와서는 요기 하면 '펄뭇' 동네, '펄뭇' 동네 김씨집이라고.) 11 [함덕]

펄바당: 바다밑에 갯벌이 깔린 바다를 말한다. // 그냥 낙배로 가민 거 다 내영 다 젓엉 어느 펄바당 갓당 오젠 허민 ᄇᆞ름 만나민 그냥 죽어불곡.(그냥 낚배로 가면 그거 다 내어서 다 젓어서 어느 '펄바당'에 갔다 오려고 하면 바람 만나면 그냥 죽어버리고.) 11 // 펄바당엔 난바르엔 헨 먼바다에 갓다왓다.('펄바당'이라고 '난바르'라고 해서 먼바다에 다녀왔다.) 23 [온평, 함덕]

페랍다: 성질이 신경질적이고 사납기 때문에 다루기가 힘들다는 말이다. 달리 '페까랍다'라고도 한다. // 저 새스방집의 새각시집 페라운 집의는 새스방 가민 올레에 ᄒᆞᆫ 시간 넘어 세왕 잘못 헷저, 잘 헷저 ᄒᆞ멍 난리가 나.(저 새서방집에 새색시집 '페라운' 집에는 새서방 가면 '올레'에 한 시간 넘어 세워서 잘못 했어, 잘 했어 하면서 난리가 나.) 17 // 경ᄒᆞ민양, 새서방 우시가 글 아는 사름 가사주, 글 모르는 사름 가민, 새각시 페라우민 예장 새로 써오렌 ᄒᆞ곡 ᄒᆞᆸ니다.(그러면요, 새서방 위요가 글 아는 사람 가야지, 글 모르는 사람 가면, 새색시 '페라우면' 예장 새로

써오라고 하고 합니다.) 17 // 쉐가 아주 좋은 놈은 한두 번 이껑 허민 밧을 갈 수 잇는디. 페라운 건 뭐 드러눵은에 불로 지져도 안 일어나.(소가 아주 좋은 놈은 한두 번 이끌어서 하면. 밭을 갈 수 있는데. '페라운' 건 뭐 드러누워서 불로 지져도 안 일어나.) 32 // 게난, 그 ᄉᆞᆨ쉐가 페랍기는 ᄒᆞ는디 일은 엄청 잘 헤. 지치지도 안허고. ᄉᆞᆯ짐도 허고.(그러니까, 그 'ᄉᆞᆨ쉐'가 '페랍'기는 한데 일은 엄청 잘해. 지치지도 않고. 살찌기도 하고.) 36 [대평, 덕수, 봉성]

페렝이: 짚이나 댓개비로 엮어 농사 일을 할 때 쓰는 모자를 말한다. 달리 '페랑이'라고도 한다. // 페렝이가 보릿대 끄트머리 빼영 곱게 손봐가지고 그걸로 짜 이렇게 패렝이 멘들게끔.('페렝이'가 보릿대 끄트머리 빼서 곱게 손봐가지고 그걸로 짜 이렇게 '페렝이' 만들게끔.) 09 [고산]

페쓰다: 생선의 배를 가르는 것을 말한다. '베르싸다', '베카다', '패싸다'라고도 한다. // 아이덜 먹당 가시 걸리카부덴 페싸근에 소금헷당은에 옛날엔 대막뎅이 큰 거 헹 놔근에 노끗 헹 헤근에 막 그 ᄑᆞ리 아니 올라가게끔.(아이들 먹다가 가시 걸릴까봐 '페사서' 소금했다가 옛날엔 대막대기 큰 거 해서 놔서 노끈 해서 막 그 파리 아니 올라가게끔.) 05 [신창, 표선]

페장: 꿩 사냥 때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 ᄉᆞ농 페장이 잇어 가지고 헤서. 이제 그 서로 합의헤 가지고 수산이나 영 헹. 고성만 갈 수도 잇어. 이 동네 싸름만 헤영 가는 수도 잇지마는. 게민 규모가 족으민 꿩을 얼마 못 잡아.(사냥 패장이 있어 가지고 해서. 이제 그 서로 합의해 가지고 수산이나 이렇게 해서. '고성'만 갈 수도 있어. 이 동네 사람만 해서 가는 수도 있지마는. 그러면 규모가 작으면 꿩을 얼마 못 잡아.) 04 [고성]

펭마리: 귀틀을 보지 못하게 귀틀 위에 널을 깐 마루를 말한다. 표준어 '널마리'에 해당하는 말인 것 같다. // 귀클을, 귀클을 못 바리게 허는 거는 이건 펭마리라고 헤서 그냥 귀클 이렇게 메운 다음에 우에 널 깔아 부는 거고.(귀틀을, 귀틀을 못 보게 하는 거는 이건 '펭마리'라고 해서 그냥 귀틀 이렇게 메운 다음에 위에 널 깔아 버리는 거고.) 14 [성읍]

펭풍도르: 대정읍 구억리에 있는 병풍 모양의 큰 돌이다. '펭풍돌'이라고도 한다. // 펭풍도르. 게난 펭풍돌이엔 허영, 펭풍이난, 돌이 펭풍ᄀᆞ치 그자 ᄀᆞ찡허게.('펭풍도르'. 그러니까 '펭풍돌'이라고 해서, 병풍이니까, 돌이 병풍같이 그저 가지런하게.) 34 [구억]

펭풍산: 표선면 성읍1리 지경 가운데 하나이다. 돌이 병풍처럼 둘러쳐져서 붙은 지명이다. // 거기 펭풍산엔 헌 디도 잇고. 펭풍. 펭풍산은 돌로 이렇게 바로 펭풍 모냥으로 쳐진 돌이 잇어.(거기 '펭풍산'이라고 한 데도 있고. 평풍. '펭풍산'은 돌로 이렇게 바로 병풍 모양으로 쳐진 돌이 있어.) 14 [성읍]

편방: 문기둥을 뜻하는 건축 용어이다. // 아랫 건 이건 지방이고, 옆인 편방. 것ᄀᆞ라는 편방이엔 헙니다.(아래 건 이건 문지방이고, 옆에는 '편방'. 것더러 '편방'이라고 합

니다.) 35 // 편방이 도리하고 밑에 알도리ᄁᆞ지 연결시켜 가지고 허는 건디 그 편방을 부쪄야 가운디 도리도 그 축ᄇᆞ름도 멘들고 헐 겁주게.('편방'이 도리하고 밑에 아랫도리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 건데 그 편방을 붙여야 가운데 도리도 그 벽도 만들고 할 거지요.) 35 [대림]

평메: 흙을 평평하게 만들다라는 뜻이다. // ᄆᆞᆯ ᄆᆞᆯ앙 초불을 싹 ᄒᆞᆫ 불을 그 갈아 논 거를 그 평메 지와놓고. 그 다음 씨를 뿌리주게.(말 몰아서 애벌을 싹 한 벌 갈아 놓은 것을 그 '평메' 지어놓고. 그 다음 씨를 뿌리지.) 04 [고성]

포: '거듭'의 옛말로 여기서 '포 들다'라고 하는 것은 중복하여 가입하다는 의미가 된다. // 포 드는 디도 잇고, 포 드는 딘 이디 허여난 디도 딴 고지로 부뜨민 이디도 또 부뜨고 ᄋᆞ라 가지가 뒈지.('포 드는' 데도 있고, '포 드는' 덴 여기 했었던 데도 다른 가지로 붙으면 여기도 또 붙고 여러 가지가 되지.) 11 // 부줄 허젠 허믄 이쪽에서도 나가 부주 내어주고 저쪽 고지에서도 부주 내어주고 허난 포 든 거지.(부조를 하려고 하면 이쪽에서도 내가 부조 내어주고 저쪽 가지에서도 부조 내어주고 하니까 '포 든' 거지.) 11 [함덕]

포가다: '겹쳐지다'의 의미이다. // ᄑᆞᆯ힘 내영 촥촥 뿌리면은 막 포가지 아녕 골로로 가곡.(팔심 내서 촥촥 뿌리면 아주 '포가지' 않아서 골고루 가고.) 23 [온평]

포고락허다: 거칠지 않고 매끄럽고 부드럽다는 말이다. // 피쏠 놩 밥허민 피쏠에 보리쏠만 놩 밥허민 밥이 사락사락헌디 모ᄆᆞᆯ쏠을 놓민 ᄒᆞ꼼 포고락허게 좋아.(핍쌀 놔서 밥하면 핍쌀에 보리쌀만 놔서 밥하면 밥이 사락사락한데 메밀쌀을 놓으면 조금 '포고락하게' 좋아.) 13 [삼달]

포드렌: 결구배추의 한 종류로 '포두련배추'를 말한다. // 뭐 지브렌이다 포드렌이다 허는 거는, 청방이다 허는 게 전부 중국서 왓주게.(뭐 '지브렌'이다 '포드렌'이다 하는 거는, '청방'이다 하는 게 전부 중국에서 왔지.) 06 [남원]

포따리: 보따리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여기서 '포따리'는 파, 고사리 등을 넣어서 지진 전을 말한다. // 계란 놩 동글락허게 파 하나 놓고 고사리 놓고 헌 거 포따리.(계란 놔서 동그랗게 파 하나 놓고 고사리 놓고 한 거 '포따리'.) 26 [신창]

포마시: 남에게 때려 맞거나 원한이 있을 때 그를 때려 주거나 원한 갚음을 하는 짓을 말한다. // 폭도 ᄒᆞ나 심언에 죽여부난에 그 포마시로 더.(폭도 하나 잡아서 죽여 버리니까 그 '포마시'로 더.) 16 [하원]

포삭포삭허다: 음식 따위가 씹었을 때 보드랍고 탄력이 있는 느낌을 말한다. // 주젱이 잇어야 ᄒᆞ꼼 포삭포삭허곡 헌디.('주젱이' 있어야 조금 '포삭포삭허고' 한데.) 30 [노형]

포수터: 제주시 도련동 지명의 하나이다. // 무기고 이제 이런 밧이 잇는가 하면은 그 옆에 활대왓이라고 이제 그 활을 만들기 위해서 키우던 대밧이 잇는데, 현재는 없지마는 그 대가. 다시 그 옆에 포수터라고 헤가지고.(무기고 이제 이런 밭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 '활대왓'이라고 이제 그 활을 만들기 위해서 키우던 대밭이 있는데,

현재는 없지만 그 대가. 다시 그 옆에 '포수터'라고 해가지고.) 01 [도련]

포적: 메밀가루 따위로 지져내서 잘라서 꼬챙이에 꿰서 만든 적을 말한다. // 건 아무 포적이라고 꼭 적은 지져놔사이 아무 걸 헤도.(그건 아무 '포적'이라고 꼭 적은 지져놔야 아무 걸 해도.) 10 // 이 젓갈 알러레 놩 포적 야 포적이라고 요만썩 헹 꿴다게.(이 젓갈 아래에 놔서 '포적' 야 '포적'이라고 이만씩 해서 꿴다.) 10 [월령]

포제: 매년 정월 첫 정일(丁日)에 지내는 유교식 동제를 말한다. 마을의 번영이나 건강을 위해 지내는 마을제이다. // 포제, ᄆᆞ을제가 셔낫저. 우리 어린 때 집터가 바로 이 밑엔 디 근디 우리 ᄋᆞᆨ은 때ᄁᆞ장은 제를 지내온디 이제 우리 ᄋᆞᆨ은 후제는 그 하르방덜 다 돌아가부니까 이젠 다 끈어불언. 이젠 끈언. 제 안 헌다.('포제', 마을제가 있었지. 우리 어린 때 집터가 바로 이 밑엔 데 그런데 우리 철 들 때까지는 제를 지내왔는데 이제 우리 철든 후에는 그 할아버지들 다 돌아가버리니까 이젠 다 끊어버렸어. 이젠 끊었어. 제 안 한다.) 10 // 엿날에 포제 허단 이젠 설러비언.(옛날에 포제 하다가 이젠 끝내버렸어.) 15 // 포제엔 헤근에 일 년에 ᄒᆞᆫ 번, 건 ᄆᆞ을 ᄆᆞ을제주게.(포제라고 해서 일 년에 한 번, 건 마을 마을제지.) 16 // 거기 집 잇어난디 집 틀어 불엇어. 왜냐허믄 거기서 이제 마을 포제 헤나서.(거기 집 있었던데 집 뜯어 버렸어.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마을 포제 했었어.) 21 [고성, 남원, 봉성, 수망, 신창, 신촌, 월령, 하원]

포젯단: 마을을 지키는 파수들이 보초를 서는 파수막을 말한다. 포젯단은 '포제+ㅅ+단'의 구성으로 '포제'는 마을을 지키는 신을 위하여 지내는 제사를 말하고, '단'은 그 제사를 지내는 터를 뜻한다. // 그 저 순경 식으로 이제 저 순경 식으로게 영 저 포제 포젯단 영 저 성을 이렇게 둘렁.(그 저 순경 식으로 이제 저 순경 식으로 이렇게 저 '포제' '포젯단' 이렇게 저 성을 이렇게 둘러서.) 32 [덕수]

포젯단: 포제를 지내기 위한 제단이 있는 곳을 말한다. // 이 포젯단 이거 이제 완전히 제 헤난 단이 잇주게.(이 포젯단 이거 이제 완전히 제 했던 단이 있지.) 15 // 포젯단이 아니고 건.(예. 포제단이 아니고 건.) 16 [수망, 하원]

포젯동산: 포제를 지내는 장소를 말하는데 보통 마을에서 높은 동산에 위치해 있다. // 포젯동산이 바로 포제 헤지난 동산.(포제동산이 바로 포제 해지니까 동산.) 16 // 잣담 다진 디 강 제지내고 이제도 그 포젯동산 몰라 멜라불어신가. 옛날 우리 성굴왓 산 땐 그 포젯동산, 포젯동산 헤난.('잣담' 쌓은 데 가서 제지내고 이제도 그 '포젯동산' 몰라 무너뜨려버렸는가. 옛날 우리 '성굴왓' 살 때는 그 '포젯동산', '포젯동산' 했었어.) 26 [신창, 하원]

폭: 팽나무 열매를 말한다. // 옛날에는 폭 타먹으레 나무 올랏당 나무 뿌러지민, 바닥으로 떨어지민은 기절허다시피 헌 사람은 위급헐 때는 아무라도 오줌 싸서 멕여서.(옛날에는 '폭' 타먹으러 나무 올랐다가 나무 부러지면, 바닥으로 떨어지면 기절하다시피 한 사람은 위급할 때는 아무라도 오줌 싸서 먹였어.) 07 [보목]

폭남굴: 애월읍 광령리의 지경 이름이다. 달리 '폭낭굴'이라고 하였다. // 광령, 광령일리로 알러레 내려가믄 폭낭굴이라고. 폭남굴이 아니라 폭락굴입니다. 그 폭락굴.('광령', '광령일리'로 아래로 내려가면 '폭낭굴'이라고. '폭남굴'이 아니라 '폭락굴'입니다. 그 '폭락굴'.) 29 [외도]

폭낭굴: 대정읍 구억리에 있는 지경이다. // 아, 거기 다 구억린디, 요 ᄒᆞ끔 저기 폭낭 이신디 폭낭굴.(아, 거기 다 구억리인데, 요 조금 저기 팽나무 있는데 '폭낭굴'.) 34 [구억]

폭낭오름: 애월읍 봉성리 화전동 북서쪽에 있는 오름이다. // ᄒᆞᆫ번은 우리 ᄒᆞᆫ 스무 남은, 스물댓 될 땐디, 서이가 저, 솔도 아래 폭낭오름이엔 ᄒᆞᆫ 디 강, 이젠 서이가 숫을 굽는디. 카, 호루라기 소리가 알로 나. 아이고, 산감 왓젠 다 도망을. 서이가 각자 도망쳔.(한번은 우리 한 스무 남은, 스물댓 될 땐데, 셋이 저, 솔도 아래 '폭낭오름'이라고 하는 데 가서, 이젠 셋이 숯을 굽는데. 카, 호루라기 소리가 아래서 나. 아이고, 산감 왔다고 다 도망을. 셋이 각자 도망쳤어.) 36 [봉성]

폴폴허다: 원래 풀기가 많은 모양을 뜻하나 여기서는 전복이 외부 충격이 없이 자연스럽게 다닐 때의 모습을 말한다. // 처암 폴폴헐 땐 꼭 찔르민 테지고, 엉덕 안네 지픈 엉덕이나 들리민 아무나 못허민 저끗디 빌엉 허는 사름은 빌엉 허고.(처음 '폴폴헐' 땐 꼭 찌르면 떼어지고, 바위 안에 깊은 바위이나 걸리면 아무나 못하면 곁에 빌어서 하는 사람은 빌어서 하고.) 13 [삼달]

폴폴허다: 풀기가 많은 모양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메밀ᄊᆞᆯ을, 흐린좁ᄊᆞᆯ도 더 가르륵허주게. 게난 ᄆᆞ멀ᄊᆞᆯ을 좀 놔사만 폴폴헌 게 죽이 먹어지주.(메밀쌀을, 차좁쌀도 더 '가르륵허주게'. 그러니까 메밀쌀을 좀 넣어야만 풀풀한 게 죽이 먹어지지.) 14 [성읍]

폿지둥: 들보를 받쳐서 세운 기둥을 말한다. // 폿지둥이 네 개씩 네 개민은 ᄋᆞ섯 개.('폿기둥'이 네 개씩 네 개면 여섯 개.) 14 // 일로 이 새에 폿지둥 사이에 이렇게 귀클 허곡 이렇게 귀클 허곡 다 허주게, 영.(일로 이 새에 '폿지둥' 사이에 이렇게 귀틀 하고 이렇게 귀틀 하고 다 하지, 이렇게.) 14 [성읍]

퐁각: 피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소리를 나타낸 말이다. // 안 우는디 아이고, 영 앚아시민 어멍으로 퐁각. 겐 기자 어멍 기자 바로 앞이 죽어 가민 아이고, 어멍아, 어멍아 허노렌 허민. 아이구, 살아지켜 물 ᄒᆞᆯᄊᆞᆯ 주민 살아지켜.(안 우는데 아이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머니에게서 '퐁각'. 그래서 그저 어머니 그저 바로 앞에서 죽어 가면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하느라고 하면. 아이고, 살 거 같아, 물 조금 주면 살 거 같아.) 06 [남원]

푸글락푸글락: 술 따위가 발효하여 거품이 생기면서 잇따라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 뿟앙 그걸 항아리에, 할망덜이 그걸 영 간을 맞추는 거여. ᄊᆞᆯ이 멧 뒈민 누룩이 요거 얼마다 헤영 맞촹 ᄒᆞᆫ 이틀만 시민 풍당풍당 헤여 가주게. 푸글락푸글락.(빻아서 그걸 항아리에, 할머니들이 그걸 이렇게 간을 맞추는 거야. 쌀이 몇

되면 누룩이 요거 얼마다 해서 맞춰서 한 이틀만 있으면 '풍당풍당' 해 가지. '푸글락푸글락'.) 06 [남원]

푸끄다: '(부채로) 부치다'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입에 있던 미숫가루가 갑자기 입 밖으로 나오는 모양을 설명한 것이다. // 그자 팍허게 웃으난 일로 이레 박삭 푸꺼 불언. 이 개역은 입에 문 때 웃지질 못헤. 웃엇당은 팍삭 푸꺼 비여. (그저 팍하게 웃으니까. 이리로 이리 '박삭' '푸꺼' 버렸어. 이 미숫가루는 입에 물었을 때 웃기지 못해. 웃었다가는 '팍삭' '푸꺼' 버려.) 25 [태흥]

푸는체거멀: 구좌읍 송당리의 오름 이름이다. // 닮다해서 푸는체, 소랑ᄒᆞ게 모양이 나오난 푸는체거멀이렌 허는 거고.(닮았다고 키, 기름한 모양이 나와서 '푸는체거멀'이라고 하는 것이고.) 03 [송당]

푸는체중의: 통이 큰 중의다. 부녀들이 입는 옷이다. // 옛날 저 푸는체중의엔 헤영근에 영 허민 엉덩이 그냥 봐지는 옷 잇어난 처레 아니우과?(옛날 저 '푸는체중의'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엉덩이 그냥 봐지는 옷 있었던 차례 아닙니까?) 01 [도련]

푸다시: 잡귀가 몸에 범접하여 일어난 병을 고치는 굿이다. // 대장, 걸대 쓰고 통대 물고 질 앞이 나강 허고, 동녕, 집집마다 강 돈 동녕 허는 거는, ᄉᆞ못 갈 옷 입고 엿장시 모냥 ᄎᆞᆯ령, 무슨 바구리 들렁 강 돈 놓으렌 헹 집이마다 돌앙 허민, 옛날엔 걸궁 허면은 푸다시옌 허영. 걸궁이 막 푸다실 허여 주는 거라이.(대장, 걸대 쓰고 통대 물고 제일 앞에 나가서 하고, 동냥, 집집마다 가서 돈 동냥 하는 거는, 사뭇 갈옷 입고 엿장수 모양 차려서, 무슨 바구니 들고 가서 돈 놓으라고 해서 집집마다 돌아서 하면, 옛날엔 '걸궁' 하면 '푸다시'라고 해서. '걸궁'이 막 '푸다시'를 해 주는 거야.) 36 [봉성]

푸닥푸닥허다: 쌀 등을 키로 까부를 때 잇달아 치는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 푸는체로 푸닥푸닥허민 저렌 체 나가고 ᄊᆞᆯ은 이레 들어오주게.(키로 '푸닥푸닥하면' 저리로는 겨 나가고 쌀은 이리 들어오지.) 31 [토평]

푸달푸달: 가루 따위를 넣고 끓일 때 국물이 묽지 않고 꽤 건 모양이다. // 이제도 우린 콩국 끌일 땐 그추룩 헙니다. 푸달푸달, 딱 뜨믄 두부 그저 뭐 식으로 영 떠지게.(이제도 우린 콩국 끓일 때 그처럼 합니다. '푸달푸달', 딱 뜨면 두부 그저 뭐 식으로 이렇게 떠지게.) 34 [구억]

푸달푸달허다: 밥의 찰기가 있고 끈기가 있는 모양을 표현하는 말이다. '푸들푸들'이라고도 한다. // 저 밥맛이 푸달푸달헹 그 보리ᄊᆞᆯ 주넹이보리ᄊᆞᆯ밥은 허민 푸달푸달허영 ᄑᆞᆺ밥허민 맛잇주.(저 밥맛이 '푸달푸달해서' 그 보리쌀 맥주보리쌀밥은 하면 '푸달푸달해서' 팥밥하면 맛있지.) 23 [온평]

푸들푸들허다: 밥이 차져서 끈기가 있는 모양이다. '푸달푸달'이라고도 한다. // 반지기는 보리ᄊᆞᆯ에 곤ᄊᆞᆯ 서끄는 거. ᄊᆞᆯ을 서끄민 밥이 푸들푸들허주. 게민 손님 온 때. 그거, 그거 반지기.('반지기'는 보리쌀에 흰쌀 섞는 거. 쌀을 섞으면 밥이 '푸들푸들하지'. 그러면 손님 온 때. 그거, 그거 '반지기'.) 25 [태흥]

푸린콩: 청대콩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콩의 한 종류로 열매의 껍질과 속살이 다 푸른 색을 띠어서 붙여진 명칭이다. 달리 '푸르대콩', '청태', '풋콩'이라고도 한다. 반면에 겉은 검은색이지만 속은 푸른색인 것은 '속청태'라고 부른다. // 콩 ᄀᆞ튼 거 전혀 아이 가졍 다니곡. 시방은 약콩이여 푸린콩이여 두불콩이여 놉니께.(콩 같은 거 전혀 안 가져 다니고. 시방은 약콩이다 청대콩이다 '두불콩'이다 놓습니다.) 03 [송당]

푸십새: 푸성귀와 같은 푸른 야채나 바다풀인 해초를 가리키기도 한다. // 그자 무신 히여 뜩헌 저런 ᄂᆞ물 ᄀᆞ뜬 거 푸십새 놓멍 그자 죽 썽은에 죽지 아니헐 정도.(그저 무슨 어지러운 저런 나물 같은 거 '푸십새' 놓으면서 죽 쒀서 죽지 않을 정도.) 25 // 먹을 것이 엇으난산디 이 푸십새가 엇으난산디 고동도 ᄌᆞ듸 먹을 풀이 잇어야 올라오는 거주.(먹을 것이 없으니까인지 이 '푸십새'가 없어서인지 소라도 바닷가에 먹을 풀이 있어야 올라오는 거지.) 25 [태흥]

푸지게: 띠로 엮어서 부피가 큰 것을 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지게를 말한다. // 워낙 해안 보담도 워낙 마을 사람들이 단합을 잘 뒈영양 잘 지켰고, 그래서 안 드니까 육학년 때 성담을 싸는데 우리 이거 무시것과 이거 푸지게?(워낙 해안보다도 워낙 마을 사람들이 단합을 잘 되어서요 잘 지켰고, 그래서 안 드니까 육학년 때 성담을 쌓는데 우리 이거 무엇과 이거 '푸지게'?) 05 // 성을 닷젠 허민 옛날 푸지게, 억새말고 집 이는 새 헤근에 등따리에 돌로 밀어 불지 안 허게 만들앙 영 허영 친 ᄃᆞᆯ앙 영.(성을 쌓으려고 하면 옛날 '푸지게', 억새말고 집 이는 새 해다가 등에 돌로 밀어 버리지 않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끈 달고 이렇게.) 06 // 이 푸지게 끗겡이에 노 끗겡이 ᄃᆞᆯ앗어.(이 '푸지게' 끄트머리에 노 끄트머리 달았어.) 06 // 돌 헤근에 요 저 푸지게라고 새 헤영 영 여펴근에 요만은 무시걸로 영 여평 다와근에 요레 톡허게 놩.(돌 해서 요 저 '푸지게'라고 해서 새 해서 이렇게 엮어서 요만큼은 무엇으로 이렇게 엮어서 땋아서 요리 톡하게 놔서.) 25 [남원, 태흥, 표선]

푹삭푹삭허다: 감자 따위가 잘 익어서 부드러운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푹삭푹삭헤. 작년에도 차로 왕 서쪽 거렌 헨 나 하나 사신디 잘도 푹삭푹삭허드라. 쪄신디. 남제가 서쪽이우덴 허멍 나 안 속엿수다예, 허멍.('푹삭푹삭해'. 작년에도 차로 와서 서쪽 거라고 해서 나 하나 샀는데 아주 '푹삭푸삭하더라'. 쪘는데. 남자가 서쪽이라고 하면서 나 안 속였습니다, 하면서.) 30 [노형]

푼득ᄒᆞ다: 자리젓이 덜 익은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 자리젓은 싱가와도 안 뒈곡 짜도 안 뒈난에 그 싱가와 ᄒᆞᄉᆞᆯ 헤빈 거는 맛은 좋아도 ᄒᆞᄉᆞᆯ 푼득ᄒᆞᆫ 기 이신 건 먹고정 아녀고 경 ᄒᆞ난에.(자리돔젓은 싱거워도 안 되고 짜도 안 되니까 그 싱거워 조금 해버린 거는 맛은 좋아도 조금 '푼득ᄒᆞᆫ' 기 있는 건 먹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15 [수망]

푼채: 나무 둘로 기둥을 삼고 가로 나뭇가지를 드물게 질러 붙여 겉으로 띠를 덮고 세워서

눈,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는 물건이다. '풍채'라고도 한다. // 창문에도 이 대문으로 그 우테ᄁᆞ지 쫙 푼채 달아 저 무뚱에.(창문에도 이 대문으로 그 위까지 쫙 '푼채' 달아 저 '무뚱'에.) 33 [인성]

풀검질: 억새 따위의 풀이 성성할 때 장만하는 검불이다. // 풀차 빈 건 풀검질.(풀째 벤 건 '풀검질'.) 14 // 선 때 빈 건 풀검질.(설 때 벤 건 '풀검질'.) 14 // 퉤빗막이엔 헌 거 욜로 요만은 헤근에 그것에 ᄆᆞᆯ똥 줏어다 놓곡, 풀검질 비어다 놓곡, 듬북 헤다 놓곡 재어 놓멍 퉤비 모두는 거라.('퉤빗막'이라고 한 거 요리로 요만큼 해서 그것에 말똥 주워다 놓고, '풀검질' 베어다 놓고, 듬북 해다 놓고 재어 놓으면서 퇴비 모으는 거야.) 25 [성읍, 태흥]

풀국: 푸성귀에 가루를 섞어서 끓인 국을 말한다. // 아주 어려울 땐 풀국을 끌영 살아난디 쪼끔쪼끔 쪼끔쪼끔 올라와 가단 보난 ᄉᆞ삼이 탁 일어분 거라양.(아주 어려울 땐 '풀국'을 끓여서 살았었는데 조금조금 조금조금 올라와 가다가 보니까 사삼이 탁 일어버린 거예요.) 14 [성읍]

풀닥풀닥: 곡식의 체 따위를 가르기 위해 키질을 하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경허민 그걸 이제 ᄆᆞᆫ 체덜 고립 갈르젠 허민 푸는체로 풀닥풀닥.(그러면 그걸 이제 모두 체들 구분하려고 하면 키로 '풀닥풀닥'.) 31 [토평]

풀닥풀닥허다: 액체 따위가 묽지 않고 걸쭉한 상태를 나타낸 말이다. // 솟디 놔서 그렇게 젓으멍 풀닥풀닥허게만 젓엉 또 뭣에 펑 놔두민 딴딴허민 그건 쑨 묵.(솥에 놔서 그렇게 저으면서 '풀닥풀닥'하게만 저어서 또 뭣에 퍼서 놔두면 딴딴하면 그건 쑨 묵.) 06 [남원]

풀ᄇᆞ른구덕: 대오리를 결은 바구니가 헐어서 종이나 헝겊 따위에 풀을 발라 붙인 바구니이다. // 굴묵에 불치에는 풀ᄇᆞ른구덕 놩 ᄃᆞᆨ, ᄃᆞᆨ새기, 빙애기도 께우곡.('굴묵'에 재에는 '풀ᄇᆞ른구덕' 놓아서 닭, 달걀, 병아리도 깨우고.) 17 // 빙애기, ᄃᆞᆨ, 빙애기 안지젠 ᄒᆞ면은 풀ᄇᆞ른구덕에 검질 ᄁᆞᆯ아근에 빙애기 께우젠 ᄒᆞ민 불치레 강 풀ᄇᆞ른구덕 놩 ᄃᆞᆨ 안앙 새끼 께우곡 해서, 빙애기.(병아리, 닭, 병아리 앉으려고 하면 '풀ᄇᆞ른구덕'에 검불 깔아서 병아리 깨우려고 하면 재로 가서 '풀ᄇᆞ른구덕' 놓아서 닭 앉아서 새끼 깨우고 해서, 병아리.) 17 [대평]

풀입초: 담배의 한 종류이다. // 여러 가지, 담베도. 우리, 나 알거니는 입담베 알주마는 딴 거 입담베 허민 풀입초라 헤 가지고 건 ᄂᆞᆯ 건 때 피왕 ᄆᆞᆯ량 풀입초라 허는가. 거 막 독허고 헌 담베.(여러 가지, 담배도. 우리, 나 알거니 입담배 알지만 딴 거 입담배 하면 '풀입초'라 해 가지고 건 날 건 때 피워서 말려서 '풀입초'라 하는가. 거 아주 독하고 한 담배.) 29 [외도]

풀짓: '풀+짓' 구성으로, '풀을 칠하는 짓'의 의미로 쓰였다. // 풀비. 풀짓헐 때 칠허는 거.(풀비. '풀짓' 할 때 칠하는 거.) 01 [도련]

풀콩: 수확하기 전, 풀색을 띠는 익기 전의 콩을 말한다. // 처음부터 여름농사를 이제 목적으로 허지 아녕근에 콩을 갈앙. 콩걸름 헌다고 헤 가지고 그 풀콩 당시 풀을,

풀콩은.(처음부터 여름농사를 이제 목적으로 하지 않아서 콩을 갈아서. '콩거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풀콩' 당시 풀을, '풀콩'은.) 29 [외도]

풀탁풀탁: 품이 크고 거벼워 헐렁한 모습을 표현한 것 같다. // 눼도 아년 거, 광목. 남저덜 풀탁풀탁, 얼언 얼어난에.(누이지도 않은 거, 광목. 남자들 '풀탁풀탁', 추워서 추워서는.) 07 [보목]

풀풀허다: 음식에 풀기가 있어 국이나 죽 따위가 되어 차진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풀풀허다'라고도 한다. // 물을 솟디 비와 가지고 그 ᄀᆞᆫ 허영 게고 저고 젓노렌 허면 풀풀허면은 이제 그걸 어디 판데기에나 어디 낭푼에나 퍼 놩 놔두민 것이 똑 똑 언치민 청묵.(물을 솥에 비워 가지고 그 간 해서 그렇게 저렇게 젓느라고 하면 '풀풀하면' 이제 그걸 어디 판때기에나 어디 양푼에나 퍼 넣어 놔두면 것이 똑 똑 엉기면 청묵.) 06 // 가시리국만 끌리민이 풀내 나듯 헤영 풀풀헤여.(가시리국만 끓이면 풀내 나듯 해서 '풀풀'해.) 11 // 거 뺫앙 물 쭉 ᄯᆞᆯ라 놩. 이제도 쒀. 막 풀풀헌 게 맛싯나.(거 빻아서 물 쭉 따라 놔서. 이제도 쒀. 아주 '풀풀헌' 게 맛있어.) 26 [남원, 신창, 함덕]

풍: 배가 쓸리어 가지 않도록 바닷물 속에 치는 물건이다. // 물 알러레 풍을 쳐.(물 아래로 '풍'을 쳐.) 29 [외도]

풍골: 바람이 들어 시체를 몰아가버린다고 하는 묏자리이다. // 그 땅속에 이제 신체를 모신디 그 신안이 이디는 풍골이다, 땅으로 이제 ᄇᆞ름이 들어 가지고 경헹 그것이 이제 몰아가불엉 땅 알로.(그 땅속에 이제 시체를 모셨는데 그 지관이 여기는 '풍골'이다, 땅으로 이제 바람이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몰아가버려서 땅 아래로.) 02 [선흘]

풍당풍당: 술 따위가 발효하여 거품이 생기면서 잇따라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 ᄊᆞᆯ이 멧 뒈민 누룩이 요거 얼마다 헤영 맞촹 ᄒᆞᆫ 이틀만 시민 풍당풍당 헤여 가주게.(쌀이 몇 되면 누룩이 요거 얼마다 해서 맞춰서 한 이틀만 있으면 '풍당풍당' 해 가지.) 06 [남원]

풍산콩: 콩의 한 종류이다. // 이제 풍산콩이라 허는가, 것도 잘 모르켜.(그거 이제 '풍산콩'이라 하는가, 것도 잘 모르겠어.) 12 [한동]

풍선: 소나무 등의 나무를 말하는 듯하다. // 그런 거게, 아무 소낭헤당 이런 벡ᄇᆞ름 ᄆᆞᆫ 여끄곡, 풍선 끈어당.(그런 거, 아무 소나무해다가 이런 바람벽 모두 엮고, '풍선' 끊어다가.) 17 // 풍선을 저 길직길직ᄒᆞᆫ 거, 기자 ᄒᆞ꼼 좋아 뵌 걸로만 ᄀᆞᆯ려근에 끈어근에, 가져다근에 기냥 겁죽 베끼곡 헤근에 불 태우멍, 그거 ᄆᆞᆯ룹디다게. 경 좀 막아근에.('풍선'을 저 길쭉길쭉한 거, 그저 조금 좋아 뵌 걸로만 골라서 끊어다가, 가져다가 그냥 껍데기 벗기고 해서 불 태우면서, 그거 말립디다. 그렇게 좀 막아서.) 17 [대평]

풍중: 해녀가 채취한 해산물을 들어 주기 위해, 해녀가 바다에서 나오는 시간에 맞춰 나가서 마중하는 이를 말한다. // 나가 ᄌᆞ물민 풍중은 다 하나썩 잇어야 뒈여. 풍중

엇이는 못 허여.(내가 캐면 '풍중'은 다 하나씩 있어야 돼. '풍중' 없이는 못 해.) 26 // 이 천초 뜯으민 지여 뎅기고 시꺼오고 허는 것이 풍중이주.(이 우뭇가사리 뜯으면 지어 다니고 실어오고 하는 것이 '풍중'이지.) 26 [신창]

풍체: 차양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나무 둘로 기둥을 삼고, 가로 나뭇가지를 드물게 질러 붙여, 겉으로 띠를 덮고 세워서, 눈,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는 물건이다. // 그거 풍체 하는 집 잇고 안 하는 집 잇어.(그거 차양 하는 집 있고 안 하는 집 있어.) 05 // 그거 허면 비바람 불면서 물 떨어지민 이 집에 물이 그 풍체로만 내려가 주게.(그거 하면 비바람 불면서 물 떨어지면 이 집에 물이 그 차양으로만 내려가지.) 09 // 낭 세왕, 경 ᄒᆞ영 그 지붕 옆으로 풍체 ᄃᆞᆯ앗주.(나무 세워서, 그렇게 해서 그 지붕 옆으로 차양 달았지.) 17 // 풍체, 집집마다 풍체 헤영, 진 나무 숙대낭이나 ᄌᆞᆯ라당 만들앙은에게. 거 새로 여껑 ᄃᆞᆯ아낫주게.(차양, 집집마다 차양 해서, 긴 나무 삼나무나 잘라다가 만들어서. 거 띠로 엮어서 달았었지.) 36 [고산, 대평, 봉성, 선흘, 표선]

풍체쌀: 차양을 덮은 띠를 고정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살을 말한다. // 쌀이 이렇게 있어이. 풍체쌀. 게민 요기를 대나무를 놔서. 여기 새를 노면서 일부러, 일부러 손으로 이 노로 노로 헤서 이거 삐졌어.(살이 이렇게 있어. '차양살'. 그러면 요기를 대나무를 놔서. 여기 띠를 놓으면서 일부러, 일부러 손으로 이 노로 노로 해서 이거 다졌어.) 14 [성읍]

풍체작데기: 차양을 벌려 세울 때 사용하는 기다란 막대기를 말한다. '풍체작쉬'라고도 한다. // 쭉허게 풍체작데기를 지둘라불고.(쭉하게 '차양작대기'를 지질러버리고.) 05 // 풍체작데기로 영 받쳐놓면은 이제 헷빗도 가리와지곡.('차양작대기'로 이렇게 받쳐놓으면 이제 햇볕도 가려지고.) 05 [성읍, 표선]

풍체작쉬: 차양을 벌리는 기다란 작대기를 말한다. '풍체작데기'라고 한다. // 풍체작쉬라고 헤서 세와두는 거 기둥이주. 작데기엔도 허고 작쉬엔도 허고.('풍체작쉬'라고 해서 세워두는 거 기둥이지. 작대기라고도 하고 '작쉬'라고도 하고.) 01 [도련]

풍패: 바람에 올라온 감태 등의 해조류를 말한다. // 그거 요즘은 올리난 엿날엔 ᄌᆞ물안도 ᄑᆞᆯ앗주마는이 요즘은 ᄌᆞ물지 안헤영 그냥 풍패, 올린 거 쎄영 올린 거 그거허영 ᄑᆞᆯ아.(그거 요즘은 올리니까 옛날엔 캐서도 팔았지마는 요즘은 캐지 않아서 그냥 '풍패', 올린 거 많아서 올린 거 그거 해서 팔아.) 25 [태흥]

피눌: 피를 쌓은 가리를 말한다. // 사삼 때 힘들엇주. 우리 아버지네 집이, 집이 세 거리 랏는디 우연에 조눌도 눌고 피눌도 눌고 쉐 먹을 촐눌도 눌고 헷는디. 게난 집에 일부러 불을 붙인 게 아니고.(사삼 때 힘들었지. 우리 아버지네 집이, 집이 세 채였는데 터앝에 '조눌'도 가리고 '피눌'도 가리고 소 먹을 '촐눌'도 가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집에 일부러 불을 붙인 게 아니고.) 14 [성읍]

피력: 장례를 치루고 나서 장지에서 친족과 상두꾼들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나눠 주는 떡이나 물품 등을 말한다. // 다른 상젠 점심을 ᄎᆞᆯ려 가고 또 다른 상젠 피력을 ᄎᆞᆯ

려 가고(.다른 상젠 점심을 차려 가고 또 다른 상젠 '피력'을 차려 가고.) 06 // 피력이렌 헌 건 제일 막끗때 돌아갈 때에 그 상주들헌티 대접하는 거라양. 밥이든 뭐 술이든 떡이든양.(피력이라고 한 건 제일 마지막 돌아갈 때에 그 상주들한테 대접하는 거예요. 밥이든 뭐 술이든 떡이든요.) 15 // 영장헐 때 그건 뭐 피력이나 뭐헐 때주, 뭐 헌 떡이주.(영장할 때 그건 뭐 '피력'이나 뭐할 때지, 뭐 한 떡이지.) 23 // ᄯᆞᆯ은 점심 ᄒᆞ곡, 또 딴 ᄯᆞᆯ이 이시민 피력 ᄒᆞ곡. 거 ᄒᆞᆫ 가지썩 다 마타근에 ᄒᆞ주게.(딸은 점심 하고, 또 딴 딸이 있으면 '피력' 하고. 그거 한 가지씩 다 맡아서 하지.) 24 [남원, 덕수, 성읍, 세화, 수망, 온평, 표선]

피력떡: 장지에 가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답례로 주는 떡을 말한다. '피력'이라고도 한다. // 피력떡 허고 비역부찜 허고 그거는 영장에.('피력떡' 하고 '비역부찜' 하고 그거는 영장에.) 23 [온평]

피방에: 핍쌀을 내기 위하여 방아를 찧는 일을 말한다. // ᄃᆞ리송당 큰애기 피방에 찧는 소리.('ᄃᆞ리'송당, '큰애기' 피방아 찧는 소리) 19 [청수]

피쏠: 핍쌀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피의 겉피를 찧어 겉겨를 벗긴 쌀이다. // 피쏠 같은 거 ᄀᆞᆯ아 나민 또 피보미가 잇주. 그냥.(핍쌀 같은 거 갈고 나면 또 피 쌀겨가 있지. 그냥.) 03 // 쌀 보기에는 엔간히 곱닥헌디 밥은 허난 완전, 그 피쏠이 ᄒᆞ나로 세어질 정도로 살락 하는 거 아니.(쌀 보기에는 엔간히 고운데 밥은 하니까 완전, 그 핍쌀이 하나로 세어질 정도로 까끌까끌 하는 거 아니.) 05 // 피쏠 씻어난 물은 던져 불지도 안허여.(핍쌀 씻었던 물은 던져 버리지도 않아.) 06 // 피쏠에도 또 보리쏠에 피쏠 서꺼도 그것도 막 양반덜 먹는 고급 밥이라양.(핍쌀에도 또 보리쌀에 핍쌀 섞어도 그것도 아주 양반들 먹는 고급 밥이어요.) 18 [남원, 송당, 신도, 표선]

피와나다: 쌀 따위가 물에 불거나 익어 '풀어지다'는 의미이다. // 쌀 피와나기가 쉬와.(쌀 풀어지기가 쉬워.) 31 [토평]

피직피직: 시루떡을 찔 때 익지 않은 상태를 표현한 말이다. // 엿날엔 경 허멍 피직피직 ᄒᆞ멍 익지 안허드라고.(옛날에는 그렇게 하면서 '피직피직' 하면서 익지 않더라고.) 16 [하원]

피짝: 가볍고 날렵하게 높이 뛰는 모양. 높은 곳에서 아래로, 또는 장애물을 잽싸게 건너뛰는 모양이다. // 고무줄 영 헹 영 심엉 노프민 ᄃᆞᆯ아가다근에 피짝 뜀도 허고.(고무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서 높으면 달려가다가 '피짝' 뛰기도 하고.) 33 [인성]

핀찍: 빛이 잠깐 비치는 모양이다. // 냉중이라, ᄉᆞᆯᄉᆞᆯ 이레 가단 보난 핀찍 ᄒᆞ는 거 보난 눈 트는 거라.(나중에야, 살살 이리로 가다가 보니까 '핀찍' 하는 거 보니까 눈 뜨는 거야.) 17 [대평]

핏배: 해산하고 나서 3일 동안 피가 고여 있는 산부의 배를 말한다. 여기서는 생리통을 가리킨다. // 그 배만 그렇게, 그 옛날 말로 핏배가 그렇게 아프는 것도 몰르고 그

자 배만. 생리 올 때가 뒈민, 생리도 옛날 말로는 몸엣거.(그 배만 그렇게 그 옛날 말로 '핏배'가 그렇게 아픈 것도 모르고 그저 배만. 생리 올 때가 되면, 생리도 옛날 말로는 '몸엣거'.) 06 // ᄂᆞᆯ것으로 캉 먹고, 핏배 삭으라고.(날것으로 타서 먹고, 핏배 삭히라고.) 19 [남원, 청수]

ᄑᆞ레밥: 파래밥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기근 때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파래를 넣어 지은 밥을 이른다. // 옛날에 웨정 때 우리 어린 때는 뭐 ᄑᆞ레밥도 먹고.(옛날에 왜정 때 우리 어릴 때는 뭐 파래밥도 먹고.) 14 // 톨은 게메게 저 곤란ᄒᆞ난게 ᄑᆞ레밥 톨밥 ᄒᆞ는 건 게메, 그 옛날엔 저 어디서 저 ᄀᆞ루덜 오라근에 ᄒᆞ면은 못살 덕에는 그런 거 헤다근에 그 거시기 ᄒᆞ면은 ᄀᆞ찌 저 서꺼근에.(톳은 글쎄 저 곤란하니까 '파래밥' '톳밥' 하는 건 글쎄, 그 옛날엔 저 어디서 저 가루들 와서 하면 못살 적에는 그런 거 해다가 그 거시기 하면 같이 저 섞어서.) 22 [성읍, 우도]

ᄑᆞ리똥: '주근깨'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ᄑᆞ리똥은 거 자연적인 거. 거는 원래 어린아이, 저 어머니 뱃속으로 날 때부터. ᄑᆞ리똥이엔 헌 거 쩜 쩜 쩜 여기 거세기 허는 거난.(주근깨는 거 자연적인 거. 거는 원래 어린아이, 저 어머니 뱃속으로 날 때부터. 파리똥이라고 한 거 점 점 점 여기 거시기 하는 거니까.) 12 [한동]

ᄑᆞᆯ다: '팔다'를 뜻하는데, 표준어 '결혼을 시키다, 시집보내다, 장가보내다.'에 대응하는 말이다. // 그다음은 큰아덜 ᄑᆞᆯ아얄 건디 큰아덜도 그 연극영화과 다니단에 거기서 안 사람허고 헨에 이제 서로 뭐허게 되고.(그다음은 큰아들 'ᄑᆞᆯ아야 할' 것인데 큰아들도 그 연극영화과 다니다가 거기서 아는 사람하고 해서 이제 서로 뭐하게 되고.) 01 // 애기 다섯 나도 ᄒᆞ나토 아이 ᄑᆞᆯ아동 죽어빗주.(애기 다섯 낳아도 하나도 안 '팔아두고' 죽어버렸지.) 15 // 게난 아덜이나 ᄯᆞᆯ을 ᄑᆞᆯ젠 허믄 동네 사름덜이 강 모다들엉 도새기도 잡고 밥덜토 허곡 심부름덜토 헤주곡 그치룩 헨 다 전 삼일 후 삼일 헷어마씸.(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을 팔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가서 모여들어서 돼지도 잡고 밥들도 하고 심부름들도 해주고 그처럼 해서 다 전 삼일 후 삼일 했어요.) 29 [도련, 수망, 외도]

ᄑᆞᆯ다: 장가 보내다의 의미로 쓰였다. // ᄑᆞᆯ지 못하카 부덴. 아들 장개 못 가카 부덴.('팔지' 못할까 봐서. 아들이 장가 못 갈까 봐서.) 03 [송당]

ᄑᆞᆯᄑᆞᆯ허다: 국물 따위가 되어서 끈기가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달리 '풀풀허다'라고도 한다. // 아져 뎅기민 ᄑᆞᆯᄑᆞᆯ허주게. 경헌 건 ᄆᆞᆯ망국.(가져 다니면 'ᄑᆞᆯᄑᆞᆯ하지'. 그런 건 모자반국.) 06 // ᄀᆞ루랑 ᄒᆞ꼼 그 물에 맞으리만이ᄒᆞᆫ 솟 헹, 탁탁탁 호박 입 건줌 익어간 거 닮거들랑 소르르허게 놩 젓어불민 ᄑᆞᆯᄑᆞᆯ헌 게 맛이 잇어.(가루랑 조금 그 물에 맞을 만큼한 솥 해서, 탁탁탁 호박잎 거의 익어간 거 같거든 사르르하게 넣어서 저어버리면 'ᄑᆞᆯᄑᆞᆯ한' 게 맛이 있어.) 11 // 막 쫄르민 ᄑᆞᆯᄑᆞᆯ허게 헤근에 그거 떡 사다근에 그거 찍엉 먹으민 맛 좋아. 거 식빵 헤다근에 ᄇᆞᆯ라근에.(마구 졸이면 'ᄑᆞᆯᄑᆞᆯ하게' 해서 그거 떡 사다가 그거 찍어서 먹으면 맛 좋아.

거 식빵 해다가 발라서.) 31 // 경헨 젓어근에 헤근에 기자 영 ᄊᆞᆯ 씹어 보민 ᄒᆞ ᄊᆞᆯ 도끗도끗헤여 가민 헤영 솟두껭이 ᄒᆞᄊᆞᆯ 영 더껑 놔두민 ᄑᆞᆯᄑᆞᆯ허주게. 너미 쑤민 궂어 또.(그래서 저어서 해서 그저 이렇게 쌀 씹어 보면 조금 '도끗도끗해' 가면 해서 솥뚜껑 조금 이렇게 덮어서 놔두면 'ᄑᆞᆯᄑᆞᆯ하지'. 너무 쑤면 궂어 또.) 31 [남원, 신창, 토평, 함덕]

ᄑᆞᆺ감: 제주도 토종감의 일종이다. 갈옷에 물을 들일 때 사용한다. // 토종, 토종. ᄑᆞᆺ감.(토종, 토종. 'ᄑᆞᆺ감'.) 05 // ᄑᆞᆺ감 요만씩 한 거.('ᄑᆞᆺ감' 요만씩 한 거.) 05 // 갈중의 멘들 때 감, ᄑᆞᆺ감 젠젠ᄒᆞᆫ 거 낭에 ᄃᆞᆯ아지민 유월 구물엉 헤사주, 너미 세여도 아이 뒈여.('갈중의' 만들 때 감, 'ᄑᆞᆺ감' 자잘한 거 나무에 매달리면 유월 그물어서 해야지, 너무 세어도 아니 돼.) 17 [대평, 표선]

ᄑᆞᆺ겡이: 게의 일종으로 색깔이 얼룩덜룩하고 크기가 작다. 'ᄑᆞᆺ깅이', 'ᄑᆞᆺ긍이'라고도 한다. // 바당에 가 ᄑᆞᆺ겡이 잡아 오면예, 그거 저 기냥 저 ᄒᆞ여단에 우리 어멍 ᄒᆞ는 것 배려보난에 기자 그 저 기냥 물, 물 컨에 물 영 ᄒᆞ루 ᄎᆞ냑 물 크난에 그냥 먹으난에 그 막 그 무신 것 나옵디다.(바다에 가 'ᄑᆞᆺ겡이' 잡아 오면요, 그거 저 그냥 저 해다가 우리 어머니 하는 것 봐보니까 그저 그 저 그냥 물, 물 담가서 물 이렇게 하루 저녁 물 담그니까 그냥 먹으니까 그 막 그 무슨 것 나옵디다.) 08 // ᄑᆞᆺ겡이 바당 바당ᄀᆞ에 있는 거.('ᄑᆞᆺ겡이' 바다 바닷가에 있는 거.) 16 // 또 무신 ᄑᆞᆺ겡이엔 헌 건 ᄇᆞᆯ긋ᄇᆞᆯ긋헌 거, 요만썩 헌 거, ᄌᆞᆫᄌᆞᆫ헌 겡이.(또 무슨 'ᄑᆞᆺ겡이'라고 한 건 불긋불긋한 거, 요만큼씩 한 거, 자잘한 게.) 25 [동광, 태흥, 하원]

ᄑᆞᆺ깅이: 게의 일종으로 색깔이 얼룩덜룩하고 크기가 작다. 'ᄑᆞᆺ겡이', 'ᄑᆞᆺ긍이'라고도 한다. // 그거 색깔로 보면 다 알아. ᄑᆞᆺ깅이 ᄀᆞ튼 거는 ᄑᆞᆺ 색깔 ᄀᆞ치 말이여 얼룩덜룩ᄒᆞ고 돌킹이 ᄀᆞ튼 거는 등어리가 돌 닮아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사람 손으로 헤도 이렇게 헤도 문드러지지 안 헤.(그거 색깔로 보면 다 알아. 'ᄑᆞᆺ깅이' 같은 거는 팥 색깔 같이 말이야 얼룩덜룩하고 부채게 같은 거는 등이 돌 닮아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사람 손으로 해도 이렇게 해도 문드러지지 않아.) 27 // 종류도 여러 가지가 가면 깅이도 돌킹이도 잇고 ᄑᆞᆺ깅이도 잇고 뭐 깅이도 ᄎᆞᆷ깅이도 잇곡 뭐 여러 가지가 잇어 종류도.(종류도 여러 가지가 가면 게도 부채게도 있고 'ᄑᆞᆺ깅이'도 있고 뭐 게도 참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종류도.) 27 // 지름깅이엔 헌 거 잇고. ᄑᆞᆺ깅이엔 헌 것가 잇고, 돌킹이가 잇고, 까메기깅이가 잇고, ᄋᆞ라 질이라.('지름깅이'라고 한 거 있고. 'ᄑᆞᆺ깅이'라고 한 것이 있고, '돌킹이'가 있고, '까메기깅이'가 있고, 여러 질이야.) 29 // 깅인 저 뭐 그 무신 ᄑᆞᆺ깅이. ᄑᆞᆺ깅이도 싯고.(게는 저 뭐 무슨 'ᄑᆞᆺ깅이'. 'ᄑᆞᆺ깅이도' 있고.) 32 [덕수, 옹포, 외도]

ᄑᆞᆺ버렝이: 고구마 밭에 많이 생기는 벌레의 일종이다. // 건디 난 감저 밧듸 제일로 그때 감저 밧듸 ᄆᆞ스운 건 ᄑᆞᆺ버렝이. 감저 밧듸 ᄑᆞᆺ버렝이.(그런데 난 고구마 밭에 제일로 그때 고구마 밭에 무서운 건 'ᄑᆞᆺ버렝이'. 고구마 밭에 'ᄑᆞᆺ버렝이'.) 08 // 그거 감저 밧듸 감저 밧듸 가민 그 ᄑᆞᆺ버렝이만 엇이민 감저 보고 살아지주게.(그

거 고구마 밭에 고구마 밭에 가면 그 '풋버렝이'만 없으면 고구마 보고 살아지지.) 08 // 기자 막 이제 ᄀᆞ트민 그 버렝이가 풋버렝이 닮아, 풋버렝이ᄀᆞ치.(그저 막 이제 같으면 그 벌레가 '풋버렝이' 같아. '풋버렝이'같이.) 34 [구억, 동광]

풋자리: 작은 매미를 가리키는 말이다. // 밥주리허고 풋자리는 ᄀᆞ트지 아녀주만 풋자리는 나무에 쩨글락헌 거.(잠자리하고 '풋자리'는 같지 않지만 '풋자리'는 나무에 조그마한 거.) 05 [표선]

ㅎ

하: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큼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아주', '몹시'의 뜻을 나타낸다. // 이 하 큰 동네 ᄋᆞ섯 밧디라마씸.(이 '하' 큰 동네 여섯 군데였습니다.) 32 [덕수]

하가지: 맏이가 아닌 자손에서 갈라져 나간 지파의 가문을 이르는 말이다. // 그 하가지덜은 궤기 보통으로 ᄒᆞ꼼썩 주고 경헹덜 궤기 ᄋᆞ정오고 헤여.(그 '하가지'들은 고기 보통으로 조금씩 주고 그렇게 해서들 고기 가져오고 해.) 33 [인성]

하간: 표준어 '여러 가지', '모든'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궤기국에 경헨 먹엇주. 나사 할망이난게 하간 거 ᄎᆞᆯ려게?(고기국에 그렇게 해서 먹었지. 나야 할머니니까 '하간' 거 차리니?) 07 // 올레, 올레코시렌 헤근에 '나그네' 빌어다근에 그 이제 정월 날 거 아니라? 그 해를 저 헤난 하간 거 잘 뒈고.('올레', '올레코시'라고 해서 나그네 빌어다가 그 이제 정월 날 거 아니야? 그 해를 저 했던 '하간' 거 잘 되고.) 15 // 시집살이 허곡 하간 거 원.(시집살이 하고 '하간' 거 원.) 16 [보목, 수망, 하원]

하간듸: 여기저기 여러 곳을 말한다. // 오란에 이디 사노렌 허난, 막 하간듸 막 이레 전쟁 일어나가난게.(와서 여기 사노라고 하니까, 막 '하간듸' 막 여기에 전쟁 일어나니까.) 07 // ᄆᆞᆫ 하간듸 강 들어 오라신게게.(모두 '하간듸' 가서 물어서 왔네.) 15 [보목, 수망]

하귀장: 애월읍 하귀리에서 열렸던 오일장이다. // 제주차보에도 가곡, 하귀장, 여기선양 애월장, 외도장, 다 봣수다게. 그때는 뭐 저 질도 나쁘곡 허난, 무신 니아까가 처음엔 셧수가? 니아까도 어디 물건 장시 꺼 빌어당 장에.(제주차부에도 가고, '하귀장', 여기서는요 '애월장', '외도장', 다 봤습니다. 그때는 뭐 저 길도 나쁘고 하니까, 무슨 리어카가 처음에 있었습니까? 리어카도 어디 물건 장수 거 빌려다가 장에.) 28 // 메당 하귀장에 어머님은 ᄑᆞᆯ레 가곡, 남박세기 파 놩 ᄌᆞ근ᄌᆞ근헹 이만저만 멩테기에 졍 강 ᄑᆞᆯ곡.(매어다가 '하귀장'에 어머님은 팔러 가고 나무바가지 파 놔서 차근차근해서 이만저만 망태기에 져서 가서 팔고.) 28 [구엄]

하꼬: 일본어 'はこ(箱)'로, 상자라는 의미이다. // 그 집이 크면은 다섯 하꼬, 집 세 거린 다섯 하꼬. 두 거리, 그 두 거리쯤은 네 하꼬, 세 하꼬 이렇게 헤서 할당헤서 의무적으로 다 시꺼 줭 헷지.(그 집이 크면 다섯 '하꼬', 집 세 챈 다섯 '하꼬'. 두 채, 그 두 채쯤은 네 '하꼬', 세 '하꼬' 이렇게 해서 할당해서 의무적으로 다 실어다 줘서 했지.) 12 // 이젠 엿날은 홍세 헤근에 영 하꼬 헤근엥에 홍세함에 헹은에 그디 여장 써놓곡 그 애기 지성기 헐 거 담아 놓곡 헹 아져가나신디 이제는 돈만 놓는 거 닮안게이.(이젠 옛날은 '홍세' 해서 이렇게 '하꼬' 해서 '홍세함'에 해서 거기 예장 써놓고 그 아기 기저귀 할 거 담아 넣고 해서 가져갔었는데 이제는 돈만 넣는 거 같던데.) 14 // 그냥 보관헐 거. 무신 멩텡이에나. 멩테이

에나 하꼬에나 놩.(그냥 보관할 거. 무슨 망태기에나. 망태기에나 '하꼬'에나 놔서.) 20 // 눈도 이제 하꼬 눈 하꼬에 눈 담고.(물안경도 이제 '하꼬' 물안경 '하꼬'에 물안경 담고.) 26 [고내, 남원, 선흘, 성읍, 신창, 외도, 한동]

하꼬산: 배추 품종의 하나이다. // 옛날은 이제는 중간에야 하꼬산이여 뭐 당베추여 뭐 나왓지마는 옛날은 들머귀벳기 없엇어.(옛날은 이제는 중간에야 '하꼬산'이다 뭐 '당배추'다 뭐 나왔지만 옛날은 '들머귀'밖에 없었어.) 01 // 또 중간에 우리 이제 나 씨집 여기 온 후제는 또 그 하꼬산이엔 헌 거. 나와 가지고 이제 그거 허민 속 앚아, 그거는.(또 중간에 우리 이제 나 시집 여기 온 후에는 또 그 '하꼬산'이라고 한 거. 나와 가지고 이제 그거 하면 속 앉아, 그거는.) 01 [도련]

하꼬짝: 나무상자를 말한다. 상자를 뜻하는 일본어 '하꼬'와 널짝의 '짝'을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다. // 항아리레도 놧당, 어떤 집은 하꼬짝도 놧당 그 빈 찬 안 놔.(항아리에도 넣었다가, 어떤 집은 '하꼬짝'도 넣었다가 그 빈 상태로는 안 놓아.) 07 [보목]

하나시: 일본어 'はなし(話)'로 소문, 이야기라는 뜻이다. // 하나시엔도 허고, 도로보 술레엔도 허여 것ᄀᆞ라. 하나시도 일본말.('하나시'라고도 하고, '도로보' 술래라고도 해 그것보고. '하나시'도 일본말.) 02 [선흘]

하네: 배의 뒤쪽 가장자리에서 젓는 노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하노', '하뇌'라고도 한다. // 하네 두에서 젓고 양쪽에 ᄒᆞ나썩 양펜이.('하네' 뒤에서 젓고 양쪽에 하나씩 양편에.) 23 // 베 임제는 질 발르는 거 하네 젓엉 저 **에서 베 앞 갈르고.(배 임자는 길 바루는 거 '하네' 젓어서 저 **에서 배 앞 가르고.) 23 [온평]

하뇌: 배 뒷쪽에서 젓는 노를 말한다. '하네', '하노'라고도 한다. // 우리도 물질 ᄉᆞ 년 뎅겨신디 이 뇌 젓어가민 이디 놓민 하뇌엔 헌 큰 뇌 이물에 영 끼우고 양옆인 ᄒᆞᆫ 옆이 큰 뇌 말앙, 뇌 것도 새맞췽 젓어사.(우리도 물질 사 년 다녔는데 이 노 저어가면 여기 놓으면 '하뇌'라고 한 큰 노 이물에 이렇게 끼우고 양옆엔 한 옆에 큰 노 말고, 노 그것도 '새맞췽' 저어야.) 13 [삼달]

하늬ᄂᆞ릇: 표선면 표선리에서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기운을 일컫는 말이다. // 하늬ᄇᆞ름 ᄉᆞᆯ허게 찬바람이 이젠 저 찬바람엔 하지마는 그때는 하늬ᄂᆞ릇 내렴쩌. 허멍 이제.(하늬바람 'ᄉᆞᆯ허게' 찬바람이 이젠 저 찬바람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하늬ᄂᆞ릇' 내리고 있지. 하면서 이제.) 05 // 가을에 살 하게시리 느끼는 그런 바람 불 때에 하늬ᄂᆞ릇 내렴젠 경.(가을에 살 하게끔 느끼는 그런 바람 불 때에 '하늬ᄂᆞ릇' 내리고 있다 그렇게.) 05 [표선]

하늬ᄇᆞ름: 하늬바람에 대응하는 말로 보통 서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가리킨다. // 샛ᄇᆞ름, 마ᄇᆞ름 뭐 갈ᄇᆞ름, 하늬ᄇᆞ름, 뭐 섯마ᄇᆞ름, 동마ᄇᆞ름, 이제 그 정도벳기 모르겠네.(샛바람, 마파람 뭐 갈바람, '하늬ᄇᆞ름', 뭐 '섯마바람', '동마ᄇᆞ름', 이제 그 정도밖에 모르겠네.) 01 // 서하고 남 사이에 부는 건 하늬ᄇᆞ름이엔 허는 거라.(서하고 남 사이에 부는 것은 '하늬ᄇᆞ름'이라고 하는 거야.) 03 // 하늬ᄇᆞ름

게난 두세 ᄇᆞ름 나사만 촐 빈덴 헷주게.(‘하늬ᄇᆞ름’ 그러니까 두세 바람 나야만 꼴 벤다고 했지.) 26 // 솔입 이제 하늬ᄇᆞ름 불어나믄양, 솔입이 털어집니다게.(솔잎 이제 ‘하늬ᄇᆞ름’ 불어나면요, 솔잎이 떨어집니다.) 28 [구엄, 도련, 송당, 신창, 한동]

하늬ᄇᆞ름 ᄉᆞ꾸다: ‘하늬바람이 불기 시작하다’의 의미이다. // 촐은 가을 들멘 하늬ᄇᆞ름 ᄉᆞ꾸멘. 하늬ᄇᆞ름이 ᄉᆞ꾸덴 헌 거 하늬ᄇᆞ름 불기 시작허면은.(꼴은 가을 들면 ‘하늬ᄇᆞ름 ᄉᆞ꾸멘’. ‘하늬ᄇᆞ름이 ‘ᄉᆞ꾸덴’ 한 거 하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01 [도련]

하다께: 일본어 ‘はたけ(畑)’로 밭이라는 의미이다. // 일본말로 밧은 하다께.(일본말로 밭은 ‘하다께’.) 24 [세화]

하동: 성산읍 온평리의 아래쪽 마을이다. // 터베 그 전에는 상동에 한 네 갠가 잇엇고, 하동에도 ᄒᆞᆫ 서너 개 잇엇고.(떼배 그 전에는 ‘상동’에 한 네 갠가 있었고, ‘하동’에도 한 서너 개 있었고.) 23 [온평]

하르방: 할아버지를 뜻하나 상황에 따라 남편을 말한다. // 경 ᄒᆞ멍 나 이 이 하르방광 살안. ᄒᆞᆫ세상 살안.(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이 ‘하르방’과 살았어. 한세상 살았어.) 15 // 이제 하르방도 일 못허고 어디 ᄒᆞᆫ 오백 펭 요디 ᄲᅳ딘 디 한라봉 ᄒᆞ썰 자파리헴저.(이제 ‘하르방’도 일 못하고 어디 한 오백 평 요기 밭은 데 한라봉 조금 장난하고 있어.) 31 // 이 다리 아프난에 베뜰레기 안 좋아. 베뜰레기 허는 거 저 올레에 톡 걸엇당인에. 우리 하르방 지치도 안헌고라 일허레 강 왕 허염젠. 그거 운동뒈연게, 운동.(이 다리 아프니까 줄넘기 안 좋아. 줄넘기 하는 거 저 ‘올레’에 톡 걸었다가. 우리 ‘하르방’ 지치지도 않은지 일하러 갔다 와서 한다고. 그거 운동 돼, 운동.) 33 [남원, 동광, 수망, 인성, 토평]

하르방 낸 똘: 할아버지의 작은 각시의 딸을 일컫는 말이다. // 가네 침 줭 왕은에 밤이는 하르방 낸 ᄯᆞᆯ ᄃᆞᆯ앙 발이 눅고.(가서 침을 맞히고 와서는 밤에는 ‘하르방 낸 ᄯᆞᆯ’ 데리고 발에 눕고.) 03 [송당]

하르비군벗: 털군부를 말한다. // 하르비군벗은 까망허곡 이디 털이 돋아이.(‘하르비군벗’은 까맣고 여기 털이 돋아.) 01 // 하르비군벗은 요 신촌 바당에만 가도 많이 잇언게.(‘하르비군벗’은 요 신촌 바다에만 가도 많이 있던데.) 01 [도련]

하릉방: 정미소를 일컫는 말이다. // 오늘 하릉방 헴서냐? 우리 조 ᄀᆞᆯ아살 걸.(오늘 ‘하릉방’ 하고 있더냐? 우리 조 갈아야 할 걸.) 23 [온평]

하ᄆᆞ루: ‘상ᄆᆞ루’, ‘중ᄆᆞ루’에 대비해서 처마 아래쪽을 이르는 도리를 이르는 말이다. ‘하ᄆᆞ루’를 이용하여 벽선을 세운다. // 하ᄆᆞ루에는 문벽선 세우는 게 하ᄆᆞ루고.(‘하ᄆᆞ루’에는 벽선 세우는 게 ‘하ᄆᆞ루’고.) 14 // 하ᄆᆞ루는 게민 양쪽에주. 이짝에도 잇고 저쪽에도 잇고.(‘하ᄆᆞ루’는 그러면 양쪽에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14 [성읍]

하바: 일본어 ‘はば’로 넓이, 폭이라는 의미이다. // 광목은 ᄌᆞᆷ질고 하바 널르고 얼마나 좋

으냐.(광목은 '좀질고' '하바' 넓고 얼마나 좋니.) 10 // 미녕은 하바가 요만베끼 안하고이 광목은 요만이.(무명은 '하바'가 요만큼밖에 안하고 광목은 요만큼.) 11 // 건 하바라고 허지 너비라고.(건 '하바'라고 하지 너비라고.) 22 [월령, 우도, 함덕]

하시: 일본어 'はし(橋)'에서 온 말로 다리라는 뜻이다. // 하시 아래 물 잇어근에 그 물 우리가 질어 먹어낫어.('하시' 아래 물 있어서 그 물 우리가 길어 먹었었어.) 25 // 밧듸 고구말 판 오젠 허난에 산에서 내려오란 이젠 아싯날 오난 산에[사넷] 사름덜이 오난 요디 하시가 잇어.(밭에 고구마를 파서 오려고 하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이젠 전날 오니까 산에 사람들이 오니까 요기 '하시'가 있어.) 25 [태흥]

하시: 일본어 'はし(箸)'로 젓가락을 말한다. // 고치를 솖으면은 솖아서, 영 솖으는 솟디서 하시 거락으로 이렇게 허다 보면 그 줄이 다 이레 엉켜져.(고치를 삶으면 삶아서, 이렇게 삶는 솥에서 '하시' 가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줄이 다 이렇게 엉켜.) 06 // 손으로 땅 이디 모여 놔근에 그걸 ᄆᆞᆯ류와, 벳디 ᄆᆞᆯ류와근에 솟디 놔근에 불 솜으멍 이디, 이딘 솟 놔근에 대막뎅이 하시, 접음 영 두 개 헤영 영 영 접으멍 고주리, 고주리주. 고주리엔 헌다게.(손으로 따서 여기 모아 놔서 그걸 말려, 볕에 말려서 솥에 넣어서 불 때면서 여기, 여기는 솥 놔서 대막대기 '하시', 젓가락 이렇게 두 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접으면서 '고주리', '고주리'지. '고주리'라고 한다.) 31 [남원, 토평]

하시아다리: 일본어 'はしわたり'로 놀이의 하나이다. // 무신 하시아다린가 무시거, 그레 돌아갓다 돌아왓다 허는 거 그런 거 허고 그런 거.(무슨 '하시아다리'인가 무엇, 그리 돌아갔다 돌아왔다 하는 거 그런 거 하고 그런 거.) 06 [남원]

하오머리: 한경면 청수리 지경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 이딘 경 안허연 요 하오머리. 저 아래 똑 머리 얹인 것추룩 산업도로 가멍 보민 봐져.(여긴 그렇게 안했어. 요 '하오머리'. 저 아래 똑 머리 얹은 것처럼 산업도로 가면서 보면 보여.) 19 [청수]

하우목당굿: 우도면 하우목동 본향당에서에서 열리는 백중제를 말한다. // 이 분네 어디 간, 오늘 저 하우목동당굿 허는디.(이 분들 어디 갔어, 오늘 저 '하우목동당굿' 하는데.) 22 [우도]

하울락하울락: 소가 먹성이 까다로워서 잘 먹지 않는 모양이다. // 입 건 쉐덜은 그냥 촐 줭 내불민 그냥 먹곡, 입메 ᄌᆞᆯ른 쉐덜은 하울락하울락 덜 먹읍주게.('입 건' 소들은 그냥 꼴 줘서 내버리면 그냥 먹고, '입메 ᄌᆞᆯ른' 소들은 '하울락하울락' 덜 먹습지요.) 35 [대림]

하울하울허다: 자잘한 털이 나 있는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 막 나오민 곱닥이 나와근에 이젠 불 솜으렌 헹 불 솜으민 영 영 헹 그시리민 하울하울헌 떠럭이 잇어.(마구 나오면 곱게 나와서 이젠 불 때라고 해서 불 때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슬리면 '하울하울헌' 털이 있어.) 30 [노형]

하인: 마을의 잡스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옛날은 하인이 그 저 그

다 모셔십궤양. 모셔신디 하인이 제와근엥에 이거는양 그 눈 우의 물은 잘잘잘잘 녹고.(옛날은 ‘하인’이 그 저 그 다 모셨잖아요. 모셨는데 ‘하인’이 겨워서 이거는 요 그 눈 위의 물은 잘잘잘잘 녹고.) 32 [덕수]

하잣도: 애월읍 유수암리에 위치한 ‘큰오름’ 앞에 있는 지경을 일컫는다. // 하잣도 욮의 큰오름 바로 아픠 이렇게 움막 행 혼 만 평 넘은 이제 그 낭이 울창혼 디, 이제도 그 터는 신디.(‘하잣도’ 옆에 ‘큰오름’ 바로 앞에 이렇게 움막 해서 한 만 평 넘은 이제 그 나무가 울창한 데, 이제도 그 터는 있는데.) 28 [구엄]

하쿠사: 배추의 품종의 하나이다. // 일본서 그 개량 배추가 들어와서 하쿠사옌 뭐니 헤서 헷지. 이 들머귀 그냥.(일본서 그 개량 배추가 들어와서 ‘하쿠사’라고 뭐니 해서 했지. 이 ‘들머귀’ 그냥.) 01 [도련]

하풀: 먹는 것에서 질이 떨어지는 풀 중 하나라는 말이다. // 복사쿨이 질, 먹는 것엔 질 하풀이지. 질 하풀이야.(‘복사쿨’이 제일, 먹는 것에는 질 ‘하풀’이지. 제일 ‘하풀’이야.) 30 [노형]

학교 마당: 학교 운동장을 가리킨다. // 동네만 아덜덜 문 산에 올라가지 안헤시냐, 모수난 이 문 올라가난 할망덜, 하르방덜 문 아들 찾으레 간. 문짝 심어당 죽여 베시녜게. 문짝 심어당 이 학교, 학교 마당에 강.(동네만 아들들 모두 산에 올라가지 않았니, 무서우니까 모두 올라가니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두 아들 찾으러 가서. 모두 잡아다가 죽여 버렸어. 모두 잡아다가 이 학교, ‘학교 마당’에 가서.) 31 [토평]

학교바당: 성산읍 온평리에서 온평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성된 바다다. 이 바다에서 채취한 미역 따위를 판 돈은 학교를 위하여 썼다고 해서 ‘학교바당’이라는 이름을 붙었다. // 학교바당만 공동헷주, 건 학교 살리젠 허난 공동으로 양쪽 바당 끊언에.(‘학교바당’만 공동했지, 건 학교 살리려고 하니까 공동으로 양쪽 바다 끊어서.) 23 // 우리 저 그때는 학교바당 메역바당은 풀멍 사고 헐 때우다.(우리 저 그때는 ‘학교바당’ ‘메역바당’은 팔면서 사고 할 때입니다.) 23 [온평]

한걸허다: 여유롭다는 의미로 쓰였다. // 처음부터 너무 둥겨불언. 이 한걸허게 헤놩 제우민 뒈는디.(처음부터 너무 당겨 버렸어. 이 ‘한걸허게’ 해놓아서 죄면 되는데.) 01 [도련]

한내: 제주시 용담동에 소재한 내 이름이다. // 경 허연 허난 그 혼이 뒈연산디사 어딜로 춤 거세기사 헤신디 우리 씨어머님넨 시에 그 한내 요 서녁편이 서국민흑교 뒤에 살아신디.(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 한이 되었는지 어디로 참 거시기야 했는지 우리 시어머님넨 제주시에 그 ‘한내’ 요 서쪽에 서초등학교 뒤에 살았는데.) 29 [외도]

한다리인다리: 아이들이 하는 다리를 세며 노는 놀이, 혹은 놀이에서 불리는 노래이다. // 영 허민 좀 이 한다리인다리 개천다리 이렇게 뭐허면.(이렇게 하면 좀 이 ‘한다리

인다리’ 개천다리 이렇게 뭐하면.) 09 // 한다리인다리 무신거 잊어 불엇인디. 다리들 영 패와. 경 헤낫주게. (‘한다리인다리’ 무엇 잊어버렸는데. 다리들 이렇게 펴. 그렇게 했었지.) 18 // 한다리인다리 뭐 무신 꿩 밧이 물 주레 갓다왓저 무신거 헤 가지고 ᄒᆞᆫ 것이 옛날에 다리. 다리 놔 가지고 한다리두다리인다리세다리 무신 개똥밧에 물 주레 갓저 그런 놀이가 잇어낫어.(‘한다리인다리’ 뭐 무슨 꿩 밭에 물 주러 갔다왔다 무엇 해 가지고 한 것이 옛날에 다리. 다리 놔 가지고 ‘한다리두다리인다리세다리’ 무슨 개똥밭에 물 주러 갔다 그런 놀이가 있었어.) 27 [고산, 신도, 옹포]

한단밧: 한림읍 대림리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 우리 한단밧이 좋아난양. 한단밧디 해마다 갈앗수다.(우리 ‘한단밧’이 좋았었어요. ‘한단밧’에 해마다 갈았습니다.) 35 [대림]

한드르굴: 표선면 표선리에 소재한 굴 이름이다. // 한드르굴이라고 헤서 사삼사건 때. 어디 갈 때 엇이니까 거기 가서 숨어서도 잇어나고. 또 그 일본시대.(‘한드르굴’이라고 해서 사삼사건 때. 어디 갈 때 없으니까 거기 가서 숨어서도 있었었고. 또 그 일본시대.) 05 [표선]

한따이노: 일본어 ‘反対の’에서 온 말로 ‘반대의’라는 의미이다. // 경허난 이제 다음 정거장에 강 내령 한따이노 강 아라카와구약소마데 멧 정거장 가건 내리렌. 겨난 이제 활딱 내렷어. 게난 막 ᄋᆞ라 정거장 가져서라게. 겨난 이젠.(그러니까 이제 다음 정거장에 가서 내려서 ‘한따이노’ 가서 ‘아라카와구약소’까지 몇 정거장 가면 내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얼른 내렸어. 그러니까 아주 여러 정거장 갔더라. 그러니까 이젠.) 26 [신창]

한따이노데스요: 일본어 ‘反対ですよ’로 ‘반대예요’의 의미이다. // 게난 ᄒᆞ꼼 알아먹긴 허주게. 한따이노데스요 허난에 아이고 이젠 어떵 이 찰 세와 도렌 나가 바들랑바들랑헤져.(그러니까 조금 알아먹긴 하지. ‘한따이노데스요’ 하니까 아이고 이젠 어떻게 이 차를 세워 달라고 내가 ‘바들랑바들랑헤져’.) 26 [신창]

한라봉: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귤 종류 중 하나이다. // 고성리에 특산물이엔 헌 게. 일반 뭐 여기서 셍산 뒈는 거뿐이주. 과이 특산물이 엇주게. 다 요센 밀감 뭐 한라봉 뭐 ᄒᆞ는 건 다 ᄒᆞ니까.(고성리에 특산물이라고 한 것이. 일반 뭐 여기서 생산 되는 거뿐이지. 과히 특산물이 없지. 다 요새는 밀감 뭐 한라봉 뭐 하는 건 다 하니까.) 04 [고성]

한모살: 조천읍 함덕리 함덕 해수욕장 모래밭을 이르는 말이다. // 한모살, 이렇게.(‘한모살’, 이렇게.) 11 [함덕]

한ᄆᆞ을: 구좌읍 송당리의 마을 이름이다. // 한ᄆᆞ을이렌 ᄒᆞᆫ 디 두 세대가 살아수다.(‘한ᄆᆞ을’이라고 하는 데 두 세대가 살았습니다.) 03 [송당]

한방통: 무슨 일이 바로 꼭대기에 이른 판으로, 아주 바쁜 시기를 말한다. // ᄆᆞᆯ방에는 수는 세 개 잇어 가지고 좋앗수다마는 그 한방통엔 막 밀릴 거난 미릇 나가 이걸

허겟다고 헤 가지고 ᄆᆞᆯ방에에 가 가지고 족은 망테기에 ᄐᆞᆨ 놔뒀다가 자기가 허곡.(연자매는 수는 세 개 있어 가지고 좋았습니다만 그 '한방통'엔 아주 밀릴 거니까 미리 내가 이걸 하겠다고 해 가지고 연자매에 가 가지고 작은 망태기에 탁 놔뒀다가 자기가 하고.) 35 [대림]

한소: 밭을 갈 때 두 개의 고랑 사이의 가운데를 가는 것이다. // 남으난이 그걸 갈젠 허난 피들락피들락허멍 못 갈아. 한솔, 한소옌 한다. 한솔 못 털어. 못 터난 다음부턴 무조건 ᄒᆞᆫ 번 갈곡 ᄒᆞᆫ 번 갈민 이것이 고랑이 뒈더라게.(남으니까 그걸 갈려고 하니까 '피드락피들락허멍' 못 갈아. '한소'를, '한소'라고 한다. '한소'를 못 털어. 못 터니까 다음부턴 무조건 한 번 갈고 한 번 갈면 이것이 고랑이 되더라.) 33 [인성]

한수풀: 한림읍 한림리의 옛 지명이다. // 교육청에 신 때난 첨 아니 와본 선생님덜 우리 집이 많이 완, 한수풀 어른덜 많이 와 간양, 첨 우리도 경 ᄀᆞᆮ주기, 어머니 나 때문 영광이우다. 기여게, 기여게, ᄯᆞᆯ이라도 하나 잘 나사느녜게.(교육청에 있을 때니깐 참 아니 와본 선생님들 우리 집에 많이 왔어. '한수풀' 어른들 많이 와 갔어요, 참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요, 어머니 나 때문에 영광입니다. 그래, 그래, 딸이라도 하나 잘 낳아서.) 28 [구엄]

한쓰붕: 일본어 '半ズボン'에서 온 말로 반바지를 말한다. // 이제 우리 핫바지 한쓰붕추룩 넓게 헤영 굴중의 입어낫저.(이제 우리 핫바지 '한쓰붕'처럼 넓게 해서 '굴중의' 입었었지.) 26 [신창]

한장: 배의 가운데 칸을 말한다. 달리 '한간'이라고 한다. // 가운디는 한, 아니 한장이냐 뭐냐 복판에, 두에는 고물.(가운데는 한, 아니 '한장'이야 뭐야 복판에, 뒤에는 고물.) 23 [온평]

한장동: 한경면 고산리의 지명 가운데 하나이다. // 거기서 뭔가 내가 ᄒᆞᆫ 그 후로 한장 내려왓지 여기.(거기서 뭔가 내가 한 그 후로 '한장' 내려왔지 여기.) 09 // 기우제 지낼 때 한장서도 헷주게.(기우제 지낼 때 '한장'에서도 했지.) 09 [고산]

한장드르: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지명을 말한다. // 고산 한장드르 ᄀᆞ뜬 디 그런 디나 가민 뭐허주마는 경 아녀민 다 자갈밧이라.(고산 '한장드르' 같은 데 그런 데나 가면 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자갈밭이야.) 32 [덕수]

한줄: 마소에 쟁기 따위를 매는 줄인 '봇줄'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일로 어쨋든 머리가 이레 오던 이레 오던 지금 일직선으로 뒈여 부리니까 헌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 줄이 한줄. 아, 저 한줄.(이리로 어쨌든 머리가 이리 오든지 이리 오든지 지금 일직선으로 되어 버리니까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 줄이 '한줄'. 아, 저 '한줄'.) 01 [도련]

한질동네: 큰길이 있는 동네를 말한다. 여기에서 '한질'은 '한길', 즉 큰길을 말한다. // 이딘 바당이 가까우니까 다 알아도 저 웃동넨 잘 모르주게. 한질동넨 잘 몰라.(여긴 바다가 가까우니까 다 알아도 저 윗동넨 잘 모르지. '한질동넨' 잘 몰라.) 29 [외

도]

한집: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천연두를 앓게 하는 여신 '호구별성'을 말한다. // 다시 토산 한집이엔 헤 가지고서이.(다시 토산리 '한집'이라고 해 가지고서.) 12 // 거 마누란 이제 새로들 마누라. 한집, 옛날은 한집.(그거 '마누라'는 이제 새로들 '마누라'. '한집', 옛날은 '한집'.) 13 [삼달, 한동]

할랑할랑허다: 소가 통통하게 살찐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 게믄 사릅, 나릅 나는 달 한 삼월쯤 나민 풀 멕이민 쉐가 막 할랑할랑허게 살찝니다.(그럼 사릅, 나릅 되는 달 한 삼월쯤 되면 풀 먹이면 소가 아주 '할랑할랑허게' 살찝니다.) 20 [고내]

할마님상: 아기를 돌봐준다는 '삼승할망'을 위해 차린 상을 말한다. // 그거는 할마님상에 올리젠 허민 보시떡으로 올령 쳥. 마제도 그 산메라고양.(그거는 '할마님상'에 올리려고 하면 '보시떡'으로 올려서 쪄서. '마제'도 그 '산메'라고요.) 14 [성읍]

할망: '할망당'을 줄여서 말한 것으로 마을 사람들의 부귀, 건강, 출세 등을 관장하는 신이 있는 곳이다. 일정한 날짜에 그 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거나 소원을 빌기도 한다. // 할망상은 무시거 할망에 뎅기는 할망이나 할망상 놓주 그자 사름 무시것허레 할망상 놓느니?('할망상'은 뭐 '할망'에 다니는 할머니나 '할망상' 놓지 그저 사람 무엇하러 '할망상' 놓니?) 13 [삼달]

할망: 표준어의 할머니에 대응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아내를 뜻하기도 한다. // 게난 이디 우리 할망이 젤 고셍헌게 그거주게, 젤 고생허연.(그러니까 여기 우리 '할망'이 제일 고생한 게 그거지, 젤 고생했어.) 15 // 우리 할망 미와도 참 착하긴 착한 사름이라. 진짜 부모 저 뒷바라지 허멍, 뒷바라지 잘혯어.(우리 '할망' 미워도 참 착하긴 착한 사람이야. 진짜 부모 저 뒷바라지 하면서, 뒷바라지 잘했어.) 34 [구억, 수망]

할망: 표준어의 할머니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제보자 자신을 가리킨다. // ᄉᆞ못 우리 어디 저, 우리 오칩이 제주도 메누리, 육지 메누리 헌 디 잇이녠 허멍 떼렌 허난 떼레 육지 할망 하르방이 올라가 와시녜.(사뭇 우리 어디 저, 우리 '오칩'의 제주도 며느리, 육지 며느리 한 데 있냐고 하면서 떼라고 하니까 떼러 육지 '할망' 할아버지가 올라갔다 왔어.) 31 [토평]

할망: 할머니에 대응한다. 여기서 '할망'은 '삼승할망'으로 아기를 점지하고 산모와 산아(産兒)를 돌보는 세 신령인 삼신할머니를 말한다. // 애기가 아파사 할망에 빌고, 아프민 할망에 빌어. 안 비는 사름은 안 빌어도 비는 사름은 할망에 빌어.(아기가 아파야 '할망'에 빌고, 아프면 '할망'에 빌어. 안 비는 사람은 안 빌어도 비는 사람은 '할망'에 빌어.) 06 // 그때도 막 넘언에. 그 무시거 저 할망에 비는 사름 헤당 비난 좋아.(그때도 막 넘어서. 그 무엇 저 '할망'에게 비는 사람 해다가 비니까 좋아.) 15 [남원, 수망]

할망굿: 아기를 돌봐주는 '삼승할머니'를 위한 굿을 말한다. // 애기 키우젠 허민 이 할망덜이나 누게나 헹 이 애기 내와오젠 그 할망굿 마제 허주게.(아기 키우려고 하면

이 할머니들이나 누구나 해서 이 아기 '내와오젠' 그 '할망굿' '마제' 하지.) 13 // 삼성할망이 내우고 삼성할망이 키우는 거엔 그거 할망굿.('삼성할망'이 '내우고' '삼성할망'이 키우는 거라고 그거 '할망굿'.) 13 // 마제는 할망굿. 이 애기덜 막 저들롸근에 잘 키우지 못허나.('마제'는 '할망굿'. 이 아기들 막 '저들롸근에' 잘 키우지 못하나.) 14 [삼달, 성읍]

할망당: 아기의 생육(生育)을 관장한다는 '삼승할망'을 모시는 당을 의미한다. '할망듸'라고도 한다. // 그면 저 할망당은 에 병신 뒌 애를 고치고 애를 못 낳은 사람을 고쳣던 그런 거 기록이 잇는 할망당, 제주도에서 제일 할망당이라. 그러면 그 소원을 빌어서 이루어진다는 것보다.(그러면 저 '할망당'은 병신 된 애를 고치고, 애를 못 낳는 사람을 고쳤던 그런 거 기록이 있는 '할망당', 제주도에서 제일 '할망당'이야. 그러면 그 소원을 빌어서 이루어진다는 것보다.) 09 // 할망당, 할망당 이옌 헌 디, 들어낫저. 그런 디 강은에 할망당에 강 뭐 올령 절허는가?('할망당', '할망당'이라고 하는 데, 들었었지. 그런 데 가서 '할망당'에 가서 뭐 올려서 절하는가?) 10 // 당 엇어, 당은 할망당. 할망당 잇어, 본향당.('당' 없어, '당'은 '할망당'. '할망당' 있어, 본향당.) 17 // 할망당에. 할망당엔 밥헤근에 보시 두 개에 걸이고, 보시 두 개 영 걸어놓고.('할망당'에. '할망당'에는 밥해서 보시기 두 개에 뜨고, 보시 두 개 이렇게 떠 놓고.) 19 [고산, 구억, 대림, 대평, 신창, 외도, 월령, 청수]

할망듸: 아기의 생육(生育)을 관장한다는 '삼승할망'을 모시는 당을 의미한다. '할망당' 이라고도 한다. // 우리 어멍넨 '할망듸' 가노렌 헌다. '할망듸', '할망듸'옌 허멍 간다.(우리 어머니네는 '할망듸' 간다고 한다. '할망듸', '할망듸'라고 하면서 간다.) 10 // 이 다음 마을이난 그디 댕겨난. 할망듸라고이. 얼른 곧기 좋게 골으민 할망당이렌도 ᄒᆞ곡 할망듸옌도 ᄒᆞ곡, 우리 어멍넨 잘 뎅겨서.(이 다음 마을이니까 거기 다녔었어. '할망듸'라고. 얼른 말하기 좋게 말하면 '할망당'이라고도 하고 '할망듸'라고도 하고, 우리 어머니넨 잘 다녔지.) 10 // ᄒᆞ꼼 좋는 수가 잇어. 할망듸 가사 컬. 아이고 할망디 가사 컬. 당이엔 안 헹 할망듸라고, 할망듸 가살 걸.(조금 좋을 수가 있어. '할망듸' 가야 할 걸. 아이고 '할망디' 가야 할 걸 '당'이라고 않고 '할망듸'라고 '할망듸' 가야 할 걸.) 19 [월령, 청수]

할망상: 아기를 분만한 다음 아기의 생육(生育)을 관장한다는 '삼승할망'에게 감사하고 기원하는 뜻으로 메와 실·돈 따위를 놓고 방구석이나 벽 위에 두는 상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안거리에 족은구들에 영 허고, 큰구들에 영 욮에 할망상이라 헤 가지고 모셔 놈도 허고 거 정성 들인 집은 경허고 경 안 헌 집은.(안채에 안방에 이렇게 하고, 큰방에 이렇게 옆에 '할망상'이라 해 가지고 모셔 놓기도 하고 거 정성 들인 집은 그렇고 그렇게 안 한 집은.) 12 // 메 세 개 거려놓곡 ᄒᆞ여근에 찬물 떠놓고, 아기 아파시메 고완해줍서 ᄒᆞ여근에 비는 거주게, 심방 ᄃᆞᆯ아당, 그거 할망상.(메 세 개 떠놓고 해서 찬물 떠놓고, 아기 아팠으니 치료해주십시오 해서 비는 거지, 무당 데려다가, 그거 '할망상'.) 17 // 그 애기가 아프면 그 심방

ᄃᆞᆯ아와근엥 할망상 놔. 그 옛날엔 그 옛날에 할망이 애기 배우곡 내우곡 헷어 그 할망이. 옛날에 경ᄒᆞ난 그 할망을 위허는 거라. 게난 할망상 놩 그 할망신디 비는 거라.(그 아기가 아프면 그 무당 데려와서 '할망상' 놔. 그 옛날에는 그 옛날에 '할망'이 아기 배게 하고 낳게 하고 했어 그 '할망'이. 옛날에 그러니까 그 '할망'을 위하는 거야. 그러니 '할망상' 놔서 그 '할망'에게 비는 거야.) 18 // 구들 구석에 상 출령, 자리 출령 할망상 놔근에 절허고.(방 구석에 상 차려서, 자리 차려서 '할망상' 놔서 절하고.) 26 [고산, 남원, 대평, 삼달, 신도, 신창, 옹포, 인성, 한동, 함덕]

할망집: '할망' 신을 모시는 당을 말한다. '할망칩'이라고도 한다. // 할망집이 갈 때도 과일 놓곡게, 과일도 행 가주게.('할망집'에 갈 때도 과일 놓고요, 과일도 해서 가지요.) 17 [대평]

할망칩: '할망' 신을 모신 당을 가리키는 말이다. '할망집'이라고도 한다. // 강씨가 만해, 지금 사는 딘. 우리 양씨가 질 만해나신디, 다 나가불곡, 다 머 ᄒᆞ여부난, 양씨 이 부락은 이 할망칩의 옛날에 그 메역 할망칩의 가도 단골이 양씨가 먼저 ᄒᆞ여, 심방이.(강씨가 많아, 지금 사는 데는. 우리 양씨가 제일 많았었는데, 다 나가버리고, 다 뭐 해버리니까, 양씨 이 부락은 이 '할망칩' 옛날에 그 미역 '할망칩'에 가도 단골이 양씨가 먼저 해, 무당이.) 17 [대평]

함박풀: 병풀을 말한다. // 이 함박풀같은 거영, 쏠께풀 같은 거영 뭐.(이 '함박풀'같은 거하고, 제비꽃 같은 거하고 뭐.) 03 // 거 허물 날 때는 저 고약 헤당 부찌고, 거 풀, 함박풀인가 잇잖으꽈? 그거 헤당, 함박풀이엔 헌 거 헤다근에 독독 두두령 소ᄀᆞᆷ에 헤영 부쩌나서.(거 허물 날 때는 저 고약 해다가 붙이고, 거 풀, '함박풀'인가 있잖습니까? 그거 해다가, '함박풀'이라고 한 거 해다가 톡톡 두드려서 소금에 해서 붙였었어.) 24 [세화, 송당]

함베낭: 황벽나무를 말한다. 여기서 발화자는 '함벡낭'을 '함베낭'이라 발음한 듯하다. // ᄆᆞᆯ싸움고장이라고 이섯는디 거 허곡 함베낭 거죽 헤다근에 새 꺼플 헤당 똑 부찌곡.(제비꽃이라고 있었는데 그거 하고 '함베낭' 껍질 해다가 새 껍질 해다가 톡 붙이고.) 24 [세화]

함빠: 일본어 'はんば'로 원 의미는 '(토목 공사장이나 광산 등에 있는) 노무자들의 합숙소'를 말한다. 여기서는 노무자들 합숙소 형태로 지어진 집을 가리킨다. // 그걸 먹엇주. 그걸 먹으멍 살고. 함빠엔 헨에.(그걸 먹었지. 그걸 먹으면서 살고. '함빠'라고 해서.) 06 [남원]

함빠: 일본어 'はんぱ'로 전부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나 자투리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해서 온 땔감을 뜻한다. // 그 눌을 헤치구정 안 헤영 아까왕이 또 강 헤당 또 건 함빠로 짇으곡.(그 가리를 헤치고 싶지 않아서 아까워서 또 가서 해다가 또 그건 '함빠'로 때고.) 11 // 아까왕 걸 빠멍 안 짇젠만, 게도 언젠가는 빠멍 짇어야 헐 건디 임시 곧 헤다 논 때는 아까왕 또시 강

헤당 함빠로 짇어.(아까워서 그걸 빼면서 안 때려고만, 그래도 언젠가는 빼면서 때야 할 건데 임시 곧 해다 놓은 때는 아까워서 또 가서 해다가 '함빠'로 때.) 11 [함덕]

합체: 가루를 쳐내거나 액체를 밭아내는 체로 마소의 총으로 눈을 조금 잘게 짠 것이다. 보통 쳇불의 구멍이 0.6밀리미터 정도로 이루어진 체이다. // ᄀᆞ루를 경 ᄒᆞ영 ᄀᆞ레에 ᄆᆞ딱 ᄀᆞᆯ앙, 줌진체로 쳐, 합체가 잇수다, 합체.(가루를 그렇게 해서 맷돌에 모두 갈아서, '줌진체'로 쳐, '합체'가 있습니다, '합체'.) 08 [동광]

항가치: 일본어 'ハンカチ'에서 온 말로 손수건을 말한다. // 우리 집이서 케우지 안허고 그 부제칩이 오랑 다 털어간덴 허난 그디 족은 막살이 헹 사는 사름네 집이 강 머처사 헌덴 허난 일본서 우리 성님 고무신 허영 보낸 거영, 성님 돈 보낸 거영, 항가치에 ᄆᆞᆫ 싸곡 헨 궤에 놘 오고셍이 궤채 ᄉᆞᆯ아져불언. 하나토 엇어.(우리 집에서 태우지 않고 그 부잣집에 와서 다 털어간다고 하니까 거기 작은 오막살이 해서 사는 사람네 집에 가서 맡겨야 한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우리 형님 고무신 해서 보낸 거랑, 형님 돈 보낸 거랑, '항가치'에 모두 싸고 해서 궤에 놔서 '오고셍이' 궤째 살라버렸어. 하나도 없어.) 33 [인성]

항고: 일본어 'はんごう'에서 온 말로 반합 혹은 도시락이라는 뜻이다. // 보난 먹을 거 엇이난 감저 친 거, 고구마 친 거 멧 개 요런 항고에 항고엔 헌 거 영 저 벤또 닮은 거 친 ᄃᆞᆫ 거 잇어.(보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고구마 찐 거, 고구마 찐 거 몇 개 요런 '항고'에 '항고'라고 한 거 이렇게 저 '벤또' 같은 거 끈 단 거 있어.) 25 [태흥]

항굽: 항아리를 놓을 자리라는 의미이다. 돌 따위를 놓아서 만든다. // 별반 만든 데는 없고 기냥 이 항굽만 놔가지고.(별반 만든 데는 없고 그냥 이 '항굽'만 놔가지고.) 01 [도련]

해: 수효나 분량, 정도 따위가 일정한 기준보다 넘게라는 뜻으로 '많이'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게난 그 숭페가 이제 엇덴 헤근엥에 모날에 헤 ᄃᆞᆷ음니다게. 영 보면은 모날에 헤 ᄃᆞᆷ아.(그러니까 그 흉패가 이제 없다고 해서 말날에 '해' 담급니다. 이렇게 보면 말날에 '헤' 담가.) 04 // 경 ᄒᆞ난 그 저 콥데산인 지 담을 떼도 그 이파린 헤 ᄠᅳᆫ아 뒁 헤여.(그렇게 하니까 그 저 마늘은 장아찌 담글 때도 그 이파린 '해' 뜯어 두어서 해.) 04 // 어릴 적에 삼춘네 집이 살멍도 농산 해 짓는디 밧디 간.(어릴 적에 삼촌네 집에 살면서도 농사는 '해' 지었는데 밭에 가서.) 16 [고성, 하원]

해경: 해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채취를 금하였다가 합의된 날짜에 그 금지를 풀고 해산물을 캐기 시작하는 '대ᄌᆞ문'을 말한다. 달리 '허채'라고도 하는데 띠를 베는 시기도 '해경'이라고 한다. // 완전히 밧농사 헐 때는 농한지 잇어가지고 보리 갈아뒁은에 시월에 보리 싹 갈아뒁은에 시월 중 보리 갈아뒁은에 그 다음에 동짓ᄃᆞᆯ 초ᄒᆞ룻날 새 해경을 헤여.(완전히 밭농사 할 때는 농한기 있어가지고 보

리 갈아두고 시월에 보리 싹 갈아두고 시월 중 보리 갈아두고 그 다음에 동짓달 초하룻날 띠 '해경'을 해.) 32 // 해경허는 날덜은 가서 미역 ᄀᆞ뜬 것도 헷수다만은 그 전에는 그 해경 전에는 거 얼마 못허곡 헙니다.('해경허는' 날들은 가서 미역 같은 것도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그 '해경' 전에는 그거 얼마 못하고 합니다.) 35 [대림, 덕수]

해경ᄒᆞ다: 해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채취를 금하였다가 합의된 날짜에 그 금지를 풀고 해산물을 캐기 시작하다라는 뜻이다. // 그 사름들은 지네만 독점헤여, 메날 가민 이십 만원에치 오십 만원에치 잡는 거라 그 사름덜은 메날, 세 바당 세 바당 허멍 겐디 늑신네 우리 할망덜은 걸 저 해경ᄒᆞ는 날은 잘 ᄒᆞ민 이십 키로 강 따 오면은 그걸로 끗나는 거 상군덜은 ᄀᆞ찌 따고 뭐 헤불면은 ᄀᆞᆺ디는 엇어 따기 쉬웁고.(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독점해서, 맨날 가면 이십 만원어치 오십 만원어치 잡는 거야 그 사람들은 맨날, 새 바다 새 바다 하면서 그런데 늙으신네 우리 할머니들은 걸 저 '해경ᄒᆞ는' 날은 잘하면 이십 킬로 가서 따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 '상군'들은 같이 따고 뭐 해버리면 'ᄀᆞᆺ디'는 없어 따기 쉽고.) 22 // 가시리, 아니 톳은 톳만 ᄒᆞ는, 톳이 해경ᄒᆞ믄 톳만 ᄒᆞ는 날이 셔마씸. 톳이 해경헤사 것도. 해경ᄒᆞ믄 톳은 받아가는 따문 일본더레양. 그때 일본더레 받아간.(풀 가사리, 아니 톳은 톳만 하는, 톳이 '해경ᄒᆞ믄' 톳만 하는 날이 있어요. 톳이 '해경헤사' 것도. '해경ᄒᆞ믄' 톳은 받아 가는 때문 일본으로요. 그때 일본으로 받아 갔어.) 28 [구엄, 우도]

해녀질: 해녀가 바닷속에서 어패류와 해조류 등를 채취하는 하는 일을 말한다. // 그렇게 해녀질을 많이 집집마다 허니까 허주만은.(그렇게 '해녀질'을 많이 집집마다 하니까 하주만.) 22 [우도]

해동: 조천읍 선흘리과 함덕리 사이의 지명 가운데 하나이다. // 선흘서 내려오는 것이 뱀밧이라고 이서. 뱀밧. 글로 헤서 해동으로 헤서 막 나가는 거 그것뿐.(선흘에서 내려오는 것이 '뱀밧'이라고 있어. '뱀밧'. 그리로 해서 '해동'으로 해서 막 나가는 거 그것뿐.) 11 [함덕]

해바라기: 여름에 나는 김 종류의 하나이다. 달리 '해바레기'라고도 한다. // 게난 감저왓디 제환지 아니민 해바라기, ᄃᆞ쿨 거 주로 그거.(그러니까 고구마밭에 바랭이 아니면 '해바라기', 여우구슬 거 주로 그거.) 06 // 이제 또 해바라기 헤바라기도 조밧디 조밧디 나 나고.(이제 또 '해바라기' '해바라기'도 조밭에 조밭에 나 나고.) 22 // 해바라기 쒜비름이 보통 많이 나 제완지.('해바라기' 쇠비름이 보통 많이 나 바랭이.) 22 [남원, 우도]

해바레기: 여름에 나는 김 종류의 하나이다. 달리 '해바라기'라고도 한다. // 해바레기라는 풀이 잇주게. 별명이 그 우리가 여기 해 바레는 거 해바레기라고 헤 가지고서 상당히 뿔리도 지피 들어가고 또 콩밧디, 조팟디, 산디왓디 아주 거 제환지허고 그렇게 만이 낫어.('해바레기'라는 풀이 있지. 별명이 그 우리가 여기 해 보는 거

‘해바레기’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뿌리도 깊이 들어가고 또 콩밭에, 조밭에, 밭벼밭에 아주 거 바랭이하고 그렇게 많이 났어.) 12 // ᄋᆞ름이 나는 그 제환지. 그거허고 아까 그 해바레기 그거.(여름에 나는 그 바랭이. 그거하고 아까 그 ‘해바레기’ 그거.) 12 // 해바레기나 그 저 무신거 제완지나 그런 거.(‘해바레기’나 그 저 무엇 바랭이나 그런 거.) 23 // 제완지허고 해바레기 ᄀᆞ뜬 거 그자 그런 거.(바랭이하고 ‘헤바레기’ 같은 거 그저 그런 거.) 23 [온평, 한동]

해바레기풀: 여름철에 많이 나는 김의 일종이다. // 헤바레기풀이 젤 잘 나주, 뭐. 남밧디도 질 많이 나고.(‘헤바레기풀’이 젤 잘 나지, 뭐. 나무 밭에도 젤 많이 나고.) 23 [온평]

해변밧: 제주의 중산간을 가리키는 제주어 ‘웃드르’라는 말과 반대의 제주어이다. 해안에서 200m 이내의 경작지를 말한다. // 게난 엿날은 해변밧디는 농ᄉᆞ가 잘 안뒈서 요요 중간으로 웃트렌 목장허민 욜로 영 우트렌 이젠 밧이 그냥 그냥 해변밧이엔 ᄒᆞ여.(그러니까 옛날은 ‘해변밧’에는 농사가 잘 안돼서 요요 중간으로 위로는 목장하면 욜로 이렇게 위로는 이젠 밭이 그냥 그냥 ‘해변밧’이라고 해.) 16 [하원]

해상: 멸치를 잡기 위해 양쪽 끝에서 그물을 펼쳐서 몰아오는데 이때 두 배가 서로 연락을 하는 사람을 이르는데 전화나 통신시설이 발달되지 않아 소리를 질러 의사소통을 했다고 한다. // 배 들어왐나 안 들어왐나 감시허는 두서이가 해상이라고 허는디.(배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감시하는 두세 명이 ‘해상’이라고 하는데.) 11 [함덕]

해어: 바다에서 나는 고기 종류를 말한다. // ᄎᆞᆯ레는 해어. 이 종류 ᄀᆞ튼 걸 ᄎᆞᆯ레.(반찬은 ‘해어’. 이 종류 같은 걸 반찬.) 03 [송당]

허: 소나 말을 몰 때 하는 소리이다. // 이제는 허 허여 가지고 몰면은 이제 나갈 것이다.(이제는 ‘허’ 해 가지고 몰면 이제 나갈 것이다.) 23 // 웬쪽이든 오른쪽으로 뗑길 때는 허 허여 가지고 허면은 소가 가는 거라.(왼쪽이든 오른쪽으로 당길 때는 ‘허’ 해 가지고 하면 소가 가는 거야.) 23 [온평]

허가동산: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지명 중 하나이다. // 동쪽엔 허가동산. 아마도 허 씨가 살아나신고라.(동쪽엔 ‘허가동산’. 아마도 허 씨가 살았던가.) 16 [하원]

허경: 보통 금채기가 끝나고 해산물을 채취를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띠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베는 것을 금하였다가 합의된 날짜에 그 금지를 풀고 베기 시작하는 일을 의미하기도 한다. // 메역 허경 나믄 눈 썽 강 메역 헤여근에 우리 시누이 집이 ᄒᆞᆫ 짐 져근에 보내두곡 또 나 말쩬 물천 잡앙 오곡.(미역 ‘허경’ 나면 물안경 쓰고 가서 미역 해서 우리 시누이 집에 한 짐 져서 보내두고 또 나 말째 ‘물천’ 잡아서 오고.) 33 // 동짓달 나민 동짓달 초ᄒᆞ루가 새 허경 옛날에.(동짓달 나면 동짓달 초하루가 띠 ‘허경’ 옛날에.) 33 [인성]

허금동산: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 우린 허금동산보담 돈내코.(우린 ‘허

금동산'보다는 돈내코.) 31 // 이건 알동네로 왓주. 허금동산 웃동네 살단 알동네레 온 거.(이건 아랫동네로 왔지. '허금동산' 윗동네 살다가 아랫동네로 온 거.) 31 [토평]

허끄다: 흩어뜨리는 것을 가리키는 제주어이다. // 그 웃티 소곰 허끄곡.(그 위에 소금 '허끄곡'.) 16 [하원]

허대기다: 한곳에 모여 있던 것을 흐트리다. // 걸 허대겨 놔두면 아, 그 고생을. 그놈의 감저 ᄒᆞᆫ 열흘 이상, 십일 이상 뒈야 거 ᄆᆞᆯ르는디.(걸 '허대겨' 놔두면 아, 그 고생을. 그놈의 고구마 한 열흘 이상, 십일 이상 돼야 거 마르는데.) 36 [봉성]

허드렁허다: 진실하지 않아 허황되고 어지럽다, 쓸데없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 막 그자 어떵 원 욕이나 허곡 그자 그자 허드렁허게 그자 원 원 지저분만 허여베여근엥에 아이고, 나양 씨집오란 저 그 부억에서양 침떡 ᄆᆞᆫ딱 치곡 눈이 ᄆᆞᆫ딱 멜라졋수다.(마구 그저 어떻게 원 욕이나 하고 그저 그저 '허드렁허게' 그저 원 원 지저분만 해보여서 아이고, 저요 시집와서 저 그 부엌에서요 시루떡 모두 찌고 눈이 모두 찌그러졌습니다.) 32 [덕수]

허랑허다: 끈기 있는 물건이 휠 정도로 아주 부드러운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고기가 무른 상태를 말한다. // 그 좀 ᄉᆞᆲ당 노난양 과들락허영 궤기가 안 뒈컵디다. 그 ᄒᆞᆫ디 놓면은 허랑헌 냥 잇고. 경 허난 이거는 옛 허는 사름덜이 알아근에 이건 그자 ᄉᆞᆲ으멍 그자 곧 ᄉᆞᆲ으멍 놔야 뒈겟다, 경 생각헤집니다.(그 좀 삶다가 넣으니까요 '과들락허영' 고기가 안 되겠습디다. 그 함께 넣으면 '허랑헌' 대로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옛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이건 그저 삶으면서 그저 곧 삶으면서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집니다.) 32 [덕수]

허리깝: '치마의 허리 부분의 값'이라는 의미로, 일한 대가를 넉넉히 받았느냐는 뜻으로 사용할 때 쓰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 경 허난에 아이고, 예게, 치메 ᄒᆞᆫ 허리깝 ᄃᆞᆫᄃᆞᆫ히 줍디다. 경 허멍 옛날은 어려운 시절이난이.(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예, 치마 한 '허리깝' 단단히 줍디다. 그렇게 하면서 옛날은 어려운 시절이니까.) 29 [외도]

허리치메: 허리를 달아 만든 한복치마를 가리키는 말이다. // 위로 무끌 거라게. 저 허리치멜 허민.(위로 묶을 거야. 저 '허리치메'를 하면.) 14 [성읍]

허릿곰: 허리에 달려 있는 끈이다. // 끈. 끈. 저 거시기. 끈이엔 안 허곡. 곰, 곰. 허릿곰.(끈. 끈. 저 거시기. 끈이라고 안 하고. 고름, 고름. '허릿곰'.) 05 // 허릿곰게 그. 그거 그거 이거 영 내린 것사 치마 지러기 아니라.('허릿곰' 그. 그거 그거 이거 이렇게 내린 것이야 치마 길이 아니냐.) 29 [도련, 외도, 표선]

허릿당: 제주시 노형동의 지경 이름 하나이다. // 허릿당은 요 아래 허릿당 싯고 그 우이꺼 질메ᄐᆞᆨ이엔 허여게, '질메ᄐᆞᆨ.('허릿당'은 요 아래 '허릿당' 있고 그 위의 거 '질메ᄐᆞᆨ'이라고 해, '질메ᄐᆞᆨ'.) 30 [노형]

허릿대: 낚싯거루에 세운 돛대 가운데 가장 큰 돛대를 말한다. // 또 이 뒤에 있는 큰 건

허릿대고.(또 이 뒤에 있는 큰 건 '허릿대'고.) 22 [우도]

허벅: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다. '허배기', '허베기', '협데기', '짓가달'이라고도 한다. // 사그마치. 허벅 벌러진 거, 망데기 벌러진 거, 사그마치.(사금파리. '허벅' 깨진 거, 옹기 깨진 거, 사금파리.) 17 // 그냥 거는 이, 씨 놔둘 때는, 우리 어머니는 허벅에 담앙 놔두더라. 허벅.(그냥 거는 이, 씨 놔둘 때는, 우리 어머니는 '허벅'에 담아서 놔두더라. '허벅'.) 30 // 물도 이 수도가 엇이난 허벅으로 물 져다근에 동네 여자덜이 와근에 물 져다근에 흑 헐 때 문딱 물도 져다 주고.(물도 이 수도가 없으니까 '허벅'으로 물 져다가 동네 여자들이 와서 물 져다가 흙 할 때 모두 물도 져다 주고.) 31 // 조케네 집이나 사돈 죽엉 ᄒᆞ끔 영 먼 사돈은 ᄒᆞᆫ 허벅 졍 가고, 당ᄒᆞᆫ 사돈은 두 허벅 졍 가고 경 헷수다.(조카네 집에나 사돈 죽어서 조금 이렇게 먼 사돈은 한 '허벅' 져서 가고, '당헌' 사돈은 두 '허벅' 져서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34 [고산, 구억, 노형, 대평, 동광, 송당, 신도, 신창, 옹포, 토평]

허븐고사리: '허궁고사리'를 잘못 발음한 듯하다. '허궁고사리'는 '고비'를 말한다. // 그 허븐고사리 헤다근에 구완헤실 거라, 그때.(그 '허븐고사리' 해다가 치료했을 거야, 그때.) 24 // 고사리는 허븐고사리엔 ᄒᆞ멍 그걸 헤근에 저 성읍리서 건, 성읍리 어른이 그런 거 헤근에 구완헤난.(고사리는 '허븐고사리'라고 하면서 그걸 해서 저 성읍리서 그건, 성읍리 어른이 그런 것 해서 치료했었어.) 24 [세화]

허싹: '알맞게 잘'의 의미로 쓰였다. // 잘 허싹 죽으면은 활활 헤왕 건져가지고 물 빠지믄 버무리믄 뒈는 거.(잘 '허싹' 죽으면 활활 헹궈서 건져가지고 물 빠지면 버무리면 되는 거.) 14 [성읍]

허제: 해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채취를 금하였다가 합의된 날짜에 그 금지를 풀고 해산물을 캐기 시작하는 일을 말한다. '허체', '대ᄌᆞ문'이라고도 한다. // 그 저 거시기 어촌게로 헤여근엥에 그 무시거 허제 허영 ᄒᆞᆯ 때양.(그 저 거시기 어촌계로 해서 그 무엇 '허제' 해서 할 때요.) 04 // 아 메역 허제 헐 때는 터베가 가근에. 듬북도 듬북 ᄒᆞᆯ 때도 강 터베로 시꺼오곡.(아 미역 '허제' 할 때는 떼배가 가서. '듬북'도 '듬북' 할 때도 가서 떼배로 실어오고.) 04 [고성]

허주 내우다: '좋지 않은 소문을 나게 하다'라는 의미이다. // 우리 토평 일름난 사름 엇다 이제. 동장 하나도 토평 사름 안 멘들아 논 디여. 난 토평 살아도 토평 허주 내우켜.(우리 '토평' 이름난 사람 없다, 이제. 동장 하나도 '토평' 사람 안 만들어 놓은 데야. 난 '토평' 살아도 '토평' '허주 내우켜'.) 31 [토평]

허체허다: 해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채취를 금하였다가 합의된 날짜에 그 금지를 풀고 해산물을 캐기 시작하는 일이다. '허제', '대ᄌᆞ문'이라고도 한다. // 어촌계 튼 사름만 톨도 문 허체헤야.(어촌계 튼 사람만 톳도 모두 '허체헤야'.) 24 // 경허민 메역 허체허젠 허민이 이디서 이 신흥리광 우리 이 태흥리광 ᄀᆞᆷ이 잇어.(그러면 미역 '허체허젠' 하면 여기서 이 신흥리와 우리 태흥리와 'ᄀᆞᆷ'이 있어.)

25 [세화, 태흥]

허피다: 쓰는 물건이 빨리 없어지다, 함부로 쓰다는 의미의 헤프다라는 말이다. // 좀 소낭숫은 이 허피여. 불이 빨리 삭아져.(좀 소나무 숯은 이 '허피여'. 불이 빨리 삭아져.) 01 [도련]

헉숙허다: 가득찼던 것이 없어져서 허전한 모양을 말한다. // 애기 어멍 배에 헉숙헌덴이 낮이도 허영 줄 때도 잇고, 중석으로 건.(아기 어머니 배에 '헉숙헌덴이' 해서 낮에도 해서 줄 때도 있고, 곁두리로 그건.) 11 // 아기가 뽕뽕헷단 배가 애기 빼불민 헉숙헌덴, 너미 허헌덴 거.(아기가 빵빵했던 배가 아기 빼버리면 '헉숙헌덴', 너무 허하다고 그거.) 11 [함덕]

헐랑헐랑허다: 단단하게 굳지 않고 힘이 없어 뭉그러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얄룹게 묵을 써 가지고 그 묵을 체 닮은 거에 영 헤영 바쳐 가지고서이 그거 헤근에가 그거 굳으면은 헐랑헐랑허주게.(얇게 묵을 써 가지고 그 묵을 체 닮은 거에 이렇게 해서 받쳐 가지고 그거 해서 그거 굳으면 '헐랑헐랑허주게'.) 12 // 헐랑헐랑 헤영 것ᄀᆞ라 청묵이엔 헤 가지고서 거 좀 정성허지 않은 사름은 거 잘 못허주게.('헐랑헐랑헤영' 것보고 '청묵'이라고 해 가지고서 거 좀 정성하지 않은 사람은 거 잘 못하지.) 12 [한동]

헐찬일: 살아가면서 치러야 할 혼례 따위의 큰일을 말한다. '홀ᄎᆞᆫ일'이라고도 한다. // 다 출련. 겨난 그 요번에 요디 친구 경 ᄀᆞᆯ안. 언니, 경 헤도 고생허멍 살아도 헐찬일 다 허엿수게 경.(다 차렸어. 그러니까 그 요번에 요기 친구 그렇게 말했어. 언니, 그렇게 해도 고생하면서 살아도 '헐찬일' 다 했습니다, 그렇게.) 29 [외도]

협섹이: 힘이 없이 납작하게의 의미로 쓰였다. // ᄯᅳ로 들렁귀옌 ᄒᆞᆫ 듸 가근에 가오리도 쏘아 보고, 이 기움창 안네서도 가오리, 아 고기 쏘으레 가단 ᄇᆞ레 보난에, 아 모살 여옌 ᄒᆞᆫ 여 우에 거무룽ᄒᆞᆫ 것이 덕석 모냥으로 협섹이 업더진 것이 잇어.(따로 '들렁귀'라고 한 데 가서 가오리도 쏘아 보고, 이 '기움창' 안에서도 가오리, 아 고기 쏘러 가다가 봐 보니까, 아 모래 '여'라고 한 '여' 위에 거무스름한 것이 멍석 모양으로 '협섹이' 엎어진 것이 있어.) 17 [대평]

헛물: 해녀들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소라나 전복 따위를 잡는 것을 말한다. 해녀들이 소라나 전복 등을 캐러 물에 들어가는 일이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헛될 수도 있으므로 '헛물'이라고 했다. '헛물에', '헛물질'이라고도 한다. // 헛물은 뭐냐 허면 고동 거튼 거, 뭐 고기도 쏘고 뭐 뭐인가 오분제기도 잡고.('헛물'은 뭐냐 하면 고둥 같은 거, 뭐 고기도 쏘고 뭐 뭐인가 '오분제기'도 잡고.) 12 [한동]

헛물에: '헛물'+'에'의 구성으로 해녀들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소라나 전복 따위를 잡는 것을 말한다. 해녀들이 소라나 전복 등을 캐러 물에 들어가는 일이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헛될 수도 있으므로 '헛물'이라고 했다. // 헛물에 할 때는 ᄀᆞᆯ게기 가지고.('헛물에' 할 때는 호미 가지고.) 05 // 이제 메역 ᄌᆞ무는 거 끝나면은이 젊은 사름덜은 이제 헛물에를 만이 헷저.(이제 미역 캐는 거 끝나면 젊은 사람들은

이제 ‘헛물에’를 많이 했어.) 12 [표선, 한동]

헛물에망사리: 해녀들이 바다에서 소라나 전복 따위를 채취할 때 사용하는, ‘테왁’에 매달아 사용하는 그물주머니이다. // 미역망사리허고 헛물에망사리는 같이 고망썩 요만썩 고망 허영 허곡.(‘미역망사리’하고 ‘헛물에망사리’는 같이 구멍씩 요만큼씩 구멍 해서 하고.) 23 [온평]

헛물질: 해녀들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소라나 전복 따위를 잡는 것을 말한다. 해녀들이 소라나 전복 등을 캐러 물에 들어가는 일이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헛될 수도 있으므로 ‘헛물질’이라고 한다. ‘헛물’, ‘헛무레’라고도 한다. // 헛물질 갈 때 허고.(‘헛물질’ 갈 때 하고.) 20 // 헛물질도 안 헤 보고.(‘헛물질’도 안 해 보고.) 20 [고내]

헛물허다: 해녀들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소라나 전복 따위를 잡는 것을 말한다. // 이 헛물헐 땐 세 시간썩, 네 시간썩 살아.(이 ‘헛물헐’ 때는 세 시간씩, 네 시간씩 살아.) 13 // 눈도 놓고, 빗창 놓고, 메역헐 땐 호미도 놓고 또 헛물헐 땐 ᄀᆞᆯ겡이도 놓고 빗창도 놓고 경헤영 가고 그거주.(물안경도 놓고, ‘빗창’도 놓고, 미역할 땐 낫도 놓고 또 ‘헛물헐’ 땐 호미도 놓고 ‘빗창’도 놓고 그렇게 해서 가고 그거지.) 25 [삼달, 태흥]

헛불: 도깨비불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도채비라고 허는 거주게. 헛불.(도깨비라고 하는 거지. ‘헛불’.) 09 // 저 영 고산 천지 그 으슥헌 데는 다 ᄂᆞᆯ아다니멍 붙어, 저 불이 헛불이.(저 이렇게 고산 천지 그 으슥한 데는 다 날아다니면서 붙어, 저 불이 ‘헛불’이.) 09 [고산]

헤뚜룩허다: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 광목 호청 앗앙 가근에 이불안 앗앙 가근에 베에 니 밧디 대 꼽아근에 막 파닥 파닥 파닥 허는 애기덜은 헤뚜룩허고 그냥 애기구덕에 졍 강 내 불민 그냥 막 옛날은 베염 애기 입에 들어강 죽엇저.(광목 홑청 가지고 가서 이불안 가지고 가서 베에 네 군데 대 꼽아서 마구 파닥 파닥 파닥 하는 아기들은 ‘헤뚜룩’ 하고 그냥 아기구덕에 지고 가서 내 버리면 그냥 아주 옛날은 뱀 아기 입에 들어가서 죽었어.) 12 [한동]

헤뜩 갈라지다: 갑자기 뒤로 등을 대어 눕는 것을 말한다. // ᄂᆞ려지곡, 이디 신 막 얼령은에 이만이 높아. 경 허민 뎅기당 지륵허민 헤뜩 갈라지곡 사람이 옛날은 그렇게 허멍 살아왓어.(넘어지고, 여기 신 막 얼어서 이만큼 높아. 그렇게 하면 다니다가 ‘지륵허민’ ‘헤뜩 갈라지곡’ 사람이 옛날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어.) 19 [청수]

헤삭헤삭: 가루 성분으로 된 것이나 밥이 차진 기는 조금도 없고 아주 메진 모양이다. // 그거 거펴근에 ᄀᆞᆯ아당 수제비 허젠 허민 ᄒᆞ끔 헤삭헤삭사 헤신고라 손으로 꼰꼰꼰 쥐어근에 그거 허연 ᄌᆞ베기 허연 먹어낫수다.(그거 거피해서 갈아다가 수제비 하려고 하면 조금 ‘헤삭헤삭’이야 했는지 손으로 ‘꼰꼰꼰’ 쥐어서 그거 해서 수제비 해서 먹었었습니다.) 34 [구억]

헤살헤살허다: 반죽 따위가 끈기가 없어서 반죽이 벌어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 반

죽허는 거게 그거 쏠 ᄀᆞᆯ아다근에 그 쏠ᄀᆞ르도 물 게와근엥에 반죽을 헤사 허주. 만약에 언물로 몰랑 헷당은 헤살헤살헤근에 떡이 안 뒈주게.(반죽하는 거 그거 쌀 갈아다가 그 쌀가루도 물 끓여서 반죽을 해야 하지. 만약에 찬물로 몰라서 했다가는 '헤살헤살헤근에' 떡이 안 되지.) 23 [온평]

헤싸지다: 헤어져 뜯어지거나 바수어지다는 의미이다. // 그거 트박 저 까시 잇인 체 온 체 영 썰어 논 거 헤사 상에 올림도 허지 헤싸저 불민 안 뒈지게.(그거 '트박' 저 가시 있는 채 온 채 이렇게 썰어 놓은 거 해야 상에 올리기도 하지 '헤싸져' 버리면 안 되지.) 16 [하원]

헤싹허다: 떡 따위가 찰기가 없이 무른 상태를 말한다. // 히린좁썰은 떡이 이제 첨 출떡거치 흐리고 모인좁썰은 그 떡이 헤싹허주게. 경허는 따문 히린좁썰이영 모인좁썰이영 헤영 ᄒᆞᆫ펜씩 놩 떡 헹 먹고.(차조는 떡이 이제 참 찰떡같이 차지고 메조는 그 떡이 '헤싹허주게'. 그런 때문에 차조랑 메조랑 해서 한편씩 넣어서 떡 해서 먹고.) 31 [토평]

헤올헤올: 꼴을 대충대충 벤 상태를 뜻한다. // 촐 못 비는 사름은 우으로 헤올헤올 비어불민 촐도 작곡.(꼴 못 베는 사람은 위로 '헤올헤올' 베어버리면 꼴도 적고.) 34 [구억]

헤제ᄒᆞ다: 해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채취를 금하였다가 합의 된 날짜에 그 금지를 풀고 해산물을 캐기 시작한다는 말이다. // 그 헤제 ᄒᆞᆯ 때 메역 ᄌᆞ물 때. 하영 허문 하영 찍세, 족영 헤도 이녁 찍세.(그 '헤제ᄒᆞᆯ' 때 미역 캘 때. 많이 하면 많이 몫. 작게 해도 이녁 몫.) 04 [고성]

헤지기: 일몰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헤지기, 헤가 바닷물 속에 내려가는 거.('헤지기', 해가 바닷물 속에 내려가는 거.) 09 [고산]

헤치: 마을 사람들이 일정한 날을 정하여 미역, 톳 따위들을 채집하는 것을 금했다가 공동으로 채취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 메역은 싯당 메역 헤치 ᄒᆞ는 날은 메역 ᄒᆞ곡.(미역은 있다가 미역 '헤치' 하는 날은 미역 하고.) 17 [대평]

헤카지다: 헤어져 뜯어지거나 바수어지다라는 뜻이다. '헤싸지다'라고도 한다. // 뒌장이 막 헤카지기 전이 아니꽈.(된장이 막 '헤카지기' 전에 아닙니까.) 03 // 그거 게 올케 헤카지지 않으민.(그거 게 '올케' '헤카지지' 않으면.) 04 [고성, 송당]

헬레레허다: 더위에 소가 혀를 내밀어 늘어뜨린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 낮에 더우니까게. 소가 세 내왕 못 가주, 소가 세만 헬레레허멍.(낮에 더우니까. 소가 혀 내밀어서 못 가지. 소가 혀만 '헬레레허멍'.) 06 [남원]

헹경낭: 소의 외양간에 옆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가로지른 나무이다. 달리 '메낭', 'ᄆᆞ낭', '훵경'이라고 한다. // 헹경낭. 쉐 메곡 저기레 나오지 못허게 그 안네, 글로 허영 헹경낭 영 놓으면은 걸로 촐 거려 주곡.('헹경낭'. 소 매고 저기로 나오지 못하게 그 안에, 거기로 해서 '헹경낭' 이렇게 놓으면은 거기로 꼴 '거려' 주고.) 36 [봉성]

헹아시: 일본어 'ひがし(東)'로 '동쪽'을 말한다. // 일분말로 연설을 허젠 허민 이제 동은 헹아시, 서는 무까시, 이렇게 헤나난.(일본말로 연설을 하려 하면 이제 동은 '헹아시', 서는 '무까시', 이렇게 했었어.) 24 [세화]

헹헹ᄒᆞ다: 소가 새끼 날 때 못 견뎌서 나는 소리이다. // 막 못 젼디영 헹헹ᄒᆞ멍.(막 못 견뎌서 '헹헹' 하면서.) 17 [대평]

혀뜩ᄒᆞ다: '머리가 어질어질하다'는 뜻이다. '히여뜩ᄒᆞ다'라고도 한다. // 그레 막 집덜 막 들어산 이젠 하간 저 무신거 관광덜 막 뎅겨ᄂᆞ난 혀뜩ᄒᆞ크라고.(거기 막 집들 마구 들어서서 이젠 온갖 저 무엇 관광들 막 다니니까 '혀뜩ᄒᆞ크라고') 19 [청수]

혀뜩헌 일: '보잘 것 없는 일'의 의미로 쓰였다. // 놈덜은 엇어근에 막 놈의 집의 ᄉᆞᆯ 사레 뎅기곡 무신거 헤도 그런 거도 허레도 혀뜩헌 일도 허레 안 뎅겨봔.(남들은 없어서 막 남의 집에 쌀 사러 다니고 무엇 해도 그런 거도 하러도 '혀뜩헌 일'도 하러 안 다녀봤어.) 14 [성읍]

현칩: 현씨 일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 상동에는 현칩이라고 헤 가지고 그, 그 현칩의 형제간덜이 많이 있어.('상동'에는 '현칩'이라고 해 가지고 그, 그 '현칩'의 형제간들이 많이 있어.) 23 [온평]

형제접: 친한 사람들의 자식이 서로 형제처럼 지내라고 하는 의미로 부모들이 함께 꾸린 계를 말한다. // 형제접이다 뭐다 친허민 뭐, 뭐 갑장훼니 뭐 그런 것덜이 ᄎᆞ츰 접 후에는 셍기기 시작헨.('형제접'이다 뭐다 친하면 뭐, 뭐 '갑장훼'니 뭐 그런 것들이 차츰 계 후에는 생기기 시작했어.) 23 [온평]

호강이: '옴폭 패어 물이 괴어 있는 곳으로 늪보다 훨씬 작다'는 뜻이다. // 이만큼 헌 이 호강이가 돌로 뒈엇어.(이만큼 한 이 '호강이'가 돌로 되었어.) 09 [고산]

호다르노 히카리: '반딧불이의 빛(蛍の光)'이라는 뜻이다. 일제강점기 때 졸업식이나 작별의 노래로 불러졌던 스코틀랜드 민요 'Auld Lang Syne'에 애국가의 가사를 붙여서 불렀다. // 옛날 그 저 일본말로 일본 음을 따서 애국가를 가르치는 호다르노 히카리 일본 노래 헤서 그 애국가를 가르치멍 헷어.(옛날 그 저 일본말로 일본 음을 따서 애국가를 가르치는 '호다르노 히카리' 일본 노래 해서 그 애국가를 가르치면서 했어.) 07 [보목]

호랑겡이: 바닷가 바위 가운데 길게 홈이 진 곳을 이르는 말이다. // 벤저리 주로. 그때는 벤자리가 많이 나고, 북바리도 북바리는 그 모살통 같은 데 엇어근에 여에, 감태 막 이신디 영 허면은 바당 속에 호랑겡이는 인치룩 널르주게.(벤자리 주로. 그때는 벤자리가 많이 나고, 붉바리도 붉바리는 그 '모살통' 같은 데 없어서 '여'에, 감태 막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바다 속의 '호랑겡이'는 이처럼 넓지.) 05 [표선]

호렝이: 줄, 참바 따위를 뒤트는 도구를 말한다. '호롱이', '훼롱', '훼롱이'라고도 한다. // 감는 거 하면서 나가는 거 호렝이.(감는 거 하면서 나가는 거 '호렝이'.) 15 // 호렝이. 그 저 이 줄 비어 나가는 거.('호렝이'. 그 저 이 줄 '비어' 나가는 거.) 19 // 소리낭 껍데기 영 베꼇다근에. 그걸로 허면 비 올 때 맞아도 오래가고 허

니까 그걸로 헤근에 노인덜 헤근에, 그 막 아이덜 시켜근에 헤근에 영 호렝이 닮은 걸로 노 꼬아근에양 드려근에 협주게.(소리나무 껍데기 이렇게 벗겨다가. 그걸로 하면 비 올 때 맞아도 오래가고 하니까 그걸로 해서 노인들 해서, 그 아주 아이들 시켜서 해서 이렇게 '호렝이' 닮은 걸로 노 꼬아서 드려서 합지요.) 20 // 이거 흔 사람 영 허여야지. 또 저디 둘이 호렝이 또 거 줄 둘이 헤야 예껴지지.(이거 한 사람 이렇게 해야지. 또 저기 둘이 '호렝이' 또 거 줄 둘이 해야 엮어지지.) 26 [고내, 남원, 보목, 성읍, 수망, 신창, 인성, 청수, 토평, 표선, 한동]

호령창: '마루방'인 '상방'의 큰 대문 옆에 시설한 조그만 창으로 판문으로 만들어진 창이다. 주인이 앉아서 바깥을 내다보며 호령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 건 내다보고 호령헌덴 헹은에 호령창인게.(건 내다보고 호령한다고 해서 '호령창'이네.) 05 // 이 대문 옆이 지금 여기는 뭐허지만은 저기 대정 가면 호령창이라는게 문이 요만큼 만든 게 잇어.(이 대문 옆에 지금 여기는 뭐하지만 저기 대정 가면 '호령창'이라는게 문이 요만큼 만든 게 있어.) 09 // 게난 집주인이 이디 앚앙 베꼇디레 내다보는 게 호령창이라.(그러니까 집주인이 여기 앉아서 바깥으로 내다보는 게 '호령창'이야.) 14 // 옛날 집은 우린 이 마리 마리에 또 우리 우리 고향엔 호령창이라고 헤서 창문이 저 제창문이엔 헹 제창문이엥 헤서 제창문.(옛날 집은 우린 이 마루 마루에 또 우리 우리 고향에는 '호령창'이라고 해서 창문이 저 '제창문'이라고 해서 '제창문'이라고 해서 '제창문'.) 16 [고산, 대림, 봉성, 성읍, 신창, 토평, 표선, 하원]

호롱이: 줄, 참바 따위를 뒤트는 도구를 말한다. '훼롱', '훼롱이'라고도 한다. // 호롱이로 비어 가지고 어울릴 때는 뒤치기가 이서. 뒤치기 이렇게 헤영.('호롱이'로 '비어' 가지고 '어울릴' 때는 '뒤치기'가 있어. '뒤치기' 이렇게 해서.) 02 // 호롱이나 뒤치기는 뭐라? 그건 잘 모르켜.('호롱이'나 '뒤치기'는 뭐야? 그건 잘 모르겠다.) 09 // 그럼 집줄 만들 때 쓰는 연장은 뭐, 뭐 잇언마씨? 호롱이는 들어보션마씨?(그럼 '집줄' 만들 때 쓰는 연장은 뭐, 뭐 있었어요? '호롱이'는 들어보셨어요?) 사람 손으로. 이듸선 영 각단 놓고 사람 손으로 영 영 허민, 그 영 허여가. 이쪽으로 영 영.(사람 손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각단' 놓고 사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이렇게 해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18 // 그걸 호롱이라고 헤. 그걸 이렇게 나간 것이 기역자로 뒈어 가지고 새를 이렇게 걸면 이디서 삥삥 삥삥 돌게 헤서 여기는 요만큼 한 막대기 그 저 호롱이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로 기역자로 돼 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면 그 새 꼬아져.(그걸 '호롱이'라고 해. 그걸 이렇게 나간 것이 기역자로 되어 가지고 띠를 이렇게 걸면 여기서 삥삥삥삥 돌게 해서 여기는 요만큼 한 막대기 그 저 '호롱이'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로 기역자로 돼 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면 그 띠 꼬아져.) 27 [고산, 대림, 대평, 도련, 동광, 선흘, 신도, 옹포]

호멩이: 성게, 문어나 소라 등 구멍 속에 것들을 파내는 호미를 말한다. // 호멩인 저 무싱거 골갱이곡이, 것 강 오벼오는 거 바당 아레 간 경 흔다게.('호멩인' 저 무엇 호

미고, 그것 가서 오벼오는 거, 바다 아래 가서 그렇게 한다.) 10 [월령]

호박단: '태피터(taffeta)'인데 광택이 있는 얇은 평직 견직물로 여성복이나 양복 안감, 넥타이, 리본 따위를 만드는 데에 쓰인다. // 멩지로 허질 아녀고 그때 저 호박단 양단.(명주로 하지를 않고 그때 저 호박단 양단.) 04 [고성]

호박메물: 호박을 데쳐서 무친 음식이다. 주로 제사 때 하는 나물이다. // 옛날에 제사 때 호박메물을 헤나신디 이젠 안 허여.(옛날에 제사 때 '호박메물'을 했었는데 이젠 안 해.) 23 [온평]

호박입국: 호박잎을 가루와 같이 넣어서 끓인 국을 말한다. // 그 호박이파리를어떻게 이제 그 시치느냐에 따라서 그 호박입국이 맛이 틀려.(그 호박이파리를 어떻게 이제 그 씻느냐에 따라서 그 '호박입국'이 맛이 달라.) 05 // 호박입꾹은 호박입 헤다 근에 막 밀어근에이 경 ᄒᆞ영 물 꿰왕은에 호방입 놩 익으민 ᄀᆞ루 ᄒᆞᆯ 영 저 물로 카놔근에 경 형 비왕.('호박입국'은 호박잎 해다가 마구 밀어서 그렇게 해서 물 끓여서 호박잎 넣어서 가루 조금 이렇게 저 물로 타서 그렇게 해서 부어서.) 16 // 호박입국은 그 놔근에 저 뒌장 놓민 건 호박입은 우린 간장 놔서, 장물. 간장이엔 안 허영 장물.('호박입국'은 그 넣어서 저 된장 넣으면 건 호박잎은 우린 간장 넣어서, '장물'. '장물'이라고 안 하고 '장물'.) 31 [외도, 토평, 표선, 하원]

호박적: 호박을 나풀나풀하게 썰어서 산적처럼 구운 음식을 말한다. // 호박적게 뜨박뜨박 썰어근에 점으로 허여근에 꿰여근에.('호박적' '뜨박뜨박' 썰어서 점으로 해서 꿰어서.) 14 [성읍]

호박채: 호박을 먹기에 알맞은 크기로 썰어서 삶은 후에 소금과 참깨 등을 넣고 무친 음식이다. // 호박채가 또 주로야. 채 허영. 그자 제ᄉᆞ 때 가민 호박 두 점.('호박채'가 또 주로야. 채 해서. 그저 제사 때 가면 호박 두 점.) 01 // 호박채소도 채로 안 허영이 옛날은 기냥 ᄎᆞᆷ 요만씩 요만씩 우리 지금 저 무시거 국 끌리젠 허민 썰듯기. 그치록 썰어근엥에 호박채.(호박채소도 채로 안 해서 옛날은 그냥 참 요만큼씩 요만큼씩 우리 지금 저 무엇 국 끓이려고 하면 썰 듯이. 그처럼 썰어서 '호박채'.) 29 [도련, 외도]

호상옷: 염습할 때에 송장에 입히는 옷인 수의의 제주어이다. // 게메 저디 ᄑᆞ는 사름은 수의렌 허고 우리 옛날 우리말은 호상옷이엔 헷어.(그러게 저기 파는 사람은 수의라고 하고 우리 옛날 우리말은 '호상옷'이라고 했어.) 06 [남원]

호야: 일본어 'ほや(火屋)'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바람을 막고 불빛을 밝게 하기 위하여 남포등에 씌우는 유리로 만든 물건으로 등피를 말한다. // 그 줄에 옛날엔 호야라는 유리, 유리가 잇엇저.(그 줄에 옛날엔 '호야'라는 유리, 유리가 있었어.) 12 [한동]

호주애기: 보리 종류의 한 가지이다. // 세 가지 헨 허고 이제 막 오래 살아가난 호주애기여 무싱거여 막 드르 나완.(세 가지 해서 하고 이제 막 오래 살아가니까 '호주애

기'야 무슨 거야 막 계속 나왔어.) 19 [청수]

혹혹혹혹: 무언가를 자꾸 쉽게 뽑아내는 모양으로 여기서는 목화 따위를 쉽게 쏙쏙 빼는 모양을 표현한 말이다. // 게민 그 소게가 초불헐 때 허민 혹혹혹혹 뽑아오곡 따시 두불 뒈 가민 캐믄 헤도 거 나오진 안허주게.(그러면 그 솜이 초벌할 때 하면 '혹혹혹혹' 뽑아오고 다시 두벌 되어가면 트면 해도 그거 나오진 않지.) 13 [삼달]

혼백상지: 혼백을 담는 상자를 말한다. // 그 베로 주로덜 헤시난 옛 어른덜이 대단헌 거주. 그 춤 조그만헌 거 타 아졍근에 경허난 그 어른덜 말은 혼백상지, 혼백상지 메영 뎅기노렌 허주게, 바당에 뎅기는 사름은.(그 배로 주로들 했으니까 옛 어른들이 대단한 거지. 그 참 조그마한 거 타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 어른들 말은 '혼백상지', '혼백상지' 매서 다니노라고 하지, 바다에 다니는 사람은.) 01 [도련]

혼인짓물: 성산읍 온평리 혼인지에 있는 물 이름이다. // 여기 온평리는 혼인짓물 저 어디 바다 쪽으로 가민 도는물 저 밑으로 가면은 애기죽은날물, 거기는 소도 멕이고 요만큼헤 가지고 사람도 먹고 거 물이 많이 없엇을 때 먹엇고.(여기 온평리는 '혼인짓물' 저 어디 바다 쪽으로 가면 '도는물' 저 밑으로 가면은 '애기죽은날물', 거기는 소도 먹이고 요만큼해 가지고 사람도 먹고 거 물이 많이 없었을 때 먹었고.) 23 [온평]

혼적삼: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혼을 부를 때 사용하는 적삼을 가리킨다. // 수에옷 경 곧짱 무꺼 놔사 이제 거 죽은 어른 이런 혼적삼을 허나. 또 아무나 썹지근헤영 못 허여이. 그 적삼을 ᄒᆞ나.(수의 그렇게 곧장 묶어 놔야 이제 거 죽은 어른 이런 '혼적삼'을 하거나. 또 아무나 섬뜩해서 못 해. 그 적삼을 하나.) 06 // 이제 지붕에서 내려왕 허면은 그 혼적삼을 그 영, 그 ᄉᆞ체 그 구들에 놓는다.(이제 지붕에서 내려와서 하면 그 '혼적삼'을 그 이렇게, 그 사체 그 구들에 놓는다.) 12 // 상에 올령. 그 적삼, 혼적삼으로 놔둬뒁덜.(상에 올려서. 그 적삼 '혼적삼'으로 놓아두고들.) 15 // 무사 경 헷인고 허믄 그 만약에 예를 들엉 돌아가신 때에 그 혼적삼엔 헤여낫주게. 혼적삼.(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때에 그 '혼적삼'이라고 했었지. '혼적삼'.) 29 [남원, 수망, 외도, 한동]

홀롱통: 달구지의 한 부분을 말한다. // 토종구루마는 이게 홀롱통이라고 헤서 저 영 요만이 ᄉᆞᆯ진 나무 헤근에 여기 쌀을 돌아가멍 박안 마차를 만들아낫주게.('토종구루마'는 이게 '홀롱통'이라고 해서 저 이렇게 요만큼 살진 나무 해서 여기 쌀을 돌아가면서 박아서 마차를 만들었었지.) 14 [성읍]

홀테: 보리를 훑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로, 표준어의 '그네'에 해당한다. // ᄆᆞᆯ르면 무껑 싣거당, 홀테 잇지 홀테 쌀 돋은 거 보리클 그것이 보리클이라.(마르면 묶어서 실어다, '홀테' 있지 '홀테' 살 돋은 거 '보리클' 그것이 '보리클'이야.) 06 [남원]

홀트다: 밭벼 이삭 등이 날카로워서 일하는 사람의 살갗을 스쳐가며 상처를 낸다는 의미이다. // 산뒤 검질 두불 맬 땐 이디 ᄆᆞᆫ딱 ᄂᆞ슬앙 홀타불곡 야게기도 산뒤 이디

ᄆᆞᆫ 홀타불곡.(밭벼 김 두벌 맬 땐 여기 모두 날카로워서 ‘홀타불곡’ ‘야게기’도 밭벼 여기 모두 ‘홀타불곡’.) 33 [인성]

홈 치다: 홈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 홈베기 있고. 여기 홈 치는 거게.(‘홈베기’ 있고. 여기 ‘홈 치는’ 거.) 06 [남원]

홈마리: 귀틀에 홈을 파고서 널을 끼워 넣은 마루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가운데로 홈마리가 이렇게 잇인디.(가운데로 ‘홈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09 // 홈마리엔 헌 거는 이 귀클허고 저 귀클 사이에만 놔.(‘홈마리’라고 한 거는 이 귀틀하고 저 귀틀 사이에만 놔.) 14 [고산, 성읍]

홈베기: 물체에 오목하고 길게 팬 줄인 홈을 말하는 것이다. // 그것도이 중간에 난 거라. 옛날은 그 낭으로만, 낭으로만 이제 그 이 홈베기 멘들아 가지고.(그것도 중간에 난 거야. 옛날은 그 나무로만, 나무로만 이제 그 ‘홈베기’ 만들어 가지고.) 02 // 우리 집 경우는 그 마리널이 이만씩 한 거. 딱딱 이만씩 한 거 가져근에 이런 가운디 이만은 아니, 이만은 한 걸로 헹 짝허게 해놓은 그 홈베기 속에 그거를 다 영 영 지금 헤보난에 그, 그치룩 헨 마리를 짝 논 거라.(우리 집 경우는 그 마룻널이 이만큼 한 거. 딱딱 이만큼 한 거 가져서 이런 가운데 이만큼 아니, 이만큼 한 걸로 해서 짝하게 해놓은 그 ‘홈베기’ 속에 그것을 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해보니까 그, 그처럼 해서 마루를 짝 놓은 거야.) 05 [남원, 선흘, 표선]

홍구물: 대정읍 구억리에 있던 물 이름이다. // 홍구물이엔 헌 디 요기 물통 잇수다.(‘홍구물’이라고 하는 데 요기 ‘물통’ 있습니다.) 34 // 우리 집이 사름은 홍구물 논 시난 나신디고라.(우리 집에 사람은 ‘홍구물’ 논 있으니까 나에게.) 34 [구억]

홍굿물: 대정읍 구억리에 있던 물 이름이다. 사람들이 물을 길어 식수로 사용하던 곳이다. // 시집은 완 보난에 세상 물도 허벅 졍 요 홍굿물이엔 헌 디 져다가 먹곡 빨레도 홍굿물.(시집은 와서 보니까 세상 물도 ‘허벅’ 져서 요 ‘홍굿물’이라고 한 데 져다가 먹고 빨래도 ‘홍굿물’.) 34 [구억]

홍뎅이: 높은 곳에 있는 삭정이를 걸려 뜯어내는 도구를 말한다. // 기냥도 거꺼지곡 나대로 직엉도 거꺼오곡, 홍뎅이로 ᄃᆞᆼ경도 기치곡.(그냥도 꺾어지고 ‘나대’로 찍어도 꺾어오고, ‘홍뎅이’로 당겨도 ‘기치곡’.) 15 [수망]

홍세: ‘홍세함’을 말하는 것으로 혼례를 치루는 날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지고 가는 납폐함(納幣函)을 말한다. 함속에는 예장과 무명을 넣었다. // 홍세는게 장개가젠 허믄 게 홍세 놓는 거.(‘홍세’는 장가가려고 하면 ‘홍세’ 놓는 거.) 03 // 홍세미녕은 시집 장게 갈 때 ᄒᆞ는 홍세에 놓는 거.(‘홍세미녕’은 시집 장가 갈 때 하는 ‘홍세’에 넣는 거.) 16 // 할망 시집 올 때 홍세 받은 거.(할머니 시집 올 때 ‘홍세’ 받은 거.) 22 // 홍세렌 헌 건 결혼헐 때에 그 미녕을 저 그 뭐냐.(‘홍세’라고 한 건 결혼할 때에 그 무명을 저 그 뭐야.) 24 [남원, 동광, 성읍, 세화, 송당, 수망, 우도, 토평, 하원]

홍세미녕: ‘홍세함’에 넣는 무명을 가리킨다. ‘홍세함’이란 혼례를 치를 때 신랑집에서 마련

한 예장 등을 넣고 신부 집에 가는 예물 함을 말한다. // 홍세미녕, 그 막 얄룬 거 이신디이. 그 옥영목보단도 막 얇은 거 이신디 그런 거는 뭐 씨집갈 때 영 홍세에 그 함에 놓는 그런 용으로 그거는 이제 썻주.('홍세미녕', 그 막 얇은 거 있는데. 그 옥양목보다도 아주 얇은 거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시집갈 때 이렇게 '홍세'에 그 함에 넣는 그런 용으로 그거는 이제 썼지.) 05 // 홍세미녕, 홍세멩지 그건 ᄀᆞ튼 거주게.('홍세미녕', '홍세멩지' 그건 같은 거지.) 12 // 홍세미녕은 아니. 아이고, 함에 놓는 거주기게. 그땐 미녕이나 베나 경허여근에 놩 거져가는 거. 예장에 놩.('홍세미녕'은 아니. 아이고, 함에 넣는 거지. 그땐 무명이나 베나 그렇게 놔서 가져가는 거. 예장에 넣고.) 26 // 홍세미녕 ᄀᆞ튼 거는 아마 고급스러운 미녕 ᄀᆞ튼데. 내가 보기에.('홍세미녕' 같은 거는 아마 고급스러운 무명 같은데. 내가 보기에.) 27 [고성, 구억, 구엄, 대림, 대평, 도련, 동광, 세화, 수망, 신도, 신창, 온평, 옹포, 우도, 인성, 청수, 표선, 하원, 한동]

홍세옷: 혼서함에 넣은 무명으로 만든 옷이다. // 홍세 씨집 장게갈 때게. 홍세옷. 미녕으로 필로.('홍세' 시집 장가갈 때. '홍세옷'. 무명으로 필로.) 29 [외도]

홍세함: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지고 가는 납폐함으로 함 속에는 예장과 무명을 넣는다. '홍세'라고도 한다. // 홍세미녕은 그거 미녕 좋은 걸로 허영 아덜이나 ᄑᆞᆯ젠 허민 홍세미녕 두 필썩 허여근에 그 홍세함에다 담젠, ᄎᆞᆷ 담젠 거세기 허주.('홍세미녕'은 그건 무명 좋은 걸로 해서 아들이나 'ᄑᆞᆯ젠' 하면 '홍세미녕' 두 필씩 해서 그 '홍세함'에다 담으려고, 참 담으려고 거시기하지.) 01 // 앞이 강, 문전에 강 영 놩 홍세함 디려.(앞에 가서, 문전에 가서 이렇게 놔서 '홍세함' 드려.) 02 // 홍세함을 여기서 꺼내영 익어봐서 만약 글쩨가 틀린 게 잇다고 허면은 상객보고 상당히 호령을 허주게.('홍세함'을 여기서 꺼내어서 읽어봐서 만약 글자가 틀린 게 있다고 하면은 상객보고 상당히 호령을 하지.) 14 // 택일 가졍 가는 날은 가졍 가는 사름도 잇곡, 안 가졍 가는 사름도 잇곡, 경 ᄒᆞ주만은 저 잔칫날은 그 홍세함 놓곡 ᄒᆞ영, 돗다리 놓곡 ᄒᆞ영 구덕에 헤근에, ᄐᆞ로 ᄊᆞᆯ ᄒᆞᆫ 말 놓곡, 돗다리 ᄒᆞᆫ 다리 놓곡 ᄒᆞ영 저 영 행 홍세함에 놓곡, 그디 써졍, 그 졍 가는 사름이 ᄯᅳ로 잇어.(택일 가져서 가는 날은 가져서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져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저 잔칫날은 그 '홍세함' 놓고 해서, 돼지다리 넣고 해서 바구니에 해서, 따로 쌀 한 말 넣고, 돼지다리 한 다리 넣고 해서 저 이렇게 해서 '홍세함'에 넣고, 거기 써져서, 그 져서 가는 사람이 따로 있어.) 17 [고성, 구억, 대평, 도련, 선흘, 성읍]

홍악망아리: 해녀가 채취한 해물 따위를 담아 두는 그물로 된 그릇을 말한다. // 심지어는 또 올라근에 듬북이 엇이민 고지기라고, 또 ᄌᆞᆷ수들이 물속에 가근에 일부러 케어, 케어근에 홍악망아리에 담아 왕 집이 와근에 기냥 ᄀᆞᆺ디 퍼근에 그걸 ᄆᆞᆯ류왕 눌엇다근에.(심지어는 또 올라서 '듬북'이 없으면 '고지기'라고, 또 잠수들이 물속에 가서 일부러 캐어, 캐어서 '홍악망아리'에 담아 와서 집에 와서 그냥 가에 퍼서 그걸 말려서 가리었다가.) 22 [우도]

홍애기: 밭매는 노래의 한 가지로 농촌에서 혼자 또는 여러 사람이 노동하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홍아기', '홍애기소리'라고도 한다. // 촐 허멍 기억나는 건 엇다만, 촐 빌 때이 노래 잘허는 사름은 소리를 허거든 홍애기 소리로 홍애기, 홍애기 소리 허면서 허면은 기분이 아주 좋주게.(꼴 하면서 기억나는 건 없다만, 꼴 벨 때 노래 잘하는 사람은 소리를 하거든. '홍애기 소리'로 '홍애기', '홍애기 소리' 하면서 하면 기분이 아주 좋지.) 12 // 경ᄒᆞ고 이 웃드리 사름덜은양 저 ᄒᆞ믄 촐 비젠 ᄒᆞ믄 동산더레 ᄒᆞ영 촐 비는 소리덜이양, 홍애기덜 질르멍. 해변 사름덜은 경 촐 비는 소리 안 ᄒᆞ곡, 웃드리 사름덜은 촐 비는 홍애기.(그리고 이 '웃드리' 사람들은요, 저 하면 꼴 베려고 하면 동산으로 해서 꼴 베는 소리들요, '홍애기'들 지르면서. 해변 사람들은 그렇게 꼴 베는 소리 안 하고, '웃드리' 사람들은 꼴 베는 '홍애기'.) 28 [구엄, 하원, 한동]

홍애기 소리: 김매기 작업을 하면서 부르던 노동요를 말한다. 꼴 베면서 부르는 소리인 '촐 비는 홍애기'를 '홍애기 소리'라고 하였다. // 삼춘은 조농사헐 때 그 저 홍애기 소리나 이런 것도 그런 거 나중에 불러줍서예, 기억헤놧당예.(삼촌은 조농사할 때 그 저 '홍애기 소리'나 이런 것도 그런 거 나중에 불러주십시요, 기억해놨다가요.) 10 // 촐 허멍 기억나는 건 엇다만, 촐 빌 때이 노래 잘허는 사름은 소리를 허거든, 홍애기 소리로 홍애기, 홍애기 소리 허면서 허면은 기분이 아주 좋주게.(꼴 하면서 기억나는 건 없다만, 꼴 벨 때 노래 잘하는 사람은 소리를 하거든, '홍애기 소리'로 '홍애기', '홍애기 소리' 하면서 하면 기분이 아주 좋지.) 12 [월령, 한동]

홍짓대: 다듬이질에 사용되는 홍두깨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떡을 반죽할 때 밀대로도 사용한다. // 은절미엔 헌 건 영 허영 홍짓대로 영영 허영 밀어근엥에 영 허영 썰엉 늬개반득 반득허게시리 헌 건 은절미.('은절미'라고 한 건 이렇게 해서 '홍짓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밀어서 이렇게 해서 썰어서 네모반듯 반듯하게끔 한 건 '은절미'.) 29 [외도]

화강물: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화순모래사장에 솟는 용천수를 말한다. // 화강물에 ᄑᆞᆯ레 가봣수다. 탈탈이로.('화강물'에 팔러 가봤습니다. 경운기로.) 32 [덕수]

화곽: 성냥을 말하는데 '곽'이라고도 한다. // 당장 안 오멘 빨리 집 다, 나보고 성냥 가저와. 여기 이 저 이제 여기 사투리론 화곽 화곽 허는데 성냥.(당장 안 오면 빨리 집 다, 나보고 성냥 가져와. 여기 이 저 이제 여기 사투리론 '화곽' '화곽' 하는데, 성냥.) 15 [수망]

화단: 상여에 지붕 모양으로 꾸며 둘러치는 제구를 말한다. // 옛날 중간에 영장 나면은 그 화단이, ᄆᆞ을에 제헤영 빌리는 식으로이 것도 경헤실 거라.(옛날 중간에 상 나면 그 '화단'이, 마을에 제해서 빌리는 식으로 그것도 그렇게 했을 거야.) 11 // 관에 씨우는 것만 허고 또 집이서 ᄒᆞ꼼 허는 사름은 꼿을 다 만들앙 그 화단에 ᄆᆞᆫ 끼어.(관에 씌우는 것만 하고 또 집에서 조금 하는 사람은 꽃을 다 만들어서 그

‘화단’에 모두 끼워.) 11 // 화단제는 뭐인고 허면은 사람이 죽으면 화단을 씌왕 가는 그런, 화단제, 그런 제도 잇고.(‘화단제’는 뭐인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 ‘화단’을 씌워서 가는 그런, ‘화단제’, 그런 계도 있고.) 12 // ᄒᆞ다가 요 근레는 차로 운반ᄒᆞ기 시작ᄒᆞᆫ 후로는 그 화단이 다 엇어저부러서.(하다가 요 근래는 차로 운반하기 시작한 후로는 그 ‘화단’이 다 없어져버려서.) 22 [우도, 외도, 한동, 함덕]

화단접: 상여를 꾸미기 위해서 둘러치는 ‘화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꾸린 계다. // 화단접도 잇주. 화단접도 잇어낫주. 건 동네마다.(‘화단접’도 있지. ‘화단접’도 있었었지. 건 동네마다.) 14 [성읍]

화단제: 상여에 지붕 모양으로 꾸며 둘러치는 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거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전래의 협동 조직을 말한다. 표준어로는 화단계 정도로 바꿀 수 있다. // 화단제는 뭐인고 허면은 사람이 죽으면 화단을 씌왕 가는 그런, 화단제, 그런 제도 잇고.(‘화단제’는 뭐인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 ‘화단’을 씌워서 가는 그런, ‘화단제’, 그런 계도 있고.) 12 // 옛날 뭐 ᄒᆞ믄 저 화단제가 싯고. 또 무신 잔치집이 허는 가메제, 가메, 거 저 잔치들믄 새각시 모셩 가는, 그것도 제 안 허믄 안 빌려주곡.(옛날 뭐 하면 저 ‘화단제’가 있고. 또 무슨 잔칫집에서 하는 ‘가메제’, 가마, 그것 저 잔치들면 새색시 모셔서 가는, 그것도 계 안 하면 안 빌려주고.) 28 // 화단제 ᄎᆞᆷ 거 사라진 지 뭐 ᄒᆞᆫ 이십년 삼십년 이상 뒛주.(‘화단제’ 참 거 사라진 지 뭐 한 이십년 삼십년 이상 됐지.) 32 [구엄, 덕수, 외도, 표선, 한동]

화뎅이ᄆᆞᆯ: 등뼈가 우묵하게 활 모양으로 휘어진 말이다. ‘화등이’, ‘활등이’라고도 한다. // 곱새말도 엇고 등 굽엉 화뎅이ᄆᆞᆯ 이서낫어.(‘곱새말’도 없고 등 굽어서 ‘화뎅이ᄆᆞᆯ’ 있었어.) 13 // 화뎅이 진 건 화뎅이ᄆᆞᆯ.(‘화뎅이’ 진 건 ‘화뎅이ᄆᆞᆯ’.) 13 [삼달]

화등이: 등뼈가 우묵하게 활같이 휘어진 말이다. ‘화뎅이ᄆᆞᆯ’, ‘활등이’라고도 한다. // 화등인 등 오그라진 거. 등이 파진 거.(‘화등이’는 등 오그라진 거. 등이 파진 거.) 01 [도련]

화르륵: 당황하여 이리저리 바삐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 게문 이젠 화르륵 뎅기멍 이젠 방문이라고, 쉐 ᄎᆞᆺ는 방문 놔.(그러면 이젠 ‘화르륵’ 다니면서 이젠 방문이라고, 소 찾는 방문 놔.) 29 [외도]

화륵: 이리저리 재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 기자 그 놈덜이 오랑 기자 그 횃불 봉홧불 허는 횃불 아정 강 화륵 ᄃᆞᆯ아강 이 집 가제에 강 부쳐. 저 집 가제에 강 부척 허멍 불을 다 부치는 거라.(그저 그 놈들이 와서 그저 그 횃불 봉홧불 하는 횃불 가지고 가서 ‘화륵’ 돌아가서 이 집 처마에 가서 붙이고. 저 집 처마에 가서 붙이고 하면서 불을 다 붙이는 거야.) 06 // 나가 간 소살ᄒᆞ연 뒤으로 꼬랑지 어염으로 ᄃᆞᆯ려갓주게. 꼬랑지 어염으로 굽언 영 ᄒᆞ는 잘 모른 셍이라. 한 잡아 뒤꼭지 앗아 쒜우난에, 야 화닥닥 ᄒᆞ게 뛰난게 나 차앚안에, 화륵 ᄒᆞ민

동으로 착, 화륵 ᄒᆞ민 서으로 착 ᄒᆞ멍 경ᄒᆞ단, 게맛듸 한창에 끗어 오라십주.(내가 가서 작살 해서 뒤로 꼬리 옆으로 달려갔지. 꼬리 옆으로 굽어서 이렇게 하는 잘 모른 모양이야. 한 잡아 꼭뒤 갖다 쏘니깐, 야 화닥닥 하게 뛰니까, 나 '차앚 안에', '화륵' 하면 동으로 착, 화륵 하면 서로 착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게맛'에 한창에 끌어 왔습지요.) 17 // 화륵 허주. 경허영 허난 마장이엔 허여, 마장, 옛날엔.('화륵' 하지.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마장이라고 해, 마장, 옛날엔.) 25 [남원, 대평, 태흥]

확확: 일이 빠르고 힘차게 진행되는 모양인 '확'을 강조하여 쓴 말이다. 여기서는 얼른, 혹은 금방을 뜻한다. // 자리 이젠 소곰 엄만, 자리 엄만 ᄒᆞ민 확확 알아지난.(자리돔 이젠 소금 얼마, 자리돔 얼마 하면 '확확' 알아지니까.) 07 [보목]

활대왓: 제주시 도련동 지명 가운데 하나이다. // 무기고 이제 이런 밧이 잇는가 하면은 그 옆에 활대왓이라고 이제 그 활을 만들기 위해서 키우던 대밧이 잇는데, 현재는 없지마는 그 대가. 다시 그 옆에 포수터라고 헤가지고.(무기고 이제 이런 밭이 있는가 하면은 그 옆에 '활대왓'이라고 이제 그 활을 만들기 위해서 키우던 대밭이 있는데, 현재는 없지만 그 대가. 다시 그 옆에 '포수터'라고 해가지고.) 01 [도련]

활등이: 등뼈가 우묵하게 활같이 휘어진 말이다. '화등이', '화뎅이ᄆᆞᆯ'이라고도 한다. // 등뗑이가 훅허게 오그라졋어. 거 활등이.(등때기가 훅하게 오그라졌어. 거 '활등이'.) 29 [도련, 외도]

활옷: 전통 혼례 때에 새색시가 입는 예복이다. // 또 다른 여자들이 입을 옷들은 또, 결혼헐 때는 뭐 활옷 입어근에 해도.(또 다른 여자들이 입을 옷들은 또, 결혼 할 때는 뭐 활옷 입어서 해도.) 04 [고성]

황: 독, 항아리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아무 뗴 모날이여 허민 게민 그자 모날 뒈민. 그자 아시날 황.(아무 때 말날이다 하면 그러면 그저 말날 되면. 그저 전날 '황'.) 04 // 여기 그자 황이엔 ᄒᆞ메. 황.(여기 그저 '황'이라고 해. '황'.) 16 // 장만ᄒᆞᆫ 거 황에 놔뒁도 ᄒᆞ고 헙니다.('장만ᄒᆞᆫ' 거 '황'에 놔둬도 하고 합니다.) 16 [고성, 하원]

황: 소나 말을 몰 때 멈춰 멈춰 서라는 뜻이다. // 모여졋당도 소리 내믄 아 이제 어디레 갈 것이다 헤 가지고 황 허민 어디로 갈 것이다 허는 걸.(모여졌다가도 소리 내면 아 이제 어디로 갈 것이다 해 가지고 '황' 하면 어디로 갈 것이다 하는 걸.) 23 // 황 헤 가지고 돌아갈 때는 황 헤 가지고 그 밧 가는 사름마다 다 틀리니까. 돌아오라 허는 식으로.('황' 해 가지고 돌아갈 때는 '황' 해 가지고 그 밭 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돌아오라 하는 식으로.) 23 [온평]

황루알: 성산읍 온평리 바닷가 지명 중 하나이다. 〈삼성신화〉에 등장하는 세 여인이 목함을 타고 들어왔다는 곳이다. // 황루알이여 어디여 전부다. 바당마다 다 늣개통이 잇어.('황루알'이다 어디다 전부다. 바다마다 다 '늣개통'이 있어.) 23 // 나머지 또 요쪽 어디 그 자손들이 요쪽이 황루알에 곳에 완 정착을 헷고.(나머지 또 요

쪽 어디 그 자손들이 요쪽에 '황루알'에 '곳'에 와서 정착을 했고.) 23 [온평]

황모: 누렇게 익은 띠를 말한다. // 황모엔도 허고 저 새엔도 허곡 그자. 새엔 많이 헷주.('황모'라고도 하고 저 띠라고도 하고 그저. 띠라고 많이 했지.) 14 // 팔월에 비면은 새가 파랑, 새파랑허주. 그거 당캐에 실렁 가는 것도 조합에 가입 아년 사름은 운반을 못허여. 또 겨울틀미는 황모로 뭘 짜냐 허민 뜸.(팔월에 베면은 띠가 파랑, 새파랗지. 그거 '당캐'에 실어서 가는 것도 조합에 가입 않은 사람은 운반을 못해. 또 겨울 들면 '황모'로 뭘 짜냐 하면 뜸.) 14 [성읍]

황밧갈쉐: 밭을 가는 힘센 황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 황밧갈쉐만 질롸근에 첨 듬직헌 거 질롸사 ᄂᆞᆷ의 밧이라도 강 갈아근에 품 받아 오고.('황밧갈쉐'만 길러서 참 듬직한 걸 길러야 남의 밭이라도 가서 갈아서 삯 받아 오고.) 31 [토평]

황새: 누렇게 익은 띠를 말한다. 달리 '황모'라고 한다. // 황새는 가을 뒈민 비주.('황새'는 가을 되면 베지.) 14 [성읍]

황세왓: 제주시 화북2동의 자연 마을이다. '황사평', '황수와동' '황수왓' 마을이라고도 한다. // 나가 엿날 ᄎᆞᆷ 교래리를. ᄎᆞᆷ 엿날 그 제주시 황세왓 글루 헤연. 그 ᄃᆞ리를 ᄎᆞᆺ안 올라간.(내가 옛날 참 '교래리'를. 참 옛날 제주시 '황세왓' 거기로 해서. 그 'ᄃᆞ리'를 찾아서 올라갔어.) 04 // 거 어디 아, 황세왓 우에 그디.(거 어디 아, '황세왓' 위에 거기.) 19 // 경 헨 그딜 ᄎᆞᆺ아가는디 가단 황세왓디 이제 저 일 허는 디 잇젠 ᄒᆞ난 황세왓딘 가니까 황세왓 저 잔디 이기는 일 웨냐ᄒᆞ면 그딘 미깡 싱그젠.(그렇게 해서 거기를 찾아갔는데 가다가 '황세왓'에 이제 저 일 하는 데 있다고 하니까 '황세왓'에 가니까 '황세왓' 저 잔디 이기는 일 왜냐하면 거기는 귤 심으려고.) 22 // 저 동에 황세왓도 잇고이.(저 동에 '황세왓'도 있고.) 30 [고성, 노형, 우도, 청수]

황칠낭도궤야: 남원읍 수망리에 있는 자연 동굴의 하나이다. '황칠남도' 즉 '황칠나뭇길' 밑에 있는 굴 이름을 말한다. // 여기 우선 젤 큰 궤는 그 영아리 물영아리 서녁 편 내창에 그 황칠낭도궤야, 황칠낭도 그 궤야가 제일 크고.(여기 우선 젤 큰 굴은 그 '영아리' '물영아리' 서녘 편 내에 그 '황칠낭도궤야', 황칠나무도 그 '궤야'가 제일 크고.) 15 [수망]

횃바르: 횃불을 들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 횃바르 가자 헹, 가을에 휏불을 영 들르면은 그 문어가이 문어가 그 불을 봐 가지고이, 숨엇다가 불을 봐 가지고 나온다게.('횃바르'가자 해서, 가을에 횃불을 이렇게 들면 그 문어가 문어가 그 불을 봐 가지고, 숨었다가 불을 봐 가지고 나온다.) 12 [한동]

후다: 일본어 'ふた'에서 온 말로 뚜껑 또는 용기나 상자 등의 입구 구멍을 덮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 판떼기에 앚질 아녀고 저 그 후다덜, 감빵덜이 잇어수다 후다덜.(판때기에 앉지를 않고 저 그 '후다'들, '감빵'들이 있었습니다 '후다'들.) 22 [우도]

후루메: 두루마기의 중세국어형인 '쿠루메', '쿠리메'에서 온 말이다. 남자들이 겨울에 입는

겉옷으로 두루마기보다 짧으며 섶이 없고 소매가 짧다. '후리메'라고도 한다. 안감이 없는 두루마기는 '두루막', '두루메기' 따위로 부른다. // 멩지로 ᄒᆞᆫ 건 고급 옷이주게 ᄒᆞ꼼, 후르메도 ᄒᆞ곡.(명주로 한 건 고급 옷이지 조금, '후루메'도 하고.) 16 // 결혼 딱 허난에 씨어머니네가 저 신랑 후루메 멘들렌 헨에 하얀 것 그 광목 후루메.(결혼 딱 하니까 시어머니네가 저 신랑 '후루메' 만들라고 해서 하얀 것 그 광목 '후루메'.) 23 // 그 방 ᄒᆞ나 빌엉 거기서 사는데, 그 어른은 가을만 들어가민 우이 입는 후루메는 다른 거는 싸니까. 헌디 후루메는 비싸주게.(그 방 하나 빌려서 거기서 사는데, 그 어른은 가을만 들어가면 위에 입는 '후루메'는 다른 거는 싸니까. 그런데 '후루메'는 비싸지.) 30 [남원, 노형, 선흘, 온평, 태흥, 하원]

후리메: 두루마기의 중세국어형인 '쿠루메', '쿠리메'에서 온 말이다. 남자들이 겨울에 입는 겉옷으로 두루마기보다 짧으며 섶이 없고 소매가 짧다. '후리메'라고도 한다. // 후리메도 헹 입곡 그걸로 다 헹 입어낫주, 옛날엔.('후리메'도 해서 입고 그걸로 다 해서 입었었지, 옛날에.) 13 [삼달]

훈도시: 일본어 'ふんどし'로 일본의 성인 남성이 입는 전통 속옷이다. // 우리도 영 헹 보민 훈도시라고 거 일본 사름덜 훈도시 아니, 그런 거라.(우리도 이렇게 해서 보면 '훈도시'라고 그거 일본 사람들 '훈도시' 아니, 그런 거야.) 13 [삼달]

훈두질르다: '훈들다'에서 온 표현으로 '좀 무거운 물건을 손에 잡고 이리저리 흔들다.'의 의미이다. // 뒌장은 물 훈두질렁 놔두고 그 물장은 펭에다 ᄆᆞᆫ딱 질엉 항 소곱에나 어디 놧다근에 먹곡 경헤.(된장은 물 '훈두질렁' 놔두고 그 간장은 병에다 모두 길어 항아리 속에나 어디 놓았다가 먹고 그랬어.) 15 [수망]

홋배: 아기를 낳아 몸을 푼 뒤의 배를 말한다. // 애기 낭 허민 그땐 아방 신 땐 똑 애기 나민 그 홋배 아프지 말앙 탄약을 똑 세 첩헤영 거 착글르게.(아기 낳아서 하면 그땐 아버지 있을 땐 꼭 아기 낳으면 그 '홋배' 아프지 말아서 탕약을 꼭 세 첩 해서 그거 '착글르게'.) 13 [삼달]

훠어훠어: 메뚜기를 날리며 내는 소리이다. // ᄆᆞᆯ축 ᄃᆞᆯ아날, ᄃᆞᆯ아나줍센, 경 허민 그자 심방 저 수심방ᄒᆞ곡 또 아레 심방ᄒᆞ고 ᄀᆞ찌 그쩌 농장에 가근에, 골목으로 뎅기멍 ᄆᆞᆯ뚜기 ᄃᆞᆯ아나가렌 훠어훠어 허멍 막 달리멍 이렇게 헤낫어.(메뚜기 달아날, 달아나주시라고, 그렇게 하면 그저 무당 저 수무당하고 또 아래 무당하고 같이 그저 농장에 가서, 골목으로 다니며 메뚜기 달아나가라고 '훠어훠어' 하면서 마구 달리면서 이렇게 했었어.) 22 [우도]

휀죽: 성산읍 온평리 혼인지가 있는 지경 이름이다. // 지경 이름을 여기 사투리로 휀죽, 휀죽.(지경 이름을 여기 사투리로 '휀죽', '휀죽'.) 23 [온평]

휀죽물통: 성산읍 온평리 혼인지에 있는 물의 이름이다. // 이딧말로 휀죽물통.(여기 말로 '휀죽물통'.) 23 [온평]

휏ᄀᆞ메기: 홰를 들고 가서 잡는 개울타리고등을 말한다. // 우리 밤에 휏ᄀᆞ메기 잡으레 잘

뎅겻주.(우리 밤에 '횃ᄀᆞ메기' 잡으러 잘 다녔지.) 23 // 횃ᄀᆞ메기만 잡으레 하영 뎅겻주.('횃ᄀᆞ메기'만 잡으러 많이 다녔지.) 23 [온평]

횃바르: 밤에 횃불을 들고 바닷가에서 낙지, 보말 등의 해산물을 잡는 일을 말한다. '횃바리'라고도 한다. // 난 간, 횃바르 잡으켄 허연 막 훼도 이만큼 무꺼놘에 ᄀᆞ만 ᄌᆞᆷ자부런에.(난 간, '횃바르' 잡겠다고 해서 막 홰도 이만큼 묶어놔서 가만 잠자 버려서.) 01 // 횃바르 해서. 하간 저 문어도 올라오고. 영 강 막 비추면 소라덜토 잇곡이. 생명체덜은 불을 따랑 오는 모냥이라.('횃바르' 해서. '하간' 저 문어도 올라오고. 이렇게 가서 마구 비추면 소라들도 있고. 생명체들은 불을 따라서 오는 모양이야.) 01 // 거 횃바르라 헤 가지고서 건 뭐인가 문어.(거 '횃바르'라 해 가지고서 건 뭐인가 문어.) 12 // 횃바르 가자 헹.('횃바르' 가자 해서.) 12 [도련, 한동]

횃바리: 밤에 횃불을 켜고 바닷가에서 고둥 따위를 잡는 일을 말한다. '횃바르'라고도 한다. // 횃바리. 그거 헤근에 헤영 그 ᄀᆞ메기 밤의 강 ᄀᆞ메기 하영 잡아낫어서.('횃바리'. 그거 해서 해서 그 개울타리고둥 밤에 가서 개울타리고둥 많이 잡았었어.) 05 // 저 오분제기 뜨레 가자 허멍 횃바리 드는 사름은 ᄒᆞᆫ 사름도 엇어.(저 '오분제기' 떼러 가자 하면서 '횃바리'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22 // 그 기름 엇일 땐, 경 헹 불을 물에 부치는 거라. 경 물에 부찌는 걸 횃바리렌 헙니다.(그 기름 없을 땐, 그렇게 해서 불을 물에 비추는 거야. 그렇게 물에 비추는 걸 '횃바리'라고 합니다.) 22 [우도, 표선]

휘양: 추울 때 머리에 쓰던 모자의 하나이다. // 옛날에 저 우리 알아지는 건 뭣이냐믄, 휘양, 휘양이엔 헨에, 험벅 헹은에 이추룩 영 이추룩 영 진 험벅에다가 요렇게 놔 가지고 요영 줘근에, 영 헹 쎵, 심방 모자 씌곡 요영 쎵 친 매는 거.(옛날에 저 우리 알아지는 건 뭐냐면, 휘양, 휘양이라고 해서, 헝겊 해서 이처럼 이렇게 이처럼 이렇게 긴 헝겊에다가 요렇게 놔가지고 요렇게 기워서, 이렇게 해서 써서, 무당 모자 쓰고 요렇게 써서 끈 매는 거.) 19 [청수]

휘양도레기: 돼지를 잡았을 때 목둘레의 부위를 일컫는 말이다. 흔히 '목살'이라고 한다. // 벳살이 숭이주. 목도리가 휘양도레기.(뱃살이 '숭'이지. 목살이 '휘양도레기'.) 23 [온평]

휘양도레기: 추울 때 머리에 쓰던 모자의 하나이다. // 모ᄌᆞ 휘양도레기엔 헌 거 험벅으로 멘글앙 영 안팟듸 헤근에 우인 트고 영헹 휘양 ᄃᆞᆯ앙 부자칩 하르방 이디 터럭 ᄃᆞᆯ고 개터럭인지 쉐터럭인지 헹 영 ᄃᆞᆯ앙 쓰곡 그자 사름덜은 휘양도레기엔 헹 이딘 써지고 이딘 터지곡 헌 거 써낫어.(모자 '휘양도레기'라고 한 거 헝겊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안팎에 해서 위엔 트고 이렇게 해서 챙 달아서 부잣집 할아버지 여기 털 달고 개털인지 쇠털인지 해서 이렇게 달아서 쓰고 그저 사람들은 '휘양도레기'라고 해서 여기는 써지고 여긴 터지고 한 거 썼었어.) 13 [삼달]

휘장치다: 휘저으며 쫓다는 의미이다. // 그냥 개 ᄃᆞᆯ앙 그냥 막 휘장치면 그 주위를 그냥

막 뛰어다니면 이제 겁낭근에 꿩이 놀민 어디 강 앚는 거 보곡, 허민 또 어디 간 앚앗젠 이제 잘 말헤주면은 그디 강 또 개 대영근에 그 냄새 헤영근엥에 강 물곡.(그냥 개 데려서 그냥 막 '휘장치면' 그 주위를 그냥 막 뛰어다니면 이제 겁나서 꿩이 날면 어디 가서 앉는 거 보고, 하면 또 어디 간 앉았다고 이제 잘 말해주면 거기 가서 또 개 대어서 그 냄새 해서 가서 물고.) 01 [도련]

휘칙휘칙허다: 가늘고 긴 나뭇가지나 풀 따위가 탄력 있게 휘어지면서 흔들리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잘 나는디 이디 무상헌 딘 잘 안 나. 하나씩 나도이 휘칙휘칙허고이. 이 불린 딘 쩨깍헹 잘 뒈. 불린 디.(잘 나는데 여기 무성한 덴 잘 안 나. 하나씩 나도 '휘칙휘칙허고이'. 이 '불린' 덴 '쩨깍헹' 잘 돼. '불린' 데.) 30 [노형]

흐랑흐랑허다: 끈기 있는 물건이 아주 부드럽다는 의미이다. // 흐랑흐랑허곡 이건 토랑토랑허곡 씹어가는 냥 베지근헤.('흐랑흐랑허곡' 이건 '토랑토랑허곡' 씹어가는 대로 '베지근헤'.) 11 // 제물떡도 헤 가고. 따시 이녁 부모 제사라도 그거 만뒤 좁앙 제물떡 헤가고. 빵허는 사름은 빵허곡 그거 정성허는 사름은 그거 허곡. 흐랑흐랑허게시리. 밀도 헹 허고, 밀ᄀᆞ루도.('제물떡'도 해 가고. 다시 자기 부모 제사라도 그거 '만뒤' 접어서 '제물떡' 해가고. 빵하는 사람은 빵하고 그거 정성하는 사람은 그거 하고. '흐랑흐랑허게시리' 밀도 해서 하고, 밀가루도.) 13 // 그것이 간이 딱 맞으면은 너미 물이 많으민 흐랑흐랑허고 너미 물이 작으민 딱딱허고 맞게 허젠 허민 것도 힘들어.(그것이 간이 딱 맞으면 너무 물이 많으면 '흐랑흐랑허고' 너무 물이 적으면 딱딱하고 맞게 하려고 하면 것도 힘들어.) 14 // 나록메 놓젠 ᄒᆞ민 논을 이제 물 대여근에 갈 거 아니우꽈? 갈민 쉐로, 쉐로 간다 말이여. 게민 흐랑흐랑헐 거 아니우꽈게, 논을.(볏모 놓으려고 하면 논을 이제 물 대어서 갈 거 아닙니까? 갈면 소로, 소로 간다 말이야. 그러면 '흐랑흐랑헐' 거 아닙니까, 논을.) 17 [대평, 삼달, 성읍, 함덕]

흐랑ᄒᆞ다: 종이나 천, 음식 따위가 물기가 많아 부드러운 상태를 나타낸다. // 톨도 물쎄기 숢앙 헤사. 밥이 흐랑ᄒᆞ게 좋주. 경 아니민.(톳도 물씬히 삶아서 해야. 밥이 '흐랑ᄒᆞ게' 좋지. 그렇지 않으면.) 04 // 아래 침떡 흐랑ᄒᆞ게시리 이만이 끊엉은에 지일 아래 놓는 거 침떡이라고.(아래 시루떡 '흐랑ᄒᆞ게시리' 이만큼 잘라서 제일 아래 놓는 거 시루떡이라고.) 10 // ᄋᆞ덥 치 허민 헤영헌 창호지 허영은에이 이디 쌍 막 그냥 영 다녀가민 그 종이가 막 흐랑케 허울허울허민 막 저거 새 새각씨나 썸직ᄒᆞ다.(여덟 치 하면 하얀 창호지 해서 여기 싸서 마구 그냥 이렇게 다녀가면 그 종이가 아주 '흐랑케' 너울너울하면 마구 저거 새 새색시나 씀 직하다.) 30 [고성, 노형, 월령]

흐린조: 조의 한 종류인 '차조'를 말한다. // 차조는 모인 거고 찰조는 흐린조고. 차조가 모인조라.(차조는 '모인' 거고 찰조는 '흐린조'고. 차조가 '모인조'야.) 06 // 주로 흐린조는 술 ᄀᆞ튼 데도 사용허고 엿 ᄀᆞ튼 데도 사용허고 뭐 여러 가지로 허고 모인조는 죽 쒀서 먹는 데는 모인조 ᄀᆞ튼 것도 넣엉 쒀서 먹고 말이여 뭐 이런

정도로.(주로 '흐린조'는 술 같은 데도 사용하고 엿 같은 데도 사용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고. 메조는 죽 쒀서 먹는 데는 메조 같은 것도 넣어서 쒀서 먹고 말이야 뭐 이런 정도로.) 27 [남원, 옹포]

흐린조팟: '흐린조', 즉 차조를 가는 밭이다. 토질이 좋은 밭이어야 차조가 잘 된다고 한다. // 게난 그런 밧이 그런 밧 가진 사름이 멧 사름 안 뒈주, 흐린조팟 가진 사름이.(그러니까 그런 밭이 그런 밭 가진 사람이 몇 사람 안 되지, '흐린조팟' 가진 사람이.) 23 [온평]

흑굿: 초가집을 지을 때 개벽질할 흙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에 쟁기를 메워 마당을 갈아엎고 보릿짚과 물을 섞어서 밟아 이기기 위해 마련된 현장을 말한다. // 그 흑굿에 들어가는 사름은 젊은 사름덜 골려근에 강 이렇게 홈 지우민 이디 물 비우민 자꾸 흑 이렇게 서끄곡 서끄곡 허주게.(그 '흑굿'에 들어가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 가려서 가서 이렇게 홈 '지우민' 여기 물 부으면 자꾸 흙 이렇게 섞고 섞고 하지.) 14 // 것도 쉐시렁질도 홀 줄도 알곡, 좀 힘도 쓰곡 흔 사람은 흑굿이엥 헤근에게 흑질ᄒᆞ젠 ᄒᆞ민 흑굿 헤줄 사름을 ᄯᅮ루 빌어야 됩니다.(그것도 쇠스랑질도 할 줄 알고, 좀 힘도 쓰고 한 사람은 '흑굿'이라고 해서, 그게 흙질하려고 하면 '흑굿'해줄 사람을 따로 빌려야 됩니다.) 15 // 게민 흑질을 흑질을 헐 때문 이제 그 흑굿이엔 헤근에 그 마당에 흑을 흑을 막 쉐 놓고 젱기로 갈아 갈아 마당을.(그러면 흙질을 흙질을 할 때면 이제 그 '흑굿'이라고 해서 그 마당에 흙을 흙을 막 소 놓고 쟁기로 갈아 갈아 마당을.) 16 [성읍, 수망, 하원]

흑깅이: 게의 일종이다. 색깔이 검어서 붙은 이름이다. // 깅이도 ᄋᆞ라 종류지. 참게가 잇고 또 이제 얼룩얼룩헌 그. 건 흑깅이엔 헌 거.(게도 여러 종류지. 참게가 있고 또 이제 얼룩얼룩한 그. 건 '흑깅이'라고 한 거.) 29 [외도]

흑밥: 집을 짓기 위해 '흙일'을 할 때 친척 등이 일꾼들에게 대접하기 위하여 지어가는 밥이다. // 흑밥도 허고 돈으로 현찰로 부주허는 사름도 잇어.('흑밥'도 하고 돈으로 현찰로 부조하는 사람도 있어.) 14 [성읍]

흑밧: 흙이 있는 밭, 즉 밭의 의미로 쓰였다. // 밧듼 흑밧듸 안 뒈주게? 버덕에 나왕.(밭에는 '흑밧'에 안 되지? '버덕'에 나와서.) 23 // 비 왐 직헌 땐 어디 테역밧듸나 간 땐 박박 언주기 좋주마는 감저 그르에 흑밧듸 널어논 건 ᄒᆞ나로 강 줏어야 뒈여, ᄒᆞ나로.(비 올 것 같을 땐 어디 잔디밭에나 간 땐 박박 그러모으기 좋지마는 고구마 그루에 '흑밧'에 널어놓은 건 하나씩 가서 주워야 돼, 하나씩.) 25 [온평, 태흥]

흑수물: 한경면 청수리 지명으로 곶자왈 지역에 물이 고여 만들어진 옛 지명을 말한다. // 그게 물통이 어떻게 헤서 흑수물이라고 지엇느냐 하면은.(그게 '물통'이 어떻게 해서 '흑수물'이라고 지었느냐 하면.) 19 [청수]

흑피력: 집을 지을 때 흙질할 때에 일가에서 일꾼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부조로 해가는 떡 따위의 물품을 말한다. // 일가, 일가덜 많은 디주. 일가 엇인 사름은 그자 정심

이나 멕이민 그냥 넘어가곡. 흑피력이라고, 흑, 무시거 흑질허는 날옌 헤근에 막 세주게. 그날은.(일가, 일가들 많은 데지. 일가 없는 사람은 그저 점심이나 먹이면 그냥 넘어가고. '흑피력'이라고. 흙, 무엇 흙질하는 날이라고 해서 아주 세지. 그날은.) 14 [성읍]

흔들머리: 안덕면 감산리 지경 이름이다. // 그 논으로 ᄒᆞ질 아니 ᄒᆞ고, 그 물로도 대엿주만은 다른 딜로 물을 감산이 내로, 저 감산이 흔들머리옌 ᄒᆞᆫ 디 동산에 ᄂᆞ려오면 은 길이 잇어.(그 논으로 많질 아니 하고, 그 물로도 대었지만은 다른 데로 물을 '감산이' 내로, 저 '감산이' '흔들머리'라고 하는데 동산에 내려오면 길이 있어.) 17 [대평]

흔전ᄒᆞ다: '생활이 넉넉하여 아쉬움이 없다'는 표준어 '흔전하다'와 형태가 비슷하나 제주에서는 '흔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그땐 보리ᄊᆞᆯ 흔전ᄒᆞ고 곤ᄊᆞᆯ이 어려와.(그땐 보리쌀 '흔전ᄒᆞ고' 흰쌀이 '어려와'.) 15 [수망]

흘싹허다: 보통 동여맨 노나 끈 따위가 느슨한 모양이나 헐거워진 모양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물기가 어느 정도 있어 부드러운 상태'를 말한다. // 이 모믈 수제비는 기냥 꽝꽝허게시리 영 ᄆᆞᆯ앙 ᄐᆞᆫ아 놓지 못허여. 그자 흘싹허게 ᄆᆞᆯ앙 숫고락으로 톡톡톡 거려놓주.(이 메밀 수제비는 그냥 딱딱하게끔 이렇게 말아서 뜯어 놓지 못해. 그저 '흘싹허게' 말아서 숟가락으로 톡톡톡 떠놓지.) 25 // ᄒᆞᆯ 흘싹헤사 맛이 나주. 게난, 경 허영 헙니다게, 경.(조금 '흘싹헤사' 맛이 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렇게.) 32 [덕수, 태흥]

흘탁탁: 물기가 많아 끈기가 없이 줄줄 흐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 비가 오민 산딋칩이난 비나 오민게 흘탁탁 헤근에.(비가 오면 밭볏짚이니까 비나 오면 '흘탁탁' 해서.) 04 // 국이 잘못 끓리민 흘탁탁.(국이 잘못 끓이면 '흘탁탁'.) 23 [고성, 온평]

흘탁허다: 사물이 물렁물렁해서 단단하지 못하거나, 반죽이 무른 상태를 말한다. // ᄉᆞᆲ앙 다 흘탁, 다 흐린 거난 막 다 흘탁탁허주.(삶아서 다 '흘탁', 다 차진 거니까 막 다 '흘탁탁허주'.) 23 // 그자 ᄀᆞ루 흘탁허게시리 헤근에 그자 그 ᄆᆞ물저베기 ᄒᆞ는 식으로 ᄆᆞᆯ아근에 흘탁하게 헹 먹엇주게.(그저 가루 '흘탁허게시리' 해서 메밀 수제비하는 식으로 말아서 '흘탁하게' 해서 먹었지.) 24 [세화, 온평]

흥그랑허다: 묽은 것에 건더기는 얼마 없고 물이 많다는 의미이다. // 훌트멍 허난 거죽이영 쏙이영 다 나와옵주게. 게난 흥그랑허게 대만 남아. 대 저 속만, 중간 껍질광. 게믄 그걸 헹은에 ᄌᆞᆯ게 다 쏙 허믄 물에 다 시쳥, 시치믄 그게 저 깨끗허게 하양케 나옵니다게.(훑으면서 하니까 거죽이랑 속이랑 다 나오지요. 그러니까 '흥그랑허게' 대만 남아. 대 저 속만, 중간 껍질하고. 그러면 그걸 해서 잘게 다 속 하면 물에 다 씻어서, 씻으면 그게 저 깨끗하게 하얗게 나옵니다.) 28 [구엄]

흥글락: 나사 따위가 단단하게 조이지 않아 중심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우리 고모ᄀᆞ란 ᄀᆞᆫ지 말렌 헤도 아이 ᄀᆞᆯ앙 젼딜 수가 엇주게. 돌 지둘라

져 놓고 이 풀은 흥글락.(우리 고모보고 말하지 말라고 해도 안 말하고 견딜 수가 없지. 돌 지질러져 놓고 이 팔은 '흥글락'.) 26 [신창]

흥창흥창허다: 소라 따위가 많이 놓인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 해삼도 소라영 놓면은 소라영 소라가 힐 때마다 그 흥창흥창허민 그 해삼도 드아리에 그 껍데기.(해삼도 소라랑 넣으면 소라랑 소라가 '힐' 때마다 그 '흥창흥창허민' 그 해삼도 등때기에 그 껍데기.) 05 [표선]

흥창흥창허다: 조 이삭이 많이 달려있는 모양을 흉내낸 말이다. // 경허민 존 밧뒨 허민 고고리가 흥창흥창허고.(그러면 좋은 밭엔 하면 이삭이 '흥창흥창허고'.) 13 [삼달]

희뚝멀룩: 색이 희고 멀건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 똥겡이는 또 희뚝멀룩 희뚝멀룩헌 거 젤 우에 잇는 거.('똥겡이'는 또 '희뚝멀룩' '희뚝멀룩헌' 거 젤 위에 있는 거.) 23 [온평]

희뜩희뜩허다: 희읍스름한 얼룩이 여기저기 보여 깔끔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 감 들일 때 오그라진 거 엇이 바짝 페우민 발멍도 바짝 오그라진디 희뜩희뜩헌 디 엇이 잘뒈곡.(감물 들일 때 오그라진 거 없이 바짝 펴면 바래면서 바짝 오그라진 데 '희뜩희뜩헌' 데 없이 잘되고.) 15 [수망]

흰꿰: 색깔이 희어서 붙은 참깨 이름이다. // 이제난 흰꿰가 나왓지 그때 당시엔 흰꿰는 없었어.(이제니까 '흰꿰'가 나왔지 그때 당시엔 '흰꿰'는 없었어.) 01 [도련]

흰청충이: 흰색 털과 검은색 털 가운데 흰색 털이 더 많이 섞인 총이말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 똑 이 노리 색깔 모냥으로 흰 털 박아지고 검은털 박아지고, 게난 청충이도 두 가지라. 먹청총이 잇고. 흰청충이 잇고 청충이 잇고.(똑 이 노루 색깔 모양으로 흰 털 박히고 검은 털 박히고, 그러니까 '청충이'도 두 가지야. '먹청총이' 있고. '흰청충이' 있고 '청충이' 있고.) 14 [성읍]

히노기나무: 일본어 'ひのき'로 편백나무 또는 노송나무의 일본어이다. '히노끼'라고도 발음한다. // 히노기나무를 한라산에 가면은 허곡 몽클은 저 무신 몽클이엔 허더라마는.('히노기나무'를 한라산에 가면 하고 쟁깃술은 저 무슨 쟁깃술이라고 하더라마는.) 23 [온평]

히노끼: 일본어 'ひのき'로 편백나무 또는 노송나무의 일본어이다. // 요새는 히노끼가 그 목욕탕에 가면 히노끼로 된 목욕탕도 잇어. 그건 잘 썩지도 않주.(요새는 '히노끼'가 그 목욕탕에 가면 '히노끼'로 된 목욕탕도 있어. 그건 잘 썩지도 않지.) 27 [옹포]

히라스: 일본어 'ひらまさ(히라마사)'의 잘못된 말이다. 바다 생선인 부시리를 말한다. // 훼 떠당 뭐 저 먹는 건 뭐 저 아덜덜 가근엥에 어떤 땐 데령강도 먹곡 떠온 거 보민 뭐 사시미, 사미미 떵 왕은에 저 이건, 이건 뭐 방어우다, 이건 뭐 히라스우다, 허멍 허여근에 허영 떵 옵니다.(회 떠다가 뭐 저 먹는 건 뭐 저 아들들 가서 어떤 땐 데려가서도 먹고 떠온 거 보면 뭐 회, 회 떠서 와서 저 이건, 이건 뭐 방업니다, 이건 뭐 '히라스'입니다, 하면서 하고 해서 떠서 옵니다.) 32 [덕수]

히린개발시리쏠: ‘히린개발시리’는 차진 좁쌀의 품종의 하나이다. ‘히린-’은 지역에 따라서 ‘흐린-’이라고도 하는데, 좁쌀 따위의 앞에 붙어서 ‘차진-’의 의미이다. ‘개발시리’은 조 품종의 한 가지로, 조 이삭 끄트머리가 개 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 뭐 히린 걸로도 쒀 먹고, 모힌 걸로도 쒕 먹고 노랑좁쏠, 모인 좁쏠로도 헤영 먹고 히린개발시리쏠로도 헤영 먹곡.(뭐 차진 걸로도 쒀 먹고, 메진 걸로도 쒀서 먹고 ‘노랑좁쏠’, 메좁쌀로도 해서 먹고 ‘히린개발시리쏠’로도 해서 먹고.) 01 [도련]

히마바라: 일본에서 온 말로, 감자의 종류이다. // 지슬도예, 지슬이 히마바라여 저 옛날은 히마바라여, 뒈지마여 ᄯᅳ시 그 옛날 토종은 무신거옌 ᄒᆞ느니, 경 ᄒᆞ고양.(감자도요, 감자가 ‘히마바라’며, 저 옛날은 ‘히마바라’며, ‘뒈지마’며 다시 그 옛날 토종은 무엇이라고 하느니, 그렇게 하고요.) 08 // 그 지슬 종류로 게난 그 세 가지, 게난 히마바라도 저거 일본 거고 저.(그 감자 종류로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그러니까 ‘히마바라’도 저거 일본 거고 저.) 08 [동광]

히어뜩허다: 이것저것 뒤섞여 어지럽다는 뜻이나 여기서는 ‘허튼’의 의미로 쓰였다. // 아이고, 신칙이 높은 거, 사둔 높은 거 우리가 이 사투리로 경 ᄀᆞᆯ앙 웃어낫저, 웃어난. 아이고 우습다. 히어뜩헌 말 ᄀᆞᆯ아졋저.(아이고, 신 뒤축 높은 거, 사돈 높은 거 우리가 이 사투리로 그렇게 말해서 웃었었지, 웃었었어. 아이고 우습다. ‘히어뜩헌’ 말했네.) 02 [선흘]

히여뜩허다: ‘이것저것 뒤섞여 어지럽다’는 의미이다. // 잡풀 히여뜩헌 거 데오리가 주장으로 그자.(잡풀 ‘히여뜩헌’ 거 귀리가 주장으로 그저.) 16 // 그냥 무신 히여뜩헌 저 보리낭 ᄀᆞ뜬 거 아니.(그냥 무슨 ‘히여뜩ᄒᆞᆫ’ 저 보릿대 같은 거 아니.) 16 // 그 감저 ᄀᆞ루 거튼 거 보리 거튼 거 막 히여뜩헌 거 허영 그런 술을 허여. 경허여근에 허곡.(그 고구마 가루 같은 거 보리 같은 거 아주 ‘히여뜩헌’ 거 해서 그런 술을 해. 그래서 하고.) 26 [신창, 하원]

히지렁허다: 쓸데 없다, 어지럽다는 뜻인데 ‘시지그렁’이라고도 한다. // 절완지 ᄀᆞ뜬 거, 히지렁헌 그런 거 나.(바랭이 같은 거, ‘히지렁헌’ 그런 거 나.) 24 [세화]

힐콩: 콩의 한 종류이다. // 요즘에는 힐콩이여, 뭐여, 준자리여. 콩도 뭐 말할 나위가 엇수다.(요즘에는 ‘힐콩’이다, 뭐다, ‘준자리’다. 콩도 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03 [송당]

ᄒᆞ르기: 며칠 전 어느 날이다. // 아이덜 왐수가게. 오지도 아녀는디. 어떠난 요 ᄒᆞ르기 처냑은 완, 요 그지게 ᄎᆞ냑인 완에.(아이들 오나요. 오지도 않는데. 어쩌다 요 ’ᄒᆞ르기’ 저녁은 와서, 요 그저께 저녁엔 와서.) 32 [덕수]

ᄒᆞᆨ사돈: 사혼을 한 사돈 지간을 흙에 묻었다고 해서 흙사돈이라고 한다. // ᄒᆞᆨ사돈은 땅에 묻어분 사름 강 허난 ᄒᆞᆨ사돈.(‘ᄒᆞᆨ사돈’은 땅에 묻어버린 사람 가서 하니까 ‘ᄒᆞᆨ사돈’.) 13 // 게난 귀신도 안 죽엉은에 안 좋는 사름은 안 좋곡, 좋는 사름은 좋곡 허는디 우리 방상엔 ᄆᆞᆫ딱 경헌 ᄒᆞᆨ사돈을 헤신디 안 허는 집인 안 허여.(그러

니까 귀신도 안 죽어서 안 좋은 사람은 안 좋고, 좋은 사람은 좋고 하는데 우리 친척엔 모두 그런 '흑사돈'을 했는데 안 하는 집은 안 해.) 13 [삼달]

흔: 넓미역 한 단을 헤아리는 우도 지역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 거기에 기관을 헤서 발동기로 허니까 만약 이제 그 열 흔을 놓게 뒈문, 한 세 흔을 벳 찍을 때 주고.(거기에 기관을 해서 발동기로 하니까 만약 이제 그 열 '흔'을 놓게 되면, 한 세 '흔'을 배 깃을 떼 주고.) 22 [우도]

흔 방울: 한 방울 정도 라는 말로 '아주 조금'을 뜻한다. // 신 사름덜 먹엇주. 엇인 사름 좁썰도 엇언 못 먹엇어. 그자 감저나 흔 방울[빵울] 놓곡 헤영덜.(있는 사람들 먹었지. 없는 사람 좁쌀도 없어서 못 먹었어. 그저 고구마나 '흔 방울' 넣고 해서들.) 14 [성읍]

흔 장: 오일장이 한 번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오일 동안의 의미이다. // 우린 이거 흔 장에이, 두 장 울엉 즘진탕건 세 개허민 막 바빠. 밤이도 즘도 못 자고.(우린 이거 '흔 장'에, 두 장 '울엉' '즘진탕건' 세 개하면 막 바빠. 밤에도 잠도 못 자고.) 11 [함덕]

흔다리인다리: 아이들이 하는 다리를 세며 노는 놀이, 혹은 놀이에서 불리는 노래이다. // 이런 다리덜 코찡히 놓민 흔다리인다리. 개청 대청 원님 수설 횡경 밧디 지둥에 쳐.(이런 다리들 가지런하게 놓으면 '흔다리인다리'. '개청 대청 원님 수설 횡경 밧디' 기둥에 쳐.) 06 // 흔다리인다리 헤근에 서로가 다리덜 영 놔 가지고서 흔 다리 두 다리 뭐 헤 가지고서 마지막에 뭐인가 딱 허게 가근에 끝까지 안 가면은 거 거세기.('흔다리인다리' 해서 서로가 다리들 이렇게 놔 가지고서 한 다리 두 다리 뭐 해 가지고서 마지막에 뭐인가 딱 하게 가서 끝까지 안 가면 거 거시기.) 12 // 그건 요영헹 앚앙 너이, 둘리 영 맞닿앙 허민 흔다리인다리 허당 똑 허민 요거 아졍 헤뒁 또 허곡.(그건 요렇게 앉아서 넷이, 둘이 이렇게 맞닿아서 하면 '흔다리인다리' 하다가 꼭 하면 요거 가져서 해두고 또 하고.) 13 [남원, 삼달, 한동]

흔말들이: 떡을 할 때 한 말의 쌀이 들어가는 크기의 시루를 말한다. // 흔말들이, 두말들이, 가웃들이, 닷뒈떼기도 잇고. 흔뒈들이도 잇고. 다 잇어.('흔말들이', '두말들이', '가웃들이', '닷뒈떼기'도 있고. '흔뒈들이'도 있고. 다 있어.) 01 [도련]

흔ᄆᆞ를: 한 번 바르르 끓어오르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표준어의 한소끔에 대응한다. // 그거 놩 흔ᄆᆞ를 궨 후에.(그거 넣어서 '한ᄆᆞ를' 끓인 후에.) 30 [노형]

흔엇다: '한없이'와 형태가 비슷하지만 '이렇다 하게 따로, 또는 그다지 다르게, 별로'의 의미로 사용된다. // 그냥 콩만 벨도로 흔엇이 갈 갈아보진 안 헤서.(그냥 콩만 별도로 '흔엇이' 갈 갈아보지는 안 했어.) 16 [하원]

흔직: 한 숟가락의 의미로 아주 조금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진 제주어이다. // ᄀᆞ루 흔직 놓고 풋 영영 중간에 놓고.(가루 '흔직' 넣고 팥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넣고.) 16 [하원]

홀츤일: 살아가면서 치러야할 혼례 따위의 큰일을 말한다. 달리 '헐찬일'이라고도 한다. //
헐 ᄎᆞ롄 일 다 헷젠 말이주게. 언니, 경 헤도 홀츤일 다 헷수게. 경.(할 차례의 일 다 했다는 말이지. 언니, 그렇게 해도 '홀츤일' 다 했습니다. 그렇게.) 29 [외도]

발간등록번호 79-6500000-000659-01

제주어 구술 주석 자료집

발행인 김순자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3층
전화 064-726-5623
제작처 한그루 onetreebook.co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1길 21
전화 064-723-758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혀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비매품

제주어 구술 주석 자료집

제주학연구센터 편

